

1
1
1
1

아침 7시 35분, 이시가미는 평소처럼 연립 주택을 나서ㄴ다.

아침 7時 35分, 이時加味는 平素처럼 聯立 住宅을 나섰다.

아침 7시 35분, 이시가미는 평소처럼 연립 주택을 나섰다.

朝 7時 35分、石神はいつものように連立住宅を出た。

3월로 접어들어ㄴ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3月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3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바람이 꽤 차갑다.

3月に入ったがまだまだ風がかなり涼しい。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어ㄴ다.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었다.

머플러에 턱을 파묻고 걸었다.

マフラーにあごを埋めて歩いた。

큰길로 나서기 전에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주ㄴ다.

큰길로 나서기 前に 自転車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준다.

큰길로 나서기 전에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힐끔 눈길을 준다.

大きな道に出る前に自転車据え置きの方へヒルヒム目を与える。

자전거가 몇 대 있어,,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녹색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다。

自轉車が 몇 代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綠色 自轉車는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가 몇 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찾는 녹색 자전거는 보이지 않는다。

自転車がいくつかあったが、その中で彼が探している緑の自転車は見えない。

남쪽으로 20미터 정도 걸자 넓은 ㄴ 도로가 나와,,다。

南쪽으로 20미터 程度 걸자 넓은 道路가 나왔다。

남쪽으로 20미터 정도 걸자 넓은 도로가 나왔다。

南に 20 メートルほど歩くと広い道路が出た。

신오하시 거리다。

新吳何時 거리다。

신오하시 거리다。

新大橋通りだ。

이곳에서 왼쪽, 즉 동쪽으로 가면 에도가와구이고 서쪽으로 향하면 니호 ㄴ 바시가 나오 ㄴ다。

이곳에서 왼쪽, 卽 東쪽으로 가면 에도가와구이고 西쪽으로 向하면 니혼바
時가 나온다。

이곳에서 왼쪽, 즉 동쪽으로 가면 에도가와구이고 서쪽으로 향하면 니혼
바시가 나온다。

ここから左、つまり東に行くと江戸川区で西に向かうと日本橋が出る。

니혼바시 바로 앞에는 스미다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신오하시교
다。

니혼바시 바로 앞에는 스미다江이 흐르고 그 江을 건너는 다리가 新吳何時
교다。

니혼바시 바로 앞에는 스미다강이 흐르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신오하
시교다。

日本橋のすぐ前には隅田川が流れ、その川を渡る橋が新大橋橋だ。

이시가미가 직장으로 가려면 이대로 곧장 남하하는 것이 최단 거리다。

이時加味가 職場으로 가려면 이대로 곧장 南下하는 것이 最短 거리다。

이시가미가 직장으로 가려면 이대로 곧장 남하하는 것이 최단 거리다。

石神が職場に行くには、このまままっすぐ南下するのが最短距離だ。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기요스미 정원’이라는 공원에 닿게 되 ㄴ 다。

몇百 미터만 걸어가면 ‘기요스미 庭園’이라는 公園에 닿게 된다。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기요스미 정원’이라는 공원에 닿게 된다。

数百メートルだけ歩いていくと「清住庭園」という公園に届くことになる。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의 직장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私立學校가 그의 職場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의 직장이다。

その直前にある私立学校が彼の職場だ。

그는 거기서 수학을 가르친다。

그는 거기서 數學을 가르친다。

그는 거기서 수학을 가르친다。

彼はそこで数学を教える。

눈앞의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이시가미는 오른쪽으로 굽어들어
신오하시교를 향해 걸어갔다。

눈앞의 信號燈이 빨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이時加味는 오른쪽으로 굽어
들어 新吳何時教를 향해 걸었다。

눈앞의 신호등이 빨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이시가미는 오른쪽으로 굽어
들어 신오하시교를 향해 걸었다。

目の前の信号灯が赤に変わるのを見て石神は右に曲がって新大橋橋に向かって歩いた。

맞바람에 코트가 펄럭여갔다。

맞바람에 코트가 펄럭였다.

맞바람에 코트가 펄럭였다.

向かいにコートがしぶきだった。

그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리 ㄴ 채 발걸음을 옮겨 ㄴ다.

그는 兩손을 胡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옮겼다.

彼は兩手をオーストラリアのポケットに差し込み、体を丸めたまま足を運んだ。

두꺼우 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

厚い雲が空を覆っている。

그 하늘빛이 비쳐 스미다 강도 칙칙하게 가라앉아 ㄴ다.

그 하늘빛이 비쳐 스미다 強盜 칙칙하게 가라앉았다.

그 하늘빛이 비쳐 스미다 강도 칙칙하게 가라앉았다.

その空の光が映り、隅田の強さがくすんで沈んだ。

작으 ㄴ 배 하 ㄴ 척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ㄴ다.

작은 배 한 척이 上流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작은 배 한 척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小さな船一隻が上流にさかのぼっていた。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시가미는 신오하시교를 건너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時加味는 新吳何時教를 건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시가미는 신오하시교를 건넜다.

その姿を眺めながら石神は新大橋橋を渡った。

다리를 건너 ㄴ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ㄴ다.

다리를 건넌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 階段으로 내려갔다.

다리를 건넌 그는 다리 끝자락에 나 있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橋を渡った彼は橋の端にある階段に降りた。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강을 따라 걷기 시작해ㄴ다.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江을 따라 걷기 始作했다.

그리고 다리 밑을 가로질러 스미다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そして橋の下を横切って隅田川沿いを歩き始めた。

강 양쪽 기슭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姜 兩쪽 기슭에는 散策路가 助成돼 있다.

강 양쪽 기슭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川の両麓には遊歩道が造成されている。

하지만 가족끼리, 또는 커플이 산책을 즐기는 곳은 저 앞 기요스바시 근처에서 부터이고 이 신오하시교 근처는 휴일에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ㄴ다.

하지만 家族끼리, 또는 커플이 散策을 즐기는 곳은 低 앞 기요스바時 近處 에서부터이고 이 新吳何時教 近處는 休日에도 찾는 사람이 別로 없었다.

하지만 가족끼리, 또는 커플이 산책을 즐기는 곳은 저 앞 기요스바시 근처에서부터이고 이 신오하시교 근처는 휴일에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 다。

だが、家族同士、またはカップルが散歩を楽しむ所は、あの前の清水橋の近くからであり、この新大橋橋の近くは休日にも訪れる人があまりなかった。

그 이유는 이곳에 와 보면 금방 아^ㄴ 수 있다.

그 理由는 이곳에 와 보면 今方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その理由はここに来てみるとすぐ分かる。

파라^ㄴ 비닐 시트로 뒤덮이^ㄴ 노숙자 주거가 죽 늘어서 있는 것이다.

파란 비닐 시트로 뒤덮인 露宿者 住居가 죽 늘어서 있는 것이다。

파란 비닐 시트로 뒤덮인 노숙자 주거가 죽 늘어서 있는 것이다。

青いビニールシートで覆われたホームレス住宅がお粥並んでいるのだ。

그 바로 위를 고속도로가 지나가므로 비바람을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르다。

그 바로 위를 高速道路가 지나가므로 비바람을 避하기에 더없이 좋은 場所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바로 위를 고속도로가 지나가므로 비바람을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そのすぐ上を高速道路が通り過ぎるので雨風を避けるのにもなく、良い場所だからかもしれない。

그 증거로, 강 반대편에는 파랗 비닐 오두막이 하나도 없어다。

그 證據로, 姜 反對便에는 파란 비닐 오두幕이 하나도 없었다。

그 증거로, 강 반대편에는 파란 비닐 오두막이 하나도 없었다。

その証拠として、川の反対側には青いビニール小屋が一つもなかった。

물론 그들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는 편이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勿論 그들 나름대로 集團을 形成하는 便이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事情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집단을 형성하는 편이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もちろん、それなりに集團を形成するほうが生きていく方が良いという事情

もあるだろう。

이시가미는 그 파란 비닐 오두막들 앞을 덩덤히 걸어가ㄴ다。

이時加味는 그 파란 비닐 오두幕들 앞을 덩덤히 걸어갔다。

이시가미는 그 파란 비닐 오두막들 앞을 덩덤히 걸어갔다。

石神はその青いビニールの小屋の前をおかしく歩いた。

비닐 오두막은 커 봐야 겨우 사람 키만 한 높이고 개중에는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ㄴ다。

비닐 오두幕은 커 봐야 겨우 사람 키만 恨 높이고 個中에는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다。

비닐 오두막은 커 봐야 겨우 사람 키만 한 높이고 개중에는 허리 높이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다。

ビニールキャビンは大きく見てこそやっと身長だけ高め、開中には腰高さしかないのもあった。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자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리ㄴ 것이다。

오두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箱子라고 부르는 便이 더 어울릴 것이다。

오두막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자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릴 것이다。

小屋というよりはむしろ箱と呼ぶほうがより似合うだろう。

그렇지만 잠만 자는 공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ㄴ지도 모르ㄴ다。

그렇지만 잠만 자는 空間이라면 그것으로 充分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잠만 자는 공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でも寝る寝る空間ならそれで十分かもしれない。

오두막, 또는 상자 옆에는 약속이라도 하 ㄴ 듯 빨랫줄이 매여 있어 그곳이 생활
공간이 ㅁ을 말해 주어 ㅅ다.

오두幕, 또는 箱子 옆에는 約束이라도 한 듯 빨랫줄이 매여 있어 그곳이
生活空間임을 말해 주었다.

오두막, 또는 상자 옆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빨랫줄이 매여 있어 그곳이
생활공간임을 말해 주었다.

小屋、または箱の横には約束でもしたように洗濯物が結ばれていて、そこが
生活空間であることを語ってくれた。

제방 끝 난간에 기대어 이를 닦는 남자가 있어 ㅅ다.

제房 끝 欄干에 기대어 이를 닦는 男子가 있었다.

제방 끝 난간에 기대어 이를 닦는 남자가 있었다.

堤防の端の手すりにもたれて歯を磨く男がいた。

이시가미가 자주 보는 남자다.

이時加味가 자주 보는 男子다.

이시가미가 자주 보는 남자다.

石神がよく見る男だ。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백발 섞인 머리를 뒤로 묶어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白髪 섞인 머리를 뒤로 묶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백발 섞인 머리를 뒤로 묶었다.

60 をぶら下げた年齢で白髪混じった頭を後ろに結んだ。

아마 일하 ㄹ 마음이 없으 ㄹ 것이다.

아마 일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아마 일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おそらく働く心がないでしょう。

육체노동이라도 하 ㄹ 생각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肉體勞動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육체노동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않는다.

肉体労働でもやるつもりならこの時間にこんなにぶら下がらない。

그런 일의 알선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의 斡旋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의 알선은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そんなことの斡旋は夜明けに行われるからだ。

또한 공공 직업 안정소에 가_ㄴ 계획도 없으_ㄴ 것이다。

또한 公共 職業 安定소에 갈 計劃도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 직업 안정소에 갈 계획도 없을 것이다。

また、公共職業安定所に行く計画もないだろう。

가서 일자리를 소개 받는다 하_ㄴ들 저런 봉두난발로 면접 자리에 나가_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서 일자리를 紹介 받는다 한들 저런 峯두亂發로 面接 자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서 일자리를 소개 받는다 한들 저런 봉두난발로 면접 자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行って仕事を紹介してもらう限り、あんな封頭乱発で面接席に出ることはで
きない奴だ。

물론 저 나이에 일자리를 소개 받으_ㄴ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勿論 低 나이에 일자리를 紹介 받을 可能性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물론 저 나이에 일자리를 소개 받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겠지만。

もちろんあの年齢で仕事を紹介してもらえる可能性もゼロに近いだろうが。

자신의 보금자리 옆에 잔뜩 쌓이_ㄴ 캔을 찌부러뜨리고 있는 남자도 있다。

自身の 보금자리 옆에 잔뜩 쌓인 캔을 찌부러뜨리고 있는 男子도 있다。

자신의 보금자리 옆에 잔뜩 쌓인 캔을 찌부러뜨리고 있는 남자도 있다.

自分の宝箱の隣にたっぷり積もった缶をつぶしている男もいる。

이시가미는 이 길을 오가면서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봐ㄴ다。

이時加味는 이 길을 오가면서 그런 光景을 여러 番 봤다。

이시가미는 이 길을 오가면서 그런 광경을 여러 번 봤다。

石神はこの道を行き来しながらそのような光景を何度も見た。

그래서 혼잣속으로 그에게 ‘깡통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기도 해ㄴ다。

그래서 魂잣속으로 그에게 ‘깡筒男’이라는 別名을 붙여 주기도 했다。

그래서 혼잣속으로 그에게 ‘깡통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기도 했다。

それで、ひとりの中で彼に'カントンナム'というニックネームを付けてくれたりもした。

‘깡통남’은 50세 전후로 보여ㄴ다。

‘깡筒男’은 50 歳 前後로 보였다。

‘깡통남’은 50세 전후로 보였다。

「カントンナム」は 50 歳前後と見られた。

생활에 필요하ㄴ 물건들을 웬만큼 갖추어ㄴ고, 자전거도 있어ㄴ다。

生活에 必要な 物件들을 웬만큼 갖추었고, 自轉車도 있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웬만큼 갖추었고, 자전거도 있었다.

生活に必要なものを何とか揃え、自転車もあった。

아마도 캔을 모으는 때 자전거가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마도 캔을 모을 때 自轉車가 起動性を發揮할 것이다.

아마도 캔을 모을 때 자전거가 기동성을 발휘할 것이다.

おそらく缶を集めると自転車が機動性を発揮するだろう。

이 집단 거주 지역의 맨 끝, 거기서도 좀 더 후미진 이곳이 여기서는 특등석
이는데,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깡통남’은 이 집단의 최고참이
는 것이라고 이시가미는 짐작해냈다。

이 集團 居住 地域의 맨 끝, 거기서도 좀 더 후미진 이곳이 여기서는 特等
석일 텐데,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깡통男’은 이 集團의 最古參
일 것이라고 이時加味는 斟酌했다。

이 집단 거주 지역의 맨 끝, 거기서도 좀 더 후미진 이곳이 여기서는 특
등석일 텐데,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깡통남’은 이 집단의 최고
참일 것이라고 이시가미는 짐작했다。

この集團居住地域の一番端、そこでももう少し後陣がここは特等席であるは
ずだが、そんな席を占めたものとみなして「カントンナム」はこの集團の最
高参戦だろうと石神は推測した。

파라 ㄴ 비닐 시트 주거 대열이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이 ㄴ 다。

파란 비닐 시트 住居 隊列이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벤치에 앉아 있
는 한 男子가 보인다。

파란 비닐 시트 주거 대열이 끝나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벤치에 앉아 있
는 한 남자가 보인다。

青いビニールシート住宅隊列が終わるところでもう少し行くとベンチに座っ
ている一人の男が見える。

원래 베이지색이어 ㄴ 코트가 낡고 더러워져 회색에 가까워 보여 ㄴ 다。

元來 베이지色이었을 코트가 낡고 더러워져 灰色에 가까워 보였다。

원래 베이지색이었을 코트가 낡고 더러워져 회색에 가까워 보였다。

もともとベージュ色だったコートが古くて汚れて灰色に近く見えた。

코트 밑에는 재킷을 입어 ㄴ 그 속에는 와이셔츠다。

코트 밑에는 재킷을 입었고 그 속에는 와이셔츠다。

코트 밑에는 재킷을 입었고 그 속에는 와이셔츠다。

コートの下にはジャケットを着て、その中にはワイシャツだ。

넥타이는 아마도 코트 호주머니에 들어 ㄴ 거라고 이시가미는 추측해 ㄴ
다。

넥타이는 아마도 코트 호주머니에 들었을 거라고 이時加味는 推測했다.

넥타이는 아마도 코트 호주머니에 들었을 거라고 이시가미는 추측했다.

ネクタイはおそらくコートのポケットに聞いただろうと石神は推測した。

이시가미는 그에게 ‘기사’라는 이름을 붙여ㄸ다.

이時加味는 그에게 ‘技士’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시가미는 그에게 ‘기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石神は彼に「騎士」という名前をつけた。

어제 공업 계통의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아ㄸ기 때문이다.

어제 工業 系統의 雜誌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제 공업 계통의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昨日工業系統の雑誌を読んでいる様子を見たからだ。

짧게 자르ㄴ 머리에 수염도 말끔히 깎아ㄸ다.

짧게 자른 머리에 鬚髯도 말끔히 깎았다.

짧게 자른 머리에 수염도 말끔히 깎았다.

短く切った髪にひげもすっきり削った。

그러니까 ‘기사’는 아직 재취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ㄴ 것이다.

그러니까 ‘技士’는 아직 再就業의 길을 拋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사’는 아직 재취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だから'記事'はまだ再就職の道をあきらめていないのだ。

그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우선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于先 自尊心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가 일자리를 찾으려면 우선 자존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彼が仕事を探すためにはまずプライドを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이시가미가 ‘기사’를 처음 보낸 것은 열흘 쯤 전이었었다.

이時加味가 ‘技士’를 처음 본 것은 열흘 쯤 前이었다.

이시가미가 ‘기사’를 처음 본 것은 열흘 쯤 전이었다.

石神が「騎士」を初めて見たのは 10 日ほど前だった。

‘기사’는 아직 이곳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었다.

‘技士’는 아직 이곳 生活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기사’는 아직 이곳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記事」はまだここの生活に慣れていないようだった。

파라낸 비닐 시트 생활과는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했었다.

파란 비닐 시트 生活과는 線を 긋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파란 비닐 시트 생활과는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青いビニールシートの生活とは線を引いたくなるように見えた。

그러면서도 노숙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순되 ㄴ 현실에 어찌하 ㄴ 바를 모르고 저런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露宿者로 살아가야 하는 矛盾된 現實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런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노숙자로 살아가야 하는 모순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런 곳에 있는 것이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ホームレスと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矛盾した現実は何をするのか分からずあんな所にあるのだ。

이시가미는 스미다강을 따라 계속 걸어 ㄴ다。

이時加味는 스미다江을 따라 繼續 걸었다。

이시가미는 스미다강을 따라 계속 걸었다。

石神は隅田川沿いを歩き続けた。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개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인을 만나 ㄴ다。

氣요스바時敎 바로 앞에서 개 세 마리를 데리고 散策하는 老婦人을 만났
다。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개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인을 만났
다。

清橋橋のすぐ前で犬三匹を連れて散歩する老婦人に会った。

개는 미니어처다크스훈트로 각각 빨강, 파랑, 분홍 목줄을매고 있다.

개는 미니어처닥스훈트로 各各 빨강, 파랑, 粉紅 목줄을매고 있다.

개는 미니어처닥스훈트로 각각 빨강, 파랑, 분홍 목줄을매고 있다.

犬はミニチュアダックスフントでそれぞれ赤、青、ピンクの首を結んでいる。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이시가미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ㄴ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女는 이時加味를 알아보고 微笑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이시가미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近くに近づくと、彼女は石神を調べて笑顔で軽く頭を下げた。

그도 고개를 숙여 답하 ㄴ 후 “안녕하세요。

그도 고개를 숙여 答한 後 “安寧하세요。

그도 고개를 숙여 答한 후 “안녕하세요。

彼も頭を下げて答えた後、「こんにちは。

”라고 말을 건네ㄴ다。

”라고 말을 건넸다。

”라고 말을 건넸다.

」と話しかけた。

“오늘 아침은 꽤 춥네요.

“오늘 아침은 꽤 춥네요.

“오늘 아침은 꽤 춥네요.

「今朝はかなり寒いですね。

“정말 그럴군요.

“正말 그럴군요.

“정말 그럴군요.

「本当にそうですね。

그는 얼굴을 찡그려 보여_ㄴ다.

그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그는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彼は顔をゆがめたように見えた。

노부인 옆을 지나치려는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老婦人 옆을 지나치려는데 “操心해서 다녀와요.

노부인 옆을 지나치려는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老婦人の隣を通り過ぎようとするのに「気をつけて行ってきます。

”라고 그녀가 덧붙이_ㄴ다。

”라고 그女가 덧붙인다。

”라고 그녀가 덧붙인다。

」と彼女が付け加える。

예, 하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해_ㄴ다。

예, 하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했다。

예, 하고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했다。

はい、と彼は頭を大きくうなずいた。

이시가미는 그녀가 편의점 봉지를 드_ㄴ 모습을 보_ㄴ 적이 있다。

이時加味는 그女가 便宜店 封紙를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시가미는 그녀가 편의점 봉지를 든 모습을 본 적이 있다。

石神は彼女が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袋を持った姿を見たことがある。

봉지 속 내용물은 샌드위치 같아_ㄴ다。

封紙 속 内容物은 샌드위치 같았다。

봉지 속 내용물은 샌드위치 같았다。

袋の中の内容物はサンドイッチのようだった。

아마도 아침 식사였으ㄴ 것이다.

아마도 아침 食事였을 것이다.

아마도 아침 식사였을 것이다.

おそらく朝食だったでしょう。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이ㄴ 것이라고 짐작해ㄴ 다.

그래서 혼자 사는 女子일 것이라고 斟酌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だから一人暮らしの女だろうと推測した。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집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다.

家はここではそれほど遠くない。

전에 그녀가 샌들 신은 모습을 보아ㄴ 던 것이다.

前に 그녀가 샌들 신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전에 그녀가 샌들 신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前に彼女がサンダル履いた姿を見たのだ。

샌들을 신고서는 차를 운전하ㄴ 수 없다.

샌들을 신고서는 車를 運轉할 수 없다。

샌들을 신고서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サンダルを届けては車を運転できない。

인생의 반려를 여의고 요 근처 아파트에서 개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으 ㄴ 것이
다。

人生の 伴侶를 여의고 요 近處 아파트에서 개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반려를 여의고 요 근처 아파트에서 개 세 마리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人生の伴侶を汝矣高ヨ近くのアパートで犬三匹と一緒に暮らしているだろ
う。

집이 꽤 넓지 않으 ㄴ 까。

집이 꽤 넓지 않을까。

집이 꽤 넓지 않을까。

家がかなり広くないだろうか。

그렇지 않고서는 개를 세 마리나 기르 ㄴ 수 없으 ㄴ 테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개를 세 마리나 기를 수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개를 세 마리나 기를 수 없을 테니까。

そうでなければ犬を三匹も飼えないから。

개 세 마리 때문에 더 작으ㄴ 집으로 이사하ㄴ 수도 없다.

개 세 마리 때문에 더 작은 집으로 移徙할 수도 없다.

개 세 마리 때문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

犬三匹のため、より小さな家に引っ越すこともできない。

은행 융자금은 다 갚아ㅆ으ㄴ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많이 드ㄴ다.

銀行 融資金은 다 갚았을지 모르지만 管理費가 많이 든다.

은행 융자금은 다 갚았을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많이 든다.

銀行融資金は全部返済したかもしれないが、管理費が多い。

그래서 그녀는 절약해야 하ㄴ다.

그래서 그女는 節約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절약해야 한다.

それで彼女は節約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 겨울, 그녀는 마침내 미장원에 발길을 끊어ㅆ다.

李 겨울, 그女는 마침내 美粧院에 발길을 끊었다.

이 겨울, 그녀는 마침내 미장원에 발길을 끊었다.

この冬、彼女はついに美容院に足を止めた。

염색도 하지 않는다。

染色도 하지 않는다。

염색도 하지 않는다。

染色もしない。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이시가미는 계단을 올라갔다。

氣よスバ時教 바로 앞에서 이時加味는 階段을 올랐다。

기요스바시교 바로 앞에서 이시가미는 계단을 올랐다。

清橋橋のすぐ前で石神は階段を上がった。

학교로 가려면 여기서 다리를 건너야 한다。

學校로 가려면 여기서 다리를 건너야 한다。

학교로 가려면 여기서 다리를 건너야 한다。

学校に行くにはここで橋を渡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그러나 그는 反對 方向으로 걷는다。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しかし彼は反対方向に歩く。

잠시 후 ‘베 ㄴ 테 ㄴ 테이’라는 간판이 보여진다。

暫時 後 ‘벤텐테이’라는 看板이 보였다。

잠시 후 ‘벤텐테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しばらくすると「ベンテンテイ」という看板が見えた。

조그마 ㄴ 도시락 가게다。

조그만 도시락 가게다。

조그만 도시락 가게다。

小さなお弁当屋だ。

이시가미는 유리문을 열어ㅅ다。

이時加味는 琉璃門을 열었다。

이시가미는 유리문을 열었다。

石神はガラス扉を開いた。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来てください。

아! 안녕하세요?”

아! 安寧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ああ！こんにちは？」

카운터 안쪽에서 이시가미의 귀에 익은, 그리고 그의 기분을 늘 상쾌하게 해 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 안쪽에서 이時加味の 귀에 익은, 그리고 그의 氣分을 늘 爽快하게 해 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안쪽에서 이시가미의 귀에 익은, 그리고 그의 기분을 늘 상쾌하게 해 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カウンターの中から石神の耳に熟した、そして彼の気持ちをいつも爽やかにしてくれる声が聞こえた。

하야, 모자를 쓰, 하나오카 야스코가 웃고 있어왔다.

하얀 帽子를 쓴 하나오카 야스코가 웃고 있었다.

하얀 모자를 쓴 하나오카 야스코가 웃고 있었다.

白い帽子をかぶった花岡康子が笑っていた。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어왔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店内に他のゲストはなかった。

그것이 그를 가슴 두근거리게 해왔다.

그것이 그를 가슴 두근거리게 했다.

그것이 그를 가슴 두근거리게 했다.

それが彼に胸をドキドキさせた。

“저, 오늘의 도시락을……。

“저, 오늘의 도시락을……。

“저, 오늘의 도시락을……。

「私、今日のお弁当を……」 ... 。

“네, ‘오늘’ 하나요。

“네, ‘오늘’ 하나요。

“네, ‘오늘’ 하나요。

「はい、「今日」です。

감사하 ㅂ니다!”

感謝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녀가 밝은 ㅂ 목소리로 대답해 ㅆ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이시가미도
모르 ㅂ다。

그女가 밝은 목소리로 對答했지만, 어떤 表情을 짓고 있는지는 이時加味도

모른다。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이시가미도 모른다。

彼女が明るい声で答えたが、どんな表情をしているのかは石神も知らな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갑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ㄴ기 때문이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紙匣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갑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顔をまっすぐ眺められず、財布の中を覗いていたからだ。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 도시락 주문 말고 다른 이야기라도 꺼내 보ㄴ까 해
ㄴ지만 도무지 하ㄴ 말이 떠오르지 않아ㄴ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 도시락 注文 말고 다른 이야기라도 꺼내 볼까
했지만 도무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니 도시락 주문 말고 다른 이야기라도 꺼내 볼까
했지만 도무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すぐ隣に住む隣人なので、お弁当の注文ではなく、他の話でも取り出してみ
ようかと思ったが、まったく話す言葉が思い浮かばなかった。

돈을 지불하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날이 춥네요。

돈을 支拂할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날이 춥네요。

돈을 지불할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날이 춥네요。

お金を払う時が来てこそやっと「日が寒いですね。

”라고 말해 보아^ㄴ다。

”라고 말해 보았다。

”라고 말해 보았다。

」と言ってみた。

그러나 종알거리는 듯하^ㄴ 그 소리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소리
에 묻혀 버려^ㄴ다。

그러나 종알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門을 닫는 소
리에 묻혀 버렸다。

그러나 종알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서 문을 닫는 소
리에 묻혀 버렸다。

しかし呟くようなその音は、他の客が入ってきて扉を閉める音に埋もれてし
まった。

야스코의 주의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아^ㄴ다。

야스코의 主義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았다。

야스코의 주의도 그쪽으로 쏠리고 말았다。

ヤスコの注意もそちらに集まってしまった。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시가미는 가게를 나서^ㄴ다。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時加味는 가게를 나섰다。

도시락을 손에 들고 이시가미는 가게를 나섰다。

弁当を手にとって石神は店を出た。

그리고 이번에는말로 기요스바시교 쪽으로 향해ㄴ다。

그리고 이番에는말로 氣요스바時教 쪽으로 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말로 기요스바시교 쪽으로 향했다。

そして今回こそ清橋橋に向かった。

그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베 ㄴ 테 ㄴ 테이’ 때문이다。

그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벤텐테이’ 때문이다。

그가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벤텐테이’ 때문이다。

彼が道を離れるのはひたすら'ベンテンテー'のため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자 ‘베 ㄴ 테 ㄴ 테이’도 한가해져ㄴ다。

아침 出勤 時間이 지나자 ‘벤텐테이’도 閑暇해졌다。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자 ‘벤텐테이’도 한가해졌다。

朝出勤時間が過ぎると'ベンテンテイ'ものんびりした。

그러나 그것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다는 것이 ㄴ 뿐, 가게 안에서는 점심 준비
에 들어가 ㄴ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다는 것일 뿐, 가게 안에서는 點心
準備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가게를 찾는 손님이 없다는 것일 뿐, 가게 안에서는 점심
준비에 들어간다。

しかしそれはお店を探すお客様がいないということだけで、お店の中では昼
食の準備に入る。

계약을 맺고 있는 몇 개 회사에는 12시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야 한다。

契約을 맺고 있는 몇 個 會社에는 12 時까지 도시락을 配達해야 한다。

계약을 맺고 있는 몇 개 회사에는 12시까지 도시락을 배달해야 한다。

契約を結んでいるいくつかの会社には 12 時まで弁当を配達しなければなら
な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야스코도 주방 일을 거든다。

손님이 없는 時間에는 야스코도 廚房 일을 거든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야스코도 주방 일을 거든다。

客がいない時間には、ヤスコもキッチンの仕事をする。

‘베 ㄴ 테 ㄴ 테이’에는 야스코를 포함해 4명이 일하고 있다。

‘벤텐테이’에는 야스코를 包含해 4 名이 일하고 있다。

‘벤텐테이’에는 야스코를 포함해 4명이 일하고 있다。

「ベンテンテイ」には、ヤスコを含めて 4 人が働いている。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경영자이기도 한 요네자와와 그의 아내 사요코다。

料理를 만드는 사람은 經營者이기도 한 요네자와와 그의 아내 사요코다。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경영자이기도 한 요네자와와 그의 아내 사요코다。

料理を作る人は經營者でもある米沢と彼の妻佐代子だ。

배달은 아르바이트 직원 가네코의 일이고, 도시락 판매는 야스코가 도맡아서 한다。

配達은 아르바이트 職員 가네코의 일이고, 도시락 販賣는 야스코가 도맡아서 한다。

배달은 아르바이트 직원 가네코의 일이고, 도시락 판매는 야스코가 도맡아서 한다。

配達はアルバイト職員金子の仕事であり、弁当の販売はヤスコが引き受けて行う。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야스코는 기니초의 클럽에서 일했다。

이 일을 始作하기 前, 야스코는 긴市草의 클럽에서 일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야스코는 긴시초의 클럽에서 일했다。

この仕事を始める前に、ヤスコは錦糸町のクラブで働いた。

요네자와는 가끔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 중 하나였다。

요네자와는 가끔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 中 하나였다.

요네자와는 가끔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 中 하나였다.

米沢はたまにそこに酒を飲みに来る客の一つだった。

그 클럽의 고용 마담이 ㄴ 사요코가 요네자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야스코가 알게
되 ㄴ 것은 사요코가 가게를 그만두기 직전의 일이어 ㄴ 다.

그 클럽의 雇用 마담인 史요코가 요네자와의 아내라는 事實을 야스코가 알
게 된 것은 史요코가 가게를 그만두기 直前の 일이었다.

그 클럽의 고용 마담인 사요코가 요네자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야스코가
알게 된 것은 사요코가 가게를 그만두기 직전의 일이었다.

そのクラブの雇用マダムであるサヨコが米沢の妻だという事実をヤスコが知
ることになったのは、サヨコが店を辞める直前のことだった。

야스코는 그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들어 ㄴ 다.

야스코는 그 말을 本人에게 直接 들었다.

야스코는 그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

ヤスコはその言葉を本人に直接聞いた。

“술집 마담에서 도시락 가게 주인으로 변신하다니, 인생이란 정말 모르 ㄴ 일
야.

“술집 마담에서 도시락 가게 主人으로 變身하다니, 人生이란 正말 모를 일

이야。

“술집 마담에서 도시락 가게 주인으로 변신하다니, 인생이란 정말 모를 일

이야。

「居酒屋マダムで弁当屋主人に変身するなんて、人生って本当に分からない
ことだよ。

손님들은 그렇게 쑈군거려ㄴ다。

손님들은 그렇게 쑈군거렸다。

손님들은 그렇게 쑈군거렸다。

客たちはそんなに恥ずかしかった。

그러나 사요코는 도시락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부부의 오랜 꿈이어ㄴ으며 그녀
가 술집에서 일하게 되ㄴ 것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여ㄴ다고 털어놓아ㄴ
다。

그러나 史요코는 도시락 가게를 經營하는 것이 夫婦의 오랜 꿈이었으며 그
女가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꿈을 實現하기 爲해서였다고 털어놓았
다。

그러나 사요코는 도시락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부부의 오랜 꿈이었으며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놓았
다。

しかしサヨコは弁当屋を經營することが夫婦の長い夢であり、彼女がパブで

働くことになったのもその夢を実現するためだったと打ち明けた。

‘베 ㄴ 테 ㄴ 테이’가 문을 여 ㄴ 후 야스코는 가끔씩 짬을 내어 그곳에 놀러 가곤 해
ㄴ 다。

‘벤텐테이’가 門을 연 後 야스코는 가끔씩 짬을 내어 그곳에 놀러 가곤 했
다。

‘벤텐테이’가 문을 연 후 야스코는 가끔씩 짬을 내어 그곳에 놀러 가곤 했
다。

「ベンテンテイ」が扉を開いた後、ヤスコはたまにチャンを出してそこに遊
びに行った。

가게 경영은 순조로워 보여 ㄴ 다。

가게 經營은 順調로워 보였다。

가게 경영은 순조로워 보였다。

店經營は順調に見えた。

그녀가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으 ㄴ 것은 가게를 시작하 ㄴ 지 1년이 지나
ㄴ 으 ㄴ 무렵이어 ㄴ 다。

그女가 일을 도와 달라는 提案을 받은 것은 가게를 始作한 지 1年이 지났
을 무렵이었다。

그녀가 일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은 가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

을 무렵이었다。

彼女が仕事を手伝ってほしいとの提案を受けたのは、店を始めて1年が経った頃だった。

모든 것을 부부 둘이서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다고 해
ㄴ다。

모든 것을 夫婦 둘이서 하기에는 體力的으로羅 物理적으로羅 무리가 있
다
고 했다。

모든 것을 부부 둘이서 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있
다
고 했다。

すべてを夫婦二人でするには体力的にも物理的にも無理があるという。

“야스코도 언제까지나 물장사를 하ㄴ 수야 없지 않겠어? 미사토 짱도 다 커
ㄴ니 엄마가 호스티스 일을 하ㄴ다는 거ㄴ 부끄럽게 생각하ㄴ지도 모르고。

“야스코도 언제까지나 물장사를 할 수야 없지 않겠어? 美사토 짱도 다 컸
ㄴ니 엄마가 호스티스 일을 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야스코도 언제까지나 물장사를 할 수야 없지 않겠어? 미사토 짱도 다 컸
ㄴ니 엄마가 호스티스 일을 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ヤスコもいつまでも水商売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じゃない？ミサトちゃんもみんな大きかったからママがホスティス仕事をするってことを恥ずかしく思うかもしれないし。

주제넘으ㄴ 참견이 ㄴ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사요코는 덧붙여ㄴ다.

주제넘은 參見일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史요코는 덧붙였다.

주제넘은 참견일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사요코는 덧붙였다.

主題以上は慘犬かもしれないが、とサヨコは付け加えた。

미사토는 야스코의 하나뿐이ㄴ 딸이다.

미사토는 야스코의 하나뿐인 딸이다.

미사토는 야스코의 하나뿐인 딸이다.

ミサトはヤスコの一人だけの娘だ。

미사토 아빠와는 5년 전에 이혼해ㄴ다.

未사토 아빠와는 5年 前に 離婚했다.

미사토 아빠와는 5년 전에 이혼했다.

ミサトパパとは5年前に離婚した。

꼭 사요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야스코는 이대로 살아가 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ㄴ다.

꼭 史요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야스코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꼭 사요코의 말이 아니더라도 야스코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必ずサヨコの言葉でなくても、ヤスコはこのまま生きていけないという考え
をしていた。

미사토도 미사토지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 ㄴ 때 과연 언제까지 클럽에서 자
신을 써 주 ㄴ지 의문스러워 ㄴ다。

미사토도 未사토지만, 自身の 나이를 생각할 때 果然 언제까지 클럽에서
自身을 써 줄지 疑問스러웠다。

미사토도 미사토지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 과연 언제까지 클럽에서
자신을 써 줄지 의문스러웠다。

ミサトもミサトだが、自分の年齢を考える時、果たしていつまでクラブで自
分を書いてくれるか疑問だった。

단 하루를 생각하 ㄴ 끝에 결론을 내려 ㄴ다。

但 하루를 생각한 끝에 結論을 내렸다。

단 하루를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ただ一日を考えた末に結論を下した。

클럽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아 ㄴ다。

클럽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클럽에서도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クラブでも無理に捕まらなかった。

아니, 오히려 “잘돼 ㅅ네요.

아니, 오히려 “잘됐네요.

아니, 오히려 “잘됐네요.

いや、むしろ「いいですね。

”라고드 ㄹ 얘기해 주어 ㅅ다.

”라고들 얘기해 주었다.

”라고들 얘기해 주었다.

』と言ってくれた。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드 ㄴ 호스티스의 말로를 염려하고 있어 ㅅ다는 사실을 깨달아 ㅅ다.

周邊 사람들도 나이 든 호스티스의 末路를 念慮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든 호스티스의 말로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周辺の人々も年上のホスティスの言葉を心配していたという事実を悟った。

작년 봄 미사토가 중학교에 들어가 ㄹ 무렵에는 지금의 연립 주택으로 이사를 해 ㅅ다.

昨年 봄 미사토가 中學校에 들어갈 무렵에는 只今の 聯立 住宅으로 移徙를

했다。

작년 봄 미사토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지금의 연립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昨年春ミサトが中学校に入る頃には今の連立住宅に引っ越した。

지난번 살던 곳에서 ‘베ㄴ테ㄴ테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ㄴ기 때문이다。

지난번 살던 곳에서 ‘벤텐테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살던 곳에서 ‘벤텐테이’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前回住んでいたところから'ベンテンテイ'までは距離が遠すぎたからだ。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이 이르ㄴ 아침부터 시작되ㄴ다。

이제는 過去와 달리 일이 이른 아침부터 始作된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今は過去と違って仕事が早朝から始まる。

그녀는 6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자전거를 타고 연립 주택을 나서ㄴ다。

그女는 6 時에 일어나 6 時 半에 自轉車를 타고 聯立 住宅을 나선다。

그녀는 6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자전거를 타고 연립 주택을 나선다。

彼女は 6 時に起き、6 時半に自転車に乗って連立住宅を出る。

녹색 자전거다。

綠色 自轉車다。

녹색 자전거다。

緑の自転車だ。

“그 고등학교 선생, 오늘 아침에도 와ㄴ어?”

“그 高等學校 先生, 오늘 아침에도 왔어?”

“그 고등학교 선생, 오늘 아침에도 왔어?”

「あの高校先生、今朝も来た？」

휴식 시간에 사요코가 물어ㄴ다。

休息 時間에 史요코가 물었다。

휴식 시간에 사요코가 물었다。

休憩時にサヨコが尋ねた。

“와ㄴ다 가ㄴ어요。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来て行きました。

매일 오잖아요。

毎日 오잖아요。

매일 오잖아요。

毎日来ますね。

야스코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요코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야스코가 그렇게 對答하자 史요코는 男便과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야스코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요코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며 빙그레 웃었다。

ヤスコがそのように答えると、サヨコは夫と顔に向かいながらぐるぐる笑った。

“뭐예요, 기분 나쁘게?”

“뭐예요, 氣分 나쁘게?”

“뭐예요, 기분 나쁘게?”

「なんです、気分悪く？」

“아냐, 별다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선생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제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아냐, 別다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先生李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제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아냐, 별다른 뜻은 아니고, 다만 그 선생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어제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いや、あまり意味がなく、ただその先生がヤスコが好きなようだ」と昨日
私たち二人が話したんだ。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야스코가 찻잔을 손에 쥐 ㄴ 채 몸을 뒤로 젖혀 ㄴ다。

야스코가 茶盞을 손에 쥔 채 몸을 뒤로 젖혔다。

야스코가 찻잔을 손에 쥔 채 몸을 뒤로 젖혔다。

ヤスコがマグを手握ったまま体を後ろに濡らした。

“어제는 야스코가 쉬는 날이여 ㄴ잖아。

“어제는 야스코가 쉬는 날이었잖아。

“어제는 야스코가 쉬는 날이었잖아。

「昨日は、ヤスコが休む日だったじゃないか。

그 선생도 안 와 ㄴ어。

그 先生도 안 왔어。

그 선생도 안 왔어.

その先生も来なかった。

매일 오다가 야스코가 없는 날만 안 오는 거, 이상하지 않아?”

毎日 오다가 야스코가 없는 날만 안 오는 거, 異常하지 않아?”

매일 오다가 야스코가 없는 날만 안 오는 거, 이상하지 않아?”

毎日来て、ヤスコがいない日だけ来ないの、おかしくない？」

“그야 우연이겠죠.

“그야 偶然이겠죠.

“그야 우연이겠죠.

「それは偶然でしょう。

“그게 그럴지 않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럴지 않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럴지 않다 이 말이지.

「それ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

사요코가 남편에게 동의를 구해^ㅅ다.

史요코가 男便에게 同意를 求했다。

사요코가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다。

サヨコが夫に同意を求めた。

요네자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ㄴ다。

요네자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네자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米沢は笑って首をうなずいた。

“이 사람 말로는 지금까지 늘 그래ㄴ대。

“이 사람 말로는 只今까지 늘 그랬대。

“이 사람 말로는 지금까지 늘 그랬대。

「この人の言葉では今までいつもそうだった。

야스코 짱이 쉬는 날에는 그 선생도 도시락을 사러 안 오ㄴ다는 거야。

야스코 짱이 쉬는 날에는 그 先生도 도시락을 사러 안 온다는 거야。

야스코 짱이 쉬는 날에는 그 선생도 도시락을 사러 안 온다는 거야。

康子ちゃんが休む日には、その先生もお弁当を買いに来ないというの。

혹시나 해ㄴ는데 어제 확신해ㄴ어。

或是나 했는데 어제 確信했어。

혹시나 했는데 어제 확신했어.

もしかしたが昨日確信した。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言わないで。

저는 정기 휴일 외에는 쉬는 날이 멋대로이 L 겠요.

저는 定期 休日 外에는 쉬는 날이 멋대로인걸요.

저는 정기 휴일 외에는 쉬는 날이 멋대로인걸요.

私は定休日以外は休みの日が勝手なんですよ。

요일도 일정하지 않고요.

曜日도 一定하지 않고요.

요일도 일정하지 않고요.

曜日も一定ではありません。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異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거야.

「だからこれ以上のことだ。

그 선생, 옆집에 사냐고 했지? 아마 야스코가 나가는 걸 보고 쉬는 날이
냐지 아니냐지 가능하냐 거야。

그 先生, 옆집에 산다고 했지? 아마 야스코가 나가는 걸 보고 쉬는 날인지
아닌지 가능할 거야。

그 선생, 옆집에 산다고 했지? 아마 야스코가 나가는 걸 보고 쉬는 날인
지 아닌지 가능할 거야。

その先生、隣の家に住んでいると言った？たぶん、ヤスコが出てくるのを見
て休む日なのかどうかを判断するだろう。

“설마요, 제가 집을 나서 ㄴ 때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요。

“설마요, 제가 집을 나설 때 萬難 的도 別로 없는데요。

“설마요, 제가 집을 나설 때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요。

「まさか、私が家を出たときに会ったこともあまりないのです。

“어디선가 지켜보는 거 아니냐까? 창 너머로 슬쩍 보냐든지。

“어디線가 지켜보는 거 아닐까? 窓 너머로 슬쩍 본다든지。

“어디선가 지켜보는 거 아닐까? 창 너머로 슬쩍 본다든지。

「どこが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窓越しにすっぽり見るとか。

“창으로는 안 보이 ㄴ 데……。

“窓으로는 안 보일 텐데……。

“창으로는 안 보일 텐데……。

「窓では見えないだろうが… … 。

“아무려면 어때?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말을 하ㄴ 거야。

“아무려면 어때? 正말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말을 할 거야。

“아무려면 어때? 정말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말을 할 거야。

「どうすればどうですか？本当に心があれば、いつか言うつもりだ。

우리로서는 야스코 짱 덕분에 단골이 하나 생겨ㄴ으니 고마우ㄴ 일이지, 뭐。

우리로서는 야스코 짱 徳分예 단골이 하나 생겼으니 고마운 일이지, 뭐。

우리로서는 야스코 짱 덕분에 단골이 하나 생겼으니 고마운 일이지, 뭐。

僕たちとしては、靖子ちゃんのおかげで常連がひとつできたので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역시 기ㄴ시초에서 날리던 사람은 달라。

亦是 衞市草에서 날리던 사람은 달라。

역시 衞시초에서 날리던 사람은 달라。

やはり錦糸町で飛ばした人は違う。

요네자와가 결론을 맺듯이 말해ㄴ다。

요네자와가 結論을 맺듯이 말했다.

요네자와가 결론을 맺듯이 말했다.

米沢が結論を結ぶように言った。

야스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찻잔에 남은 차를 마셔 다.

야스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茶盞에 남은 次를 마셨다.

야스코는 쓴웃음을 지으며 찻잔에 남은 차를 마셨다.

ヤスコは苦笑をして茶碗に残ったお茶を飲ん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고등학교 선생을 떠올려 보아 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高等學校 先生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그 고등학교 선생을 떠올려 보았다.

それとともに頭の中でその高校の先生を思い出してみた。

성은 이시가미.

聖恩 이市街美。

성은 이시가미.

城は石神。

이사 오 날 밤에 인사하러 가 었다.

移徙 온 날 밤에 人事하러 갔었다.

이사 온 날 밤에 인사하러 갔었다。

引っ越してきた日の夜に挨拶に行きました。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사실은 그때 들어ㄴ다。

高等學校 先生이라는 事實은 그때 들었다。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사실은 그때 들었다。

高校先生という事実はその時聞いた。

둥글둥글하ㄴ 몸집에 얼굴도 둥그렇고 커ㄴ다。

둥글둥글한 몸집에 얼굴도 둥그렇고 컸다。

둥글둥글한 몸집에 얼굴도 둥그렇고 컸다。

丸みを帯びた柄に顔も丸くて大きかった。

그렇지만 눈은 실처럼 가늘다。

그렇지만 눈은 실처럼 가늘다。

그렇지만 눈은 실처럼 가늘다。

でも目は糸のように細い。

술이 적으ㄴ 머리를 짧게 깎으ㄴ 탓에 나이가 50에 가까워 보여ㄴ지만 실제로
는 그보다 젊으ㄴ지 모르ㄴ다。

술이 적은 머리를 짧게 깎은 탓에 나이가 50에 가까워 보였지만 實際로는

그보다 젊을지 모른다.

술이 적은 머리를 짧게 깎은 탓에 나이가 50에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젊을지 모른다.

少し少ない頭を短く削ったせいで年齢が 50 に近いように見えたが実際にはそれより若いかもしれない。

차림새에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ㄴ 듯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ㄴ 다.

차림새에 神経 쓰지 않는 타입인 듯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차림새에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인 듯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装いに気にしないタイプのようにいつも同じ服だけ着て通う。

이번 겨울에는 대체로 갈색 스웨터를 입고 다녀ㄴ 다.

이번 겨울에는 大體로 褐色 스웨터를 입고 다녔다.

이번 겨울에는 대체로 갈색 스웨터를 입고 다녔다.

今冬には概ね茶色のセーターを着て通った。

그 위에 코트를 걸치ㄴ 모습이 도시락을 사러 오ㄴ 때의 복장이다.

그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 도시락을 사러 올 때의 服裝이다.

그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 도시락을 사러 올 때의 복장이다.

その上にコートをかけた姿が弁当を買いに来るときの服装だ。

그래도 세탁은 부지런히 하는지 작으ㄴ 베란다에 세탁물이 자주 널려 있어ㄴ

다。

그래도 洗濯은 부지런히 하는지 작은 베란다에 洗濯物이 자주 널려 있었

다。

그래도 세탁은 부지런히 하는지 작은 베란다에 세탁물이 자주 널려 있었

다。

それでも洗濯は熱心にするか小さなベランダに洗濯物がよく広がっていた。

아마도 결혼 경험이 없으 ㄴ 거라고 야스코는 짐작해 ㄴ다。

아마도 結婚 經驗이 없을 거라고 야스코는 斟酌했다。

아마도 결혼 경험이 없을 거라고 야스코는 짐작했다。

おそらく結婚経験がないとヤスコは推測した。

그 선생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니, 상상도 못해 ㄴ던 소리다。

그 先生이 自身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니, 想像도 못했던 소리다。

그 선생이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소리다。

その先生が自分に心を置いているなんて、想像もできなかった声だ。

야스코는 연립 주택의 벽에 가 ㄴ 금마냥,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특별히 의식하

ㄴ 적이 없고 또 의식하 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와 ㄴ기 때문이다。

야스코는 聯立 住宅의 壁에 간 金마냥, 그의 存在를 알면서도 特別히 意識

한 적이 없고 또 意識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야스코는 연립 주택의 벽에 간 금마냥, 그의 존재를 알면서도 특별히 의식한 적이 없고 또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靖子は連立住宅の壁に行った金だけ、彼の存在を知りながらも特に意識したことがなく、また意識する必要もないと考えてきたからだ。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어섌고, 연립 주택의 관리 문제로 한 번 의논하ㄴ 적도 있어섌다。

마주치면 人士를 나누었고, 聯立 住宅의 管理 問題로 한 番 議論한 적도 있었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었고, 연립 주택의 관리 문제로 한 번 의논한 적도 있었다。

遭遇すると挨拶を交わし、連立住宅の管理問題として一度相談したこともあった。

그러 ㅁ에도 야스코는 그 사람에게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섌다。

그럼에도 야스코는 그 사람에게 對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야스코는 그 사람에게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それでも、ヤスコはその人について知る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

수학 교사라는 것도 최근 들어 우연히 알게 되어섌다。

數學 教師라는 것도 最近 들어 偶然히 알게 되었다。

수학 교사라는 것도 최근 들어 우연히 알게 되었다。

数学教師というのも最近になって偶然知ることになった。

문 앞에 오래된 수학 참고서들이 끈으로 묶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文 앞에 오래된 數學 參考書들이 끈으로 묶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문 앞에 오래된 수학 참고서들이 끈으로 묶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ドアの前に古い数学参考書がひもで縛られたまま置かれているのを見たのだ。

데이트 신청 같은 거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해 다。

데이트 申請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데이트 신청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デート申請のようなことはしないでほしいとヤスコは考えた。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어 다。

그리고 그女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다。

そして彼女は一人で苦笑をした。

그 고지식하게 생긴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대체 어떤 표정으로 거절해야 할까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 고지식하게 생긴 男子가 데이트 申請을 하면 代替 어떤 表情으로 拒絕해야 할까 想像하면서 말이다。

그 고지식하게 생긴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대체 어떤 표정으로 거절해야 할까 상상하면서 말이다。

その高知識にできた男がデートの申し込みをすれば、いったいどんな表情で断るべきか想像しながら言葉だ。

점심 전부터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정오 즈음에는 피크에 달해ㄴ다。

點心 前부터 다시 바빠지기 始作하더니 正午 즈음에는 피크에 達했다。

점심 전부터 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정오 즈음에는 피크에 달했다。

昼食前からまた忙しくなり始め、正午頃はピークに達した。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ㄴ 수 있어ㄴ다。

午後 1時가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午後 1時が過ぎてやっとため息をつくことができた。

평소의 패턴 그대로다。

平素의 패턴 그대로다。

평소의 패턴 그대로다。

普段のパターンそのままだ。

야스코가 금전 등록기의 종이를 갈고 있으 ㄴ 때여 ㅅ 다。

야스코가 金錢 登録氣의 종이를 갈고 있을 때였다。

야스코가 금전 등록기의 종이를 갈고 있을 때였다。

ヤスコが金銭登録機の紙を挽いていた時だった。

유리문이 열리더니 누구 ㄴ 가가 들어서 ㅅ 다。

琉璃門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섰다。

유리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섰다。

ガラス扉が開いたら誰かが入った。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님 얼굴을 보아 ㅅ 다。

어서 오세요, 라고 人事하며 그女는 고개를 들어 손님 얼굴을 보았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님 얼굴을 보았다。

さあ、来てください、と挨拶して彼女は頭を上げてゲストの顔を見た。

그리고 그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아 ㅅ 다。

그리고 그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그만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そしてやめてそのまま凍ってしまった。

눈이 화들짝 열리고 입도 벌어져ㄴ다。

눈이 화들짝 열리고 입도 벌어졌다。

눈이 화들짝 열리고 입도 벌어졌다。

目が激しく開き、口も開いた。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よさそうだね。

남자가 웃어ㄴ다。

男子가 웃었다。

남자가 웃었다。

男が笑った。

그러나 그 눈빛은 거무칙칙하고 흐려ㄴ다。

그러나 그 눈빛은 거무칙칙하고 흐렸다。

그러나 그 눈빛은 거무칙칙하고 흐렸다。

しかしその目つきはガチガチと曇り。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當身이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あなたは どうやってここに… …。

“뭐 ㄹ 그렇게 놀라나。

“뭘 그렇게 놀라나。

“뭘 그렇게 놀라나。

「何がそんなに驚いたのか。

나도 마음만 먹으면 헤어지 ㄴ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내 ㄹ 수 있다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헤어진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程度는 알아낼 수 있다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헤어진 마누라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고。

私も心だけ食べれば別れたマヌラがどこにあるのかほどは調べられると。

남자는 감색 점퍼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으 ㄴ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아 ㄴ 다。

男子는 감色 점퍼 胡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은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았

다。

남자는 감색 점퍼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男は紺色のジャンパーのポケットに両手を差し込んだまま店の中を見回した。

뭐 ㄴ가를 가늠해 보는 듯하 ㄴ 눈길이다。

뭔가를 가늠해 보는 듯한 눈길이다。

뭔가를 가늠해 보는 듯한 눈길이다。

何かを測ってみるような注目だ。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야?”

“이제 와서 무슨 用件이야?”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야?”

「もう来て何の用件なの？」

야스코는 날카롭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해 ㄴ다。

야스코는 날카롭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야스코는 날카롭게, 그러나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ヤスコは鋭く、しかし声を下げて言った。

안에 있는 요네자와 부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에 있는 요네자와 夫婦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에 있는 요네자와 부부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中にある米沢夫婦が気づかないようにしようとするの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ㄴ네。

“아주 눈에 雙心지를 켜네。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네。

「非常に目に双心をつけた。

오랜만에 만나ㄴ데 인사치레로라도 웃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人事치레로라도 웃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치레로라도 웃어야지。

久しぶりに会ったのに挨拶レロでも笑わなければならな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

남자는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해ㄴ다。

男子는 능글맞게 微笑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남자는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男はうっすらと微笑んでそう言った。

“볼일 없으면 돌아가。

“볼일 없으면 돌아가。

“볼일 없으면 돌아가。

「ボールがなければ帰ります。

“볼일이 있으니까 온 거야。

“볼일이 있으니까 온 거야。

“볼일이 있으니까 온 거야。

「会うことがあるから来たの。

긴히 의논하ㄴ 일이 있는데, 시간 좀 내ㄴ 수 있으ㄴ 까?”

緊히 議論할 일이 있는데, 時間 좀 낼 수 있을까?”

긴히 의논할 일이 있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長い間議論することがありますが、時間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か？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言葉にならない音をしないでください。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働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

그렇게 반문하고 나서 야스코는 후회해 ㄴ다。

그렇게 反問하고 나서 야스코는 後悔했다。

그렇게 반문하고 나서 야스코는 후회했다。

そう反問してからヤスコは後悔した。

일하는 중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나누 ㄴ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 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하는 中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하는 중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
기 때문이다。

働く中でなければ話を分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で受け入れられるかも
しれないからだ。

남자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말해 ㄴ다。

男子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말했다。

남자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 말했다。

男は舌で唇を縮めて言った。

“몇 시에 끝나는데?”

“몇 時에 끝나는데?”

“몇 시에 끝나는데?”

「何時に終わるの？」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當身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あなたの話は聞きたくない。」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そしてまた来ないでください。

“거참, 냉정하네。”

“거참, 冷靜하네。

“거참, 냉정하네。

「じゃあ、冷静だね。

“당연하잖아。

“當然하잖아。

“당연하잖아。

「当然じゃない。

야스코는 가게 밖으로 눈길을 돌려ㅅ다。

야스코는 가게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야스코는 가게 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ヤスコは店の外に目を向けた。

손님이라도 오지 않나 해ㅅ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ㅅ다。

손님이라도 오지 않나 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손님이라도 오지 않나 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客でも来ないかと言ったが、入ってくる人が誰もいなかった。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ㄴ다면 어찌 ㄹ 수 없지。

“當身이 그렇게 冷情하게 對한다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

「あなたがそんなに冷静にするのなら、仕方ない。

그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그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그쪽으로 가 보는 수밖에。

そちらに行ってみるしか。

그러고서 남자는 목덜미를 천천히 문질러^ㄴ다。

그러고서 男子는 목덜미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러고서 남자는 목덜미를 천천히 문질렀다。

そして男は首筋をゆっくりこすった。

“그쪽이라니?”

“그쪽이라니?”

“그쪽이라니?”

「そっち？」

야스코는 불길하^ㄴ 예감에 사로잡혀^ㄴ다。

야스코는 不吉한 豫感에 사로잡혔다。

야스코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ヤスコは不吉な予感にとらわれた。

“마누라가 이야기를 안 들어 주니 딸이라도 만나 봐야지。

“마누라가 이야기를 안 들어 주니 딸이라도 만나 봐야지。

“마누라가 이야기를 안 들어 주니 딸이라도 만나 봐야지。

「マヌラが話を聞かないと、娘でも会って見なければならぬ。

중학교가 이 근처라면서?”

中學校が 이 近處라면서?”

중학교가 이 근처라면서?”

中学校がこの辺りだと？」

남자는 야스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입에 담았^ㄴ다。

男子는 야스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입에 담았다。

남자는 야스코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입에 담았다。

男は、ヤスコが最も恐れている言葉を口にした。

“그만둬。

“그만둬。

“그만둬。

「やめて。

그 애는 건드리지 마!”

그 애는 건드리지 마!”

그 애는 건드리지 마!”

その子は触れないでください！」

“그럼 당신이 어떻게 좀 해 보든지。

“그럼 當身이 어떻게 좀 해 보든지。

“그럼 당신이 어떻게 좀 해 보든지。

「じゃあ、どうやってやってみようか。

내가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까?”

내가 어느 쪽을 擇하면 좋을까?”

내가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까?”

私はどちらを選んだらいいですか？」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어^ㅅ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ヤスコはため息をついた。

어떻게든 이 남자를 쫓아내야 하^ㄴ다。

어떻게든 이 男子를 쫓아내야 한다。

어떻게든 이 남자를 쫓아내야 한다。

何とかこの男を追い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일은 여섯 시까지야。

“일은 여섯 時까지야。

“일은 여섯 시까지야。

「仕事は6時まで。

“아침 일찍부터 여섯 시까지라, 일을 너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부터 여섯 時까지라, 일을 너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야?”

“아침 일찍부터 여섯 시까지라, 일을 너무 오래 시키는 거 아니야?”

「朝早くから六時まで、仕事をとても長くさせるんじゃない？」

“당신이 상관하 ㄴ 바 아니야。

“當身이 相關할 바 아니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あなたは気にしません。

“그럼 여섯 시에 여기로 다시 오 ㄴ 까?”

“그럼 여섯 時에 여기로 다시 올까?”

“그럼 여섯 시에 여기로 다시 올까?”

「それでは六時にここにまた来るか？」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いいえ。

나가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 큰 교차로가 나와.

나가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 큰 交叉路가 나와.

나가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 큰 교차로가 나와.

出て右にまっすぐ行くと大きな交差点が出てきます。

그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으니깐 거기서 여섯 시까지 와.

그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으니깐 거기서 여섯 時까지 와.

그 바로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으니깐 거기서 여섯 시까지 와.

その直前に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があるからそこで六時まで来て。

“알아^ㅅ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꼭 와야 해.

꼭 와야 해.

꼭 와야 해。

ぜひ来てね。

만일 안 오면……。

萬一 안 오면……。

만일 안 오면……。

もし来なければ… …。

“가ㄴ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行くよ。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러니까 빨리 나가。

だから早く出て。

“알아ㅅ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정말 매정하네。

正말 매정하네。

정말 매정하네。

本当に売りますね。

남자는 다시 한 번 가게 안을 둘러보 ㄴ 뒤 유리문을 거치 ㄴ게 닫고 나가 ㄴ다。

男子는 다시 한 番 가게 안을 둘러본 뒤 琉璃門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남자는 다시 한 번 가게 안을 둘러본 뒤 유리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男はもう一度店の中を見回した後、ガラス扉を荒く閉めて出た。

야스코는 손으로 이마를 짚어 ㄴ다。

야스코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야스코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ヤスコは手で額をつかんだ。

가벼우 ㄴ 두통이 일어 ㄴ다。

가벼운 頭痛이 일었다。

가벼운 두통이 일었다。

軽い頭痛が起こった。

속도 메속거리ㄴ다.

속도 메속거렸다.

속도 메속거렸다.

スピードがめちゃくちゃだった。

절망감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속으로 번져 나가ㄴ다.

絶望感が 천천히 그女の 가슴속으로 번져 나갔다.

절망감이 천천히 그녀의 가슴속으로 번져 나갔다.

絶望感がゆっくりと彼女の胸の中に広がっていった。

도가시 신지와 결혼하ㄴ 것은 8년 전이어ㄴ다.

都家時 臣智와 結婚한 것은 8年 前이었다.

도가시 신지와 결혼한 것은 8년 전이었다.

道鹿市シンジと結婚したのは 8年前だった。

당시 야스코는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어ㄴ다.

當時 야스코는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야스코는 아카사카에서 호스티스 일을 하고 있었다.

当時ヤスコは赤坂でホスティス仕事をしていた。

도가시는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중 하나여ㄴ다.

도가시는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中 하나였다.

도가시는 그 가게에 드나드는 손님 中 하나였다.

道鹿市はその店に出入りする客のひとつだった。

외제 차 세일즈맨이어ㄴ던 그는 씹씹이가 좋아ㄴ다.

外製 車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씹씹이가 좋았다.

외제 차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씹씹이가 좋았다.

外除車セールスマンだった彼はみことばが良かった。

비싸ㄴ 물건을 선물하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ㄴ다.

비싼 物件을 膳物하기도 하고, 高級 레스토랑에도 데려갔다.

비싼 물건을 선물하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갔다.

高価なものをプレゼントしたり、高級レストランにも連れて行った。

그래서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아ㄴ으ㄴ 때는 마치 영화 ‘프리티 우머ㄴ’의 줄리아 로버츠라도 되ㄴ 기분이어ㄴ다.

그래서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는 마치 映畫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라도 된 氣分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을 때는 마치 영화 ‘프리티 우먼’의 줄리아 로버츠라도 된 기분이었다.

それで彼にプロポーズを受けた時は、まるで映画『プリティウーマン』の

ジュリア・ロバーツでもされた気分だった。

당시 야스코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뒤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생활에 지쳐 있었다.

當時 야스코는 첫 번째 結婚에 失敗한 뒤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생활에 지쳐 있었다.

당시 야스코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뒤 일하면서 혼자 딸을 키우는 생활에 지쳐 있었다.

當時、ヤスコは最初の結婚に失敗した後、働きながら一人で娘を育てる生活に疲れていた。

결혼 초에는 행복해 다.

結婚 初에는 幸福했다.

결혼 초에는 행복했다.

結婚の初めには幸せだった。

도가시의 안정적이 수입 덕분에 야스코는 물장사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다.

都家時の 安定的인 輸入 德분에 야스코는 물장사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다.

도가시의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야스코는 물장사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다.

東賀市の安定収入のおかげで、ヤスコは水商店で手を洗うことができた。

또한 도가시는 미사토를 무척 귀여워해ㄴ다。

또한 도가시는 미사토를 무척 귀여워했다。

또한 도가시는 미사토를 무척 귀여워했다。

また、道鹿市はミサトをととても可愛くした。

미사토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여ㄴ다。

미사토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努力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미사토도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ミサトも彼を父として受け入れようと努力する姿が垣間見えた。

파탄은 갑자기 찾아와ㄴ다。

破綻은 갑자기 찾아왔다。

파탄은 갑자기 찾아왔다。

破綻は突然訪れた。

도가시가 회사에서 잘리ㄴ 것이다。

도가市街 會社에서 잘린 것이다。

도가시가 회사에서 잘린 것이다。

とが市が会社で切ったのだ。

오랫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하 ㄴ 사실이 들통나 ㄴ기 때문이어 ㄴ다。

오랫동안 會社 公金을 橫領한 事實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長い間会社公金を横領した事実がばらばらしたためだった。

회사에서 그를 고소하지 않으 ㄴ 것은 관리를 잘못하 ㄴ 책임을 추궁당하 ㄴ까 두
려워 ㄴ던 상사들이 교묘하게 사태를 은폐하 ㄴ 덕분이어 ㄴ다。

會社에서 그를 告訴하지 않은 것은 管理를 잘못된 責任을 追窮當할까 두려
웠던 上司들이 巧妙하게 事態를 隱蔽한 徳分이었다。

회사에서 그를 고소하지 않은 것은 관리를 잘못된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
려웠던 상사들이 교묘하게 사태를 은폐한 덕분이었다。

会社で彼を訴えなかったのは、管理を誤った責任を追及されるのか恐れた上
司たちが巧妙に事態を隠蔽したおかげだった。

그러니까 도가시는 바로 그 더러운 ㄴ 돈을 아카사카의 밤거리에 뿌리고 다녀 ㄴ
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시는 바로 그 더러운 돈을 아카사카의 밤거리에 뿌리고 다녔
던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시는 바로 그 더러운 돈을 아카사카의 밤거리에 뿌리고 다
녔던 것이다。

だから道鹿市はまさにその汚いお金を赤坂の夜の街に振りかけて通ったの

だ。

그 이후로 도가시는 사람이 변해ㄴ다。

그 以後로 도가시는 사람이 變했다。

그 이후로 도가시는 사람이 변했다。

それ以来、道家市は人が変わった。

아니, 본성이 드러나ㄴ다고 하는 편이 옳으ㄴ지 모르ㄴ다。

아니, 本性이 드러났다고 하는 便이 옳을지 모른다。

아니, 본성이 드러났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 모른다。

いや、本性があらわれたという方が正しいかもしれない。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바닥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러 나가
ㄴ다。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하루 終日 房바닥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러
나갔다。

그는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바닥에서 뒹굴거나 아니면 노름을 하러
나갔다。

彼は仕事もせず、一日中部屋の床から転がったり、賭けに出かけた。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면 폭력을 휘둘러ㄴ다。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면 暴力을 휘둘렀다。

그런 일로 잔소리를 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そんなことで騒ぎをすると暴力を振り回した。

그리고 늘 취하ㄴ 채 흥포하ㄴ 눈을 희번덕거려ㄴ다.

그리고 늘 取한 채 凶暴한 눈을 희番徳거렸다.

그리고 늘 취한 채 흥포한 눈을 희번덕거렸다.

そしていつも酔ったまま凶暴な目を希々とした。

그 당연하ㄴ 귀결이지만, 야스코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해ㄴ다.

그 當然한 歸結이지만, 야스코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다.

그 당연한 귀결이지만, 야스코는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다.

その当然の帰結だが、ヤスコは再び働き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러나 그렇게 버ㄴ 돈을 도가시는 폭력으로 빼앗아 가ㄴ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도가시는 暴力으로 빼앗아 갔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도가시는 폭력으로 빼앗아 갔다.

しかし、そのように稼いだお金を盗む暴力で奪われていった。

그녀가 돈을 숨기기라도 하면 월급날 그녀보다 먼저 가게로 찾아와 제멋대로 돈을 받아 가기까지 해ㄴ다.

그女가 돈을 숨기기라도 하면 月給날 그女보다 먼저 가게로 찾아와 제멋대로 돈을 받아 가기까지 했다.

그녀가 돈을 숨기기라도 하면 월급날 그녀보다 먼저 가게로 찾아와 제멋대로 돈을 받아 가기까지 했다。

彼女がお金を隠すこともできれば、給料日彼女より先にお店に来て、勝手にお金を受け取るまでした。

미사토는 의붓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돼^ㄴ다。

미사토는 의붓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됐다。

미사토는 의붓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됐다。

ミサトは義父を恐れるようになった。

집에 도가시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며 야스코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도 있어^ㄴ다。

집에 도가시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며 야스코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집에 도가시와 단둘이 있는 것이 무섭다며 야스코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家に道鹿市と二人がいるのが怖いと言って、ヤスコが働くお店にやってくる事もあった。

야스코는 도가시에게 이혼을 요구해^ㄴ지만 그는 들으^ㄴ 척도 하지 않아^ㄴ다。

야스코는 都家時에게 離婚을 要求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야스코는 도가시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ヤスコは東鹿市に離婚を求めたが、彼は聞いたふりをしなかった。

계속 요구하면 폭력을 휘둘러ㄴ다.

繼續 要求하면 暴力을 휘둘렀다。

계속 요구하면 폭력을 휘둘렀다。

要求し続けると暴力を振り回した。

고민 끝에 그녀는 손님한테 소개 받으ㄴ 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해ㄴ다.

苦悶 끝에 그女는 손님한테 紹介 받은 辯護士에게 相談을 請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손님한테 소개 받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했다。

悩みの末、彼女は客に紹介を受けた弁護士に相談を求めた。

그리고 그 변호사가 움직이ㄴ 끝에 도가시는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
게 되어ㄴ다.

그리고 그 辯護士가 움직인 끝에 도가시는 마지못해 離婚 書類에 圖章을
찍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움직인 끝에 도가시는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そしてその弁護士が動いた末に、道家市は間違いなく離婚書類に塗装を撮る
ことになった。

재판으로 가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으ㄴ 뿐더러 위자료까지 물어 주어야 하ㄴ다
는 사실을 알고 있어ㄴ기 때문이다。

再版으로 가면 自身에게 勝算이 없을 뿐더러 慰藉料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가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을 뿐더러 위자료까지 물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裁判に行けば自分に勝算がないだけで慰謝料まで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たから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ㄴ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問題가 解決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しかし、それですべての問題が解決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이혼 후에도 도가시는 시시때때로 야스코 앞에 모습을 나타내ㄴ다。

離婚 後에도 도가시는 時時때때로 야스코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혼 후에도 도가시는 시시때때로 야스코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離婚後も、道鹿市は時々時々靖子の前に姿を現した。

용건은 늘 정해져 있어ㄴ다。

用件은 늘 定해져 있었다。

용건은 늘 정해져 있었다。

用件はいつも決まっていた。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하 ㄴ 테니 재결합하자는 것이어 ㄴ다。

마음을 고쳐먹고 熱心히 일할 테니 再結合하자는 것이었다。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할 테니 재결합하자는 것이었다。

心を直して食べて一生懸命働くから再会しようということだった。

야스코가 피하면 그는 미사토에게 접근해 ㄴ다。

야스코가 避하면 그는 미사토에게 接近했다。

야스코가 피하면 그는 미사토에게 접근했다。

ヤスコが避けたら、彼はミサトに近づいた。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어 ㄴ다。

學校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있었다。

学校の前で待つこともあった。

무릎까지 꿇으 ㄴ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연극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ㄴ다。

무릎까지 꿇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演劇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쌍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무릎까지 꿇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연극이란 것을 알면서도 불쌍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膝まで開いた彼の姿を見ていると、演劇と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も哀れだという気がした。

한때는 부부 사이였으니 일말의 정이 남아 있어ゝ는지도 모르ㄴ다。

한때는 夫婦 사이였으니 一抹의 情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때는 부부 사이였으니 일말의 정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かつては夫婦の間だったので一言の情が残っ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결국 야스코는 그에게 돈을 주어 보내ㄴ다。

結局 야스코는 그에게 돈을 주어 보냈다。

결국 야스코는 그에게 돈을 주어 보냈다。

結局、ヤスコは彼にお金を与えた。

그것이 잘못이어ㄴ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それが間違っていた。

맛을 들이ㄴ 도가시는 더욱 자주 찾아와ㄴ다。

맛을 들인 都家時は 더욱 자주 찾아왔다。

맛을 들인 도가시는 더욱 자주 찾아왔다。

味をつけた東鹿市は、より頻繁に訪れてきた。

그의 태도는 비굴하면서도 점점 뻔뻔스러워져 가^ㅅ다。

그의 態度는 卑屈하면서도 漸漸 뻔뻔스러워져 갔다。

그의 태도는 비굴하면서도 점점 뻔뻔스러워져 갔다。

彼の態度は卑屈ながらもますます恥ずかしくなっていた。

야스코는 가게를 옮기고 주소를 바꿔^ㅅ다。

야스코는 가게를 옮기고 住所를 바꿨다。

야스코는 가게를 옮기고 주소를 바꿨다。

ヤスコは店を移して住所を変えた。

그리고 미사토에게는 미안하^ㄴ 일이지만 학교도 옮겨^ㅅ다。

그리고 미사토에게는 未安한 일이지만 學校도 옮겼다。

그리고 미사토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학교도 옮겼다。

そしてミサトには申し訳ないことだが学校も移った。

그리하여 기^ㄴ시초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게 되^ㄴ 후로는 도가시가 나타나지 않

아^ㅅ다。

그리하여 긴市草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게 된 後로는 도가시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리하여 긴시초에 있는 클럽에서 일하게 된 후로는 도가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そうして錦糸町にあるクラブで働くようになった後には、とが市が現れなかった。

그 후 다시 한 번 이사하고 ‘베 ㄴ 테 ㄴ 테이’에서 일하게 되 ㄴ 것이 어느새 1년이 되어 가 ㄴ 다。

그 後 다시 한 番 移徙하고 ‘벤텐테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느새 1 年이 되어 간다。

그 후 다시 한 번 이사하고 ‘벤텐테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느새 1년이 되어 간다。

その後、もう一度引っ越して「ベンテンテー」で働くことになったのがいつのまにか 1 年になっていく。

더는 그 악마에게 괴롭히 ㄴ 을 당하는 일이 없으 ㄴ 거라고 믿고 있던 터여 ㄴ 다。

더는 그 惡魔에게 괴롭힘을 當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던 터였다。

더는 그 악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던 터였다。

もう、その悪魔にいじめられることがないと信じていたはずだった。

요네자와 부부에게는 절대로 폐를 끼치 ㄴ 수 없다。

요네자와 夫婦에게는 絶對로 肺를 끼칠 수 없다。

요네자와 夫婦에게는 絶對로 폐를 끼칠 수 없다。

米沢夫婦には絶對に迷惑をかけることができない。

미사토에게 들켜서도 안 되ㄴ다。

미사토에게 들켜서도 안 된다。

미사토에게 들켜서도 안 된다。

ミサトにバレてはいけない。

어떻게든 나 혼자서 이 남자가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ㄴ다。

어떻게든 羅 혼자서 이 男子가 두 番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든 나 혼자서 이 남자가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何とか私一人でこの男が二度と戻ってこ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벽시계를 바라보며 야스코는 결의를 굳혀ㄴ다。

壁時計를 바라보며 야스코는 決意를 굳혔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야스코는 결의를 굳혔다。

壁時計を眺め、ヤスコは決意を固めた。

약속 시각이 되자 야스코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해ㄴ다。

約束 時刻이 되자 야스코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向했다。

약속 시각이 되자 야스코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約束の時刻になると、ヤスコは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に向かった。

도가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어ㄴ다.

도가시는 窓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가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道鹿市は窓際の席に座ってタバコを吸っていた。

테이블 위에 커피 컵이 놓여 있는 거ㄴ 보ㄴ 야스코는 자리에 앉으면서 종업원
에게 코코아를 주문해ㄴ다.

테이블 위에 커피 컵이 놓여 있는 걸 본 야스코는 자리에 앉으면서 従業員
에게 코코아를 注文했다.

테이블 위에 커피 컵이 놓여 있는 걸 본 야스코는 자리에 앉으면서 종업
원에게 코코아를 주문했다.

テーブルの上にコーヒーカップが置かれているのを見たヤスコは席に座りな
がら従業員にココアを注文した。

소프트드링크를 주문하면 무료로 리필도 해 주지만 오래 앉아 있으ㄴ 생각이
없어ㄴ다.

소프트드링크를 注文하면 無料で 李필도 해 주지만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다.

소프트드링크를 주문하면 무료로 리필도 해 주지만 오래 앉아 있을 생각이 없었다。

ソフトドリンクを注文すると無料で詰め替えもしてくれるが、長く座っているつもりはなかった。

“용건이 뭐야?”

“用件이 뭐야?”

“용건이 뭐야?”

「用件は何ですか？」

도가시를 노려보며 물어ㄴ다。

道家市를 노려보며 물었다。

도가시를 노려보며 물었다。

道鹿市を狙って聞いた。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어ㄴ다。

그는 빙그레 微笑를 지었다。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彼はビングレの笑顔を作った。

“그렇게 서두르ㄴ 거 없잖아。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그렇게 서두를 거 없잖아.

「そんなに急いでいないじゃないか。

“나도 바쁜 몸이야.

“나도 바쁜 몸이야.

“나도 바쁜 몸이야.

「私も忙しい体だ。

빨리 용건이나 말해.

빨리 用件이나 말해.

빨리 용건이나 말해.

早く用件や教えてください。

“야스코.

“야스코.

“야스코.

「ヤスコ。

도가시가 손을 뻗어왔다.

道が市街 손을 뻗었다.

도가시가 손을 뻗었다.

道鹿市が手を伸ばした。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아 보인다.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테이블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テーブルに置かれた彼女の手を握ろうと思った。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황급히 손을 끌어당기자 그가 입술을 비틀어 보인다.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慌急히 손을 끌어당기자 그가 입술을 비틀었다.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황급히 손을 끌어당기자 그가 입술을 비틀었다.

それに気づき、彼女が慌てて手を引っ張ると、彼が唇をねじった。

“이거 기분 나쁜 거 같.”

“이거 氣分 나쁜 거 같.”

“이거 기분 나쁜 거 같.”

「これは気持ち悪いこと。」

“당연하잖아.”

“當然하잖아.”

“당연하잖아.”

「当然じゃない。」

대체 무슨 용건으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代替 무슨 用件으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대체 무슨 용건으로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一体どんな用件で私の後ろに通うの？」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하지。

“그런 式으로 말하면 섭섭하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하지。

「そんなふうに言えば摂摂しない。

이래 봐도 나는 진지하ㄴ데 말이야。

이래 봐도 나는 眞摯한데 말이야。

이래 봐도 나는 진지한데 말이야。

以来、私も真剣ですが。

“뭐가 진지하다는 거야?”

“뭐가 眞摯하다는 거야?”

“뭐가 진지하다는 거야?”

「何が本気だって？」

그때 종업원이 코코아를 가져와ㅅ다。

그때 従業員이 코코아를 가져왔다。

그때 종업원이 코코아를 가져왔다。

その時従業員がココアを持ってきた。

야스코는 재빨리 컵을 쥐어쑤다。

야스코는 재빨리 컵을 쥐었다。

야스코는 재빨리 컵을 쥐었다。

ヤスコはすぐにカップを握った。

얼른 마시고 일어서려는 생각이어쑤다。

얼른 마시고 일어서려는 생각이었다。

얼른 마시고 일어서려는 생각이었다。

さっさと飲んで立ち上がろうと思った。

“당신, 아직 혼자지?”

“當身, 아직 혼자지?”

“당신, 아직 혼자지?”

「あなた、まだ一人ですか？」

도가시가 눈을 치뜨며 물어쑤다。

도가市街 눈을 치뜨며 물었다。

도가시가 눈을 치뜨며 물었다。

道鹿市が目を覚まして尋ねた。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當身이랑 무슨 相關이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それはあなたと何の関係ですか？」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女子 혼자 子息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女性一人で子供を育てるのがどれほど難しいか。

앞으로 돈도 점점 많이 드 ㄴ 데 ㄴ 데 말이지.

앞으로 돈도 漸漸 많이 들 텐데 말이지.

앞으로 돈도 점점 많이 들 텐데 말이지.

これからお金もどんどん聞いてくるのにね。

그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거 ㄴ로는 막막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이 ㄴ 데, 다시 잘 생각해 봐.

그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는 寞寞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다시 잘 생각해 봐.

그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는 막막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다시 잘 생각해 봐.

そんなお弁当屋で働くことで、幕を閉じませんか？だから言葉なのに、またよく考えてみて。

나도 옛날과는 달라。

나도 옛날과는 달라。

나도 옛날과는 달라。

私も昔とは違う。

“다르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다르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다르다고?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違うって？それでは一つ聞いてみますが、仕事をしているの？」

“물론이지。

“勿論이지。

“물론이지。

「もちろん。

일자리는 이미 알아 났^ㅅ어。

일자리는 이미 알아 났어。

일자리는 이미 알아 났어。

仕事は既に知っておいた。

“그럼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じゃあ今は仕事をしないって言うじゃないか。

“허 참, 일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네.

“許 참, 일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네.

“허 참, 일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네.

「ほん、仕事があるからね。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해_ㅅ어.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어.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어.

来月から働くことにした。

새로 생기_ㄴ 회사이_ㄴ데, 일단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당신도 고생 끝이라고.

새로 생긴 會社인데, 一旦 軌道에 오르기만 하면 當身도 苦勞 끝이라고.

새로 생긴 회사인데, 일단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당신도 고생 끝이라고.

新しくできた会社なのに、一度軌道に乗るだけであなたも苦勞の終わりだ

と。

“돼ㅜ어。

“됐어。

“됐어。

「できた。

그만큼 벌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잖아。

그만큼 벌면 다른 相對를 찾으면 되잖아。

그만큼 벌면 다른 상대를 찾으면 되잖아。

それだけ稼げば他の相手を探せばいいじゃないか。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내버려 뒀。

제발 付託이니까 나 좀 내버려 뒀。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내버려 뒀。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야스코, 나는 당신이 필요해。

“야스코, 나는 當身이 必要해。

“야스코, 나는 당신이 필요해。

「ヤスコ、私はあなたが必要です。

도가시가 다시 손을 뻗어 컵을 쥐고 있는 야스코의 손을 잡으려 해^ㄴ다。

都家時が 다시 손을 뻗어 컵을 쥐고 있는 야스코의 손을 잡으려 했다。

도가시가 다시 손을 뻗어 컵을 쥐고 있는 야스코의 손을 잡으려 했다。

道鹿市が再び手を伸ばしてカップを握っているヤスコの手を握ろうとした。

만지지 마, 하고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쳐^ㄴ다。

만지지 마, 하고 그女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하고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触れないで、彼女は彼の手を振りました。

그 바람에 컵 속 코코아가 넘쳐 도가시의 손에 쏟아져^ㄴ다。

그 바람에 컵 속 코코아가 넘쳐 도가시의 손에 쏟아졌다。

그 바람에 컵 속 코코아가 넘쳐 도가시의 손에 쏟아졌다。

その風にカップの中のココアがあふれて、嵯峨市の手に注がれた。

도가시가 “앗, 뜨거워!”라며 손을 끌어당겨^ㄴ다。

도가市街 “앗, 뜨거워!”라며 손을 끌어당겼다。

도가시가 “앗, 뜨거워!”라며 손을 끌어당겼다。

道鹿市が「あっ、熱く！」と手を引いた。

다음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증오의 빛이 어려^ㄴ다。

다음 瞬間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憎惡의 빛이 어렸다.

다음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증오의 빛이 어렸다.

次の瞬間、彼女を見つめる彼の目に憎しみの光が若かった。

“그런 번지르르하ㄴ 말에 내가 속으ㄴ 것 같아? 지난번에도 말해ㄴ지만 나는
당신 곁으로 돌아가ㄴ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그런 번지르르한 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지난番에도 말했지만 나는 當
身 곁으로 돌아갈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拋棄해.

“그런 번지르르한 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당
신 곁으로 돌아갈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そんな煩わしい言葉に私はだま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か？前回も言ったけ
ど私はあなたのそばに帰るつもりだと思うほどにないからもうやめてあきら
めて。

알아ㄴ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か？」

야스코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가시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아ㄴ다.

야스코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가시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야스코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도가시가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靖子が席で立ち上がると、ドガシが言葉なしに彼女を狙った。

그 눈길을 무시하 ㄴ 채 그녀는 자신의 찻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으
로 향해 ㄴ다。

그 눈길을 無視한 채 그녀는 自身の 茶々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出入
門으로 向했다。

그 눈길을 무시한 채 그녀는 자신의 찻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출입문
으로 향했다。

その目を無視したまま彼女は自分のティー値をテーブルの上に載せて出入り
口に向かった。

레스토랑을 나서 ㄴ 그녀는 가게 옆에 세워 두 ㄴ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
기 시작해 ㄴ다。

레스토랑을 나선 그녀는 가게 옆에 세워 둔 自轉車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
기 始作했다。

레스토랑을 나선 그녀는 가게 옆에 세워 둔 자전거에 올라타고 페달을 밟
기 시작했다。

レストランを出た彼女は、店の隣に立てた自転車に乗ってペダルを踏み始め
た。

우물쭈물하다가 도가시가 뒤따라오기라도 하면 귀찮아지 ㄴ다고 생각해 ㄴ다。

우물쭈물하다가 도가시가 뒤따라오기라도 하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도가시가 뒤따라오기라도 하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했다.

井戸ぐるぐると戸岳が付いてくるといえば面倒になると思った。

기요스바시로를 직진해 다리를 건너 後 좌회전해 ㄴ다。

氣よスバシ로를 直進해 다리를 건너 後 左回轉했다。

기요스바시로를 직진해 다리를 건너 後 좌회전했다。

清橋を直進して橋を渡った後、左折した。

하 ㄴ 말은 해 ㄴ지만, 그거 ㄴ로 도가시가 포기하 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ㄴ다。

할 말은 했지만, 그걸로 도가시가 抛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할 말은 했지만, 그걸로 도가시가 포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言うことはしたが、それで道が市があきらめるとは思わなかった。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게에 나타나 야스코에게 들러볼다가 마침내는 가게에 폐를 끼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마 ㄴ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게에 나타나 야스코에게 들러볼다가 마침내는 가게에 폐를 끼치는 事態를 招來하고 말 것이다。

얼마 안 가서 다시 가게에 나타나 야스코에게 들러볼다가 마침내는 가게에 폐를 끼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しばらく行って再び店に現れ、ヤスコに立ち寄り、ついに店に迷惑をかける事態を招いてしまうだろう。

미사토가 다니는 학교에도 나타나지 모르다.

미사토가 다니는 學校에도 나타날지 모른다.

미사토가 다니는 학교에도 나타날지 모른다.

ミサトが通う学校にも現れるかもしれない。

그 남자는 야스코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男子는 야스코가 降伏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남자는 야스코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その男は、ヤスコが降伏するのを待っている。

결국은 두 손 들고 돈을 내놓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結局은 두 손 들高 돈을 내놓으리라는 確信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두 손 들고 돈을 내놓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結局は両手持ってお金を出すという確信があるのだ。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해다.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準備를 始作했다.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ヤスコは家に帰って夕方の準備を始めた。

준비라고 해야 가게에서 남으 半찬 가져오 半 것을 데우는 정도다.

準備라고 해야 가게에서 남은 飯饌 가져온 것을 데우는 程度だ。

준비라고 해야 가게에서 남은 반찬 가져온 것을 데우는 정도다。

準備と言わなければ、店で残ったおかず持ってきたものを温めるほどだ。

그런데도 야스코의 손은 자주 움직임을 멈춰_ㄴ다。

그런데都 야스코의 손은 자주 움직임을 멈췄다。

그런데도 야스코의 손은 자주 움직임을 멈췄다。

それでも、ヤスコの手は頻繁に動きを止めた。

불길하_ㄴ 상상이 부풀어 올라 문득문득 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어_ㄴ다。

不吉한 想像이 부풀어 올라 문득문득 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불길한 상상이 부풀어 올라 문득문득 얼이 빠져 버리기 때문이었다。

不吉な想像が膨らみ、ふとふと凍りついてしまうからだった。

어느덧 미사토가 돌아오_ㄴ 시간이어_ㄴ다。

어느덧 미사토가 돌아올 時間이었다。

어느덧 미사토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いつしかミサトが帰ってくる時間だった。

배드민턴부에 들어 가_ㄴ 미사토는 연습이 끝나면 부원들과 잡담을 나누며 놀다
가 들어오_ㄴ다。

배드민턴부에 들어 간 미사토는 練習이 끝나면 部員들과 雜談을 나누며 놀다가 들어온다。

배드민턴부에 들어 간 미사토는 연습이 끝나면 부원들과 잡담을 나누며 놀다가 들어온다。

バドミントン部に入ったミサトは練習が終われば部員たちと雑談を交わして遊んで入ってくる。

그래서 귀가 시간이 대체로 7시 이후여^ㄴ다。

그래서 귀가 時間이 大體로 7時 以後였다。

그래서 귀가 시간이 대체로 7시 이후였다。

それで帰宅時間が概ね7時以降だった。

그때 현관 벨이 울려^ㄴ다。

그때 玄關 벨이 울렸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その時玄関ベルが鳴った。

야스코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나가^ㄴ다。

야스코는 疑訝해하며 玄關으로 나갔다。

야스코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靖子は不思議で玄関に出た。

미사토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으ㄴ 터여ㄴ다。

미사토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미사토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ミサトなら鍵を持っているはずだった。

“네。

“네。

“네。

「はい。

일단 그렇게 대답하ㄴ 후 현관문에 다가가서 다시 물어ㄴ다。

一旦 그렇게 對答한 後 玄關門에 다가가서 다시 물었다。

일단 그렇게 대답한 후 현관문에 다가가서 다시 물었다。

一度そのように答えた後、玄関門に近づいてまた尋ねた。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誰ですか？」

약간의 틈이 있으ㄴ 후 대답이 들려ㄴ다。

若干의 틈이 있는 後 對答이 들렸다.

약간의 틈이 있는 후 大답이 들렸다.

少し隙があった後、答えが聞こえた。

“나야。

“나야。

“나야。

「私よ。

야스코는 눈앞이 캄캄해^ㄴ다。

야스코는 눈앞이 캄캄했다。

야스코는 눈앞이 캄캄했다。

ヤスコは目の前がすっかりした。

불길하^ㄴ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不吉한 豫感은 빗나가는 法이 없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不吉な予感は外れる方法がない。

도가시는 이미 이 연립 주택의 위치도 알아내^ㄴ 것이다。

도가시는 이미 이 聯立 住宅의 位置도 알아낸 것이다。

도가시는 이미 이 연립 주택의 위치도 알아낸 것이다.

同市はすでにこの連立住宅の位置も把握したのだ。

보나 마나 ‘베 ㄴ 테 ㄴ 테이’에서 집까지 그녀의 뒤를 밟으 ㄴ 적이 있으 ㄴ 것이
다。

보나 마나 ‘벤텐테이’에서 집까지 그녀의 뒤를 밟은 적이 있을 것이다。

보나 마나 ‘벤텐테이’에서 집까지 그녀의 뒤를 밟은 적이 있을 것이다。

ボナマナ「ベンテンテー」から家まで彼女の後ろを踏んだことがあるだろ
う。

야스코가 대답하지 않자 도가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 ㄴ 다。

야스코가 對答하지 않자 도가시는 門을 두드리기 始作했다。

야스코가 대답하지 않자 도가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ヤスコが答えないと、道鹿市はドアを叩き始めた。

“이봐!”

“이봐!”

“이봐!”

「ねえ！」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물쇠를 풀어 ㄴ 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물쇠를 풀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물쇠를 풀었다.

彼女は頭をすっかり振り、ロックを緩めた。

그러나 도어체인은 벗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刀魚體認은 벗기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도어체인은 벗기지 않은 상태였다.

しかしドアチェーンは剥がさない状態だった。

문을 10센티미터 남짓 열자 도가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門을 10센티미터 남짓 열者 도가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문을 10센티미터 남짓 열자 도가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扉を 10センチメートル余り開けると、道鹿市が顔を押し込んだ。

야스코를 보 그가 히죽 웃으며 누러 이를 드러내었다.

야스코를 본 그가 히죽 웃으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야스코를 본 그가 히죽 웃으며 누런 이를 드러냈다.

ヤスコを見た彼がヒジク笑ってヌンヌンこれを明らかにした。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戻って。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なぜここまでやって来てそう！」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아ㄴ어.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私の話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

당신은 여전히 성미가 급하군.

當身은 如前히 性味が 急하군.

당신은 여전히 성미가 급하군.

あなたはまだ気が急いでいます。

“이제 그만 쫓아다녀ㄴ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もうやめて追いかけてほしい。

“애기 정도는 들어 주 ㄴ 수 있잖아.

“애기 程度는 들어 줄 수 있잖아.

“애기 정도는 들어 줄 수 있잖아.

「話くらいは聞いてくれるじゃない。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야겠어.

一 旦 안으로 좀 들어가야겠어.

일단 안으로 좀 들어가야겠어.

いったん中に少し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

“안 돼.

“안 돼.

“안 돼.

「いいえ。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帰ります！」

“안 들여놓겠다면 여기서 기다리지, 뭐.

“안 들여놓겠다면 여기서 기다리지, 뭐.

“안 들여놓겠다면 여기서 기다리지, 뭐.

「入れないならここで待つな、な。」

슬슬 미사토가 돌아오 ㄹ 시간인 ㄹ 테 ㄴ 데 말이야.

슬슬 미사토가 돌아올 時間일 텐데 말이야.

슬슬 미사토가 돌아올 시간일 텐데 말이야.

そろそろミサトが帰ってくる時間なのにな。

당신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니 그 녀석이랑 해야겠어.

當身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니 그 녀석이랑 해야겠어.

당신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주니 그 녀석이랑 해야겠어.

あなたが私の話を聞いてくれないので、あいつ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 아이는 내버려 뒀!”

“그 아이는 내버려 뒀!”

“그 아이는 내버려 뒀!”

「あの子は放っておく！」

“그럼 들어놓든가.

“그럼 들어놓든가.

“그럼 들어놓든가.

「じゃあ覗いてみようか。」

“경찰을 부르겠어.

“警察을 부르겠어.

“경찰을 부르겠어.

「警察を呼ぶ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勝手にやって.

헤어지 ㄴ 아내를 만나러 오 ㄴ 게 뭐가 나쁘다고.

헤어진 아내를 만나러 온 게 뭐가 나쁘다고.

헤어진 아내를 만나러 온 게 뭐가 나쁘다고.

別れた妻に会いに来たのが何が悪いと.

경찰도 내 편을 들어 주 ㄴ 걸.

警察도 내 便을 들어 줄 걸.

경찰도 내 편을 들어 줄 걸.

警察も私の側を聞いてあげる.

이봐요 부인, 집에 들여놓는 정도는 괜찮지 않으 ㄴ 까요? 하고 말이야.

이봐요 夫人, 집에 들여놓는 程度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야。

이봐요 부인, 집에 들여놓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말이야。

ねえ、奥さん、家に入れる程度は大丈夫でしょうか？やってね。

야스코는 입술을 깨물어ㄴ다。

야스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야스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ヤスコは唇を噛んだ。

애석하게도 도가시의 말이 맞아ㄴ다。

哀惜하게도 도가시의 말이 맞았다。

애석하게도 도가시의 말이 맞았다。

哀愁的にも嵐市の言葉が当たった。

전에도 경찰을 부르ㄴ 적이 있어ㄴ지만, 그들이 야스코를 도와주ㄴ 적으ㄴ 한 번도 없어ㄴ다。

前에도 警察을 부른 적이 있었지만, 그들李 야스코를 도와준 적은 한 番도 없었다。

전에도 경찰을 부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야스코를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以前も警察を呼んだことがあったが、彼らがヤスコを助けたことは一度もな

かった。

한편으로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어ㄴ다。

한便으로 이곳에서 騒動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다。

한편으로 이곳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다。

一方でここで騒動を起こ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心もあった。

보증인 없이 세를 드 ㄴ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하 ㄴ 소문이 퍼지면 쫓겨나고 마
ㄴ다。

保證人 없이 稅를 든 만큼 조금이라도 異常한 所聞이 퍼지면 쫓겨나고 만
다。

보증인 없이 세를 든 만큼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쫓겨나고 만
다。

保証人なしで歳をとっただけに少しでも変な噂が広がれば追い出されてしま
う。

“그럼 금방 돌아가야 해。

“그럼 今方 돌아가야 해。

“그럼 금방 돌아가야 해。

「じゃあすぐに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

“알아ㄴ어, 알아ㄴ다니까。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았어, 알았다니까。

「わかった、わかったから。

도가시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치켜들어ㄴ다。

도가市街 意氣揚揚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도가시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道鹿市が意氣揚々と首を振り上げた。

도어체인을 벗기고 문을 열어ㄴ다。

刀魚體認을 벗기고 門을 열었다。

도어체인을 벗기고 문을 열었다。

ドアチェーンをはずしてドアを開けた。

도가시는 힐끔힐끔 집 안을 살펴보면서 구두를 벗어ㄴ다。

도가시는 힐끔힐끔 집 안을 살펴보면서 구두를 벗었다。

도가시는 힐끔힐끔 집 안을 살펴보면서 구두를 벗었다。

道鹿市はすごく家の中を見ながら靴を脱いだ。

방이 두 개뿐이ㄴ 집이다。

房이 두 個뿐인 집이다。

방이 두 개뿐인 집이다.

部屋が二つだけの家だ。

들어서면 바로 3평짜리 다다미방이고, 그 오른쪽에 자그마한 싱크대가 달려 있다.

들어서면 바로 3坪짜리 다다미房이고, 그 오른쪽에 자그만 싱크臺가 달려 있다.

들어서면 바로 3평짜리 다다미방이고, 그 오른쪽에 자그만 싱크대가 달려 있다.

入るとすぐに 3坪の畳敷きで、その右側に小さな流し台がかかっている。

더 안쪽에는 2평짜리 다다미방이 있고 그 앞은 베란다다.

더 안쪽에는 2坪짜리 다다미房이 있고 그 앞은 베란다다.

더 안쪽에는 2평짜리 다다미방이 있고 그 앞은 베란다다.

さらに奥には 2坪の畳があり、その前はベランダだ。

“넓고 좁기나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하네.

“넓고 좁긴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하네.

“넓고 좁긴 하지만 그런대로 살 만하네.

「古くて狭いけど、そんな風に生きる。

도가시는 뽀뽀스럽게도 방 하나 가운데에 놓인 고타쓰 안에 발을 집어넣고 앉

아ㅏ다。

도가시는 뽀뽀스럽게도 房 한가운데에 놓인 고타쓰 안에 발을 집어넣고 앉
았다。

도가시는 뽀뽀스럽게도 방 한가운데에 놓인 고타쓰 안에 발을 집어넣고 앉
았다。

道鹿市は恥ずかしくも部屋の真ん中に置かれた小田津の中に足を入れて座っ
た。

“뭐야, 안 켜져 있잖아!”

“뭐야, 안 켜져 있잖아!”

“뭐야, 안 켜져 있잖아!”

「なんだ、点灯してないじゃん！」

그는 제멋대로 고타쓰의 전원 스위치를 켜ㅏ다。

그는 제멋대로 고타쓰의 全員 스위치를 켰다。

그는 제멋대로 고타쓰의 전원 스위치를 켰다。

彼は勝手にコタツの電源スイッチを入れた。

“당신 속셈이 뭐ㄴ지 알아。

“當身 속셈이 뭔지 알아。

“당신 속셈이 뭔지 알아。

「あなたの侮辱が何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

야스코는 서 L 채로 도가시를 내려다보아^ㅅ다。

야스코는 선 채로 도가시를 내려다보았다。

야스코는 선 채로 도가시를 내려다보았다。

ヤスコは線のまま道街を見下ろした。

“어찌고저찌고해도 결국 돈이겠지。

“어찌고저찌고해도 結局 돈이겠지。

“어찌고저찌고해도 결국 돈이겠지。

「とにかくと言っても結局お金だろう。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いや、何を言うの？」

도가시는 점퍼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뱃갑을 꺼내^ㅅ다。

도가시는 점퍼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뱃^匣을 꺼냈다。

도가시는 점퍼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뱃갑을 꺼냈다。

ドガシはジャンパーポケットからセブンスタータバコを取り出した。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 ㄴ 다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손을 뻗어 재활용품 배출 봉지에 드 ㄴ 캔을 하나 꺼내 거기에 재를 떨어 ㅅ 다。

그리고 一回用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周圍를 둘러보더니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손을 뻗어 再活用品 排出 封紙에 든 캔을 하나 꺼내 거기에 재를 떨어 ㅅ 다。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떨이가 없다는 것을 알자 손을 뻗어 재활용품 배출 봉지에 든 캔을 하나 꺼내 거기에 재를 떨어 ㅅ 다。

そして使い捨てライターで火をつけた後、周囲を見回すと灰皿がないことが分かって、手を伸ばしてリサイクル品排出袋に入った缶を一つ取り出してそこに灰を震わせた。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私からお金を引き出すつもりはない。

요는 그런 거잖아.

요는 그런 거잖아.

요는 그런 거잖아.

ヨーはそんなことじゃな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러든지。

“當身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러든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러든지。

「あなたがそう思うならばそう。

“돈은 한 푼도 못 내놔。

“돈은 한 푼도 못 내놔。

“돈은 한 푼도 못 내놔。

「お金は一杯も出せない。

“흥, 그러셔?”

“흥, 그러셔?”

“흥, 그러셔?”

「ふん、そうですか？」

“그래。

“그래。

“그래。

「ええ。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

だから帰り。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そしてまた来ないでください！」

야스코가 거치 ㄴ 말투로 내뱉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교복 차림의 미사토가 들어서 ㄴ다。

야스코가 거친 말투로 내뱉는데 玄關門이 활짝 열리더니 校服 차림의 미사토가 들어섰다。

야스코가 거친 말투로 내뱉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교복 차림의 미사토가 들어섰다。

ヤスコが荒々しい口調で吐き出すのに、玄関門が広く開かれたので、制服姿のミサトが入った。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서 ㄴ 미사토는 손님의 정체를 알아차리자 두려움과 실망이 뒤섞이 ㄴ 복잡하 ㄴ 표정을 지어 ㄴ다。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一旦 그 자리에 멈춰 선 미사토는 손님의 正體를

알아차리자 두려움과 失望이 뒤섞인 複雑한 表情을 지었다。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선 미사토는 손님의 정체를 알아차리자 두려움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客がいることを知って一応その場に止まったミサトは、客の正体を気づくと恐怖と失望が混じった複雑な表情をした。

그와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져ㄴ다。

그와 同時に 손에 쥐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손에 쥐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이 바닥에 떨어졌다。

それと同時に手に握っていたバドミントンラケットが床に落ちた。

“미사토, 오랜만이구나。

“미사토, 오랜만이구나。

“미사토, 오랜만이구나。

「ミサト、久しぶりだね。

많이 커ㄴ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たくさん大きかった。

도가시가 능청스러운 声으로 말을 건네ㄴ다。

도가市街 능청스러운 소리로 말을 건넸다。

도가시가 능청스러운 소리로 말을 건넸다。

道鹿市が凄まじい声で話しかけた。

미사토는 야스코를 흘끗 한 번 보고는 운동화를 벗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서
ㄴ다。

미사토는 야스코를 흘끗 한 番 보고는 運動靴를 벗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
어섰다。

미사토는 야스코를 흘끗 한 번 보고는 운동화를 벗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
어섰다。

ミサトはヤスコをすっきり一度見てはスニーカーを脱いで、言葉なしで中に
入った。

그리고 그대로 안쪽 방으로 가서 칸막이 문을 닫아 버려ㄴ다。

그리고 그대로 안쪽 房으로 가서 칸막이 門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안쪽 방으로 가서 칸막이 문을 닫아 버렸다。

そしてそのまま奥の部屋に行って仕切りの扉を閉めてしまった。

도가시가 느릿느릿 입을 열어ㄴ다。

都家時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도가시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道鹿市がゆっくりと口を開けた。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_ㄴ지 모르겠지만, 나_ㄴ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_ㄴ 뿐이야.

“當身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우리 關係를 回復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あなたはどうか分からないが、私はただ私たちの関係を回復したいだけだ。

그 말을 하러 오_ㄴ 게 그렇게 나쁜_ㄴ가?”

그 말을 하러 온 게 그렇게 나쁜가?”

그 말을 하러 온 게 그렇게 나쁜가?”

その言葉に来たのはそんなに悪いのか？」

“나_ㄴ 그러_ㄴ 생각 없다고 해_ㅆ잖아.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난 그럴 생각 없다고 했잖아.

「私はそう思わないと言ったでしょ。

당신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_ㄴ 거_ㄴ 뻔히 아_ㄴ 테고.

當身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뻔히 알 테고.

당신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걸 뻔히 알 테고。

あなたも私が受け入れ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건 내게 달라붙으려는 구실에 불과하 ㄴ 뿐이야!”

關係を回復하겠다는 건 내게 달라붙으려는 구실에 不過할 뿐이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건 내게 달라붙으려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야!”

關係を回復するというのは私にしがみつきたい口実に過ぎないだけだ！

정곡을 찌르는 말이어 ㄴ 다。

正鵠을 찌르는 말이었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正曲を突く言葉だった。

그러나 도가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 ㄴ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 ㄴ
다。

그러나 도가시는 아무런 反應을 하지 않은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
다。

그러나 도가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
다。

しかし、ドガシは何の反応もせずにリモコンでテレビをつけた。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어 ㄴ 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었다.

アニメ番組が流れていた。

야스코는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부엌으로 갔다.

야스코는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부엌으로 갔다.

야스코는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부엌으로 갔다.

ヤスコはため息を一回長くし、台所に行った。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내, 다음 만 엔짜리 지폐를 두 장 빼
들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紙匣을 꺼낸 다음 萬 엔짜리 紙幣를 두 張 빼
들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낸 다음 만 엔짜리 지폐를 두 장 빼
들었다.

そして流し台引き出しを開けて財布を取り出した後だけ円札を2枚取り出し
た。

“자.

“자.

“자.

「さあ。

그녀는 돈을 고타쓰 위에 올려놓아^ㄴ다。

그女는 돈을 고타쓰 위에 올려놓^ㅏ았다。

그녀는 돈을 고타쓰 위에 올려놓^ㅏ았다。

彼女はお金をコタツの上に置いた。

“뭐야, 이거^ㄴ。

“뭐야, 이^ㄴ건。

“뭐야, 이^ㄴ건。

「なんだ、これは。

돈은 한 푼도 못 주^ㄴ다면서?”

돈은 한 푼도 못 준다면서?”

돈은 한 푼도 못 준다면서?”

お金は一銭も与えられないと？」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これが最後だ。

“필요 없어, 이^ㄴ딴 거。

“必要 없어, 이딴 거.

“필요 없어, 이딴 거.

「必要ないよ、なんだか。

“빈손으로 돌아가ㄴ 생각은 없으ㄴ 데ㄴ 데.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을 텐데.

「手ぶらで帰るつもりはないはずなのに。

더 뜯어 가고 싶겠지만,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더 뜯어 가고 싶겠지만,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더 뜯어 가고 싶겠지만, 나도 사는 게 힘들어.

もっと開いていきたいけど、私も買うのが大変だ。

도가시는 2만 엔과 야스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아^ㅅ다.

도가시는 2萬 엔과 야스코의 얼굴을 番갈아 바라보았다.

도가시는 2만 엔과 야스코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道鹿市は2万円と靖子の顔を交互に眺めた。

“하ㄴ 수 없군, 그럼 돌아가야지.

“할 수 없군, 그럼 돌아가야지.

“할 수 없군, 그럼 돌아가야지.

「できないね、じゃあ帰らね。

말해 두겠는데, 나 분명히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해 ㅅ어.

말해 두겠는데, 난 分明히 돈 같은 건 必要 없다고 했어.

말해 두겠는데, 난 분명히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어.

言っておきますが、私は明らかにお金のようなものは必要ないと言いました。

이거 어디까지나 당신이 억지로 집어 주 거란 말이지.

이건 어디까지나 當身이 억지로 집어 준 거란 말이지.

이건 어디까지나 당신이 억지로 집어 준 거란 말이지.

これはあくまでもあなたが無理やり拾ってくれたということだ。

도가시는 지폐를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어 ㅅ다.

도가시는 紙幣를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도가시는 지폐를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道鹿市は紙幣をジャンパーポケットに差し込んだ。

그리고 담배꽂초를 비 캔 안에 집어넣으 후 고타쓰를 빠져나와 ㅅ다.

그리고 담배꽂초를 빈 캔 안에 집어넣은 後 고타쓰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빈 캔 안에 집어넣은 후 고타쓰를 빠져나왔다.

そして、タバコの吸い殻を空の缶の中に入れた後、こたつを抜け出した。

그러나 곧바로 현관으로 향하지 않고 안쪽 방으로 다가가더니 칸막이 문을 힘
껏 열어젖혀ㄴ다。

그러나 곧바로 玄關으로 向하지 않고 안쪽 房으로 다가가더니 칸막이 門을
힘껏 열어젖혔다。

그러나 곧바로 현관으로 향하지 않고 안쪽 방으로 다가가더니 칸막이 문
을 힘껏 열어젖혔다。

しかしすぐに玄関に向かうことなく奥の部屋に近づいたところ、仕切りの扉
を開放して濡れた。

미사토가 놀라 소리를 질러ㄴ다。

미사토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미사토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ミサトが驚き声を上げた。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當身 只今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あなたは今何してるの？」

야스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라썩다。

야스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虚空을 갈랐다。

야스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ヤスコの声が鋭く虚空を割った。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인사는 해야지。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人士는 해야지。

“아무리 의붓딸이지만 인사는 해야지。

「いくら義兄だけど挨拶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

“지금은 딸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只今は 딸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지금은 딸도 그 무엇도 아니잖아。

「今は娘も何もないじゃない。

“그렇다고 인사도 못 하나? 그럼 미사토, 다음에 보자。

“그렇다고 人士도 못 하나? 그럼 미사토, 다음에 보자。

“그렇다고 인사도 못 하나? 그럼 미사토, 다음에 보자。

「だから挨拶もできない? ではミサト、次に見よう。

도가시가 방 안쪽을 향해 말해썩다。

道が市街 房 안쪽을 向해 말했다.

도가시가 방 안쪽을 향해 말했다.

とが市が部屋の奥に向かって話した。

미사토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야스코에게 보이지 않아ㄴ다.

미사토가 어떤 表情을 짓고 있는지는 야스코에게 보이지 않았다.

미사토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야스코에게 보이지 않았다.

ミサトがどんな表情をしているのかは、ヤスコには見えなかった。

그리고 나서야 도가시는 현관으로 향해ㄴ다.

그리고 나서야 도가시는 玄關으로 向했다.

그리고 나서야 도가시는 현관으로 향했다.

そうしてから、とが市は玄関に向かった。

“저 녀석, 꽤 괜찮으ㄴ 여자가 되겠어.

“低 녀석, 꽤 괜찮은 女子가 되겠어.

“저 녀석, 꽤 괜찮은 여자가 되겠어.

「あいつ、かなりまともな女になるだろう。

내가 보장하지.

내가 保障하지.

내가 보장하지。

私は保証しません。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何の無駄な音をするんだ！」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야。

「無駄な音ではない。

앞으로 3년만 있어 봐, 돈 좀 벌어 오_ㄴ걸? 앞 다투어 저 녀석을 쓰려고들 하_ㄴ
거야。

앞으로 3年만 있어 봐, 돈 좀 벌어 올걸? 앞 다투어 低 녀석을 쓰려고들
할 거야。

앞으로 3년만 있어 봐, 돈 좀 벌어 올걸? 앞 다투어 저 녀석을 쓰려고들
할 거야。

今後 3年ぶりになってみて、お金を稼ぐの?先に争ってあいつを書こうと思
うんだ。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돌아가。

“헛소리 집어치우고 當場 돌아가。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돌아가。

「うんざりして拾ってすぐに帰って。

“가 ㄴ 거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갈 거야, 오늘은 이 程度로 하고。

“갈 거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行くよ、今日はこれくらいにして。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再び来ないでください。

“글쎄, 그게 그렇게 되 ㄴ지 잘 모르겠네。

“글쎄, 그게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네。

“글쎄, 그게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네。

「まあ、それがそうなるのかよく分からない。

“당신……。

“當身……。

“당신……。

「あなた… …。

“내 말해 두겠는데, 당신은 절대로 내 손에서 못 벗어나。

“내 말해 두겠는데, 當身은 絶對로 내 손에서 못 벗어나。

“내 말해 두겠는데, 당신은 절대로 내 손에서 못 벗어나。

「私に言っておきますが、あなたは決して私の手から外れません。

포기하 ㄴ 사람은 당신이란 말이야。

拋棄할 사람은 當身이란 말이야。

포기할 사람은 당신이란 말이야。

あきらめる人はあなたということだ。

그러고서 도가시는 나지막이 웃어 ㄴ다。

그러고서 도가시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러고서 도가시는 나지막이 웃었다。

そして、とが市は挨拶が笑った。

그리고 구두를 신으려고 허리를 굽혀 ㄴ다。

그리고 구두를 신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구두를 신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そして靴を履こうと腰を曲げた。

그때여ㄴ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その時だった。

야스코의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느새 교복 차림의 미사토가 바로 옆에 와 있어ㄴ다。

야스코의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느새 校服 차림의 미사토가 바로 옆에 와 있었다。

야스코의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느새 교복 차림의 미사토가 바로 옆에 와 있었다。

ヤスコの背後から何の音が聞こえて振り返ると、いつのまにか制服姿のミサトがすぐ隣に来ていた。

다음 순간 미사토가 뭐ㄴ가를 번쩍 치켜들어ㄴ다。

다음 瞬間 미사토가 뭔가를 번쩍 치켜들었다。

다음 순간 미사토가 뭔가를 번쩍 치켜들었다。

次の瞬間、ミサトが何かを点滅させた。

말리 ㄴ 틈도, 소리를 지르 ㄴ 새도 없어 ㄴ다。

말릴 틈도, 소리를 지를 새도 없었다。

말릴 틈도, 소리를 지를 새도 없었다。

乾燥する隙も、音を鳴らす鳥もなかった。

미사토가 도가시의 뒤통수를 내리쳐 ㄴ다。

미사토가 도가시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미사토가 도가시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ミサトが東鹿市の後頭部を下げた。

둔탁하 ㄴ 소리와 함께 도가시가 그 자리에 고꾸라져 ㄴ다。

鈍濁한 소리와 함께 도가시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가시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鈍い音と一緒に、ドガシがその場に盛り上がった。

2

2

2

2

미사토의 손에서 뒹 ㄴ가가 떨어져 ㄴ다。

미사討議 손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미사토의 손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ミサトの手から何かが落ちた。

청동 꽃병이어썸다。

청동 꽃瓶이었다。

청동 꽃병이었다。

青銅の花瓶だった。

‘베 ㄴ 테 ㄴ 테이’ 개업 축하 답례품으로 받으 ㄴ 것이다。

‘벤텐테이’ 開業 祝賀 答禮品으로 받은 것이다。

‘벤텐테이’ 개업 축하 답례품으로 받은 것이다。

「ベンテンテイ」開業おめでとうお礼品としてもらったのだ。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いいえ、あなた… … 。

야스코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아썸다。

야스코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스코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ヤスコが娘の顔を眺めた。

미사토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썸다。

미사토는 아무런 表情이 없었다。

미사토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ミサトは何の表情もなかった。

얼이 빠져나가 ㄴ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아 ㄴ다。

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アールが抜けたように、その場できつくなかった。

그러나 다음 순간 미사토의 눈이 화들짝 열려 ㄴ다。

그러나 다음 瞬間 미사討議 눈이 화들짝 열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미사토의 눈이 화들짝 열렸다。

しかし次の瞬間、ミサトの目が激しく開かれた。

그 눈길이 야스코의 뒤쪽을 향해 ㄴ다。

그 눈길李 야스코의 뒤쪽을 向했다。

그 눈길이 야스코의 뒤쪽을 향했다。

その目がヤスコの後ろに向かった。

야스코가 돌아보니 도가시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고 있어 ㄴ다。

야스코가 돌아보니 도가시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야스코가 돌아보니 도가시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靖子が振り返ってみると、道鹿市がねじれながら立ち上がろうとしていた。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뒤통수를 한 손으로 눌렀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뒤통수를 한 손으로 눌렀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뒤통수를 한 손으로 눌렀다.

彼は顔をゆがめながら後頭部を片手で押した。

“너희들……。

“너희들……。

“너희들……。

「お前ら… …。

도가시는 신음을 뱉어 내는 동시에 얼굴에 노골적이 증오를 드러내었다.

도가시는 呻吟을 뱉어 내는 同時に 얼굴에 露骨的인 憎惡를 드러냈다.

도가시는 신음을 뱉어 내는 동시에 얼굴에 노골적인 증오를 드러냈다.

道鹿市はうめき声を吐き出すと同時に顔に露骨な憎悪を表わした。

그의 눈이 미사토를 향하는가 싶더니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미사토 쪽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디뎠다.

그의 눈이 미사토를 向하는가 싶더니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미사토 쪽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디뎠다.

그의 눈이 미사토를 향하는가 싶더니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미사토 쪽으로 한 걸음 성큼 내디뎠다.

彼の目がミサトに向かうかと思ったら、ねじれながら立ち上がってミサトの方へ一歩盛り上がった。

야스코가 미사토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야스코가 未사토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야스코가 미사토 앞을 가로막고 섰다.

ヤスコがミサトの前を遮って立った。

“그만둬!”

“그만둬!”

“그만둬!”

「やめて！」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あちらこちら！」

도가시가 야스코의 팔을 잡아 옆으로 휩 밀쳐냈다.

道가시가 야스코의 팔을 잡아 옆으로 휩 밀쳤다.

도가시가 야스코의 팔을 잡아 옆으로 획 밀쳤다.

道鹿市が靖子の腕をつかみ、横にさっと押し込んだ。

야스코는 방 가장자리까지 날아가 벽에 허리를 부딪쳐ㄴ다.

야스코는 房 가장자리까지 날아가 壁에 허리를 부딪쳤다.

야스코는 방 가장자리까지 날아가 벽에 허리를 부딪쳤다.

ヤスコは部屋の端まで飛んで壁に腰をぶつけた。

도망치려는 미사토의 어깨를 도가시가 잡아ㄴ다.

逃亡치려는 미사討議 어깨를 도가시가 잡았다.

도망치려는 미사토의 어깨를 도가시가 잡았다.

逃げようとするミサトの肩を道鹿市が握った。

어른 남자의 체중이 실리자 미사토는 찌부러지듯 주저앉아ㄴ다.

어른 男子의 體重이 실리자 미사토는 찌부러지듯 주저앉았다.

어른 남자의 체중이 실리자 미사토는 찌부러지듯 주저앉았다.

大人の男の体重が載せられると、ミサトはぶつかるように座り込んだ。

그 위에 도가시는 말 타는 자세로 앉아 미사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뺨을 내리쳐ㄴ다.

그 위에 도가시는 말 타는 姿勢로 앉아 미사討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뺨을 내리쳤다.

그 위에 도가시는 말 타는 자세로 앉아 미사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뺨을 내리쳤다.

その上にトガシは馬乗る姿勢で座ってミサトの髪をつかんで右手で頬を下げた。

“너, 내가 죽여 버리ㄴ 거야!”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お前、俺が殺してしまうぞ！」

도가시가 짐승처럼 소리를 질러ㄴ다。

道家市街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도가시가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

道鹿市が獣のように叫んだ。

저러다 죽겠어, 야스코는 그런 생각이 들어ㄴ다。

저러다 죽겠어, 야스코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러다 죽겠어, 야스코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あんなに死ぬよ、ヤスコはそんな気がした。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로 미사토가 맞아 죽으ㄴ지도 몰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로 미사토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로 미사토가 맞아 죽을지도 몰라……。

このまま放っておけば本当にミサトが当たって死ぬかもしれない…。 …。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아^ㄴ다。

그女는 周圍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彼女は周りを見回した。

고타쓰에 달리^ㄴ 전기 코드가 눈에 들어와^ㄴ다。

고타쓰에 달린 電氣 코드가 눈에 들어왔다。

고타쓰에 달린 전기 코드가 눈에 들어왔다。

こたつにかかった電気コードが目に入った。

그것을 콘센트에서 뽑아 한쪽 끝에 고타쓰가 달리^ㄴ 채로 쥐고 일어서^ㄴ다。

그것을 콘센트에서 뽑아 한쪽 끝에 고타쓰가 달린 채로 쥐고 일어섰다。

그것을 콘센트에서 뽑아 한쪽 끝에 고타쓰가 달린 채로 쥐고 일어섰다。

それをコンセントから抜き、一端にコタツが走ったまま握って立ち上がった。

그리고 미사토를 깔고 앉으^ㄴ 채 으르렁거리고 있는 도가시의 등 뒤로 다가가

둥글게 말아 쥐^ㄴ 전기 코드를 그의 목에 걸고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겨^ㄴ다。

그리고 미사토를 깔고 앉은 채 으르렁거리고 있는 都家時の 等 뒤로 다가가 둥글게 말아 켜 電氣 코드를 그의 목에 걸고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그리고 미사토를 깔고 앉은 채 으르렁거리고 있는 도가시의 등 뒤로 다가가 둥글게 말아 켜 전기 코드를 그의 목에 걸고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そしてミサトを敷いて座ったままうずくっている戸堀の背後に近づいて丸く巻いて握った電気コードを彼の首に掛けている力を尽くして引っ張った。

으, 소리와 함께 도가시가 미사토의 등에서 떨어져 ㅅ다。

으, 소리와 함께 道가市街 미사討議 등에서 떨어졌다。

으, 소리와 함께 도가시가 미사토의 등에서 떨어졌다。

うーん、音とともに東鹿市がミサトの背中から落ちた。

그리고 이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 ㄴ 듯 있는 힘을 다해 전기 코드와 목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해 ㅅ다。

그리고 이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챈 듯 있는 힘을 다해 電氣 코드와 목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챈 듯 있는 힘을 다해 전기 코드와 목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そして、これま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気づいたような力を尽くして電気コードと首の間に指を入れようとした。

야스코는 필사적으로 전기 코드를 잡아당겨ㄴ다。

야스코는 必死的으로 電氣 코드를 잡아당겼다。

야스코는 필사적으로 전기 코드를 잡아당겼다。

ヤスコは必死に電氣コードを引っ張った。

여기서 만일 손을 놓쳐 버리ㄴ다면 그거 ㄴ로 끝장이라고 생각해ㄴ다。

여기서 萬一 손을 놓쳐 버린다면 그걸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만일 손을 놓쳐 버린다면 그걸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ここでもし手を逃してしまったらそれで終わりだと思った。

이 남자는 이거 ㄴ 빌미로 물귀신처럼 들러붙으ㄴ 것이 뻔하다。

이 男子는 이걸 빌미로 물鬼神처럼 들러붙을 것이 뻔하다。

이 남자는 이걸 빌미로 물귀신처럼 들러붙을 것이 뻔하다。

この男はこれを口実で水鬼のように立ち寄るのは明らかだ。

그러나 힘으로는 그를 당해 내ㄴ 수가 없어ㄴ다。

그러나 힘으로는 그를 當해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힘으로는 그를 당해 낼 수가 없었다。

しかし力では彼に遭遇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손아귀에서 전기 코드가 미끄러지기 시작해ㄴ다。

손아귀에서 電氣 코드가 미끄러지기 始作했다。

손아귀에서 전기 코드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指から電氣コードが滑り始めた。

그때여ㄴ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その時だった。

미사토가 전기 코드에 걸려 있는 도가시의 손가락을 잡고 늘어져ㄴ다。

미사토가 電氣 코드에 걸려 있는 都家時の 손가락을 잡고 늘어졌다。

미사토가 전기 코드에 걸려 있는 도가시의 손가락을 잡고 늘어졌다。

ミサトが電氣コードにかかっている道街の指をつかんで伸びた。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위에 올라타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는 그를 필사적으로
저지해ㄴ다。

그리고 다음 瞬間 그의 위에 올라타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는 그를 必死的
으로 沮止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위에 올라타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는 그를 필사적
으로 저지했다。

そして次の瞬間、彼の上に上がり、あちこちバルバドンを打つ彼を必死に阻
止した。

“엄마, 빨리빨리!”

“엄마, 빨리빨리!”

“엄마, 빨리빨리!”

「お母さん、早く早く！」

미사토가 외쳐ㄴ다。

미사토가 외쳤다。

미사토가 외쳤다。

ミサトが叫んだ。

망설이 ㄹ 때가 아니어ㄴ다。

망설일 때가 아니었다。

망설일 때가 아니었다。

迷う時ではなかった。

야스코는 눈을 질끈 감고 젖 먹던 힘까지 모두 두 팔에 쏟아 넣어ㄴ다。

야스코는 눈을 질끈 감고 젖 먹던 힘까지 모두 두 팔에 쏟아 넣었다。

야스코는 눈을 질끈 감고 젖 먹던 힘까지 모두 두 팔에 쏟아 넣었다。

ヤスコは目をつぶして巻きつけた力まで、両腕に注ぎ込んだ。

심장이 격렬히 고동쳐ㄴ다。

心臟이 激烈히 고동쳤다。

심장이 격렬히 고동쳤다。

心臟が激しく動揺した。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는 전기 코드를 잡아당겨ㄴ다。

피가 血管을 타고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女는 電氣 코드를 잡아당겼
다。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는 전기 코드를 잡아당겼
다。

血が血管に乗って流れる音を聞きながら、彼女は電気コードを引っ張った。

얼마나 그러고 있어ㄴ으ㄴ까。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どれだけそうしていたのか。

엄마, 엄마, 하고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려ㄴ다。

엄마, 엄마, 하고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에 그女는 퍼뜩 精神을 차렸다。

엄마, 엄마, 하고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お母さん、お母さん、とちょっと呼ぶ音に彼女は広大な精神を置いた。

천천히 눈을 떠ㄴ다。

천천히 눈을 떴다。

천천히 눈을 떴다。

ゆっくり目を開いた。

전기 코드는 여전히 손아귀에 쥐여 있어ㄴ다。

電氣 코드는 如前히 손아귀에 쥐여 있었다。

전기 코드는 여전히 손아귀에 쥐여 있었다。

電氣コードは依然として手で握られていた。

바로 눈앞에 도가시의 머리가 보여ㄴ다。

바로 눈앞에 도가시의 머리가 보였다。

바로 눈앞에 도가시의 머리가 보였다。

まさに目の前に東鹿市の頭が見えた。

튀어나오ㄴ 듯이 부릅뜨ㄴ 회색 눈이 마치 허공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ㄴ
다。

튀어나올 듯이 부릅뜬 灰色 눈이 마치 虚空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튀어나올 듯이 부릅뜬 회색 눈이 마치 허공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飛び出すように呼んだ灰色の目がまるで虚空を狙っているようだった。

그의 얼굴은 피가 몰려 검푸르게 변해 있어ㄴ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몰려 검푸르게 變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몰려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彼の顔は血が集まって剣青に変わっていた。

목살을 파고드 ㄴ 전기 코드가 피부에 짙으 ㄴ 흔적을 남겨 놓아 ㅅ다。

목살을 파고든 電氣 코드가 皮膚에 짙은 痕跡을 남겨 놓았다。

목살을 파고든 전기 코드가 피부에 짙은 흔적을 남겨 놓았다。

牧草を掘った電氣コードが肌に濃い痕跡を残した。

도가시는 미동도 하지 않아 ㅅ다。

도가시는 微動도 하지 않았다。

도가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道鹿市は微動もしなかった。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코에서도 액체가 흘러내려 ㅅ다。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코에서도 液體가 흘러내렸다。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코에서도 액체가 흘러내렸다。

口からは唾液が流れ、鼻からも液体が流れ落ちた。

헉, 하며 야스코는 전기 코드를 내팽개쳐 ㅅ다。

헉, 하며 야스코는 電氣 코드를 내팽개쳤다。

헉, 하며 야스코는 전기 코드를 내팽개쳤다.

ハック、ヤスコは電気コードを膨らませた。

도가시의 머리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ㅅ다.

都家時の 머리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도가시의 머리가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道鹿市の頭が床にくっついて、声を出して落ちた。

그런데도 그는 꼼짝하지 않아 ㅅ다.

그런데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それでも彼はきつくなかった。

미사토가 슬금슬금 남자의 몸에서 내려와 ㅅ다.

미사토가 슬금슬금 男子의 몸에서 내려왔다.

미사토가 슬금슬금 남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ミサトが悲しみ男の体から降りてきた。

교복 스커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어 ㅅ다.

校服 스커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다.

교복 스커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다.

制服スカートがめちゃくちゃにしわになっていた。

미사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벽에 등을 기대었다.

미사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壁에 등을 기댔다.

미사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벽에 등을 기댔다.

ミサトはそのまま床に座りながら壁に背中を寄せた。

모녀는 움직이지 않는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하_ㄴ 채 하_ㄴ 동안 말이 없어었다.

母女는 움직이지 않는 男子에게 視線을 固定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모녀는 움직이지 않는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母娘は動かない男に視線を固定したまましばらく言葉がなかった。

지익, 하는 형광등 소리만이 야스코의 고막을 울려었다.

池익, 하는 螢光燈 소리만李 야스코의 鼓膜을 울렸다.

지익, 하는 형광등 소리만이 야스코의 고막을 울렸다.

知益、という蛍光灯の音だけが、ヤスコの鼓膜を鳴らした。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どうしよう… …。

마침내 야스코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와 ㄴ다.

마침내 야스코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마침내 야스코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ついにヤスコの口から呟く音が漏れた。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비 ㄴ 느낌이어 ㄴ다.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다.

彼女は頭の中が空っぽな感じだった。

“죽이고 말아 ㄴ어.

“죽이고 말았어.

“죽이고 말았어.

「殺してしまった。

“엄마…….

“엄마…….

“엄마…….

「お母さん… …。

미사토의 목소리에 야스코가 따 ㄴ 쪽으로 시선을 돌려 ㄴ다.

미사討議 목소리에 야스코가 딸 쪽으로 視線을 돌렸다。

미사토의 목소리에 야스코가 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ミサトの声に、ヤスコが娘に向かって視線を向けた。

미사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어ㄴ다。

미사討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미사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ミサトの顔が真っ白に飽きていた。

붉게 충혈되 ㄴ 눈 밑으로는 눈물 자국이 보여ㄴ다。

붉게 充血된 눈 밑으로는 눈물 자국이 보였다。

붉게 충혈된 눈 밑으로는 눈물 자국이 보였다。

赤く充血した目の下には涙跡が見えた。

딸이 언제 눈물을 흘려ㄴ는지 야스코는 아 ㄴ 수 없어ㄴ다。

딸이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야스코는 알 수 없었다。

딸이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야스코는 알 수 없었다。

娘がいつ涙を流したのか、ヤスコは知らなかった。

야스코는 다시 한 번 도가시를 바라보아ㄴ다。

야스코는 다시 한 番 도가시를 바라보았다。

야스코는 다시 한 번 도가시를 바라보았다.

ヤスコは再び東ガシを眺めた。

그가 숨을 쉬기를 바라는 것이 _지 안 쉬기를 바라는 것이 _지, 그녀 자신도 아
_ 수 없는 복잡하 _ 심정이어 _ 다。

그가 숨을 쉬기를 바라는 것인지 안 쉬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녀 自身도
알 수 없는 複雑한 心情이었다。

그가 숨을 쉬기를 바라는 것인지 안 쉬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彼が呼吸を望むのか、休まないことを望むのか、彼女自身も知らない複雑な
心情だった。

그러나 그가 다시 숨을 쉬 _ 가능성은 없어 보여 _ 다。

그러나 그가 다시 숨을 쉴 可能性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다시 숨을 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しかし、彼が再び呼吸する可能性はないようだった。

“이 인간이 나쁜 _ 거야。

“이 人間이 나쁜 거야。

“이 인간이 나쁜 거야。

「この人間が悪いの。

미사토가 다리를 구부려 두 무릎을 끌어안더니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ㄴ다。

미사토가 다리를 구부려 두 무릎을 끌어안더니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始作했다。

미사토가 다리를 구부려 두 무릎을 끌어안더니 그 사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ミサトが足を曲げて二つの膝を抱きしめ、その間に顔を埋めて泣き始めた。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どうすればいいんだ… … 。

야스코가 또다시 중얼거려^ㄴ으^ㄴ 때여^ㄴ다。

야스코가 또다시 중얼거렸을 때였다。

야스코가 또다시 중얼거렸을 때였다。

ヤスコが再び呟いた時だった。

현관 벨이 울려^ㄴ다。

玄關 벨이 울렸다。

현관 벨이 울렸다。

玄關ベルが鳴った。

그녀는 너무나 놀라 나머지 경련하듯 온몸을 푸르르 떨어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痙攣하듯 온몸을 푸르르 떨어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경련하듯 온몸을 푸르르 떨어냈다.

彼女はあまりにも驚いた残りの痙攣のように全身を青く震えた。

미사토가 얼굴을 들어냈다.

미사토가 얼굴을 들었다.

미사토가 얼굴을 들었다.

ミサトが顔を上げた。

뺨이 눈물로 번들거려냈다.

뺨이 눈물로 번들거렸다.

뺨이 눈물로 번들거렸다.

頬が涙で束ねられた。

이런 상황에 누구지, 하고 서로에게 묻듯 모녀는 눈을 마주쳐냈다.

이런 狀況에 누구지, 하고 서로에게 묻듯 母女는 눈을 마주쳤다.

이런 상황에 누구지, 하고 서로에게 묻듯 모녀는 눈을 마주쳤다.

こんな状況に誰なのか、とお互いに聞くように母娘は目に遭った。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냈다.

그때 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때 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その時、扉を叩く音がした。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男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そして男の声が聞こえた。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씨。

「花岡さん。

들어 본 적이 있는 음성이어왔다。

들어 본 적이 있는 音聲이었다。

들어 본 적이 있는 음성이었다。

聞いたことがある声だった。

그러나 누구지는 얼른 떠오르지 않아왔다。

그러나 누군지는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지는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しかし誰かはすぐに思い浮かべなかった。

야스코는 가위에 눌리 ㄴ 사람처럼 꼼짝도 하 ㄴ 수 없어 ㄴ 다。

야스코는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야스코는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ヤスコはハサミに押された人のようにきつくもできなかった。

모녀는 서로의 얼굴만 멀거니 바라보아 ㄴ 다。

母女는 서로의 얼굴만 멀거니 바라보았다。

모녀는 서로의 얼굴만 멀거니 바라보았다。

母娘はお互いの顔だけ離れて見つめた。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ㄴ 다。

다시 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再び扉を叩く音がした。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씨!”

「花岡さん、花岡さん！」

문밖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 모녀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해
다。

門밖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 母女가 집 안에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문밖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 모녀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

門の外に立っている人は、彼らの母娘が家の中にい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
るようだった。

대답하지 않으 ㄴ 수 없어 ㄴ다。

對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答え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

그러나 이런 상태로 문을 여 ㄴ 수는 없는 일이어 ㄴ다。

그러나 이런 狀態로 門을 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었다。

しかし、このような状態でドアを開けられないことだった。

“너는 안으로 들어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

「あなたは中に入ります。

문을 닫고, 절대로 나오면 안 돼.

門을 닫고, 絶對로 나오면 안 돼.

문을 닫고, 절대로 나오면 안 돼.

ドアを閉めて、絶對に出てはいけない。

야스코가 조그마 ㄴ 소리로 미사토에게 말해 ㄴ다.

야스코가 조그만 소리로 미사토에게 말했다.

야스코가 조그만 소리로 미사토에게 말했다.

ヤスコが小さな声でミサトに言った。

서서히 사고력이 회복되고 있어 ㄴ다.

徐徐히 思考力이 回復되고 있었다.

서서히 사고력이 회복되고 있었다.

徐々に思考力が回復していた。

다시 노크 소리가 나자 야스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셔 ㄴ다.

다시 노크 소리가 나자 야스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다시 노크 소리가 나자 야스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再びノック音が鳴ると、ヤスコは息を大きく吸った。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애써 평정을 가장하고 대답해 ㄴ다。

애써 平定을 가장하고 對答했다。

애써 평정을 가장하고 대답했다。

頑張って平静を模倣して答えた。

필사적이 ㄴ 연기여 ㄴ다。

必死的인 演技였다。

필사적인 연기였다。

必死の演技だった。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誰ですか？」

“네,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이 ㅂ니다.

“네, 옆집에 사는 이時加味입니다.

“네,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입니다.

「はい、隣に住む石神です。

야스코는 가슴이 철렁해 ㅅ다.

야스코는 가슴이 철렁했다.

야스코는 가슴이 철렁했다.

ヤスコは胸がすっきりした。

조금 전까지 이 집에서 심상치 않으 ㄴ 소리가 나 ㅅ으 ㄹ 것이다.

조금 前까지 이 집에서 尋常치 않은 소리가 났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이 집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났을 것이다.

少し前までこの家でイメージがない音がしたはずだ。

이웃이 수상하게 여기지 않으 ㄹ 리 없어 ㅅ다.

이웃이 殊常하게 여기지 않을 理 없었다.

이웃이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리 없었다.

隣人が怪しいと思わないはずがなかった。

그래서 이시가미도 무슨 일이 ㄴ가 하고 살피러 와ㅅ으ㄴ 것이다.

그래서 이時加味도 무슨 일인가 하고 살피러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시가미도 무슨 일인가 하고 살피러 왔을 것이다.

だから石神も何が起こったのかと見て来たのだろう。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태연하ㄴ 목소리로 말하ㄴ 작정이어ㅅ지만 과연 그렇게 돼ㅅ는지는 자신이 없
어ㅅ다.

泰然한 목소리로 말할 作定이었지만 果然 그렇게 됐는지는 自身이 없었
다.

태연한 목소리로 말할 작정이었지만 과연 그렇게 됐는지는 자신이 없었
다.

平氣な声で言うつもりだったが、果たしてそうだったかは自信がなかった。

미사토는 이미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어ㄴ다。

미사토는 이미 안쪽 房으로 들어가 門을 닫고 있었다。

미사토는 이미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다。

ミサトはすでに奥の部屋に入ってドアを閉めていた。

야스코는 도가시의 시체를 보아ㄴ다。

야스코는 도가시의 屍體를 보았다。

야스코는 도가시의 시체를 보았다。

靖子は東鹿市の死体を見た。

어떻게드ㄴ 이것을 처리해야 하ㄴ다。

어떻게든 이것을 處理해야 한다。

어떻게든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何とかこれを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고타쓰의 위치가 제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ㄴ다。

고타쓰의 位置가 제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고타쓰의 위치가 제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小田津の位置が所定の位置から多くずれていた。

전기 코드를 잡아당기 ㄴ 탓이다.

電氣 코드를 잡아당긴 탓이다.

전기 코드를 잡아당긴 탓이다.

電氣コードを引っ張ったせいだ。

그녀는 고타쓰를 움직여 거기에 달리 ㄴ 이불로 시체를 덮어 ㄴ 다.

그녀는 고타쓰를 움직여 거기에 달린 이불로 屍體를 덮었다.

그녀는 고타쓰를 움직여 거기에 달린 이불로 시체를 덮었다.

彼女はコタツを動かしてそこに走った布団で死体を覆った。

위치가 조금 부자연스럽기 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어 ㄴ 다.

位置가 조금 不自然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위치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位置が少し不自然だが仕方がない奴だった。

야스코는 자신의 옷매무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 ㄴ 다음 현관문 앞에
섰다。

야스코는 自身の 옷매무새에 以上이 없다는 것을 確認한 다음 玄關門 앞에
섰다。

야스코는 자신의 옷매무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현관문 앞에
섰다。

ヤスコは自分の装いに異常がないことを確認し、玄関口の前に立った。

도가시의 더러운 구두가 눈에 들어와ㄴ다。

都家時の 더러운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도가시의 더러운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とが市の汚れた靴が目に入った。

그녀는 그것을 신발장 밑으로 밀어 넣어ㄴ다。

그女는 그것을 신발櫥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그것을 신발장 밑으로 밀어 넣었다。

彼女はそれを靴底の下に押し込んだ。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만히 도어체인을 벗겨ㄴ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만히 刀魚體認을 벗겼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만히 도어체인을 벗겼다。

音が出ないようにじっとドアチェーンをはがした。

문이 잠겨 있지 않아ㄴ다。

門이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ドアがロック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

그녀는 이시가미가 문을 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왔다。

그녀는 이時加味가 門을 열지 않은 게 얼마나 多幸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이시가미가 문을 열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彼女は石神がドアを開けていないのがどれくらい幸いなのか分からないと思います、胸を掃き出した。

문을 열자 이시가미의 크고 둥그러진 얼굴이 나타나왔다。

門을 열자 이時加味の 크고 둥그런 얼굴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이시가미의 크고 둥그런 얼굴이 나타났다。

扉を開けると石上の大きくて丸い顔が現れた。

그의 실처럼 가느다라진 눈이 야스코를 바라봐왔다。

그의 실처럼 가느다란 눈李 야스코를 바라봤다。

그의 실처럼 가느다란 눈이 야스코를 바라봤다。

彼の糸のように細い目がヤスコを眺めた。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이어왔다。

아무런 表情이 없는 얼굴이었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다.

何の表情もない顔だった。

그것이 오히려 더 음침하 ㄴ 느낌을 주어 ㄴ다.

그것이 오히려 더 陰沈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음침한 느낌을 주었다.

それがむしろより陰気な感じを与えた。

“아……, 무슨 일이시죠?”

“아……, 무슨 일이시죠?”

“아……, 무슨 일이시죠?”

「あ… …何が起こりますか？」

야스코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해 ㄴ지만 뺨이 경련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 ㄴ 수 있어 ㄴ다.

야스코는 微笑를 지어 보이려고 했지만 뺨이 痙攣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도 느낄 수 있었다.

야스코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했지만 뺨이 경련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도 느낄 수 있었다.

ヤスコは笑顔を見せようとしたが、頬が痙攣していることを自らも感じるこ

とができた。

“크 ㅏ 소리가 나세요。

“큰 소리가 나세요。

“큰 소리가 나세요。

「大声が出ました。

이시가미가 여전히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로 말해 ㅏ다。

이時加味が 如前히 感情이 읽히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이시가미가 여전히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石神が相変わらず感情が読まない顔で語った。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いいえ、何もありません。

그녀는 크게 고개를 저어 ㅏ다。

그녀는 크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크게 고개를 저었다.

彼女は大きく頭を振った。

“죄송해요.

“罪悚해요.

“죄송해요.

「すみません。

저희가 폐를 끼쳐나 봐요.

저희가 肺를 끼쳤나 봐요.

저희가 폐를 끼쳤나 봐요.

私たちが迷惑をかけたようです。

“아무 일 없다면 다행이 ㅂ니다만.

“아무 일 없다면 多幸입니다만.

“아무 일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何事もなければ幸いですが。

야스코는 이시가미의 가느다라 ㄴ 눈이 실내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ㄴ다.

야스코는 이時加味の 가느다란 눈이 室内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야스코는 이시가미의 가느다란 눈이 실내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ヤスコは石神の細い目が室内を見ていることを知った。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아^ㄴ다.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全身がしっかりと上がるようだった。

“저, 바퀴벌레가……。

“저, 바퀴벌레가……。

“저, 바퀴벌레가……。

「私、ゴキブリが……」 ……。

그녀는 엉겁결에 그렇게 내뱉고 말아^ㄴ다.

그女는 엉겁결에 그렇게 내뱉고 말았다.

그녀는 엉겁결에 그렇게 내뱉고 말았다.

彼女はめちゃくちゃにそんなに吐き出してしまった。

“바퀴벌레요?”

“바퀴벌레요?”

“바퀴벌레요?”

「ゴキブリですか？」

“네, 바퀴벌레가 나와서요。”

“네, 바퀴벌레가 나와서요。”

“네, 바퀴벌레가 나와서요。”

「はい、ゴキブリが出てきました。」

그래서 딸이랑 둘이서 잡느라고……, 네, 그래서 소동을 좀 벌여ㅅ어요。

그래서 딸이랑 둘이서 잡느라고……, 네, 그래서 騒動을 좀 벌였어요。

그래서 딸이랑 둘이서 잡느라고……, 네, 그래서 소동을 좀 벌였어요。

だから娘と二人で捕まえると… …はい、それで騒動をちょっと繰り広げました。

“죽여ㅅ습니까?”

“죽였습니다까?”

“죽였습니다까?”

「殺しましたか？」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이시가미의 물음에 야스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ㄴ다。

이時加味の 물음에 야스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시가미의 물음에 야스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石神の問いにヤスコの顔が硬く固まった。

“바퀴벌레를 처리하셔 ㄴ냐 이 말이 ㅂ니다。

“바퀴벌레를 處理하셨냐 李 末입니다。

“바퀴벌레를 처리하셨냐 이 말입니다。

「ゴキブリを処理しましたか。

“아아…… 네, 처리해 ㄴ어요。

“아아…… 네, 處理했어요。

“아아…… 네, 처리했어요。

「ああ… …はい、処理しました。

이제 ㄴ 괜찮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もう大丈夫です。

야스코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여ㄴ다。

야스코는 몇 番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야스코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ヤスコは何度も頭をうなずいた。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리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或是라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もし私が助けてくれることがあればいつでも教えてくださ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하ㄴ니다。

시끄럽게 해서 정말 罪悚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騒がせてすみません。

고개를 숙이 後 야스코는 문을 닫고 체인을 걸어 ㄴ다。

고개를 숙인 後 야스코는 門을 닫고 體認을 걸었다。

고개를 숙인 後 야스코는 문을 닫고 체인을 걸었다。

頭を下げた後、ヤスコはドアを閉めてチェーンを歩いた。

이시가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후우, 길게 숨을
뿜어내 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 ㄴ다。

이時加味가 自身の 집으로 들어가 門을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後우, 길게
숨을 뿜어낸 그女는 自身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시가미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서야 후우, 길게
숨을 뿜어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石神が自分の家に入ってドアを閉める声を聞いてこそフウ、長く息を吹き出
した彼女は自分も知らずにその場に座り込んでしまった。

등 뒤에서 안쪽 칸막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ㄴ다。

等 뒤에서 안쪽 칸막이 門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뒤에서 안쪽 칸막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背中から奥の仕切りの扉が開く音が聞こえた。

미사토가 “엄마。

미사토가 “엄마。

미사토가 “엄마。

ミサトが「お母さん。

” 하고 불러ㄴ다。

” 하고 불렀다。

” 하고 불렀다。

」と呼んだ。

야스코는 천천히 일어서ㄴ다。

야스코는 천천히 일어섰다。

야스코는 천천히 일어섰다。

ヤスコはゆっくり立ち上がった。

그리고 다음 순간, 고타쓰의 이불이 불룩하게 솟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절망적이ㄴ 기분에 사로잡혀ㄴ다。

그리고 다음 瞬間, 고타쓰의 이불이 불룩하게 솟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絶望的인 氣分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고타쓰의 이불이 불룩하게 솟아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そして次の瞬間、小達の布団が盛り上がっている様子を見て、再び絶望的な
気持ちにとらわれた。

“하는 수 없지, 뭐。

“하는 수 없지, 뭐。

“하는 수 없지, 뭐。

「できないよ、まあ。

그녀가 말해^ㄴ다。

그女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彼女は言った。

“어떡하게?”

“어떡하게?”

“어떡하게?”

「どうして？」

미사토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어^ㄴ다。

미사토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미사토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ミサトがママを見上げて尋ねた。

“어쩌겠니。

“어쩌겠니。

“어쩌겠니。

「どうしようか。

경찰에…… 연락해야지。

警察に…… 連絡해야지。

경찰에…… 연락해야지。

警察に… …連絡する必要があります。

“자수하 ㄹ 거야?”

“自首할 거야?”

“자수할 거야?”

「刺繍するの？」

“그러 ㄹ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そんなしかないじゃな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ㄴ 리도 없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理도 없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도 없고。

死んだ人がまた生き返るわけもなく。

“자수하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

“自首하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

“자수하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

「刺繍すればお母さんはどうなるの？」

“글썸……。

“글썸……。

“글썸……。

「まあ… … 。

야스코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끌어 올려 ㄴ 다。

야스코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끌어 올렸다。

야스코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끌어 올렸다。

ヤスコは髪を指で引き上げた。

머리가 마구 헝클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아 ㄴ 다。

머리가 마구 헝클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머리가 마구 헝클어져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頭がすごくふくらんでいることをさっそく悟った。

옆집 수학 선생이 이상하게 생각해쓰지도 모르느다.

옆집 數學 先生이 異常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옆집 수학 선생이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隣の数学先生が変に思ったかもしれない。

그러나 되느 대로 되라는 심정이어쓰다.

그러나 될 對로 되라는 心情이었다.

그러나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しかしなるほどになるという心情だった。

“감옥에 가는 거야?”

“監獄에 가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야?”

「刑務所に行くの？」

딸이 또 물어쓰다.

딸이 또 물었다.

딸이 또 물었다。

娘がまた尋ねた。

“아마 그렇게 되겠지。

“아마 그렇게 되겠지。

“아마 그렇게 되겠지。

「おそらくそうなるだろう。

야스코가 슬며시 웃어ㄴ다。

야스코가 슬며시 웃었다。

야스코가 슬며시 웃었다。

ヤスコが悲しく笑った。

체념의 미소여ㄴ다。

諦念의 微笑였다。

체념의 미소였다。

諦めの笑顔だった。

“어쨌든 사람을 죽여ㄴ으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とにかく人を殺したから。

미사토가 고개를 세차게 저어^ㄴ다。

미사토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미사토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ミサトが頭を洗い流した。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言わないで。

“뭐가?”

“뭐가?”

“뭐가?”

「何が？」

“엄마가 잘못하^ㄴ 게 뭐가 있어? 전부 이 인간 탓이지。

“엄마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全部 이 人間 탓이지。

“엄마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전부 이 인간 탓이지。

「お母さんが間違っているのは何ですか？すべてこの人間のせい。

이제 엄마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엄마랑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ㄴ잖아。

이제 엄마랑 아무 關係도 없는데 繼續 엄마랑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잖아。

이제 엄마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계속 엄마랑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잖아。

もうママとは何の關係もないのに、ずっとママと私を追いかけていじめられたじゃないか。

이런 놈 때문에 감옥에 가ㄴ다는 거ㄴ 말이 안 돼。

이런 놈 때문에 監獄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놈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こんな奴のために刑務所に行くというのは言わない。

“그렇다 해도 사람을 죽이ㄴ 거ㄴ 죽이ㄴ 거잖아。

“그렇다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

“그렇다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잖아。

「それでも人を殺したのは殺したんじゃないか。

야스코는 딸에게 설명하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ㄴ다。

야스코는 딸에게 説明하는 동안 異常하리만치 마음이 便安해지는 것을 느꼈다。

야스코는 딸에게 説明하는 동안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ヤスコは娘に説明しながら不思議に思う心が快適になることを感じた。

동시에 지금의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 ㄴ 수 있게 돼 ㄴ다。

同時に 只今の 狀況을 冷情히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지금의 상황을 냉정히 바라볼 수 있게 됐다。

同時に今の状況を冷静に眺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그러자 자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져 ㄴ다。

그러자 自身에게 다른 選擇의 餘地가 없다는 것이 漸次 明確해졌다。

그러자 자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졌다。

すると自分に他の選択の余地がないことが次第に明確になった。

미사토를 살인범의 딸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ㄴ지만, 그런 현실에서 도망치 ㄴ 수 없다면 적어도 세상이 딸을 차가우 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 ㄴ다。

미사토를 殺人犯의 딸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現實에서 逃亡할 수 없다면 적어도 世上이 딸을 차가운 視線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길

을 선택해야 한다。

미사토를 살인범의 딸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적어도 세상이 딸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ミサトを殺人犯の娘にしたくなかったが、そのような現実から逃げられなければ、少なくとも世の中が娘を冷たい視線で眺めないようにする道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

야스코는 방구석에 나동그라져 있는 무선 전화기로 시선을 향해ㄴ다。

야스코는 房구석에 나동그라져 있는 無線 電話機로 視線을 向했다。

야스코는 방구석에 나동그라져 있는 무선 전화기로 시선을 향했다。

ヤスコは方隅に跳ね上がっている無線電話機で視線を向けた。

그리고 그쪽으로 손을 뻗어ㄴ다。

그리고 그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쪽으로 손을 뻗었다。

そしてそちらに手を伸ばした。

“안 돼!”

“안 돼!”

“안 돼!”

「ダメ！」

미사토가 황급히 달려와 야스코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해^ㄴ다.

미사토가 遑急히 달려와 야스코의 손에서 受話器를 빼앗으려고 했다.

미사토가 황급히 달려와 야스코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으려고 했다.

ミサトが慌てて走って、ヤスコの手から受話器を奪おうとした。

“저리 가!”

“低利 가!”

“저리 가!”

「私は行きます！」

“안 되^ㄴ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ダメだから！」

미사토가 야스코의 손목을 잡아^ㄴ다.

미사토가 야스코의 손목을 잡았다.

미사토가 야스코의 손목을 잡았다.

ミサトがヤスコの手首を握った。

배드민턴을 쳐서이^ㄴ지 악력이 세^ㄴ다.

배드민턴을 쳐서인지 握力이 섰다.

배드민턴을 쳐서인지 악력이 섰다.

バドミントンを打って認知悪力があつた。

“제발 부탁이야, 이 손 놔.

“제발 付託이야, 이 손 놔.

“제발 부탁이야, 이 손 놔.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싫어.

“싫어.

“싫어.

「嫌い。

엄마를 감옥에 가게 하 ㄴ 수는 없어.

엄마를 監獄에 가게 할 수는 없어.

엄마를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어.

ママを刑務所に行かせることはできない。

차라리 내가 자수하 ㄴ 래.

차라리 내가 自首할래.

차라리 내가 자수할래。

むしろ私が刺縛するよ。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それがどんな愚かな音だ！」

“저 인간을 먼저 내리치 ㄴ 거 ㄴ 나잖아。

“低 人間을 먼저 내리친 건 나잖아。

“저 인간을 먼저 내리친 건 나잖아。

「あの人間を先に下げたのは俺じゃない。

엄마는 나를 도우려고 하 ㄴ 것뿐이고。

엄마는 나를 도우려고 한 것뿐이고。

엄마는 나를 도우려고 한 것뿐이고。

ママは私を助けようとしただけで。

그리고 도중에 또 엄마를 도와 ㄴ으니까 나도 살인자야。

그리고 途中에 또 엄마를 도왔으니까 나도 殺人者야。

그리고 도중에 또 엄마를 도왔으니까 나도 살인자야。

そして途中でまたお母さんを助けたから私も殺人者だ。

미사토의 말에 야스코는 움찔해^ㄴ다。

미사討議 末에 야스코는 움찔했다。

미사토의 말에 야스코는 움찔했다。

ミサトの言葉に、ヤスコは殴った。

그 순간 전화기를 쥐^ㄴ 손에서 힘이 빠져^ㄴ다。

그 瞬間 電話機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その瞬間電話を握った手から力が抜けた。

미사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화기를 빼앗아^ㄴ다。

미사토는 그 機會를 놓치지 않고 電話機를 빼앗았다。

미사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화기를 빼앗았다。

ミサトはその機会を逃さず電話機を奪った。

그리고 숨기듯이 가슴에 끌어안고 방 한구석으로 가서 등을 돌려 버려^ㄴ다。

그리고 숨기듯이 가슴에 끌어안고 房 한구석으로 가서 等を 돌려 버렸다。

그리고 숨기듯이 가슴에 끌어안고 방 한구석으로 가서 등을 돌려 버렸
다。

そして隠れるように胸に抱きしめて部屋の片隅に行って背中を回してしまっ

た。

야스코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ㄴ다。

야스코는 狀況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야스코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ヤスコは状況をクマが考えてみた。

형사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 주^ㄴ까。

刑事들이 果然 내 말을 믿어 줄까。

형사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 줄까。

刑事が果たして私の言葉を信じてくれるか。

나 혼자 힘으로 도가시를 죽여^ㄴ다고 하면 의심을 품지나 않^으ㄴ까。

나 혼자 힘으로 도가시를 죽였다고 하면 疑心を 품지나 않을까。

나 혼자 힘으로 도가시를 죽였다고 하면 의심을 품지나 않을까。

俺一人の力で道賀市を殺したとしたら疑いを抱かないだろうか。

뭐든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주^ㄴ까……。

뭐든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줄까……。

뭐든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줄까……。

何でも私が言うように受け入れてくれるか… …。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펼치 ㄴ 것이다.

警察은 徹底하게 調査를 펼칠 것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다.

警察は徹底的に調査を繰り広げるだろう。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확증을 잡는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確證을 잡는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확증을 잡는다.

テレビドラマで「確証をつかむ。

”라는 대사를 들으 ㄴ 적이 있다.

”라는 大使를 들은 적이 있다.

”라는 대사를 들은 적이 있다.

という大使を聞いたことがある。

범인의 말이 진실이 ㄴ지 아니 ㄴ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하는 것이다.

犯人의 말이 眞實인지 아닌지 모든 方法을 動員해 確認하는 것이다.

범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하는 것이다.

犯人の言葉が真実かどうかすべての方法を動員して確認するのだ。

탐문 수사, 과학적 조사, 그 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探問 捜査, 科學的 調査, 그 밖에 여러 方法을 通해。

탐문 수사, 과학적 조사, 그 밖에 여러 방법을 통해。

調査の調査、科学的調査、他の多くの方法によって。

눈앞이 캄캄해져 ㄴ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目の前が暗くなった。

야스코 자신은 형사들이 아무리 위협하 ㄴ다 해도 미사토가 저지르 ㄴ 일을 말하
지 않으 ㄴ 자신이 있어 ㄴ다。

야스코 自身은 刑事들이 아무리 威脅한다 해도 미사토가 저지른 일을 말하
지 않을 自身이 있었다。

야스코 자신은 형사들이 아무리 위협한다 해도 미사토가 저지른 일을 말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ヤスコ自身は刑事がいくら脅かしてもミサトが犯したことを言わない自分が
いた。

그러나 형사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
다。

그러나 刑事들이 갖가지 方法을 動員해 事實을 밝혀내게 되면 모든 게 끝
장이다。

그러나 형사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다。

しかし刑事がいろいろな方法を動員して事実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なればすべてが終わりだ。

딸만은 봐달라고 애원해 봐야 들어 주 ㄴ 리 없어 ㄴ 다。

딸만은 봐달라고 哀願해 봐야 들어 줄 理 없었다。

딸만은 봐달라고 애원해 봐야 들어 줄 리 없었다。

娘だけは見てほしいと哀願してみなければ聞くことはなかった。

자기 혼자서 죽이 ㄴ 것처럼 위장하 ㄴ 수는 없으 ㄴ 까 궁리해 봐 ㄴ 지만 그거 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내 깨달아 ㄴ 다。

自己 혼자서 죽인 것처럼 偽裝할 수는 없을까 窮理해 봤지만 그건 不可能하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자기 혼자서 죽인 것처럼 위장할 수는 없을까 궁리해 봤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내 깨달았다。

自分一人で殺したかのように偽装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か工夫してみたが、それは不可能だということを理解した。

선불리 위장해 봐 ㄴ 자 금방 들키고 마 ㄴ 것이다。

선불리 偽裝해 봤자 今方 들키고 말 것이다。

선불리 위장해 봤자 금방 들키고 말 것이다。

ひどく偽装してみたら、すぐにバレてしまうだろう。

그렇지만 미사토만은 지켜야 하 ㄴ 다고 야스코는 생각해 ㅆ 다。

그렇지만 미사토만은 지켜야 한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미사토만은 지켜야 한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だがミサトマンは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ヤスコは考えた。

자기 같으 ㄴ 엄마를 만나 어리 ㄴ 시절부터 평온하 ㄴ 가정의 행복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라 오 ㄴ 딸이다。

自己 같은 엄마를 만나 어린 時節부터 平穩한 家庭의 幸福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라 온 딸이다。

자기 같은 엄마를 만나 어린 시절부터 평온한 가정의 행복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라 온 딸이다。

自分のようなお母さんに会って幼い頃から、穏やかな家庭の幸せとは全く知
らずに育ってきた娘だ。

목숨을 걸고서라도 더는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 ㄴ 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더는 不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더는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命をかけてもそれ以上は不幸にしてはいけない。

그럼 어떡하면 좋으 ㄴ 까。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

それではどうすればいいか。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何の良い方法がないだろうか。

그때여썸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その時だった。

미사토가 끌어안고 있던 전화기가 울려썸다。

미사토가 끌어안고 있던 電話機가 울렸다。

미사토가 끌어안고 있던 전화기가 울렸다。

ミサトが抱きしめていた電話機が鳴った。

미사토가 눈을 활짝 뜨고 야스코를 바라보아썸다。

미사토가 눈을 활짝 뜨고 야스코를 바라보았다。

미사토가 눈을 활짝 뜨고 야스코를 바라보았다.

ミサトが目を開いてヤスコを眺めた。

야스코가 말없이 손을 내밀어ㄴ다.

야스코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야스코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ヤスコが言わず手を差し出した。

미사토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밀어ㄴ다.

미사토는 暫時 망설이는 表情을 짓다가 천천히 受話器를 내밀었다.

미사토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내밀었다.

ミサトはしばらく躊躇する表情をしてからゆっくり受話器を出した。

숨을 고르고 나서 야스코는 통화 버튼을 눌러ㄴ다.

숨을 고르고 나서 야스코는 通話 버튼을 눌렀다.

숨을 고르고 나서 야스코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息を選んだ後、ヤスコは通話ボタンを押した。

“네, 하나오카이 ㄴ니다.

“네, 하나오카입니다.

“네, 하나오카입니다.

「はい、花岡です。

“아, 옆집 이시가미이 ㄴ 데요。

“아, 옆집 이시가미인데요。

“아, 옆집 이시가미인데요。

「あ、隣の家の石神です。

“아……。

“아……。

“아……。

「あ… …。

또 그 선생이다。

또 그 先生이다。

또 그 선생이다。

またその先生だ。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どうしたの？」

“아니, 저, 어떻게 하시 ㄴ 생각이 ㄴ지 궁금해서……。

“아니, 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

“아니, 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

「いや、私、どうするつもりなのか気になって……」 ……。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 ㄴ지 아 ㄴ 수 없어 ㅅ 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彼が何を言ってい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

“뭐 ㄴ 말이 ㄴ가요?”

“뭘 말인가요?”

“뭘 말인가요?”

「何ですか？」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だから… …」

이시가미는 잠시 땀을 흘리더니 이렇게 말해 ㅅ 다。

이時加味는 暫時 뚝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시가미는 잠시 뚝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石神はしばらく灸をかけてこう言った。

“만일 경찰에 신고하 ㄹ 생각이라면 드리 ㄹ 말씀이 없습시다만, 혹시라도 그러
ㄹ 생각이 없다면 제가 도우 ㄹ 일이 있지 않으 ㄹ까 해서요.

“萬一 警察에 申告할 생각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시다만, 或是라도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제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만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습시다만, 혹시라도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제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もし警察に申告するつもりなら、申し上げる言葉はありませんが、もしそ
ういう考えがなければ私が助ける事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야스코는 순간 혼란에 빠지고 말아 ㅅ 다.

야스코는 瞬間 混亂에 빠지고 말았다.

야스코는 순간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ヤスコは瞬間混乱に陥ってしまった。

이 남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 男子가 代替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남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この男が一体何を言っているのか。

“일단,”

“一旦,”

“일단,”

「一度、」

이시가미가 낮게 깔리ㄴ 목소리로 말해ㄴ다.

이時加味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시가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石神が低く敷かれた声で語った。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只今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今そっち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

“네? 아니, 그거 ㄴ…… 저, 곤란하 ㄴ 데요.

“네? 아니, 그건…… 저, 困難한데요.

“네? 아니, 그건…… 저, 곤란한데요.

「はい? いいえ、それは… …私、困りました。

야스코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뚝어져 나와 ㅅ다.

야스코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뚝어져 나왔다.

야스코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뚝어져 나왔다.

ヤスコの全身から冷や汗が吹き出てきた。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씨.

「花岡さん.

이시가미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 ㅅ다.

이時加味가 그女の 이름을 불렀다.

이시가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石神が彼女の名前を呼んだ。

“여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는 어려우 ㄴ 거 ㅅ니다.

“女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處理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女性だけの力で死体を扱うのは難しいでしょう。

순간 야스코는 하 ㄴ 말을 잃어 ㅅ 다.

瞬間 야스코는 할 말을 잃었다.

순간 야스코는 할 말을 잃었다.

瞬間、ヤスコは言うことを失った。

이 남자가 어떻게 알아 ㅅ 으 ㄴ 까.

이 男子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 남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この男がどうやって知ったのか。

소리를 들으 ㄴ 거야, 라고 그녀는 생각해 ㅅ 다.

소리를 들은 거야, 라고 그女는 생각했다.

소리를 들은 거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声を聞いたんだ、と彼女は思った。

좀 전에 미사토와 나누 ㄴ 대화가 옆집까지 들려 ㅅ 으 ㄴ 데 틀림없다.

좀 前に 미사토와 나눈 對話가 옆집까지 들렸음에 틀림없다.

좀 전에 미사토와 나눈 대화가 옆집까지 들렸음에 틀림없다.

ちょっと前にミサトと交わした会話が隣まで聞こえたに違いない。

아니, 어쩌면 도가시와 다투는 때부터 듣고 있어는지도 모르는다.

아니, 어쩌면 都家時와 다툰 때부터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도가시와 다툰 때부터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いや、たぶん道が市と争う時から聞い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이제 다 틀려는 다며 야스코는 체념해는 다.

이제 다 틀렸다면 야스코는諦念했다.

이제 다 틀렸다면 야스코는 체념했다.

もう全く間違っているとヤスコは諦めた。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逃亡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도망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逃げるところはどこにもない。

경찰에 자수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警察에 自首하는 길밖에 方法이 없다.

경찰에 자수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

警察に刺繍する道しか方法がない。

그래도 미사토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어떻게든 숨겨 보자.

그래도 미사토가 關聯되었다는 事實만은 어떻게든 숨겨 보자.

그래도 미사토가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은 어떻게든 숨겨 보자.

それでもミサトが関わったという事実だけは何とか隠してみよう。

“하나오카 씨, 듣고 계세요?”

“하나오카 氏, 듣고 계세요?”

“하나오카 씨, 듣고 계세요?”

「花岡さん、聞いていますか？」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聞いています。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되 **ㄴ**까요?”

“제가 **只**今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私は今そっち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

“아, 하지만……。

“아, 하지만……。

“아, 하지만……。

「あ、でも……」 ... 。

수화기를 귀에 대 **ㄴ** 채 야스코는 딸을 바라보아 **ㄴ**다。

受話器를 귀에 댄 蔡 야스코는 딸을 바라보았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야스코는 딸을 바라보았다。

受話器を耳にしたままヤスコは娘を眺めた。

미사토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이 **ㄴ** 표정을 하고 있어 **ㄴ**다。

미사토는 不安과 두려움이 뒤섞인 表情을 하고 있었다。

미사토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ミサトは不安と恐怖が混ざった表情をしていた。

엄마가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의아해하고 있으 **ㄴ** 것이다。

엄마가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疑訝해하고 있을 것이다.

엄마가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疑訝해하고 있을 것이다.

お母さんが誰とどんな話をするのか疑問に思っているだろう。

만일 이시가미가 옆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 ㄴ다면 미사토가 살인에 관여해
ㄴ다는 것도 알고 있으 ㄴ 터여 ㄴ다。

萬一 이市加味가 옆房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미사토가 殺人에 關與
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터였다。

만일 이시가미가 옆방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미사토가 살인에 관여
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터였다。

もし石神が隣の部屋で耳を傾けていたら、ミサトが殺人に関与したというこ
とも知っているはずだった。

그가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 ㄴ다면 야스코가 아무리 부인하 ㄴ들 형사는 믿어주
지 않으 ㄴ 것이다。

그가 警察에 事實대로 말한다면 야스코가 아무리 否認한들 刑事는 믿어주
지 않을 것이다。

그가 경찰에 사실대로 말한다면 야스코가 아무리 부인한들 형사는 믿어주
지 않을 것이다。

彼が警察に事実どおりに言えば、ヤスコがいくら否認した刑事は信じてくれ
ないだろう。

야스코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어쌌다.

야스코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다.

야스코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다.

ヤスコは心をしっかり食べて口を開けた。

“알아쌌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わかりました。

부탁드릴 일도 있고 하니 잠깐 와 주시겠어요?”

付託드릴 일도 있고 하니 잠깐 와 주시겠어요?”

부탁드릴 일도 있고 하니 잠깐 와 주시겠어요?”

どうぞよろしく願いますので、少しお待ちください。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はい、すぐに行きます。

야스코가 전화를 끊는 것과 동시에 미사토가 물어쌌다.

야스코가 電話를 끊는 것과 同時に 미사토가 물었다.

야스코가 전화를 끊는 것과 동시에 미사토가 물었다。

ヤスコが電話を切ると同時にミサトが尋ねた。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誰？」

“옆집에 사는 선생님。”

“옆집에 사는 先生님。”

“옆집에 사는 선생님。”

「隣の家に住む先生。

이시가미 씨。

이시가美 氏。

이시가미 씨。

石神さん。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왜……。

「その人がなぜ… …。

“설명은 나중에 해 주 ㄴ 테니까 너 ㄴ 안에 들어가 있어。

“説明은 나중에 해 줄 테니까 넌 안에 들어가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해 줄 테니까 넌 안에 들어가 있어。

「説明は後でやるから君は中に入ってるよ。

방문 꼭 닫고。

訪問 꼭 닫고。

방문 꼭 닫고。

訪問ぜひ閉じて。

빨리。

빨리。

빨리。

早く。

미사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가 ㄴ다。

미사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表情을 지으며 안쪽 房으로 들어갔다。

미사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ミサトは英文を知らないという表情をして内側の部屋に入った。

미사토가 칸막이 문을 닫자마자 옆집에서 이시가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소

리가 들려왔다.

미사토가 칸막이 門을 닫자마자 옆집에서 이時加味가 玄關門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사토가 칸막이 문을 닫자마자 옆집에서 이시가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ミサトが仕切りの扉を閉めるやいなや、隣の家で石神が玄関口を開けて出てくる音が聞こえた。

이윽고 야스코의 집 현관 벨이 울려왔다.

이윽고 야스코의 집 玄關 벨이 울렸다.

이윽고 야스코의 집 현관 벨이 울렸다.

やがて康子の家玄関ベルが鳴った。

야스코는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풀고 체인을 벗겨왔다.

야스코는 門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풀고 體認을 벗겼다.

야스코는 문으로 다가가 자물쇠를 풀고 체인을 벗겼다.

ヤスコはドアに近づいてロックを解除し、チェーンをはがした。

이시가미가 담담하 表情으로 서 있어왔다.

이時加味가 淡淡的 表情으로 서 있었다.

이시가미가 담담한 表情으로 서 있었다.

石神が淡々とした表情で立っていた。

웬일인지 감색 저지 차림이다.

웬일認知 감色 沮止 차림이다.

웬일인지 감색 저지 차림이다.

何故か紺色ジャージ姿だ。

아까는 이런 차림이 아니어ㄴ다.

아까는 이런 차림이 아니었다.

아까는 이런 차림이 아니었다.

さっきはこんな姿ではなかった。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来てください。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럼 失禮하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ではすみません。

이시가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서ㄴ다。

이時加味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시가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石神は軽く頭を下げて中に入った。

야스코가 자물쇠를 거는 사이에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고타쓰의 이불을 젖혀ㄴ다。

야스코가 자물쇠를 거는 사이에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고타쓰의 이불을 젖혔다。

야스코가 자물쇠를 거는 사이에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고타쓰의 이불을 젖혔다。

ヤスコが南京錠をかける間、彼は家の中に入り、何の躊躇もなく小田津の布
団を濡らした。

마치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ㄴ다는 듯하ㄴ 움직임이어ㄴ
다。

마치 거기에 屍體가 있다는 事實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
다。

마치 거기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
다。

まるでそこに死体があるという事実を既に知っていたような動きだった。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도가시의 시체를 바라보며 뭘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어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도가시의屍體를 바라보며 뭘가를 골똘히 생각하는表情을 지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은 자세로 도가시의 시체를 바라보며 뭘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彼は片方の膝をつけた姿勢で、道鹿市の死体を眺めながら何かを考える表情を作った。

그가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야스코의 눈에 들어와냈다.

그가 손에 牧場匣을 끼고 있는 것李 야스코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야스코의 눈에 들어왔다.

彼が手に木の手袋をはめているのが、ヤスコの目に入ってきた。

그녀는 두려워하며 눈길을 시체로 향해냈다.

그女는 두려워하며 눈길을屍體로 向했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눈길을 시체로 향했다.

彼女は恐れて目を体に向けた。

도가시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났고, 입술 밑에 침인지 오물이나지 모를 무어가가 말라붙어 있어냈다.

都家時の 얼굴에서는 핏氣가 完全히 사라졌고, 입술 밑에 침認知 汚物인지

某를 무언가가 말라붙어 있었다。

도가시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입술 밑에 침인지 오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말라붙어 있었다。

嵯峨市の顔ではピットが完全に消えて、唇の下に唾液か汚れなのか分からない何かがこだわっていた。

“저…… 들으셔 ㅅ나요?”

“저…… 들으셨나요?”

“저…… 들으셨나요?”

「私… …聞きましたか？」

야스코가 물어 ㅅ다。

야스코가 물었다。

야스코가 물었다。

ヤスコが尋ねた。

“듣다니, 뭐 ㄴ 말이 ㅂ니까?”

“듣다니, 월 말입니까?”

“듣다니, 월 말입니까?”

「聞くなんて、何のことですか？」

“그러니까…… 저희가 주고받는 소리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고받는 소리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고받는 소리요.

「だから… …私たちがやりとりする音です。

그래서 전화하셔 ㄴ 거 아니 ㄴ 가요?”

그래서 電話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화하신 거 아닌가요?”

だから電話してくれたのではないですか？」

이시가미가 여전히 무표정하 ㄴ 얼굴로 야스코를 바라보아 ㅅ 다.

이時加味が 如前히 無表情한 얼굴로 야스코를 바라보았다.

이시가미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야스코를 바라보았다.

石神が相変わらず無表情な顔でヤスコを眺めた。

“아니요,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 ㅂ 니다.

“아니요,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니요,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いいえ、言葉は一つも聞こえません。

이 연립 주택이 의외로 방음이 잘돼 있거든요.

이 聯立 住宅이 意外로 防音이 잘돼 있거든요。

이 연립 주택이 의외로 방음이 잘돼 있거든요。

この連立住宅が意外と防音が良くなっています。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이사 오기로 해 ㄴㄹ 정도니까요。

그 點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移徙 오기로 했을 程度니까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이사 오기로 했을 정도니까요。

その点が気に入ってここに引っ越すことにしたほどですから。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じゃあ… … 。

“어떻게 이 사태를 알아차려 ㄴ냐, 이 말이 ㅂ니까?”

“어떻게 이 事態를 알아차렸느냐, 李 末입니까?”

“어떻게 이 사태를 알아차렸느냐, 이 말입니까?”

「どうやってこの事態に気づいたのか、この言葉ですか？」

네, 하고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여 ㄴ다。

네, 하고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고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はい、とヤスコは首をうなずいた。

이시가미는 방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켜^ㄴ다.

이時加味는 房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시가미는 방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石神は部屋の片隅を指で指していた。

빈 캔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구멍에서 재가 흘러나와 있어^ㄴ다.

빈 캔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구멍에서 再嫁 흘러나와 있었다.

빈 캔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구멍에서 재가 흘러나와 있었다.

空の缶が床に倒れていて、その穴から灰が流れ出ていた。

“아까 와^ㄴ으^ㄴ 때 보니 담배 냄새가 나더군요.

“아까 왔을 때 보니 담배 냄새가 나더군요.

“아까 왔을 때 보니 담배 냄새가 나더군요.

「さっき来た時見たらタバコの匂いがしますね。

그래서 손님이 있나 보다 해^ㄴ는데 신발이 안 보이는 거^ㄴ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나 보다 했는데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나 보다 했는데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だからゲストがいるかよりしたが靴が見えないのです。

그런데 고타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ㅏ습니다。

그런데 고타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타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さて、こたつの中に誰がいるようでした。

코드도 꽂지 않으ㄴ 채 말이죠。

코드도 꽂지 않은 채 末이죠。

코드도 꽂지 않은 채 말이죠。

コードも挿さないままですね。

숨으려는 거라면 안쪽 방이 더 나아ㅏ으ㄴ 거ㅏ니다。

숨으려는 거라면 안쪽 房이 더 나왔을 겁니다。

숨으려는 거라면 안쪽 방이 더 나왔을 겁니다。

隠そうとしたら内側の部屋が良かったでしょう。

즉 고타쓰 안의 인물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지ㄴ 거라는 얘기죠。

卽 고타쓰 안의 人物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거라는 얘기죠。

즉 고타쓰 안의 인물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거라는 얘기죠。

つまり、小達内の人物は隠れているのではなく、隠されたのだということで

す。

그 전에 들려왔던 시끄러운 소리와, 평소와 다르게 헝클어져 있던 하나오카 씨의 머리 등을 조합해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들렸던 시끄러운 소리와, 平素와 다르게 헝클어져 있던 하나오카 氏の 머리 등을 組合해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斟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들렸던 시끄러운 소리와, 평소와 다르게 헝클어져 있던 하나오카 씨의 머리 등을 조합해 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その前に聞こえた騒々しい音と、いつもと違ってふくらんでいた花岡さんの頭などを組み合わせてみると何があったのか推測できました。

그리고 또 하나, 이 연립 주택에는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聯立 住宅에는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립 주택에는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この連立住宅にはゴキブリがありません。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私はここで長生きして誰よりもよく知っています。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이시가미의 입을 야스코는 망연히 바라보고 있어ㄴ다。

表情 하나 바꾸지 않고 淡淡하게 이야기하는 이時加味の 입을 야스코는 茫然히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이시가미의 입을 야스코는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表情ひとつ変えずに淡々と話す石神の口を、ヤスコは妄然と眺めていた。

이 사람은 분명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ㄴ 것이라는 생똥맞으ㄴ 생각이 떠올라ㄴ다。

이 사람은 分明 學校에서도 이런 式으로 學生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생똥맞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분명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생똥맞은 생각이 떠올랐다。

この人はきっと学校でもこのように生徒たちを教えるという生き生きとした考えが浮かんだ。

그러다 이시가미가 뚫어져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그 눈길을 피해ㄴ다。

그러다 이時加味가 뚫어져라 自身을 바라보고 있다는 事實을 깨닫고 그녀는 그 눈길을 避했다。

그러다 이시가미가 뚫어져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

는 그 눈길을 피했다。

それから石神が突き抜けて自分を見つめているという事実を悟り、彼女はそ
の目を避けた。

자신도 관찰 당하고 있는 듯하ㄴ 느낌이 들어ㄴ다。

自身도 觀察 當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신도 관찰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自分も觀察され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た。

무섭도록 냉정하고 머리가 좋으ㄴ 사람이라고 생각해ㄴ다。

무섭도록 冷靜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무섭도록 냉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恐ろしく冷静で頭がいい人だと思った。

그렇지 않다면 문틈으로 얼핏 보ㄴ 것만 가지고 이 정도의 추리를 하ㄴ 수 없으
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門틈으로 얼핏 본 것만 가지고 이 程度의 推理를 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틈으로 얼핏 본 것만 가지고 이 정도의 추리를 할 수 없
을 것이다。

そうでなければ、ドアの隙間で一見しただけでこの程度の推理ができないだ

ろう。

그러나 한편으로 야스코는 안도해^ㄴ다。

그러나 한便으로 야스코는 安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스코는 안도했다。

しかし一方で、ヤスコは安堵した。

아무래도 이시가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ㄴ는지 상세하게는 아는 것 같지 않다。

아무래도 이時加味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詳細하게는 아는 것 같지 않
다。

아무래도 이시가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는 아는 것 같지 않
다。

どうやら石神は何が起こったのか詳細にはわかるようではない。

“헤어지^ㄴ 남편이에요。

“헤어진 男便이에요。

“헤어진 남편이에요。

「別れた夫です。

그녀가 말해^ㄴ다。

그女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彼女は言った。

“이혼하 ㄴ 지 몇 년이나 지나 ㄴ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혀 ㄴ어요。

“離婚한 지 몇 年이나 지났는데도 繼續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離婚してから数年も経っても、ずっと従いながら苦しめられました。

돈을 주 ㄴ 때까지 돌아가지 않아 ㄴ고요。

돈을 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고요。

돈을 줄 때까지 돌아가지 않았고요。

お金をあげるまで戻っていません。

오늘도 그래 ㄴ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今日もそうでした。

더는 참으 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만……。

もう我慢できなくて、だからやめろ… …。

거기까지 말하고 야스코는 고개를 숙여ㄴ다。

거기까지 말하고 야스코는 고개를 숙였다。

거기까지 말하고 야스코는 고개를 숙였다。

そこまで言って、ヤスコは頭を下げた。

도가시를 어떤 식으로 죽여ㄴ는지는 말하ㄴ 수 없어ㄴ다。

도가市를 어떤 式으로 죽였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도가시를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道鹿市をどのように殺したかは言えなかった。

미사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해 두어야 하ㄴ다。

미사토와는 全然 關係없는 일로 해 두어야 한다。

미사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해 두어야 한다。

ミサトとは全く関係ない事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자수하ㄴ 생각이ㄴ가요?”

“自首할 생각인가요?”

“자수할 생각인가요?”

「刺繍するつもりですか？」

“그래야겠지요。

“그래야겠지요。

“그래야겠지요。

「そうでしょう。

아무 죄도 없는 미사토가 너무 불쌍하기 ㄴ 하지만요。

아무 罪도 없는 미사토가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요。

아무 죄도 없는 미사토가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요。

何の罪もないミサトがとても哀れですが。

그녀가 거기까지 말해 ㄴ ㄹ 때 칸막이 문이 세차게 열려 ㄴ 다。

그女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칸막이 門이 세차게 열렸다。

그녀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칸막이 문이 세차게 열렸다。

彼女がそこまで言った時、仕切りの扉がすっきり開かれた。

그 안쪽에 미사토가 서 있어 ㄴ 다。

그 안쪽에 미사토가 서 있었다。

그 안쪽에 미사토가 서 있었다。

その奥にミサトが立っていた。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そうしないでください。

절대로 안 돼!”

絶對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絶対にダメ！」

“미사토, 너 ㄴ 잠자코 있어!”

“미사토, 넌 잠자코 있어!”

“미사토, 넌 잠자코 있어!”

「ミサト、あなたは寝ている！」

“싫어, 그러기 싫어。

“싫어, 그러기 싫어。

“싫어, 그러기 싫어。

「嫌い、そう嫌い。

아저씨, 있잖아요, 이 남자를 죽이 ㄴ 거 ㄴ……。

아저씨, 있잖아요, 이 男子를 죽인 건……。

아저씨, 있잖아요, 이 남자를 죽인 건……。

おじさん、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の男を殺したのは…。 …。

“미사토!”

“미사토!”

“미사토!”

「ミサト！」

야스코가 고향을 질러ㅅ다。

야스코가 高喊을 질렀다。

야스코가 고향을 질렀다。

ヤスコが叫んだ。

미사토는 움찔하며 턱을 끌어당기고 속상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노려보아ㅅ다。

미사토는 움찔하며 턱을 끌어당기고 속傷하 죽겠다는 表情으로 엄마를 노려보았다。

미사토는 움찔하며 턱을 끌어당기고 속상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노려보았다。

ミサトはつかんで顎を引き寄せて続々と死ぬという表情で母を狙ってみた。

눈 주위가 빨개ㅅ다。

눈 周圍가 빨갳다。

눈 주위가 빨갳다。

目の周りが赤い。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씨。

「花岡さん。

이시가미가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해^ㄴ다。

이時加味가 抑揚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시가미가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石神が抑揚のない声で語った。

“저한테는 숨기지 않아도 되^ㄴ니다。

“저한테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저한테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私には隠す必要はありません。

“숨기다니, 제가 뭘……。

“숨기다니, 제가 뭘……。

“숨기다니, 제가 뭘……。

「隠すなんて、私が何を…」 ……。

“하나오카 씨 혼자서 죽이지 않아^ㄴ다는 거^ㄴ 저도 아^ㄴ니다。

“하나오카 氏 혼자서 죽이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나오카 씨 혼자서 죽이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花岡さん一人で殺さなかったというのは私も知っています。

따님도 도와주세요 테지요.

따님도 도왔을 테지요.

따님도 도왔을 테지요.

娘さんも助けてくれるでしょう。

야스코는 황망히 고개를 저어준다.

야스코는 慌忙히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황망히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恥ずかしく首を振った。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低 혼자 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한 일입니다.

「何を言ってください、私は一人でした。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방금 돌아와서……; 저, 제가 죽이고 나간 직후에 돌아와주세요.

이 아이는 學校에서 方今 돌아와서……, 저, 제가 죽이고 난 直後에 돌아왔어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 방금 돌아와서……, 저, 제가 죽이고 난 직후에 돌아왔어요。

この子は学校から戻ってきて… …、私、私が殺された直後に戻ってきました。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關係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だから何の關係もありません。

그러나 이시가미는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듯하_L 표정이어_ㅅ다。

그러나 이時加味는 그女の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듯한 表情이었다。

그러나 이시가미는 그녀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しかし石神は彼女の言葉を全く信じないような表情だった。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미사토 쪽을 바라보아_ㅅ다。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미사토 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숨을 내쉬더니 미사토 쪽을 바라보았다。

彼がため息をつくと、ミサト側を眺めた。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따님을 힘들게 하 ㄴ 뿐이 ㄴ니다。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따님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따님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そんな嘘はむしろ娘を大変にするだけです。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嘘ではありません。

믿어 주세요。

믿어 주세요。

믿어 주세요。

信じてください。

야스코가 이시가미의 무릎을 손으로 붙들어 ㅅ다。

야스코가 이時加味の 무릎을 손으로 붙들었다。

야스코가 이시가미의 무릎을 손으로 붙들었다。

ヤスコが石上の膝を手で握った。

그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시체로 눈길을 향해 ㅅ다。

그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屍體로 눈길을 向했다。

그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다시 시체로 눈길을 향했다。

彼はその手をじっと見下ろすより、再び死体で目を向けた。

그리고 뭐 ㄴ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해 ㄴ다。

그리고 원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원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そして何かを熊が思うように首をかしげた。

“문제는 경찰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問題は 警察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경찰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問題は警察がどのように見えるかということです。

그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 ㄴ 거 ㅂ니다。

그런 거짓말은 通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そんな嘘は通じないでしょう。

“왜 죠?”

“왜 죠?”

“왜죠?”

「なぜ？」

그렇게 묻고 나서 야스코는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 **ㅁ**
을 깨달아 **ㅅ**다。

그렇게 묻고 나서 야스코는 그 質問 自體가 自身の 거짓말을 認定하는 것
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묻고 나서 야스코는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
임을 깨달았다。

そう尋ねてから、ヤスコはその質問自体が自分の嘘を認めることであること
に気づいた。

이시가미는 시체의 오른손을 가리켜 **ㅅ**다。

이時加味는 屍體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이시가미는 시체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石神は死体の右手を指した。

“손목과 손등에 내출혈 흔적이 있어요。”

“손목과 손등에 内出血 痕跡이 있어요。”

“손목과 손등에 내출혈 흔적이 있어요。”

「手首と手の甲に出血の跡があります。」

자세히 보면 그 흔적은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仔細히 보면 그 痕跡은 손가락 模樣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흔적은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詳しく見ると、その跡は指の形をしています。

아마도 이 남자는 뒤에서 목을 조르자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해_ㄴ 겠죠.

아마도 이 男子는 뒤에서 목을 조르자 必死的으로 벗어나려고 했_ㄴ 겠죠.

아마도 이 남자는 뒤에서 목을 조르자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_ㄴ 겠죠.

おそらく、この男は後ろから首を絞ると必死に抜け出そうとしたでしょう。

이거_ㄴ 이 남자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힘주어 그의 손을 잡아_ㄴ 던 흔적

이_ㄴ 거_ㄴ 니다.

이건 이 男子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힘주어 그의 손을 잡았던 痕跡

일 겁니다.

이건 이 남자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힘주어 그의 손을 잡았던 흔적

일 겁니다.

これはこの男がそこから抜け出せないように力を与えて、彼の手を握った痕

跡だろう。

한눈에 아_ㄴ 수 있어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一目でわかります。

“그러니까, 제가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だから、私がそうし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오카 씨, 그거 ㄴ 무리 ㅅ니다.

“하나오카 氏, 그건 무립니다.

“하나오카 씨, 그건 무립니다.

「花岡さん、それは無理です。

“왜 죠?”

“왜 죠?”

“왜 죠?”

「なぜ？」

“하나오카 씨는 뒤에서 목을 조르지 않아왔습니다니까.

“하나오카 氏는 뒤에서 목을 조르지 않았습니까.

“하나오카 씨는 뒤에서 목을 조르지 않았습니까.

「花岡さんは後ろから首を絞めませんでしたか。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는다는 거 ㄴ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는다는 건 絶對 不可能하지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요。

それで彼の手を握るというのは絶対不可能でしょう。

팔이 네 개라면 몰라도 말이 ㅂ니다。

팔이 네 個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팔이 네 개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腕が四つであれば分からなくても馬です。

이시가미의 설명에 야스코는 하 ㄴ 말을 잃고 말아 ㅅ다。

이時加味の 説明에 야스코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시가미의 설명에 야스코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石神の説明に、ヤスコは言葉を失ってしまった。

출구 없는 터널에 들어서 ㄴ 기분이어 ㅅ다。

出口 없는 터널에 들어선 氣分이었다。

출구 없는 터널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出口のないトンネルに入った気分だった。

그녀는 고개를 푹 숙여ㄴ다。

그女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彼女は頭をすっかり下げた。

이시가미가 하ㄴ눈에 꿰뚫어 보ㄴ 정도라면 경찰이 그 사실을 밝혀내는 거ㄴ

식은 죽 먹기이ㄴ 것이다。

이時加味가 한눈에 꿰뚫어 볼 程度라면 警察이 그 事實을 밝혀내는 건 識

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시가미가 한눈에 꿰뚫어 볼 정도라면 경찰이 그 사실을 밝혀내는 건 식
은 죽 먹기일 것이다。

石神が一目で突っ込んでみるほどなら、警察がその事実を明らかにするのは、食は粥食べることだろう。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미사토만은 이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미사토만은 이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미사토만은 이 일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どうしても私たちミサトだけはこの仕事に巻き込ませたくありません。

이 아이만은 절대로……。

이 아이만은 絶對로……。

이 아이만은 절대로……。

この子だけは絶対に… …。

“나도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엄마를 監獄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엄마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私もママを刑務所に送りたくない。

미사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해^ㅅ다。

미사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사토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ミサトが泣く声で言った。

야스코는 양손에 얼굴을 묻어^ㅅ다。

야스코는 兩손에 얼굴을 묻었다。

야스코는 양손에 얼굴을 묻었다。

ヤスコは両手に顔を埋めた。

“이 일을 대체 어떡하면 좋지……。

“이 일을 大體 어떡하면 좋지……。

“이 일을 대체 어떡하면 좋지……。

「このことを一体どうすればいいんだ……」 ... 。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ㅅ다。

房 内の 空氣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部屋の中の空氣が重く沈んだ。

야스코는 그 무게에 짓눌려 으스러지^ㄴ 것만 같아^ㅅ다。

야스코는 그 무게에 짓눌려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야스코는 그 무게에 짓눌려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ヤスコはその重さに押し当てられるようだった。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おじさん。

미사토가 입을 열어^ㅅ다。

미사토가 입을 열었다。

미사토가 입을 열었다。

ミサトが口を開けた。

“아저씨, 엄마에게 자수를 권하러 오 ㄴ 거 아니에요?”

“아저씨, 엄마에게 自首를 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저씨, 엄마에게 자수를 권하러 온 거 아니에요?”

「おじさん、お母さんに刺繍を勧めに来たのではないですか？」

이시가미가 하 ㄴ 박자를 두어 ㄴ다가 대답해 ㄴ다。

이時加味が 한 拍子を 두었다가 對答했다。

이시가미가 한 박자를 두었다가 대답했다。

石神が一拍を置いて答えた。

“나는 하나오카 씨에게 힘이 돼 주려고 전화해 ㄴ어。

“나는 하나오카 氏에게 힘이 돼 주려고 電話했어。

“나는 하나오카 씨에게 힘이 돼 주려고 전화했어。

「私は花岡さんに力になってあげようと電話した。

자수하 ㄴ 작정이라면 몰라도 만일 그게 아니라면 두 사람이 해결하기는 아주

힘드 ㄴ 거라는 생각이 들어 ㄴ거든。

自首할 作定이라면 몰라도 萬一 그게 아니라면 두 사람이 解決하기는 아주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자수할 作정이라면 몰라도 만일 그게 아니라면 두 사람이 해결하기는 아
주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刺繍するつもりなら分からなくても、もしそれでなければ二人が解決するのはとても大変だろうと思ったんだ。

그 말에 야스코가 얼굴에서 손을 떼ㄴ다。

그 말에 야스코가 얼굴에서 손을 뗐다。

그 말에 야스코가 얼굴에서 손을 뗐다。

その言葉に、ヤスコが顔から手を離した。

그리고 보니 電話를 걸어ㄴ으ㄴ 때 이 남자는 묘하ㄴ 말을 해ㄴ다。

그리고 보니 電話를 걸었을 때 이 男子는 妙한 말을 했다。

그리고 보니 電話를 걸었을 때 이 남자는 묘한 말을 했다。

そういえば電話をかけた時、この男は妙な話をした。

여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는 어려우ㄴ 거라고……。

女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處理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여자들만의 힘으로 사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女性だけの力で死体を処理するのは難しいだろうと…。 …。

“자수하지 않고 넘어가ㄴ 방법이라도 있나요?”

“自首하지 않고 넘어갈 方法이라도 있나요?”

“자수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이라도 있나요?”

「刺繍せずに進む方法でもありますか？」

미사토가 다시 물어냈다.

미사토가 다시 물었다.

미사토가 다시 물었다.

ミサトがまた尋ねた。

야스코는 고개를 들어냈다.

야스코는 고개를 들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들었다.

ヤスコは頭を上げた。

이시가미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있어냈다.

이時加味が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이시가미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石神が頭をそっと横に傾けていた。

그 얼굴에 동요하는 기색은 없어냈다.

그 얼굴에 動搖하는 氣色은 없었다.

그 얼굴에 동요하는 기색은 없었다.

その顔に揺れる気配はなかった。

“사건이 일어나 ㄴ 사실을 감추든지 아니면 사건과 두 사람의 연관성을 끊어 내 버리든지 두 ㄴ 중 하나지。

“事件이 일어난 事實을 감추든지 아니면 事件과 두 사람의 聯關性を 끊어 내 버리든지 둘 中 하나지。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감추든지 아니면 사건과 두 사람의 연관성을 끊어 내 버리든지 둘 중 하나지。

「事件が起こった事実を隠したり、事件と二人の関連性を断ち切ってしまう
たり、どちらか一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시체는 처리해야 해。

하지만 어느 쪽이든 屍體는 處理해야 해。

하지만 어느 쪽이든 시체는 처리해야 해。

でもどちらにしても体は処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可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それが可能だと思いますか？」

“미사토!”

“미사토!”

“미사토!”

「ミサト！」

야스코가 큰 소리로 미사토를 나무랐다.

야스코가 큰 소리로 미사토를 나무랐다.

야스코가 큰 소리로 미사토를 나무랐다.

ヤスコが大声でミサトを蹴った。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只今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今何を言うんだ！」

“엄마는 가만있어.

“엄마는 가만있어.

“엄마는 가만있어.

「お母さんはじっとしてい。

아저씨, 어때요, 가능하겠어요?”

아저씨, 어때요, 可能하겠어요?”

아저씨, 어때요, 가능하겠어요?”

おじさん、どうですか、できますか？」

“어렵지.

“어렵지.

“어렵지.

「難しい。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不可能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でも不可能ではない。

이시가미는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바위 같은 느낌으로 말해^ㄴ다.

이時加味는 마치 아무 感情도 없는 바위 같은 느낌으로 말했다.

이시가미는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바위 같은 느낌으로 말했다.

石神はまるで何の感情もない岩のような感じで語った。

그런데 이시가미의 그런 태도가 야스코에게는 더욱더 무언가 근거가 있으^ㄴ 것

이라는 믿음을 주어^ㄴ다.

그런데 이時加味の 그런 態度가 야스코에게는 더욱더 無言가 根據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그런데 이시가미의 그런 태도가 야스코에게는 더욱더 무언가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ところが石神のそんな態度が、ヤスコにはさらに何か根拠があるとの信仰を
与えた。

“엄마,”

“엄마,”

“엄마,”

「お母さん」

미사토가 말해^ㄴ다.

미사토가 말했다.

미사토가 말했다.

ミサトが言った。

“아저씨께 도와 달라고 하자.

“아저씨께 도와 달라고 하자.

“아저씨께 도와 달라고 하자.

「おじさんに助けてもらいましょう。

그 방법밖에 없어.

그 方法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その方法しかない。

“하지만 어떻게……。

“하지만 어떻게……。

“하지만 어떻게……。

「しかし、どのように… …。

그러면서 야스코는 이시가미를 보아^ㅅ다。

그러면徐 야스코는 이時加味를 보았다。

그러면서 야스코는 이시가미를 보았다。

そして、ヤスコは石神を見た。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가느다란 눈으로 아래쪽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어^ㅅ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가느다란 눈으로 아래쪽을 지그시 凝視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가느다란 눈으로 아래쪽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었다。

彼は頭をそっと傾けたまま細い目で下をジグシ凝視していた。

모녀가 결론을 내리^ㄴ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어^ㅅ다。

母女가 結論을 내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모녀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母娘が結論を下すまで寝て待っている感じだった。

야스코는 사요코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ㄴ다.

야스코는 史요코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야스코는 사요코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ヤスコはサヨコに聞いた話が浮かんだ。

사요코는 이 수학 선생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해ㄴ다.

史요코는 이 數學 先生李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사요코는 이 수학 선생이 야스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サヨコはこの数学の先生がヤスコが好きなようだと言った。

그녀가 가게에 있으ㄴ 때만 도시락을 사러 오ㄴ다고 해ㄴ다.

그女가 가게에 있을 때만 도시락을 사러 온다고 했다.

그녀가 가게에 있을 때만 도시락을 사러 온다고 했다.

彼女が店にいるときだけ弁当を買いに来ると言った。

만일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ㄴ다면 이시가미의 이런 호의를 의심해ㄴ으ㄴ 것이
다。

萬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時加味の 이런 好意를 疑心했을 것이

다。

만일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시가미의 이런 호의를 의심했을 것이
다。

もしその話を聞かなかったら石神のこういう好意を疑っただろう。

별로 친하지도 않으니 이웃을 이렇게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
디 있으니까。

別로 親하지도 않은 이웃을 이렇게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世上에
어디 있을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웃을 이렇게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あまり親しくない隣人をこれまで助けようとする人がこの世にどこにいるの
か。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체포되니까 모르는 일이어스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自身도 逮捕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체포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やや間違って行く自分も逮捕されるかもしれないことだった。

“시체를 숨기니까 해도 언젠가는 발각되지 않을까요?”

“屍體를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發覺되지 않을까요?”

“시체를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발각되지 않을까요?”

「死体を隠してもいつかは発覚しないのでしょうか？」

야스코가 물어왔다.

야스코가 물었다.

야스코가 물었다.

ヤスコが尋ねた。

그녀는 이 한마디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왔다.

그녀는 이 한마디가 自身들의 運命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自覺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한마디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彼女はこの一言が自分たちの運命を変える第一歩であることを自覚していた。

“시체를 숨기 ㄴ지 어찌 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왔습니다.

“屍體를 숨길지 어쩔지는 아직 決定하지 않았습시다.

“시체를 숨길지 어쩔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시다.

「死体を隠すかどうかはまだ決めていません。

이시가미가 대답해왔다.

이時加味가 對答했다.

이시가미가 대답했다.

石神が答えた。

“숨기지 않는 편이 나으 ㄴ 경우도 있으니까요.

“숨기지 않는 便이 나은 境遇도 있으니까요.

“숨기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隠さない方が良い場合もありますからね。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 ㄴ지는 정보를 정리해 보 ㄴ 다음 결정하 ㄴ 거 ㄴ니다.

屍體를 어떻게 處理할지는 情報를 整理해 본 다음 決定할 겁니다.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보를 정리해 본 다음 결정할 겁니다.

体をどのように処理するかについての情報を整理してから決定します。

분명하 ㄴ 사실은 시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 ㄴ다는 것이 ㄴ니다.

分명한 事實은 屍體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明らかな事實は、死体をこのままに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정보라니, 무슨 정보 말이 ㄴ가요?”

“情報라니, 무슨 情報 未인가요?”

“정보라니, 무슨 정보 말인가요?”

「情報とは、どういう情報なんですか？」

“이 사람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사람에 關한 情報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정보입니다。”

「これは人に関する情報です。」

이시가미가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해^ㄴ다。

이時加味가 屍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시가미가 시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石神が死体を見下ろして言った。

“주소, 이름, 나이, 직업, 여기에 오^ㄴ 목적, 이곳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 해^ㄴ는
지, 가족은 있는지……。

“住所, 이름, 나이, 職業, 여기에 온 目的, 이곳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 했는
지, 家族은 있는지……。

“주소, 이름, 나이, 직업, 여기에 온 목적, 이곳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 했는
지, 가족은 있는지……。

「住所、名前、年齢、職業、ここに来た目的、この次はどこに行こうとし
たのか、家族はいるのか…」 … 。

하나오카 씨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하나오카 氏が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하나오카 씨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花岡さんが知っていることをすべて教えてください。

“아, 그게……。

“아, 그게……。

“아, 그게……。

「あ、それは… … 。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시체를 옮기도록 하지요。

“말씀하시기 前に 一旦 屍體를 옮기도록 하지요。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시체를 옮기도록 하지요。

「おっしゃる前に一旦死体を移すようにします。

이 방은 한 시라도 빨리 청소해야 합니다。

이 房은 韓 시라도 빨리 清掃해야 합니다。

이 방은 한 시라도 빨리 청소해야 합니다。

この部屋は一度でもすばやく清掃する必要があります。

범행 흔적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요。

犯行 痕跡이 四方에 널려 있을 테니까요。

범행 흔적이 사방에 널려 있을 테니까요。

犯行痕が四方に広がっているからです。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시가미는 시체의 상반신을 안아 일으켜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時加味는 屍體의 上半身을 안아 일으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시가미는 시체의 상반신을 안아 일으켰다。

その言葉が終わるやいなや石神は死体の上半身を抱き起こした。

“아니,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아니,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아니, 어디로 옮기시려고요?”

「いや、どこに移動しようか？」

“제 방으로요。

“제 房으로요。

“제 방으로요。

「私の部屋です。

당연하지 않느냐는 얼굴로 대답하고 나서 이시가미는 시체를 어깨에 짊어져ㄴ다。

當然하지 않느냐는 얼굴로 對答하고 나서 이時加味는 屍體를 어깨에 짊어
졌다。

당연하지 않느냐는 얼굴로 대답하고 나서 이시가미는 시체를 어깨에 짊어
졌다。

当然じゃないかという顔で答えてから石神は死体を肩に背負った。

대단하ㄴ 힘이어ㄴ다。

대단한 힘이였다。

대단한 힘이였다。

すごい力だった。

감색 저지의 끝자락에 ‘유도부’라고 쓰이ㄴ 천 조각이 꿰매져 있어ㄴ다。

감色 沮止의 끝자락에 ‘誘導部’라고 쓰인 천 彫刻이 꿰매져 있었다。

감색 저지의 끝자락에 ‘유도부’라고 쓰인 천 조각이 꿰매져 있었다。

紺色ジャージの端に「誘導部」と書かれた布の彫刻が縫われていた。

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학 관련 서적을 발로 밀쳐 내자 다다미의 표면이 드러나
ㄴ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數學 關聯 書籍을 발로 밀쳐 내자 다다미의 表面이 드
러났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수학 관련 서적을 발로 밀쳐 내자 다다미의 표면이 드
러났다。

床に散らばっている数学関連書籍を足で押し出して畳の表面が現れた。

이시가미는 그 공간에 시체를 내려놓아^ㄴ다。

이時加味는 그 空間에 屍體를 내려놓았다。

이시가미는 그 공간에 시체를 내려놓았다。

石神はその空間に死体を置いた。

시체는 눈을 활짝 뜨^ㄴ 상태여^ㄴ다。

屍體는 눈을 활짝 뜬 狀態였다。

시체는 눈을 활짝 뜬 상태였다。

死体は目を開けた状態だった。

그리고 나서 그는 입구에 멀뚱히 서 있는 모녀를 돌아보아^ㄴ다。

그리고 나서 그는 入口에 멀뚱히 서 있는 母女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입구에 멀뚱히 서 있는 모녀를 돌아보았다。

それから彼は入り口にとっても立っている母女を振り返った。

“미사토 양은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주겠어? 청소기로, 가능하^ㄴ 한 세심하게 말
이야。

“未사토 량은 집에 가서 清掃를 해 주겠어? 清掃機로, 可能한 한 細心하게
말이야。

“미사토 양은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주겠어? 청소기로, 가능한 한 세심하게 말아야.

「ミサトちゃんは家に帰って掃除をしてくれる? 掃除機で、出来るだけ丁寧にね。

어머니는 여기 남아 주세요.

어머니는 여기 남아 주세요.

어머니는 여기 남아 주세요.

母はここに残ってください。

미사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를 한 번 힐끗 쳐다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ㄴ다.

미사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를 한 번 힐끗 쳐다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미사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를 한 번 힐끗 쳐다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ミサトは真っ青に飽きた顔で頭をうなずくとお母さんを一度すっきり見つめてから家に帰った。

“문을 닫아 주세요.

“門을 닫아 주세요.

“문을 닫아 주세요.

「ドアを閉めてください。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말해^ㄴ다.

이時加味가 야스코에게 말했다.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말했다.

石神が靖子に言った。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그녀는 이시가미가 시키는 대로 하^ㄴ 다음 현관 바닥에 서^ㄴ 채 머뭇거리^ㄴ다.

그女는 이時加味가 시키는 대로 한 다음 玄關 바닥에 선 채 머뭇거렸다.

그녀는 이시가미가 시키는 대로 한 다음 현관 바닥에 선 채 머뭇거렸다.

彼女は石神がさせるようにしてから玄関の底に立ったまま留まった。

“일단 들어오세요.

“一旦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一度入ってください。

사시는 집하고 달리 좀 지저분하지만요.

四時は 집하고 달리 좀 지저분하지만요.

사시는 집하고 달리 좀 지저분하지만요.

さしは家で違ってちょっと乱雑ですが。

이시가미는 의자에 놓여 있던 조그마 ㄴ 방석을 시체 바로 옆에 내려놓아 ㄸ다.

이時加味는 椅子에 놓여 있던 조그만 方席을 屍體 바로 옆에 내려놓았다.

이시가미는 의자에 놓여 있던 조그만 방석을 시체 바로 옆에 내려놓았다.

石神は椅子に置かれていた小さなクッションを死体のすぐ隣に下ろした。

야스코는 집 안으로 들어서 ㄸ지만 방석에는 앉지 않고 시체를 외면하듯 방 한
쪽 구석에 앉아 ㄸ다.

야스코는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方席에는 앉지 않고 屍體를 外面하듯 房
한쪽 구석에 앉았다.

야스코는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방석에는 앉지 않고 시체를 외면하듯 방
한쪽 구석에 앉았다.

ヤスコは家の中に入ったが、クッションには座らず、体を外面するように部
屋の片隅に座った。

그 모습을 보고 이시가미는 그녀가 시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아냈다.

그 모습을 보고 이時加味는 그女가 屍體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습을 보고 이시가미는 그녀가 시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その姿を見て石神は彼女が死体を恐れていることに気づいた。

“아, 미안합니다.

“아, 未安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ああ、すみません。

그가 방석을 집어 들어 그녀에게 내밀어냈다.

그가 方席을 집어 들어 그女에게 내밀었다.

그가 방석을 집어 들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彼がクッションを拾って彼女に差し出した。

“자,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さあ、ここに座ってくださ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いいえ、大丈夫です。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 ㄴ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ㄴ 다.

그女는 視線을 바닥으로 向한 채 고개를 左右로 흔들었다.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彼女は視線を床に向けたまま首を左右に振った。

이시가미는 방석을 도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시체 옆에 주저앉아 ㄴ 다.

이時加味는 方席을 도로 椅子 위에 올려놓고 自身은 屍體 옆에 주저앉았
다。

이시가미는 방석을 도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은 시체 옆에 주저앉았
다。

石上はクッションを道路の椅子の上に載せ、自分は死体の横に座り込んだ。

시체의 목에 검붉은 ㄴ 자국이 띠처럼 둘러 있어 ㄴ 다.

屍體의 목에 검붉은 자국이 띠처럼 둘러 있었다.

시체의 목에 검붉은 자국이 띠처럼 둘러 있었다.

死体の首に黒赤の跡が帯のように置かれていた。

“전기 코드이 ㄴ 가요?”

“電氣 코드인가요?”

“전기 코드인가요?”

「電氣コードですか？」

“네?”

“네?”

“네?”

「はい？」

“목을 조르는 도구 말이 ㅂ니다。

“목을 조른 道具 末입니다。

“목을 조른 도구 말입니다。

「首を締めた道具です。

전기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 ㅂ습니까?”

電氣 코드를 使用하지 않았습니까?”

전기 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電氣コードを使用していないですか？」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あ… …そうですね。

고타쓰의 코드여썬어요。

고타쓰의 코드였어요。

고타쓰의 코드였어요。

こたつのコードでした。

“그 고타쓰 말이로군요。

“그 고타쓰 末이로군요。

“그 고타쓰 말이로군요。

「あのこたつなんですね。

이시가미는 시체에 덮여 있던 고타쓰의 이불 문양을 떠올려썬다。

이時加味는 屍體에 덮여 있던 고타쓰의 이불 文樣을 떠올렸다。

이시가미는 시체에 덮여 있던 고타쓰의 이불 문양을 떠올렸다。

石神は死体に覆われていた小達の布団の模様を思い浮かべた。

“그거 ㄴ 처분하는 게 좋으ㄴ 거ㄴ니다。

“그건 處分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건 처분하는 게 좋을 겁니다。

「それは処分するのが良いでしょう。

아,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아,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아,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ああ、私が後でやるようにします。

그거 ㄴ 그렇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

ところで… …」

그는 다시 시체로 눈길을 돌려ㅅ다。

그는 다시 屍體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다시 시체로 눈길을 돌렸다。

彼は再び死体に目を向けた。

“오늘 이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해ㅅ던 거 ㅅ니까?”

“오늘 이 사람과 만나기로 約束했던 겁니까?”

“오늘 이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겁니까?”

「今日、この人と会うことを約束したのでしょうか？」

야스코가 고개를 저어ㅅ다。

야스코가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가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が首を振った。

“약속하지 않아ㅏ어요。

“約束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約束しませんでした。

점심때 느닷없이 가게에 나타나 ㄴ 거죠。

點心때 느닷없이 가게에 나타난 거죠。

점심때 느닷없이 가게에 나타난 거죠。

ランチの時、いつもお店に現れたんですよ。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가게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나ㅏ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가게 近處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가게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それで夕方頃にお店の近くにある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で会いました。

그때는 일단 헤어져ㅏ는데 나중에 집까지 찾아와ㅏ어요。

그때는 一旦 헤어졌는데 나중에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때는 일단 헤어졌는데 나중에 집까지 찾아왔어요.

その時はいったん別れたのですが、後で家まで訪ねてきました。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말이죠.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末이죠.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말이죠.

「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 …ということです。

목격자가 없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ㄴ 상황이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해ㄴ다。

目撃者が 없으리라고 期待하기 어려운 状況이라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목격자가 없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目撃者がいないと期待しにくい状況だと石神は考えた。

그는 시체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ㄴ다。

그는 屍體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시체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彼は体のジャンパーポケットに手を入れた。

등글게 말리ㄴ 만 엔짜리 지폐 두 장이 나와ㄴ다。

등글게 말린 萬 엔짜리 紙幣 두 張이 나왔다。

둥글게 말린 만 엔짜리 지폐 두 장이 나왔다.

丸く乾燥しただけ円札 2 枚が出た。

“아, 그거 ㄴ 제가……。

“아, 그건 제가……。

“아, 그건 제가……。

「あ、それは私が… …。

“주신 거 ㄴ니까?”

“主神 겁니까?”

“주신 겁니까?”

「くださったのですか？」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시가미는 그 돈을 그녀에게 건네ㄴ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時加味는 그 돈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시가미는 그 돈을 그녀에게 건넸다。

彼女が頭をうなずいて、石神はそのお金を彼女に渡した。

그러나 야스코는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아ㄴ다。

그러나 야스코는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스코는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다。

しかし、ヤスコは手を差し出さなかった。

이시가미는 일어서서 벽에 걸려 있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다。

이時加味는 일어서서 壁에 걸려 있는 自身の 洋服 안주머니에서 紙匣을 꺼
냈다。

이시가미는 일어서서 벽에 걸려 있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
냈다。

石神は立ち上がって壁に掛かっている自分のスーツの中のポケットから財布
を取り出した。

거기서 2만 엔을 꺼내고 대신 시체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2만 엔을 자기 지갑
에 집어넣어 다。

거기서 2萬 엔을 꺼내고 代身 屍體의 胡주머니에 들어 있던 2萬 엔을 자
기 紙匣에 집어넣었다。

거기서 2만 엔을 꺼내고 대신 시체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2만 엔을 자
기 지갑에 집어넣었다。

そこで 2万円を取り出し、代わりに死体のオーストラリアに入っていた 2
万円を自分の財布に入れた。

“이러면 꺼림칙하지 않으시 ㄴ 거 ㄴ니다。

“이러면 꺼림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면 꺼림칙하지 않으실 겁니다.

「こうすれば気にしないでしょう。

그가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 ㄴ 돈을 야스코에게 내밀어 ㄴ다.

그가 自身の 紙匣에서 꺼낸 돈을 야스코에게 내밀었다.

그가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돈을 야스코에게 내밀었다.

彼が自分の財布から取り出したお金をヤスコに差し出した。

야스코는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고맙습니다.

야스코는 暫時 躊躇하는 氣色을 보이다가 “고맙습니다.

야스코는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고맙습니다.

ヤスコはしばらく躊躇する気配を見せて、「ありがとう。

”라고 조그마 ㄴ 소리로 말하며 돈을 받아 쥐어 ㄴ다.

”라고 조그만 소리로 말하며 돈을 받아 쥐었다.

”라고 조그만 소리로 말하며 돈을 받아 쥐었다.

」と小さな声で話し、お金を受け取った。

이시가미는 다시 시체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해 ㄴ다.

이時加味는 다시 屍體의 주머니를 뒤지기 始作했다.

이시가미는 다시 시체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石神は再び死体のポケットを覆い始めた。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紙匣을 꺼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そしてズボンのポケットから財布を取り出した。

약간의 현금과 면허증, 영수증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었다.

若干의 現金과 免許證, 領收證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약간의 현금과 면허증, 영수증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若干の現金や免許証、領収書のようなものが入っていた。

“도가시 시지……로군요.

“도가시 신지……로군요.

“도가시 신지……로군요.

「道がしシンジ… …そうですね。

주소는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住所는 新竹쿠구 니시新竹쿠.

주소는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住所は新宿区西新宿。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는 거냐요?”

只今도 여기에 살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여기에 살고 있는 건가요?”

今もここに住んでいますか？」

면허증을 보면서 그가 야스코에게 물어냈다.

免許證을 보면서 그가 야스코에게 물었다.

면허증을 보면서 그가 야스코에게 물었다.

免許証を見て、彼はヤスコに尋ねた。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어냈다.

그女는 眉間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彼女は眉間を突き刺して首を振った。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わかりません。

아마 아니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거예요.

おそらくそうではありません。

니시신주쿠에 산 적이 있는 것 같긴 하데,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니시新竹쿠에 山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집賃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니시신주쿠에 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西新宿に買ったことがあるようですが、家賃を出せずに追われたと言われたことがあります。

“면허증이 작년에 갱신하거늘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채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거로군요.

“免許證이 昨년에 更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住民登録을 옮기지 않은 채 다른 곳에 居處를 마련한 거로군요.

“면허증이 작년에 갱신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한 거로군요.

「免許証が昨年に更新した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それなら住民登録を移さないまま他の所に居所を設けたのですね。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ㄴ으ㄴ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あちこちに歩き回ります。

일정하 ㄴ 직업이 없어서 방도 쉬이 빌리 ㄴ 수 없어 ㄴ으ㄴ 테니까요.

一定한 職業이 없어서 房도 쉬이 빌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방도 쉬이 빌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一定の職業がなかったので部屋もしっかり借りられなかったでしょうから。

“그래 ㄴ겠네요.

“그랬겠네요.

“그랬겠네요.

「そうでしたね。

이시가미가 이번에는 영수증으로 시선을 돌려 ㄴ다.

이時加味가 이番에는 領收證으로 視線을 돌렸다.

이시가미가 이번에는 영수증으로 시선을 돌렸다.

石神が今回は領収書で視線を回した。

‘렌탈 룸 오기야’라고 되어 있어 ㄴ다.

‘렌탈 룸 오기야’라고 되어 있었다.

‘렌탈 룸 오기야’라고 되어 있었다.

「レンタルルームオギヤ」となっていた。

금액은 2박에 5,880엔.

金額은 2 泊에 5,880엔.

금액은 2박에 5,880엔.

金額は 2 泊に 5,880 円。

선불 방식이 ㄴ 듯해ㄴ다.

先拂 方式인 듯했다.

선불 방식인 듯했다.

プリペイド方式のようだった。

이시가미는 속으로 ‘1박에 2,940엔’이라고 계산해ㄴ다.

이時加味는 속으로 ‘1 泊에 2,940엔’이라고 計算했다.

이시가미는 속으로 ‘1박에 2,940엔’이라고 계산했다.

石神は中で「1 泊に 2,940 円」と計算した。

그는 그것을 야스코에게 보여 주어ㄴ다.

그는 그것을 야스코에게 보여 주었다.

그는 그것을 야스코에게 보여 주었다.

彼はそれをヤスコに見せた。

“여기 머물고 있어ㅅ던 모양이ㅂ니다.

“여기 머물고 있었던 模樣입니다.

“여기 머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ここに滞在していたようです。

그러니까 체크인아웃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집주인이 방문을 열겠지요.

그러니까 체크인아웃을 하지 않으면 早晩間 집主人이 訪問을 열겠지요.

그러니까 체크인아웃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집주인이 방문을 열겠지요.

だからチェックアウトをしないとすぐに家主が訪問を開くでしょう。

숙박객이 없어져ㅅ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ㄴ지도 모르ㅂ니다.

宿泊客이 없어졌다는 事實을 알게 되면 警察에 申告할지도 모릅니다.

숙박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宿泊客がいなくなったことを知ったら、警察に届け出るかもしれません。

물론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ㄴ 가능성도 있고요.

勿論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둘 可能性도 있고요.

물론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둘 가능성도 있고요.

もちろん面倒でただ放っておく可能性もありますよ。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선불로 하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種種 있으니까 先拂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선불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そんなことがよくあるからプリペイドにしたんじゃないですか。

그렇지만 너무 유리하ㄴ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ㄴ 위험하ㅅ니다。

그렇지만 너무 有利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危險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しかし、あまりにも有利な方にしか考えないのは危険です。

이시가미는 계속해서 시체의 호주머니를 뒤져ㅅ다。

이時加味는 繼續해서 屍體의 胡주머니를 뒤졌다。

이시가미는 계속해서 시체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石神は引き続き死体のオーストラリアを後退した。

열쇠가 나와ㅅ다。

열쇠가 나왔다。

열쇠가 나왔다。

鍵が出た。

동그란 표찰이 달려 있고 거기에 30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동그란 票찰이 달려 있고 거기에 305라는 數字가 새겨져 있다.

동그란 표찰이 달려 있고 거기에 305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丸印が付いており、そこに 305 という数字が刻まれている。

야스코는 그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해^ㅆ다.

야스코는 그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야스코는 그 열쇠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ヤスコはその鍵をぼんやりと見つめた。

뭐^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 스스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여^ㅆ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 스스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였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녀 스스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였다.

何をすべきか、彼女自身には何の考えもないようだった。

옆방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ㅆ다.

옆房에서 清掃機 돌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옆방에서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隣の部屋で掃除機を回す音がどんどん聞こえた。

미사토가 청소를 하는 것이다.

미사토가 清掃를 하는 것이다。

미사토가 청소를 하는 것이다。

ミサトが掃除をするのだ。

앞일을 전혀 예측하 ㄴ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일단 자신이 하 ㄴ 수 있는 일이라
도 하자는 심정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 ㄴ 것이다。

앞일을 전혀 豫測할 수 없는 不安感 속에서 一旦 自身이 할 수 있는 일이
라도 하자는 心情으로 清掃機를 돌리고 있을 것이다。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도 하자는 심정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것이다。

前日を全く予測できない不安感の中で一応自分ができることでもしようとい
う心情で掃除機を回しているだろう。

내가 이들을 지켜야 하 ㄴ 다, 고 이시가미는 다시금 다짐해 ㅆ 다。

내가 이들을 지켜야 한다, 고 이市加味는 다시금 다짐했다。

내가 이들을 지켜야 한다, 고 이시가미는 다시금 다짐했다。

私はこれら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石神は再び誓った。

자신 같으 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우 ㄴ 여인과 밀접하 ㄴ 관련을 가지 ㄴ 일은
두 번 다시 없으 ㄴ 것이다。

自身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女人과 密接한 關聯을 가질 일은 두 番

다시 없을 것이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自分のような人がこんなに美しい女性と密接な関係を持つことは二度とないだろう。

그런 만큼 자신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이 모녀에게 다가오 ㄴ 재앙을 막아야 하 ㄴ다。

그런 만큼 自身の 智慧와 힘을 總動員해서 이 母女에게 다가올 災殃을 막아야 한다。

그런 만큼 자신의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이 모녀에게 다가올 재앙을 막아야 한다。

それだけに自分の知恵と力を総動員して、この母女に迫る災いを防げなければならない。

이시가미는 시체가 되 ㄴ 남자의 얼굴을 보아 ㅅ다。

이時加味는 屍體가 된 男子의 얼굴을 보았다。

이시가미는 시체가 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石神は死体になった男の顔を見た。

표정이 사라져 밋밋하 ㄴ 인상을 주기 ㄴ 해 ㅅ지만 젊으 ㄴ 시절에는 미남이라고 불리고도 남아 ㅅ으 ㄴ 얼굴이다。

表情이 사라져 맛있는引上을 주긴 했지만 젊은時節에는 美男이라고 불리고도 남았을 얼굴이다。

표정이 사라져 맛있는 인상을 주긴 했지만 젊은 시절에는 미남이라고 불리고도 남았을 얼굴이다。

表情が消えて、ちょっとした印象を与えたが、若い頃にはイケメンと呼ばれても残った顔だ。

아니, 나잇사_ㄴ이 좀 불기는 해_ㄴ어도 여전히 여자들에게 인기를 누리_ㄴ 만하_ㄴ 용모다。

아니, 羅잇살이 좀 불기는 했어도 如前히 女子들에게 人氣를 누릴 만한 容貌だ。

아니, 나잇살이 좀 불기는 했어도 여전히 여자들에게 인기를 누릴 만한 용모다。

いや、ナイトサルがちょっとつけたとしても相変わらず女性たちに人気を享受するほどの容貌だ。

야스코가 과거에 이 남자에게 반해_ㄴ었다고 생각하자 이시가미의 가슴속에서 가느다라_ㄴ 질투의 불꽃이 일어_ㄴ다。

야스코가 過去에 이 男子에게 反했었다고 생각하자 이時加味の 가슴속에서 가느다란 嫉妬의 불꽃이 일었다。

야스코가 과거에 이 남자에게 반했었다고 생각하자 이시가미의 가슴속에서 가느다란 질투의 불꽃이 일었다。

康子が過去にこの男に惚れていたと思うと石神の胸の中で細い嫉妬の炎が起
こった。

그는 고개를 저어ㄴ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彼は頭を振った。

그런 감정을 일으켜ㄴ다는 사실이 부끄러워ㄴ다。

그런 感情을 일으켰다는 事實이 부끄러웠다。

그런 감정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そんな感情を起こしたという事実が恥ずかしかった。

“이 사람과 정기적으로 연락하ㄴ다든가 하ㄴ만큼 친하ㄴ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과 定期的으로 連絡한다든가 할 만큼 親한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든가 할 만큼 친한 사람이 있나요?”

「この人と定期的に連絡してもいいほど親しい人がいますか？」

이시가미가 다시 질문을 시작해ㄴ다。

이時加味가 다시 質問을 始作했다。

이시가미가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

石神が再び質問を始めた。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わかりません。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ㄴ거든요。

正말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정말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本当に久しぶりに会ったんですよ。

“내일 뭐 ㄹ 하ㄴ다는 말은 하지 않아ㄴ습니까? 누구와 만나 ㄹ 거라든가。

“來日 뭘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만날 거라든가。

“내일 뭘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만날 거라든가。

「明日何を言っているのですか？誰と会うとか。

“아니요, 그런 말은 못 들어ㄴ어요。

“아니요,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いや、そんな言葉は聞こえませんでした。

죄송하 ㅅ니다。

罪慄합니다。

죄송합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아무 도움이 못 돼서。

아무 도움이 못 돼서。

아무 도움이 못 돼서。

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

야스코가 면목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려 ㅅ다。

야스코가 面目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야스코가 면목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ヤスコが面目ないように首を落とした。

“아니 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いいえ。

그저 한번 물어보 ㅅ 것뿐이 ㅅ니다。

그저 一番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저 한번 물어본 것뿐입니다.

ただ一度聞いただけです。

모르시는 게 당연하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모르시는 게 當然하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知らないのが当たり前だから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

이시가미는 장갑 끼 ㄴ 손으로 시체의 볼을 움켜쥐고 입안을 살피 ㄴ 다。

이時加味는 掌匣 낀 손으로 屍體의 볼을 움켜쥐고 입안을 살폈다。

이시가미는 장갑 낀 손으로 시체의 볼을 움켜쥐고 입안을 살폈다。

石神は手袋をはめた手で死体のボールをつかんで口の中を見つめた。

어금니에 금으로 크라운이 씌워져 있어 ㄴ 다。

어금니에 金으로 크라運이 씌워져 있었다。

어금니에 금으로 크라운이 씌워져 있었다。

奥に金でクラウンがかぶっていた。

“이를 치료하 ㄴ 흔적이 있군요。

“이를 治療한 痕跡이 있군요。

“이를 치료한 흔적이 있군요。”

「これを治療した痕跡がありますね。」

“저랑 결혼 생활을 하 ㄴ 때 치과에 다녀 ㅆ어요。”

“저랑 結婚 生活を 할 때 齒科에 다녔어요。”

“저랑 결혼 생활을 할 때 치과에 다녔어요。”

「私と結婚生活をする時、齒科に通いました。」

“그게 몇 년 전이 ㅆ니까?”

“그게 몇 年 前입니까?”

“그게 몇 년 전입니까?”

「それは何年前ですか？」

“이혼하 ㄴ 지는 5년 돼 ㅆ어요。”

“離婚한 지는 5 年 됐어요。”

“이혼한 지는 5년 됐어요。”

「離婚したのは5年になりました。」

“5년이라……。”

“5 年이라……。”

“5년이라……。”

「5年だから… …。」

진료 기록이 남아 있겠군,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해냈다.

診療記録이 남아 있겠군, 하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진료 기록이 남아 있겠군,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診療記録が残っているだろう、と石神は考えた。

“이 사람, 혹시 전과가 있나요?”

“이 사람, 或是 前科가 있나요?”

“이 사람, 혹시 전과가 있나요?”

「この人、もし前科がありますか？」

“없으 ㄴ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ないでしょう。」

저와 헤어지고 나 ㄴ 후에는 어떠 ㄴ지 모르겠지만요。

저와 헤어지고 난 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와 헤어지고 난 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私と別れた後はどうかわかりませんが。

“그럼 있으^ㄴ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で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 。

설령 전과가 없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지문이 채취되^ㄴ 적이 있으^ㄴ지도
모르^ㄴ다。

設令 前科가 없더라도 交通 法規 違反으로 地文이 採取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전과가 없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지문이 채취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たとえ前科がなくても交通法規違反で指紋が採取され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
ない。

경찰의 과학 수사가 교통 법규 위반자의 지문 조회에까지 이르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고려해서 나쁘^ㄴ 일은 없으^ㄴ 것이다。

警察의 科學 搜查가 交通 法規 違反者の 地文 照會에까지 이르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考慮해서 나쁠 일은 없을 것이다。

경찰의 과학 수사가 교통 법규 위반자의 지문 조회에까지 이르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고려해서 나쁠 일은 없을 것이다。

警察の科学捜査が交通法規違反者の指紋照会に至る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が、考慮して悪いことはないだろう。

시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 ㄴ 경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 ㄴ다。

屍體를 어떤 方式으로 處理하더라도 伸冤이 밝혀질 境遇를 覺悟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신원이 밝혀질 경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死体をどのように処理しても、身元が明らかになる場合を覚悟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렇다면 일단 시간을 벌어 두 ㄴ 필요가 있어 ㄴ다。

그렇다면 一旦 時間을 벌어 둘 必要가 있었다。

그렇다면 일단 시간을 벌어 둘 필요가 있었다。

それなら一度時間を稼いでおく必要があった。

지문과 이는 남기지 말아야 하 ㄴ다。

地文과 이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지문과 이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

指紋とこれは残さないでください。

야스코가 한숨을 쉬어^ㅅ다。

야스코가 한숨을 쉬었다。

야스코가 한숨을 쉬었다。

ヤスコがため息をついた。

그것이 관능적이^ㄴ 울림으로 이시가미의 가슴을 흔들어^ㅅ다。

그것이 官能的인 울림으로 이時加味の 가슴을 흔들었다。

그것이 관능적인 울림으로 이시가미의 가슴을 흔들었다。

それが官能的な響きで石神の胸を振った。

그녀를 결코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되^ㄴ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져^ㅅ다。

그女를 決코 絶望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決意를 새롭게 다졌다。

그녀를 결코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彼女を決して絶望に陥ってはないという決意を新たに固めた。

어려우^ㄴ 문제여^ㅅ다。

어려운 問題였다。

어려운 문제였다.

難しい問題だった。

사체의 신원이 밝혀지면 경찰은 틀림없이 야스코를 찾아오 ㄴ 것이다.

史體의 伸冤이 밝혀지면 警察은 틀림없이 야스코를 찾아올 것이다.

사체의 신원이 밝혀지면 경찰은 틀림없이 야스코를 찾아올 것이다.

死體の身元が明らかになれば警察は間違いなくヤスコを訪ねてくるだろう。

형사들의 집요하 ㄴ 질문 공세를 이 모녀가 과연 견뎌 내 ㄴ 수 있으 ㄴ 까.

刑事들의 執拗한 質問 攻勢를 이 母女가 果然 견뎌 낼 수 있을까.

형사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를 이 모녀가 과연 견뎌 낼 수 있을까.

刑事たちの執拗な質問攻勢をこの母女が果たして耐えられるか。

어설피게 변명을 준비해 ㄴ 다가는 모순점이 드러나는 순간 파탄에 이르러 결국

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마 ㄴ 것이다.

어설피게 辨明을 準備했다가는 矛盾點이 드러나는 瞬間 破綻에 이르러 結

局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어설피게 변명을 준비했다가는 모순점이 드러나는 순간 파탄에 이르러 결

국에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果然と言い訳を準備したという矛盾点があられた瞬間、破綻に至り、結局

はすべてを打ち明けてしまうだろう。

완벽하ㄴ 논리, 완벽하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ㄴ다.

完璧한 論理, 完璧한 防禦幕을 構築해야 한다.

완벽한 논리,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完璧な論理、完璧な防御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도 只今 이 자리에서.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それも今この場で。

초조해하지 마,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속으로 외쳐ㄴ다.

焦燥해하지 마, 하고 그는 自己 自身을 向해 속으로 외쳤다.

초조해하지 마,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속으로 외쳤다.

焦らないで、と彼は自分自身に向かって中に叫んだ。

초조해하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焦燥해한다고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다.

초조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焦ると問題が解決しない。

이 방정식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이 方程式에는 반드시 解答이 있다.

이 방정식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この方程式には必ず答えがある。

이시가미는 눈을 감아^ㅅ다.

이時加味는 눈을 감았다.

이시가미는 눈을 감았다.

石神は目を閉じた。

어려우^ㄴ 수학 문제에 직면하면 그는 늘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ㄴ다.

어려운 數學 問題에 直面하면 그는 늘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한다.

어려운 수학 문제에 직면하면 그는 늘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한다.

難しい数学問題に直面すれば、彼はいつもこのように目を閉じて考える。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막아 버리면 머릿속에서 수식이 갖가지로 형태
를 바꾸어 가며 움직이기 시작하^ㄴ다.

外部에서 들어오는 모든 情報를 막아 버리면 머릿속에서 修飾이 갖가지로
形態를 바꾸어 가며 움직이기 始作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막아 버리면 머릿속에서 수식이 갖가지로
형태를 바꾸어 가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外部から入ってくるすべての情報を防いでしまうと、頭の中で数式が様々な
形を変えていき、動き始める。

그러나 물론 지금 그의 뇌리에 있는 것은 수식이 아니다。

그러나 勿論 只今 그의 腦裏에 있는 것은 修飾이 아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그의 뇌리에 있는 것은 수식이 아니다。

しかしもちろん今、彼の脳裏にあるのは式ではない。

잠시 후 그가 눈을 떠ㄴ다。

暫時 後 그가 눈을 떴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다。

しばらくすると、彼は目を覚ました。

그리고 책상 위의 자명종을 보아ㄴ다。

그리고 冊床 위의 自鳴鐘을 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의 자명종을 보았다。

そして机の上の目覚まし時計を見た。

8시 30분을 지나고 있어ㄴ다。

8 時 30 分을 지나고 있었다。

8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8 時 30 分を過ぎていた。

이번에는 그의 눈길이 야스코를 향해ㄴ다。

이番에는 그의 눈길李 야스코를 向했다。

이번에는 그의 눈길이 야스코를 향했다。

今回は彼の目がヤスコに向かった。

그녀는 숨을 삼키며 몸을 움츠려ㄸ다。

그女는 숨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다。

彼女は息を飲みながら体をくすぐった。

“옷을 벗겨야 하ㅅ니다。

“옷을 벗겨야 합니다。

“옷을 벗겨야 합니다。

「服を脱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私を助けてください。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이 사람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이 사람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이 사람의 옷을 벗겨야 합니다。”

「この人の服を脱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점퍼와 스웨터, 바지까지 모두요。

점퍼와 스웨터, 바지까지 모두요。

점퍼와 스웨터, 바지까지 모두요。

ジャンパーやセーター、パンツまでみんな。

서둘러 하지 않으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힘들어지 겠 습니다。

서둘러 하지 않으면 死後 硬直이 일어나서 힘들어질 겁니다。

서둘러 하지 않으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힘들어질 겁니다。

急いでいないと死後硬直が起きて大変になります。

그러면서 이시가미는 재빨리 시체의 점퍼를 벗기기 시작해 ㄴ다。

그러면서 이時加味는 재빨리 屍體의 점퍼를 벗기기 始作했다。

그러면서 이시가미는 재빨리 시체의 점퍼를 벗기기 시작했다。

すると石神はすぐに死体のジャンパーを脱ぎ始めた。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 。

야스코도 거들기 시작해ㄴ다。

야스코도 거들기 始作했다。

야스코도 거들기 시작했다。

ヤスコもガードし始めた。

그러나 시체를 만지는 게 두려우ㄴ지 손끝이 떨려ㄴ다。

그러나 屍體를 만지는 게 두려운지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시체를 만지는 게 두려운지 손끝이 떨렸다。

しかし死体に触れるのが恐ろしいか指先が震えた。

“아, 돼ㄴ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あ、できました。

여기 ㄴ 제가 하 ㄴ 테니 하나오카 씨는 가서 따님을 도와주세요。

여긴 제가 할 테니 하나오카 氏は 가서 따님을 도와주세요。

여긴 제가 할 테니 하나오카 씨는 가서 따님을 도와주세요。

ここに私がするから花岡さんは行って娘さんを助けてください。

“죄송하 ㄴ니다。

“罪悚합니다。

“죄송합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야스코는 고개를 숙이 ㄴ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 ㄴ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ヤスコは頭を下げたままゆっくりと席から立ち上がった。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씨。

「花岡さん。

이시가미가 뒤에서 그녀를 불러 ㄴ다。

이時加味가 뒤에서 그女를 불렀다.

이시가미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石神が後ろから彼女を呼んだ。

그리고 돌아보는 그녀를 향해 말해ㄴ다.

그리고 돌아보는 그女를 向해 말했다.

그리고 돌아보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そして振り返る彼女に向かって話した。

“하나오카 씨에게도 알리바이가 필요하ㄴ니다.

“하나오카 氏에게도 알리바이가 必要합니다.

“하나오카 씨에게도 알리바이가 필요합니다.

「花岡さんにもアリバイが必要です。

“알리바이, 말이ㄴ가요? 하지만 그런 게 있으ㄴ 리가…….

“알리바이, 말인가요? 하지만 그런 게 있을 理가…….

“알리바이, 말인가요? 하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アリバイ、そうですか？しかし、そんなことがあるはずだ… …。

“그러니까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요.

「だから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시가미는 시체에서 벗겨 내 ㄴ 점퍼를 자신의 몸에 걸쳐 ㄴ다.

이時加味는 屍體에서 벗겨 낸 점퍼를 自身の 몸에 걸쳤다.

이시가미는 시체에서 벗겨 낸 점퍼를 자신의 몸에 걸쳤다.

石神は死体からはがしたジャンパーを自分の体にかけた。

“저를 믿어 주세요.

“저를 믿어 주세요.

“저를 믿어 주세요.

「私を信じてください。

저의 논리적 사고에 모든 것 ㄴ 맡겨 주세요.

저의 論理的 事故에 모든 걸 맡겨 주세요.

저의 논리적 사고에 모든 걸 맡겨 주세요.

私の論理的思考にすべてをお任せください。

3

3

3

3

“자네의 논리적 사고라는 게 어떤 거 ㄴ지 한번 차분히 분석해 보고 싶으 ㄴ걸.

“자네의 論理的 事故라는 게 어떤 건지 一番 차분히 分析해 보고 싶은걸.

“자네의 논리적 사고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차분히 분석해 보고 싶은걸.

「君の論理的思考というのがどんなことか一度じっくり分析してみたいの。

손으로 턱을 꺾 ㄴ 채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나서 유가와 마나부는 짐짓
하품을 해 보여 ㄴ 다。

손으로 턱을 꺾 ㄴ 채 따분하다는 表情으로 말하고 나서 有價와 마나부는 짐
짓 하품을 해 보였다。

손으로 턱을 꺾 ㄴ 채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말하고 나서 유가와 마나부는 짐
짓 하품을 해 보였다。

手で顎をかぶったまま、恥ずかしいという表情で話してから、湯川と真鍋は
荷物あくびをして見せた。

그리고 자그마 ㄴ 금속 테 안경을 벗어 옆에 던지듯 내려놓아 ㄴ 다。

그리고 자그만 金屬 테 眼鏡을 벗어 옆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그만 금속 테 안경을 벗어 옆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そして小さな金属製のメガネを脱いで横に投げるように下ろした。

이런 거 ㄴ 더는 필요 없다는 듯하 ㄴ 태도여 ㄴ 다。

이런 건 더는 必要 없다는 듯한 態度였다。

이런 건 더는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こういうのはもう必要ないというような態度だった。

사실 그럴지라도 몰라^ㄴ다。

事實 그럴지도 몰랐다。

사실 그럴지도 몰랐다。

実はそうかもしれなかった。

구사나기는 아까부터 눈앞의 체스 판을 20분 넘게 노려보고 있어^ㄴ지만 아무
리 생각해 봐도 타개책이 떠오르지 않아^ㄴ다。

驅使나기는 아까부터 눈앞의 체스 판을 20分 넘게 노려보고 있었지만 아
무리 생각해 봐도 打開策이 떠오르지 않았다。

구사나기는 아까부터 눈앞의 체스 판을 20분 넘게 노려보고 있었지만 아
무리 생각해 봐도 타개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草薙はさっきから目の前のチェス版を 20 分以上狙って見ていたが、いくら
考えてみても打開策が浮かんでいなかった。

키^ㅇ이 도망치^ㄴ 길도 없고, 궁지에 몰리^ㄴ 생쥐가 고양이를 물듯 앞뒤 안 가리
고 공격하^ㄴ 술책도 없다。

킹이 逃亡칠 길도 없고, 窮地에 몰린 생쥐가 고양이를 물듯 앞뒤 안 가리
고 攻撃할 術策도 없다。

킹이 도망칠 길도 없고, 궁지에 몰린 생쥐가 고양이를 물듯 앞뒤 안 가리
고 공격할 술책도 없다。

キングが逃げる道もなく、窮地に追い込まれたマウスが猫を噛むように前後
に隠して攻撃する術策もない。

이런저런 수가 떠올라..지만 하나같이 이미 몇 수 전에 봉쇄되어 있어..다.

이런저런 수가 떠올랐지만 하나같이 이미 몇 수 前に 封鎖되어 있었다.

이런저런 수가 떠올랐지만 하나같이 이미 몇 수 전에 봉쇄되어 있었다.

いろいろな数が思い浮かんだが、一様にすでに数数前に封鎖されていた。

“체스는 도무지 내 성질에 안 맞는단 말이야.

“체스는 도무지 내 性質에 안 맞는단 말이야.

“체스는 도무지 내 성질에 안 맞는단 말이야.

「チェスはまさに私の性質に合わないということだ。

구사나기가 중얼거려..다.

驅使나기가 중얼거렸다.

구사나기가 중얼거렸다.

草薙が呟いた。

“또 시작이군.

“또 始作이군.

“또 시작이군.

「また始まりですね。

“대체 애써 적에게 빼앗으 ㄴ 말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말은 전리품
이잖아。

“代替 애써 적에게 빼앗은 말을 왜 使用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말은 戰利
品이잖아。

“대체 애써 적에게 빼앗은 말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말은 전리
품이잖아。

「何故、敵に奪われた言葉をなぜ使わないようにするの？言葉は戦利品じゃ
ない。

사용하면 좀 어때서 그래?”

使用하면 좀 어때서 그래?”

사용하면 좀 어때서 그래?”

使ったらちょっとどうですか？」

“게임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뭐 ㄴ 하나? 게다가 말은 전리품이 아
니야。

“게임의 基本 原則을 가지고 是非를 걸면 뭘 하나? 게다가 말은 戰利品이
아니야。

“게임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뭘 하나? 게다가 말은 전리품이
아니야。

「ゲームの基本原則を持って是非をかければ何をするの？しかも言葉は戦利品ではない。

말은 병사이고 빼앗아_ㅆ다는 것은 죽여_ㅆ다는 뜻이란 말이지.

말은 兵士이고 빼앗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뜻이란 말이지.

말은 병사이고 빼앗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뜻이란 말이지.

言葉は兵士で奪われたというのは殺したという意味だ。

죽으_ㄴ 병사를 쓰_ㄴ 수는 없는 노릇이야.

죽은 兵士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야.

죽은 병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야.

死んだ兵士を使えない奴だ。

“일본 장기에서는 써먹잖아.

“日本 長期에서는 써먹잖아.

“일본 장기에서는 써먹잖아.

「日本の臓器では使ってるじゃないか。

“장기를 고안해 내_ㄴ 사람의 유연하_ㄴ 사고에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그거
ㄴ 아마도 말을 빼앗는다는 행위가 적의 병사를 죽이_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
복시키_ㄴ다는 의미를 부여해_ㅆ기 때문이_ㄴ 거야.

“長期를 考案해 낸 사람의 柔軟한 事故에는 敬意를 表하는 巴이지만, 그건 아마도 말을 빼앗는다는 行爲가 敵의 兵士를 죽인다는 意味가 아니라 降伏 시킨다는 意味를 附與했기 때문일 거야.

“장기를 고안해 낸 사람의 유연한 사고에는 경의를 표하는 巴이지만, 그건 아마도 말을 빼앗는다는 行爲가 敵의 兵士를 죽인다는 意味가 아니라 降伏 시킨다는 意味를 부여했기 때문일 거야.

「臓器を考案した人の柔軟な事故には敬意を表しているのだが、それはおそらく言葉を奪うという行為が敵の兵士を殺すという意味ではなく降伏させるという意味を与えたからだ。

그래서 재 활용하 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再活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재 활용할 수 있는 거지.

だからリサイクルできるんだ。

“체스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

“체스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

“체스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

「チェスもそうすればいいじゃないか。

“배반은 기사도 정신에 위배되는 거야.

“背反은 技士도 精神에 違背되는 거야。

“배반은 기사도 정신에 위배되는 거야。

「裏切りは騎士も精神に違反するのだ。

그런 식으로 억지만 쓰지 말고 논리적으로 전황을 살펴봐。

그런 式으로 억지만 쓰지 말고 論理的으로 戰況을 살펴봐。

그런 식으로 억지만 쓰지 말고 논리적으로 전황을 살펴봐。

そんなふうに無理ながら書かず、論理的に戦況を見てみて。

자네는 말을 한 번밖에 움직이 ㄴ 수 없어。

자네는 말을 한 番밖에 움직일 수 없어。

자네는 말을 한 번밖에 움직일 수 없어。

君は言葉を一度しか動けない。

게다가 자네가 움직이 ㄴ 수 있는 말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어느 것을 움직여도

나의 다음 수를 막으 ㄴ 수 없어。

게다가 자네가 움직일 수 있는 말은 極히 限定되어 있고, 어느 것을 움직

여도 나의 다음 수를 막을 수 없어。

게다가 자네가 움직일 수 있는 말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어느 것을 움직여도 나의 다음 수를 막을 수 없어。

しかも君が動かせる言葉はごく限られており、どれを動かしても私の次の数

を防ぐことができない。

내가 나이트를 움직이면 체크메이트야。

내가 나이트를 움직이면 체크메이트야。

내가 나이트를 움직이면 체크메이트야。

ナイトを動かしたらチェックメイトだよ

“항복。

“降伏。

“항복。

「降伏。

체스는 재미없어。

체스는 재미없어。

체스는 재미없어。

チェスは面白くない。

구사나기가 몸을 뒤로 젖혀 의자에 기대ㄴ다。

驅使나기가 몸을 뒤로 젖혀 椅子에 기댔다。

구사나기가 몸을 뒤로 젖혀 의자에 기댔다。

草薙が体を後ろに濡らして椅子に寄りかかった。

유가와는 안경을 도로 끼고 벽시계를 바라보아^ㄴ다。

有價와는 眼鏡을 도로 끼고 壁時計를 바라보았다。

유가와는 안경을 도로 끼고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湯川はメガネを道路に挟んで壁時計を眺めた。

“42분이 걸려^ㄴ군。

“42 분이 걸렸군。

“42분이 걸렸군。

「42 分かったな。

그것도 거의 다 자네가 생각하는 데 써^ㄴ지만。

그것도 거의 다 자네가 생각하는 데 썼지만。

그것도 거의 다 자네가 생각하는 데 썼지만。

それもほとんどみなさんが考えるのに書いた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어도 되는 거야? 꺼꺼하^ㄴ 상사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어도 되는 거야? 꺼꺼한 上司가 뭐라고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어도 되는 거야? 꺼꺼한 상사가 뭐라고 안 해?”

ところでここでこんなにうんざりしていてもいいの？きつい上司は何と云わないの？」

“스토커 살인 사건을 이제 겨우 해결하 ㄴ 참이야.

“스토커 殺人 事件을 이제 겨우 解決한 참이야.

“스토커 살인 사건을 이제 겨우 해결한 참이야.

「ストーカー殺人事件をもうやっと解決したことだ.

조금은 쉬어 줘야지.

조금은 쉬어 줘야지.

조금은 쉬어 줘야지.

ちょっと休んでくれ.

구사나기는 때가 꼬질꼬질하 ㄴ 머그컵으로 손을 뻗어 ㅅ다.

驅使나기는 때가 꼬질꼬질한 머그컵으로 손을 뻗었다.

구사나기는 때가 꼬질꼬질한 머그컵으로 손을 뻗었다.

草薙は時がねじれたマグカップで手を伸ばした.

유가와가 타 주 ㄴ 인스턴트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어 ㅅ다.

有價와가 타 준 인스턴트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가와가 타 준 인스턴트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湯川が与えた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は冷たく冷えていた.

데이토 대학 물리학과 제13연구실에는 지금 유가와와 구사나기 두 ㄴ뿐이어 ㅅ

다.

데이토 大學 物理學科 第 13 研究室에는 只今 有價와와 驅使나기 둘뿐이었

다.

데이토 대학 물리학과 제13연구실에는 지금 유가와와 구사나기 둘뿐이었

다.

デート大学物理学科第 13 研究室には今、湯川と草薙の 2 つだけだった。

학생들은 모두 강의를 들으러 가고 없어^ㄴ다.

學生들은 모두 講義를 들으러 가고 없었다.

학생들은 모두 강의를 들으러 가고 없었다.

学生たちは皆講義を聞きに行っていなかった。

물론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구사나기도 굳이 이 시간을 골라 들르^ㄴ 것이

다.

勿論 그런 事實을 알고 있기에 驅使나기도 굳이 이 時間을 골라 들른 것이

다.

물론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구사나기도 굳이 이 시간을 골라 들른 것
이다.

もちろんそういう事実を知っているので、草薙もあえてこの時間を選んで立
ち寄ったのだ。

그때 구사나기의 호주머니에서 휴대 전화가 울려^ㄴ다.

그때 驅使나기의 胡주머니에서 携帶 電話가 울렸다.

그때 구사나기의 호주머니에서 휴대 전화가 울렸다.

その時草薙のオーストラリアで携帯電話が鳴った。

유가와가 흰 가운을 걸치면서 쓴웃음을 지어냈다.

有價와가 흰 가운을 걸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유가와가 흰 가운을 걸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湯川が白いガウンをかけながら苦笑をした。

“거봐, 벌써 찾잖아.

“거봐, 벌써 찾잖아.

“거봐, 벌써 찾잖아.

「ねえ、もう探してるよ。

구사나기는 뿔떠름하 표정을 지으며 착신 표시를 들여다보아냈다.

驅使나기는 뿔떠름한 表情을 지으며 着信 表示를 들여다보았다.

구사나기는 뿔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착신 표시를 들여다보았다.

草薙は震えた表情をして着信表示を覗いた。

아니나 다르니까, 유가와와 말대로 같은 반 소속 후배 형사의 번호여냈다.

아니나 다를까, 有價와의 말대로 같은 反 所屬 後輩 刑事의 番號였다.

아니나 다를까, 유가와와 말대로 같은 반 소속 후배 형사의 번호였다.

いや違うか、湯川の言葉通り同じ半所属後輩刑事の番号だった。

현장은 구 에도강의 제방。

現場は 區 에도講義 制房。

현장은 구 에도강의 제방。

現場は旧江戸川の堤防。

가까우 ㄴ 곳에 하수 처리장이 보이 ㄴ 다。

가까운 곳에 下水 處理場이 보인다。

가까운 곳에 하수 처리장이 보인다。

近くに下水処理場が見える。

강 건너편은 지바현이다。

姜 건너便은 지바현이다。

강 건너편은 지바현이다。

川の向かい側は千葉県だ。

이왕이면 저편에서 말아ㅅ으면 좋아ㅅ으ㄴ걸, 하고 구사나기는 코트 깃을 세우
면서 내심 투덜거려ㅅ다。

已往이면 저便에서 말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驅使나기는 코트 깃을 세우면

서 內心 투덜거렸다。

이왕이면 저편에서 말았으면 좋았을걸, 하고 구사나기는 코트 깃을 세우면서 내심 투덜거렸다。

李王なら向かいに任せたら良かったのか、と草薙はコートのを立てながら内心渋々だった。

사체는 공사 현장 어디 ㄴ가에서 가져와 ㄴ 성실은 ㄴ 파란 ㄴ 비닐 시트에 덮이 ㄴ 채 제방 옆에 방치되어 있어 ㄴ다。

史체는 工事 現場 어딘가에서 가져왔을 성실은 파란 비닐 시트에 덮인 채 制房 옆에 放置되어 있었다。

사체는 공사 현장 어딘가에서 가져왔을 성실은 파란 비닐 시트에 덮인 채 제방 옆에 방치되어 있었다。

死体は工事現場のどこかから持ってきた城の青いビニールシートに覆われたまま堤防の横に放置されていた。

사체를 발견하 ㄴ 사람은 제방에서 조깅을 하던 노인이라고 하 ㄴ다。

史체를 發見한 사람은 制房에서 조깅을 하던 老人이라고 한다。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제방에서 조깅을 하던 노인이라고 한다。

死体を發見した人は堤防でジョギングをしていた老人だという。

비닐 시트 끝자락에 사람 발처럼 보이는 것이 비어져 나와 있어 조심스럽게 시트를 들춰 보아 ㄴ다는 것이다。

비닐 시트 끝자락에 사람 발처럼 보이는 것이 비어져 나와 있어 操心스럽게 시트를 들춰 보았다는 것이다。

비닐 시트 끝자락에 사람 발처럼 보이는 것이 비어져 나와 있어 조심스럽게 시트를 들춰 보았다는 것이다。

ビニールシートの端に人の足のように見えるのが空いていて、慎重にシートをのぞいてみたということだ。

“노인의 나이가 일흔다섯이랍니다。

“老人의 나이가 일흔다섯이랍니다。

“노인의 나이가 일흔다섯이랍니다。

「お年寄りの年齢は一五五です。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달리다니 대단하죠? 하지만 그 연세에 이런 험한 꼴을 보게 되다니 딱하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달리다니 대단하죠? 하지만 그 年歲에 이런 險한 꼴을 보게 되다니 딱하네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달리다니 대단하죠? 하지만 그 연세에 이런 험한 꼴을 보게 되다니 딱하네요。

こんなに寒い天気で走るなんてすごいですか? でも、その年齢にこんな険しい形を見ることになるなんて硬いですね。

한발 앞서 도착한 기시타니라는 후배 형사에게 상황을 보고 받던 구사나기는

미간을 찌푸려쌌다。

한발 앞서 到着한 기시他나라는 後輩 刑事에게 狀況을 보고 받던 驅使나기는 眉間을 찌푸렸다。

한발 앞서 도착한 기시타나라는 후배 형사에게 상황을 보고 받던 구사나기는 미간을 찌푸렸다。

一步先に到着した岸谷という後輩刑事に状況を見ていただいた草薙は眉間を刺した。

코트 소매가 바람에 펄럭여쌌다。

코트 소매가 바람에 펄럭였다。

코트 소매가 바람에 펄럭였다。

コート袖が風に広がった。

“사체를 봐쌌어?”

“史체를 봤어?”

“사체를 봤어?”

「死体を見た？」

“네, 봐쌌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はい、見ました。

기시타니가 진절머리 나_ㄴ다는 듯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기시他니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기시타니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岸谷が落ち着いているように唇を歪めて言った。

“반장이 잘 봐 두라고 해서요.

“班長이 잘 봐 두라고 해서요.

“반장이 잘 봐 두라고 해서요.

「班長がよく見ておくと言って。

“그 양반은 매사에 그런 식이야.

“그 兩班은 每事に 그런 式이야.

“그 양반은 매사에 그런 식이야.

「その兩班はマサにそんなふうだ。

자기는 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自己는 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자기는 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自分は見ずにね。

“선배는 안 보시 ㄴ 거예요?”

“先輩는 안 보실 거예요?”

“선배는 안 보실 거예요?”

「先輩は見ないの？」

“그런 거 ㄴ 봐서 뭐하게。

“그런 걸 봐서 뭐하게。

“그런 걸 봐서 뭐하게。

「そんなことを見てなに。

기시타니의 말에 따르면 사체는 처참하 ㄴ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ㄴ다고 하 ㄴ다。

기시他니의 말에 따르면 史체는 凄慘한 狀態로 放置되어 있었다고 한다。

기시타니의 말에 따르면 사체는 처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岸谷の言葉によると、死体は凄惨な状態で放置されていたという。

양말도 구두도 안 신은 완전하 ㄴ 나체에 얼굴이 훼손되어 있어 ㄴ다는 것이다。

洋襪도 구두도 안 신은 完全한 裸體에 얼굴이 毀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양말도 구두도 안 신은 완전한 나체에 얼굴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것이
다。

靴下も靴も中身は完全な裸体に顔が毀損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だ。

기시타니는 문드러지 ㄴ 수박이라는 표현을 써 ㅅ다。

기시他니는 문드러진 수박이라는 表現을 썼다。

기시타니는 문드러진 수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岸谷はムンドゥルハンスイカという表現を書いた。

그 말을 들으 ㄴ 것만으로도 구사나기는 속이 울렁거려 ㅅ다。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驅使나기는 속이 울렁거렸다。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구사나기는 속이 울렁거렸다。

その言葉を聞いただけでも、草薙は騙された。

사체의 손가락은 불에 타서 지문이 완전히 지워져 ㅅ다고 하 ㄴ다。

史체의 손가락은 불에 타서 地文이 完全に 지워졌다고 한다。

사체의 손가락은 불에 타서 지문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한다。

死体の指は火に乗って指紋が完全に消えたという。

사체는 남자。

史체는 男子。

사체는 남자。

死体は男。

목에는 교사 ㄴ 흔적이 남아 있다。

목에는 教師 ㄹ 痕跡이 남아 있다。

목에는 교살 흔적이 남아 있다。

首には絞殺の跡が残っている。

그 밖에 외상 같으 ㄴ 거 ㄴ 없다。

그 밖에 외상 같은 건 없다。

그 밖에 외상 같은 건 없다。

他に外傷のようなものはない。

“감식반이 뭐라도 하나 건져 내면 좋으 ㄹ 테 ㄴ 데 말이야。

“鑑識반이 뭐라도 하나 건져 내면 좋을 텐데 말이야。

“감식반이 뭐라도 하나 건져 내면 좋을 텐데 말이야。

「監獄班が何でもひとつ取り上げればいいのにね。

주변의 풀밭을 거닐면서 구사나기가 말해 ㅅ 다。

周邊의 풀밭을 거닐면서 驅使나기가 말했다。

주변의 풀밭을 거닐면서 구사나기가 말했다。

周辺の草原を歩きながら草薙が言った。

보는 눈도 있고 하니 범인의 유류품이라도 찾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犯人의 油類품이라도 찾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범인의 유류품이라도 찾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見る目もあって、犯人の油類品でも探すふりをしているのだ。

그러나 본심으로 말하_ㄴ 것 같으면 그는 감식반만 믿고 있어_ㄴ다.

그러나 本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鑑識半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본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감식반만 믿고 있었다.

しかし本心で言えそうだと彼は感食班だけを信じていた。

자신이 뭐_ㄴ가 중대하_ㄴ 것을 발견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어_ㄴ다.

自身이 뭔가 重大한 것을 發見하겠다는 생각은 애當初 없었다.

자신이 뭔가 중대한 것을 발견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

自分が何か重大なことを発見するという考えはそもそもなかった。

“곁에 자전거가 뒹굴고 있어_ㄴ습니다.

“곁에 自轉車가 뒹굴고 있었_ㄴ습니다.

“곁에 자전거가 뒹굴고 있었_ㄴ습니다.

「そばに自転車が転がっていました。

이미 에도가와 경찰서에서 가져가_ㄴ지만요.

이미 에도가와 警察署에서 가져갔지만요.

이미 에도가와 경찰서에서 가져갔지만요.

すでに江戸川警察署から持っていきましたが。

“자전거? 누구 ㄴ가가 버리 ㄴ 거 아니 ㄴ까?”

“自轉車? 누군가가 버린 거 아닐까?”

“자전거? 누군가가 버린 거 아닐까?”

「自轉車？誰かが捨て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하지만 그러기에 ㄴ 너무 새것이어 ㄴ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새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새것이었어요.

「しかし、それはあまりにも新しいものでした。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기 ㄴ 해 ㄴ지만요.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긴 했지만요.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긴 했지만요.

タイヤがみんなパンクしていたのですが。

일부러 못 같으 ㄴ 것으로 찌르 ㄴ 것 같아요.

일부러 못 같은 것으로 찌른 것 같아요.

일부러 못 같은 것으로 찌른 것 같아요.

わざと釘のようなもので突いたようです。

“흠, 피해자의 물건이 ㄴ까?”

“흠, 被害者の 物件일까?”

“흠, 피해자의 물건일까?”

「うーん、被害者の物かな？」

“글쎄요, 아직은 뭐라고……。

“글쎄요, 아직은 뭐라고……。

“글쎄요, 아직은 뭐라고……。

「まあ、まだ何と… …。

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소유주를 찾으 ㄴ 수 있으 ㄴ 거 ㄴ니다。

登録 番號가 있으니까 所有主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소유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登録番号があるので所有者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피해자 것이면 좋으 ㄴ 테 ㄴ데。

“被害者 것이면 좋을 텐데。

“피해자 것이면 좋을 텐데。

「被害者であればいいのに。

아니라면 문제가 꽤 복잡해지 ㄴ 거야。

아니라면 問題가 꽤 複雑해질 거야。

아니라면 문제가 꽤 복잡해질 거야。

そうでなければ問題はかなり複雑になるでしょう。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ㄴ까。

天國과 地獄의 差이랄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랄까。

天国と地獄の違いか。

“그 정도로요?”

“그 程度로요?”

“그 정도로요?”

「それくらいですか？」

“기시타니 자네, 신원 불명 사체가 처음이 ㄴ가?”

“기시他니 자네, 伸冤 不明 史체가 처음인가?”

“기시타니 자네, 신원 불명 사체가 처음인가?”

「岸谷君、身元不明死体が初めてか？」

“네。

“네。

“네.

「はい。

“그럼 한번 생각해 봐.

“그럼 한番 생각해 봐.

“그럼 한번 생각해 봐.

「では一度考えてみて。

얼굴과 지문을 훼손하_ㄴ 거_ㄴ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고 싶어_ㄴ다는 뜻이
야。

얼굴과 地文을 毀損한 건 犯人이 被害者の 伸冤을 숨기고 싶었다는 뜻이
야。

얼굴과 지문을 훼손한 건 범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고 싶었다는 뜻이
야。

顔と指紋を傷つけたのは、犯人が被害者の身元を隠したかったという意味
だ。

바꿔 말하자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범인을 찾는 것도 간단하_ㄴ 일이라
는 얘기지。

바꿔 말하자면, 被害者の 伸冤이 드러나면 犯人을 찾는 것도 簡単な 일이
라는 얘기지。

바꿔 말하자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범인을 찾는 것도 간단한 일이라는 얘기지。

言い換えれば、被害者の身元が明らかになれば犯人を探すのも簡単なことだということだ。

신원이 금방 밝혀지느냐 마느냐, 거기서 운명이 갈리는 거야。

伸冤이 今方 밝혀지느냐 마느냐, 거기서 運命이 갈리는 거야。

신원이 금방 밝혀지느냐 마느냐, 거기서 운명이 갈리는 거야。

身元がすぐに明らかになるかどうか、そこで運命が分かれるのよ。

물론 우리의 운명 말이지。

勿論 우리의 運命 末이지。

물론 우리의 운명 말이지。

もちろん私たちの運命だ。

구사나기가 거기까지 말해ㄴ으ㄴ 때 기시타니의 휴대 전화가 울려ㄴ다。

驅使나기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기시他니의 携帶 電話가 울렸다。

구사나기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기시타니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草薙がそこまで言ったとき、岸谷の携帯電話が鳴った。

그는 상대방과 두세 마디 나눈 뒤 구사나기를 보아ㄴ다。

그는 相對方과 두세 마디 나눈 뒤 驅使나기를 보았다。

그는 상대방과 두세 마디 나눈 뒤 구사나기를 보았다.

彼は相手と二世の言葉を分けた後、駆けつけを見た。

“에도가와 경찰서로 가라는데요.

“에도가와 警察署로 가라는데요.

“에도가와 경찰서로 가라는데요.

「江戸川警察署に行くんですけど。

“어이쿠야, 살아ㄴ다.

“어이쿠야, 살았다.

“어이쿠야, 살았다.

「いくや、生きた。

구사나기는 몸을 일으키고 손으로 허리를 두어 번 두드려ㄴ다.

驅使나기는 몸을 일으키고 손으로 허리를 두어 番 두드렸다.

구사나기는 몸을 일으키고 손으로 허리를 두어 번 두드렸다.

草薙は体を起こし、手で腰を置いて回叩いた。

에도가와 경찰서에 도착하니 마미야가 형사과 사무실 난로 곁에 앉아 있어ㄴ다.

에도가와 警察署에 到着하니 마미야가 刑事과 事務室 暖爐 곁에 앉아 있었

다。

에도가와 경찰서에 도착하니 마미야가 형사와 사무실 난로 곁에 앉아 있었다。

江戸川警察署に到着すると、真宮が刑事課事務所ストーブのそばに座っていた。

마미야는 구사나기 팀의 반장이다。

마미야는 驅使나기 팀의 班長이다。

마미야는 구사나기 팀의 반장이다。

真宮は草薙チームの班長だ。

그 주변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에도가와 서의 형사들이 ㄴ 듯해 ㄴ다。

그 周邊에서 奔走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에도가와 西의 刑事들이 ㄴ 듯했다。

그 주변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에도가와 서의 형사들이 ㄴ 듯했다。

その周辺で忙しく行き来する人々は江戸川西の刑事らしいようだった。

수사본부가 설치되 ㄴ 예정이라 그 준비를 하는 모양이 ㄴ다。

捜査本部が設置될 豫定이라 그 準備를 하는 模樣이었다。

수사본부가 설치될 예정이라 그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捜査本部が設置される予定であり、その準備をする形だった。

“자네, 차 가지고 와 ㄴ나?”

“자네, 차 가지고 왔나?”

“자네, 차 가지고 왔나?”

「君、車持ってきたか？」

마미야가 구사나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물어왔다.

마미야가 驅使나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다.

마미야가 구사나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다.

真宮が草薙の顔を見るとすぐに尋ねた。

“네.

“네.

“네.

「はい.

이 부근은 전차를 타고 오기가 불편하니까요.

이 附近은 電車を 타고 오기가 不便하니까요.

이 부근은 전차를 타고 오기가 불편하니까요.

この付近は電車に乗って来るのが不便ですからね。

“이 부근 지리를 잘 알아?”

“이 附近 地理를 잘 알아?”

“이 부근 지리를 잘 알아?”

「この付近の地理をよく知っている？」

“잘 아_다고 하_ 정도는 아니지만 웬만큼은 아_니다.

“잘 안다고 할 程度는 아니지만 웬만큼은 압니다.

“잘 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웬만큼은 압니다.

「よく知っているというほどではありませんが、ウエンほどは知っています。

“그럼 길 안내는 필요 없겠군.

“그럼 길 案内는 必要 없겠군.

“그럼 길 안내는 필요 없겠군.

「じゃあ道案内は必要ないだろうな。

기시타니와 함께 여기로 한번 가 봐.

기시他니와 함께 여기로 한番 가 봐.

기시타니와 함께 여기로 한번 가 봐.

岸谷と一緒にここに一度行ってみて。

그러면서 마미야는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어_다.

그러면서 마미야는 메모紙 한 張을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마미야는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それとともにマミヤはメモ紙一枚を渡した。

거기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에도가와구 시노자키’라는 주소와 ‘야마베 요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에도가와구 時老子키’라는 住所와 ‘야마베 요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에도가와구 시노자키’라는 주소와 ‘야마베 요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そこには反り書きの文字で「江戸川区篠崎」という住所と「山部洋子」という名前が書かれていた。

“누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誰だから、この人は？」

“자전거에 대해 얘기했어?”

“自轉車에 對해 얘기했어?”

“자전거에 대해 얘기했어?”

「自轉車について話した？」

마미야가 기시타니에게 물어췄다。

마미야가 기시타니에게 물었다。

마미야가 기시타니에게 물었다。

真宮が岸谷に尋ねた。

“네, 해췄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はい、しました。

“사체 옆에 있어췄다는 자전거 말이 됩니까?”

“史체 옆에 있었다는 自轉車 末입니까?”

“사체 옆에 있었다는 자전거 말입니까?”

「死体の横にいたという自轉車のことですか？」

구사나기는 반장의 우락부락하게 생긴 얼굴을 바라보아췄다。

驅使나기는 班長の 우락부락하게 생긴 얼굴을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반장의 우락부락하게 생긴 얼굴을 바라보았다。

草薙は班長の落ち込んでできた顔を眺めた。

“그래。

“그래。

“그래。

「ええ。

조회해 보니 도난 신고가 들어와 있어ㄴ어。

照會해 보니 盜難 申告가 들어와 있었어。

조회해 보니 도난 신고가 들어와 있었어。

照会してみると盜難届が入っていた。

등록 번호가 일치하더군。

登録 番號가 一致하더군。

등록 번호가 일치하더군。

登録番號が一致した。

거기 적히 ㄴ 사람이 자전거 주인이야。

거기 적힌 사람이 自轉車 主人이야。

거기 적힌 사람이 자전거 주인이야。

そこに書かれた人が自転車主人だ。

미리 연락해 뒀ㄴ으니까 당장 가서 이야기를 들어 봐。

미리 連絡해 뒀으니까 當場 가서 이야기를 들어 봐。

미리 연락해 뒀으니까 당장 가서 이야기를 들어 봐。

あらかじめ連絡しておいたのですぐに行って話を聞いてみて。

“자전거에서 지문은 나와습니까?”

“自轉車에서 地文은 나왔습니까?”

“자전거에서 지문은 나왔습니까?”

「自轉車で指紋は出ましたか？」

“그런 거 ㄴ 자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어서 가 보거나 해。

“그런 건 자네가 神經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어서 가 보거나 해。

“그런 건 자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어서 가 보거나 해。

「そんなのはお前が気にしないでいいから、行ってみるかして。

마미야의 굵직한 ㄴ 음성에 떠밀려 구사나기는 후배와 함께 에도가와 서를 빠져
나와 ㄴ 다。

마미야의 굵직한 音聲에 떠밀려 驅使나기는 後輩와 함께 에도가와 서를 빠
져나왔다。

마미야의 굵직한 음성에 떠밀려 구사나기는 후배와 함께 에도가와 서를 빠
져나왔다。

マミヤの大胆な声に浮かんで、草薙は後輩と共に江戸川西を抜け出した。

“도난 자전거라 이거지。

“盜難 自轉車라 이거지。

“도난 자전거라 이거지。

「盗まれた自転車だよ。

내 그러 ㄴ 줄 알아ㄴ다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私はそう思ったから。

애차의 핸들을 꺾으며 구사나기는 혀를 차ㄴ다。

애車의 핸들을 꺾으며 驅使나기는 혀를 찼다。

애차의 핸들을 꺾으며 구사나기는 혀를 찼다。

愛車のハンドルを折りながら、草薙は舌を刺した。

타 ㄴ 지 8년이 다 되 ㄴ 스카이라인이 그의 차다。

탄 지 8年이 다 된 스카이라인이 그의 차다。

탄 지 8년이 다 된 스카이라인이 그의 차다。

タンジ 8 年が終わったスカイラインが彼の車だ。

“범인이 타고 나서 버리 ㄴ 거 ㄴ까요?”

“犯人이 타고 나서 버린 걸까요?”

“범인이 타고 나서 버린 걸까요?”

「犯人が乗ってから捨てたのでしょうか？」

“그러 ㄴ지도 모르지.

“그렇지도 모르지.

“그렇지도 모르지.

「そうかもしれない。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전거 소유주 이야기를 들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 해도 自轉車 所有主 이야기를 들어 봐야 所用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전거 소유주 이야기를 들어 봐야 소용없는 일
이야。

でもそれでも自転車所有者の話聞いてみると役に立たないことだ。

누구한테 도둑맞아 ㄴ는지도 모르잖아.

누구한테 도둑맞았는지도 모르잖아.

누구한테 도둑맞았는지도 모르잖아.

誰に盗まれたのかもしれない。

물론 어디서 도둑맞아 ㄴ는지 아 ㄴ다면 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勿論 어디서 도둑맞았는지 안다면 犯人의 移動 經路를 把握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물론 어디서 도둑맞았는지 안다면 범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もちろどこで盗まれたのか分かったら犯人の移動経路を把握するのに少しは役に立つだろうが。

메모와 지도에 의지해 시노자키 2가 부근을 이리저리 돌아다니 ㄴ 끝에 구사나기는 메모에 적히 ㄴ 주소와 일치하는 집을 찾아내 ㄴ다。

메모와 地圖에 依支해 시老子키 2가 附近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驅使나기는 메모에 적힌 住所와 一致하는 집을 찾아냈다。

메모와 지도에 의지해 시노자키 2가 부근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구사나기는 메모에 적힌 주소와 일치하는 집을 찾아냈다。

メモと地図に頼って篠崎 2 が付近を前後に歩き回った末に駆け寄るメモに書かれた住所と一致する家を見つけた。

문패에 야마베라고 적혀 있어 ㄴ다。

門牌에 야마베라고 적혀 있었다。

문패에 야마베라고 적혀 있었다。

表札に山部と書かれていた。

하야 ㄴ 벽의 양옥이다。

하얀 壁의 洋屋이다。

하얀 벽의 양옥이다.

白い壁の洋館だ。

야마베 요코는 그 집 주부로 나이는 사십 대 중반 정도 되어 보여ㄴ다.

야마베 요코는 그 집 主婦로 나이는 四十代 中盤 程度 되어 보였다.

야마베 요코는 그 집 주부로 나이는 사십 대 중반 정도 되어 보였다.

山部洋子はその家主婦になる年の四十代半ばほどになって見えた。

형사가 오ㄴ다는 연락을 받아서ㄴ지 곱게 화장을 하고 있어ㄴ다.

刑事가 온다는 連絡을 받아선지 곱게 化粧을 하고 있었다.

형사가 온다는 연락을 받아선지 곱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刑事が来るという連絡を受けてからかなり化粧をしていた。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間違いありません。

제 자전거예요.

제 自轉車예요.

제 자전거예요.

私の自転車です。

구사나기가 내미 ㄴ 사진을 보고 야마베 요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 ㄴ 다。

驅使나기가 내민 寫眞을 보고 야마베 요코가 確信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구사나기가 내민 사진을 보고 야마베 요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草薙が出した写真を見て山部洋子が確信に満ちた声で語った。

구사나기가 감식과에서 받아 오 ㄴ 자전거 사진이여 ㄴ 다。

驅使나기가 鑑識課에서 받아 온 自転車 寫眞이었다。

구사나기가 감식과에서 받아 온 자전거 사진이었다。

草薙が感食科から受けてきた自転車の写真だった。

“일단 서로 가서서 실물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一旦 서로 가서서 實物을 確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가서서 실물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いったんお互いに行って実物を確認し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가는 거 ㄴ 어려우 ㄴ 일이 아니 ㄴ 데, 자전거는 돌려주시는 거 ㄴ 가요?”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自転車는 돌려주시는 건가요?”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자전거는 돌려주시는 건가요?”

「行くのは難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が、自転車は返してくれるのですか？」

“물론이죠.”

“勿論입니다.

“물론입니다.

「もちろんです。」

다만 조사하_ㄴ 게 조금 남아_ㅂ습니다.

다만 調査할 게 조금 남았습니다.

다만 조사할 게 조금 남았습니다.

ただ調べるのが少し残りました。

그게 끝나야 돌려드리_ㄴ 수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それが終わってこそ返すことができます。

“빨리 돌려받지 않으면 곤란해요.

“빨리 돌려받지 않으면 困難해요.

“빨리 돌려받지 않으면 곤란해요.

「早く返さないと困ります。

그게 없으면 시장을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市場을 보기가 不便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시장을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それがなければ市場を見るのが不便です。

야마베 요코는 불만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려^ㄴ다。

야마베 요코는 不滿스럽다는 듯 眉間을 찌푸렸다。

야마베 요코는 불만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山部洋子は不満なように眉間を刺した。

마치 도둑맞으^ㄴ 원인이 경찰에게 있기라도 하다는 듯하^ㄴ 말투여^ㄴ다。

마치 도둑맞은 原因이 警察에게 있기라도 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마치 도둑맞은 원인이 경찰에게 있기라도 하다는 듯한 말투였다。

まるで泥棒当たった原因が警察にあってもあるというような口調だった。

살인 사건과 관련되어^ㄴ으^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듯해^ㄴ다。

殺人 事件과 關聯되었을 可能性이 있다는 事實은 아직 모르는 듯했다。

살인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듯했다。

殺人事件に関連し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事実はまだ分からないようだった。

알면 그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 ㄴ 것이다.

알면 그 自轉車를 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 것이다.

알면 그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실 것이다.

知ればその自転車に乘りたい気持ちが芽生えてくるだろう。

타이어가 펑크 나 ㄴ다는 거 ㄴ 알게 되면 물어달라고 하 ㄴ지도 모르겠다고 구사
나기는 생각해 ㄴ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걸 알게 되면 물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驅使나
기는 생각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걸 알게 되면 물어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구사나
기는 생각했다.

タイヤがパンクし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ら聞いてもらうかもしれないと言
われと思った。

그녀의 말로는 자전거를 도둑맞은 것이 어제, 즉 3월 10일 오전 11시에서 밤
10시 사이의 일이라고 하 ㄴ다.

그女の 말로는 自轉車를 도둑맞은 것이 어제, 卽 3月 10日 午前 11時에
서 밤 10時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

그녀의 말로는 자전거를 도둑맞은 것이 어제, 즉 3월 10일 오전 11시에서
밤 10시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

彼女の言葉では自転車を盗んだのが昨日、つまり 3月 10日午前 11時から夜

10 時の間のことだという。

긴자에서 친구를 만나 쇼핑과 식사를 하고 시노자키역으로 돌아오 ㄴ 시각이 밤
10시 조금 지나서라는 것이다。

긴자에서 親舊를 만나 쇼핑과 食事を 하고 市老子기驛으로 돌아온 時刻이
밤 10 時 조금 지나서라는 것이다。

긴자에서 친구를 만나 쇼핑과 식사를 하고 시노자키역으로 돌아온 시각이
밤 10시 조금 지나서라는 것이다。

銀座で友達に会ってショッピングと食事をして篠崎駅に戻った時刻が夜 10
時少し過ぎているということだ。

자전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ㄴ
다고 하 ㄴ다。

自轉車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驛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자전거가 없어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自轉車がなくなる風にすることなく 駅からバスに乗って家に帰ってきたとい
う。

“자전거 거치대에 놓아두셔 ㄴ 습니까?”

“自轉車 거値臺에 놓아두셨습니까?”

“자전거 거치대에 놓아두셨습니까?”

「自転車の台所に置いておきましたか？」

“아뇨, 길가에 두어 ㅅ어요.

“아뇨, 길가에 두었어요.

“아뇨, 길가에 두었어요.

「いや、道端に置きました。

“자물쇠는 걸어 두셔 ㅅ고요?”

“자물쇠는 걸어 두셨고요?”

“자물쇠는 걸어 두셨고요?”

「ロックは歩いておきましたか？」

“물론이죠.

“勿論이죠.

“물론이죠.

「もちろんです。

보도 가드레일에 체인으로 묶어 놓아 ㅅ어요.

報道 가드레일에 體認으로 묶어 놓았어요.

보도 가드레일에 체인으로 묶어 놓았어요.

歩道ガードレールにチェーンで縛っておきました。

현장에서 체인을 발견해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어냈다.

現場에서 體認을 發見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었다.

현장에서 체인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었다.

現場でチェーンを発見したという話は聞いたことがなかった。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후 구사나기는 야마베 요코를 태우고 먼저 시노자키역으로 향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後 驅使나기는 야마베 요코를 태우고 먼저 市老子驛으로 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후 구사나기는 야마베 요코를 태우고 먼저 시노자키역으로 향했다.

そう話をした後、草薙は山部洋子を燃やして先に篠崎駅に向かった。

자전거가 도난당하 장소를 봐 두기 위해서여냈다.

自轉車가 盜難當한 場所를 봐 두기 爲해서였다.

자전거가 도난당한 장소를 봐 두기 위해서였다.

自轉車が盜まれた場所を見ておくためだった。

“이 근처예요.

“이 近處예요.

“이 근처예요.

「これが近いです。

그녀가 가리킨 곳은 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노상
이었는데。

그녀가 가리킨 곳은 驛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20미터 程度 떨어진 路上
이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역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노상
이었다。

彼女が指したところは駅前にあるスーパーマーケットから 20 メートルほど
離れた路上だった。

그곳에는 지금도 자전거들이 죽 늘어서 있어。

그곳에는 只今도 自轉車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그곳에는 지금도 자전거들이 죽 늘어서 있었다。

そこには今も自轉車が瘦せていた。

구사나기는 주위를 둘러보아。

驅使나기는 周圍를 둘러보았다。

구사나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草薙は周囲を見回した。

신용 금고 지점과 서점 등이 가까이 있어 낮이나 저녁 무렵에는 사람의 통행이 많으 ㄴ 듯해 ㄴ다.

信用 金庫 地點과 書店 等이 가까이 있어 낮이나 저녁 무렵에는 사람의 通行이 많을 듯했다.

신용 금고 지점과 서점 등이 가까이 있어 낮이나 저녁 무렵에는 사람의 통행이 많을 듯했다.

信用金庫支店や書店などが近く、日中や夕方頃には人の通行が多いようだった。

잘하면 체인을 재빨리 자르고 마치 자기 것이 ㄴ 양 태연히 가져가 ㄴ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인적이 드무 ㄴ 틈을 타서 훔치지 않아 ㄴ으 ㄴ까 싶어 ㄴ다.

잘하면 體認을 재빨리 자르고 마치 자기 것인 量 泰然히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亦是 人的이 드문 틈을 타서 훔치지 않았을까 싶었다.

잘하면 체인을 재빨리 자르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태연히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훔치지 않았을까 싶었다.

うまくいけばチェーンをいち早く切って、まるで自分のものであるヤン、さりげなく持っていくこともできるだろうが、やはり人的が珍しい隙間に乗って盗まなかったかと思った。

도난당하 ㄴ 장소를 확인하 ㄴ 구사나기는 야마베 요코를 차에 태우고 에도가와 경찰서로 향해 ㄴ다.

盜難當한 場所를 確認한 驅使나기는 야마베 요코를 車에 태우고 에도가와
警察署로 向했다。

도난당한 장소를 확인한 구사나기는 야마베 요코를 차에 태우고 에도가와
경찰서로 향했다。

盜まれた場所を確認した草薙は山部横子を車に乗せて江戸川警察署に向かっ
た。

자전거 실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自轉車 實物을 보여 주기 爲해서다。

자전거 실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自轉車の實物を見せるためだ。

“재수도 없지。

“再修도 없지。

“재수도 없지。

「再水もない。

그 자전거, 지난달에 사_ㅅ거든요。

그 自轉車, 지난달에 샀거든요。

그 자전거, 지난달에 샀거든요。

その自轉車、先月に買ったんですよ。

그러니 도둑맞으 ㄴ 거 ㄴ 알고 얼마나 화가 나 ㅏ겠어요。

그러니 도둑맞은 걸 알고 얼마나 火가 났겠어요。

그러니 도둑맞은 걸 알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だから泥棒のことを知ってどれくらい怒ったのでしょうか。

곧장 역 앞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해 ㅏ쥬。

곧장 驛 앞 派出所로 달려가서 申告했쥬。

곧장 역 앞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했쥬。

まもなく駅前派出所に駆けつけて申告しました。

여자가 뒤 좌석에서 불통스러운 ㄴ 목소리로 말해 ㅏ다。

女子가 뒤 座席에서 불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뒤 좌석에서 불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女が後席で不愉快な声で話した。

“자전거 등록 번호를 용케도 기억하고 계셔 ㅏ네요。

“自轉車 登録 番號를 용케도 記憶하고 계셨네요。

“자전거 등록 번호를 용케도 기억하고 계셨네요。

「自轉車登録番号をヨンケも覚えていましたね。

“그야 사 ㄴ 지 얼마 안 돼 ㅏ으니깐요。

“그야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야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そんなに買ったばかりだから。

집에 적어 두 ㄴ 게 있어서 딸에게 전화로 불러 달라고 해 ㅅ 어요.

집에 적어 둔 게 있어서 딸에게 電話로 불러 달라고 했어요.

집에 적어 둔 게 있어서 딸에게 전화로 불러 달라고 했어요.

家に書いておいたことがあって娘に電話で呼んでももらいました。

“그래 ㅅ 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그거 ㄴ 그렇고, 대체 무슨 사건이 ㄴ 가요? 전화를 거 ㄴ 경찰도 도무지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代替 무슨 事件인가요? 電話를 건 警察도 도무지 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사건인가요? 전화를 건 경찰도 도무지 안 알려 주더라고요.

「ところで、一体どんな出来事ですか？電話をかけた警察もいっぱい知らせ

てくれましたよ。

아까부터 내내 그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아까부터 내내 그 點이 마음에 걸리네요。

아까부터 내내 그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さっきからずっとその点が気になりますね。

“아, 아직은 사건이 ㄴ지 아니 ㄴ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아, 아직은 事件인지 아닌지도 確實치 않습니다。

“아, 아직은 사건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ああ、まだ事件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

자세하 ㄴ 거 ㄴ 저희도 잘 몰라요。

仔細한 건 저희도 잘 몰라요。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몰라요。

詳しくは私たちもよくわかりません。

“에이, 그러 ㄴ 리가요。

“에이, 그럴 理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え、そうです。

흠, 역시 경찰은 입이 무겁네요.

흠, 亦是 警察은 입이 무겁네요.

흠, 역시 경찰은 입이 무겁네요.

うーん、やはり警察は口が重いですね。

조수석에 앉으 ㄴ 기시타니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어 ㅅ다.

助手席에 앉은 기시他니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기시타니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助手席に座った岸谷が笑いを我慢して顔を歪めていた。

구사나기는 이 여자를 오늘 만나게 되 ㄴ 게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려 ㅅ다.

驅使나기는 이 女子를 오늘 만나게 된 게 千萬多幸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 다.

구사나기는 이 여자를 오늘 만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 렸다.

草薙はこの女に今日会うのが千万幸いだと胸を掃き出した。

사건이 널리 알려지 ㄴ 후여 ㅅ다면 질문 공세에 엄청나게 시달려 ㅅ으 ㄴ 것이 다.

事件이 널리 알려진 後였다면 質問 攻勢에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이다.

사건이 널리 알려진 후였다면 질문 공세에 엄청나게 시달렸을 것이다.

事件が広く知られた後だったら、質問攻勢に莫大に苦しんでいただろう。

에도가와 서에서 자전거를 본 야마베 요코는 자신의 것이 틀림없다고 단언해
ㄴ다。

에도가와 西에서 自轉車를 본 야마베 요코는 自身の 것이 틀림없다고 斷言
했다。

에도가와 서에서 자전거를 본 야마베 요코는 자신의 것이 틀림없다고 단언
했다。

江戸川西で自転車を見た山部洋子は、自分のものは間違いないと断言した。

아울러 타이어가 펑크 나 ㄴ 것에 대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느냐고 구
사나기에게 물어ㄴ다。

아울러 타이어가 펑크 난 것에 對해 누구에게 補償을 請求해야 하느냐고
驅使나기에게 물었다。

아울러 타이어가 펑크 난 것에 대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느냐고
구사나기에게 물었다。

また、タイヤがパンクしたことに対して誰に報酬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のかと、草薙に尋ねた。

예의 자전거에서는 핸들과 프레임, 안장 등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채취돼ㄴ
다。

例의 自轉車에서는 핸들과 프레임, 安葬 등에서 여러 個의 地文이 採取됐다。

예의 자전거에서는 핸들과 프레임, 안장 등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채취됐다。

礼儀自転車ではハンドルやフレーム、サドルなどから複数の指紋が採取された。

자전거 이외의 유류품으로는 현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20리터짜리 양철통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의류가 일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自轉車 以外の 油類품으로는 現場에서 約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20리터짜리 洋鐵통 안에서 被害者の 것으로 보이는 衣類가 一部 불에 탄 채 發見됐다。

자전거 이외의 유류품으로는 현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20리터짜리 양철통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의류가 일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自転車以外の油類品としては、現場から約 100 メートル離れたところにある 20 リットルの錬鉄の中で被害者のように見える衣類が一部火に乗ったまま発見された。

구체적으로는 점퍼, 스웨터, 바지, 양말, 내의 등이 있어는데, 범인이 불을 붙이고 달아나 後 끝까지 다 타지 않고 저절로 불이 꺼지 後 것으로 추측되 後

다。

具體적으로는 점퍼, 스웨터, 바지, 洋襪, 내의 等이 있었는데, 犯人이 불을 붙이고 달아난 後 끝까지 다 타지 않고 저절로 불이 꺼진 것으로 推測된

다。

구체적으로는 점퍼, 스웨터, 바지, 양말, 내의 등이 있었는데, 범인이 불을 붙이고 달아난 후 끝까지 다 타지 않고 저절로 불이 꺼진 것으로 추측된
다。

具體的にはジャンパー、セーター、ズボン、靴下、中などがあったが、犯人が火をつけて逃げた後、最後まで燃えずに自然に火が消えたと推測される。

그 의류에 대해 어디서 만들어지 ㄴ 것이 ㄴ지 찾아보자는 등의 제안은 나오지
않아 ㅅ다。

그 衣類에 對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찾아보자는 等の 提案은 나오지
않았다。

그 의류에 대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찾아보자는 등의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その衣類についてどこで作られたのか探してみようなどの提案は出なかつ
た。

하나같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품이어 ㅅ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大量으로 流通되는 製品이었기 때문이다。

하나같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一様に大量に流通する製品だったからだ。

그 대신 사체의 체격과 의류의 사이즈를 토대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모습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ㄴ다。

그 代身 史체의 體格과 衣類의 사이즈를 土臺로 斟酌되는 被害者の 모습이 일러스트로 그려졌다。

그 대신 사체의 체격과 의류의 사이즈를 토대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모습이 일러스트로 그려졌다。

その代わり、死体の体格と衣類のサイズをもとに推測される被害者の姿がイラストで描かれた。

수사원 중 일부가 그 일러스트를 들고 시노자키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ㄴ다。

수社員 中 一部가 그 일러스트를 들고 市老子기驛을 中心으로 探問 搜查를 벌였다。

수사원 중 일부가 그 일러스트를 들고 시노자키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捜査員の一部分がそのイラストを持って篠崎駅を中心に探索捜査を行った。

그러나 딱히 눈에 띄는 복장이 아니어서인지 이렇다 할 情報은 얻지 못해 ㄴ다。

그러나 딱히 눈에 띄는 服裝이 아니어서인지 이렇다 할 情報은 얻지 못했 다。

그러나 딱히 눈에 띄는 복장이 아니어서인지 이렇다 할 정보는 얻지 못했다。

しかし、特に目立つ服装ではないので、このような情報は得られなかった。

일러스트는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되어ㄴ다。

일러스트는 뉴스를 통해서도 紹介되었다。

일러스트는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イラストはニュースを通じても紹介された。

그러자 이번에는 감당하기 힘드ㄴ 만큼 정보가 많이 밀려들어ㄴ다。

그러자 이番에는 堪當하기 힘들 만큼 情報가 많이 밀려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정보가 많이 밀려들었다。

すると今回は余裕がないほど情報がたくさん押し寄せた。

그러나 그중 실제로 사체와 연관되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ㄴ다。

그러나 그中 實際로 사체와 聯關되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실제로 사체와 연관되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しかしそのうち実際に死体と関連して見えることは一つもなかった。

결국 에도가와구를 중심으로 최근에 모습을 감추ㄴ 독신남이 없는지, 여인숙과
호텔의 손님 가운데 갑자기 사라지ㄴ 사람은 없는지 철저하ㄴ 조사가 벌어져
ㄴ다。

結局 에도가와區를 中心으로 最近에 모습을 감춘 獨身男이 없는지, 旅人宿과 호텔의 손님 가운데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 없는지 徹底한 調査가 벌어졌다。

결국 에도가와구를 중심으로 최근에 모습을 감춘 독신남이 없는지, 여인숙과 호텔의 손님 가운데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벌어졌다。

結局、江戸川区を中心に最近姿を隠した独身男がいないのか、女性宿とホテルのゲストの中で突然消えた人はいないのか、徹底した調査が行われた。

그 결과 수사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 ㄴ 만하 ㄴ 정보 하나가 입수되어 ㄴ다。

그 結果 수社員들이 觸角을 곤두세울 만한 情報 하나가 入手되었다。

그 결과 수사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정보 하나가 입수되었다。

その結果、捜査員が触覚を突き止めるほどの情報一つが入手された。

가메이도에 있는 ‘렌탈 룸 오기야’라는 곳에서 남자 숙박객 하나가 사라져 ㄴ다는 것이다。

가메이道에 있는 ‘렌탈 룸 오기야’라는 곳에서 男子 宿泊客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메이도에 있는 ‘렌탈 룸 오기야’라는 곳에서 남자 숙박객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亀戸にある「レンタルルーム大木屋」というところから男の宿泊客一つが消

えたということ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월 11일이라고 해썩다。

主人이 그 事實을 알게 된 것은 3月 11日이라고 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월 11일이라고 했다。

主人がその事実を知ったのは3月11日だった。

사체가 발견되 썩 날이다。

史체가 發見된 날이다。

사체가 발견된 날이다。

死体が發見された日だ。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나오지 않길래 종업원이 가서 보니 약간의 짐만 남기 썩 채 손님이 사라지고 없어썩다는 것이다。

체크아웃 時間이 지나도 손님이 나오지 않길래 従業員이 가서 보니 若干의 짐만 남긴 채 손님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나오지 않길래 종업원이 가서 보니 약간의 짐만 남긴 채 손님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チェックアウト時間が経っても客が出ないように従業員が行ってみると少しの荷物だけ残したまま客が消え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

주인은 손님으로부터 이미 선금을 받아썩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 듣고도 크

게 문제점을 느끼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다고 한다.

主人은 손님으로부터 이미 先金을 받았기 때문에 그 事實을 傳해 듣고도

크게 問題點을 느끼지 못해 警察에 申告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인은 손님으로부터 이미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 듣고도

크게 문제점을 느끼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主人はお客様から既に前金を受け取ったため、その事実を伝え聞いても大き

く問題点を感じられず、警察に届け出なかったという。

수사팀이 급파되어 그 손님이 묵어...던 방과 짐에서 머리카락과 지문 등을 채

취해...다.

捜査팀이 急派되어 그 손님이 묵었던 房과 짐에서 머리카락과 地文 等を

採取했다.

수사팀이 급파되어 그 손님이 묵었던 방과 짐에서 머리카락과 지문 등을

채취했다.

捜査チームが急破され、その客が泊まった部屋と荷物から髪や指紋などを採

取した。

그 결과 머리카락이 사체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돼...다.

그 結果 머리카락이 사체의 것과 一致하는 것으로 判明됐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사체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その結果、髪が死体のものと一致することが判明した。

또한 예의 자전거에서 채취한 지문 하나가 방에서 발견된 지문과 동일하
것으로 밝혀져 다.

또한 例의 自轉車에서 採取한 地文 하나가 房에서 發見된 地文과 同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의 자전거에서 채취한 지문 하나가 방에서 발견된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また、礼儀自転車から採取した指紋の一つが部屋で発見された指紋と同じで
あることがわかった。

숙박부에는 사라지 손님의 이름이 도가시 신지라고 적혀 있어 다.

宿泊部에는 사라진 손님의 이름이 도가시 臣智라고 적혀 있었다.

숙박부에는 사라진 손님의 이름이 도가시 신지라고 적혀 있었다.

宿泊部には消えたお客さんの名前が戸垣シンジと書かれていた。

주소는 신주쿠구 니시신주쿠로 되어 있어 다.

住所는 新竹쿠구 니시新竹쿠로 되어 있었다.

주소는 신주쿠구 니시신주쿠로 되어 있었다.

住所は新宿区西新宿になっていた。

지하철 모리시타역에서 신오하시교를 향해 걸어가다가 다리 바로 앞으로 나
좁은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들어갔다.

地下鐵 모리시타驛에서 新吳何時教를 向해 걸어가다가 다리 바로 앞으로
난 좁은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들었다.

지하철 모리시타역에서 신오하시교를 향해 걸어가다가 다리 바로 앞으로
난 좁은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들었다.

地下鉄森下駅から新大橋橋に向かって歩いて行き、橋のすぐ前に出た狭い道
を右に折った。

가정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조그마한 가게들이 보여갔다.

家庭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조그만 가게들이 보였다.

가정집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조그만 가게들이 보였다.

家屋が並んでいて、その間に小さな店が見えた。

그 대부분의 가게가 노포 분위기를 풍겨갔다.

그 大部分의 가게가 老鋪 雰圍氣를 풍겼다.

그 대부분의 가게가 노포 분위기를 풍겼다.

そのほとんどのお店が老舗の雰圍氣を漂わせた。

다른 동네여한다면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 놀러 도태되고 말아쓰으
데,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있다는 게 서민 거리의 줄은 점이 지

도 모르겠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해^ㄴ다。

다른 동네였다면 슈퍼마켓이나 大型 割引 賣場에 눌러 淘汰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있다는 게 庶民 거리의 좋은 點인지도 모르겠다고 驅使나기는 생각했다。

다른 동네였다면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 매장에 눌러 도태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있다는 게 서민 거리의 좋은 점인지도 모르겠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他の町だったらスーパーマーケットや大型割引店に押されて淘汰されてしまったはずなのに、こんなに無理やり生き残っているというのが庶民街の良いところなのかもしれないと駆け寄ると思った。

시각은 저녁 8시를 넘어서고 있어^ㄴ다。

時刻은 저녁 8時를 넘어서고 있었다。

시각은 저녁 8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時刻は夕方8時を超えていた。

근처에 대중목욕탕이 있는지 세숫대야를 끌어안으^ㄴ 할머니가 구사나기 일행을 스쳐 지나가^ㄴ다。

近處에 大衆沐浴湯이 있는지 洗手^ㄴ대야를 끌어안은 할머니가 驅使나기 一行을 스쳐 지나갔다。

근처에 대중목욕탕이 있는지 세숫대야를 끌어안은 할머니가 구사나기 일행을 스쳐 지나갔다。

近くに大衆浴場があるのか、三雄大夜を抱きしめたおばあちゃんが駆け抜けの一行を経て過ぎた。

“교통편도 좋고 쇼핑하기에도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동네 같아 보이네요。

“交通便도 좋고 쇼핑하기에도 便利하고, 살기 좋은 洞네 같아 보이네요。

“교통편도 좋고 쇼핑하기에도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동네 같아 보이네요。

「交通便も良く買い物にも便利で、住みやすい町のように見えますね。

옆에서 기시타니가 중얼거리듯 말해^ㄴ다。

옆에서 기시他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옆에서 기시타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隣で岸谷が呟くように言った。

“무슨 말이 하고 싶으^ㄴ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何を言いたいの？」

“아니, 딱히 깊으^ㄴ 뜻은 없어요。

“아니, 딱히 깊은 뜻은 없어요。

“아니, 딱히 깊은 뜻은 없어요。

「いや、特に深い意味はありません。

모녀 둘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났으니까 뿐이에요。

母女 둘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모녀 둘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母娘二人が住むのにとても良いところだと思っただけです。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가。

「そうか。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이유는 두 가지여났다가。

驅使나기가 고개를 끄덕인 理由는 두 가지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두 가지였다。

草薙が頭をうなずいた理由は二つだった。

하나는 곧 만나게 되니까 상대가 딸과 단둘이 사는 여자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기시타니 자신이 퍼니까 모슬하에서 자라났다는 점이다。

하나는 곧 만나게 될 相對가 딸과 단둘이 사는 女子라는 點이고, 또 하나

는 기시他니 自身이 편某膝下에서 자랐다는 點이다。

하나는 곧 만나게 될 상대가 딸과 단둘이 사는 여자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기시타니 자신이 편모슬하에서 자랐다는 점이다.

一つはすぐに会う相手が娘と二人が暮らす女だという点で、もう一つは岸谷自身が片貝の下で育ったという点だ。

구사나기는 메모에 적히 ㄴ 주소와 전봇대의 표시를 건주어 가며 걷고 있어 ㄴ 다。

驅使나기는 메모에 적힌 住所와 電報ノ대의 表示를 건주어 가며 걷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메모에 적힌 주소와 전봇대의 표시를 건주어 가며 걷고 있었다。

草薙はメモに書かれた住所と電台の表示に耐えて歩いていた。

목적지이 ㄴ 연립 주택이 멀지 않으 ㄴ 듯해 ㄴ 다。

目的地인 聯立 住宅이 멀지 않은 듯했다。

목적지인 연립 주택이 멀지 않은 듯했다。

目的地である連立住宅が遠くないようだった。

메모에는 ‘하나오카 야스코’라는 이름도 적혀 있어 ㄴ 다。

메모에는 ‘하나오카 야스코’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하나오카 야스코’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다。

メモには「花岡康子」という名前も書かれていた。

죽으 ㄴ 도가시 신지가 숙박부에 적어 놓으 ㄴ 주소는 엉터리가 아니어 ㄴ다.

죽은 道が習 신지가 宿泊部に 적어 놓은 住所는 엉터리가 아니었다.

죽은 도가시 신지가 숙박부에 적어 놓은 주소는 엉터리가 아니었다.

死んだ道鹿市シンジが宿泊部に書き留めた住所はあいまいではなかった。

실제로 그 주소에 그의 주민 등록이 존재해 ㄴ다.

實際로 그 住所에 그의 住民 登録이 存在했다.

실제로 그 주소에 그의 주민 등록이 존재했다.

實際、その住所に彼の住民登録が存在した。

다만 현재 그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 ㄴ다.

다만 現在 그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다만 현재 그는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ただ現在、彼はそこに住んでいなかった。

사체의 신원이 밝혀져 ㄴ다는 사실이 이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되 ㄴ
후여 ㄴ다.

史체의 伸冤이 밝혀졌다는 事實이 이미 新聞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報道된
後였다.

사체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사실이 이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보도된
후였다.

死体の身元が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事実が、すでに新聞やテレビを通じて報道された後だった。

뉴스 말미에 ‘관련 정보가 있는 분은 가까우ㄴ 경찰서로 연락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어ㄴ지만 아직 정보다우ㄴ 정보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으ㄴ 상태여ㄴ다。

뉴스 말미에 ‘關聯 情報가 있는 분은 가까운 警察署로 連絡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아직 情報다운 情報는 한 件도 들어오지 않은 狀態였다。

뉴스 말미에 ‘관련 정보가 있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었지만 아직 정보다운 정보는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ニュースの末尾に「関連情報がある方は近い警察署に連絡してほしい」という言葉が付いたが、まだ情報らしい情報は一件も入っていない状態だった。

도가시에게 방을 임대하ㄴ 부동산업자의 기록에 의해 그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이 밝혀져ㄴ다。

都家時에게 房을 賃貸한 不動産業者의 記錄에 依해 그가 以前에 勤務하던 곳이 밝혀졌다。

도가시에게 방을 임대한 부동산업자의 기록에 의해 그가 이전에 근무하던 곳이 밝혀졌다。

道鹿市に部屋を借りた不動産業者の記録により、彼が以前に勤務していたところが明らかになった。

오기쿠보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 업체여ㄴ다。

오기쿠보에 있는 中古自動車 賣買 業體였다。

오기쿠보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 업체였다。

小木久保にある中古自動車売買業者だった。

그러나 오래 다니지는 않아ㄴ고,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ㄴ 것으로 되어 있어
ㄴ다。

그러나 오래 다니지는 않았고, 1年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었
다。

그러나 오래 다니지는 않았고,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었
다。

しかし長く通っていないし、1年を満たしてやめたことになっていた。

그것을 시작으로 도가시의 경력이 수사진에 의해 하나하나 드러나ㄴ다。

그것을 始作으로 도가시의 經歷이 수寫眞에 依해 하나하나 드러났다。

그것을 시작으로 도가시의 경력이 수사진에 의해 하나하나 드러났다。

それをはじめ、東賀市のキャリアが捜査により一つ一つ明らかになった。

예전에 고급 외제 차 판매원이어ㄴ던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ㄴ 사실이 발각
되어 해고되ㄴ 적이 있어ㄴ다는 사실도 밝혀져ㄴ다。

예전에 高級 外製 車 販賣員이었던 그가 會社 公金을 横領한 事實이 發覺

되어 解雇된 적이 있었다는 事實도 밝혀졌다.

예전에 고급 외제 차 판매원이었던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かつて高級外除車販売員だった彼が会社公金を横領した事実が発覚して解雇されたことがあったという事実も明らかになった。

하지만 기소되 ㄴ 것은 아니고 수사원 하나가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되 ㄴ 것이어 ㄴ다.

하지만 起訴된 것은 아니고 수社員 하나가 偶然히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소된 것은 아니고 수사원 하나가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다.

だが起訴されたのではなく、捜査員一つが偶然入って知ることになったのだった。

해당 회사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 중에 당시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 ㄴ다.

該當 會社は 如前히 營業을 하고 있지만, 職員 中에 當時의 일에 對해 仔細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해당 회사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 중에 당시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同社は依然として營業をしているが、職員中に当時のことについて詳しく知

る人はいなかった。

도가시의 지인에 따르면 그 일이 있으 ㄴ 무렵 도가시는 기혼자여 ㄴ고, 이후에 이혼해 ㄴ으 ㄴ에도 헤어지 ㄴ 아내에게 집착하 ㄴ 듯하다고 하 ㄴ 다。

都家時の 知人に 따르면 그 일이 있을 무렵 도가시는 既婚者였고, 以後에 離婚했음에도 헤어진 아내에게 執着한 듯하다고 한다。

도가시의 지인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을 무렵 도가시는 기혼자였고, 이후에 이혼했음에도 헤어진 아내에게 집착한 듯하다고 한다。

道賀市の知人によると、そのことがある頃、道賀市は既婚者であり、その後 離婚したにもかかわらず妻に執着したようだという。

헤어지 ㄴ 전처에게는 그 전남편에게서 낳으 ㄴ 딸이 하나 있어 ㄴ다。

헤어진 前妻에게는 그 前男便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헤어진 전처에게는 그 전남편에게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別れた元妻にはその元夫から産んだ娘が一つあった。

그 모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란 수사진에게 그다지 어려우 ㄴ 일이 아니어 ㄴ다。

그 母女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란 數寫眞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 다。

그 모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란 수사진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 다。

その母女が住んでいるところを調べるという捜査陣にとってそれほど難しい
ことではなかった。

얼마 안 있어 모녀, 즉 하나오카 야스코와 미사토의 거주지가 밝혀져ㄴ다。

얼마 안 있어 母女, 卽 하나오카 야스코와 미사討議 居住地가 밝혀졌다。

얼마 안 있어 모녀, 즉 하나오카 야스코와 미사토의 거주지가 밝혀졌다。

しばらくいて母娘、つまり花岡康子とミサトの居住地が明らかになった。

그곳이 바로 고토구 모리시타, 지금 구사나기와 기시타니가 찾아가고 있는 곳
이어ㄴ다。

그곳이 바로 高土狗 모리시타, 只今 驅使나기와 기시他니가 찾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그곳이 바로 고토구 모리시타, 지금 구사나기와 기시타니가 찾아가고 있
는 곳이었다。

そこがまさに五島区森下、今草薙と岸谷が訪れているところだった。

“마음이 무거우ㄴ 역할이네요。

“마음이 무거운 役割이네요。

“마음이 무거운 역할이네요。

「心が重い役割ですね。

재수 없는 카드를 뽑아ㄴ어요。

再修 없는 카드를 뽑았어요.

재수 없는 카드를 뽑았어요.

数え切れないカードを抜きました。

“뭐야, 나랑 조사하러 가는 게 재수 없는 카드라는 거야?”

“뭐야, 나랑 調査하러 가는 게 再修 없는 카드라는 거야?”

“뭐야, 나랑 조사하러 가는 게 재수 없는 카드라는 거야?”

「なんだ、私と調べに行くのが面倒なカードというの？」

“그게 아니라, 모녀 둘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母女 둘이서 平和롭게 살아가는데 平地風波를 일으킬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모녀 둘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それじゃなくて、母娘二人で平和に生きていくのに平地風波を起こしそうだからという言葉です。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풍파가 일어나 ㄴ 일도 없지.

“事件과 아무 關係가 없다면 風波가 일어날 일도 없지.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풍파가 일어날 일도 없지.

「事件と何の関係もなければ風波が起こる事もない。

“그러 ㄴ까요? 아무래도 도가시는 나쁜 ㄴ 남편에 나쁜 ㄴ 아버지여 ㄴ던 것 같으
ㄴ데, 생각하기도 싫지 않으 ㄴ까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도가시는 나쁜 男便에 나쁜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생각하기도 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도가시는 나쁜 남편에 나쁜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생각하기도 싫지 않을까요?”

「そうですか？どうやら道家市は悪い夫に悪い父だったようですが、考える
のも嫌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우리를 환영해 주겠지。

“그렇다면 우리를 歡迎해 주겠지。

“그렇다면 우리를 환영해 주겠지。

「それなら私たちを歓迎してくれるだろう。

그렇게 나쁜 ㄴ 남자가 죽어 ㄴ다고 알리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男子가 죽었다고 알리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남자가 죽었다고 알리러 가는 거니까。

そんなに悪い男が死んだと知らせに行くんだから。

어쨌든 얼굴 좀 그만 찡그러。

어쨌든 얼굴 좀 그만 찡그려。

어쨌든 얼굴 좀 그만 찡그려。

とにかく顔ちょっとやめる。

나까지 우울해지ㄴ단 말이야。

나까지 憂鬱해진단 말이야。

나까지 우울해진단 말이야。

私まで憂鬱になってしまうんだ。

……어디 보자, 여기 아니ㄴ가?”

……어디 보자, 여기 아닌가?”

……어디 보자, 여기 아닌가?”

… …どこを見て、ここではないのですか？」

구사나기가 어느 낡은ㄴ 연립 주택 앞에서 걸음을 멈춰ㄴ다。

驅使나기가 어느 낡은 聯立 住宅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구사나기가 어느 낡은 연립 주택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草薙がある古い連立住宅の前で歩きを止めた。

군데군데 보수하ㄴ 흔적이 있는, 칙칙하ㄴ 회색의 2층 건물이다。

군데군데 保守한 痕跡이 있는, 칙칙한 灰色의 2層 建物이다。

군데군데 보수한 흔적이 있는, 칙칙한 회색의 2층 건물이다。

ところどころに保守した痕跡がある、ぬるぬる灰色の 2 階建ての建物だ。

1, 2층 각각 네 가구씩으로, 그중 불이 켜진 집은 반 정도여썸다。

1, 2層 各各 네 家具씩으로, 그中 불이 켜진 집은 半 程度였다。

1, 2층 각각 네 가구씩으로, 그중 불이 켜진 집은 반 정도였다。

1、2 階それぞれ 4 世帯ずつで、そのうち火がついた家は半分だった。

“204호라…… 그럼 2층이겠군。

“204 戶라…… 그럼 2 層이겠군。

“204호라…… 그럼 2층이겠군。

「204 号… …じゃあ 2 階でしょ。

구사나기가 계단을 올라가썸다。

驅使나기가 階段을 올라갔다。

구사나기가 계단을 올라갔다。

草薙が階段を上った。

기시타니도 그를 뒤따라썸다。

기시他니도 그를 뒤따랐다。

기시타니도 그를 뒤따랐다。

岸谷も彼に従った。

204호는 계단에서 제일 멀리 있는 집이어ㄴ다.

204 戸는 階段에서 第一 멀리 있는 집이었다.

204호는 계단에서 제일 멀리 있는 집이었다.

204 号は階段から一番離れた家だった。

현관문 옆에 나ㄴ 창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어ㄴ다.

玄關門 옆에 난 窓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현관문 옆에 난 창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玄関門の横にある窓から光が漏れていた。

구사나기는 다행이다 싶어ㄴ다.

驅使나기는 多幸이다 싶었다.

구사나기는 다행이다 싶었다.

草薙は幸いだと思った。

아무도 없으면 다시 와야 하ㄴ다.

아무도 없으면 다시 와야 한다.

아무도 없으면 다시 와야 한다.

誰もいなければまた来なければならない。

오늘 방문은 미리 알리고 방문하는 게 아니어ㄴ다.

오늘 訪問은 미리 알리고 訪問하는 게 아니었다。

오늘 방문은 미리 알리고 방문하는 게 아니었다。

今日の訪問はあらかじめ知らせて訪問するのではなかった。

도어폰을 눌러ㄴ다。

刀魚폰을 눌렀다。

도어폰을 눌렀다。

ドアホンを押した。

잠시 후 실내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금장치가 풀리고 문이 열려ㄴ다。

暫時 後 室内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금裝置가 풀리고 門이 열렸다。

잠시 후 실내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금장치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しばらくすると、室内で人が動く音が聞こえ、ロックが外れてドアが開いた。

체인은 걸려 있는 상태여ㄴ다。

體認은 걸려 있는 狀態였다。

체인은 걸려 있는 상태였다。

チェーンはかかっている状態だった。

모녀 둘이서 사는 집이니 이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 거 ㄴ 당연한 일이 ㄴ 것이
다。

母女 둘이서 사는 집이니 이 程度 注意를 기울이는 건 當然한 日일 것이
다。

모녀 둘이서 사는 집이니 이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
다。

母娘二人で暮らす家なので、この程度注意を払うのは当然のことだろう。

문틈으로 여자가 의아하 ㄴ 표정을 지으 ㄴ 채 구사나기를 올려다보고 있어 ㄴ
다。

門틈으로 女子가 疑訝한 表情을 지은 채 驅使나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문틈으로 여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은 채 구사나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ドアの隙間で女が怪しげな表情をしたまま草薙を見上げていた。

새카마 ㄴ 눈매가 인상적이 ㄴ, 얼굴이 조그마 ㄴ 여자여 ㄴ 다。

새카만 눈매가 引上的인, 얼굴이 조그만 女子였다。

새카만 눈매가 인상적인, 얼굴이 조그만 여자였다。

セカマン目が印象的な、顔が小さな女性だった。

서른이 채 안 되 ㄴ 젊으 ㄴ 여자이 ㄴ 줄 알아 ㄴ는데 그게 어두우 ㄴ 조명 때문이
라는 사실을 구사나기는 이내 눈치채 ㄴ 다。

서른이 채 안 된 젊은 女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두운 照明 때문이라는
事實을 驅使나기는 이내 눈치챘다。

서른이 채 안 된 젊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두운 조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구사나기는 이내 눈치챘다。

30歳の若い女性であると思ったが、それが暗い照明のためであるという事
實を駆け抜けたのは、これから気づいた。

문손잡이를 쥐 ㄴ 손등이 그녀가 주부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 ㄴ다。

文손잡이를 쥔 손등이 그女가主婦라는事實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문손잡이를 쥔 손등이 그녀가 주부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ドアハンドルを握った手の甲が彼女が主婦であるという事実を隠さずに現わ
した。

“실례하 ㄴ니다。

“失禮합니다。

“실례합니다。

「すみません。

하나오카 야스코 씨죠?”

하나오카 야스코 氏죠?”

하나오카 야스코 씨죠?”

花岡康子さんですか？」

구사나기는 되도록이면 표정과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써 ㄴ다.

驅使나기는 되도록裏面 表情과 말套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다.

구사나기는 되도록이면 표정과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다.

草薙はなるべく表情と話し方をスムーズにしようと努力した。

“그러 ㄴ 데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そうですね……」 ... ?」

그녀가 불안하 ㄴ 눈빛으로 물어 ㄴ다.

그女가 不安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彼女は不安な目つきで尋ねた。

“경시청에서 와 ㄴ습니다.

“景視廳에서 왔습니다.

“경시청에서 왔습니다.

「警視庁から来ました。

알려 드리 ㄴ 일이 있어서요.

알려 드릴 일이 있어서요.

알려 드릴 일이 있어서요.

お知らせいたします。

구사나기는 수첩을 꺼내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 부분을 내보여^ㄴ다.

驅使나기는 手帖을 꺼내 얼굴 寫眞이 붙어 있는 部分을 내보였다.

구사나기는 수첩을 꺼내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 부분을 내보였다.

草薙は手帳を取り出して顔写真が付いている部分を見せた。

기시타니도 똑같이 따라 해^ㄴ다.

기시他니도 똑같이 따라 했다.

기시타니도 똑같이 따라 했다.

岸谷も同じように従った。

“경시청……이라고요?”

“輕視靑……이라고요?”

“경시청……이라고요?”

「警視庁… …って？」

야스코가 눈을 크게 떠^ㄴ다.

야스코가 눈을 크게 뗐다.

야스코가 눈을 크게 떴다.

ヤスコが目を大きく開いた。

검은 눈동자가 흔들려ㅅ다.

검은 눈瞳子가 흔들렸다.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黒い瞳が揺れた。

“잠깐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ちょっと入っても大丈夫でしょうか？」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하나오카 야스코는 일단 문을 닫으 후 체인을 벗기고 다시 문을 열어ㅅ다.

하나오카 야스코는 一旦 門을 닫은 後 體認을 벗기고 다시 門을 열었다.

하나오카 야스코는 일단 문을 닫은 후 체인을 벗기고 다시 문을 열었다.

花岡康子は一度ドアを閉めた後、チェーンを外して再びドアを開けた。

“그런데 저, 무슨 일이시죠?”

“그런데 저, 무슨 일이시죠?”

“그런데 저, 무슨 일이시죠?”

「しかし、私、何が起こりますか？」

구사나기는 일단 한 걸음 내디뎠 문 안쪽으로 들어서었다.

驅使나기는 一歩 한 걸음 내디뎠 文 안쪽으로 들어섰다.

구사나기는 일단 한 걸음 내디뎠 문 안쪽으로 들어섰다.

草薙は一応一歩踏み込んでドアの奥に入った。

기시타니도 그를 따라 들어가었다.

기시他니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기시타니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岸谷も彼に追いついた。

“도가시 신지 씨 아시죠?”

“道가習 신지 氏 아시죠?”

“도가시 신지 씨 아시죠?”

「とがしシンジさんご存知ですか？」

야스코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구사나기는 놓치지 않아ㄴ다。

야스코의 表情이 微妙하게 굳어지는 것을 驅使나기는 놓치지 않았다。

야스코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구사나기는 놓치지 않았다。

ヤスコの表情が微妙に固まるのを駆け抜けは見逃さなかった。

그러나 그것은 헤어지 ㄴ 남편의 이름이 느닷없이 튀어나와ㄴ기 때문이 ㄴ지도 몰라ㄴ다。

그러나 그것은 헤어진 男便의 이름이 느닷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헤어진 남편의 이름이 느닷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しかしそれは別れた夫の名前が突然飛び出してきたからかもしれなかった。

“전남편이 ㄴ 데요……。

“前男便인데요……。

“전남편인데요……。

「元夫ですが… … 。

그가 살해당해ㄴ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ㄴ다。

그가 殺害當했다는 事實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彼が殺されたという事実を知らないようだった。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지 않는 것이 ㄴ까。

뉴스 프로그램이나 新聞을 보지 않는 것일까。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지 않는 것일까。

ニュース番組や新聞を見ないのだろうか。

물론 매스컴은 그 사건을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아^ㄴ다。

勿論 매스컴은 그 事件을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았다。

물론 매스컴은 그 사건을 그다지 크게 다루지 않았다。

もちろんマスコミはその事件をあまり大きく扱わなかった。

못 보고 지나쳐^ㄴ다고 해도 이상하^ㄴ 일은 아니다。

못 보고 지나쳤다고 해도 異常한 일은 아니다。

못 보고 지나쳤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見えず過ぎたとしても変なことではない。

“실은……。

“實은……。

“실은……。

「実は… … 。

말을 꺼내려는 순간 구사나기의 시야에 안쪽 칸막이 문이 들어와왔다.

말을 꺼내려는 瞬間 驅使나기의 視野에 안쪽 칸막이 門이 들어왔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구사나기의 시야에 안쪽 칸막이 문이 들어왔다.

馬を取り出そうとした瞬間、草薙の視界に奥の仕切りの扉が入ってきた。

문은 꼭 닫히 ㄴ 채여왔다.

門은 꼭 닫힌 채였다.

문은 꼭 닫힌 채였다.

ドアは必ず閉じたままだった。

“저 안쪽에 누가 있습니까?”

“低 안쪽에 누가 있습니까?”

“저 안쪽에 누가 있습니까?”

「あの奥に誰がいますか？」

구사나기가 물어왔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娘がいます。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あ、そうですね。

현관에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ㄴ다.

玄關에 運動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현관에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玄關にスニーカーが揃っていた。

구사나기는 목소리를 낮추어ㄴ다.

驅使나기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구사나기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草薙は声を下げた。

“도가시 씨가 사망하셔ㄴ습니다.

“도가시 氏が 死亡하셨습니다。

“도가시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東柏さんが死亡しました。

야스코의 입술이 네에, 하는 모양으로 벌어지더니 움직임을 멈췄다。

야스코의 입술이 네에, 하는 模様으로 벌어지더니 움직임을 멈췄다。

야스코의 입술이 네에, 하는 모양으로 벌어지더니 움직임을 멈췄다。

ヤスコの唇がはいに、する形で広がると動きを止めた。

그 외에 별다른 表情의 변화는 없어다。

그 外에 別다른 表情의 變化는 없었다。

그 외에 별다른 表情의 변화는 없었다。

それ以外に、特別な表情の変化はなかった。

“아니, 저, 어떻게요?”

“아니, 저, 어떻게요?”

“아니, 저, 어떻게요?”

「いや、私、どうですか？」

그녀가 물어다。

그女가 물었다。

그녀가 물었다。

彼女は尋ねた。

“구 에도강 제방에서 사체로 발견되어ㄴ습니다。

“區 에渡江 制房에서 사체로 發見되었습니다。

“구 에도강 제방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旧江戸川堤防で死体として発見されました。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타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斷定하기는 어렵습니다만, 他殺 可能性이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타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まだ断定するのは難しいですが、打殺の可能性あります。

구사나기는 솔직하게 대답해ㄴ다。

驅使나기는 率直하게 對答했다。

구사나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草薙は率直に答えた。

그러는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기에 편하다고 판단해ㄴ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이 單刀直入的に 質問하기에 便하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기에 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そうすることが団道直入的に質問するのが楽だと判断したからだ。

그제야 야스코의 얼굴에 동요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제야 야스코의 얼굴에 動搖하는 氣色이 떠올랐다.

그제야 야스코의 얼굴에 동요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さて、ヤスコの顔に動揺する気配が浮かんた。

그녀가 망연자실하 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녀가 茫然自失한 表情으로 천천히 고개를 左右로 흔들었다.

그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彼女が唐然とした表情でゆっくりと首を左右に振った。

“아니, 그 사람이 어쩌다가…….

“아니, 그 사람이 어쩌다가…….

“아니, 그 사람이 어쩌다가…….

「いや、あの人がどうして……」 ... 。

“그거 ㄴ 지금 조사하는 중이 ㅅ니다.

“그건 只今 調査하는 中입니다.

“그건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それは今調査中です。

도가시 씨에게 현재 가족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전 부인이신 하나오카 씨께 이야

기를 들으러 오_ㄴ 거_ㅂ니다。

都家時 氏에게 現在 家族도 없는 것 같고 해서 前 夫人이新 하나오카 氏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겁니다。

도가시 씨에게 현재 가족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전 부인이신 하나오카 씨
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겁니다。

とがしさんに現在家族もないようで、元奥さんの花岡さんに話を聞いてき
たんです。

늦으_ㄴ 시간에 죄송하_ㅂ니다。

늦은 時間에 罪悚합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遅い時間に申し訳ありません。

구사나기가 고개를 숙여_ㅆ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숙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숙였다。

草薙が頭を下げた。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あ、そうですね。

야스코는 입가에 손을 대고 눈을 내리떠 ㄴ다。

야스코는 입가에 손을 대고 눈을 내리뒀다。

야스코는 입가에 손을 대고 눈을 내리뒀다。

ヤスコは口元に手を当てて目を下ろした。

구사나기는 달혀 있는 방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 ㄴ다。

驅使나기는 달혀 있는 訪問에 繼續 神經이 쓰였다。

구사나기는 달혀 있는 방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다。

草薙は閉まっている訪問にずっと気になった。

그 안쪽에 있는 딸은 어머니와 방문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 ㄴ까。

그 안쪽에 있는 딸은 어머니와 訪問者들의 對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그 안쪽에 있는 딸은 어머니와 방문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까。

その奥にいる娘は母と訪問者の会話に耳を傾けているのか。

만일 그렇다면 한때 의붓아버지여 ㄴ던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 ㄴ까。

萬一 그렇다면 한때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만일 그렇다면 한때 의붓아버지였던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もしそうなら、かつて義父であった人の死をどう受け入れるか。

“실례이 ㄴ 줄 알지만,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아 ㄴ습니다.

“失禮인 줄 알지만, 몇 가지 調査를 해 보았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すみませんが、いくつかの調査をしました。

하나오카 씨가 도가시 씨와 이혼하 ㄴ 게 5년 전 일이던데요, 그 후로 도가시 씨를 만나 ㄴ 적이 있습니까?”

하나오카 氏が 도가시 氏와 離婚한 게 5年 前 일이던데요, 그 後로 도가시 氏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오카 씨가 도가시 씨와 이혼한 게 5년 전 일이던데요, 그 후로 도가시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花岡さんが道鹿市さんと離婚したのが 5年前のことでしたが、その後、道鹿市さんに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야스코는 고개를 저어 ㄴ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首を振った。

“헤어지고 나서는 거의 만나지 않아 ㄴ어요.

“헤어지고 나서는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서는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別れてからはほとんど会っていませんでした。

거의, 라면 몇 번은 만나ㄴ다는 얘기다.

거의, 라면 몇 番은 만났다는 얘기다.

거의, 라면 몇 번은 만났다는 얘기다.

ほとんど、ラーメン何度は会ったという話だ。

“마지막으로 보 ㄴ 게 작년이어ㄴ던가 재작년이어ㄴ던가……。

“마지막으로 본 게 昨年이었던가 再昨年이었던가……。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이었던가 재작년이었던가……。

「最後に見たのが昨年だったのか、昨年だったのか…」 … 。

“연락은 없어ㄴ습니까? 전화라든지 편지라든지.

“連絡은 없었습니까? 電話라든지 便紙라든지.

“연락은 없었습니까? 전화라든지 편지라든지.

「連絡はありませんでしたか? 電話とか手紙とか。

“없어ㄴ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ありませんでした。

야스코가 고개를 크게 한 번 저어ㄴ다。

야스코가 고개를 크게 한 番 저었다。

야스코가 고개를 크게 한 번 저었다。

ヤスコが首を大きく一回振った。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쩍 실내를 둘러보아ㄴ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쩍 室内을 둘러보았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슬쩍 실내를 둘러보았다。

草薙は頭をうなずきながらすっきり室内を見回した。

3평 정도의 다다미방은 낡기 ㄴ 해ㄴ지만 청소나 정리정돈이 구석구석 잘되어
있어ㄴ다。

3坪 程度の 다다미房은 낡긴 했지만 清掃나 整理整頓이 구석구석 잘되어
있었다。

3평 정도의 다다미방은 낡긴 했지만 청소나 정리정돈이 구석구석 잘되어
있었다。

3坪ほどの畳敷きは古かったが清掃や整理整頓が隅々によくなっていた。

고타쓰 위에는 굴이 놓여 있어ㄴ다。

고타쓰 위에는 橘이 놓여 있었다。

고타쓰 위에는 굴이 놓여 있었다.

こたつの上にはみかんが置かれていた。

벽에 배드민턴 라켓이 기대어져 있는 것을 보자 구사나기는 옛날 생각이 나
다。

壁에 배드민턴 라켓이 기대어져 있는 것을 보자 驅使나기는 옛날 생각이
났다。

벽에 배드민턴 라켓이 기대어져 있는 것을 보자 구사나기는 옛날 생각이
났다。

壁にバドミントンラケットが寄りかかっているのを見ると、草薙は昔思い出
した。

대학 시절 그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해
었다。

大學 時節 그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活動했었다。

대학 시절 그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活動했었다。

大学時代、彼はバドミントンクラブで活動した。

“도가시 씨가 돌아가시
ㄴ 것이 3월 10일 밤으로 추정되
ㅅ니다。

“도가시 氏가 돌아가신 것이 3月 10日 밤으로 推定됩니다。

“도가시 씨가 돌아가신 것이 3월 10일 밤으로 추정됩니다。

「戸市さんが亡くなったのが 3月 10日の夜と推定されます。

그 날짜나 구 에도강 제방이라는 장소에 대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날짜나 區 에渡江 制房이라는 場所에 對해 或是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些少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날짜나 구 에도강 제방이라는 장소에 대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その日や旧江戸川堤防という場所について、もしかしたら思い浮かぶのではありませんか？些細なことでも大丈夫です。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ありません。

저희한테 특별하_ㄴ 날도 아니어_ㄴ고,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살아_ㄴ는지도 전혀 몰라_ㄴ으니깐요。

저희한테 特別한 날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最近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몰랐으니깐요。

저희한테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몰랐으니깐요。

私たちに特別な日でもなかったし、その人が最近どのように住んでいたのか

全く知らなかったからです。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야스코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해^ㄴ다。

야스코는 不便해하는 氣色이 歷歷했다。

야스코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ヤスコは不快な氣配が力強かった。

헤어지^ㄴ 남편에 대해 묻는 거^ㄴ 싫어하는 거^ㄴ 지극히 당연한 일이^ㄴ 수도 있
다。

헤어진 男便에 對해 묻는 걸 싫어하는 건 至極히 當然한 日일 수도 있다。

헤어진 남편에 대해 묻는 걸 싫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
다。

別れた夫について尋ねるのを嫌うのは極めて当然のことかもしれない。

그녀가 사건과 관련이 있으^ㄴ지 없으^ㄴ지 구사나기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아^ㄴ
다。

그女가 事件과 關聯이 있을지 없을지 驅使나기는 아직 判斷이 서지 않았

다。

그녀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구사나기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다。

彼女が事件と関連があるかどうかを駆使するにはまだ判断が立っていな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ㄴ다。

오늘은 이 程度로 하고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今日はこれくらいにして帰るのが良くないかと思った。

다만 확인해 두고 싶으ㄴ 것이 한 가지 있어ㄴ다。

다만 確認해 두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다만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

ただ確認しておきたいことが一つあった。

“3월 10일에는 집에 계셔ㄴ습니까?”

“3 月 10 日には 집에 계셨습니까?”

“3월 10일에는 집에 계셨습니까?”

「3 月 10 日には家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물어ㄴ다。

手帖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물었다。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물었다.

手帳をポケットに入れながら尋ねた。

얘기가 나오ㄴ 김에 그저 참고로 물어보ㄴ다는 느낌을 주려고 애써ㄴ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저 參考로 물어본다는 느낌을 주려고 애썼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저 참고로 물어본다는 느낌을 주려고 애썼다.

話が出た金にただ参考に聞いてみるという感じを与えようと努力した。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ㄴ다.

그러나 그의 그런 努力은 別로 效果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그런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しかし彼のそのような努力はあまり効果がないようだった。

야스코가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ㄴ다.

야스코가 眉間을 찌푸리며 露骨的으로 不快感을 드러냈다.

야스코가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ヤスコが眉間を刺し、露骨に不快感を現した。

“그날 한 일을 전부 밝혀야 하나요?”

“그날 한 일을 全部 밝혀야 하나요?”

“그날 한 일을 전부 밝혀야 하나요?”

「その日のことを全部明らかにすべきですか？」

구사나기가 멋쩍게 웃어냈다.

驅使나기가 멋쩍게 웃었다.

구사나기가 멋쩍게 웃었다.

草薙がかっこよく笑った。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深刻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真剣に受け入れないでください。

물론 확실히 밝혀 주시다면 저희로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勿論 確實히 밝혀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물론 확실히 밝혀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もちろん確かに明らかにしてくれたら私たちとしては役に立ちますが。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では、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야스코는 구사나기와 기시타니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 쪽을 보아^ㅅ다。

야스코는 驅使나기와 기시他니의 位置에서는 보이지 않는 壁 쪽을 보았다。

야스코는 구사나기와 기시타니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 쪽을 보았다。

靖子は草薙と岸谷の位置では見えない壁側を見た。

아마도 달력이 걸려 있으^ㄴ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해^ㅅ다。

아마도 달曆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驅使나기는 斟酌했다。

아마도 달력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했다。

おそらくカレンダーがかかっているだろうと草虎は推測した。

거기에 일정이 적혀 있다면 한번 보고도 싶어^ㅅ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ㅅ다。

거기에 一定이 적혀 있다면 一番 보고도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要求하지 않았。

거기에 일정이 적혀 있다면 한번 보고도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そこに日程が書かれていたら一度見たかったのだが、そこまでは要求しなかった。

“10일에는 아침부터 일을 해_ㅅ고, 일이 끝나고 나서는 딸이랑 외출해_ㅅ어요。

“10 日에는 아침부터 일을 했고, 일이 끝나고 나서는 딸이랑 外出했어요。

“10일에는 아침부터 일을 했고, 일이 끝나고 나서는 딸이랑 외출했어요。

「10 日には朝から仕事をして、仕事が終わってからは娘と出かけました。

“어디로 외출하셔_ㅅ습니까?”

“어디로 外出하셨습니다?”

“어디로 외출하셨습니다?”

「どこでお出かけしましたか？」

“영화를 보러 가_ㅅ어요。

“映畫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映画を見に行きました。

기_ㅅ시초의 라쿠텐지라는 곳예요。

긴市草의 라쿠텐지라는 곳예요。

긴시초의 라쿠텐지라는 곳예요。

錦糸町の樂天寺というところです。

“대략 몇 시쯤 나가셔_ㅅ죠? 영화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大略 몇 時쯤 나가셨죠? 映畫 題目도 말씀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대략 몇 시쯤 나가셨죠? 영화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およそ何時か出ましたか? 映画のタイトルも教え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여섯 시 반쯤 나가ㄴ으ㄴ 거예요。

“여섯 時 半쯤 나갔을 거예요。

“여섯 시 반쯤 나갔을 거예요。

「六時半くらい出たんです。

영화 제목은……。

映畫 題目은……。

영화 제목은……。

映画のタイトルは… …。

구사나기도 아는 영화여ㄴ다。

驅使나기도 아는 映畫였다。

구사나기도 아는 영화였다。

草薙も知る映画だった。

할리우드의 인기 영화 시리즈로, 현재 상영되는 것이 세 편째여ㄴ다。

할리우드의人氣映畫 시리즈로, 現在 上映되는 것이 세 편째였다。

할리우드의 인기 영화 시리즈로, 현재 상영되는 것이 세 편째였다。

ハリウッドの人気映画シリーズで、現在上映されるのが三編目だった。

“영화를 보 ㄴ 후에는 곧바로 귀가하셔 ㄴ나요?”

“映畫를 본 後에는 곧바로 귀가하셨나요?”

“영화를 본 후에는 곧바로 귀가하셨나요?”

「映画を見た後はすぐに帰宅しましたか？」

“영화관과 같은 ㄴ 건물에 있는 라면집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노래방에 가 ㄴ
어요。

“映畫館과 같은 建物에 있는 라면집에서 食事하고, 그다음에 노래房에 갔
어요。

“영화관과 같은 건물에 있는 라면집에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노래방에 갔
어요。

「映画館と同じ建物にあるラーメン屋で食事をして、その後カラオケに行き
ました。

“노래방에 가서 ㄴ다고요?”

“노래房에 가셨다고요?”

“노래방에 가셨다고요?”

「カラオケに行きましたか？」

“네, 딸애가 즐라서요.

“네, 딸애가 즐라서요.

“네, 딸애가 즐라서요.

「はい、娘が眠いです。

“아아, 두 분이 자주 가시는 모양이죠?”

“아아, 두 분이 자주 가시는 模様が죠?”

“아아, 두 분이 자주 가시는 모양이죠?”

「ああ、二人がよく行くような形でしょう？」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요.

“한두 달에 한 番 程度는 歌謡.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요.

「一、二ヶ月に一度くらいは行きます。

“얼마나 계셔 ㅅㅅ 습니까?”

“얼마나 계셨 습니까?”

“얼마나 계셨 습니까?”

「どれくらいですか？」

“늘 한 시간 반 정도죠.

“늘 한 時間 半 程度죠.

“늘 한 시간 반 정도죠.

「いつも 1 時間半くらいですね。

더 늦으면 곤란하니까요.

더 늦으면 困難하니까요.

더 늦으면 곤란하니까요.

もっと遅れば困りますからね。

“영화를 보 ㄴ 다음 식사하고 노래방이라……, 그럼 귀가하 ㄴ 시간은요?”

“映畫를 본 다음 食事하고 노래房이라……, 그럼 歸家한 時間은요?”

“영화를 본 다음 식사하고 노래방이라……, 그럼 귀가한 時間은요?”

「映画を見た後、食事してカラオケだ… …では、帰宅した時間は？」

“아마 열한 시가 넘어 ㄴ 거예요.

“아마 열한 時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열한 시가 넘었을 거예요.

「おそらく 11 時が過ぎたでしょう。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正確히 記憶나지는 않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正確に覚えていませんが。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여ㄴ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は首をうなずいた。

그러나 한편으로 어디ㄴ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ㄴ다。

그러나 한便으로 어딘가 모르게 釋然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しかし一方でどこか分からない石然じゃないという気がした。

그 이유가 무엇이ㄴ지는 자신도 아ㄴ 수 없어ㄴ다。

그 理由가 무엇인지는 自身도 알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その理由が何なのかは自分もわからなかった。

노래방 이름을 확인하ㄴ 다음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서ㄴ다。

노래房 이름을 確認한 다음 두 사람은 鄭重하게 人事하고 房을 나섰다。

노래방 이름을 확인한 다음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섰다.

カラオケの名前を確認した後、二人は丁寧に挨拶して部屋を出た。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 ㄴ 것 같으 ㄴ 데요。

“事件과는 關係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事件とは関係がないようですが。

204호 앞을 떠나면서 기시타니가 조그마 ㄴ 소리로 말해 ㅆ 다。

204 戸 앞을 떠나면서 기시他니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204호 앞을 떠나면서 기시타니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204 号の前を去りながら岸谷が小さな声で語った。

“아직은 단정하 ㄴ 수 없어。

“아직은 端正할 수 없어。

“아직은 단정할 수 없어。

「まだ断定できない。

“모녀가 함께 노래방이라……, 좋네요。

“母女가 함께 노래房이라……, 좋네요。

“모녀가 함께 노래방이라……, 좋네요。

「母親と一緒にカラオケだ… …、いいですね。

단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團欒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ギリギリという感じがします。

기시타니는 하나오카 야스코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듯해ㄴ다。

기시他니는 하나五카 야스코를 疑心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기시타니는 하나오카 야스코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岸谷は花岡康子を疑いたくなかったようだった。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남자 하나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ㄴ다。

階段을 내려가려는데 男子 하나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남자 하나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階段を降りようとするのに男の一人が下から上がっていた。

땅딸막하ㄴ 체격의 중년 남자여ㄴ다。

땅딸막한 體格의 中年 男子였다。

땅딸막한 체격의 중년 남자였다。

ぎこちない体格の中年男だった。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남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왔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男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남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二人はその場に止まり、男が通り過ぎるのを待った。

남자는 203호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왔다.

男子는 203 戸 門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203호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男は 203 号のドアを鍵で開いて中に入った。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잠시 얼굴을 마주 보다가 걸음을 되돌려왔다.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는 暫時 얼굴을 마주 보다가 걸음을 되돌렸다.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잠시 얼굴을 마주 보다가 걸음을 되돌렸다.

草薙と岸谷はしばらく顔に直面して歩き回った。

203호에는 이시가미라는 문패가 붙어 있어왔다.

203 戸에는 이시가미라는 門牌가 붙어 있었다.

203호에는 이시가미라는 문패가 붙어 있었다.

203 号には石神という表札がついていた。

도어폰을 누르자 방금 지나가 男자가 문을 열어왔다.

刀魚폰을 누르자 方今 지나간 男子가 門을 열었다。

도어폰을 누르자 방금 지나간 남자가 문을 열었다。

ドアホンを押すと、過ぎたばかりの男がドアを開けた。

그는 그새 코트를 벗고 스웨터에 슬래 ㄴ스 차림이어 ㄴ다。

그는 그새 코트를 벗고 스웨터에 슬랙스 차림이었다。

그는 그새 코트를 벗고 스웨터에 슬랙스 차림이었다。

彼はその新しいコートを脱いでセーターにスラックス姿でした。

남자는 무표정하 ㄴ 얼굴로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를 번갈아 보아 ㄴ다。

男子는 無表情한 얼굴로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를 番갈아 보았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를 번갈아 보았다。

男は無表情な顔で草薙と岸谷を交互に見た。

이런 경우 수상쩍어하거나 경계하는 빛을 띠는 게 보통이 ㄴ 데 남자의 얼굴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 ㄴ다。

이런 境遇 殊常쩍어하거나 警戒하는 빛을 띠는 게 普通인데 男子의 얼굴에
는 그런 氣色이 全혀 없었다。

이런 경우 수상쩍어하거나 경계하는 빛을 띠는 게 보통인데 남자의 얼굴
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こういう場合、不思議になったり、警戒する光を帯びたのが普通だが、男の

顔にはそんな気配が全くなかった。

그 점이 구사나기는 의아해했다.

그 점이 驅使나기는 疑訝했다.

그 점이 구사나기는 의아했다.

その点が草薙は意識した。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늦은 時間에 罪悚합니다만, 暫時 協助 좀 해 주시겠습니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잠시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遅い時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が、しばらく協力してください。

애써 미소 지으며 구사나기는 경찰수첩을 펼쳐 보여준다.

애써 微笑 지으며 驅使나기는 警察手帖을 펼쳐 보였다.

애써 미소 지으며 구사나기는 경찰수첩을 펼쳐 보였다.

頑張って微笑みながら草薙は警察手帳を広げて見せた。

그런데도 남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했다.

그런데도 男子의 얼굴에는 아무런 表情의 變化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それでも男の顔には何の表情の変化も起こらなかった。

구사나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ㄴ다。

驅使나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구사나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草薶は一步先に近づいた。

“몇 분이면 되ㅓ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몇 분이면 됩니다。

「何人でもいいです。

여쭙보고 싶으ㄴ 게 있어서요。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とにかく見たいものがあります。

혹시 수첩을 못 보ㄴ 거ㄴ가 싶어 구사나기는 다시 한 번 수첩을 얼굴 앞으로
들어 보여ㄴ다。

或是 手帖을 못 본 건가 싶어 驅使나기는 다시 한 番 手帖을 얼굴 앞으로
들어 보였다。

혹시 수첩을 못 본 건가 싶어 구사나기는 다시 한 번 수첩을 얼굴 앞으로
들어 보였다。

もしかしたら手帳を見られなかったのかと思って、草薙はもう一度手帳を顔の前に聞いて見えた。

“무슨 일이 ㅂ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どうしたの？」

남자는 수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 ㄴ 채 물어 ㅅ 다。

男子는 手帖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물었다。

남자는 수첩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물었다。

男は手帳には注目すら与えずに尋ねた。

하지만 구사나기 일행이 형사라는 사실은 안 것 같아 ㅅ 다。

하지만 驅使나기 一行이 刑事라는 事實은 安 것 같았다。

하지만 구사나기 일행이 형사라는 사실은 안 것 같았다。

だが、草薙一行が刑事という事実は知らないようだった。

구사나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ㅅ 다。

驅使나기는 洋服 안주머니에서 寫眞 한 張을 꺼냈다。

구사나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草薙はスーツの中のポケットから写真一枚を取り出した。

도가시가 중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일하^는 때의 사진이어^는다。

도가市街 中古 自動車 販賣店에서 일할 때의 寫眞이었다。

도가시가 중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일할 때의 사진이었다。

とが市が中古自動車販売店で働く時の写真だった。

“조금 오래되^는 사진이기^는 하^는니다만, 혹시 이런 사람을 최근에 보^는 적이 있으시^는지요?”

“조금 오래된 寫眞이긴 합니다만, 或은 이런 사람을 最近에 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런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있으신지요?”

「少し古い写真ではありますが、もしかしたらこんな人を最近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남자는 잠시 사진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고 구사나기를 보아^는다。

男子는 暫時 寫眞을 凝視하다가 고개를 들고 驅使나기를 보았다。

남자는 잠시 사진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고 구사나기를 보았다。

男はしばらく写真を見つめながら首を運んで駆け抜けを見た。

“모르는 사람이^는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知らない人です。

“네, 그러시 ㄴ 거라고 생각하 ㄴ 니다.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はい、そうだと思います。

그러니까 혹시 비슷하게 생기 ㄴ 사람이라도 보 ㄴ 적이 있으시다든지……。

그러니까 或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으시다든지……。

그러니까 혹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으시다든지……。

だから、もしかしたら似たような人でも見たことがあるとか…。 …。

“어디서 말이 ㄴ 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どこで？」

“네? 아……, 예를 들어 요 근처라든지……。

“네? 아……, 例를 들어 요 近處라든지……。

“네? 아……, 예를 들어 요 근처라든지……。

「はい？ ああ… …、例えばヨの近くとか… …。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한 번 사진으로 눈길을 떨어뜨려ㄴ다。

男子는 眉間을 찌푸리더니 다시 한 番 寫眞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한 번 사진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男は眉間を刺すと、もう一度写真で目を落とした。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해ㄴ다。

某를 可能性이 크다고 驅使나기는 생각했다。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知らない可能性が大きいと言われると思った。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わかりません。

남자가 대답해ㄴ다。

男子가 對答했다。

남자가 대답했다。

男が答えた。

“길에서 스쳐 지나가 ㄴ 정도로는 기억하 ㄴ 수 없으니까요。

“길에서 스쳐 지나간 程度로는 記憶할 수 없으니까요。

“길에서 스쳐 지나간 정도로는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道を通り過ぎたくらいでは覚えられませんからね。

“그렇겠쥬。

“그렇겠쥬。

“그렇겠쥬。

「そうですね。

애초에 이 남자에게 탐문을 시작하 ㄴ 게 잘못이어 ㄴ 다며 구사나기는 후회해 ㄴ 다。

애初에 이 男子에게 探問을 始作한 게 잘못이었다며 驅使나기는 後悔했 다。

애초에 이 남자에게 탐문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다며 구사나기는 후회했 다。

そもそもこの男に探検を始めたのが間違っていたと言われるのは後悔した。

“저, 언제나 이 시각에 귀가하시 ㄴ 니까?”

“저, 언제나 이 時刻에 歸家하십니까?”

“저, 언제나 이 시각에 귀가하십니까?”

「私、いつもこの時刻に帰りますか？」

“아니요, 그날그날 다르 ㅅ니다.

“아니요, 그날그날 다릅니다.

“아니요, 그날그날 다릅니다.

「いいえ、その日はその日が異なります。

클럽 활동이 늦어지 ㅅ 때도 있어서요.

클럽 活動이 늦어질 때도 있어서요.

클럽 활동이 늦어질 때도 있어서요.

クラブ活動が遅れる時もあります。

“클럽 활동이라고요?”

“클럽 活動이라고요?”

“클럽 활동이라고요?”

「クラブ活動ですか？」

“유도부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誘導不 顧問을 맡고 있습니다.

“유도부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誘導部顧問を務めています。

그리고 유도장 문단속이 제 책임이라서요。

그리고 誘導章 門團束이 제 責任이라서요。

그리고 유도장 문단속이 제 책임이라서요。

そして柔道長文取締りが私の責任です。

“아, 학교 선생님이시군요。

“아, 學校 先生님이시군요。

“아, 학교 선생님이시군요。

「あ、学校の先生ですね。

“예, 고등학교 교사이 ㅂ니다。

“예, 高等學校 教師입니다。

“예,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はい、高校の先生です。

남자가 학교 이름을 말해 주어 ㅅ다。

男子가 學校 이름을 말해 주었다。

남자가 학교 이름을 말해 주었다。

男が学校の名前を教えてくれた。

“그러셔썩군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そうでしたね。

피곤하시 ㄹ 데 ㄴ 데 실례가 많아썩습니다。

疲困하실 텐데 失禮가 많았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실례가 많았습니다。

疲れてしまうのに失礼が多かったです。

구사나기가 고개를 숙여썩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숙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숙였다。

草薙が頭を下げた。

그때 현관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수학 참고서가 눈에 들어와썩다。

그때 玄關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數學 參考書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현관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수학 참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その時玄関の片隅にたまっている数学参考書が目に入った。

수학 선생이라는 것을 알자 괜히 진절머리가 나는 느낌이어썩다。

數學 先生이라는 것을 알자 괜히 진절머리가 나는 느낌이었다.

수학 선생이라는 것을 알자 괜히 진절머리가 나는 느낌이었다.

数学の先生であることを知ると、まさに真剣に頭が出る感じだった。

구사나기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驅使나기가 第一 싫어하는 科目이 數學이다.

구사나기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草薙が一番嫌いな科目が数学だ。

“저, 이시가미……라고 읽나요? 문패에 적혀 있는 거 ㄴ 봐 ㅅ 습니다만.

“저, 이時가美……라고 읽나요? 門牌에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만.

“저, 이시가미……라고 읽나요? 문패에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만.

「私、石神… …と読みますか？表札に書かれているのを見ましたが。

“네, 이시가미가 맞습니다.

“네, 이時加味가 맞습니다.

“네, 이시가미가 맞습니다.

「はい、石神が正しいです。

“그럼 이시가미 씨, 3월 10일에는 어때 ㅅ 습니까, 몇 시쯤 귀가하셔 ㅅ 나요?”

“그럼 이時가美 氏, 3 月 10 日에는 어땀습니까, 몇 時쯤 귀가하셨나요?”

“그럼 이시가미 씨, 3월 10일에는 어땠습니까, 몇 시쯤 귀가하셨나요?”

「じゃあ石上さん、3月10日にはどうでしたか、何時くらい帰りましたか？」

“3월 10일……, 그날이 왜요?”

“3月 10日……, 그날이 왜요?”

“3월 10일……, 그날이 왜요?”

「3月10日… …、その日はなぜですか？」

“아니, 이시가미 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니, 이시가미 씨와는 아무 關係도 없습니다.

“아니, 이시가미 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いや、石上さんとは何の關係もありません。

다만 저희가 그날에 관하 ㄴ 정보를 모으고 있어서요.

다만 저희가 그날에 關한 情報를 모으고 있어서요.

다만 저희가 그날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어서요.

ただ、私たちがその日に関する情報を集めています。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あ、そうですか。

3월 10일이라……。

3 月 10 日이라……。

3월 10일이라……。

3 月 10 日だから… … 。

이시가미는 아득하 ㄴ 눈길로 기억을 더듬는 듯하 ㄴ 표정을 보이다가 이내 구사
나기에게 시선을 돌려 ㅅ 다。

이時加味는 아득한 눈길로 記憶을 더듬는 듯한 表情을 보이다가 以內 驅使
나기에게 視線을 돌렸다。

이시가미는 아득한 눈길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보이다가 이내 구사
나기에게 시선을 돌렸다。

石神は遥かな目で記憶をたどるような表情を見せたが、内草に目を向けた。

“그날은 일찍 귀가해 ㅅ 습니다。

“그날은 일찍 歸家했습니다。

“그날은 일찍 귀가했습니다。

「その日は早く帰宅しました。

일곱 시쯤 아니어 ㅅ으 ㄴ 까 싶으 ㄴ 데요。

일곱 時쯤 아니었을까 싶는데요。

일곱 시쯤 아니었을까 싶는데요。

七時頃じゃなかったかと思います。

“그때 이웃집은 어때 ㄴ습니까?”

“그때 이웃집은 어땀습니까?”

“그때 이웃집은 어땀습니까?”

「当時隣人はどうでしたか？」

“이웃집이라니요?”

“이웃집이라니요?”

“이웃집이라니요?”

「隣人ですか？」

“하나오카 씨 덕 말이 ㅂ니다。

“하나오카 氏 宅 末입니다。

“하나오카 씨 덕 말입니다。

「花岡さんのおまえです。

구사나기가 음성을 낮추고 대답해 ㄴ다。

驅使나기가 音聲을 낮추고 對答했다。

구사나기가 음성을 낮추고 대답했다.

草薙が声を下げて答えた。

“하나오카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셨나요?”

“하나오카 氏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하나오카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요?”

「花岡さんに何が起こったの？」

“아니요,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 困難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いいえ、まだ何と言うのは難しいです。」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ㄴ 거고요。

그래서 情報가 必要한 거고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だから情報が必要なんです。

이시가미의 얼굴에 뭐ㄴ가를 헤아리는 듯하ㄴ 표정이 떠올라ㄴ다。

이時加味の 얼굴에 뭔가를 헤아리는 듯한 表情이 떠올랐다。

이시가미의 얼굴에 뭔가를 헤아리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石神の顔に何かを計るような表情が浮かんだ。

이웃집 모녀에 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해 보아^ㄴ는지도 모르^ㄴ다。

이웃집 母女에 關해 이런저런 想像을 해 보았는지도 모른다。

이웃집 모녀에 관해 이런저런 상상을 해 보았는지도 모른다。

近所の母娘についていろいろな想像をしてみたのかもしれない。

실내의 분위기로 봐서 이 남자는 독신이 ^ㄴ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해^ㄴ다。

室內의 雰圍氣로 봐서 이 男子는 獨身일 것이라고 驅使나기는 斟酌했다。

실내의 분위기로 봐서 이 남자는 독신일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했다。

室内の雰圍氣で見て、この男は独身だろうと駆け抜けは推測した。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딱히 이상하^ㄴ 점은 없어^ㄴ던 것 같으^ㄴ데요。

“記憶은 잘 나지 않지만, 딱히 異常한 點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記憶はうまくいかないが、特に奇妙な点はなかったようですが。

이시가미가 대답해^ㄴ다。

이時加味가 對答했다。

이시가미가 대답했다。

石神が答えた。

“무슨 소리가 나^ㅅ다든지, 이야기 소리가 들려^ㅅ다든지, 그런 일도 없^ㅅ습니
까?”

“무슨 소리가 났다든지,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습니
까?”

“무슨 소리가 났다든지,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습니
까?”

「どんな音がしたのか、話の音が聞こえたのか、そんなこともなかったの
ですか？」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まあ。

이시가미가 고개를 가웃해^ㅅ다。

이時加味가 고개를 가웃했다。

이시가미가 고개를 가웃했다。

石神が首を傾けた。

“기억에 남으^ㄴ 만한 일은 없^ㅅ던 것 같습니다。

“記憶에 남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思い出に残る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ようです。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하나오카 씨와는 친하게 지내시 ㅅ니까?”

하나오카 氏와는 親하게 지내십니까?”

하나오카 씨와는 친하게 지내십니까?”

花岡さんとは仲良くしていますか？」

“이웃이니까 마주치면 인사는 나누 ㅅ니다.

“이웃이니까 마주치면 人土는 나눅니다.

“이웃이니까 마주치면 인사는 나눅니다.

「隣人だから出会えば挨拶は分かります。

그 정도예요.

그 程度예요.

그 정도예요.

それくらいで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失禮가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遅い時間にすみませんでした。

“별말씀을요。

“別말씀을요。

“별말씀을요。

「別言します。

이시가미는 고개를 숙이 後 문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時加味는 고개를 숙인 後 文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시가미는 고개를 숙인 후 문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石神は頭を下げた後、扉の内側に手を伸ばした。

거기에 우편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郵便函이 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우편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そこに郵便箱があるからだった。

별생각 없이 그 손끝을 따라가던 구사나기가 한순간 눈을 크게 떠ㄴ다.

別생각 없이 그 손끝을 따라가던 驅使나기가 한瞬間 눈을 크게 떴다.

별생각 없이 그 손끝을 따라가던 구사나기가 한순간 눈을 크게 떴다.

あまり考えずにその指先を追って行った草薙が一瞬目を大きく開いた。

우편물 중에서 ‘데이토 대학’이라는 글자가 보여ㄴ던 것이다.

郵便物 中에서 ‘데이토 大學’이라는 글자가 보였던 것이다.

우편물 중에서 ‘데이토 대학’이라는 글자가 보였던 것이다.

郵便物の中で「デート大学」という文字が見えたのだ。

“저,”

“저,”

“저,”

「私、」

구사나기가 약간 주저하는 태도로 물어ㄴ다.

驅使나기가 若干躊躇하는 態度로 물었다.

구사나기가 약간 주저하는 태도로 물었다.

草薙が少し躊躇する態度で尋ねた。

“혹시 데이토 대학 출신이시니까?”

“或是 데이토 大學 出身이십니까?”

“혹시 데이토 대학 출신이십니까?”

「もしデイト大学出身ですか？」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そうですが。

이시가미의 가느다란 눈도 조금 크게 열려나갔다。

이時加味の 가느다란 눈도 조금 크게 열렸다。

이시가미의 가느다란 눈도 조금 크게 열렸다。

石神の細い目も少し大きく開かれた。

이윽고 그는 자신의 손에 우편물이 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 듯해나갔다。

이윽고 그는 自身の 손에 郵便物이 들려 있다는 事實을 깨달은 듯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손에 우편물이 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やがて彼は自分の手に郵便物が聞こえているという事実を悟ったようだった。

た。

“아, 이것 말이 ㅂ니까? 동창회 회보이 ㅂ니다.

“아, 이것 ㅁ입니까? 同窓會 會報입니다.

“아, 이것 ㅁ입니까? 동창회 회보입니다.

「ああ、これですか？同窓会会報です。

그런데 그게 왜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런데 그게 왜요?”

しかし、なぜですか？」

“아니, 제가 아는 사람도 데이트 대학 출신이라서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도 데이트 大學 出身이라서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도 데이트 대학 출신이라서요.

「いや、私の知る人もデート大学出身ですから。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あ、そうですね。

“자, 그럼 이만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가 보겠습니다.

「さあ、じゃあこれだけ行きましょう。

구사나기는 인사를 하고 이시가미의 집을 나서ㄴ다.

驅使나기는 人士를 하고 이時加味の 집을 나섰다.

구사나기는 인사를 하고 이시가미의 집을 나섰다.

草薙は挨拶をして石神の家を出た。

“데이토 대학이라면 선배가 나오ㄴ 학교잖아요.

“데이토 大學이라면 先輩가 나온 學校잖아요.

“데이토 대학이라면 선배가 나온 학교잖아요.

「デート大学なら先輩が出てきた学校じゃないですか。

그 말은 왜 안 하시ㄴ 거죠?”

그 말은 왜 안 하신 거죠?”

그 말은 왜 안 하신 거죠?”

その言葉はなぜしませんでしたか？」

연립 주택을 벗어나면서 기시타니가 물어ㄴ다.

聯立 住宅을 벗어나면서 기시他니가 물었다.

연립 주택을 벗어나면서 기시타니가 물었다.

連立住宅を抜け出して岸谷が尋ねた。

“기분이 나빠지 **ㄴ**까 봐서。

“氣分이 나빠질까 봐서。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気分が悪くなるか見て。

수학 선생이면 이과 출신이 **ㄴ** 거 아니야。

數學 先生이면 이과 出身일 거 아니야。

수학 선생이면 이과 출신일 거 아니야。

数学先生なら理科出身なんじゃない。

“선배도 이과계 콤플렉스가 있어요?”

“先輩도 理科系 콤플렉스가 있어요?”

“선배도 이과계 콤플렉스가 있어요?”

「先輩にも理科系コンプレックスがありますか？」

기시타니가 히죽거리며 물어^ㅅ다。

기시他니가 히죽거리며 물었다。

기시타니가 히죽거리며 물었다。

岸谷がひざまずいて尋ねた。

“그거 ㄴ 意識하게 만드는 놈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意識하게 만드는 놈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意識하게 만드는 놈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それを意識させようとする奴が近くあるからそう。

구사나기는 유가와 마나부의 얼굴을 떠올려 ㄴ다。

驅使나기는 有價와 마나部の 얼굴을 떠올렸다。

구사나기는 유가와 마나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草薙は湯川とマナブの顔を思い浮かべた。

형사들이 돌아가고 10분 이상 기다려 ㄴ다가 이시가미는 집을 나서 ㄴ다。

刑事들이 돌아가고 10分 以上 기다렸다가 此時加味는 집을 나섰다。

형사들이 돌아가고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이시가미는 집을 나섰다。

刑事が帰って 10分以上待ってから石神は家を出た。

옆집을 힐끗 봐 ㄴ다。

옆집을 힐끗 봤다。

옆집을 힐끗 봤다。

隣の家をすっきり見た。

204호의 창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는 계단을 내려가 ㄴ다。

204 戶의 窓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確認하고서 그는 階段을 내려갔다。

204호의 창에 불빛이 비치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204 号の窓に明かりが映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彼は階段を降りた。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공중전화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10분 가까이 걸어야 한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公衆電話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10 分 가까이 걸어야 한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공중전화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10분 가까이 걸어야 한다。

人々目立たない公衆電話があるところまで行くには 10 分近く歩かなければならない。

그에게는 휴대 전화가 있고 집에 유선 전화도 있지만 그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냈다。

그에게는 携帶 電話가 있고 집에 有線 電話도 있지만 그것들은 使用하지 않는 便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휴대 전화가 있고 집에 유선 전화도 있지만 그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彼には携帯電話があり、家に有線電話もあるが、それらは使わないほうがいいと思った。

공중전화로 걸어가면서 그는 형사들과 나누는 대화를 되새겨 보아냈다。

公衆電話로 걸어가면서 그는 刑事들과 나눈 對話를 되새겨 보았다.

공중전화로 걸어가면서 그는 형사들과 나눈 대화를 되새겨 보았다.

公衆電話で歩いていきながら、彼は刑事たちと交わした対話を振り返ってみた。

그들이 자신과 사건의 관계를 눈치채 ㄴ 만하 ㄴ 실마리는 하나도 주지 않아 ㄴ 다
고 확신해 ㄴ 다。

그들이 自身과 事件의 關係를 눈치챈 만한 실마리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確信했다。

그들이 자신과 사건의 관계를 눈치챈 만한 실마리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彼らが自分と事件の關係に気づいたような糸口は一つも与えなかったと確信
した。

그러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

しかし、湾に一つというものがある。

경찰은 사체를 처리하는 데에 남자의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ㄴ 것이다。

警察은 史체를 處理하는 데에 男子의 손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찰은 사체를 처리하는 데에 남자의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警察は死体を処理するのに男の手が必要だと思うだろう。

하나오카 모녀의 곁에서 그녀들을 위해 범죄에 가담해 줄 만한 남자를 기
를 쓰고 찾으려 하 ㄴ 것이다。

하나오카 母女의 곁에서 그女들을 爲해 犯罪에 加擔해 줄 만한 男子를 氣
를 쓰고 찾으려 할 것이다。

하나오카 모녀의 곁에서 그녀들을 위해 범죄에 가담해 줄 만한 남자를 기
를 쓰고 찾으려 할 것이다。

花岡母女のそばで彼女たちのために犯罪に加担してくれるほどの男を起きて
探そうとするだろう。

옆집에 사 ㄴ다는 이유만으로 이시가미라는 수학 교사를 주목하 ㄴ 가능성도 있
다.

옆집에 산다는 理由만으로 이시가미라는 數學 教師를 注目할 可能性도 있
다.

옆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시가미라는 수학 교사를 주목할 가능성도 있
다.

隣に住むという理由だけで石神という数学教師に注目する可能性もある。

앞으로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만나는 일도 삼가야 하 ㄴ다고 이
시가미는 다짐해 ㅆ다。

앞으로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은 勿論이고 直接 만나는 일도 삼가야 한다고

이時加味는 다짐했다。

앞으로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만나는 일도 삼가야 한다고

이시가미는 다짐했다。

今後彼女の家に行くのはもちろん、直接会うことも控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

石神は誓った。

집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집 電話를 利用하지 않는 것도 같은 理由에서다。

집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家の電話を利用しないのも同じ理由からだ。

통화 기록을 조회하 ㄴ 경우 하나오카 야스코와 빈번히 통화하 ㄴ다는 사실을 알

아내 ㄴ 우려가 있다。

通話 記録을 照會할 境遇 하나오카 야스코와 頻繁히 通話한다는 事實을 알

아낼 憂慮가 있다。

통화 기록을 조회할 경우 하나오카 야스코와 빈번히 통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우려가 있다。

通話記録を照会する場合、花岡康子と頻繁に通話するという事実を把握する
恐れがある。

그렇다면 ‘베 ㄴ 테 ㄴ 테이’는……。

그렇다면 ‘벤텐테이’는……。

그렇다면 ‘벤텐테이’는……。

それなら「ベンテンテイ」は… …。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ㄴ다。

거기에 對해서는 아직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そこについてはまだ結論を下していない。

얼핏 생각하면 당분간은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보ㄴ 수도 있어ㄴ다。

얼핏 생각하면 當分間は 가지 않는 便이 낫다고 볼 수도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당분간은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볼 수도 있었다。

一見考えれば当分は行かないほうがいいと見ることもできた。

하지만 형사들은 언젠가는 도시락 가게에도 탐문하러 가ㄴ 것이다。

하지만 刑事들은 언젠가는 도시락 가게에도 探問하러 갈 것이다。

하지만 형사들은 언젠가는 도시락 가게에도 탐문하러 갈 것이다。

だが刑事たちはいつか弁当屋にも探検に行くだろう。

그리고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수학 교사가 거의 날마다 도시락을 사
러 와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ㄴ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數學 教師가 거의 날마다 도시락을

사러 왔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수학 교사가 거의 날마다 도시락을 사러 왔었다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 분명하다。

そして花岡康子の隣に住む数学教師がほぼ日々弁当を買いに来たという話を聞くことになることは明らかだ。

그러 ㄴ 경우, 사건이 일어나 ㄴ 후부터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수상하게 여기 ㄴ 것이다。

그럴 境遇, 事件이 일어난 後부터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殊常하게 여길 것이다。

그럴 경우,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갑자기 오지 않는다면 수상하게 여길 것이다。

その場合、事件が起きた後から突然来ないと怪しいと思うだろう。

여태까지 해 ㄴ 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이 의심을 사지 않는 길 아니 ㄴ 까。

여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行動하는 것이 疑心を 사지 않는 길 아닐까。

여태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이 의심을 사지 않는 길 아닐까。

これまでやったのと同じように行動することが疑いを買わない道ではないだろうか。

이시가미는 그 문제에 관해서만은 가장 논리적이 ㄴ 해답을 선택하 ㄴ 자신이 없
어 ㄴ 다。

이時加味는 그 問題에 關해서만은 가장 論理的인 解答을 選擇할 自身이 없
었다。

이시가미는 그 문제에 관해서만은 가장 논리적인 해답을 선택할 자신이 없
었다。

石神はその問題に関してだけでは最も論理的な答えを選ぶ自信がなかった。

평소처럼 ‘베 ㄴ 테 ㄴ 테이’에 가서 도시락을 사고 싶으 ㄴ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
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平素처럼 ‘벤텐테이’에 가서 도시락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벤텐테이’에 가서 도시락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いつものように'ベンテンテイ'に行って弁当を買いたい気持ちが自分の中に
あることを自らよく分かるからだ。

‘베 ㄴ 테 ㄴ 테이’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그를 잇는 유일하 ㄴ 점점이다。

‘벤텐테이’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그를 잇는 唯一한 接點이다。

‘벤텐테이’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그를 잇는 유일한 점점이다。

「弁天亭」は花岡康子と彼を結ぶ唯一の接点だ。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는 그녀를 만나 ㄴ 수 없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는 그女를 만날 수 없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

そこに行かなければ、彼は彼女に会えない。

목적하 ㄴ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해 ㄴ 다.

目的한 公衆電話 부스에 到着했다.

목적한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했다.

目的の公衆電話ブースに到着した。

전화 카드를 꺼내 공중전화기에 넣는다.

電話 카드를 꺼내 空中電話機에 넣는다.

전화 카드를 꺼내 공중전화기에 넣는다.

電話カードを取り出して公衆電話に入れる。

동료 교사의 아기 사진이 인쇄되 ㄴ 카드다.

同僚 教師의 아기 寫眞이 印刷된 카드다.

동료 교사의 아기 사진이 인쇄된 카드다.

同僚教師の赤ちゃん写真が印刷されたカードだ。

하나오카 야스코의 휴대 전화 번호를 눌렀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携帯 電話 番號를 눌렀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휴대 전화 번호를 눌렀다。

花岡康子の携帯電話番号を押した。

집 전화에는 경찰이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 電話에는 警察이 盜聽 裝置를 設置해 두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 전화에는 경찰이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家の電話には警察が盗聴装置を設置しておいたかもしれないからだ。

민간인에 대해서는 도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民間人に 對해서는 盜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警察의 主張이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도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民間人に対しては盜聽をしないというのが警察の主張だが、彼はその言葉を信じな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こんにちは。

야스코가 전화를 받아냈다.

야스코가 電話를 받았다.

야스코가 전화를 받았다.

ヤスコが電話を受けた。

자신이 연락하 ㄴ 경우 공중전화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해 두어냈다.

自身이 連絡할 境遇 公衆電話를 利用하겠다는 말을 해 두었다.

자신이 연락할 경우 공중전화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해 두었다.

自分が連絡する場合、公衆電話を利用するという話をしておいた。

“이시가미이 ㄴ니다.

“이時加味입니다.

“이시가미입니다.

「石神です。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방금 저희 집에 형사가 다녀가셨습니다。

“方今 저희 집에 刑事가 다녀갔습니다。

“방금 저희 집에 형사가 다녀갔습니다。

「私の家に刑事が行きました。

그쪽에도 찾아가셨으 테지요。

그쪽에도 찾아갔을 테지요。

그쪽에도 찾아갔을 테지요。

そちらにも訪れたはずです。

“네, 조금 전에 와 있었어요。

“네, 조금 前に 왔었어요。

“네, 조금 전에 왔었어요。

「はい、少し前に来ました。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何と言いましたか？」

야스코가 말하는 내용을 이시가미는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분석해 기억해 두었다.

야스코가 말하는 내용을 이시加味는 머릿속에서 整理하고 分析해 記憶해 두었다.

야스코가 말하는 내용을 이시가미는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분석해 기억해 두었다.

ヤスコが言う内容を石神は頭の中でまとめて分析して覚えておいた。

아무래도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야스코를 특별히 의심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래도 現 段階에서는 警察李 야스코를 特別히 疑心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래도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야스코를 특별히 의심하는 것 같지 않다.

どうやら現段階では警察がヤスコを特に疑うようではない。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ㄴ 절차일 뿐이다.

알리바이를 確認하는 것은 基本的인 節次일 뿐이다.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일 뿐이다.

アリバイを確認するのは基本的な手順に過ぎない。

남는 수사력으로 일단 속속들이 조사해 두자는 정도가 아니ㄴ까.

남는 捜査力으로 一旦 속속들이 調査해 두자는 程度가 아닐까.

남는 수사력으로 일단 속속들이 조사해 두자는 정도가 아닐까.

残る捜査力でいったん続々が調査しておこう程度ではないだろうか。

그러나 도가시의 행적이 드러나 그가 야스코를 만나러 와^ㅅ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 형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녀에게 달려드^ㄴ 것이다。

그러나 도가시의 行跡이 드러나 그가 야스코를 만나러 왔었다는 事實이 알
려지면 刑事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女에게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도가시의 행적이 드러나 그가 야스코를 만나러 왔었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 형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녀에게 달려들 것이다。

しかし、嵯峨市の行動が明らかになり、彼がヤスコに会いに来たという事実
が分かれば、刑事が目に火をつけて彼女に駆け寄るだろう。

그리고 그녀가 최근에 도가시를 만나^ㄴ 적이 없다고 하^ㄴ 것에 대해 추궁하^ㄴ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女가 最近에 도가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對해 追窮할 것
이 分明하다。

그리고 그녀가 최근에 도가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추궁할
것이 분명하다。

そして彼女が最近ドガシに会ったことがないとしたことについて追及するこ
とは明らかだ。

거기에 대하^ㄴ 방어책은 이미 그녀에게 알려 놓아^ㅅ다。

거기에 對한 防禦冊은 이미 그女에게 알려 놓았다。

거기에 대한 방어책은 이미 그녀에게 알려 놓았다.

そこに対する防衛策はすでに彼女に知らせておいた。

“따님도 형사를 만나셨나요?”

“따님도 刑事를 만났나요?”

“따님도 형사를 만났나요?”

「娘さんも刑事に会いましたか？」

“아니요, 미사토는 안쪽 방에 있었어요.

“아니요, 미사토는 안쪽 房에 있었어요.

“아니요, 미사토는 안쪽 방에 있었어요.

「いや、ミサトは奥の部屋にいたんです。

“그래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하지만 언젠가는 따님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 ㄴ 거 ㄴ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따님의 이야기도 들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따님의 이야기도 들으려 할 겁니다.

しかし、いつかは娘さんの話も聞こうとするでしょう。

그러 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이미 말씀드려 ㄴ고요。

그럴 境遇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そんな場合、どのように対処すべきかはすでに申し上げました。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記憶하고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はい、よく覚えています。

딸아이도 알아서 잘하 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 ㄴ고요。

딸아이도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딸아이도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娘も知ってうまくいくから心配しないように言いました。

“ 똑같은 ㅓ 말을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절대로 연기하 ㄴ 필요는 없습니다。

“ 똑같은 말을 反復해서 未安하지만, 絶對로 演技할 必要는 없습니다。

“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절대로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同じ言葉を繰り返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が、決して延期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せん。

묻는 말에 기계적으로 대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묻는 말에 機械的に 對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묻는 말에 기계적으로 대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質問に機械的に答えるだけです。

“네, 미사토에게도 다시 한 번 그렇게 말해 두겠습니다。

“네, 미사토에게도 다시 한 番 그렇게 말해 두겠습니다。

“네, 미사토에게도 다시 한 번 그렇게 말해 두겠습니다。

「はい、ミサトにももう一度そうっておきます。

“그거 ㄴ 그렇고, 영화표를 형사에게 보여 주셔 ㄴ 습니까?”

“그건 그렇고, 映畫票를 刑事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그건 그렇고, 영화표를 형사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ところで、映画票を刑事に見せてくれましたか？」

“아뇨, 안 보여 줬 ㄴ 어요。

“아뇨, 안 보여 줬어요。

“아뇨, 안 보여 줬어요。

「いいえ、見せてくれませんでした。

보여 달라고 하 ㄴ 때까지 보여 주지 말라고 하셔 ㄴ잖아요。

보여 달라고 할 때까지 보여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보여 달라고 할 때까지 보여 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見せてもらうまで見せてはいけないと言われたでしょう。

“아, 잘하셔 ㄴ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ああ、よくできました。

남으 ㄴ 영화표 반쪽은 어디다 두셔 ㄴ죠?”

남은 映畫票 半쪽은 어디다 두셨죠?”

남은 영화표 반쪽은 어디다 두셨죠?”

残りの映画票の半分はどこに置いたのですか？」

“서랍 속에 있는데요。

“서랍 속에 있는데요。

“서랍 속에 있는데요。

「引き出しの中にあります。

“팸플릿 속에 끼워 두세요。

“팸플릿 속에 끼워 두세요.

“팸플릿 속에 끼워 두세요.

「パンフレットの中にはめ込みましょう。

사용하고 나 ㄴ 영화표를 소중히 보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使用하고 난 映畫票를 所重히 保管하는 사람은 別로 없습니다.

사용하고 난 영화표를 소중히 보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使ってきた映画票を大切に保管する人はあまりありません。

서랍 속에 넣어 두면 의심을 사 ㄴ 수도 있어요.

서랍 속에 넣어 두면 疑心を 살 수도 있어요.

서랍 속에 넣어 두면 의심을 살 수도 있어요.

引き出しの中に入れておけば疑いを買うこともできます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ところで、」

이시가미는 침을 삼켜ㄴ다。

이時加味는 침을 삼켰다。

이시가미는 침을 삼켰다。

石神は唾液を飲み込んだ。

수화기를 쥐 ㄴ 손에 힘이 들어가ㄴ다。

受話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受話器を握った手に力が入った。

“제가 자주 도시락을 사러 가 ㄴ다는 사실을 ‘베 ㄴ테 ㄴ테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도시락을 사러 간다는 事實을 ‘벤텐테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주 도시락을 사러 간다는 사실을 ‘벤텐테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私が頻繁に弁当を買いに行くという事実を「ベンテンテー」の人々が知っていますか？」

“네?”

“네?”

“네?”

「はい？」

갑작스러 ㄴ 질문에 야스코는 말문이 막히는 듯해 ㅅ다。

갑작스런 質問에 야스코는 말門이 막히는 듯했다。

갑작스런 질문에 야스코는 말문이 막히는 듯했다。

突然の質問に、ヤスコは言葉が詰まっているようだった。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남자가 도시락을 사러 자주 가 ㄴ다는 사실을 가게 사람들
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거 ㅂ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男子가 도시락을 사러 자주 간다는 事實을 가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남자가 도시락을 사러 자주 간다는 사실을 가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겁니다。

「だから、隣の家に住む男が弁当を買いに行くことが多いという事実を、店
の人々がどう思うか尋ねるのです。

이거 ㄴ 중요하 ㄴ 일이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건 重要な 일이니까 率直하게 對答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これは重要なことなので正直に答えてください。

“아, 그게…… 자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_ㄴ다고 점장이 말하_ㄴ 적이 있어요。

“아, 그게…… 자주 利用해 주셔서 感謝하게 생각한다고 店長이 말한 적이 있어요。

“아, 그게…… 자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점장이 말한 적이 있어요。

「あ、それは… …よくご利用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店長が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

“제가 이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겠군요。

“제가 이웃이라는 事實도 알고 있겠군요。

“제가 이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겠군요。

「私が隣人だという事実も知っていますね。

“네。

“네。

“네。

「はい。

저, 그럼 안 되는 거 ㄴ가요?”

저,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저, 그럼 안 되는 건가요?”

私、それではダメですか？」

“아뇨, 그거 ㄴ 제가 생각하 ㄴ 일이 ㅂ니다.

“아뇨, 그건 제가 생각할 일입니다.

“아뇨, 그건 제가 생각할 일입니다.

「いいえ、それは私が思うことです。

어쨌든 야스코 씨는 약속하 ㄴ 대로만 행동해 주세요.

어쨌든 야스코 氏は 約束한 대로만 行動해 주세요.

어쨌든 야스코 씨는 약속한 대로만 행동해 주세요.

とにかく康子さんは約束どおりに行動してください。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ご存知ですか？」

“네, 그러 ㄴ게요.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はい、そうです。

“그럼 이만。

“그럼 이만。

“그럼 이만。

「じゃあこれだけ。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다。

이時加味는 受話器를 귀에서 뗐다。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귀에서 뗐다。

石神は受話器を耳から離した。

“아, 저, 이시가미 씨。

“아, 저, 이時가美 氏。

“아, 저, 이시가미 씨。

「あ、私、石上さん。

야스코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스코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야스코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ヤスコが呼ぶ音が聞こえた。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なぜそうなの？」

“여러 가지로 감사하 ㅅ ㅅ니다。

“여러 가지로 感謝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いろい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은혜는 잊지 않으 ㅅ ㅅ게요。

恩惠는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恵みは忘れません。

“아니……, 이만 끝겠습니다。

“아니……, 이만 끝겠습니다。

“아니……, 이만 끝겠습니다。

「いいえ… …、これだけ切れます。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에 그는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아 ㅅ ㅅ다。

그女の 마지막 한마디에 그는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에 그는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彼女の最後の一言に彼は全身の血が沸騰するようだった。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차 ㄴ 바람마저 기분 좋게 느껴져 ㄴ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찬 바람마저 氣分 좋게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찬 바람마저 기분 좋게 느껴졌다.

顔が熱くなって冷たい風さえも気持ちよく感じられた。

겨드랑이에는 땀까지 차 있어 ㄴ다.

겨드랑이에는 땀까지 차 있었다.

겨드랑이에는 땀까지 차 있었다.

脇には汗まで冷えていた。

행복하 ㄴ 기분에 젖은 채 이시가미는 발길을 돌려 ㄴ다.

幸福한 氣分に 濡れた 채 이市加味는 발길을 돌렸다.

행복한 기분에 젖은 채 이시가미는 발길을 돌렸다.

幸せな氣分に濡れたまま石上は足を回した。

그러나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아 ㄴ다.

그러나 그런 氣分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しかし、そんな気持ちは長くはなかった。

‘베 ㄴ 테 ㄴ 테이’에서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어ㄴ기 때문이다。

‘벤텐테이’에서 自身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벤텐테이’에서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ベンテンテー」で自分を知っているという話を聞いたからだ。

그는 형사에게 한 가지 실수를 범해ㄴ다는 사실을 깨달아ㄴ다。

그는 刑事에게 한 가지 失手를 犯했다는 事實을 깨달았다。

그는 형사에게 한 가지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彼は刑事に一つの間違いを犯したという事実を悟った。

하나오카 야스코와의 관계를 물어ㄴ으ㄴ 때, 인사만 나누는 정도라고 대답해ㄴ

으ㄴ 뿐 그녀가 일하는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ㄴ다는 말을 하지 않아ㄴ던 것이

다。

하나오카 야스코와의 關係를 물었을 때, 人士만 나누는 程度라고 對答했을

뿐 그女가 일하는 가게에서 도시락을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오카 야스코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 인사만 나누는 정도라고 대답했
을 뿐 그녀가 일하는 가게에서 도시락을 산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다。

花岡康子との關係を聞いた時、あいさつだけ分ける程度だと答えただけで、

彼女が働くお店で弁当を買うという言葉をしなかったのだ。

“하나오카 야스코의 알리바이에 대한 뒷조사는 해 봤어?”

“하나오카 야스코의 알리바이에 對한 뒷調査는 해 봤어?”

“하나오카 야스코의 알리바이에 대한 뒷조사는 해 봤어?”

「花岡康子のアリバイについての後調査はしてみた？」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를 자기 자리로 불러 놓고 마미야는 손톱을 깎으면서 물어
는다。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를 자기 자리로 불러 놓고 마미야는 손톱을 깎으면서
물었다。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를 자기 자리로 불러 놓고 마미야는 손톱을 깎으면서
물었다。

草薙と岸谷を自分の席に呼び、マミヤは爪を削りながら尋ねた。

“노래방에는 가 보아습니까。

“노래房에는 가 보았습니다。

“노래방에는 가 보았습니다。

「カラオケには行ってみました。

구사나기가 대답해는다。

驅使나기가 對答했다。

구사나기가 대답했다。

草薙が答えた。

“종업원이 기억하고 있어ㄴ습니다。

“従業員が記憶하고 있었습시다。

“종업원이 기억하고 있었습시다。

「従業員が覚えていました。

이미 낮이 익어ㄴ나 보더라고요。

이미 낮이 익었나 보더라고요。

이미 낮이 익었나 보더라고요。

既に見知らぬ人かボーダーですよ。

기록도 남아 있어ㄴ는데, 아홉 시 사십 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러ㄴ
더군요。

記錄도 남아 있었는데, 아홉 時 四十 分부터 한 時間 半 동안 노래를 불렀
더군요。

기록도 남아 있었는데, 아홉 시 사십 분부터 한 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
렀더군요。

記録も残っていましたが、9時40分から1時間半の間歌を歌いましたね。

“그러기 전에는?”

“그러기 前에는?”

“그러기 전에는?”

「そうする前は？」

“하나오카 모녀가 본 ㅅ 영화는 시간상 일곱 시 정각에 상영하 ㅅ 영화이 ㅅ 것 같습니다。

“하나오카 ㅅ녀가 본 映畵는 時間上 일곱 時 正刻에 上映한 映畵인 것 같습니다。

“하나오카 모녀가 본 영화는 시간상 일곱 시 정각에 상영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花岡母女が見た映画は、時間上七時、正刻に上映した映画のようです。

끝나 ㅅ 시각은 아홉 시 십 분。

끝난 時刻은 아홉 時 十 分。

끝난 시각은 아홉 시 십 분。

終わった時刻は 9 時 10 分。

그 후 라면집에 가 ㅅ다고 하니까 앞뒤가 들어맞습니다。

그 後 라면집에 갔다고 하니까 앞뒤가 들어맞습니다。

그 후 라면집에 갔다고 하니까 앞뒤가 들어맞습니다。

その後ラーメン屋に行ったというから前後が当てはまります。

수첩을 보면서 구사나기가 보고해^ㅆ다.

手帖을 보면서 驅使나기가 報告했다.

수첩을 보면서 구사나기가 보고했다.

手帳を見ながら草薙が報告した。

“앞뒤가 맞는지 어떠^ㄴ지를 묻는 게 아니야.

“앞뒤가 맞는지 어떤지를 묻는 게 아니야.

“앞뒤가 맞는지 어떤지를 묻는 게 아니야.

「前後が合うかどうかを尋ねるのではない。

실제로 가^ㅆ느냐는 거지.

實際로 갔느냐는 거지.

실제로 갔느냐는 거지.

實際に行ったのかということだ。

구사나기는 수첩을 덮고 어깨를 으쓱해^ㅆ다.

驅使나기는 手帖을 덮고 어깨를 으쓱했다.

구사나기는 수첩을 덮고 어깨를 으쓱했다.

草薙は手帳を覆って肩をすくめた。

“그거^ㄴ 못 알아봐^ㅆ습니다.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

“그건 못 알아봤습니다.

「それがわかりませんでした。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それでもいいの？」

마미야가 구사나기를 힐끗 올려다봐^ㄴ다。

마미야가 驅使나기를 힐끗 올려다봤다。

마미야가 구사나기를 힐끗 올려다봤다。

真宮が駆けつけをキレイに見上げた。

“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영화관이나 라면집이 알리바이 알아내기가 제일 어
려우^ㄴ 장소라는 것어요。

“班長님도 잘 아시잖아요, 映畫館이나 라면집이 알리바이 알아내기가 第一
어려운 場所라는 것어요。

“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영화관이나 라면집이 알리바이 알아내기가 제일
어려운 장소라는 것어요。

「クラスメートもよく知っているじゃないですか、映画館やラーメン屋さん

가アリバイを調べるのが一番難しい場所だということです。

구사나기의 볼멘소리를 들으며 마미야는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驅使나기의 볼멘소리를 들으며 마미야는 名銜 한 張을 冊床 위에 올려놓았다.

구사나기의 볼멘소리를 들으며 마미야는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草薙のボルメン音を聞きながら、マミヤは名刺一枚を机の上に載せた。

‘클럽 마리아 ㄴ’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 ㄴ다.

‘클럽 마리안’이라는 글자가 印刷되어 있었다.

‘클럽 마리안’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クラブマリアン」という文字が印刷されていた。

주소는 기 ㄴ시초.

住所는 긴市草。

주소는 긴시초.

住所は錦糸町。

“뭐 ㄴ니까, 이거 ㄴ?”

“웁니까, 이건?”

“웬니까, 이건?”

「何ですか、これは？」

“야스코가 전에 근무해^ㅆ던 가게야。

“야스코가 前に 勤務했던 가게야。

“야스코가 전에 근무했던 가게야。

「ヤスコが以前働いていたお店だ。

3월 5일에 도가시가 이곳에 들러^ㅆ어。

3 月 5 日に 도가시가 이곳에 들렀어。

3월 5일에 도가시가 이곳에 들렀어。

3 月 5 日に戸ヶ市がここに立ち寄った。

“죽기 5일 전이군요。

“죽기 5 日 前이군요。

“죽기 5일 전이군요。

「死ぬ 5 日前ですね。

“야스코에 대해 꼬치꼬치 묻고 가^ㅆ나 봐。

“야스코에 對해 꼬치꼬치 묻고 갔나 봐。

“야스코에 대해 꼬치꼬치 묻고 갔나 봐。

「ヤスコについて串焼きを聞いて行ってみた。

이쯤 얘기해 ㄴ으면 아무리 멍청하 ㄴ 자네라도 무슨 뜻이 ㄴ지 아 ㄴ 테지。

이쯤 얘기했으면 아무리 멍청한 자네라도 무슨 뜻인지 알 테지。

이쯤 얘기했으면 아무리 멍청한 자네라도 무슨 뜻인지 알 테지。

この頃話したらいくら愚かな君でもどういう意味なのかアルテジ。

마미야는 구사나기와 기시타니의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ㄴ다。

마미야는 驅使나기와 기시他니의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미야는 구사나기와 기시타니의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真宮は草薙と岸谷の後ろを指で指した。

“빨리 가서 조사해 봐。

“빨리 가서 調査해 봐。

“빨리 가서 조사해 봐。

「早く行って調べてみて。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시 야스코에게 가 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시 야스코에게 가 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시 야스코에게 가 보고。

何も出なくなったらまたヤスコに行ってみて。

5

5

5

5

네모나 ㄴ 상자에 길이 30센티미터 정도의 막대기가 세워져 있어 ㄴ다.

네모난 箱子에 길이 30센티미터 程度の 막대기가 세워져 있었다.

네모난 상자에 길이 30센티미터 정도의 막대기가 세워져 있었다.

四角い箱に長さ 30 センチメートル程度の棒が立てられていた。

그 막대기에는 지름 몇 센티미터 정도의 고리가 꿰여 있다.

그 막대기에는 지름 몇 센티미터 程度の 고리가 꿰여 있다.

그 막대기에는 지름 몇 센티미터 정도의 고리가 꿰여 있다.

その棒には直径数センチメートル程度の輪が縫われている。

흡사 고리 던지기 장난감처럼 생겨 ㄴ다.

恰似 高리 던지기 장난감처럼 생겼다.

흡사 고리 던지기 장난감처럼 생겼다.

似て輪を投げるおもちゃのように見えた。

다른 점이 있다면 상자에서 코드가 뺀어 나와 있고 그 끝에 스위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點이 있다면 箱子에서 코드가 뺀어 나와 있고 그 끝에 스위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상자에서 코드가 뻗어 나와 있고 그 끝에 스위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違う点があるなら、箱からコードが伸びて出ていて、その端にスイッチがか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뭐 ㄴ까, 이거 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何か、これは？」

구사나기가 상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해 ㅅ다。

驅使나기가 箱子를 有心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구사나기가 상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草薙が箱を慎重に覗いて言った。

“만지지 않는 게 좋으 ㄴ걸요。

“만지지 않는 게 좋을걸요。

“만지지 않는 게 좋을걸요。

「触れない方がいいでしょう。

기시타니가 주의를 주어 ㅅ다。

기시他니가 注意를 주었다。

기시타니가 주의를 주었다.

岸谷が注意を与えた。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大丈夫。

만져서 위험하 ㄴ 거라면 그놈이 이렇게 내버려 두어 ㄴ 리 없어.

만져서 危險한 거라면 그놈이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리 없어.

만져서 위험한 거라면 그놈이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리 없어.

触って危険なのなら、GNOME がこうして放っておいたはずがない。

구사나기는 상자로 손을 뻗어 ㄴ 다.

驅使나기는 箱子로 손을 뻗었다.

구사나기는 상자로 손을 뻗었다.

草薙は箱で手を伸ばした。

탁,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동시에 막대기에 꿰여 있던 고리가 등실 떠올라 ㄴ

다.

탁,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同時に 막대기에 꿰여 있던 고리가 등실 떠올랐

다.

탁, 스위치가 켜지는 것과 동시에 막대기에 껴여 있던 고리가 동실 떠올랐다.

タック、スイッチが入ると同時に棒に縫われていた輪がふわっと浮かんた。

순간 구사나기는 어, 하고 몸을 움찔해 ㅅ다.

瞬間 驅使나기는 어, 하고 몸을 움찔했다.

순간 구사나기는 어, 하고 몸을 움찔했다.

瞬間草薙はえ、と体を掴んだ。

고리가 떠오르 ㄴ 상태로 너울너울 흔들려 ㅅ다.

고리가 떠오른 狀態로 너울너울 흔들렸다.

고리가 떠오른 상태로 너울너울 흔들렸다.

輪が浮かんた状態で凄いい揺れた。

“고리를 위에서 눌러 봐.

“고리를 위에서 눌러 봐.

“고리를 위에서 눌러 봐.

「輪を上から押してみて。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ㅅ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後ろから声が聞こえた。

구사나기가 돌아보니 유가와가 책과 파일을 끌어안은 채 방으로 들어오는 참
이어ㄴ다。

驅使나기가 돌아보니 有價와假冊과 파일을 끌어안은 채 房으로 들어오는
참이었다。

구사나기가 돌아보니 유가와가 책과 파일을 끌어안은 채 방으로 들어오는
참이었다。

草薙が振り返ってみると、湯川が本とファイルを抱きしめたまま部屋に入る
真だった。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来て。

강의 있어ㄴ어?”

講義 있었어?”

강의 있었어?”

講義があった？」

그렇게 말하면서 구사나기는 유가와가 시키는 대로 고리를 손가락 끝으로 눌러
ㄴ다。

그렇게 말하면서 驅使나기는 有價와가 시키는 대로 고리를 손가락 끝으로
눌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사나기는 유가와가 시키는 대로 고리를 손가락 끝으로
눌렀다。

そう言いながら草薙は湯川がさせるように輪を指先で押した。

그러나 1초도 채 안 되어 그는 손을 황급히 움츠려ㅅ다。

그러나 1秒도 채 안 되어 그는 손을 遑急히 움츠렸다。

그러나 1초도 채 안 되어 그는 손을 황급히 움츠렸다。

しかし、1秒も経っていない彼は手を慌てた。

“앗, 뜨, 뜨, 뜨겁잖아!”

“앗, 뜨, 뜨, 뜨겁잖아!”

“앗, 뜨, 뜨, 뜨겁잖아!”

「あっ、浮き、浮き、熱じゃない！」

“만지면 위험하ㄴ 물건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그거ㄴ 만지는 인
간에게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의 얘기야。

“만지면 危險한 物件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그건 만지는 人
間에게 最小限의 科學的 知識이 있다는 前提下의 얘기야。

“만지면 위험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그건 만지는 인

간에게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야.

「触れれば危険なものをさりげなく放っておくわけではないが、それは触れる人間に最小限の科学的知識があるという前提の話だ。

그리고 유가와는 구사나기 쪽으로 다가와 상자의 스위치를 꺼ㄴ다.

그리고 有價와는 驅使나기 쪽으로 다가와 箱子의 스위치를 껐다.

그리고 유가와는 구사나기 쪽으로 다가와 상자의 스위치를 껐다.

そして湯川は草舟の方に近づいて箱のスイッチを切った。

“고등학교 물리 수준의 실험 도구야, 이거 ㄴ.

“高等學校 物理 水準의 實驗 道具야, 이건.

“고등학교 물리 수준의 실험 도구야, 이건.

「高校物理レベルの実験ツールだよ、これは。

“고등학교 때 나 ㄴ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ㄴ단 말이야.

“高等學校 때 난 물리를 選擇하지 않았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 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야.

「高校時代に私は物理を選ばなかったんだ。

구사나기는 손끝을 후, 불어ㄴ다.

驅使나기는 손끝을 後, 불었다.

구사나기는 손끝을 후, 불었다.

草薙は指先を後、吹いた。

옆에서 기시타니가 쿡쿡 웃어ㄴ다。

옆에서 기시他니가 쿡쿡 웃었다。

옆에서 기시타니가 쿡쿡 웃었다。

隣で岸谷がクッククック笑った。

“이분은 누구시지? 처음 보는 얼굴이ㄴ데。

“이분은 누구시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분은 누구시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これは誰ですか？初めて見る顔なのに。

유가와가 기시타니를 보며 물어ㄴ다。

有價와가 기時타니를 보며 물었다。

유가와가 기시타니를 보며 물었다。

湯川が岸谷を見て尋ねた。

기시타니는 얼른 진지하ㄴ 표정으로 돌아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여ㄴ다。

기시他니는 얼른 眞摯한 表情으로 돌아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

다。

기시타니는 얼른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岸谷はさっさと真剣な表情に戻り、席で立ち上がって首を下げた。

“기시타니이 ㄴ니다。

“기시他니입니다。

“기시타니입니다。

「岸谷です。

구사나기 선배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驅使나기 先輩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구사나기 선배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草薙先輩と一緒に働いています。

유가와 교수님에 대해 ㄴ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有價와 教授님에 對한 所聞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유가와 교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湯川教授に対する噂はよく知っています。

수사에 협력해 주시 ㄴ 적도 여러 번 있다면서요。

捜査에 協力해 주신 적도 여러 番 있다면서요。

수사에 협력해 주신 적도 여러 번 있다면서요.

捜査にご協力いただいたことも何度もあります。

갈리 레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수사 1과에서도 유명하 습니다.

갈릴레오 先生님이라는 呼稱은 捜査 1과에서도 有名합니다.

갈릴레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수사 1과에서도 유명합니다.

ガリレオ先生という呼称は捜査1課でも有名です。

그러자 유가와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휘휘 내저어 쏜다.

그러자 有價와假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휘휘 내저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휘휘 내저었다.

すると湯川が顔をゆがめながら手を振り回した。

“그 호칭은 쓰지 마 습게.

“그 呼稱은 쓰지 말게.

“그 호칭은 쓰지 말게.

「その呼称は書かないで。

좋아서 협력하 ㄴ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좋아서 協力한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좋아서 협력한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好きで協力したわけでもないからね。

이 사내의 비논리적이 ㄴ 사고를 보다 못해서 참견하 ㄴ 것뿐이라네.

이 사내의 非論理的인 事故를 보다 못해서 參見한 것뿐이라네.

이 사내의 비논리적인 사고를 보다 못해서 참견한 것뿐이라네.

この社内の非論理的な思考をよりできずに惨めただけだね。

자네도 이 남자와 행동을 함께하다 보면 골이 딱딱해지는 병에 전염되 ㄴ 거
야。

자네도 이 男子와 行動을 함께하다 보면 골이 딱딱해지는 病에 傳染될 거
야。

자네도 이 남자와 행동을 함께하다 보면 골이 딱딱해지는 병에 전염될 거
야。

君もこの男と行動を共にしてみるとゴールが硬くなる病気に伝染するんだ。

웃음을 터뜨리는 기시타니를 구사나기가 힐끗 노려봐 ㄴ 다。

웃음을 터뜨리는 기시他니를 驅使나기가 힐끗 노려봤다。

웃음을 터뜨리는 기시타니를 구사나기가 힐끗 노려봤다。

笑い声を上げる岸谷を駆け抜けがキレイに狙ってみた。

“뭐 ㄴ 그렇게 웃어! 유가와 자네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그렇게 웃어! 有價와 자네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월 그렇게 웃어! 유가와 자네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何がそんなに笑う！原油と君も言葉をそうしてはいけない。

사건이랑 씨름하는 거 ㄴ 엄청 즐기던데, 월。

事件이랑 씨름하는 걸 엄청 즐기던데, 월。

사건이랑 씨름하는 걸 엄청 즐기던데, 월。

事件と仲良くするのをすごく楽しかったのに、何。

“즐기기 ㄴ 내가 언제 즐거ㄴ다고 그래? 자네 덕분에 논문을 전혀 못 쓰 ㄴ 적도 있어。

“즐기긴 내가 언제 즐겼다고 그래? 자네 徳분에 論文을 전혀 못 쓴 적도 있어。

“즐기긴 내가 언제 즐겼다고 그래? 자네 덕분에 논문을 전혀 못 쓴 적도 있어。

「楽しんだ私がいつ楽しんだと思いますか？君のおかげで論文を全く書けなかったこともある。

이봐, 설마 오늘도 귀찮으 ㄴ 문제를 가져오 ㄴ 거 ㄴ 아니겠지?”

이봐, 설마 오늘도 귀찮은 問題를 가져온 건 아니겠지?”

이봐, 설마 오늘도 귀찮은 문제를 가져온 건 아니겠지?”

ねえ、まさか今日も面倒な問題をもたら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걱정 마, 오늘은 그러려고 오 ㄴ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오늘은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오늘은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니까.

「心配しないで、今日はそうしようとしてきたんじゃないから。

근처에 오 ㄴ 김에 들르 ㄴ 것뿐이야.

近處에 온 김에 들른 것뿐이야.

근처에 온 김에 들른 것뿐이야.

近くに來たキムに立ち寄っただけだ。

“그렇다면 안심이군.

“그렇다면 安心이군.

“그렇다면 안심이군.

「それなら安心ですね。

유가와는 개수대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으 ㄴ 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아 ㄴ
다.

有價와는 改修대로 가서 酒煎子에 물을 받은 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
다.

유가와는 개수대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은 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
다.

湯川は改修通りに行ってやかんに水を受けた後、ガスレンジの上に載せた。

평소처럼 인스턴트커피를 타 ㄴ 모양이어 ㄴ다。

平素처럼 인스턴트커피를 탈 模樣이었다。

평소처럼 인스턴트커피를 탈 모양이었다。

いつものように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を脱いだ形だった。

“그런데 구 에도강에서 사체가 발견돼 ㄴ다는 그 사건은 해결돼 ㄴ어?”

“그런데 區 에渡江에서 사체가 發見됐다는 그 事件은 解決됐어?”

“그런데 구 에도강에서 사체가 발견됐다는 그 사건은 해결됐어?”

「ところで旧江戸川で死体が発見されたというその事件は解決された？」

컵에 커피 가루를 넣으며 유가와가 물어 ㄴ다。

컵에 커피 가루를 넣으며 有價와가 물었다。

컵에 커피 가루를 넣으며 유가와가 물었다。

カップにコーヒー粉を入れて湯川が尋ねた。

“우리가 그 사건 담당이란 거 ㄴ 어떻게 알아 ㄴ어?”

“우리가 그 事件 擔當이란 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그 사건 담당이란 걸 어떻게 알았어?”

「私たちがその事件担当ということはどうやって知った？」

“그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ㄴ 수 있지.

“그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그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それじゃ少しだけ考えてみればわかる。

자네가 여기 있다가 호출을 받으ㄴ 날 밤에 사건을 뉴스에서 봐ㄴ거든.

자네가 여기 있다가 呼出을 받은 날 밤에 事件을 뉴스에서 봤거든.

자네가 여기 있다가 호출을 받은 날 밤에 사건을 뉴스에서 봤거든.

君がここにいて呼び出しを受けた日の夜に事件をニュースで見た。

그 땀떠름하ㄴ 표정을 보니 수사에 별 진전이 없어ㄴ나 보군.

그 땀떠름한 表情을 보니 捜査에 別 進展이 없었나 보군.

그 땀떠름한 표정을 보니 수사에 별 진전이 없었나 보군.

その震えた表情を見ると捜査に星進展がなかったのかな。

구사나기가 미간을 찌푸리며 코 옆쪽을 가ㄴ작거렸다.

驅使나기가 眉間을 찌푸리며 코 옆쪽을 감작거렸다.

구사나기가 미간을 찌푸리며 코 옆쪽을 감작거렸다.

草薙が眉間を突き刺し、鼻の横をかき混ぜた。

“진전이 전혀 없어ㄴ던 거ㄴ 아니야.

“進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진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進展が全く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

용의자도 몇 명 떠올라^ㄴ고.

容疑者도 몇 名 떠올랐고.

용의자도 몇 명 떠올랐고.

容疑者も何人か思い浮かんだし。

이제부터지, 뭐.

이제부터지, 뭐.

이제부터지, 뭐.

これからか、まあ。

“오호, 용의자가?”

“五胡, 容疑者が?”

“오호, 용의자가?”

「おお、容疑者？」

유가와는 별로 귀담아듣는 기색도 없이 가볍게 받아넘겨^ㄴ다.

有價와는 別に 귀담아듣는 氣色도 없이 가볍게 받아넘겼다.

유가와는 별로 귀담아듣는 기색도 없이 가볍게 받아넘겼다.

湯川とはあまり耳を傾けて聞く気配もなく軽く受け止めた。

그때 기시타니가 끼어들어ㅅ다.

그때 기시他니가 끼어들었다.

그때 기시타니가 끼어들었다.

その時岸谷が割り込んだ。

“저는 현재의 방향이 옳바르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現在の 方向이 옳바르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현재의 방향이 옳바르다고 보지 않아요.

「私は現在の方向が正しいとは見えません。

“그러ㄴ가?” 하며 유가와가 기시타니를 보아ㅅ다.

“그런가?” 하며 有價와가 기時타니를 보았다.

“그런가?” 하며 유가와가 기시타니를 보았다.

「そうか？」そして湯川が岸谷を見た。

“수사 방침에 이의가 있는 모양이군.

“搜查 方針에 異議가 있는 模樣이군.

“수사 방침에 이의가 있는 모양이군.

「捜査方針に異議があるようだ。

“아니, 이의라고까지는……。

“아니, 異議라고까지는……。

“아니, 이의라고까지는……。

「いや、異議だとまでは……」 ... 。

“쓸데없는 말은 하 ㄴ 필요 없어。

“쓸데없는 말은 할 必要 없어。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 없어。

「無駄な言葉は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구사나기가 미간에 주름을 세워 ㄴ다。

驅使나기가 眉間に 주름을 세웠다。

구사나기가 미간에 주름을 세웠다。

草薙が眉間にしわを立てた。

“죄송하 ㄴ니다。

“罪悚합니다。

“죄송합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사과하 ㄴ 필요까지는 없잖아? 명령에는 따르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이
올바르 ㄴ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謝過할 必要까지는 없잖아? 命令에는 따르면서도 自身の 見解를 갖는 것
이 올바른 姿勢라고 생각하는데。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명령에는 따르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
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謝罪するまではありませんか？命令によれば、自分の見解を持つのが正しい
姿勢だと思うのに。

그런 자세가 아니면 합리적이 ㄴ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어。

그런 姿勢가 아니면 合理的인 結論에 到達하기 힘들어。

그런 자세가 아니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어。

そんな姿勢でなければ合理的な結論に達するのが難しい。

“이 친구가 수사 방침에 불평하는 거 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야。

“이 親舊가 搜查 方針에 不平하는 건 그런 理由에서가 아니야。

“이 친구가 수사 방침에 불평하는 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야。

「この友人が捜査方針に文句を言うのはそんな理由ではない。

어쩌 ㄴ 수 없다는 듯 구사나기가 입을 열어 ㄴ다。

어쩔 수 없다는 듯 驅使나기가 입을 열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구사나기가 입을 열었다.

仕方ないように、草薙が口を開いた。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대를 비호하고 싶은 것뿐이지.

“只今 우리가 注目하고 있는 相對를 庇護하고 싶은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대를 비호하고 싶은 것뿐이지.

「今、私たちが注目している相手を嘆願したいだけだ。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 저는 그런 게…….

「いや、私はそんなの……」 ... 。

기시타니가 말끝을 흐려냈다.

기시他니가 말끝을 흐렸다.

기시타니가 말끝을 흐렸다.

岸谷が言葉をぼやけた。

“괜찮아, 감추 ㄴ 필요 없어.

“괜찮아, 감출 必要 없어.

“괜찮아, 감출 필요 없어.

「大丈夫、隠す必要はありません。

그 모녀에게 동정이 가는 것도 당연하지.

그 母女에게 同情이 가는 것도 當然하지.

그 모녀에게 동정이 가는 것도 당연하지.

その母娘に同情が行くのも当然じゃない。

사실 나도 그 두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

事實 나도 그 두 사람을 疑心하고 싶지 않거든.

사실 나도 그 두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

実は私もその二人を疑いたくない。

“뭐ㄴ가 복잡하ㄴ 사정이 있는 모양이군.

“뭔가 複雑한 事情이 있는 模様が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군.

「何か複雑な事情があるようだ。

유가와가 싱글거리며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를 번갈아 보아ㄴ다.

有價와가 싱글거리며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를 番갈아 보았다.

유가와가 싱글거리며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를 번갈아 보았다.

湯川がシングルで、草薙と岸谷を交互に見た。

“딱히 복잡하 ㄴ 것도 없어。

“딱히 複雑할 것도 없어。

“딱히 복잡할 것도 없어。

「特に複雑なこともない。

살해당하 ㄴ 남자에게 전처가 있는데,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그 여자의 거주지
를 알아내려고 애쓰 ㄴ 흔적이 있어。

殺害당한 男子에게 前妻가 있는데, 事件 直前に 被害자가 그 女子의 居住
地를 알아내려고 애쓴 痕跡이 있어。

살해당한 남자에게 전처가 있는데,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그 여자의 거주
지를 알아내려고 애쓴 흔적이 있어。

殺された男に元処があるのに、事件直前に被害者がその女の居住地を調べよ
うと努力した痕跡がある。

그래서 일단 여자에게 알리바이가 있는지 확인하 ㄴ 것뿐이야。

그래서 一旦 女子에게 알리바이가 있는지 確認한 것뿐이야。

그래서 일단 여자에게 알리바이가 있는지 확인한 것뿐이야。

だから一応女性にアリバイがあるか確認しただけだ。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そうだね.

그래서 알리바이는 있던가?”

그래서 알리바이는 있던가?”

그래서 알리바이는 있던가?”

それでアリバイはあったか？」

“뭐, 그럭저럭.

“뭐, 그럭저럭.

“뭐, 그럭저럭.

「まあ、やっぱり.

구사나기가 머리를 긁적거려^ㄴ다.

驅使나기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구사나기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草薙が頭を傷つけた.

“이봐, 갑자기 왜 그렇게 어무^ㄴ거려?”

“이봐, 갑자기 왜 그렇게 어몰^ㄴ거려?”

“이봐, 갑자기 왜 그렇게 어몰^ㄴ거려?”

「ねえ、突然なぜそんなに呟くの？」

유가와가 웃으면서 일어서ㄴ다。

有價와가 웃으면서 일어섰다。

유가와가 웃으면서 일어섰다。

湯川が笑いながら立ち上がった。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ㄴ다。

酒煎子에서 水蒸氣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やかんから水蒸氣が吹き出てきていた。

“둘 다 커피 마시ㄴ 거지?”

“둘 다 커피 마실 거지?”

“둘 다 커피 마실 거지?”

「どちらもコーヒーを飲むの？」

“네, 주시면 감사하죠。

“네, 주시면 感謝하죠。

“네, 주시면 감사하죠。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나ㄴ 사양하겠어。

“난 辭讓하겠어。

“난 사양하겠어。

「私は仕様します。

그런데 말이지, 그 알리바이라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ㄴ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그 알리바이라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그 알리바이라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さてさて、そのアリバというのがどうしても気になるんだよ。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その人が嘘をつくようには思えませんでした。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根據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そんな根拠のない話をしてはいけない。

뒷조사도 다 못해ㅆ으면서。

뒷調査도 다 못했으면서。

뒷조사도 다 못했으면서。

後ろ調査も全くできずに。

“아니, 영화관이나 라면집은 뒷조사를 못하_ㄴ다고 반장님께 말씀드리_ㄴ 사람이 누구_ㄴ데 그러세요?”

“아니, 映畫館이나 라면집은 뒷調査를 못한다고 班長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누구_ㄴ데 그러세요?”

“아니, 영화관이나 라면집은 뒷조사를 못한다고 반장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누구_ㄴ데 그러세요?”

「いや、映画館やラーメン屋さんは裏調査ができないと班長に申し上げた人が誰なのですか？」

“내가 언제 못하_ㄴ다고 해_ㅅ어? 하기 어렵다고 해_ㅅ지。

“내가 언제 못한다고 했어? 하기 어렵다고 했지。

“내가 언제 못한다고 했어? 하기 어렵다고 했지。

「私はいつできないと言いましたか？しにくいと言った。

“아하, 그 용의자라는 여자가 범행 시각에 영화관에 있어_ㅅ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로군。

“아하, 그 容疑者라는 女子가 犯行 時刻에 映畫館에 있었다고 主張하는 模様が로군。

“아하, 그 용의자라는 여자가 범행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모

양이로군。

「あは、その容疑者という女性が犯行の視点に映画館にいたと主張するよう
だ。

유가와가 컵 두 개를 들고 돌아오면서 말해ㄴ다。

有價와假 컵 두 個를 들고 돌아오면서 말했다。

유가와가 컵 두 개를 들고 돌아오면서 말했다。

湯川がカップ2個を持って帰ってきて言った。

그는 두 개의 컵 중 하나를 기시타니에게 건네ㄴ다。

그는 두 個의 컵 中 하나를 기시他니에게 건넸다。

그는 두 개의 컵 중 하나를 기시타니에게 건넸다。

彼は2つのカップのうちの1つを岸谷に渡した。

감사하ㄴ니다, 라고 인사하던 기시타니가 깜짝 놀라ㄴ 듯 눈을 동그랗게 떠ㄴ
다。

感謝합니다, 라고 人事하던 기시他니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
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던 기시타니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
다。

ありがとう、と挨拶していた岸谷がびっくりしたように目を丸くした。

컵이 너무 더럽기 때문이 ㄴ 것이다。

컵이 너무 더럽기 때문일 것이다。

컵이 너무 더럽기 때문일 것이다。

カップが汚すぎるからだろう。

구사나기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 ㄴ 다。

驅使나기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艱辛히 참았다。

구사나기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草薙は笑いが飛び出そうとすることをようやく我慢した。

“영화를 봐 ㄴ 다는 말만으로는 증명하기가 힘드 ㄴ 데 ㄴ 데。

“映畫를 봤다는 말만으로는 證明하기가 힘들 텐데。

“영화를 봤다는 말만으로는 증명하기가 힘들 텐데。

「映画を見たという言葉だけでは証明するのが大変だ。

유가와가 의자에 걸터앉으며 말해 ㄴ 다。

有價와假 椅子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유가와가 의자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湯川が椅子に座って言った。

“하지만 그 후에 노래방에 가 ㄴ 거든요。

“하지만 그 後에 노래房에 갔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노래방에 갔거든요。

「でもその後カラオケに行ったんです。

노래방 종업원이 그런 사실을 증언해_ㄴ고요。

노래房 従業員이 그런 事實을 證言했_ㄴ고요。

노래방 종업원이 그런 사실을 증언했_ㄴ고요。

カラオケ従業員がそのような事実を証言しました。

기시타니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_ㄴ다。

기시他니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기시타니가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岸谷が声に力を与えた。

“그렇다고 영화관 쪽을 그냥 넘기_ㄴ 수는 없지。

“그렇다고 映畫館 쪽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

“그렇다고 영화관 쪽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

「だからといって映画館の方をただ渡すことはできない。

범행 후에 노래방에 가_ㄴ으_ㄴ 수도 있는 일이니까。

犯行 後에 노래房에 갔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범행 후에 노래방에 갔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犯行後にカラオケに行った可能性もあるから。

구사나기가 말해준다。

驅使나기가 말했다。

구사나기가 말했다。

草薙が言った。

“하나오카 모녀가 영화를 보 ㄴ 시각이 저녁 일곱 시에서 여덟 시 무렵이에요。

“하나오카 母女가 映畫를 본 時刻이 저녁 일곱 時에서 여덟 時 무렵이에요。

“하나오카 모녀가 영화를 본 시각이 저녁 일곱 시에서 여덟 시 무렵이에요。

「花岡母女が映画を見た時刻が夕方七時から八時頃です。

사건 현장이 아무리 인적이 드무 ㄴ 장소라고 해도 살인을 하 ㄴ 만하 ㄴ 시간대는 아니 ㄴ니다。

事件 現場이 아무리 人的이 드문 場所라고 해도 殺人을 할 만한 時間帶는 아닙니다。

사건 현장이 아무리 인적이 드문 장소라고 해도 살인을 할 만한 시간대는 아닙니다。

事件現場がいくら人的が珍しい場所といっても殺人をする時間帯ではありません。

게다가 죽이기만 하 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겨 ㄴ는데 말이죠。

게다가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겼는데 말이죠。

게다가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겼는데 말이죠。

しかも殺すだけではなく、服まで全部剥がしたのです。

“그야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 무죄로 단정하 ㄴ 수는 없지 않겠어?”

“그야 그렇지만 모든 可能性을 다 確認해 보기 前に 無罪로 斷定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야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 무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

「そうですが、すべての可能性をすべて確認してみる前に無罪で断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か？」

특히 그 완고하 ㄴ 마미야를 납득시키지 못하 ㄴ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생각해 ㄴ 다。

특히 그 頑固한 마미야를 納得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驅使나기는 생각했 다。

특히 그 완고한 마미야를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생각했 다。

特にその頑固なマミヤを納得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と駆けつけは考えた。

“잘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범행 시각은 추정할 수 있는 모양이지?”

“잘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犯行 時刻은 推定할 수 있는 模様이지?”

“잘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범행 시각은 추정할 수 있는 모양이지?”

「よく分からないけど、二人の話を聞いてると犯行視覚は推定できる模様だろ？」

유가와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有價와가 두 사람의 對話에 끼어들었다.

유가와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湯川が二人の会話に割り込んだ。

“검시 결과, 사망 시각은 10일 오후 여섯 시 이후로 추정됩니다.”

“劍時 結果, 死亡 時刻은 10 日 午後 여섯 時 以後로 推定된다고 합니다.

“검시 결과, 사망 시각은 10일 오후 여섯 시 이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検査の結果、死亡時刻は 10 日午後 6 時以降と推定されるそうです。

“일반인에게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으면 어떡하나.

“一般人에게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으면 어떡하나.

“일반인에게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으면 어떡하나.

「一般人にそんなに迷走知って主卵を打ち明けたらどうしよう。

구사나기가 잔소리를 해ㄴ다.

驅使나기가 잔소리를 했다.

구사나기가 잔소리를 했다.

草薙が小声をした。

“그렇지만 유가와 선생님께는 지금까지도 수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ㄴ습
니까.

“그렇지만 有價와 先生님께는 只今까지도 捜査에 協助를 付託드리지 않았
습니까.

“그렇지만 유가와 선생님께는 지금까지도 수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ㄴ
습니까.

「しかし、湯川先生にはこれまでも捜査に協力をお願いしていませんか。

“그거 ㄴ 사건이 초자연적이 ㄴ 수수께끼와 결부돼ㄴ으ㄴ 때 얘기지.

“그건 事件이 超自然的인 수수께끼와 結付됐을 때 얘기지.

“그건 사건이 초자연적인 수수께끼와 결부됐을 때 얘기지.

「それは事件が超自然的な謎と結びついた時の話だ。

이번 사건은 아마추어와 의논해 봐야 소용없어。

이번 事件은 아마추어와 議論해 봐야 所用없어。

이번 사건은 아마추어와 의논해 봐야 소용없어。

今回の事件は素人と相談してみても無駄だ。

“맞아, 나 ㄴ 아마추어야。

“맞아, 난 아마추어야。

“맞아, 난 아마추어야。

「そうです、私はアマチュアです。

하지만 자네들에게 노닥거리 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아 ㄴ

으면 좋겠어。

하지만 자네들에게 노닥거릴 場所를 提供하고 있다는 事實만은 잊지 않았

으면 좋겠어。

하지만 자네들에게 노닥거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았

으면 좋겠어。

でも、君たちに怒っている場所を提供しているという事実だけは忘れていないといい。

유가와는 여유 있게 인스턴트커피를 후루룩 마셔 ㄴ 다。

有價와는 餘裕 있게 인스턴트커피를 후루룩 마셨다。

유가와는 여유 있게 인스턴트커피를 후루룩 마셨다。

湯川はゆったりと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をフルルック飲んだ。

“알아^ㅅ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물러가면 되^ㄴ 거 아니야。

물러가면 될 거 아니야。

물러가면 될 거 아니야。

退ければいいじゃない。

구사나기가 의자에서 일어나^ㅅ다。

驅使나기가 椅子에서 일어났다。

구사나기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草薙が椅子で起きた。

“당사자들은 영화관에 가^ㄴ 사실을 증명하^ㄴ 방법이 있대?”

“當事者들은 映畫館에 간 事實을 證明할 方法이 있대?”

“당사자들은 영화관에 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대?”

「当事者は映画館に行った事実を証明する方法があるの？」

커피 잔을 드 ㄴ 채 유가와가 물어 ㅅ 다。

커피 盞을 든 채 有價와가 물었다。

커피 잔을 든 채 유가와가 물었다。

コーヒーカップを持ったまま湯川が聞いた。

“영화 스토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映畫 스토리는 記憶하고 있는 것 같아。

“영화 스토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映画ストーリーは覚えているようだ。

그렇지만 그거 ㄴ로는 영화를 언제 봐 ㅅ는지까지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걸로는 映畫를 언제 봤는지까지 證明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걸로는 영화를 언제 봤는지까지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

でもそれでは映画をいつ見たのかまで証明されるのではないから。

“사용하고 남으 ㄴ 영화표 반쪽은?”

“使用하고 남은 映畫票 半쪽은?”

“사용하고 남은 영화표 반쪽은?”

「使用して残った映画票の半分は？」

그 질문에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유가와와 얼굴을 보아ㄴ다。

그 質問에 驅使나기는 저도 모르게 有價와의 얼굴을 보았다。

그 질문에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유가와와 얼굴을 보았다。

その質問に駆け寄り私は私も知らずに湯川の顔を見た。

그와 눈이 마주쳐ㄴ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彼と目が合った。

“가지고 있어ㄴ어。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어。

「持っていた。

“흠, 어디서 나와ㄴ지?”

“흠, 어디서 나왔지?”

“흠, 어디서 나왔지?”

「うーん、どこから出たの？」

안경 너머로 유가와 의 눈이 빛나 ㅅ다.

眼鏡 너머로 有價와 의 눈이 빛났다.

안경 너머로 유가와 의 눈이 빛났다.

メガネ越しに湯川の目が輝いた。

구사나기가 꾀, 웃음을 터뜨려 ㅅ다.

驅使나기가 꾀, 웃음을 터뜨렸다.

구사나기가 꾀, 웃음을 터뜨렸다.

草薺がフット、笑いを破った。

“자네가 하고 싶으 ㄴ 말이 뭐 ㄴ지 알겠어.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君が言いたいことが何なのか分かる。

그래, 나머지 반쪽을 애지중지 보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그래, 나머지 半쪽을 愛之重之 保管하는 사람은 別로 없지.

그래, 나머지 반쪽을 애지중지 보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そう、残り半分を愛知中止保管する人はあまりない。

나 역시 하나오카 야스코가 그거 ㄴ 서랍에서 꺼내거나 해 ㅅ다면 이상하다고 생

각해ㅁ으ㄴ 거야。

나 亦是 하나오카 야스코가 그걸 서랍에서 꺼내거나 했다면 異常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나 역시 하나오카 야스코가 그걸 서랍에서 꺼내거나 했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私やはり花岡康子がそれを引き出しから取り出したりしたら変だと思ったはず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아ㅁ다는 말이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군。

「だからそんなところから出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ね。

“처음에는 버리ㄴ 것 같다고 해ㅁ어。

“처음에는 버린 것 같다고 했어。

“처음에는 버린 것 같다고 했어。

「最初には捨てたようだった。

그러더니 그때 산 팸플릿을 혹시나 하고 펼쳐ㅁ는데 거기 들어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때 産 팸플릿을 或是나 하고 펼쳤는데 거기 들어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때 산 팸플릿을 혹시나 하고 펼쳤는데 거기 들어 있는 거야。

だからその時買ったパンフレットをもしかして広げたのにそこに入っている
んだ。

“팸플릿에서 나와ㄴ단 말이지……。

“팸플릿에서 나왔단 말이지……。

“팸플릿에서 나왔단 말이지……。

「パンフレットから出たのは……」 ……。

하기야 부자연스러우ㄴ 이야기는 아니로군。

하기야 不自然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로군。

하기야 부자연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로군。

やっぱり不自然な話じゃないよね。

유가와가 팔짱을 끼어ㄴ다。

有價와假 팔짱을 끼었다。

유가와가 팔짱을 끼었다。

湯川が腕を組んだ。

“당연히 당일 날씨가 찍혀 있어ㄴ겠지?”

“當然히 當日 날씨가 찍혀 있었겠지?”

“당연히 당일 날씨가 찍혀 있었겠지?”

「当然当日の日付が撮られていただろ？」

“그야 물론이지.

“그야 勿論이지.

“그야 물론이지.

「それはもちろん.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영화를 봐ㄴ다고 단정하ㄴ 수는 없어.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映畵를 봤다고 斷定할 수는 없어.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영화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それでもそれだけ持って映画を見た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쓰레기통 같은 데서 영화표 반쪽을 주워ㄴ으ㄴ 수도 있고, 표는 사ㄴ지만 영화관에 들어가지 않아ㄴ으ㄴ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桶 같은 데서 映畵票 半쪽을 주웠을 수도 있고, 票는 샀지만 映畵館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통 같은 데서 영화표 반쪽을 주웠을 수도 있고, 표는 샀지만 영화관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ゴミ箱のようなところで映画票の半分を拾ったかもしれないし、切符は買ったが映画館に入ら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から.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용의자가 영화관이나 그 근처에 가ㄴ 거ㄴ 사실이군.

“그러나 어느 쪽이든 容疑者が 映画館이나 그 近處에 간 건 事實이軍。

“그러나 어느 쪽이든 容疑者が 映画館이나 그 근처에 간 건 사실이군。

「しかしいずれにせよ容疑者が映画館やその近くに行ったのは事実だね。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부터 탐문 수사를 벌여^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부터 探問 搜查를 벌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부터 탐문 수사를 벌였어。

「私もそう思って今朝から探問捜査を行った。

목격 정보를 찾으려고 말이지。

目撃 情報를 찾으려고 말이지。

목격 정보를 찾으려고 말이지。

目撃情報を探そうとな。

그런데 그날 표를 팔아^ㅆ던 영화관 아르바이트 직원이 쉬는 날이더라고。

그런데 그날 票를 팔았던 映画館 아르바이트 職員이 쉬는 날이더라고。

그런데 그날 표를 팔았던 영화관 아르바이트 직원이 쉬는 날이더라고。

さてその日切符を売っていた映画館のアルバイト職員が休む日だと。

그래서 집까지 찾아가^ㅆ지。

그래서 집까지 찾아갔지。

그래서 집까지 찾아갔지.

だから家まで訪れた。

지금 거기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只今 거기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지금 거기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今そこから帰ってくる道だった。

“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서 그다지 유익하_ㄴ 정보를 얻으_ㄴ 표정은 아니군。

“그 아르바이트 職員에게서 그다지 有益한 情報を 얻은 表情은 아니군。

“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서 그다지 유익한 정보를 얻은 표정은 아니군。

「そのアルバイト職員からあまり有益な情報を得た表情ではないな。

유가와가 입가를 비틀며 웃어_ㄴ다。

有價와假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유가와가 입가를 비틀며 웃었다。

湯川が口元をねじって笑った。

“며칠이나 지나_ㄴ 데다 손님 얼굴까지 일일이 기억하_ㄴ 수는 없으_ㄴ 테니까。

“며칠이나 지난 데다 손님 얼굴까지 一一이 記憶할 수는 없을 테니까。

“며칠이나 지난 데다 손님 얼굴까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을 테니까。

「何日も経ったうえに、お客さんの顔までいちいち覚えられないから。

하기야 애당초 기대하지 않아서 실망도 별로 안 해ㅆ어。

하기야 애當初 期待하지 않아서 失望도 別로 안 했어。

하기야 애당초 기대하지 않아서 실망도 별로 안 했어。

はや、そもそも期待しなかったので失望もあまりなかった。

자, 그럼 조교수님께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 이만 가지。

자, 그럼 助教授님께 妨害가 되는 것 같으니 二萬 가지。

자, 그럼 조교수님께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 이만 가지。

さて、じゃあ助教授様に邪魔になりそうだからこそ。

구사나기가 아직도 인스턴트커피를 마시고 있는 기시타니의 등을 툭 쳤다。

驅使나기가 아직도 인스턴트커피를 마시고 있는 기시他니의 等を 툭 쳤다。

구사나기가 아직도 인스턴트커피를 마시고 있는 기시타니의 등을 툭 쳤다。

草薙がまだ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を飲んでいる岸谷の背中を叩いた。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

「心をしっかり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

그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고생 좀 하게 되 ㄴ 데니까。

그 容疑者が 진범이라면 苦生 좀 하게 될 데니까。

그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고생 좀 하게 될 데니까。

その容疑者が真犯だったら苦労してしまうから。

유가와와 말에 구사나기가 뒤를 돌아보아 ㄴ다。

有價와와 말에 驅使나기가 뒤를 돌아보았다。

유가와와 말에 구사나기가 뒤를 돌아보았다。

湯川の言葉に草薙が後ろを振り返った。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どういう意味ですか？」

“아까 말해 ㄴ잖아。

“아까 말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さっき言ったじゃないか。

보통 사람이라면 알리바이를 만드 ㄴ 때 남으 ㄴ 영화표 반쪽을 보관하 ㄴ 장소까
지는 신경 쓰지 않아。

普通 사람이라면 알리바이를 만들 때 남은 映畵票 半쪽을 保管할 場所까지
는 神經 쓰지 않아。

보통 사람이라면 알리바이를 만들 때 남은 영화표 반쪽을 보관할 장소까
지는 신경 쓰지 않아。

普通の人ならアリバイを作るときに残った映画票半分を保管する場所までは
気にしない。

형사가 오 ㄴ 것을 대비해 팸플릿 사이에 끼워 두 ㄴ 거라면 상당히 강적이 ㄴ 거
야。

刑事가 올 것을 對備해 팸플릿 사이에 끼워 둔 거라면 相當히 強敵일 거
야。

형사가 올 것을 대비해 팸플릿 사이에 끼워 둔 거라면 상당히 강적일 거
야。

刑事が来ることを備えてパンフレットの間に挟んでおいたのなら結構強敵だ
ろう。

유가와 의 눈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없어 ㅅ 다。

有價와 의 눈에서는 웃음氣가 사라지고 없었다。

유가와 의 눈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없었다。

湯川の目では笑いが消えていなかった。

친구의 말을 되새기면서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여^ㄴ다。

親舊의 말을 되새기면서 驅使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말을 되새기면서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友人の言葉を振り返りながら、草薙は頭をうなずいた。

“기억해 두지。

“記憶해 두지。

“기억해 두지。

「覚えておく。

그럼 또 봐, 하고 방을 나서려던 구사나기는 문을 열기 전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다시 돌아서^ㄴ다。

그럼 또 봐, 하고 房을 나서려던 驅使나기는 門을 열기 前に 문득 떠오르
는 게 있어 다시 돌아섰다。

그럼 또 봐, 하고 방을 나서려던 구사나기는 문을 열기 전에 문득 떠오르
는 게 있어 다시 돌아섰다。

ではまた見て、と部屋を出ようとした草薙は扉を開く前にふと浮かぶのがあ
ってまた戻った。

“참, 용의자 옆집에 자네 선배가 살고 있던데。

“참, 容疑者 옆집에 자네 先輩가 살고 있던데。

“참, 용의자 옆집에 자네 선배가 살고 있던데。

「まあ、容疑者の隣に君の先輩が住んでいたのに。

“선배라니?”

“先輩라니?”

“선배라니?”

「先輩って？」

유가와는 멀뚱하 ㄴ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해 ㄴ다。

有價와는 멀뚱한 表情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유가와는 멀뚱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ユガとは遠い表情で頭を閉じ込めた。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래。

“高等學校 數學 先生이래。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래。

「高校数学の先生だから。

이름이 이시가미라던가? 데이토 대학 출신이라니까 아마도 이공계여 ㄴ으 ㄴ 거
야。

이름이 이시가미라던가? 데이트 大學 出身이라니까 아마도 理工系였을 거
야。

이름이 이시가미라던가? 데이트 대학 출신이라니까 아마도 이공계였을 거
야。

名前が石神とか？デート大学出身だからおそらく理工系だったのだろう。

“이시가미……。

“이시가미……。

“이시가미……。

「石神… … 。

그 이름을 몇 번 되뇌던 유가와가 안경 속의 눈을 화들짝 떠 ㄴ다。

그 이름을 몇 번 되뇌던 有價와假 眼鏡 속의 눈을 화들짝 떴다。

그 이름을 몇 번 되뇌던 유가와가 안경 속의 눈을 화들짝 떴다。

その名前を何度も振り返った湯川が眼鏡の中の目をぶら下げた。

“달마 이시가미?”

“達磨 이시市街美?”

“달마 이시가미?”

「だるま石神？」

“달마라니?”

“達磨라니?”

“달마라니?”

「ダルマラニ？」

잠시 기다리라며 유가와가 옆방으로 사라져 ㄴ다。

暫時 기다리라며 有價와假 옆房으로 사라졌다。

잠시 기다리라며 유가와가 옆방으로 사라졌다。

しばらく待って、湯川が隣の部屋に消えた。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의아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아 ㄴ다。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는 疑訝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의아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草薙と岸谷は謙虚でお互いに顔を合わせた。

잠시 후 유가와가 돌아와 ㄴ다。

暫時 後 有價와가 돌아왔다。

잠시 후 유가와가 돌아왔다。

しばらくすると湯川が帰ってきた。

손에 검은색 표지의 파일을 들고 있어 ㄴ다。

손에 검은色 表紙의 파일을 들고 있었다。

손에 검은색 표지의 파일을 들고 있었다。

手に黒い表紙のファイルを持っていた。

그는 구사나기 앞에서 그것을 펼쳐ㄴ다。

그는 驅使나기 앞에서 그것을 펼쳤다。

그는 구사나기 앞에서 그것을 펼쳤다。

彼は草薙の前でそれを広げた。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この人じゃない？」

그 페이지에는 몇 사람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어ㄴ다。

그 페이지에는 몇 사람의 얼굴 寫眞이 실려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몇 사람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다。

そのページには何人かの顔写真が載っていた。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어ㄴ다。

學生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다。

学生に見える若者だった。

페이지 맨 위에 ‘제38기 석사 과정 졸업생’이라고 쓰여 있어ㄴ다。

페이지 맨 위에 ‘第 38 基 碩士 過程 卒業生’이라고 쓰여 있었다。

페이지 맨 위에 ‘제38기 석사 과정 졸업생’이라고 쓰여 있었다。

ページの上に「第 38 期修士課程卒業生」と書かれていた。

그중 유가와가 손가락으로 짚으ㄴ 사진은 둥그러ㄴ 얼굴의 대학원생 사진이여
ㄴ다。

그中 有價와假 손가락으로 짚은 寫眞은 둥그런 얼굴의 大學院生 寫眞이었
다。

그중 유가와가 손가락으로 짚은 사진은 둥그런 얼굴의 대학원생 사진이었
다。

その中で湯川が指でわらった写真は丸い顔の大学院生の写真だった。

표정 없는 얼굴에 실처럼 가느다라ㄴ 눈이 정면을 향해 있어ㄴ다。

表情 없는 얼굴에 실처럼 가느다란 눈이 正面을 向해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에 실처럼 가느다란 눈이 정면을 향해 있었다。

表情のない顔に糸のように細い目が正面に向かっていた。

이시가미 데쓰야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ㄴ다。

이時加味 데쓰야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시가미 데쓰야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

石神哲也と名が書かれていた。

“아, 이 사람 맞아요.

“아, 이 사람 맞아요.

“아, 이 사람 맞아요.

「あ、この人そうです。

기시타니가 말해^ㄴ다.

기시他니가 말했다.

기시타니가 말했다.

岸谷が言った。

“지금보다 상당히 젊기^ㄴ 해도 틀림없어요.

“只今보다 相當히 젊은 해도 틀림없어요.

“지금보다 상당히 젊은 해도 틀림없어요.

「今よりかなり若くしても間違いありません。

구사나기도 사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더니 고개를 끄덕여^ㄴ다.

驅使나기도 寫眞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도 사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も写真の額を指で覆い、首をうなずいた。

“그래。

“그래。

“그래。

「ええ。

지금은 이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금방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 그 선생이야。

只今は 이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今方 알아보기 힘들지만 分明 그 先生이야。

지금은 이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금방 알아보기 힘들지만 분명 그 선생이야。

今はこの時より髪がたくさん抜けてすぐ調べるのは大変だが確かにその先生だ。

아는 선배야?”

아는 先輩야?”

아는 선배야?”

知っている先輩？」

“선배가 아니라 동기생이야。

“先輩가 아니라 同期生이야。

“선배가 아니라 동기생이야。

「先輩ではなく、同期生だ。

당시 우리 대학에서 자연대생은 3학년부터 전공이 나뉘게 되어 있어ㄴ어。

當時 우리 大學에서 自然對生은 3 學年부터 專攻이 나뉘게 되어 있었어。

당시 우리 대학에서 자연대생은 3학년부터 전공이 나뉘게 되어 있었어。

當時私たちの大学で自然大生は3年生から専攻が分かれていた。

나는 물리학과로 가고 이시가미는 수학과를 선택해ㄴ지。

나는 物理學科로 가고 이時加味는 數學科를 選擇했지。

나는 물리학과로 가고 이시가미는 수학과를 선택했지。

私は物理学科に行き、石神は数学科を選んだ。

그러고서 유가와는 파일을 덮어ㄴ다。

그러고서 有價와는 파일을 덮었다。

그러고서 유가와는 파일을 덮었다。

そしてユガワはファイルを覆った。

“그럼 그 아저씨가 나랑 동갑이란 말이야? 세상에!”

“그럼 그 아저씨가 나랑 同甲이란 말이야? 世上에!”

“그럼 그 아저씨가 나랑 동갑이란 말이야? 세상에!”

「じゃあ、おじさんが私とついじゃないですか？世界に！」

“그 친구는 옛날부터 늙어 보여ㄴ어。

“그 親舊는 옛날부터 늙어 보였어。

“그 친구는 옛날부터 늙어 보였어。

「彼の友人は昔から老いたようでした。

히죽 웃던 유가와가 갑자기 의아하다는 듯하ㄴ 표정을 지어ㄴ다。

히죽 웃던 有價와가 갑자기 疑訝하다는 듯한 表情을 지었다。

히죽 웃던 유가와가 갑자기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ヒジク笑ったユガワが突然疑わしいような表情をした。

“선생?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해ㄴ지?”

“先生? 高等學校 先生이라고 했지?”

“선생?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했지?”

「先生? 高校先生だったんだ?」

“응, 그 동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ㄴ다고 해ㄴ어。

“응, 그 洞네 高等學校에서 數學을 가르친다고 했어。

“응, 그 동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고 했어。

「うん、その町の高校で数学を教えると言った。

유도부 고문도 하고 있대。

誘導不 顧問도 하고 있대。

유도부 고문도 하고 있대。

柔道部顧問もしている。

“어리 ㄴ 때부터 유도를 해 ㄴ다고 들으 ㄴ 적이 있어。

“어릴 때부터 誘導를 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다고 들은 적이 있어。

「幼い頃から柔道をしたと聞いたことがある。

할아버지가 도장을 운영하 ㄴ 다던가……。

할아버지가 圖章을 運營한다던街……。

할아버지가 도장을 운영한다던가……。

おじいちゃんが塗装を運営しているとか… …。

그거 ㄴ 그렇고, 그 이시가미가 고등학교 선생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그건 그렇고, 그 이市加味가 高等學校 先生이라니, 그게 事實이야?”

그건 그렇고, 그 이시가미가 고등학교 선생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ところで、その石神が高校の先生だって、それは本当だ？」

“그래, 틀림없어。

“그래, 틀림없어。

“그래, 틀림없어。

「ええ、間違いない。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そうだね。

자네가 하는 말이니 사실이겠지。

자네가 하는 말이니 事實이겠지。

자네가 하는 말이니 사실이겠지。

君の言うから本当だろ。

들리는 소문도 없고 해서 어느 사립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겠지 해_ㅅ는데 설

마 고등학교 선생이 _ㄴ 줄이야。

들리는 所聞도 없고 해서 어느 私立大學에서 研究를 하고 있겠지 했는데

설마 高等學校 先生일 줄이야。

들리는 소문도 없고 해서 어느 사립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겠지 했는데

설마 고등학교 선생일 줄이야。

聞こえる噂もなくて、どの私立大学で研究をしているのだろうか。

천하의 이시가미가 말이지。

天下의 이時加味가 말이지。

천하의 이시가미가 말이지.

天下の石神がね。

유가와와 시선이 왠지 허탈해 보여ㄴ다。

有價와의 視線이 왠지 虚脱해 보였다。

유가와와 시선이 왠지 허탈해 보였다。

湯川の視線がなんだか虚脱して見えた。

“그렇게 우수하ㄴ 분이어ㄴ 습니까?”

“그렇게 優秀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분이었습니다?”

「そんな優秀な方でしたか？」

기시타니가 물어ㄴ다。

기시他니가 물었다。

기시타니가 물었다。

岸谷が尋ねた。

유가와는 후, 숨을 내뿔어ㄴ다。

有價와는 後, 숨을 내뿔었다。

유가와는 후, 숨을 내뿔었다。

湯川は後、息を吐いた。

“천재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친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ㄴ나 싶어。

“天才라는 말을 함부로 使用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親舊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나 싶어。

“천재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친구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나 싶어。

「天才という言葉をもやみに使いたくないけど、その友達には似合わなかつ
たかな。

50년이나 100년에 한 명 나오ㄴ까 마ㄴ까 하ㄴ 인재라고 말하ㄴ 교수도 있어ㄴ
지。

50 年이나 100 年に 한 名 나올까 말까 한 人材라고 말한 教授도 있었지。

50년이나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말한 교수도 있었지。

50 年や 100 年に一人出てくるかなかの人材だと言った教授もいた。

학과는 달라ㄴ지만 그의 우수성이 물리학과에까지 소문나ㄴ 정도여ㄴ어。

學科는 달랐지만 그의 優秀성이 物理學科에까지 所聞날 程度였어。

학과는 달랐지만 그의 우수성이 물리학과에까지 소문날 정도였어。

学科は違いましたが、彼の優秀性が物理学科にまで噂されるほどでした。

컴퓨터를 사용하_ㄴ 해법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종이와 연필만 가지고 어려우_ㄴ 문제에 도전하곤 해_ㄴ지。

컴퓨터를 使用한 解法에는 興味が 없다면서 밤늦게까지 研究室에 틀어박혀서 종이와 鉛筆만 가지고 어려운 問題에 挑戰하곤 했지。

컴퓨터를 사용한 해법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종이와 연필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곤 했지。

コンピュータを使った解法には興味がないとし、夜遅くまで研究室にこだわり、紙と鉛筆だけ持って難しい問題に挑戦したりした。

그 뒷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언젠가부터 달마라는 별명이 붙어_ㄴ어。

그 뒷모습이 引上的이어서 언젠가부터 達磨라는 別名이 붙었어。

그 뒷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언젠가부터 달마라는 별명이 붙었어。

その後姿が印象的で、いつかからだるまというニックネームがついた。

물론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말이야。

勿論 敬意를 表하는 뜻으로 말이야。

물론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말이야。

もちろん敬意を表する意味で。

유가와와 말을 들으며 구사나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생각해_ㄴ다。

有價와의 말을 들으며 驅使나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생각했다。

유가와와 말을 들으며 구사나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생각했다。

湯川との言葉を聞いて、草薙は走る奴の上に俺は奴がいるなと思った。

그는 눈앞에 있는 친구야말로 천재라고 생각해 와 ㅅ 던 것이다。

그는 눈앞에 있는 親舊야말로 天才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는 눈앞에 있는 친구야말로 천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彼は目の前にいる友人こそ天才だと思ってきたのだ。

“그렇게 대단하 ㄴ 사람이 ㄴ 데 왜 대학교수가 못 되어 ㅅ으 ㄴ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大學教授가 못 되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대학교수가 못 되었을까요?”

「そんなにすごい人なのになぜ大学教授ができ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기시타니가 물어 ㅅ 다。

기시他니가 물었다。

기시타니가 물었다。

岸谷が尋ねた。

“그야 뭐, 대학이라는 데가 좀 그래……。

“그야 뭐, 大學이라는 데가 좀 그래……。

“그야 뭐, 대학이라는 데가 좀 그래……。

「そ、まあ、大学というのがちょっとそう…」 …。

유가와는 평소와 달리 말을 얼버무려ㄸ다。

有價와는 平素와 달리 말을 얼버무렸다。

유가와는 평소와 달리 말을 얼버무렸다。

湯川はいつもと違って言葉を無理した。

저 친구도 쓰잘머리 없는 인간관계에 얽매어 스트레스를 받으ㄴ 때가 많으ㄴ

모양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해ㄸ다。

저 親舊도 쓰잘머리 없는 人間關係에 얽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

模樣이라고 驅使나기는 斟酌했다。

저 친구도 쓰잘머리 없는 인간관계에 얽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은

모양이라고 구사나기는 짐작했다。

あの友達も苦手な人間関係にとらわれ、ストレスを受ける時が多いようだ

駆け抜けは推測した。

“그 친구, 건강해 보이던가?”

“그 親舊, 健康해 보이던가?”

“그 친구, 건강해 보이던가?”

「あの友達、元氣に見えるか？」

유가와가 구사나기에게 물어^ㅅ다。

有價와假 驅使나기에게 물었다。

유가와가 구사나기에게 물었다。

湯川が草薙に尋ねた。

“글쎄, 아프^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ㅅ어。

“글쎄, 아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

“글쎄, 아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

「まあ、痛いように見えませんでした。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기는 해^ㅅ는데, 붙임성이 없다^ㄴ까 무뚝뚝하다^ㄴ까…

…。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붙임성이 없달까 무뚝뚝하달까……。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붙임성이 없달까 무뚝뚝하달까……。

とにかく物語を分かち合うことはしたのに、付着性がないかなんて無駄にし

ようかな…。 …。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何を考え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

유가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해^ㄴ다。

有價와假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유가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湯川が苦笑いながら言った。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まさにそれだ。

형사가 찾아와^ㄴ다고 하면 대개는 약간이라도 놀라든지 아니면 낭패하^ㄴ 기색

을 보이든지, 아무튼 무슨 반응이 있기 마련이^ㄴ 데, 완전히 무표정이더라고。

刑事가 찾아왔다고 하면 大概는 若干이라도 놀라든지 아니면 狼狽한 氣色

을 보이든지, 아무튼 무슨 反應이 있기 마련인데, 完全に 無表情이더라고。

형사가 찾아왔다고 하면 대개는 약간이라도 놀라든지 아니면 낭패한 기색

을 보이든지, 아무튼 무슨 반응이 있기 마련인데, 완전히 무표정이더라고。

刑事がやってきたといえは大体は少しでも驚かないとか無駄な氣配を見せて

も、まあどんな反応があるはずなのに、完全に無表情だったと。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서.

自己 自身 外에는 關心이 없어 보였어.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

自分自身以外には興味がないようだった.

“수학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數學 以外에는 關心이 없는 거지.

“수학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数学以外には興味がないんだ.

그래도 나름 매력 있는 인물이야.

그래도 나름 魅力 있는 人物이야.

그래도 나름 매력 있는 인물이야.

それでもそれなり魅力ある人物だ.

주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말이 나오니 김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住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말이 나온 김에 時間 나면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주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말이 나온 김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住所を教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言葉が出たキムに時間が出たら一度訪れてみるべきだ。

“자네가 그런 말을 다 하다니, 별일이네。

“자네가 그런 말을 다 하다니, 別일이네。

“자네가 그런 말을 다 하다니, 별일이네。

「君がそんなことを言うなんて、別日だね。

구사나기는 수첩을 꺼내어 하나오카 야스코가 사는 연립 주택의 주소를 유가와에게 가르쳐 주었다。

驅使나기는 手帖을 꺼내어 하나오카 야스코가 사는 聯立 住宅의 住所를 有價와에게 가르쳐 주었다。

구사나기는 수첩을 꺼내어 하나오카 야스코가 사는 연립 주택의 주소를 유가와에게 가르쳐 주었다。

草薙は手帳を取り出し、花岡康子が住む連立住宅の住所を湯川に教えてくれた。

그것을 메모하는 물리학자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벌써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여。

그것을 메모하는 物理學者는 殺人 事件에 對해서는 벌써 興味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메모하는 물리학자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벌써 흥미를 잃은 것

처럼 보였다.

それをメモする物理学者は殺人事件についてはすでに興味を失ったように見えた。

오후 6시 28분, 하나오카 야스코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ㄴ다.

午後 6 時 28 分, 하나오카 야스코가 自転車를 타고 돌아왔다.

오후 6시 28분, 하나오카 야스코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다.

午後 6 時 28 分、花岡康子が自転車に乗って帰ってきた。

이시가미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어^ㄴ다.

이時加味는 그 모습을 窓門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시가미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石神はその姿を窓越しに見守っていた。

그의 앞에 있는 책상에는 방대하^ㄴ 양의 계산식을 적으^ㄴ 종이가 놓여 있다.

그의 앞에 있는 冊床에는 膨大한 量의 計算式을 적은 종이가 놓여 있다.

그의 앞에 있는 책상에는 방대한 양의 계산식을 적은 종이가 놓여 있다.

彼の前にある机には膨大な量の計算式を書いた紙が置かれている。

학교에서 돌아오^ㄴ 후에는 그런 계산식과 씨름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다.

學校에서 돌아온 後에는 그런 計算式과 씨름을 하는 것이 그의 일過多。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런 계산식과 씨름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다。

学校から帰ってきた後には、そのような計算式とシルムをするのが彼のルーチンだ。

그러나 오늘은 모처럼 유도부 연습을 쉬는 날이 _ 데도 그 작업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ㅅ다。

그러나 오늘은 모처럼 誘導不 練習을 쉬는 날인데도 그 作業에 아무런 進展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모처럼 유도부 연습을 쉬는 날인데도 그 작업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しかし今日はせっかく柔道部の練習を休む日なのにその作業に何の進展もなかった。

오늘뿐 아니라 요 며칠은 내내 그래 ㅅ다。

오늘뿐 아니라 요 며칠은 내내 그랬다。

오늘뿐 아니라 요 며칠은 내내 그랬다。

今日だけでなく、数日はずっとそうだった。

방에서 조용히 옆집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가고 있다。

房에서 조용히 옆집의 凍太를 살피는 것이 習慣이 되어 가고 있다。

방에서 조용히 옆집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가고 있다。

部屋で静かに隣の家の動態を調べるのが習慣になっていっている。

형사가 찾아오는지를 신경 써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刑事が 찾아오는지를 神経 써서 確認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가 찾아오는지를 신경 써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刑事が訪れるかどうか気にして確認しているのだ。

형사들은 어젯밤에도 찾아오는 것 같아^ㄴ다.

刑事들은 어젯밤에도 찾아오는 것 같^았다.

형사들은 어젯밤에도 찾아오는 것 같^았다.

刑事たちは昨夜も訪れるよう^だった。

전에 이시가미의 집에도 찾아오^ㄴ 그 두 형사다.

前に 此時加味の 집에도 찾아온 그 두 刑事^だ.

전에 이시가미의 집에도 찾아온 그 두 형사^다.

以前石神の家にも訪れてきたその二つの刑事^だ.

경찰수첩에서 보^ㄴ 구사나기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警察手帖에서 본 驅使나기라는 이름을 記憶하고 있다.

경찰수첩에서 본 구사나기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警察手帳で見た草薙という名前を覚えている。

야스코의 말에 따르면 예상대로 그들은 영화관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와ㄴ다고 하ㄴ다。

야스코의 말에 따르면 豫想대로 그들은 映畫館 알리바이를 確認하러 왔다고 한다。

야스코의 말에 따르면 예상대로 그들은 영화관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왔다고 한다。

ヤスコの言葉によると、予想通り彼らは映画館アリバイを確認しに来たという。

영화관에서 뭐ㄴ가 인상적이ㄴ 일이 있어ㄴ는지,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후나 영화관 안에서 누구ㄴ가와 맞닥뜨리지 않아ㄴ는지, 남으ㄴ 영화표 반쪽이 있는지, 영화관에서 음료수 같은ㄴ 것을 사ㄴ 영수증이 있는지, 영화는 어떤 내용이고 출연자는 누구인지 등등을 물어ㄴ다는 것이다。

映畫館에서 뭔가 引上的인 일이 있었는지, 映畫館에 들어가기 前後나 映畫館 안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리지 않았는지, 남은 映畫票 半쪽이 있는지, 映畫館에서 飲料水 같은 것을 산 領收證이 있는지, 映畫는 어떤 內容이고 出演者는 누구認知 等等을 물었다는 것이다。

영화관에서 뭔가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지,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후나 영화관 안에서 누군가와 맞닥뜨리지 않았는지, 남은 영화표 반쪽이 있는지, 영화관에서 음료수 같은 것을 산 영수증이 있는지, 영화는 어떤 내용이고 출연자는 누구인지 등등을 물었다는 것이다。

映画館で何か印象的なことがあったのか、映画館に入る前後や映画館の中で誰かに遭遇しなかったのか、残った映画票の半分があるのか、映画館で飲み物のようなものを買った領収書があるのか、映画はどんな内容で出演者は誰なのかなどを尋ねたということだ。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ㄴ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쪽은 알리바이가 확인되ㄴ 모양이다。

노래房과 關聯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쪽은 알리바이가 確認된 模様이다。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쪽은 알리바이가 확인된 모양이다。

カラオケに関しては何も問わ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見ると、そちらはアリバイが確認された模様だ。

물론 확인되는 게 당연하다。

勿論 確認되는 게 當然하다。

물론 확인되는 게 당연하다。

もちろん確認されるのが当然だ。

그러ㄴ 만하ㄴ 장소를 의식적으로 선택해ㄴ으니까。

그렇ㄴ 만한 場所를 意識적으로 選擇했으니까。

그럴 만한 장소를 의식적으로 선택했으니까.

そんな場所を意識的に選んだから。

팸플릿을 사 ㄴ 영수증과 영화표 반쪽을 이시가미가 지시하 ㄴ 순서대로 형사에
게 보여 주어 ㄴ다고 야스코는 말해 ㄴ다。

팸플릿을 산 領收證과 映畫票 半쪽을 이時加味が 指示한 順序대로 刑事에
게 보여 주었다고 야스코는 말했다。

팸플릿을 산 영수증과 영화표 반쪽을 이시가미가 지시한 순서대로 형사에
게 보여 주었다고 야스코는 말했다。

パンフレットを買った領収書と映画票の半分を石神が指示した順番で刑事に
見せたとヤスコは言った。

영화 내용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 ㄴ다고 해 ㄴ다。

映畫 內容 以外の 質問에 對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一貫되게
밀고 나갔다고 했다。

영화 내용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밀고 나갔다고 했다。

映画内容以外の質問については何も思い出さないと一貫して押し出していっ
たという。

그것 또한 이시가미가 사전에 알려 주 ㄴ 대로여 ㄴ다。

그것 또한 이時加味가 辭典에 일러 준 대로였다.

그것 또한 이시가미가 사전에 일러 준 대로였다.

それも石神が事前に言った通りだった。

그렇게 해서 형사들이 돌아가ㄴ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그거 ㄴ로 깨끗이 물러나
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ㄴ다。

그렇게 해서 刑事들이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그걸로 깨끗이 물러나
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형사들이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그걸로 깨끗이 물러나
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そうして刑事たちが帰ったとはいえ、彼らがそれで綺麗に退くとは思わなか
った。

영화관에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가ㄴ다는 거 ㄴ 하나오카 야스코를 의심하 ㄴ 만
하 ㄴ 데이터가 나와ㄴ기 때문이 ㄴ 것이다。

映畫館에 알리바이를 確認하러 갔다는 건 하나오카 야스코를 疑心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관에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갔다는 건 하나오카 야스코를 의심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映画館にアリバイを確認に行ったというのは、花岡康子を疑うほどのデータ
が出たからだ。

그 데이터란 과연 어떤 것이 **ㄴ**까。

그 데이터란 果然 어떤 것일까。

그 데이터란 과연 어떤 것일까。

そのデータとは果たしてどんなものだろうか。

이시가미는 점퍼를 집어 들고 일어서 **ㄴ**다。

이時加味는 점퍼를 집어 들고 일어섰다。

이시가미는 점퍼를 집어 들고 일어섰다。

石神はジャンパーを拾って立ち上がった。

전화 카드와 지갑, 집 열쇠를 챙기 **ㄴ** 후 집을 나서 **ㄴ**다。

電話 카드와 紙匣, 집 열쇠를 챙긴 後 집을 나섰다。

전화 카드와 지갑, 집 열쇠를 챙긴 후 집을 나섰다。

電話カードと財布、家の鍵を手に入れた後、家を出た。

계단에 이르러 **ㄴ**으 **ㄴ** 때 밑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 **ㄴ**다。

階段에 이르렀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에 이르렀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階段に達した時、下から上がる足音が聞こえた。

그는 걸음을 늦추며 아래쪽을 내려다봐 **ㄴ**다。

그는 걸음을 늦추며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그는 걸음을 늦추며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彼は歩みを遅らせて下を見下ろした。

야스코가 올라오고 있어ㄴ다.

야스코가 올라오고 있었다.

야스코가 올라오고 있었다.

ヤスコが上がっていた。

그는 이시가미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라ㄴ던 모양이다.

그는 이時加味が 위에 서 있다는 事實을 몰랐던 模様이다.

그는 이시가미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彼は石神が上に立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らなかったようだ。

스치기 직전이 되어서야 깜짝 놀라ㄴ 듯 걸음을 멈춰ㄴ다.

스치기 直前이 되어서야 깜짝 놀란 듯 걸음을 멈췄다.

스치기 직전이 되어서야 깜짝 놀란 듯 걸음을 멈췄다.

スチギ直前になってこそびっくりしたように歩きを止めた。

무슨 말이ㄴ가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시가미에게 전해
져ㄴ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하는 氣色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時加味에게 傳
해졌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시가미에게 전
해졌다。

何を言いたいかという氣配が頭を下げている石神に伝えられた。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이시가미가 먼저 말해ㄴ다。

그女가 입을 열기 前に 이時加味が 먼저 말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이시가미가 먼저 말했다。

彼女が口を開ける前に石神が先に言った。

“안녕하세요。

“安寧하세요。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다른 사람을 대하ㄴ 때와 똑같으ㄴ 어투와 낮으ㄴ 목소리가 나오도록 주의해ㄴ
다。

다른 사람을 對할 때와 똑같은 語套와 낮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注意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똑같은 어투와 낮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주의했다。

他人を扱う時と同じようなオトゥと低い声が出るように注意した。

그리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아ㄴ다。

그리고 絶對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そして絶対に目に遭わなかった。

걸음걸이도 바꾸지 않으ㄴ 채 묵묵히 계단을 내려가ㄴ다。

걸음걸이도 바꾸지 않은 채 黙黙히 階段을 내려갔다。

걸음걸이도 바꾸지 않은 채 묵묵히 계단을 내려갔다。

歩き方も変えずに黙々と階段を降りた。

어디서ㄴ가 형사가 지켜보고 있으ㄴ지 모르니 이시가미와 마주치ㄴ 경우 어디
까 지나 평범하ㄴ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도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지시하ㄴ 내
용 중 하나여ㄴ다。

어디선가 刑事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 이時加味와 마주칠 境遇 어디까
지나 平凡한 이웃으로 對하라는 것도 이時加味が 야스코에게 指示한 内容
中 하나였다。

어디선가 형사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 이시가미와 마주칠 경우 어디까
지나 평범한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도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지시한 내용
중 하나였다。

どこかで刑事が見守っ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ので石神に遭遇した場合、あく
まで平凡な隣人に対処するようにも石神が靖子に指示した内容の一つだっ

た。

그것을 떠올리 ㄴ 듯 그녀도 조그마 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만 대답하 ㄴ
후 계단을 올라가 ㅅ 다。

그것을 떠올린 듯 그녀도 조그만 목소리로 安寧하세요, 라고만 對答한 後
階段을 올라갔다。

그것을 떠올린 듯 그녀도 조그만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만 대답한 後
계단을 올라갔다。

それを思い出したように彼女も小さな声でこんにちは、とだけ答えた後、階
段を上がった。

그는 늘 사용하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걸어가 재빨리 수화기를 들고 전화 카드
를 밀어 넣어 ㅅ 다。

그는 늘 使用하는 公衆電話 부스까지 걸어가 재빨리 受話器를 들고 電話
카드를 밀어 넣었다。

그는 늘 사용하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걸어가 재빨리 수화기를 들고 전화
카드를 밀어 넣었다。

彼はいつも使用する公衆電話ブースまで歩き、すぐに受話器を持って電話カ
ードを押し込んだ。

30미터 정도 떨어지 ㄴ 곳에 있는 잡화점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 문
을 닫고 있어 ㅅ 다。

30미터 程度 떨어진 곳에 있는 雜貨店에서 主人으로 보이는 男子가 가게
門을 닫고 있었다。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잡화점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있었다。

30メートルほど離れたところにある雜貨店で、所有者に見える男が店のド
アを閉めていた。

그 외에는 인기척이 없다。

그 外에는 人氣척이 없다。

그 외에는 인기척이 없다。

その他には人氣尺がない。

“네, 저예요。

“네, 저예요。

“네, 저예요。

「はい、私です。

야스코의 목소리가 들려와^ㅅ다。

야스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스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ヤスコの声が聞こえてきた。

이시가미에게서 전화가 오 ㄴ 줄 알고 있어 ㄴ다는 투다。

이時加味에게서 電話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투다。

이시가미에게서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투다。

石神から電話が来ると思っていたという闘う。

그것이 이시가미는 무척 기뻐 ㄴ다。

그것이 이時加味는 무척 기뻐다。

그것이 이시가미는 무척 기뻐다。

それが石上はとても嬉しかった。

“이시가미이 ㄴ니다。

“이時加味입니다。

“이시가미입니다。

「石神です。

별일 없어 ㄴ습니까?”

別일 없었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あまりいませんでしたか？」

“저, 형사가 와 ㄴ었어요。

“저, 刑事가 왔었어요.

“저, 형사가 왔었어요.

「私、刑事がやってきました。

가게로요.

가게로요.

가게로요.

お店です。

“벤테 ㄴ 테이에 말이 ㅂ니까?”

“벤텐테이에 말입니까?”

“벤텐테이에 말입니까?”

「弁天亭のことですか？」

“네.

“네.

“네.

「はい。

늘 오던 그 형사여 ㅅ어요.

늘 오던 그 刑事였어요.

늘 오던 그 형사였어요.

いつも来たその刑事でした。

“이번에는 뭐 ㄴ 묻던가요?”

“이쑤에는 뭘 묻던가요?”

“이번에는 뭘 묻던가요?”

「今回は何を聞きましたか？」

“그게, 도가시가 베 ㄴ 테 ㄴ 테이에 오지 않아ㄴ냐고 해ㄴ어요.

“그게, 都家時가 벤텐테이에 오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그게, 도가시가 벤텐테이에 오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それが、戸堀が弁天亭に来なかったのかと言いました。

“뭐라고 대답하셔ㄴ습니까?”

“뭐라고 對答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何と答えましたか？」

“물론 오지 않아ㄴ다고 해ㄴ쑤.

“勿論 오지 않았다고 했쑤.

“물론 오지 않았다고 했쑤.

「もちろん来なかったそうです。

그러자 형사는 제가 없으 ㄴ 때 와 ㅅ으 ㄴ지도 모르 ㄴ 다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가더군요。

그러자 刑事는 제가 없을 때 왔을지도 모른다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
군요。

그러자 형사는 제가 없을 때 왔을지도 모른다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더군요。

すると刑事は私がいなかったときに来たかもしれないと言って店の奥に入ったん
ですね。

나중에 사요코 씨 부부에게 물어보아 ㅅ더니 도가시의 사진을 보여 주더라고요。

나중에 史요코 氏 夫婦에게 물어보았더니 도가시의 寫眞을 보여 朱德래
요。

나중에 사요코 씨 부부에게 물어보았더니 도가시의 사진을 보여 주더라고
요。

後でさよこさん夫婦に聞いてみたら、とがしの写真を見せてくれました。

이런 사람이 오지 않아 ㅅ냐면서요。

이런 사람이 오지 않았냐면서요。

이런 사람이 오지 않았냐면서요。

こんな人が来ていないかと思います。

그 형사,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 刑事, 저를 疑心하는 것 같아요.

그 형사,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その刑事、私を疑うようです。

“야스코 씨가 의심받는 거 ㄴ 예상대로이 ㄴ니다.

“야스코 氏が 疑心받는 건 豫想대로입니다.

“야스코 씨가 의심받는 건 예상대로입니다.

「ヤスコさんが疑われるのは予想通りです。

두려워하 ㄴ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必要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恐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

형사가 물으 ㄴ 거 ㄴ 그것뿐이 ㄴ니까?”

刑事가 물은 건 그것뿐입니까?”

형사가 물은 건 그것뿐입니까?”

探偵が水は何だけですか？」

“전에 일하던 가게에 대해서도 물어 ㄴ어요.

“전에 일하던 가게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전에 일하던 가게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前に働いていたお店についても聞きました。

기 ㅓ 시초에 있는 술집이 ㅓ 데, 지금도 그 가게에 가는 일이 있는지, 가게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지 묻더군요.

긴市草에 있는 술집인데, 只今도 그 가게에 가는 일이 있는지, 가게 사람과
連絡을 주고받는지 묻더군요.

긴시초에 있는 술집인데, 지금도 그 가게에 가는 일이 있는지, 가게 사람
과 연락을 주고받는지 묻더군요.

錦糸町にあるパブなのに、今でもそのお店に行くことがあるのか、お店の人
と連絡をやりとりするのか聞きました。

시키시 ㅓ 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해 ㅓ 어요.

시키신 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對答했어요.

시키신 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させた通り、そんなことはないと答えました。

그리고 저도 질문을 해 ㅓ 어요.

그리고 저도 質問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질문을 했어요.

そして私も質問をしました。

전에 있던 가게에 대해서는 왜 묻느냐고요。

前に 있던 가게에 對해서는 왜 묻느냐고요。

전에 있던 가게에 대해서는 왜 묻느냐고요。

前にあったお店についてはなぜ尋ねるのか。

그래ㄴ더니 도가시가 최근에 그 가게에 가ㄴ었다고 해ㄴ어요。

그랬더니 도가시가 最近에 그 가게에 갔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가시가 최근에 그 가게에 갔었다고 했어요。

そういえば、ドガシが最近その店に行ったと言いました。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아하, 그렇군요。

「ああ、そうですね。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귀에 대ㄴ 채 고개를 끄덕여ㄴ다。

이時加味는 受話器를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石神は受話器を耳にしたまま首をうなずいた。

“도가시가 그 가게에 가서 야스코 씨에 대해 이것저것 냄새를 맡고 가셨군요。

“도가시가 그 가게에 가서 야스코 氏에 對해 이것저것 냄새를 맡고 갔군요。

“도가시가 그 가게에 가서 야스코 씨에 대해 이것저것 냄새를 맡고 갔군요。

「とがしがそのお店に行って安子さんについて、あれこれ匂いを嗅いで行きました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そうだと思います。

제가 베 ㄴ 테 ㄴ 테이에 있다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되 ㄴ 듯하고요。

제가 벤텐테이에 있다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된 듯하고요。

제가 벤텐테이에 있다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된 듯하고요。

私がベンテンテイにいるということもそこで分かったようです。

형사는 도가시가 저를 찾고 있어 ㄴ 으니 베 ㄴ 테 ㄴ 테이에 오지 않아 ㄴ 으 ㄴ 리 없다고 하더군요。

刑事는 도가시가 저를 찾고 있었으니 벤텐테이에 오지 않았을 리 없다고 하더군요。

형사는 도가시가 저를 찾고 있었으니 벤텐테이에 오지 않았을 리 없다고 하더군요。

探偵は、道鹿市が私を探していたのでベンテンテーに来なかったはずがないと言いましたね。

그래서 제가 그래쑤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それで私はそうでした。

아무리 그러셔도 오지 않으ㄴ 거ㄴ 어찌란 말이냐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오지 않은 걸 어찌란 말이냐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오지 않은 걸 어찌란 말이냐고요。

いくらそうしても来ないの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

이시가미는 구사나기라는 형사의 얼굴을 떠올려쑤다。

이時加味는 驅使나기라는 刑事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시가미는 구사나기라는 형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石神は草薙という刑事の顔を思い浮かべた。

붙임성이 좋아 보이는 사내여^ㄴ다。

붙임性이 좋아 보이는 사내였다。

붙임성이 좋아 보이는 사내였다。

付着性が良く見える社内だった。

말투가 부드럽고 위압감이 없어^ㄴ다。

말套가 부드럽고 威壓感이 없었다。

말투가 부드럽고 위압감이 없었다。

口調が柔らかく、威圧感がなかった。

그러나 수사 1과 소속이라는 건 그 나름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는 얘기
다。

그러나 搜查 1과 所屬이라는 건 그 나름으로 情報 蒐集 能力이 있다는 얘
기다。

그러나 수사 1과 소속이라는 건 그 나름으로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는 얘
기다。

しかし捜査 1 と所属というのはそれなりに情報収集能力があるということ
だ。

상대를 겁주어 실토하게 만드는 타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실을 이끌어 내는
타입이 ^ㄴ 것이다。

相對를 겁주어 實吐하게 만드는 타입이 아니라 自然스럽게 眞實을 이끌어

내는 타입일 것이다。

상대를 겁주어 실토하게 만드는 타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실을 이끌어

내는 타입일 것이다。

相手を恐れて失墜させるタイプではなく、自然に眞實を引き出すタイプだろう。

우편물 속에서 데이트 대학 봉투를 찾아내는 걸 보면 관찰력도 상당하다。

郵便物 속에서 데이트 大學 封套를 찾아내는 걸 보면 觀察力도 相當하다。

우편물 속에서 데이트 대학 봉투를 찾아내는 걸 보면 관찰력도 상당하다。

郵便物の中でデート大学の封筒を見つけるのを見ると観察力も相当だ。

“그 외에 다른 거 ㄴ 묻지 않던가요?”

“그 外에 다른 건 묻지 않던가요?”

“그 외에 다른 건 묻지 않던가요?”

「他に何も聞かなかったんですか？」

“제게 물어보 ㄴ 거 ㄴ 그 정도여 ㅃ어요。

“제게 물어본 건 그 程度였어요。

“제게 물어본 건 그 정도였어요。

「私に尋ねたのはそれくらいでした。

그런데 미사토가……。

그런데 미사토가……。

그런데 미사토가……。

ところがミサトが… …。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잡으 ㄴ 손에 힘을 주어 ㄴ다。

이時加味는 受話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石神は受話器を握った手に力を与えた。

“미사토에게도 형사가 찾아와 ㄴ나요?”

“미사토에게도 刑事가 찾아왔나요?”

“미사토에게도 형사가 찾아왔나요?”

「ミサトにも刑事が訪れましたか？」

“네。

“네。

“네。

「はい。

방금 들어 ㄴ는데, 학교를 나서는데 말을 걸더라고요。

方今 들었는데, 學校를 나서는데 말을 걸더래요。

방금 들었는데, 학교를 나서는데 말을 걸더래요。

聞いたばかりですが、学校を出るのに話しかけました。

집에 찾아와 ㄴ던 형사들이 ㄴ 것 같아요。

집에 찾아왔던 刑事들인 것 같아요。

집에 찾아왔던 형사들인 것 같아요。

家に帰ってきた刑事たちらしいです。

“미사토 짱 지금 거기 있습니까?”

“미사토 짱 只今 거기 있습니까?”

“미사토 짱 지금 거기 있습니까?”

「ミサトちゃん今ここにいますか？」

“네。

“네。

“네。

「はい。

바꿔 드리 ㄴ게요。

바꿔 드릴게요。

바뀌 드릴게요.

変更させていただきます。

미사토가 바로 옆에 있어ㄴ던 듯, 금세 “여보세요.

미사토가 바로 옆에 있었던 듯, 금세 “여보세요.

미사토가 바로 옆에 있었던 듯, 금세 “여보세요.

ミサトがすぐそばにいたように、すぐに「こんにちは。

” 하는 목소리가 들려와ㄴ다.

”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という声が聞こえてきた。

“형사가 뭐ㄴ 물어ㄴ지?”

“刑事가 뭘 물었지?”

“형사가 뭘 물었지?”

「刑事が何を聞いたの？」

“그 사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찾아오지 않아ㄴ었느냐고요.

“그 사람 寫眞을 보여 주면서 찾아오지 않았었느냐고요.

“그 사람 사진을 보여 주면서 찾아오지 않았었느냐고요.

「その人の写真を見せながら訪れていなかったのか。」

그 사람이란 도가시이 ㄴ 것이다。

그 사람이란 도가시일 것이다。

그 사람이란 도가시일 것이다。

その人とは道家市だろう。

“안 와 ㄴ 다고 해 ㄴ 지?”

“안 왔다고 했지?”

“안 왔다고 했지?”

「来なかったと言った？」

“네。

“네。

“네。

「はい。

“다른 거 ㄴ 안 물어 ㄴ 어?”

“다른 건 안 물었어?”

“다른 건 안 물었어?”

「他は聞かなかった？」

“영화에 대해서 물어췌어요.

“映畫에 對해서 물었어요.

“영화에 대해서 물었어요.

「映画について聞きました.

영화를 보 ㄴ 날이 정말로 10일이어췌느냐, 착각하 ㄴ 거 ㄴ 아니냐고요.

映畫를 본 날이 正말로 10 日이었느냐, 錯覺한 건 아니냐고요.

영화를 본 날이 정말로 10일이었느냐, 착각한 건 아니냐고요.

映画を見た日が本当に 10 日だったのか、勘違いしたのではないかと.

분명히 10일이어췌다고 말해췌어요.

分明히 10 日이었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10일이었다고 말했어요.

明らかに 10 日だったと言いました.

“그래췌더니 형사가 뭐래?”

“그랬더니 刑事가 뭐래?”

“그랬더니 형사가 뭐래?”

「そうしたら刑事って何？」

“영화를 봐췌다는 거 ㄴ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 ㄴ 적 없느냐

고 물어쏘어요.

“映畫를 봤다는 걸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文字 메시지로 보낸 적 없느냐고 물었어요.

“영화를 봤다는 걸 누구에게 얘기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보낸 적 없느냐고 물었어요.

「映画を見たということを誰に話したり、テキストメッセージで送ったことがないのかと尋ねました。

“그래서 뭐라고 해쏘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だから何と言ったの？」

“문자를 보내지는 않아쏘지만 친구에게 얘기는 해쏘다고 대답해쏘어요.

“文字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親舊에게 얘기는 했다고 對答했어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친구에게 얘기는 했다고 대답했어요.

「文字を送らなかったが、友人に話をしたと答えた。

그래쏘더니 그 친구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쏘어요.

그랬더니 그 親舊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そうしたらその友人の名前を教えてください。

“가르쳐 줘 ㄴ니?”

“가르쳐 줬니?”

“가르쳐 줬니?”

「教えてくれた？」

“미카라고 말해 줘 ㄴ어요。”

“미카라고 말해 줬어요。”

“미카라고 말해 줬어요。”

「ミカと言ってくれました。

“미카 짱이라면, 12일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 ㄴ다는 친구 말이지?”

“미카 짱이라면, 12 日에 映畫에 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親舊 末이지?”

“미카 짱이라면, 12일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친구 말이지?”

「ミカちゃんなら、12 日に映画について話を交わしたという友人なんだ
ろ？」

“네。”

“네。”

“네。”

「はい。

“그래, 그럼 돼ㄴ다。

“그래, 그럼 됐다。

“그래, 그럼 됐다。

「ええ、それでした。

그 밖에 또 다른 거ㄴ?”

그 밖에 또 다른 건?”

그 밖에 또 다른 건?”

他に別のこと？」

“그러고는 별것 없어ㄴ어요。

“그러고는 別것 없었어요。

“그러고는 별것 없었어요。

「それでは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

학교생활은 즐거우냐, 배드민턴 연습은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러ㄴ 것들요。

學校生活은 즐거우냐, 배드민턴 練習은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요。

학교생활은 즐거우냐, 배드민턴 연습은 힘들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요。

学校生活は楽しいのか、バドミントン練習は大変じゃないか、まあそんなこ

とですよ。

그런데 그 사람, 제가 배드민턴부라는 거 ㄴ 어떻게 알아ㄴ으ㄴ까요? 라켓도 안 들고 있어ㄴ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제가 배드민턴부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켓도 안 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제가 배드민턴부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켓도 안 들고 있었는데요。

ところで、その人、私がバドミントン部であることをどうやって知ったのでしょうか？ラケットも持っていませんでした。

아마도 집 안에 놓여 있던 라켓을 보 ㄴ 모양이라고 이시가미는 짐작해ㄴ다。

아마도 집 안에 놓여 있던 라켓을 본 模樣이라고 이時加味는 斟酌했다。

아마도 집 안에 놓여 있던 라켓을 본 모양이라고 이시가미는 짐작했다。

おそらく家の中に置かれていたラケットを見たようだと言神は推測した。

역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관찰력이다。

亦是 放心해서는 안 되는 觀察力이다。

역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관찰력이다。

やはり油断してはならない觀察力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どう思いますか？」

수화기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다시 야스코로 바뀌어 왔다.

受話器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다시 야스코로 바뀌었다.

수화기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다시 야스코로 바뀌었다.

受話器で聞こえる声がまたヤスコに変わった。

“문제없습니다.

“問題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問題ありません。

이시가미는 힘을 주어 대답해 왔다.

이時加味는 힘을 주어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힘을 주어 대답했다.

石神は力を与えて答えた。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그女를 安心시키기 爲해서다.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彼女を安心させるためだ。

“모든 일이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計算臺로 進行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すべてのことが計算通りに進んでいます。

앞으로도 형사가 또 오겠지만, 제 지시대로만 하시면 괜찮으ㄴ 거ㄴ니다。

앞으로도 刑事가 또 오겠지만, 제 指示대로만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도 형사가 또 오겠지만, 제 지시대로만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これからも刑事がまた来ますが、私の指示どおりにすれば大丈夫でしょう。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시가미 씨만 믿으ㄴ게요。

이시가美 氏만 믿을게요。

이시가미 씨만 믿을게요。

石神さんだけ信じますよ。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頑張ってください。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 ^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됩니다。

今後もう少し参考に耐えればいいです。

그럼 내일 또。

그럼 來日 또。

그럼 내일 또。

では明日また。

전화를 끊고 카드를 빼내면서 이시가미는 마지막 말에 대해 후회해 ^ㅅ다。

電話를 끊고 카드를 빼내면서 이時加味는 마지막 末에 對해 後悔했다。

전화를 끊고 카드를 빼내면서 이시가미는 마지막 말에 대해 후회했다。

電話を切ってカードを取り出して石神は最後の言葉について後悔した。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되 ^ㄴ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는 말은 너무 無責任하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

今後もう少し参考に耐えればいいという言葉はあまりにも無責任だ。

앞으로 조금만이라니, 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이란 말인가。

앞으로 조금만이라니, 代替 어느 程度의 期間이란 말인가。

앞으로 조금만이라니, 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이란 말인가。

これからちょっとだけって、一体どれくらいの期間というのか。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具體적으로 提示할 수 없는 事實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具體的に提示できない事実を話してはならない。

하지만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計算臺로 進行되고 있다는 말은 事實이다。

하지만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だが、計算通りに進んでいるという言葉は事実だ。

도가시가 야스코를 찾고 있어♫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ㄴ 시간문제라고 생각

해♫고, 그럴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던 것이다。

도가시가 야스코를 찾고 있었다는 事實이 밝혀지는 건 時間問題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必要하다고 判斷했던 것이다。

도가시가 야스코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道鹿市がヤスコを探してい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るのは時間問題だと思
い、そのためアリバイが必要だと判断したのだ。

또한 그 알리바이에 대해 경찰이 의심을 품는 것도 생각해^ㄴ던 대로다。

또한 그 알리바이에 對해 警察이 疑心을 품는 것도 생각했던 대로다。

또한 그 알리바이에 대해 경찰이 의심을 품는 것도 생각했던 대로다。

またそのアリバイについて警察が疑いを抱くことも考えた通りだ。

미사토에게 형사가 찾아오^ㄴ 것이라고도 이미 예상해^ㄴ다。

미사토에게 刑事가 찾아올 것이라고도 이미 豫想했다。

미사토에게 형사가 찾아올 것이라고도 이미 예상했다。

ミサトに刑事が訪れるともすでに予想していた。

아마도 형사들은 딸을 공략하는 편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기 쉽다고 판단해^ㄴ
으^ㄴ 것이다。

아마도 刑事들은 딸을 攻略하는 便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기 쉽다고 判斷
했을 것이다。

아마도 형사들은 딸을 공략하는 편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기 쉽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おそらく刑事たちは娘を攻略したほうがアリバイを崩しやすいと判断しただろう。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시가미는 이미 다양한 조치를 취해 두었다.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時加味는 이미 多様な措置를 取해 두었다.

그것을 꿰뚫어 보고 이시가미는 이미 다양한 조치를 취해 두었다.

それを貫いて見て石神はすでに様々な措置を取っておいた。

그러나 혹시 놓치 部分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或是 놓친 部分이 없는지 다시 한 番 체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이다.

しかし、もし見逃した部分がないか、もう一度チェックするのが良いだろう。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웬 남자가 서 있어 。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웬 男子가 서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웬 남자가 서 있었다.

そんな思いをしながら家に帰るのに家の前にウエン男が立っていた。

얇은 검정 코트를 입은 키 크 男子여 。

얇은 檢定 코트를 입은 키 큰 男子였다。

얇은 검정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였다。

薄い黒いコートを着た背の高い男だった。

이시가미의 발소리를 들어ㄴ는지 남자는 얼굴을 이시가미 쪽으로 돌리고 있어
ㄴ다。

이時加味の 발소리를 들었는지 男子는 얼굴을 이時加味 쪽으로 돌리고 있
었다。

이시가미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남자는 얼굴을 이시가미 쪽으로 돌리고 있
었다。

石神の足音を聞いたのか、男は顔を石神に向かって回していた。

안경 렌즈가 번득여ㄴ다。

眼鏡 렌즈가 번득였다。

안경 렌즈가 번득였다。

眼鏡レンズが盛り上がった。

형사이ㄴ가 생각하다가 그거ㄴ 아니ㄴ 거라고 이내 생각을 바꿔ㄴ다。

刑事인가 생각하다가 그건 아닐 거라고 以內 생각을 바꿨다。

형사인가 생각하다가 그건 아닐 거라고 이내 생각을 바꿨다。

刑事なのかと思ったが、それではないだろうと、思考を変えた。

남자의 구두가 새로 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ㅆ던 것이다。

男子の 구두가 새로 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다。

남자의 구두가 새로 산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다。

男の靴が新しく買ったようにキラキラ輝いたのだ。

경계하면서 다가가는데 상대가 입을 열어^ㅆ다。

警戒하면서 다가가는데 相對가 입을 열었다。

경계하면서 다가가는데 상대가 입을 열었다。

警戒しながら近づくのに相手が口を開いた。

“이시가미?”

“이時加味?”

“이시가미?”

「石神？」

그 소리에 이시가미는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아^ㅆ다。

그 소리에 이時加味는 相對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소리에 이시가미는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その声に石神は相手の顔を眺めた。

상대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ㅆ다。

相對가 얼굴에 微笑를 짓고 있었다.

상대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相手が顔に微笑んでいた。

그것도 낯익은 ㅁ 미소를.

그것도 낯익은 微笑를.

그것도 낯익은 미소를.

それも見慣れた笑顔を。

이시가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을 활짝 떠ㅅ다.

이時加味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을 활짝 떴다.

이시가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을 활짝 떴다.

石神は息を大きく吸いながら目を開けた。

“유가와 마나부?”

“有價와 마나不?”

“유가와 마나부?”

「湯川とまなぶ？」

20년도 더 지나 ㅁ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ㅅ다.

20 年도 더 지난 記憶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20년도 더 지난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20 年もさらに過ぎた記憶が鮮やかに蘇った。

6

6

6

6

그날도 강의실은 평소처럼 텅 비어 있어ㄴ다.

그날도 講義室은 平素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날도 강의실은 평소처럼 텅 비어 있었다.

その日も講義室はいつものように空いていた。

꼭 차면 100명은 앉으 ㄴ 수 있는 강의실이 ㄴ데 기껏해야 스무 명 정도가 앉아

있으 ㄴ 뿐이어ㄴ다.

꼭 차면 100 名은 앉을 수 있는 講義室인데 기껏해야 스무 名 程度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꼭 차면 100명은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인데 기껏해야 스무 명 정도가 앉

아 있을 뿐이었다.

いっぱいになれば 100 人は座れる講義室なのにせいぜい 20 人程度が座って

いるだけだった。

게다가 학생 대부분이 출석 체크만 마치면 즉시 나가 ㄴ 수 있도록, 혹은 짤짤

하기 위해 뒷자리에 몰려 앉아 있어ㄴ다.

게다가 學生 大部分이 出席 체크만 마치면 即時 나갈 수 있도록, 或은 旣
것을 하기 爲해 뒷자리에 몰려 앉아 있었다.

게다가 학생 대부분이 출석 체크만 마치면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혹은旣
것을 하기 위해 뒷자리에 몰려 앉아 있었다.

しかも、学生のほとんどが出席チェックを終えたらすぐに出ることができる
ように、あるいは別れをするために後席に集まって座っていた。

그중에서도 수학과 지망생은 특히 적어ㄴ다。

그中에서도 數學과 志望生은 特히 적었다。

그중에서도 수학과 지망생은 특히 적었다。

その中でも数学と志望生は特に少なかった。

이시가미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좋아ㄴ다。

이時가美 外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좋았다。

이시가미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해도 좋았다。

石上以外には誰もいないとしてもよかった。

응용 물리학의 역사적 배경만 들어야 하는 그 강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
ㄴ다。

應用 物理學의 歴史的 背景만 들어야 하는 그 講義는 學生들에게 人氣가
없었다。

응용 물리학의 역사적 배경만 들어야 하는 그 강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応用物理学の歴史的背景だけを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講義は学生たちに
人氣がなかった。

이시가미도 그 강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만 평소 습관대로 맨 앞줄 왼쪽에
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다。

이時加味도 그 講義에 別로 關心이 없었지만 平素 習慣대로 맨 앞줄 왼쪽
에서 두 番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시가미도 그 강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평소 습관대로 맨 앞줄 왼쪽
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石上もその講義にあまり関心がなかったが、普段の習慣通り、一番前の列の
左から2番目の席に座っていた。

어느 강의에서나 그는 그 자리나 그 근처 자리에 앉아,,다。

어느 講義에서나 그는 그 자리나 그 近處 자리에 앉았다。

어느 강의에서나 그는 그 자리나 그 근처 자리에 앉았다。

どの講義でも、彼はその場所やその近くの座に座った。

한복판에 앉지 않는 것은 강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는 의식이 있어,,기
때문이다。

한복판에 앉지 않는 것은 講義를 客觀적으로 把握하고 싶다는 意識이 있었

기 때문이다。

한복판에 앉지 않는 것은 강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真ん中に座らないのは、講義を客観的に把握したいという意識があったからだ。

그는 아무리 우수하 ㄴ 교수라도 늘 올바르 ㄴ 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ㄴ 다。

그는 아무리 優秀한 教授라도 늘 올바른 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우수한 교수라도 늘 올바른 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彼はいくら優秀な教授でもいつも正しい言葉だけでは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

늘 고독해 ㄴ 던 그의 뒷자리에 그날은 어찌 ㄴ 일로 학생 하나가 앉아 있어 ㄴ 다。

늘 孤獨했던 그의 뒷자리에 그날은 어떤 일로 學生 하나가 앉아 있었다。

늘 고독했던 그의 뒷자리에 그날은 어떤 일로 학생 하나가 앉아 있었다。

いつも孤独だった彼の後席に、その日はどうして学生一人が座っていた。

그러나 이시가미는 그 사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ㄴ 다。

그러나 이時加味는 그 事實에 對해 別로 神經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시가미는 그 사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しかし石神はその事実についてあまり気にしなかった。

교수가 들어오 ㄴ 때까지 그가 해야 하 ㄴ 일이 있어 ㄴ다。

教授가 들어올 때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교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教授が入るまで彼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った。

그는 노트를 꺼내 어떤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해 ㄴ다。

그는 노트를 꺼내 어떤 問題와 씨름하기 始作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어떤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彼はノートを取り出し、何らかの問題に直面し始めた。

“그쪽도 에르되시 신자?”

“그쪽도 에르되시 신자?”

“그쪽도 에르되시 신자?”

「そちらもエルザシ信者？」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ㄴ다。

처음에는 그것이 自身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最初はそれが自分にする音であることに気付かなかった。

그러 ㅁ에도 고개를 돌리 ㄴ 것은 에르되시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가 일어 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개를 돌린 것은 에르되시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人間이 있다는
事實에 興味가 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개를 돌린 것은 에르되시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인간이 있
는 사실에 흥미가 일었기 때문이다。

それでも首を回したのは、エルヘシという名前を口に入れる人間がいるとい
う事実に興味があったからだ。

뒤를 돌아보니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셔츠를 가슴까지 풀어헤치 ㄴ
학생이 턱을 괴고 앉아 있어 ㅁ다。

뒤를 돌아보니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셔츠를 가슴까지 풀어헤친
學生이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셔츠를 가슴까지 풀어헤친
학생이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後ろを振り返ってみると、髪を肩まで伸ばしてシャツを胸までほぐした学生
があごを壊して座っていた。

목에 걸리 ㄴ 금빛 목걸이가 반짝거려 ㅁ다。

목에 걸린 金빛 목걸이가 반짝거렸다。

목에 걸린 금빛 목걸이가 반짝거렸다。

首にかかった金色のネックレスがキラキラした。

가끔 보아_ㅅ던 얼굴이다。

가끔 보았던 얼굴이다。

가끔 보았던 얼굴이다。

たまに見た顔だ。

물리학과 지망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_ㅅ다。

物理學科 志望生이라는 事實도 알고 있었다。

물리학과 지망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物理学と志望生という事実も知っていた。

말을 건네_ㄴ 사람이 이 녀석은 아니_ㄴ 거야。

말을 건넨 사람이 이 녀석은 아닐 거야。

말을 건넨 사람이 이 녀석은 아닐 거야。

話しかけた人がこのやつじゃないの。

이시가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발남이 턱을 괴_ㄴ 자세 그대로 입을 열어_ㅅ
다。

이時加味が 그렇게 생각하는데 長髮男이 턱을 꺾 姿勢 그대로 입을 열었다。

이시가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발남이 턱을 꺾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다。

石神がそう思うのに、長髮男があごを構える姿勢そのまま口を開いた。

“종이와 연필로는 한계가 있어。

“종이와 鉛筆로는 限界が 있어。

“종이와 연필로는 한계가 있어。

「紙と鉛筆では限界がある。

하기야 시도하 ㄴ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으 ㄴ지도 모르지만。

하기야 試圖한다는 것 自體에 意味が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기야 시도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自体に意味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

장발남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와 이시가미는 살짝 놀라 ㄴ다。

長髮男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와 이時加味는 살짝 놀랐다。

장발남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흘러나와 이시가미는 살짝 놀랐다。

長髮男の口からそんな音が流れて石神は少し驚いた。

“내가 뭐 ㄴ 하는 거 ㄴ지 알아?”

“내가 뭘 하는 건지 알아?”

“내가 뭘 하는 건지 알아?”

「私が何をしているのか知っていますか？」

“언뜻 보여ㄴ어。

“언뜻 보였어。

“언뜻 보였어。

「一見した。

일부러 훑쳐보ㄴ 거ㄴ 아니야。

일부러 훑쳐본 건 아니야。

일부러 훑쳐본 건 아니야。

わざわざ盗んだわけじゃない。

장발남은 이시가미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켜ㄴ다。

長髪남은 이時加味の 冊床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장발남은 이시가미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長髪男は石神の机を指で指した。

이시가미는 자신의 노트로 눈길을 돌려ㄴ다。

이時加味는 自身の 노트로 눈길을 돌렸다。

이시가미는 자신의 노트로 눈길을 돌렸다.

石神は自分のノートに注目を集めた。

수식이 적혀 있기 \searrow 하지만 그거 \searrow 전체 수식 중 중간 부분이고, 그것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searrow 다.

修飾이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건 全體 修飾 中 中間 部分이고, 그것도 極히 一部에 지나지 않았다.

수식이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건 전체 수식 중 중간 부분이고, 그것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数式が書かれているがそれは全体の数式の中間部分であり、それまごく一部に過ぎなかった。

한눈에 그게 뭐 \searrow 지를 알아 \searrow 다면 이 문제에 매달려 보 \searrow 경험이 있다는 얘기여 \searrow 다.

한눈에 그게 뭔지를 알았다면 이 問題에 매달려 본 經驗이 있다는 얘기였다.

한눈에 그게 뭔지를 알았다면 이 문제에 매달려 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였다.

一目でそれが何かを知ったら、この問題にぶら下がって見た経験があるという話だった。

“이거 \searrow 해 보 \searrow 적이 있어?”

“이걸 해 본 적이 있어?”

“이걸 해 본 적이 있어?”

「これをしたことがある？」

이시가미가 물었다.

이時加味가 물었다.

이시가미가 물었다.

石神が尋ねた。

장발남은 그제야 턱을 괴어 있던 팔을 내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長髮男은 그제야 턱을 괴었던 팔을 내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장발남은 그제야 턱을 괴었던 팔을 내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長髮男はその頃顎を怪我した腕を下げて苦笑をした。

“나ㄴ 불필요하ㄴ 거ㄴ 하지 말자는 주의야.

“난 不必要한 건 하지 말자는 注意야.

“난 불필요한 건 하지 말자는 주의야.

「私は不要なことはしないでください。

물리학과 지망생이니까.

物理學科 志望生이니까.

물리학과 지망생이니까。

物理学と志望生だから。

수학자가 만들어 내 ㄴ 정리를 사용하 ㄴ 뿐이지。

數學者가 만들어 낸 整理를 使用할 뿐이지。

수학자가 만들어 낸 정리를 사용할 뿐이지。

数学者が作り出した整理を使うだけだ。

“그렇지만 이 문제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問題에는 關心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문제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야?”

「でも、この問題に関心があるというの？」

이시가미가 자신의 노트를 집어 들어 ㄴ다。

이時加味가 自身の 노트를 집어 들었다。

이시가미가 자신의 노트를 집어 들었다。

石神が自分のノートを拾い上げた。

“증명이 끝나 ㄴ으니까。

“證明이 끝났으니까。

“증명이 끝났으니까。

「証明が終わったから。

증명되어 ㄴ다는 거 ㄴ알아서 손해나 ㄴ일은 없지。

證明되었다는 걸 알아서 손해날 일은 없지。

증명되었다는 걸 알아서 손해날 일은 없지。

証明されたことを知って損をすることはない。

그는 이시가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해 ㄴ다。

그는 이時加味の 눈을 바라보며 말을 繼續했다。

그는 이시가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彼は石神の目を見ながら話し続けた。

“4색문제는 증명돼 ㄴ어。

“4色問題は 證明됐어。

“4색문제는 증명됐어。

「四色問題は証明された。

지도에서 네 가지 색으로 모든 인접 국가를 구별하 ㄴ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指導에서 네 가지 色으로 모든 隣接 國家를 區別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지도에서 네 가지 색으로 모든 인접 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地図で 4 色ですべての隣接国を区別できるということだ。

“모두 다는 아니야。

“모두 다는 아니야。

“모두 다는 아니야。

「すべてではない。

“그래。

“그래。

“그래。

「ええ。

평면 또는 구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아마。

平面 또는 舊面上이라는 條件이 붙었지, 아마。

평면 또는 구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지, 아마。

平面または球面上という条件がついた、おそらく。

그것은 수학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였따。

그것은 數學系에서도 가장 有名な 問題 中 하나였다。

그것은 수학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였다。

それは数学界でも最も有名な問題の一つだった。

‘평면 또는 구면상의 지도에서 네 가지 색으로 모든 인접 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1879년에 영국의 아서 케일리가 제시한 문제다.

‘平面 또는 舊面上의 指導에서 네 가지 色으로 모든 隣接 國家를 區別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1879 年に 英國의 아서 케일리가提示한 問題다.

‘평면 또는 구면상의 지도에서 네 가지 색으로 모든 인접 국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1879년에 영국의 아서 케일리가 제시한 문제다.

「平面または球面上の地図で 4 色ですべての隣接国を区別できるか」ということで、1879 年にイギリスのアーサー・ケイリーが提示した問題だ。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지도를 고안하면 되는 일이어쎄는데, 해결되기까지 100년 가까우ㄴ 세월이 걸려쎄다.

區別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不可能한 指導를 考案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解決되기까지 100 年 가까운 歲月이 걸렸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한 지도를 고안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해결되기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区別できることを証明するかどうか、それが不可能な指導を考案すればよいことだったが、解決されるまで 100 年近い歲月がかかった。

증명하ㄴ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케네스 아펠과 볼프강 하케ㄴ이다.

證明한 사람은 美國 일리노이 大學의 케네스 아펠과 볼프강 하켄이다.

증명한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케네스 아펠과 볼프강 하켄이다.

証明した人はアメリカイリノイ大学のケネス・アペルとヴォルフガング・ハーケンだ。

두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 지도가 기본적으로 약 150종류의 패턴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150종류의 패턴을 네 가지 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두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 地圖가 基本的으로 約 150 種類의 패턴밖에 안 된다는 것을 確認하고, 그 150 種類의 패턴을 네 가지 色으로 區別할 수 있다는 事實을 證明했다。

두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해 지도가 기본적으로 약 150종류의 패턴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150종류의 패턴을 네 가지 색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二人はコンピュータを利用して地図が基本的に約 150 種類のパターンしかないことを確認し、その 150 種類のパターンを 4 色に区別できるという事実を証明した。

1976년의 일이어냈다。

1976 年の 일이었다。

1976년의 일이었다。

1976 年のことだった。

“나는 그 증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證明이 完璧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證명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私はその証明が完璧だとは思わない。

이시가미가 말해ㄴ다。

이時加味가 말했다。

이시가미가 말했다。

石神が言った。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렇겠지。

「そうだね。

그러니까 그렇게 종지와 연필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종지와 鉛筆로 問題を 풀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종지와 연필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겠지。

だからそう紙と鉛筆で問題を解いているのだろう。

“그 방식은 인간이 수작업으로 조사하기에는 너무 방대해。

“그 方式은 人間이 手作業으로 調査하기에는 너무 膨大해。

“그 방식은 인간이 수작업으로 조사하기에는 너무 방대해.

「その方法は人間が手作業で調べるにはあまりにも膨大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ㄴ 겠지만, 덕분에 그 증명이 옳으ㄴ 지 그르ㄴ 지를 완벽하게 판단하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컴퓨터를 利用했겠지만, 德분에 그 證明이 옳은지 그른지를 完璧하게 判斷할 方法이 없어.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했겠지만, 덕분에 그 증명이 옳은지 그른지를 완벽하게 판단할 방법이 없어.

だからコンピュータを利用しただろうが、おかげでその証明が正しいかどうかを完璧に判断する方法がない。

확인하는 데도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ㄴ 다면 그거ㄴ 진정하ㄴ 수학이 아니야.

確認하는 데도 컴퓨터를 利用해야 한다면 그건 眞正한 數學이 아니야.

확인하는 데도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수학이 아니야.

確認するのにコンピュータ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ら、それは本当の数学ではない。

“역시 에르되시 신자네.

“亦是 에르되시 信者네.

“역시 에르되시 신자네.

「やっぱり、エルバシの信者。

장발남은 그렇게 말하고 싱긋 웃어ㄴ다。

長髮男은 그렇게 말하고 싱긋 웃었다。

장발남은 그렇게 말하고 싱긋 웃었다。

チャン・バルナムはそう言って、笑う。

포 ≡ 에르되시는 헝가리 태생의 수학자다。

葡 ≡ 에르되시는 헝가리 胎生の 數學者だ。

폴 에르되시는 헝가리 태생의 수학자다。

ポール・エルセシはハンガリー生まれの数学者だ。

세계 곳곳을 방랑하면서 각지의 수학자와 공동 연구를 하ㄴ 것으로 유명해ㄴ다。

世界 곳곳을 放浪하면서 各地의 數學者와 共同 研究을 한 것으로 有名했다。

세계 곳곳을 방랑하면서 각지의 수학자와 공동 연구를 한 것으로 유명했다。

世界各地を放浪しながら各地の数学者と共同研究をしたことで有名だった。

좋으ㄴ 정리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자연스러우며 간결하ㄴ 증명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ㄴ던 사람이다。

좋은 整理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自然스러우며 簡潔한 證明이 있다는 信念을 가졌던 사람이다。

좋은 정리에는 반드시 아름답고 자연스러우며 간결한 증명이 있다는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다。

良い整理には必ず美しく自然で簡潔な証明があるという信念を持った人だ。

4색문제에 관해서도 아펠과 하케의 증명이 아마도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증명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_ㄴ 바 있어_ㅆ다。

4色問題に 關해서도 아펠과 하켄의 證明이 아마도 옳을 것이라고 認定하면서도 그 證明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 바 있었다。

4색문제에 관해서도 아펠과 하켄의 증명이 아마도 옳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증명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 바 있었다。

四色問題に關しても、アペルとハッケンの証明がおそらく正しいと認めながらも、その証明は美しくないと言った。

장발남은 이시가미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아_ㅆ다。

長髮남은 이時加味の 本質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다。

장발남은 이시가미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다。

長髮男は石神の本質をしっかりと貫いてみた。

아니_ㄴ 게 아니라 이시가미는 그야말로 ‘에르되시 신자’여_ㅆ다。

아닌 게 아니라 이時加味는 그야말로 ‘에르되시 신자’였다。

아닌 게 아니라 이시가미는 그야말로 ‘에르되시 신자’였다.

ないのではなく石神はまさに「エルシシ信者」だった。

“어제 수치 해석 시험 문제에 대해 교수에게 질문하러 가^ㅅ었어.

“어제 數値 解釋 試験 問題에 對해 教授에게 質問하러 갔었어.

“어제 수치 해석 시험 문제에 대해 교수에게 질문하러 갔었어.

「昨日、数値解析試験問題について教授に質問に行きました。

장발남으^ㄴ 화제를 돌려^ㅅ다.

長髮남은 話題를 돌렸다.

장발남은 화제를 돌렸다.

長髮男は話題を回した。

“문제 자체는 잘못되지 않아^ㅅ지만 해답이 명쾌하지 않아서 말이야.

“問題 自體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解答이 明快하지 않아서 말이야.

“문제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해답이 명쾌하지 않아서 말이야.

「問題自体は間違っていないんですが、答えが明快ではなかったからです。

아니나 다르^ㄴ까, 인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ㅅ다고 하더군.

아니나 다를까, 印刷에서 若干의 失手가 있었다고 하더군.

아니나 다를까, 인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군.

いや違うか、印刷で若干の間違いがあったと言ったね。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똑같은 ̎ 질문을 하 ̎ 학생이 있어 ̎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똑같은 質問을 한 學生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똑같은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다는 거야.

ところで、驚くべきことに私と同じ質問をした学生がいたということだ。

솔직히 말해 좀 약 오르다는 생각이 들어 ̎어.

率直히 말해 좀 約 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말해 좀 약 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

正直言ってちょっと上がるって気がしました。

그 문제를 완벽하게 푸 ̎ 사람은 나밖에 없 ̎ 거라고 자부하고 있어 ̎거든.

그 問題를 完璧하게 푼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고 自負하고 있었거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푼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

その問題を完璧に解いた人は私しかいないと自負していたんだ。

“그런 정도는……。

“그런 程度는……。

“그런 정도는……。

「そんなくらいは… …。

거기까지 말하고 이시가미는 말을 삼켜쌌다.

거기까지 말하고 이時加味는 말을 삼켰다.

거기까지 말하고 이시가미는 말을 삼켰다.

そこまで言って石神は言葉を飲み込んだ。

“이시가미라면 푸는 게 당연하지, 라고 교수도 말해쌌어.

“이時加味라면 푸는 게 當然하지, 라고 教授도 말했어.

“이시가미라면 푸는 게 당연하지, 라고 교수도 말했어.

「石神だと解くのは当然じゃない、と教授も言った。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군.

亦是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군.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군.

やっぱり走る奴の上に俺は奴があったね。

내게 수학과는 무리라고 생각해쌌어.

내게 數學科는 무리라고 생각했어.

내게 수학과는 무리라고 생각했어.

私に数学科は無理だと思った。

“그쪽은 물리학과 지망이지?”

“그쪽은 物理學科 志望이지?”

“그쪽은 물리학과 지망이지?”

「そちらは物理学と志望だろ？」

“유가와야。

“有價와야。

“유가와야。

「湯川だ。

잘 부탁해。

잘 付託해。

잘 부탁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유가와가 이시가미에게 악수를 청해_ㅆ다。

有價와街 이市街美에게 握手를 請했다。

유가와가 이시가미에게 악수를 청했다。

湯川が石上に握手を求めた。

괴상하_ㄴ 녀석이다 싶어_ㅆ지만 이시가미는 손을 내밀어_ㅆ다。

怪常한 녀석이다 싶었지만 이時加味는 손을 내밀었다。

괴상한 녀석이다 싶었지만 이시가미는 손을 내밀었다.

変なやつだと思ったが石神は手を差し出した。

그리고 한편으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ㄴ다.

그리고 한便으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そして一方で本当に皮肉だと思った。

자신이야말로 늘 괴상하^ㄴ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 와^ㄴ기 때문이다.

自身이야말로 늘 怪常한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 왔기 때문이다.

자신이야말로 늘 괴상한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 왔기 때문이다.

自分こそいつも怪奇なやつという言葉聞いてきたからだ。

유가와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ㄴ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마주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으^ㄴ 정도로 빼놓지 않고 대화를 나눴^ㄴ다.

有價와와 特別히 親하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마주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程度로 빼놓지 않고 對話를 나눴다.

유가와와 특별히 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마주치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빼놓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

湯川と特に親しく過ごしたわけではないが、顔を合わせると「必ず」と言っ

ても良いほど欠かさず對話を交わした。

그는 박학해서 수학이나 물리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아^ㄴ다.

그는 博學해서 數學이나 物理學 以外の 分野에 對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다。

그는 박학해서 수학이나 물리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았다。

彼は博學して数学や物理学以外の分野についても知ることが多かった。

이시가미가 내심 경시하는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ㄴ다.

이時加味が 内心 輕視하는 文學이나 藝術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시가미가 내심 경시하는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石神が内心輕視する文学や芸術についても同様だった。

그러나 그 지식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이시가미도 아^ㄴ 수 없어^ㄴ다.

그러나 그 知識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이時加味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는 이시가미도 알 수 없었다。

しかし、その知識がどれほど深いのかは石神も分からなかった。

그것을 판단하^ㄴ 만하^ㄴ 기준이 그에게 없어^ㄴ고, 유가와 또한 이시가미가 수학 이외의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ㄴ는지 얼마 후부터는 다른 분야에 대하^ㄴ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아^ㄴ기 때문이다。

그것을 判斷할 만한 基準이 그에게 없었고, 有價와 또한 이時加味が 數學

以外の分野에는 關心이 없다는 事實을 알았는지 얼마 後부터는 다른 分野에 對한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 그에게 없었고, 유가와 또한 이시가미가 수학 이외의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는 事實을 알았는지 얼마 후부터는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それを判断するほどの基準が彼にはなかったし、有価と石石が数学以外の分野には関心がないという事実を知ったか、しばらくしてからは他の分野に対する話を口に込めなかったからだ。

그래도 이시가미에게 유가와는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만나 ㄴ 대화 상대여 ㄴ고 실력을 인정하 ㄴ 만하 ㄴ 친구여 ㄴ다。

그래도 이時加味에게 有價와는 大學에 들어와 처음 만난 對話 相對였고 實力을 認定할 만한 親舊였다。

그래도 이시가미에게 유가와는 대학에 들어와 처음 만난 대화 상대였고 실력을 인정할 만한 친구였다。

それでも石上に湯川は大学に入って初めて会った対話相手であり、實力を認めるほどの友人だった。

그러나 언제부터이 ㄴ가 두 사람은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어져 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은 마주치는 일이 別로 없어졌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은 마주치는 일이 別로 없어졌다。

しかし、いつからか二人は遭遇することがあまりなくなった。

두 사람의 진로가 수학과와 물리학과로 나뉘어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進路가 數學科와 物理學科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진로가 수학과와 물리학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二人の進路が数学科と物理学科に分かれたからだ。

성적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두 학과 간의 전과도 가능해갔지만 두 人 중 누구도
변경을 원하지 않아갔다.

成績이 日程 基準에 達하면 두 學科 間の 前과도 可能했지만 둘 中 누구도
變更을 願하지 않았다.

성적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두 학과 간의 전과도 가능했지만 둘 중 누구
도 변경을 원하지 않았다.

成績が一定の基準に達すれば、二つの学科間の前科も可能だったが、両者は
變更を望んでいなかった。

그리고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옳은 길이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해갔다.

그리고 그것이 兩쪽 모두에게 옳은 길이라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옳은 길이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そしてそれが両方に正しい道だと石神は考えた。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적합하 ㄴ 길을 선택하 ㄴ 것이다.

두 사람 다 自身에게 適合한 길을 選擇한 것이다.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二人とも自分にふさわしい道を選んだの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론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야망은 두 사람에게 공통되 ㄴ 것
이어 ㄴ지만 그 접근 방법은 정반대여 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理論으로 構築하고자 하는 野望은 두 사람에게 共通된
것이였지만 그 接近 方法은 正反對였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론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야망은 두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였지만 그 접근 방법은 정반대였다。

この世のすべてを理論で構築しようとする野望は二人に共通したものだ
ったが、そのアプローチは正反対だった。

이시가미는 수학이라는 블록을 쌓아 올리 ㄴ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해 ㄴ
다。

이時加味는 數學이라는 블록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 目標를 達成하려 했
다。

이시가미는 수학이라는 블록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려 했
다。

石神は数学というブロックを積み上げることでその目標を達成しようとし
た。

반면 유가와는 우선 관찰하는 데서 시작해 ㄴ다。

反面 有價와는 于先 觀察하는 데서 始作했다。

반면 유가와는 우선 관찰하는 데서 시작했다。

一方、湯川とはまず觀察することから始まった。

그럼으로써 수수께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수께끼를 發見하고 그것을 解明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수수께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명해 나가는 것이다。

それで謎を發見し、それを解明していくのだ。

이시가미는 시뮬레이션을 좋아해ㄴ지만 유가와는 실험에 의욕적이어ㄴ다。

이時加味는 시뮬레이션을 좋아했지만 有價와는 實驗에 意欲的이었다。

이시가미는 시뮬레이션을 좋아했지만 유가와는 실험에 의욕적이었다。

石上はシミュレーションが好きだったが、湯川は実験に意欲的だった。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져ㄴ지만 유가와에 대해ㄴ 소문은 가끔가다

이시가미의 귀에까지 들려와ㄴ다。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有價와에 對한 所聞은 가끔가다

이時加味の 귀에까지 들려왔다。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유가와에 대한 소문은 가끔가다

이시가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二人が出会うこと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が、湯川に対する噂はたまに石上の

耳にまで聞こえてきた。

대학원 2학년 가을에 미국의 한 기업이 유가와가 고안한 ‘자계 톱니바퀴’를 구매하러 와ㄴ다는 얘기를 들어ㄴ으ㄴ 때는 솔직히 감탄스러워ㄴ다。

大學院 2學年 가을에 美國의 한 企業이 有價와가 고안한 ‘自戒 톱니바퀴’를 購買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率直히 感歎스러웠다。

대학원 2학년 가을에 미국의 한 기업이 유가와가 고안한 ‘자계 톱니바퀴’를 구매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감탄스러웠다。

大学院2年生の秋に米国のある企業が湯川が考案した「磁界歯車」を購入しに来たという話を聞いた時は正直感心した。

그러나 석사 과정을 수료하ㄴ 후로 유가와가 어떻게 되어ㄴ는지는 이시가미도 몰라ㄴ다。

그러나 碩士 過程을 修了한 後로 有價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時加味도 몰랐다。

그러나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로 유가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시가미도 몰랐다。

しかし、修士課程を修了した後、湯川がどうなったかは石神も知らなかった。

이시가미 자신이 대학을 떠나ㄴ기 때문이다。

이時加味 自身이 大學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시가미 자신이 대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石神自身が大学を去ったからだ。

그리고 단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하 ㄴ 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ㄴ다.

그리고 單 한 番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20 年이 넘는 歲月이 흘렀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そしてただ一度もお互いに会えないまま 20 年を超える歳月が流れた。

“와아, 여전하군.

“와아, 如前하군.

“와아, 여전하군.

「わあ、相変わらず。

이시가미의 집에 들어서 ㄴ 유가와가 책장을 바라보며 말해 ㄴ다.

이時加味の 집에 들어선 有價와假 冊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시가미의 집에 들어선 유가와가 책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石神の家に入った湯川が本棚を眺めて言った。

“뭐가?”

“뭐가?”

“뭐가?”

「何が？」

“여전히 수학삼매라 이 말이야。

“如前히 數學三昧라 이 말이야。

“여전히 수학삼매라 이 말이야。

「いまだに数学三昧だって。

우리 학교 수학과에도 이만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모으는 사람은 없을 거
야。

우리 學校 數學科에도 이만한 資料를 個人的으로 모은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학교 수학과에도 이만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모은 사람은 없을 거
야。

私たちの学校数学科にも、このような資料を個人的に集めた人はいないだろ
う。

이시가미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時加味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시가미는 대꾸하지 않았다。

石神は変わらなかった。

책장에는 수학 관계 서적뿐 아니라 각 나라의 학회 자료도 파일로 정리되어 있

어썬다。

冊張에는 數學 關係 書籍뿐 아니라 各 나라의 學會 資料도 파일로 整理되

어 있었다。

책장에는 수학 관계 서적뿐 아니라 각 나라의 학회 자료도 파일로 정리되

어 있었다。

本棚には数学関係書籍だけでなく、各国の学会資料もファイルにまとめられ

ていた。

주로 인터넷을 통해 입수하 ㄴ 것들이지만 어중간하 ㄴ 연구자들보다 현재의 수

학계에 정통하다는 자부심이 그에게는 있어 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入手한 것들이지만 於中間한 研究者들보다 現在の 數

學系에 精通하다는 自負心이 그에게는 있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것들이지만 어중간한 연구자들보다 현재의 수

학계에 정통하다는 자부심이 그에게는 있었다。

主に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入手したものだが、中途半端な研究者より現在

の数学界に精通しているという誇りが彼にはあった。

“일단 앉지。

“一旦 앉지。

“일단 앉지。

「一度座る。

커피라도 마시겠어?”

커피라도 마시겠어?”

커피라도 마시겠어?”

「コーヒーでも飲みますか？」

“커피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거 ㄹ 가져와 ㄴ어。

“커피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걸 가져왔어。

“커피도 나쁘지 않지만…… 이런 걸 가져왔어。

「コーヒーも悪くないけど……」 ……こんなことを持ってきた。

유가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 속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들어 ㄴ다。

有價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封套 속에서 箱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유가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 속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湯川は手に持っていた紙袋の中から箱ひとつを取り出して聞いた。

이름나 ㄴ 일본 술이어 ㄴ다。

이름난 日本 술이었다。

이름난 일본 술이었다。

名前は日本酒だった。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이런 것까지 神經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いや、こんなことまで気にしなくてもいいのに。

“오랜만에 만나는데 빈손으로 오 ㄴ 수야 없잖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빈손으로 올 수야 없잖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빈손으로 올 수야 없잖아.

「久しぶりに会うのに手ぶらで来られないじゃな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ありがとう。

그럼 초밥이라도 배달시키 ㄴ 까? 식사는 아직이지?”

그럼 醋밥이라도 配達시킬까? 食事は 아직이지?”

그럼 초밥이라도 배달시킬까? 식사는 아직이지?”

それでは寿司でも配達させるのか? 食事はまだですか?」

“돼 ㄴ 어.

“됐어.

“됐어.

「できた。

자네야말로 신경 쓰지 마。

자네야말로 神經 쓰지 마。

자네야말로 신경 쓰지 마。

君こそ気にしないで。

“아니야, 나도 아직 안 먹어^ㅅ어。

“아니야, 나도 아직 안 먹었어。

“아니야, 나도 아직 안 먹었어。

「いいえ、私はまだ食べていません。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식당 전화번호들이 적혀 ㄴ 수첩을 펼쳐^ㅅ다。

이時加味는 受話器를 손에 들고 食堂 電話番號들이 적힌 手帖을 펼쳤다。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식당 전화번호들이 적힌 수첩을 펼쳤다。

石神は受話器を手にとって食堂の電話番号が書かれた手帳を広げた。

그러나 초밥 집 메뉴를 보며 그는 잠시 망설여^ㅅ다。

그러나 醋밥 집 메뉴를 보며 그는 暫時 망설였다。

그러나 초밥 집 메뉴를 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다。

しかし寿司の家メニューを見て彼はしばらく躊躇した。

평상시 주문하는 거 ㄴ 모두 ㄹ 초밥 ‘보통’이어^ㅅ다。

平常時 注文하는 건 모두 醋밥 ‘普通’이었다。

평상시 주문하는 건 모두 초밥 ‘보통’이었다。

普段注文するのは盛り寿司「普通」だった。

결국 그는 전화를 걸어 모두 醋 초밥 ‘상’과 생선회를 주문해 ㄴ다。

結局 그는 電話를 걸어 모두 醋밥 ‘賞’과 生鮮膾를 注文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어 모두 초밥 ‘상’과 생선회를 주문했다。

結局彼は電話をかけて集め寿司「賞」と刺身を注文した。

초밥 집 점원이 웬일이냐는 듯하 ㄴ 반응을 보여 ㄴ다。

醋밥 집 店員이 웬일이냐는 듯한 反應을 보였다。

초밥 집 점원이 웬일이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寿司屋店員が何であるかというような反応を見せた。

이시가미는 집에 정식으로 손님이 찾아오 ㄴ 게 몇 년 만이 ㄴ가 생각해 보아 ㄴ다。

이時加味는 집에 正式으로 손님이 찾아온 게 몇 年 만인가 생각해 보았다。

이시가미는 집에 정식으로 손님이 찾아온 게 몇 년 만인가 생각해 보았다。

石神は家に正式に客が訪れたのが何年ぶりかと考えてみた。

“그거 ㄴ 그렇고, 자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다니, 놀라ㄴ는걸.

“그건 그렇고, 자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다니, 놀랐는걸.

“그건 그렇고, 자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다니, 놀랐는걸.

「ところで、君がこんなに私を訪ねてくるなんて、驚いたの。

자리에 앉으면서 이시가미가 말해ㄴ다.

자리에 앉으면서 이時加味가 말했다.

자리에 앉으면서 이시가미가 말했다.

席に座りながら石神が言った。

“아는 사람한테 우연히 소식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와ㄴ지.

“아는 사람한테 偶然히 消息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왔지.

“아는 사람한테 우연히 소식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왔지.

「知っている人に偶然のニュースを聞いて昔の思い出がでてきたんだ。

“아는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어?”

「知ってる人って、そんな人がいる？」

“응, 그게 좀 묘하 ㄴ 이야기이기 ㄴ 하 ㄴ데……。

“응, 그게 좀 妙한 이야기이긴 한데……。

“응, 그게 좀 묘한 이야기이긴 한데……。

「うん、それがちょっと妙な話なんだけど……」 ... 。

선뜻 얘기하기 어려우ㄴ지 유가와는 코 옆쪽을 긁적거려ㄴ다。

선뜻 얘기하기 어려운지 有價와는 코 옆쪽을 긁적거렸다。

선뜻 얘기하기 어려운지 유가와는 코 옆쪽을 긁적거렸다。

すっきり話しにくいかと、湯川は鼻の横を傷つけた。

“경시청 형사가 오ㄴ 적 있지, 구사나기라고?”

“輕視靑 刑事가 온 적 있지, 驅使나기라고?”

“경시청 형사가 온 적 있지, 구사나기라고?”

「警視庁刑事がやってきたことある、草薙って？」

“형사?”

“刑事?”

“형사?”

「刑事？」

이시가미는 가슴이 덜컥해ㄴ지만 그런 사실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ㄴ다。

이時加味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그런 事實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

다。

이시가미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그런 사실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石神は胸がガタガタしたが、そんな事実が顔に現れないように苦労した。

그리고 새삼스레 옛 학우의 얼굴을 보아^ㅆ다。

그리고 새삼스레 옛 學友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새삼스레 옛 학우의 얼굴을 보았다。

そして改めて昔の学友の顔を見た。

이 사내도 뭐^ㄴ가를 알고 있는 것이^ㄴ까?

이 사내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사내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この社内も何かを知っているのだろうか？

“그 형사가 나랑 동기생이야。

“그 刑事가 나랑 同期生이야。

“그 형사가 나랑 동기생이야。

「その刑事が私と同寄生だ。

유가와와 입에서 의외의 말이 튀어나와^ㅆ다。

有價와와 입에서 意外의 말이 튀어나왔다。

유가와와 입에서 의외의 말이 튀어나왔다。

湯川の口から意外な言葉が飛び出した。

“동기생이라고?”

“同期生이라고?”

“동기생이라고?”

「同期生って？」

“배드민턴부 말이야。

“배드민턴附 말이야。

“배드민턴부 말이야。

「バドミントン部だ。

그래 봐도 우리와 같은 데이트 대학 출신이야。

그래 봐도 우리와 같은 데이트 大學 出身이야。

그래 봐도 우리와 같은 데이트 대학 출신이야。

はい、私たちと同じデート大学出身です。

사회학부였지만。

社會學部였지만。

사회학부였지만。

社会学部だったけど。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あ… …そうですか？」

이시가미의 가슴속에 번져 가던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져 ㄴ다。

이時加味の 가슴속에 번져 가던 먹구름이 한瞬間에 사라졌다。

이시가미의 가슴속에 번져 가던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石神の胸の中に広がっていった食雲が一瞬で消えた。

“그리고 보니 그 사람, 데이토 대학에서 내게 보내 ㄴ 우편물 봉투를 눈여겨보더
군。

“그리고 보니 그 사람, 데이토 大學에서 내게 보낸 郵便物 封套를 눈여겨
보더군。

“그리고 보니 그 사람, 데이토 대학에서 내게 보낸 우편물 봉투를 눈여겨
보더군。

「そういえば、その人、デート大学で私に送った郵便封筒を見つめたんだ。

데이토 대학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눈치더니만 그래서여 ㄴ군。

데이토 大學이라는 部分에 神經을 쓰는 눈치더니만 그래서였군。

데이토 대학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눈치더니만 그래서였군.

デート大学という部分に気を使う気になったんだけどそれでしたね。

아니, 그럼 그때 그 말을 해_ㅅ으면 좋아_ㅅ잖아.

아니, 그럼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아니, 그럼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いや、じゃあその時その言葉を言えばよかったじゃないか。

“그 친구에게 데이토 대학 이공계 졸업생은 동창생도 아니야.

“그 親舊에게 데이토 大學 理工系 卒業生은 同窓生도 아니야.

“그 친구에게 데이토 대학 이공계 졸업생은 동창생도 아니야.

「その友人にデート大学理工系卒業生は同窓生でもない。

자신과는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거든.

自身과는 다른 忍從이라고 생각하거든.

자신과는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거든.

自分とは違う人種だと思えば。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여_ㅅ다.

이時加味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石神は頭をうなずいた。

그거 ㄴ 서로 마찬가지로 생각해 ㄴ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それはお互いに同じだと思った。

같은 ㄴ 시기에 같은 ㄴ 대학에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형사가 되어 ㄴ다고 생각하
자 기분이 야릇해 ㄴ다。

같은 時期에 같은 大學에 다니던 사람이 只今は 刑事が 되었다고 생각하자
氣分이 야릇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에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형사가 되었다고 생각하
자 기분이 야릇했다。

同じ時期に同じ大学に通っていた人が今は刑事になったと思うと気分が悪か
った。

“구사나기에게 듣자 하니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면서?”

“驅使나기에게 듣자 하니 只今は 高等學校에서 教鞭을 잡고 있다면서?”

“구사나기에게 듣자 하니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면서?”

「草薙に聞こうと、今は高校で教鞭をつかんでいるとか？」

유가와가 이시가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 ㄴ다。

有價와街 이市街美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유가와가 이시가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湯川が石上の顔をまっすぐ見た。

“이 근처 고등학교야。

“이 近處 高等學校야。

“이 근처 고등학교야。

「この近くの高校だ。

“그렇다고 하더군。

“그렇다고 하더군。

“그렇다고 하더군。

「そうだと言った。

“유가와 자네는 대학에 근무하겠지?”

“有價와 자네는 大學에 勤務하겠지?”

“유가와 자네는 대학에 근무하겠지?”

「湯川君は大学に勤めるだろう？」

“응。

“응。

“응。

「うん。

13연구실에 있어。

13 研究室에 있어。

13연구실에 있어。

13 研究室において。

유가와가 담백하 ㄴ 말투로 대답해 ㄴ다。

有價와가 淡泊한 말투로 對答했다。

유가와가 담백한 말투로 대답했다。

湯川が淡泊な言い方で答えた。

젠체하거나 내심 자만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이시가미는 받아들여 ㄴ다。

젠체하거나 內心 自慢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이時加味는 받아들였다。

젠체하거나 내심 자만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이시가미는 받아들였다。

瘦せたり内心者だけの感じではないと石神は受け入れた。

“교수?”

“教授?”

“교수?”

「教授？」

“아니, 그 직전에서 어정거리고 있어.

“아니, 그 直前에서 어정거리고 있어.

“아니, 그 직전에서 어정거리고 있어.

「いや、その直前で困ってるよ。

앞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말이지.

앞車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말이지.

앞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말이지.

前車が止まっていってね。

유가와가 농담조로 가볍게 말해^ㄴ다.

有價와假 弄談條로 가볍게 말했다.

유가와가 농담조로 가볍게 말했다.

湯川がジョークジョーで軽く言った。

“자게 톱니바퀴’라는 실적도 있고 하니 지금쯤은 틀림없이 교수가 돼 있으^ㄴ 거

라고 생각해^ㄴ는데。

“自戒 톱니바퀴’라는 實績도 있고 하니 只今쯤은 틀림없이 教授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게 톱니바퀴’라는 실적도 있고 하니 지금쯤은 틀림없이 교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磁界齒車」という実績もあって、今頃は間違いなく教授になっていると思
っていたのに。

이시가미의 말에 유가와는 웃으며 얼굴을 문질러^ㄴ다。

이時加味の 말에 有價와는 웃으며 얼굴을 문질렀다。

이시가미의 말에 유가와는 웃으며 얼굴을 문질렀다。

石神の言葉に湯川と笑って顔をこすった。

“그 명칭을 기억하는 사람도 자네뿐이^ㄴ 거야。

“그 名稱을 記憶하는 사람도 자네뿐일 거야。

“그 명칭을 기억하는 사람도 자네뿐일 거야。

「その名称を覚えている人も君だけだ。

결국 실용화되지 못해^ㄴ고, 이제는 탁상공론에 불과하^ㄴ 얘기로 취급당하고 있
어。

結局 實用化되지 못했고, 이제는 卓上空論에 不過한 얘기로 取扱當하고 있
어。

결국 실용화되지 못했고, 이제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얘기로 취급당하고
있어。

結局実用化できず、今は卓上公論に過ぎない話で扱われている。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술병의 뚜껑을 따냈다.

그렇게 말하고 有價와는 自身이 가지고 온 酒瓶의 뚜껑을 따다.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자신이 가지고 온 술병의 뚜껑을 따다.

そう言って湯川は自分が持ってきた酒瓶の蓋をした。

이시가미가 찬장에서 잔을 두 개 꺼내 와냈다.

이時加味が 饌櫥에서 盞을 두 個 꺼내 왔다.

이시가미가 찬장에서 잔을 두 개 꺼내 왔다.

石神が食器棚から2杯のカップを取り出してきた。

“자네야말로 지금쯤 어느 대학에서 ㄴ가 교수가 되어 리만 가설에 도전하고 있
으ㄴ 줄 알아냈는데, 달마 이시가미가 대체 어떻게 되 ㄴ 거야? 혹시 에르되시
에게 의리를 지키느라고 방랑의 수학자라도 자처하는 거 ㄴ가?”

“자네야말로 只今쯤 어느 大學에선가 教授가 되어 里만 假說에 挑戰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達磨 이市加味が 大體 어떻게 된 거야? 或은 에르되시
에게 義理를 지키느라고 放浪의 數學者라도 自處하는 건가?”

“자네야말로 지금쯤 어느 대학에선가 교수가 되어 리만 가설에 도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달마 이시가미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에르되시
에게 의리를 지키느라고 방랑의 수학자라도 자처하는 건가?”

「お前こそ、今ごろ、ある大学では歌手教授になってリーマン仮説に挑戦し
ていると思ったが、だるま石上が一体どうしたの? もしエルサシに義理を守

ると放浪の数学者でも自処するのか？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いや、そんなこと。

이시가미가 살짝 한숨을 내쉬어^ㄴ다.

이時加味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이시가미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石神が少しため息をついた。

“아무려면 어때.

“아무려면 어때.

“아무려면 어때.

「どうしたらどうだ。

하여튼 하^ㄴ잔하지.

何如튼 한^ㄴ췌하지.

하여튼 한잔하지.

とにかく一杯じゃない。

유가와는 더 깊이 캐묻지 않고 잔에 술을 따라ㄴ다。

有價와는 더 깊이 캐묻지 않고 盞에 술을 따랐다。

유가와는 더 깊이 캐묻지 않고 잔에 술을 따랐다。

湯川はさらに深く埋め込まずにグラスに酒を注いだ。

물론 이시가미도 평생 수학 연구에 헌신하ㄴ 생각이어ㄴ다。

勿論 이시가미도 平生 數學 研究에 獻身할 생각이었다。

물론 이시가미도 평생 수학 연구에 헌신할 생각이었다。

もちろん石神も生涯数学研究に献身するつもりだった。

석사 과정 수료 후에는 유가와처럼 모교에 남아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해ㄴ다。

碩士 過程 修了 後에는 有價와처럼 母校에 남아 博士 學位를 따려고 했다。

석사 과정 수료 후에는 유가와처럼 모교에 남아 박사 학위를 따려고 했다。

修士課程修了後は、湯川のように母校に留まり、博士号を取ろうとした。

그 꿈이 깨지ㄴ 것은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ㄴ기 때문이다。

그 꿈이 깨진 것은 父母를 보살펴야 하는 處地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꿈이 깨진 것은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その夢が壊れたのは、親を世話しなければならない境遇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からだ。

양친 모두 고령에 지병이 있어ㄴ다。

兩親 모두 高齡에 持病이 있었다。

양친 모두 고령에 지병이 있었다。

兩親とも高齡に支病があった。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학원은 다니 ㄴ 수 있어ㄴ지만 부모의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거 ㄴ 불가능해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大學院은 다닐 수 있었지만 父母의 生活費까지 마련하는 건 不可能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학원은 다닐 수 있었지만 부모의 생활비까지 마련하는 건 불가능했다。

アルバイトをすれば大学院は通うことができたが、親の生活費まで用意するのは不可能だった。

그런 와중에 어느 신설 대학에서 조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가 알려 주어ㄴ다。

그런 渦中에 어느 新設 大學에서 助教를 求하고 있다는 事實을 教授가 알

려 주었다。

그런 와중에 어느 신설 대학에서 조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가 알려 주었다。

そんな中、ある新設大学で調教を求めているという事実を教授が教えてくれた。

집에서 다니 ㄴ 수 있는 거리이고 수학 연구도 계속하 ㄴ 수 있으 ㄴ 것 같아 하기로 해 ㅅ 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고 數學 研究도 繼續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기로 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고 수학 연구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기로 했다。

家で通うことができる街であり、数学の研究も続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にした。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뒤틀어 버리고 말아 ㅅ 다。

結局 그것이 그의 人生을 뒤틀어 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뒤틀어 버리고 말았다。

結局それが彼の人生をねじってしまった。

연구다운 ㄴ 연구는 하나도 하 ㄴ 수 없는 대학이어 ㅅ 다。

研究다운 研究는 하나도 할 수 없는 大學이었다。

연구다운 연구는 하나도 할 수 없는 대학이었다.

研究らしい研究は一つもできない大学だった。

교수들은 권력 다툼과 보신 외에는 관심이 없어했고, 우수한 학자를 길러 내
겠다는 의식도, 획기적이 연구 성과를 올리겠다는 야심도 없어했다.

教授들은 權力 다툼과 保身 外에는 關心이 없었고, 優秀한 學者를 길러 내
겠다는 意識도, 劃期的인 研究 成果를 올리겠다는 野心도 없었다.

교수들은 권력 다툼과 보신 외에는 관심이 없었고, 우수한 학자를 길러
내겠다는 의식도,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올리겠다는 야심도 없었다.

教授たちは権力争いと見た以外には関心がなく、優秀な学者を育てるという
意識も、画期的な研究成果を上げるという野心もなかった。

이시가미가 공들여 작성하 연구 보고서는 교수의 서랍에서 하염없이 잠자고
있어했다.

이時加味가 공들여 作成한 研究 報告書는 教授의 서랍에서 하염없이 잠자
고 있었다.

이시가미가 공들여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교수의 서랍에서 하염없이 잠자
고 있었다.

石神が共に作成した研究報告書は、教授の引き出しで下塩なしで眠ってい
た。

그런 데다 학생들의 수준도 낮아, 고등학교 수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돌보는 데에 이시가미의 연구 시간을 할애해야 해ㄴ다.

그런 데다 學生들의 水準도 낮아, 高等學校 數學조차 제대로 理解하지 못

하는 學生을 돌보는 데에 이時加味の 研究 時間을 割愛해야 했다.

그런 데다 학생들의 수준도 낮아, 고등학교 수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학생을 돌보는 데에 이시가미의 연구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しかも生徒たちのレベルも低く、高校数学すらしっかり理解できない生徒の

世話をするのに石上の研究時間を割愛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하는데도 보수는 터무니없이 낮아ㄴ다.

그렇게 犠牲을 强要當하는데도 保守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그렇게 희생을 강요당하는데도 보수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そう犠牲を強要されるのにも報酬はとんでもなく低かった。

다른 대학으로 가기를 희망해ㄴ지만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아ㄴ다.

다른 大學으로 가기를 希望했지만 그 希望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대학으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그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他の大学に行くことを希望したが、その希望は成されなかった。

애당초 수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ㄴ다.

애當初 數學科가 있는 學校가 많지 않았다.

애당초 수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다.

そもそも数学科がある学校が多くなかった。

설사 수학과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적어 조교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없어진다.

設使 數學科が 있다고 해도 豫算이 적어 助教를 받아들이는 餘裕가 없었다.

설사 수학과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적어 조교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없었다.

下痢数学科があるとしても予算が少なく調教を受け入れる余裕がなかった。

공학부와는 달리 기업이 스폰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工學附와는 달리 企業이 스폰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학부와는 달리 기업이 스폰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工学部とは異なり、企業がスポンサーをしてくれないから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위기에 몰려 있다.

人生의 方向을 轉換해야 할 危機에 몰렸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人生の方向を転換すべき危機に追い込まれた。

그는 학생 시절에 따 놓은 교사 자격증으로 먹고사는 길을 선택해 있다.

그는 學生 時節에 따 놓은 教師 資格證으로 먹고사는 길을 選擇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 따 놓은 교사 자격증으로 먹고사는 길을 선택했다.

彼は学生時代にとどまった教師資格証で食べて暮らす道を選択した。

아울러 수학자로 사는 길은 포기해^ㄴ다。

아울러 數學者로 사는 길은 拋棄했다。

아울러 수학자로 사는 길은 포기했다。

また、数学者として生きる道はあきらめた。

그런 이야기를 유가와에게 하^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ㄴ다。

그런 이야기를 有價와에게 할 必要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유가와에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そんな話を湯川にする必要はないという気がした。

연구자의 길을 단념해야 해^ㄴ던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비슷하^ㄴ 사정이 있어^ㄴ다。

研究者의 길을 斷念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大體로 비슷한 事情이 있었
다。

연구자의 길을 단념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비슷한 사정이 있었
다。

研究者の道を諦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人々には概ね同様の事情があった。

자신의 경우도 그리 특이하^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시가미는 잘 알고 있
다。

自身の境遇도 그리 特異한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이時加味는 잘 알고 있

다。

자신의 경우도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시가미는 잘 알고 있다。

自分の場合もそれほど珍しいものではないという事実を石神はよく知っている。

배달된 ㄴ 초밥과 생선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셔 ㄴ다。

配達된 醋밥과 生鮮膾를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배달된 초밥과 생선회를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

配達された寿司と刺身を食べながら酒を飲んだ。

유가와가 가지고 오 ㄴ 술이 동나자 이시가미는 위스키를 꺼내 ㄴ다。

有價와가 가지고 온 술이 동나자 이時加味는 위스키를 꺼냈다。

유가와가 가지고 온 술이 동나자 이시가미는 위스키를 꺼냈다。

湯川が持ってきたお酒が近づくと石神はウイスキーを取り出した。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어려우 ㄴ 수학 문제를 풀고 나 ㄴ 후에는 머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 훌쩍거리곤 해 ㄴ다。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어려운 數學 問題を 풀고 난 後에는 머리의 疲勞를 풀기 爲해 훌쩍거리곤 했다。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머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 훌쩍거리곤 했다。

頻繁に飲まないが、難しい数学問題を解いてからは頭の疲れを解くためにぎこちなくなった。

신나게 이야기를 나눠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학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수학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즐거웠다.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學生 時節의 追憶을 떠올리며 數學에 關해 對話하는 것은 즐거웠다.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학생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수학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즐거웠다.

楽しく話を交わしたというほどではなかったが、学生時代の思い出を思い出しながら数学について話すのは楽しかった。

그리고 상당히 오랜 세월 이런 시간을 맛보지 못해했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새삼 깨달아왔다.

그리고 相當히 오랜 歲月 이런 時間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時加味는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세월 이런 시간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새삼 깨달았다.

そしてかなり長年このような時間を味わえなかったことを石神は改めて悟った。

대학을 졸업한 후로 처음이 지도 몰라왔다.

大學을 卒業한 後로 처음인지도 몰랐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 처음인지도 몰랐다.

大學を卒業した後で初めてなのかもしれなかった。

이 남자 외에 자신을 이해해 주 ㄴ 사람이 없어 ㄴ고, 이시가미로서도 자신과 대
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가와 말고는 없으 ㄴ지 모르 ㄴ다는 생각도 들어 ㄴ
다。

이 男子 外에 自身을 理解해 줄 사람이 없었고, 이時加味로서도 自身과 對
等하다고 認定하는 사람은 有價와 말고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
다。

이 남자 외에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고, 이시가미로서도 자신과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가와 말고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
다。

この男のほかに自分を理解してくれる人がなく、石神としても自分と対等だ
と認める人は油価とは言え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考えも聞いた。

“아 참, 중요하 ㄴ 거 ㄴ 잊고 있어 ㄴ군。

“아 참, 重要な 걸 잊고 있었군。

“아 참, 중요한 걸 잊고 있었군。

「ああ、大事なことを忘れていたな。

유가와는 문득 생각이 나 ㄴ다는 듯 종이봉투 속에서 커다라 ㄴ 갈색 서류 봉투

를 꺼내어 이시가미 앞에 놓아썻다。

有價와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종이封套 속에서 커다란 褐色 書類 封套

를 꺼내어 이時加味 앞에 놓았다。

유가와는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종이봉투 속에서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

를 꺼내어 이시가미 앞에 놓았다。

湯川はふと思ったように紙袋の中から大きな茶色の書類袋を取り出して石神

の前に置いた。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なんだ、これ？」

“내용물을 봐。

“内容物を 봐。

“내용물을 봐。

「内容を見て。

유가와가 싱글거려썻다。

有價와가 싱글거렸다。

유가와가 싱글거렸다。

湯川がシングルだった。

봉투 속에는 A4 사이즈의 리포트 용지가 들어 있어ㄴ다。

封套 속에는 A4 사이즈의 리포트 用地가 들어 있었다。

봉투 속에는 A4 사이즈의 리포트 용지가 들어 있었다。

封筒の中には A4 サイズのレポート用紙が入っていた。

그리고 거기에는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어ㄴ다。

그리고 거기에는 修飾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そしてそこには数式が凄く書かれていた。

첫 장만 쓱 훑어보고도 이시가미는 그게 뭐ㄴ지 알아차려ㄴ다。

첫 장만 쓱 훑어보고도 이時加味는 그게 뭔지 알아차렸다。

첫 장만 쓱 훑어보고도 이시가미는 그게 뭔지 알아차렸다。

最初の章だけをすっきり見ても石神はそれが何か気づいた。

“리만의 가설에 대해 반증을 시도해ㄴ군。

“李만의 假說에 對해 反證을 試圖했군。

“리만의 가설에 대해 반증을 시도했군。

「リーマンの仮説に対して反証を試みた。

“한눈에 알아보네。

“한눈에 알아보네。

“한눈에 알아보네。

「一目で調べてね。

리만의 가설이란 현대 수학의 가장 유명하 ㄴ 난제로 일컬어지 ㄴ다。

李만의 假說이란 現代 數學의 가장 有名한 難題로 일컬어진다。

리만의 가설이란 현대 수학의 가장 유명한 난제로 일컬어진다。

リーマンの仮説とは、現代数学の最も有名な難題と呼ばれる。

수학자 리만이 세우 ㄴ 가설이 옳으 ㄴ지 그르 ㄴ지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 ㄴ데 아직 아무도 해내 ㄴ 사람이 없어 ㄴ다。

數學者 裡만이 세운 假說이 옳은지 그른지를 證明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아무도 해낸 사람이 없었다。

수학자 리만이 세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 아무도 해낸 사람이 없었다。

数学者リーマンが立てた仮説が正しいかどうかを証明すれば良いのだが、まだ誰もやった人がいなかった。

유가와가 내미 ㄴ 논문의 내용은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어 ㄴ다。

有價와가 내민 論文의 內容은 假說이 옳지 않다는 것을 證明하려는 것이었다。

유가와가 내민 논문의 내용은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湯川が出した論文の内容は、仮説が正しくないことを証明しようとしたものだった。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수학자가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알고 있었다。

그런 試圖를 하고 있는 數學者가 世上에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이時加味는 알고 있었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수학자가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알고 있었다。

そんな試みをしている数学者が世の中には数え切れないほど多いことを石神は知っていた。

물론 그 반증에 성공하 ㄴ 사람은 아직 없다。

勿論 그 反證에 成功한 사람은 아직 없다。

물론 그 반증에 성공한 사람은 아직 없다。

もちろんその反証に成功した人はまだいない。

“수학과 교수에게 복사본을 받으 ㄴ 거야。

“數學과 教授에게 複寫本을 받은 거야.

“수학과 교수에게 복사본을 받은 거야.

「数学と教授にコピーを受けたんだ。

아직 아무 데도 발표하지 않아ㄴ다는군。

아직 아무 데도 發表하지 않았다는軍。

아직 아무 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는군。

まだどこにも発表していないというね。

반증에는 이르지 못해ㄴ지만 상당하ㄴ 진척이 있어ㄴ다는 생각이 들어ㄴ어。

反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相當한 進捗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반증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反証には至らなかったけど相当な進捗があったと思われた。

유가와가 말해ㄴ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리만의 가설이 잘못되어ㄴ다는 내용이 ㄴ가?”

“李만의 假說이 잘못되었다는 內容인가?”

“리만의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인가?”

「リーマンの仮説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内容か？」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해 ㅅㅌ지만 상당하 ㄴ 선까지는 가 ㅅㅌ어。

“完全히 證明하지는 못했지만 相當한 線까지는 갔어。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선까지는 갔어。

「完全に証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が、かなりの線までは行きました。

리만의 가설이 옳다면 이 논문의 어디 ㄴ가에 허점이 있어야 해。

李만의 假説이 옳다면 이 論文의 어딘가에 虛點이 있어야 해。

리만의 가설이 옳다면 이 논문의 어딘가에 허점이 있어야 해。

リーマンの仮説が正しいなら、この論文のどこかに抜け穴がなければなら
ない。

유가와는 장난꾸러기 아이가 짓궂은 ㅌㅌㅌ를 쳐 놓고 그 결과를 확인하려는
듯하 ㄴ 눈빛으로 이시가미를 바라보아 ㅅㅌ다。

有價와는 장난꾸러기 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쳐 놓고 그 結果를 確認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이時加味를 바라보았다。

유가와는 장난꾸러기 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쳐 놓고 그 결과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이시가미를 바라보았다。

湯川は遊び心のある子供が吠えた遊び心を打ち、その結果を確認しようとする
ような目つきで石神を眺めた。

그 모습을 보며 이시가미는 그의 저의를 알아차려 ㄴ다。

그 모습을 보며 이時加味는 그의 底意를 알아차렸다。

그 모습을 보며 이시가미는 그의 저의를 알아차렸다。

その姿を見て石神は彼の私の意識に気づいた。

유가와는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有價와는 只今 挑發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와는 지금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湯川は今挑発しているのだ。

동시에, ‘달마 이시가미’의 두뇌가 얼마나 녹슬어 ㄴ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同時に, ‘達磨 이市加味’의 頭腦가 얼마나 綠슬었는지 確認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달마 이시가미’의 두뇌가 얼마나 녹슬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同時に、「だるま石神」の腦がどれほど錆びたかを確認しようとするのだ。

“잠깐 봐도 되겠어?”

“잠깐 봐도 되겠어?”

“잠깐 봐도 되겠어?”

「ちょっと見てもいい？」

“보여 주려고 가져오 ㄴ 거야。

“보여 주려고 가져온 거야。

“보여 주려고 가져온 거야。

「見せてあげようとしたのよ。

이시가미가 논문을 죽 훑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 ㅅ 다。

이時加味가 論文을 죽 훑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冊床으로 갔다。

이시가미가 논문을 죽 훑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石神が論文を殺してみると、席から立ち上がって机に行った。

논문 옆에 새 리포트 용지를 펼치 ㄴ 후 그는 볼펜을 집어 들어 ㅅ 다。

論文 옆에 새 리포트 用地를 펼친 後 그는 볼펜을 집어 들었다。

논문 옆에 새 리포트 용지를 펼친 후 그는 볼펜을 집어 들었다。

論文の横に新しいレポート用紙を広げた後、彼はボールペンを拾った。

“P ≠ NP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P ≠ NP 問題’라는 것은 當然히 알고 있겠지?”

“P ≠ NP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P ≠ NP 問題'というのは当然知っているだろ？」

유가와가 뒤에서 말해^ㄴ다。

有價와假 뒤에서 말했다。

유가와가 뒤에서 말했다。

湯川が後ろから言った。

이시가미가 뒤를 돌아보아^ㄴ다。

이時加味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시가미가 뒤를 돌아보았다。

石神が後ろを振り返った。

“수학 문제에서 스스로 궁리해서 답을 내놓는 것과 남의 답이 옳으^ㄴ지 틀려^ㄴ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하^ㄴ까를 묻는 것이잖아。

“數學 問題에서 스스로 窮理해서 答을 내놓는 것과 男의 答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確認하는 것 中 어느 쪽이 더 簡單할까를 묻는 것이잖아。

“수학 문제에서 스스로 궁리해서 답을 내놓는 것과 남의 답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할까를 묻는 것이잖아。

「数学問題で自分で工夫して答えを出すことと、他人の答えが正しいか間違っているかを確認することのどれがもっと簡単かを尋ねることだ。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상금을 내걸고 내^ㄴ 문제 중 하나지。

클레이 數學 研究所가 賞金을 내걸고 낸 問題 中 하나지。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상금을 내걸고 낸 문제 중 하나지。

粘土数学研究所が賞金を掲げて出した問題の一つ。

“역시 자네군。

“亦是 자네軍。

“역시 자네군。

「やっぱり君ね。

유가와가 웃으며 술잔을 기울여_ㅅ다。

有價와가 웃으며 술盞을 기울였다。

유가와가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湯川が笑って酒を傾けた。

이시가미는 다시 책상을 향해 돌아앉아_ㅅ다。

이時加味는 다시 冊床을 向해 돌아앉았다。

이시가미는 다시 책상을 향해 돌아앉았다。

石神は再び机に向かって座った。

그는 수학이란 보물찾기와 비슷하_ㄴ 것이라고 생각하_ㄴ다。

그는 數學이란 寶物찾기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수학이란 보물찾기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彼は数学という宝探しに似たものだと思う。

먼저 어느 포인트를 공략하면 좋을지 파악하_ㄴ 후 해답에 이르는 루트를 고안하_ㄴ다。

먼저 어느 포인트를 攻略하면 좋을지 把握한 後 解答에 이르는 루트를 考案한다。

먼저 어느 포인트를 공략하면 좋을지 파악한 후 해답에 이르는 루트를 고안한다。

まずどのポイントを攻略すればよいか把握した後、答えに至るルートを考案する。

그리고 그렇게 고안하_ㄴ 내용대로 수식을 조합해 단서를 얻어 가_ㄴ다。

그리고 그렇게 考案한 内容대로 修飾을 組合해 但書を 얻어 간다。

그리고 그렇게 고안한 내용대로 수식을 조합해 단서를 얻어 간다。

そしてそのように考案した内容通り、数式を組み合わせで手がかりを得ていく。

그렇게 해_ㅆ는데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으면 루트를 변경해야 하_ㄴ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으면 루트를 變更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으면 루트를 변경해야 한다。

そうしたのに何も得られなければルート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런 식으로 착실하고 느긋하게, 그러면서도 대담하게 문제를 풀어 가다 보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_ㄴ 보물, 즉 해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式으로 着實하고 느긋하게, 그러면서도 大膽하게 問題를 풀어 가다 보면 아무도 發見하지 못한 寶物, 卽 解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착실하고 느긋하게, 그러면서도 대담하게 문제를 풀어 가다 보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 즉 해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そのように着実にゆったりと、それでも大胆に問題を解いていくと、誰も発見できなかった宝物、つまり答えに至るようになるのだ。

이렇게 비유하면 남의 해법을 검증하_ㄴ다는 것은 단순히 발굴 루트를 따라가는 간단하_ㄴ 일처럼 여겨지_ㄴ다.

이렇게 比喻하면 男의 解法을 檢證한다는 것은 單純히 發掘 루트를 따라가는 簡單한 일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비유하면 남의 해법을 검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굴 루트를 따라가는 간단한 일처럼 여겨진다.

このように例えれば、他人の解決法を検証するということは、単に発掘ルートをたどる簡単なことのように思われる。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實際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しかし実際にはそうではない。

잘못된 루트로 나아가 가짜 보물에 다다른 결과에 대해 그 보물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일이 때로는 진짜 보물을 찾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잘못된 루트로 나아가 假짜 寶物에 다다른 結果에 對해 그 寶物이 가짜임
을 證明하는 일이 때로는 眞짜 寶物을 찾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잘못된 루트로 나아가 가짜 보물에 다다른 결과에 대해 그 보물이 가짜임
을 증명하는 일이 때로는 진짜 보물을 찾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間違ったルートに進み、偽物の宝物に至るまでの結果について、その宝物が
偽物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ことが、時には本当の宝物を見つけるよりも難し
いかもしれ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P \neq NP$ 문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 \neq NP$ 問題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問題가 提示되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P \neq NP$ 문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
다。

そのため、 $P \neq NP$ 問題と同じくらいの問題が提示されるのだ。

이시가미는 시간을 잊어^ㅆ다。

이時加味는 時間을 잊었다。

이시가미는 시간을 잊었다。

石神は時間を忘れた。

투쟁심과 탐구심, 더 나아가 자긍심이 그를 흥분시켜^ㄴ다。

鬭爭審과 探究心, 더 나아가 自矜心이 그를 興奮시켰다。

투쟁심과 탐구심, 더 나아가 자긍심이 그를 흥분시켰다。

鬭爭心と探求心、さらに自尊心が彼を興奮させた。

그의 눈은 수식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ㄴ고, 뇌세포는 오로지 그것을

다루는 데에만 사용되어^ㄴ다。

그의 눈은 修飾에서 單 한瞬間도 떨어지지 않았고, 腦細胞는 오로지 그것

을 다루는 데에만 使用되었다。

그의 눈은 수식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뇌세포는 오로지 그것을 다루는 데에만 사용되었다。

彼の目は数式から一瞬も落ちず、脳細胞はそれだけを扱うためにのみ使用された。

이시가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리포트 용지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아^ㄴ다。

이時加味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리포트 用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았다。

이시가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리포트 용지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았다.

石神が突然席から立ち上がって、レポート用紙を手にとって後ろを振り返った。

유가와는 코트를 걸치고 몸을 구부리_ㄴ 채 잠들어 있어_ㄴ다。

有價와는 코트를 걸치고 몸을 구부린 채 잠들어 있었다。

유가와는 코트를 걸치고 몸을 구부린 채 잠들어 있었다。

湯川はコートをかけて体を曲げたまま眠っていた。

이시가미가 그의 어깨를 흔들_어ㄴ다。

이時加味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시가미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石神が彼の肩を振った。

“이봐, 일어나。

“이봐, 일어나。

“이봐, 일어나。

「ねえ、起きて。

알아내_ㄴ어。

알아냈어。

알아냈어.

見つけた。

유가와가 흐리멍덩하 ㄴ 눈빛을 하 ㄴ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ㄴ다.

有價와가 흐리멍덩한 눈빛을 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유가와가 흐리멍덩한 눈빛을 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湯川がぼやけた目つきをしたままゆっくりと体を起こした。

그는 손으로 얼굴을 비비 ㄴ 후 이시가미를 올려다보아 ㄴ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비빈 後 이市加味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비빈 후 이시가미를 올려다보았다.

彼は手で顔を叩いた後石神を見上げた。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何って？」

“알아내 ㄴ어.

“알아냈어.

“알아냈어.

「わかりました。

애석하지만 이 반증에는 오류가 있어。

哀惜하지만 이 反證에는 誤謬가 있어。

애석하지만 이 반증에는 오류가 있어。

愛情がこの反証にはエラーがあります。

재미있는 시도이기 ㄴ 하지만, 소수의 분포에 관해 근본적이 ㄴ 착오가 있어 ㄴ 던
거야。

재미있는 試圖이긴 하지만, 少數의 分布에 關해 根本적인 錯誤가 있었던
거야。

재미있는 시도이긴 하지만, 소수의 분포에 관해 근본적인 착오가 있었던
거야。

面白い試みではあるが、少数の分布に関して根本的な錯誤があったん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

유가와가 이시가미의 얼굴 앞으로 손을 뻗어 ㄴ 다。

有價와街 이市街美의 얼굴 앞으로 손을 뻗었다。

유가와가 이시가미의 얼굴 앞으로 손을 뻗었다.

湯川が石上の顔先に手を伸ばした。

“잠이 덜 깨 ㄴ 머리로 자네의 난해하 ㄴ 설명을 들어 봐야 이해하 ㄴ 리 없지.

“잠이 덜 깬 머리로 자네의 難解한 説明을 들어 봐야 理解할 理 없지.

“잠이 덜 깬 머리로 자네의 난해한 설명을 들어 봐야 이해할 리 없지.

「眠りが少ない剃毛で君の難解な説明を聞いてみなければ理解できない。

아니, 머리가 맑으 ㄴ 때라도 그거 ㄴ 무리야.

아니, 머리가 맑을 때라도 그건 무리야.

아니, 머리가 맑을 때라도 그건 무리야.

いや、頭が晴れた時でもそれは無理だ。

고백하자면, 리만의 가설은 내게 버거워.

告白하자면, 李만의 假説은 내게 버거워.

고백하자면, 리만의 가설은 내게 버거워.

告白しようとする、リーマンの仮説は私には凄い。

자네가 재미있어하 ㄴ 것 같아서 가져오 ㄴ 것뿐이야.

자네가 재미있어할 것 같아서 가져온 것뿐이야.

자네가 재미있어할 것 같아서 가져온 것뿐이야.

君が面白そうだから持ってきただけだよ。

“상당하_ㄴ 선까지 가_ㄴ다고 하지 않_ㄴ나?”

“相當한 線까지 갔다고 하지 않았나?”

“상당한 선까지 갔다고 하지 않았나?”

「かなりの線まで行ったと言っていなかったか？」

“수학과 교수들이 특하면 하는 말이지。

“數學과 教授들이 특하면 하는 말이지。

“수학과 교수들이 특하면 하는 말이지。

「数学と教授たちがトウクトンと言うことだ。

사실은 반증에 오류가 있다는 거_ㄴ 알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_ㄴ 거야。

事實은 反證에 誤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發表하지 못한 거야。

사실은 반증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한 거야。

実は反証に誤り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発表できなかったんだ。

“그럼 내가 오류를 알아차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誤謬를 알아차리는 게 當然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오류를 알아차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それで、私がエラーに気づくのは当然だと思いますか？」

이시가미는 낙담해^ㅆ다。

이時加味는 落膽했다。

이시가미는 낙담했다。

石神は落胆した。

“아냐, 정말 대단해。

“아냐, 正말 대단해。

“아냐, 정말 대단해。

「いや、本当にすごい。

내로라하는 수학자라도 오류를 금세 찾아내지는 못하^ㄴ 거라고 그 교수가 그러
더군。

내로라하는 數學者라도 誤謬를 금세 찾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그 教授가 그
러더군。

내로라하는 수학자라도 오류를 금세 찾아내지는 못할 거라고 그 교수가
그러더군。

俺と言う数学者でも誤りをすぐに見つけられないだろうとその教授がそうだ
な。

그리고 유가와는 손목시계를 보아^ㅆ다。

그리고 有價와는 손목時計를 보았다。

그리고 유가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そして湯川は腕時計を見た。

“자네는 고작 여섯 시간 만에 찾아내ㄴ어.

“자네는 고작 여섯 時間 만에 찾아냈어.

“자네는 고작 여섯 시간 만에 찾아냈어.

「あなたはたった 6 時間で見つけました。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素晴らしいです。

“여섯 시간이라고?”

“여섯 時間이라고?”

“여섯 시간이라고?”

「六時間って？」

이시가미가 창문을 바라보아ㄴ다.

이時加味가 窓門을 바라보았다.

이시가미가 창문을 바라보았다.

石神が窓を眺めた。

바깥이 이미 뿌옇게 밝아오고 있어ㄴ다。

바깥이 이미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바깥이 이미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外がすでに明るく明るくなっていた。

자명종을 보니 새벽 5시가 가까워ㄴ다。

自鳴鐘을 보니 새벽 5時가 가까웠다。

자명종을 보니 새벽 5시가 가까웠다。

目覚まし時計を見ると夜明け 5時が近かった。

“여전하군。

“如前하군。

“여전하군。

「相変わらず。

마음이 놀여ㄴ어。

마음이 놀였어。

마음이 놀였어。

心が置かれた。

유가와가 말해준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달마 이시가미는 여전히 건재해.

“達磨 이시가미는 如前히 健在해.

“달마 이시가미는 여전히 건재해.

「だるま石上は相変わらず健在だ。

뒷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준다.

뒷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

뒷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

後ろ姿を見てそんな思いをしました。

“미안.

“未安.

“미안.

「すみません。

자네가 있다는 사실을 그만 깜빡해준다.

자네가 있다는 事實을 그만 깜빡했어.

자네가 있다는 사실을 그만 깜빡했어.

あなたがいるという事実をやめた。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大丈夫.

그보다 자네, 눈 좀 붙여야 하ㄴ 것 같으ㄴ데.

그보다 자네, 눈 좀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그보다 자네, 눈 좀 붙여야 할 것 같은데.

それよりも君、目ちょっと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だが。

오늘도 출근해야 하ㄴ 거 아니야.

오늘도 出勤해야 할 거 아니야.

오늘도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今日も出勤すべきじゃない。

“그렇기ㄴ 하지.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そう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흥분이 돼서 잠이 오_ㄴ 것 같지 않아。

하지만 興奮이 돼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하지만 흥분이 돼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でも興奮になって眠れそうにない。

이렇게 집중하기도 정말 오랜만이거든。

이렇게 集中하기도 正말 오랜만이거든。

이렇게 집중하기도 정말 오랜만이거든。

このように集中するのも本当に久しぶり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ありがとう。

이시가미가 손을 내밀어_ㅆ다。

이時加味가 손을 내밀었다。

이시가미가 손을 내밀었다。

石神が手を差し出した。

“오기 ㄴ 잘해 ㄴ군。

“오길 잘했군。

“오길 잘했군。

「来てよかった。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손을 마주 잡아 ㄴ다。

그렇게 말하고 有價와는 이時加味の 손을 마주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손을 마주 잡았다。

そう言って、湯川は石神の手に直面した。

이시가미는 7시까지 눈을 붙여 ㄴ다。

이時加味는 7 時까지 눈을 붙였다。

이시가미는 7시까지 눈을 붙였다。

石神は 7 時まで目をつけた。

머리가 피로해서이 ㄴ지 아니면 정신적이 ㄴ 충족감이 커서이 ㄴ지 그 짧은 ㄴ 동

안 이시가미는 깊은 ㄴ 잠을 자 ㄴ다。

머리가 疲勞해서인지 아니면 精神的인 充足感이 커서인지 그 짧은 동안 이

市加味는 깊은 잠을 잤다。

머리가 피로해서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충족감이 커서인지 그 짧은 동안

이시가미는 깊은 잠을 잤다。

頭が疲れているのか精神的な充足感が大きくて、その短い間、石神は深い睡眠をとった。

눈을 떠ㄴ으ㄴ 때는 평소보다 머리가 맑아져 있어ㄴ다。

눈을 떴을 때는 平素보다 머리가 맑아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평소보다 머리가 맑아져 있었다。

目を開いた時は普段より頭が澄んでいた。

이시가미가 나가ㄴ 준비를 하는데 유가와가 말해ㄴ다。

이時加味가 나갈 準備를 하는데 有價와假 말했다。

이시가미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 유가와가 말했다。

石神が出る準備をするのに湯川が言った。

“이웃집 사람, 일찍 나가는군。

“이웃집 사람, 일찍 나가는군。

“이웃집 사람, 일찍 나가는군。

「隣人、早く出てくるな。

“이웃집 사람?”

“이웃집 사람?”

“이웃집 사람?”

「近所の人？」

“아까 나가는 소리가 들려ㅆ어。

“아까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아까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

「さっき出る音が聞こえた。

여섯 시 반 조금 지나서 말이지。

여섯 時 半 조금 지나서 말이지。

여섯 시 반 조금 지나서 말이지。

六時半少し過ぎてね。

유가와는 내내 깨어 있어ㅆ던 모양이다。

有價와는 내내 깨어 있었던 模様이다。

유가와는 내내 깨어 있었던 모양이다。

湯川はずっと目覚めていたようだ。

뭐라고 하면 좋을ㄴ까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와가 말을 이어ㅆ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有價와假 말을 이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와가 말을 이었다。

なんといえればいいかと思っているのに湯川が言葉を続けた。

“내가 어젯밤에 얘기해썻던 구사나기라는 형사의 말로는 저 이웃집 사람이 용의자라더군。

“내가 어젯밤에 얘기했던 驅使나기라는 刑事의 말로는 低 이웃집 사람이 用意자라더군。

“내가 어젯밤에 얘기했던 구사나기라는 형사의 말로는 저 이웃집 사람이 용의자라더군。

「私が昨夜話した草薙という刑事の言葉では、その隣人が容疑者だったんだ。

그래서 자네 집에도 탐문을 와썻다는 거야。

그래서 자네 집에도 探問을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네 집에도 탐문을 왔다는 거야。

それで君の家にも探問を来たというの。

이시가미는 태연하 ㄴ 척하며 웃웃을 걸쳐썻다。

이時加味는 泰然한 척하며 웃웃을 걸쳤다。

이시가미는 태연한 척하며 웃웃을 걸쳤다。

石神は平氣なふりをして笑いをかけた。

“그 사람은 자네에게 사건 얘기도 하나?”

“그 사람은 자네에게 事件 얘기도 하나?”

“그 사람은 자네에게 사건 얘기도 하나?”

「その人はあなたに事件の話もある？」

“뭐, 가끔.

“뭐, 가끔.

“뭐, 가끔.

「まあ、時々.

놀러 오 ㄴ 김에 푸념을 늘어놓고 가 ㄴ다고 하 ㄴ까.

놀러 온 김에 푸념을 늘어놓고 간다고 할까.

놀러 온 김에 푸념을 늘어놓고 간다고 할까.

遊びに来たキムに愚痴を並べていくというか.

“대체 무슨 사건이야? 구사나기 형사, 라고 해 ㅅ지? 그 사람이 내게는 자세하 ㄴ
얘기를 해 주지 않아 ㅅ어.

“代替 무슨 事件이야? 驅使나기 刑事, 라고 했지? 그 사람이 내게는 仔細
한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

“대체 무슨 사건이야? 구사나기 형사, 라고 했지? 그 사람이 내게는 자세
한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

「一体どんな事件？草薙刑事、って言ったの？その人が私には詳しい話をし

てくれなかった。

“어떤 남자가 살해돼는데, 그 남자가 저 이웃집 여자의 헤어지 ㄴ 남편이라더군요。

“어떤 男子가 殺害됐는데, 그 男子가 低 이웃집 女子의 헤어진 男便이라더군요。

“어떤 남자가 살해됐는데, 그 남자가 저 이웃집 여자의 헤어진 남편이라더군요。

「ある男が殺害されたのに、その男がその隣の女性の別れた夫だったんだ。

“그런 일이어 ㄴ군……。

“그런 일이었군……。

“그런 일이었군……。

「そんなことでしたね…」 … 。

이시가미는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신경 써 ㄴ다。

이時加味는 表情이 變하지 않도록 神經 썼다。

이시가미는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石神は表情が変わらないように気を使った。

“자네는 이웃집 여자와 친분이 있나?”

“자네는 이웃집 女子와 親분이 있나?”

“자네는 이웃집 여자와 친분이 있나?”

「あなたは隣人の女性と知り合いがありますか？」

유가와가 물어ㄴ다。

有價와가 물었다。

유가와가 물었다。

湯川が尋ねた。

이시가미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ㄴ다。

이時加味는 瞬間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시가미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石神は瞬間的に頭を転がした。

말투로 추측해 보건대 유가와에게 특별하ㄴ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말套로 推測해 보건대 有價와에게 特別한 意圖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말투로 추측해 보건대 유가와에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口調で推測して、保健隊の湯川に特別な意図があるようではない。

그러니 적당히 넘어가ㄴ 수도 있다。

그러니 適當히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다.

だから適当に進むこともできる。

그러나 그가 형사와 친하다는 점에 이시가미는 마음이 쓰여ㄴ다。

그러나 그가 刑事와 親하다는 點에 이時加味는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그가 형사와 친하다는 점에 이시가미는 마음이 쓰였다。

しかし彼が刑事と親しいという点に石神は気になった。

이렇게 재회해ㄴ다는 사실도 구사나기에게 얘기하ㄴ지 모르ㄴ다。

이렇게 再會했다는 事實도 驅使나기에게 얘기할지 모른다。

이렇게 재회했다는 사실도 구사나기에게 얘기할지 모른다。

このように再会したという事実も草薙に話すかもしれない。

그 점을 고려해서 대답해야 하ㄴ다。

그 點을 考慮해서 對答해야 한다。

그 점을 고려해서 대답해야 한다。

その点を考慮して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나오카 씨…… 아, 이웃집 여자 이름이 하나오카이
ㄴ데, 그녀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에 이따금 가곤 해。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나오카 氏…… 아, 이웃집 女子 이름이 하나

五카인데, 그女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에 이따금 가곤 해。

“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나오카 씨…… 아, 이웃집 여자 이름이 하나

오카인데, 그녀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에 이따금 가곤 해。

「よく知っている間ではないが花岡さん…」 …あ、ご近所の女の名前が花岡
なのに、彼女が働くお弁当屋にたまに行ってきて。

구사나기 형사에게는 깜빡하고 말하지 않아ㄴ지만 말이야。

驅使나기 刑事에게는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구사나기 형사에게는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草薙刑事にはちゃんと言わなかったけどね。

“흠, 도시락 가게에 나가는군。

“흠, 도시락 가게에 나가는군。

“흠, 도시락 가게에 나가는군。

「うーん、弁当屋に出かけるな。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여ㄴ다。

有價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湯川が首をうなずいた。

“이웃집 여자가 일하는 가게라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그녀가 일하고 있어ㅆ던 거야。

“이웃집 女子가 일하는 가게라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偶然히 들른 가게에서 그女가 일하고 있었던 거야。

“이웃집 여자가 일하는 가게라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거야。

「近所の女が働くお店だから買いに行くのではなく、偶然立ち寄ったお店で彼女が働いていたんだ。

그 도시락 가게가 학교 근처에 있거든。

그 도시락 가게가 學校 近處에 있거든。

그 도시락 가게가 학교 근처에 있거든。

そのお弁当屋さんが学校の近くにあれば。

“그래? 하지만 그 정도 아는 사이라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거 ㄴ 왠지 꺼림칙하지 않아?”

“그래? 하지만 그 程度 아는 사이라도 殺人 事件의 容疑者라는 건 왠지 꺼림칙하지 않아?”

“그래? 하지만 그 정도 아는 사이라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는 건 왠지 꺼림칙하지 않아?”

「そうですか？だが、そのくらい知っている間でも殺人事件の容疑者というのはなんだか気にしないの？」

“별로。

“別로。

“별로。

「あまり。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나와는 關係없는 일이야。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私とは関係ないことだ。

“하긴 그래。

“하긴 그래。

“하긴 그래。

「そうです。

유가와는 딱히 의심하는 눈치가 아니어ㄴ다。

有價와는 딱히 疑心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유가와는 딱히 의심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湯川とは別に疑う気がなかった。

7시 30분에 두 사람은 집을 나서ㄴ다。

7 時 30 分에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7시 30분에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7 時 30 分に二人は家を出た。

유가와는 가까운 모리시타역으로 가지 않고 이시가미와 함께 이시가미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근처까지 가겠다고 하였다.

有價와는 가까운 모리시타驛으로 가지 않고 이時加味와 함께 이時加味가勤務하는 高等學校 近處까지 가겠다고 했다.

유가와는 가까운 모리시타역으로 가지 않고 이시가미와 함께 이시가미가 근무하는 고등학교 근처까지 가겠다고 했다.

湯川は近い森下駅に行かず、石神と共に石神が勤める高校の近くまで行くと
言った。

그러는 편이 전차를 적게 갈아타서 편하다는 것이다.

그러는 便이 電車を 적게 갈아타서 便하다는 것이다.

그러는 편이 전차를 적게 갈아타서 편하다는 것이다.

そういう方が戦車を少なく乗り換えて楽だということだ。

유가와는 사건이나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아다.

有價와는 事件이나 하나오카 야스코에 對해 더는 말하지 않았다.

유가와는 사건이나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았다.

湯川は事件や花岡康子についてもう言わなかった。

아까까지만 해도 혹시 구사나기에게 부탁을 받고 뭐ㄴ가 살피러 오ㄴ 게 아니
ㄴ까 의심해ㄴ지만 아무래도 지나치ㄴ 생각이었ㄴ다며 이시가미는 마음을 놓
아ㄴ다。

아까까지만 해도 或是 驅使나기에게 付託을 받고 뭔가 살피러 온 게 아닐
까 疑心했지만 아무래도 지나친 생각이었다며 이時加味는 마음을 놓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혹시 구사나기에게 부탁을 받고 뭔가 살피러 온 게 아닐
까 의심했지만 아무래도 지나친 생각이었다며 이시가미는 마음을 놓았다。

さっきまでしても、もしかして草薙に頼まれて何かを見て来たのではないかと疑ったがどうやら過度の考えだったと石神は心を置いた。

애당초 그런 방법까지 써서 이시가미를 조사하ㄴ 이유가 구사나기에게 없어ㄴ
으ㄴ 것이다。

애當初 그런 方法까지 써서 이時加味를 調査할 理由가 驅使나기에게 없었
을 것이다。

애당초 그런 방법까지 써서 이시가미를 조사할 이유가 구사나기에게 없었
을 것이다。

そもそもそんな方法まで使って石神を調べる理由が草薙になかっただろう。

“상당히 흥미로우ㄴ 통근 코스군。

“相當히 興味로운 通勤 코스軍。

“상당히 흥미로운 통근 코스군。

「かなり興味深い通勤コース群。

유가와가 그런 말을 하 ㄴ 것은 신오하시교 아래를 지나 스미다 강변을 따라 걷
기 시작해 ㄴ 때였 ㄴ다。

有價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新吳何時教 아래를 지나 스미다 強辯을 따라
걷기 始作했을 때였다。

유가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신오하시교 아래를 지나 스미다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였다。

湯川がそういう話をしたのは、新大橋橋の下を通り、隅田川沿いに沿って歩
き始めた時だった。

노숙자들의 주거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하 ㄴ 말이다。

露宿者들의 住居가 늘어서 있는 것을 報告 한 말이다。

노숙자들의 주거가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한 말이다。

ホームレスの住居が並んでいることを報告した言葉だ。

백발 섞이 ㄴ 머리를 뒤로 묶으 ㄴ 남자가 세탁물을 널고 있어 ㄴ다。

白髮 섞인 머리를 뒤로 묶은 男子가 洗濯物を 널고 있었다。

백발 섞인 머리를 뒤로 묶은 남자가 세탁물을 널고 있었다。

白髮混じった髪を後ろに結んだ男が洗濯物を敷いていた。

그 옆에는 이시가미가 ‘강통남’이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이 늘 그렇듯이 빈 캔을 찌그러뜨리고 있다.

그 옆에는 이時加味가 ‘강통男’이라고 別名을 붙인 사람이 늘 그렇듯이 빈 캔을 찌그러뜨리고 있다.

그 옆에는 이시가미가 ‘강통남’이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이 늘 그렇듯이 빈 캔을 찌그러뜨리고 있다.

その隣には石神が「缶南」とニックネームをつけた人がいつものように空の缶をつぶしている。

“늘 똑같은 풍경이야.

“늘 똑같은 風景이야.

“늘 똑같은 풍경이야.

「いつも同じ風景だ.

이시가미가 말해 ㄴ다.

이時加味가 말했다.

이시가미가 말했다.

石神が言った.

“요 한 달 사이에 변하 ㄴ 게 아무것도 없어.

“요 한 달 사이에 變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요 한 달 사이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一ヶ月の間に変わったことは何もない。

이 사람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지。

이 사람들은 時計처럼 正確하게 살아가고 있지。

이 사람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지。

これらの人々は時計のように正確に生きています。

“인간이 시계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법이야。

“人間이 時計에서 解放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法이야。

“인간이 시계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법이야。

「人間が時計から解放されれば、むしろもっとそうなるのだ。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私も同じ考えだ。

기요스바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갔다。

氣よスバ時 바로 앞에서 階段을 올라갔다。

기요스바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갔다.

清水橋のすぐ前から階段を上がった。

바로 옆에 오피스 빌딩이 서 있어ㄴ다。

바로 옆에 오피스 빌딩이 서 있었다。

바로 옆에 오피스 빌딩이 서 있었다。

すぐ隣にオフィスビルが立っていた。

그 입구 유리문에 비치 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시가미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ㄴ다。

그 入口 琉璃門에 비친 自身들의 모습을 보고 이時加味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그 입구 유리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시가미는 절레절레 고개
를 흔들었다。

その入り口のガラス扉に映った自分たちの姿を見て、石神は切レゾレ首を振
った。

“유가와 자네는 하나도 안 늙어ㄴ어。

“有價와 자네는 하나도 안 늙었어。

“유가와 자네는 하나도 안 늙었어。

「湯川と君は一つも老けなかった。

나랑은 완전 다르군。

나랑은 完全 다르군。

나랑은 완전 다르군。

私とは全く違うね。

머리숯도 많고 말이야。

머리숯도 많고 말이야。

머리숯도 많고 말이야。

髪も多くてね。

“아니야, 걸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많이 상해ㅆ어。

“아니야, 걸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많이 傷했어。

“아니야, 걸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많이 상했어。

「いや、見た目が広がっていないのはたくさん傷ついた。

머리숯은 많으ㄴ지 몰라도 머리 회전은 아주 둔해지ㄴ 것 같아。

머리숯은 많을지 몰라도 머리 回轉은 아주 鈍해진 것 같아。

머리숯은 많을지 몰라도 머리 회전은 아주 둔해진 것 같아。

髪の毛は多いかもしれませんが、頭の回轉はとても鈍くなったようです。

“사치스러ㄴ 생각이야。

“奢侈스런 생각이야。

“사치스런 생각이야。

「贅沢な考えだ。

가볍게 받아치면서도 이시가미는 살짝 긴장하고 있어ㄴ다。

가볍게 받아치면서도 이時加味는 살짝 緊張하고 있었다。

가볍게 받아치면서도 이시가미는 살짝 긴장하고 있었다。

軽く受け付けながらも石神はちょっと緊張していた。

이대로 가면 유가와는 베 ㄴ 테 ㄴ 테이까지 따라오 ㄴ 것이다。

이대로 가면 有價와는 벤텐테이까지 따라올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유가와는 벤텐테이까지 따라올 것이다。

このまま行けば湯川は弁天亭までついてくるだろう。

통찰력이 탁월하 ㄴ 이 천재 물리학자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낌새를 알아차리지 않으 ㄴ 까 불안해져ㄴ다。

洞察力이 卓越한 이 天才 物理學者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自身の 關係에 對
해 낚새를 알아차리지 않을까 不安해졌다。

통찰력이 탁월한 이 천재 물리학자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낚새를 알아차리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洞察力が卓越したこの天才物理学者が花岡康子と自分の関係について感心を

気づかないか不安になった。

또한 이시가미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들이닥치면 야스코가 낭패하ㄴ 기색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이時加味가 모르는 男子와 함께 들이닥치면 야스코가 狼狽한 氣色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保障이 없다。

또한 이시가미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들이닥치면 야스코가 낭패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また、石神が知らない男と一緒にぶつかると、ヤスコが墮落した気配を見せないという保証はない。

가게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이시가미가 말해ㄴ다。

가게 看板이 보이는 곳에서 이時加味가 말했다。

가게 간판이 보이는 곳에서 이시가미가 말했다。

店の看板が見えるところで石神が言った。

“저곳이 아까 말하ㄴ 도시락 가게야。

“저곳이 아까 말한 도시락 가게야。

“저곳이 아까 말한 도시락 가게야。

「あちこちがさっき言ったお弁当屋。

“흠, 베ㄴ테ㄴ테이라, 재미있는 이름이로군。

“흠, 벤텐테이라, 재미있는 이름이로군.

“흠, 벤텐테이라, 재미있는 이름이로군.

「うーん、ベンテンテイラ、面白い名前だからね.

“오늘도 도시락을 사러 가ㄴ 생각이야.

“오늘도 도시락을 사러 갈 생각이야.

“오늘도 도시락을 사러 갈 생각이야.

「今日もお弁当を買いに行くつもりだ.

“아, 그래? 그럼 나ㄴ 여기서 이만.

“아, 그래? 그럼 난 여기서 이만.

“아, 그래? 그럼 난 여기서 이만.

「ああ、そうですか？それでは私はここで.

유가와가 걸음을 멈춰ㅆ다.

有價와假 걸음을 멈췄다.

유가와가 걸음을 멈췄다.

湯川が歩きを止めた.

의외여ㅆ지만 다행이다 싶어ㅆ다.

意外였지만 多幸이다 싶었다.

의외였지만 다행이다 싶었다.

意外だったが幸いだった。

“대접도 변변히 못하고, 미안하네.

“待接도 변변히 못하고, 未安하네.

“대접도 변변히 못하고, 미안하네.

「おもてなしも変わらず、ごめんなさい。

“최고의 대접이어ㄴ어.

“最高の 待接이었어.

“최고의 대접이었어.

「最高のおもてなしだった。

유가와가 미소를 지어ㄴ다.

有價와假 微笑를 지었다.

유가와가 미소를 지었다.

湯川が微笑ん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연구하ㄴ 생각은 없나?”

“다시 大學으로 돌아가서 研究할 생각은 없나?”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연구할 생각은 없나?”

「再び大学に戻って研究するつもりはないか？」

이시가미는 고개를 저어^ㄴ다.

이時加味는 고개를 저었다.

이시가미는 고개를 저었다.

石神は首を振った。

“대학에서 하^ㄴ 수 있는 일은 나 혼자서도 하^ㄴ 수 있어.

“大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羅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大学でできることは私一人でもできます。

더군다나 이 나이에 받아 주^ㄴ 대학이 어디 있겠어.

더군다나 이 나이에 받아 줄 大學이 어디 있겠어.

더군다나 이 나이에 받아 줄 대학이 어디 있겠어.

さらに、この年齢で受け取る大学がどこにあるのか。

“그렇지는 않으^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권하^ㄴ 수야 없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勸할 수야 없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권할 수야 없지.

「そうではないと思うが、無理やりお勧めできない。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기 바라네。

앞으로도 熱心히 研究하기 바라네。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기 바라네。

これからも頑張って研究してほしい。

“유가와 자네도。

“有價와 자네도。

“유가와 자네도。

「湯川と君も。

“만나서 반가워ㄴ어。

“만나서 반가웠어。

“만나서 반가웠어。

「お会いできて嬉しかった。

악수를 나누 ㄴ 후 이시가미는 유가와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아ㄴ
다。

握手를 나누 後 이市加味는 有價와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
다。

악수를 나누 후 이시가미는 유가와가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
다。

握手を交わした後、石上は湯川が遠くなる姿をしばらく眺めた。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베네펀테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自身이 벤텐테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벤텐테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惜しくてそういうのではなく、自分がベンテンテーに入る姿を見せたくなかったからだ。

유가와와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 후 그는 발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해 다.

有價와의 모습이 完全히 사라진 後 그는 발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걷기 始作했다.

유가와와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그는 발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湯川の姿が完全に消えた後、彼は足を回して速い一歩で歩き始めた。

7
7
7
7

이시가미의 얼굴을 보 야스코는 안도해 다.

이時加味の 얼굴을 본 야스코는 安堵했다。

이시가미의 얼굴을 본 야스코는 안도했다。

石神の顔を見たヤスコは安堵した。

그의 표정이 편안해 보여 ㄴ기 때문이다。

그의 表情이 便安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彼の表情が快適に見えたからだ。

지난밤, 어찌 ㄴ 일로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 ㄴ 듯해 ㄴ다。

지난밤, 어쩐 일로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듯했다。

지난밤, 어쩐 일로 그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 듯했다。

昨夜、どうして彼の家に客がやってきたようだった。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 ㄴ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夜遅くまで話を交わす声が聞こえた。

혹시 형사가 아니 ㄴ까 싶어 그녀는 마음을 졸여 ㄴ다。

或是 刑事가 아닐까 싶어 그女는 마음을 졸였다。

혹시 형사가 아닐까 싶어 그녀는 마음을 졸였다.

もしかして刑事ではないかと思って彼女は心を眠くした。

“오늘의 도시락 주세요.

“오늘의 도시락 주세요.

“오늘의 도시락 주세요.

「今日のお弁当ください。

그가 평소와 같이 억양 없는 목소리로 주문해ㄴ다.

그가 平素와 같이 抑揚 없는 목소리로 注文했다.

그가 평소와 같이 억양 없는 목소리로 주문했다.

彼がいつものように抑揚のない声で注文した。

그리고 평소와 같이 야스코의 얼굴을 외면해ㄴ다.

그리고 平素와 같이 야스코의 얼굴을 外面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야스코의 얼굴을 외면했다.

そしていつものように、ヤスコの顔を無視した。

“네, 오늘의 도시락 하나요.

“네, 오늘의 도시락 하나요.

“네, 오늘의 도시락 하나요.

「はい、今日のお弁当です。

감사하 ㅂ니다。

感謝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주문을 받고 나서 그녀가 조그마 ㄴ 목소리로 속삭여 ㅅ다。

注文を 받고 나서 그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문을 받고 나서 그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注文を受けてから彼女が小さな声でささやいた。

“어제, 손님이 오셔 ㅅ었죠?”

“어제, 손님이 오셨었죠?”

“어제, 손님이 오셨었죠?”

「昨日、お客さんが来ましたね？」

“네? 아아。

“네? 아아。

“네? 아아。

「はい? ああ。

이시가미가 고개를 들더니 놀라 ㄴ 듯 눈을 깜빡여 ㄴ다。

이時加味가 고개를 들더니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이시가미가 고개를 들더니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石神が頭を上げると驚いたように目を点滅した。

그는 주위를 둘러보 ㄴ 다음 낮으 ㄴ 목소리로 말해 ㄴ다。

그는 周圍를 둘러본 다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다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彼は周りを見回した後、低い声で言った。

“대화는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對話는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화는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会話は分けない方がいいです。

형사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으 ㄴ지도 모르니까요。

刑事가 어디線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형사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刑事がどこかで見守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からね。

“아, 죄송해요。

“아, 罪悚해요。

“아, 죄송해요。

「ああ、すみません。

야스코가 목을 움츠려ㄴ다。

야스코가 목을 움츠렸다。

야스코가 목을 움츠렸다。

ヤスコが首をつかんだ。

도시락이 나오ㄴ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아ㄴ다。

도시락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도시락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弁当が出るまで、二人は話しかけなかった。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ㄴ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目も遭遇しないようにした。

야스코는 길거리를 내다보아ㄴ지만 누가 지켜보는 것 같지는 않아ㄴ다。

야스코는 길거리를 내다보았지만 누가 지켜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야스코는 길거리를 내다보았지만 누가 지켜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ヤスコは通りを見下ろしたが、誰が見守るようではなかった。

물론 형사가 지켜보고 있다 해도 절대로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勿論 刑事가 지켜보고 있다 해도 絶對로 눈에 띄지 않도록 行動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형사가 지켜보고 있다 해도 절대로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もちろん刑事が見守っているとしても絶対に目立たないように行動している
だろう。

이윽고 도시락이 나오자 그녀는 그것을 이시가미에게 건넸다。

이윽고 도시락이 나오자 그女는 그것을 이時加味에게 건넸다。

이윽고 도시락이 나오자 그녀는 그것을 이시가미에게 건넸다。

やがて弁当が出ると、彼女はそれを石神に渡した。

“동창생이 ㅂ니다。

“同窓生입니다。

“동창생입니다。

「同窓生です。

돈을 내면서 그가 중얼거리듯이 말해ㅅ다。

돈을 내면서 그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돈을 내면서 그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お金を出しながら彼が呟くように言った。

“네?”

“네?”

“네?”

「はい？」

“대학 동창생이 찾아와ㅅ어요。

“大學 同窓生이 찾아왔어요。

“대학 동창생이 찾아왔어요。

「大学の同窓生が訪れました。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ㅂ니다。

시끄럽게 해서 罪悚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騒がせてすみません。

이시가미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해ㅅ다。

이時加味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이시가미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石神は唇をほとんど動かさずに語った。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あ、いや。

야스코는 그만 미소를 짓고 말아^ㅅ다.

야스코는 그만 微笑를 짓고 말았다.

야스코는 그만 미소를 짓고 말았다.

ヤスコはやめ、笑顔をしてしまった。

그녀는 그 모습이 밖에서 보이^ㄴ까 봐 고개를 숙여^ㅅ다.

그女는 그 모습이 밖에서 보일까 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모습이 밖에서 보일까 봐 고개를 숙였다.

彼女はその姿が外から見えるかと見て頭を下げた。

“그래^ㅅ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손님이 오시 ㄴ 거 ㄴ 드무 ㄴ 일이 ㄴ 것 같아서요.

손님이 오신 건 드문 일인 것 같아서요.

손님이 오신 건 드문 일인 것 같아서요.

ゲストが来たのは珍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처음이 ㅂ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最初です。

저도 깜짝 놀라 ㅏ 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 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 습니다.

私もびっくりしました。

“좋으셔 ㅏ 겠네요.

“좋으셨 겠네요.

“좋으셨 겠네요.

「よかったですね。

“그렇죠, 뭐。

“그렇죠, 뭐。

“그렇죠, 뭐。

「そうですね、まあ。

이시가미가 도시락 봉투를 집어 들어ㅅ다。

이時加味가 도시락 封套를 집어 들었다。

이시가미가 도시락 봉투를 집어 들었다。

石神が弁当袋を拾った。

“그럼, 오늘 밤에 또。

“그럼, 오늘 밤에 또。

“그럼, 오늘 밤에 또。

「じゃあ、今夜また。

전화를 걸겠다는 말이 ㄴ 것이다。

電話를 걸겠다는 말일 것이다。

전화를 걸겠다는 말일 것이다。

電話をかけるということだろう。

야스코는 네, 하고 대답해^ㄴ다。

야스코는 네, 하고 對答했다。

야스코는 네, 하고 대답했다。

ヤスコははい、と答えた。

이시가미의 둥그러 ㄴ 등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 ㄴ 그에게 친구가 찾아오다니 의외라고 생각해^ㄴ다。

이時加味の 둥그런 等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世上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에게 親舊가 찾아오다니 意外라고 생각했다。

이시가미의 둥그런 등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에게 친구가 찾아오다니 의외라고 생각했다。

石神の丸いなどが街に出る姿を見守りながら、世の中を背負って生きていく
ような彼に友達がやってくるなんて意外だと思った。

아침 피크 시간이 지나 평소처럼 가게 안쪽에서 사요코와 휴식을 취하기로 해
^ㄴ다。

아침 피크 時間이 지나 平素처럼 가게 안쪽에서 史요코와 休息을 取하기로
했다。

아침 피크 시간이 지나 평소처럼 가게 안쪽에서 사요코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朝ピーク時間が過ぎ、いつものように店内でサヨコと休憩を取ることにし

た。

그녀는 단것을 좋아하는 사요코를 위해 찹쌀떡을 내와ㄴ다。

그女는 단것을 좋아하는 史요코를 爲해 찹쌀떡을 내왔다。

그녀는 단것을 좋아하는 사요코를 위해 찹쌀떡을 내왔다。

彼女は甘いものが好きなサヨコのためにもちもちを出した。

애주가이 ㄴ 요네자와는 찹쌀떡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 ㄴ 표정으로 차를 마셔ㄴ
다。

애株價인 요네자와는 찹쌀떡에는 關心이 없는 듯한 表情으로 車를 마셨
다。

애주가인 요네자와는 찹쌀떡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차를 마셨
다。

愛主家の米沢は、もちもちには関心のないような表情でお茶を飲んだ。

아르바이트생이 ㄴ 가네코는 배달을 나가ㄴ다。

아르바이트生인 가네코는 配達을 나갔다。

아르바이트생인 가네코는 배달을 나갔다。

アルバイト生の金子は配達を出た。

“그 사람들, 어제는 귀찮게 안 해ㄴ어?”

“그 사람들, 어제는 귀찮게 안 했어?”

“그 사람들, 어제는 귀찮게 안 했어?”

「あの人、昨日は気にしなかった？」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사요코가 물어왔다.

車を 한 모금 마시고 나서 史요코가 물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사요코가 물었다.

お茶を一口飲んでからサヨコが尋ねた。

“누구 말이에요?”

“누구 末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誰のことですか？」

“형사들 말이야.

“刑事들 말이야.

“형사들 말이야.

「刑事たちだ.

사요코가 얼굴을 찌푸려왔다.

史요코가 얼굴을 찌푸렸다.

사요코가 얼굴을 찌푸렸다.

サヨコが顔を刺した。

“야스코의 전남편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게 묻더니 밤에 또 와서는 정말로 찾아
오_ㄴ 적이 없느냐고 묻더라니까。

“야스코의 前男便에 對해 相當히 執拗하게 묻더니 밤에 또 와서는 정말로
찾아온 적이 없느냐고 묻더라니까。

“야스코의 전남편에 대해 상당히 집요하게 묻더니 밤에 또 와서는 정말로
찾아온 적이 없느냐고 묻더라니까。

「ヤスコの元夫についてかなり執拗に尋ねたら、夜にまた来ては本当に訪れ
たことがないのかと尋ねたから。

그래_ㄴ쥬?”

그랬쥬?”

그랬쥬?”

そうでしたか？」

사요코가 요네자와에게 동의를 구해_ㄴ다。

史요코가 요네자와에게 同意를 求했다。

사요코가 요네자와에게 동의를 구했다。

サヨコが米沢に同意を求めた。

과묵하_ㄴ 요네자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_ㄴ다。

寡黙한 요네자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인다。

과묵한 요네자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인다。

無口な米沢は軽く首だけうなづく。

“아아,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아, 그 後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아,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ああ、それ以降は何も起こりませんでした。

사실은 미사토가 학교 앞에서 형사들의 질문을 받아 ㄴ지만 그런 일까지 말하 ㄴ

필요는 없다고 야스코는 판단해 ㄴ다。

事實은 미사토가 學校 앞에서 刑事들의 質問을 받았지만 그런 일까지 말할

必要는 없다고 야스코는 判斷했다。

사실은 미사토가 학교 앞에서 형사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그런 일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야스코는 판단했다。

実はミサトが学校の前で刑事の質問を受けたが、そんなことまで言う必要は

ないとヤスコは判断した。

“그럼 다행이고。

“그럼 多幸이고。

“그럼 다행이고。

「それでよかったです。

형사들이 웬만큼 집요해야 말이지。

刑事들이 웬만큼 執拗해야 말이지。

형사들이 웬만큼 집요해야 말이지。

探偵たちが何となく執拗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냥 이야기나 들어 보자고 와ㄴ으ㄴ 거야。

“그냥 이야기나 들어 보자고 왔을 거야。

“그냥 이야기나 들어 보자고 왔을 거야。

「ただ話を聞いてみようかと来たんだ。

요네자와가 말해ㄴ다。

요네자와가 말했다。

요네자와가 말했다。

米沢が言った。

“야스코 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러ㄴ

거야。

“야스코 짱을 疑心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節次라는 게 있어서 그

럴 거야。

“야스코 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럴 거야。

「ヤスコちゃんを疑うのではなく、その人たちにも手続きだということがあってそうだ。

“하긴 형사도 공무원이니까。

“하긴 刑事도 公務員이니까。

“하긴 형사도 공무원이니까。

「下は刑事も公務員だから。

그런데 이런 말 하기 ㄴ 좀 뭣하지만, 도가시가 여기 안 오 ㄴ 게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이런 말 하긴 좀 뭣하지만, 都家時가 여기 안 온 게 千萬多幸이야。

그런데 이런 말 하긴 좀 뭣하지만, 도가시가 여기 안 온 게 천만다행이야。

ところで、こういう言葉はちょっと何だが、嵐市がここに来なかったのが千万幸いだ。

살해당하기 전에 와 ㄴ 었다면 꿈쩍없이 야스코가 의심받지 않겠어요?”

殺害當하기 前に 왔었다면 꿈쩍없이 야스코가 疑心받지 않겠어요?”

살해당하기 전에 왔었다면 꿈쩍없이 야스코가 의심받지 않겠어요?”

殺される前に来たとしたら、すっきりヤスコは疑われませんか？」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ㄴ라고.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라고.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라고.

「まさかそんな言葉にならないことがあると。

요네자와가 쓴웃음을 지어ㄴ다.

요네자와가 쓴웃음을 지었다.

요네자와가 쓴웃음을 지었다.

米沢が苦笑した。

“그야 아ㄴ 수 없죠.

“그야 알 수 없죠.

“그야 알 수 없죠.

「それはわかりません。

도가시가 ‘마리안’에 가서 야스코에 대해 캐물어ㄴ다는데 여기 안 와ㄴ으ㄴ 리
없다고 하잖아요.

도가市街 ‘마리안’에 가서 야스코에 對해 캐물었다는데 여기 안 왔을 리 없
다고 하잖아요.

도가시가 ‘마리안’에 가서 야스코에 대해 캐물었다는데 여기 안 왔을 리

없다고 하잖아요.

戸垣が「マリアン」に行ってヤスコについてキャッチしたが、ここに来なかったはずがないと言うでしょう。

그 사람들, 의심하는 눈치여ㄴ어요.

그 사람들, 疑心하는 눈치였어요.

그 사람들,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その人たち、疑う気づきました。

‘마리안’은 야스코와 사요코가 일하던 기_ㅅ시초의 클럽이다.

‘마리안’은 야스코와 史요코가 일하던 긴市草의 클럽이다.

‘마리안’은 야스코와 사요코가 일하던 긴시초의 클럽이다.

「マリアン」は、ヤスコとサヨコが働いていた錦糸町のクラブだ。

“아무리 그래 봐야 안 오_ㅅ 거_ㄴ 어떡하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 봐야 안 온 걸 어떡하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 봐야 안 온 걸 어떡하란 말이야.

「どんなに見てこなかったのをどうするんだ。

“그러니까 안 와서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와서 多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와서 다행이라는 거죠.

「だから来なくて幸いなんです。

도가시가 한 번이라도 여기 ㄴ 와ㅅㅅ어 봐요.

도가市街 한 番이라도 여길 왔어 봐요.

도가시가 한 번이라도 여길 왔어 봐요.

とが市が一度でもここに来たのです。

아마 그 형사들, 죽자고 야스코를 쫓아다녀ㅅ으ㄴ 거예요.

아마 그 刑事들, 죽자고 야스코를 쫓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 형사들, 죽자고 야스코를 쫓아다녔을 거예요.

おそらくその刑事たち、死ぬとヤスコを追いかけたのでしょう。

그러 ㄴ까, 라며 요네자와가 고개를 갸우뚱해ㅅ다.

그럴까, 라며 요네자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럴까, 라며 요네자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そうか、と言って米沢が首をかしげた。

하지만 그 얼굴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기색은 전혀 없어ㅅ다.

하지만 그 얼굴에 이 問題を 深刻하게 여기는 氣色은 全然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だが、その顔にこの問題を真剣に考える気配は全くなかった。

만일 도가시가 이곳에 와^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
으^ㄴ까。

萬一 도가시가 이곳에 왔었다는 事實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은 어떤 表情을
지을까。

만일 도가시가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もし道が市がここに来たという事実を知ったら、二人はどんな表情をするの
だろうか。

그 생각을 하자 야스코는 아슬아슬해서 견디^ㄴ 수 없어^ㅅ다。

그 생각을 하자 야스코는 아슬아슬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 생각을 하자 야스코는 아슬아슬해서 견딜 수 없었다。

その考えをすると、ヤスコはギリギリで耐えられなかった。

“기분이야 좋지 않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 야스코。

“氣分이야 좋지 않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 야스코。

“기분이야 좋지 않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 야스코。

「気持ちが良くないだろうが、少しだけ参考に耐えて、ヤスコ。

사요코가 따스하게 위로의 말을 해^ㅅ다。

史요코가 따스하게 慰勞의 말을 했다。

사요코가 따스하게 위로의 말을 했다。

サヨコが暖かく慰めの話をした。

“헤어지 ㄴ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돼 ㄴ으니 형사가 찾아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차피 머지않아 그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 ㄴ 거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말로 정말 마음 편하게 사 ㄴ 수 있지 않겠어? 야스코는 도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 와 ㄴ으니까。

“헤어진 男便이 變死體로 發見됐으니 刑事가 찾아오는 것도 當然하지만,
於此彼 머지않아 그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젠
야말로 정말 마음 便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야스코는 도가시 때문에 苦
痛을 많이 받아 왔으니까。

“헤어진 남편이 변사체로 발견됐으니 형사가 찾아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차피 머지않아 그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번엔
야말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야스코는 도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 왔으니까。

「別れた夫が変死体として発見されたから刑事がやってくるのも当然だが、
どうせすぐにその人たちもやって来なくなるだろうし、そうなれば今回こそ
本当に気楽に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靖子は東街のため苦痛をたくさん
受けてきたから。

그거 ㄴ 그러네요, 라며 야스코는 억지로 웃어 보여 ㅅ다.

그건 그러네요, 라며 야스코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그건 그러네요, 라며 야스코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それはそうですね、とヤスコは無理に笑って見えた。

“있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도가시가 죽어서 잘돼 ㅅ다고 생각해.

“있잖아, 率直히 말하자면 나는 도가시가 죽어서 잘됐다고 생각해.

“있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도가시가 죽어서 잘됐다고 생각해.

「あるじゃない、正直に言えば、私は戸岳が死んで良かったと思う。

“이봐!”

“이봐!”

“이봐!”

「ねえ！」

“뭐, 어때요? 사실이 그러 ㄴ걸.

“뭐, 어때요? 事實이 그런걸.

“뭐, 어때요? 사실이 그런걸.

「なに、どうですか？実はこんなこと。

당신은 야스코가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ㅅ는지 몰라요.

當身은 야스코가 그 男子 때문에 얼마나 苦生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야스코가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あなたはヤスコがその男のためにどれほど苦労したのかわかりません。

“당신은 얼마나 아ㄴ다고 그래?”

“當身은 얼마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얼마나 안다고 그래?”

「あなたはどれくらい知っているの？」

“직접 겪지는 았아ㄴ지만 야스코에게 들으ㄴ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直接 겪지는 았았지만 야스코에게 들은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직접 겪지는 았았지만 야스코에게 들은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直接体験していませんが、ヤスコに聞いた話が多いのです。

‘마리안’에서 일하게 되ㄴ 것도 그 남자한테서 도망치기 위해서여ㄴ는데 또 야스코를 찾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마리안’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男子한테서 逃亡치기 爲해서였는데 또 야스코를 찾다니, 正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마리안’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 남자한테서 도망치기 위해서였는데 또 야스코를 찾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マリアン」で働くことになったのもその男から逃げるためだったのです

が、またヤスコを探すなんて、本当に思うだけでも気味悪いです。

어디에 사는 누가 그래ㄴ는지는 몰라도 그놈을 죽여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으ㄴ 심정이에요。

어디에 사는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놈을 죽여 줘서 感謝하다고 人事하고 싶은 心情이에요。

어디에 사는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놈을 죽여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どこに住んでいる誰がそうしたのは分からなくても、彼を殺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挨拶したい心情です。

그 말을 들으ㄴ 요네자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서ㄴ다。

그 말을 들은 요네자와가 어이없다는 表情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말을 들은 요네자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その言葉を聞いた米沢があえないという表情をして席で立ち上がった。

사요코는 잠시 그 뒷모습을 훑어보다가 야스코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해ㄴ다。

史요코는 暫時 그 뒷모습을 훑어보다가 야스코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사요코는 잠시 그 뒷모습을 훑어보다가 야스코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サヨコはしばらくその後ろ姿を流してよりヤスコに顔を近づけて言った。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어ㄴ던 거ㄴ까, 사채업자에게 쫓기기라도 해ㄴ나?”

“그런데 代替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私債業者에게 쫓기기라도 했나?”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채업자에게 쫓기기라도 했나?”

「ところで一体何があったのか、社債業者に追われることとしたか？」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まあ。

야스코가 고개를 갸우뚱해ㄴ다。

야스코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야스코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ヤスコが首をかしげた。

“어쨌든 야스코에게 불뚱이 튀지 않아ㄴ으면 좋겠어。

“어쨌든 야스코에게 불뚱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야스코에게 불뚱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

「とにかく、ヤスコに火がつかないならいいな。

마음에 걸리는 거 ㄴ 그것 하나뿐이야。

마음에 걸리는 건 그것 하나뿐이야。

마음에 걸리는 건 그것 하나뿐이야。

気になるのはそれ一つだけだ。

사요코는 그렇게 말하 ㄴ 후 마지막 남은 ㄴ 찹쌀떡을 입에 넣어 ㅅ 다。

史요코는 그렇게 말한 後 마지막 남은 찹쌀떡을 입에 넣었다。

사요코는 그렇게 말한 후 마지막 남은 찹쌀떡을 입에 넣었다。

サヨコはそう言った後、最後の残りのもち米を口に入れた。

매장으로 돌아오 ㄴ 후에도 야스코는 마음이 무거워 ㅅ 다。

賣場으로 돌아온 後에도 야스코는 마음이 무거웠다。

매장으로 돌아온 후에도 야스코는 마음이 무거웠다。

店頭に戻った後も、ヤスコは心が重かった。

요네자와 부부는 꿈에도 야스코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요네자와 夫婦는 꿈에도 야스코를 疑心하지 않고 있다。

요네자와 부부는 꿈에도 야스코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

米沢夫婦は夢にもヤスコを疑っていない。

의심은커녕 이번 사건으로 야스코가 피해를 입으 ㄴ 까 봐 걱정하고 있다。

疑心은커녕 이番 事件으로 야스코가 被害를 입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의심은커녕 이번 사건으로 야스코가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疑いはこんにちは今回の事件で、ヤスコが被害を受けるかと心配している。

그런 두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ㅆ다.

그런 두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런 두 사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そんな二人をだましていると思うと胸が痛い。

그러나 만일 야스코가 체포되기라도 하^ㄴ다면 두 사람에게 이만저만 폐를 끼치게 되지 않^으ㄴ 것이다.

그러나 萬一 야스코가 逮捕되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에게 이만저만 肺를 끼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야스코가 체포되기라도 한다면 두 사람에게 이만저만 폐를 끼치게 되지 않^을 것이다。

しかし、もしヤスコが逮捕されたとしても、二人にちょっと迷惑をかけることはないだろう。

벤테^ㄴ테이의 경영에까지 지장이 생기^ㄴ 게 분명하다。

벤텐테이의 經營에까지 支障이 생길 게 分明하다。

벤텐테이의 경영에까지 지장이 생길 게 분명하다。

弁天亭の経営にまで支障が生じることは明らかだ。

그렇게 생각하니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ㄴ 것 같아ㄴ다。

그렇게 생각하니 事件을 完璧하게 隱蔽하는 것 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았다。

そう思うと事件を完璧に隠す以外には他の道がないようだった。

그런저런 고민을 하면서도 야스코는 일을 계속해ㄴ다。

그런저런 苦悶을 하면서도 야스코는 일을 繼續했다。

그런저런 고민을 하면서도 야스코는 일을 계속했다。

そんな悩みをしながらも、ヤスコは仕事を続けた。

자신도 모르게 자꾸 머리가 멍해지려 해ㄴ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게 일에 정성을 쏟지 않는다는 거ㄴ 있으ㄴ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님 응대에 정신을 집중해ㄴ다。

自身도 모르게 자꾸 머리가 멍해지려 했지만 이런 狀況에서 가게 일에 精誠을 쏟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님 應對에 精神을 集中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 머리가 멍해지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게 일에 정성을 쏟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님 응대에 정신을 집중했다.

自分も知らずにどんどん頭がぼんやりしようとしたが、このような状況で店の仕事に真心を注がないということはあるえないことだと自らを多読し、ゲスト対応に精神を集中した。

6시가 가까워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하^ㄴ 무렵 가게 문이 스르륵 열려^ㄴ다。

6 時が 가까워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기 始作할 무렵 가게 門이 스르륵 열렸다。

6시가 가까워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할 무렵 가게 문이 스르륵 열렸다。

6 時が近づくにつれて、お客様の足がはじまり始める頃、店の扉がスルリッ
ク開かれた。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来てください。

반사적으로 외치며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야스코의 눈이 동그래져^ㄴ다。

反射的に 외치며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야스코의 눈이 동그래졌다.

반사적으로 외치며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야스코의 눈이 동그래졌다.

反射的に叫んで客の顔を眺めていたヤスコの目が丸くなった。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お母さん！」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久しぶりだ.

남자가 웃어 보여ㄴ다.

男子가 웃어 보였다.

남자가 웃어 보였다.

男が笑って見えた.

그 눈가에 주름이 잡혀ㄴ다.

그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그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その目元にしわがついた。

“구도 씨!”

“構圖 氏!”

“구도 씨!”

「構図さん！」

야스코도 입가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지어냈다.

야스코도 입가에 손을 대며 微笑를 지었다.

야스코도 입가에 손을 대며 미소를 지었다.

ヤスコも口元に手を当てて笑顔を作った。

“어쩌 ㄴ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どうしたの？」

“어쩌 ㄴ 일이기 ㄴ, 도시락 사러 와냈지.

“어쩐 일이긴, 도시락 사러 왔지.

“어쩐 일이긴, 도시락 사러 왔지.

「なんだか、弁当を買いに来たよ。

와,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군。

와, 메뉴가 相當히 多樣하군。

와,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군。

と、メニューがかなり多様ですね。

구도가 도시락 사진들을 올려다보며 말해ㄴ다。

構圖가 도시락 寫眞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구도가 도시락 사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構図が弁当の写真を見上げて言った。

“마리안에서 들어ㄴ어요?”

“마리안에서 들었어요?”

“마리안에서 들었어요?”

「マリアンで聞きましたか？」

“그렇지, 뭐”

“그렇지, 뭐”

“그렇지, 뭐”

「そうだね、まあ」

그가 다시 빙그레 웃는다.

그가 다시 빙그레 웃는다.

그가 다시 빙그레 웃는다.

彼は再び笑って笑う。

“어제 오랜만에 가게에 가_ㅅ었거든.

“어제 오랜만에 가게에 갔었거든.

“어제 오랜만에 가게에 갔었거든.

「昨日久しぶりにお店に行ったんだ。

“그래_ㅅ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야스코는 가게 안쪽을 향해 “사요코 씨, 큰일 나_ㅅ어요.

야스코는 가게 안쪽을 向해 “史요코 氏, 큰일 났어요.

야스코는 가게 안쪽을 향해 “사요코 씨, 큰일 났어요.

康子は店の奥に向かって「さよこさん、大変だったんです。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ちょっと出てみてください。

”라고 외쳐ㄴ다。

”라고 외쳤다。

”라고 외쳤다。

」と叫ん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なぜそう、どうしたの？」

사요코가 안에서 놀라ㄴ 듯 소리쳐ㄴ다。

史요코가 안에서 놀란 듯 소리쳤다。

사요코가 안에서 놀란 듯 소리쳤다。

サヨコが中で驚いたように叫んだ。

야스코는 웃으며 “구도 씨예요。

야스코는 웃으며 “構圖 氏예요。

야스코는 웃으며 “구도 씨예요。

康子は笑いながら「構図さんです。

구도 씨가 와ㅏ어요。

구도 氏が 왔어요。

구도 씨가 왔어요。

構図さんがやってきました。

”라고 대답해ㅏ다。

”라고 對答했다。

”라고 대답했다。

」と答えた。

“워, 구도 씨라고?”

“워, 構圖 氏라고?”

“워, 구도 씨라고?”

「な、構図さんって？」

앞치마를 벗으며 허둥지둥 뛰어나오 ㅓ 사요코가 코트 차림으로 웃고 서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고 입을 꾹 벌려ㅏ다。

앞치마를 벗으며 허둥지둥 뛰어나온 史요코가 코트 차림으로 웃고 서 있는

男子를 올려다보고 입을 찹 벌렸다.

앞치마를 벗으며 허둥지둥 뛰어나온 사요코가 코트 차림으로 웃고 서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고 입을 찹 벌렸다.

エプロンを脱いでガタガタ飛び出したサヨコがコート姿で笑って立っている
男を見上げて口をぐっと広げた。

“아니, 구도 짱!”

“아니, 構圖 짱!”

“아니, 구도 짱!”

「いや、構図ちゃん！」

“두 사람 다 좋아 보이네.

“두 사람 다 좋아 보이네.

“두 사람 다 좋아 보이네.

「二人ともよさそうだね。

사업은 잘돼 가? 가게 분위기를 보니 순조로우ㄴ 거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事業은 잘돼 가? 가게 雰囲気를 보니 順調로운 거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사업은 잘돼 가? 가게 분위기를 보니 순조로운 거 같기는 하지만 말이
야。

ビジネスはうまくいっていますか？お店の雰囲気を見るとスムーズなような
気がするけどね。

“응, 그럭저럭 꾸려 나가고 있어.

“응, 그럭저럭 꾸려 나가고 있어.

“응, 그럭저럭 꾸려 나가고 있어.

「うん、そんなに飾っていったるよ。

그런데 갑자기 어찌 ㄴ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야?”

しかし、突然どうしたの？」

“두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 말이지.

“두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 말이지.

“두 사람 얼굴이 보고 싶어서 말이지.

「二人の顔が見たくてね。

구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긁적거리면서 야스코를 바라보아ㄴ

다.

構圖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긁적거리면서 야스코를 바라보았

다.

구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가락으로 코를 긁적거리면서 야스코를 바라보았

다.

構図はそう言っては指で鼻を掻きながらヤスコを眺めた。

겸연쩍으 ㄴ 때마다 나오는 그 버릇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 ㄴ 이 없어 ㄴ
다。

慊然쩍을 때마다 나오는 그 버릇은 몇 年 前이나 只今이나 變함이 없었
다。

겸연쩍을 때마다 나오는 그 버릇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
다。

謙遜になるたびに出てくるその癖は数年前も今も変わらなかった。

구도는 야스코가 아카사카에서 일하 ㄴ 때부터 단골이어 ㄴ 다。

構圖는 야스코가 아카사카에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

구도는 야스코가 아카사카에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

構図は、ヤスコが赤坂で働く時から常連だった。

그는 올 때마다 야스코를 지명해 ㄴ 고, 그녀가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함께 하기
도 해 ㄴ 다。

그는 올 때마다 야스코를 指名했고, 그女가 出勤하기 前に 食事を 함께 하
기도 했다。

그는 올 때마다 야스코를 지명했고, 그녀가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彼は来るたびにヤスコを指名し、彼女が出勤する前に食事を一緒にしたりも
した。

영업이 끝나 ㄴ 후에는 둘이서 술을 마시러 가 ㄴ 적도 있다.

營業이 끝난 後에는 둘이서 술을 마시러 간 적도 있다.

영업이 끝난 후에는 둘이서 술을 마시러 간 적도 있다.

營業終了後は二人で酒を飲みに行ったこともある。

도가시를 피하려고 기 ㄴ시초의 ‘마리안’으로 옮기 ㄴ 때도 야스코는 구도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 ㅅ다.

道家市를 避하려고 긴市草의 ‘마리안’으로 옮길 때도 야스코는 構圖에게만
그 事實을 알렸다.

도가시를 피하려고 긴시초의 ‘마리안’으로 옮길 때도 야스코는 구도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다.

道鹿市を避けようと錦糸町の「マリアン」に移す時も、ヤスコは構図にのみ
その事実を知らせた。

그러자 그도 따라서 ‘마리안’의 단골이 되어 ㅅ다.

그러자 그도 따라서 ‘마리안’의 단골이 되었다.

그러자 그도 따라서 ‘마리안’의 단골이 되었다.

すると彼もしたがって'マリアン'の常連となった。

거기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 ㅅ으 ㄴ 때 구도는 쓸쓸하 ㄴ 표정을 지으며 “아무쪼

록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거기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構圖는 쓸쓸한 表情을 지으며 “아무쪼록

幸福해졌으면 좋겠어。

거기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构图는 쓸쓸한 表情을 지으며 “아무쪼록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そこで仕事をやめるようになった時、構図は寂しい表情をして「どうぞ幸せ
になってほしい。

”라고 말해 ㄴ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と言った。

그 이후로 처음 만나는 것이어 ㄴ다。

그 以後로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それ以来初めて会うのだった。

안에서 요네자와도 나와 네 사람은 옛날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워 ㄴ다。

안에서 요네자와도 나와 네 사람은 옛날을 回想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안에서 요네자와도 나와 네 사람은 옛날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中で米沢も出てきて、四人は昔を思い出して話花を咲かせた。

‘마리안’의 단골이어 ㄸ던 요네자와는 구도와 안면이 있어 ㄸ다。

‘마리안’의 단골이었던 요네자와는 構圖와 顔面이 있었다。

‘마리안’의 단골이었던 요네자와는 구도와 안면이 있었다。

「マリアン」の定番だった米沢は構図と顔面があった。

한바탕 이야기를 나누 ㄴ 후 사요코가 “둘이서 차라도 마시고 와。

한바탕 이야기를 나눈 後 史요코가 “둘이서 車라도 마시고 와。

한바탕 이야기를 나눈 후 사요코가 “둘이서 차라도 마시고 와。

一步話をした後、サヨコが「二人でお茶でも飲んでくる。

”라고 말해 ㄸ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と言った。

요네자와도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여 ㄸ다。

요네자와도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네자와도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米沢も気づき、早く首をうなずいた。

야스코가 구도를 바라보자 그는 기다려^ㄴ다는 듯 “시간 있어?”라고 물어^ㄴ다.

야스코가 構圖를 바라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時間 있어?”라고 물었다.

야스코가 구도를 바라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시간 있어?”라고 물었다.

ヤスコが構図を眺めると、彼は待っていたように「時間ある？」と尋ねた。

애초에 그러^ㄴ 걱정으로 바쁘지 않^으ㄴ 만하^ㄴ 때를 골라서 오^ㄴ 것이^ㄴ지도 몰라^ㄴ다.

애初에 그럴 作定으로 바쁘지 않을 만한 때를 골라서 온 것일지도 몰랐
다。

애초에 그럴 걱정으로 바쁘지 않을 만한 때를 골라서 온 것일지도 몰랐
다。

そもそもそんな作政で忙しくないような時を選んできたのかもしれなかつ
た。

“잠깐이라면 괜찮아요.

“잠깐이라면 괜찮아요.

“잠깐이라면 괜찮아요.

「ちょっとしたら大丈夫ですよ。

”라고 야스코는 웃는 얼굴로 대답해^ㄴ다.

”라고 야스코는 웃는 얼굴로 對答했다.

”라고 야스코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とヤスコは笑顔で答えた。

가게를 나서 二 두 사람은 신오하시 거리를 향해 걷기 시작해 っ 다.

가게를 나선 두 사람은 新吳何時 거리를 向해 걷기 始作했다.

가게를 나선 두 사람은 신오하시 거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店を出た二人は新大橋通りに向かって歩き始めた。

“천천히 식사라도 같이 해 っ 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 ㄴ 게.

“천천히 食事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程度로 할게.

“천천히 식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

「ゆっくり食事でも一緒にやってほしいが、今日はこれくらいにする。

딸이 기다리 ㄴ 테니까.

딸이 기다릴 테니까.

딸이 기다릴 테니까.

娘が待つから。

구도는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아카사카 시절부터 알고 있어 っ 다.

構圖는 그女에게 딸이 있다는 事實을 아카사카 時節부터 알고 있었다.

구도는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아카사카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構図は彼女に娘がいるという事実を赤坂の頃から知っていた。

“구도 씨 아들은 잘 지내요?”

“構圖 氏 아들은 잘 지내요?”

“구도 씨 아들은 잘 지내요?”

「構図さんの息子は元気ですか？」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잘 지내지。

「おやすみなさい。

벌써 고3이야。

벌써 高 3이야。

벌써 고3이야。

もう高 3 だ。

입시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

入試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

입시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

入試を考えるだけで頭痛が痛い。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찌푸려^ㄴ다.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そして彼は顔を突き刺した。

구도는 조그마^ㄴ 인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構圖는 조그만 印刷 會社를 經營하고 있다.

구도는 조그만 인쇄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構図は小さな印刷会社を経営している。

집은 오자키에 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어^ㄴ다.

집은 오자키에 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다.

집은 오자키에 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다.

家は大崎にいて、妻と息子と一緒に暮らしていると聞いた。

신오하시 거리에 있는 아담하^ㄴ 커피숍으로 들어가^ㄴ다.

新吳何時 거리에 있는 雅淡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신오하시 거리에 있는 아담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新大橋通りにあるこじんまりとしたコーヒーショップに入った。

교차로 바로 곁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ㄴ지만 야스코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피해ㄴ다。

交叉로 바로 곁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지만 야스코는 意圖적으로 그곳을 避했다。

교차로 바로 곁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지만 야스코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피했다。

交差点のすぐそばに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があったが、ヤスコは意図的にそこを避けた。

도가시와 만나ㄴ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都家時와 만났던 場所이기 때문이다。

도가시와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道鹿市と出会った場所だからだ。

“마리안에 가ㄴ 거ㄴ 야스코가 있는 곳을 물어보기 위해서여ㄴ어。

“마리안에 간 건 야스코가 있는 곳을 물어보기 爲해서였어。

“마리안에 간 건 야스코가 있는 곳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어。

「マリアンに行ったのは、ヤスコがいるところを尋ねるためだった。

가게를 그만두ㄴ 때 사요코 마담의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ㄴ 거라는 얘기는 들어ㄴ지만 자세하ㄴ 내용은 몰라ㄴ거든。

가게를 그만둘 때 史요코 마담의 도시락 가게에서 일할 거라는 얘기는 들

었지만 仔細한 內容은 몰랐거든.

가게를 그만둘 때 사요코 마담의 도시락 가게에서 일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

お店をやめたときにサヨコマダムのお弁当屋で働くだろーという話は聞いたが、詳細は知らなかった。

“갑자기 제 생각이 나 ㅅ 던 거예요?”

“갑자기 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갑자기 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突然私の思いが出たんですか？」

“응, 뭐, 그렇다고 하 ㄴ 수 있지.

“응,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응,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うん、まあ、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んだ。

구도는 담배에 불을 붙여 ㅅ 다.

構圖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구도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構図はタバコに火をつけた。

“실은 사건을 다루 ㄴ 뉴스를 보고 마음에 좀 걸려 ㅅ 거든.

“實은 事件을 다룬 뉴스를 보고 마음에 좀 걸렸거든。

“실은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 마음에 좀 걸렸거든。

「実は事件を扱ったニュースを見て気になったんだ。

전남편이 변을 당해ㄴ다면서?”

前男便이 便을 當했다면서?”

전남편이 변을 당했다면서?”

元旦那が辺にあったとして？

“아아…… 용케 아셔ㄴ네요, 그 사람이란 걸。

“아아…… 用케 아셨네요, 그 사람이란 걸。

“아아…… 용케 아셨네요, 그 사람이란 걸。

「ああ… …ヨンケ知ってましたね、その人ってこと。

그러자 구도가 담배 연기를 뿜어내면서 쓴웃음을 지어ㄴ다。

그러자 構圖가 담배 演技를 뿜어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구도가 담배 연기를 뿜어내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すると構図がタバコの煙を吹き出して苦笑いをした。

“그야 아ㄴ 수밖에 없지, 도가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데다 직접 맞닥뜨리기까
지 해ㄴ잖아。

“그야 알 수밖에 없지, 도가시라는 이름을 記憶하는 데다 直接 맞닥뜨리기

까지 했잖아.

“그야 알 수밖에 없지, 도가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데다 직접 맞닥뜨리기

까지 했잖아.

「それじゃ分かるしかない、道鹿市という名前を覚えるうえに直接当たるまでやったじゃないか。

“……미안해요.

“……未安해요.

“……미안해요.

「… …すみません.

“야스코가 사과하 ㄴ 일이 아니야.

“야스코가 謝過할 일이 아니야.

“야스코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ヤスコが謝罪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구도가 웃으며 손을 내저어 ㄴ다.

構圖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구도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構図が笑って手を振った。

그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야스코도 알고 있어ㄴ다.

그가 自身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야스코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건 야스코도 알고 있었다.

彼が自分に心があるというのは、ヤスコも知っていた。

그녀 역시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ㄴ다.

그녀 亦是 그에게 好意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彼女も彼に好意を持っていた。

그러나 이른바 관계를 가지 ㄴ 적으 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른바 關係를 가진 적은 한 番도 없다.

그러나 이른바 관계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

しかし、いわゆる關係を持つことは一度もない。

호텔에 가자는 말을 몇 번 듣기는 해ㄴ지만 그러 ㄴ 때마다 그녀가 완곡하게 거절해ㄴ다.

호텔에 가자는 말을 몇 番 듣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가 婉曲하게 拒絶했다.

호텔에 가자는 말을 몇 번 듣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가 완곡하게 거절했다.

ホテルに行こうという言葉は何度も聞くことはしたが、そんなたびに彼女が
屈曲して断った。

처자가 있는 남자와 불륜에 빠지 ㄴ 만하 ㄴ 용기도 없어 ㄴ 거니와, 구도에게는
숨겨 ㄴ 지만 그 시점에는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어 ㄴ 다。

妻子가 있는 男子와 不倫에 빠질 만한 勇氣도 없었거니와, 構圖에게는 숨
겼지만 그 時點에는 그女에게도 男便이 있었다。

처자가 있는 남자와 불륜에 빠질 만한 용기도 없었거니와, 구도에게는 숨
겼지만 그 시점에는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었다。

妻がいる男と不倫に陥るほどの勇氣もなかったので、構図には隠したがその
時点には彼女にも夫がいた。

구도가 야스코의 남편, 즉 도가시와 맞닥뜨리고 마 ㄴ 것은 그녀를 집까지 바
다주러 와 ㄴ 으 ㄴ 때여 ㄴ 다。

構圖가 야스코의 男便, 卽 都家時와 맞닥뜨리고 만 것은 그女를 집까지 바
래다주러 왔을 때였다。

구도가 야스코의 남편, 즉 도가시와 맞닥뜨리고 만 것은 그녀를 집까지 바
래다주러 왔을 때였다。

構図が靖子の夫、すなわち東柏に直面してしまったのは、彼女を家まで見渡
してきた時だった。

야스코는 늘 집과 약간 떨어지 ㄴ 곳에서 택시를 내려 ㄴ 었고 그거 ㄴ 그날도 마

찬가지여...

야스코는 늘 집과 若干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내렸었고 그건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야스코는 늘 집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내렸었고 그건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ヤスコはいつも家から少し離れたところでタクシーを下り、それはその日も同じだった。

그런데 그녀가 택시에 담배 케이스를 두고 내리는 바람에 구도가 그것을 전해 주러 뒤따라와 그녀가 연립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 것이다。

그런데 그女가 택시에 담배 케이스를 두고 내리는 바람에 構圖가 그것을 傳해 주러 뒤따라와 그女가 聯立 住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目撃한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택시에 담배 케이스를 두고 내리는 바람에 구도가 그것을 전해 주러 뒤따라와 그녀가 연립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ところが、彼女がタクシーにタバコケースを置いて降りる風に構図がそれを伝えてくれ、続いて彼女が連立住宅の中に入ることを目撃したのだ。

그가 문을 두드려... 때 문을 열고 나오... 사람은 야스코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 즉 도가시여...

그가 門을 두드렸을 때 門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야스코가 아니라 처음 보는

男子, 卽 都家時였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야스코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 즉 도가시였다。

彼が扉を叩いたときに扉を開けて出た人は、ヤスコではなく、初めて見る男、つまり道家市だった。

그날도 도가시는 취해 있어ㄴ다。

그날도 도가시는 取해 있었다。

그날도 도가시는 취해 있었다。

その日も東鹿市は酔っていた。

그는 구도를 야스코에게 치근거리는 손님이라고 단정하고 구도의 설명도 듣지 않으ㄴ 채 화를 내며 덤벼들어ㄴ다。

그는 構圖를 야스코에게 치근거리는 손님이라고 端正하고 構圖의 説明도 듣지 않은 채 化를 내며 덤벼들었다。

그는 구도를 야스코에게 치근거리는 손님이라고 단정하고 구도의 설명도 듣지 않은 채 화를 내며 덤벼들었다。

彼は構図をヤスコに根強い客だと断定し、構図の説明も聞かないまま話を出して襲いかかった。

샤워를 하려다 말고 달려 나오ㄴ 야스코가 말리지 않아ㄴ 더라면 식칼을 휘둘러ㄴ으ㄴ지도 모르ㄴ 일이어ㄴ다。

샤워를 하려다 말고 달려 나온 야스코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食칼을 휘둘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샤워를 하려다 말고 달려 나온 야스코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食칼을 휘둘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シャワーをしようと走って出てきたヤスコが乾かなかったなら、包丁を振り回したかもしれないことだった。

나중에 야스코는 도가시와 함께 구도에게 사과하러 가^ㄴ다。

나중에 야스코는 도가시와 함께 構圖에게 謝過하러 갔다。

나중에 야스코는 도가시와 함께 구도에게 사과하러 갔다。

後で、ヤスコは道鹿市と共に構図に謝罪に行った。

그때는 도가시도 양전하^ㄴ 얼굴로 온순하게 굴어^ㄴ다。

그때는 道家試圖 양전한 얼굴로 溫順하게 굴었다。

그때는 도가시도 양전한 얼굴로 온순하게 굴었다。

その時は、道家市もおとなしい顔で穏やかに屈した。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여^ㄴ으^ㄴ 것이다。

警察에 신고라도 하면 困難하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警察に届けても困ると思っていたのだろう。

구도는 화를 내지 않아ㄴ다。

構圖는 火를 내지 않았다。

구도는 화를 내지 않았다。

構図は怒らなかった。

도대체 언제까지 부인에게 물장사를 시키ㄴ 작정이냐고 주의를 주어ㄴ으ㄴ 뿐
이다。

都大體 언제까지 夫人에게 물장사를 시킬 作定이냐고 注意를 주었을 뿐이
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인에게 물장사를 시킬 작정이냐고 주의를 주었을 뿐이
다。

一体いつまで婦人に水商社をさせるようにするのかと注意を与えただけだ。

도가시는 불쾌하ㄴ 기색이 역력해ㄴ지만 잠자코 고개를 끄덕여ㄴ다。

도가시는 不快한 氣色이 歴歴했지만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도가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道鹿市は不快な気配が力力だったが、寝て首をうなずいた。

그 후로도 구도는 변함없이 가게를 찾아 주어ㄴ다。

그 後로도 構圖는 變함없이 가게를 찾아 주었다。

그 후로도 구도는 변함없이 가게를 찾아 주었다。

その後も構図は変わらずお店を訪ねてくれた。

야스코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여ㄴ다。

야스코에 對한 態度도 마찬가지였다。

야스코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ヤスコに対する態度も同じだった。

다만 가게 바깥에서 만나는 일은 없어져ㄴ다。

다만 가게 바깥에서 만나는 일은 없어졌다。

다만 가게 바깥에서 만나는 일은 없어졌다。

ただ、店の外で会うことはなくなった。

주위에 사람이 없으ㄴ 때면 구도는 가끔씩 도가시에 대해 물어ㄴ다。

周圍에 사람이 없을 때면 構圖는 가끔씩 도가시에 對해 물었다。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면 구도는 가끔씩 도가시에 대해 물었다。

周りに人がいなかった時、構図はたまに道街について尋ねた。

대개는 일자리를 찾아ㄴ느냐는 물음이어ㄴ다。

大概는 일자리를 찾았느냐는 물음이었다。

대개는 일자리를 찾았느냐는 물음이었다。

通常は仕事を見つけたかという問いだった。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저으 ㄴ 수밖에 없어 ㅅ다。

그女는 언제나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彼女はいつも頭を下げるしかなかった。

도가시가 야스코에게 폭력을 휘두르 ㄴ다는 사실을 맨 처음 눈치채 ㄴ 사람도 구
도여 ㅅ다。

道가시가 야스코에게 暴力을 휘두른다는 事實을 맨 처음 눈치챈 사람도 構
圖였다。

도가시가 야스코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을 맨 처음 눈치챈 사람도 구
도였다。

道鹿市が靖子に暴力を振り回すという事実を初めて気づいた人も構図だっ
た。

얼굴과 몸에 생기 ㄴ 멍 자국을 화장으로 교묘하게 감추고 있어 ㅅ지만 그의 눈
을 속이 ㄴ 수는 없어 ㅅ다。

얼굴과 몸에 생긴 멍 자국을 化粧으로 巧妙하게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
을 속일 수는 없었다。

얼굴과 몸에 생긴 멍 자국을 화장으로 교묘하게 감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
을 속일 수는 없었다。

顔と体にできたあざ跡を化粧で巧みに隠していたが、彼の目をだますことは

できなかった。

그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 ㄴ 데니 변호사와 의논해 보라고까지 말해 주었 ㄴ
다。

그는 自身이 費用을 負擔할 데니 辯護士와 議論해 보라고까지 말해 주었
다。

그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데니 변호사와 의논해 보라고까지 말해 주었
다。

彼は自分が費用を負担するから弁護士と相談してみるようにまで言ってくれ
た。

“그래서, 야스코 주변에 뭐 ㄴ가 이상하 ㄴ 낚새는 없어?”

“그래서, 야스코 周邊에 뭔가 異常한 낚새는 없어?”

“그래서, 야스코 주변에 뭔가 이상한 낚새는 없어?”

「だから、靖子周辺に何か変な感じはない？」

“이상하 ㄴ 낚새요? 아아, 경찰이 찾아오곤 하죠。

“異常한 낚새요? 아아, 警察이 찾아오곤 하죠。

“이상한 낚새요? 아아, 경찰이 찾아오곤 하죠。

「奇妙な感じですか? ああ、警察がやってきたんです。

“역시 그렇군。

“亦是 그렇군。

“역시 그렇군。

「やっぱりそうだね。

그러 ㄴ 거라고 짐작은 해 ㅅ어。

그럴 거라고 斟酌은 했어。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어。

そうだろうと推測はした。

구도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ㅅ다。

構圖가 안타깝다는 表情을 지었다。

구도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構図が残念だという表情をした。

“그렇게 걱정하 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そんなこと心配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야스코는 미소를 지어 보여 ㅅ다。

야스코는 微笑를 지어 보였다。

야스코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ヤスコは笑顔を見せた。

“경찰만 찾아오는 거야? 마스크는 귀찮게 안 해?”

“警察만 찾아오는 거야? 마스크는 귀찮게 안 해?”

“경찰만 찾아오는 거야? 마스크는 귀찮게 안 해?”

「警察だけが来るの？マスコミは面倒じゃない？」

“그런 일은 없어ㅏ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多幸이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それなら幸いだし。」

하기야 마스크가 달려드ㄴ 만큼 요란하ㄴ 사건은 아니지。

하기야 마스크가 달려들 만큼 搖亂한 事件은 아니지。

하기야 마스크가 달려들 만큼 요란한 사건은 아니지。

やっとマスコミが駆け寄るほど煩わしい事件じゃない。

그래도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돕고 싶어.

그래도 或是 困難한 일이 생기면 돕고 싶어.

그래도 혹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돕고 싶어.

それでも、もし困難なことができたなら助けた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ありがとう。

여전히 친절하시네요.

如前히 親切하시네요.

여전히 친절하시네요.

まだ親切ですね。

그녀의 말에 구도는 겸연쩍으_ㄴ 듯 고개를 숙이며 커피 잔으로 손을 뺐어_ㄴ

다。

그女の 말에 構圖는 慊然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커피 盞으로 손을 뺐었

다。

그녀의 말에 구도는 겸연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커피 잔으로 손을 뻗었다。

彼女の言葉に構図は謙虚なように頭を下げてコーヒーカップで手を伸ばした。

“그러니까 야스코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야스코는 이番 事件과 전혀 關係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야스코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だから靖子は今回の事件と全く関係ないのか？」

“왜요, 있으 ㄴ 것 같아요?”

“왜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있을 것 같아요?”

「なぜ、あると思いますか？」

“뉴스를 봐 ㄴ으 ㄴ 때 맨 먼저 야스코가 떠올라 ㄴ어。

“뉴스를 봤을 때 맨 먼저 야스코가 떠올랐어。

“뉴스를 봤을 때 맨 먼저 야스코가 떠올랐어。

「ニュースを見たとき、まずはヤスコが思い浮かんだ。

그리고 불안해지더군。

그리고 不安해지더군。

그리고 불안해지더군.

そして不安になったな。

그 사람이 무슨 연유로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야스코에게도 불
똥이 튀지 않으니까 싶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 무슨 燃油로 누구에게 殺害當했는지는 모르지만 야스코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 무슨 연유로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야스코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あの人がどんな軟油で誰に殺されたのかは分からないが、ヤスコにもたわご
とが飛び出すのではないかと思うから。

“사요코 씨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史요코 氏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사요코 씨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さよこさんも同じことを言いましたね。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人々の考えはみんな同じだと思います。

“이렇게 야스코의 멀쩡하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역시 신경과민이어ㄴ다는 생각이 드는군。

“이렇게 야스코의 멀쩡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亦是 神經過敏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

“이렇게 야스코의 멀쩡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역시 신경과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

「こんなにヤスコの遠い顔を見ていると、やはり神經過敏だったと思います。

그 사람과 이혼하ㄴ 지가 벌써 몇 년이ㄴ데 말이야。

그 사람과 離婚한 지가 벌써 몇 年인데 말이야。

그 사람과 이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이야。

その人と離婚したのはもう何年なのにな。

최근에는 만나ㄴ 적 없지?”

最近에는 만난 적 없지?”

최근에는 만난 적 없지?”

最近は会ったことない？」

“그 사람과요?”

“그 사람과요?”

“그 사람과요?”

「その人と？」

“응, 도가시랑 말이야.

“응, 都家時랑 말이야.

“응, 도가시랑 말이야.

「うん、東柏と言う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ありません.

그렇게 대답하면서 야스코는 뺨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껴ㄴ다.

그렇게 對答하면서 야스코는 뺨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야스코는 뺨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そう答えながら、ヤスコは頬がそっと固まるのを感じた.

그 후 구도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ㄴ다.

그 後 構圖는 自身の 近況에 對해 이야기했다.

그 후 구도는 자신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その後、構図は自分の近況について話した。

불경기이기 ㄴ 하지만 회사는 그럭저럭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ㄴ다。

不景氣이긴 하지만 會社は 그럭저럭 實績을 維持하고 있다고 했다。

불경기이긴 하지만 회사는 그럭저럭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不景氣ではあるが、会社はとても実績を維持しているという。

가정과 관련되 ㄴ 이야기는 아들에 관하 ㄴ 일 외에는 하지 않아ㄴ다。

家庭과 關聯된 이야기는 아들에 關한 일 外에는 하지 않았다。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들에 관한 일 외에는 하지 않았다。

家庭に関する話は息子に関する事以外にはしなかった。

그거 ㄴ 예전에도 마찬가지여ㄴ다。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それは以前にも同じだった。

그래서 그와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야스코도 아는 바가 없어ㄴ고 그저 사이

가 나쁘지는 않으 ㄴ 것이라고 짐작하 ㄴ 뿐이어ㄴ다。

그래서 그와 夫人의 關係에 對해서는 야스코도 아는 바가 없었고 그저 사

이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斟酌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와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야스코도 아는 바가 없었고 그저 사이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だから彼と奥さんの関係については、ヤスコも知ることがなく、ただの間が悪くないと推測するだけだった。

바깥에서 남을 잘 배려하는 남자가 대체로 가정에서도 원만하게 지낸다는 것은 야스코가 호스티스 시절 깨달은 사실이다.

바깥에서 男을 잘 配慮하는 男子가 大體로 家庭에서도 圓滿하게 지낸다는 것은 야스코가 호스티스 時節 깨달은 事實이다.

바깥에서 남을 잘 배려하는 남자가 대체로 가정에서도 원만하게 지낸다는 것은 야스코가 호스티스 시절 깨달은 사실이다.

外から他人をよく配慮する男が概して家庭でも円満に過ごすというのは、ヤスコがホスティス時代に悟った事実だ。

찾집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어ㄴ다。

茶々집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찾집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茶屋を出ると雨が降っていた。

“이거 미안하게 돼ㄴ는걸。

“이거 未安하게 됐는걸。

“이거 미안하게 됐는걸。

「これはごめんなさい。

진즉 돌려보내ㄴ더라면 비를 맞지 않아ㄴ으ㄴ데 말이야。

진즉 돌려보냈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진즉 돌려보냈더라면 비를 맞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真即返したら雨が当たらなかったのにね。

구도가 미안하ㄴ 듯 야스코를 보아ㄴ다。

構圖가 未安한 듯 야스코를 보았다。

구도가 미안한 듯 야스코를 보았다。

構図が申し訳ないようにヤスコを見た。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そんなことを言わないでください。

“집이 여기서 머ㄴ가?”

“집이 여기서 먼가?”

“집이 여기서 먼가?”

「家はここで遠い？」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려요.

“自轉車로 10分 程度 걸려요.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려요.

「自轉車で 10 分ほどかかります。

“자전거를 가져와ㅓ어? 이를 어찌지…….

“自轉車を 가져왔어? 이를 어찌지…….

“자전거를 가져왔어? 이를 어찌지…….

「自轉車を持ってきた？これをどうしよう… …。

구도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아ㅓ다.

構圖が眉間を 찌푸리며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도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構図が眉間を鈍く雨が降る空を見上げた。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大丈夫です。

자전거를 가게에 두고 와ㅓ어요.

自轉車を 가게에 두고 왔어요.

자전거를 가게에 두고 왔어요.

自転車をお店に置いてきました。

가방 안에 우산도 있고요.

가방 안에 雨傘도 있고요.

가방 안에 우산도 있고요.

バッグの中に傘もありますよ。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돼요.”

來日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돼요.”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오면 돼요.”

明日の朝に少し早く出ればいいです。」

“그럼 내가 바래다주 ㄴ게.

“그럼 내가 바래다줄게.

“그럼 내가 바래다줄게.

「じゃあ私が欲しい。

“아니예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예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いや、本当に大丈夫です。

그러나 구도는 이미 보도로 나서서 택시를 향해 손을 들고 있어ㄴ다.

그러나 構圖는 이미 報道로 나서서 택시를 向해 손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구도는 이미 보도로 나서서 택시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다.

しかし構図はすでに報道に出てタクシーに向かって手を挙げていた。

“다음번에는 여유 있게 식사라도 해ㄴ으면 좋겠어.

“다음番에는 餘裕 있게 食事라도 했으면 좋겠어.

“다음번에는 여유 있게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어.

「次回はゆっくり食事してもらいたい。

택시를 타자마자 구도가 말해ㄴ다.

택시를 타자마자 構圖가 말했다.

택시를 타자마자 구도가 말했다.

タクシーに乗るとすぐに構図が言った。

“둘이 먹기 뭐하면 딸을 데려와도 좋고.

“둘이 먹기 뭐하면 딸을 데려와도 좋고.

“둘이 먹기 뭐하면 딸을 데려와도 좋고.

「二人が食べるなんて娘を連れてきてもいいし。

“그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는 神經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あの子は気に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근데 구도 씨는 괜찮아요?”

근데 構圖 氏は 괜찮아요?”

근데 구도 씨는 괜찮아요?”

でも構図さんは大丈夫ですか？」

“나 ㄴ 언제라도 좋아。

“난 언제라도 좋아。

“난 언제라도 좋아。

「私はいつでもいい。

요즘은 그다지 바쁘지도 않으니까。

요즘은 그다지 바쁘지도 않으니까。

요즘은 그다지 바쁘지도 않으니까。

最近はあまり忙しくないから。

“알아ㅏ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わかりました。

야스코는 그의 부인에 대해 물으 ㄴ 것이어 ㄴ지만 더는 캐묻지 않아 ㄴ다。

야스코는 그의 夫人에 對해 물은 것이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야스코는 그의 부인에 대해 물은 것이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ヤスコは彼の夫人について尋ねたものでしたが、それ以上キャッチしませんでした。

구도 역시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 ㄴ기 때문이다。

構圖 亦是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구도 역시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構図もそれを知りながら知らないふりをするようだったからだ。

휴대 전화 번호를 묻기에 가르쳐 주어 ㄴ다。

携帶 電話 番號를 묻기에 가르쳐 주었다。

휴대 전화 번호를 묻기에 가르쳐 주었다。

携帯電話番号を聞くことを教えてくれた。

안 가르쳐 주 ㄴ 이유가 없어 ㄴ다。

안 가르쳐 줄 理由가 없었다。

안 가르쳐 줄 理由가 없었다。

教えない理由がなかった。

구도는 연립 주택 바로 앞에서 택시를 세워ㄴ다。

構圖는 聯立 住宅 바로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구도는 연립 주택 바로 앞에서 택시를 세웠다。

構図は連立住宅のすぐ前でタクシーを建てた。

야스코가 안쪽에 타고 있어서 그도 일단 차에서 내려야 해ㄴ다。

야스코가 안쪽에 타고 있어서 그도 一扨 車에서 내려야 했다。

야스코가 안쪽에 타고 있어서 그도 일단 차에서 내려야 했다。

ヤスコが奥に乗っていて、彼も一扨車から降り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젖으니까 빨리 타세요。

“젖으니까 빨리 타세요。

“젖으니까 빨리 타세요。

「濡れるから早く乗ってください。

택시에서 내리ㄴ 야스코가 말해ㄴ다。

택시에서 내린 야스코가 말했다。

택시에서 내린 야스코가 말했다.

タクシーで降りたヤスコが言った。

“그럼 다음에 봐.

“그럼 다음에 봐.

“그럼 다음에 봐.

「じゃあ次に見て。

“네.

“네.

“네.

「はい。

야스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ㄴ다.

야스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야스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ヤスコは軽く首をうなずいた。

택시에 올라타^ㄴ 구도의 눈길이 그녀의 등 뒤쪽에 머물러^ㄴ다.

택시에 올라탄 構圖의 눈길이 그女の 등 뒤쪽에 머물렀다.

택시에 올라탄 구도의 눈길이 그녀의 등 뒤쪽에 머물렀다.

タクシーに乗った構図の目が彼女の背中の中にとどまった。

야스코가 그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니 계단 밑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어ㄴ다。

야스코가 그 視線을 따라 뒤를 돌아보니 階段 밑에서 한 男子가 雨傘을 들고 서 있었다。

야스코가 그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니 계단 밑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ヤスコがその視線に沿って後ろを振り返ると、階段の下で一人の男が傘を持って立っていた。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ㄴ지만 체형으로 보아 이시가미라는 것을 짐작하ㄴ 수 있어ㄴ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體型으로 보아 이시가미라는 것을 斟酌할 수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형으로 보아 이시가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暗くて顔はよく見えなかったが体型で見て石神ということを推測できた。

구도가 눈길을 주ㄴ 것은 이시가미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ㄴ기 때문이ㄴ 것이라고 야스코는 생각해ㄴ다。

構圖가 눈길을 준 것은 이時加味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

이라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구도가 눈길을 준 것은 이시가미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
이라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構図が注目を集めたのは石神が二人を見つめていたからであるとヤスコは考
えた。

“전화하 ㄴ게。

“電話할게。

“전화할게。

「電話します。

그 말을 남기고 구도는 택시를 출발시켜 ㄴ다。

그 말을 남기고 構圖는 택시를 出發시켰다。

그 말을 남기고 구도는 택시를 출발시켰다。

その言葉を残し、構図はタクシーを出発させた。

멀어져 가는 택시의 꼬리등을 야스코는 그 자리에 서 ㄴ 채 바라보아 ㄴ다。

멀어져 가는 택시의 꼬리等を 야스코는 그 자리에 선 채 바라보았다。

멀어져 가는 택시의 꼬리등을 야스코는 그 자리에 선 채 바라보았다。

遠ざかっていくタクシーの尾などを、ヤスコはその場に立ったまま眺めた。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껴 ㄴ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彼女は久しぶりに心がときめくことを感じた。

남자를 만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도대체 얼마 만이냐가 싶어ㄴ다。

男子를 만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都大體 얼마 만인가 싶었다。

남자를 만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도대체 얼마 만인가 싶었다。

男に会って胸がワクワクするのが一体どのくらいかと思った。

집에 돌아와 보니 미사토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ㄴ다。

집에 돌아와 보니 미사토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미사토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家に帰ってみるとミサトはテレビを見ていた。

“오늘 별일 없어ㄴ니?”

“오늘 別일 없었니?”

“오늘 별일 없었니?”

「今日は別にいませんでしたか？」

야스코가 물어ㄴ다。

야스코가 물었다。

야스코가 물었다.

ヤスコが尋ねた。

물론 학교 일을 물으 ㄴ 것이 아니다.

勿論 學校 일을 물은 것이 아니다.

물론 학교 일을 물은 것이 아니다.

もちろん学校の仕事を聞いたことではない。

그거 ㄴ 미사토도 알고 있으 ㄴ 터여 ㅅ 다.

그건 미사토도 알고 있을 터였다.

그건 미사토도 알고 있을 터였다.

それはミサトも知っているはずだった。

“아무 일 없어 ㅅ 어.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

「何もなかった。

미카도 아무 말 없는 거 ㄴ 보면 개한테는 아직 형사가 안 가 ㅅ 나 봐.

미카도 아무 말 없는 걸 보면 개한테는 아직 刑事가 안 갔나 봐.

미카도 아무 말 없는 걸 보면 개한테는 아직 형사가 안 갔나 봐.

ミカも何も言わないのを見れば、あの子はまだ刑事が行っていないよう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そうだね。

그때 그녀의 휴대 전화가 울려썩다。

그때 그女の 携帯 電話가 울렸다。

그때 그녀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その時彼女の携帯電話が鳴った。

액정 화면의 표시가 공중전화에서 온 것이ㅆ을 알려썩다。

液晶 畫面의 表示가 公衆電話에서 온 것임을 알렸다。

액정 화면의 표시가 공중전화에서 온 것임을 알렸다。

液晶画面の表示が公衆電話から来たことを知らせた。

“네, 저예요。

“네, 저예요。

“네, 저예요。

「はい、私です。

“이시가미이 ㅂ니다。

“이時加味입니다。

“이시가미입니다。

「石神です。

예상해 ㅅ던 낮은 목소리가 들려 ㅅ다。

豫想했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예상했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予想した低声が聞こえた。

“오늘은 별일 없어 ㅅ습니까?”

“오늘은 別일 없었습니까?”

“오늘은 별일 없었습니까?”

「今日はあまりいませんでしたか？」

“네, 이렇다 하 ㅂ 일은 없어 ㅅ어요。

“네, 이렇다 할 일은 없었어요。

“네, 이렇다 할 일은 없었어요。

「はい、こう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미사토도 아무 일 없어 ㅅ다고 하고요。

미사토도 아무 일 없었다고 하고요.

미사토도 아무 일 없었다고 하고요.

ミサトも何事もなかったそうです。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放心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しかし、気をつけてはいけません。

경찰이 야스코 씨에 대한 疑심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警察李 야스코 氏에 對한 疑心を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야스코 씨에 대한 疑심을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警察がヤスコさんに対する疑いをまだ捨てていません。

아마 지금쯤 야스코 씨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 ㄴ 거 ㄴ니다。

아마 只今쯤 야스코 氏 周邊을 徹底히 調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야스코 씨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おそらく今ごろ、康子さん周辺を徹底的に調べているはずです。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はい、わかりました。

“그 외에 또 다른 일은요?”

“그 外에 또 다른 일은요?”

“그 외에 또 다른 일은요?”

「他にもう一つのことは？」

“네?”

“네?”

“네?”

「はい？」

야스코는 당황해^ㄴ다.

야스코는 唐慌했다.

야스코는 당황했다.

ヤスコは慌てた。

“그게…… 딱히 이렇다 하 ^ㄴ 일은 없 ^ㄴ 어요。

“그게…… 딱히 이렇다 할 일은 없었어요。

“그게…… 딱히 이렇다 할 일은 없었어요。

「それが… …特にこの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あ、そうですね。

그럼 내일 또。

그럼 來日 또。

그럼 내일 또。

では明日また。

이시가미가 전화를 끊 ^ㄴ 다。

이時加味가 電話를 끊었다。

이시가미가 전화를 끊었다。

石神が電話を切った。

야스코는 찜찜하ㄴ 기분으로 휴대 전화를 내려놓아ㅆ다。

야스코는 찜찜한 氣分으로 携帶 電話機를 내려놓았다。

야스코는 찜찜한 기분으로 휴대 전화를 내려놓았다。

ヤスコは蒸し氣分で携帯電話を降ろした。

이시가미에게서 평소와 달리 낭패하ㄴ 기색이 느껴져ㅆ던 것이다。

이時加味에게서 平素와 달리 狼狽한 氣色이 느껴졌던 것이다。

이시가미에게서 평소와 달리 낭패한 기색이 느껴졌던 것이다。

石神から普段とは違って嵐の氣配が感じられたのだ。

구도를 보아ㅆ기 때문이ㄴ까。

構圖를 보았기 때문일까。

구도를 보았기 때문일까。

構図を見たからだろうか。

야스코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누구이ㄴ지 마음에 걸리ㄴ 것 아니ㄴ
까。

야스코와 親密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누구인지 마음에 걸린 것 아닐
까。

야스코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가 누구인지 마음에 걸린 것 아닐
까。

ヤスコと身近に話を交わした彼が誰なのか気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

그에 대해 궁금하ㄴ 마음이 마지막의 기묘하ㄴ 질문으로 나오지 않아ㄴ으ㄴ
까。

그에 對해 궁금한 마음이 마지막의 奇妙한 質問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마지막의 기묘한 질문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それについて気になる心が最後の奇妙な質問で出てこなかっただろうか。

야스코는 이시가미가 왜 자기네 모녀를 도와주는지 알고 있어ㄴ다。

야스코는 이時加味가 왜 自己네 母女를 도와주는지 알고 있었다。

야스코는 이시가미가 왜 자기네 모녀를 도와주는지 알고 있었다。

ヤスコは石神がなぜ自分の母娘を助けてくれるのか知っていた。

사요코도 말해ㄴ듯이 야스코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ㄴ 것이다。

史요코도 말했듯李 야스코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요코도 말했듯이 야스코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サヨコも言ったように、ヤスコに心があるからだろう。

그런데 만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ㄴ다면 어떻게 나오ㄴ까。

그런데 萬一 그女가 다른 男子와 親密하게 지낸다면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만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지낸다면 어떻게 나올까。

ところで、もし彼女が他の男と親密に過ごしたらどうなるのか。

그러 ㄴ에도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힘이 되어 주 ㄴ까。

그럼에도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힘이 되어 줄까。

그럼에도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힘이 되어 줄까。

それでも今までと同じように力になってくれるか。

자신들 모녀를 위해 지혜를 짜내어 주 ㄴ까。

自身들 母女를 爲해 智慧를 짜내어 줄까。

자신들 모녀를 위해 지혜를 짜내어 줄까。

自分たちの母女のために知恵を絞ってあげるか。

구도와 만나지 않는 게 좋으 ㄴ지 모르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해 ㄴ다。

構圖와 만나지 않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구도와 만나지 않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構図と出会わない方がいいかわからないとヤスコは考えた。

설령 만나 ㄴ다 하더라도 이시가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 ㄴ다。

設令 만난다 하더라도 이時加味の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이시가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たとえ会うとしても石上の目立ってはいけない。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말하 ㄴ 수 없는 초조감 같으 ㄴ 것이 그녀의 가슴속에 퍼져 나가 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瞬間 말할 수 없는 焦燥感 같은 것이 그녀의 가슴속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초조감 같은 것이 그녀의 가슴속에 퍼져 나갔다。

しかし、そんな思いが浮かぶ瞬間、言えない焦りのようなものが彼女の胸の中に広がっていった。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하 ㄴ 단 말이 ㄴ가。

都大體 언제까지 그래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한단 말인가。

一体いつまでそういえばひとまずなのか。

언제까지 이시가미의 눈을 속여야 하는 것이 ㄴ까。

언제까지 이時加味の 눈을 속여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시가미의 눈을 속여야 하는 것일까。

いつまで石神の目をだ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か。

혹시 사건이 시효를 다하 ㄴ 때까지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 ㄴ까。

或是 事件이 時效를 다할 때까지 다른 男子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혹시 사건이 시효를 다할 때까지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もし事件が時効を尽くすまで他の男と出会えないのではないか。

8

8

8

8

끼익, 끼익, 신발 바닥이 마찰하는 소리가 나^ㅅ다.

끼익, 끼익, 신발 바닥이 摩擦하는 소리가 났다.

끼익, 끼익, 신발 바닥이 마찰하는 소리가 났다.

ねじれ、ねじれ、靴底が摩擦する音がした。

그와 거의 동시에 작으^ㄴ 파열음 같으^ㄴ 소리가 들려^ㅅ다.

그와 거의 同時に 작은 破裂音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와 거의 동시에 작은 파열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彼とほぼ同時に小さな破裂音のような音が聞こえた。

구사나기에게는 그리우^ㄴ 소리여^ㅅ다.

驅使나기에게는 그리운 소리였다.

구사나기에게는 그리운 소리였다.

草薙には懐かしい声だった。

체육관 입구에 서서 내부를 들여다보아^ㅅ다.

體育館 入口에 서서 內部를 들여다보았다.

체육관 입구에 서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ジムの入り口に立って内部を覗いた。

바로 앞에 있는 코트에 라켓을 손에 쥐 ㄴ 유가와가 있어 ㄴ다.

바로 앞에 있는 코트에 라켓을 손에 쥔 有價와가 있었다.

바로 앞에 있는 코트에 라켓을 손에 쥔 유가와가 있었다.

すぐ前にあるコートにラケットを手を取った湯川があった。

허벅지 근육은 학생 시절에 비하면 좀 줄어드 ㄴ 것처럼 보여 ㄴ지만 품은 여전 해 ㄴ다.

허벅지 筋肉은 學生 時節에 比하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품은 如前 했다.

허벅지 근육은 학생 시절에 비하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품은 여전 했다.

太もも筋肉は学生時代に比べると少し減ったように見えたが、フォームは相変わらずだった。

상대는 학생이 ㄴ 듯해 ㄴ다.

相對는 學生인 듯했다.

상대는 학생인 듯했다.

相手は学生らしい。

숨씨가 상당히 노련해서 유가와 의 다소 치사하ㄴ 공격에도 좀처럼 휘돌리지 않는다。

숨씨가 相當히 老鍊해서 有價와의 多少 恥事한 攻撃에도 좀처럼 휘돌리지 않는다。

숨씨가 상당히 노련해서 유가와 의 다소 치사한 공격에도 좀처럼 휘돌리지 않는다。

技量が結構巧みで、ユガとのやや致命的な攻撃にもなかなか振り回さない。

학생이 스매싱을 날려ㄴ다。

學生이 스매싱을 날렸다。

학생이 스매싱을 날렸다。

学生がスマッシングを飛ばした。

유가와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有價와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유가와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湯川がその場に落ち着く。

쓴웃음을 지으며 상대에게 무슨 말이ㄴ가 하ㄴ다。

쓴웃음을 지으며 相對에게 무슨 말인가 한다。

쓴웃음을 지으며 상대에게 무슨 말인가 한다。

苦笑をして相手に何を言うのか。

그러던 그의 눈이 구사나기를 포착해냈다。

그러던 그의 눈이 驅使나기를 捕捉했다。

그러던 그의 눈이 구사나기를 포착했다。

そんな彼の目が駆け抜けを捉えた。

그는 학생에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 后 라켓을 쥐 채 다가와 ㄴ다。

그는 學生에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한 後 라켓을 쥔 채 다가왔다。

그는 학생에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한 후 라켓을 쥔 채 다가왔다。

彼は学生に一、二言言をした後、ラケットを握ったまま近づいてきた。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どうしたの？」

“거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거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거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じゃあ、そう言ってはいけない。

자네가 전화하ㄴ 거ㄴ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와 보ㄴ 거ㄴ데。

자네가 電話한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와 본 건데。

자네가 전화한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와 본 건데。

お前が電話したのを見て何があったかと思って来たの。

구사나기의 휴대 전화 착신 기록에 유가와와 번호가 남아 있어ㄴ던 것이다。

驅使나기의 携帯 電話 着信 記録에 有價와의 番號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구사나기의 휴대 전화 착신 기록에 유가와와 번호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草薙の携帯電話着信記録に湯川の番号が残っていたのだ。

“아아, 그래ㄴ어? 별일 아니라서 메시지도 안 남겨ㄴ는데。

“아아, 그랬어? 別일 아니라서 메시지도 안 남겼는데。

“아아, 그랬어? 별일 아니라서 메시지도 안 남겼는데。

「ああ、そうでしたか？別日じゃなくてメッセージも残さなかったのに。

휴대 전화 전원이 꺼져 있기에 많이 바쁘ㄴ가 보다 하고 말이지。

携帯 電話 全員이 꺼져 있기에 많이 바쁘가 보다 하고 말이지。

휴대 전화 전원이 꺼져 있기에 많이 바쁘가 보다 하고 말이지。

携帯電話の電源が切れているのでたくさん忙しいかと言うな。

“그때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

“그때는 映畫를 보고 있었어.

“그때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

「その時は映画を見ていた。

“영화를? 근무 중에 말이야? 팔자 한번 줄군.

“映畫를? 勤務 中에 말이야? 八字 한番 줄군.

“영화를? 근무 중에 말이야? 팔자 한번 줄군.

「映画を?勤務中ですか?売ろう一度いいね。

“그게 아니라, 지난번 그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가 ㄴ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番 그 알리바이를 確認하러 간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 그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간 거야.

「それじゃなくて、前回そのアリバイを確認に行ったんだ。

일단 어떤 영화이 ㄴ지 봐 두려고.

一 旦 어떤 映畫인지 봐 두려고.

일단 어떤 영화인지 봐 두려고.

いったんどんな映画なのか見ておこう。

그래야 용의자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 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 容疑者が 하는 말에 信憑性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래야 용의자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

それで容疑者が言う言葉に信憑性がある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か？」

“어쨌든 좋은 직업이야。

“어쨌든 좋은 職業이야。

“어쨌든 좋은 직업이야。

「とにかく良い仕事だ。

“이 때문에 보는 거 데 즐거우 게 뭐가 있어? 별일 아니 줄 알아 으면

오지 마 게 그래 네。

“일 때문에 보는 건데 즐거울 게 뭐가 있어? 別일 아닌 줄 알았 으면 오지

말 걸 그랬네。

“일 때문에 보는 건데 즐거울 게 뭐가 있어? 별일 아닌 줄 알았 으면 오지

말 걸 그랬네。

「仕事のために見るのは楽しいことが何ですか？あまり変わらないと思って

いたら来ないようにした。

연구실에 전화해 님니 체육관에 있다고 하더라고。

研究室に 電話했더니 體育館에 있다고 하더라고。

연구실에 전화했더니 체육관에 있다고 하더라고。

研究室に電話したら体育館にいたと言った。

“어쨌든 이왕 와ㄴ으니 밥이라도 같이 먹지。

“어쨌든 已往 왔으니 밥이라도 같이 먹지。

“어쨌든 이왕 왔으니 밥이라도 같이 먹지。

「とにかく異王来たからご飯でも一緒に食べない。

사실 불일이 좀 있기도 하고。

事實 불일이 좀 있기도 하고。

사실 불일이 좀 있기도 하고。

実は見事が少しあったりして。

유가와는 출입구로 가서 벗어 두 ㄴ 구두로 갈아 신어ㄴ다。

有價와는 出入口로 가서 벗어 둔 구두로 갈아 신었다。

유가와는 출입구로 가서 벗어 둔 구두로 갈아 신었다。

湯川は出入口に行って脱いだ靴に履き替えた。

“대체 무슨 용건이 ㄴ데 그래?”

“代替 무슨 用件인데 그래?”

“대체 무슨 용건인데 그래?”

「一体どんな用件なのにそう？」

“그 건이야。

“그 件이야。

“그 건이야。

「そのことだ。

걸으면서 유가와가 말해ㄴ다。

걸으면서 有價와假 말했다。

걸으면서 유가와가 말했다。

歩きながら湯川が言った。

“그 건이라니?”

“그 件이라니?”

“그 건이라니?”

「そのことって？」

그 질문에 유가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구사나기 쪽으로 라켓을 불쑥 내밀어
ㄴ다。

그 質問에 有價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驅使나기 쪽으로 라켓을 불쑥 내
밀었다。

그 질문에 유가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구사나기 쪽으로 라켓을 불쑥 내
밀었다。

その質問に湯川が突然止まって立ち上がり、草薙に向かってラケットを突き出した。

“영화관 거 L 말이야。

“映畫館 건 말이야。

“영화관 건 말이야。

「映画館ってことだよ。

두 사람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선술집으로 들어가ㄴ다。

두 사람은 學校 바로 앞에 있는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二人は学校のすぐ前にある居酒屋に入った。

구사나기가 학생이 ㄴ 때는 없ㄴ 집이다。

驅使나기가 學生일 때는 없었던 집이다。

구사나기가 학생일 때는 없었던 집이다。

草薙が学生の時 wasn't 家だ。

두 사람은 맨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ㄴ다。

두 사람은 맨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맨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二人は一番隅のテーブルに座った。

“용의자가 영화관에 가ㅅ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사건 발생 당일인 이번 달 10일이야。

“容疑者が映画館にㅅ었다고主張하는 날짜가 事件 發生 當日인 이번 달 10 日이야。

“용의자가 영화관에 ㅅ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사건 발생 당일인 이번 달 10일이야。

「容疑者が映画館に行ったと主張する日付が事件発生当日である今月 10 日だ。

그리고 용의자의 딸이 그 사실을 12일에 동급생에게 얘기해ㅅ어。

그리고 容疑者の 딸이 그 事實을 12 日에 同級生에게 얘기했어。

그리고 용의자의 딸이 그 사실을 12일에 동급생에게 얘기했어。

そして容疑者の娘がその事実を 12 日に同級生に話した。

유가와와 잔에 맥주를 따르면서 구사나기가 말해ㅅ다。

有價와와 盞에 麥酒를 따르면서 驅使나기가 말했다。

유가와와 잔에 맥주를 따르면서 구사나기가 말했다。

湯川のグラスにビールを追いかけて草薙が言った。

“조금 전에 그거 ㄴ 확인하고 와ㅏ지.

“조금 前に 그걸 確認하고 왔지.

“조금 전에 그걸 확인하고 왔지.

「少し前にそれを確認してきた。

영화를 보ㄴ 거ㄴ 그 준비 작업이어ㅏ고.

映畫를 본 건 그 準備 作業이었고.

영화를 본 건 그 준비 작업이었고.

映画を見たのはその準備作業だったし。

“그래그래, 그거 ㄴ 알겠고, 그래서 동급생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ㄴ 결과는?”

“그래그래, 그건 알겠고, 그래서 同級生에게 이야기를 들어 본 結果는?”

“그래그래, 그건 알겠고, 그래서 동급생에게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는?”

「ええ、それはわかりました、それで同級生に話を聞いた結果は？」

“그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그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그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

「それが… …何と言うのが大変。

그 친구 말로는 부자연스러우ㄴ 점은 없어ㅏ다고 하더군.

그 親舊 말로는 不自然스러운 點은 없었다고 하더군。

그 친구 말로는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하더군。

その友人の言葉では不自然な点はなかったと言った。

동급생 이름은 우에노 미카여ㄴ다。

同級生 이름은 우에노 미카였다。

동급생 이름은 우에노 미카였다。

同級生の名前は上野美香だった。

미카는 분명 12일에 하나오카 미사토로부터 엄마와 영화를 봐ㄴ다는 얘기를
들어ㄴ다고 하ㄴ다。

미카는 分明 12 日에 河나오카 미사吐露부터 엄마와 映畵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미카는 분명 12일에 하나오카 미사토로부터 엄마와 영화를 봤다는 얘
기를 들었다고 한다。

ミカは明らかに 12 日に花岡ミサトからママと映画を見たという話を聞いた
という。

그 영화는 미카도 보ㄴ 것이라 둘이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워ㄴ다는 것이다。

그 映畵는 미카도 본 것이라 둘이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그 영화는 미카도 본 것이라 둘이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その映画はミカも見たもので、二人が楽しく話花を咲かせたということだ。

“사건 이틀 후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걸。

“事件 이틀 後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걸。

“사건 이틀 후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걸。

「事件二日後というのが気になるのを。

유가와가 말해ㄴ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まさにそれだ。

같은 영화를 보 친구와 영화 얘기를 나누고 싶어ㄴ다면 대개는 다음 날 바

로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봐ㄴ어。

같은 映畵를 본 親舊와 映畵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면 大概是 다음 날 바로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같은 영화를 본 친구와 영화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면 대개는 다음 날 바로 얘기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同じ映画を見た友達と映画の話を交わしたいとしたら、通常は翌日すぐに話
しませんか？だから私はこのように考えてみました。

실제로 영화를 보 ㄴ 거 ㄴ 11일이 아니 ㄴ 까 하고 말이야.

實際로 映畫를 본 건 11일이 아닐까 하고 말이야.

실제로 영화를 본 건 11일이 아닐까 하고 말이야.

実際に映画を見たのは11日ではないかと言う。

“그러 ㄴ 가능성이 있어?”

“그럴 可能性이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そんな可能性がある？」

“없다고 단정하 ㄴ 수는 없어.

“없다고 斷定할 수는 없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ないと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

용의자의 퇴근 시각이 여섯 시이고, 딸도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곧바로 돌아
오면 일곱 시 상영 시간에 맞추 ㄴ 수 있으니까.

容疑者の退勤時刻이 여섯 時이고, 딸도 배드민턴 練習을 마치고 곧바로

돌아오면 일곱 時 上映 時間에 맞출 수 있으니까。

용의자의 퇴근 시각이 여섯 시이고, 딸도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곧바로

돌아오면 일곱 시 상영 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까。

容疑者の退勤時刻が 6 時で、娘もバドミントンの練習を終えてすぐに戻れば

七時上映時間に合わせられるから。

실제로도 10일에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實際로도 10 日에 그런 式으로 映畫를 봤다고 主張하고 있어。

실제로도 10일에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實際にも 10 日にそんな風に映画を見たと言張している。

“배드민턴? 딸이 배드민턴부야?”

“배드민턴? 딸이 배드민턴附야?”

“배드민턴? 딸이 배드민턴부야?”

「バドミントン? 娘はバドミントン部ですか?」

“응。

“응。

“응。

「うん。

처음 찾아가ㄴ으ㄴ 때 라켓이 놓여 있어서 알아ㄴ어。

처음 찾아가ㅆ을 때 라켓이 놓여 있어서 알았어。

처음 찾아가ㅆ을 때 라켓이 놓여 있어서 알았어。

初めて訪れたときにラケットが置いてあってわかった。

맞아, 그 배드민턴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려。

맞아, 그 배드민턴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려。

맞아, 그 배드민턴이라는 것도 마음에 걸려。

そう、そのバドミントンというのも気になって。

자네도 잘 알다시피 그게 꽤 격렬하ㄴ 운동이잖아。

자네도 잘 알다시피 그게 꽤 激烈한 運動이잖아。

자네도 잘 알다시피 그게 꽤 격렬한 운동이잖아。

君もよく分かるようにそれがかなり激しい運動じゃない。

연습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녹초가 되ㄴ 테ㄴ데 말이야。

練習을 하고 나면 疲困해서 녹초가 될 텐데 말이야。

연습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녹초가 될 텐데 말이야。

練習をしたら疲れて緑草になるのにね。

“자네처럼 요령을 피우면 얘기가 다르지。

“자네처럼 要領을 피우면 얘기가 다르지。

“자네처럼 요령을 피우면 얘기가 다르지。

「君のようにコツを吸うと話が違う。

어묵탕에 드 ㄴ 곤약에 겨자를 바르며 유가와가 말해 ㄴ다。

魚묵湯에 든 菰蔞에 겨자를 바르며 有價와假 말했다。

어묵탕에 든 곤약에 겨자를 바르며 유가와가 말했다。

魚墨湯に入ったこんにゃくにマスタードを塗り、湯川が言った。

“말 좀 자르지 마。

“말 좀 자르지 마。

“말 좀 자르지 마。

「言葉を切らないでください。

요컨대 내가 하고 싶으 ㄴ 말은……。

要컨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컨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要するに、私がやりたいことは… … 。

“배드민턴 연습으로 녹초가 되 ㄴ 여중생이 영화를 보 ㄴ 거 ㄴ 그렇다 쳐도 밤늦

도록 노래방에서 노래까지 불러 ㄴ다는 거 ㄴ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겠지。

“배드민턴 練習으로 녹초가 된 女中生이 映畵를 본 건 그렇다 쳐도 밤늦도록 노래房에서 노래까지 불렀다는 건 不自然스럽다 이 말이겠지.

“배드민턴 연습으로 녹초가 된 여중생이 영화를 본 건 그렇다 쳐도 밤늦도록 노래방에서 노래까지 불렀다는 건 부자연스럽다 이 말이겠지.

「バドミントンの練習で緑草になった女子中学生が映画を見たのは、それでも夜遅くなるようにカラオケから歌まで歌ったというのは不自然だ。

구사나기는 놀라 ㄴ 눈으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아 ㅅ 다。

驅使나기는 놀란 눈으로 親舊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놀란 눈으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草薙は驚いた目で友人の顔を眺めた。

유가와와 말 그대로여 ㅅ 다。

有價와와 말 그대로였다。

유가와와 말 그대로였다。

湯川の文字通りだった。

“그렇지만 덮어놓고 부자연스럽다고 하 ㄴ 수는 없어。

“그렇지만 덮어놓고 不自然스럽다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덮어놓고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어。

「でも覆っておいて不自然だとは言えない。

체력이 좋은 아이일 수도 있잖아.

體力が 좋은 아이일 수도 있잖아.

체력이 좋은 아이일 수도 있잖아.

体力の良い子かもしれません。

“말라서 체력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

“말라서 體力が 別に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

“말라서 체력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

「乾いて体力があまり良く見えなかったのに。

“그날은 연습이 고되지 않아ㄴ지도 몰라.

“그날은 練習이 고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날은 연습이 고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その日は練習が告げられ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게다가 10일 밤에 노래방에 가ㄴ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돼ㄴ고.

게다가 10日 밤에 노래房에 갔다는 事實은 이미 確認됐고.

게다가 10일 밤에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고.

しかも 10日夜にカラオケに行ったという事實はすでに確認されている。

“그야 그렇지.

“그야 그렇지.

“그야 그렇지.

「そうだ。

“노래방에 들어가 ㄴ 시각이 언제지?”

“노래房에 들어간 時刻이 언제지?”

“노래방에 들어간 시각이 언제지?”

「カラオケに入った時刻はいつですか？」

“아홉 시 사십 분.

“아홉 時 四十 分。

“아홉 시 사십 분.

「9 時 40 分。

“도시락 가게의 퇴근 시각이 여섯 시라고 해 ㄴ지? 범행 현장은 시노자키니까,

왕복 시간을 빼면 범행에 사용하 ㄴ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남짓 되는군.

“도시락 가게의 退勤 時刻이 여섯 時라고 했지? 犯行 現場은 市老子키니

까, 往復 時間을 빼면 犯行에 使用할 수 있는 時間이 두 時間 남짓 되는

군.

“도시락 가게의 퇴근 시각이 여섯 시라고 했지? 범행 현장은 시노자키니

까, 왕복 시간을 빼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남짓 되는

군.

「お弁当屋の退勤時刻が六時だったんだ？犯行現場は篠崎だから、往復時間を除けば犯行に使える時間が二時間余りになるね。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는데。

뭐, 不可能하지는 않겠는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는데。

まあ、不可能ではないのに。

유가와는 나무젓가락을 드는 채 팔짱을 끼어왔다。

有價와는 나무젓가락을 든 채 팔짱을 끼었다。

유가와는 나무젓가락을 든 채 팔짱을 끼었다。

湯川は木箸を持ったまま腕を組ん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사나기는 자신이 용의자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유가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아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驅使나기는 自身이 容疑者が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다는 事實을 有價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記憶을 더듬어 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사나기는 자신이 용의자가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유가와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その姿を眺めながら、草薙は自分が容疑者が弁当屋で働くという事実を湯川に語ったことがあるのか記憶をたどってみた。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거야? 자네가 수사의
진척 상황을 알려 달라고 하다니 참 별일도 다 보겠군.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番 事件에 興味를 가지게 된 거야? 자네가 捜
査의 進捗 狀況을 알려 달라고 하다니 참 別일도 다 보겠군.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거야? 자네가 수
사의 진척 상황을 알려 달라고 하다니 참 별일도 다 보겠군.

「いや、なぜ突然今回の出来事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君が捜査の進
捗状況を知らせてもらうなんて、本当に別日もみんな見てね。

“흥미를 가져ㄴ다고 하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에 걸리ㄴ 단 말이야.

“興味를 가졌다고 할 程度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흥미를 가졌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興味を持ったと言うほどではないが、なんだか気になったということだ。

철벽의 알리바이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흥미롭고 말이지.

鐵壁의 알리바이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興味롭고 말이지.

철벽의 알리바이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도 흥미롭고 말이지.

鉄壁のアリバイやなんと、そんな話も面白くてね。

“철벽이라기보다, 확인하기 힘드ㄴ 알리바이라 난처하다 이 말이지.

“鐵壁이라기보다, 確認하기 힘든 알리바이라 難處하다 이 말이지.

“철벽이라기보다, 확인하기 힘든 알리바이라 난처하다 이 말이지.

「鉄壁というより、確認しにくいアリバイに困っているのだ。

“그 용의자는 자네들 말로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사람 아니야?”

“그 容疑者は 자네들 말로 ‘냄새’가 別로 안 나는 사람 아니야?”

“그 용의자는 자네들 말로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사람 아니야?”

「その容疑者は君たちの言葉で「臭い」があまり知らない人ではない？」

“그렇기는 하 ㄴ 데 현재로서는 그녀 말고 달리 의심 가는 인물이 떠오르지 ㄴ 않
아.

“그렇기는 한데 現在로서는 그女 말고 달리 疑心 가는 人物이 떠오르질 않
아.

“그렇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녀 말고 달리 의심 가는 인물이 떠오르질 않
아.

「そうなのに、現在としては彼女ではなく、違う疑いの人物が浮かび上がら
ない。

게다가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나 ㄴ 날 밤에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도 가다니,
너무 딱 맞아떨어지 ㄴ 다는 생각 안 들어?”

게다가 巧롭게도 事件이 일어난 날 밤에 映畵를 보고 노래房에도 가다

니,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 안 들어?”

게다가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도 가다
니,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 안 들어?”

しかも、あいにく事件が起きた日の夜に映画を見てカラオケにも行くなん
て、とてもぴったり合うとは思わない？」

“자네의 기분은 이해하겠지만, 이성적이 ㄴ 판단도 필요해.

“자네의 氣分은 理解하겠지만, 理性的인 判斷도 必要해.

“자네의 기분은 이해하겠지만,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해.

「君の気持ちは理解するだろうが、理性的な判断も必要だ。

알리바이 이외의 부분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으 ㄴ까?”

알리바이 以外の 部分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알리바이 이외의 부분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アリバイ以外の部分に目を向ける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

“그러잖아도 차근차근 파 들어가고 있어.

“그러잖아도 차근차근 파 들어가고 있어.

“그러잖아도 차근차근 파 들어가고 있어.

「そうじゃなくてもじっくり波入ってるよ。

구사나기는 의자에 걸쳐 두 ㄴ 코트 주머니에서 복사 용지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쳐 ㄴ다.

驅使나기는 椅子에 걸쳐 둔 코트 주머니에서 複寫 用地 한 張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구사나기는 의자에 걸쳐 둔 코트 주머니에서 복사 용지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다。

草薙は椅子にかけて置いたコートポケットからコピー用紙1枚を取り出し、
テーブルの上に広げた。

거기에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ㄴ다。

거기에는 한 男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거기에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そこには一人の男の姿が描かれていた。

“뭐야, 이거^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なんだ、これは？」

“피해자가 살아 있으^ㄴ 때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리^ㄴ 거야。

“被害者が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린 거야。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린 거야。

「被害者が生きている時の姿をイラストで描いたんだ。

몇몇 형사가 이걸 들고 시노자키역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어.

몇몇 刑事가 이걸 들고 市老子キ驛 周邊에서 探問 搜查를 벌이고 있어.

몇몇 형사가 이걸 들고 시노자키역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어.

何人かの刑事がこれを持って篠崎駅周辺で探検捜査を行っている。

“아 참, 그러고 보니 옷이 타다 말아썩다고 해썩지? 감색 점퍼에 회색 스웨터와 검정 바지라고 해썩던가? 흔하ㄴ 차림새군.

“아 참, 그러고 보니 옷이 타다 말았다고 했지? 감色 점퍼에 灰色 스웨터와 檢定 바지라고 했던가? 흔한 차림새軍。

“아 참, 그러고 보니 옷이 타다 말았다고 했지? 감색 점퍼에 회색 스웨터와 검정 바지라고 했던가? 흔한 차림새군。

「ああ、そういえば服が乗ってしまったと言ったの？紺色のジャンパーに灰色のセーターと黒のパンツと言われましたか？一般的な服装群。

“그렇지? 이런 남자를 보ㄴ 것 같다는 증언이 너ㄴ 더러 날 정도로 많으ㄴ가 봐。

“그렇지? 이런 男子를 본 것 같다는 證言이 넌더李 날 程度로 많은가 봐。

“그렇지? 이런 남자를 본 것 같다는 증언이 넌더리 날 정도로 많은가 봐。

「そうですか？こんな男を見たようだという証言がほんの少し飛ぶほど多くが見て。

탐문 수사 중이 ㄴ 녀석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 ㅅ다고 하더라고。

探問 捜査 中인 녀석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탐문 수사 중인 녀석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探問捜査中の奴らが両手両足とも聞いたと言った。

“그럼 지금으로서는 무엇 하나 도움이 되 ㄴ 만하 ㄴ 정보가 없다는 말이네。

“그럼 只今으로서는 무엇 하나 도움이 될 만한 情報가 없다는 말이네。

“그럼 지금으로서는 무엇 하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다는 말이네。

「それでは今のところ、何一つ役に立つ情報がないということだね。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そんなことだ、まあ。

역 바로 앞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의 수상하 ㄴ 남자를 봐 ㅅ다는 정보가 있
기 ㄴ 해 ㅅ어。

驛 바로 앞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의 受賞한 男子를 봤다는 情報가 있긴 했
어。

역 바로 앞에서 이와 똑같은 모습의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정보가 있긴
했어。

駅直前でこれと同じ姿の怪しい男を見たという情報があったんだよ。

하릴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 ㄴ 여자 회사원이 목격해 ㄴ대。

하릴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 女子 會社員이 目擊했다。

하릴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 여자 회사원이 목격했다。

やむを得ず呟いているのを女子会社員が目撃した。

이 일러스트를 역에 붙여 두어 ㄴ더니 그거 ㄴ 보고 신고해 ㄴ나 봐。

이 일러스트를 驛에 붙여 두었더니 그걸 보고 申告했나 봐。

이 일러스트를 역에 붙여 두었더니 그걸 보고 신고했나 봐。

このイラストを駅に貼っておいたところ、それを見て報告したみたい。

“거참, 신고 정신 한번 투철하네。

“거참, 申告 精神 一番 透徹하네。

“거참, 신고 정신 한번 투철하네。

「居間、お届け精神一度は徹してね。

그 여자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지 그래 ㄴ어。

그 女子한테 仔細히 좀 물어보지 그랬어。

그 여자한테 자세히 좀 물어보지 그랬어。

あの女に詳しくちょっと聞いてみなかった。

“안 그래도 그렇게 해썻지。

“안 그래도 그렇게 했지。

“안 그래도 그렇게 했지。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이ㄴ 것 같아。

그런데 被害者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피해자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ところが被害者とは違う人らし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どう知ってる？」

“역으ㄴ 역이ㄴ 데, 시노자키역이 아니라 그 전 역인 미즈에역에서 봐썻다는 거
야。

“역은 驛인데, 市老子키驛이 아니라 그 前 役人 미즈에역에서 봤다는 거
야。

“역은 역인데, 시노자키역이 아니라 그 전 역인 미즈에역에서 봤다는 거

야。

「駅は駅なのに、篠崎駅ではなく、その前駅の水前駅で見たというの。

게다가 얼굴도 다른 듯하고。

게다가 얼굴도 다른 듯하고。

게다가 얼굴도 다른 듯하고。

しかも顔も違うようで。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 주자 그것보다는 둥그ㄴ 얼굴이어ㄴ던 것 같다고 하더
군。

被害者の寫眞을 보여 주자 그것보다는 둥근 얼굴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
군。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 주자 그것보다는 둥근 얼굴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
군。

被害者の写真を見せてあげると、それよりは丸い顔だったようだとわれ
た。

“흠, 둥그ㄴ 얼굴이라……。

“흠, 둥근 얼굴이라……。

“흠, 둥근 얼굴이라……。

「うーん、丸い顔だ……」 ……。

“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헛손질의 연속이니까。

“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헛손질의 連續이니까。

“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헛손질의 연속이니까。

「まあ、私たちがすることはそんな枯れの連続だから。

자네들처럼 논리가 통하면 인정되는 세계와는 사정이 다르지。

자네들처럼 論理가 通하면 認定되는 世界와는 事情이 다르지。

자네들처럼 논리가 통하면 인정되는 세계와는 사정이 다르지。

君たちのように論理が通れば認められる世界とは事情が違う。

젓가락으로 감자를 집으며 구사나기가 말해ㄴ다。

젓가락으로 감자를 집으며 驅使나기가 말했다。

젓가락으로 감자를 집으며 구사나기가 말했다。

箸でジャガイモを拾いながら草薙が言った。

그런데 유가와가 아무 반응이 없어ㄴ다。

그런데 有價와가 아무 反應이 없었다。

그런데 유가와가 아무 반응이 없었다。

ところが湯川は何の反応もなかった。

구사나기가 얼굴을 들어 보니 그는 양손을 가볍게 쥐고 허공을 노려보고 있어

ㄴ다。

驅使나기가 얼굴을 들어 보니 그는 兩손을 가볍게 쥐고 虛空을 노려보고 있었다。

구사나기가 얼굴을 들어 보니 그는 양손을 가볍게 쥐고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草薙が顔を聞いてみると、彼は両手を軽く握り、虚空を狙っていた。

이 물리학자가 깊은 생각에 빠지 ㄴ 때면 그런 얼굴을 보이 ㄴ다는 것을 구사나기는 잘 알고 있어 ㄴ다。

이 物理學者가 깊은 생각에 빠질 때면 그런 얼굴을 보인다는 것을 驅使나기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물리학자가 깊은 생각에 빠질 때면 그런 얼굴을 보인다는 것을 구사나기는 잘 알고 있었다。

この物理学者が深い考えに陥る時は、そんな顔を見せるということを驅使はよく知っていた。

잠시 후 유가와와 눈이 서서히 초점을 되찾아 ㄴ다。

暫時 後 有價와와 눈이 徐徐히 焦點을 되찾았다。

잠시 후 유가와와 눈이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다。

しばらくすると、湯川の目が徐々に焦点を取り戻した。

그리고 시선을 구사나기에게로 향해 ㄴ다。

그리고 視線을 驅使나기에게로 向했다.

그리고 시선을 구사나기에게로 향했다.

そして視線を駆け抜けに向かった。

“사체의 얼굴이 문드러져 있어ㄴ다고 해ㄴ던가?”

“史체의 얼굴이 문드러져 있었다고 했던가?”

“사체의 얼굴이 문드러져 있었다고 했던가?”

「死体の顔がふんわりしていたというか？」

“응。

“응。

“응。

「うん。

지문도 타 버려ㄴ고。

地文도 타 버렸고。

지문도 타 버렸고。

指紋も燃えてしまったし。

신원을 감추고 싶어ㄴ던 거지。

伸冤을 감추고 싶었던 거지。

신원을 감추고 싶었던 거지。

身元を隠したかったんだ。

“얼굴을 뭉개는 데 사용하 ㄴ 도구는?”

“얼굴을 뭉개는 데 使用한 道具는?”

“얼굴을 뭉개는 데 사용한 도구는?”

「顔をまとめるのに使った道具は？」

그 질문에 구사나기는 주위에 듣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 ㄴ 다음 테이블 위로 몸을 들이밀어 ㄴ다。

그 質問에 驅使나기는 周圍에 듣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確認한 다음 테이블 위로 몸을 들이밀었다。

그 질문에 구사나기는 주위에 듣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테이블 위로 몸을 들이밀었다。

その質問に駆けつけは、周りに聞いている人がいないことを確認した後、テーブルの上に身を寄せた。

“찾지는 못해 ㄴ지만, 아마 범인은 망치 같으 ㄴ 거 ㄴ 써 ㄴ으 ㄴ 거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犯人은 망치 같은 걸 썼을 거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 범인은 망치 같은 걸 썼을 거야。

「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おそらく犯人はハンマーのようなものを

書いだろう。

그런 거 ㄴ로 얼굴을 여러 번 내리쳐서 뼈를 완전히 부숴 버려 ㅅ어.

그런 걸로 얼굴을 여러 番 내리쳐서 뼈를 完全히 부숴 버렸어.

그런 걸로 얼굴을 여러 번 내리쳐서 뼈를 완전히 부숴 버렸어.

そんなことで顔を何度も下げて骨を完全に壊してしまった。

이랑 턱도 엉망으로 뭉개져서 치과 진료 기록과 대조하 ㄴ 수조차 없게 돼 ㅅ지
뭐야。

이랑 턱도 엉망으로 뭉개져서 齒科 診療 記録과 對照할 수조차 없게 됐지
뭐야。

이랑 턱도 엉망으로 뭉개져서 치과 진료 기록과 대조할 수조차 없게 됐지
뭐야。

とあごもめちゃくちゃにまとめられて歯科診療記録と対照することさえなく
なったんだよ。

“망치란 말이지……。

“망치란 말이지……。

“망치란 말이지……。

「ハンマーとは……」 ……。

유가와가 어묵탕에 드 ㄴ 무를 젓가락으로 찌르며 중얼거려 ㅅ다。

有價와假 魚묵탕에 든 무를 젓가락으로 찌르며 중얼거렸다。

유가와가 어묵탕에 든 무를 젓가락으로 찌르며 중얼거렸다。

湯川が魚墨湯に入った大根を箸で刺して呟いた。

“그게 왜?”

“그게 왜?”

“그게 왜?”

「なぜ？」

구사나기가 물어ㄴ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유가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아ㄴ다。

有價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았다。

유가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았다。

湯川は箸を下ろしてテーブルの上に肘を載せた。

“만일 도시락 가게 여자가 범인이라면 그날 어떤 행동을 취해ㄴ으ㄴ 것 같아?”

영화관에 가ㄴ었다는 거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萬一 도시락 가게 女子가 犯人이라면 그날 어떤 行動을 取했을 것 같아?

映畫館에 갔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만일 도시락 가게 여자가 범인이라면 그날 어떤 行動을 취했을 것 같아?

영화관에 갔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お弁当屋の女性が犯人だったら、その日どんな行動を取ったと思う？映画館に行ったのは嘘だと思う？」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ㄴ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斷定 짓고 있는 건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니야。

「嘘だと断定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그럼 자네가 추리하ㄴ 거ㄴ 한번 말해 봐。

“그럼 자네가 推理한 걸 한番 말해 봐。

“그럼 자네가 추리한 걸 한번 말해 봐。

「じゃああなたが推理したことを一度言ってみて。

유가와는 손짓으로 재촉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잔을 기울여ᄇ다。

有價와는 손짓으로 재촉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盞을 기울였다。

유가와는 손짓으로 재촉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잔을 기울였다。

湯川とは手振りで促し、もう一方の手ではグラスを傾けた。

구사나기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로 입술을 축여쌌다。

驅使나기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로 입술을 축였다。

구사나기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로 입술을 축였다。

草薙は顔を刺して舌で唇を縮めた。

“추리라고 하 ㄴ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推理라고 할 程度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추리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推理というほどではないが、私はこう考えて。

도시락 가게의…… 에잇, 귀찮으니까 A라고 하자。

도시락 가게의…… 에잇, 귀찮으니까 A라고 하자。

도시락 가게의…… 에잇, 귀찮으니까 A라고 하자。

お弁当屋の… …エイト、面倒だから A としよう。

A가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 ㄴ 거 ㄴ 여섯 시 좀 넘어서야。

A가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건 여섯 時 좀 넘어서야。

A가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건 여섯 시 좀 넘어서야。

A が仕事を終えて店を出たのは、6 時ちょっと越えなければ。

거기서 하마마치역까지 걸어가는 데 약 10분。

거기서 하마마치驛까지 걸어가는 데 約 10 分。

거기서 하마마치역까지 걸어가는 데 약 10분。

そこから浜町駅まで徒歩約 10 分。

지하철을 타고 시노자키역까지 가는 데는 약 20분。

地下鐵을 타고 市老子키驛까지 가는 데는 約 20 分。

지하철을 타고 시노자키역까지 가는 데는 약 20분。

地下鉄に乗って篠崎駅までは約 20 分。

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면 일곱 시에는 현장이 〓 구 에도강 근처에 도착하 ㄴ
수 있어。

驛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면 일곱 때에는 現場인 區 에渡江 近處에 到着할
수 있어。

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면 일곱 시에는 현장인 구 에도강 근처에 도착할
수 있어。

駅からバスやタクシーに乗れば七時には現場の旧江戸川近くに到着できま
す。

“그 시간에 피해자는?”

“그 時間에 被害者는?”

“그 시간에 피해자는?”

「その時に被害者は？」

“피해자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어ㄴ지。

“被害者도 現場으로 向하고 있었지。

“피해자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지。

「被害者も現場に向かっていた。

아마 A와 만나기로 약속해ㄴ으ㄴ 거야。

아마 A와 만나기로 約束했을 거야。

아마 A와 만나기로 약속했을 거야。

おそらく A と会うことを約束したでしょう。

단, 피해자는 시노자키역에서 자전거를 타ㄴ어。

但, 被害者は 市老子キ驛에서 自轉車を 탔어。

단, 피해자는 시노자키역에서 자전거를 탔어。

ただし、被害者は篠崎駅で自轉車に乗った。

“자전거를 타ㄴ다고?”

“自轉車を 탔다고?”

“자전거를 탔다고?”

「自轉車に乗ったって？」

“그래。

“그래。

“그래。

「ええ。

사체 곁에 자전거가 뒹굴고 있어ㄴ는데 거기서 피해자의 지문까지 발견돼ㄴ거
든。

史체 곁에 自轉車가 뒹굴고 있었는데 거기서 被害者の 地文까지 發見됐거
든。

사체 곁에 자전거가 뒹굴고 있었는데 거기서 피해자의 지문까지 발견됐거
든。

死体のそばに自転車が転がっていたが、そこで被害者の指紋まで発見された
のだ。

“지문은 불에 타ㄴ다고 해ㄴ잖아?”

“地文은 불에 탔다고 했잖아?”

“지문은 불에 탔다고 했잖아?”

「指紋は火に乗ったと言ったでしょ？」

그러자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여ㄴ다。

그러자 驅使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すると草薙が頭をうなずいた。

“그거 ㄴ 사체의 신원이 판명되 ㄴ 후에야 확인하 ㄴ 수 있어 ㄴ어。

“그건 史체의 伸冤이 判明된 後에야 確認할 수 있었어。

“그건 사체의 신원이 판명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어。

「それは死体の身元が判明した後にしか確認できなかった。

피해자가 빌려 쓰던 렌탈 룸에서 채취하 ㄴ 지문과 일치해 ㄴ다는 뜻이야。

被害者が 빌려 쓰던 렌탈 룸에서 採取한 地文과 一致했다는 뜻이야。

피해자가 빌려 쓰던 렌탈 룸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했다는 뜻이야。

被害者が借りたレンタルルームで採取した指紋と一致したという意味だ。

아,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 ㄴ지 알아。

아,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

아,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

ああ、あなたが何を言いたいのか知っています。

그것만으로는 렌탈 룸을 빌리 ㄴ 사람이 자전거를 사용해 ㄴ다는 증명은 되 ㄴ지

언정 그게 사체 본인의 것이라고 단정하 ㄴ 수는 없다는 거겠지。

그것만으로는 렌탈 룸을 빌린 사람이 自轉車を 使用했다는 證明은 될지언

정 그게 사체 本人의 것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는 거겠지.

그것만으로는 렌탈 룸을 빌린 사람이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증명은 될지언

정 그게 사체 본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겠지.

それだけではレンタルルームを借りた人が自転車を使ったという証明はなるかどうか、それが死体本人のものだと断定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

어쩌면 렌탈 룸을 빌린 사람이 범인이고 그자가 자전거를 사용했으^ㄴ지도 모르^ㄴ다고 말이야.

어쩌면 렌탈 룸을 빌린 사람이 犯人이고 그者が 自転車を 使用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어쩌면 렌탈 룸을 빌린 사람이 범인이고 그자가 자전거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たぶんレンタルルームを借りた人が犯人であり、彼が自転車を使ったかもしれないと言う。

그러나 천만에.

그러나 千萬에.

그러나 천만에.

しかし千万に。

방에서 발견하^ㄴ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ㄴ 결과 사체의 머리카락과 합치해^ㄴ어.

房에서 發見한 머리카락을 確認해 본 結果 史체의 머리카락과 合致했어。

방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확인해 본 결과 사체의 머리카락과 합치했어。

部屋で見つけた髪を確認してみた結果、死体の髪と合致した。

내친김에 DNA 감정까지 해ㄴ지。

내친김에 DNA 感情까지 했지。

내친김에 DNA 감정까지 했지。

俺の親しみに DNA 感情までした。

구사나기의 따발총 같은 설명에 유가와는 쓴웃음을 지어ㄴ다。

驅使나기의 따발銃 같은 説明에 有價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구사나기의 따발총 같은 설명에 유가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草薙の摘発銃のような説明に、湯川とは苦笑をした。

“요즘 같은 시대에 경찰이 신원 확인에 실수를 범하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요즘 같은 時代에 警察이 伸冤 確認에 失手を 犯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요즘 같은 시대에 경찰이 신원 확인에 실수를 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最近同じ時代に警察が身元確認にミスを犯すとは思わない。

그보다는 자전거를 사용했^ㅅ다는 사실이 흥미롭군.

그보다는 自転車를 使用했다는 事實이 興味롭군.

그보다는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군.

それよりは自転車を使ったという事実が興味深いな。

피해자가 시노자키역에 자전거를 세워 두어^ㅅ던 거^ㄴ가?”

被害者が 市老子キ驛에 自転車를 세워 두었던 건가?”

피해자가 시노자키역에 자전거를 세워 두었던 건가?”

被害者が篠崎駅に自転車を立てておいたのか？

“아니, 그게 말이지……,”

“아니, 그게 未이지……,”

“아니, 그게 말이지……,”

「いや、それは……」 ... 」

구사나기는 도난 자전거에 얽히^ㄴ 에피소드를 유가와에게 들려주어^ㅅ다.

驅使나기는 盜難 自転車에 얽힌 에피소드를 有價와에게 들려주었다.

구사나기는 도난 자전거에 얽힌 에피소드를 유가와에게 들려주었다.

草薙は盜難自転車にまつわるエピソードを湯川に聞かせた。

유가와가 금테 안경 속에서 눈을 번쩍 떠^ㅅ다.

有價와假 金테 眼鏡 속에서 눈을 번쩍 떴다。

유가와가 금테 안경 속에서 눈을 번쩍 떴다。

湯川が金目メガネの中で目を光らせた。

“그렇다면 피해자는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일부러 역에서 자전거를 훔쳐ㄴ다는
거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被害者は現場으로 가기 爲해 일부러 驛에서 自轉車を 훔쳤다는
거야? 버스나 택시를 利用하지 않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현장으로 가기 위해 일부러 역에서 자전거를 훔쳤다는
거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それでは、被害者は現場に行くためにわざと駅で自転車を盗んだという
の？バスやタクシーを利用せずに？」

“그런 셈이지。

“그런 셈이지。

“그런 셈이지。

「そんなわけだ。

조사하ㄴ 바로는 피해자가 실업 상태여서 돈이 별로 없어ㄴ다더군。

調査한 바로는 被害者が 失業 狀態여서 돈이 別로 없었다더군。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가 실업 상태여서 돈이 별로 없었다더군。

調査したばかりは被害者が失業状態なのでお金があまりなかった。

그러니 버스비도 아까워_ㄴ 거야.

그러니 버스費도 아까웠을 거야.

그러니 버스비도 아까웠을 거야.

だからバス費も惜しかっただろう。

유가와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코로 숨을 길게 내뿜어_ㄴ다.

有價와는 釋然치 않다는 表情으로 팔짱을 끼고 코로 숨을 길게 내뿜었다.

유가와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코로 숨을 길게 내뿜었다.

湯川とは石然じゃないという表情で腕を組んで鼻で息を長く吐き出した。

“어쨌든 알아_ㄴ어.

“어쨌든 알았어.

“어쨌든 알았어.

「とにかくわかった。

그렇게 해서 A와 피해자가 현장에서 만나_ㄴ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A와 被害者が 現場에서 만났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A와 피해자가 현장에서 만났다 이거지.

そうして A と被害者が現場で会ったのだ。

계속해 봐.

繼續해 봐。

계속해 봐。

続けてみてください。

“만나자고 약속을 해_ㅅ지만 A는 어디_ㄴ가에 숨어 있어_ㅅ으_ㄴ 거야。

“만나자고 約束을 했지만 A는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거야。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만 A는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거야。

「会おうと約束をしたが、Aはどこかに隠れていたはずだ。

그리고 피해자가 나타나자 뒤에서 살금살금 접근해서는 손에 쥐고 있던 끈을 피해자의 목에 건 다음 있는 힘을 다해 조르_ㄴ 거지。

그리고 被害者が 나타나자 뒤에서 살금살금 接近해서는 손에 쥐고 있던 끈을 被害者の 목에 건 다음 있는 힘을 다해 조른 거지。

그리고 피해자가 나타나자 뒤에서 살금살금 접근해서는 손에 쥐고 있던 끈을 피해자의 목에 건 다음 있는 힘을 다해 조른 거지。

そして、被害者が現れた後、後から殺すように接近しては、手に握っていた紐を被害者の首にかけた次の力を尽くし、干したのだ。

“잠깐!”

“잠깐!”

“잠깐!”

「ちょっと！」

유가와가 한 손을 펼쳐 들어왔다.

有價와가 한 손을 펼쳐 들었다.

유가와가 한 손을 펼쳐 들었다.

湯川が片手を広げた。

“피해자의 신장은?”

“被害者の身長は?”

“피해자의 신장은?”

「被害者の身長は？」

“170센티미터 조금 넘어.

“170센티미터 조금 넘어.

“170센티미터 조금 넘어.

「170センチメートル少し以上。

구사나기는 혀를 차고 싶으나 기분을 억누르고 대답해왔다.

驅使나기는 혀를 차고 싶은 氣分을 억누르고 對答했다.

구사나기는 혀를 차고 싶은 기분을 억누르고 대답했다.

草薙は舌を蹴りたい気持ちを抑えて答えた。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때문이어왔다.

有價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湯川が何を言おうとするのか分かるからだった。

“A는?”

“A는?”

“A는?”

「A は？」

“160센티미터 정도。

“160센티미터 程度。

“160센티미터 정도。

「160 センチメートルほど。

“10센티미터 넘게 차이 나는군。

“10센티미터 넘게 差異 나는軍。

“10센티미터 넘게 차이 나는군。

「10 センチメートル以上差があるね。

유가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빙긋 웃어ᄂ다。

有價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빙긋 웃었다。

유가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빙긋 웃었다.

湯川は手で顎を壊してぐるぐる笑った。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私が何を言いたいのか知っていますか？」

“물론 자기보다 키가 크ㄴ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는 힘드ㄴ지.

“勿論 自己보다 키가 큰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는 힘들지.

“물론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목 졸라 죽이기는 힘들지.

「もちろん、自分より背の高い人を首を絞めて殺すのは大変だ。

목에 남으ㄴ 흔적의 각도로 봐도 위에서 잡아당기듯이 목을 조르ㄴ 거ㄴ 분명
해。

목에 남은 痕跡의 角度로 봐도 위에서 잡아당기듯이 목을 조른 건 分明
해。

목에 남은 흔적의 각도로 봐도 위에서 잡아당기듯이 목을 조른 건 분명
해。

首に残った痕跡の角度で見ても上から引っ張るように首を締めたのは明らか。
か。

하지만 피해자가 앉아 있었으 ㄴ 수도 있잖아。

하지만 被害者が 앉아 있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피해자가 앉아 있었을 수도 있잖아。

しかし、被害者が座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

자전거에 걸터앉으 ㄴ 상태여 ㄴ는지도 모르지。

自轉車에 걸터앉은 狀態였는지도 모르지。

자전거에 걸터앉은 상태였는지도 모르지。

自轉車に座った状態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

“그렇듯하 ㄴ 궤변이로군。

“그렇듯한 詭辯이로군。

“그렇듯한 궤변이로군。

「もっともらしい軌道だ。

“궤변이 아니야。

“詭辯이 아니야。

“궤변이 아니야。

「軌道ではありません。

구사나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려 ㄴ다。

驅使나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구사나기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草薙は拳でテーブルを叩いた。

“그리고 나서는?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해 오 ㄴ 망치로 얼굴을 깨부수고, 라이터로 지문을 태우 ㄴ 다음 옷에 불을 붙이고 현장에서 도망쳐 ㄴ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는? 옷을 벗기고, 미리 準備해 온 망치로 얼굴을 깨부수고, 라이터로 地文을 태운 다음 옷에 불을 붙이고 現場에서 逃亡했다,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는?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얼굴을 깨부수고, 라이터로 지문을 태운 다음 옷에 불을 붙이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런 거야?”

「それから? 服を脱いで、あらかじめ準備してきたハンマーで顔を破り、ライターで指紋を燃やした後、服に火をつけて現場から逃げた、そんなの?」

“기 ㄴ 시초에 아홉 시까지 도착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으 ㄴ 거야.

“긴市草에 아홉 時까지 到着하는 게 不可能하지는 않을 거야.

“긴시초에 아홉 시까지 도착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야.

「錦糸町に 9 時まで到着するのは不可能ではない。

“시간적으로는 그럴겠지.

“時間적으로는 그럴겠지.

“시간적으로는 그럴겠지.

「時間的にはそうだろう。

하지만 그 추리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하지만 그 推理는 相當히 무리가 있어.

하지만 그 추리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だがその推理は結構無理がある。

설마 수사본부 사람들이 모두 자네의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거ㄴ 아니겠지?”

설마 捜査本部 사람들이 모두 자네의 그런 생각에 同調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수사본부 사람들이 모두 자네의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건 아니겠지?”

まさか捜査本部の人々が皆君のそのような考えに同調するわけではないだろう？

구사나기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맥주를 들이켜ㄴ다。

驅使나기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麥酒를 들이켰다。

구사나기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맥주를 들이켰다。

草薙は唇を叩きながらビールを吸い込んだ。

그리고 지나가던 종업원에게 맥주를 하ㄴ 잔 더 주문하ㄴ 다음 유가와 쪽으로 고개를 돌려ㄴ다。

그리고 지나가던 従業員에게 麥酒를 한 盞 더 注文한 다음 有價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지나가던 종업원에게 맥주를 한 잔 더 주문한 다음 유가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そして通り過ぎた従業員にビールをもう一杯注文した後、油価格と向かって
首を回した。

“여자로서는 우리가 아니ㄴ가 하는 의견이 많아ㅆ어。

“女子로서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意見이 많았어。

“여자로서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어。

「女としては無理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多かった。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렇겠지。

「そうだね。

아무리 불의의 습격을 받아ㅆ다 해도 남자가 저항하는 경우 교사ㄴ하기는 힘드
ㄴ 테니까。

아무리 不意의 襲撃을 받았다 해도 男子가 抵抗하는 境遇 教師ㄴ하기는 힘
들 테니까。

아무리 불의의 습격을 받았다 해도 남자가 저항하는 경우 교살하기는 힘들 테니까。

いくら不義の襲撃を受けたとしても男が抵抗する場合、殺すのは大変だから。

남자도 분명히 저항해ㄴ으ㄴ 데고。

男子도 分明히 抵抗했을 데고。

남자도 분명히 저항했을 데고。

男も明らかに抵抗しただろうし。

사체 처리도 여자 혼자서는 힘들어。

史체 處理도 女子 혼자서는 힘들어。

사체 처리도 여자 혼자서는 힘들어。

死体処理も女性一人では大変だ。

애석하지만 나도 구사나기 형사의 의견에 찬성하ㄴ 수 없어。

哀惜하지만 나도 驅使나기 刑事의 意見에 賛成할 수 없어。

애석하지만 나도 구사나기 형사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어。

愛情だけど私も草薙刑事の意見に賛成できない。

“자네가 그렇게 말하ㄴ 줄 알아ㄴ어。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あなたがそう言うと思った。

나도 이 추리가 반드시 옳다고 믿는 거 L 아니야.

나도 이 推理가 반드시 옳다고 믿는 건 아니야.

나도 이 추리가 반드시 옳다고 믿는 건 아니야.

私もこの推理が必ずしも正しいと信じるわけではな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하 ㄴ 뿐이지.

여러 可能性 中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いろんな可能性の一つだと思うだけだ。

“마치 그것 말고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마치 그것 말고도 다른 意見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마치 그것 말고도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まるでそれ以外の意見があるという言葉のように聞こえるね。

내친김에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다른 가설도 내놔 봐.

내친김에吝嗇하게 굴지 말고 다른 假說도 내놔 봐.

내친김에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다른 가설도 내놔 봐.

俺の親しみに恥ずかしく屈さず、他の仮説も出してみて。

“젠체하려는 거 ㄴ 아냐.

“젠체하려는 건 아냐.

“젠체하려는 건 아냐.

「じっくり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い。

지금 하 ㄴ 얘기는 사체를 발견하 ㄴ 장소가 곧 범행 현장이라고 가정해 ㄴ으 ㄴ
경우의 가설이야.

只今 한 얘기는 史체를 發見한 場所가 곧 犯行 現場이라고 假定했을 境遇
의 假說이야.

지금 한 얘기는 사체를 발견한 장소가 곧 범행 현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의 가설이야.

今一話は死体を発見した場所がすぐに犯行現場だと仮定した場合の仮説だ。

다른 곳에서 죽이 ㄴ 후 그곳에 가져와서 버려 ㄴ으 ㄴ 가능성도 생각하 ㄴ 수 있
지.

다른 곳에서 죽인 後 그곳에 가져와서 버렸을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지.

다른 곳에서 죽인 후 그곳에 가져와서 버렸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

他の場所で殺した後、そこに持ってきてしまった可能性も考えられない。

수사본부에서는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捜査本部에서는 後者を 支持하는 사람이 많아。

수사본부에서는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捜査本部では後者を支持する人が多い。

A가 범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말이지。

A가 犯人이든 아니든 關係없이 말이지。

A가 범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말이지。

A が犯人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ね。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게 타당하겠지。

“常識적으로 보자면 그게 妥當하겠지。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게 타당하겠지。

「常識的に見ればそれが妥当だろう。

그런데 구사나기 형사는 그쪽을 미는 것 같지는 않군。

그런데 驅使나기 刑事는 그쪽을 미는 것 같지는 않군。

그런데 구사나기 형사는 그쪽을 미는 것 같지는 않군。

ところが草薙刑事はそちらを押すようではないね。

왜지?”

왜지?”

왜지?”

なぜですか？」

“간단해。

“簡單해。

“간단해。

「簡単です。

A가 범인이라면 그거 ㄴ 불가능하다는 거지。

A가 犯人이라면 그건 不可能하다는 거지。

A가 범인이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A が犯人ならそれは不可能だということだ。

그녀는 차가 없으니까。

그女는 車가 없으니까。

그녀는 차가 없으니까。

彼女は車がないから。

아니, 애당초 운전을 못 해。

아니, 애當初 運轉을 못 해。

아니, 애당초 운전을 못 해。

いいえ、当初運転できません。

그래 가지고는 시체를 옮기 ㄴ 방법이 없잖아。

그래 가지고는 屍體를 옮길 方法이 없잖아。

그래 가지고는 시체를 옮길 방법이 없잖아。

そう持っては死体を移す方法がないじゃない。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そうだね。

그 점은 무시하 ㄴ 수 없겠지。

그 點은 無視할 수 없겠지。

그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

その点は無視できないだろう。

“그리고 현장에 남겨지 ㄴ 자전거 말이 ㄴ 데, 그곳을 범행 현장으로 여기도록 유도하려는 위장 공작이라고 생각하 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문을 묻혀 두는 거 ㄴ 의미가 없어。

“그리고 現場에 남겨진 自轉車 末인데, 그곳을 犯行 現場으로 여기도록 誘導하려는 偽裝 工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地文을 묻혀 두는 건 意味가 없어。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자전거 말인데, 그곳을 범행 현장으로 여기도록 유

도하려는 위장 공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문을 묻혀 두는 건 의미가 없어.

「そして現場に残された自転車の言葉なのに、そこを犯行現場にするよう誘導しようとする迷彩工作だと思うかもしれないが、それなら指紋を埋めておくのは意味がない。

시체의 지문을 불태워 버렸으니까。

屍體의 地文을 불태워 버렸으니까。

시체의 지문을 불태워 버렸으니까。

死体の指紋を燃やしてしまったから。

“분명히 그 자전거는 수수께끼야, 여러 가지 의미에서。

“分明히 그 自轉車는 수수께끼야, 여러 가지 意味에서。

“분명히 그 자전거는 수수께끼야, 여러 가지 의미에서。

「明らかに、その自転車は謎だ。いろいろな意味で。

유가와는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탁자 곁머리에서 다섯 손가락을 놀려 다。

有價와는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卓子 곁머리에서 다섯 손가락을 놀렸다。

유가와는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탁자 곁머리에서 다섯 손가락을 놀렸다。

湯川はまるでピアノを弾くかのようにテーブルの頭から 5 本の指をからかった。

그리고 잠시 후 그 움직임을 멈추더니 말했다.

그리고 暫時 後 그 움직임을 멈추더니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움직임을 멈추더니 말했다.

そしてしばらくしてその動きを止めたと言った。

“어쨌든 남자의 범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어쨌든 男子의 犯行이라고 생각하는 便이 옳지 않을까?”

“어쨌든 남자의 범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とにかく男の犯行だと思うほうが正しいのではないか？」

“그것이 수사본부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야.

“그것이 搜查本部 사람들의 主된 意見이야.

“그것이 수사본부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야.

「それが捜査本部の人々の主な意見だ。

그렇지만 A와 무관하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A와 無關하다고 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A와 무관하다고 보는 건 아니야.

でも A とは無関係だと見るのではない。

“A에게 남자 공범이 있다?”

“A에게 男子 共犯이 있다?”

“A에게 남자 공범이 있다?”

「A に男共犯がある？」

“지금 그녀의 주변을 살살이 훑는 중이야.

“只今 그녀의 周邊을 살살이 훑는 中이야.

“지금 그녀의 주변을 살살이 훑는 중이야.

「今、彼女の周りをしっかりと見ている。

전직 호스티스이니 남자관계가 없으 ㄴ 리 없어.

前職 호스티스이니 男子關係가 없을 理 없어.

전직 호스티스이니 남자관계가 없을 리 없어.

元ホスティスだから男関係がないはずない。

“전국의 호스티스가 들으면 화내 ㄴ 만하 ㄴ 발언이 ㄴ 걸.

“全國의 호스티스가 들으면 화낼 만한 發言인걸.

“전국의 호스티스가 들으면 화낼 만한 발언인걸.

「全国のホスティスが聞けば怒るほどの発言なんだ。

유가와는 히죽히죽 웃으며 맥주를 마셔쌌다.

有價와는 히죽히죽 웃으며 麥酒를 마셨다.

유가와는 히죽히죽 웃으며 맥주를 마셨다.

湯川とはヒジヒク笑ってビールを飲んだ。

그러다가 이내 진지하_ㄴ 얼굴로 돌아와쌌다.

그러다가 이내 眞摯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이내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その後、真剣な顔に戻ってきた。

“아까 그 일러스트 좀 보여 줘.

“아까 그 일러스트 좀 보여 줘.

“아까 그 일러스트 좀 보여 줘.

「さっきそのイラストを見せて。

“이거?”

“이거?”

“이거?”

「これ？」

구사나기가 피해자의 모습이 그려지_ㄴ 종이를 건네쌌다.

驅使나기가 被害者の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건넸다.

구사나기가 피해자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건넸다.

草薙が被害者の姿が描かれた紙を渡した。

유가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려ㄴ다.

有價와는 暫時 그것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유가와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湯川はしばらくそれを見下ろして呟いた。

“범인은 왜 시체의 옷을 벗겨ㄴ으ㄴ까?”

“犯人은 왜 屍體의 옷을 벗겼을까?”

“범인은 왜 시체의 옷을 벗겼을까?”

「犯人はなぜ死体の服を脱いだのか？」

“그야 신원을 아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겠지.

“그야 伸冤을 알 수 없도록 하기 爲해서겠지.

“그야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겠지.

「だから身元がわからないようにするためだろう。

얼굴이나 지문을 망가뜨리ㄴ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이야.

얼굴이나 地文을 망가뜨린 것과 같은 理由에서 말이야.

얼굴이나 지문을 망가뜨린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이야.

顔や指紋を壊したのと同じ理由でね。

“그런 이유라면 벗기 ㄴ 옷을 갖고 가는 편이 낫지 않아 ㄴ까? 굳이 태우려다가 다 타지 않고 남는 바람에 이렇게 일러스트까지 그리게 돼 ㄴ잖아.

“그런 理由라면 벗긴 옷을 갖고 가는 便이 낫지 않았을까? 굳이 태우려다가 다 타지 않고 남는 바람에 이렇게 일러스트까지 그리게 됐잖아.

“그런 이유라면 벗긴 옷을 갖고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굳이 태우려다가 다 타지 않고 남는 바람에 이렇게 일러스트까지 그리게 됐잖아.

「そんな理由なら剥がれた服を持って行くほうが良くなかっただろうか? あえて乗せようと乗り切らず残る風にこんなにイラストまで描くことになったじゃないか。

“너무 서두르 ㄴ 거지.

“너무 서두른 거지.

“너무 서두른 거지.

「とても急いだ。

“애당초 옷이나 신발로 신원을 밝혀내 ㄴ 수 있기 ㄴ 한 거 ㄴ가? 지갑이나 면허증 같은 ㄴ 거라면 몰라도 말이야.

“애當初 옷이나 신발로 伸冤을 밝혀낼 수 있긴 한 건가? 紙匣이나 免許證

같은 거라면 몰라도 말이야。

“애당초 옷이나 신발로 신원을 밝혀낼 수 있긴 한 건가? 지갑이나 면허증

같은 거라면 몰라도 말이야。

「そもそも服や靴で身元を明らかにできるのは一件ですか？財布や免許証の
ようなものなら知らなくてもいいよ。

사체의 옷을 벗기는 거 ㄴ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

史체의 옷을 벗기는 건 危險 負擔이 너무 크잖아。

사체의 옷을 벗기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

死体の服を脱ぐのは危険負担が大きすぎる。

범인으로서 1초라도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말이지。

犯人으로서 1秒라도 빨리 逃亡쳐야 하는데 말이지。

범인으로서 1초라도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말이지。

犯人としては1秒でも早く逃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ね。

“대체 하고 싶으 ㄴ 말이 뭐야? 옷을 벗기 ㄴ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 ㄴ가?”

“代替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옷을 벗긴 理由가 따로 있다는 건가?”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옷을 벗긴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건가?”

「何を言いたいのか？」服を脱いだ理由が別にあるということのか？

“단언하 ㄴ 수는 없지만, 만일 그러 ㄴ 만하 ㄴ 이유가 있어 ㄴ다면 그거 ㄴ 알지 못
하는 한 아마도 자네들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 ㄴ 거야。

“斷言할 수는 없지만, 萬一 그럴 만한 理由가 있었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恨 아마도 자네들은 犯人을 밝혀내지 못할 거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걸 알지 못하는
한 아마도 자네들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할 거야。

「断言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もしそんな理由があったら、それを知らない
限り、おそらく君たちは犯人を明らかにできないだろう。

그렇게 말하고 나서 유가와는 일러스트 위에다 손가락으로 크게 의문 부호를
그려 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有價와는 일러스트 위에다 손가락으로 크게 疑問 負號
를 그렸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유가와는 일러스트 위에다 손가락으로 크게 의문 부호
를 그렸다。

そうってから湯川はイラストの上に指で大きく疑問符号を描いた。

기말 시험에서 2학년 3반의 수학 성적은 참담해 ㄴ다。

期末 試験에서 2學年 3半의 數學 成績은 慘澹했다。

기말 시험에서 2학년 3반의 수학 성적은 참담했다。

期末試験で2年生3半の数学成績はひどい。

3반뿐 아니라 2학년 전체의 성적이 나빠^ㅆ다.

3반뿐 아니라 2學年 全體의 成績이 나뻤다。

3반뿐 아니라 2학년 전체의 성적이 나뻤다。

3クラスだけでなく、2年生全体の成績が悪かった。

이시가미는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머리 쓰는 수준이 떨어지^ㄴ다고 느껴^ㅆ다.

이時加味는 해가 갈수록 學生들의 머리 쓰는 水準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이시가미는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머리 쓰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石神は年が経つにつれて学生たちの頭書きのレベルが落ちると感じた。

답안지를 돌려주^ㄴ 후 그는 추가 시험 일정을 발표해^ㅆ다.

答案紙를 돌려준 後 그는 追加 試驗 日程을 發表했다。

답안지를 돌려준 후 그는 추가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答えを返した後、彼は追加の試験スケジュールを発表した。

이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 최저 점수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진급하^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學校에서는 모든 科目에 最低 點數가 定해져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學生은 進級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에 최저 점수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진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この学校では、すべての科目に最低点数が決まっており、そこに及ばない学生は進級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

물론 추가 시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제생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勿論 追加 試験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實際로 落第生이 나오는 境遇는 極히 드물다.

물론 추가 시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제생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もちろん追加試験が何度もあるため、実際に落制生が出る場合はごくまれです。

추가 시험이라는 말에 불만스러 ㄴ 목소리가 터져 나와 ㄴ다.

追加 試験이라는 말에 不滿스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추가 시험이라는 말에 불만스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追加試験という言葉に不満な声が出てきた。

늘 있던 일이라 이시가미도 무시하고 지나가려 해 ㄴ는데, 그를 향해 소리를 높이는 학생이 하나 있어 ㄴ다.

늘 있던 일이라 이時加味도 無視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그를 向해 소리를 높이는 學生이 하나 있었다。

늘 있던 일이라 이시가미도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그를 향해 소리를

높이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いつもあったことで石上も無視して通り過ぎようとしたが、彼に向かって声を上げる学生が一つあった。

“선생님! 입학시험에 수학을 안 보는 대학도 있잖아요.

“先生님! 入學試験에 數學을 안 보는 大學도 있잖아요.

“선생님! 입학시험에 수학을 안 보는 대학도 있잖아요.

「先生！入学試験に数学を見ない大学もあるでしょう。

그런 데 가_ㄴ 사람은 수학 성적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_ㄴ가요?”

그런 데 갈 사람은 數學 成績이야 아무래도 相關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데 갈 사람은 수학 성적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それに行く人は数学の成績だからどうしても構わ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

か？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아_ㄴ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音がする方を眺めた。

모리오카라는 학생이 목덜미를 긁적이며 “안 그래?”라고 주위 학생들에게 동의
를 구하고 있어_ㄴ다.

모리오카라는 學生이 목덜미를 긁적이며 “안 그래?”라고 周圍 學生들에게 同意를 求하고 있었다。

모리오카라는 학생이 목덜미를 긁적이며 “안 그래?”라고 주위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盛岡は生徒が首筋を傷つけて「いない？」と周りの生徒たちに同意を求めていた。

몸집은 작지만 반에서 보스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담임이 아닌 이시가미도 익히 알고 있어ㄴ다。

몸집은 작지만 半에서 보스 役割을 하는 存在라는 事實은 擔任이 아닌 이時加味도 익히 알고 있었다。

몸집은 작지만 반에서 보스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담임이 아닌 이시가미도 익히 알고 있었다。

小柄だが半分でボス役をする存在という事実は担任ではなく石神もよく知っていた。

통학하ㄴ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주의를 받으ㄴ 일도 몇 번이나 있어ㄴ다。

通學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注意를 받은 일도 몇 番이나 있었다。

통학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주의를 받은 일도 몇 번이나 있었다。

通学の際にバイクに乗る風に注意を受けたことも何度もあった。

“모리오카는 그런 대학에 가ㄴ 생각이ㄴ가?”

“모리오카는 그런 大學에 갈 생각인가?”

“모리오카는 그런 대학에 갈 생각인가?”

「盛岡はそんな大学に行くつもりですか？」

이시가미가 물어ㄴ다。

이時加味가 물었다。

이시가미가 물었다。

石神が尋ねた。

“가ㄴ다면 그런 대학이죠。

“간다면 그런 大學이죠。

“간다면 그런 대학이죠。

「行くならそんな大学です。

물론 지금으로서는 대학에 가ㄴ 생각이 없지만, 가ㄴ다 해도 3학년에 올라가면

수학은 선택하지 않으ㄴ 걱정이니까 수학 성적 같으ㄴ 거ㄴ 아무래도 상관없

어요。

勿論 只今으로서는 大學에 갈 생각이 없지만, 간다 해도 3學年に 올라가면

數學은 選擇하지 않을 作定이니까 數學 成績 같은 건 아무래도 相關없어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대학에 갈 생각이 없지만, 간다 해도 3학년에 올라가면 수학은 선택하지 않을 작정이니까 수학 성적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もちろん今としては大学に行くつもりはありませんが、行っても 3 年生に上がれば数学は選ばないつもりだから数学成績のようなのはどうしても構いません。

그리고 선생님도 저희 같은 멍청이들이랑 노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先生님도 저희 같은 멍청이들이랑 노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희 같은 멍청이들이랑 노는 거 힘들잖아요。

そして先生も私たちのような愚か者と遊ぶのが大変でしょう。

그러니까 서로, 뭐라 ㄴ까, 어른스럽게 처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 어른스럽게 處理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 어른스럽게 처리하자는 거죠。

だからお互い、なんとか、大人っぽく処理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

어른스럽게, 라는 말에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려ㅅ다。

어른스럽게, 라는 말에 學生들이 一齊히 웃음을 터뜨렸다。

어른스럽게, 라는 말에 학생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大人っぽく、という言葉に学生たちが一斉に笑いを放った。

이시가미도 쓴웃음을 지어냈다.

이時加味도 쓴웃음을 지었다.

이시가미도 쓴웃음을 지었다.

石神も苦笑をした。

“내가 힘들까 봐 걱정되니까 이번 추가 시험에 통과하도록.

“내가 힘들까 봐 걱정된다면 이番 追加 試験에 通過하도록.

“내가 힘들까 봐 걱정된다면 이번 추가 시험에 통과하도록.

「私が大変だろうかと心配になれば今回の追加試験に合格するように。

범위가 미적분뿐이니까 별것도 아니란 말이지.

範圍가 微積分뿐이니까 別것도 아니란 말이지.

범위가 미적분뿐이니까 별것도 아니란 말이지.

範圍가微積分だけだからあまり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그러자 모리오카가 크게 혀를 차며 책상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다리를 꼬아냈다.

다.

그러자 모리오카가 크게 혀를 차며 冊床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다리를 꼬았다.

다.

그러자 모리오카가 크게 혀를 차며 책상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다리를 꼬았다。

すると盛岡が大きく舌を張って机の横に斜めに足をねじった。

“미적분 같은 게 대체 무슨 소용이람。

“微積分 같은 게 代替 무슨 所用이람。

“미적분 같은 게 대체 무슨 소용이람。

「微積分みたいなのが一体どんな役目だ。

시간 낭비이 ㄹ 뿐이지。

時間 浪費일 뿐이지。

시간 낭비일 뿐이지。

時間の無駄なだけだ。

기말 시험 문제를 풀이하려고 칠판을 향해 돌아서던 이시가미는 모리오카의 말에 뒤를 돌아보아 ㄴ다。

期末 試験 問題を 풀이하려고 漆板을 向해 돌아서던 이時加味는 모리오카의 말에 뒤를 돌아보았다。

기말 시험 문제를 풀이하려고 칠판을 향해 돌아서던 이시가미는 모리오카의 말에 뒤를 돌아보았다。

期末試験問題を解決しようと黒板に向かって回っていた石神は盛岡の言葉に後ろを振り返った。

흘려들으 ㄴ 수 없는 말이어 ㄴ다。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こぼれない言葉だった。

“모리오카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오토바이 레이스를 보 ㄴ 적 있
나?”

“모리오카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오토바이 레이스를 본 적 있
나?”

“모리오카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오토바이 레이스를 본 적 있
나?”

「盛岡はバイクが好きなようだったが、バイクレースを見たことある？」

느닷없는 질문에 모리오카는 당황하 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ㄴ다。

느닷없는 質問에 모리오카는 唐慌한 表情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느닷없는 질문에 모리오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突然の質問に盛岡は慌てた表情で頭をうなずいた。

“오토바이 레이스를 하 ㄴ 때 레이서들으 ㄴ 일정하 ㄴ 속도로 달리지 않는다。

“오토바이 레이스를 할 때 레이서들은 一定한 速度로 달리지 않는다。

“오토바이 레이스를 할 때 레이서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지 않는다。

「オートバイレースをするとき、レーサーは一定の速度で走らない。

지형이나 풍향에 따라서도 속도를 바꾸지만 전략적으로도 끊임없이 속도를 바꾸지。

地形이나 風向에 따라서도 速度를 바꾸지만 戰略적으로도 끊임없이 速度를 바꾸지。

지형이나 풍향에 따라서도 속도를 바꾸지만 전략적으로도 끊임없이 속도를 바꾸지。

地形や風向によっても速度を変えるが戦略的にも絶えず速度を変えない。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어디서 얼마나 가속하_ㄴ지, 그 순간적이_ㄴ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거야。

어디서 速度를 줄이고 어디서 얼마나 加速할지, 그 瞬間적인 判斷이 勝負를 가르는 거야。

어디서 속도를 줄이고 어디서 얼마나 가속할지, 그 순간적인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거야。

どこでスピードを減らしてどこでどれだけ加速するのか、その瞬間的な判断が勝負を分けるのよ。

알아?”

알아?”

알아?”

知ってる？」

“그거_ㄴ 아는데, 그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그건 아는데, 그게 數學이랑 무슨 相關이예요?”

“그건 아는데, 그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それはわかりますが、それは数学と何の関係ですか？」

“그 가속하는 정도가 바로 그 시점에서 속도를 미분하는 거야.

“그 加速하는 程度가 바로 그 時點에서 速度를 微分하는 거야.

“그 가속하는 정도가 바로 그 시점에서 속도를 미분하는 거야.

「その加速する程度がまさにその時点で速度を微分するんだ。

더 나아가 주행 거리라는 거 \perp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도를 적분하 \perp 것이고.

더 나아가 走行 거리라는 건 時時刻刻 變化하는 速度를 積分한 것이고.

더 나아가 주행 거리라는 건 시시각각 변화하는 속도를 적분한 것이고.

さらに、走行距離というのは時々変化する速度を積分したものだ。

레이스에서는 당연히 모든 오토바이가 똑같은 \perp 거리를 달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의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 \perp 포인트지.

레이스에서는 當然히 모든 오토바이가 똑같은 거리를 달리니까 이기기 爲해서는 速度의 微分을 어떻게 하느냐가 重要な 포인트지.

레이스에서는 당연히 모든 오토바이가 똑같은 거리를 달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의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レースでは当然すべてのバイクが同じ距離を走るから勝つためにはスピード

の微分をどうするかが重要なポイントか。

어때, 이래도 미분과 적분이 아무 소용 없어 보이냐?”

어때, 이래도 微分과 積分이 아무 所用 없어 보이냐?”

어때, 이래도 미분과 적분이 아무 소용 없어 보이냐?”

どうして、これでも微分と積分が何の役に立たないようだ？」

이시가미가 하 ㄴ 말이 이해되지 않는지 모리오카가 난감하 ㄴ 표정을 지어 ㄴ
다。

이時加味가 한 말이 理解되지 않는지 모리오카가 難堪한 表情을 지었다。

이시가미가 한 말이 이해되지 않는지 모리오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石神の言葉が理解できないか、盛岡が乱感した表情をした。

“그렇지만 레이서는 미분이니 적분이니 그런 생각을 안 하 ㄴ 데 ㄴ 데요。

“그렇지만 레이서는 微分이니 積分이니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요。

“그렇지만 레이서는 미분이니 적분이니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요。

「でもレーザーは微粉だから積分だからそんな気がしないんですけど。

경험과 감으로 승부하죠。

經驗과 감으로 承訃하죠。

경험과 감으로 승부하죠。

經驗と感覚で勝負します。

“물론 레이서 본인은 그럴겠지.

“勿論 레이서 本人은 그럴겠지.

“물론 레이서 본인은 그럴겠지.

「もちろんレーサー本人はそうだろう.

하지만 레이서를 뒷받침하는 스태프들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레이서를 뒷받침하는 스태프들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레이서를 뒷받침하는 스태프들은 그렇지 않아.

だがレーサーを裏付けるスタッフたちはそうではない.

어디서 어떻게 가속하면 이기 ㄴ 수 있으 ㄴ지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거듭해서 전략을 세우지.

어디서 어떻게 加速하면 이길 수 있을지 綿密히 시뮬레이션을 거듭해서 戰略을 세우지.

어디서 어떻게 가속하면 이길 수 있을지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거듭해서 전략을 세우지.

どこでどのように加速すれば勝てるのか綿密にシミュレーションを重ねて戰略を立てる.

바로 그때 미적분을 사용하는 거야.

바로 그때 微積分을 使用하는 거야.

바로 그때 미적분을 사용하는 거야.

まさにその時微積分を使うんだ。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_ㄴ 수도 있지만, 미적분을 응용하_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本人들은 그런 事實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微積分을 應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使用하는 것만은 分明하다.

본인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적분을 응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私たちはそのような事実をよく知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微積分を応用した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を使うことだけは明らかです。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만 수학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만 數學 工夫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만 수학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じゃあそのソフトウェアを作る人だけが数学勉強をすればいいじゃないですか。

“그러_ㄴ 수도 있겠지만, 모리오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리오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法도 없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리오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

「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盛岡がそんな人にな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法もないだろう。

그러자 모리오카가 몸을 뒤로 한껏 젖히며 말해^ㄴ다。

그러자 모리오카가 몸을 뒤로 限껏 젖히며 말했다。

그러자 모리오카가 몸을 뒤로 한껏 젖히며 말했다。

すると盛岡が体を後ろに存分に濡らして言った。

“제가 그런 사람이 되^ㄴ 리 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理 있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리 있겠어요?”

「私はそのような人になるつもりですか？」

“모리오카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다른 누구^ㄴ가가 그렇게 되^ㄴ지도 몰라。

“모리오카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

“모리오카가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

「盛岡でなくてもここにいる他の誰かがそうなるかもしれない。

그 누구^ㄴ가를 위해서 수학이라는 수업이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를 爲해서 數學이라는 授業이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수학이라는 수업이 있는 것이고。

その誰かのために数学という授業があるのだし。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수학이라는 세계의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數學이라는 世界の 入口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수학이라는 세계의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

私が皆さんに教えるのは、数学という世界の入り口に過ぎません。

하지만 그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 ㄴ 다면 안으로 들어가 ㄴ 수 없겠지。

하지만 그 入口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지。

하지만 그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지。

だが、その入り口がどこにあるのか分からないと中に入ることはいないだろう。

물론 싫은 ㄴ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勿論 싫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물론 싫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もちろん嫌な人は入らなくてもいい。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입구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試験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入口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確認하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입구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야。

私が皆さんに試験を受けるようにするのは、入口がどこにあるのかを知らな
いか確認したいからだ。

말하면서 이시가미는 학생들을 둘러보아^ㅅ다。

말하면서 이時加味는 學生들을 둘러보았다。

말하면서 이시가미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言いながら石神は学生たちを見回した。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數學을 왜 工夫해야 하는가……。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数学をなぜ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

매년 누구^ㄴ가가 그런 질문을 하^ㄴ다。

毎年 누군가가 그런 質問을 한다。

매년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한다。

毎年誰かがそのような質問をする。

그때마다 이시가미는 똑같은 대답을 해 왔다.

그때마다 이時加味는 똑같은 對答을 해 왔다.

그때마다 이시가미는 똑같은 대답을 해 왔다.

その都度石神は同じ答えをしてきた。

이번에는 상대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학생이라 레이스를 예로 드는 것이다.

이番에는 相對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學生이라 레이스를 例로 든 것이다。

이번에는 상대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학생이라 레이스를 예로 든 것이다。

今回は相手がバイクが好きな学生なのでレースを例に挙げたのだ。

작년에는 유지선 지망생에게 음향 공학에 사용되는 수학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昨年에는 유지선 志望生에게 音響 工學에 使用되는 數學에 對해 얘기해 주었다。

작년에는 유지선 지망생에게 음향 공학에 사용되는 수학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昨年はミュージシャン志望生に音響工学に使われる数学について話してくれた。

이시가미에게 그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다。

이時加味에게 그 程度는 어려운 일 아니다。

이시가미에게 그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다。

石神にとって、その程度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어ㄴ다。

授業을 마치고 教務室로 돌아오니 冊床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다。

授業を終えて教室に戻ると、机の上にメモが置かれていた。

휴대 전화 번호와 함께 ‘유가와라는 분이 전화하셔ㄴ습니다。

携帯 電話 番號와 함께 ‘有價와라는 분이 電話하셨습니다。

휴대 전화 번호와 함께 ‘유가와라는 분이 전화하셨습니다。

携帯電話番号とともに「湯川」という方がお電話いただきました。

’라는 메모가 적혀 있어ㄴ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というメモが書かれていた。

동료 수학 교사의 필체여ㄴ다。

同僚 數學 教師의 筆體였다。

동료 수학 교사의 필체였다。

同僚の数学教師の筆者だった。

유가와가 무슨 일로……。

有價와가 무슨 一路……。

유가와가 무슨 일로……。

湯川がどうしたら… … 。

이유도 모르 ㄴ 채 가슴이 술렁대기 시작해 ㅆ 다。

理由도 모른 채 가슴이 술렁대기 始作했다。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理由も知らないまま胸がすっぽり始めた。

휴대 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가 ㅆ 다。

携帯 電話를 들고 複道로 나갔다。

휴대 전화를 들고 복도로 나갔다。

携帯電話を持って廊下に出た。

메모에 적히 ㄴ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 ㄴ 후 상대와 연결돼 ㅆ 다。

메모에 적힌 番號를 누르자 信號音이 한 番 울린 後 相對와 連結됐다。

메모에 적힌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린 후 상대와 연결됐다.

メモに書かれた番号を押すと、ビープ音が一度鳴った後、相手とつながった。

“바쁘ㄴ데 미안하네。

“바쁘데 未安하네。

“바쁘데 미안하네。

「忙しいのにすみません。

유가와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해ㄴ다。

有價와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

유가와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다。

湯川はみんなでそう言った。

“무슨 급하ㄴ 일이라도 있어?”

“무슨 急한 일이라도 있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どんな急なことでもある？」

“응, 급하다면 급하지。

“응, 急하다면 急하지。

“응, 급하다면 급하지.

「うん、急だったら急いで。

오늘, 아니 지금 잠깐 만나 ㄴ 수 있으 ㄴ 까?”

오늘, 아니 只今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아니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今日、いや、今しばらく会えますか？」

“지금은…… 아직 해야 하 ㄴ 일이 좀 남아 ㄴ 어。

“只今は……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았어。

“지금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았어。

「今は… …まだやるべきことが少し残った。

다섯 시 이후에 ㄴ 괜찮으 ㄴ 데。

다섯 時 以後엔 괜찮은데。

다섯 시 이후엔 괜찮은데。

5 時以降は大丈夫なのに。

조금 전 수업이 6교시이니 이미 각 교실에서는 학급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 ㄴ
것이다。

조금 前 授業이 6 校時이니 이미 各 教室에서는 學級 活動이 進行되고 있
을 것이다。

조금 전 수업이 6교시이니 이미 각 교실에서는 학급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少し前の授業が6校時だから、すでに各教室では学級活動が行われているだろう。

이시가미는 담임을 맡지 않았고, 유도장 문단속은 다른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

이시加味는 擔任을 맡지 않았고, 誘導章 門團束은 다른 教師에게 맡길 수 있다。

이시가미는 담임을 맡지 않았고, 유도장 문단속은 다른 교사에게 맡길 수 있다。

石神は担任を引き受けず、柔道場文取締役は他の教師に任せることができる。

“그럼 다섯 시에 정문 앞에서 기다리겠게。

“그럼 다섯 時에 正門 앞에서 기다릴게。

“그럼 다섯 시에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

「じゃあ5時に正門前で待つよ。

어때?”

어때?”

어때?”

どうですか？」

“괜찮기 ㄴ 하 ㄴ 데…… 지금 어디야?”

“괜찮긴 한데…… 只今 어디야?”

“괜찮긴 한데…… 지금 어디야?”

「大丈夫だが……」 ...今どこ？」

“자네 학교 바로 앞。

“자네 學校 바로 앞。

“자네 학교 바로 앞。

「君の学校のすぐ前。

그럼 나중에 봐。

그럼 나중에 봐。

그럼 나중에 봐。

それでは後で見てください。

“알아 ㅅ 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전화를 끊고 나 ㄴ 후에도 이시가미는 휴대 전화를 꼭 쥐고 있어 ㅅ 다。

電話를 끊고 난 後에도 이時加味는 携帶 電話를 꼭 쥐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後에도 이시가미는 휴대 電話를 꼭 쥐고 있었다.

電話を切った後も石神は携帯電話を必ず握っていた。

일부러 학교 앞까지 찾아오 ㄴ 만큼 급하 ㄴ 용건이 대체 무엇이 ㄴ까.

일부러 學校 앞까지 찾아올 만큼 급한 用件이 代替 무엇일까.

일부러 학교 앞까지 찾아올 만큼 급한 용건이 대체 무엇일까.

わざわざ学校前まで訪れるほど急な用件が一体何なのだろうか。

시험지를 채점하 ㄴ 후 돌아가 ㄴ 준비를 마치자 다섯 시가 되어 ㄴ다.

試驗紙를 採點한 後 돌아갈 準備를 마치자 다섯 時가 되었다.

시험지를 채점한 후 돌아갈 준비를 마치자 다섯 시가 되었다.

試験紙を採点した後、帰る準備を終えると五時となった。

교무실을 나서 ㄴ 이시가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해 ㄴ다.

教務室을 나선 이時加味는 運動場을 가로질러 正門으로 向했다.

교무실을 나선 이시가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다.

教務室を出た石神は運動場を横切って正門に向かった。

정문 앞 횡단보도 옆에 검정 코트를 걸치 ㄴ 유가와가 서 있어 ㄴ다.

正門 앞 横斷歩道 옆에 檢定 코트를 걸친 有價와가 서 있었다.

정문 앞 횡단보도 옆에 검정 코트를 걸친 유가와가 서 있었다.

正門前横断歩道の横に黒コートをかけた湯川が立っていた。

그는 이시가미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이時加味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이시가미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彼は石神を見ると、笑いながら手を振った。

“일찍 나오게 해서 미안해.

“일찍 나오게 해서 未安해.

“일찍 나오게 해서 미안해.

「早く出てくれてすみません。

유가와가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有價와가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유가와가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다.

湯川が笑顔で話しかけた。

“무슨 일이야, 난데없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무슨 일이야, 난데없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무슨 일이야, 난데없이 여기까지 찾아오고?”

「どうしたの？私はここまで来ないの？」

이시가미도 부드러운 表情을 지으며 물었다.

이時加味도 부드러운 表情을 지으며 물었다.

이시가미도 부드러운 表情을 지으며 물었다.

石神も柔らかな表情をして尋ねた。

“응, 걸으면서 얘기하지.

“응, 걸으면서 얘기하지.

“응, 걸으면서 얘기하지.

「うん、歩きながら話をしない。

유가와가 기요스바시 도로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ㄴ다.

有價와가 기요스바時 道路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始作했다.

유가와가 기요스바시 도로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湯川が清水橋道路に沿って歩き回り始めた。

“아니,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아니,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아니,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いや、そこではなくこちらだ。

이시가미는 섯길을 가리켜ㄴ다。

이時加味는 섯길을 가리켰다。

이시가미는 섯길을 가리켰다。

石神は、道を指した。

“이 길로 똑바로 가는 게 우리 집과 가까워。

“이 길로 똑바로 가는 게 우리 집과 가까워。

“이 길로 똑바로 가는 게 우리 집과 가까워。

「この道にまっすぐ行くのが私たちの家に近い。

“거기 가고 싶어서 그래, 그 도시락 가게。

“거기 가고 싶어서 그래, 그 도시락 가게。

“거기 가고 싶어서 그래, 그 도시락 가게。

「そこに行きたくてそう、そのお弁当屋。

유가와가 거리낌 없는 태도로 말해ㄴ다。

有價와假 거리낌 없는 態度로 말했다。

유가와가 거리낌 없는 태도로 말했다。

湯川が気さくな態度で語った。

“도시락 가게? 거기 ㄴ 왜……。

“도시락 가게? 거긴 왜……。

“도시락 가게? 거긴 왜……。

「お弁当屋？そこになぜ… …。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이시가미 스스로도 느끼 ㄴ 수 있어 ㄴ다。

얼굴 筋肉이 굳어지는 것을 이時加味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이시가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顔の筋肉が固まるのを石上自らも感じる事ができた。

“왜라니? 그야 도시락 사러 가자는 거지。

“왜라니? 그야 도시락 사러 가자는 거지。

“왜라니? 그야 도시락 사러 가자는 거지。

「なぜですか？だから弁当を買いに行こう。

당연하 ㄴ 거 아니야? 오늘 여기저기 들러 ㄴ다 오느라고 제대로 식사하 ㄴ 여유
도 없어 ㄴ거든。

當然한 거 아니야? 오늘 여기저기 들렀다 오느라고 제대로 食事할 餘裕도
없었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여기저기 들렀다 오느라고 제대로 식사할 여유도
없었거든。

当然じゃない？今日、あちこち立ち寄ってきたとちゃんと食事する余裕もな

かったから。

여기까지 오 ㄴ 김에 저녁거리나 마련해 두자는 거지。

여기까지 온 김에 저녁거리나 마련해 두자는 거지。

여기까지 온 김에 저녁거리나 마련해 두자는 거지。

ここまで来たキムに夕食や用意しておきましょう。

그 도시락 가게, 맛있겠지? 자네가 매일 들를 정도니 말이야。

그 도시락 가게, 맛있겠지? 자네가 毎日 들를 程度니 말이야。

그 도시락 가게, 맛있겠지? 자네가 매일 들를 정도니 말이야。

そのお弁当屋、美味しいでしょ？君が毎日立ち寄るくらいなんだ。

“아…… 그래? 알아ㄴ어。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あ… …ええ？わかりました。

그럼 가지。

그럼 가지。

그럼 가지。

それから行く。

이시가미도 유가와가 가려는 쪽으로 발길을 돌려ㄴ다。

이時加味도 有價와가 가려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시가미도 유가와가 가려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石上も湯川が隠そうとする方へ足を回した。

기요스바시를 향해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해ㄴ다。

氣よスバ市를 向해 둘이 나란히 걷기 始作했다。

기요스바시를 향해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清水橋に向かって二人が並んで歩き始めた。

커다라ㄴ 트럭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ㄴ다。

커다란 트럭이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커다란 트럭이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大きなトラックが横に通り過ぎる。

“어제 구사나기를 만나ㄴ어。

“어제 驅使나기를 만났어。

“어제 구사나기를 만났어。

「昨日、草薙に会った。

왜, 지난번에 얘기해ㄴ잖아, 자네 집에 가ㄴ다던 형사 말이야。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자네 집에 갔다던 刑事 未이야.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자네 집에 갔다던 형사 말이야.

なぜ、前回話したじゃないか、君の家に行った刑事だ。

유가와와 말에 이시가미는 긴장해ㄴ다.

有價와와 말에 이時加味는 緊張했다.

유가와와 말에 이시가미는 긴장했다.

湯川の言葉に石神は緊張した。

불길하ㄴ 예감이 한층 커져ㄴ다.

不吉한 豫感이 한層 커졌다.

불길한 예감이 한층 커졌다.

不吉な予感が一層大きくなった。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왜?”

「その人はなぜ？」

“뭐, 별일은 아니야.

“뭐, 別일은 아니야.

“뭐, 별일은 아니야.

「まあ、別日じゃない。

그 친구, 걸핏하면 내게 와서 일이 잘 안 풀리다고 푸념을 늘어놓거든.

그 親舊, 걸핏하면 내게 와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푸념을 늘어놓거든.

그 친구, 걸핏하면 내게 와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푸념을 늘어놓거든.

あの友人、ガッピットすれば私に来て仕事がうまくいかないと愚痴を並べれば。

그것도 늘 귀찮으 문제까지 가져오고 말이야.

그것도 늘 귀찮은 問題까지 가져오고 말이야.

그것도 늘 귀찮은 문제까지 가져오고 말이야.

それもいつも面倒な問題まで持ってきてね。

지난번에 포터가이스트에 관하 수수께끼를 풀어 달라고 해서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

지난番엔 葡터가이스트에 關한 수수께끼를 풀어 달라고 해서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

지난번엔 폴터가이스트에 관한 수수께끼를 풀어 달라고 해서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

前回はフォルターガイストに関する謎を解いてほしいと言って、どれほど頭

が痛かったのか分からない。

그리고 유가와는 포터가이스트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어 준다.

그리고 有價와는 葡터가이스트 事件에 關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유가와는 폴터가이스트 사건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そして湯川はフォルターガイスト事件に関する話を聞いた。

무척 흥미로우ㄴ 얘기이기는 해ㄴ다.

무척 興味로운 얘기이기는 했다.

무척 흥미로운 얘기이기는 했다.

とても興味深い話だった。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일부러 이시가미를 찾아오지는 않아ㄴ으ㄴ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일부러 이時加味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일부러 이시가미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しかし、そんな話を聞かせようとわざわざ石神を訪ねてこなかっただろう。

이시가미가 유가와에게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베ㄴ테ㄴ테이의
간판이 보여ㄴ다.

이時加味가 有價와에게 眞짜 目的이 뭐냐고 물어보려는 刹那, 벤텐테이의 看板이 보였다。

이시가미가 유가와에게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벤텐테이의 간판이 보였다。

石神が湯川に本当の目的がなんだと聞いてみると、弁天亭の看板が見えた。

유가와와 함께 가게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시가미는 무척 불안해ㄴ다。

有價와와 함께 가게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時加味는 무척 不安했다。

유가와와 함께 가게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시가미는 무척 불안했다。

湯川と一緒にお店に入るとというのが石上はすごく不安だった。

야스코가 두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ㄴ지 예상하ㄴ 수 없어ㄴ다。

야스코가 두 사람을 보면 어떤 反應을 보일지 豫想할 수 없었다。

야스코가 두 사람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다。

ヤスコが二人を見れば、どのような反応を見せるか予想できなかった。

이런 시간에 이시가미가 나타나ㄴ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ㄴ 일이ㄴ뿐더러, 누구ㄴ가를 데려가기까지 하면 괜하ㄴ 생각을 하ㄴ지도 모르ㄴ다。

이런 時間에 이時加味가 나타난다는 것 自體가 異例적인 일일뿐더러, 누군가를 데려가기까지 하면 괜한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시간에 이시가미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일뿐더러, 누군가를 데려가기까지 하면 괜한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こういう時間に石神が現れるということ自体が異例のことだけでなく、誰かを連れて行くまですれば大丈夫な考えをするかもしれない。

그녀가 부자연스럽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 ㄴ 따름이어 ㄴ 다。

그녀가 不自然스럽게 對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었다。

그녀가 부자연스럽게 대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었다。

彼女が不自然に扱わないことを望むだけだった。

그의 불안하 ㄴ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유가와는 베 ㄴ 테 ㄴ 테이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ㄴ 다。

그의 不安한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有價와는 벤텐테이의 琉璃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불안한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유가와는 벤텐테이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彼の不安な心には、惜しみなく湯川は弁天亭のガラス扉を開けて中に入っ
た。

하는 수 없이 이시가미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ㄴ 다。

하는 수 없이 이時加味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하는 수 없이 이시가미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することなく石神も彼の後ろに沿って入った。

야스코는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던 참이었^ㄴ다.

야스코는 다른 손님을 相對하고 있던 참이었다.

야스코는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던 참이었다.

ヤスコは他の客を相手にしていた真だった。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来てください。

유가와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던 야스코의 눈길이 이시가미에게 향해^ㄴ다.

有價와를 보고 微笑를 지으려던 야스코의 눈길이 이時加味에게 向했다.

유가와를 보고 미소를 지으려던 야스코의 눈길이 이시가미에게 향했다.

湯川を見て笑顔を作ろうとする靖子の目が石神に向かった。

순간 놀라움과 당혹스러우^ㄴ 기색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라^ㄴ다.

瞬間 놀라움과 當惑스러운 氣色이 그女の 얼굴에 떠올랐다.

순간 놀라움과 당혹스러운 기색이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瞬間驚きと恥ずかしい氣配が彼女の顔に浮上した。

미소 짓던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져 버려^ㄴ다.

微笑 짓던 얼굴이 語塞하게 굳어져 버렸다.

미소 짓던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져 버렸다.

微笑んだ顔がぎこちなく固まってしまった。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なぜそうですか？」

그녀의 표정이 심사○찮다는 것을 눈치채 ㄴ 듯 유가와가 물어ㄴ다.

그女の表情이 審査○찮다는 것을 눈치챈 듯 有價와가 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찮다는 것을 눈치챈 듯 유가와가 물었다.

彼女の表情がイメージしないことに気づいたように、ユガワが尋ねた。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あ、いや。

야스코는 어색하 ㄴ 웃음을 머금으 ㄴ 채 고개를 저어ㄴ다.

야스코는 語塞한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어색한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厄介な笑いを残したまま首を振った。

“이웃에 사시거든요.

“이웃에 사시거든요.

“이웃에 사시거든요.

「隣人に住んでいます。

늘 아침에 도시락을 사러 오시는 분이라서…….

늘 아침에 도시락을 사러 오시는 분이라서…….

늘 아침에 도시락을 사러 오시는 분이라서…….

いつも朝に弁当を買いに来る方なので… …。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そうだと言いましたね。

이 친구에게 이 가게 얘기를 듣고 한번 먹어 보고 싶어서요.

이 親舊에게 이 가게 얘기를 듣고 한畚 먹어 보고 싶어서요.

이 친구에게 이 가게 얘기를 듣고 한번 먹어 보고 싶어서요.

この友達にこのお店の話を聞いて一度食べてみたいです。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야스코는 고개를 숙여ㅅ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였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였다。

ヤスコは頭を下げた。

“이 친구와는 대학 동창이ㅅ니다。

“이 親舊와는 大學 同窓입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 동창입니다。

「この友達とは大学の同窓です。

유가와가 이시가미를 돌아보며 말해^ㅅ다。

有價와街 이市加味를 돌아보며 말했다。

유가와가 이시가미를 돌아보며 말했다。

湯川が石上を振り返って話した。

“얼마 전에도 집에 놀러 가^ㅅ었어요。

“얼마 前에도 집에 놀러 갔었어요。

“얼마 전에도 집에 놀러 갔었어요。

「先日も家に遊びに行きました。

네에, 하며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여^ㅅ다。

네에, 하며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에, 하며 야스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はい、そしてヤスコは頭をうなずいた。

“이 친구가 얘기하던가요?”

“이 親舊가 얘기하던가요?”

“이 친구가 얘기하던가요?”

「この友達が話していますか？」

“네, 알쵸요。

“네, 얼핏요.

“네, 얼핏요.

「はい、はい。

“그래 ㄴ 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그거 ㄴ 그렇고, 도시락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도시락 하나 推薦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도시락 하나 추천해 주세요.

ところで、お弁当ひとつおすすめしてください。

이 친구는 보통 뭐 ㄴ 사 가 ㅅ 니까?”

이 親舊는 普通 뭘 사 갑니까?”

이 친구는 보통 뭘 사 갑니까?”

この友人は普通何を買いますか？」

“이시가미 씨는 대개 오늘의 도시락을 사 가세요.

“이時가美 氏は 大概 오늘의 도시락을 사 가세요.

“이시가미 씨는 대개 오늘의 도시락을 사 가세요.

「石神さんは通常今日のお弁当を買ってください。

그런데 오늘은 그만 다 팔려서……。

그런데 오늘은 그만 다 팔려서……。

그런데 오늘은 그만 다 팔려서……。

ところで、今日はやめましょう… …。

“거참, 아쉽군요。

“거참, 아쉽군요。

“거참, 아쉽군요。

「じゃあ、残念ですね。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では、どちらが良いでしょうか？みんな美味しそうですね。

유가와가 도시락을 고르는 동안 이시가미는 유리문 너머로 바깥을 살피고 있어
쌌다。

有價와假 도시락을 고르는 동안 이市加味는 琉璃門 너머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다。

유가와가 도시락을 고르는 동안 이시가미는 유리문 너머로 바깥을 살피고

있었다。

湯川が弁当を選んでいる間、石神はガラス扉を越えて外を見ていた。

어디서 ㄴ가 형사가 지켜보고 있으 ㄴ지도 모르 ㄴ다고 생각해 ㅆ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刑事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형사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どこか刑事が見守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からだ。

야스코와 친숙하 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되 ㄴ다。

야스코와 親熟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는 絶對 안 된다。

야스코와 친숙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ヤスコとおなじみの姿を彼らに見せては絶対にならない。

아니 그보다, 하고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옆얼굴에 눈길을 주어 ㅆ다。

아니 그보다, 하고 이時加味는 有價와와 옆얼굴에 눈길을 주었다。

아니 그보다, 하고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옆얼굴에 눈길을 주었다。

いやそれより、と石神は湯川の横顔に注目を与えた。

이 남자를 믿어도 좋으 ㄴ까。

이 男子를 믿어도 좋을까。

이 남자를 믿어도 좋을까。

この男を信じてもいいか。

경계하 ㄴ 필요는 없는 거 ㄴ까。

警戒할 必要는 없는 걸까。

경계할 필요는 없는 걸까。

警戒する必要はないのか。

구사나기라는 형사와 친구 사이라고 하니 지금 이 일도 유가와를 통해 경찰에게 전해지 ㄴ지 아 ㄴ 수 없는 노릇이어 ㄴ다。

驅使나기라는 刑事와 親舊 사이라고 하니 只今 이 일도 有價와를 통해 警察에게 傳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구사나기라는 형사와 친구 사이라고 하니 지금 이 일도 유가와를 통해 경찰에게 전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草薙という刑事と友人の間だと言うので、今このことも湯川を通じて警察に伝わるのか分からない奴だった。

유가와가 드디어 도시락 메뉴를 결정하 ㄴ 듯 야스코가 주문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ㄴ다。

有價와가 드디어 도시락 메뉴를 決定한 듯 야스코가 注文西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유가와가 드디어 도시락 메뉴를 결정한 듯 야스코가 주문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湯川がついに弁当メニューを決めたように、ヤスコが注文書を持って中に入った。

그때여..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その時だった。

유리문이 열리더니 남자 하나가 가게로 들어서..다.

琉璃門이 열리더니 男子 하나가 가게로 들어섰다.

유리문이 열리더니 남자 하나가 가게로 들어섰다.

ガラス扉が開かれたら、男ひとりが店に入った。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던 이시가미는 그만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말아..다.

無心코 그쪽을 바라보던 이時加味는 그만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던 이시가미는 그만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思わずそちらを眺めていた石神はやめて口をしっかりと閉めてしまった。

짙은 紺색 재킷을 입은 那 남자는 며칠 전 집 앞에서 본 人物이 틀림없어..다.

짙은 褐色 재킷을 입은 그 男子는 며칠 前 집 앞에서 본 人物이 틀림없었

다。

짙은 갈색 재킷을 입은 그 남자는 며칠 전 집 앞에서 본 인물이 틀림없었다。

濃い茶色のジャケットを着たその男は、数日前、家の前で見た人物が間違いなかった。

택시로 야스코를 바래다주 ㄴ 사람이다。

택시로 야스코를 바래다준 사람이다。

택시로 야스코를 바래다준 사람이다。

タクシーでヤスコを眺めた人だ。

둘이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시가미는 우산을 받쳐 드 ㄴ 채 바라보고 있어 ㄴ다。

둘이서 親密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時加味는 雨傘을 받쳐 든 채 바라보고 있었다。

둘이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이시가미는 우산을 받쳐 든 채 바라보고 있었다。

二人で親密に話をする姿を石神は傘をささげたまま眺めていた。

남자 쪽에서는 이시가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 ㄴ다。

男子 쪽에서는 이時加味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남자 쪽에서는 이시가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男の方では石神を調べられないようだった。

그는 안에서 야스코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ㄴ다。

그는 안에서 야스코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안에서 야스코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彼は中からヤスコが出るのを待っていた。

이윽고 야스코가 돌아와ㄴ다。

이윽고 야스코가 돌아왔다。

이윽고 야스코가 돌아왔다。

やがて靖子が帰ってきた。

그녀는 새로 들어오ㄴ 손님을 보더니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ㄴ다。

그女는 새로 들어온 손님을 보더니 살짝 놀라는 表情을 지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손님을 보더니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彼女は新しく入って来た客を見て少し驚くような表情をした。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는 얼굴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해ㄴ으ㄴ 뿐

이다。

男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는 얼굴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했을 뿐

이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는 얼굴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했을 뿐이다。

男は何も言わず、ただ笑顔で頭を軽くうなずいただけだ。

이야기는 방해꾼 손님들이 사라지니 다음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야기는 妨害꾼 손님들이 사라진 다음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야기는 방해꾼 손님들이 사라진 다음에,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話は邪魔者客が消えた後に、と思っているのかも知らなかった。

이 남자는 누구일까。

이 男子는 누구일까。

이 남자는 누구일까。

この男は誰なのだろうか。

어디에서 나타나 어느새 하나오카 야스코와 친해지니 것이니까。

어디에서 나타나 어느새 하나오카 야스코와 親해진 것일까。

어디에서 나타나 어느새 하나오카 야스코와 친해진 것일까。

どこで現れていつのまにか岡康子と親しくなったのだろうか。

이시가미는 그런 생각을 해냈다。

이時加味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시가미는 그런 생각을 했다。

石神はそんな思いをした。

택시에서 내리 ㄴ 때 야스코가 보이 ㄴ 표정을 이시가미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 ㄴ 다。

택시에서 내릴 때 야스코가 보인 表情을 이時加味는 只今도 또렷이 記憶한 다。

택시에서 내릴 때 야스코가 보인 표정을 이시가미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 다。

タクシーで降りたときにヤスコが見せた表情を石神は今も別々に覚えてい
る。

그때까지 보 ㄴ 적 없는 화사하 ㄴ 얼굴이어 ㄴ 다。

그때까지 본 적 없는 華奢한 얼굴이었다。

그때까지 본 적 없는 화사한 얼굴이었다。

それまで見たことのない華やかな顔だった。

엄마도 도시락 가게 점원도 아니 ㄴ 또 다른 얼굴이어 ㄴ 다。

엄마도 도시락 가게 店員도 아닌 또 다른 얼굴이었다。

엄마도 도시락 가게 점원도 아닌 또 다른 얼굴이었다.

お母さんもお弁当店店員でもないまた別の顔だった。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본모습이 아니ㄴ까。

그것이야말로 그女の 본모습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본모습이 아닐까。

それこそ彼女の見た目ではないだろうか。

자신에게는 결코 보여 주지 않는 얼굴을 그녀는 이 남자에게 보여 주어ㄴ다。

自身에게는 決코 보여 주지 않는 얼굴을 그女는 이 男子에게 보여 주었

다。

자신에게는 결코 보여 주지 않는 얼굴을 그녀는 이 남자에게 보여 주었

다。

自分には決して見せない顔を彼女はこの男に見せてくれた。

이시가미는 수수께끼의 남자와 야스코를 번갈아 바라보아ㄴ다。

이時加味는 수수께끼의 男子와 야스코를 番갈아 바라보았다。

이시가미는 수수께끼의 남자와 야스코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石神は謎の男とヤスコを交互に眺めた。

두 사람이 이 작으ㄴ 공간의 공기를 뒤흔드는 듯하ㄴ 느낌이어ㄴ다。

두 사람이 이 작은 空間의 空氣를 뒤흔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이 작은 공간의 공기를 뒤흔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二人がこの小さな空間の空気を揺さぶるような感じだった。

초조감 비슷하ㄴ 감정이 이시가미의 가슴에 퍼져 나가ㄴ다.

焦燥感 비슷한 感情이 이時加味の 가슴에 퍼져 나갔다.

초조감 비슷한 감정이 이시가미의 가슴에 퍼져 나갔다.

焦り感のような感情が石神の胸に広がっていった。

주문하ㄴ 도시락이 나오자 유가와는 그것을 받아 들고 돈을 지불해ㄴ다.

注文한 도시락이 나오자 有價와는 그것을 받아 들고 돈을 支拂했다.

주문한 도시락이 나오자 유가와는 그것을 받아 들고 돈을 지불했다.

注文した弁当が出ると、湯川はそれを受け入れてお金を払った。

벤테ㄴ 테이를 나오ㄴ 두 사람은 기요스바시교 끝자락에서 스미다 강변으로 내려가ㄴ다.

벤텐테이를 나온 두 사람은 氣요스바時教 끝자락에서 스미다 強辯으로 내려갔다.

벤텐테이를 나온 두 사람은 기요스바시교 끝자락에서 스미다 강변으로 내려갔다.

弁天亭を出た二人は清橋橋の端から隅田川沿いに降りた。

그리고 강을 따라 걷기 시작해ㄴ다.

그리고 江을 따라 걷기 始作했다。

그리고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そして川に沿って歩き始めた。

“그 남자랑 무슨 일이라도 있어ㄴ어?”

“그 男子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 남자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あの男と何があったの？」

유가와가 물어ㄴ다。

有價와가 물었다。

유가와가 물었다。

湯川が尋ねた。

“그 남자라니?”

“그 男子라니?”

“그 남자라니?”

「あの男って？」

“나중에 들어오 ㄴ 남자 말이야。

“나중에 들어온 男子 未이야。

“나중에 들어온 남자 말이야。

「後に入ってきた男だ。

왠지 자네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왠지 자네가 神經을 쓰는 것 같아서。

왠지 자네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なんだか君が気になるらしい。

이시가미는 속으로 움찔해ㄴ다。

이時加味는 속으로 움찔했다。

이시가미는 속으로 움찔했다。

石神は中につかんだ。

동시에 옛 친구의 혜안에 혀를 내둘러ㄴ다。

同時에 옛 親舊의 慧眼에 혀를 내돌렸다。

동시에 옛 친구의 혜안에 혀를 내돌렸다。

同時に昔の友人の慧眼に舌を出した。

“그렇게 보여ㄴ어?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ㄴ데。

“그렇게 보였어? 아니야, 쏘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였어?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そうだった？いや、全く知らない人なのに。

이시가미는 있는 힘을 다해 냉정을 유지하려 해^ㄴ다。

이時加味는 있는 힘을 다해 冷靜을 維持하려 했다。

이시가미는 있는 힘을 다해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石神はある力を尽くして冷静を維持しようとした。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 그렇다면 多幸이고。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そうですか？それなら幸いだし。

유가와는 그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해^ㄴ다。

有價와는 그 以上 神經 쓰지 않는 듯했다。

유가와는 그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湯川はそれ以上気にしないようだった。

“그런데 급하^ㄴ 용건이란 게 뭐야? 도시락을 사러 오^ㄴ 거^ㄴ 아니^ㄴ 테고。

“그런데 急한 用件이란 게 뭐야? 도시락을 사러 온 건 아닐 테고。

“그런데 급한 용건이란 게 뭐야? 도시락을 사러 온 건 아닐 테고。

「しかし、急な用件とは何ですか？弁当を買いに来たのではないだろう。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あ、そうだ。

중요하_ㄴ 거_ㄴ 아직 말하지 않아_ㄴ군。

重要な 걸 아직 말하지 않았군。

중요한 걸 아직 말하지 않았군。

重要なことはまだ言っていないね。

그리고 유가와는 얼굴을 찌푸려_ㄴ다。

그리고 有價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유가와는 얼굴을 찌푸렸다。

そして湯川は顔を刺した。

“아까도 말해_ㄴ지만, 그 구사나기라는 친구 말이야, 걸핏하면 귀찮으_ㄴ 일을 의
논하러 오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그 驅使나기라는 親舊 末이야, 걸핏하면 귀찮은 일을 議
論하러 오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구사나기라는 친구 말이야, 걸핏하면 귀찮은 일을 의

논하러 오거든。

「さっきも言ったけど、その草薙という友人のことだよ、ガッピットすると面倒なことを相談しに来たら。

이번에도 도시락 가게 여자의 이웃집에 자네가 사_ㄴ다는 거_ㄴ 알고 부랴부랴 달려와_ㅆ지 뭐_ㄴ가。

이췌에도 도시락 가게 女子의 이웃집에 자네가 산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달려왔지 원가。

이번에도 도시락 가게 여자의 이웃집에 자네가 산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달려왔지 원가。

今回もお弁当屋女のご近所にお前が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ぶらぶら走ってきたなんか。

그것도 아주 유쾌하지 못하_ㄴ 부탁을 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아주 愉快하지 못한 付託을 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아주 유쾌하지 못한 부탁을 가지고 말이지。

それも非常に愉快ではないお願いを持ってね。

“무슨 부탁이_ㄴ 데?”

“무슨 付託인데?”

“무슨 부탁인데?”

「どんなお願いなの？」

“경찰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나 봐。

“警察에서는 如前히 그女를 疑心하고 있나 봐。

“경찰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나 봐。

「警察では相変わらず彼女を疑っているようだ。

그런데 범행을 입증하 ㄴ 만하 ㄴ 단서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데 犯行을 立證할 만한 但書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범행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거야。

ところが犯行を立証するほどの手がかりが全くないというのだ。

그래서 그녀의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려고 하는데, 잠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생각해 내 ㄴ 것이 자네이 ㄴ 모양이더군。

그래서 그女の 生活を 一一이 監視하려고 하는데, 潜伏하는 것도 限界가
있고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자네인 模樣이더군。

그래서 그녀의 생활을 일일이 감시하려고 하는데, 잠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자네인 모양이더군。

それで彼女の生活をいちいち監視しようとするのに、潜伏するのも限界があ
って思い出したのが君らしいようだ。

“설마 나더러 그 감시자 역할을 하라는 거야?”

“설마 나더러 그 監視者 役割을 하라는 거야?”

“설마 나더러 그 감시자 역할을 하라는 거야?”

「まさか、その監視者の役割をしろというの？」

그러자 유가와가 머리를 긁적거려^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러자 유가와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すると湯川が頭を傷つけた。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야.

“설마가 아니라 事實이야.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야.

「まさかじゃなくて本当だ。

물론 감시라고는 해도 스물네 시간 지키는 거^ㄴ 아니고, 단지 이웃집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뭐^ㄴ가 미심쩍으^ㄴ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거지.

勿論 監視라고는 해도 스물네 時間 지키는 건 아니고, 團地 이웃집의 狀況

에 注意를 기울이고 있다가 뭔가 未審쩍은 일이 있으면 連絡해 달라는 거

지.

물론 감시라고는 해도 스물네 시간 지키는 건 아니고, 단지 이웃집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뭔가 미심쩍은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거지.

もちろん監視とはいえ二十四時間守るわけではなく、ただ近所の状況に注意を払っているが何か迷惑なことがあれば連絡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

요컨대 스파이가 되어 달라는 거야。

要컨대 스파이가 되어 달라는 거야。

요컨대 스파이가 되어 달라는 거야。

要するにスパイになって欲しいの。

한마디로 뽀뽀스럽다ㄴ까, 어떻게 그런 실례의 말을 하는지 몰라。

한마디로 뽀뽀스럽달까, 어떻게 그런 失禮의 말을 하는지 몰라。

한마디로 뽀뽀스럽달까, 어떻게 그런 실례의 말을 하는지 몰라。

一言で恥ずかしいだろうか、どうしてそんな失礼の言葉をするのかわからない。

“그럼 자네는 그거ㄴ 내게 부탁하러 오ㄴ 거ㄴ가?”

“그럼 자네는 그걸 내게 付託하러 온 건가?”

“그럼 자네는 그걸 내게 부탁하러 온 건가?”

「それでは、あなたはそれを私に頼みに来たのですか？」

“아, 물론 정식 의뢰는 경찰이 직접 하ㄴ 거야。

“아, 勿論 正式 依頼는 警察이 直接 할 거야。

“아, 물론 정식 의뢰는 경찰이 직접 할 거야.

「あ、もちろん正式依頼は警察が直接するんだ。

그 전에 의사타진을 해 달라더군。

그 前에 醫師打診을 해 달라더군。

그 전에 의사타진을 해 달라더군。

その前に医師打診をしてくれた。

나로서는 자네가 거절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거절하는 게 낫겠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놈의 의리 때문에 이렇게 와ㄴ지 뭐ㄴ가。

나로서는 자네가 拒絶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拒絶하는 게 낫겠다고

도 생각하지만, 그놈의 義理 때문에 이렇게 왔지 원가。

나로서는 자네가 거절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거절하는 게 낫겠다고

도 생각하지만, 그놈의 의리 때문에 이렇게 왔지 원가。

私としては君が断っても大丈夫かなと思って、また断るのがいいとも思うけ

ど、あの奴の義理のせいでこんなに來たのかな。

유가와는 상당히 난처해하는 것처럼 보여ㄴ다。

有價와는 相當히 難處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가와는 상당히 난처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湯川とはかなり困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

그러나 한편으로 이시가미는 과연 경찰이 민간인에게 정말로 그런 부탁을 하느냐
까 싶기도 해^ㅅ다。

그러나 한^ㅁ변으로 이^ㅁ時加味는 果然 警察이 民間人에게 正말로 그런 付託을
할까 싶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시가미는 과연 경찰이 민간인에게 정말로 그런 부탁을
할까 싶기도 했다。

しかし一方で石上は果たして警察が民間人に本当にそんな頼みをするかと思
ったりもした。

“그럼 굳이 베^ㅅ테^ㅅ테이에 들르^ㅅ 것도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럼 굳이 벤텐테이에 들른 것도 그 일과 關聯이 있는 거야?”

“그럼 굳이 벤텐테이에 들른 것도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거야?”

「それではあえて弁天亭に立ち寄ったのも、そのことと関係があるの？」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率直히 말하자면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正直に言えばそう。

그 용의자라는 여성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ㅅ어。

그 容疑者라는 女性을 내 눈으로 直接 보고 싶었어。

그 용의자라는 여성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

その容疑者という女性を私の目で直接見たかった。

그런데 사람을 죽이 ㄴ 만하 ㄴ 여자로는 보이지 않더라 ㄴ 말이지.

그런데 사람을 죽일 만한 女子로는 보이지 않더라 말이지.

그런데 사람을 죽일 만한 여자로는 보이지 않더라 말이지.

ところが人を殺すほどの女性では見えないということ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려던 이시가미는 그 말을 안으로 삼켜 ㅅ 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려던 移是加味는 그 말을 안으로 삼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려던 이시가미는 그 말을 안으로 삼켰다.

私もそう思い、と言おうとしていた石神はその言葉を飲み込んだ。

“글쎄,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니까.

“글쎄,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니까.

“글쎄, 사람은 겉보기와는 다르니까.

「まあ、人は見かけとは違うから。

이시가미는 마음과는 반대로 대답해 ㅅ 다.

이時加味는 마음과는 反對로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마음과는 반대로 대답했다.

石神は心とは逆に答えた。

“하긴 그래。

“하긴 그래。

“하긴 그래。

「そうです。

그럼 어떡하ㄴ 거야, 경찰이 그런 부탁을 해 오면 받아들이ㄴ 거ㄴ가?”

그럼 어떡할 거야, 警察이 그런 付託을 해 오면 받아들일 건가?”

그럼 어떡할 거야, 경찰이 그런 부탁을 해 오면 받아들일 건가?”

それではどうするのか、警察がそんなお願いをしてくれたら受け入れるのか？

이시가미는 고개를 저어ㄴ다。

이時加味는 고개를 저었다。

이시가미는 고개를 저었다。

石神は首を振った。

“거절하고 싶으ㄴ 게 솔직하ㄴ 심정이야。

“拒絕하고 싶은 게 率直한 心情이야。

“거절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야。

「拒絕したいのが率直な心情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말이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말이야。

この話はここで終わらせることにしてね。

기분 나빠ㄴ다면 사과하지。

氣分 나빴다면 謝過하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지。

気分が悪かったら謝りません。

“그러ㄴ 것까지는 없어。

“그럴 것까지는 없어。

“그럴 것까지는 없어。

「そうなるまではない。

두 사람은 신오하시교 근처에 이르러ㄴ다。

두 사람은 新吳何時教 近處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신오하시교 근처에 이르렀다。

二人は新大橋橋の近くに達した。

노숙자들의 주거지가 보여ㄴ다。

露宿者들의 住居地가 보였다。

노숙자들의 주거지가 보였다。

ホームレスの住宅地が見えた。

“사건이 일어나 ㄴ 날이 3월 10일이라고 해ㄴ 던가? 구사나기의 말로는 그날 자
네가 비교적 일찍 귀가해ㄴ 다고 하던데。

“事件이 일어난 날이 3月 10日이라고 했던가? 驅使나기의 말로는 그날 자
네가 比較的 일찍 歸家했다고 하던데。

“사건이 일어난 날이 3월 10일이라고 했던가? 구사나기의 말로는 그날 자
네가 비교적 일찍 귀가했다고 하던데。

「事件が起きた日が3月10日だと言ったのか？草薙の言葉ではその日君が
比較的早く帰宅したと言っていたのに。

“딱히 들를 곳도 없어ㄴ 으니까。

“딱히 들를 곳도 없었으니까。

“딱히 들를 곳도 없었으니까。

「特に立ち寄るところもなかったから。

일곱 시경에 돌아와ㄴ 다고 형사에게 대답해ㄴ 으ㄴ 거야。

일곱 市警에 돌아왔다고 刑事에게 對答했을 거야。

일곱 시경에 돌아왔다고 형사에게 대답했을 거야。

七時頃に戻ってきたと刑事に答えたはずだ。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집에서 수학의 난제와 격투를 벌여ㄴ고?”

“돌아와서는 平素처럼 집에서 數學의 難題와 格闘를 벌였고?”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집에서 수학의 난제와 격투를 벌였고?”

「帰ってきてはいつものように家で数学の難題と格闘を繰り広げた？」

“뭐, 그렇다고 하ㄴ 수 있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まあ、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

대답을 하면서 이시가미는 유가와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
ㄴ까 생각해ㄴ다.

對答을 하면서 이時加味는 有價와假 自身の 알리바이를 確認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

대답을 하면서 이시가미는 유가와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

答えをしながら石神は湯川が自分のアリバイを確認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
思った。

만일 그렇다면 그는 이시가미에게 모종의 의혹을 품고 있다는 말이다。

萬一 그렇다면 그는 이時加味에게 某種의 疑惑을 품고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이시가미에게 모종의 의혹을 품고 있다는 말이다.

もしそうなら、彼は石神に苗の疑惑を抱いているということだ。

“그리고 보니 자네의 취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군.

“그리고 보니 자네의 趣味에 對해서는 들은 적이 없군.

“그리고 보니 자네의 취미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군.

「そういえば君の趣味については聞いたことがないね。

수학 외에는 뭐 ㄹ 하지?”

數學 外에는 뭘 하지?”

수학 외에는 뭘 하지?”

数学以外には何をしますか？」

이시가미가 웃, 웃어 ㄴ다.

이時加味가 웃, 웃었다.

이시가미가 웃, 웃었다.

石神がフット、笑った。

“취미다우 ㄴ 취미가 없어.

“趣味다운 趣味가 없어.

“취미다운 취미가 없어.

「趣味らしい趣味がない。

하 ㄴ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없다고나 하 ㄴ까。

할 줄 아는 게 數學밖에 없다고나 할까。

할 줄 아는 게 수학밖에 없다고나 할까。

することが分かるのが数学しかないというか。

“기분 전환 같으 ㄴ 거 ㄴ 안 해? 드라이브라든지。

“氣分 轉換 같은 건 안 해? 드라이브라든지。

“기분 전환 같은 건 안 해? 드라이브라든지。

「気分轉換のようなことはしないの？ドライブとか。

유가와는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시늉을 해 ㄴ다。

有價와는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시늉을 했다。

유가와는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시늉을 했다。

湯川とは片手でハンドルを回す試練をした。

“하고 싶어도 하 ㄴ 방법이 없어。

“하고 싶어도 할 方法이 없어。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

「やりたくてもやる方法がない。

차가 없는걸。

車が 없는걸。

차가 없는걸。

車がないの。

“그래도 면허는 있지 않나?”

“그래도 免許는 있지 않나?”

“그래도 면허는 있지 않나?”

「それでも免許はないの？」

“왜, 없으 ㄴ 것 같아?”

“왜, 없을 것 같아?”

“왜, 없을 것 같아?”

「なぜ、ないと思う？」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야。

「いや、そんなことじゃない。

아무리 바빠도 운전 학원에 다니 ㄴ 만하 ㄴ 시간은 있어 ㄴ 겠지。

아무리 바빠도 運轉 學院에 다닐 만한 時間은 있었겠지。

아무리 바빠도 운전 학원에 다닐 만한 시간은 있었겠지.

いくら忙しくても運転学園に通うほどの時間はあっただろう。

“대학에 남는 거 ㄴ 단념하 ㄴ 후 서둘러 면허를 따 ㄴ 어.

“大學에 남는 걸 斷念한 後 서둘러 免許를 땀어.

“대학에 남는 걸 단념한 후 서둘러 면허를 땀어.

「大学に残るのを諦めた後、急いで免許を取った。

취직에 유리하 ㄴ 지 모르 ㄴ 다고 생각해서 말이지.

就職에 有利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말이지.

취직에 유리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말이지.

就職に有利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ね。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안 돼 ㄴ 지만.

實際로는 아무 도움도 안 땀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안 땀지만.

實際には何の助けもできなかったが。

그렇게 말하 ㄴ 후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옆얼굴을 바라보아 ㄴ 다.

그렇게 말한 後 이市加味는 有價와와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한 후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そう言った後、石神は湯川の横顔を眺めた。

“내가 차를 운전하 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ㄴ 어?”

“내가 車を 運転할 수 있는지 없는지 確認하고 싶었어?”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私が車を運転できるかどうかを確認したかったの？」

이시가미의 물음에 유가와는 얼토당토않다는 듯 눈을 깜빡거리 ㄴ 다。

이時加味の 물음에 有價와는 얼토당토않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다。

이시가미의 물음에 유가와는 얼토당토않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다。

石神の問いに湯川とはオルトダントらないように目を点滅した。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いや、な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そんな感じがして。

“별로 깊은 뜻은 없어.”

“別に 깊은 뜻은 없었어.

“별로 깊은 뜻은 없었어.

「あまり深い意味はなかった。

자네도 드라이브 정도는 하지 않으니까 싶어.”

자네도 드라이브 程度는 하지 않을까 싶었을 뿐이야.

자네도 드라이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었을 뿐이야.

君もドライブくらいはしないかと思っただけだ。

그리고 때로는 수학 이외의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때로는 數學 以外の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때로는 수학 이외의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そして時には数学以外の話もしたくて。

“수학과 살인 사건 이외의 이야기겠지.

“數學과 殺人 事件 以外の 이야기겠지.

“수학과 살인 사건 이외의 이야기겠지.

「数学と殺人事件以外の話だろ。

슬쩍 비꼬는 걱정으로 하는 말이어는데 유가와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려

다.

슬쩍 비꼰 作定으로 한 말이었는데 有價와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슬쩍 비꼰 작정으로 한 말이었는데 유가와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ちょっとビーコッと決めた言葉だったのに湯川はハハハ、笑いを爆発させた。

“응, 맞아, 바로 그거야.

“응, 맞아, 바로 그거야.

“응, 맞아, 바로 그거야.

「うん、そうなんですね。

이윽고 두 사람은 다리 아래로 접어들어^ㄴ다.

이윽고 두 사람은 다리 아래로 접어들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다리 아래로 접어들었다.

やがて二人は足の下に入った。

백발의 남자가 풍로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뭐^ㄴ가를 끓이고 있어^ㄴ다.

白髮의 男子가 風로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백발의 남자가 풍로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白髮の男が風路の上に鍋を置いて何かを煮ていた。

남자 옆에는 뒷병 하나가 놓여 있어쌌다。

男子 옆에는 뒷瓶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남자 옆에는 뒷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男の横には痴漢が置かれていた。

남자 외에도 노숙자 몇 명이 바깥에 나와 있어쌌다。

男子 外에도 露宿者 몇 名이 바깥에 나와 있었다。

남자 외에도 노숙자 몇 명이 바깥에 나와 있었다。

男のほかにもホームレスの何人かが外に出ていた。

“그럼 나 ㄴ 이만 실례하 ㄴ게。

“그럼 난 이만 失禮할게。

“그럼 난 이만 실례할게。

「じゃあ私はこれだけすみません。

불쾌하 ㄴ 얘기를 해서 미안해。

不快한 얘기를 해서 未安해。

불쾌한 얘기를 해서 미안해。

不快な話をしてすみません。

다리 옆으로 나 ㄴ 계단을 다 올라와쌌으 ㄴ 때 유가와가 말해쌌다。

다리 옆으로 난 階段을 다 올라왔을 때 有價와假 말했다.

다리 옆으로 난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 유가와가 말했다.

橋の横に私は階段を上がってきたとき、湯川が言った。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いいえ.

구사나기 형사에게 전해 줘.

驅使나기 刑事에게 傳해 줘.

구사나기 형사에게 전해 줘.

草薙刑事に伝えてください.

협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協助해 주지 못해서 未安하다고.

협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協力してくれなくて申し訳ないと.

“사과하 ㄴ 필요까지는 없어.

“謝過할 必要까지는 없어.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謝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보다, 또 만나러 와도 되 **ㄴ**까?”

그보다, 또 만나러 와도 될까?”

그보다, 또 만나러 와도 될까?”

それより、また会いに来てもいいか？」

“그야 상관없지만……。

“그야 相關없지만……。

“그야 상관없지만……。

「それは関係ないけど……」 ... 。

“한잔하면서 수학 이야기나 해 **ㄴ**으면 해。

“한 **ㄴ**하면서 數學 이야기나 했으면 해。

“한잔하면서 수학 이야기나 했으면 해。

「一杯ながら数学の話をしたい。

“수학과 살인 사건 이야기가 아니고?”

“數學과 殺人 事件 이야기가 아니고?”

“수학과 살인 사건 이야기가 아니고?”

「数学と殺人事件の話じゃないの？」

그 말에 유가와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콧등에 주름을 잡았^ㄴ다.

그 말에 有價와假 어깨를 으쓱하더니 콧등에 주름을 잡았다.

그 말에 유가와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콧등에 주름을 잡았다.

その言葉に湯川が肩をすくめて、鼻などにしわをつかんだ。

“그러 ^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

「そうかもしれない。

그런데 새로우 ^ㄴ 수학 문제 하나가 생각나^ㄴ어.

그런데 새로운 數學 問題 하나가 생각났어.

그런데 새로운 수학 문제 하나가 생각났어.

ところで、新しい数学問題一つが思い出された。

잠이 나면 한번 생각해 봐^ㄴ으면 해.

잠이 나면 한番 생각해 봤으면 해.

잠이 나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

ちょっとしたら一度考えてみてほしい。

“어떤 문제이 ^ㄴ 데?”

“어떤 問題인데?”

“어떤 문제인데?”

「どんな問題なの？」

“사람이 풀기 힘드 ㄴ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우 ㄴ까 하는 거야。

“사람이 풀기 힘든 問題を 만드는 것과 그 問題を 푸는 것 中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하는 거야。

“사람이 풀기 힘든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하는 거야。

「人が解けにくい問題を作るのと、その問題を解くことのどちらがもっと難しいかということだ。

단, 해답은 반드시 존재하 ㄴ 다고 치고 말아야。

但, 解答은 반드시 存在한다고 치고 말아야。

단, 해답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치고 말아야。

ただ、答えは必ず存在すると言ってね。

어때, 재미있으 ㄴ 것 같지 않아?”

어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어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どうして面白いとは思えない？」

“흥미로우 ㄴ 문제군。

“興味로운 問題軍。

“흥미로운 문제군。

「興味深い問題群。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아 ㄴ다。

이時加味는 有價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石神は湯川の顔をまっすぐ見つめた。

“생각해 보지。

“생각해 보지。

“생각해 보지。

「考えてみよう。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해 ㄴ다。

有價와는 고개를 끄덕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걸어가기 始作했다。

유가와는 고개를 끄덕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湯川は首をうなずいてから足を回して歩き始めた。

9

9

9

새우를 다 먹어냈을 때 마침 와인 병도 바닥을 드러내었다。

새우를 다 먹었을 때 마침 와인 병도 바닥을 드러냈다。

새우를 다 먹었을 때 마침 와인 병도 바닥을 드러냈다。

エビを全部食べた時、ついにワインボトルも床をあらわにした。

야스코는 자신의 잔에 남은 와인을 마저 마시고 나서 숨을 살짝 내쉬었다。

야스코는 自身の 盞에 남은 와인을 마저 마시고 나서 숨을 살짝 내쉬었다。

야스코는 자신의 잔에 남은 와인을 마저 마시고 나서 숨을 살짝 내쉬었다。

ヤスコは自分のグラスに残ったワインをさえ飲んでから息を軽く吐き出した。

제대로 된 이탈리아 요리를 먹어 본 게 얼마 만인지 생각도 나지 않아。

제대로 된 이탈리아 料理를 먹어 본 게 얼마 만인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이탈리아 요리를 먹어 본 게 얼마 만인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きちんとしたイタリア料理を食べてみたのがいくらだけなのか考えもしなか

った。

“조금 더 마시 ㄴ까?”

“조금 더 마실까?”

“조금 더 마실까?”

「もう少し飲むか？」

구도가 물어 ㄴ다。

構圖가 물었다。

구도가 물었다。

構図が尋ねた。

그의 눈 밑이 불그레해 ㄴ다。

그의 눈 밑이 불그레했다。

그의 눈 밑이 불그레했다。

彼の目の下が不屈だった。

“저는 그만하 ㄴ래요。

“저는 그만할래요。

“저는 그만할래요。

「私はやめましょう。

구도 씨는 더 드세요.

구도 氏は 더 드세요.

구도 씨는 더 드세요.

構図さんはもっと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아냐, 그럼 나도 그만하_ㄴ게.

“아냐, 그럼 나도 그만할게.

“아냐, 그럼 나도 그만할게.

「いいえ、それから私もやめましょう。

디저트나 먹지, 뭐.

디저트나 먹지, 뭐.

디저트나 먹지, 뭐.

デザートや食べない、な。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_ㄴ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彼は目を細くし、ナプキンで口元を拭いた。

호스티스 시절, 야스코는 구도와 식사를 하_ㄴ 적이 몇 번 있어_ㄴ다.

호스티스 時節, 야스코는 構圖와 食事を 한 적이 몇 番 있었다.

호스티스 시절, 야스코는 구도와 식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다.

ホスティス時代、ヤスコは構図と食事をしたことが何度もあった。

프레치 레스토랑에서도 이태리언 레스토랑에서도 그가 와인을 하 병으로
로 끝내는 거 본 적이 없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 그가 와인을 한 병으로
끝내는 건 본 적이 없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도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도 그가 와인을 한 병으로
끝내는 건 본 적이 없다.

フレンチレストランでもイタリアンレストランでも彼がワインを一本で終え
るのは見たことがない。

“술이 줄어썸어요?”

“술이 줄었어요?”

“술이 줄었어요?”

「お酒が減りましたか？」

그녀의 물음에 구도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여다.

그녀의 물음에 構圖는 暫時 생각하는 表情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물음에 구도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彼女の問いに構図はしばらく考える表情を浮かべて首をうなずいた。

“그러니까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そうか見て。

전보다 좀 줄어드니까 같아。

前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

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아。

前より少し減ったようだ。

나이 탓이니까……。

나이 탓인지……。

나이 탓인지……。

年齢のせいかな… …。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それがいいです。

몸 생각도 하셔야죠。

몸 생각도 하셔야죠。

몸 생각도 하셔야죠。

体の考え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ええ、ありがとう。

구도가 웃음을 지어 보여^ㄴ다。

構圖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구도가 웃음을 지어 보였다。

構図が笑いを見せた。

그가 야스코의 휴대 전화로 연락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ㄴ 것은 오늘 낮의 일이다。

그가 야스코의 携帶 電話로 連絡해 저녁 食事に 招待한 것은 오늘 낮의 일이다。

그가 야스코의 휴대 전화로 연락해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은 오늘 낮의 일이다。

彼がヤスコの携帯電話に連絡して夕食に招待したのは今日の昼間のことだ。

야스코는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해_ㄴ다。

야스코는 잠깐 망설이다가 承諾했다。

야스코는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했다。

ヤスコはしばらく躊躇して承諾した。

망설이_ㄴ 것은 물론 사건이 마음에 걸려_ㄴ기 때문이다。

망설인 것은 勿論 事件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망설인 것은 물론 사건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迷うことはもちろん、事件が気になったからだ。

지금은 들뜨_ㄴ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나 하고 있으_ㄴ 때가 아니라는 자제

심이 발동해_ㄴ던 것이다。

只今は 들뜬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食事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自制

心が 發動했던 것이다。

지금은 들뜬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자제
심이 발동했던 것이다。

今は浮かんだ気持ちで他人と食事をしている時ではないという自制心が発動
したのだ。

야스코 이상으로 경찰 수사에 겁먹고 있으_ㄴ 딸에게도 미안하_ㄴ 마음이 들어_ㄴ

다。

야스코 以上으로 警察 搜查에 怯먹고 있을 딸에게도 未安한 마음이 들었

다。

야스코 이상으로 경찰 수사에 겁먹고 있을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

다。

ヤスコ以上で警察捜査に恐れている娘にも申し訳ない気がした。

또 하나, 만사를 제쳐 놓고 사건 은폐에 협력하고 있는 이시가미도 마음에 걸려
ㄴ다。

또 하나, 萬事を 제쳐 놓고 事件 隱蔽에 協力하고 있는 이時加味도 마음에
걸렸다。

또 하나, 만사를 제쳐 놓고 사건 은폐에 협력하고 있는 이시가미도 마음
에 걸렸다。

もう一つ、万事をささげて事件隠蔽に協力している石神も気になった。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때이 ㄴ수록 평소처럼 행동하 ㄴ 필요가 있지 않으 ㄴ까
싶기도 해 ㄴ다。

그러나 한便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平素처럼 行動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싶
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평소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
기도 했다。

しかし一方ではこのような時ほど普段のように行動する必要がないかと思っ

たりもした。

호스티스 시절 가깝게 지내^ㄴ던 남자가 식사 초대를 해^ㄴ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ㄴ가。

호스티스 時節 가깝게 지냈던 男子가 食事 招待를 했는데 別다른 理由도 없이 拒絶하는 것도 異常하지 않은가。

호스티스 시절 가깝게 지냈던 남자가 식사 초대를 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ホスティス時代近くに過ごした男が食事の招待をしたが、他に理由もなく断るのもおかしくないか。

만일 거절해^ㄴ다가 그 사실이 사요코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도리어 의심받^으ㄴ 가능성이 있다。

萬一 拒絶했다가 그 事實이 史요코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도리어 疑心 받을 可能性이 있다。

만일 거절했다가 그 사실이 사요코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도리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もし拒絶したが、その事実が紗代子の耳に入っても、やがて疑わしい可能性がある。

하지만 그런 생각 또한 실은 억지로 갖다 붙이^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어^ㄴ다。

하지만 그런 생각 또한 實은 억지로 갖다 붙인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을 그女 自身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또한 실은 억지로 갖다 붙인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だが、そんな思いも、実は無理やりつけた言い訳に過ぎないという事実を彼女自身がよく知っていた。

식사 초대에 응하 ㄴ 최대이자 유일하 ㄴ 이유는 구도를 만나고 싶다는 것, 그것 이어 ㄴ 다。

食事 初代에 應한 最大이자 唯一한 理由는 構圖를 만나고 싶다는 것, 그것 이었다。

식사 초대에 응한 최대이자 유일한 이유는 구도를 만나고 싶다는 것, 그것이였다。

食事の招待に応じた最大で唯一の理由は構図に会いたいということ、それだった。

물론 아직은 구도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떡 ㄴ 지 그녀 자신도 확신 하 ㄴ 수 없어 ㄴ 다。

勿論 아직은 構圖에게 戀愛 感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그女 自身도 確信할 수 없었다。

물론 아직은 구도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もちろんまだ構図に恋愛感情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彼女自身も確信できなかった。

얼마 전 재회하기까지는 그가 생각나는 일도 거의 없어ㄴ다。

얼마 前 再會하기까지는 그가 생각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얼마 전 재회하기까지는 그가 생각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しばらく前に再会するまでは、彼が思い出すこともほとんどなかった。

호의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아마도 옳은 표현이
ㄴ 터여ㄴ다。

好意는 가지고 있지만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라는 것이 아마도 옳은 表現
일 터였다。

호의는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아마도 옳은 표현
일 터였다。

好意は持っているが、それ以上も以下でもないというのがおそらく正しい表
現である。

그러나 식사 초대를 승낙하ㄴ 직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ㄴ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어ㄴ다。

그러나 食事 招待를 承諾한 直後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始作한 것은 틀림
없는 事實이었다。

그러나 식사 초대를 승낙한 직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었다。

しかし、食事の招待を承諾した直後から胸がワクワクし始めたのは間違いのない事実だった。

그 달뜨 ㅅ 기분은 연인과 데이트 약속을 해 ㅅ으 ㄴ 때의 기분과 비슷해 ㅅ다。

그 달뜨 氣分은 戀人과 데이트 約束을 했을 때의 氣分과 비슷했다。

그 달뜨 기분은 연인과 데이트 약속을 했을 때의 기분과 비슷했다。

その甘い気分は恋人とデートの約束をした時の気分に似ていた。

체온이 약간 올라가 ㅅ 느낌마저 들어 ㅅ다。

體溫이 若干 올라간 느낌마저 들었다。

체온이 약간 올라간 느낌마저 들었다。

体温が少し上がった感じさえ聞いた。

들뜨 ㅅ 나머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사요코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해 ㅅ으 ㄴ 정도다。

들뜨 나머지 옷을 갈아입기 爲해 史요코에게 諒解를 求하고 일찍 退勤했을 程度다。

들뜨 나머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사요코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했 을 정도다。

浮かんだ残りの服を着替えるためにサヨコに了解を求めて早く退勤したほど

だ。

어쩌면 그것은 현재 자신이 처하 ㄴ 숨 막히는 상황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와 모든 것을 잊고 싶으 ㄴ 욕망 때문이 ㄴ 지도 몰라 ㄴ 다。

어쩌면 그것은 現在 自身이 處한 숨 막히는 狀況에서 暫時라도 빠져나와 모든 것을 잊고 싶은 欲望 때문인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것은 현재 자신이 처한 숨 막히는 상황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와 모든 것을 잊고 싶은 욕망 때문인지도 몰랐다。

たぶんそれは現在自分が置かれた息をのむような状況からしばらく抜け出して、すべてを忘れたいという欲望のせいかもしれなかった。

또는 오랜 시간 봉인해 두어 ㄴ 던, 여자로 대접받고 싶으 ㄴ 본능이 눈을 떠 ㄴ 기 때문이 ㄴ 지도 몰라 ㄴ 다。

또는 오랜 時間 封印해 두었던, 女子로 待接받고 싶은 本能이 눈을 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또는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여자로 대접받고 싶은 본능이 눈을 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または長時間封印しておいた、女としておもてなししたい本能が目覚めたからかもしれなかった。

그 어느 쪽이든 야스코는 초대에 응하 ㄴ 것을 후회하지 않아 ㄴ 다。

그 어느 쪽이든 야스코는 初代에 應한 것을 後悔하지 않았다。

그 어느 쪽이든 야스코는 초대에 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いづれにしてもヤスコは招待に応じたことを後悔しなかった。

비록 짧은 시간이고, 꺼림칙하 기분은 마음 한구석에 있긴 해ㄴ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우 기분이어ㄴ다.

비록 짧은 時間이고, 꺼림칙한 氣分이 마음 한구석에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운 氣分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고, 꺼림칙한 기분은 마음 한구석에 있긴 했지만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たとえ短い時間で、恥ずかしい気持ちが心一角にあったが、久しぶりに味わう楽しい気分だった。

“딸아이 식사는 어떻게 하지?”

“딸아이 食事は 어떻게 하지?”

“딸아이 식사는 어떻게 하지?”

「娘の食事はどうしますか？」

커피 잔을 손에 드 채 구도가 물어ㄴ다.

커피 盞을 손에 든 채 構圖가 물었다.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구도가 물었다.

コーヒーカップを手にしたまま構図が聞いた。

“알아서 사 먹으라고 자동 응답기에 남겨 두어ㅓ어요.

“알아서 사 먹으라고 自動 應答器에 남겨 두었어요.

“알아서 사 먹으라고 자동 응답기에 남겨 두었어요.

「知って買うように留守番電話に残しておきました。

아마도 피자를 사 먹어ㅓ으ㄴ 거예요.

아마도 피자를 사 먹었을 거예요.

아마도 피자를 사 먹었을 거예요.

おそらくピザを買って食べたでしょう。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ピザが好きです。

“흠, 좀 미안하군.

“흠, 좀 未安하군.

“흠, 좀 미안하군.

「うーん、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

우리는 맛있는 거ㄴ 먹어ㅓ는데 말이야.

우리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말이야。

私たちはおいしいものを食べました。

“이런 데서 먹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면서 피자 먹는 거 ㄴ 더 좋아하 ㄴ 거예요。

“이런 데서 먹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면서 피자 먹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이런 데서 먹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면서 피자 먹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こんなところで食べるよりテレビ見ながらピザ食べるのがもっと好きなんです。

이런 데는 긴장돼서 싫어하거든요。

이런 데는 緊張돼서 싫어하거든요。

이런 데는 긴장돼서 싫어하거든요。

こんなのは緊張して嫌いですよ。

그러자 구도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콧등을 긁적여 ㄴ다。

그러자 構圖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콧등을 긁적였다。

그러자 구도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콧등을 긁었다.

すると構図が顔をそっとゆがめながら首をうなずいてから鼻などを傷つけた。

“그러 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

「そうかもしれない。

게다가 낫서 ㄴ 아저씨랑 있으면 맛을 느끼 ㄴ 여유도 없으 ㄴ 거야.

게다가 낫선 아저씨랑 있으면 맛을 느낄 餘裕도 없을 거야.

게다가 낫선 아저씨랑 있으면 맛을 느낄 여유도 없을 거야.

しかも見知らぬおじさんといえは味を感じる余裕もないだろう。

다음번에는 생각을 좀 해 봐야겠어.

다음番에는 생각을 좀 해 봐야겠어.

다음번에는 생각을 좀 해 봐야겠어.

次回は考えをちょっとしてみるべきだ。

회전 초밥 같으 ㄴ 게 좋으 ㄴ지도 몰라.

回轉 醋밥 같은 게 좋을지도 몰라.

회전 초밥 같은 게 좋을지도 몰라.

回転寿司みたいなのがいいかもしれな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ありがとう。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神経 쓰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でもあまり気にしないでくださ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 보고 싶어서 그래.

“神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 보고 싶어서 그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 보고 싶어서 그래.

「気にするのではなく、私が会ってみたくてそう。

자네 딸을 말이야.

자네 딸을 말이야.

자네 딸을 말이야.

あなたの娘を言う。

구도는 커피 잔을 입에 갖다 대며 치켜뜨 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아 ㄴ다.

構圖는 커피 盞을 입에 갖다 대며 치켜뜯 눈으로 그女를 바라보았다.

구도는 커피 잔을 입에 갖다 대며 치켜뜯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構図はコーヒーカップを口に持って立ち上がった目で彼女を眺めた。

식사 초대를 하면서 그는 딸도 꼭 데려오라고 해 ㄴ다.

食事 招待를 하면서 그는 딸도 꼭 데려오라고 했다.

식사 초대를 하면서 그는 딸도 꼭 데려오라고 했다.

食事の招待をしながら、彼は娘も必ず連れてくると言った。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 느껴져 ㄴ다.

眞心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心から言うということが感じられた。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의 태도가 야스코는 기뻐 ㄴ다.

誠意를 보이려고 努力하는 그의 態度가 야스코는 기뻐다.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의 태도가 야스코는 기뻐다.

誠意を見せようとする彼の態度が、ヤスコは喜んだ。

그렇기 ㄴ 해도 미사토를 데려오 ㄴ 수는 없는 노릇이어 ㄴ다.

그렇긴 해도 미사토를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긴 해도 미사토를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そういってもミサトを連れて来ることはできない器だった。

물론 미사토가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미사토를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하고 싶지 않아 ㄴ다.

勿論 미사토가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事實이지만, 그보다는 이런 狀況에서 미사토를 必要 以上으로 다른 사람과 接觸하게 하고 싶지 않았 ㄴ다。

물론 미사토가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미사토를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하고 싶지 않았 ㄴ다。

もちろんミサトがこんなところが好きではないのも事実だが、それよりはこのような状況でミサトを必要以上に他人と接触させたくなかった。

만일 그 사건이 화제로 등장하 ㄴ 경우 미사토가 평정심을 유지하 ㄴ 수 있으 ㄴ지 자신 없어 ㄴ던 것이다.

萬一 그 事件이 話題로 登場할 境遇 미사토가 平定審을 維持할 수 있을지 自身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 사건이 화제로 등장할 경우 미사토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 없었던 것이다。

もしその事件が話題で登場した場合、ミサトが平常心を維持できるか自信がなかったのだ。

그리고 또 하나, 구도 앞에서 여자로 돌아가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構圖 앞에서 女子로 돌아가고 마는 自身の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도 앞에서 여자로 돌아가고 마는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そしてもうひとつ、構図の前で女に戻ってしまう自分の姿を娘に見せたくなかった。

“구도 씨는 어떠 ㄴ 데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도 괜찮으 ㄴ 거예요?”

“構圖 氏は 어떤데요, 家族과 함께 食事하지 않아도 괜찮은거예요?”

“구도 씨는 어떤데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도 괜찮은거예요?”

「構図さんはどんなんですが、家族と一緒に食事しなくても大丈夫ですか？」

“나 말이야?”

“羅 末이야?”

“나 말이야?”

「私ですか？」

구도가 커피 잔을 내려놓더니 테이블 위에 양팔을 올려놓아^ㅅ다.

構圖가 커피 盞을 내려놓더니 테이블 위에 兩팔을 올려놓았다.

구도가 커피 잔을 내려놓더니 테이블 위에 양팔을 올려놓았다.

構図がコーヒーカップを下ろしたところ、テーブルの上に両腕を載せた。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식사에 초대하^ㄴ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食事に 招待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식사에 초대한 거야.

「その話をしたくて今日の食事に招待したの。

야스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아^ㅅ다.

야스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스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ヤスコは頭をかがみながら顔を見つめた。

“실은 나, 지금 혼자야.

“實은 나, 只今 혼자야.

“실은 나, 지금 혼자야.

「実は私、今一人だ。

“네?”

“네?”

“네?”

「はい？」

야스코가 눈을 동그랗게 떠ㅅ다。

야스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스코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ヤスコが目を丸くした。

“아내가 암이ㅅ어, 췌장암。

“아내가 癌이었어, 膵臓癌。

“아내가 암이었어, 췌장암。

「妻ががんだった、膵臓がん。

수술을 해ㅅ지만 너무 늦ㅅ지。

手術을 했지만 너무 늦었지。

수술을 했지만 너무 늦었지。

手術をしたが遅すぎた。

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ㅅ어。

昨年 여름에 世上을 떠났어。

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났어.

昨年の夏に世界を去った。

젊어서 그러 ㄴ지 진행이 아주 빠르더군.

젊어서 그런지 進行이 아주 빠르더군.

젊어서 그런지 진행이 아주 빠르더군.

若くてそうなのか進行がとても速いな。

눈 깜짝하 ㄴ 사이여 ㄴ어.

눈 깜짝할 사이였어.

눈 깜짝할 사이였어.

瞬く間だった。

담담하 ㄴ 말투여 ㄴ다.

淡淡的 말투였다.

담담한 말투였다.

淡々とした口調だった。

그 때문이 ㄴ지 야스코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감하 ㄴ 수 없어 ㄴ다.

그 때문인지 야스코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實感할 수 없었다.

그 때문인지 야스코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실감할 수 없었다.

そのためか、ヤスコは話を聞きながらも実感できなかった。

그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아^ㅅ다。

그女는 몇 秒 동안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彼女は数秒間愚かなので、彼の顔を見た。

“그거, 정말이^ㄴ가요?”

“그거, 正말인가요?”

“그거, 정말인가요?”

「それ、本当にですか？」

간신히 꺼내^ㄴ 말이 그것이어^ㅅ다。

艱辛히 꺼낸 말이 그것이었다。

간신히 꺼낸 말이 그것이었다。

ようやく取り出した言葉がそれだった。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ㄴ 수야 없지。

“이런 얘기를 弄談으로 할 수야 없지。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수야 없지。

「こんな話を冗談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

그가 웃어쌌다.

그가 웃었다.

그가 웃었다.

彼は笑った。

“그거ㄴ 그러ㄴ데, 무슨 말을 해야 하ㄴ지……。

“그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それで、何を言うべきか…」 …。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혀로 입술을 축이ㄴ 후 다시 고개를 들어쌌다.

그女는 고개를 숙이고 혀로 입술을 축인 後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혀로 입술을 축인 후 다시 고개를 들었다.

彼女は頭を下げて舌で唇を縮めた後、再び頭を上げた。

“그게, 저……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요.

“그게, 저…… 眞心으로 冥福을 빌어요.

“그게, 저……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요.

「それ、私… …本気で名服を祈ります。

고생 많으셔쌌네요.

苦生 많으셨겠네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苦勞多かったですね。

“그래ㄴ지。

“그랬지。

“그랬지。

「そうだった。

하지만 방금도 말해ㄴ듯이 정말 눈 깜짝하ㄴ 사이여ㄴ어。

하지만 方今도 말했듯이 正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하지만 방금도 말했듯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だが、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本当に目の前でした。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ㄴ다더니 의사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 암이라고 알려 주더군。

허리가 아파서 病院에 갔다더니 醫師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 癌이라고 알려 주더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더니 의사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 암이라고 알려 주더군。

腰が痛くて病院に行ったら医師が突然私を呼んでがんだと教えてくれたな。

입원, 수술, 간병……,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있는 것 같아^ㅅ어。

入院, 手術, 看病……,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있는 것 같았어。

입원, 수술, 간병……,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있는 것 같았어。

入院、手術、介護… …、まるでコンベアベルトに載っているようでした。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아^ㅅ어。

精神없이 時間이 흐르고, 그리고 世上을 떠나고 말았어。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精神なく時間が流れて、そして世界を去ってしまった。

본인이 병명을 알아^ㅅ는지 어때^ㅅ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야。

本人이 病名을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只今도 수수께끼야。

본인이 병명을 알았는지 어땠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야。

本人が病名を知ったかどうかは今も謎だ。

거기까지 말하고서 구도는 유리잔에 담기^ㄴ 물을 마셔^ㅅ다。

거기까지 말하고서 構圖는 琉璃盞에 담긴 물을 마셨다。

거기까지 말하고서 구도는 유리잔에 담긴 물을 마셨다。

そこまで言って構図はガラスの中に入った水を飲んだ。

“병에 대해서 알게 되^ㄴ 게 언제이^ㄴ가요?”

“病에 對해서 알게 된 게 언제인가요?”

“병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언제인가요?”

「病氣について知ったのはいつですか？」

구도는 고개를 가우뚱해^ㄴ다。

構圖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구도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構図は首をかしげた。

“작년 말이어^ㄴ나……。

“昨年 말이었나……。

“작년 말이었나……。

「昨年末でしたか…」 ……。

“그럼 제가 아직 마리아네 있으^ㄴ 때네요。

“그럼 제가 아직 마리아네 있을 때네요。

“그럼 제가 아직 마리아네 있을 때네요。

「じゃあ私がまだマリアンにいる時ですね。

구도 씨, 그때도 그 가게에 오셔^ㄴ었죠?”

구도 氏, 그때도 그 가게에 오셨었죠?”

구도 씨, 그때도 그 가게에 오셨었죠?”

構図さん、その時もそのお店に来ましたね？」

구도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해냈다.

構圖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구도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構図は苦笑をして肩をすくめた。

“적절치 못하ㄴ 행동이지? 아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말이야。

“適切치 못한 行動이지? 아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말이야。

“적절치 못한 행동이지? 아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말이야。

「適切ではない行動ですか？妻が買うか死ぬかという板にお酒や飲みに通ってなんだ。

야스코는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어났다.

야스코는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야스코는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ヤスコは体が固まる感じだった。

대답하 ㄴ 말이 떠오르지 않아 ㅅ다.

對答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答える言葉が思い浮かばなかった。

밝게 웃던 그 당시 구도의 모습이 머릿속에 되살아나 ㅅ다.

밝게 웃던 그 當時 構圖의 모습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밝게 웃던 그 당시 구도의 모습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明るく笑ったその当時構図の姿が頭の中に蘇った。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런저런 일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 ㄴ 나머지 조금이나
마 위안을 받으 ㄴ까 싶어서 야스코를 보러 가 ㅅ다고 하 ㄴ까.

“굳이 辨明을 하자면, 그런저런 일로 너무나 疲困하고 힘든 나머지 조금이
나마 胃안을 받을까 싶어서 야스코를 보러 갔다고 할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런저런 일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나머지 조금이
나마 위안을 받을까 싶어서 야스코를 보러 갔다고 할까.

「あえて言い訳をしようとしたら、そんなことで疲れすぎて大変な残り少し
でも元氣を受けるかと思ってヤスコを見に行ったというか。

그는 머리를 굵적이며 콧등에 주름을 세워 ㅅ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콧등에 주름을 세웠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콧등에 주름을 세웠다.

彼は頭を傷つけ、鼻などにしわを立てた。

야스코는 여전히 하_는 말이 생각나지 않아_는다.

야스코는 如前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야스코는 여전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ヤスコはまだ何も言わなかった。

그녀는 자신이 마리안을 그만두_는 때의 일을 회상해_는다.

그녀는 自身李 마리안을 그만둘 때의 일을 回想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리안을 그만둘 때의 일을 회상했다.

彼女は自分がマリアンをやめた時のことを思い出した。

마지막 날, 구도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와_는다.

마지막 날, 構圖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마지막 날, 구도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最後の日、構図は花束を持って彼女を訪ねてきた。

부디 행복해지기_는 바라_는게.

부디 幸福해지길 바랄게.

부디 행복해지길 바랄게。

ぜひ幸せになってほしい。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해냈을까。

어떤 心情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どんな心情でそんなことを言ったのだろうか。

자신이 짊어지 ㄴ 고통은 내색도 하지 않으 ㄴ 채 그는 야스코의 재출발을 축하
해 주어 ㄴ다。

自身이 짊어진 苦痛은 내色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야스코의 再出發을 祝賀
해 주었다。

자신이 짊어진 고통은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야스코의 재출발을 축하
해 주었다。

自分が背負った苦痛は内色もしないまま彼はヤスコの再出発を祝ってくれ
た。

“너무 칙칙하 ㄴ 얘기를 해 ㄴ군。

“너무 칙칙한 얘기를 했군。

“너무 칙칙한 얘기를 했군。

「あまりにもぬるぬるな話をしましたね。

구도는 겸연쩍은 마음을 숨기려는 듯 담배를 꺼내 물었다.

構圖は 慚然적인 마음을 숨기려는 듯 담배를 꺼내 물었다.

구도는 겸연쩍은 마음을 숨기려는 듯 담배를 꺼내 물었다.

構図は謙虚な心を隠そうとするようにタバコを取り出して尋ねた。

“요컨대, 사정이 그러하니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ㄴ다는 말을 하고 싶어ㄴ던 거야.

“要컨대, 事情이 그러하니 우리 家庭에 對해서는 念慮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요컨대, 사정이 그러하니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要するに、事情がそうだから私たちの家庭については心配する必要はない
ということを書いたかったんだ。

“아……, 하지만 아드님은요? 지금 수험생이라면서요…….

“아……, 하지만 아드님은요? 只今 受験生이라면서요…….

“아……, 하지만 아드님은요? 지금 수험생이라면서요…….

「あ… …でも、お子様は？今受験生でありながら… …。

“아들은 부모님께서 돌봐 주고 계셔.

“아들은 父母님께서 돌봐 주고 계셔。

“아들은 부모님께서 돌봐 주고 계셔。

「息子は両親の世話をしています。

부모님 댁이 학교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나는 그 애의 야식조차 만들 줄 모
르거든。

父母님 宅이 學校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나는 그 애의 夜食조차 만들 줄
모르거든。

부모님 댁이 학교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나는 그 애의 야식조차 만들 줄
모르거든。

両親のお宅が学校に近いこともあり、また私はあの子の夜食すら作ってもら
えない。

그리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살피는 게 즐거우시ㄴ 모양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孫子を 보살피는 게 즐거우신 模様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손자를 보살피는 게 즐거우신 모양이야。

そして母は孫をケアするのが楽しい形だ。

“그럼 지금은 정말로 혼자 생활하세요?”

“그럼 只今は 正말로 혼자 生活하세요?”

“그럼 지금은 정말로 혼자 생활하세요?”

「それでは今は本当に一人暮らしですか？」

“생활이라고 해 봐야 집에 가서는 잠만 자는 게 다지, 뭐.

“生活이라고 해 봐야 집에 가서는 잠만 자는 게 다지, 뭐.

“생활이라고 해 봐야 집에 가서는 잠만 자는 게 다지, 뭐.

「生活と言ってみてこそ、家に帰っては寝てしまうのがダジ、まあ。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셔ㄴ잖아요.

“지난番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잖아요.

「過去にはそんな話は全くなかったでしょう。

“하ㄴ 필요가 없어ㄴ지.

“할 필요가 없었지.

“할 필요가 없었지.

「する必要はなかった。

야스코가 걱정돼서 가ㄴ으ㄴ 뿐이니까.

야스코가 걱정돼서 갔을 뿐이니까.

야스코가 걱정돼서 갔을 뿐이니까.

ヤスコが気になって行っただけだから。

그렇지만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내 가정에 대해 마음이 쓰이니 테
니 말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어.

그렇지만 이렇게 저녁 食事を 같이 하게 되면 내 家庭에 對해 마음이 쓰일
테니 말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내 가정에 대해 마음이 쓰
일 테니 말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でもこんなに夕食を一緒にすることになれば、私の家庭について気になるか
ら言っ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った。

“그래.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야스코는 눈을 내리떠.다.

야스코는 눈을 내리떴다.

야스코는 눈을 내리떴다.

ヤスコは目を離した。

구도의 속내를 아.는 것 같아.다.

構圖의 속내를 알 것 같았다.

구도의 속내를 알 것 같았다.

構図の本音を知りそうだった。

은연중에 정식으로 사귀자는 뜻을 내비치 ㄴ 것이다.

隱然中에 正式으로 사귀자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은연중에 정식으로 사귀자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銀年中に正式に付き合った者は意志を示したのだ。

어쩌면 장래를 생각하며 교제하려는 것이 ㄴ지도 몰라 ㄴ다.

어쩌면 將來를 생각하며 交際하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장래를 생각하며 교제하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たぶん将来を考えながら交際しようと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미사토를 데려오라고 하 ㄴ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으 ㄴ까 싶어 ㄴ다.

미사토를 데려오라고 한 理由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었다.

미사토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었다.

ミサトを連れてくるという理由もそこにはないかと思った。

레스토랑을 나서 ㄴ 후 구도는 지난번처럼 집까지 택시로 야스코를 바라다주어 ㄴ다.

레스토랑을 나선 後 構圖는 지난番처럼 집까지 택시로 야스코를 바라다주

었다。

레스토랑을 나선 후 구도는 지난번처럼 집까지 택시로 야스코를 바라다주었다。

レストランを出た後、構図は前回のように家までタクシーでヤスコを眺めた。

“저녁 잘 먹어ㄴ어요。

“저녁 잘 먹었어요。

“저녁 잘 먹었어요。

「夕食よく食べました。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야스코가 감사의 인사를 해ㄴ다。

車에서 내리기 前に 야스코가 勘査의 人士를 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야스코가 감사의 인사를 했다。

車から降りる前に、ヤスコが感謝の挨拶をした。

“또 만나자고 해도 되ㄴ까?”

“또 만나자고 해도 될까?”

“또 만나자고 해도 될까?”

「また会おうとしてもいいかな？」

야스코는 잠시 틈을 두어ㄴ다가 “네。

야스코는 暫時 틈을 두었다가 “네。

야스코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네。

ヤスコはしばらく隙を置いて「はい。

” 하며 미소를 지어 보여^ㄴ다。

” 하며 微笑를 지어 보였다。

” 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と笑顔を見せた。

“그럼 잘 자。

“그럼 잘 자。

“그럼 잘 자。

「それではおやすみなさい。

딸에게도 안부 전해 주고。

딸에게도 安否 傳해 주고。

딸에게도 안부 전해 주고。

娘にも安否伝えてくれ。

“네。

“네。

“네。

「はい。

조심해서 가세요。

操心해서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気をつけて行ってください。

대답하면서 그녀는 오늘 저녁 일을 미사토에게 말하기는 힘드ㄴ 거라고 생각해
ㄴ다。

對答하면서 그女는 오늘 저녁 일을 미사토에게 말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
했다。

대답하면서 그녀는 오늘 저녁 일을 미사토에게 말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
했다。

答えながら、彼女は今夜の仕事をミサトに話すのは大変だと思った。

사요코 부부와 식사하ㄴ 거라고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 두어ㄴ 것이
다。

史요코 夫婦와 食事할 거라고 自動 應答器에 메시지를 남겨 두었던 것이
다。

사요코 부부와 식사할 거라고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 두었던 것이
다。

サヨコ夫婦と食事をするように留守番電話にメッセージを残しておいたのだ。

구도가 타 ㄴ 택시가 떠나 ㄴ 후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와 ㄴ 다。

構圖が た 택시가 떠난 後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왔다。

구도가 타 택시가 떠난 후 야스코는 집으로 돌아왔다。

構図に乗ったタクシーが去った後、ヤスコは家に帰った。

미사토는 고타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ㄴ 다。

미사토는 고타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사토는 고타쓰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ミサトはコタツに座ってテレビを見ていた。

아니나 다르 ㄴ 까, 테이블 위에 피자 박스가 올라와 있어 ㄴ 다。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 위에 피자 박스가 올라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테이블 위에 피자 박스가 올라와 있었다。

いや違うか、テーブルの上にピザボックスが上がっていた。

“와 ㄴ 어?”

“왔어?”

“왔어?”

「来た？」

미사토가 야스코를 올려다보며 말해^ㄴ다。

미사토가 야스코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미사토가 야스코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ミサトがヤスコを見上げて言った。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未安해。

“늦어서 미안해。

「遅くなってごめんなさい。

야스코는 어쩐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ㄴ 수가 없어^ㄴ다。

야스코는 어쩐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야스코는 어쩐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ヤスコはなんだか娘の顔をまっすぐ眺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남자와 식사하고 오^ㄴ 것이 마음에 걸려^ㄴ다。

男子와 食事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남자와 식사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男と食事してきたのが気になった。

“전화 받아ㅆ어?”

“電話 받았어?”

“전화 받았어?”

「電話を受けましたか？」

미사토가 물어ㅆ다。

미사토가 물었다。

미사토가 물었다。

ミサトが尋ねた。

“무슨 전화?”

“무슨 電話?”

“무슨 전화?”

「どんな電話？」

“옆집……, 이시가미 씨한테。

“옆집……, 이時가美 氏한테。

“옆집……, 이시가미 씨한테。

「隣の家… …、石神さんに。

미사토의 목소리가 낮아져ㅆ다。

미사討議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사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ミサトの声が低くなった。

매일 정시에 걸려 오는 전화를 말하는 듯해ㄴ다.

毎日 定時に 걸려 오는 電話를 말하는 듯했다.

매일 정시에 걸려 오는 전화를 말하는 듯했다.

毎日定刻にかかってくる電話を言うようだった。

“휴대 전화 전원을 꺼 놔ㄴ었어.

“携帯 電話 全員을 꺼 났었어.

“휴대 전화 전원을 꺼 났었어.

「携帯電話の電源を切った。

“으응……。

“으응……。

“으응……。

「うん……」 ... 。

미사토의 표정이 덜떠름해ㄴ다.

미사討議 表情이 덜떠름했다.

미사토의 표정이 떨떠름했다。

ミサトの表情が震えた。

“무슨 일 있어ㄴ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どうしたの？」

“아니, 별일은 아니ㄴ데,”

“아니, 別일은 아닌데,”

“아니, 별일은 아닌데,”

「いや、別日じゃないのに、」

미사토는 벽시계를 힐끔 바라봐ㄴ다。

미사토는 壁時計를 힐끔 바라봤다。

미사토는 벽시계를 힐끔 바라봤다。

ミサトは壁時計をこっそり眺めた。

“이시가미 씨가 몇 번이나 자기 집을 들락날락해ㄴ거든。

“이時가美 氏が 몇 番이나 自己 집을 들락날락했거든。

“이시가미 씨가 몇 번이나 자기 집을 들락날락했거든。

「石神さんが何度も自分の家を出入りしたから。

창으로 보니까 저기 기 _ㅁ 쪽으로 가던데, 엄마한테 전화하러 가 _ㄴ 거 아니 _ㄴ가
싶어서。

窓으로 보니까 저기 길 쪽으로 가던데, 엄마한테 電話하러 간 거 아닌가
싶어서。

창으로 보니까 저기 길 쪽으로 가던데, 엄마한테 전화하러 간 거 아닌가
싶어서。

窓から見たらあそこの道に行くのに、お母さんに電話に行ったのではないか
と。

“아……。

“아……。

“아……。

「あ… …。

그러 _ㅁ지도 모르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해 _ㅅ다。

그렇지도 모르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그렇지도 모르겠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そうかもしれないとヤスコは考えた。

실은 구도와 식사하는 동안에도 이시가미가 마음에 걸려 _ㅅ다。

實은 構圖와 食事하는 동안에도 이時加味가 마음에 걸렸다。

실은 구도와 식사하는 동안에도 이시가미가 마음에 걸렸다。

実は構図と食事中にも石神が気になった。

전화도 그렇지만, 그보다 베네테이에서 구도와 마주치 ㄴ 일에 더 마음이
쓰여 ㅅ 다。

電話도 그렇지만, 그보다 벤텐테이에서 構圖와 마주친 일에 더 마음이 쓰
였다。

전화도 그렇지만, 그보다 벤텐테이에서 구도와 마주친 일에 더 마음이 쓰
였다。

電話もそうだが、それより弁天亭で構図と遭遇したことにもっと心が使われ
た。

물론 구도 쪽에서는 이시가미를 그저 손님으로밖에는 안 여겨 ㅅ 으 ㄴ 것이다。

勿論 構圖 쪽에서는 이時加味를 그저 손님으로밖에는 안 여겼을 것이다。

물론 구도 쪽에서는 이시가미를 그저 손님으로밖에는 안 여겼을 것이다。

もちろん構図側では石神をただの客にしか思わなかっただろう。

이시가미가 오늘은 왜 하필이면 그 시각에 오 ㄴ 것이 ㄴ 까。

이時加味가 오늘은 왜 何必裏面 그 時刻에 온 것일까。

이시가미가 오늘은 왜 하필이면 그 시각에 온 것일까。

石神が今日はなぜハーフィルならその時刻に来たのだろうか。

친구라는 사람과 같이 오기 ㄴ 해 ㅅ지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어 ㅅ던 일이다。

親舊라는 사람과 같이 오긴 했지만, 여태까지는 한 ㅅ도 없었던 일이다。

친구라는 사람과 같이 오긴 했지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友人という人のように来たが、これまでは一度もなかったことだ。

이시가미는 구도를 기억하고 있으 ㄴ 게 틀림없다。

이時加味는 構圖를 記憶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이시가미는 구도를 기억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石神は構図を覚えているに違いない。

지난번에 야스코를 택시로 데려다주 ㄴ 남자가 또다시 베 ㄴ테 ㄴ테이에 나타나 ㅅ다는 사실에 특별하 ㄴ 의미를 느껴 ㅅ으 ㄴ지도 모르 ㄴ다。

지난ㅅ에 야스코를 택시로 데려다준 男子가 또다시 벤텐테이에 나타났다는 事實에 特別한 意味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지난번에 야스코를 택시로 데려다준 남자가 또다시 벤텐테이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前回、ヤスコをタクシーで連れて行った男が再びベンテンテーに現れたという事実特別な意味を感じたかもしれない。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 있으면 또 걸려 올 이시가미의 전화를 받아야 하_ㄴ다는
것이 참으로 우울해_ㄴ다。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 있으면 또 걸려 올 이市街美의 電話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이 참으로 憂鬱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조금 있으면 또 걸려 올 이시가미의 전화를 받아야 한다
는 것이 참으로 우울했다。

そう考えると少しあればまたかかってくる石神の電話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
いというのが本当に落ち込ん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려_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있는데 玄關 벨이 울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다。

そんな思いをしながらコートを手がかりにハンガーにかけているのに玄関ベルが鳴っ
た。

야스코는 깜짝 놀라며 미사토와 얼굴을 마주 보아_ㄴ다。

야스코는 깜짝 놀라며 미사토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야스코는 깜짝 놀라며 미사토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ヤスコはびっくりしてミサトと顔に直面した。

순간적으로 이시가미가 아니_ㄴ까 생각해_ㄴ기 때문이다。

瞬間적으로 이時加味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이시가미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瞬間的に石神ではないかと思ったからだ。

그러나 그가 집에 찾아오 ㄴ 리 없어 ㄴ 다。

그러나 그가 집에 찾아올 理 없었다。

그러나 그가 집에 찾아올 리 없었다。

しかし彼が家に帰るつもりはなかった。

야스코가 문을 향해 네, 하고 대답해 ㄴ 다。

야스코가 門을 向해 네, 하고 對答했다。

야스코가 문을 향해 네, 하고 대답했다。

ヤスコがドアに向かってはい、と答えた。

“밤중에 죄송하 ㄴ 니다만, 잠깐 실례해도 되 ㄴ 까요?”

“밤中에 罪悚합니다만, 잠깐 失禮해도 될까요?”

“밤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夜中にすみませんが、ちょっと失礼してもいいですか？」

귀에 익으 ㄴ 남자 목소리여 ㄴ 다。

귀에 익은 男子 목소리였다。

귀에 익은 남자 목소리였다.

耳に熟した男の声だった。

야스코는 도어체인이 걸리 ㄴ 채로 문을 열어 ㄴ다.

야스코는 刀魚體認이 걸린 채로 門을 열었다.

야스코는 도어체인이 걸린 채로 문을 열었다.

ヤスコはドアチェーンがかかったままドアを開けた。

남자 하나가 서 있어 ㄴ다.

男子 하나가 서 있었다.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男一人が立っていた。

보 ㄴ 적 있는 남자여 ㄴ다.

본 적 있는 男子였다.

본 적 있는 남자였다.

見たことのある男だった。

그가 안주머니에서 경찰수첩을 꺼내 보여 주어 ㄴ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警察手帖을 꺼내 보여 주었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경찰수첩을 꺼내 보여 주었다.

彼が内ポケットから警察手帳を取り出して見せてくれた。

“경시청의 기시타니이 ㅂ니다。

“輕視靑의 기시他니입니다。

“경시청의 기시타니입니다。

「警視庁の岸谷です。

지난번에 구사나기 선배와 함께 와ㅓ었쥬。

지난番에 驅使나기 先輩와 함께 왔었쥬。

지난번에 구사나기 선배와 함께 왔었쥬。

前回、草薙先輩と一緒に来ましたね。

“아아……。

“아아……。

“아아……。

「ああ… …。

야스코는 기억이 나ㅓ다。

야스코는 記憶이 났다。

야스코는 기억이 났다。

ヤスコは思い出した。

오늘은 구사나기가 오지 않은 모양이다。

오늘은 驅使나기가 오지 않은 模様이다。

오늘은 구사나기가 오지 않은 모양이다。

今日は草薙が来ないようだ。

그녀는 일단 문을 닫고 미사토에게 눈짓해ㄴ다。

그女는 一旦 門을 닫고 미사토에게 눈짓했다。

그녀는 일단 문을 닫고 미사토에게 눈짓했다。

彼女は一度ドアを閉め、ミサトに目をつけた。

미사토가 고타쓰에서 빠져나와 말없이 안쪽 방으로 가ㄴ다。

미사토가 고타쓰에서 빠져나와 말없이 안쪽 房으로 갔다。

미사토가 고타쓰에서 빠져나와 말없이 안쪽 방으로 갔다。

ミサトがコタツから抜け出し、言葉なしで奥の部屋に行った。

칸막이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ㄴ 후에야 야스코는 체인을 벗기고 다시 문을 열어ㄴ다。

칸막이 門이 닫히는 것을 確認한 後에야 야스코는 體認을 벗기고 다시 門을 열었다。

칸막이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야스코는 체인을 벗기고 다시 문을 열었다。

仕切りの扉が閉まることを確認した後、ヤスコはチェーンをはずして再び扉を開いた。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시죠?”

「どうしたの？」

야스코의 물음에 기시타니는 머리를 숙여 ㄴ다。

야스코의 물음에 기시他니는 머리를 숙였다。

야스코의 물음에 기시타니는 머리를 숙였다。

ヤスコの問いに岸谷は頭を下げた。

“죄송하 ㅅ니다만, 영화 건 말이 ㄴ데요……。

“罪悚합니다만, 映畵 件 末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영화 건 말인데요……。

「申し訳ありませんが、映画は言いますが……」 ……。

야스코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려 ㄴ다。

야스코는 저도 모르게 眉間을 찌푸렸다。

야스코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ヤスコは私も知らずに眉間を刺した。

경찰이 영화관에 가ㄴ 일에 대해 집요하게 물으러 오ㄴ 거라던 이시가미의 말
이 틀리지 않아ㄴ구나 싶어ㄴ다。

警察이 映画館에 간 일에 對해 執拗하게 물으러 올 거라던 此時加味の 말
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다。

경찰이 영화관에 간 일에 대해 집요하게 물으러 올 거라던 이시가미의 말
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다。

警察が映画館に行ったことについて執拗に尋ねに来ると言われた石神の言葉
が間違っていなかったと思った。

“뭐ㄴ 또 물으시려는 거죠? 이제 더는 말씀드리ㄴ 것도 없는데요。

“월 또 물으시려는 거죠? 이제 더는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요。

“월 또 물으시려는 거죠? 이제 더는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요。

「何を尋ねたいですか? もうこれ以上申し上げることもありません。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よく知っています。

오늘은 남으ㄴ 표 반쪽을 잠깐 빌려 가ㄴ까 하는데요。

오늘은 남은 票 半쪽을 잠깐 빌려 갈까 하는데요。

오늘은 남은 票 半쪽을 잠깐 빌려 갈까 하는데요。

今日は残りの切符の半分をちょっと貸していくかな。

“남으 票요? 영화票 말이 ㅅ가요?”

“남은 票요? 映畵票 末인가요?”

“남은 票요? 영화票 말인가요?”

「残っている? 映画の表です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지난번에 보여 주셔 ㅅ으 ㅅ 때 구사나기 선배가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드려 ㅅ던
거 ㅅ로 아는데요。

지난番에 보여 주셨을 때 驅使나기 先輩가 잘 保管해 달라고 付託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지난번에 보여 주셨을 때 구사나기 선배가 잘 보관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前回見せてくださった時、草薙先輩がよく保管してほしいとお願いしたこと

を知っています。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야스코는 찬장 서랍을 열어^ㅅ다。

야스코는 饌櫥 서랍을 열었다。

야스코는 찬장 서랍을 열었다。

ヤスコは食器棚引き出しを開いた。

지난번에 형사들에게 보여 주어^ㅅ으^ㄴ 때는 팸플릿 사이에 들어 있어^ㅅ는데 그

후에 서랍 쪽으로 옮겨 놓아^ㅅ다。

지난番에 刑事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는 팸플릿 사이에 들어 있었^ㄴ데 그

後에 서랍 쪽으로 옮겨 놓았^ㄴ다。

지난번에 형사들에게 보여 주었을 때는 팸플릿 사이에 들어 있었^ㄴ데 그

후에 서랍 쪽으로 옮겨 놓았^ㄴ다。

前回刑事に見せてくれた時はパンフレットの間に入っていたが、その後引き出しの方に移しておいた。

미사토의 것까지 두 장의 영화표를 형사에게 건네^ㅅ다。

미사討議 것까지 두 張의 映畫票을 刑事에게 건넸다.

미사토의 것까지 두 장의 영화표를 형사에게 건넸다.

ミサトのものまで二枚の映画票を刑事に渡した。

기시타니가 고맙다며 받아 들어ㅅ다.

기시他니가 고맙다며 받아 들었다.

기시타니가 고맙다며 받아 들었다.

岸谷がありがとうと受け入れた。

그는 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있어ㅅ다.

그는 손에 하얀 掌匣을 끼고 있었다.

그는 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

彼は手に白い手袋を着ていた。

“역시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亦是 저를 疑心하시는군요.

“역시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やっぱり私を疑われますね。

야스코가 노골적으로 물어ㅅ다.

야스코가 露骨的으로 물었다.

야스코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ヤスコが露骨に尋ねた。

아니 **ㅂ**니다, 라며 기시타니는 손사래를 쳐**ㅅ**다.

아닙니다, 라며 기시**他**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라며 기시타니는 손사래를 쳤다.

いいえ、と言って岸谷は手を消した。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容疑者の 範圍가 좁혀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容疑者の範圍が狭くならず、子供を食べています。

그래서 혐의가 없는 사람을 하나씩 용의선상에서 지워 나가려고요.

그래서 嫌疑가 없는 사람을 하나씩 用의船上에서 지워 나가려고요.

그래서 혐의가 없는 사람을 하나씩 용의선상에서 지워 나가려고요.

それで容疑のない人をひとつずつ容疑線上で消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

영화표를 빌리는 것도 그 때문이 **ㅂ**니다.

映畫票를 빌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영화표를 빌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映画票を借りるのもそのためです。

“영화표로 뭐ㄴ가를 아ㄴ 수 있나요?”

“映畫票로 뭔가를 알 수 있나요?”

“영화표로 뭔가를 알 수 있나요?”

「映画の表で何かがわかりますか？」

“그거ㄴ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참고가 되ㄴ지도 몰라서요。”

“그건 確實히 말씀드리기 困難하지만 參考가 될지도 몰라서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참고가 될지도 몰라서요。”

「それは確かに申し訳ありませんが、参考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두 분이 그날 영화관에 가ㄴ다는 사실을 증명하ㄴ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

두 분이 그날 映畫館에 갔다는 事實을 證明할 수 있다면 第一 좋겠는데…

…。

두 분이 그날 영화관에 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

二人がその日映画館に行ったという事実を証明できれば一番いいのに…。

…。

그 이후로 생각나시ㄴ 거ㄴ 없습니까?”

그 以後로 생각나신 건 없습니까?”

그 이후로 생각나신 건 없습니까?”

それ以来考え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

“아뇨, 지난번에 말씀드리ㄴ 것 외에는……。

“아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外에는……。

“아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いや、前回申し上げた以外は…」 …。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기시타니는 집 안을 슬쩍 둘러보아ㄴ다。

기시他니는 집 안을 슬쩍 둘러보았다。

기시타니는 집 안을 슬쩍 둘러보았다。

岸谷は家の中をそっと見回した。

“집이 늘 서늘하네요。

“집이 늘 서늘하네요。

“집이 늘 서늘하네요.

「家がいつも涼しいですね。

댁에서는 전기 고타쓰를 해마다 사용하시니까?”

宅에서는 電氣 고타쓰를 해마다 使用하십니까?”

댁에서는 전기 고타쓰를 해마다 사용하십니까?”

お宅では電氣のこたつを毎年使っていますか？」

“고타쓰요? 네, 뭐…….

“고타쓰요? 네, 뭐…….

“고타쓰요? 네, 뭐…….

「こたつ？はい、まあ… …。

야스코는 동요하는 모습을 형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타쓰 쪽을 돌아보았다.

야스코는 動搖하는 모습을 刑事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타쓰 쪽을 돌아보았다.

야스코는 동요하는 모습을 형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타쓰 쪽을 돌아보았다.

ヤスコは動揺する姿を刑事にバレないように、小達方を振り返った。

그가 고타쓰를 화제에 올리 ㄴ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겨져 ㄴ다.

그가 고타쓰를 話題에 올린 것이 偶然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가 고타쓰를 화제에 올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彼がコタツを話題に上げたのが偶然ではないと考えられた。

“이 고타쓰는 언제부터 사용하셔 ㄴ습니까?”

“이 고타쓰는 언제부터 使用하셨습니다까?”

“이 고타쓰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다까?”

「この御達津はいつから使用しましたか？」

“글쎄요…… 벌써 사오 년 돼 ㄴ 거예요。”

“글쎄요…… 벌써 四五 年 됐을 거예요。”

“글쎄요…… 벌써 사오 년 됐을 거예요。”

「まあ… …もう買って年になったはずですよ。」

그거 ㄴ 왜요?”

그건 왜요?”

그건 왜요?”

それはなぜですか？」

“아뇨, 특별하 ㄴ 뜻은 없습니다。”

“아뇨, 特別한 뜻은 없습니다。”

“아뇨,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いいえ、特別な意味はありません。

기시타니가 고개를 저어ㄴ다。

기시타니가 고개를 저었다。

기시타니가 고개를 저었다。

岸谷が首を振った。

“그런데 오늘은 일이 끝나 ㄴ 후 어디에 가ㄴ다 오셔ㄴ습니까? 귀가가 늦으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오늘은 일이 끝난 後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歸家が 늦으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오늘은 일이 끝난 후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귀가가 늦으시는
것 같던데요。

「しかし、今日は仕事が終わった後、どこに行きましたか？帰りが遅れてい
るようです。

생각지 못하 ㄴ 질문에 야스코는 멈칫해ㄴ다。

생각지 못한 質問에 야스코는 멈칫했다。

생각지 못한 질문에 야스코는 멈칫했다。

思わぬ質問にヤスコは止まった。

동시에 형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_ㅆ다는 것을 깨달아_ㅆ다。

同時に 刑事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형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同時に刑事が家の前で待っていたことに気づいた。

그렇다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아_ㅆ으_ㄴ지 모르_ㄴ다。

그렇다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았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았을지 모른다。

それならタクシーで降りる姿も見たかもしれない。

괜하_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_ㅆ다。

괜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괜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大丈夫な嘘をついてはいけないと思った。

“아는 분과 식사하러 가_ㅆ었어요。

“아는 分科 食事하러 갔었어요。

“아는 분과 식사하러 갔었어요。

「知っている方と食事に行きました。

더 자세하_ㄴ 이야기는 묻지 않아_ㅆ으면 싶어_ㅆ지만 형사가 이 정도 대답에 만

족하 ㄴ 리 없어 ㄴ 다。

더 仔細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刑事가 이 程度 對答에 滿足
할 理 없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형사가 이 정도 대답에 만족
할 리 없었다。

もっと詳しい話は聞かなかったらと思ったが刑事がこれほど答えに満足する
はずはなかった。

“택시로 야스코 씨를 바라다주 ㄴ 남자 말이 ㄴ 데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죠? 폐
가 되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셔 ㄴ 으면 하 ㄴ 니다。

“택시로 야스코 氏를 바라다준 男子 末인데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죠? 肺
가 되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택시로 야스코 씨를 바라다준 남자 말인데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죠? 폐
가 되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タクシーでヤスコさんを望んでくれた男のことですが、どうやって知って
いますか？迷惑にならない場合は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

기시타니는 미안하 ㄴ 표정을 지어 ㄴ 다。

기시他니는 未安한 表情을 지었다。

기시타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岸谷はすみません。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そんなことまで申し上げるべきですか？」

“아니, 그러니까 폐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 ㅂ니다.

“아니, 그러니까 肺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いや、だから迷惑にならないなら言葉です。

실례이 ㄴ 줄은 알지만, 여쭙보지 않으 ㄴ 채 돌아가면 상사에게 한 소리 듣거든요.

失禮인 줄은 알지만, 여쭙보지 않은 채 돌아가면上司에게 한 소리 듣거든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여쭙보지 않은 채 돌아가면 상사에게 한 소리 듣거든요.

失礼なことは分かりますが、余り見ていないまま帰れば上司に一声聞きますよ。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 없으 ㄴ 테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相對方을 귀찮게 하는 일은 絶對 없을 테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相手を気にすることは絶対ないから教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어ㄴ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ヤスコはため息をついた。

“구도라는 분이에요。

“構圖라는 분이에요。

“구도라는 분이에요。

「構図という方です。

전에 제가 일하던 가게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ㄴ데, 이번 사건으로 제가 충격을

받지나 았아ㄴ는지 걱정돼서 찾아오시ㄴ 거예요。

前に 제가 일하던 가게에 자주 오시던 손님인데, 이番 事件으로 제가 衝擊

을 받지나 았았는지 걱정돼서 찾아오신 거예요。

전에 제가 일하던 가게에 자주 오시던 손님인데, 이번 사건으로 제가 충
격을 받지나 았았는지 걱정돼서 찾아오신 거예요。

前に私が働いていたお店によく来ていたお客様ですが、今回の事件で私が衝
撃を受けていなかったのか心配されて来てくれました。

“뭐 ㄴ 하는 분이시죠?”

“월 하는 분이시죠?”

“월 하는 분이시죠?”

「何をする方ですか？」

“인쇄 회사를 경영하 ㄴ 다고 들어 ㄴ는데 자세하 ㄴ 거 ㄴ 저도 몰라요。

“印刷 會社를 經營한다고 들었는데 仔細한 건 저도 몰라요。

“인쇄 회사를 경영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印刷会社を經營すると聞いたのですが、詳しくは私も知りません。

“연락처는 아시 ㄴ니까?”

“連絡處는 아십니까?”

“연락처는 아십니까?”

「連絡先はご存知ですか？」

기시타니의 질문에 야스코는 다시 눈썹을 찌푸려 ㄴ다。

기시타니의 質問에 야스코는 다시 눈썹을 찌푸렸다。

기시타니의 질문에 야스코는 다시 눈썹을 찌푸렸다。

岸谷の質問に、ヤスコは再び眉毛を刺した。

그 모습을 보 ㄴ 기시타니가 머리를 연신 꾸벅거리 ㄴ다。

그 모습을 본 기시他니가 머리를 연신 꾸벅거렸다.

그 모습을 본 기시타니가 머리를 연신 꾸벅거렸다.

その姿を見た岸谷が頭を伸ばしていた。

“어지간히 급하ㄴ 일이 아니고서는 그분께 연락을 하지 않으ㄴ 거ㄴ니다.

“어지간히 急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분께 連絡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분께 연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あまりにも緊急なことではなく、彼に連絡を取らないでしょう。

만일 그러ㄴ 필요가 생기ㄴ다 해도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萬一 그럴 必要가 생긴다 해도 失禮를 犯하지 않도록 操心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필요가 생긴다 해도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もしそうする必要があっても、失礼を犯さ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す。

야스코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ㄴ 채 말없이 자신의 휴대 전화를 집어 들고 구도의 번호를 찾아 가르쳐 주어ㅆ다.

야스코는 不快感을 감추지 않은 채 말없이 自身の 携帯 電話를 집어 들고 構圖의 番號를 찾아 가르쳐 주었다.

야스코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말없이 자신의 휴대 전화를 집어 들고 구도의 번호를 찾아 가르쳐 주었다.

ヤスコは不快感を隠さずに言葉なしに自分の携帯電話を拾い、構図の番号を

見つけて教えてくれた。

형사가 재빨리 그것을 메모해냈다。

刑事が 재빨리 그것을 메모했다。

형사가 재빨리 그것을 메모했다。

刑事がすぐにそれをメモした。

그런 후에도 기시타니는 공손하ㄴ 태도로 구도에 대해 시시콜콜 캐물어냈다。

그런 後에도 기시他니는 恭遜한 態度로 構圖에 對해 시시콜콜 캐물었다。

그런 후에도 기시타니는 공손한 태도로 구도에 대해 시시콜콜 캐물었다。

その後も岸谷は丁寧な態度で構図に対してシシコールコールキャッチした。

결국 야스코는 구도가 처음으로 베ㄴ테ㄴ테이에 나타나ㄴ 날의 일까지 이야기

하ㄴ 수밖에 없어냈다。

結局 야스코는 構圖가 처음으로 벤텐테이에 나타난 날의 일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야스코는 구도가 처음으로 벤텐테이에 나타난 날의 일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結局、ヤスコは構図が初めてベンテンテーに現れた日の日まで話すしかなかった。

기시타니가 돌아가자 야스코는 문을 잠그ㄴ 다음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아

ㄴ다。

기시他니가 돌아가자 야스코는 門을 잠근 다음 玄關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
았다。

기시타니가 돌아가자 야스코는 문을 잠근 다음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
았다。

岸谷が帰ると、ヤスコは扉を締め、玄関にそのまま座り込んでしまった。

신경이 너덜너덜해지 ㄴ 느낌이어ㄴ다。

神經이 너덜너덜해진 느낌이였다。

신경이 너덜너덜해진 느낌이였다。

神經がボロボロになった感じだった。

잠시 후 안쪽 방 칸막이 문이 열리고 미사토가 나와ㄴ다。

暫時 後 안쪽 房 칸막이 門이 열리고 미사토가 나왔다。

잠시 후 안쪽 방 칸막이 문이 열리고 미사토가 나왔다。

しばらくすると、奥の部屋の仕切りの扉が開き、ミサトが出た。

“우리가 정말로 영화를 봐ㄴ는지 아직도 의심하는 모양이네。

“우리가 正말로 映畫를 봤는지 아직도 疑心하는 模様이네。

“우리가 정말로 영화를 봤는지 아직도 의심하는 모양이네。

「私たちが本当に映画を見たのか、まだ疑っているようだ。

전부 이시가미 씨가 예상하 ㄴ 대로야.

全部 이時가美 氏が 豫想한 대로야.

전부 이시가미 씨가 예상한 대로야.

全部石神さんが予想した通りだ.

그 아저씨 대단해.

그 아저씨 대단해.

그 아저씨 대단해.

そのおじさんすごい.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そう.

야스코는 그제야 겨우 일어서서 앞머리를 끌어 올리며 안으로 들어와 ㅅ 다.

야스코는 그제야 겨우 일어서서 앞머리를 끌어 올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야스코는 그제야 겨우 일어서서 앞머리를 끌어 올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ヤスコは、やっと立ち上がって前髪を引き上げながら中に入ってきた.

“엄마, 베 ㄴ 테 ㄴ 테이 사람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 ㄴ 거 아니어 ㅅ 어?”

“엄마, 벤텐테이 사람들이랑 저녁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

“엄마, 벤텐테이 사람들이랑 저녁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

「お母さん、弁天亭の人々と夕食を食べに行かなかった？」

미사토의 말에 야스코는 뜨끔해서 고개를 들어ㄴ다。

미사討議 末에 야스코는 뜨끔해서 고개를 들었다。

미사토의 말에 야스코는 뜨끔해서 고개를 들었다。

ミサトの言葉に、ヤスコはすっきりして頭を上げた。

힐난하는 듯하ㄴ 딸의 얼굴이 눈앞에 있어ㄴ다。

詰難하는 듯한 딸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힐난하는 듯한 딸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ヒルナンするような娘の顔が目の前にあった。

“들어ㄴ니?”

“들었니?”

“들었니?”

「聞いた？」

“당연하지。

“當然하지。

“당연하지。

「当然じゃな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そうだね。

야스코는 고개를 숙이 ㄴ 채 고타쓰에 다리를 집어넣어 ㄴ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인 채 고타쓰에 다리를 집어넣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숙인 채 고타쓰에 다리를 집어넣었다。

靖子は頭を下げたまま小達に足を入れた。

형사가 고타쓰에 대해 묻던 일이 떠올라 ㄴ다。

刑事が 고타쓰에 對해 묻던 일이 떠올랐다。

형사가 고타쓰에 대해 묻던 일이 떠올랐다。

刑事がコタツについて尋ねたことが浮かんだ。

“왜 이러 ㄴ 때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가고 그래?”

“왜 이럴 때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가고 그래?”

“왜 이럴 때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가고 그래?”

「なぜこんな時にその人とご飯を食べに行ってしまう？」

“거절하기가 힘들어ㅆ어。

“拒絕하기가 힘들었어。

“거절하기가 힘들었어。

「拒絕するのは大変でした。

예전에 신세를 많이 저ㅆ거든。

예전에 신세를 많이 졌거든。

예전에 신세를 많이 졌거든。

以前にお世話になったんだ。

게다가 우리가 걱정돼서 찾아오ㄴ 거라 말이지。

게다가 우리가 걱정돼서 찾아온 거라 말이지。

게다가 우리가 걱정돼서 찾아온 거라 말이지。

しかも私たちが気になって訪ねてきたんだな。

말하지 않으ㄴ 거ㄴ 미안해。

말하지 않은 건 未安해。

말하지 않은 건 미안해。

言っていないのは申し訳ありません。

“나야 상관없지만……。

“나야 相關없지만……。

“나야 상관없지만……。

「私は関係ないけど……」 ... 。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려ㄴ다 달히는 소리가 들려ㄴ다。

그때 옆집 玄關門이 열렸다 달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렸다 달히는 소리가 들렸다。

その時、隣の玄關門が開かれ、閉じる音が聞こえた。

그리고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이어져ㄴ다。

그리고 발소리가 階段 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이어졌다。

そして足音が階段側に続いた。

야스코는 딸과 얼굴을 마주 보아ㄴ다。

야스코는 딸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야스코는 딸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ヤスコは娘と顔に面した。

“휴대 전화 전원!”

“携帯 電話 全員!”

“휴대 전화 전원!”

「携帯電話電源！」

미사토가 말해ㄴ다。

미사토가 말했다。

미사토가 말했다。

ミサトが言った。

“켜져 있어。

“켜져 있어。

“켜져 있어。

「ついてるよ。

야스코가 대답해ㄴ다。

야스코가 對答했다。

야스코가 대답했다。

ヤスコが答えた。

그로부터 몇 분 후 그녀의 휴대 전화가 울려ㄴ다。

그로부터 몇 分 後 彼女の 携帯 電話가 울렸다。

그로부터 몇 분 후 그녀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それから数分後、彼女の携帯電話が鳴った。

이시가미는 늘 가던 공중전화 부스에 있어ㄴ다。

이時加味는 늘 가던 公衆電話 부스에 있었다。

이시가미는 늘 가던 공중전화 부스에 있었다。

石神はいつも行っていた公衆電話ブースにあった。

오늘 밤 여기서 세 번째 거는 전화여ㄴ다。

오늘 밤 여기서 세 番째 거는 電話였다。

오늘 밤 여기서 세 번째 거는 전화였다。

今夜ここで3回目は電話だった。

앞의 두 번은 야스코의 휴대 전화로 연결되지 않아ㄴ다。

앞의 두 番은 야스코의 携帯 電話로 連結되지 않았다。

앞의 두 번은 야스코의 휴대 전화로 연결되지 않았다。

前の二度は、ヤスコの携帯電話につながっていない。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ㄴ기에 무슨 사고라도 나ㄴ 게 아니ㄴ지 걱정

스러워ㄴ는데 야스코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그런 일은 없는 듯해ㄴ다。

只今까지 이런 일이 한 番도 없었기에 무슨 事故라도 난 게 아닌지 걱정스

러웠는데 야스코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그런 일은 없는 듯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에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닌지 걱정스러웠는데 야스코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그런 일은 없는 듯했다。

今までこんなことが一度もなかったので、どんな事故でも私はないのか心配だったが、ヤスコの声を聞いてみるとそんなことはないようだった。

늦은 시간에 하나오카 모녀의 집 현관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는데 역시 형사이니 듯해다。

늦은 시간에 河나오카 母女의 집 玄關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亦是 刑事인 듯했다。

늦은 시간에 하나오카 모녀의 집 현관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역시 형사인 듯했다。

遅い時間に花岡母女の家玄関ベルが鳴る音が聞こえたが、やはり刑事らしい。

그들이 남은 영화표 반쪽을 빌려 달라고 하 모양이다。

그들이 남은 映畫票 半쪽을 빌려 달라고 한 模樣이다。

그들이 남은 영화표 반쪽을 빌려 달라고 한 모양이다。

彼らが残った映画票の半分を貸してもらったようだ。

그들이 그러한 목적을 이시가미는 아 것 같아다。

그들이 그러한 目的을 이時加味는 알 것 같았다。

그들이 그러한 목적을 이시가미는 알 것 같았다。

彼らがそうする目的を石神は知っているようだった。

영화관에 보관되어 있는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 ㄴ 작정이 ㄴ 것이다。

映畫館에 保管되어 있는 나머지 半쪽과 맞추어 볼 作定인 것이다。

영화관에 보관되어 있는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볼 작정인 것이다。

映画館に保管されている残りの半分と合わせて見ることができるのだ。

그녀가 건네주 ㄴ 반쪽짜리와 절취선이 딱 들어맞는다면 거기에 묻은 지문을
조사해 보 ㄴ 것이 분명해 ㄴ 다。

그女가 건네준 半쪽짜리와 절취線이 딱 들어맞는다면 거기에 묻은 地文을
調査해 볼 것이 分明했다。

그녀가 건네준 반쪽짜리와 절취선이 딱 들어맞는다면 거기에 묻은 지문을
조사해 볼 것이 분명했다。

彼女が渡した半分と切り取り線がぴったり合ったら、そこに埋め込まれた指
紋を調べてみるのが明らかだった。

만일 야스코의 지문이 묻어 있다면 영화를 봐 ㄴ는지 안 봐 ㄴ는지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화관에 가 ㄴ 사실만은 증명되 ㄴ 다。

萬一 야스코의 地文이 묻어 있다면 映畫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確認되지
않더라도 映畫館에 간 事實만은 證明된다。

만일 야스코의 지문이 묻어 있다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화관에 간 사실만은 증명된다。

もし、ヤスコの指紋が埋まっていると映画を見たのか見なかったかは確認されなくても映画館に行った事実だけは証明される。

그러나 만일 야스코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녀에 대한 의혹은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나 萬一 야스코의 地文이 나오지 않는다면 母女에 對한 疑惑은 한層 커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야스코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녀에 대한 의혹은 한층 커질 것이다。

しかし、もしヤスコの指紋が出なければ母娘に対する疑惑は一層大きくなるだろう。

또 야스코의 이야기로는 형사가 고타쓰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어냈다고 한다。

또 야스코의 이야기로는 刑事가 고타쓰에 對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또 야스코의 이야기로는 형사가 고타쓰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한다。

また、ヤスコの話では刑事がコタツに対しても串焼きキャッチだったという。

그것 또한 이시가미가 이미 예상해냈던 일이다。

그것 또한 이時加味가 이미 豫想했던 일이다.

그것 또한 이시가미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それも石神がすでに予想していたことだ。

“아마도 흥기가 무엇이어서인지 알아내셨으니까 겁니다.

“아마도 凶器가 무엇이었는데도 알아냈을 겁니다.

“아마도 흥기가 무엇이었는데도 알아냈을 겁니다.

「おそらく凶器が何であったのかを考え出したでしょう。

“흥기라니……。

“凶器라니……。

“흥기라니……。

「凶器って… …。

“전기 고타쓰의 코드 말이니까.

“電氣 고타쓰의 코드 末입니다.

“전기 고타쓰의 코드 말입니다.

「電氣コタツのコードです。

그거 ㄹ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使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それを使用しませんでしたか。

수화기 너머의 야스코는 대답이 없어ㄴ다。

受話器 너머의 야스코는 對答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야스코는 대답이 없었다。

受話器越しのヤスコは答えがなかった。

도가시를 목 졸라 죽이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ㄴ 일이어ㄴ다。

道が市를 목 졸라 죽이던 場面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도가시를 목 졸라 죽이던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嵯峨を喘ぎ殺した場面を思い浮かべているのも分からないことだった。

“사람을 목 졸라 죽이면 흉기의 흔적이 목에 남습니다。

“사람을 목 졸라 죽이면 凶器의 痕跡이 목에 남습니다。

“사람을 목 졸라 죽이면 흉기의 흔적이 목에 남습니다。

「人を喉を倒して殺すと、凶器の痕跡が首に残ります。

완곡하ㄴ 표현을 고르ㄴ 때가 아니어ㄴ다。

婉曲한 表現을 고를 때가 아니었다。

완곡한 표현을 고를 때가 아니었다。

曲げた表現を選ぶ時ではなかった。

“과학 수사가 발달해 그 흔적으로 흉기를 거의 알아맞히 ㄴ 수 있습니다。

“科學 搜查가 發達해 그 痕跡으로 凶器를 거의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과학 수사가 발달해 그 흔적으로 흉기를 거의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科学捜査が発達し、その痕跡に凶器をほとんど当てはめ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형사가 고타쓰에 대해……。

“그래서 刑事가 고타쓰에 對해……。

“그래서 형사가 고타쓰에 대해……。

「だから刑事が小達について……」 ……。

“그러 ㄴ 거 ㄴ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そうでしょう。

하지만 걱정하시 ㄴ 거 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でも心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손을 써 두었으니깐요。

그 問題에 對해서는 이미 손을 써 두었으니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손을 써 두었으니깐요。

その問題についてはすでに手を書いておいたからです。

경찰이 흉기를 알아내리라는 것도 이시가미는 예상하고 있어ㄴ다。

警察이 凶器를 알아내리라는 것도 이時加味는 豫想하고 있었다。

경찰이 흉기를 알아내리라는 것도 이시가미는 예상하고 있었다。

警察が凶器を調べるというのも石神は予想していた。

그래서 그는 하나오카의 집에 있는 전기 고타쓰를 자신의 것과 바꾸어 놓아ㄴ다。

그래서 그는 하나오카의 집에 있는 電氣 고타쓰를 自身の 것과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오카의 집에 있는 전기 고타쓰를 자신의 것과 바꾸어 놓았다。

それで彼は花岡の家にある電機のこたつを自分のものと変えた。

그녀의 집에 있던 전기 고타쓰는 지금 그의 집 벽장에 들어가 있다。

그女의 집에 있던 電氣 고타쓰는 只今 그의 집 壁櫥에 들어가 있다。

그녀의 집에 있던 전기 고타쓰는 지금 그의 집 벽장에 들어가 있다.

彼女の家にあった電気コタツは今彼の家のクローゼットに入っている。

다행히 그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 고타쓰의 코드는 그녀의 것과 다르니 타입이
어썬다。

多幸히 그가 元來 갖고 있던 電氣 고타쓰의 코드는 그녀의 것과 다른 타입
이었다。

다행히 그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 고타쓰의 코드는 그녀의 것과 다른 타입
이었다。

幸いにも彼が元々持っていた電気コタツのコードは彼女のものとは違ったタイプ
이었다。

형사가 전기 코드에 주목해썬다면 그 점을 금방 알아차려썬으ㄴ 것이다。

刑事가 電氣 코드에 注目했다면 그 點을 今方 알아차렸을 것이다。

형사가 전기 코드에 주목했다면 그 점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刑事が電氣コードに注目したら、その点にすぐ気づいただろう。

“그 밖에 형사가 또 뭐ㄴ 물어썬나요?”

“그 밖에 刑事가 또 뭘 물었나요?”

“그 밖에 형사가 또 뭘 물었나요?”

「他に刑事がまた何を尋ねましたか？」

“그 밖에는……。

“그 밖에는……。

“그 밖에는……。

「他には… …。

그러고서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려^ㄴ다。

그러고서 그女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고서 그녀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そして彼女は口を閉じてしまった。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こんにちは。

하나오카 씨?”

하나오카 氏?”

하나오카 씨?”

花岡さん？」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なぜそうですか？」

“아니, 아무것도 아니 **ㅂ**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いいえ、何もあります。

형사가 뭐 **ㅂ** 물어**ㅅ**는지 생각하느라고요.

刑事가 뭘 물었는지 생각하느라고요.

형사가 뭘 물었는지 생각하느라고요.

探偵が何を尋ねたのかと思います。

그 외에는 특별하 **ㄴ** 게 없**어ㅅ**어요.

그 外에는 特別한 게 없**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他には特別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영화관에 가 ㄴ 사실을 증명하 ㄴ 수 있다면 혐의가 풀리 ㄴ 거라는 얘기를 해 ㄴ
으 ㄴ 뿐이에요。

映畫館에 간 事實을 證明할 수 있다면 嫌疑가 풀릴 거라는 얘기를 했을 뿐
이에요。

영화관에 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혐의가 풀릴 거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映画館に行った事実を証明できれば、疑いが解けるだろうという話をしただ
けです。

“그들은 영화관에 집착하 ㄴ 거 ㄴ니다。

“그들은 映畫館에 執着할 겁니다。

“그들은 영화관에 집착할 겁니다。

「彼らは映画館に執着するでしょう。

그렇게 되도록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 ㄴ으니 당연한 일이 ㄴ니다。

그렇게 되도록 計算해서 計劃을 세웠으니 當然한 日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そうなるように計算して計画を立てたので当然のことです。

걱정하시 ㄴ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必要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心配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이시가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이時가美 氏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安心이 되네요。

“이시가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石上さんがそう言ってくださると安心になりますね。

야스코의 말에 이시가미는 가슴속에 등불이 켜지 ㄴ 듯하 ㄴ 느낌이 들어 ㅅ 다。

야스코의 말에 이時加味는 가슴속에 燈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야스코의 말에 이시가미는 가슴속에 등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康子の言葉に石神は胸の中に灯りがついたような感じがした。

하루 종일 팽팽해 ㅅ 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아 ㅅ 다。

하루 終日 팽팽했던 緊張感이 한瞬間에 풀리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다。

一日中緊張した緊張感が一瞬でほぐれるようだった。

그래서이 ㄴ 지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 ㄴ 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 ㅅ 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에 對해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다.

だからか、その人について尋ねるかという考えもよく聞いた。

유가와와 벤텐테이에 갔을 때 중간에 들어온 남자 손님 말이다.

有價와와 벤텐테이에 갔을 때 中間에 들어온 男子 손님 末이다.

유가와와 벤텐테이에 갔을 때 중간에 들어온 남자 손님 말이다.

湯川と弁天亭に行ったとき、途中に入ってきた男の客だ。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야스코를 택시로 바래다주어갔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알고 있어갔다.

오늘 밤에도 그 男子가 야스코를 택시로 바래다주었다는 것을 이時加味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야스코를 택시로 바래다주었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알고 있었다.

今夜もその男がヤスコをタクシーで望んでくれたことを石神は知っていた。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갔던 것이다.

窓門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窓からその姿を見守っていたのだ。

“제가 드리ㄴ 말씀은 이 정도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程度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 程度예요。

「私が申し上げる言葉はこの程度です。

이시가미 씨는 하시 ㄴ 말씀이 있으시 ㄴ가요?”

이시가미 氏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시가미 씨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石神さんは言うことがありますか？」

그가 잠시 말이 없자 야스코 쪽에서 먼저 물어 ㄴ다。

그가 暫時 말이 없자 야스코 쪽에서 먼저 물었다。

그가 잠시 말이 없자 야스코 쪽에서 먼저 물었다。

彼がしばらく言葉がなかったので、ヤスコ側で先に尋ねた。

“특별하 ㄴ 거 ㄴ 없습니다。

“特別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特別なことはありません。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되 ㄴ니다。

只今까지 하던 대로 自然스럽게 生活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今までやってきたように自然に生活してください。

한동안 형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안 刑事가 이런저런 質問을 하겠지만, 重要な 건 唐慌하지 않는 겁니다.

한동안 형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しばらく刑事がこんな質問をしますが、重要なのは慌てないのです。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はい、よくわかります。

“그럼 따님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고요.

“그럼 따님에게도 安否 傳해 주시고요.

“그럼 따님에게도 안부 전해 주시고요.

「じゃあ娘さんに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야스코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내려 놓아^ㅅ다。

安寧히 주무세요, 라는 야스코의 人事말을 들으면서 이時加味는 受話器를 내려놓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야스코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이시가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さようなら、主よ、というヤスコの挨拶を聞きながら石神は受話器を降ろした。

공중전화기가 전화 카드를 토해 내^ㅅ다。

空中電話機가 電話 카드를 吐해 냈다。

공중전화기가 전화 카드를 토해 냈다。

公衆電話が電話カードを吐き出した。

구사나기의 보고를 듣고 마미야는 노골적으로 실망의 기색을 드러내^ㅅ다。

驅使나기의 報告를 듣고 마미야는 露骨的으로 失望의 氣色을 드러냈다。

구사나기의 보고를 듣고 마미야는 노골적으로 실망의 기색을 드러냈다。

草薙の報告を聞いて真宮は露骨に失望の気配を表わした。

그는 의자에 앉으 ㄴ 채 자신의 어깨를 문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들어 ㅆ 다。

그는 椅子에 앉은 채 自身の 어깨를 문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자신의 어깨를 문지르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彼は椅子に座ったまま自分の肩をこすりながら体を前後に振った。

“그럼 그 구도라는 남자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재회하 ㄴ 거 ㄴ 역시 사건이 일어나 ㄴ 다음이라 이 말이 ㄴ 가? 틀림없어?”

“그럼 그 構圖라는 男子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再會한 건 亦是 事件이 일어난 다음이라 李 末인가? 틀림없어?”

“그럼 그 구도라는 남자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재회한 건 역시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라 이 말인가? 틀림없어?”

「では、その構図という男が花岡康子と再会したのは、やはり事件が起きた次のことなのか？間違いない？」

“도시락 가게 사장 부부의 말을 들어 보 ㄴ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락 가게 社長 夫婦의 말을 들어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락 가게 사장 부부의 말을 들어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お弁当屋社長夫婦の言葉を聞いたのはそんなようです。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ㅆ 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彼らが嘘をついているよ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구도가 처음 가게에 찾아와왔을 때 야스코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더랍니다。

構圖가 처음 가게에 찾아왔을 때 야스코 亦是 自身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더랍니다。

구도가 처음 가게에 찾아왔을 때 야스코 역시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더랍니다。

構図が初めて店に訪れた時、ヤスコも自分たちと同じくびっくりしました。

물론 연기이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요。

勿論 演技일 可能性도 考慮해야겠지만요。

물론 연기일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요。

もちろん演技である可能性も考慮すべきですが。

“그 여자, 호스티스 출신이잖아。

“그 女子, 호스티스 出身이잖아。

“그 여자, 호스티스 출신이잖아。

「あの女、ホスティス出身じゃない。

연기를 잘하 거야。

演技를 잘할 거야。

연기를 잘할 거야。

演技を上手にします。

일단 그 구도라는 남자를 좀 더 조사해 보지。

一旦 그 構圖라는 男子를 좀 더 調査해 보지。

일단 그 구도라는 남자를 좀 더 조사해 보지。

一度その構図という男をもう少し調べてみよう。

사건 직후에 갑자기 나타나 ㄴ 것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

事件 直後に 갑자기 나타난 것도 타이밍이 너무 絶妙하지 않아?”

사건 직후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

事件直後に突然現れたのもタイミングが絶妙すぎない？」

“하나오카 야스코의 말로는 구도가 사건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찾아와 ㄴ다고 하던데요。

“하나오카 야스코의 말로는 構圖가 事件에 對해 알았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던데요。

“하나오카 야스코의 말로는 구도가 사건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던데요。

「花岡康子の言葉では、構図が事件について知ったので訪ねてきたと言いま

した。

그러니까 딱히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偶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だから、特に偶然と言うのは難しいようです。

구사나기 옆에 앉아 있던 기시타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어ㄴ다.

驅使나기 옆에 앉아 있던 기시他니가 操心스럽게 끼어들었다.

구사나기 옆에 앉아 있던 기시타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草薙の隣に座っていた岸谷が慎重に割り込んだ。

“그리고 만일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면 이런 상황에서 만나거나 식사를 하ㄴ
까요?”

“그리고 萬一 두 사람이 共犯 關係라면 이런 狀況에서 만나거나 食事を 할
까요?”

“그리고 만일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면 이런 상황에서 만나거나 식사를 할
까요?”

「そして、もし二人が共犯関係だったら、このような状況で会ったり、食事
をしたりしますか？」

“대담하ㄴ 위장 전술이라고 보ㄴ 수도 있지.

“大膽한 偽裝 戰術이라고 볼 수도 있지。

“대담한 위장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

「大胆な迷彩戰術だと見ることもできる。

구사나기의 의견에 기시타니는 미간을 찌푸려 ㄴ다。

驅使나기의 意見에 기시他니는 眉間을 찌푸렸다。

구사나기의 의견에 기시타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草薙の意見に岸谷は眉間を刺した。

“그야 그럴지만……。

“그야 그럴지만……。

“그야 그럴지만……。

「そうだが……」 ... 。

“구도 본인을 한번 만나 보 ㄴ까요?”

“構圖 本人을 한番 만나 볼까요?”

“구도 본인을 한번 만나 볼까요?”

「構図本人に一度会いましょうか？」

구사나기가 마미야에게 물어 ㄴ다。

驅使나기가 마미야에게 물었다。

구사나기가 마미야에게 물었다.

草薙が真宮に尋ねた。

“그것도 좋겠지.

“그것도 좋겠지.

“그것도 좋겠지.

「それもいいだろう。

사건에 관여해_ㄴ다면 뭐_ㄴ가 냄새를 피우_ㄴ지도 모르니까 한번 만나 봐.

事件に關與했다면 뭔가 냄새를 피울지도 모르니까 한番 만나 봐.

사건에 관여했다면 뭔가 냄새를 피울지도 모르니까 한번 만나 봐.

事件に關与したら何か臭いがするかもしれないので一度会ってみて。

알겠다고 대답하고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그 자리를 물러나_ㄴ다.

알겠다고 對答하고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는 그 자리를 물러났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그 자리를 물러났다.

わかると答え、草薙と岸谷はその場を退いた。

“자네 말이야, 짐작만으로 의견을 내세우면 안 돼.

“자네 末이야, 斟酌만으로 意見を 내세우면 안 돼.

“자네 말이야, 짐작만으로 의견을 내세우면 안 돼.

「お前ら、推測だけで意見を出してはいけない。

범인들이 그거 ㄴ 이용하려는 계획이어ㄴ으 ㄴ 수도 있어。

犯人들이 그걸 利用하려는 計劃이었을 수도 있어。

범인들이 그걸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

犯人がそれを利用しようとする計画だったかもしれない。

구사나기가 후배 형사에게 말해ㄴ다。

驅使나기가 後輩 刑事에게 말했다。

구사나기가 후배 형사에게 말했다。

草薙が後輩刑事に語った。

“그게 무슨 말이 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구도와 하나오카 야스코가 이전부터 깊은 ㄴ 관계여ㄴ는데 그 사실을 숨겨 와

ㄴ으 ㄴ지도 모르 ㄴ다는 말이야。

“構圖와 하나오카 야스코가 以前부터 깊은 關係였는데 그 事實을 숨겨 왔

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구도와 하나오카 야스코가 이전부터 깊은 관계였는데 그 사실을 숨겨 왔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構図と花岡康子が以前から深い関係だったが、その事実を隠してき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だ。

도가시를 죽이는 데에 그거 ㄴ 이용해 ㄴ 수도 있다는 얘기지.

道가市를 죽이는 데에 그걸 利用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도가시를 죽이는 데에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とが市を殺すのにそれを利用し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話だ。

둘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 ㄴ 다면 공범으로서는 안성맞춤이 ㄴ 테니까.

둘의 關係를 아무도 모른다면 共犯으로서는 安城맞춤일 테니까.

둘의 관계를 아무도 모른다면 공범으로서는 안성맞춤일 테니까.

二人の關係を誰も知らないなら共犯としてはぴったりだから。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그 관계를 숨겨야 하지 않으 ㄴ 까요?”

“하지만 萬一 그렇다면 只今도 그 關係를 숨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그 관계를 숨겨야 하지 않을까요?”

「しかし、もしそうなら、今でもその關係を隠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하 ㄴ 수 없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지.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지.

「必ずとはいえない。

남녀관계라는 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니 그러 ㄴ 바에는 이번 기회에 재회 하 ㄴ 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ㄴ 으 ㄴ 지도 몰라。

男女關係라는 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니 그럴 바에는 이番 機會에 再會한 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남녀관계라는 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니 그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재회한 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男女關係というのがいつか明らかになるので、そんなことには今回の機会に 再会したふりをするのがいいと思ったのかもしれない。

기시타니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하 ㄴ 채 고개를 끄덕여 ㄴ 다。

기시他니는 釋然치 않다는 表情을 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기시타니는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岸谷は石然じゃないという表情をしたまま首をうなずいた。

에도가와 경찰서를 나오 ㄴ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와 함께 자신의 차에 올라타 ㄴ 다。

에도가와 警察署를 나온 驅使나기는 기시他니와 함께 自身の 車에 올라탔다。

에도가와 경찰서를 나온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와 함께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江戸川警察署を出た草薙は岸谷と共に自分の車に乗った。

“감식반에서 그러는데, 흉기로 사용되 ㄴ 물건은 전기 코드이 ㄴ 가능성이 높다고 하 ㄴ니다。

“鑑識班에서 그러는데, 凶器로 使用된 物件은 電氣 코드일 可能性이 높다고 합니다。

“감식반에서 그러는데, 흉기로 사용된 물건은 전기 코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感食班でそうですが、凶器として使われたものは電気コードである可能性が高いそうです。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표면이 직물로 감싸이 ㄴ 코드입니다。

좀 더 仔細히 말하자면 表面이 織物로 감싸인 코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표면이 직물로 감싸인 코드입니다。

もっと詳しく言えば、表面が生地で包まれたコードです。

기시타니가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해 ㄴ다。

기시他니가 安全벨트를 매면서 말했다.

기시타니가 안전벨트를 매면서 말했다.

岸谷がシートベルトをつけながら言った。

“아, 전열 기구에 흔히 사용하는 것 말이지?”

“아, 戰列 器具에 흔히 使用하는 것 末이지?”

“아, 전열 기구에 흔히 사용하는 것 말이지?”

「あ、伝熱器具によく使うことなんだろう？」

“네.

“네.

“네.

「はい.

면사로 짜인 𠂆 피복이 코드 표면을 감싸고 있어서 그 결이 교사 𠂆흔으로 남아
있던 모양이 ㅅ니다.

면史로 짜인 被覆이 코드 表面을 감싸고 있어서 그 결이 教師 𠂆흔으로 남
았던 模様입니다.

면사로 짜인 𠂆 피복이 코드 표면을 감싸고 있어서 그 결이 교살흔으로 남아
있던 모양입니다.

綿糸で織られた布がコード表面を包み込んでいて、その結が絞殺痕として残

った模様です。

“그래?”

“그래?”

“그래?”

「え？」

“네。

“네。

“네。

「はい。

하나오카 씨의 방에 있는 고타쓰를 살펴보았는데, 그런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오카 氏の 房에 있는 고타쓰를 살펴보았는데, 그런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오카 씨의 방에 있는 고타쓰를 살펴보았는데, 그런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花岡さんの部屋にあるこたつを見てみましたが、そんなコード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표면에 고무가 입혀지 ㄴ 것이더군요。

表面에 鼓舞가 입혀진 것이더군요。

표면에 고무가 입혀진 것이더군요。

表面にゴムが塗られたものですね。

“흠, 그래서?”

“흠, 그래서?”

“흠, 그래서?”

「うーん、だから？」

“아니, 뭐, 그럴다는 말이 ㄴ니다。

“아니, 뭐, 그럴다는 말입니다。

“아니, 뭐, 그럴다는 말입니다。

「いや、まあ、そうなんです。

“전열 기구는 고타쓰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戰列 器具는 고타쓰 外에도 여러 種類가 있어。

“전열 기구는 고타쓰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電熱機構は、こたつ以外にもいろいろな種類がある。

그리고 흥기로 사용되 ㄴ 물건이 반드시 범인의 주변에 있던 물건이라고 보 ㄴ
수도 없고。

그리고 凶器로 使用된 物件이 반드시 犯人의 周邊에 있던 物件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흉기로 사용된 물건이 반드시 범인의 주변에 있던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고。

そして凶器として使われた物が必ず犯人の周りにあったものだとは思えない。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전기 코드를 주워서 사용해 ㄴ지도 모르는 일이야。

事件 現場에 떨어져 있던 電氣 코드를 주워서 使用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전기 코드를 주워서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事件現場に離れていた電氣コードを拾って使ったかもしれないことだ。

“네……。

“네……。

“네……。

「はい… … 。

기시타니가 뽀뽀하게 대답해 ㄴ다。

기시他니가 뽀뽀하게 對答했다。

기시타니가 뚝뚝하게 대답했다.

岸谷が震えるように答えた。

어제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줄곧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보아^ㄴ다.

어제 驅使나기와 기시他니는 줄곧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보았다.

어제 구사나기와 기시타니는 줄곧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보았다.

昨日、草薙と岸谷はずっと花岡康子を見守った。

주되^ㄴ 목적은 그녀와 공범이^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어^ㄴ다.

主된 目的은 그女와 共犯일 可能性이 있는 人物을 찾는 것이었다.

주된 목적은 그녀와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었다.

主な目的は彼女と共犯である可能性のある人物を探すことだった。

그래서 그녀가 가게를 나오^ㄴ 후 어떤 남자와 택시를 타^ㄴ으^ㄴ 때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미행해^ㄴ다.

그래서 그女가 가게를 나온 後 어떤 男子와 택시를 탔을 때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尾行했다。

그래서 그녀가 가게를 나온 후 어떤 남자와 택시를 탔을 때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미행했다。

だから彼女が店を出た後、ある男とタクシーに乗った時は胸をドキドキしながら微行した。

두 사람이 시오도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_ㄴ 후에도 그들이 나오_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_ㅆ다。

두 사람이 시오도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確認한 後에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참을性 있게 기다렸_ㄸ다。

두 사람이 시오도메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_ㄸ다。

二人が塩見にあるレストランに入ることを確認した後も、彼らが出るまで辛抱強く待った。

식사를 끝내_ㄴ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타_ㅆ다。

食事を 끝낸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탔_ㄸ다。

식사를 끝낸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탔_ㄸ다。

食事を終えた二人はまたタクシーに乗った。

도착하_ㄴ 곳은 야스코의 연립 주택。

到着한 곳은 야스코의 聯立 住宅。

도착한 곳은 야스코의 연립 주택。

到着したところは、ヤスコの連立住宅。

남자는 내리_ㄴ 기색을 보이지 않아_ㅆ다。

男子는 내릴 氣色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내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男は降りる気配を示さなかった。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에게 야스코를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택시를 뒤쫓아 ㄴ다。

驅使나기는 기시他니에게 야스코를 따라가라고 指示하고 自身은 택시를 뒤쫓았다。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에게 야스코를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택시를 뒤쫓았다。

草薙は岸谷にヤスコに従うよう指示し、自分はタクシーを追いかけた。

남자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해 ㄴ다。

男子는 尾行當하고 있다는 事實을 모르는 듯했다。

남자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男は未行われ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らないようだった。

남자는 오자키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 ㄴ다。

男子는 오자키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남자는 오자키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男は大崎のアパートに住んでいた。

구도 구니아키라는 이름까지 확인해 ㄴ다。

構圖 區니아키라는 이름까지 確認했다。

구도 구니아키라는 이름까지 확인했다。

構図グニアキという名前まで確認した。

사실상 이번 범행은 여자 혼자 힘으로는 무리일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보고 있어 ㄴ다。

事實上 이범 犯行은 女子 혼자 힘으로는 무리일 것이라고 驅使나기는 보고 있었다。

사실상 이번 범행은 여자 혼자 힘으로는 무리일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보고 있었다。

事實上今回の犯行は女一人の力では無理だろうと駆けつけは見ていた。

만일 하나오카 야스코가 사건에 관여해 ㄴ다면 남자 협력자가 있어 ㄴ으 ㄴ 것이
고 어쩌면 그 남자가 주범일지도 모르 ㄴ다는 생각이어 ㄴ다。

萬一 하나오카 야스코가 事件에 關與했다면 男子 協力자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男子가 主犯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만일 하나오카 야스코가 사건에 관여했다면 남자 협력자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남자가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もし花岡康子が事件に関与していたら、男子協力者がいただろうし、多分その男が主犯かもしれないという考えだった。

구도가 공범자이지 않으 ㄴ까……。

構圖が共犯者이지 않을까……。

구도가 공범자이지 않을까……。

構図が共犯者ではないだろうか…。 …。

그러나 그토록 기시타니를 질책하면서도 구사나기는 자기의 생각에 자신이 없어^ㄴ다。

그러나 그토록 기시他니를 叱責하면서도 驅使나기는 自己의 생각에 自身이 없었다。

그러나 그토록 기시타니를 질책하면서도 구사나기는 자기의 생각에 자신이 없었다。

しかし、そのように岸谷を叱責しながらも、詠唱は自分の考えに自信がなかった。

심지어 엉뚱하^ㄴ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ㄴ다。

甚至於 엉뚱한 方向으로 달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심지어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とても奇妙な方向に走っているという感じさえ聞いた。

그보다 지금 구사나기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ㄴ다。

그보다 只今 驅使나기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全然 다른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보다 지금 구사나기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それより今、草薙の頭の中にはもう一つの全く違う考えが席を占めていた。

어제 벤테테이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에 목격하_ㄴ 뜻하지 않으_ㄴ 인물에 대해서다。

어제 벤텐테이 近處에서 潛伏하던 中에 目撃한 뜻하지 않은 人物에 對해서다。

어제 벤텐테이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에 목격한 뜻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다。

昨日、ベンテンテーの近くで潜伏している間に目撃した意外な人物についてだ。

유가와 마나부가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수학 교사와 함께 나타나_ㄴ던 것이다。

有價와 마나附加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數學 教師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유가와 마나부가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수학 교사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ユガとマナブが花岡康子の隣に住む数学教師と共に現れたのだ。

10

10

오후 6시가 조금 지나ㄴ으ㄴ 무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녹색 벤츠가 들어와ㄴ다。

午後 6 時が 조금 지났을 무렵 아파트 地下 駐車場에 綠色 벤츠가 들어왔다。

오후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녹색 벤츠가 들어왔다。

午後 6 時が少し過ぎた頃、アパートの地下駐車場に緑のベンツが入ってきた。

그것이 구도 구니아키의 자동차라는 사실은 낮에 그의 회사에 찾아가ㄴ으ㄴ 때 알아 두어ㄴ다。

그것이 구도 區니아키의 自動車라는 事實은 낮에 그의 會社에 찾아갔을 때 알아 두었다。

그것이 구도 구니아키의 자동차라는 사실은 낮에 그의 회사에 찾아갔을 때 알아 두었다。

それが構図グニアキの自動車であるという事実は、昼間に彼の会社に訪れたときに知っておいた。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찻집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사나기는 커피 두 잔 값을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ㄴ다。

아파트 건너便에 있는 茶々집에서 지켜보고 있던 驅使나기는 커피 두 盞

값을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찻집에서 지켜보고 있던 구사나기는 커피 두 잔 값을 꺼내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アパートの向かいにある茶屋で見守っていた草薙は、コーヒー2杯の値を取り出して席から立ち上がった。

두 잔째 커피는 한 모금밖에 못 마셔ㄴ다.

두 켤째 커피는 한 모금밖에 못 마셨다.

두 잔째 커피는 한 모금밖에 못 마셨다.

二杯目のコーヒーは一口しか飲めなかった。

그는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가ㄴ다.

그는 道路를 가로질러 地下 駐車場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彼は道路を横切って地下駐車場に飛び込んだ。

아파트에는 1층과 지하에 각각 입구가 있어ㄴ다.

아파트에는 1層과 地下에 各各 入口가 있었다.

아파트에는 1층과 지하에 각각 입구가 있었다.

アパートには1階と地下にそれぞれ入り口があった。

양쪽 모두 오토 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이용자는 지하 입구를 이용

하 ㄴ 것이 분명해 ㄴ다。

兩쪽 모두 오토 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駐車場 利用者는 地下 入口를
利用할 것이 分明했다。

양쪽 모두 오토 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이용자는 지하 입구를
이용할 것이 분명했다。

兩方ともオートロックシステムとなっているが、駐車場利用者は地下入口を
利用することが明らかだった。

구사나기는 가능하 ㄴ 한 구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나 ㄴ 생각이어 ㄴ
다。

驅使나기는 可能한 韓 구도가 建物 안으로 들어가기 前에 만날 생각이었
다。

구사나기는 가능한 한 구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날 생각이었
다。

草薙はできるだけ構図が建物内に入る前に会うつもりだった。

인터폰으로 이름을 알리 ㄴ 후 집으로 찾아가면 상대에게 생각하 ㄴ 시간을 주게
되 ㄴ다。

인터폰으로 이름을 알린 後 집으로 찾아가면 相對에게 생각할 時間을 주게
된다。

인터폰으로 이름을 알린 후 집으로 찾아가면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
게 된다。

インターホンで名前を知らせた後、家に帰ると相手に考える時間を与えることになる。

다행히 구사나기가 먼저 입구에 도착하^ㄴ 듯해^ㄴ 다。

多幸히 驅使나기가 먼저 入口에 到着한 듯했다。

다행히 구사나기가 먼저 입구에 도착한 듯했다。

幸い、草薙が先に入口に到着したようだった。

그가 벽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양복 차림의 구도가 서류 가방을 품^ㅅ에 안고 나타나^ㄴ 다。

그가 壁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洋服 차림의 構圖가 書類 가방을 품에 안고 나타났다。

그가 벽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양복 차림의 구도가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나타났다。

彼が壁をつかんで息を選んでいるのに、スーツ姿の構図が書類バッグを身につけて現れた。

구도가 열쇠를 꺼내어 오토 록의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려는 순간 구사나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어^ㄴ 다。

構圖가 열쇠를 꺼내어 오토 록의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려는 瞬間 驅使나기가 等 뒤에서 말을 걸었다。

구도가 열쇠를 꺼내어 오토 록의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려는 순간 구사나

기가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構図が鍵を取り出してオートロックの鍵穴に押し込もうとした瞬間、草薙が背後から声をかけた。

“구도 씨?”

“構圖 氏?”

“구도 씨?”

「構図さん？」

구도가 움찔하며 등을 쪽 펴더니 뒤를 돌아보아^ㄴ다.

構圖가 움찔하며 等を 쪽 펴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구도가 움찔하며 등을 쪽 펴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構図がつかんで背中をずっと伸ばした後、後ろを振り返った。

얼굴에 수상쩍다는 기색이 가득 번지고 있어^ㄴ다.

얼굴에 殊常쩍다는 氣色이 가득 번지고 있었다.

얼굴에 수상쩍다는 기색이 가득 번지고 있었다.

顔に怪しいという気配がいっぱいになっていた。

“네, 그러^ㄴ데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はい、そうですか？」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구사나기의 전신을 훑어냈다.

그의 視線이 瞬間적으로 驅使나기의 轉身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구사나기의 전신을 훑었다.

彼の視線が瞬間的に草薙の全身を盗んだ。

구사나기는 상의 왼쪽을 살짝 열어 경찰수첩을 내보여냈다.

驅使나기는 賞의 왼쪽을 살짝 열어 警察手帖을 내보였다.

구사나기는 상의 왼쪽을 살짝 열어 경찰수첩을 내보였다.

草薙は上の左脇を少し開いて警察手帳を出した。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罪悚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突然来てすみません。

경찰이 ㅁ니다.

警察입니다.

경찰입니다.

警察です。

잠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暫時 協助를 付託드립니다.

잠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しばらく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경찰이라면…… 형사이냐요?”

“警察이라면…… 刑事인가요?”

“경찰이라면…… 형사인가요?”

「警察なら… …刑事ですか？」

구도는 목소리를 낮추고 살피는 듯하 눈초리로 구사나기를 봤다.

構圖는 목소리를 낮추고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驅使나기를 봤다.

구도는 목소리를 낮추고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구사나기를 봤다.

構図は声を下げて気がつくような目つきで駆けつけを見た。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여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が頭をうなずいた。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일로 여쭙보 ㄴ 게 있습니다.

하나오카 야스코 氏의 일로 여쭙볼 게 있습니다.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일로 여쭙볼 게 있습니다.

花岡康子さんのことで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구도가 야스코의 이름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구사나기는 주목해 ㄴ 다.

構圖가 야스코의 이름을 듣고 어떤 反應을 보이는지 驅使나기는 注目했
다。

구도가 야스코의 이름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구사나기는 주목했
다。

構図がヤスコの名前を聞いてどんな反応を見せるのか、草薙は注目した。

놀라거나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 오히려 수상쩍다.

놀라거나 意外라는 表情을 지으면 오히려 殊常쩍다.

놀라거나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 오히려 수상쩍다.

驚いたり意外という表情をしたら、むしろ怪しい。

구도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構圖が事件に對해 알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구도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構圖が事件について知っているはずだったからだ。

그러나 구도는 얼굴을 찡그려다가 이내 수궁이 가느냐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
다。

그러나 構圖는 얼굴을 찡그렸다가 以內 首肯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
다。

그러나 구도는 얼굴을 찡그렸다가 이내 수궁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
다。

しかし構圖は顔をゆがめた後、内頷きが行くように頭をうなずいた。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찻집으로라도 가겠습니까?”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茶人집으로라도 갈까요?”

그럼 저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찻집으로라도 갈까요?”

それでは私の家に行きますか、それとも茶屋に行きますか？

“가능하다면 덕이 좋겠습니다。

“可能하다면 宅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덕이 좋겠습니다。

「できればお宅がいいです。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いいですね。

많이 어수선하겠지만。

많이 어수선하겠지만。

많이 어수선하겠지만。

たくさん乱雑だろうけど。

그렇게 말하고 구도는 다시 열쇠를 구멍에 꽂아^ㄴ다。

그렇게 말하고 構圖는 다시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그렇게 말하고 구도는 다시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そう言って構図は再び鍵を穴に差し込んだ。

어수선하 ㄴ 거라던 구도의 집은 오히려 사 ㄴ 풍경해 ㄴ다.

어수선할 거라던 構圖의 집은 오히려 살風景했다.

어수선할 거라던 구도의 집은 오히려 살풍경했다.

乱れてしまう構図の家はむしろ殺風景だった。

옷장 말고 다른 가구는 거의 없어 ㄴ다.

옷櫥 말고 다른 家具는 거의 없었다.

옷장 말고 다른 가구는 거의 없었다.

ワードローブ以外の家具はほとんどなかった。

소파도 2인용과 1인용이 각각 하나씩 있으 ㄴ 뿐이다.

소파도 2引用과 1引用이 各各 하나씩 있을 뿐이다.

소파도 2인용과 1인용이 각각 하나씩 있을 뿐이다.

ソファも2人用と1人用がそれぞれ一つずつあるだけだ。

구도는 구사나기에게 2인용 소파에 앉으라고 권해 ㄴ다.

構圖는 驅使나기에게 2引用 소파에 앉으라고 勸했다.

구도는 구사나기에게 2인용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構図は草薙に二人用ソファに座るように勧めた。

“차는 뭐 ㄴ 드시겠습니까?”

“次는 뭘 드시겠습니까?”

“차는 뭘 드시겠습니까?”

「お茶は何を食べますか？」

구도가 양복을 벗으면서 물었다.

構圖が洋服を脱いで 물었다.

구도가 양복을 벗으면서 물었다.

構図がスーツを脱いで尋ねた.

“아니, 돼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いや、できました.

금방 끝나 ㄴ 테니까요.

今方 끝날 테니까요.

금방 끝날 테니까요.

すぐ終わりますからね.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그러면서 부엌으로 가니 구도는 유리잔 두 개와 우롱차 페트병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간 構圖는 琉璃盞 두 個와 우롱차 페트瓶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간 구도는 유리잔 두 개와 우롱차 페트병을 들고 나왔다.

それとともに台所に行った構図は、ガラスのカップ2つとウーロン茶ペットボトルを持って出てきた。

“실례지만 가족은 안 계시니가요?”

“失禮지만 家族은 안 계신가요?”

“실례지만 가족은 안 계신가요?”

「すみませんが、家族はいませんか？」

구사나기가 물어낸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는 昨年(さくねん)에 世上(せじやう)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妻(つま)は昨年(さくねん)世界(せかい)を去(さ)りました。

하나 있는 아들은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보고 계시고요。

하나 있는 아들은 事情(じじやう)이 있어서 父母(ふぼ)님이 돌보고 계시고요。

하나 있는 아들은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이 돌보고 계시고요。

一つある息子(こ)は事情(じじやう)があつて両親(りやうしん)が大事(だいじ)にしておられます。

구도가 담담하ㄴ 말투로 대답해ㄴ다。

構圖(かうと)가 淡淡(たんたん)한 말套(말투)로 對答(たいたふ)했다。

구도가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다。

構圖(かうと)が淡淡(たんたん)とした言い方で答(こた)えた。

“네, 그럼 지금은 혼자 사시는군요?”

“네, 그럼 只今(ただいま)은 혼자 사시는군요?”

“네, 그럼 지금은 혼자 사시는군요?”

「はい、それでは今は一人で買(か)いますね？」

“그런 셈이지요。

“그런 셈이지요.

“그런 셈이지요.

「そんなわけですね。

구도는 희미하게 미소를 떠올리며 유리잔 두 개에 우롱차를 따라 하나를 구사나기 앞에 놓아^ㅅ다。

構圖는 稀微하게 微笑를 떠올리며 琉璃盞 두 個에 우롱차를 따라 하나를 驅使나기 앞에 놓았다。

구도는 희미하게 미소를 떠올리며 유리잔 두 개에 우롱차를 따라 하나를 구사나기 앞에 놓았다。

構図は微かに笑顔を思い浮かべながら、ガラスのカップ2つにウーロン茶に沿って一つを駆け抜ける前に置いた。

“도가시 씨 사건 때문에 오셔^ㅅ나요?”

“도가시 氏 事件 때문에 오셨나요?”

“도가시 씨 사건 때문에 오셨나요?”

「とがしさん事件のせいで来ましたか？」

그 말에 구사나기가 유리잔으로 뺄으려던 손을 거둬들여^ㅅ다。

그 말에 驅使나기가 琉璃盞으로 뺄으려던 손을 거둬들였다。

그 말에 구사나기가 유리잔으로 뺄으려던 손을 거둬들였다。

その言葉に草薙がガラスのガラスに伸びようとした手を挙げた。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相對が 먼저 말을 꺼냈으니 쓸데없이 時間을 浪費할 必要가 없다.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相手が先に話を出したので無駄に時間を無駄にする必要がな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そうです。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전남편이 살해당하 ㄴ 사건 때문이 ㄴ니다.

하나오카 야스코 氏의 前男便이 殺害當한 事件 때문입니다.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전남편이 살해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花岡康子さんの元夫が殺された事件のためです。

“그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女는 關係가 없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없습니다.

「彼女は関係がありません。

“그러 ㄴ가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そうですか？」

“이미 헤어지지 않아 ㄴ 습니까。

“이미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もう別れていませんか。

지금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只今は 아무 關係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今は何の關係もありません。

죽이 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일 理由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殺す理由はありますか？」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저희도 基本的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はい、私たちも基本的にはそう思っていますが……」 ……。

“있지만, 뭐 ㄴ니까?”

“있지만, 뭐니까?”

“있지만, 뭐니까?”

「ありますが、何ですか？」

“세상에는 부부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그런 형식론으로 결론지으 ㄴ 수 없는 일도 많거든요。

“世上에는 夫婦의 種類도 여러 가지라 그런 形式論으로 結論지을 수 없는 일도 많거든요。

“세상에는 부부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 그런 형식론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일도 많거든요。

「世の中には夫婦の種類も色々なので、そんな形式論で結論づけられないことも多いんですよ。

헤어져 ㄴ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관계없다, 서로 간섭하지도 않는다, 완전히 타인으로 돌아가 ㄴ다…… 그런 식으로 정리되 ㄴ다면 스토커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겠지요。

헤어졌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關係없다, 서로 干涉하지도 않는다, 完全히 他人으로 돌아간다…… 그런 式으로 整理된다면 스토커 같은 것도 存在하지

않겠지요。

헤어졌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관계없다, 서로 간섭하지도 않는다, 완전히 타인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스토키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겠지요。

別れたから翌日からは関係ない、互いに干渉しない、全く他人に帰る…。
...そんな風にまとめられるとストーカーのようなものも存在しないでしょう。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現實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でも現實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한쪽이 정리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좀처럼 정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한쪽이 整理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좀처럼 整理해 주지 않는 境遇가 얼마든지 있죠。

한쪽이 정리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좀처럼 정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片方が片付けたくても他方がなかなか整理してくれない場合がいくらでもありますよね。

심지어 이혼 신고서를 낸 후에도 말이 납니다。

甚至於 離婚 申告書を 낸 後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혼 신고서를 낸 후에도 말입니다。

でも離婚届を出した後も言葉です。

“그녀는 도가시 씨와 만나지 않으 ㄴ 지 오래됐습니다。

“그女는 도가시 氏와 만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녀는 도가시 씨와 만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彼女は東柏さんと出会っていないのか昔です。

구도의 눈빛에 적의가 스며들기 시작해 ㄴ다。

構圖의 눈빛에 敵意가 스며들기 始作했다。

구도의 눈빛에 적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構図の目つきに敵意が染み始めた。

“사건에 대해 하나오카 씨와 이야기를 나누 ㄴ 적이 있습니까?”

“事件에 對해 하나오카 氏와 이야기를 나누 ㄴ 적이 있습니까?”

“사건에 대해 하나오카 씨와 이야기를 나누 ㄴ 적이 있습니까?”

「事件について花岡さんと話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물론이 납니다。

“勿論입니다。

“물론입니다。

「もちろんです。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만나러 가셨으니까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만나러 갔으니까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만나러 갔으니까요。

そのことが気になって会いに行きましたから。

하나오카 야스코의 진술과 일치하_ㄴ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해_ㄴ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陳述과 一致한다고 驅使나기는 생각했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花岡康子の陳述と一致すると、贅沢は考えた。

“그 말은 하나오카 씨에게 마음을 쓰고 계셔_ㄴ다는 겁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요?”

“그 말은 하나오카 氏에게 마음을 쓰고 계셨다는 怯니까, 事件이 일어나기 全部터요?”

“그 말은 하나오카 씨에게 마음을 쓰고 계셨다는 겁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요?”

「その言葉は花岡さんに心を使って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か、事件が起きる前からですか？」

구사나기의 말에 구도가 불쾌하_ㄴ 듯 미간을 찌푸려_ㅆ다。

驅使나기의 말에 構圖가 不快한 듯 眉間을 찌푸렸다。

구사나기의 말에 구도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草薙の言葉に構図が不快なように眉間を刺した。

“마음을 쓰고 있어_ㅆ다는 말이 무슨 뜻이_ㄴ지 잘 모르겠군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心を書いていたという言葉がどういう意味なのかよく分からないですね。

저를 찾아오시_ㄴ 정도라면 이미 저와 그녀의 관계를 알고 계시_ㄴ 테_ㄴ데요。

저를 찾아오실 程度라면 이미 저와 그女の 關係를 알고 계실 텐데요。

저를 찾아오실 정도라면 이미 저와 그녀의 관계를 알고 계실 텐데요。

私を訪ねてくれるほどなら、すでに私と彼女の關係を知っています。

저는 그녀가 전에 일하던 가게의 단골이어_ㅆ습니다。

저는 그女가 前に 일하던 가게의 단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에 일하던 가게의 단골이었습니다。

私は彼女が以前働いていた店の常連でした。

그녀의 남편과도 우연하_ㄴ 기회에 만나_ㄴ 적이 있고요。

그녀의 男便과도 偶然한 機會에 만난 적이 있고요。

그녀의 남편과도 우연한 기회에 만난 적이 있고요。

彼女の夫とも偶然の機会に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よ。

도가시라는 이름도 그때 들어ㄴ습니다。

도가시라는 이름도 그때 들었습니다。

도가시라는 이름도 그때 들었습니다。

道鹿市という名前もその時聞きました。

그래서 그 사건으로 신문에 도가시 씨의 얼굴 사진이 실리ㄴ 거ㄴ 보고 걱정돼
서 찾아가ㄴ던 거ㄴ니다。

그래서 그 事件으로 新聞에 도가시 氏의 얼굴 寫眞이 실린 걸 보고 걱정돼
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신문에 도가시 씨의 얼굴 사진이 실린 걸 보고 걱정
돼서 찾아갔던 겁니다。

それで、その事件で新聞に東柏さんの顔写真が載っているのを見て心配され
て訪れたのです。

“단골이셔ㄴ다는 이야기는 들어ㄴ습니다。

“단골이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단골이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常連だったという話は聞きました。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정도까지 관심을 보이 ㄴ 수 있으 ㄴ까요? 구도 씨는 사장
이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程度까지 關心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도 氏は 社長
이시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정도까지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도 씨는 사
장이시잖아요。

しかし、それだけでそれほど興味を示すことができますか？構図さんは社長
ですね。

바쁘 ㄴ 일이 많으시 ㄴ 데 ㄴ데요。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요。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요。

忙しいことが多いでしょう。

구사나기는 일부러 빈정거리듯이 말해 ㄴ다。

驅使나기는 일부러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구사나기는 일부러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草薙はわざわざ恥ずかしいように言った。

원래 그는 그런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직업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일이 잦아

ㄴ다。

元來 그는 그런 말套를 좋아하지 않지만, 職業上 그런 式으로 말하는 일이
찾았다。

원래 그는 그런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직업상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일
이 찾았다。

もともと彼はそんな言い方が好きではないが、職業上そんな風に言うことが
多かった。

구사나기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 ㄴ 모양이어 ㄴ다。

驅使나기의 戰略이 效果를 發揮한 模樣이었다。

구사나기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었다。

草薙の戰略が効果を發揮した模様だった。

구도의 얼굴색이 단번에 변해 ㄴ다。

構圖의 얼굴色이 單番에 變했다。

구도의 얼굴색이 단번에 변했다。

構図の顔色が一気に変わった。

“하나오카 야스코 씨에 대해 물어보러 오 ㄴ 것 아니 ㄴ니까? 그런데 저에 대하
ㄴ 질문만 하시는군요。

“하나오카 야스코 氏에 對해 물어보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 對한

質問만 하시는군요。

“하나오카 야스코 씨에 대해 물어보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질문만 하시는군요。

「花岡康子さんについて聞いてきたのではないですか?ところで私についての
の質問だけです네。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거 ㅂ니까?”

或是 저를 疑心하시는 겁니까?”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もし私を疑うのですか?」

구사나기는 웃음을 지으며 얼굴 앞에서 손사래를 쳐 ㅅ다。

驅使나기는 웃음을 지으며 얼굴 앞에서 손사래를 쳤다。

구사나기는 웃음을 지으며 얼굴 앞에서 손사래를 쳤다。

草薙は笑いを浮かべて顔の前で手を消した。

“그런 거 ㄴ 아니 ㅂ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기분이 상하셔 ㅅ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氣分이 傷하셨다면 謝過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氣が上がったらお詫び申し上げます。

다만 현재 하나오카 씨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몇 가지 여쭙보_ㄴ 거
닙니다。

다만 現在 하나오카 氏와 特別히 親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몇 가지 여쭙본
겁니다。

다만 현재 하나오카 씨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몇 가지 여쭙
본 겁니다。

ただ、現在花岡さんと特別に親しく過ごしているようで、いくつか見てみま
しょう。

구사나기가 공손하게 말해_ㄴ지만 그를 노려보는 구도의 눈길은 여전해_ㄴ다。

驅使나기가 恭遜하게 말했지만 그를 노려보는 構圖의 눈길은 如前했다。

구사나기가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를 노려보는 구도의 눈길은 여전했다。

草薙が丁寧に話したが、彼を狙う構図の目は相変わらずだった。

구도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한 번 끄덕해_ㄴ다。

構圖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한 번 끄덕했다。

구도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한 번 끄덕했다。

構図は大きく息を吸い、頭を一度頷いた。

“ 좋습니다。

“ 좋습니다。

“ 좋습니다。

「いいですね。

이런 식으로 사람을 떠보는 거 ㄴ 불쾌하니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이런 式으로 사람을 떠보는 건 不快하니 確實하게 말씀드리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떠보는 건 불쾌하니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このように人を浮かべるのは不快だから確かにお話ししましょう。

그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女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彼女に心があります。

연애 감정이 있다 이거 ㄴ니다。

戀愛 感情이 있다 이겁니다。

연애 감정이 있다 이겁니다。

恋愛感情があるのです。

그래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자 그녀에게 접근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事件에 對해 알게 되자 그女에게 接近할 機會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자 그녀에게 접근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それで事件について知ると、彼女に近づく機会だと思って会いに行きました。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納得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하시겠습니까?”

いかがでしょうか、こう話したら納得しますか？」

구사나기는 쓴웃음을 지어냈다。

驅使나기는 쓴웃음을 지었다。

구사나기는 쓴웃음을 지었다。

草薙は苦笑をした。

구도의 행동은 연기도 테크닉도 아니어냈다。

構圖의 行動은 演技도 테크닉도 아니었다。

구도의 행동은 연기도 테크닉도 아니었다。

構図の行動は演技もテクニックでもなかった。

“아, 그렇게까지 흥분하시 ㄴ 거 ㄴ 없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興奮하실 건 없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흥분하실 건 없습니다.

「ああ、それまで興奮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셔 ㄴ 던 것 아니 ㄴ 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 아닙니까?”

「こんな話を聞きたかったのではないですか？」

“저는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싶어 ㄴ 으 ㄴ 뿐이 ㄴ 니다.

“저는 하나오카 야스코 氏의 人間關係를 把握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私は花岡康子さんの人間関係を把握したかっただけです。

“도대체 경찰이 왜 그녀를 의심하는지, 그거 ㄴ 모르겠네요.

“都大體 警察이 왜 그女를 疑心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도대체 경찰이 왜 그녀를 의심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一体警察がなぜ彼女を疑うのか、それを知らないですね。

구도는 고개를 가우뚱해 보여ㄴ다.

構圖는 고개를 가우뚱해 보였다.

구도는 고개를 가우뚱해 보였다.

構図は頭をかすかったように見えた。

“도가시 씨는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녀를 찾고 있어ㄴ습니다.

“도가시 氏は 殺害當하기 直前に 그女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가시 씨는 살해당하기 직전에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とがしさんは殺される直前に彼女を探していました。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만나 ㄴ 사람이 그녀이 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女일 可能性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그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つまり、最後に出会った人が彼女である可能性が高いです。

이 정도는 구도에게 말해 주어도 괜찮으리라고 구사나기는 판단해ㄴ다.

이 程度는 構圖에게 말해 주어도 괜찮으리라고 驅使나기는 判斷했다.

이 정도는 구도에게 말해 주어도 괜찮으리라고 구사나기는 판단했다.

この程度は構図に教えても大丈夫だろうと駆けつけは判断した。

“그래서 그녀가 도가시 씨를 죽여ㄴ다는 말이 ㄴ니까? 경찰의 생각이라는 거 ㄴ

언제나 참 단순하군요。

“그래서 그女가 도가시 氏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警察의 생각이라는 건 언제나 참 單純하군요。

“그래서 그녀가 도가시 씨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경찰의 생각이라는 건 언제나 참 단순하군요。

「それで、彼女が東柏さんを殺したということですか? 警察の考えというのはいつもとても単純ですね。

구도는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들썩해 ㄴ다。

構圖는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들썩했다。

구도는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들썩했다。

構図は鼻音を打って肩を浮かべた。

“재주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하 ㅂ니다。

“재주가 이것밖에 안 돼서 罪悚합니다。

“재주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在住がこれしかできなくてすみません。

물론 하나오카 씨만을 의심하고 있는 거 ㄴ 아니 ㅂ니다。

勿論 하나오카 氏만을 疑心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오카 씨만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もちろん花岡さんだけを疑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 ㄴ 수 없습니다。

다만 只今 時點에서는 그女를 用意船上에서 除外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ただし今時点では彼女を容疑線上から除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녀 본인이 아니라도 그녀 주위에 열쇠를 쥐 ㄴ 인물이 있으 ㄴ 가능성도 있으
니까요。

그女 本人이 아니라도 그女 周圍에 열쇠를 쥔 人物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
니까요。

그녀 본인이 아니라도 그녀 주위에 열쇠를 쥔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
니까요。

彼女本人でなくても彼女の周りに鍵を握った人物がいる可能性もありますか
らね。

“그녀 주위에요?”

“그女 周圍에요?”

“그녀 주위에요?”

「彼女の周りですか？」

구도는 잠시 미간을 찌푸려 ㄴ다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ㄴ다。

構圖는 暫時 眉間을 찌푸렸다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도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構図はしばらく眉間を刺したが分かるように首をうなずいた。

“아하, 그런 거로군요.

“아하, 그런 거로군요.

“아하, 그런 거로군요.

「あは、そんなことですね。

“뭐가요?”

“뭐가요?”

“뭐가요?”

「何ですか？」

“당신들은 그녀가 누구 가에게 부탁해 전남편을 죽여 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當身들은 그女가 누군가에게 付託해 前男便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당신들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부탁해 전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あなたは彼女が誰かに頼んで全夫を殺したと思っていますね。

그래서 제게도 오_ㄴ 거고요.

그래서 제게도 온 거고요.

그래서 제게도 온 거고요.

それで私にも来たんですよ。

저를 살인 청부업자 1순위 후보로 보고 말이죠.

저를 殺人 請負業者 1順位 候補로 보고 未이죠.

저를 살인 청부업자 1순위 후보로 보고 말이죠.

私を殺した請負業者 1位の候補とみてね。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_ㄴ 아니지만…….

“그렇게 斷定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そんなに断定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 ... 。

구사나기는 일부러 말꼬리를 흐려_ㅅ다.

驅使나기는 일부러 말꼬리를 흐렸다.

구사나기는 일부러 말꼬리를 흐렸다.

草薙はわざと馬尾を曇った。

구도 나름으로 생각하_ㄴ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싫어하기 때문이다。

構圖 나름으로 생각한 바가 있다면 그 內容을 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구도 나름으로 생각한 바가 있다면 그 內容을 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構圖次第で考えたことがあれば、その内容を聞いてみるのも悪くないようにしたかったからだ。

“그렇다면 저 말고도 조사해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테니까요。

“그렇다면 저 末古都 調査해야 할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 말고도 조사해야 할 사람이 많을 텐데요。

「それなら、私以外でも調べるべき人が多いでしょう。

그녀에게 반하니까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 반한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에게 반한 손님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彼女に惚れた客が一二人ではなかったんですよ。

그 정도 미인이면 당연한 일 아니니까? 호스티스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美人이면 當然한 日 아닙니까? 호스티스 時節만의 이야기가 아니

에요。

그 정도 미인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호스티스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
에요。

それほど美人なら当然じゃないですか？ホスティス時代だけの話ではありま
せん。

요네자와 부부의 말로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다
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 만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네자와 夫婦의 말로는 그女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全部 만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네자와 부부의 말로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 만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米沢夫婦の言葉では彼女を見たくてお弁当を買いに来るお客さんもいると言
いましたが、そんな人たちも全部会ってみてはいけませんか？」

“이름과 연락처를 아 ㄴ 수 있다면 당연히 만나러 가 ㄴ 거 ㄴ니다。

“이름과 連絡處를 알 수 있다면 當然히 만나러 갈 겁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당연히 만나러 갈 겁니다。

「名前と連絡先がわかったら、当然会いに行きます。

혹시 아는 분이라도 있습니까?”

或是 아는 분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이라도 있습니까?”

もし知っている人でもいますか？」

“아니요, 모르 ㅂ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いいえ、わかりません。

애석하게도 저는 고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哀惜하게도 저는 告者질을 別に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고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哀れなことに、私は高品質をあまり好きではありません。

구도는 손을 옆으로 저어 ㅅ다.

構圖는 손을 옆으로 저었다.

구도는 손을 옆으로 저었다.

構図は手を横に振った。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 ㄴ다 해도 헛수고이 ㅂ 거 ㅂ니다.

“그리고 設令 그 사람들을 全部 調査한다 해도 헛수고일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들을 전부 조사한다 해도 헛수고일 겁니다.

「そして、たとえその人々を全部調べるとしても、無駄なことでしょう。

그녀는 그런 일을 부탁하 ㅂ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그런 일을 付託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그런 일을 부탁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彼女はそんなことをお願いする人ではありませんから。

그런 ㄹ 만한 ㄴ 악녀도 아니 ㄹ뿐더러 그 정도로 바보도 아니 ㄹ니다.

그런 만한 악녀도 아닐뿐더러 그 程度로 바보도 아닙니다.

그런 만한 악녀도 아닐뿐더러 그 정도로 바보도 아닙니다.

そんな悪女でもないだけでなく、それほどバカでもありません。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하 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

ㄹ 만큼 어리석으 ㄴ 사람은 아니 ㄹ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 亦是 좋아하는 사람이 付託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

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 역시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もう一つ付け加えると、私も好きな人が頼むからといって人を殺すほど愚か
な人ではありません。

구사나기 씨라고 하셔 ㄴ나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셔 ㄴ는데 애석하게도 별
수확은 없으시 ㄹ 것 같군요.

驅使나氣 氏라고 하셨나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哀惜하게도 別

收穫은 없으실 것 같군요。

구사나기 씨라고 하셨나요?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애석하게도 별 수확은 없으실 것 같군요。

草薙さんと言われましたか?わざわざここまでやってきたのですが、愛撫にも星收穫はありませんね。

빠르 ㄴ 말로 거침없이 내뱉으 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ㄴ다。

빠른 말로 거침없이 내뱉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빠른 말로 거침없이 내뱉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早い言葉で唾を吐き出した彼は席で立ち上がった。

어서 돌아가 달라는 의미로 보여 ㄴ다。

어서 돌아가 달라는 意味로 보였다。

어서 돌아가 달라는 의미로 보였다。

さあ、帰ってほしいという意味に見えた。

어찌 ㄴ 수 없이 구사나기도 자리에서 일어서 ㄴ다。

어쩔 수 없이 驅使나기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쩔 수 없이 구사나기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仕方なく駆けつけも席で立ち上がった。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메모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ㄴ다。

그러나 그의 손은 如前히 메모하려는 姿勢를 取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메모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しかし彼の手はまだメモしようとする姿勢を取っていた。

“3월 10일에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서ㄴ습니까?”

“3 月 10 日には 平素처럼 會社에 나가셨습니까?”

“3월 10일에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셨습니까?”

「3 月 10 日にはいつものように会社に出かけましたか？」

구도가 허를 찔리ㄴ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떠ㄴ다.

構圖가 虛를 찔린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구도가 허를 찔린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構図が虚を刺されたように目を丸くした。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빛이 험상궂으ㄴ 빛을 띠어ㄴ다.

그리고 다음 瞬間 그 눈빛이 險狀궂은 빛을 띠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눈빛이 험상궂은 빛을 띠었다.

そして次の瞬間、その目つきが険しい光を帯びた。

“이번에는 알리바이이ㄴ가요?”

“이쑈에는 알리바이인가요?”

“이번에는 알리바이인가요?”

「今回はアリバイですか？」

“뭐, 그런 셈이 ㅂ니다.

“뭐, 그런 셈입니다.

“뭐, 그런 셈입니다.

「まあ、そんなわけです。

얼버무리 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ㅅ다.

얼버무릴 必要는 없다고 생각했다.

얼버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むるむ必要はないと思った。

어차피 구도는 화가 나 있어 ㅅ다.

於此彼 構圖는 火가 나 있었다.

어차피 구도는 화가 나 있었다.

どうせ構図は怒っていた。

“잠깐 기다려 봐요.

“잠깐 기다려 봐요.

“잠깐 기다려 봐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구도가 서류 가방 속에서 두꺼우ㄴ 수첩을 꺼내ㄴ다。

構圖가 書類 가방 속에서 두꺼운 手帖을 꺼냈다。

구도가 서류 가방 속에서 두꺼운 수첩을 꺼냈다。

構図が書類袋の中から厚い手帳を取り出した。

그것을 하ㄴ 손에 들고 펄럭펄럭 넘기던 그가 한숨을 내쉬어ㄴ다。

그것을 한 손에 들고 펄럭펄럭 넘기던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을 한 손에 들고 펄럭펄럭 넘기던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それを片手に握りしめた彼がため息をついた。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으ㄴ 거ㄹ 보면 아마 평소와 같아ㄴ으ㄹ 거ㄴ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걸 보면 아마 平素와 같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걸 보면 아마 평소와 같았을 겁니다。

「何も書かれていないのを見れば、おそらく普段のようだったでしょう。

여섯 시경에 퇴근해ㄴ으ㄹ 거고요。

여섯 市警에 退勤했을 거고요。

여섯 시경에 퇴근했을 거고요。

6時頃に退勤したでしょう。

의심스러우면 직원들에게 물어보시죠.

疑心스러우면 職員들에게 물어보시죠.

의심스러우면 직원들에게 물어보시죠.

疑わしい場合は、スタッフに聞いてみましょう。

“퇴근 후에는요?”

“退勤 後에는요?”

“퇴근 후에는요?”

「退勤後は？」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 평소와 마찬가지로 ㄴ겠지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 平素와 마찬가지로였겠지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 평소와 마찬가지로였겠지요.

「何も書かれていないので、普段と同じだったでしょう。

집에 돌아와 적당히 뭐 ㄴ가를 먹고 자 ㄴ으ㄴ 거 ㄴ니다.

집에 돌아와 適當히 뭔가를 먹고 잤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적당히 뭔가를 먹고 잤을 겁니다.

家に帰って適度に何かを食べて寝るでしょう。

혼자 사는 처지니 증인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處地니 證人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니 증인은 없습니다。

一人暮らしになって、証人はいません。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의자 리스트에서 한 분씩 지워 나가야 해서 말이죠。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容疑者 리스트에서 한 分씩 지워 나가야 해서 말이죠。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의자 리스트에서 한 분씩 지워 나가야 해서 말이죠。

「もう少しよく考えてはいませんか？容疑者リストから一分ずつ消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

그러자 구도는 노골적으로 진절머리 나 ㄴ다는 표정을 내비치며 다시 수첩으로 눈길을 가져가 ㄴ다。

그러자 構圖는 露骨的으로 진절머리 난다는 表情을 내비치며 다시 手帖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그러자 구도는 노골적으로 진절머리 난다는 표정을 내비치며 다시 수첩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すると構図は露骨に真剣に頭を飛ぶという表情を見せて再び手帳で目を引いた。

“아, 그게 10일이군.

“아, 그게 10일이군.

“아, 그게 10일이군.

「あ、それが 10 日だね。

그렇다면 그날은……。

그렇다면 그날은……。

그렇다면 그날은……。

それならその日は… …。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려^ㅅ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彼が一言のように呟いた。

“생각나^ㅅ습니까?”

“생각나^ㅅ습니까?”

“생각나^ㅅ습니까?”

「思った？」

“거래처에 가^ㅅ었습니다.

“去來處에 갔었습니다。

“거래처에 갔었습니다。

「取引先に行きました。

저녁나절에 가서…… 그렇지, 닭 꼬치구이를 얻어먹어ㄴ어요。

저녁나절에 가서…… 그렇지, 닭 꼬치구이를 얻어먹었어요。

저녁나절에 가서…… 그렇지, 닭 꼬치구이를 얻어먹었어요。

夕方に行って… …さて、鶏串焼きを得て食べました。

“시간은요?”

“時間은요?”

“시간은요?”

「時間は？」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홉 시 정도까지 마시지 않아ㄴ나 싶습니다。

“正確히 記憶나지는 않지만 아홉 時 程度까지 마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홉 시 정도까지 마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正確には覚えていませんが、9 時くらいまで飲まなかったかと思います。

그러고서 곧바로 귀가해ㄴ어요。

그러고서 곧바로 歸家했어요。

그러고서 곧바로 귀가했어요.

それですぐに帰宅しました。

같이 마시 ㄴ 상대는 이 사람이 ㅂ니다。

같이 마신 相對는 이 사람입니다。

같이 마신 상대는 이 사람입니다。

一緒に飲んだ相手はこの人です。

구도가 수첩에 끼여 있던 명함을 내밀어 ㅅ다。

構圖가 手帖에 끼여 있던 名銜을 내밀었다。

구도가 수첩에 끼여 있던 명함을 내밀었다。

構図が手帳に挟まれていた名刺を出した。

디자인 사무실 사람이어 ㅅ다。

디자인 事務室 사람이었다。

디자인 사무실 사람이었다。

デザイン事務所の人だった。

“돼 ㅅ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できました。

감사하 ㅂ니다。

感謝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구사나기는 인사를 하 ㄴ 후 현관으로 향해ㅆ다。

驅使나기는 人士를 한 後 玄關으로 向했다。

구사나기는 인사를 한 후 현관으로 향했다。

草薙は挨拶をした後、玄関に向かった。

그가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구도가 “형사님。

그가 구두를 신고 있는데 構圖가 “刑事님。

그가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구도가 “형사님。

彼が靴を履いているのに構図が「刑事様。

” 하고 불러ㅆ다。

” 하고 불렀다。

” 하고 불렀다。

」と呼んだ。

“언제까지 그녀를 감시하 ㄴ 거 ㄴ 니까?”

“언제까지 그女를 監視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녀를 감시할 겁니까?”

「いつまで彼女を監視しますか？」

구사나기가 아무 대답 없이 눈길을 거두자 그는 적의를 품으 ㄴ 표정으로 말을 이어 ㅅ 다。

驅使나기가 아무 對答 없이 눈길을 거두자 그는 敵意를 품은 表情으로 말을 이었다。

구사나기가 아무 대답 없이 눈길을 거두자 그는 적의를 품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草虎が何の答えもなく目を引くと、彼は敵意を抱いた表情で話をした。

“계속 감시해 와 ㅅ 으니 제가 그녀와 같이 있는 거 ㄴ 보 ㄴ 것 아니 ㄴ 니까。

“繼續 監視해 왔으니 제가 그女와 같이 있는 걸 본 것 아닙니까。

“계속 감시해 왔으니 제가 그녀와 같이 있는 걸 본 것 아닙니까。

「ずっと監視してきたから、私が彼女と一緒にいるのを見たのではないで
しょうか。

그래서 저를 따라와 ㅅ 으 ㄴ 테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왔을 테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왔을 테고요.

だから私をフォローしてくれます。

구사나기는 머리를 긁적거려^ㄴ다.

驅使나기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구사나기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草薙は頭を傷つけた。

“뭐…… 틀리^ㄴ 말씀은 아니^ㄴ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なに… …間違った言葉ではありません。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教えてください。

언제까지 그녀를 쫓아다니^ㄴ 걱정인지 말이^ㄴ니다.

언제까지 그女를 쫓아다닐 作定認知 未입니다.

언제까지 그녀를 쫓아다닐 걱정인지 말입니다.

いつまで彼女を追いかけてようとするのか。

구사나기는 한숨을 내쉬어ㄴ다。

驅使나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구사나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草薙はため息をついた。

그리고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두ㄴ 후 구도를 바라보아ㄴ다。

그리고 얼굴에서 웃음氣를 거둔 後 構圖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굴에서 웃음기를 거둔 후 구도를 바라보았다。

そして顔で笑いを収めた後、構図を眺めた。

“그야 물론 그러ㄴ 필요가 없어지ㄴ 때까지이ㄴ니다。

“그야 勿論 그럴 必要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야 물론 그럴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それはもちろん、そうする必要がなくなるまでです。

다시 뭐ㄴ가 말하려는 구도에게서 등을 돌리며 구사나기는 “실례해ㄴ습니다。

다시 뭔가 말하려는 構圖에게서 등을 돌리며 驅使나기는 “失禮했습니다。

다시 뭔가 말하려는 구도에게서 등을 돌리며 구사나기는 “실례했습니다。

また何か言おうとする構図から背を向けながら、草薙は「失礼しました。

”라고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어ㄴ다。

”라고 人事하고 玄關門을 열었다。

”라고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と挨拶して玄関門を開いた。

아파트를 나서 ㄴ 그는 택시를 잡아타ㄴ다。

아파트를 나선 그는 택시를 잡아탔다。

아파트를 나선 그는 택시를 잡아탔다。

アパートを出た彼はタクシーをつかんだ。

“데이토 대학으로 가 주세요。

“데이토 大學으로 가 주세요。

“데이토 대학으로 가 주세요。

「デート大学に行ってください。

운전사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를 출발시키자 구사나기는 수첩을 펼쳐ㄴ다。

運轉士가 알겠다고 對答하고 車を 出發시키자 驅使나기는 手帖을 펼쳤다。

운전사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를 출발시키자 구사나기는 수첩을 펼쳤다。

運転手が分かれると答えて車を出発させると、草薙は手帳を広げた。

그리고 자신이 흘려 쓰 ㄴ 메모를 들여다보며 구도와 나누어ㄴ던 대화를 되새겨

보아쌌다。

그리고 自身이 흘려 쓴 메모를 들여다보며 構圖와 나누었던 對話를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흘려 쓴 메모를 들여다보며 구도와 나누었던 대화를 되새겨 보았다。

そして自分が流して書いたメモを覗いて構図と分かち合った会話を振り返ってみた。

물론 알리바이를 확인하ㄴ 필요는 있으ㄴ 것이다。

勿論 알리바이를 確認할 必要는 있을 것이다。

물론 알리바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もちろんアリバイを確認する必要はあるだろう。

그러나 그로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쌌다。

그러나 그로서는 이미 結論이 나 있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しかし彼としてはすでに結論が出ていた。

저 남자는 결백하다。

저 男子는 潔白하다。

저 남자는 결백하다。

その人は無実である。

사실을 말하고 있다.

事實을 말하고 있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

事實を言っている。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빠져 있다.

그리고 眞心으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빠져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빠져 있다.

そして本気で花岡康子に陥っている。

게다가 그도 말해^ㄴ듯이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협력하^ㄴ 사람은 그 외에도 있으^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ㄴ다。

게다가 그도 말했듯이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協力할 사람은 그 外에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도 말했듯이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협력할 사람은 그 외에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しかも彼も言ったように、花岡康子に協力する人は、他にもある可能性が大きいと思った。

데이토 대학은 정문이 닫혀 있어^ㄴ다。

데이토 大學은 正門이 닫혀 있었다。

데이토 대학은 정문이 닫혀 있었다。

デート大学は正門が閉まっていた。

곳곳에 조명등이 켜져 있어 캄캄하지는 않아,, 하지만 밤의 대학은 음침하 ㄴ 공기
로 가득하 ㄴ 느낌이어,, 다。

곳곳에 照明等이 켜져 있어 캄캄하지는 않았지만 밤의 大學은 陰沈한 空氣
로 가득한 느낌이었다。

곳곳에 조명등이 켜져 있어 캄캄하지는 않았지만 밤의 대학은 음침한 공
기로 가득한 느낌이었다。

あちこちに照明灯が点灯していてカムカムではなかったが夜の大学は陰気な
空気でいっぱいの感じだった。

구사나기는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실에 방문 목적을 알리 ㄴ 다음
교정으로 들어서,, 다。

驅使나기는 쪽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守衛室에 訪問 目的을 알린 다음
矯正으로 들어섰다。

구사나기는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실에 방문 목적을 알린 다
음 교정으로 들어섰다。

草薙は、扉を開けて中に入り、水位室に訪問目的を知らせた後、矯正に入っ
た。

“물리학과 제13연구실의 유가와 조교수를 만나기로 해ㄴ다。

“物理學科 第 13 研究室の 有價와 助教授를 만나기로 했다。

“물리학과 제13연구실의 유가와 조교수를 만나기로 했다。

「物理学科第 13 研究室の油価と助教授に会うことにした。

”라고 수위에게 설명해ㄴ지만 사실 약속하ㄴ 거ㄴ 아니어ㄴ다。

”라고 水位에게 説明했지만 事實 約束한 건 아니었다。

”라고 수위에게 설명했지만 사실 약속한 건 아니었다。

と水位に説明したが、実際に約束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

건물 복도는 쥐 죽으ㄴ 듯 조용해ㄴ다。

建物 複道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건물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建物の廊下はネズミ死んだように静かだった。

그러나 아무도 없지 않다는 것은 몇 군데 문틈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으로 아ㄴ
수 있어ㄴ다。

그러나 아무도 없지 않다는 것은 몇 군데 門틈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지 않다는 것은 몇 군데 문틈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으로
알 수 있었다。

しかし、誰もいないというのは何箇所か戸口から漏れる光で分かった。

아마도 몇몇 연구자나 학생이 묵묵히 각자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몇몇 研究者나 學生이 黙黙히 各自의 研究에 沒頭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몇몇 연구자나 학생이 묵묵히 각자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おそらく何人かの研究者や学生が黙々とそれぞれの研究に没頭しているだろう。

그리고 보니 유가와도 종종 연구실에서 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 有價와도 種種 研究室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 유가와도 종종 연구실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そういえば湯川ともしばしば研究室で寝るという話を聞いたことがあった。

유가와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구도의 집에 가기 전부터 하고 있었다。

有價와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構圖의 집에 가기 前부터 하고 있었다。

유가와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구도의 집에 가기 전부터 하고 있었

다。

湯川に会い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は構図の家に行く前からやっていた。

방향이 같기도 해 ㅅㅅ지만 확인하고 싶으 ㄴ 게 있어 ㅅㅅ다。

方向이 같기도 했지만 確認하고 싶은 게 있었다。

방향이 같기도 했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方向が同じでもあったが確認したいことがあった。

그는 베 ㄴ 테 ㄴ 테이에 왜 가 ㄴ 것이 ㄴ까。

그는 벤텐테이에 왜 간 것일까。

그는 벤텐테이에 왜 간 것일까。

彼はベンテンテーになぜ行ったのだろうか。

대학 동창이 ㄴ 수학 교사와 동행해 ㅅㅅ다는데 그 사람과 관계있는 일이 ㄴ까。

大學 同窓인 數學 教師와 同行했다는데 그 사람과 關係있는 일일까。

대학 동창인 수학 교사와 동행했다는데 그 사람과 관계있는 일일까。

大学同窓である数学教師と同行したが、その人と関係あることだろうか。

만일 사건과 관련해 뭐 ㄴ가 낚새를 채 ㅅㅅ다면 왜 구사나기에게는 알리지 않으 ㄴ 거 ㄴ까。

萬一 事件과 關聯해 원가 김새를 찾다면 왜 驅使나기에게는 알리지 않은
걸까。

만일 사건과 관련해 원가 김새를 찾다면 왜 구사나기에게는 알리지 않은
걸까。

もし事件に関連して何かを感じたら、なぜ草薙には知らないのだろうか。

아니면 혹시 대학 동창과 옛 이야기를 나누러 갔을 뿐 벤테테이에 들
른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아니면 或是 大學 同窓과 옛 이야기를 나누러 갔을 뿐 벤테테이에 들른 것
은 別 意味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혹시 대학 동창과 옛 이야기를 나누러 갔을 뿐 벤테테이에 들른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

それとも、もしかしたら大学同窓と昔の話を交わして行っただけで、ベンテ
ンテーに立ち寄ったのはあまり意味がないのだろうか。

그러나 유가와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미해결 사건의 용의자가 일하는 가게에
굳이 찾아가겠다고 생각하는 힘들어한다。

그러나 有價와가 아무런 目的도 없이 未解決 事件의 容疑者가 일하는 가게
에 굳이 찾아갔다고 생각하는 힘들었다。

그러나 유가와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미해결 사건의 용의자가 일하는 가게
에 굳이 찾아갔다고 생각하는 힘들었다。

しかし、湯川が何の目的もなく未解決事件の容疑者が働くお店にあえて訪れ

たとえるのは大変だった。

여태까지 유가와는 어지간하ㄴ 일이 아니고서는 구사나기가 담당하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 와ㄴ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有價와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驅使나기가 擔當하는 事件에 介入하지 않으려고 해 왔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유가와는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구사나기가 담당하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 왔기 때문이다。

これまで油川とはかなりのことではなく、草薙が担当する事件に介入しないようにしてきたからだ。

귀찮으ㄴ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구사나기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驅使나기의 立場을 尊重하려는 것이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구사나기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面倒なことに巻き込まれたくなくて、草薙の立場を尊重しようとするのだ。

제13연구실 문에는 행선지 표시판이 붙어 있어ㄴ다。

第 13 研究室 門에는 行先地 標示板이 붙어 있었다。

제13연구실 문에는 행선지 표시판이 붙어 있었다。

第 13 研究室の扉には行き先表示板が付いていた。

대학원생들의 이름과 나란히 유가와와 이름이 보여ㄴ다。

大學院生들의 이름과 나란히 有價와의 이름이 보였다。

대학원생들의 이름과 나란히 유가와와 이름이 보였다。

大学院生の Namen と並んで湯川の Namen が見えた。

그런데 그는 ‘외출’로 되어 있어ㄴ다。

그런데 그는 ‘外出’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외출’로 되어 있었다。

ところが彼は「外出」になっていた。

구사나기는 혀를 차ㄴ다。

驅使나기는 혀를 찼다。

구사나기는 혀를 찼다。

草薙は舌を刺した。

외출해ㄴ다가 그 길로 퇴근해 버리ㄴ지도 모르ㄴ다고 생각해ㄴ기 때문이다。

外出했다가 그 길로 退勤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출했다가 그 길로 퇴근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外出してその道に退勤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からだ。

그래도 일단은 노크를 해 보아^ㄴ다.

그래도 一段은 노크를 해 보았다.

그래도 일단은 노크를 해 보았다.

それでも一応はノックを試みた。

표시판에는 대학원생 두 명이 연구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ㄴ다.

標示板에는 大學院生 두 명이 研究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표시판에는 대학원생 두 명이 연구실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表示板には大学院生二人が研究室にいることになっていた。

네, 하는 굵으^ㄴ 목소리를 듣고 구사나기는 문을 열어^ㄴ다.

네, 하는 굵은 목소리를 듣고 驅使나기는 門을 열었다.

네, 하는 굵은 목소리를 듣고 구사나기는 문을 열었다.

はい、という太い声を聞いて、草薙は扉を開いた。

낮익으^ㄴ 연구실의 한구석에서 운동복 차림에 안경을 쓰^ㄴ 젊은이가 나타나^ㄴ
다.

낮익은 研究室의 한구석에서 運動服 차림에 眼鏡을 쓴 젊은이가 나타났
다.

낮익은 연구실의 한구석에서 운동복 차림에 안경을 쓴 젊은이가 나타났
다.

見知らぬ研究室の片隅で運動服姿に眼鏡をかけた若者が現れた。

몇 번이 ㄴ가 보 ㄴ 적 있는 대학원생이다。

몇 番인가 본 적 있는 大學院生이다。

몇 번인가 본 적 있는 대학원생이다。

何度か見たことのある大学院生だ。

“유가와 교수, 퇴근해 ㄴ어요?”

“有價와 教授, 退勤했어요?”

“유가와 교수, 퇴근했어요?”

「湯川教授、退勤しました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대학원생은 미안하 ㄴ 듯하 ㄴ 표정을 지어 ㄴ다。

驅使나기의 물음에 大學院生은 未安한 듯한 表情을 지었다。

구사나기의 물음에 대학원생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草薙の問いに大学院生は申し訳ないような表情をした。

“네, 조금 전예요。

“네, 조금 前예요。

“네, 조금 전예요。

「はい、少し前に。

휴대 전화 번호를 알려 드릴까요?”

携帯電話 番號를 알려 드릴까요?”

휴대 전화 번호를 알려 드릴까요?”

携帯電話番号をお知らせしますか？」

“아니, 그거 ㄴ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いや、それは知っています。

그리고 딱히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처에 오 ㄴ 김에 들르 ㄴ 거니까 괜찮아
요。

그리고 딱히 用件이 있어서가 아니라 近處에 온 김에 들른 거니까 괜찮아
요。

그리고 딱히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처에 온 김에 들른 거니까 괜찮아
요。

そして、特に用件があってではなく、近くに来たキムに立ち寄ったので大丈夫
夫です。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そうですね。

대학원생이 밝게 웃어^ㅆ다。

大學院生이 밝게 웃었다。

대학원생이 밝게 웃었다。

大学院生が明るく笑った。

구사나기라는 형사가 가끔 와서 노닥거리다 가^ㄴ다는 사실을 유가와에게 들어
알고 있으^ㄴ이 분명해^ㅆ다。

驅使나기라는 刑事가 가끔 와서 노닥거리다 간다는 事實을 有價와에게 들
어 알고 있음이 分明했다。

구사나기라는 형사가 가끔 와서 노닥거리다 간다는 사실을 유가와에게 들
어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草薙という刑事がたまに来て猛烈に行くという事実を湯川に聞いて知ってい
ることが明らかだった。

“늦게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으^ㄴ 줄 알아^ㅆ더니만。

“늦게까지 研究室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더니만。

“늦게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더니만。

「遅くまで研究室にこぼれていると思ったが。

“평소에는 그러셔 ㄴ는데, 요 며칠은 일찍 귀가하시더 ㄴ걸요.

“平素에는 그러셨는데, 요 며칠은 일찍 歸家하시던걸요.

“평소에는 그러셨는데, 요 며칠은 일찍 귀가하시던걸요.

「普段はそうだったのですが、数日は早く帰りました。

특히 오늘은 들르 ㄴ 데가 있다고 하셔 ㄴ어요.

특히 오늘은 들를 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들를 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特に今日は立ち寄っているとされました。

“그래요, 어디를?”

“그래요, 어디를?”

“그래요, 어디를?”

「そうです、どこ？」

구사나기가 물어 ㄴ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혹시 또 그 수학 교사를 만나러 가 ㄴ 거 ㄴ 아니 ㄴ까 싶어 ㄴ다.

或是 또 그 數學 教師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싶었다.

혹시 또 그 수학 교사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싶었다.

もしかしたらまたその数学教師に会いに行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た。

그러나 대학원생의 입에서는 뜻밖의 지명이 흘러나와^ㅅ다.

그러나 大學院生の 입에서는 뜻밖의 指名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입에서는 뜻밖의 지명이 흘러나왔다.

しかし大学院生の口から意外な指名が流れてきた。

“자세하^ㄴ 거^ㄴ 잘 모르겠지만 시노자키 쪽이^ㄴ 것 같아^ㅅ어요.

“仔細한 건 잘 모르겠지만 市老子키 쪽인 것 같았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시노자키 쪽인 것 같았어요.

「詳しくはよくわかりませんが、篠崎の方のようでした。

“시노자키라고요?”

“時老子키라고요?”

“시노자키라고요?”

「篠崎って？」

“네.

“네.

“네。

「はい。

시노자키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냐고 물으셨거든요。

市老子キ驛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第一 빠르냐고 물으셨거든요。

시노자키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르냐고 물으셨거든요。

篠崎駅に行くにはどうやって行くのが一番速いのかと聞きました。

“뭐 ㄴ 하러 가 ㄴ 다는 말은 안 해 ㄴ 어요?”

“월 하러 간다는 말은 안 했어요?”

“월 하러 간다는 말은 안 했어요?”

「何に行くという言葉はしませんでしたか？」

“네。

“네。

“네。

「はい。

시노자키에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 ㄴ 더니 별일 아니라고만 하셔 ㄴ 어요。

市老子키에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別일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시노자키에는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篠崎には何が起こるのかと尋ねたところ、別日ではないと言われました。

“흠。

“흠。

“흠。

「うーん。

구사나기는 대학원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연구실을 나와ㄴ다。

驅使나기는 大學院生에게 고맙다고 人事하고 研究室을 나왔다。

구사나기는 대학원생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연구실을 나왔다。

草薙は大学院生に感謝し、研究室を出た。

깨름칙하ㄴ 느낌이 가슴을 메워ㄴ다。

깨름칙한 느낌이 가슴을 메웠다。

깨름칙한 느낌이 가슴을 메웠다。

ギリギリ感が胸を埋めた。

유가와가 시노자키역에는 무슨 볼일이 있는 거ㄴ까。

有價와가 시老子キ驛에는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

유가와가 시노자키역에는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

湯川が篠崎駅には何が見えるのか。

말하 ㄴ 것도 없이 시노자키역으 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 ㄴ 역이다.

말할 것도 없이 市老子키역은 이番 事件에서 重要な 驛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시노자키역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이다.

言うまでもなく、篠崎駅は今回の事件で重要な役だ。

학교에서 나오 ㄴ 그는 휴대 전화를 꺼내 ㄴ 다.

學校에서 나온 그는 携帶 電話를 꺼냈다.

학교에서 나온 그는 휴대 전화를 꺼냈다.

学校から出た彼は携帯電話を取り出した。

그러나 전화번호 목록에서 유가와와 번호를 불러내다 말고 도로 달아 버려 ㄴ 다.

그러나 電話番號 目錄에서 有價와의 番號를 불러내다 말고 도로 달아 버렸 다.

그러나 전화번호 목록에서 유가와와 번호를 불러내다 말고 도로 달아 버 렸다.

しかし、電話番号リストから湯川との番号を呼びかけずに道路を閉じてしま った。

지금 단계에서는 따지고 드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ㄴ기 때문이다.

只今 段階에서는 따지고 드는 것만이 上策이 아니라고 判斷했기 때문이

다。

지금 단계에서는 따지고 드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今の段階では、問い詰めるだけが商責ではないと判断したからだ。

유가와가 구사나기에게 아무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하려 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생각이 있어서일 것이다。

有價와假 驅使나기에게 아무 議論도 하지 않은 채 事件에 關與하려 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생각이 있어서일 것이다。

유가와가 구사나기에게 아무 의논도 하지 않은 채 사건에 관여하려 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생각이 있어서일 것이다。

湯川が草薙に何の議論もしないまま事件に關与しようとするのはそれなりに
考えがあっただろう。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しかし。

나 스스로 마음에 걸리는 점을 조사해 보는 정도는 상관없겠지, 라고 그는 생각해냈다。

나 스스로 마음에 걸리는 點을 調査해 보는 程度는 相關없겠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나 스스로 마음에 걸리는 점을 조사해 보는 정도는 상관없겠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私自ら気になる点を調べてみる程度は構わないだろう、と彼は考えた。

추가 시험을 채점하다 말고 이시가미는 한숨을 쉬어ㄴ다。

追加 試験을 採點하다 말고 이時加味는 한숨을 쉬었다。

추가 시험을 채점하다 말고 이시가미는 한숨을 쉬었다。

追加試験を採点するのではなく、石神はため息をついた。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나 형편없어ㄴ던 것이다。

學生들의 點數가 너무나 形便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나 형편없었던 것이다。

学生の点数があまりにも都合がなかったのだ。

통과시켜 주ㄴ 요량으로 기말 시험보다 훨씬 쉽게 출제해ㄴ는데도 제대로 되ㄴ

해답을 거의 찾아보ㄴ 수 없어ㄴ다。

通過시켜 줄 料量으로 期末 試験보다 훨씬 쉽게 出題했는데도 제대로 된

解答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통과시켜 줄 요량으로 기말 시험보다 훨씬 쉽게 출제했는데도 제대로 된
해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通過させてくれる要量で、期末試験よりはるかに簡単に出题したのに、きち

んとした答えをほとんど探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아무리 낮은 점수를 받아도 학교 측이 결국 진급시켜 줄 것을 아는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할 리 없다고 그는 생각해냈다.

아무리 낮은 點數를 받아도 學校 側이 結局 進級시켜 줄 것을 아는 學生들이 제대로 試驗 準備를 할 리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무리 낮은 점수를 받아도 학교 측이 결국 진급시켜 줄 것을 아는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 준비를 할 리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いくら低い点数を受けても学校側が結局進級させてくれることを知る学生たちがきちんと試験準備を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彼は考えた。

실제로 진급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냈다.

實際로 進級하지 못하는 學生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진급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實際に進級できない学生はほとんどいなかった。

합격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끝내는 전원을 진급시키고야 말아냈다.

合格點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에도 온갖 理由를 갖다 붙여서 끝내는 全員을 進級시키고야 말았다.

합격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서 끝내는 전원을 진급시키고야 말았다.

合格点に及ばない場合でも、いろいろな理由を持って貼って終わる全員を進級させ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렇다면 애당초 수학 성적을 진급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애當初 數學 成績을 進級の 條件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애당초 수학 성적을 진급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では、そもそも数学成績を進級の条件にしてはいけないか。

수학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 데다 고교 수학 같은 낮은 수준의 해법을 학생 모두에게 암기시켜 봐야 별 의미도 없는데 말이다。

數學을 正말로 理解할 수 있는 學生은 極少數인 데다 高校 數學 같은 낮은水準의 解法을 學生 모두에게 暗記시켜 봐야 別 意味도 없는데 말이다。

수학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데다 고교 수학 같은 낮은 수준의 해법을 학생 모두에게 암기시켜 봐야 별 의미도 없는데 말이다。

数学を本当に理解できる学生はごく少数であるうえ、高校数学のような低レベルの解法を学生全員に暗記させてみなければあまり意味もないのだ。

이 세상에 수학이라는 난해하 학문이 있다는 것 정도만 가르치면 그거

족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ㄴ다。

이世上에 數學이라는 難解한 學問이 있다는 것 程度만 가르치면 그걸로
足하다는 게 그의 主張이었다。

이 세상에 수학이라는 난해한 학문이 있다는 것 정도만 가르치면 그걸로
족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この世に数学という難解な学問があるという程度だけ教えればそれで足りる
というのが彼の主張だった。

채점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되어 가고 있어ㄴ다。

採點을 마치고 時計를 보니 저녁 8時가 되어 가고 있었다。

채점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되어 가고 있었다。

採点を終えて時計を見ると夕方 8時になっていていた。

유도장 문단속을 하고서 이시가미는 학교 정문으로 향해ㄴ다。

誘導章 門團束을 하고서 이時加味는 學校 正門으로 向했다。

유도장 문단속을 하고서 이시가미는 학교 정문으로 향했다。

柔道場の門取り締まりをして石神は学校の正門に向かった。

문을 나서 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남자 하나가 다가와ㄴ다。

門을 나선 後 橫斷歩道에서 信號를 기다리는데 男子 하나가 다가왔다。

문을 나선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남자 하나가 다가왔다。

ドアを出た後、横断歩道で信号を待つのに男の一人が近づいた。

“지금 퇴근하시 ㄴ니까?”

“只今 退勤하십니까?”

“지금 퇴근하십니까?”

「今退勤しますか？」

남자가 살가우 ㄴ 미소를 지어 ㄴ다.

男子가 살가운 微笑를 지었다.

남자가 살가운 미소를 지었다.

男が生きた笑顔を作った。

“집에 안 계시기에 이쪽에 계시 ㄴ가 하고 와 ㄴ습니다.

“집에 안 계시기에 이쪽에 계신가 하고 왔습니다.

“집에 안 계시기에 이쪽에 계신가 하고 왔습니다.

「家にいない時期にこちらにいらっしゃっています。

낮익으 ㄴ 얼굴이어 ㄴ다.

낮익은 얼굴이었다.

낮익은 얼굴이었다.

見知らぬ顔だった。

경시청 형사다。

輕視靑 刑事だ。

경시청 형사다。

警視庁刑事だ。

“덥은……。

“宅은……。

“덥은……。

「お宅は… … 。

“기억하시 ㄴ지 모르겠습니다。

“記憶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覚え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상대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며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여 ㄴ
다。

相對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것을 制止하며 이時加味는 고개를 끄덕
였다。

상대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며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
였다。

相手が内ポケットに手を入れようとするのを止め、石神は首をうなずいた。

“구사나기 씨죠? 기억하십니까。

“驅使나氣 氏죠? 記憶합니다。

“구사나기 씨죠? 기억합니다。

「草薙さんですか？覚えています。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이시가미는 횡단보도로 걸음을 내디뎠다。

信號가 抄錄으로 바뀌자 이時加味는 橫斷歩道로 걸음을 내디뎠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이시가미는 횡단보도로 걸음을 내디뎠다。

信号が緑に変わると石神は横断歩道で歩き回った。

구사나기가 그를 뒤따라와왔다。

驅使나기가 그를 뒤따라왔다。

구사나기가 그를 뒤따라왔다。

草薙が彼に従った。

이 형사가 무슨 일로 나타나니까。

이 刑事가 무슨 일로 나타난 걸까。

이 형사가 무슨 일로 나타난 걸까。

この刑事が何であったのか。

이시가미는 걸음을 옮기면서 두뇌를 가동하기 시작해_ㄴ다。

이時加味는 걸음을 옮기면서 頭腦를 可動하기 始作했다。

이시가미는 걸음을 옮기면서 두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石神は足を運びながら脳を稼動し始めた。

이틀 전에는 유가와가 찾아와_ㄴ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으_ㄴ까。

이틀 前에는 有價와가 찾아왔었는데, 그것과 關係가 있을까。

이틀 전에는 유가와가 찾아왔었는데, 그것과 관계가 있을까。

2 日前には湯川が訪れてきたのに、それと関係があるだろうか。

수사에 협조를 부탁하려 하_ㄴ다는 말을 유가와에게 들어_ㄴ지만 그거_ㄴ 이미 거
절해_ㄴ다。

搜查에 協助를 付託하려 한다는 말을 有價와에게 들었지만 그건 이미 拒絶
했다。

수사에 협조를 부탁하려 한다는 말을 유가와에게 들었지만 그건 이미 거
절했다。

捜査に協力をお願いしようという言葉을湯川に聞いたが、それはすでに断っ
た。

“유가와 마나부라는 사람, 아시죠?”

“有價와 마羅부라는 사람, 아시죠?”

“유가와 마나부라는 사람, 아시죠?”

「湯川とマナブという人、ご存知ですか？」

구사나기가 물어왔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아닙니다.

“압니다.

“압니다.

「わかります。

덱한테 내 얘기를 들어주다면서 만나러 와주더군요.

宅한테 내 얘기를 들었다면써 만나러 왔더군요.

덱한테 내 얘기를 들었다면써 만나러 왔더군요.

お宅に私の話を聞いたとして会いに来ましたね。

“네, 선생께서 데이토 대학 자연대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우, 나머지 그만

……。

“네, 先生께서 데이토 大學 自然臺 出身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운 나머지
그만……。

“네, 선생께서 데이토 대학 자연대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운 나머지
그만……。

「はい、先生がデート大学自然大学出身という言葉聞いて嬉しい残りの停
止…」 …。

쓸데없는 얘기를 하 ㄴ 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만。

無駄な話をしたのではないといいますが。

“아니 ㅂ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いいえ。

나도 반가워 ㅏ습니다。

나도 반가웠습니다。

나도 반가웠습니다。

私も嬉しかったです。

“그 친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親舊와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친구와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その友達と何を話したのですか？」

“뭐, 주로 옛날 이야기지요.

“뭐, 주로 옛날 이야기지요.

“뭐, 주로 옛날 이야기지요.

「まあ、主に昔の話ですね。

처음 만나ㄴ으ㄴ 때는 그래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습니다.

初めて会った時はそうでした。

“처음 만나ㄴ으ㄴ 때요?”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요?”

「初めて会った時？」

구사나기가 의아하ㄴ 표정을 지어ㄴ다.

驅使나기가 疑訝한 表情을 지었다。

구사나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草薙が怪しい表情をした。

“그를 몇 번이나 만나셔 ㄴ는데요?”

“그를 몇 番이나 만나셨는데요?”

“그를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彼に何度会ったの？」

“두 번이 ㄴ니다。

“두 番입니다。

“두 번입니다。

「二度です。

두 번째는 구사나기 씨의 부탁으로 와 ㄴ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驅使나氣 氏의 付託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구사나기 씨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二つ目は草薙さんのお願いで来たと言いましたね。

“제 부탁이라고요?”

“제 付託이라고요?”

“제 부탁이라고요?”

「私の頼みですか？」

구사나기의 눈길이 허공을 맴돌아ㅅ다。

驅使나기의 눈길이 虛空을 맴돌았다。

구사나기의 눈길이 허공을 맴돌았다。

草薙の目が虚空を振り返った。

“……무슨 부탁이라고 하던가요?”

“……무슨 付託이라고 하던가요?”

“……무슨 부탁이라고 하던가요?”

「… …どんなお願いだったんですか？」

“나한테 수사에 협조를 요청하ㄴ 수 있는지 타진해 달라고……。

“나한테 捜査에 協助를 要請할 수 있는지 打診해 달라고……。

“나한테 수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타진해 달라고……。

「私に捜査に協力を要請できるかどうか打診してほしい…」 …。

“아하, 그 얘기여ㅅ군요。

“아하, 그 얘기였군요。

“아하, 그 얘기였군요。

「あは、その話でしたね。

구사나기가 이마를 긁적거리^ㄴ다。

驅使나기가 이마를 긁적거렸다。

구사나기가 이마를 긁적거렸다。

草薙が額を傷つけた。

워^ㄴ가 잘못돼^ㄴ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직감해^ㄴ다。

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時加味는 直感했다。

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시가미는 직감했다。

何か間違っていたことを石神は直感した。

이 형사는 분명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 刑事는 分明 唐慌스러워하고 있다。

이 형사는 분명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この刑事は明らかに慌てている。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ㄴ 유가와와 의 얘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지도 모르^ㄴ

다。

捜査に 協助해 달라고 한 有價와의 얘기에 對해 아는 바가 없는지도 모른

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한 유가와와 얘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지도 모른다。

捜査に協力してもらった湯川の話について知ることがないかもしれない。

구사나기가 어색하 ㄴ 미소를 떠올려 ㅅ 다。

驅使나기가 語塞한 微笑를 떠올렸다。

구사나기가 어색한 미소를 떠올렸다。

草薙がぎこちない笑顔を思い浮かべた。

“그와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어느 거 ㄴ 말하는지 좀 혼란스럽군요。

“그와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어느 걸 말하는지 좀 混亂스럽군요。

“그와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어느 걸 말하는지 좀 혼란스럽군요。

「彼とも、いろいろな話を交わしてどんなことを言うのか、ちょっと混乱しますね。

그게 저…… 수사에 무슨 협조를 부탁하 ㄴ 다고 하던가요?”

그게 저…… 捜査에 무슨 協助를 付託한다고 하던가요?”

그게 저…… 수사에 무슨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던가요?”

それが私… …捜査にどんな協力をお願いすると言いましたか？

형사의 물음에 이시가미는 잠시 궁리해 보아^ㄴ다。

刑事의 물음에 이時加味는 暫時 窮理해 보았다。

형사의 물음에 이시가미는 잠시 궁리해 보았다。

刑事の問いに石神はしばらく工夫してみた。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는 조심스러워^ㄴ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는 操心스러웠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는 조심스러웠다。

花岡康子の名前を口の外に賭けることは慎重だった。

그러나 여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ㄴ다。

그러나 여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しかし、ここで井戸を洗ってはいけません。

구사나기는 유가와에게 가서 확인하^ㄴ 것이다。

驅使나기는 有價와에게 가서 確認할 것이다。

구사나기는 유가와에게 가서 확인할 것이다。

草薙は湯川に行って確認するだろう。

하나오카 야스코의 감시자 역할이라고 이시가미가 말해^ㄴ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監視者 役割이라고 이時加味가 말했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감시자 역할이라고 이시가미가 말했다.

花岡康子の監視者の役割だと石神が言った。

구사나기는 눈을 활짝 떠^ㄴ다.

驅使나기는 눈을 활짝 떴다.

구사나기는 눈을 활짝 떴다.

草薙は目を広げた。

“아…… 그거여^ㄴ군요! 아하하.

“아…… 그거였군요! 아하하.

“아…… 그거였군요! 아하하.

「あ… …それでしたね! あはは。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はい、そうです。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ㄴ 적이 있죠.

그 親舊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その友人にそんなことを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

이시가미 씨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게 사실이 ㅂ니다.

이時가美 氏에게 協助를 付託하고 싶다는 意味의 말을 한 게 事實입니다.

이시가미 씨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게 사실입니
다。

石神さんに協力をお願いしたいという意味の言葉をしたのが事実です。

그 친구가 눈치 빠르게 그 말을 알아듣고 이시가미 선생께 전해 ㅅ군요.

그 親舊가 눈치 빠르게 그 말을 알아듣고 이時加味 先生께 傳했군요.

그 친구가 눈치 빠르게 그 말을 알아듣고 이시가미 선생께 전했군요.

あの友達が気づいてすぐにその言葉を聞いて石神先生に伝えましたね。

아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아, 이제 알겠습니다.

ああ、もう分かります。

그러나 이시가미에게는 형사의 말이 급히 꾸며 내 ㅅ 것으로밖에 들리지 ㅅ않
다。

그러나 이時加味에게는 刑事의 말이 급히 꾸며 낸 것으로밖에 들리지 ㅅ않

다。

그러나 이시가미에게는 형사의 말이 급히 꾸며 낸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しかし石神には刑事の言葉が急いで出したものにしか聞こえなかった。

그렇다면 유가와는 독단적으로 그런 말을 하러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有價와는 獨斷적으로 그런 말을 하러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와는 독단적으로 그런 말을 하러 찾아온 것이다。

それなら、ユガとは独断的にそのような言葉をしに訪れたのだ。

왜 그래 ㄴ으ㄴ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なぜそうしたのか。

이시가미가 걸음을 멈추고 구사나기를 향해 돌아서 ㄴ다。

이時加味가 걸음을 멈추고 驅使나기를 向해 돌아섰다。

이시가미가 걸음을 멈추고 구사나기를 향해 돌아섰다。

石神が歩きを止めて草薙に向かって帰った。

“그거 ㄴ 물어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시 ㄴ 거 ㄴ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それを聞いてみようとなわざわざここまで来たのでしょうか？」

“아, 아니 ㅆ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あ、いや。

이거 ㄴ 서론이고,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序論이고, 本論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서론이고,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これは序論であり、本論は別にあります。

구사나기는 웃웃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ㅅ다.

驅使나기는 웃웃 주머니에서 寫眞 한 張을 꺼냈다.

구사나기는 웃웃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草薙は笑いのポケットから写真一枚を取り出した。

“이 사람을 보 ㄴ 적이 있으시 ㅆ니까? 숨어서 몰래 찍으 ㄴ 거라 잘 나오지는 않

아 ㅅ습니다만.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숨어서 몰래 찍은 거라 잘 나오지는 않았

습니다만。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숨어서 몰래 찍은 거라 잘 나오지는 않았 습니다만。

「この人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隠れてこっそり撮ったのでよく出ていま せんでしたが。

이시가미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숨을 헉, 삼켜ㄴ다。

이時加味는 寫眞을 들여다보는 것과 同時に 숨을 헉, 삼켰다。

이시가미는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과 동시에 숨을 헉, 삼켰다。

石神は写真を覗くと同時に息を呑み、飲み込んだ。

사진 속의 인물은 지금 이시가미가 그 누구보다 의문을 품고 있는 남자여ㄴ 다。

寫眞 속의 人物은 只今 이市加味가 그 누구보다 疑問을 품고 있는 男子였 다。

사진 속의 인물은 지금 이시가미가 그 누구보다 의문을 품고 있는 남자였 다。

写真の中の人物は今、石神が誰よりも疑問を抱いている男だった。

이름도 신분도 몰라ㄴ지만 요즘 야스코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고 있어ㄴ다。

이름도 身分도 몰랐지만 요즘 야스코와 親密하게 지내고 있다는 事實만은 알고 있었다。

이름도 신분도 몰랐지만 요즘 야스코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名前も身分も知らなかったが、最近ヤスコと親密に過ごしているという事実だけは知っていた。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どうですか？」

구사나기가 다시 물어냈다。

驅使나기가 다시 물었다。

구사나기가 다시 물었다。

草薙がまた尋ねた。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뭐라고 對答하면 좋을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何と答えればいいか。

모르ㄴ다고 하면 그거ㄴ로 그만이다.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知らないと言えばそれでやめる。

하지만 그래서 사진 속 남자에 관하ㄴ 정보도 얻어 내ㄴ 수 없다.

하지만 그래서 寫眞 속 男子에 關한 情報도 얻어 낼 수 없다.

하지만 그래서 사진 속 남자에 관한 정보도 얻어 낼 수 없다.

だが、だから写真の中の男に関する情報も得られな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ㄴ니다.

“本 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見たことがあるようです。

이시가미는 신중하게 대답해ㄴ다.

이時加味는 慎重하게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石神は慎重に答えた。

그리고 “뭐ㄴ 하는 사람이 ㄴ니까?”라고 되물어ㄴ다.

그리고 “뭘 하는 사람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뭘 하는 사람입니까?”라고 되물었다.

そして「何をする人ですか？」と言われた。

“어디서 보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보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보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どこで見たか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날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터라…… 이름이나 직업을 가르쳐 주시면

기억을 더듬기 쉬우ㄴ 데ㄴ 데 말이죠.

“날마다 여러 種類の 사람을 만나는 터라…… 이름이나 職業을 가르쳐 주

시면 記憶을 더듬기 쉬울 텐데 말이죠.

“날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터라…… 이름이나 직업을 가르쳐 주

시면 기억을 더듬기 쉬울 텐데 말이죠.

「毎日いろんな種類の人に会うから…」 …名前や職業を覚えていただければ

記憶をたどりやすいでしょう。

“구도라는 사람이 ㅅ니다.

“構圖라는 사람입니다.

“구도라는 사람입니다.

「構図という人です。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印刷所を經營하고 있습니다。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印刷所を經營しています。

“구도 씨라고요?”

“構圖 氏라고요?”

“구도 씨라고요?”

「構図さんですか？」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はい、そうです。

이름이 구도여군。

이름이 構圖였군。

이름이 구도였군。

名前が構図だったな。

이시가미는 새삼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時加味는 새삼 寫眞을 들여다보았다.

이시가미는 새삼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石神は改めて写真を覗いた。

형사가 이 남자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은 물론 하나오카 야스코와의 관계 때문
이 ㄴ 것이다.

刑事가 이 男子에 對해 調査하려는 것은 勿論 하나오카 야스코와의 關係
때문일 것이다.

형사가 이 남자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은 물론 하나오카 야스코와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刑事がこの男について調査しようとするのはもちろん、花岡康子との關係の
ためだろう。

그렇다면 이 형사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구도라는 사람 사이에 특별하 ㄴ 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ㄴ 가.

그렇다면 이 刑事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構圖라는 사람 사이에 特別한 關係
가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형사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구도라는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
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それならこの刑事は花岡康子と構図という人の間に特別な関係があると思う

のか。

“어떠세요, 기억나는 게 있으시 ㅂ니까?”

“어떠세요, 記憶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どうですか、覚え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か？」

“흠,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하 ㄴ데……。

“흠, 本 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흠,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うーん、見たことがあるみたいなのに……」 ... 。

이시가미는 고개를 갸우뚱해 ㅅ다。

이時加味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시가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石神は首をかしげた。

“죄송하 ㅂ니다。

“罪悚합니다。

“죄송합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얼른 떠오르지 않네요。

얼른 떠오르지 않네요。

얼른 떠오르지 않네요。

さっさと浮かびませんね。

어쩌면 다른 사람과 착각하_ㄴ 거_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錯覺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たぶん他人と勘違いし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

구사나기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대신 명함
을 한 장 꺼내_ㅆ다。

驅使나기는 아쉬워하는 表情을 지으며 寫眞을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代身
名銜을 한 張 꺼냈다。

구사나기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대신
명함을 한 장 꺼냈다。

草薙は惜しい表情をして写真を奥のポケットに入れ、代わりに名刺を一枚取り出した。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或是 떠오르는 게 있으면 連絡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もし思い浮かぶものがあれば連絡してもらえますか？」

“네,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はい、そうします。

그런데 그분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番 事件과 무슨 關聯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습니까?”

しかし、彼は今回の出来事と何が関係していますか？」

“그거 ㄴ 잘 모르 ㄴ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それはよくわかりません。

아직 조사하는 중이라서요.

아직 調査하는 中이라서요.

아직 조사하는 중이라서요.

まだ調べていますから。

“하나오카 씨와 관련되 ㄴ 사람이 ㅂ니까?”

“하나오카 氏와 關聯된 사람입니까?”

“하나오카 씨와 관련된 사람입니까?”

「花岡さんに関わる人ですか？」

“네, 뭐, 일단은요.

“네, 뭐, 一段은요.

“네, 뭐, 일단은요.

「はい、まあ、一応は。

구사나기가 말을 흐려 ㅅ다.

驅使나기가 말을 흐렸다.

구사나기가 말을 흐렸다.

草薙が言葉をぼやけた。

정보를 함부로 흘리고 싶지 않으 ㄴ 눈치여 ㅅ다.

情報를 함부로 흘리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정보를 함부로 흘리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情報をむやみに流したくない気がした。

“그런데…… 유가와와 베 ㄴ 테 ㄴ 테이에 가셔 ㄴ 었죠?”

“그런데…… 有價와와 벤텐테이에 가셨었죠?”

“그런데…… 유가와와 벤텐테이에 가셨었죠?”

「ところで… …湯川と弁天亭に行きましたか？」

이시가미가 형사를 돌아보아 ㄴ 다。

이時加味가 刑事를 돌아보았다。

이시가미가 형사를 돌아보았다。

石神が刑事を振り返った。

의외의 질문이라 순간적으로 대답하 ㄴ 말이 떠오르지 않아 ㄴ 다。

意外의 質問이라 瞬間적으로 對答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의외의 질문이라 순간적으로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意外な質問だと瞬間的に答える言葉が思い浮かばなかった。

“그저께 우연히 봐 ㄴ 습니다。

“그저께 偶然히 봤습니다。

“그저께 우연히 봤습니다.

「さあ、偶然見ました。

업무 중이라 말을 건넬 수는 없어..지만 말이 납니다.

業務 中이라 말을 건넬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업무 중이라 말을 건넬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業務中だから言葉を渡せませんでしたでしたが馬です。

그제야 이시가미는 형사가 베네펀테이를 감시하고 있어..다는 사실을 눈치
채..다.

그제야 이時加味는 刑事가 벤텐테이를 監視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눈치챘
다.

그제야 이시가미는 형사가 벤텐테이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챘
다.

やがて石神は刑事が弁天亭を監視していたという事実気づいた。

“유가와가 도시락을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내해..습니다.

“有價와假 도시락을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案内했습니다.

“유가와가 도시락을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내했습니다.

「湯川が弁当を買いたいと言って私が案内しました。

“왜 하필 베네펀테이여..쥬? 도시락이라면 근처 편의점에서도 얼마든지 사

ㄹ 수 있어ㅏ으ㄹ 테ㄴ데요。

“왜 何必 벤텐테이었죠? 도시락이라면 近處 便宜店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 벤텐테이었죠? 도시락이라면 근처 편의점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なぜそれはベンテンテーでしたか？お弁当なら近くのコンビニでもいくらでも買えたはずです。

“글쎄요, 그거ㄴ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죠。

“글쎄요, 그건 그 親舊한테 물어보시죠。

“글쎄요, 그건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죠。

「まあ、それはその友人に聞いてください。

그 친구가 가겠다고 해서 데려가ㄴ 것뿐이니깐요。

그 親舊가 가겠다고 해서 데려간 것뿐이니깐요。

그 친구가 가겠다고 해서 데려간 것뿐이니깐요。

その友達が行くからといって連れて行っただけですから。

“유가와가 하나오카 씨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有價와가 하나오카 氏나 事件에 對해서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유가와가 하나오카 씨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湯川が花岡さんや事件については何も言わなかったんですか？」

“말씀드려쥬잖습니까, 내가 수사에 협조하ㄴ 수 있는지 타진을……。

“말씀드렸잖습니까, 내가 捜査에 協助할 수 있는지 打診을……。

“말씀드렸잖습니까, 내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 타진을……。

「申し上げましたでしょうか、私が捜査に協力できるかどうかタ진을…

…。

구사나기가 고개를 저어쥬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저었다。

草薙が首を振った。

“그것 말고 말이 ㅂ니다。

“그것 말고 말입니다。

“그것 말고 말입니다。

「それじゃない。

들으셔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종 수사에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 주 ㅂ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種種 捜査에 도움이 되는 忠告를 해 줍니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종 수사에 도움이 되는 충고를 해 줘니

다。

聞いた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が、彼はしばしば調査に役立つアドバイスを

しています。

물리학자로서도 천재지만 탐정으로서의 능력도 상당하거든요。

物理學者로서도 天才지만 探偵으로서의 能力도 相當하거든요。

물리학자로서도 천재지만 탐정으로서의 능력도 상당하거든요。

物理学者としても天才ですが探偵としての能力も相当です。

그러니 평소처럼 자신이 추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기대가 돼서 말이죠。

그러니 平素처럼 自身이 推理한 内容を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期待가 돼서 말이죠。

그러니 평소처럼 자신이 추리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기대가 돼서 말이죠。

だから、いつものように自分が推理した内容を話していないか期待になってしまいます。

구사나기의 질문에 이시가미는 가벼운 혼란을 느껴서다。

驅使나기의 質問에 此時加味는 가벼운 混亂을 느꼈다。

구사나기의 질문에 이시가미는 가벼운 혼란을 느꼈다.

草薙の質問に石神は軽い混乱を感じた。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유가와와 이 형사는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 ㄴ 것이다.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有價와와 이 刑事는 情報를 交換하기도 할 것이다.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유가와와 이 형사는 정보를 교환하기도 할 것이
다。

よく会う仲なら、湯川とこの刑事は情報を交換することもあるだろう。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거 ㄴ 물으 ㄴ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걸 물을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걸 물을까。

ところでなぜ私にこんなことを聞くのか。

“별말 없어 ㅅ습니다。

“別말 없었습니다。

“별말 없었습니다。

「別にありませんでした。

이시가미로서는 그렇게 말하 ㄴ 수밖에 없어 ㅅ다。

이時加味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시가미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石神としてはそう言うしかなかった。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알아ㅅ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わかりました。

피곤하ㅅ데 ㄴ데 죄송하ㅂ니다。

疲困하ㅅ텐데 罪悚합니다。

피곤하ㅅ텐데 죄송합니다。

疲れているのに申し訳ありません。

구사나기는 고개를 숙이ㄴ뒤 두 사람이 걸어와ㅅ던 길을 되돌아가ㅅ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숙인 뒤 두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숙인 뒤 두 사람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草薙は頭を下げた後、二人が歩いてきた道に戻った。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시가미는 정체 모르 ㄴ 불안감에 사로잡혀 ㄴ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時加味는 正體 모를 不安感에 사로잡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시가미는 정체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その後ろ姿を見て石神は正体不明を不安感に捕らえた。

그것은 완벽하다고 믿어 ㄴ던 수식이 예기치 못하 ㄴ 미지수에 의해 서서히 흐트
러져 가 ㄴ 때의 느낌과 비슷해 ㄴ다。

그것은 完璧하다고 믿었던 修飾이 豫期치 못한 未知數에 依해 徐徐히 흐트
러져 갈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그것은 완벽하다고 믿었던 수식이 예기치 못한 미지수에 의해 서서히 흐트
러져 갈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それは完璧だと信じていた式が予期せぬ未知数によって徐々に乱れていく時
の感じに似ていた。

11

11

11

11

도에이신주쿠선 시노자키역을 나서면서 구사나기는 휴대 전화를 꺼내 들어 ㄴ
다。

道에李신주쿠선 時老子키驛을 나서면서 驅使나기는 携帶 電話를 꺼내 들었
다。

도에이신주쿠선 시노자키역을 나서면서 구사나기는 휴대 전화를 꺼내 들었

다。

都営新宿線篠崎駅を出ながら、草薙は携帯電話を取り出して聞いた。

전화번호 목록에서 유가와 마나부의 번호를 선택하_ㄴ 그는 발신 버튼을 눌러_ㄴ
다。

電話番号 目録에서 有償와 마나부의 番號를 選擇한 그는 發信 버튼을 눌렀
다。

전화번호 목록에서 유가와 마나부의 번호를 선택한 그는 발신 버튼을 눌
렀다。

電話番号リストから有償とマナブの番号を選択した彼は発信ボタンを押し
た。

그리고 전화기를 귀로 가져가며 주위를 둘러보아_ㄴ 다。

그리고 電話機를 귀로 가져가며 周圍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전화기를 귀로 가져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そして電話機を耳に持って周りを見回した。

오후 3시라는 어중간하_ㄴ 시간대 치고는 사람이 많아_ㄴ 다。

午後 3 時라는 於中間한 時間帶 치고는 사람이 많았다。

오후 3시라는 어중간한 시간대 치고는 사람이 많았다。

午後 3 時という中途半端な時間帯には人が多かった。

슈퍼마켓 앞에는 늘 그렇듯 자전거가 죽 늘어서 있다.

슈퍼마켓 앞에는 늘 그렇듯 自転車가 죽 늘어서 있다.

슈퍼마켓 앞에는 늘 그렇듯 자전거가 죽 늘어서 있다.

スーパーマーケットの前にはいつものように自転車が瘦せている。

이윽고 회선이 연결되는 기색이 느껴져ㄴ다.

이윽고 回線이 連結되는 氣色이 느껴졌다.

이윽고 회선이 연결되는 기색이 느껴졌다.

やがて回線がつながる気配が感じられた。

그러나 그는 발신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끊어ㄴ다.

그러나 그는 발呻吟이 울리기 前に 電話를 끊었다.

그러나 그는 발신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しかし、彼は発信音が鳴る前に電話を切った。

시선이 닿는 곳에 상대방이 있어ㄴ기 때문이다.

視線이 닿는 곳에 相對方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선이 닿는 곳에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視線が届くところに相手がいたからだ。

서점 앞 가드레일에 걸터앉아 유가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ㄴ다.

書店 앞 가드레일에 걸터앉아 有價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서점 앞 가드레일에 걸터앉아 유가와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書店の前ガードレールに座り、湯川はソフト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ていた。

하야 ㄴ 바지에 검정 니트 차림。

하얀 바지에 檢定 니트 차림。

하얀 바지에 검정 니트 차림。

白いパンツに黒のニット姿。

알이 자그마하 ㄴ 선글라스를 끼어 ㄴ 다。

알이 자그마한 선글라스를 끼었다。

알이 자그마한 선글라스를 끼었다。

卵が細かいサングラスをかけた。

구사나기는 길을 건너 그의 등 뒤로 다가가 ㄴ 다。

驅使나기는 길을 건너 그의 等 뒤로 다가갔다。

구사나기는 길을 건너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草薙は道を渡って彼の背中に近づいた。

유가와는 줄곧 슈퍼마켓 주변을 바라보고 있어 ㄴ 다。

有價와는 줄곧 슈퍼마켓 周邊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가와는 줄곧 슈퍼마켓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湯川はずっとスーパーマーケット周辺を眺めていた。

“갈리 ㄴ레오 선생.

“갈릴레뫼 先生.

“갈릴레오 선생.

「ガリレオ先生.

놀래 주 ㄴ 심산으로 불려 ㄴ는데 유가와와 반응은 의외로 뜨뜻미지근해 ㄴ다.

놀래 줄 心算으로 불렀는데 有價와와 反應은 意外로 뜨뜻미지근했다.

놀래 줄 심산으로 불렀는데 유가와와 반응은 의외로 뜨뜻미지근했다.

驚かせる深山と呼んだが、湯川との反応は意外と熱くぬかった。

그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슬로모션처럼 느긋하 ㄴ 동작으로 고개를 돌려 ㄴ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슬로모션처럼 느긋한 動作으로 고개를 돌렸 ㄴ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슬로모션처럼 느긋한 동작으로 고개를 돌렸 ㄴ다.

彼はアイスクリームを舐めながらスローモーションのようにゆったりとした動きで首を回した。

“역시 냄새를 잘 맡는군。

“亦是 냄새를 잘 맡는군。

“역시 냄새를 잘 맡는군。

「やっぱり匂いをよく嗅ぐね。

형사가 개에 비견되는 이유를 아_는 것 같아。

刑事가 개에 比肩되는 理由를 알 것 같아。

형사가 개에 비견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探偵が犬に悲観される理由を知っているようだ。

유가와가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고서 말해_는다。

有價와假 表情을 거의 바꾸지 않고서 말했다。

유가와가 표정을 거의 바꾸지 않고서 말했다。

湯川が表情をほとんど変えずに語った。

“이런 데서 뭐_는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_는다느니

하는 대답 말고。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느니

하는 對答 말고。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느니

하는 대답 말고。

「こんなところで何をしているの？いやいや、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ていたんだという答えじゃない。

유가와가 피식 웃어ㄴ다。

有價와가 피식 웃었다。

유가와가 피식 웃었다。

湯川がフィシク笑った。

“자네야말로 뭐 ㄴ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으 ㄴ 심정이지만 답이 너무 뻔하군。

“자네야말로 뭘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心情이지만 答이 너무 뻔하군。

“자네야말로 뭘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지만 답이 너무 뻔하군。

「君こそ何をしているのかと聞きたい心情だが、答えがあまりにも明らかだ。

나를 찾아와 ㄴ겠지。

나를 찾아왔겠지。

나를 찾아왔겠지。

私を訪ねてきただろう。

아니, 내가 뭐 ㄴ 하는지 살피러 와 ㄴ다고 하 ㄴ까。

아니, 내가 뭘 하는지 살피러 왔다고 할까。

아니, 내가 뭘 하는지 살피러 왔다고 할까。

いや、私が何をしているのかを見て来たというか。

“잘도 아는군。

“잘도 아는군。

“잘도 아는군。

「よく知ってるね。

그럼 솔직히 말해 봐。

그럼 率直히 말해 봐。

그럼 솔직히 말해 봐。

では正直に言ってみて。

뭐 ㄴ 하러 오 ㄴ 거야?”

뭘 하러 온 거야?”

뭘 하러 온 거야?”

何に来たの？」

“자네를 기다려 ㅅ지。

“자네를 기다렸지。

“자네를 기다렸지。

「君を待ったよ。

“나를? 농담하지 말고!”

“나를? 弄談하지 말고!”

“나를? 농담하지 말고!”

「私? 冗談じゃない!」

“나 완전 진지해。

“羅 完全 眞摯해。

“나 완전 진지해。

「私は真剣に。

아까 연구실에 전화해ㄴ더니 대학원생이 자네가 찾아와ㄴ었다고 하더군。

아까 研究室에 電話했더니 大學院生이 자네가 찾아왔었다고 하더군。

아까 연구실에 전화했더니 대학원생이 자네가 찾아왔었다고 하더군。

さっき研究室に電話したら大学院生が君が訪ねてきたと言った。

자네, 어젯밤에도 나를 찾아와ㄴ었다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

타나ㄴ 거라고 예상해ㄴ어。

자네, 어젯밤에도 나를 찾아왔었다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타날 거라고 豫想했어。

자네, 어젯밤에도 나를 찾아왔었다면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어.

お前、昨夜も俺を訪ねてきたとか？だからここで待っていたら現れると予想した。

내가 시노자키에 가_ㄴ으_ㄴ 거라는 말을 대학원생이 해_ㄴ다고 하니까.

내가 市老子키에 갔을 거라는 말을 大學院生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시노자키에 갔을 거라는 말을 대학원생이 했다고 하니까.

私が篠崎に行ったという言葉を大学院生がしたというから。

유가와가 말하_ㄴ 대로여_ㄴ다.

有價와假 말한 대로였다.

유가와가 말한 대로였다.

湯川が言った通りだった。

데이토 대학 연구실에 가 보니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출 중이어_ㄴ다.

데이토 大學 研究室에 가 보니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外出 中이었다.

데이토 대학 연구실에 가 보니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출 중이었다.

デート大学研究室に行ってみると、彼は昨日と同じく外出中だった。

행선지가 시노자키 아니_ㄴ까 하고 짐작하_ㄴ 것은 어젯밤 대학원생에게 들으_ㄴ

이야기를 근거로 하_ㄴ 것이어_ㄴ다.

行先地가 市老子키 아닐까 하고 斟酌한 것은 어젯밤 大學院生에게 들은 이야기를 根據로 한 것이었다。

행선지가 시노자키 아닐까 하고 짐작한 것은 어젯밤 대학원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行先が篠崎じゃないかと推測したのは昨夜大学院生に聞いた話を根拠にしたものだった。

“나 ㄴ 자네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는지를 묻는 거야。

“난 자네가 무슨 目的으로 여기 와 있는지를 묻는 거야。

“난 자네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는지를 묻는 거야。

「私はあなたがどんな目的でここに来ているのか尋ねます。

구사나기가 조금 크 ㄴ 소리로 말해 ㅅ 다。

驅使나기가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구사나기가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草薙が少し大声で言った。

이 물리학자의 굵뜨 ㄴ 언행에 익숙해지 ㄴ 때도 돼 ㅅ 건만 부아가 치미는 거 ㄴ 참으 ㄴ 수 없어 ㅅ 다。

이 物理學者의 굵뜨 ㅅ 言行에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부아가 치미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이 물리학자의 굵은 언행에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부아가 치미는 걸 참을 수 없었다.

この物理学者の凄い言行に慣れる時もあったが、ブアがチミは我慢できなかった。

“이봐, 뭐 ㄴ 그렇게 안달하고 그러나.

“이봐, 뭘 그렇게 안달하고 그러나.

“이봐, 뭘 그렇게 안달하고 그러나.

「ねえ、何をそんなにやっているけど。

커피나 한잔하자고.

커피나 한盞하자고.

커피나 한잔하자고.

コーヒーや一杯しよう。

비록 캐 ㄴ 커피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보다는 맛있으 ㄴ 거야.

비록 캔 커피지만 우리 研究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보다는 맛있을 거야.

비록 캔 커피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보다는 맛있을 거야.

たとえば缶コーヒーだが、私たちの研究室で飲む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よりは

美味しいだろう。

그리고 유가와는 일어서서 남은 아이스크림콘을 쓰레기통에 던져ㄴ다。

그리고 有價와는 일어서서 남은 아이스크림콘을 쓰레기桶에 던졌다。

그리고 유가와는 일어서서 남은 아이스크림콘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そして湯川は立ち上がり、残ったアイスクリームコーンをゴミ箱に投げた。

슈퍼마켓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캐ㄴ 커피를 뽑으ㄴ 그는 하나를 구사나기에게

건네ㄴ 후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에 올라앉아 그것을 마시기 시작해ㄴ다。

슈퍼마켓 앞에 있는 自販機에서 캔 커피를 뽑은 그는 하나를 驅使나기에게

건넨 後 바로 옆에 있는 自轉車에 올라앉아 그것을 마시기 始作했다。

슈퍼마켓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캔 커피를 뽑은 그는 하나를 구사나기에게

건넨 후 바로 옆에 있는 자전거에 올라앉아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다。

スーパーマーケットの前にある自販機で缶コーヒーを抜いた彼は、ひとつを

草薙に渡した後、すぐそばにある自転車に上がってそれを飲み始めた。

구사나기는 서ㄴ 채로 캐ㄴ 커피 뚜껑을 따ㄴ 다음 주위를 둘러보아ㄴ다。

驅使나기는 선 채로 캔 커피 뚜껑을 땀 다음 周圍를 둘러보았다。

구사나기는 선 채로 캔 커피 뚜껑을 땀 다음 주위를 둘러보았다。

草薙は禅のまま缶コーヒーのふたを取った後、周囲を見回した。

“남의 자전거에 함부로 앉지 마。

“男의 自轉車에 함부로 앉지 마。”

“남의 자전거에 함부로 앉지 마。”

「男の自轉車にむやみに座らないでくださ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大丈夫。」

이 자전거 주인은 당분간 안 나타나 ㄴ 테니까。

이 自轉車 主人은 當分間 안 나타날 테니까。

이 자전거 주인은 당분간 안 나타날 테니까。

この自轉車主人はしばらく現れないから。

“그거 ㄴ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それをどのように知っていますか？」

“주인이 이거 ㄴ 여기 두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거 ㄴ 봐 ㅅ 거든。”

“主人이 이걸 여기 두고 地下鐵驛으로 가는 걸 봤거든。”

“주인이 이걸 여기 두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걸 봤거든。”

「主人がこれをここに置いて地下鉄駅に行くのを見たんだ。

바로 다음 역까지만 가_ㄴ다고 해도 볼일 마치고 돌아오려면 삼십 분은 족히 걸리_ㄴ 거야。

바로 다음 驛까지만 간다고 해도 볼일 마치고 돌아오려면 三十 分은 족히 걸릴 거야。

바로 다음 역까지만 간다고 해도 볼일 마치고 돌아오려면 삼십 분은 족히 걸릴 거야。

まさに次の駅までしか行かないと言っても、一日の終わりに戻ってくるには三十分は足りるんだ。

구사나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두 손 들어_ㄴ다는 표정을 지어_ㄴ다。

驅使나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두 손 들었다는 表情을 지었다。

구사나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두 손 들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草薙はコーヒーを一口飲んでから両手聞いたという表情をした。

“저런 데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런 거나 지켜보고 있어_ㄴ어?”

“저런 데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런 거나 지켜보고 있었어?”

“저런 데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런 거나 지켜보고 있었어?”

「あんなところで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ながらそんなか見守ってたの？」

“인간 관찰이 내 취미거든。

“人間 觀察이 내 趣味거든。

“인간 관찰이 내 취미거든。

「人間觀察が私の趣味だ。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どれくらい面白いのにそう。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어서 설명해 봐。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어서 説明해 봐。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어서 설명해 봐。

「無駄な話をめて、さあ説明してみて。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번 살인 사건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느니, 그런 뻔하
ㄴ 거짓말은 하지 말고。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이番 殺人 事件이랑은 아무 關係도 없다느니, 그런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고。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이번 살인 사건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느니, 그
런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고。

なぜこんなことがあるの? 今回殺人事件とは何の關係もないんだから、そん
なきつい嘘はしないで。

그러자 유가와는 몸을 틀어 자신이 앉아 있는 자전거 뒷바퀴의 흠받기 부근을 보아^ㄴ다。

그러자 有價와는 몸을 틀어 自身이 앉아 있는 自轉車 뒷바퀴의 흠받기 附近을 보았다。

그러자 유가와는 몸을 틀어 자신이 앉아 있는 자전거 뒷바퀴의 흠받기 부근을 보았다。

するとユガワは体をひねって自分が座っている自転車の後輪の土受け付近を見た。

“요즘은 자전거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요즘은 自轉車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

“요즘은 자전거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

「最近は自転車に名前を書く人がほとんどいない。

남에게 신원이 알려지면 위험하^ㄴ 일을 당하^ㄴ까 봐 염려해서겠지。

男에게 伸冤이 알려지면 危險한 일을 當할까 봐 念慮해서겠지。

남에게 신원이 알려지면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염려해서겠지。

他人に身元が知られたら危険なことに遭うかと心配しているだろう。

전에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으^ㄴ 정도로 꼭 이름을 적어 두어^ㄴ는데 말이야。

前에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程度로 꼭 이름을 적어 두었는데 말이야。

전에는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꼭 이름을 적어 두었는데 말이야。

以前は必ず、とっていいほどぜひ名前を書いておいたのですが。

시대가 바뀌니 습관도 바뀌 거지。

時代が 바뀌니 習慣도 바뀐 거지。

시대가 바뀌니 습관도 바뀐 거지。

時代が変わると習慣も変わったんだ。

“자전거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군。

“自轉車가 마음에 걸리는 模様が군。

“자전거가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군。

「自轉車が気になる形だな。

그리고 보니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해썩어。

그리고 보니 지난番에도 그런 말을 했어。

그리고 보니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어。

そういえば前回もそういう話をした。

구사나기는 유가와와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아^ㄴ 수 있어^ㄴ다。

驅使나기는 有價와와 말과 行動을 통해 그가 무엇을 意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구사나기는 유가와와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草薙は、原油との言葉と行動を通じて、彼が何を意識している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た。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여 다。

有價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湯川が首をうなずいた。

“자네는 사체 옆에 뒹굴던 자전거가 위장 공작이 ㄴ 가능성은 낮다고 해 다지?”

“자네는 史체 옆에 뒹굴던 自轉車가 偽裝 工作일 可能性은 낮다고 했지?”

“자네는 사체 옆에 뒹굴던 자전거가 위장 공작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

「君は死体の隣に転がっていた自転車が迷彩工作である可能性は低いと言ったのか」

“위장 공작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어 다어。

“偽裝 公爵으로서는 意味가 없다는 뜻이었어。

“위장 공작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어。

「迷彩工作としては意味がないという意味だった。

자전거에 피해자 지문을 묻혀 두 ㄴ 요량이었 ㄴ으면 애당초 사체의 지문을 태우 ㄴ 필요가 없잖아。

自轉車에 被害者 地文을 묻혀 둘 料量이었으면 애當初 史체의 地文을 태울 必要가 없잖아。

자전거에 피해자 지문을 묻혀 둘 요량이었으면 애당초 사체의 지문을 태울 필요가 없잖아。

自転車に被害者の指紋を埋め込んでおくべき量だったら、そもそも死体の指紋を燃やす必要がないでしょう。

실제로 자전거의 지문으로 신원이 판명되기도 해 ㄴ고。

實際로 自轉車の 地文으로 伸冤이 判明되기도 했고。

실제로 자전거의 지문으로 신원이 판명되기도 했고。

實際に自転車の指紋で身元が判明したりして。

“바로 그 점이 ㄴ데 말이지, 만일 자전거에 지문이 없 ㄴ다면 어때 ㄴ으 ㄴ까?”

경찰이 사체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ㄴ으 ㄴ까?”

“바로 그 點인데 말이지, 萬一 自轉車에 地文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警察이 사체의 伸冤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바로 그 점인데 말이지, 만일 자전거에 지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경찰이 사체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まさにその点なのに、もし自転車に指紋がなかったらどうだったのだろう

か？警察が死体の身元を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のだろうか？

유가와와의 질문에 구사나기는 10초 정도 침묵해ㄴ다。

有價와의 質問에 驅使나기는 10秒 程度 沈黙했다。

유가와와의 질문에 구사나기는 10초 정도 침묵했다。

湯川の質問に駆けつけは 10秒ほど沈黙した。

생각해 보ㄴ 적이 없는 문제여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問題였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였다。

考えたことがない問題だった。

아니, 라고 그는 대답해ㄴ다。

아니, 라고 그는 對答했다。

아니, 라고 그는 대답했다。

いいえ、と彼は答えた。

“결과적으로는 렌탈 룸에서 행방을 감추ㄴ 남자와 지문이 일치하ㄴ으로써 신

원이 밝혀져ㄴ지만, 지문이 없어ㄴ어도 문제는 없어ㄴ으ㄴ 거야。

“結果的には レンタル ルームで 行方を 감춘 男子와 地文이 一致함으로써 伸冤

이 밝혀졌지만, 地文이 없었어도 問題는 없었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렌탈 룸에서 행방을 감춘 남자와 지문이 일치함으로써 신원이 밝혀졌지만, 지문이 없었어도 문제는 없었을 거야.

「結果的にはレンタルルームで行方を隠した男と指紋が一致することで身元が明らかになったが、指紋がなくても問題はなかっただろう。

DNA 감정을 해ㄴ다는 말, 전에도 해ㄴ지?”

DNA 感情을 했다는 말, 前에도 했지?”

DNA 감정을 했다는 말, 전에도 했지?”

DNA 感情をしたという言葉、前もしたの？」

“그래, 들어ㄴ어.

“그래, 들었어.

“그래, 들었어.

「ええ、聞いた。

그러니까 사체의 지문을 태우ㄴ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史체의 地文을 태운 事實 自體는 아무런 意味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체의 지문을 태운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だから死体の指紋を乗せた事実自体は何の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だ。

그런데 만일 범인이 거기까지 이미 계산해ㄴ다면 어떠ㄴ까?”

그런데 萬一 犯人이 거기까지 이미 計算했다면 어떨까?”

그런데 만일 범인이 거기까지 이미 계산했다면 어떨까?”

ところで、もし犯人がそこまで既に計算していたらどうだろうか？」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ㄴ 알면서 지문을 태워 ㄴ다는 거야?”

“아무 所用이 없다는 걸 알면서 地文을 태웠다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 지문을 태웠다는 거야?”

「何の役に立たないことを知りながら指紋を燃やしたというの？」

“물론 범인에게는 소용이 있지。

“勿論 犯人에게는 所用이 있지。

“물론 범인에게는 소용이 있지。

「もちろん犯人には役に立たない。

다만 그거 ㄴ 사체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던 자전거가 위장

공작이 아니 ㄴ 것처럼 보이기 위하 ㄴ 장치여 ㄴ다고 생각하 ㄴ 수는 없으 ㄴ까?”

다만 그건 史체의 伸冤을 숨기기 爲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던 自轉車가 偽

裝 工作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爲한 裝置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다만 그건 사체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던 자전거가 위장 공작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ただ、それは死体の身元を隠すためではなく、隣にあった自転車が迷彩工作

ではないように見えるための装置だったとは思えないだろうか？

의표를 찌르는 의견에 구사나기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아 ㄴ다。

意表를 찌르는 意見에 驅使나기는 그만 말門이 막히고 말았다.

의표를 찌르는 의견에 구사나기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意表を突く意見に駆けつけるのはやめた言葉が詰まってしまった。

“실은 그것이야말로 위장 공작이어ㄴ다는 거야?”

“實은 그것이야말로 僞裝 工作이었다는 거야?”

“실은 그것이야말로 위장 공작이었다는 거야?”

「実はそれこそ迷彩工作だったというの？」

“그래.

“그래.

“그래.

「ええ.

워 ㄴ 노리 ㄴ 위장이 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월 노린 僞裝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월 노린 위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何を狙った迷彩なのかは分からないけどね。

유가와는 걸터앉아 있던 자전거에서 내려서ㄴ다.

有價와는 걸터앉아 있던 自轉車에서 내려섰다.

유가와는 걸터앉아 있던 자전거에서 내려섰다。

湯川とは座っていた自転車から降りた。

“피해자 스스로 그 자전거를 타고 현장까지 가_ㄴ 것으로 보이게 하려 해_ㄴ던 것만은 사실이_ㄴ 거야。

“被害者 스스로 그 自転車를 타고 現場까지 간 것으로 보이게 하려 했던 것만은 事實일 거야。

“피해자 스스로 그 자전거를 타고 현장까지 간 것으로 보이게 하려 했던 것만은 사실일 거야。

「被害者自らその自転車に乗って現場まで行ったように見せようとしたのだけは事実だろう。

그렇다면 왜 그런 위장을 해야 해_ㄴ으_ㄴ까?”

그렇다면 왜 그런 僞裝을 해야 했을까?”

그렇다면 왜 그런 위장을 해야 했을까?”

それなら、なぜそんな迷彩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

“그거_ㄴ 이미 살해하_ㄴ 사람을 운반해_ㄴ기 때문이겠지。

“그건 이미 殺害한 사람을 運搬했기 때문이겠지。

“그건 이미 살해한 사람을 운반했기 때문이겠지。

「それはすでに殺害した人を運んだからだ。

우리 반장 같은 사람은 그 가설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 班長 같은 사람은 그 假說을 내세우고 있어。

우리 반장 같은 사람은 그 가설을 내세우고 있어。

私たちの班長のような人はその仮説を立てている。

“자네는 그 가설에 반대해 ㄴ고。

“자네는 그 假說에 反對했고。

“자네는 그 가설에 반대했고。

「あなたはその仮説に反対した。

그렇지? 가장 유력하 ㄴ 용의자이 ㄴ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게 이유여 ㄴ고 말이야。

그렇지? 가장 有力한 容疑者인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運転免許가 없다는 게
理由였고 말이야。

그렇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게 이유였고 말이야。

そうですか? 最も有力な容疑者である花岡康子に運転免許がないというのが
理由でした。

“공범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共犯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공범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共犯があれば話は変わるだろう。

“그거 ㄴ 그렇다 치고, 그보다 내가 문제 삼는 거 ㄴ 자전거를 도난당하 ㄴ 시각이
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보다 내가 問題 삼는 건 自轉車を 盗難當한 時刻이
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보다 내가 문제 삼는 건 자전거를 도난당한 시각이
야。

「それはそうだし、それより私が問題にするのは自転車を盗まれた見方だ。

오전 열한 시에서 밤 열 시 사이로 판명되 ㄴ 모양이 ㄴ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의
혹이 일어 ㄴ어。

午前 열한 時에서 밤 열 時 사이로 判明된 模様인데, 그 말을 듣고 나는
疑惑이 일었어。

오전 열한 시에서 밤 열 시 사이로 판명된 모양인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의혹이 일었어。

午前 11 時から夜 10 時の間で判明した模様なのに、その言葉を聞いて私は
疑惑が起きた。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 ㄴ 수 있으 ㄴ까 하고。

어떻게 그렇게 端正할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하고。

どうやってそう断定できるかと。

“그야 자전거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겠어。

“그야 自轉車 主人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겠어。

“그야 자전거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겠어。

「そりゃ自轉車主人がそう言うのにどうしよう。

간단하잖아。

簡單하잖아。

간단하잖아。

簡單じゃない。

“바로 그 점이 ㄴ 데 말이지,”

“바로 그 點인데 말이지,”

“바로 그 점인데 말이지,”

「まさにその点なのにね。」

유가와가 캐 ㄴ 커피를 쥐 ㄴ 손을 흔들어 ㅅ 다。

有價와가 캔 커피를 쥔 손을 흔들었다。

유가와가 캔 커피를 왼 손을 흔들었다.

湯川が缶コーヒーを握った手を振った。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 주인을 쉽게 찾아냈지?”

“어떻게 그렇게 自轉車 主人을 쉽게 찾았지?”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 주인을 쉽게 찾았지?”

「どうやってそんなに自転車の持ち主を簡単に見つけたの？」

“그것도 간단해.

“그것도 簡單해.

“그것도 간단해.

「それも簡単だ.

도난 신고를 해냈거든.

盜難 申告를 했거든.

도난 신고를 했거든.

盜難申告をしたら.

조회만 해 보면 끝나는 일이야.

照會만 해 보면 끝나는 일이야.

조회만 해 보면 끝나는 일이야.

照会だけしてみると終わる事だ。

구사나기의 대답에 유가와는 나지막이 신음해 ㄴ다。

驅使나기의 對答에 有價와는 나지막이 呻吟했다。

구사나기의 대답에 유가와는 나지막이 신음했다。

草薙の答えに湯川とはちょうどうめいた。

매섭게 빛나고 있는 그의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져 ㄴ다。

매섭게 빛나고 있는 그의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졌다。

매섭게 빛나고 있는 그의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졌다。

辛く輝いている彼の目つきがサングラス越しにも感じられた。

“뭐 ㄴ데? 이번에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원데? 이쑤에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원데? 이번에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何? 今回はまた何が気に入らないの?」

그러자 유가와가 구사나기를 똑바로 바라보아 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驅使나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유가와가 구사나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すると湯川が草薙をまっすぐ眺めた。

“그 자전거를 어디서 도난당했는지 알아?”

“그 自轉車를 어디서 盜難當했는지 알아?”

“그 자전거를 어디서 도난당했는지 알아?”

「その自転車をどこで盗まれたのか知ってる？」

“물론이지。

“勿論이지。

“물론이지。

「もちろん。

내가 자전거 주인한테 직접 들어갔거든。

내가 自轉車 主人한테 直接 들었거든。

내가 자전거 주인한테 직접 들었거든。

私が自転車のオーナーに直接聞いたんだ。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안내 좀 해 줘。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案内 좀 해 줘。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안내 좀 해 줘。

「それではお手数ですが、ご案内してください。

이 근처지?”

이 近處지?”

이 근처지?”

これ近く？」

구사나기는 잠시 유가와와 얼굴을 뵈히 바라보아^ㄴ다。

驅使나기는 暫時 有價와와 얼굴을 뵈히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잠시 유가와와 얼굴을 뵈히 바라보았다。

草薙はしばらく湯川との顔をじっと見つめた。

거기^ㄴ 왜? 라고 묻고 싶어^ㄴ다。

거긴 왜? 라고 묻고 싶었다。

거긴 왜? 라고 묻고 싶었다。

そこになぜ? と聞きたかった。

그러나 일단 참기로 해^ㄴ다。

그러나 一旦 참기로 했다。

그러나 일단 참기로 했다。

しかし、いったん我慢することにした。

유가와와 눈에서 그가 날카롭게 추리하^ㄴ 때면 보이곤 하는 예리하^ㄴ 빛이 보여^ㄴ기 때문이다。

有價와와 눈에서 그가 날카롭게 推理할 때면 보이곤 하는 銳利한 빛이 보

였기 때문이다.

유가와 의 눈에서 그가 날카롭게 추리할 때면 보이곤 하는 예리한 빛이 보였기 때문이다.

湯川の目から彼が鋭く推理する時は見えてくる鋭い光が見えたからだ。

이쪽이야, 라고 말하 ㄴ 뒤 구사나기는 걸기 시작해 ㄴ다.

이쪽이야, 라고 말한 뒤 驅使나기는 걸기 始作했다.

이쪽이야, 라고 말한 뒤 구사나기는 걸기 시작했다.

こちらだ、と言った後、草薙は歩き始めた。

그리고 얼마 안 가 다다른 곳은 그들이 캐 ㄴ 커피를 마시던 데서 불과 50미터도 안 떨어지 ㄴ 위치여 ㄴ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다다른 곳은 그들이 캔 커피를 마시던 데서 不過 50미터도 안 떨어진 位置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다다른 곳은 그들이 캔 커피를 마시던 데서 불과 50미터도 안 떨어진 위치였다.

そしてしばらく行ったところは、彼らが缶コーヒーを飲んでからわずか 50メートルも離れた場所だった。

죽 늘어서 ㄴ 자전거 앞에서 구사나기는 걸음을 멈춰 ㄴ다.

죽 늘어선 自轉車 앞에서 驅使나기는 걸음을 멈췄다.

죽 늘어선 자전거 앞에서 구사나기는 걸음을 멈췄다.

お粥並んだ自転車の前で駆け抜けは歩きを止めた。

“이 보도 가드레일에 체인으로 묶어 두어ㄴ다고 하더군。

“이 報道 가드레일에 體認으로 묶어 두었다고 하더군。

“이 보도 가드레일에 체인으로 묶어 두었다고 하더군。

「この報道ガードレールにチェーンで縛っておいたと言った。

“범인이 체인을 잘라ㄴ다는 거야?”

“犯人이 體認을 잘랐다는 거야?”

“범인이 체인을 잘랐다는 거야?”

「犯人がチェーンを切ったというの？」

“아마도 그래ㄴ겠지。

“아마도 그랬겠지。

“아마도 그랬겠지。

「おそらくそうでした。

“체인 커터를 준비해 와ㄴ다는 거ㄴ가……。

“體認 커터를 準備해 왔다는 건가……。

“체인 커터를 준비해 왔다는 건가……。

「チェーンカッターを用意してきたというのか…」 …。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늘어서 있는 자전거들을 바라보아^ㄴ다.

그렇게 말하고 有價와는 늘어서 있는 自轉車들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늘어서 있는 자전거들을 바라보았다.

そう言って、湯川とは並んでいる自転車を眺めた。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これを見て.

체인이 안 걸려 있는 자전거가 더 많잖아.

體認이 안 걸려 있는 自轉車가 더 많잖아.

체인이 안 걸려 있는 자전거가 더 많잖아.

チェーンが掛かっていない自転車がもっと多いでしょ.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귀찮으^ㄴ 짓을 해^ㄴ으^ㄴ까?”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귀찮은 짓을 했을까?”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귀찮은 짓을 했을까?”

しかし、なぜあえてそんな面倒なことをしたのか？

“내^ㄴ들 어떻게 알아.

“넌들 어떻게 알아.

“넌들 어떻게 알아.

「Nundleはどうやって知っています。

마음에 드는 자전거에 우연히 체인이 걸려 있어ㄴ나 보지.

마음에 드는 自転車에 偶然히 體認이 걸려 있었나 보지.

마음에 드는 자전거에 우연히 체인이 걸려 있었나 보지.

お気に入りの自転車に偶然チェーンがかかっていたか見て。

“마음에 들어ㄴ다……。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気に入った… … 。

유가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려ㄴ다。

有價와假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가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湯川が一言のように呟いた。

“그럼 대체 뭐가 마음에 들어ㄴ으ㄴ까?”

“그럼 代替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그럼 대체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それでは一体何が好きだったのか？」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やりたいことは何ですか？」

구사나기가 살짝 짜증을 내^ㄴ다。

驅使나기가 살짝 짜증을 냈다。

구사나기가 살짝 짜증을 냈다。

草薙が少し迷惑を出した。

그러자 유가와가 구사나기 쪽으로 돌아서^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驅使나기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유가와가 구사나기 쪽으로 돌아섰다。

すると湯川が駆け寄りに戻った。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어제도 여기에 와^ㄴ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어제도 여기에 왔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어제도 여기에 왔었어。

「あなたも知っているように、私は昨日もここに来ました。

그리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을 관찰해ㄴ지.

그리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周邊을 觀察했지.

그리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을 관찰했지.

そして今日と同様にこの周辺を觀察した。

자전거가 하루 종일 있더군.

自轉車가 하루 終日 있더군.

자전거가 하루 종일 있더군.

自轉車が一日中あったね。

그것도 꽤 많이.

그것도 꽤 많이.

그것도 꽤 많이.

それもかなりたくさん。

체인으로 묶어 두 ㄴ 것이 있는가 하면 마치 도둑맞으 ㄴ 거 ㄴ 각오하 ㄴ 듯하 ㄴ

자전거도 있어ㄴ어.

體認으로 묶어 둔 것이 있는가 하면 마치 도둑맞을 걸 覺悟한 듯한 自轉車
도 있었어.

체인으로 묶어 둔 것이 있는가 하면 마치 도둑맞을 걸 각오한 듯한 자전
거도 있었어.

チェーンで縛っておいたものがあるかと思うと、まるで泥棒になることを覚悟したような自転車もあった。

그런데 그중에서 범인은 왜 하필이면 그 자전거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그중에서 犯人은 왜 何必裏面 그 自転車を 選擇했을까?”

그런데 그중에서 범인은 왜 하필이면 그 자전거를 선택했을까?”

しかし、その中で犯人はなぜハーピルなら、その自転車を選んだのだろうか？」

“확실히 범인이 훔친 거 아니야.

“確實히 犯人이 훔친 건 아니야.

“확실히 범인이 훔친 건 아니야.

「確かに犯人が盗んだわけではない。

“그래, 그럼 피해자 자신이 훔쳐갔다고 생각해도 좋아.

“그래, 그럼 被害者 自身이 훔쳤다고 생각해도 좋아.

“그래, 그럼 피해자 자신이 훔쳤다고 생각해도 좋아.

「そう、それでは被害者自身が盗んだと思ってもいい。

어느 쪽이든, 왜 그 자전거였냐 이거야.

어느 쪽이든, 왜 그 自転車였냐 이거야.

어느 쪽이든, 왜 그 자전거였냐 이거야.

どちらにしても、なぜその自転車だったのか。

구사나기가 고개를 저어^ㅅ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저었다。

草薙が首を振った。

“자네가 하고 싶으^ㄴ 말이 뭐^ㄴ지 모르겠어。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원지 모르겠어。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원지 모르겠어。

「君が言いたいことが何なのかわからない。

도난당하^ㄴ 거^ㄴ 별 특별하^ㄴ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하^ㄴ 자전거야。

盜難當한 건 別 特別할 것도 없는 그저 平凡한 自転車야。

도난당한 건 별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자전거야。

盗まれたのは、特に特別なこともない、ただ平凡な自転車だ。

적당히 선택하^ㄴ 게 우연히 그 자전거여^ㅅ겠지。

適當히 選擇한 게 偶然히 그 自転車였겠지。

적당히 선택한 게 우연히 그 자전거였겠지。

適当に選んだのが偶然その自転車だっただろう。

“아니야, 그거 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いや、それは。

유가와는 검지를 세워 좌우로 흔들어 ㄴ다。

有價와는 검指를 세워 左右로 흔들었다。

유가와는 검지를 세워 좌우로 흔들었다。

湯川は人差し指を立てて左右に振った。

“내 추리를 말해 보 ㄴ까? 아마도 그 자전거는 새것, 또는 새것에 가까워 ㄴ으 ㄴ
거야。

“내 推理를 말해 볼까? 아마도 그 自轉車는 새것, 또는 새것에 가까웠을
거야。

“내 추리를 말해 볼까? 아마도 그 자전거는 새것, 또는 새것에 가까웠을
거야。

「私の推理を教えてください。おそらくその自転車は新しいもの、または新
しいものに近かったでしょう。

어때, 아니 ㄴ가?”

어때, 아닌가?”

어때, 아닌가?”

どうですか？」

구사나기는 허를 찔린 기분이어쑈다。

驅使나기는 虛를 찔린 氣分이었다。

구사나기는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草薙は虚を刺された気分だった。

자전거 주인과 나뉘쑈던 대화가 떠올라쑈다。

自轉車 主人과 나뉘던 對話가 떠올랐다。

자전거 주인과 나뉘던 대화가 떠올랐다。

自轉車の所有者と交わした対話が浮かび上がった。

“맞아, 지난달에 사쑈다고 해쑈어。

“맞아, 지난달에 샀다고 했어。

“맞아, 지난달에 샀다고 했어。

「そうだね、先月買ったって言ったよ。

그러자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여쑈다。

그러자 有價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すると湯川が首をうなずいた。

“그러 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そうです。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묶어 두어 ㄴ고, 자전거가 없어지자 재빨리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해 ㄴ 겠지。

그렇기 때문에 體認을 묶어 두었고, 自轉車가 없어지자 재빨리 警察署로 달려가 申告를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묶어 두었고, 자전거가 없어지자 재빨리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겠지。

だからチェーンを縛っておき、自転車がなくなったらすぐに警察署に走って届けたんだろ。

범인은 바로 그런 자전거를 노리 ㄴ 거야。

犯人은 바로 그런 自轉車를 노린 거야。

범인은 바로 그런 자전거를 노린 거야。

犯人はまさにそんな自転車を狙ったんだ。

그래서 체인을 묶어 두지 않으 ㄴ 자전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 ㄴ 알면서도 굳

이 체인 커터를 준비해 오_ㄴ 거야。

그래서 體認을 묶어 두지 않은 自轉車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

이 體認 커터를 準備해 온 거야。

그래서 체인을 묶어 두지 않은 자전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굳
이 체인 커터를 준비해 온 거야。

それでチェーンを結んでおかない自転車がいくらでも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
もあえてチェーンカッターを用意してきたの。

“일부러 새것을 노려_ㅅ 다고?”

“일부러 새것을 노렸다고?”

“일부러 새것을 노렸다고?”

「いつも新しいものを狙ったって？」

“그래。

“그래。

“그래。

「え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何のために？」

“범인이 노리 ㄴ 거 ㄴ 단 하나야。

“犯人이 노린 건 單 하나야。

“범인이 노린 건 단 하나야。

「犯人が狙ったのはただ一つだ。

자전거 주인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ㄴ 경찰서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

自轉車 主人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警察署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

자전거 주인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경찰서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

自轉車主人に何とか警察署に駆けつけるようにすること。

그렇게 되면 범인에게 뭐 ㄴ가 유리하 ㄴ 점이 있어 ㄴ으 ㄴ 거야。

그렇게 되면 犯人에게 뭔가 有利한 點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범인에게 뭔가 유리한 점이 있었을 거야。

そうなれば犯人に何か有利な点があったはず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찰 수사를 잘못되 ㄴ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효과
가 있다는 거지。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警察 搜查를 잘못된 方向으로 이끌어 가는 效
果가 있다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찰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もっと具体的に言えば、警察捜査を間違った方向に導いていく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だ。

“자전거를 도난당하ㄴ 시각이 오전 열한 시에서 밤 열 시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ㄴ다는 거야? 하지만 자전거 주인이 뭐라고 증언하ㄴ지 범인으로서는 아ㄴ 수 없는 것 아니ㄴ가?”

“自轉車を盜難當한時刻이午前 열한時에서 밤 열時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하지만 自轉車 主人이 뭐라고 證言할지 犯人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시각이 오전 열한 시에서 밤 열 시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하지만 자전거 주인이 뭐라고 증언할지 범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自轉車を盜まれた時刻が午前 11 時から夜 10 時の間になっていますが、それが間違っていたというのは? しかし、自轉車の所有者が何と証言するか、犯人としては分からないのではないか?

“시간에 대해서야 그렇지.

“時間에 對해서야 그렇지.

“시간에 대해서야 그렇지.

「時間についてそうです。

그러나 자전거 주인이 틀림없이 증언하_ㄴ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있어.

그러나 自転車 主人이 틀림없이 證言할 것으로 豫想되는 事實이 있어.

그러나 자전거 주인이 틀림없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있어.

しかし自転車所有者が間違いなく証言すると予想される事実があり。

도난당하_ㄴ 장소가 시노자키역이라는 것.

盜難當한 場所가 市老子키驛이라는 것.

도난당한 장소가 시노자키역이라는 것.

盜まれた場所が篠崎駅ということ。

그 순간 구사나기가 숨을 헉 삼키며 물리학자의 얼굴을 보아_ㄴ다.

그 瞬間 驅使나기가 숨을 헉 삼키며 物理學者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구사나기가 숨을 헉 삼키며 물리학자의 얼굴을 보았다.

その瞬間、草薙が息を呑み込んで物理学者の顔を見た。

“우리 경찰의 눈을 시노자키역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_ㄴ 위장이라는 거야?”

“우리 警察의 눈을 市老子키驛으로 向하게 하기 爲한 僞裝이라는 거야?”

“우리 경찰의 눈을 시노자키역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거야?”

「私たち警察の目を篠崎駅に向かわせるための迷彩というの？」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_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式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지.

「そのように考えてみ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だ。

“시노자키역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데 경찰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
ㄴ 거ㄴ 사실이야.

“時老子키驛 周邊에서 探問 搜查를 벌이는 데 警察 人力과 時間을 많이 投
入한 건 事實이야.

“시노자키역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데 경찰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
입한 건 사실이야.

「篠崎駅周辺で探検捜査を行うのに警察の人材と時間を多く投入したのは事
実だ。

자네의 추리가 옳다면 그게 모두 헛일이라는 얘기군.

자네의 推理가 옳다면 그게 모두 헛일이라는 얘기軍.

자네의 추리가 옳다면 그게 모두 헛일이라는 얘기군.

君の推理が正しいなら、それがみんな無駄だということだ。

“헛일은 아니ㄴ 거야.

“헛일은 아닐 거야.

“헛일은 아닐 거야.

「無駄ではありません。

이곳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하_ㄴ 거_ㄴ 사실이니까。

이곳에서 自轉車を 盜難當한 건 事實이니까。

이곳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한 건 사실이니까。

ここで自転車を盗まれたのは事実だから。

하지만 거기서 뭐_ㄴ가를 건지_ㄴ 수 있으_ㄴ 만큼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건질 수 있을 만큼 이 事件이 單純하지 않아。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건질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아。

だがそこで何かを渡せるほどこの事件が単純ではない。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어。

더 巧妙하고 緻密하게 짜여 있어。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어。

もっと巧妙で緻密に織られている。

그렇게 말하_ㄴ 후 유가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해_ㄴ다。

그렇게 말한 後 有價와는 돌아서서 걷기 始作했다。

그렇게 말한 후 유가와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そう言った後、湯川は振り返って歩き始めた。

구사나기가 다급히 그를 뒤쫓아왔다.

驅使나기가 多急히 그를 뒤쫓았다.

구사나기가 다급히 그를 뒤쫓았다.

草薙が急に彼を追いかけた。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どこへ行くの？」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

당연하잖아.

當然하잖아.

당연하잖아.

当然じゃない。

“잠깐 기다려 봐.

“잠깐 기다려 봐。

“잠깐 기다려 봐。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구사나기가 유가와 의 어깨를 잡아 ㅅ 다。

驅使나기가 有價와 의 어깨를 잡았다。

구사나기가 유가와 의 어깨를 잡았다。

草薙が湯川との肩を握った。

“중요하 ㄴ 거 ㄴ 묻지 않아 ㅅ 어。

“重要的 걸 묻지 않았어。

“중요한 걸 묻지 않았어。

「重要なことを聞かなかった。

자네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가 뭐야?”

자네가 이 事件에 關心을 갖는 眞짜 理由가 뭐야?”

자네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가 뭐야?”

あなたがこの事件に興味を持っている本当の理由は何ですか？」

“왜, 나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나?”

“왜, 나는 關心을 가지면 안 되나?”

“왜, 나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나?”

「なぜ、私は興味を持ってはいけないのか？」

“딴소리하지 마。

“딴소리하지 마。

“딴소리하지 마。

「別に言わないでください。

그러자 유가와가 구사나기의 손을 어깨에서 떨쳐 내^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驅使나기의 손을 어깨에서 떨쳐 냈다。

그러자 유가와가 구사나기의 손을 어깨에서 떨쳐 냈다。

すると湯川が草薙の手を肩から振り落とした。

“내가 피의자야?”

“내가 被疑者야?”

“내가 피의자야?”

「私は被疑者？」

“피의자냐고? 그러^ㄴ 리가 있겠어?”

“被疑者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피의자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被疑者ですか？そんなことがありますか？」

“그렇다면 뭐 **ㄴ** 하든 내 맘이잖아。

“그렇다면 뭘 하든 내 맘이잖아。

“그렇다면 뭘 하든 내 맘이잖아。

「それなら何をしても私の心じゃない。

자네들을 방해하 **ㄴ** 생각은 없어。

자네들을 妨害할 생각은 없어。

자네들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

君たちを邪魔するつもりはない。

“그렇다면 나도 하 **ㄴ** 말이 있는데,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에 사는 수학 선생에게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해 **ㅅ** 다지? 내가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 **ㅅ** 다고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에 사는 數學先生에게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했다지? 내가 捜査에 協助해 달라고 付託했다고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에 사는 수학 선생에게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했다지? 내가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이야。

「それなら私も言うことができますが、花岡康子の隣に住む数学の先生に私

の名前を聞きながら嘘をついたのか？私が捜査に協力してほしいと頼んだと
言っ

왜 그래 ㄴ는지 물어보 ㄴ 권리 정도는 내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볼 權利 程度는 내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볼 권리 정도는 내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なぜそうしたのか尋ねる権利程度は私にもあると思うけど。

그러자 유가와는 구사나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아 ㄴ다。

그러자 有價와는 驅使나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러자 유가와는 구사나기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다。

すると湯川は草薙の顔を突き抜けてみた。

그 표정에 평소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냉철하 ㄴ이 깃들어 있어 ㄴ다。

그 表情에 平素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冷徹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표정에 평소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その表情に普段はなかなか見えなかった冷徹さが宿っていた。

“그를 찾아가 ㄴ었어?”

“그를 찾아갔었어?”

“그를 찾아갔었어?”

「彼を訪れたの？」

“찾아가셨지.

“찾아갔지.

“찾아갔지.

「探していった.

자네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자네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자네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君が何も話してくれないから.

“그가 뭐라고 해셨지?”

“그가 뭐라고 했지?”

“그가 뭐라고 했지?”

「彼は何と言ったの？」

“잠깐.

“잠깐.

“잠깐.

「ちょっと待って.

먼저 물어보ㄴ 거ㄴ 나야。

먼저 물어본 건 나야。

먼저 물어본 건 나야。

まず聞いたのは私だ。

그 수학 선생이 사건에 관련되어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數學 先生이 事件에 關聯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수학 선생이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その数学の先生が事件に関わったと思うの？」

그러나 유가와는 대답하지 않으니 채 눈길을 돌려ㄴ다。

그러나 有價와는 對答하지 않은 채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유가와는 대답하지 않은 채 눈길을 돌렸다。

しかし、湯川とは答えずに目を向けた。

그리고 다시 역을 향해 걸음을 떼어ㄴ다。

그리고 다시 驛을 向해 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다시 역을 향해 걸음을 떼었다。

そして再び駅に向かって歩き回った。

“이봐, 기다려!”

“이봐, 기다려!”

“이봐, 기다려!”

「ねえ、待って！」

구사나기의 다급하 ㄴ 부름에 유가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 ㅅ다。

驅使나기의 多急한 부름에 有價와假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구사나기의 다급한 부름에 유가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草薙の急な召しに湯川が歩きを止めて後を振り返った。

“말해 두겠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조하지 않으 ㄴ 거야。

“말해 두겠는데, 이番 件에 對해서는 全面的으로 協助하지 않을 거야。

“말해 두겠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야。

「言っておきますが、今回の件については全面的に協力しません。

나는 개인적이 ㄴ 이유로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

나는 個人的인 理由로 事件을 追跡하고 있어。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건을 추적하고 있어。

私は個人的な理由ででき事を追跡している。

그러니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

그러니 나한테 期待하지 말아。

그러니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

だから私に期待しないでください。

“그렇게 나오 ㄴ다면 나도 더는 정보를 제공해 주 ㄴ 수 없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情報를 提供해 줄 수 없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어.

「そのように出てくれば、私もこれ以上情報を提供してくれません。

그 말에 유가와는 시선을 떨어뜨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여 ㄴ다.

그 말에 有價와는 視線을 떨어뜨리더니 暫時 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유가와는 시선을 떨어뜨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その言葉に湯川は視線を落とし、しばらくして首をうなずいた。

“그럼 어찌 ㄴ 수 없지,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じゃあ仕方ないよ、まあ。

이번에는 각자 행동해야지.

此番에는 各自 行動해야지.

이번에는 각자 행동해야지.

今回はそれぞれ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가^ㄴ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어갔다。

そして彼はまた歩いた。

그의 등이 뿜어내는 강렬하^ㄴ 의지에 구사나기는 그 이상 말을 붙이^ㄴ 수 없^ㄴ다。

그의 등이 뿜어내는 強烈한 意志에 驅使나기는 그 以上 말을 붙일 수 없^ㄴ다。

그의 등이 뿜어내는 강렬한 의지에 구사나기는 그 이상 말을 붙일 수 없^ㄴ었다。

彼の背中が吹き出す強烈な意志に駆けつけることは、それ以上言葉をつけられなかった。

담배를 한 대 피우^ㄴ 후 구사나기는 역으로 향해^ㄴ다。

담배를 한 代 피운 後 驅使나기는 驛으로 向했다。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구사나기는 역으로 향했다。

タバコを一台吸った後、草薙は駅に向かった。

잠시 시간을 지체하^ㄴ 거^ㄴ 유가와와 같으^ㄴ 전철을 타지 않는 게 좋으^ㄴ 것 같

다는 판단에서여썬다。

暫時 時間을 遲滯한 건 有價와와 같은 電鐵을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判斷에서였다。

잠시 시간을 지체한 건 유가와와 같은 전철을 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しばらく時間を遅らせたのは、原油と同じ電車に乗らない方が良さうだという判断であった。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에는 유가와와 개인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듯하고 그는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다。

仔細히는 모르겠지만 이番 事件에는 有價와와 個人的인 問題가 關聯되어 있는 듯하고 그는 그것을 혼자서 解決하려 한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에는 유가와와 개인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듯하고 그는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

詳しくは分からないが、今回の事件には、原油価格との個人的な問題が関わっているようで、彼はそれを一人で解決しようとする。

그의 뜻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썬다。

그의 뜻을 妨害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뜻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彼の意志を邪魔したくなかった。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구사나기는 생각해 보아^ㅅ다。

흔들리는 地下鐵 안에서 驅使나기는 생각해 보았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구사나기는 생각해 보았다。

揺れる地下鉄の中で駆け抜けは考えてみた。

유가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ㄴ까。

有價와假 苦悶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가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湯川が悩むのは何だろうか。

아마도 그 수학 선생이 ^ㄴ 것이다。

아마도 그 數學 先生일 것이다。

아마도 그 수학 선생일 것이다。

おそらくその数学の先生だろう。

이시가미라고 해^ㅅ던가。

이時加味라고 했던가。

이시가미라고 했던가。

石神と言ったのか。

구사나기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수사 선상에 떠올리^ㄴ 적이

없다。

驅使나기와 그의 同僚들은 只今까지 한 番도 그를 搜查 船上에 떠올린 적

이 없다。

구사나기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수사 선상에 떠올린 적

이 없다。

草薙と彼の仲間たちはこれまで一度も彼を捜査船上に思い出したことがな

い。

이시가미는 그저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이 ㄴ 뿐이어 ㄴ 다。

이時加味는 그저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일 뿐이었다。

이시가미는 그저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웃일 뿐이었다。

石神はただ花岡康子の隣人だけだった。

그런데 유가와는 어째서 그에게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이 ㄴ 까。

그런데 有價와는 어째서 그에게 그토록 神經을 쓰는 것일까。

그런데 유가와는 어째서 그에게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일까。

ところが湯川とはどうして彼にそれほど氣を使うのだろうか。

구사나기의 뇌리에 도시락 가게에서 보아 ㄴ 던 광경이 되살아나 ㄴ 다。

驅使나기의 腦裏에 도시락 가게에서 보았던 光景이 되살아났다。

구사나기의 뇌리에 도시락 가게에서 보았던 광경이 되살아났다。

草薙の脳裏に弁当屋で見た光景が蘇った。

저녁 무렵, 유가와가 이시가미와 함께 나타나^ㄴ다。

저녁 무렵, 有價와街 이市街美와 함께 나타났다。

저녁 무렵, 유가와가 이시가미와 함께 나타났다。

夕方頃、湯川が石神と共に現れた。

이시가미의 말에 따르면 유가와가 베^ㄴ테^ㄴ테이에 가고 싶어 해^ㄴ다고 하^ㄴ다。

이時加味の 말에 따르면 有價와가 벤텐테이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시가미의 말에 따르면 유가와가 벤텐테이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한다。

石神の言葉によると、湯川が弁天亭に行きたかったという。

유가와는 의미 없는 짓을 하^ㄴ 인간이 아니다。

有價와는 意味 없는 짓을 할 人間이 아니다。

유가와는 의미 없는 짓을 할 인간이 아니다。

原油とは意味のないことをする人間ではない。

이시가미와 함께 그 가게에 가^ㄴ 데에는 분명 뭐^ㄴ가 목적이 있어^ㄴ으^ㄴ 것이
다。

이時加味와 함께 그 가게에 간 데에는 分明 뭔가 目的이 있었을 것이다。

이시가미와 함께 그 가게에 간 데에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石神と一緒にその店に行ったのには明らかに何か目的があったはずだ。

그게 대체 무엇이 **ㄴ**까。

그게 代替 무엇일까。

그게 대체 무엇일까。

それが一体何なのだろうか。

그러고 보니 그날 구도 역시 그곳에 나타나**ㄴ**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構圖 亦是 그곳에 나타났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구도 역시 그곳에 나타났었다。

そういえばその日構図もそこに現れた。

유가와가 거기까지 예상하**ㄴ** 것은 아니**ㄴ** 듯하다。

有價와가 거기까지 豫想한 것은 아닌 듯하다。

유가와가 거기까지 예상한 것은 아닌 듯하다。

湯川がそこまで予想したわけではないようだ。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구도와 주고받으**ㄴ** 이야기들이 떠올라**ㄴ**다。

驅使나기의 머릿속에 構圖와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구도와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草薙の頭の中に構図とやりとりした話が浮かんた。

물론 그 이야기 속에도 이시가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ㄴ다。

勿論 그 이야기 속에도 이時加味の 이름은 登場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야기 속에도 이시가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もちろんその話の中にも石神の名前は登場しなかった。

아니, 그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ㄴ다。

아니, 그 누구의 이름도 登場하지 않았다。

아니, 그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다。

いや、誰の名前も登場しなかった。

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ㄴ었다。

構圖는 分明히 이렇게 말했었다。

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다。

構図は明らかにこう言った。

자신은 고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自身은 告者질을 別に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고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自分は高資質があまり好きではないと。

그 순간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걸려들어갔다.

그 瞬間 驅使나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걸려들었다.

그 순간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걸려들었다.

その瞬間、草薙の頭の中に何かがかかった。

고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告者질을 別に 좋아하지 않는다……。

고자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高資質があまり好きではない… …。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나와갔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나왔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이 나왔지?

どんな話をして、その言葉が出たの？

‘그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다고 하던데요。

『彼女を見たくて弁当を買いに来るお客さんもいるそうです。

,

,

화를 억누르며 그렇게 말하던 구도의 얼굴이 떠올라^ㅅ다.

火를 억누르며 그렇게 말하던 構圖의 얼굴이 떠올랐다.

화를 억누르며 그렇게 말하던 구도의 얼굴이 떠올랐다.

怒りを抑えながらそう言っていた構図の顔が浮かんだ。

구사나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등을 똑바로 펴^ㅅ다.

驅使나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等を 똑바로 폈다.

구사나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등을 똑바로 폈다.

草薙は息を大きく吸いながら背中をまっすぐに弾いた。

맞은편에 앉으^ㄴ 젊으^ㄴ 여성이 불쾌하다는 듯 그를 흘깃 보아^ㅅ다.

맞은便에 앉은 젊은 女性이 不快하다는 듯 그를 흘깃 보았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불쾌하다는 듯 그를 흘깃 보았다.

向かいに座った若い女性が不快だと思うように彼をこぼした。

구사나기는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아^ㅅ다.

驅使나기는 地下鐵 路線圖를 올려다보았다.

구사나기는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았다.

草薙は地下鉄路線図を見上げた。

하마마치역에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해ㄴ다。

하마마치驛에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마마치역에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浜町駅から降りなければならぬと思った。

운전대를 잡아 보는 거ㄴ 오랜만이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익숙해져ㄴ다。

運轉대를 잡아 보는 건 오랜만이지만 30分程度 지나자 익숙해졌다。

운전대를 잡아 보는 건 오랜만이지만 30분 정도 지나자 익숙해졌다。

運転台をつかんでみるのは久しぶりだが、30分ほど過ぎると慣れた。

다만 목적지에 닿으ㄴ 후 주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ㄴ다。

다만 目的地에 닿은 後 駐車하는 데 時間이 좀 걸렸다。

다만 목적지에 닿은 후 주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ただ、目的地に到着した後駐車に時間がかかった。

어디에 세워도 다른 차들을 방해하ㄴ 것 같으ㄴ 느낌이어ㄴ다。

어디에 세워도 다른 車들을 妨害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디에 세워도 다른 차들을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どこに立てても他の車を邪魔しそうな感じだった。

다행히 아무렇게나 세워 놓으ㄴ 경트럭 하나를 발견하고 그 뒤에 주차하기로

해냈다。

多幸히 아무렇게나 세워 놓은 경트럭 하나를 發見하고 그 뒤에 駐車하기로 했다。

다행히 아무렇게나 세워 놓은 경트럭 하나를 발견하고 그 뒤에 주차하기로 했다。

幸い、何気なく立てておいた軽トラック一つを発見し、その後に駐車することにした。

렌터카를 빌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여냈다。

렌터카를 빌리는 것은 이람이 두 랐째였다。

렌터카를 빌리는 것은 이번이 두 랐째였다。

レンタカーを借りるのは今回が二度目だった。

대학에서 조교로 지내던 시절 학생들을 데리고 발전소 견학을 가게 돼있을

때 현지에서 이동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 부득이 빌린 적이 있어냈다。

大學에서 助教로 지내던 時節 學生들을 데리고 發電所 見學을 가게 됐을

때 現地에서 移動하는 데 必要할 것 같아 不得已 빌린 적이 있었다。

대학에서 조교로 지내던 시절 학생들을 데리고 발전소 견학을 가게 됐을 때 현지에서 이동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 부득이 빌린 적이 있었다。

大学で調教で過ごした時代、学生たちを連れて発電所見学に行くことになった時、現地で移動するのに必要だと思われ、やむを得ないことがあった。

그때는 7인승 왜건이어ㄴ는데 오늘은 소형 국산 차다。

그때는 7인승 왜件이었는데 오늘은 小型 國產 차다。

그때는 7인승 왜건이었는데 오늘은 소형 국산 차다。

その時は7人乗りワゴンだったが、今日は小型国産車だ。

그래서 운전하기도 한결 수월해ㄴ다。

그래서 運轉하기도 한결 수월했다。

그래서 운전하기도 한결 수월했다。

だから運転するのも一層簡単だった。

이시가미는 비스듬히 오른쪽에 있는 작으ㄴ 빌딩으로 눈을 돌려ㄴ다。

이時加味는 비스듬히 오른쪽에 있는 작은 빌딩으로 눈을 돌렸다。

이시가미는 비스듬히 오른쪽에 있는 작은 빌딩으로 눈을 돌렸다。

石神は斜め右側にある小さなビルに目を向けた。

‘유한 회사 히카리 그래픽’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有限 會社 히카裡 그래픽’이라는 看板이 붙어 있다。

‘유한 회사 히카리 그래픽’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有限会社ヒカリグラフィック」という看板が付いている。

구도 구니아키의 회사다。

構圖 區니아키의 會社だ。

구도 구니아키의 회사다。

構図グニアキの会社だ。

이 회사를 알아내는 거 ㄴ 그리 어렵지 않아ㄴ다。

이 會社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 회사를 알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この会社を調べるのはそれほど難しくなかった。

구사나기 형사에게 구도라는 성과 인쇄 회사를 경영하 ㄴ다는 얘기를 들으 ㄴ 게
단서가 되어ㄴ다。

驅使나기 刑事에게 構圖라는 成果 印刷 會社를 經營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但書가 되었다。

구사나기 형사에게 구도라는 성과 인쇄 회사를 경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단서가 되었다。

草薙刑事に構図という成果印刷会社を經營するという話を聞いたのが手がか
りとなった。

이시가미는 인터넷에서 인쇄 회사 리스트가 실려 있는 사이트를 찾으 ㄴ 후 도
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뒤져ㄴ다。

이時加味는 인터넷에서 印刷 會社 리스트가 실려 있는 사이트를 찾은 後

도쿄에 있는 會社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이시가미는 인터넷에서 인쇄 회사 리스트가 실려 있는 사이트를 찾은 후
도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石神はインターネットで印刷会社のリストが載っているサイトを見つけた
後、東京にいる会社を一つ一つ遅らせた。

대표의 성이 구도인 ㅁ 회사는 ‘히카리 그래픽’ 하나뿐이어 ㅁ 다.

代表의 姓이 構圖인 會社는 ‘히카리 그래픽’ 하나뿐이었다.

대표의 성이 구도인 회사는 ‘히카리 그래픽’ 하나뿐이었다.

代表の姓が構図した会社は「ヒカリグラフィック」一つだけだった。

오늘 이시가미는 수업이 끝나자 곧장 렌터카 회사로 가서 예약해 둔 ㅁ 차를 찾
아 이곳으로 와 ㅁ 다.

오늘 이時加味는 授業이 끝나자 곧장 렌터카 會社로 가서 豫約해 둔 次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

오늘 이시가미는 수업이 끝나자 곧장 렌터카 회사로 가서 예약해 둔 차를
찾아 이곳으로 왔다.

今日石神は授業が終わるとすぐにレンタカー会社に行って予約しておいた車
を見つけてここに来た。

렌터카를 빌리는 일에는 물론 위험이 따르 ㅁ 다.

렌터카를 빌리는 일에는 勿論 危險이 따른다.

렌터카를 빌리는 일에는 물론 위험이 따른다。

レンタカーを借りることはもちろん危険が伴う。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證據가 남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いろいろな証拠が残るからだ。

그러나 그는 속고를 거듭하 ㄴ 끝에 행동에 나서기로 해 ㄴ 다。

그러나 그는 熟考를 거듭한 끝에 行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속고를 거듭한 끝에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しかし彼は熟考を重ねた末に行動に出ることにした。

차에 있는 디지털시계가 오후 5시 50분을 가리켜 ㄴ ㄹ 때 빌딩 정면 현관에서

몇 명의 남녀가 나와 ㄴ 다。

車에 있는 디지털時計가 午後 5時 50分을 가리켰을 때 빌딩 正面 玄關에

서 몇 名の 男女가 나왔다。

차에 있는 디지털시계가 오후 5시 50분을 가리켰을 때 빌딩 정면 현관에

서 몇 명의 남녀가 나왔다。

車のデジタル時計が午後 5時 50分を指したとき、ビル正面玄関から数人の

男女が出た。

그중에서 구도 구니아키의 모습을 확인하 ㄴ 이시가미는 바짝 긴장해 ㄴ 다。

그中에서 構圖 區니아키의 모습을 確認한 이時加味는 바짝 緊張했다。

그중에서 구도 구니아키의 모습을 확인한 이시가미는 바짝 긴장했다。

その中で構図グニアキの姿を確認した石神はきつく緊張した。

그는 조수석에 놓아두 ㄴ 디지털 카메라로 손을 뻗어 ㄴ 다。

그는 助手席에 놓아둔 디지털 카메라로 손을 뻗었다。

그는 조수석에 놓아둔 디지털 카메라로 손을 뻗었다。

彼は助手席に置いたデジタルカメラで手を伸ばした。

전원을 켜 ㄴ 후 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구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줌 이 ㄴ 해 ㄴ 다。

全員을 켜 後 파인더를 들여다보며 構圖에게 焦點을 맞추고 줌 인 했다。

전원을 켜 後 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구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줌 인 했다。

電源を入れた後、ファインダーを覗きながら構図に焦点を合わせてズームインした。

구도는 여전히 세련되 ㄴ 차림이어 ㄴ 다。

構圖는 如前히 洗練된 차림이었다。

구도는 여전히 세련된 차림이었다。

構図は依然として洗練された姿だった。

이시가미는 어디 가면 저런 옷을 사 ㄴ 수 있는지도 몰라 ㄴ다。

이時加味는 어디 가면 저런 옷을 살 수 있는지도 몰랐다。

이시가미는 어디 가면 저런 옷을 살 수 있는지도 몰랐다。

石神はどこに行けばあんな服を買え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

야스코가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고 새삼 생각해 ㄴ다。

야스코가 이런 스타일의 男子를 좋아하나 보다고 새삼 생각했다。

야스코가 이런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고 새삼 생각했다。

ヤスコがこんなスタイルの男が好きだが、改めて考えた。

야스코뿐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여자가 자신과 구도 중 한쪽을 선택하라면 서슴없이 구도를 선택하 ㄴ 것이다。

야스코뿐 아니라 世上 大部分의 女子가 自身과 構圖 中 한쪽을 選擇하라면 서슴없이 構圖를 選擇할 것이다。

야스코뿐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여자가 자신과 구도 중 한쪽을 선택하라면 서슴없이 구도를 선택할 것이다。

ヤスコだけでなく、世界のほとんどの女性が自分と構図のどちらかを選択すれば、シカなく構図を選択するだろう。

질투심에 사로잡히 ㄴ 채 그는 셔터를 눌러 ㄴ다。

嫉妬心に 사로잡힌 채 그는 셔터를 눌렀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채 그는 셔터를 눌렀다。

嫉妬心にとらわれたまま、彼はシャッターを押した。

플래시는 터지지 않도록 설정해 두어ㄴ다。

플래시는 터지지 않도록 設定해 두었다。

플래시는 터지지 않도록 설정해 두었다。

フラッシュは爆発しないように設定しておいた。

그래도 액정 화면에는 구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ㄴ다。

그래도 液晶 畫面에는 構圖의 모습이 鮮明하게 나타났다。

그래도 액정 화면에는 구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それでも液晶画面には構図の様子が鮮明に現れた。

그렇게 몇 장 찍으ㄴ 후 이시가미는 빌딩 뒤편으로 돌아가ㄴ다。

그렇게 몇 張 찍은 後 이市加味는 빌딩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몇 장 찍은 후 이시가미는 빌딩 뒤편으로 돌아갔다。

そう数枚撮った後、石神はビルの裏側に戻った。

그쪽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ㄴ 미리 확인해 두어ㄴ다。

그쪽에 駐車場이 있다는 건 미리 確認해 두었다。

그쪽에 주차장이 있다는 건 미리 확인해 두었다.

そちらに駐車場があるというのはあらかじめ確認しておいた。

이시가미는 구도의 차가 나오기를 기다려ㄴ다.

이時加味는 構圖의 車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시가미는 구도의 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石神は構図の車が出るのを待った。

이윽고 녹색 벤츠가 미끄러져 나와ㄴ다.

이윽고 綠色 벤츠가 미끄러져 나왔다.

이윽고 녹색 벤츠가 미끄러져 나왔다.

やがて緑のベンツが滑り出てきた。

운전석에 구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시가미는 서둘러 시동을 걸어ㄴ다.

運轉席에 構圖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時加味는 서둘러 始動을 걸었다.

운전석에 구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시가미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運轉席に構図が座っているのを見て石神は急いで始動をかけた。

벤츠의 꿈무늬를 바라보면서 그는 차를 달려ㄴ다.

벤츠의 꿈무늬를 바라보면서 그는 車를 달렸다.

벤츠의 꿈무늬를 바라보면서 그는 차를 달렸다.

ベンツのクンムニを眺めながら彼は車を走った。

운전도 익숙지 않으 ㄴ 마당에 미행까지 하 ㄴ다는 거 ㄴ 쉬우 ㄴ 일이 아니어 ㄴ
다。

運轉도 익숙지 않은 마당에 尾行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운전도 익숙지 않은 마당에 미행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運轉もなじみのない庭に未行までするというのは簡単なことではなかった。

금세라도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 구도를 놓치 ㄴ 것만 같아 ㄴ다。

금세라도 다른 車들이 끼어들어 構圖를 놓칠 것만 같았다。

금세라도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 구도를 놓칠 것만 같았다。

今でも他の車が割り込んで構図を見逃すようだった。

특히 신호가 바뀌 ㄴ 때가 힘들어 ㄴ다。

特히 信號가 바뀔 때가 힘들었다。

특히 신호가 바뀔 때가 힘들었다。

特に信号が変わる時が大変だった。

그러나 다행히 구도는 운전을 암전히 해 ㄴ다。

그러나 多幸히 構圖는 運轉을 암전히 했다。

그러나 다행히 구도는 운전을 암전히 했다。

しかし幸い、構図は運転を大人しくした。

속도를 내려고 하지도 않으 ㄴ 뿐더러 신호가 노랑으로만 바뀌어도 곧바로 정지 해 ㄴ 다。

速度를 내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信號가 노랑으로만 바뀌어도 곧바로 停止했다。

속도를 내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신호가 노랑으로만 바뀌어도 곧바로 정지했다。

速度を下ろそうとしないだけでなく、信号が黄色にだけ変わってもすぐに停止した。

오히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들키는 게 아니 ㄴ 지 불안하 ㄴ 정도여 ㄴ 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들키는 게 아닌지 不安할 程度였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들키는 게 아닌지 불안할 정도였다。

むしろ近くに近づいてバレるのではないかと不安になるほどだった。

그래도 미행을 그만두 ㄴ 수는 없어 ㄴ 다。

그래도 尾行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래도 미행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それでも尾行をやめ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최악의 경우 상대에게 들키는 사태도 각오하고 있어 ㄴ 다。

最惡의境遇 相對에게 들키는事態도 覺悟하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상대에게 들키는 사태도 각오하고 있었다。

最悪の場合、相手にバレる事態も覚悟していた。

이시가미는 때때로 내비게이션에 눈길을 주어ㄴ다。

이時加味는 때때로 내비게이션에 눈길을 주었다。

이시가미는 때때로 내비게이션에 눈길을 주었다。

石神は時々ナビゲーションに注目した。

구도의 벤츠는 시나가와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ㄴ다。

構圖의 벤츠는 時나가와 쪽으로 向하는 것 같았다。

구도의 벤츠는 시나가와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構図のベンツは品川に向かうようだった。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이 늘어나자 미행이 점점 힘들어져ㄴ다。

時間이 흐르면서 車輛이 늘어나자 尾行이 漸漸 힘들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이 늘어나자 미행이 점점 힘들어졌다。

時間が流れながら車両が増えると、尾行がますます大変になった。

잠깐 하 ㄴ눈을 파는 사이에 트럭이 끼어드는 바람에 벤츠가 전혀 보이지 않게
돼ㄴ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트럭이 끼어드는 바람에 벤츠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됐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트럭이 끼어드는 바람에 벤츠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됐다.

ちょっとひと目を売る間にトラックが挟む風にベンツが全く見えなくなった。

차선을 바꾸니까 망설이는데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이 들어와서다.

車線을 바꿀까 말까 망설이는데 信號가 바뀌어 빨간불이 들어왔다.

차선을 바꿀까 말까 망설이는데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이 들어왔다.

車線を変えるかどうか躊躇するのに信号が変わって赤い火が入ってきた。

트럭이 정지선에 섰다.

트럭이 停止線에 섰다.

트럭이 정지선에 섰다.

トラックが停止線に立った。

그렇다면 벤츠는 앞서 달려가 버려서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벤츠는 앞서 달려가 버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벤츠는 앞서 달려가 버렸다는 얘기다.

それならベンツは先に走ってしまったという話だ。

오늘은 여기까지이ㄴ가。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今日はここまでか。

이시가미는 혀를 끝끝 차ㄴ다。

이時加味는 혀를 끝끝 찼다。

이시가미는 혀를 끝끝 찼다。

石神は舌を引きつけた。

그런데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ㄴ 지 얼마 안 되어 다음 신호 앞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ㄴ 채 서 있는 벤츠가 눈에 들어와ㄴ다。

그런데 信號가 抄録으로 바뀌고 다시 달리기 始作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음 信號 앞에 右回轉 깜빡이를 켜 채 서 있는 벤츠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음 신호 앞에 우회전 깜빡이를 켜 채 서 있는 벤츠가 눈에 들어왔다。

ところが信号が緑に変わり、再び走り始めたばかりで、次の信号の前に右折点滅をつけたまま立っているベンツが目に入った。

분명히 구도의 차여ㄴ다。

分明히 構圖의 車였다。

분명히 구도의 차였다。

明らかに構図の車だった。

도로 오른편에는 호텔이 있어ㄴ다。

도로 오른便에는 호텔이 있었다。

도로 오른편에는 호텔이 있었다。

道路の右側にはホテルがあった。

구도는 거기로 들어가ㄴ 심산이ㄴ 듯해ㄴ다。

構圖는 거기로 들어갈 心算인 듯했다。

구도는 거기로 들어갈 심산인 듯했다。

構図はそこに入る深山のようだった。

이시가미는 주저 없이 벤츠 뒤에 붙어ㄴ다。

이時加味는躊躇 없이 벤츠 뒤에 붙었다。

이시가미는 주저 없이 벤츠 뒤에 붙었다。

石上は躊躇なくベンツの後ろについた。

의심을 사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물려서ㄴ 수는 없는
노릇이어ㄴ다。

疑心を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물려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의심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몰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疑いを買うこともできるだろうが、だからといってここまでついてきて退け
られない奴だった。

우회전 신호가 켜지자 벤츠가 움직이기 시작해ㄴ다。

右回轉 信號가 켜지자 벤츠가 움직이기 始作했다。

우회전 신호가 켜지자 벤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右折信号がオンになるとベンツが動き始めた。

이시가미는 그 뒤에 따라붙어ㄴ다。

이時加味는 그 뒤에 따라붙었다。

이시가미는 그 뒤에 따라붙었다。

石神はその後に追いついた。

호텔 정문을 들어서자 왼편에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나와ㄴ다。

호텔 正門을 들어서자 左便에 地下 駐車場으로 이어지는 傾斜路가 나왔
다。

호텔 정문을 들어서자 왼편에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나왔
다。

ホテル正門を入ると左側に地下駐車場につながる傾斜路が出た。

벤츠를 뒤따라 이시가미도 그곳으로 들어갔다.

벤츠를 뒤따라 이時加味도 그곳으로 들어갔다.

벤츠를 뒤따라 이시가미도 그곳으로 들어갔다.

ベンツを追って石神もそこに入った。

주차권을 뽑으는 때 구도가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駐車券을 뽑을 때 構圖가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주차권을 뽑을 때 구도가 살짝 뒤를 돌아보았다.

駐車券を抜く時、構図が少し後ろを振り返った。

이시가미는 목을 움츠려다.

이時加味는 목을 움츠렸다.

이시가미는 목을 움츠렸다.

石神は首をつかんだ。

구도가 눈치를 채는지 못 채는지는 알 수 없었다.

構圖가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구도가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는 알 수 없었다.

構図が気づいたのかわからないのかは分からなかった。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많아다.

駐車場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많았다.

駐車場には空席が多かった。

벤츠가 호텔 입구 가까우ㄴ 쪽에 정차해ㄴ다.

벤츠가 호텔 入口 가까운 쪽에 停車했다.

벤츠가 호텔 입구 가까운 쪽에 정차했다.

ベンツがホテルの入り口の近くに停車した。

이시가미는 거기서 좀 떨어지ㄴ 곳에 차를 세워ㄴ다.

이時加味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車を 세웠다.

이시가미는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石神はそこから少し離れたところに車を建てた。

그리고 시동을 끄자마자 카메라를 집어 들어ㄴ다.

그리고 始動을 끄자마자 카메라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시동을 끄자마자 카메라를 집어 들었다.

そして始動を止めるとすぐにカメラを拾い上げた。

이윽고 구도가 벤츠에서 내려ㄴ다.

이윽고 構圖가 벤츠에서 내렸다.

이윽고 구도가 벤츠에서 내렸다.

やがて構図がベンツから降りた。

이시가미는 일단 셔터를 눌렀다.

이時加味는 一때 셔터를 눌렀다.

이시가미는 일단 셔터를 눌렀다.

石神は一度シャッターを押した。

구도가 이시가미 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構圖가 이時加味 쪽에 神經을 쓰는 것 같았다.

구도가 이시가미 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構図が石神側に氣を使うようだった。

역시 수상쩍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亦是 殊常쩍게 생각하는 것일까.

역시 수상쩍게 생각하는 것일까.

やはり不思議に思うのだろうか。

이시가미는 머리를 좀 더 숙여.

이時加味는 머리를 좀 더 숙였다.

이시가미는 머리를 좀 더 숙였다.

石神は頭をもう少し下げた。

그러나 구도는 그대로 호텔 입구 쪽으로 향해있다.

그러나 構圖는 그대로 호텔 入口 쪽으로 向했다.

그러나 구도는 그대로 호텔 입구 쪽으로 향했다.

しかし構図はそのままホテルの入り口に向かった。

그의 모습이 사라지 ㄴ 것을 확인하 ㄴ 후 이시가미는 차를 출발시켜 ㄴ다.

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確認한 後 이市加味는 車를 出發시켰다.

그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이시가미는 차를 출발시켰다.

彼の姿が消えたことを確認した後、石神は車を出発した。

‘우선은 두 장이면 돼.

‘優先은 두 張이면 돼.

‘우선은 두 장이면 돼.

‘まずは二枚でいい。

,

,

,

,

주차장에 머무 ㄴ 시간이 짧아서이 ㄴ지 입구를 빠져나오는데 요금을 받지 않아

ㄴ다。

駐車場に 머문 시간이 짧아서인지 入口를 빠져나오는데 料金を 받지 않았

다。

주차장에 머문 시간이 짧아서인지 入口를 빠져나오는데 요금을 받지 않았

다。

駐車場に泊まる時間が短くて、入口を出るのに料金を受けなかった。

이시가미는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좁은 ㄴ 경사로를 올라가ㄴ다。

이時加味는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좁은 傾斜路를 올라갔다。

이시가미는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좁은 경사로를 올라갔다。

石神はゆっくりとハンドルを回して狭い傾斜路を登った。

이 두 장의 사진에는 어떤 문장이 어울리 ㄴ까。

이 두 張의 寫眞에는 어떤 文章이 어울릴까。

이 두 장의 사진에는 어떤 문장이 어울릴까。

この二枚の写真にはどんな文章が似合うか。

그가 머릿속으로 구성해 보 ㄴ 문장은 다음과 같아ㄴ다。

그가 머릿속으로 構成해 본 文章은 다음과 같았다。

그가 머릿속으로 구성해 본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彼が頭の中で構成してみた文章は次の通りであった。

‘당신이 자주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ㄴ다。

‘當身이 자주 만나는 男子의 正體를 알아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다。

‘あなたがよく会う男の正体を見つけた。

내가 사진을 찍어ㄴ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ㄴ 것이다。

내가 寫眞을 찍었다는 事實 自體가 그것을 證明할 것이다。

내가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私が写真を撮ったという事実自体はそれを証明するでしょう。

당신에게 묻고 싶다。

當身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あなたに聞きたい。

이 남자와는 어떤 관계이ㄴ가?

이 男子와는 어떤 關係인가?

이 남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この男とはどんな関係なのか？

만일 그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거ㄴ 말하ㄴ 것도 없이 나에 대하ㄴ 배신행위

다。

萬一 그와 戀愛를 하고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나에 對한 背信行爲

다。

만일 그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나에 대한 배신행위

다。

もし彼と恋愛をしているなら、それは言うまでもなく私に対する裏切り行為

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을 해 ㅅ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當身を 爲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私があなたのために何をしたかを考えてください。

나는 당신에게 명령하 ㄴ 권리가 있다。

나는 當身에게 命令할 權利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

私に命令する権利がある。

즉시 이 남자와 헤어지기 바라 ㄴ 다。

即時 이 男子와 헤어지기 바란다。

즉시 이 남자와 헤어지기 바란다。

すぐにこの男と別れてほしい。

그러지 않으면 내 분노는 이 남자에게 향하_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 憤怒는 이 男子에게 向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 분노는 이 남자에게 향할 것이다。

そうでなければ、私の怒りはこの男に向かうでしょう。

이 남자를 도가시와 똑같은_ㄴ 운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금의 내게는 지극히
쉬우_ㄴ 일이다。

이 男子를 도가시와 똑같은 運命으로 몰아넣는 것은 只今の 내게는 至極히
쉬운 일이다。

이 남자를 도가시와 똑같은 운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금의 내게는 지극히
쉬운 일이다。

この男を道鹿市と同じ運命に追いやるのは今の私にとっては極めて簡単なこ
とだ。

나는 이미 각오해_ㅆ고 방법도 생각해 두어_ㅆ다。

나는 이미 覺悟했고 方法도 생각해 두었다。

나는 이미 각오했고 방법도 생각해 두었다。

私はすでに覚悟しており、方法も考えていました。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 남자와 남녀 관계라면 나는 그런 배신행위를 절대 용서
하 ㄴ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萬一 이 男子와 男女 關係라면 나는 그런 背信行爲를 絶對
容恕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 남자와 남녀 관계라면 나는 그런 배신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繰り返し言うが、もしこの男と男女関係なら私はそんな裏切り行為を絶対許
すことができない。

기필코 보복하 ㄴ 것이다.

期必코 報復할 것이다.

기필코 보복할 것이다.

元氣に報復するだろう。

,

,

,

,

이시가미는 머릿속으로 구성하 ㄴ 문장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충분히 위협
적이 ㄴ지 음미해 보아 ㅆ다.

이時加味는 머릿속으로 構成한 文章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充分히 威脅
的인지 吟味해 보았다。

이시가미는 머릿속으로 구성된 문장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충분히 위험
적인지 음미해 보았다。

石神は頭の中で構成した文章を口の中で呟きながら十分に脅威かどうか吟味
してみた。

신호가 바뀌어 호텔 정문을 빠져나오려고 해_ㅅ으_ㄴ 때여_ㅅ다。

信號가 바뀌어 호텔 正門을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였다。

신호가 바뀌어 호텔 정문을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였다。

信号が変わってホテルの正門を抜け出そうとした時だった。

하나오카 야스코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어_ㅅ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호텔 正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호텔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花岡康子がホテル正門に入っていた。

이시가미는 저도 모르게 눈을 부릅떠_ㅅ다。

이時加味는 저도 모르게 눈을 부릅떴다。

이시가미는 저도 모르게 눈을 부릅떴다。

石神は私も知らずに目を呼んだ。

12

12

12

12

야스코가 라운지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누구ㄴ가 손을 들어ㄴ다。

야스코가 라운지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다。

야스코가 라운지로 들어서자 안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다。

ヤスコがラウンジに入ると、奥で誰かが手を挙げた。

짚으ㄴ 녹색 재킷을 입으ㄴ 구도여ㄴ다。

짚은 綠色 재킷을 입은 構圖였다。

짚은 녹색 재킷을 입은 구도였다。

濃い緑色のジャケットを着た構図だった。

라운지는 자리의 3분의 1 정도가 차 있어ㄴ다。

라운지는 자리의 3 分の 1 程度가 차 있었다。

라운지는 자리의 3분의 1 정도가 차 있었다。

ラウンジは席の 3 分の 1 程度があった。

손님 중에는 커플도 있어ㄴ지만 대부분은 업무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는 비즈니
스맨들이어ㄴ다。

손님 中에는 커플도 있었지만 大部分은 業務 關係로 이야기를 나누는 비즈

니스맨들이었다。

손님 중에는 커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업무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는 비즈니스맨들이었다。

ゲストの中にはカップルもあったが、ほとんどは業務関係で話をするビジネスマンだった。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

“갑자기 불러내서 未安해。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

「突然呼び出してすみません。

구도가 웃음 띠 ㄴ 얼굴로 말해 ㄴ 다。

構圖가 웃음 띠 ㄴ 얼굴로 말했다。

구도가 웃음 띠 ㄴ 얼굴로 말했다。

構図が笑い顔で言った。

“우선 뭐 좀 마시지。

“于先 뭐 좀 마시지。

“우선 뭐 좀 마시지。

「まずは何か飲んで。

종업원이 다가오자 야스코는 밀크티를 주문해 ㄴ 다。

従業員이 다가오자 야스코는 밀크티를 注文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야스코는 밀크티를 주문했다。

従業員が近づくと、ヤスコはミルクティーを注文した。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どうしたの？」

“아니, 별일은 아니고。

“아니, 別일은 아니고。

“아니, 별일은 아니고。

「いや、別日じゃなくて。

구도가 커피 잔을 들어ㄴ다。

構圖가 커피 盞을 들었다。

구도가 커피 잔을 들었다。

構図がコーヒーカップを聞いた。

그러나 그는 잔을 입에 대기 전에 본론을 꺼내ㄴ다。

그러나 그는 盞을 입에 大氣 前に 本論을 꺼냈다。

그러나 그는 잔을 입에 대기 전에 본론을 꺼냈다.

しかし彼はグラスを口に待機する前に本論を取り出した。

“어제 형사가 찾아와 ㅅ었어.

“어제 刑事가 찾아왔었어.

“어제 형사가 찾아왔었어.

「昨日探偵がやってきた。

야스코가 눈을 크게 떠 ㅅ다.

야스코가 눈을 크게 떴다.

야스코가 눈을 크게 떴다.

ヤスコが目を大きく開いた。

“역시…….

“亦是…….

“역시…….

「やっぱり… … 。

“야스코가 나에 대해 형사에게 말해 ㅅ어?”

“야스코가 나에 對해 刑事에게 말했어?”

“야스코가 나에 대해 형사에게 말했어?”

「ヤスコは私について刑事に言った？」

“미안해요.

“未安해요.

“미안해요.

「ごめんなさい.

구도 씨와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 ㄴ 후에 형사가 찾아와서 누구랑 어디 있어 ㄴ
는지 집요하게 물어 ㄴ 어요.

구도 氏와 지난番에 食事하고 난 後에 刑事가 찾아와서 누구랑 어디 있었
는지 執拗하게 물었어요.

구도 씨와 지난번에 식사하고 난 후에 형사가 찾아와서 누구랑 어디 있었
는지 집요하게 물었어요.

構図さんと前回に食事をした後、刑事が訪れて誰とどこにいたのか執拗に聞
きました。

입 다물고 있으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 ㄴ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으면 도리어 異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으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口を閉じていればとても奇妙に思えそうで…。 …。

구도가 손을 내저어 ㄴ 다。

構圖가 손을 내저었다。

구도가 손을 내저었다。

構図が手を振った。

“사과하 ㄴ 것 없어。

“謝過할 것 없어。

“사과할 것 없어。

「謝罪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따지려는 게 아니야。

따지려는 게 아니야。

따지려는 게 아니야。

問わないわけじゃない。

앞으로도 당당하게 만나려면 형사들이 우리 관계를 아 ㄴ 필요도 있고 하니 오

히려 잘되 ㄴ 일이지。

앞으로도 堂堂하게 만나려면 刑事들이 우리 關係를 알 必要도 있고 하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앞으로도 당당하게 만나려면 형사들이 우리 관계를 알 필요도 있고 하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これからも堂々と会うには刑事たちが私たちの関係を知る必要もありますの

で、むしろうまくいったことだ。

“그러니까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そうですか？」

야스코는 눈을 살짝 치뜨며 구도를 바라보았다.

야스코는 눈을 살짝 치뜨며 構圖를 바라보았다.

야스코는 눈을 살짝 치뜨며 구도를 바라보았다.

ヤスコは目をそっと打ちながら構図を眺めた。

“그럼.

“그럼.

“그럼.

「じゃあ.

그래도 당분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當分間は 疑心스러운 눈으로 우릴 보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당분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릴 보겠지만 말이야.

それでもしばらくは疑わしい目で私たちを見てみようが。

여기로 오는 도중에도 미행을 당해  어.

여기로 오는 途中에도 尾行을 當했어.

여기로 오는 도중에도 미행을 당했어.

ここに来る途中でも尾行にあった。

“미행어요?”

“尾行어요?”

“미행어요?”

「迷いますか？」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해  는데, 운전하는 도중에 알아  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運轉하는 途中에 알았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운전하는 도중에 알았어.

「最初は気づかなかったけど、運転中に知ってた。

차 한 대가 줄곧 뒤따라오기에 과민하  탓이겠거니 해  는데 이 호텔 주차장
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야.

車 한 代가 줄곧 뒤따라오기에 過敏한 탓이겠거니 했는데 이 호텔 駐車場
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야.

차 한 대가 줄곧 뒤따라오기에 과민한 탓이겠거니 했는데 이 호텔 주차장
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야.

車一台がずっと後に来るので敏感なせいだったんだがこのホテル駐車場までついてくるのよ。

아무 일도 아니라는 투로 말하는 구도의 얼굴을 야스코는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투로 말하는 構圖의 얼굴을 야스코는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투로 말하는 구도의 얼굴을 야스코는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何事でもないと言う構図の顔を、ヤスコは突き抜けて見つめた。

“그래서요, 그다음은요?”

“그래서요, 그다음은요?”

“그래서요, 그다음은요?”

「だから、次は？」

“몰라.

“몰라.

“몰라.

「わからない。

그는 어깨를 으쓱해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彼は肩をすくめた。

“멀어서 상대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ㄴ 데다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라고。

“멀어서 相對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데다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라고。

“멀어서 상대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데다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라고。

「遠くて相手の顔もちゃんと見えないうえ、いつの間にか消えていない」
と。

야스코가 오기 전까지 주위를 열심히 살펴보아ㄴ지만 그러ㄴ 만하ㄴ 사람은 없
는 것 같아ㄴ어。

야스코가 오기 前까지 周圍를 熱心히 살펴보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

야스코가 오기 전까지 주위를 열심히 살펴보았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없
는 것 같았어。

ヤスコが来るまで周りを一生懸命見てみたが、そんな人はいないようだっ
た。

물론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ㄴ지도 모르겠지만。

勿論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監視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もちろん見えないところで私たちを監視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

야스코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ㅅ다.

야스코는 고개를 左右로 돌려 周邊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야스코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ヤスコは首を左右に回して周りの人々を見た。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ㅅ다.

殊常쩍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不思議に見える人は目に入らなかった。

“구도 씨를 의심하고 있나 보군요.

“構圖 氏를 疑心하고 있나 보군요.

“구도 씨를 의심하고 있나 보군요.

「構図さんを疑っているのか見ますね。

“야스코가 도가시를 살해하^ㄴ 주모자고 내가 그 공범이라는 시나리오이^ㄴ 모
양이야.

“야스코가 도가시를 殺害한 主謀者고 내가 그 共犯이라는 시나리오인 模様

이야。

“야스코가 도가시를 살해한 주모자고 내가 그 공범이라는 시나리오인 모양

이야。

「靖子が道鹿市を殺害した主母子であり、私がその共犯というシナリオな形
だ。

어제 온 형사는 노골적으로 알리바이를 캐묻고 가쑈어。

어제 온 刑事는 露骨的으로 알리바이를 캐묻고 갔어。

어제 온 형사는 노골적으로 알리바이를 캐묻고 갔어。

昨日来た刑事は露骨にアリバイを捕まえて行った。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밀크티가 나와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밀크티가 나왔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밀크티가 나왔다。

話を交わす間にミルクティーが出た。

종업원이 차를 내려놓는 동안 야스코는 다시 주위로 시선을 돌려쑈다。

従業員이 車を 내려놓는 동안 야스코는 다시 周圍로 視線을 돌렸다。

종업원이 차를 내려놓는 동안 야스코는 다시 주위로 시선을 돌렸다。

従業員が車を降ろしている間、ヤスコは再び周りに目を向けた。

“만일 지금도 감시하고 있다면 이렇게 저와 만나는 거 ㄴ 보고 더욱더 의심하지
않으 ㄴ까요?”

“萬一 只今도 監視하고 있다면 이렇게 저와 만나는 걸 보고 더욱더 疑心하
지 않을까요?”

“만일 지금도 감시하고 있다면 이렇게 저와 만나는 걸 보고 더욱더 의심하
지 않을까요?”

「もし今も監視しているなら、こんなに私と会うのを見て、さらに疑わない
でしょうか？」

“상관없어。

“相關없어。

“상관없어。

「気にしない。

방금도 말해 ㄴ듯이 나는 당당하고 싶어。

方今도 말했듯이 나는 堂堂하고 싶어。

방금도 말했듯이 나는 당당하고 싶어。

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私は堂々としたい。

몰래 숨어서 만나는 편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몰래 숨어서 만나는 便이 오히려 더 異常하지。

몰래 숨어서 만나는 편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こっそり隠れて会うほうがむしろこれ以上ない。

애당초 우리는 사람들 눈을 신경 쓰_ㄴ 사이가 아니잖아.

애當初 우리는 사람들 눈을 神經 쓸 사이가 아니잖아.

애당초 우리는 사람들 눈을 신경 쓸 사이가 아니잖아.

当初私たちは人々の目を気にする間ではないでしょう。

구도는 자신의 대담하_ㄴ을 보여 주려는 듯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 잔을 기울여_ㄴ다。

構圖는 自身の 大膽함을 보여 주려는 듯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 盞을 기울였다。

구도는 자신의 대담함을 보여 주려는 듯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 잔을 기울였다。

構図は自分の大胆さを見せてくれるようにゆったりとソファにもたれてコーヒーカップを傾けた。

야스코도 잔을 손에 들어_ㄴ다。

야스코도 盞을 손에 들었다。

야스코도 잔을 손에 들었다。

ヤスコもグラスを手にした。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지만, 구도 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짜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지만, 構圖 氏에게 肺를 끼치는 것 같아 未安
하기 짜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지만, 구도 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
하기 짜이 없어요.

「そう言っ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が、構図さんに迷惑をかけてい
るようで申し訳ありません。

역시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니까 싶어요.

亦是 當分間은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やっぱりしばらくは会わないのが良くないかと思います。

“야스코가 그렇게 말하니까 잘 알아쥔어.

“야스코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야스코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ヤスコがそう言うと思った。

구도가 커피 잔을 내려놓더니 야스코 쪽으로 몸을 기울여쥔다.

構圖가 커피 盞을 내려놓더니 야스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구도가 커피 잔을 내려놓더니 야스코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構図がコーヒーカップを下ろすと、ヤスコに向かって体を傾けた。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하ㄴ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だから今日こんなに会おうとしたんだ。

형사가 나를 찾아와ㄴ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야스코의 귀에도 들어가ㄴ 데ㄴ

데, 그러면 야스코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ㄴ까 봐서 말이지.

刑事が 나를 찾아왔다는 事實이 언젠가는 야스코의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야스코가 지나치게 神經을 쓸까 봐서 말이지.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야스코의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야스코가 지나치게 신경을 쓸까 봐서 말이지.

刑事が私を訪ねてきたという事実が、いつかはヤスコの耳にも入るはずなの

に、それでは靖子が過度に氣を使うか見てね。

분명히 말해 두겠는데,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分明히 말해 두겠는데,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분명히 말해 두겠는데,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はっきり言っておきますが、私の心配はしなくてもいい。

내 알리바이를 물어ㄴ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그거ㄴ 증명해 주ㄴ 만하ㄴ 사람이

있어...어。

내 알리바이를 물었다고는 하지만 多幸히 그걸 證明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어。

내 알리바이를 물었다고는 하지만 다행히 그걸 증명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어。

私のアリバイを尋ねたとはいえ、幸いにそれを証明してくれるほどの人がいました。

조만간 형사들도 내게 흥미를 잃으... 거야。

早晚間 刑事들도 내게 興味를 잃을 거야。

조만간 형사들도 내게 흥미를 잃을 거야。

近いうちに刑事も私に興味を失うだろう。

“그럼 다행이지만……。

“그럼 多幸이지만……。

“그럼 다행이지만……。

「じゃあ幸いだが……」 ... 。

“그보다는 야스코가 걱정이야。

“그보다는 야스코가 걱정이야。

“그보다는 야스코가 걱정이야。

「それよりはヤスコが心配だ。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곧 밝혀지겠지만 야스코에 대해서는 형사들이 쉽게 의혹을 거두지 않_ㄴ 거야。

내가 共犯이 아니라는 事實은 곧 밝혀지겠지만 야스코에 對해서는 刑事들이 쉽게 疑惑을 거두지 않_을 거야。

내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곧 밝혀지겠지만 야스코에 대해서는 형사들이 쉽게 의혹을 거두지 않_을 거야。

私が共犯ではないという事実はすぐに明らかになるだろうが、ヤスコに対しては刑事が容易に疑惑を収めないだろう。

앞으로도 얼마나 귀찮게 하_ㄴ까 생각하면 우울해지_ㄴ 정도야。

앞으로도 얼마나 귀찮게 할까 생각하면 憂鬱해질 程度야。

앞으로도 얼마나 귀찮게 할까 생각하면 우울해질 정도야。

これからもどれくらい面倒なのかと思えば落ち込んでしまうほど。

“그거_ㄴ 어쩔_ㄴ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それは仕方ないことです。

도가시가 나를 찾고 있어_ㄴ던 거_ㄴ 사실이_ㄴ 모양이니깐요。

都家時가 나를 찾고 있었던 건 事實인 模樣이니까요。

도가시가 나를 찾고 있었던 건 사실인 모양이니까요。

とが市が私を探していたのは本当のようです。

“그 사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제 와서 야스코를 찾아다니 ㄴ 거 ㄴ가? 죽

어서까지 야스코를 괴롭히고 말이야。

“그 사내는 都大體 무슨 생각으로 이제 와서 야스코를 찾아다니는 건가? 죽

어서까지 야스코를 괴롭히고 말이야。

“그 사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제 와서 야스코를 찾아다니는 건가? 죽

어서까지 야스코를 괴롭히고 말이야。

「その社内は一体どんな考えで今来てヤスコを探し回ったのか？死んでまで
ヤスコをいじめてね。

구도가 불쾌하 ㄴ 표정을 지어 ㄴ다。

構圖가 不快한 表情을 지었다。

구도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構図が不快な表情をした。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물끄러미 야스코를 바라보아 ㄴ다。

그리고 다음 瞬間 그는 물끄러미 야스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물끄러미 야스코를 바라보았다。

そして次の瞬間、彼は滑りヤスコを眺めた。

“야스코는 정말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 이거 ㄴ 야스코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내게만은 알려 줘 ㄴ 으면 해서야。

“야스코는 正말로 事件과 아무 關聯이 없는 거지? 이거 ㄴ 야스코를 疑心해서가 아니라, 或是 조금이라도 關聯이 있다면 내게만은 알려 줬 으면 해서야。

“야스코는 정말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 이거 ㄴ 야스코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혹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내게만은 알려 줬 으면 해서야。

「ヤスコは本当に事件と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か？これはヤスコを疑ってではなく、もし少しでも関係があれば私にだけは教えてほしい。

야스코는 구도의 단정하 ㄴ 얼굴을 마주 보아 ㄴ 다。

야스코는 構圖의 端正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야스코는 구도의 단정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ヤスコは構図の端正な顔に面した。

그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 ㄴ 진짜 이유는 이것이구나 싶어 ㄴ 다。

그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 眞짜 理由는 이것이구나 싶었다。

그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는 이것이구나 싶었다。

彼が突然出会おうとした本当の理由はこれだった。

그녀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전혀 疑心を 품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彼女に全く疑いを抱かなか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のだ。

야스코는 미소를 지어냈다.

야스코는 微笑를 지었다.

야스코는 미소를 지었다.

ヤスコは微笑んだ。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랑은 相關없는 일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私とは関係ないことです。

“그래, 그럴 줄은 알고 있어ㄴ지만 야스코 입으로 확실히 말해 주니 안심이 되는군。

“그래, 그럴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야스코 입으로 確實히 말해 주니 安心이 되는군。

“그래, 그럴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야스코 입으로 확실히 말해 주니 안심이 되는군。

「そう、そんなことは知っていたが、ヤスコの口でしっかり言ってくれたら 安心になるな。

구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손목시계를 보아ㄴ다。

構圖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손목時計를 보았다。

구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構図は首をうなずいてから腕時計を見た。

“여기까지 와ㄴ는데 식사하고 가면 어떨겠어? 맛있는 꼬치구이 집을 아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食事하고 가면 어떨겠어? 맛있는 꼬치구이 집을 아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식사하고 가면 어떨겠어? 맛있는 꼬치구이 집을 아는데。

「ここまで来たのに食事していったらどうだろう？おいしい串焼きの家を知

るのに。

“미안해요。

“未安해요。

“미안해요。

「ごめんなさい。

오늘은 미사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와 ㅅ 거든요。

오늘은 미사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미사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왔거든요。

今日はミサトに何も言わなかったんですよ。

“그래? 그렇다면 억지로 권하 ㄴ 수 없겠군。

“그래? 그렇다면 억지로 勸할 수 없겠군。

“그래? 그렇다면 억지로 권할 수 없겠군。

「そうですか？それなら無理にお勧めできないだろうな。

구도가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ㅅ 다。

構圖가 計算書を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도가 계산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構図が計算書を持って席から立ち上がった。

그가 계산하는 동안 야스코는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아^ㄴ다.

그가 計算하는 동안 야스코는 다시 한 番 周圍를 둘러보았다.

그가 계산하는 동안 야스코는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彼が計算している間、ヤスコはもう一度周りを見回しました。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은 찾으^ㄴ 수 없어^ㄴ다.

刑事처럼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刑事のように見える人は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구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에게 공범 혐의를 두는 동안은 별일 없으^ㄴ 것이라
고 생각해^ㄴ다.

構圖에게는 未安하지만, 그에게 共犯 嫌疑를 두는 동안은 別일 없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구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에게 공범 혐의를 두는 동안은 별일 없을 것이
라고 생각했다.

構図には申し訳ないが、彼に共犯容疑を置いている間は特にないだろうと思
った。

그 말은 즉 경찰이 진상과는 거리가 머^ㄴ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
다.

그 말은 卽 警察이 眞相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즉 경찰이 진상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その言葉はつまり警察が真相とは距離が遠いところで迷っているという意味だからだ。

그렇다고는 해도 구도와의 관계를 이대로 진전시켜도 좋을지 야스코는 망설여져ゝ다。

그렇다고는 해도 構圖와의 關係를 이대로 進展시켜도 좋을지 야스코는 망설여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구도와의 관계를 이대로 진전시켜도 좋을지 야스코는 망설여졌다。

とはいえ構図との關係をこのまま進展させてもいいか、ヤスコは躊躇した。

물론 더 친밀해지고 싶으ㄴ 마음이 있는 거ㄴ 사실이어ゝ다。

勿論 더 親密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事實이었다。

물론 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었다。

もちろんもっと親密になりたい気持ちがあるのは事実だった。

그러나 그렇게 되ㄴ 경우 뭐ㄴ가 크ㄴ 파탄을 불러일으키지 않으ㄴ까 싶어 불안해ゝ다。

그러나 그렇게 될 境遇 원가 큰 破綻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어 不安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원가 큰 파탄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어 불안했다。

しかし、そうなる と何か大きな破綻を呼び起こさないかと思って不安だった。

이시가미의 표정 없는 얼굴이 떠올라^ㄴ다。

이時加味の 表情 없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시가미의 표정 없는 얼굴이 떠올랐다。

石神の表情のない顔が浮かんた。

“바래다주^ㄴ게。

“바래다줄게。

“바래다줄게。

「欲しい。

계산을 마치^ㄴ 구도가 말해^ㄴ다。

計算을 마친 構圖가 말했다。

계산을 마친 구도가 말했다。

計算を終えた構図が言った。

“오늘은 돼ㅏ어요。

“오늘은 됐어요。

“오늘은 됐어요。

「今日はできました。

전철 타고 가ㄴ게요。

電鐵 타고 갈게요。

전철 타고 갈게요。

電車に乗って行きます。

“바래다주ㄴ다니까 그러네。

“바래다준다니까 그러네。

“바래다준다니까 그러네。

「願うからだから。

“정말 괜찮아요。

“正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本当に大丈夫です。

마트에도 잠깐 들러야 하고요。

마트에도 잠깐 들러야 하고요.

마트에도 잠깐 들러야 하고요.

マートにもしばらく立ち寄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흠……。

“흠……。

“흠……。

「うーん…」 … 。

마땅치는 않으 ㄴ 모양이어 ㄴ지만 구도는 결국 웃음을 지어 보여 ㄴ다。

마땅値는 않은 模様が였지만 構圖는 結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마땅치는 않은 모양이었지만 구도는 결국 웃음을 지어 보였다。

まともではないようだったが、構図は結局笑いを見せた。

“알아 ㄴ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그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

では今日はここで別れ。

전화하 ㄴ게。

電話할게。

전화할게。

電話します。

“네, 차 잘 마셔 ㄴ어요。

“네, 車 잘 마셨어요。

“네, 차 잘 마셨어요。

「はい、お茶はよく飲みました。

인사를 나누 ㄴ 후 야스코는 발길을 돌려 ㄴ다。

人土를 나눈 後 야스코는 발길을 돌렸다。

인사를 나눈 후 야스코는 발길을 돌렸다。

挨拶を交わした後、ヤスコは足を回した。

시나가와역 쪽으로 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휴대 전화가 울려 ㄴ다。

市나가와驛 쪽으로 나 있는 横斷歩道を 건너는데 携帯 電話가 울렸다。

시나가와역 쪽으로 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휴대 전화가 울렸다。

品川駅側に出ている横断歩道を渡るのに携帯電話が鳴った。

그녀는 걸어가면서 핸드백을 열어ㅅ다。

그女는 걸어가면서 핸드백을 열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핸드백을 열었다。

彼女は歩きながらハンドバッグを開いた。

발신자는 사요코여ㅅ다。

發信者は 史요코였다。

발신자는 사요코였다。

発信者はサヨコだった。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こんにちは。

“아, 야스코。

“아, 야스코。

“아, 야스코。

「あ、ヤスコ。

나 사요코이 ㄴ 데, 지금 통화하 ㄴ 수 있어?”

나 史요코인데, 只今 通話할 수 있어?”

나 사요코인데, 지금 통화할 수 있어?”

私はサヨコなのに、今通話できますか？」

목소리에 묘하 ㄴ 긴박감이 있어 ㅅ 다。

목소리에 妙한 緊迫感이 있었다。

목소리에 묘한 긴박감이 있었다。

声に妙な緊迫感があった。

“괜찮기 ㄴ 하 ㄴ 데…… 무슨 일 있어요?”

“괜찮긴 한데…… 무슨 일 있어요?”

“괜찮긴 한데…… 무슨 일 있어요?”

「大丈夫だが……」 ……どうしたの？」

“아까 야스코가 퇴근하 ㄴ 후에 형사가 와 ㅅ 었어。

“아까 야스코가 退勤한 後에 刑事가 왔었어。

“아까 야스코가 퇴근한 후에 형사가 왔었어。

「さっき、ヤスコが退勤した後に刑事がやってきた。

그런데 뜬금없는 거 ㄴ 묻기에 야스코에게 알려 줘야 하 ㄴ 것 같아서。

그런데 뜬금없는 걸 묻기에 야스코에게 알려 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뜬금없는 걸 묻기에 야스코에게 알려 줘야 할 것 같아서.

ところで煽りのないことを尋ねるので、ヤスコに教えなければならいよう
で。

휴대 전화를 쥐 ㄴ 채 야스코는 눈을 감아 ㄴ다.

携帯電話を 쥔 蔡 야스코는 눈을 감았다.

휴대 전화를 쥔 채 야스코는 눈을 감았다.

携帯電話を握ったまま、ヤスコは目を閉じた。

또 형사다.

또 刑事다.

또 형사다.

また刑事だ.

그들이 거미줄처럼 그녀의 주위를 휘감아 오고 있다.

그들이 거미줄처럼 그女の 周圍를 휘감아 오고 있다.

그들이 거미줄처럼 그녀의 주위를 휘감아 오고 있다.

彼らがクモの巣のように彼女の周りを巻きつけてきている。

“뜬금없는 거라니, 그게 뭐 ㄴ 데요?”

“뜬금없는 거라니, 그게 뭔데요?”

“뜬금없는 거라니, 그게 뭔데요?”

「浮かんでないんだ、それは何ですか？」

야스코가 불안감을 느끼며 물어썻다。

야스코가 不安感を 느끼며 물었다。

야스코가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ヤスコが不安感を感じながら尋ねた。

“그게…… 그 사람 말이야, 그 고등학교 선생。

“그게…… 그 사람 末이야, 그 高等學校 先生。

“그게…… 그 사람 말이야, 그 고등학교 선생。

「それが… …あの人だよ、その高校先生。

이시가미라고 해썻던가?”

이時加味라고 했던가?”

이시가미라고 했던가?”

石神と言ったのか？」

사요코의 말에 야스코는 하마터면 휴대 전화를 떨어뜨리ㄴ 뻔해썻다。

史요코의 말에 야스코는 하마터면 携帶 電話를 떨어뜨릴 뻔했다。

사요코의 말에 야스코는 하마터면 휴대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サヨコの言葉に、ヤスコはハマターなら携帯電話を落とすところだった。

“그 사람이 왜요?”

“그 사람이 왜요?”

“그 사람이 왜요?”

「その人はなぜですか？」

목소리가 떨어진다.

목소리가 떨어졌다.

목소리가 떨어졌다.

声が震えた。

“형사 말이, 야스코를 보려고 도시락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누구냐는 거야.

“刑事 말이, 야스코를 보려고 도시락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누구냐는 거야.

“형사 말이, 야스코를 보려고 도시락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누구냐는 거야.

「刑事の言葉が、ヤスコを見ようと弁当を買いに来る人がいるのに、それが誰かということだ。

아무래도 구도 씨에게 들은 것 같아.

아무래도 構圖 氏에게 들은 것 같아.

아무래도 구도 씨에게 들은 것 같아.

どうやら構図さんに聞いたらしい。

“구도 씨에게요?”

“構圖 氏에게요?”

“구도 씨에게요?”

「構図さんに？」

어떻게 그와 연관이 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ㄴ다。

어떻게 그와 聯關이 되는지 斟酌조차 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와 연관이 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どのように彼と関連するか推測すらできなかった。

“내가 전에 구도 씨한테 말하ㄴ 적이 있거든。

“내가 前に 構圖 氏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

“내가 전에 구도 씨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

「私が前に構図さんに言ったことがあったら。

야스코를 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드나드는 손님이 있다고 말이야。

야스코를 보고 싶어서 毎日 아침 드나드는 손님이 있다고 말이야.

야스코를 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드나드는 손님이 있다고 말이야.

ヤスコを見たくて毎朝ドナードはお客さんがいるとか。

구도 씨가 그 얘기를 형사에게 한 모양이야.

구도 氏が 그 얘기를 刑事에게 한 模様이야.

구도 씨가 그 얘기를 형사에게 한 모양이야.

構図さんがその話を刑事にしたようだ。

그런 거여...어? 야스코는 마음이 놀여...다.

그런 거였어? 야스코는 마음이 놀였다.

그런 거였어? 야스코는 마음이 놀였다.

そんなことでしたか？ヤスコは心が置かれた。

구도를 찾아가...던 형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베...테...테이에 들르... 것이
다。

構圖를 찾아갔던 刑事가 그 事實을 確認하려고 벤텐테이에 들른 것이다。

구도를 찾아갔던 형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벤텐테이에 들른 것이다。

構図を訪れた刑事が、その事実を確認しようとベンテンテーに立ち寄ったの
だ。

“그래서 뭐라고 해썩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요?”

「それで何と言いましたか？」

“숨기는 것도 이상하ㄴ 것 같아서 솔직히 대답해썩어。

“숨기는 것도 異常할 것 같아서 率直히 對答했어。

“숨기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솔직히 대답했어。

「隠すのも変だと思うので正直に答えた。

야스코 씨 옆집에 사는 학교 선생이라고。

야스코 氏 옆집에 사는 學校 先生이라고。

야스코 씨 옆집에 사는 학교 선생이라고。

康子さんの隣に住む学校の先生だと。

그렇지만 야스코를 보러 오ㄴ다는 거ㄴ 우리가 멋대로 하ㄴ 말일 뿐 사실인지

는 아ㄴ 수 없다고 못을 박아썩지。

그렇지만 야스코를 보러 온다는 건 우리가 멋대로 한 末日 뿐 事實認知는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

그렇지만 야스코를 보러 온다는 건 우리가 멋대로 한 말일 뿐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

でも、ヤスコを見に来るというのは、私たちが勝手に言っただけで、真実なのかは分からないと釘付けだった。

입안이 말라 가는 느낌이어ㄴ다。

입안이 말라 가는 느낌이었다。

입안이 말라 가는 느낌이었다。

口の中が乾いていく感じだった。

경찰이 마침내 이시가미를 주목하기 시작하ㄴ 것이다。

警察이 마침내 이時加味를 注目하기 始作한 것이다。

경찰이 마침내 이시가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警察がついに石上を注目し始めたのだ。

그 근거가 단지 구도의 말 때문이어ㄴ으ㄴ까, 아니면 뭐ㄴ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눈을 돌리ㄴ 것이ㄴ까。

그 根據가 但只 構圖의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理由가 있어서 그에게 눈을 돌린 것일까。

그 근거가 단지 구도의 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눈을 돌린 것일까。

その根拠がただ構図の言葉のためだったのか、それとも何か他の理由があって彼に目を向けたのだろうか。

“여보세요, 야스코?”

“여보세요, 야스코?”

“여보세요, 야스코?”

「こんにちは、ヤスコ？」

야스코가 말이 없자 사요코가 그녀를 불렀다.

야스코가 말이 없자 史요코가 그女를 불렀다.

야스코가 말이 없자 사요코가 그녀를 불렀다.

ヤスコが言葉がないとサヨコが彼女を呼んだ。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그렇게 말하 ㄴ 거 괜찮아? 내가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 ㄴ 거 ㄴ가?”

“그렇게 말한 거 괜찮아? 내가 쓸데없는 말이라도 한 건가?”

“그렇게 말한 거 괜찮아? 내가 쓸데없는 말이라도 한 건가?”

「そう言ったのは大丈夫ですか？私が無駄な言葉でもしたのか？」

궁지에 몰리는 한이 있어도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 ㄴ 수는 없어 ㄴ다.

窮地に 몰리는 恨이 있어도 쓸데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궁지에 몰리는 한이 있어도 쓸데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窮地に集まる限りがあっても無駄な言葉とは言えなかった。

“아니예요, 별문제 없으 ㄴ 거예요.

“아니예요, 別問題 없을 거예요.

“아니예요, 별문제 없을 거예요.

「いいえ、別の問題はありません。

그 선생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그 先生과는 關係없는 일이니까요.

그 선생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その先生とは関係ないことですからね。

“그렇지? 그래도 일단은 야스코가 알아야 하 ㄴ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一旦般 야스코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일단은 야스코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そうですか？それでもひとまずは、ヤスコが知るべきだと思います。

“알아 ㄴ 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わかりました。

알려 줘서 고마워요.

알려 줘서 고마워요.

알려 줘서 고마워요.

教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ㄴ다.

그러고서 電話를 끊었다.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다.

そして電話を切った。

속이 메스꺼려ㄴ다.

속이 메스꺼렸다.

속이 메스꺼렸다.

中がめちゃくちゃだった。

토하ㄴ 것 같으ㄴ 느낌이어ㄴ다.

吐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吐きそうな感じだった。

그런 느낌은 집에 돌아오 ㄴ 때까지 계속되어 ㄴ다。

그런 느낌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繼續되었다。

그런 느낌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そんな感じは家に帰るまで続いた。

도중에 마트에 들러 ㄴ지만 자신이 뭐 ㄴ 사고 있는지조차 아 ㄴ 수 없어 ㄴ다。

途中에 마트에 들렀지만 自身이 뭘 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도중에 마트에 들렀지만 자신이 뭘 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途中でマートに立ち寄ったが、自分が何を買っているのかさえ分からなかった。

옆집 현관문이 열려 ㄴ다 닫히는 소리가 나 ㄴ으 ㄴ 때 이시가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ㄴ다。

옆집 玄關門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이市加味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옆집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이시가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隣の玄関門が開かれ、閉じる音がした時、石神はコンピュータの前に座っていた。

화면에 사진 석 장이 떠 있어ㄴ다。

畫面에 寫眞 석 張이 떠 있었다。

화면에 사진 석 장이 떠 있었다。

画面に写真席が浮いていた。

구도를 찍으ㄴ 사진 두 장과 야스코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으ㄴ 사진 한 장이다。

構圖를 찍은 寫眞 두 張과 야스코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寫眞 한 張이다。

구도를 찍은 사진 두 장과 야스코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 한 장이다。

構図を撮った写真2枚と、ヤスコがホテルに入る姿を撮った写真一枚だ。

되ㄴ 수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고 싶어ㄴ지만, 구도에게 발각되
ㄴ 것 같기도 해ㄴ고 만일 야스코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일이 귀찮아지ㄴ 것 같
아 자제하기로 해ㄴ다。

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場面을 찍고 싶었지만, 構圖에게 發覺
될 것 같기도 했고 萬一 야스코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일이 귀찮아질 것 같
아 自制하기로 했다。

될 수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찍고 싶었지만, 구도에게 발각
될 것 같기도 했고 만일 야스코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일이 귀찮아질 것 같

아 자제하기로 했다.

できれば二人が一緒にいる場面を撮りたかったが、構図に発覚しそうだったし、もし靖子が気づいたりしたら仕事が面倒になりそうに自制することにした。

이시가미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ㄴ다。

이時加味는 最惡의 境遇를 念頭に 두고 있었다。

이시가미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石神は最悪の場合を念頭に置いていた。

그때는 이런 사진이 한몫하겠지만, 그런 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ㄴ다。

그때는 이런 寫眞이 한몫하겠지만, 그런 일은 어떻게든 避하고 싶었다。

그때는 이런 사진이 한몫하겠지만, 그런 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その時はこんな写真が一役買うだろうが、そんなことは何とか避けたかった。

이시가미는 탁상시계를 힐끔 보고서 자리에서 일어나ㄴ다。

이時加味는 卓上時計를 힐끔 報告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시가미는 탁상시계를 힐끔 보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石上は卓上時計をヒルヒム報告書席で起きた。

저녁 8시가 되어 가고 있어ㄴ다.

저녁 8時가 되어 가고 있었다.

저녁 8시가 되어 가고 있었다.

夕方 8時になっていていた。

오늘은 야스코와 구도가 그리 길게 만나ㄴ 것 같지 않다.

오늘은 야스코와 構圖가 그리 길게 만난 것 같지 않다.

오늘은 야스코와 구도가 그리 길게 만난 것 같지 않다.

今日はヤスコと構図がそんなに長く会ったようではない。

그 사실에 자신이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ㄴ다.

그 事實에 自身이 安堵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 사실에 자신이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その事実に関自分が安堵していることを彼は悟った。

전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서ㄴ다.

電話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전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電話カードをポケットに入れて家を出た。

평소처럼 밤길을 걸어ㄴ다.

平素처럼 밤길을 걸었다。

평소처럼 밤길을 걸었다。

いつものように夜道を歩いた。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ㄴ다。

自身을 지켜보는 눈이 없는지 慎重하게 確認했다。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했다。

自分を見守る目がないか慎重に確認した。

구사나기라는 형사가 찾아와 ㄴ던 일이 떠올라 ㄴ다。

驅使나기라는 刑事가 찾아왔던 일이 떠올랐다。

구사나기라는 형사가 찾아왔던 일이 떠올랐다。

草薙という刑事がやってきたことが思い浮かんだ。

그의 용건은 실로 기묘해 ㄴ다。

그의 用件은 實로 奇妙했다。

그의 용건은 실로 기묘했다。

彼の用件は実に奇妙だった。

하나오카 야스코에 관해 질문해 ㄴ지만 실제 목적은 유가와 마나부라는 느낌이 들어 ㄴ다。

하나오카 야스코에 關해 質問했지만 實際 目的은 有價와 마羅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나오카 야스코에 關해 質問했지만 실제 목적은 유가와 마나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花岡康子について質問したが、實際の目的は湯川とマナブという感じがした。

그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그들은 代替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까。

그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까。

彼らは一体どんな話をやりとりするのか。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지 어떨 ㄴ 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이시가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우 ㄴ 상태여 ㄴ다。

自身이 疑心받고 있는지 어떤지 判斷이 서지 않아 이時加味는 다음 段階로 넘어가기 어려운 狀態였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지 어떤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이시가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自分が疑われているのかどうか判断が立てず、石神は次の段階に進みにくい状態だった。

평소에 하던 대로 야스코의 휴대 전화 번호를 눌러 ㄴ다。

平素에 하던 대로 야스코의 携帶 電話 番號를 눌렀다.

평소에 하던 대로 야스코의 휴대 전화 번호를 눌렀다.

普段やっていた通り、ヤスコの携帯電話番号を押した。

세 번 호출음이 들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아냈다.

세 번 呼出音が 들리고 그女가 電話를 받았다.

세 번 호출음이 들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3回の呼び出し音が聞こえ、彼女は電話を受けました。

“저 ㅂ니다.

“접니다.

“접니다.

「折ります。

지금 통화 괜찮으 ㅅ가요?”

只今 通話 괜찮은가요?”

지금 통화 괜찮은가요?”

今通話は大丈夫ですか？」

“네.

“네.

“네.

「はい。

“오늘은 별일 없어습니까?”

“오늘은 別일 없었습니까?”

“오늘은 별일 없었습니까?”

「今日はあまりいませんでしたか？」

구도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는지 묻고 싶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다。

構圖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
다。

구도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
다。

構図に会って何の話を交わしたのか聞きたかったが口が落ちなかった。

두 사람의 만남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만남을 自身이 알고 있다는 事實 自體가 不自然스럽기 때문이
다。

두 사람의 만남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이
다。

二人の出会いを自分が知っているという事実自体が不自然だからだ。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실은……。

實은……。

실은……。

実は… …。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다물어 버려ㄴ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女는 暫時 躊躇하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다。

そこまで言って彼女はしばらく躊躇して口を閉じてしまった。

“뭐 ㄴ니까, 무슨 일이 있어ㄴ나요?”

“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何ですか、どうしたの？」

구도에게서 무슨 이상하ㄴ 말이라도 들으ㄴ 거 ㄴ까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해ㄴ

다.

構圖에게서 무슨 異常한 말이라도 들은 걸까 하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구도에게서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들은 걸까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構図からどんな不思議な言葉でも聞いたのかと、石神は考えた。

“가게에, 베 ㄴ 테 ㄴ 테이에 형사가 와 ㅅ 었대요.

“가게에, 벤텐테이에 刑事가 왔었대요.

“가게에, 벤텐테이에 형사가 왔었대요.

「お店に、弁天亭に刑事がやってきましたね。

그런데 저……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 ㅅ 다고 해요.

그런데 저…… 先生님에 對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 선생님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요.

しかし、私… …先生について聞いたそうです。

“저에 대해서요, 월요?”

“저에 對해서요, 월요?”

“저에 대해서요, 월요?”

「私についてです、何ですか？」

이시가미는 침을 꿀꺽 삼켜 ㅅ 다.

이時加味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시가미는 침을 꿀꺽 삼켰다。

石神は唾液を飲み込んだ。

“그게, 이해하기 힘들시_ㄴ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희 가게 주인이 예전부터 이시
가미 씨에 대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 이시가미 씨가 화를 내시_ㄴ지 모르
겠지만……。

“그게, 理解하기 힘들실지 모르겠지만 實은 저희 가게 主人이 예전부터 이
時가美 氏에 對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 이時가美 氏が 火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해하기 힘들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희 가게 주인이 예전부터 이
시가미 씨에 대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저, 이시가미 씨가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それが、わかりにくいかもしれませんが、実は当店のオーナーが昔から石
神さんについて話したことがあります……」 …私、石上さんが怒ってくれ
るかもしれないけど……。 …。

이시가미는 답답하_ㄴ 나머지 부아가 치밀어_ㄴ다。

이時加味는 답답한 나머지 부아가 치밀었다。

이시가미는 답답한 나머지 부아가 치밀었다。

石神は苦しい残りのブアが緻密だった。

이 여자도 수학에 약하 ㄴ 거라고 생각해 ㄴ 다。

이 女子도 數學에 弱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여자도 수학에 약할 거라고 생각했다。

この女も数学に弱いと思った。

“화내지 않으 ㄴ 테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해 ㄴ 는지。

“화내지 않을 테니 單刀直入的に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화내지 않을 테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怒らないから団道直入的に言ってみてください、何の話をしたのか。

보나 마나 외모를 홍보는 말을 해 ㄴ 으 ㄴ 것이다。

보나 마나 外貌를 홍보는 말을 했을 것이다。

보나 마나 외모를 홍보는 말을 했을 것이다。

ボナマナ容貌を凶報という言葉をしたのだろう。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 ㄴ 지만, 가게 주인은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싶어
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가게 主人은 先生님이 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그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가게 주인은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싶어서 도시락을 사러 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それが… …私はそうではないと言ったが、店主は先生が私を見たくて弁当

を買いに来るのだと、そう言う…。 …。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이시가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어^ㄴ다。

이時加味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이시가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石神は頭の中がしゃがんだ感じだった。

“죄송해요。

“罪悚해요。

“죄송해요。

「すみません。

재미 삼아 농담으로 하^ㄴ 말이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재미 삼아 弄談으로 한 말이니 氣分 나빠하지 마세요。

재미 삼아 농담으로 한 말이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面白くて冗談で言ったので気持ち悪くしないでくださ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ㄴ 아니 ㄹ 테니까요。

眞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心からそう思う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ら。

야스코는 나름 변명하려 해 ㅅㅅ 하지만 그 말의 절반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 ㅅㅅ
다。

야스코는 나름 辨明하려 했지만 그 말의 折半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
다。

야스코는 나름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의 절반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
다。

ヤスコはそれなりに言い訳しようとしたが、その言葉の半分も彼の耳に入っ
てこなかった。

제3자에게 그렇게 보여 ㅅㅅ 단 말이 ㄴ가。

第三者에게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제3자에게 그렇게 보였단 말인가。

第三者にそう見えたのか。

오해가 아니어ㄴ다。

誤解가 아니었다。

오해가 아니었다。

誤解ではなかった。

사실 그는 야스코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사러 가ㄴ다。

事實 그는 야스코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毎日 아침 도시락을 사러 간다。

사실 그는 야스코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사러 간다。

実は彼はヤスコの顔を見たくて毎朝弁当を買いに行く。

그런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아ㄴ다면 거짓말이다。

그런 自身の 마음이 그女에게 傳해지기를 期待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そんな自分の心が彼女に伝わることを期待していなければ嘘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보여ㄴ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화끈거려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화끈거렸

다。

しかし他人にまでそう見えたと思うと全身が熱くなった。

자신처럼 못생긴 남자가 그녀처럼 아름다우 여자를 좋아해서 애태우는 모습
을 보고 얼마나들 비웃어으니까。

自身처럼 못생긴 男子가 그女처럼 아름다운 女子를 좋아해서 애태우는 모
습을 보고 얼마나들 비웃었을까。

자신처럼 못생긴 남자가 그녀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서 애태우는 모
습을 보고 얼마나들 비웃었을까。

自分のように醜い男が彼女のように美しい女性が好きで、泣く姿を見てどれ
だけ笑ったのだろうか。

“저, 화나셔요?”

“저, 火나셨어요?”

“저, 화나셨어요?”

「私、怒っていましたか？」

그녀가 물어다。

그女가 물었다。

그녀가 물었다。

彼女は尋ねた。

이시가미가 당황스러워하며 헛기침을 해냈다.

이時加味が 唐慌스러워하며 헛기침을 했다.

이시가미가 당황스러워하며 헛기침을 했다.

石神が慌てて無駄になった。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あ、いいえ。

그래서, 형사가 뭐 물어받습니까?”

그래서, 刑事가 뭘 물었습니까?”

그래서, 형사가 뭘 물었습니까?”

それで、刑事が何を聞いたのですか？」

“그러니까, 어디서 그 소문을 듣고 와서는 그 손님이 누구냐고 물어받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所聞을 듣고 와서는 그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소문을 듣고 와서는 그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나 봐요.

「だから、どこでその噂を聞いてきて、その客が誰なのかと聞いたかと思い

ます。

가게 주인은 선생님 이름을 대^ㅅ고요。

가게 主人은 先生님 이름을 댔고요。

가게 주인은 선생님 이름을 댔고요。

店主は先生の名前を付けました。

“그래^ㅅ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형사는 누구에게 그런 소문을 들어^ㅅ답니까?”

刑事는 누구에게 그런 所聞을 들었답니까?”

형사는 누구에게 그런 소문을 들었답니까?”

刑事は誰にそのような噂を聞いたのですか？」

여전히 몸에서 열기가 가시지 않^으는 상태로 이시가미가 다시 물어^ㅅ다。

如前히 몸에서 열기가 가시지 않은 狀態로 이時加味가 다시 물었다。

여전히 몸에서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이시가미가 다시 물었다。

相変わらず体から熱気が出ない状態で石神が再び尋ねた。

“그거 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それは… …よく分からない。

“형사가 물어보 ㄴ 거 ㄴ 그것뿐이랍니까?”

“刑事가 물어본 건 그것뿐이랍니까?”

“형사가 물어본 건 그것뿐이랍니까?”

「刑事が聞いたのはそれだけですか？」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そうだと思います。

수화기를 쥐 ㄴ 채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여 ㄴ다.

受話器를 쥔 채 이市加味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화기를 쥔 채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受話器を握ったまま石上は首をうなずいた。

낭패감에 사로잡혀 있으 ㄴ 때가 아니어 ㄴ다.

狼狽感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낭패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었다.

包敗感にとらわれている時ではなかった。

어떤 경위로 그 말을 들어쑈는지는 모르지만, 형사가 그를 향해 의심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ㄴ 사실이어쑈다。

어떤 京位로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刑事가 그를 向해 疑心の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만은 分명한 事實이었다。

어떤 경위로 그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형사가 그를 향해 의심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どんな経緯でその言葉を聞いたかは分からないが、刑事が彼に向かって疑いの矢を回しているのだけは明らかな事実だった。

그렇다면 대응책을 세워야 하ㄴ다。

그렇다면 對應策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それなら対応策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

“지금 거기 따님 있습니까?”

“只今 거기 따님 있습니까?”

“지금 거기 따님 있습니까?”

「今そこは娘ですか？」

“미사토 말이냐가요? 네, 있어요.

“未사토 未인가요? 네, 있어요.

“미사토 말인가요? 네, 있어요.

「ミサトのことですか？はい、あります。

“잠깐 바꿔 주세요.

“잠깐 바꿔 주세요.

“잠깐 바꿔 주세요.

「ちょっと変えてください。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이시가미는 눈을 감아^ㅅ다.

이時加味는 눈을 감았다.

이시가미는 눈을 감았다.

石神は目を閉じた.

구사나기를 비롯하 ㄴ 형사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 ㄴ 것이 ㄴ지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 ㅅ 다。

驅使나기를 비롯한 刑事들이 只今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精神을 集中해서 생각해 보았다。

구사나기를 비롯한 형사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았다。

草薙をはじめとする刑事たちが今何を飾っているのか、次にどのように出てくるのか精神を集中して考えてみた。

그러다 유가와 마나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동요하고 말아 ㅅ 다。

그러다 有價와 마나部の 얼굴이 떠오르는 瞬間 그는 動搖하고 말았다。

그러다 유가와 마나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동요하고 말았다。

その後、ユガとマナブの顔が浮かぶ瞬間、彼は動揺してしまった。

그 물리학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 ㄴ 것이 ㄴ가。

그 物理學者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 물리학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その物理学者は何を考えているのか。

네, 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와 ㅅ 다。

네, 하는 少女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はい、する少女の声が聞こえてきた。

“아, 미사토 양, 나 이시가미야.

“아, 美사토 양, 나 이시가미야.

“아, 미사토 양, 나 이시가미야.

「あ、ミサトちゃん、私の石神谷。

“네.

“네.

“네.

「はい。

“12일에 같이 영화 얘기를 하 ㄴ 친구가 미카 짱이래 ㄴ지?”

“12 日에 같이 映画 얘기를 한 親舊가 미카 짱이랬지?”

“12일에 같이 영화 얘기를 한 친구가 미카 짱이랬지?”

「12 日に一緒に映画の話をした友人がミカちゃんだった？」

“네.

“네.

“네.

「はい。

형사에게도 그렇게 말해썩어요。

刑事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형사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刑事にもそう言いました。

“그래, 그거 ㄴ 지난번에 들어썩어。

“그래, 그건 지난番에 들었어。

“그래, 그건 지난번에 들었어。

「ええ、それは前回聞きました。

그런데 또 하 ㄴ 친구 있잖아, 하루카 짱이라고 해썩나?”

그런데 또 한 親舊 있잖아, 하루카 짱이라고 했나?”

그런데 또 한 친구 있잖아, 하루카 짱이라고 했나?”

ところでもう一人の友人がいるじゃないか、春香ちゃんって言ったの？」

“맞아요, 다마오카 하루카。

“맞아요, 다마오카 하루카。

“맞아요, 다마오카 하루카。

「そうです、玉岡春香。

“그 친구와는 그다음에도 영화 이야기를 해나?”

“그 親舊와는 그다음에도 映畫 이야기를 했나?”

“그 친구와는 그다음에도 영화 이야기를 했나?”

「その友達とは次にも映画の話をしたの？」

“아뇨, 그때뿐이어요.”

“아뇨, 그때뿐이었을 거예요.”

“아뇨, 그때뿐이었을 거예요.”

「いや、その時だけだったんです。」

어쩌면 조금은 더 해요.”

어쩌면 조금은 더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조금은 더 했을지도 몰라요.”

たぶん少しはもっとや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 애에 대해서는 형사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 애에 對해서는 刑事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 애에 대해서는 형사에게 말하지 않았지?”

「あの子については刑事に言わなかったの？」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しませんでした。

하루카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하루카에 對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하루카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셔서요.

春香についてはまだ言っていない方がいいと言われています。

“응, 그래 ㄴ지.

“응, 그랬지.

“응, 그랬지.

「うん、そうだった。

그런데 이제 얘기하 ㄴ 때가 돼 ㄴ어.

그런데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

그런데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

ところでもう話をする時になった。

이시가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하나오카 미사토에게 뭐 ㄴ가를 지시하기 시작

해 ㄴ다.

이時加味는 周圍를 살피고 나서 하나오카 미사토에게 원가를 指示하기 始
作했다。

이시가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하나오카 미사토에게 원가를 지시하기 시
작했다。

石神は周りを見てから花岡ミサトに何かを指示し始めた。

테니스코트 옆 공터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ㄴ다。

테니스코트 옆 공터에서 灰色 煙氣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테니스코트 옆 공터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テニスコートの横の空き地で灰色の煙が咲いていた。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얀 運動복 차림의 유가와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막대
기로 드럼통 속을 쑤셔 대고 있어ㄴ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얀 運動服 차림의 有價와假 소매를 걷어 올리고 막
대기로 드럼桶 속을 쑤셔 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하얀 運動복 차림의 유가와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막
대기로 드럼통 속을 쑤셔 대고 있었다。

近くに近づいてみると白い運動服姿の湯川が袖を蹴り上げて棒でドラム缶の
中を選んで当てていた。

연기는 그 속에서 피어올라ㄴ다。

煙氣는 그 속에서 피어올랐다。

연기는 그 속에서 피어올랐다.

演技はその中で咲いた。

발소리를 들으 ㄴ 듯 유가와가 고개를 돌려 ㅆ 다.

발소리를 들은 듯 有價와假 고개를 돌렸다.

발소리를 들은 듯 유가와가 고개를 돌렸다.

足音を聞いたように湯川が首を回した。

“자네는 마치 나를 스토킹 하는 것 같군.

“자네는 마치 나를 스토킹 하는 것 같군.

“자네는 마치 나를 스토킹 하는 것 같군.

「君はまるで私をストーキングするようだな。

“수상쩍으 ㄴ 인간에 대해 형사는 스토키가 되는 법이야.

“殊常쩍은 人間에 對해 刑事는 스토키가 되는 法이야.

“수상쩍은 인간에 대해 형사는 스토키가 되는 법이야.

「怪しい人間に対して刑事はストーカーになる法だ。

“아니, 내가 수상쩍단 말이야?”

“아니, 내가 殊常쩍단 말이야?”

“아니, 내가 수상쩍단 말이야?”

「いや、俺が怪しいの？」

유가와가 재미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떠^ㅅ다。

有價와가 재미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유가와가 재미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湯川が面白いように目を細くした。

“오랜만에 자네 머리에서 대담하^ㄴ 발상이 떠오르^ㄴ 모양이군。

“오랜만에 자네 머리에서 大膽한 發想이 떠오른 模樣이군。

“오랜만에 자네 머리에서 대담한 발상이 떠오른 모양이군。

「久しぶりに君の頭から大胆な発想が浮かんだようだ。

그런 유연하^ㄴ까지 갖춰^ㅅ다면 출세는 따 놓으^ㄴ 당상이^ㄴ걸。

그런 柔軟함까지 갖췄다면 出世는 따 놓은 堂上인걸。

그런 유연함까지 갖췄다면 출세는 따 놓은 당상인걸。

そんなしなやかさまで揃えたら出世は取った当選なんだ。

“왜 내가 자네를 수상쩍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자네를 殊常쩍게 여기는지, 그 理由를 알고 싶지 않아?”

“왜 내가 자네를 수상쩍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

「なぜ私があなたを不思議に思うのか、その理由を知りたくないのです

か？」

“물어보 ㄴ 필요가 없지。

“물어볼 必要가 없지。

“물어볼 필요가 없지。

「聞く必要はない。

어느 세상이건 과학자란 사람들에게 늘 수상쩍으 ㄴ 존재니까。

어느 世上이건 科學者란 사람들에게 늘 殊常쩍은 存在니까。

어느 세상이건 과학자란 사람들에게 늘 수상쩍은 존재니까。

どの世の中でも科学者という人々にいつも怪しい存在だから。

그러면서 유가와는 드럼통 속을 계속 헤집어 ㅅ 다。

그러면서 有價와는 드럼桶 속을 繼續 헤집었다。

그러면서 유가와는 드럼통 속을 계속 헤집었다。

それとともに湯川とはドラム缶の中をひっくり返した。

“뭐 ㄴ 태우는 거야?”

“월 태우는 거야?”

“월 태우는 거야?”

「何を燃やすの？」

“별거 아니야。

“別居 아니야。

“별거 아니야。

「あまりない。

필요 없게 되 ㄴ 리포트랑 자료들이야。

必要 없게 된 리포트랑 資料들이야。

필요 없게 된 리포트랑 자료들이야。

必要なくなったレポートと資料だよ。

문서 절단기는 신용하 ㄴ 수가 없어서 말이지。

文書 切斷機는 信用할 수가 없어서 말이지。

문서 절단기는 신용할 수가 없어서 말이지。

文書カッターは信用できないからね。

그리고 유가와는 곁에 놓아두 ㄴ 양동이를 들어 거기 있던 물을 드럼통 속에 부어 ㅅ다。

그리고 有價와는 곁에 놓아둔 洋동이를 들어 거기 있던 물을 드럼桶 속에 부었다。

그리고 유가와는 곁에 놓아둔 양동이를 들어 거기 있던 물을 드럼통 속에 부었다。

そして湯川はそばに置いたバケツを持ち上げてそこにあった水をドラム缶の
中に注いだ。

슈우, 소리와 함께 더 짙은 연기가 피어올라ㅅ다。

슈우, 소리와 함께 더 짙은 煙氣가 피어올랐다。

슈우, 소리와 함께 더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シュウ、音と共に、より濃い煙が咲いていた。

“자네에게 하ㄴ 이야기가 있어。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君に言う話がある。

형사로서 말이야。

刑事로서 말이야。

형사로서 말이야。

探偵として。

“이거 너무 힘주는거 아냐?”

“이거 너무 힘주는거 아냐?”

“이거 너무 힘주는거 아냐?”

「これはあまりにも力を与えるのではない？」

드럼통 속의 불이 꺼지 ㄴ 것을 확인하 ㄴ 유가와는 양동이를 손에 드 ㄴ 채 걸음을 떼어 ㄴ다。

드럼桶 속의 불이 꺼진 것을 確認한 有價와는 洋동이를 손에 든 채 걸음을 떼었다。

드럼통 속의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유가와는 양동이를 손에 든 채 걸음을 떼었다。

ドラム缶の中の火が消えたことを確認した湯川とはバケツを手にしたまま足を離した。

구사나기가 그를 뒤따라 ㄴ다。

驅使나기가 그를 뒤따랐다。

구사나기가 그를 뒤따랐다。

草薙が彼に従った。

“어제 자네를 만나고 나서 베 ㄴ 테 ㄴ 테이에 가 ㄴ었어。

“어제 자네를 만나고 나서 벤텐테이에 갔었어。

“어제 자네를 만나고 나서 벤텐테이에 갔었어。

「昨日あなたに会ってから弁天亭に行きました。

거기서 정말 흥미로우 ㄴ 이야기를 들어 ㄴ지。

거기서 정말 興味로운 이야기를 들었지。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지。

そこで本当に興味深い話を聞いたよね。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知りたくない？」

“별로。

“별로。

“별로。

「あまり。

“그럼 내 맘대로 말하_ㄴ게。

“그럼 내 맘대로 말할게。

“그럼 내 맘대로 말할게。

「じゃあ私の勝手に言うよ。

자네 친구이_ㄴ 이시가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훌쩍 반해_ㄴ다더군。

자네 親舊인 이時加味が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훌쩍 反했다더군。

자네 친구인 이시가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훌쩍 반했다더군。

君の友人である石上が花岡康子に愚かだった。

성큼성큼 걸던 유가와가 그 순간 우뚝 멈춰 섰다。

성큼성큼 걸던 有價와가 그 瞬間 우뚝 멈춰 섰다。

성큼성큼 걸던 유가와가 그 순간 우뚝 멈춰 섰다。

盛大に歩いていた湯川がその瞬間、そびえ止めた。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ㄴ다。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振り返る彼の目つきが鋭かった。

“도시락 가게 사람이 그래?”

“도시락 가게 사람이 그래?”

“도시락 가게 사람이 그래?”

「お弁当屋の人がそう？」

“응。

“응。

“응。

「うん。

자네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베_ㄴ테_ㄴ테이에 가서 확인

해 봐ㄴ지。

자네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벤텐테이에 가서 確認

해 봤지。

자네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벤텐테이에 가서 확인해 봤지。

君と話を交わしたところで思い浮かぶのがあってベンテンテーに行って確認してみた。

논리도 중요하지만 형사에게는 무엇보다 직감이 큰 무기거든。

論理도 重要하지만 刑事에게는 무엇보다 直感が 큰 武器거든。

논리도 중요하지만 형사에게는 무엇보다 직감이 큰 무기거든。

論理も重要だが、刑事には何より直感が大きい武器であ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だから？」

유가와가 구사나기를 향해 완전히 돌아서ㄴ다。

有價와假 驅使나기를 向해 完全히 돌아섰다。

유가와가 구사나기를 향해 완전히 돌아섰다。

湯川が草薙に向かって完全に戻った。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반하 ㄴ 게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반한 게 捜査와 무슨 關係가 있는데?”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반한 게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彼が花岡康子に惚れたのが捜査とどんな関係があるの？」

“이제 와서 시치미 떼지 마。

“이제 와서 시치미 떼지 마。

“이제 와서 시치미 떼지 마。

「もう来て七味離さないで。

자네가 어떻게 감을 잡아 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시가미가 하나오카 야스코와
공범이 아니 ㄴ까 의심해서 나 몰래 돌아다니 ㄴ 거 아니야。

자네가 어떻게 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時加味가 하나오카 야스코
와 共犯이 아닐까 疑心해서 나 몰래 돌아다니 ㄴ 거 아니야。

자네가 어떻게 감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시가미가 하나오카 야스코
와 공범이 아닐까 의심해서 나 몰래 돌아다니 ㄴ 거 아니야。

君がどう感じたのかは分からないけど、石神が花岡康子と共犯じゃないかと
疑われて俺こっそり回ったんじゃない。

“몰래 돌아다니 ㄴ 기억, 없는데。

“몰래 돌아다닌 記憶, 없는데。

“몰래 돌아다닌 기억, 없는데。

「こっそり歩き回った記憶、ないのに。

“어쨌든 나로서는 이시가미를 의심하 ㄴ 이유가 생겨 ㄴ 어。

“어쨌든 나로서는 이時加味를 疑心할 理由가 생겼어。

“어쨌든 나로서는 이시가미를 의심할 이유가 생겼어。

「とにかく私としては石神を疑う理由ができた。

이제부터 그를 철저히 추적하 ㄴ 생각이야。

이제부터 그를 徹底히 追跡할 생각이야。

이제부터 그를 철저히 추적할 생각이야。

これから彼を徹底的に追跡するつもりだ。

그래서 말이 ㄴ 데, 어제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아 ㄴ지만 우리,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어때? 예컨대 이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네도 자네가 알고 있는 거
ㄴ 내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어제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지만 우리, 平和 條約을 맺는
게 어때? 例컨대 이쪽에서 情報를 提供하는 代身 자네도 자네가 알고 있는
걸 내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어제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지만 우리,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어때? 예컨대 이쪽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네도 자네가 알고 있는

걸 내게 가르쳐 주는 거야。

それで言うのですが、昨日はそう別れてしまいましたが、私たち、平和条約を結ぶのはどうですか？例えばこちらで情報を提供する代わりに、あなたもあなたが知っていることを私に教えてくれるの。

어때, 나쁘지 않은 ㄴ 제안 아니야?”

어때, 나쁘지 않은 提案 아니야?”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니야?”

どうして悪くない提案じゃない？」

“자네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자네는 나를 過大評價하고 있어。

“자네는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あなたは私を過大評価している。

나 ㄴ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私はまだ正しく知っている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

그저 상상을 해 보 ㄴ 것뿐이지。

그저 想像을 해 본 것뿐이지。

그저 상상을 해 본 것뿐이지.

ただ想像をしてみただけだ。

“그럼 그 상상을 들려주면 돼.

“그럼 그 想像을 들려주면 돼.

“그럼 그 상상을 들려주면 돼.

「じゃあその想像を聞かせればいい。

구사나기는 친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아^ㄴ다.

驅使나기는 親舊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친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草薙は友人の目をじっと見つめた。

유가와는 그 눈길을 피하며 다시 걷기 시작해^ㄴ다.

有價와는 그 눈길을 避하며 다시 걷기 始作했다.

유가와는 그 눈길을 피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湯川はその目を避けてまた歩き始めた。

“일단 연구실로 가지.

“一旦 研究室로 가지.

“일단 연구실로 가지.

「いったん研究室に行く。

제13연구실에 있는 책상은 기묘하게도 불에 타_ㄴ 흔적이 있어_ㄴ다。

第 13 研究室에 있는 冊床은 奇妙하게도 불에 탄 痕跡이 있었다。

제13연구실에 있는 책상은 기묘하게도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第 13 研究室にある机は奇妙にも火に乗った跡があった。

구사나기가 그 앞에 앉자 유가와가 머그 컵 두 개를 들고 와서 책상 위에 놓아_ㄴ다。

驅使나기가 그 앞에 앉자 有價와가 머그 컵 두 個를 들고 와서 冊床 위에
놓았다。

구사나기가 그 앞에 앉자 유가와가 머그 컵 두 개를 들고 와서 책상 위에
놓았다。

草薙がその前に座ると、湯川がマグカップ2個を持ってきて机の上に置い
た。

여전히 그 어느 컵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_ㄴ다。

如前히 그 어느 컵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여전히 그 어느 컵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それでも、どんなカップも綺麗だと言うのは難しかった。

“이시가미가 공범이라면 그의 역할은 대체 뭐지?”

“이時加味가 共犯이라면 그의 役割은 代替 뭐지?”

“이시가미가 공범이라면 그의 역할은 대체 뭐지?”

「石神が共犯だったら彼の役割は一体何だ？」

유가와가 다짜고짜 물어ㄴ다。

有價와가 다짜고짜 물었다。

유가와가 다짜고짜 물었다。

湯川がいろいろ尋ねた。

“나부터 말하라는 거야?”

“나부터 말하라는 거야?”

“나부터 말하라는 거야?”

「私から言うの？」

“자네가 먼저 평화 협정을 제안해ㄴ으니까。

“자네가 먼저 平和 協定을 提案했으니까。

“자네가 먼저 평화 협정을 제안했으니까。

「君がまず平和協定を提案したから。

유가와는 의자에 걸터앉아 여유롭게 인스턴트커피를 마셔ㄴ다。

有價와는 椅子에 걸터앉아 餘裕롭게 인스턴트커피를 마셨다。

유가와는 의자에 걸터앉아 여유롭게 인스턴트커피를 마셨다.

湯川は椅子に座り、ゆったりと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を飲んだ。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좋아。

「ええ、わかりました。

아직 우리 보스한테는 이시가미에 대해 말하지 않아쑤어。

아직 우리 보스한테는 이時加味에 對해 말하지 않았어。

아직 우리 보스한테는 이시가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まだ私たちのボスには石神について話していない。

그러니까 이거 ㄴ 전부 내 추리이 ㄴ데, 만일 살해 현장이 다른 곳이라면 사체를
운반하 ㄴ 사람은 이시가미야。

그러니까 이건 全部 내 推理인데, 萬一 殺害 現場이 다른 곳이라면 사체를
運搬한 사람은 이시가미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내 추리인데, 만일 살해 현장이 다른 곳이라면 사체
를 운반한 사람은 이시가미야。

だからこれは全部私の推理なのに、もし殺害現場が違うところなら死体を運
んだ人は石神谷。

“호오, 자네는 사체 운반설에 부정적이어 ㄴ잖아?”

“호오, 자네는 史체 運搬설에 否定的이었잖아?”

“호오, 자네는 사체 운반설에 부정적이었잖아?”

「ほお、君は死体運搬説に否定的だったじゃない？」

“공범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

“共犯이 있다면 問題가 다르지.

“공범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

「共犯があれば問題は違う。

그렇다 해도 주범, 즉 실제로 도가시를 죽이 ㄴ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야.

그렇다 해도 主犯, 卽 實際로 도가시를 죽인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야.

그렇다 해도 주범, 즉 실제로 도가시를 죽인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야.

それでも主犯、つまり実際に道鹿市を殺した人は花岡康子。

이시가미가 도와 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있어 ㄴ고 범행을 저지
르 ㄴ 거 ㄴ 틀림없어.

이時加味가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女가 그 자리에 있었고 犯行을 저지
른 건 틀림없어.

이시가미가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고 범행을 저지
른 건 틀림없어.

石神が助けたのかは分からないけど彼女がその場において犯行を犯したのは間違いない。

“상당히 단정적이군。”

“相當히 端正的이군。”

“상당히 단정적이군。”

「かなり断定的だね。」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 ㄴ 사람도 사체를 처리하 ㄴ 사람도 이시가미라면 그거 ㄴ 이미 공범이 아니야。”

“實際로 殺人을 저지른 사람도 사체를 處理한 사람도 이時加味라면 그건 이미 共犯이 아니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사체를 처리한 사람도 이시가미라면 그건 이미 공범이 아니야。”

「実際に殺人を犯した人も死体を処理した人も石上だったら、それはすでに共犯ではない。」

그가 주범, 그것도 단독범이지。

그가 主犯, 그것도 單獨범이지。

그가 주범, 그것도 단독범이지。

彼が主犯、それも単独犯だ。

하지만 아무리 야스코에게 정신이 팔려ㅅ어도 거기까지는 아니ㄴ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야스코에게 精神이 팔렸어도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야스코에게 정신이 팔렸어도 거기까지는 아닐 거야。

だがいくらヤスコに精神が売れたとしてもそこまでではないだろう。

야스코가 배신하면 끝장이니까。

야스코가 背信하면 끝장이니까。

야스코가 배신하면 끝장이니까。

ヤスコが裏切れば終わりだから。

그녀에게도 뭐ㄴ가 부담을 지워ㅅ으ㄴ 거야。

그女에게도 뭔가 負擔을 지웠을 거야。

그녀에게도 뭔가 부담을 지웠을 거야。

彼女にも何か負担を消したのだろう。

“그럼 살인은 이시가미 혼자 하고 사체 처리를 둘이서 해ㅅ다고 보ㄴ 수는 없으
ㄴ까?”

“그럼 殺人은 이時加味 혼자 하고 史체 處理를 둘이서 했다고 볼 수는 없
을까?”

“그럼 살인은 이시가미 혼자 하고 사체 처리를 둘이서 했다고 볼 수는 없
을까?”

「じゃあ殺人は石神一人で死体処理を二人でやった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か？」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낮다고 봐。

“可能性이 제로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낮다고 봐。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낮다고 봐。

「可能性がゼロというのは大変だが低いと思う。

하나오카 야스코의 영화관 알리바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알리바이는 비교적 확실해。

하나오카 야스코의 映畫館 알리바이가 좀 曖昧하긴 하지만 그 以後의 알리바이는 比較的 確實해。

하나오카 야스코의 영화관 알리바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이후의 알리바이는 비교적 확실해。

花岡康子の映画館アリバイがちょっと曖昧ではあるが、それ以降のアリバイは比較的確實である。

아마도 시간을 정해 놓고 행동해ㄴ겠지。

아마도 時間을 定해 놓고 行動했겠지。

아마도 시간을 정해 놓고 행동했겠지。

おそらく時間を決めて行動したのだろう。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 ㄴ지 아 ㄴ 수 없는 사체 처리에 그녀가 가담해 ㄴ
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그렇다면 時間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史체 處理에 그녀가 加擔했다
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사체 처리에 그녀가 가담했다
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それなら時間がどれくらいかかるのか分からない死体処理に彼女が加担した
とは思えない。

“하나오카 야스코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하 ㄴ 시각이……。

“하나오카 야스코의 알리바이가 不分明한 時刻이……。

“하나오카 야스코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시각이……。

「花岡康子のアリバイが不明な視点が……」 ... 。

“영화를 봐 ㄴ다고 주장하는 일곱 시에서 아홉 시 십 분 사이야。

“映畫를 봤다고 主張하는 일곱 時에서 아홉 時 十 分 사이야。

“영화를 봤다고 주장하는 일곱 시에서 아홉 시 십 분 사이야。

「映画を見たと主張する七時から九時十分の間だ。

그 후에 간 라면집과 노래방에서는 알리바이가 확인돼 ㄴ어。

그 後에 肝 라면집과 노래房에서는 알리바이가 確認됐어。

그 후에 간 라면집과 노래방에서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어.

その後行ったラーメン屋さんカラオケではアリバイが確認された。

단, 일단 영화관에 들어가 ㄴ 것만은 사실이 ㄴ 거야.

但, 一旦 映畫館에 들어간 것만은 事實일 거야.

단, 일단 영화관에 들어간 것만은 사실일 거야.

ただし、いったん映画館に入ったのだけは事実だろう。

영화관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반쪽짜리 영화표에서 하나오카 모녀의 지문이 발견되어 ㄴ 거든.

映畫館 側에서 保管하고 있던 半쪽짜리 映畫票에서 하나오카 母女の 地文이 發見되었거든.

영화관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반쪽짜리 영화표에서 하나오카 모녀의 지문이 발견되었거든.

映画館側で保管していた半分の映画票で花岡母女の指紋が発見されたら。

“그렇다면 자네는 그 두 시간 십 분 사이에 야스코와 이시가미가 살인을 저질러 ㄴ다고 생각하는 거군.

“그렇다면 자네는 그 두 時間 十 分 사이에 야스코와 移是加味が 殺人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軍.

“그렇다면 자네는 그 두 시간 십 분 사이에 야스코와 이시가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군.

「それなら、君はその二時間十分の間に、ヤスコと石神が殺人を犯したと思うんだ。

“사체 유기까지 그사이에 이루어져 ㄴ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야스코는 이시가미보다 먼저 현장을 떠나 ㄴ 가능성이 높아。

“史체 有期까지 그사이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時間的に 봐서 야스코는 이時加味보다 먼저 現場을 떠났을 可能性이 높아。

“사체 유기까지 그사이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야스코는 이시가미보다 먼저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

「死体有機までその間に行われたかもしれないが、時間的に見て、ヤスコは石神より先に現場を離れた可能性が高い。

“살해 현장이 어디이 ㄴ 데?”

“殺害 現場이 어디인데?”

“살해 현장이 어디인데?”

「殺害現場はどこなの？」

“그거 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

「それはよく分からない。

하지만 어디든, 야스코가 도가시를 불러내^ㄴ으^ㄴ 거야。

하지만 어디든, 야스코가 도가시를 불러냈을 거야。

하지만 어디든, 야스코가 도가시를 불러냈을 거야。

でもどこでも、靖子が道家市を呼んだはずだ。

유가와는 아무 말 없이 머그 컵을 기울여^ㄴ다。

有價와는 아무 말 없이 머그 컵을 기울였다。

유가와는 아무 말 없이 머그 컵을 기울였다。

湯川は何も言わずにマグカップを傾けた。

미간에 주름이 잡히^ㄴ 그의 얼굴은 납득하는 표정이 아니어^ㄴ다。

眉間に 주름이 잡힌 그의 얼굴은納得하는表情이 아니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힌 그의 얼굴은 납득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眉間にしわがついた彼の顔は納得する表情ではなかった。

“왜, 하고 싶으^ㄴ 말 있어?”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なぜ、言いたいことある？」

“아니, 별로。

“아니, 別로。

“아니, 別로。

「いや、あまり。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서슴지 말고 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서슴지 말고 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서슴지 말고 해。

「やりたい言葉があったら、鹿にしないでください。

내 의견을 밝혔으니 이번에는 자네가 이야기할 차례야。

내 意見を 밝혔으니 이番에는 자네가 이야기할 次例야。

내 의견을 밝혔으니 이번에는 자네가 이야기할 차례야。

私の意見を明らかにしたので今回は君が話す順番だ。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한숨을 쉬어 다。

驅使나기의 말에 有價와는 한숨을 쉬었다。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는 한숨을 쉬었다。

草薙の言葉に湯川とはため息をついた。

“차는 사용하지 않아 어。

“次는 使用하지 않았어。

“차는 사용하지 않았어.

「車は使わなかった。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何って？」

“이시가미라면 차를 사용하지 않아_ㄴ 거라는 얘기야.

“이時加味라면 車を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이시가미라면 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石上なら車を使わなかったはずだという話だ。

사체를 운반하려면 차가 필요하잖아.

史체를 運搬하려면 車が 必要하잖아.

사체를 운반하려면 차가 필요하잖아.

死体を運ぶには車が必要じゃない。

이시가미는 차가 없으니 어디서 _ㄴ가 마련해야만 해.

이時가미는 次가 없으니 어디선가 마련해야만 해.

이시가미는 차가 없으니 어디선가 마련해야만 해.

石神は車がないのでどこかが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런데 그에게는 증거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차를 마련하^ㄴ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에게는 證據도 痕跡도 남기지 않고 車를 마련할 方法이 없어.

그런데 그에게는 증거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차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ところが彼には証拠も痕跡も残さずに車を用意する方法がない。

그거^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건 普通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야.

それは普通の人なら誰でも同じだろう。

“렌터카 업체를 이 잡듯이 뒤져 보^ㄴ 참이야.

“렌터카 業體를 이 잡듯이 뒤져 볼 참이야.

“렌터카 업체를 이 잡듯이 뒤져 볼 참이야.

「レンタカー会社をこのように振り返ってみるのは本当だ。

“애써 봐.

“애써 봐.

“애써 봐.

「頑張ってください。

하지만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건 내가 보장하지。

하지만 絶對로 못 찾는다는 건 내가 保障하지。

하지만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건 내가 보장하지。

しかし、絶對に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は私が保証しません。

이 자식이, 하는 표정으로 구사나기가 노려봐ㄴ지만 유가와는 모르ㄴ 척해ㄴ다。

이 子息이, 하는 表情으로 驅使나기가 노려봤지만 有價와는 모른 척했다。

이 자식이, 하는 표정으로 구사나기가 노려봤지만 유가와는 모른 척했다。

この子が、という表情で草薙が狙って見たが、ユガとは知らないふりをした。

“내 말은 만일 살해 장소가 다른 곳이라면 사체 운반은 이시가미가 해ㄴ으ㄴ 거라는 얘기고, 사체 발견 장소가 범행 현장이어ㄴ으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내 말은 萬一 殺害 場所가 다른 곳이라면 사체 運搬은 이時加味가 했을 거라는 얘기고, 史體 發見 場所가 犯行 現場이었을 可能性도 充分히 있어。

“내 말은 만일 살해 장소가 다른 곳이라면 사체 운반은 이시가미가 했을 거라는 얘기고, 사체 발견 장소가 범행 현장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私の言葉は、もし殺害場所が違うところなら死体運搬は石神がしただろう

ということで、死体発見場所が犯行現場だった可能性も十分にある。

사람이 둘이니 뭐든지 가능해。

사람이 둘이니 뭐든지 可能해。

사람이 둘이니 뭐든지 可能해。

人が二人だからなんでも可能。

“둘이서 도가시를 죽이고 사체의 얼굴을 뭉그러뜨리고 지문을 태우고 옷을 벗

겨서 태우고, 그러고서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와ㄴ단 말이야?”

“둘이서 도가시를 죽이고 사체의 얼굴을 뭉그러뜨리고 地文을 태우고 옷을

벗겨서 태우고, 그러고서 걸어서 現場을 빠져나왔단 말이야?”

“둘이서 도가시를 죽이고 사체의 얼굴을 뭉그러뜨리고 지문을 태우고 옷을

벗겨서 태우고, 그러고서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왔단 말이야?”

「二人で戸垣市を殺して死体の顔をぶら下げて指紋を燃やし、服を脱がせて

燃やし、それから歩いて現場を抜け出したんだ？」

“시간 차가 있으ㄴ지도 모르ㄴ다고 해ㄴ잖아。

“時間 車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시간 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時間差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言ったでしょ。

야스코는 영화가 끝나 ㄴ 때까지 돌아가야 하니까。

야스코는 映畵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야 하니까。

야스코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돌아가야 하니까。

ヤスコは映画が終わるまで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

“자네의 가설에 따르면 현장에 남아 있던 자전거는 역시 피해자 자신이 타고 오
ㄴ 거라는 얘기네?”

“자네의 假說에 따르면 現場에 남아 있던 自轉車는 亦是 被害者 自身이 타
고 온 거라는 얘기네?”

“자네의 가설에 따르면 현장에 남아 있던 자전거는 역시 피해자 자신이 타
고 온 거라는 얘기네?”

「君の仮説によると、現場に残っていた自転車はやはり被害者自身が乗って
きたという話だね？」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そうなるだろう。

“그리고 거기 묻어 있는 지문을 이시가미가 깜빡하고 지우지 않아 ㄴ다는 거

야? 과연 이시가미가 그런 초보적이 ㄴ 실수를 범해 ㄴ으니까? 달마 이시가미

가?”

“그리고 거기 묻어 있는 地文을 이時加味가 깜빡하고 지우지 않았다는 거

야? 果然 이時加味가 그런 初歩적인 失手を 犯했을까? 達磨 이市加味가?”

“그리고 거기 묻어 있는 지문을 이시가미가 깜빡하고 지우지 않았다는 거

야? 과연 이시가미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범했을까? 달마 이시가미가?”

「そしてそこに埋もれている指紋を石神が点滅して消さなかったというの?

果たして石神がそんな初歩的なミスをしたのだろうか? だるま石上は?」

“아무리 천재라도 실수는 있는 법이야.

“아무리 天才라도 失手는 있는 法이야.

“아무리 천재라도 실수는 있는 법이야.

「いくら天才でも間違いはある法だ.

그러나 유가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어^ㄴ다.

그러나 有價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유가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しかし、湯川はゆっくりと首を横切った.

“그는 그렇지 않아.

“그는 그렇지 않아.

“그는 그렇지 않아.

「彼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문을 지우지 않아ㄴ다는 거야?”

“그럼 都大體 무슨 理由로 地文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문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야?”

「それでは一体何の理由で指紋を消さなかったの？」

“나도 그거 ㄴ 생각하는 중이야.

“나도 그걸 생각하는 中이야.

“나도 그걸 생각하는 중이야.

「私もそれを考えています。

유가와가 팔짱을 껴ㄴ다.

有價와假 팔짱을 껴다.

유가와가 팔짱을 껴다.

湯川が腕を組ん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수학 천재이 ㄴ지는 몰라도 살인에는
아마추어야.

“너무 過大評價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數學 天才일지는 몰라도 殺人에
는 아마추어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수학 천재일지는 몰라도 살인에

는 아마추어야.

「過大評価していませんか？その人、数学天才日誌は分からなくても殺人には素人だ。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로야.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로야.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로야.

「それとか、または同じです。

유가와가 태평하게 말해ㄴ다.

有價와假 太平하게 말했다.

유가와가 태평하게 말했다.

湯川が太平に言った。

“그 녀석에게는 살인이 오히려 쉬우ㄴ 거야.

“그 녀석에게는 殺人이 오히려 쉬울 거야.

“그 녀석에게는 살인이 오히려 쉬울 거야.

「あいつには殺人がむしろ簡単だろう。

구사나기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지저분하ㄴ 머그 컵을 집어 들어ㄴ다.

驅使나기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지저분한 머그 컵을 집어 들었다.

구사나기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지저분한 머그 컵을 집어 들었다.

草薙は切れぐれの頭を振って汚れたマグカップを拾い上げた。

“어쨌든 일단은 이시가미를 철저히 조사해 보 ㄴ 생각이야.

“어쨌든 一段은 이時加味를 徹底히 調査해 볼 생각이야.

“어쨌든 일단은 이시가미를 철저히 조사해 볼 생각이야.

「とにかく一応は石神を徹底的に調べてみるつもりだ。

남자 공범이 있다는 거 ㄴ 전제로 하 ㄴ 다면 수사하 ㄴ 내용도 많아지 ㄴ 거야.

男子 共犯이 있다는 걸 前提로 한다면 搜查할 内容도 많아질 거야.

남자 공범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수사할 내용도 많아질 거야.

男共犯があるということを前提にすれば捜査する内容も多くなるだろう。

“자네의 가설에 따르면 범행이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 ㄴ 셈이야.

“자네의 假說에 따르면 犯行이 相當히 허술하게 이루어진 셈이야.

“자네의 가설에 따르면 범행이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진 셈이야.

「君の仮説によると犯行がかなり虚しく行われたわけだ。

자전거의 지문을 지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피해자의 옷도 태우다 말고……, 빈
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내 한 가지 묻겠는데, 범행이 계획적으
로 이루어지 ㄴ 거 ㄴ 까,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돌발적으로 이루어져 ㄴ 으
ㄴ 까?”

自轉車の 地文을 지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被害者の 옷도 태우다 말고……,
빈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내 한 가지 묻겠는데, 犯行이 計
劃적으로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어떤 事情이 있어서 突發적으로 이루어졌
을까?”

자전거의 지문을 지우는 것도 잊어버리고, 피해자의 옷도 태우다 말고…
…, 빈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내 한 가지 묻겠는데, 범행
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돌발적으로 이
루어졌을까?”

自転車の指紋を消すのも忘れてしまい、被害者の服も燃やさないで…。
…、隙間が多すぎるとは思わない?では、私の一つ聞くのに、犯行が計画的
になされたのか、それともどんな事情があって突発的になされたのだらう
か?

“그거 ㄴ……。

“그건……。

“그건……。

「それは… … 。

구사나기는 관찰하는 듯하 ㄴ 유가와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아 ㅅ 다。

驅使나기는 觀察하는 듯한 有價와의 눈길을 避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구사나기는 관찰하는 듯한 유가와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草薙は觀察するような湯川との目を避けずに向かった。

“돌발적이었으ㄴ지도 몰라.

“突發的이었을지도 몰라.

“돌발적이었을지도 몰라.

「突發的だったかもしれない。

가령 야스코가 하ㄴ 얘기가 있어서 도가시를 불러내ㄴ고 그때 이시가미는 말하
자면 그녀의 보디가드로 따라가ㄴ는데 얘기가 틀어지는 바람에 급기야 두 사람
이 도가시를 죽이고 말아ㄴ다, 그렇게 되ㄴ 거 아니ㄴ까?”

假令 야스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도가시를 불러냈고 그때 이市加味는 말하
자면 그女の 保디가드로 따라갔는데 얘기가 틀어지는 바람에 及其也 두 사
람이 도가시를 죽이고 말았다,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가령 야스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도가시를 불러냈고 그때 이시가미는 말
하자면 그녀의 보디가드로 따라갔는데 얘기가 틀어지는 바람에 급기야 두
사람이 도가시를 죽이고 말았다, 그렇게 된 거 아닐까?”

例えば、ヤスコが話をしてドガシを呼び、その時石神は言うとな彼女のボディ
ーガードに追いついたが、話が違ふ風に急ぎ、二人がドガシを殺してしまっ
た、そう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그 경우 영화관 알리바이와 모순되잖아.

“그 境遇 映畫館 알리바이와 矛盾되잖아.

“그 경우 영화관 알리바이와 모순되잖아.

「その場合映画館アリバイと矛盾するじゃないか。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걱정이어야 다면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는 필요가 있어
겠어? 설사 불완전한 알리바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作定이었다면 알리바이를 準備해 둘 필요가 있었겠어?
設使 不完全한 알리바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작정이었다면 알리바이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었
어? 설사 불완전한 알리바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ただ話だけに分けるつもりだったらアリバイを準備しておく必要があった
の? 下痢不完全なアリバイといってもなんだ。

“그럼 계획적이 아닌 범행이란 얘기인가? 애초에 죽이는 생각으로 야스코와 이시
가미 둘이서 도가시가 오기를 기다려야 단 거야?”

“그럼 計劃적인 犯行이란 얘긴가? 애초에 죽일 생각으로 야스코와 移是加
味 둘이서 도가시가 오기를 기다렸단 거야?”

“그럼 계획적인 범행이란 얘긴가? 애초에 죽일 생각으로 야스코와 이시가
미 둘이서 도가시가 오기를 기다렸단 거야?”

「では、計画的な犯行とは話しているのか? そもそも殺すつもりで、ヤスコ
と石神の二人で、とがしが来るのを待ってたの?」

“그렇게도 생각하기 힘들어。

“그렇게도 생각하기 힘들어。

“그렇게도 생각하기 힘들어。

「それでも考えにくい。

“뭐야,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그럼。

「なんだ、じゃあ。

구사나기가 맥 빠지 ㄴ 표정을 지어 ㅅ 다。

驅使나기가 脈 빠진 表情을 지었다。

구사나기가 맥 빠진 표정을 지었다。

草薙が脈打った表情をした。

“만일 이시가미가 계획을 세워 ㅅ 다면 그렇게 어설프 ㄴ 리 없어。

“萬一 이市加味가 計劃을 세웠다면 그렇게 어설프 理 없어。

“만일 이시가미가 계획을 세웠다면 그렇게 어설프 리 없어。

「もし石上が計画を立てたら、そんなにアサルプリない。

그가 그런 허점투성이 계획을 세우 ㄴ 다는 거 ㄴ 말이 안 돼。

그가 그런 虛點투성이 計劃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가 그런 허점투성이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돼。

彼がそんな抜け穴が計画を立てるというのは言わない。

그때 구사나기의 휴대 전화 벨이 울려왔다.

그때 驅使나기의 携帶 電話 벨이 울렸다.

그때 구사나기의 휴대 전화 벨이 울렸다.

その時草薙の携帯電話ベルが鳴った。

기시타니여왔다.

기시他니였다.

기시타니였다.

岸谷だった。

그가 중요하ㄴ 정보를 알려 와왔다.

그가 重要な 情報を 알려 왔다.

그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 왔다.

彼が重要な情報を教えてきた。

구사나기는 이따금 질문을 해 가면서 기시타니의 말을 메모해왔다.

驅使나기는 이따금 質問을 해 가면서 기시他니의 말을 메모했다.

구사나기는 이따금 질문을 해 가면서 기시타니의 말을 메모했다.

草薙はたまに質問をしていき、岸谷の言葉をメモした。

“재미있는 정보가 들어와왔다.

“재미있는 情報가 들어왔어.

“재미있는 정보가 들어왔어.

「面白い情報が入ってきた。

전화를 끊으 ㄴ 구사나기가 유가와를 보며 말해 ㅅ 다。

電話를 끊은 驅使나기가 有價와를 보며 말했다。

전화를 끊은 구사나기가 유가와를 보며 말했다。

電話を切った草薙が湯川を見て言った。

“야스코에게 미사토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의 같으 ㄴ 반 친구가 흥미로우 ㄴ

증언을 해 ㅅ 대。

“야스코에게 미사土螺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의 같은 反 親舊가 興味로운

證言을 했다。

“야스코에게 미사토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의 같은 반 친구가 흥미로운

증언을 했다。

「ヤスコにミサトという娘がいるのに、あの子の同じクラスメートが興味深

い証言をした。

“어떤 증언이 ㄴ 데?”

“어떤 證言인데?”

“어떤 증언인데?”

「どんな証言なの？」

“사건 당일 낮에 그 친구가 미사토한테 그날 밤에 엄마랑 영화관에 가 ㄴ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 ㄴ대。

“事件 當日 낮에 그 親舊가 미사토한테 그날 밤에 엄마랑 映畫館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대。

“사건 당일 낮에 그 친구가 미사토한테 그날 밤에 엄마랑 영화관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대。

「事件当日の昼間に、その友人がミサトにその夜にお母さんと映画館に行くという話を聞いた。

“정말이야?”

“正말이야?”

“정말이야?”

「本当に？」

“기시타니가 확인해 ㄴ다니까 틀림없으 ㄴ 거야。

“기시他니가 確認했다니까 틀림없을 거야。

“기시타니가 확인했다니까 틀림없을 거야。

「岸谷が確認したから間違いないだろう。

다시 말해서 야스코 모녀는 그날 낮 시점에 이미 영화관에 가기로 되어 있어
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야스코 母女는 그날 낮 時點에 이미 映畫館에 가기로 되어 있
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야스코 모녀는 그날 낮 시점에 이미 영화관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지。

言い換えれば、ヤスコの母娘はその日の昼時点ですでに映画館に行くことにな
っていたということだ。

구사나기는 물리학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여^ㄴ다。

驅使나기는 物理學者를 向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구사나기는 물리학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草薙は物理学者に向かって首をうなずいて見えた。

“계획적이^ㄴ 범행이^ㄴ 게 분명해。

“計劃的인 犯行인 게 分明해。

“계획적인 범행인 게 분명해。

「計劃的な犯行なのがはっきり。

그러나 유가와는 심각하^ㄴ 표정을 하^ㄴ 채 고개를 저어^ㄴ다。

그러나 有價와는 深刻한 表情을 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유가와는 심각한 표정을 한 채 고개를 저었다.

しかし、ユガとは深刻な表情をしたまま首を振った。

“있으 ㄴ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ありえない事だ。

무거우 ㄴ 어조로 유가와가 말해 ㅅ 다.

무거운 語調로 有價와假 말했다.

무거운 어조로 유가와가 말했다.

重い口調で湯川が言った。

13

13

13

13

‘마리안’은 기 ㄴ 시초역에서 도보로 5분쯤 거리에 있어 ㅅ 다.

‘마리안’은 긴市草驛에서 徒歩로 5 分쯤 거리에 있었다.

‘마리안’은 긴시초역에서 도보로 5분쯤 거리에 있었다.

「マリアン」は錦糸町駅から徒歩 5 分ほどの距離にあった。

술집이 여럿 입주해 있는 건물의 5층으로, 낡으 ㄴ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구식이

어썸다。

술집이 여럿 入住해 있는 建物の 5 層으로, 낡은 建物에 엘리베이터도 舊式
이었다。

술집이 여럿 입주해 있는 건물의 5층으로, 낡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구
식이었다。

パブが多数入居している建物の 5 階で、古い建物にエレベーターも昔ながら
だった。

구사나기는 손목시계를 보아썸다。

驅使나기는 손목時計를 보았다。

구사나기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草薙は腕時計を見た。

저녁 7시 전이어썸다。

저녁 7 時 前이었다。

저녁 7시 전이었다。

夕方 7 時前だった。

아직 손님이 많지 않으ㄴ 시각이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을 時刻이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을 시각이다。

まだ客が多くない視点だ。

바쁜 ㄴ 때를 피해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싶어ㄴ다。

바쁜 때를 避해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바쁜 때를 피해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忙しい時を避けてじっくり話を聞きたかった。

하기야 이런 곳에 있는 술집에 손님이 얼마나 오ㄴ까 모르겠다고, 녹이 스 ㄴ 엘리베이터 벽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해ㄴ다。

하기야 이런 곳에 있는 술집에 손님이 얼마나 올까 모르겠다고, 綠이 스 엘리베이터 壁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하기야 이런 곳에 있는 술집에 손님이 얼마나 올까 모르겠다고, 녹이 스 엘리베이터 벽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はやこんなところにあるパブに客がどれくらい来るのか分からないと、錆びたエレベーターの壁を眺めながら彼は考えた。

그러나 ‘마리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아ㄴ다。

그러나 ‘마리안’에 들어서는 瞬間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마리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しかし'マリアン'に入る瞬間、彼はびっくりしてしまった。

스무 개가 넘는 테이블의 3분의 1이 손님으로 차 있어ㄴ다。

스무 個가 넘는 테이블의 3 分の 1이 손님으로 차 있었다.

스무 개가 넘는 테이블의 3분의 1이 손님으로 차 있었다.

20 個を超えるテーブルの 3 分の 1 がゲストとして車であった。

복장으로 보건대 대부분 샐러리맨 같지만 직업을 가늠하기 힘들 사람도 있어
ㄴ다。

服裝으로 보건대 大部分 샐러리맨 같지만 職業을 가늠하기 힘든 사람도 있
었다。

복장으로 보건대 대부분 샐러리맨 같지만 직업을 가늠하기 힘든 사람도
있었다。

服装で保健隊のほとんどサラリーマンみたいだが職業を計りにくい人もい
た。

“예전에 긴자에 있는 클럽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어ㄴ는데요,”

“예전에 긴자에 있는 클럽을 調査하러 肝 的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긴자에 있는 클럽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かつて銀座にあるクラブを調べ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が、」

기시타니가 구사나기의 컷가에 대고 속삭여ㄴ다。

기시他니가 驅使나기의 컷가에 대고 속삭였다。

기시타니가 구사나기의 컷가에 대고 속삭였다。

岸谷が草薙の耳元に向かってささやいた。

“거품 경제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손님들이 다들 어디 가서 마시는지 모르겠다고 마담이 투덜거리던데, 아마 이런 데로 다 흘러드 모양이에요。

“거품 經濟 時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손님들이 다들 어디 가서 마시는지 모르겠다고 마담이 투덜거리던데, 아마 이런 데로 다 흘러든 模樣 이에요。

“거품 경제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던 손님들이 다들 어디 가서 마시는지 모르겠다고 마담이 투덜거리던데, 아마 이런 데로 다 흘러든 모양 이에요。

「バブル經濟時代には一日が遠いと来ていた客がみんなどこに行って飲んでいるのかわからないとマダムがうんざりしていたのに、おそらくこういうところに全部流れたようです。

“그렇지는 않으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야。

「そうではありません。

구사나기는 고개를 저어 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저었다。

草薙は首を振った。

“사치에 맛을 들이 ㄴ 인간은 좀처럼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법이거
든。

“奢侈에 맛을 들인 人間은 좀처럼 生活水準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法이거
든。

“사치에 맛을 들인 인간은 좀처럼 생활수준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법이거
든。

「贅沢に味わった人間はなかなか生活水準を落とすことができない法だか
ら。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 ㄴ 자족과는 다른 인종이 ㄴ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긴自足과는 다른 忍從일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긴자족과는 다른 인종일 거야。

ここにいる人たちは銀族とは違う人種なのだ。

그는 종업원을 불러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 ㄴ 다。

그는 従業員을 불러 責任者を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종업원을 불러 책임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彼は従業員を呼び、責任者に会いたいと言った。

젊은 종업원이 웃음기를 거두며 안으로 사라져 갔다.

젊은 従業員이 웃음氣를 거두며 안으로 사라졌다.

젊은 종업원이 웃음기를 거두며 안으로 사라졌다.

若い従業員が笑いを収めて中に消えた。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나와서 구사나기 일행을 카운터 자리로 안내해 갔다.

暫時 後 다른 従業員이 나와서 驅使나기 一行을 카운터 자리로 案内했다.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나와서 구사나기 일행을 카운터 자리로 안내했다.

しばらくして別の従業員が出て、草薙一行をカウンター席に案内した。

“마시 ㄴ 거 ㄴ 뭐 ㄴ로 드리 ㄴ까요?”

“마실 건 월로 드릴까요?”

“마실 건 월로 드릴까요?”

「飲み物は何で差し上げますか？」

종업원이 물어 갔다.

従業員이 물었다.

종업원이 물었다.

従業員が尋ねた。

“맥주로 하죠.

“麥酒로 하죠。

“맥주로 하죠。

「ビールにしましょう。

구사나기가 대답해^ㄴ다。

驅使나기가 對答했다。

구사나기가 대답했다。

草薙が答えた。

“근무 중이^ㄴ데 괜찮아요?”

“勤務 中인데 괜찮아요?”

“근무 중인데 괜찮아요?”

「働いているのに大丈夫ですか？」

종업원이 사라지자 기시타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ㄴ다。

従業員이 사라지자 기시他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종업원이 사라지자 기시타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従業員が消えると岸谷が目を丸くして尋ねた。

“아무것도 안 마시면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마시면 다른 손님들이 異常하게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마시면 다른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何も飲まないと、他のお客さんが変に思うじゃないか。

“우롱차 같은 거 ㄴ 마셔도 되잖아요.

“우롱차 같은 걸 마셔도 되잖아요.

“우롱차 같은 걸 마셔도 되잖아요.

「ウーロン茶のようなものを飲んで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

“우롱차를 마시러 다 크 ㄴ 남자 둘이 이런 데를 오나?”

“우롱차를 마시러 다 큰 男子 둘이 이런 데를 오나?”

“우롱차를 마시러 다 큰 남자 둘이 이런 데를 오나?”

「ウーロン茶を飲みにみんな大男二人がこんなところに来るの？」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은회색 투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에 올리 ㄴ 머리를 한 마흔 살 정도의 여자가 나타나 ㄴ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은灰色 투피스를 입고 짙은 化粧에 올림머리를 한 마흔 살 程度の 女子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은회색 투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에 올림머리를 한 마흔 살 정도의 여자가 나타났다.

そんな話をやりとりしているのに、銀灰色のツーピースを着て濃い化粧に上げ頭をした四十歳くらいの女性が現れた。

마른 몸매지만 상당하ㄴ 미인이다.

마른 몸매지만 相當한 美人이다.

마른 몸매지만 상당한 미인이다.

乾いた体つきだがかなりの美人だ。

“안녕하세요.

“安寧하세요.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저한테 불일이 있으시다고요?”

저한테 불일이 있으시다고요?”

저한테 불일이 있으시다고요?”

私に会うことがありますか？」

그녀가 차분하ㄴ 음성으로 물어ㄴ다.

그女가 차분한 音聲으로 물었다.

그녀가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彼女は落ち着いた声で尋ねた。

입술에는 미소가 배어 있어ㄴ다.

입술에는 微笑가 배어 있었다.

입술에는 미소가 배어 있었다.

唇には笑顔が染まっていた。

“경시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景視聽에서 나왔습니다.

“경시청에서 나왔습니다.

「警視庁から出ました。

구사나기가 나지막하 ㄴ 소리로 대답해 ㄴ다.

驅使나기가 나지막한 소리로 對答했다.

구사나기가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草薙が荒々しい声で答えた。

옆에서 기시타니가 웃웃 안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모습이 보여 ㄴ다.

옆에서 기시他니가 웃웃 안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모습이 보였다.

옆에서 기시타니가 웃웃 안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모습이 보였다.

横から岸谷が笑顔の内ポケットに手を刺して入れる姿が見えた。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의 동작을 제지하며 다시 여자를 바라보아 ㄴ다.

驅使나기는 기시他니의 動作을 制止하며 다시 女子를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의 동작을 제지하며 다시 여자를 바라보았다.

草薙は岸谷の動作を止め、また女を見つめた。

“신분증을 보여 드리는 게 좋을까요?”

“身分證을 보여 드리는 게 좋을까요?”

“신분증을 보여 드리는 게 좋을까요?”

「身分証明書をお見せした方がいいですか？」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いいえ、大丈夫です。

그녀가 구사나기 옆자리에 앉으면서 명함을 내놓아^ㅆ다。

그女가 驅使나기 옆자리에 앉으면서 名銜을 내놓았다。

그녀가 구사나기 옆자리에 앉으면서 명함을 내놓았다。

彼女が駆け出しの隣に座って名刺を出した。

스기무라 소노코, 라고 되어 있어^ㅆ다。

스기무라 소노코, 라고 되어 있었다。

스기무라 소노코, 라고 되어 있었다。

杉村荻子、とされていた。

“이 집 마담이시ㄴ 모양이군요.

“이 집 마담이신 模様이군요.

“이 집 마담이신 모양이군요.

「この家マダムのようにですね.

“그런 셈이쥬.

“그런 셈이쥬.

“그런 셈이쥬.

「そんなわけですね.

스기무라 소노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ㄴ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杉村曾子が笑って首をうなずいた.

고용되ㄴ 신분이라는 것을 숨기ㄴ 마음은 없어 보여ㄴ다.

雇用된 身分이라는 것을 숨길 마음은 없어 보였다.

고용된 신분이라는 것을 숨길 마음은 없어 보였다.

雇用された身分であることを隠す心はないようだった.

“장사가 꽤 잘되나 보ㅆ니다.

“장사가 꽤 잘되나 봅니다。

“장사가 꽤 잘되나 봅니다。

「商売がかなりうまくいくようです。

구사나기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해ㄸ다。

驅使나기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구사나기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草薙が店の中を見回しながら話した。

“겉보기에만 그래요。

“겉보기에만 그래요。

“겉보기에만 그래요。

「一見だけです。

이 가게는 사장님이 세금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가게는 社長님이 税金에 對한 對策으로 運營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가게는 사장님이 세금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この店は社長が税金に対する対策として運営しているかのようです。

손님들도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손님들도 社長님과 親분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손님들도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お客さんも社長と親しみがある人ばかりです。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そうですか？」

“네。

“네。

“네。

「はい。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_ㄴ지 아_ㄴ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だからいつどうなるかわかりません。

도시락 가게를 차리_ㄴ 사요코 씨가 길을 잘 선택하_ㄴ 거_ㄴ지도 몰라요。

도시락 가게를 차린 史요코 氏が 길을 잘 選擇한 건지도 몰라요.

도시락 가게를 차린 사요코 씨가 길을 잘 선택한 건지도 몰라요.

お弁当屋を構えたさよこさんが道をよく選んだのかもしれない。

죽는소리를 하면서도 전임자의 이름을 선뜻 꺼내는 데서 그녀 나름의 프라이드가 배어 있다는 것을 구사나기는 느껴^ㅅ다.

죽는소리를 하면서도 前任者の 이름을 선뜻 꺼내는 데서 그女 나름의 프라이드가 배어 있다는 것을 驅使나기는 느꼈다.

죽는소리를 하면서도 전임자의 이름을 선뜻 꺼내는 데서 그녀 나름의 프라이드가 배어 있다는 것을 구사나기는 느꼈다.

死の声をしながらも前任者の名前をすっきり取り出すことで、彼女なりのプライ드가染まっていることを駆け抜けるという感じだった。

“지나 ㄴ 며칠 동안 우리 형사들이 폐를 좀 끼치 ㄴ 모양이던데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刑事들이 肺를 좀 끼친 模様が던데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형사들이 폐를 좀 끼친 모양이던데요.

「過去数日間、私たちの刑事たちは迷惑をかけたようです。

그의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ㅅ다.

그의 말에 그女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彼の言葉で彼女は頭をうなずいた。

“도가시 씨 일로 몇 번 찾아오셔 ㅅ지요.

“도가시 氏 일로 몇 番 찾아오셨지요.

“도가시 씨 일로 몇 번 찾아오셨지요.

「東柏さんの仕事で何度も訪れてきましたね.

대부분 제가 상대해 드려 ㅅ는데, 오늘도 그 일이 ㄴ가요?”

大部分 制가 相對해 드렸는데, 오늘도 그 일인가요?”

대부분 제가 상대해 드렸는데, 오늘도 그 일인가요?”

ほとんど私が相手にしましたが、今日もそのことですか？」

“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하 ㅅ니다.

“네, 귀찮게 해 드려서 罪悚합니다.

“네,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はい、迷惑をかけて申し訳ありません.

“이전에 오 ㄴ 형사 분들께도 말씀드려 ㅅ지만, 야스코를 의심하시 ㄴ다면 잘못
짚으시 ㄴ 거라고 생각해요.

“以前에 온 刑事 分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야스코를 疑心하신다면 잘못 짚
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온 형사 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야스코를 의심하신다면 잘못 짚
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以前に来た刑事の方々にも申し上げましたが、ヤスコを疑っていたら間違
ってわかったと思います。

그녀에게는 동기가 없잖아요。

그女에게는 動機가 없잖아요。

그녀에게는 동기가 없잖아요。

彼女にはやる気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

“아니, 의심하는 정도는 아니 **ㅂ**니다。

“아니, 疑心하는 程度는 아닙니다。

“아니, 의심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いや、疑うほどではありません。

구사나기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사래를 쳐 **ㅅ**다。

驅使나기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다。

구사나기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다。

草薙が笑いを披露し、手を消した。

“수사에 별로 진척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 **ㅅ**습니다。

“搜查에 別로 進陟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별로 진척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捜査にあまり進捗がないので、最初から考え直すことにしました。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 ㄴ 거 ㅂ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それでこうやって来たのです。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最初から？」

스기무라 소노코가 살짝 한숨을 내쉬어 ㅅ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杉村曾子がちょっとため息をついた。

“도가시 신지 씨가 3월 5일에 와 ㅅ었다고 하던데요。

“道が習 신지 氏が 3 月 5 日に 왔었다고 하던데요。

“도가시 신지 씨가 3월 5일에 왔었다고 하던데요。

「戸柏シンジさんが 3 月 5 日に来たと言いました。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そうです。

오랜만이기도 해 ㄴ ㄴ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ㄴ 그 사람이 여기 오 ㄴ 이유가 없어 ㄴ 기
때문에 깜짝 놀라 ㄴ 죠.

오랜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젠 그 사람이 여기 올 理由가 없었기 때
문에 깜짝 놀랐죠.

오랜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젠 그 사람이 여기 올 이유가 없었기 때
문에 깜짝 놀랐죠.

久しぶりでもありましたが何よりもうその人がここに来る理由がなかったの
でびっくりしました。

“마담께서는 전에도 그 사람을 보 ㄴ 적이 있습니까?”

“마담께서는 前에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담께서는 전에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マダムは前にもその人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네, 두 번 정도요.

“네, 두 番 程度요.

“네, 두 번 정도요.

「はい、二度ほど。

예전에 아카사카에 있는 가게에서 야스코와 같이 일하 ㄴ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카사카에 있는 가게에서 야스코와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카사카에 있는 가게에서 야스코와 같이 일한 적이 있거든요.

かつて赤坂にあるお店で、ヤスコのように働いたことがあります。

그때 봐 ㅅ어요.

그때 봤어요.

그때 봤어요.

その時見ました。

당시에는 그분도 형편이 좋아서 당당하 ㄴ 모습이어 ㅅ는데……。

當時에는 그분도 形便이 좋아서 堂堂한 모습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분도 형편이 좋아서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當時は彼も都合が良くて堂々とした姿だったのに…。 …。

오랜만에 만나 ㄴ 도가시에게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보 ㄹ 수 없어 ㅅ다는 뜻이 ㄴ
듯해 ㅅ다。

오랜만에 만난 都家時에게서는 그런 面貌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인 듯했

다。

오랜만에 만난 도가시에게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인 듯했다。

久しぶりに出会った東鹿市からはそんな面貌を探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意味のようだった。

“도가시 신지 씨가 하나오카 씨의 거처를 물어…다면서요?”

“道家習 신지 氏が 하나오카 氏の 居處를 물었다면서요?”

“도가시 신지 씨가 하나오카 씨의 거처를 물었다면서요?”

「とがしシンジさんが花岡さんの居所を聞いたと思いますか？」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해…어요。”

“關係를 回復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關係を回復したいかより考えました。

그렇지만 가르쳐 주지는 않아…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시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시다。

でも教えてくれませんでした。

야스코가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으니깐요。

야스코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야스코가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ヤスコがその人のために苦勞をたくさんした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ましたから。

그래ㄴ더니 다른 종업원들에게 묻고 다니더군요。

그랬더니 다른 従業員들에게 묻고 다니더군요。

그랬더니 다른 종업원들에게 묻고 다니더군요。

そうしたら他の従業員に聞いて通ったんですね。

저는 지금 있는 종업원들 중에는 야스코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으ㄴ 거라 여기고 방심해ㄴ는데 그중에 사요코 씨의 도시락 가게에 가 보ㄴ 사람이 있어ㄴ나 봐요。

저는 只今 있는 従業員들 中에는 야스코에 對해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여기고 放心했는데 그中에 史요코 氏の 도시락 가게에 가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저는 지금 있는 종업원들 중에는 야스코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여기고 방심했는데 그중에 사요코 씨의 도시락 가게에 가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私は今いる従業員の中には、ヤスコについて知る人がいないと思って氣をつけていましたが、その中に佐代子さんのお弁当屋に行った人がいました。

그 사람이 야스코가 거기서 일한다는 사실을 도가시 씨에게 말해줬다더군요。

그 사람李 야스코가 거기서 일한다는 事實을 도가시 氏에게 말했다더군요。

그 사람이 야스코가 거기서 일한다는 사실을 도가시 씨에게 말했다더군요。

その人が、ヤスコがそこで働くという事実を東柏さんに言ったんですね。

“그래줬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そうでしたね。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여준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が頭をうなずいた。

인맥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행방을 완전히 감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人脈에 依支해 살아가는 사람이 行方을 完全に 감추기란 不可能에 가깝다。

인맥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행방을 완전히 감추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人脈に頼って生きていく人が行方を完全に隠すことは不可能に近い。

“구도 구니아키라는 사람은 여기 자주 오 ㄴ니까?”

“構圖 區니아키라는 사람은 여기 자주 옵니까?”

“구도 구니아키라는 사람은 여기 자주 옵니까?”

「構図グニアキという人はここでよく来ますか？」

그가 질문을 바꾸어 ㄴ다。

그가 質問을 바꾸었다。

그가 질문을 바꾸었다。

彼は質問を変えた。

“구도 씨요? 인쇄소 하시는 분 말씀이 ㄴ가요?”

“構圖 氏요? 印刷所 하시는 분 말씀인가요?”

“구도 씨요? 인쇄소 하시는 분 말씀인가요?”

「構図さん？印刷所の方のことですか？」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そうです。

“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はい、よく来てください。

아, 하지만 최근에는 별로 안 오시 ㄴ 것 같으 ㄴ 데요。

아, 하지만 最近에는 別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아, 하지만 최근에는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요。

あ、でも最近はあまり来ないようですが。

스기무라 소노코는 고개를 갸웃해 ㄴ 다。

스기무라 소노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스기무라 소노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杉村荻子は首をかしげた。

“그런데 구도 씨는 왜요?”

“그런데 構圖 氏は 왜요?”

“그런데 구도 씨는 왜요?”

「でも構図さんはなんですか？」

“하나오카 야스코 씨가 호스티스이던 시절에 그녀의 단골이어 ㄴ다고 해서요.

“하나오카 야스코 氏が 호스티스이던 時節에 彼女の 단골이었다고 해서
요.

“하나오카 야스코 씨가 호스티스이던 시절에 그녀의 단골이었다고 해서
요.

「花岡康子さんがホスティスだった頃に彼女の定番だったそうです。

스기무라 소노코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ㄴ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杉村曽子が笑いながら頭をうなずいた。

“그래 ㄴ죠.

“그랬죠.

“그랬죠.

「そうでした。

그분에게 귀여우 ㄴ을 많이 받아 ㄴ어요.

그분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彼に可愛さをたくさん受けました。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여ㄴ나요?”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나요?”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나요?”

「二人が付き合う仲でした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흠, 하며 잠시 생각하는 듯해ㄴ다。

驅使나기의 물음에 그女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흠, 하며 暫時 생각하는 듯했다。

구사나기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흠, 하며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草薙の問いに彼女は頭をそっと下げてうーん、としばらく考えるようだった。

“그렇지 않으ㄴ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ㄴ지만 저는 그거ㄴ 아니어ㄴ으ㄴ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 疑心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

요。

「そうではないかと疑う人もいましたが、私はそれ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そうですか？」

“네。

“네。

“네。

「はい。

야스코가 아카사카에 있던 시절에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까웠으ㄴ데,
마침 그때 야스코가 도가시 씨의 일로 고민이 많아ㄴ고, 구도 씨도 그거ㄴ 알아
차리ㄴ 것 같아ㄴ어요。

야스코가 아카사카에 있던 時節에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까웠을 텐데, 마
침 그때 야스코가 도가시 氏의 일로 苦悶이 많았고, 構圖 氏도 그걸 알아
차린 것 같았어요。

야스코가 아카사카에 있던 시절에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까웠을 텐데,

마침 그때 야스코가 도가시 씨의 일로 고민이 많았고, 구도 씨도 그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靖子が赤坂にいた頃に二人の間が一番近かったはずなのに、やっと当時靖子が戸垣さんの仕事で悩みが多く、構図さんもそれに気づいたようでした。

그래서 그때부터 구도 씨가 야스코의 의논 상대처럼 되어 버린 거지 남녀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도 氏が 야스코의 議論 相對처럼 되어 버린 거지 男女 關係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도 씨가 야스코의 의논 상대처럼 되어 버린 거지 남녀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そこでその時から構図さんが安子の相談相手の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男女関係まで持っていなかったようです。

“그렇지만 하나오카 씨가 이혼했으니깐 그때부터는 사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오카 氏が 離婚했으니깐 그때부터는 사귀는 것도 可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오카 씨가 이혼했으니깐 그때부터는 사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でも花岡さんが離婚したからその時から付き合いす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그러나 스기무라 소노코는 고개를 저어^ㄴ다。

그러나 스기무라 소노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스기무라 소노코는 고개를 저었다。

しかし杉村曾子は首を振った。

“구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構圖 氏は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構図さんはそんな方ではありません。

야스코가 남편과 잘 사^ㄴ 수 있도록 여러모로 조언을 해 주고는 그녀가 이혼해
ㄴ다니까 대뜸 사귀자고 하^ㄴ다면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어^ㄴ던 것처럼 여겨지
지 않겠어요? 그러니 야스코가 이혼하^ㄴ 후에도 좋으^ㄴ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
하려고 해^ㄴ으^ㄴ 거예요。

야스코가 男便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모로 助言을 해 주고는 그女가 離婚
했다니까 대뜸 사귀자고 한다면 애初부터 그게 目的이었던 것처럼 여겨지
지 않겠어요? 그러니 야스코가 離婚한 後에도 좋은 親舊처럼 關係를 維持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야스코가 남편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모로 조언을 해 주고는 그녀가 이
혼했다니까 대뜸 사귀자고 한다면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겨
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야스코가 이혼한 후에도 좋은 친구처럼 관계를 유

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ヤスコが夫とよく暮らせるようにいろいろと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ては彼女が離婚したから大事にしようとしたらそもそもそれが目的だったようには思えませんか？だから、ヤスコが離婚した後も良い友達のように関係を維持しようとしたのでしょう。

게다가 구도 씨에게도 부인이 있잖아요。

게다가 構圖 氏에게도 夫人이 있잖아요。

게다가 구도 씨에게도 부인이 있잖아요。

しかも構図さんにも奥さんがいるじゃないですか。

스기무라 소노코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ㄴ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해ㄴ다。

스기무라 소노코는 그의 아내가 世上을 떠났다는 事實을 모르는 듯했다。

스기무라 소노코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杉村祐乃子は彼の妻が世を去ったという事実を知らないようだった。

굳이 알려 주ㄴ 필요가 없다 싶어 구사나기는 말하지 않기로 해ㄴ다。

굳이 알려 줄 必要가 없다 싶어 驅使나기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굳이 알려 줄 필요가 없다 싶어 구사나기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あえて教えてくれる必要がないと思って、草薙は言わないことにした。

아마도 그녀의 말이 맞으ㄴ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생각해ㄴ다。

아마도 그女の 말이 맞을 것이라고 驅使나기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녀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おそらく彼女の言葉が正しいと言われると思った。

남녀 관계에 관하ㄴ 한 호스티스들의 직감은 형사의 감각을 훌쩍 뛰어넘는다。

男女 關係에 關한 한 호스티스들의 直感은 刑事의 感覺을 훌쩍 뛰어넘는
다。

남녀 관계에 관한 한 호스티스들의 직감은 형사의 감각을 훌쩍 뛰어넘는
다。

男女關係に関する限り、ホスティスたちの直感は刑事の感覚を飛び越える。

구도는 역시 결백하다고 구사나기는 확신해ㄴ다。

構圖는 亦是 潔白하다고 驅使나기는 確信했다。

구도는 역시 결백하다고 구사나기는 확신했다。

構図はやはり無実だと言われるのは確信した。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다음 段階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それなら次の段階に進むのが正しい。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스기무라 소노코에게 보여 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寫眞 한 張을 꺼내 스기무라 소노코에게 보여 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스기무라 소노코에게 보여 주었다.

彼はポケットから一枚の写真を取り出し、杉村荻子に見せた。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男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この男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그것은 이시가미 데쓰야의 사진이었었다.

그것은 이時加味 데쓰야의 寫眞이었다.

그것은 이시가미 데쓰야의 사진이었다.

石上哲也の写真でした。

그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시타니가 숨어서 찍은 것이다.

그가 學校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시他니가 숨어서 찍은 것이다.

그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시타니가 숨어서 찍은 것이다.

彼が学校から出てくる姿を岸谷が隠して撮ったのだ。

비스듬하 方向에서 찍히 사진의 당사자는 자신이 찍히 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시선을 어디나 곳으로 향하고 있어...

비스듬한 方向에서 찍힌 寫眞의 當事者は 自身이 찍힌다는 事實을 전혀 모르는 듯 視線을 어딘가 먼 곳으로 向하고 있었다.

비스듬한 方向에서 찍힌 사진의 당사자는 자신이 찍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시선을 어딘가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斜めの方向から撮られた写真の当事者は、自分が撮るという事実を全く知らないように、視線をどこか遠くに向けていた。

스기무라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스기무라는 모르겠다는 表情을 지었다.

스기무라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杉村は知らないという表情をした。

“누군데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이?”

「誰か、この人は？」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군요.

「知らないですね。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はい、わかりません。

적어도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은 아니에요。

少なくとも当店にお越しのお客様ではありません。

“이시가미라는 사람이 ㅂ니다。

“이시가미라는 사람입니다。

“이시가미라는 사람입니다。

「石神という人です。

“이시가미요?”

“이時加味요?”

“이시가미요?”

「石神ですか？」

“하나오카 씨에게 그런 이름을 들은 적 없습니까?”

“하나오카 氏에게 그런 이름을 들은 적 없습니까?”

“하나오카 씨에게 그런 이름을 들은 적 없습니까?”

「花岡さんにそんな名前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

“죄송하 ㅅ니다。”

“罪悚합니다。”

“죄송합니다。”

「申し訳ありません。

기억에 없어요。

記憶에 없어요。

기억에 없어요。

覚えていません。

“고등학교 교사이 ㅅ니다。”

“高等學校 教師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高校の先生です。

혹시 하나오카 야스코 씨가 그와 관련되 ㅅ 화제를 꺼내 ㅅ 적도 없나요?”

或是 하나오카 야스코 氏가 그와 關聯된 話題를 꺼낸 적도 없나요?”

혹시 하나오카 야스코 씨가 그와 관련된 화제를 꺼낸 적도 없나요?”

もし花岡康子さんがそれに関連した話題を取り出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まあ。

스기무라 소노코는 다시 고개를 갸웃해 ㄴ다。

스기무라 소노코는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스기무라 소노코는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杉村蒼子は再び頭をかき立てた。

“야스코와는 지금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으 ㄴ 적이 없어요。

“야스코와는 只今도 가끔 電話 通話を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야스코와는 지금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ヤスコとは今でもたまに電話をかけていますが、そんな話は聞いたことが

ありません。

“그럼 야스코 씨의 남자관계에 대해서는요? 뭐가 의논을 해 왔든가 또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럼 야스코 氏の 男子關係에 對해서는요? 뭔가 議論을 해 왔든가 또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럼 야스코 씨의 남자관계에 대해서는요? 뭔가 의논을 해 왔든가 또는 얘기를 들은 적 없습니까?”

「じゃあ、ヤスコさんの男関係については？何か話し合ってきたとか話を聞いたことはありませんか？

구사나기의 질문에 스기무라 소노코는 쓴웃음을 지어냈다.

驅使나기의 質問에 스기무라 소노코는 쓴웃음을 지었다.

구사나기의 질문에 스기무라 소노코는 쓴웃음을 지었다.

草薙の質問に杉村荻子は苦笑をした。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전에 다른 형사님께도 말씀드려냈지만, 제가 야스코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일과 關聯해서는 前に 다른 刑事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야스코에게 直接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전에 다른 형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야스코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そのことに関しては前に他の刑事様にも申し上げましたが、私がヤスコに直接聞いた話はありません。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제게 숨기 ㄴ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지는 않으 ㄴ 거라고 생각해요。

或是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제게 숨긴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제게 숨긴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もしかして付き合う人がいるのに私に隠されたのかはわかりませんが、おそらくそうではないと思います。

야스코는 미사토를 키우는 데 정성을 쏟느라 연애에 빠지 ㄴ 거를이 없으 ㄴ 거예요。

야스코는 미사토를 키우는 데 精誠을 쏟느라 戀愛에 빠질 거를이 없을 거예요。

야스코는 미사토를 키우는 데 정성을 쏟느라 연애에 빠질 거를이 없을 거예요。

ヤスコはミサトを育てるのに真心を注いで恋愛に陥るつもりがないでしょう。

전에 사요코 씨도 그런 말을 하 ㄴ 적이 있고요。

前に 史요코 氏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전에 사요코 씨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前に佐代子さんもそんなことを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よ。

구사나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ㄴ다。

驅使나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は言葉なしで首をうなずいた。

이시가미와 야스코의 관계에 대해 이 가게에서 큰 수확을 얻으리라고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아^ㄴ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아^ㄴ다。

이時加味와 야스코의 關係에 對해 이 가게에서 큰 收穫을 얻으리라고는 애當初 期待하지 않았기 때문에 失望도 크지 않았다。

이시가미와 야스코의 관계에 대해 이 가게에서 큰 수확을 얻으리라고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았다。

石神と靖子の關係について、このお店で大きな収穫を得るとは当初期待していなかったので失望も大きくなかった。

그러나 야스코에게 남자가 없으^ㄴ 거라고 단언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시가미가 야스코의 공범이 아니^ㄴ까 하는 추리에 자신이 없어져^ㄴ다。

그러나 야스코에게 男子가 없을 거라고 斷言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時加味

가 야스코의 共犯이 아닐까 하는 推理에 自身이 없어졌다.

그러나 야스코에게 남자가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시가미가 야스코의 공범이 아닐까 하는 추리에 자신이 없어졌다.

しかし、靖子に男がいないと断言する言葉を聞くと、石神が靖子の共犯ではないかという推理に自信がなくなった。

그때 손님 하나가 새로 들어와ㄴ다.

그때 손님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

그때 손님 하나가 새로 들어왔다.

その時客一人が新たに入ってきた。

스기무라 소노코가 그 손님에게 신경을 쓰는 듯해ㄴ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그 손님에게 神經을 쓰는 듯했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그 손님에게 신경을 쓰는 듯했다.

杉村曾子がその客に氣を使うようだった。

“하나오카 씨와 가끔 통화하ㄴ다고 하셔ㄴ는데, 가장 최근에 통화하시ㄴ 게 언제이ㄴ니까?”

“하나오카 氏와 가끔 通話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最近에 通話하신 게 언제입니까?”

“하나오카 씨와 가끔 통화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통화하신 게 언제입니까?”

「花岡さんと時々通話すると言われてましたが、一番最近通話されたのはいつ
ですか？」

“도가시 씨의 일이 뉴스에 나오ㄴ 날이 ㄴ 거예요。

“도가시 氏の 일이 뉴스에 나온 날일 거예요。

“도가시 씨의 일이 뉴스에 나온 날일 거예요。

「東柏さんのことがニュースに出た日でしょう。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ㅁ쥌。

깜짝 놀라서 電話를 걸었쥌。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쥌。

びっくりして電話をかけました。

지난번에 오셔ㅁ던 형사님께도 말씀드려ㅁ는데요。

지난番에 오셨던 刑事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오셨던 형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前回来た刑事様にも申し上げました。

“그때 하나오카 씨는 어때ㅁ나요?”

“그때 하나오카 氏は 어땠나요?”

“그때 하나오카 씨는 어땠나요?”

「その時花岡さんはどうでしたか？」

“특별히 이상하ㄴ 구석은 없어요.”

“特別히 異常한 구석은 없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구석은 없었어요.”

「特に奇妙な隅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미 경찰에서 다녀가ㄴ다고 하더군요.

이미 警察에서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이미 경찰에서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もう警察で行ってたって言いましたね。

그 경찰이 바로 자신들이어ㄴ다는 얘기를 구사나기는 하지 않아ㄴ다.

그 警察이 바로 自身들이었다는 얘기를 驅使나기는 하지 않았다.

그 경찰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얘기를 구사나기는 하지 않았다.

その警察がまさに自分たちだったという話を駆けつげなかった。

“도가시 씨가 하나오카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러 이 가게에 들러ㄴ다는 사실은

하나오카 씨에게 말하지 않아ㄴ습니까?”

“도가시 氏が 하나오카 氏の 行方を 捜所聞하러 이 가게에 들렀다는 事實

은 하나오카 氏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가시 씨가 하나오카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러 이 가게에 들렀다는 사실은 하나오카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とがしさんが花岡さんの行方を噂にこの店に立ち寄ったという事実は花岡さんに言わなかったんですか？」

“네, 안 해 ㅅ어요.

“네,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はい、しませんでした。

아니, 안 해 ㅅ다기보다는 하 ㄴ 수가 없어 ㅅ어요.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었어요.

いや、しなかったというよりはできませんでした。

야스코가 불안해하 ㄴ 것 같아서요.

야스코가 不安해할 것 같아서요.

야스코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요.

ヤスコが不安になりそうです。

그렇다면 하나오카 야스코는 도가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ㅅ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하나오카 야스코는 도가시가 自身을 찾고 있다는 事實을 몰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하나오카 야스코는 도가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다。

ならば花岡康子は、道鹿市が自分を探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いう話だ。

즉, 그가 찾아오 ㄴ 것을 예상하지 못해 ㄴ으므로 당연히 살해 계획을 세우 ㄴ 수도 없어 ㄴ으 ㄴ 것이다。

郎, 그가 찾아올 것을 豫想하지 못했으므로 當然히 殺害 計劃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즉, 그가 찾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살해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다。

つまり、彼が訪れることを予想していなかったので、当然殺害計画を立てることもできなかつただろう。

“말해 주 ㄴ까도 생각해 ㄴ지만, 그날은 그녀가 이 얘기 저 얘기 즐겁게 늘어놓는 바람에 말하 ㄴ 기회를 놓치 ㄴ 것도 있어요。

“말해 줄까도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녀가 이 얘기 低 얘기 즐겁게 늘어놓는 바람에 말할 機會를 놓친 것도 있어요。

“말해 줄까도 생각했지만, 그날은 그녀가 이 얘기 저 얘기 즐겁게 늘어놓

는 바람에 말할 기회를 놓친 것도 있어요.

「言ってあげるかと思いましたが、その日は彼女がこの話あの話を楽しく並べる風に話す機会を逃したこともあります。

“그날이라니……,”

“그날이라니……,”

“그날이라니……,”

「その日とは… …」

스기무라 소노코의 말 중에서 뭐가 구사나기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다。

스기무라 소노코의 말 중에서 뭔가 驅使나기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
다。

스기무라 소노코의 말 중에서 뭔가 구사나기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
다。

杉村荻子の言葉の中で何か草薙の気になることがあった。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가장 최근에 통화해 ㄴ다는 그날은 아니 ㄴ 것 같으 ㄴ
데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가장 最近에 通話했다는 그날은 아닌 것 같은데
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가장 최근에 통화했다는 그날은 아닌 것 같은데
요。

「いつ言うの? 一番最近通話したというその日ではないようですが。

“아아, 죄송해요。

“아아, 罪愼해요。

“아아, 죄송해요。

「ああ、すみません。

그거 ㄴ 그 전이에요。

그건 그 前이에요。

그건 그 전이에요。

それはその転移です。

아마 도가시 씨가 우리 가게에 나타나고 나서 사흘이 ㄴ가 나흘 후이 ㄴ 거예
요。

亞麻 도가시 氏が 우리 가게에 나타나고 나서 사흘인가 나흘 後일 거예
요。

아마 도가시 씨가 우리 가게에 나타나고 나서 사흘인가 나흘 후일 거예
요。

おそらく東柏さんが私たちの店に現れてから三日か四日後のことでしょう。

야스코가 제 휴대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 놔^ㅅ기에 제가 전화를 걸어^ㅅ어
요。

야스코가 제 携帶 電話에 音聲 메시지를 남겨 놔^ㅅ기에 제가 電話를 걸었어
요。

야스코가 제 휴대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 놔^ㅅ기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
요。

ヤスコが私の携帯電話にボイスメッセージを残したので、私は電話をかけま
した。

“그게 며칠이 ^ㅅ니까?”

“그게 며칠입니까?”

“그게 며칠입니까?”

「それは何日ですか？」

“며칠이어^ㅅ더라……。

“며칠이었더라……。

“며칠이었더라……。

「数日だった… … 。

스기무라 소노코가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 전화를 꺼내^ㅅ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재킷 주머니에서 携帶 電話를 꺼냈다。

스기무라 소노코가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 전화를 꺼냈다.

杉村曾子がジャケットのポケットから携帯電話を取り出した。

착신 기록이나 발신 기록을 열어 보는 줄 알아ㄴ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달력
이어ㄴ다。

着信 記録이나 發信 記録을 열어 보는 줄 알았는데 畫面에 보이는 것은 달
曆이었다。

착신 기록이나 발신 기록을 열어 보는 줄 알았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달력이었다。

着信記録や発信記録を開いてみると思ったが、画面に見えるのはカレンダー
だった。

그녀는 잠시 달력을 들여다보고 나서 얼굴을 들어ㄴ다。

그女는 暫時 달曆을 들여다보고 나서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잠시 달력을 들여다보고 나서 얼굴을 들었다。

彼女はしばらくカレンダーを覗いてから顔を聞いた。

“3월 10일이네요。

“3 月 10 日이네요。

“3월 10일이네요。

「3 月 10 日ですね。

“네, 10일이라고요?”

“네, 10 일이라고요?”

“네, 10일이라고요?”

「はい、10 日ですか？」

구사나기가 소리를 높이며 기시타니와 얼굴을 마주 보아^ㄴ다。

驅使나기가 소리를 높이며 기시^他니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구사나기가 소리를 높이며 기시타니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草薙が音を高め、岸谷と顔に面した。

“확실하^ㄴ니까?”

“確實합니까?”

“확실합니까?”

「確かですか？」

“네, 틀림없으^ㄴ 거예요。

“네, 틀림없을 거예요。

“네, 틀림없을 거예요。

「はい、間違いないでしょう。

10일이라면 도가시 신지가 살해당하^ㄴ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날이다。

10 日이라면 도가시 臣智가 殺害當한 것으로 推定되는 바로 그날이다。

10 日이라면 도가시 신지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날이다。

10 日なら、道賀市シンジが殺されたと推定されるまさにその日だ。

“몇 시쯤이어 ㄴ쵸?”

“몇 時쯤이었쵸?”

“몇 시쯤이었쵸?”

「何時頃でしたね？」

“글쎄요, 제가 집에 들어가 ㄴ 다음이니까 아마 새벽 하 ㄴ 시 전후여 ㄴ으 ㄴ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집에 들어간 다음이니까 아마 새벽 한 時 前後였을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집에 들어간 다음이니까 아마 새벽 한 시 전후였을 거예요。

「まあ、私が家に入った後だから、おそらく夜明けした時の前後だったのでしょう。

야스코가 전화하 ㄴ 때는 자정 전이어 ㄴ지만 그때는 가게가 끝나기 전이라 받으 ㄴ 수 없어 ㄴ어요。

야스코가 電話한 때는 子正 前이었지만 그때는 가게가 끝나기 前이라 받을

수 없었어요.

야스코가 전화한 때는 자정 전이었지만 그때는 가게가 끝나기 전이라 받을 수 없었어요.

ヤスコが電話した時は深夜前でしたが、その時はお店が終わる前だともうえませんでした。

“얼마나 이야기를 나눠ㅏ습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どのくらい話を交わしましたか？」

“삼십 분 정도 아니어ㅏ나 싶어요.

“三十 分 程度 아니었나 싶어요.

“삼십 분 정도 아니었나 싶어요.

「三十分ほどではなかったかと思います。

보통 그 정도 통화를 하니까요.

普通 그 程度 通話を 하니까요.

보통 그 정도 통화를 하니까요.

普通そのくらい通話をしますから。

“마담께서 머ㄴ서 전화를 거셔ㅏ단 말이죠, 야스코 씨의 휴대 전화로요?”

“마담께서 먼西 電話를 거셨단 말이죠, 야스코 氏의 携帶 電話로요?”

“마담께서 먼서 電話를 거셨단 말이죠, 야스코 씨의 휴대 電話로요?”

「マダムが遠く電話をかけられたんですよ、安子さんの携帯電話ですか？」

“아뇨, 휴대 電話가 아니라 집 電話였어요.”

“아뇨, 携帶 電話가 아니라 집 電話였어요.”

“아뇨, 휴대 電話가 아니라 집 電話였어요.”

「いいえ、携帯電話ではなく家の電話でした。」

“저, 이거 ㄴ 사소하 ㄴ 거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10일이 아니라 11일 새벽 하 ㄴ
시경이겠군요.”

“저, 이거 些少한 거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10일이 아니라 11일 새벽 한
市警이겠군요.”

“저, 이거 사소한 거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10일이 아니라 11일 새벽 한
시경이겠군요.”

「私、これは些細なことです、それならその時は 10 日ではなく 11 日明け
方の時頃でしょうね。」

“아, 그러네요, 정확히 말하면.”

“아, 그러네요, 正確히 말하면.”

“아, 그러네요, 정확히 말하면.”

「あ、そうですね、正確に言えば。

“하나오카 씨가 음성 메시지를 남겨ㄴ다고 하셔ㄴ는데, 어떤 내용이었ㄴ습니
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알려 주셔ㄴ으면 하 ㅅ니다。

“하나오카 氏が 音聲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内容이었습니까?
失禮가 되지 않는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오카 씨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花岡さんがボイスメッセージを残したと言われましたが、どんな内容でし
たか? 失礼にならない場合は教えてください。

“그게…… 하 ㅅ 말이 있으니 일이 끝나는 대로 전화해 달라는 거여ㄴ어요。

“그게…… 할 말이 있으니 일이 끝나는 대로 電話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할 말이 있으니 일이 끝나는 대로 전화해 달라는 거였어요。

「それが… …言うことがあるので、仕事が終わるとすぐに電話してほしいと
いうことでした。

“그래서, 그 하 ㅅ 말이라는 게 뭐여ㄴ죠?”

“그래서, 그 할 말이라는 게 뭐였죠?”

“그래서, 그 할 말이라는 게 뭐였죠?”

「それで、その言葉は何でしたか？」

“대단하ㄴ 거ㄴ 아니예요.

“대단한 건 아니예요.

“대단한 건 아니예요.

「すご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전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다니던 지압원을 알려 달라고요.

前に 제가 허리가 아파서 다니던 指壓원을 알려 달라고요.

전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다니던 지압원을 알려 달라고요.

前に私が腰が痛くて通っていた指圧院を知らせてもらいます。

“지압원어요? 그만하ㄴ 용건으로 전화하ㄴ 적이 과거에도 있어ㄴ습니까?”

“指壓원어요? 그만한 用件으로 電話한 적이 過去에도 있었습니까?”

“지압원어요? 그만한 용건으로 전화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指圧源ですか？それだけの用件で電話したことが過去にもありましたか？」

“용건이라는 게 늘 사소하ㄴ 거여ㄴ어요.

“用件이라는 게 늘 些少한 거였어요.

“용건이라는 게 늘 사소한 거였어요.

「ヨンゴンというのがいつも些細なことでした。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저 對話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ただ会話を交わしたいのです。

저도 그렇고 야스코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야스코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야스코도 그렇고요。

私もそうで、ヤスコもそうです。

“그렇게 밤늦게 통화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 _가요?”

“그렇게 밤늦게 通話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인가요?”

“그렇게 밤늦게 통화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인가요?”

「そんな夜遅く通話するのもよくあることですか？」

“드무 _ 일은 아니에요。

“드문 일은 아니에요。

“드문 일은 아니에요。

「珍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제 일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늦어지기 십상이죠。

제 일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늦어지기 十常이죠。

제 일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늦어지기 십상이죠。

私の仕事がこうだから、どうしても遅くなりがちです。

물론 되도록이면 휴일을 택하지만, 그날은 야스코가 먼저 연락을 해서요。

勿論 되도록이면 休日을 擇하지만, 그날은 야스코가 먼저 連絡을 해서요。

물론 되도록이면 휴일을 택하지만, 그날은 야스코가 먼저 연락을 해서
요。

もちろんなるべく休日を選びますが、その日はヤスコが先に連絡をしています。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여 ㄴ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が頭をうなずいた。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어디 ㄴ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해 ㄴ다。

그러나 한便으로 그는 어딘가 모르게 釋然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

しかし一方で彼はどこか知らない石然じゃないという考えをした。

가게를 나서서 기 ㄴ 시초역으로 향하면서 구사나기는 다시 생각해 보아 ㄴ다。

가게를 나서서 긴市草驛으로 向하면서 驅使나기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가게를 나서서 긴시초역으로 향하면서 구사나기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店を出て錦糸町駅に向かいながら草薰はまた考えてみた。

아무래도 스기무라 소노코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ㄴ다.

아무래도 스기무라 소노코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아무래도 스기무라 소노코의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どうやら杉村園子の最後の話が気になった。

3월 10일 밤에 하나오카 야스코가 전화를 해ㄴ다.

3 月 10 日 밤에 河나오카 야스코가 電話를 했다.

3월 10일 밤에 하나오카 야스코가 전화를 했다.

3 月 10 日の夜に花岡康子が電話をした。

그것도 집 전화로.

그것도 집 電話로.

그것도 집 전화로.

それも家の電話で。

즉 그 시각에 그녀는 집에 있어ㄴ다는 얘기다.

卽 그 時刻에 그女는 집에 있었다는 얘기다.

즉 그 시각에 그녀는 집에 있었다는 얘기다.

つまりその時刻に彼女は家にいたという話だ。

사실 범행 시각이 3월 10일 밤 11시 이후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수사본부 내에 있어^ㄴ다.

事實 犯行 時刻이 3 月 10 日 밤 11 時 以後가 아닐까 하는 意見도 搜查本部 内に 있었다.

사실 범행 시각이 3월 10일 밤 11시 이후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수사본부 내에 있었다.

事實、犯行時刻が 3 月 10 日夜 11 時以降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も捜査本部内にあった。

물론 그것은 하나오카 야스코를 범인이라고 가정해^ㄴ으^ㄴ 때의 일이다.

勿論 그것은 하나오카 야스코를 犯人이라고 假定했을 때의 일이다.

물론 그것은 하나오카 야스코를 범인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もちろんそれは花岡康子を犯人だと仮定した時のことだ。

노래방 알리바이까지 모두 사실이라 해도 그 이후에 범행해^ㄴ으^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어^ㄴ다.

노래房 알리바이까지 모두 事實이라 해도 그 以後에 犯行했을 可能性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노래방 알리바이까지 모두 사실이라 해도 그 이후에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カラオケアリバイまでみんな事実であっても、それ以降に犯行した可能性もないのかということだった。

그러나 그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ㄴ다.

그러나 그 意見을 強力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別로 없었다.

그러나 그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しかしその意見を強力に掲げる人はあまりなかった。

왜냐하면 만일 노래방을 나서서 곧장 달려가^ㄴ다 해도 12시 가까이 되어야 범행 현장에 도착하^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萬一 노래房을 나서서 곧장 달려갔다 해도 12時 가까이 되어야 犯行 現場에 到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노래방을 나서서 곧장 달려갔다 해도 12시 가까이 되어야 범행 현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なぜなら、もしカラオケを出てすぐに走っていても 12時近くにならなければ犯行現場に到着できるからだ。

그러고서 바로 범행을 저질러^ㄴ다 해도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ㄴ 교통수단이 없다.

그러고서 바로 犯行을 저질렀다 해도 이番에는 집으로 돌아올 交通手段이

없다。

그러고서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올 교통수단이 없다。

そしてすぐに犯行を犯したとしても、今回は家に帰る交通手段がない。

그런 종류의 범인은 그런 시각에 흔적이 남으 ㄴ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種類의 犯人은 그런 時刻에 痕跡이 남을 택시를 利用하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범인은 그런 시각에 흔적이 남을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다。

この種の犯人はそのような視点に痕跡が残るタクシーを利用しない。

게다가 현장 인근에는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는다。

게다가 現場 隣近에는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는다。

게다가 현장 인근에는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는다。

しかも現場近くにはタクシーもほとんど通らない。

또한 예의 자전거가 도난당하 ㄴ 시각도 문제다。

또한 例의 自轉車가 盜難當한 時刻도 問題다。

또한 예의 자전거가 도난당한 시각도 문제다。

また、礼儀自転車が盗まれた見方も問題だ。

자전거가 도난당하 ㄴ 시각은 밤 10시 이전이어 ㄴ 다。

自轉車가 盜難當한 時刻은 밤 10時 移轉이었다。

자전거가 도난당한 시각은 밤 10시 이전이었다.

自転車が盗まれた時刻は夜 10 時以前だった。

만일 위장 공작이라면 야스코는 10시 전까지 시노자키역에 가 있어야 한다.

萬一 偽裝 工作이라면 야스코는 10 時 前까지 市老子キ驛에 가 있었어야 한다.

만일 위장 공작이라면 야스코는 10시 전까지 시노자키역에 가 있었어야 한다.

もし迷彩工作なら、ヤスコは 10 時前まで篠崎駅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위장 공작이 아니고 실제로 도가시가 훔쳐 다면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야스코를 만나 12시 가까이까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해 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偽裝 工作이 아니고 實際로 도가시가 훔쳤다면 自転車を 훔치고 나서 야스코를 만난 12 時 가까이까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疑問이 남는다.

위장 공작이 아니고 실제로 도가시가 훔쳤다면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야스코를 만난 12시 가까이까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迷彩工作ではなく、実際に道家市が盗んだら自転車を盗んだ後、ヤスコに会った 12 時近くまで彼がどこで何をしたのかという疑問が残る。

이와 같은 이유로 구사나기와 동료들은 지금까지 심야의 알리바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驅使나기와 同僚들은 只今까지 深夜의 알리바이에 關係 積極적으로 調査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사나기와 동료들은 지금까지 심야의 알리바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このような理由で草薙と仲間たちはこれまで深夜のアリバイについて積極的に調査していない。

그런데 만일 조사하더라도 하나오카 야스코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어서는 얘기가.

그런데 萬一 調査한다 해도 하나오카 야스코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만일 조사한다 해도 하나오카 야스코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ところが、もし調べるとしても花岡康子にはアリバイがあったという話だ。

그게 마음에 걸리 는 것이다.

그게 마음에 걸린 것이다.

그게 마음에 걸린 것이다.

それが気になったのだ。

“있잖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_ㄴ으_ㄴ 때를 기억해?”

“있잖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있잖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あるじゃない、私たちが初めて花岡康子に会った時を覚えてる？」

걸으면서 구사나기가 기시타니에게 물어_ㄴ다。

걸으면서 驅使나기가 기시타니에게 물었다。

걸으면서 구사나기가 기시타니에게 물었다。

歩きながら草薙が岸谷に尋ねた。

“기억하죠。

“記憶하죠。

“기억하죠。

「覚えています。

그게 왜요?”

그게 왜요?”

그게 왜요?”

それはなぜですか？」

“내가 그녀에게 알리바이를 어떻게 물어_ㄴ지? 3월 10일에 어디 있어_ㄴ느냐, 그

렇게 물어_ㄴ나?”

“내가 그女에게 알리바이를 어떻게 물었지? 3月 10日에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나?”

“내가 그녀에게 알리바이를 어떻게 물었지? 3월 10일에 어디 있었느냐, 그
렇게 물었나?”

「私は彼女にアリバイをどのように尋ねましたか？ 3月 10日にどこにいた
のか、そう尋ねたのか？」

“자세하 ㄴ 거 ㄴ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런 식이어 ㄴ으 ㄴ 거 ㄴ니다.

“仔細한 건 記憶나지 않지만 아마 그런 式이었을 겁니다.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詳細は覚えていませんが、おそらくそのようなものだったでしょう。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 ㄴ지.

“그러니까 그女가 이렇게 對答했지.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지.

「だから彼女がこう答えた。

하루 종일 일해 ㄴ고 밤에는 딸과 외출해 ㄴ다.

하루 終日 일했고 밤에는 딸과 外出했다.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는 딸과 외출했다.

一日中働いて、夜は娘と出かけた。

영화를 보고 나서 라면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

映畫를 보고 나서 라면을 먹고 노래房에 갔다.

영화를 보고 나서 라면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

映画を見てからラーメンを食べてカラオケに行った。

집으로 돌아오 ㄴ 것은 밤 열한 시가 넘어서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열한 時가 넘어서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열한 시가 넘어서다.

家に帰ってきたのは夜 11 時を超えている。

그러지 않아 ㄴ 어?”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어?”

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か？」

“그래 ㄴ 으 ㄴ 거 ㄴ ㅊ니다.

“그랬을 ㅊ니다.

“그랬을 ㅊ니다.

「そうでした。

“아까 그 마담 말로 미루어 보면 야스코는 그 후에 전화를 하 ㄴ 거야.

“아까 그 마담 말로 미루어 보면 야스코는 그 後에 電話를 한 거야.

“아까 그 마담 말로 미루어 보면 야스코는 그 후에 전화를 한 거야.

「さっきそのマダムという言葉で先延ばしてみると、ヤスコはその後電話をしたんだ。

게다가 별다른 용건도 없는데 전화해 달라고 메시지를 남겨ㅆ어。

게다가 別다른 用件도 없는데 電話해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어。

게다가 별다른 용건도 없는데 전화해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어。

しかも特別な用件もないのに電話してほしいとメッセージを残した。

마담은 새벽 하ㄴ 시가 넘어서 야스코에게 전화해ㅆ고 그 후로 삼십 분 가까이 얘기를 나눠ㅆ어。

마담은 새벽 한 때가 넘어서 야스코에게 電話했고 그 後로 三十 分 가까이 얘기를 나눴어。

마담은 새벽 한 시가 넘어서 야스코에게 전화했고 그 후로 삼십 분 가까이 얘기를 나눴어。

マダムは夜明けの詩を超えてヤスコに電話し、その後 30 分近く話を交わした。

“그게 어떨다는 거죠?”

“그게 어떨다는 거죠?”

“그게 어떨다는 거죠?”

「それはどうですか？」

“그때, 그러니까 내가 알리바이를 물어냈을 때 야스코는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알리바이를 물었을 때 야스코는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알리바이를 물었을 때 야스코는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その時、だからアリバイを頼んだ時、ヤスコはなぜそんな事実を言わなかったのか？」

“왜냐면…… 말하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왜냐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なぜなら… …言う必要がないと思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왜지?”

“왜지?”

“왜지?”

「どうして？」

구사나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후배 형사를 향해 돌아서었다.

驅使나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後輩 刑事를 向해 돌아섰다。

구사나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후배 형사를 향해 돌아섰다。

草薙は足を止め、後輩刑事に向かって帰った。

“집 전화로 제3자와 통화해ㄴ다는 거 ㄴ 집에 있어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ㄴ
데 말이지。

“집 電話로 第三者와 通話했다는 건 집에 있었다는 事實을 證明하는 건데
말이지。

“집 전화로 제3자와 통화했다는 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말이지。

「家の電話で第三者と通話したというのは、家にいたという事実を証明する
のですが。

기시타니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기시他니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기시타니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岸谷もその場に止まった。

그는 입을 뽀족하게 내밀고 있어ㄴ다。

그는 입을 뽀족하게 내밀고 있었다。

그는 입을 뽀족하게 내밀고 있었다。

彼は口を尖って突き出していた。

“그거 ㄴ 그렇지만, 하나오카 야스코로서는 외출 건에 대해서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ㄴ으ㄴ 거 ㄴ니다。”

“그건 그렇지만, 하나오카 야스코로서는 外出 件에 對해서만 말해도 充分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하나오카 야스코로서는 외출 건에 대해서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それだけど、花岡康子としてはお出かけ件についてだけ言っても十分だと思ったはずですよ。」

만일 집에 돌아와서 뭐 ㄴ 해 ㄴ느냐고 물어 ㄴ다면 전화 통화를 하 ㄴ 사실도 말하지 않아 ㄴ으ㄴ까요?”

萬一 집에 돌아와서 뭘 했느냐고 물었다면 電話 通話を 한 事實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집에 돌아와서 뭘 했느냐고 물었다면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もし家に帰って何をしたのかと尋ねたら、電話で話したことも言わ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정말 그게 다이 ㄴ까?”

“正말 그게 다일까?”

“정말 그게 다일까?”

「本当にそれは違うのか？」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理由가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それとも何らかの理由があります。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을 숨겨^ㄴ다면 모르^ㄴ까, 알리바이가 있는 거^ㄴ 말하지

않으^ㄴ 것뿐이^ㄴ 데, 그거^ㄴ 트집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알리바이가 없다는 事實을 숨겼다면 모를까, 알리바이가 있는 걸 말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걸 트집 잡는 게 오히려 異常하지 않나요?”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모를까, 알리바이가 있는 걸 말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걸 트집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アリバイがないという事実を隠したら分からないか、アリバイがあることを

言っていないだけなのに、それをつかむのがむしろおかしくないですか？」

이해하^ㄴ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기시타니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구사나기는 다

시 걸기 시작해^ㄴ다。

理解할 수 없다는 表情을 짓는 기시他니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驅使나기는

다시 걸기 始作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기시타니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구사나기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理解できないという表情を浮かべる岸谷から目を引いて、草薙はまた歩き始めた。

이 후배 형사는 처음부터 하나오카 모녀에게 동정적이다。

이 後輩 刑事는 처음부터 하나오카 母女에게 同情的이다。

이 후배 형사는 처음부터 하나오카 모녀에게 동정적이다。

この後輩刑事は最初から花岡母女に同情的だ。

객관적이 ㄴ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 ㄴ지도 모르 ㄴ다。

客觀적인 意見을 求하는 것 自體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客觀的な意見を求めること自体が無理かもしれない。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오늘 낮에 유가와와 나누 ㄴ 대화가 떠올라 ㄴ다。

驅使나기의 머릿속에 오늘 낮에 有價와와 나눈 對話가 떠올랐다。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오늘 낮에 유가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草薙の頭の中に今日の日に湯川と交わした対話が浮かんた。

그 물리학자는 만일 사건에 이시가미가 관련되어 있다면 살해가 계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 ㄴ으 ㄴ 거라고 주장해 ㄴ다。

그 物理學者는 萬一 事件에 此時加味가 關聯되어 있다면 殺害가 計劃的으

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主張했다。

그 물리학자는 만일 사건에 이시가미가 관련되어 있다면 살해가 계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その物理学者は、もし事件に石神が関与していたら、殺害が計画的に起こらなかったと主張した。

“그가 계획하 ㄴ 거라면 알리바이 공작에 영화관을 이용하지 않아 ㄴ 거야。

“그가 計劃한 거라면 알리바이 工作에 映畫館을 利用하지 않았을 거야。

“그가 계획한 거라면 알리바이 공작에 영화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거야。

「彼が計画したのなら、アリバイ公爵に映画館を利用しなかったのだろう。

자네들도 의심하고 있다시피 영화관에 가 ㄴ다는 진술은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

자네들도 疑心하고 있다시피 映畫館에 갔다는 陳述은 別로 說得力이 없잖아。

자네들도 의심하고 있다시피 영화관에 갔다는 진술은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

君たちも疑っているように映画館に行ったという陳述はあまり説得力がないじゃない。

이시가미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해 ㄴ 리 없어。

이時加味가 그 點을 생각하지 못했을 理 없어。

이시가미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 리 없어。

石神がその点を考えなかったはずがな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있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疑問이 있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있어。

そしてそれよりも大きな疑問がある。

이시가미에게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협력해 도가시를 살해하 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時加味에게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協力해 도가시를 殺害할 理由가 없다는
거지。

이시가미에게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협력해 도가시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石神には花岡康子と協力して東鹿市を殺害する理由がないということだ。

설사 그녀가 도가시 때문에 고통 받고 있어 ㄴ다 해도 그 친구라면 다른 해결책
을 모색해 ㄴ으 ㄴ 거야。

設使 그女가 도가시 때문에 苦痛 받고 있었다 해도 그 親舊라면 다른 解決
策을 摸索했을 거야。

설사 그녀가 도가시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다 해도 그 친구라면 다른 해결책을 모색했을 거야。

下痢 彼女が道鹿市のために苦しんでいたとしても、その友人なら他の解決策を模索したはずだ。

살인 같은 방법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

殺人 같은 방법은 絶對로 選擇하지 않아。

살인 같은 방법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

殺人のような方法は決して選ばない。

이시가미가 그 정도로 잔혹하ㄴ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구사나기가 묻자 유가와는 냉정하ㄴ 눈빛으로 고개를 저어ㄴ다。

이時加味가 그 程度로 殘酷한 人間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驅使나기가 묻자 有價와는 冷情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시가미가 그 정도로 잔혹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구사나기가 묻자 유가와는 냉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石神がそれほど残酷な人間ではないという意味なのか、草薙が聞くと、湯川とは冷静な目つきで首を振った。

“감정의 문제가 아냐。

“感情의 問題가 아냐。

“감정의 문제가 아냐。

「感情の問題ではない。

살인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지。

殺人으로 苦痛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合理的이지 않기 때문이지。

살인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지。

殺人で苦痛から抜け出すという考えが合理的ではないからだ。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르_ㄴ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끌어안게 되_ㄴ 테니까。

왜냐하면 殺人을 저지름으로써 또 다른 苦痛을 끌어안게 될 테니까。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또 다른 고통을 끌어안게 될 테니까。

なぜなら殺人を犯すことでまた別の痛みを抱きしめることになるから。

이시가미는 그렇게 어리석으_ㄴ 인간이 아니야。

이時加味는 그렇게 어리석은 人間이 아니야。

이시가미는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야。

石神はそんな愚かな人間じゃない。

반대로,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잔혹하_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사내
지。

反對로, 論理的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殘酷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史乃
至。

반대로,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잔혹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사내지。

逆に、論理的であれば、どんな残酷なことでもやり遂げられる社内地。

그렇다면 유가와는 이시가미가 어떤 식으로 사건에 관여해ㄴ다고 보는 것이ㄴ까。

그렇다면 有價와는 이時加味が 어떤 式으로 事件에 關與했다고 보는 것일까。

그렇다면 유가와는 이시가미가 어떤 식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일까。

それなら、湯川は石神がどのように事件に関与したと見るのだろうか。

거기에 대하ㄴ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아ㄴ다。

거기에 對한 그의 對答은 다음과 같았다。

거기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そこへの彼の答えは次の通りであった。

“만일 그가 관여해ㄴ다면 살인 그 자체에는 손을 대ㄴ 수 없는 상황이어ㄴ다고 밖에 생각하ㄴ 수 없어。

“萬一 그가 關與했다면 殺人 그 自體에는 손을 댈 수 없는 狀況이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만일 그가 관여했다면 살인 그 자체에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밖

에 생각할 수 없어.

「もし彼が関与したなら、殺人そのものには手を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
だったとしか考えられない。

즉 그가 사태를 파악하 ㄴ 시점에 이미 살인이 완료되 ㄴ 거지.

卽 그가 事態를 把握한 時點에 이미 殺人이 完了된 거지.

즉 그가 사태를 파악한 시점에 이미 살인이 완료된 거지.

つまり彼が事態を把握した時点ですでに殺人が完了したのだ。

그렇다면 거기서 그가 하 ㄴ 수 있는 일은 무엇이어 ㄴ으 ㄴ까? 사건을 은폐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ㄴ으 ㄴ 거야.

그렇다면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事件을 隱蔽하는 게
可能하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다면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을 은폐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それでは、そこで彼ができることは何でしたか？事件を隠蔽することが可能
であればそうしたはずだ。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수사망에서 벗어나 ㄴ 수 있는 방책을 궁리해 ㄴ 겠지.

하지만 不可能하다면 數死亡에서 벗어날 수 있는 方策을 窮理했겠지.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궁리했겠지.

だが不可能なら捜査網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る方策を工夫しただろう。

하나오카 야스코 모녀에게도 형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증거를 제시하_ㄴ지 등등에 대해서 지시해_ㄴ으_ㄴ 데고。

하나오카 야스코 母女에게도 刑事의 質問에 어떻게 答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證據를 提示할지 等등에 對해서 指示했을 데고。

하나오카 야스코 모녀에게도 형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등등에 대해서 지시했을 데고。

花岡康子の母女にも刑事の質問にどのように答えて、どのタイミングでどのような証拠を提示するかなどについて指示したはず。

요컨대 지금까지 하나오카 야스코나 미사토가 구사나기와 그의 동료들에게 한 진술은 모두 그녀들의 의사에 따르_ㄴ 것이 아니라 이시가미가 뒤에서 조종하_ㄴ 결과라는 게 유가와와 추리여_ㄴ다。

要컨대 只今까지 하나오카 야스코나 미사토가 驅使나기와 그의 同僚들에게 한 陳述은 모두 그女들의 醫師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時加味가 뒤에서 操縱한 結果라는 게 有價와의 推理였다。

요컨대 지금까지 하나오카 야스코나 미사토가 구사나기와 그의 동료들에게 한 진술은 모두 그녀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시가미가 뒤에서 조종한 결과라는 게 유가와와 추리였다。

要するに、これまで花岡康子やミサトが草薙と彼の仲間たちにした陳述はいずれも彼女たちの意思によるものではなく、石神が後ろから操縦した結果だというのが湯川の推理だった。

그러나 물리학자는 거기까지 말하_ㄴ 후 이렇게 덧붙여_ㄴ다.

그러나 物理學者는 거기까지 말한 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물리학자는 거기까지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しかし物理学者はそこまで言った後、こう付け加えた。

“물론 이거_ㄴ 모두 나의 추리에 지나지 않아.

“勿論 이견 모두 나의 推理에 지나지 않아.

“물론 이견 모두 나의 추리에 지나지 않아.

「もちろん、これはすべて私の推理にすぎません。

그것도 이시가미가 관여해_ㄴ다는 전제하에 세워지_ㄴ 가설이고, 그 전제 자체가
틀려_ㄴ으_ㄴ 가능성도 있어.

그것도 이時加味가 關與했다는 前提하에 세워진 假說이고, 그 前提 自體가
틀렸을 可能性도 있어.

그것도 이시가미가 관여했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가설이고, 그 전제 자체
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

それも石神が関与したという前提のもとに立てられた仮説であり、その前提
自体が間違っている可能性もある。

아니, 나로서는 제발 틀리기_ㄴ, 나의 지나치_ㄴ 상상이기_ㄴ 바라고 있어.

아니, 나로서는 제발 틀리길, 나의 지나친 想像이길 바라고 있어.

아니, 나로서는 제발 틀리길, 나의 지나친 상상이길 바라고 있어.

いや、私としてはどうぞ間違った道、私の過度の想像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る。

진심으로。

眞心으로。

진심으로。

心から。

그렇게 말하 ㄴ 때 그의 표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쓸쓸해 보여 ㅆ 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表情은 매우 苦痛스럽고 쓸쓸해 보였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표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쓸쓸해 보였다。

そう言うと、彼の表情はとても痛くて寂しく見えました。

오랜만에 만나 ㄴ 옛 친구를 다시 잃으 ㄴ 지 모르 ㄴ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이 ㄴ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옛 親舊를 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事實이 두렵기 때문일 것
이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다시 잃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일 것
이다。

久しぶりに出会った昔の友人を再び失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事実が怖いから

だろう。

유가와는 왜 자신이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끝까지 말해 주지 않아다。

有價와는 왜 自身이 이時加味를 疑心하게 되었는가에 關해서는 끝까지 말해 주지 않았다。

유가와는 왜 자신이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끝까지 말해 주지 않았다。

湯川とはなぜ自分が石神を疑うようになったのかについては最後まで言ってくれなかった。

아무래도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ㄴ 것이 그 계기여 ㄴ던 것 같으 ㄴ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아다。

아무래도 이時加味가 야스코에게 好意를 품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챈 것이 그 契機였던 것 같은데, 그 根據에 對해서는 絶對 말하려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 그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다。

どうやら石神が靖子に好意を抱いているという事実気づいたのがそのきっかけだったようだが、その根拠については絶対に言おうとしなかった。

그러나 구사나기는 유가와와 관찰력과 추리력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驅使나기는 有價와와 觀察力과 推理力을 信賴하고 있다。

그러나 구사나기는 유가와와 관찰력과 추리력을 신뢰하고 있다.

しかし、草薙は油価との観察力と推理力を信頼している。

유가와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것이 빗나가 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 ㄴ
다。

有價와가 그렇게 생각하는 韓 그것이 빗나갈 可能性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
다。

유가와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것이 빗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한다。

湯川がそう思う限り、それが外れる可能性はほとんどないと思う。

그리고 보니 ‘마리안’에서 들으 ㄴ 이야기에다 수궁이 가는 구석이 있어 ㄴ 다。

그리고 보니 ‘마리안’에서 들은 이야기에다 首肯이 가는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 ‘마리안’에서 들은 이야기에다 수궁이 가는 구석이 있었다。

そういえば「マリアン」で聞いた話にも頷く行く隅があった。

3월 10일 심야의 알리바이에 대해 왜 야스코는 구사나기에게 말하지 않아 ㄴ 으
ㄴ 까。

3 月 10 日 深夜의 알리바이에 對해 왜 야스코는 驅使나기에게 말하지 않
았을까。

3월 10일 심야의 알리바이에 대해 왜 야스코는 구사나기에게 말하지 않았
을까。

3月10日深夜のアリバイについて、なぜ安子は草薙に言わなかったのか。

만일 그녀가 범인이고, 경찰이 의심하 ㄴ 때를 대비해 그런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어 ㄴ다면 당장이라도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상식이다。

萬一 그女가 犯人이고, 警察이 疑心할 때를 對備해 그런 알리바이를 準備해 두었다면 當場이라도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常識이다。

만일 그녀가 범인이고, 경찰이 의심할 때를 대비해 그런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었다면 당장이라도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상식이다。

もし彼女が犯人であり、警察が疑う時を備えてそのようなアリバイを準備しておけば、すぐにその話を取り出すのが常識だ。

그런데 그러지 않아 ㄴ 것은 이시가미의 지시가 있어 ㄴ기 때문 아니 ㄴ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時加味の 指示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시가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ところがそうでなかったのは石神の指示があったからではないだろうか。

그리고 그 지시라는 것은 이를테면 ‘꼭 필요하 ㄴ 최소한의 말만 하 ㄴ 것’이 아니어 ㄴ으 ㄴ까。

그리고 그 指示라는 것은 이를테면 ‘꼭 必要한 最小限의 말만 할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지시라는 것은 이를테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할 것’이 아

니었을까。

そしてその指示というのは、例えば「必ず必要な最小限の言葉だけすること」ではなかっただろうか。

구사나기는 유가와가 이번 사건에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_ㅅ으_ㄴ 무렵 그가 무심코 해_ㅅ던 말을 떠올려_ㅅ다。

驅使나기는 有價와假 이番 事件에 아직 關心을 기울이지 않았을 무렵 그가 無心코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구사나기는 유가와가 이번 사건에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무렵 그가 무심코 했던 말을 떠올렸다。

草薙は湯川が今回の事件にまだ関心を傾けていない頃、彼が思わず言ったことを思い出した。

하나오카 야스코가 남은 반쪽의 영화표를 팸플릿 사이에서 꺼내_ㅅ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해_ㅅ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남은 半쪽의 映畵票를 팸플릿 사이에서 꺼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오카 야스코가 남은 반쪽의 영화표를 팸플릿 사이에서 꺼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花岡康子が残った半分の映画票をパンフレットの間に取り出したという話を聞いて、彼はこう言った。

“보통 사람이라면 알리바이를 만드 ㄴ 때 남으 ㄴ 영화표 반쪽을 보관하 ㄴ 장소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

“普通 사람이라면 알리바이를 만들 때 남은 映畵票 半쪽을 保管할 場所까지는 神經 쓰지 않아。

“보통 사람이라면 알리바이를 만들 때 남은 영화표 반쪽을 보관할 장소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

「普通の人ならアリバイを作るときに残った映画票の半分を保管する場所までは気にしない。

형사가 오 ㄴ 것을 대비해 팸플릿 사이에 끼워 두 ㄴ 거라면 상당히 강적이 ㄴ 거야。

刑事가 올 것을 對備해 팸플릿 사이에 끼워 둔 거라면 相當히 強敵일 거야。

형사가 올 것을 대비해 팸플릿 사이에 끼워 둔 거라면 상당히 강적일 거야。

刑事が来ることを備えてパンフレットの間に挟んでおいたのなら結構強敵だろう。

6시가 조금 지나 야스코가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손님 하나가 들어와 ㅅ 다。

6 時가 조금 지나 야스코가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6시가 조금 지나 야스코가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6時が少し経って、ヤスコがエプロンを脱がそうとするのに客ひとつが入ってきた。

어서 오세요, 라고 조건 반사적으로 웃음을 지어 보이던 그녀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했다.

어서 오세요, 라고 條件 反射的に 웃음을 지어 보이던 그녀는 相對의 얼굴을 보고 唐慌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조건 반사적으로 웃음을 지어 보이던 그녀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다.

さあ、来て、と条件反射的に笑いを見せていた彼女は相手の顔を見て慌てた。

아는 얼굴이어했다.

아는 얼굴이었다.

아는 얼굴이었다.

知る顔だった。

그러나 잘 아지는 못한다.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한다.

しかし、よく知らない。

아는 것이라고는 이시가미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뿐이다.

아는 것이라고는 이時加味の 오랜 親舊라는 事實뿐이다.

아는 것이라고는 이시가미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뿐이다.

知っているのとは石神の長年の友だという事実だけだ.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私を知りたいですか？」

상대가 물어 ㅅ다.

相對가 물었다.

상대가 물었다.

相手が尋ねた.

“전에 이시가미와 같이 와 ㅅ었는데요.

“前に 이時加味와 같이 왔었는데요.

“전에 이시가미와 같이 왔었는데요.

「前に石上みたいに来たんですけど.

“아아, 네, 기억나요.

“아아, 네, 記憶나요。

“아아, 네, 기억나요。

「ああ、はい、覚えています。

그녀가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와ㄴ다。

그녀가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가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彼女が再び笑顔に戻った。

“근처에 와ㄴ다가 이 집 도시락이 생각나서요。

“近處에 왔다가 이 집 도시락이 생각나서요。

“근처에 왔다가 이 집 도시락이 생각나서요。

「近くに来て、この家弁当が思い出しました。

그때 사 가ㄴ 도시락, 굉장히 맛있어ㄴ습니다。

그때 사 간 도시락, 宏壯히 맛있었습니다。

그때 사 간 도시락,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その時買ったお弁当、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

“그러서ㄴ군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そうでしたね。

다행이에요.

多幸이에요.

다행이에요.

幸いです。

“오늘은…… 그렇죠, 오늘의 도시락으로 하_ㄴ까요? 이시가미는 늘 그거_ㄴ 사_ㄴ
다고 해_ㄴ는데, 지난번에는 다 팔리고 없더군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의 도시락으로 할까요? 이時加味는 늘 그걸 산다
고 했는데, 지난番에는 다 팔리고 없더군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의 도시락으로 할까요? 이시가미는 늘 그걸 산다
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다 팔리고 없더군요.

「今日は… …そうですね、今日のお弁当にしますか？石神はいつもそれを買
うと言っていましたが、前は売れていませんでした。

오늘은 어떠_ㄴ가요?”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어떤가요?”

今日はどうですか？」

“네, 오늘은 있어요.

“네, 오늘은 있어요.

“네, 오늘은 있어요.

「はい、今日はあります。

야스코는 주방에 주문을 전하고 앞치마를 벗어났다.

야스코는 廚房에 注文을 傳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야스코는 주방에 주문을 전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ヤスコはキッチンに注文を伝え、エプロンを脱いだ。

“어, 벌써 퇴근하세요?”

“어, 벌써 退勤하세요?”

“어, 벌써 퇴근하세요?”

「え、もう帰ってますか？」

“네, 여섯 시까지거든요.

“네, 여섯 時까지거든요.

“네, 여섯 시까지거든요.

「はい、6時までです。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집으로 가시 ㅅ니까?”

집으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십니까?”

家に帰りますか？」

“네.

“네.

“네.

「はい。

“그럼 그쪽으로 같이 가도 되 ㅅ까요? 잠깐 하 ㅅ 얘기가 있어서요.

“그럼 그쪽으로 같이 가도 될까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럼 그쪽으로 같이 가도 될까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では、そちらに一緒に行ってもいいですか？ちょっとした話がありますよ。

“제게…… 말이 ㅅ가요?”

“제게…… ㅅ인가요?”

“제게…… 말인가요?”

「私に… …そうですか？」

“네。

“네。

“네。

「はい。

의논이라고나 하 ㄴ 까요。

議論이라고나 할까요。

의논이라고나 할까요。

相談と言うのでしょうか。

이시가미 일로요。

이時加味 일로요。

이시가미 일로요。

石神仕事ですよ。

남자가 뭐 ㄴ 가 의미 있어 보이는 미소를 지어 ㄴ 다。

男子가 뭔가 意味 있어 보이는 微笑를 지었다。

남자가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男が何か意味があるように見える笑顔を作った。

야스코는 까닭 모르ㄴ 불안에 휩싸여ㄴ다。

야스코는 까닭 모를 不安에 휩싸였다。

야스코는 까닭 모를 불안에 휩싸였다。

ヤスコは理由が分からない不安に包まれた。

“그렇지만 저는 이시가미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時가美 氏에 對해 아는 게 別로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시가미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でも私は石神さんについて知っていることがあまりないんですけど。

“시간을 많이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時間을 많이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時間をあまり奪われません。

가는 동안이면 충분하ㄴ니다。

가는 동안이면 充分합니다。

가는 동안이면 충분합니다。

行っている間で十分です。

말투는 부드럽지만 어디나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어왔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拒否할 수 없는 威壓感이 있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다.

口調は柔らかいがどこか知らず拒否できない威圧感があった。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

「それではそうします。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해왔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對答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彼女はやむを得ずそう答えた。

남자는 유가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왔다.

男子는 有價와라고 自身の 이름을 밝혔다.

남자는 유가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男は湯川と自分の名前を明らかにした。

이시가미가 나오나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고 해왔다.

이時加味가 나온 大學에서 助教授로 있다고 했다.

이시가미가 나온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고 했다.

石神が出てきた大学で助教授としているという。

도시락이 나오기를 기다려ㄴ다가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서ㄴ다.

도시락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다.

도시락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다.

弁当が出るのを待ってから二人は店を出た。

오늘 야스코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ㄴ다.

오늘 야스코는 平素처럼 自轉車を 타고 出勤했다.

오늘 야스코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今日、ヤスコはいつものように自転車に乗って出勤した。

그녀가 자전거를 밀며 걸으려 하자 유가와가 “그거 ㄴ 제가.

그女가 自轉車を 밀며 걸으려 하자 有價와街 “그건 제가.

그녀가 자전거를 밀며 걸으려 하자 유가와가 “그건 제가.

彼女が自転車を押しながら歩こうとすると、湯川が「それは私が。

” 하면서 대신 자전거를 잡아ㄴ다.

” 하면서 代身 自轉車を 잡았다.

” 하면서 대신 자전거를 잡았다.

” ながら代わりに自転車をつかんだ。

“이시가미와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까?”

“い時加味와 餘裕 있게 對話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까?”

“이시가미와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까?”

「石神とのんびり会話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유가와가 물어왔다.

有價와가 물었다.

유가와가 물었다.

湯川が尋ねた。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いいえ.

가게에 오실 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예요.

가게에 오실 때 人土를 나누는 程度예요.

가게에 오실 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예요.

お店に来る際に挨拶をするほどです。

그렇군요, 하고 대답하 ㄴ 후로 유가와는 아무 말이 없어 ㄴ다.

그렇군요, 하고 對答한 後로 有價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군요, 하고 대답한 후로 유가와는 아무 말이 없었다.

そうですね、と答えた後、湯川とは何の言葉もなかった。

“저, 그런데 의논하시 ㄴ 일이……?”

“저, 그런데 議論하실 일이……?”

“저, 그런데 의논하실 일이……?”

「ああ、でも相談することが……」 …… ?」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물어 ㄴ다.

그女는 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물었다.

彼女はもっと我慢できずに尋ねた。

그러나 유가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 ㄴ다.

그러나 有價와는 如前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しかし、流川とはまだ何も言わなかった。

야스코의 가슴에 불안이 번져 나가고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야스코의 가슴에 不安이 번져 나가고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야스코의 가슴에 불안이 번져 나가고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ヤスコの胸に不安が広がっているとき、彼がついに口を開けた。

“그 친구는 순수하 _ㄴ 사람이 _ㅂ니다.

“그 親舊는 純粹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その友人は純粋な人です。

“네?”

“네?”

“네?”

「はい？」

“순수하다고요, 이시가미라는 사내는 말이 _ㅂ니다.

“純粹하다고요, 이시가미라는 사내는 말입니다.

“순수하다고요, 이시가미라는 사내는 말입니다.

「純粹だよ、石神という社内は言葉です。

그가 구하는 해답은 언제나 단순하 _ㅂ니다.

그가 求하는 解答은 언제나 單純합니다。

그가 구하는 해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彼が求める答えはいつも単純です。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 個를 한꺼번에 求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複數個を一度に救ったり、そうではありません。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 또한 단순합니다。

거기에 到達하기 爲해 選擇하는 手段 또한 單純합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 또한 단순합니다。

そこに到達するために選択する手段も単純です。

그래서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망설임이 없어요。

だから迷うことはありません。

사소한 事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些少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些細なことに揺れません。

하지만 그거 ㄴ 한편으로 서투르 ㄴ 삶의 방식이기도 하 ㅂ니다。

하지만 그건 한便으로 서투른 삶의 方式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편으로 서투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しかし、それは一方で不器用な生活の方法でもあります。

결론은 전부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도 못 가지느냐, 둘 중 하나죠。

結論은 全部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도 못 가지느냐, 둘 中 하나죠。

결론은 전부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도 못 가지느냐, 둘 중 하나죠。

結論は全部持っているのか、それとも一つもできないのか、二つの一つです。

늘 그런 위험이 따르 ㅂ니다。

늘 그런 危險이 따릅니다。

늘 그런 위험이 따릅니다。

いつもそのような危険が続きます。

“저, 유가와 씨……。

“저, 有價와 씨……。

“저, 유가와 씨…….

「私、湯川さん……」 ... 。

“아, 죄송하 ㅅ니다.

“아, 罪悚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ああ、すみません。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으 ㄴ 말이 무엇이 ㄴ지 알아듣지 못하시 ㅅ 테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실 테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실 테죠.

こう言うと言いたいことが何なのかわからないでしょう。

유가와는 쓴웃음을 지어 ㅅ다.

有價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유가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湯川は苦笑をした。

“이시가미와 처음으로 만나시 ㄴ 게 지금 사시는 곳으로 이사하 ㄴ 후이 ㄴ가요?”

“이時加味와 처음으로 만나신 게 只今 사시는 곳으로 移徙한 後인가요?”

“이시가미와 처음으로 만나신 게 지금 사시는 곳으로 이사한 후인가요?”

「石神と初めて会ったのが今買う場所に引っ越した後ですか？」

“네, 제가 인사하러 가_ㅆ었어요.

“네, 제가 人事하러 갔었어요.

“네, 제가 인사하러 갔었어요.

「はい、私は挨拶に行きました。

“그때 지금의 그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_ㄴ다는 말씀을 하셔_ㅆ나요?”

“그때 只今の 그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 지금의 그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その時、今のそのお弁当屋で働いてい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네, 해_ㅆ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

「はい、やりました。

“그가 베_ㄴ테_ㄴ테이에 들르기 시작하_ㄴ 것도 그때부터여_ㅆ겠군요.

“그가 벤텐테이에 들르기 始作한 것도 그때부터였겠군요.

“그가 벤텐테이에 들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겠군요.

「彼が弁天亭に立ち寄り始めたのもその時からでしたね。

“그거 ㄴ…… 그걸 ㄴ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걸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걸지도 모르겠네요。

「それは… …そうかもしれませんね。

“그즈음 그와 나누 ㄴ 대화 가운데 혹시 인상에 남는 게 있으시 ㄴ가요?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그즈음 그와 나눈 對話 가운데 或是 引上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그즈음 그와 나눈 대화 가운데 혹시 인상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それから彼と交わした会話の中で、もしかしたら印象に残るものがありましたか? どんな話でも大丈夫です。

야스코는 당혹스러워 ㄴ다。

야스코는 當惑스러웠다。

야스코는 당혹스러웠다。

ヤスコは恥ずかしかった。

생각해 보 ㄴ 적 없는 질문이어 ㄴ다。

생각해 본 적 없는 質問이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考えたことのない質問だった。

“왜 그런 거 ㄴ 물으시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なぜそんなことを聞きますか？」

“그거 ㄴ,”

“그건,”

“그건,”

「それは」

유가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 ㄴ 채 그녀를 빤히 바라보아 ㅆ다。

有價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女를 빤히 바라보았다。

유가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湯川は歩きを止めずに彼女をじっと見つめた。

“그가 제 친구니까요。

“그가 제 親舊니까요。

“그가 제 친구니까요.

「彼は私の友人です。

소중하ㄴ 친구니까 무슨 일이 있어ㅅ는지 알고 싶으ㄴ 거ㄴ니다.

所重한 親舊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소중한 친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大切な友達だから何があったのか知りたいのです。

“하지만 저와 나누ㄴ 대화래야 몇 마디 안 되는데…….

“하지만 저와 나는 對話래야 몇 마디 안 되는데…….

“하지만 저와 나는 대화래야 몇 마디 안 되는데…….

「しかし、私と交わした会話なんて何言もないのに……」 ... 。

“그로서는 중요하ㄴ 일이어ㅅ으ㄴ 거ㄴ니다.

“그로서는 重要な 일이었을 겁니다.

“그로서는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それは重要なことでした。

유가와가 말해ㅅ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대단히 소중한 일이어쥬요.”

“대단히 所重한 일이었을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일이었을 거예요.”

「とても大事なことだったんです。」

그거 ㄴ 맥도 아 ㄴ 거 ㄴ니다.

그건 宅도 알 겍니다.

그건 맥도 알 겍니다.

それはお宅もわかります。

진지하 ㄴ 그의 눈빛을 보고 야스코는 소름이 돋아쥬다.

眞摯한 그의 눈빛을 보고 야스코는 소름이 돋았다.

진지한 그의 눈빛을 보고 야스코는 소름이 돋았다.

真剣な彼の目つきを見て、ヤスコは不気味だった。

이 남자는 이시가미가 그녀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男子는 이時加味가 그女에게 好意를 품고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다.

이 남자는 이시가미가 그녀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この男は石神が彼女に好意を抱い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る。

그래서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엇을 契機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엇을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それで何をきっかけにそうなったのか知りたい。

그러고 보니 야스코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러고 보니 야스코 自身은 그 問題에 對해서 單 한 番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야스코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そういえば、ヤスコ自身はその問題について一度も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

자신이 한눈에 반할 만하진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야스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自身이 한눈에 反할 만한 美貌의 所有者가 아니라는 事實은 누구보다 야스코 本人이 第一 잘 알고 있다。

자신이 한눈에 반할 만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야스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다。

自分が一目瞭然な美貌の所有者ではないという事実は誰よりもヤスコ本人が一番よく知っている。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首を振った。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特に思い出すことはありません。

정말로 저는 이시가미 씨와 거의 대화다운 대화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正말로 저는 此時が美 氏와 거의 對話다운 對話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저는 이시가미 씨와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어요.

本当に私は石神さんとほとんど会話らしい会話を分けたことはありません。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

하긴 의외로 그러 ㄴ 수도 있죠.

하긴 意外로 그럴 수도 있죠.

하긴 의외로 그럴 수도 있죠.

やっぱり意外とそうかもしれません。

유가와와 말투가 다소 부드러워져 ㄴ 다.

有價와와 말套가 多少 부드러워졌다.

유가와와 말투가 다소 부드러워졌다.

湯川との言い方がやや柔らかくなった。

“댁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宅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댁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お父さんは彼をどう思いますか？」

“네?”

“네?”

“네?”

「はい？」

“그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ㄴ 아니죠?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ㄴ니까?”

“그의 마음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 事實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마음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彼の心を知らないのではないですか？その事実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단도직입적이 ㄴ 질문에 그녀는 당황해 ㄴ다。

單刀直入的인 質問에 그女는 唐慌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그녀는 당황했다。

団道直入的な質問に彼女は戸惑った。

적당히 웃어넘기 ㄴ 분위기가 아니어 ㄴ다。

適當히 웃어넘길 雰圍氣가 아니었다。

적당히 웃어넘길 분위기가 아니었다。

適度に笑う雰圍氣ではなかった。

“저야 별 생각이……, 졸으 ㄴ 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요。

“저야 別 생각이……, 졸은 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요。

“저야 별 생각이……, 졸은 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요。

「あの星の考えが……」 ……、いい方だとは思いますが。

머리도 아주 좋으시고……。

머리도 아주 좋으시고……。

머리도 아주 좋으시고……。

髪もとても良いです… …。

“머리 좋고 선량하ㄴ 사람이라는 거ㄴ 알고 계시는군요。

“머리 좋고 善良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군요。

“머리 좋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군요。

「頭が良くて善良な人だ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すね。

유가와가 걸음을 멈춰ㅅ다。

有價와假 걸음을 멈췄다。

유가와가 걸음을 멈췄다。

湯川が歩きを止めた。

“그거ㄴ, 저……, 어쩐지 그러ㄴ 것 같다고 생각하ㄴ 것뿐이에요。

“그건, 저……, 어쩐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건, 저……, 어쩐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それは、私… …、なんだかそうだと思っただけです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 ㅂ니다。

時間을 내주셔서 感謝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お時間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유가와가 쥐고 있던 자전거 핸들을 그녀에게 건네 ㅅ다。

有價와가 쥐고 있던 自轉車 핸들을 그女에게 건넸다。

유가와가 쥐고 있던 자전거 핸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湯川が握っていた自転車ハンドルを彼女に渡した。

“이시가미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이時加味에게 安否 傳해 주세요。

“이시가미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

「石上に安否伝えてください。

“아, 하지만 이시가미 씨를 만나 ㄴ 수 있으 ㄴ지는……。

“아, 하지만 이時가美 氏를 만날 수 있을지는……。

“아, 하지만 이시가미 씨를 만날 수 있을지는……。

「あ、でも石上さんに会えるかな……」 ... 。

그녀의 말에 유가와는 웃음 띠 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돌아서 ㄴ 다。

그녀의 말에 有價와는 웃음 띠 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돌아섰다。

그녀의 말에 유가와는 웃음 띠 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돌아섰다。

彼女の言葉に湯川とは笑顔で顔をうなずくと振り返った。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야스코는 뭐라 말하 ㄴ 수 없는 위압감을 느껴 ㄴ 다。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야스코는 뭐라 말할 수 없는 威壓感을 느꼈 다。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야스코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 다。

遠ざかっていく彼の後ろ姿で、ヤスコは何とも言えない威圧感を感じた。

14
14
14
14

불쾌하 ㄴ 표정의 얼굴들이 줄줄이 있다。

不快한 表情의 얼굴들이 줄줄이 있다。

불쾌한 표정의 얼굴들이 줄줄이 있다。

不愉快な表情の顔が並ぶ。

불쾌하 ㅁ을 넘어서 고통스러 ㄴ 표정을 하 ㄴ 녀석들도 있어 ㅅ다。

不快함을 넘어서 苦痛스런 表情을 한 녀석들도 있었다。

불쾌함을 넘어서 고통스런 표정을 한 녀석들도 있었다。

不快感を超えて苦痛な表情をした人もいた。

그런 단계마저 넘어서 ㄴ 아이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 ㅅ다는 듯 포기하 ㄴ 얼굴
이다。

그런 段階마저 넘어선 아이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拋棄한 얼굴
이다。

그런 단계마저 넘어선 아이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포기한 얼굴
이다。

そんな段階さえ乗り越えた子どもたちは両手両足とも聞いたように諦めた顔
だ。

모리오카로 말하자면 시험이 시작돼 ㅅ으 ㄴ 때부터 시험지는 거들떠보지도 않
고 턱을 꺾 ㄴ 채 창밖만 바라보아 ㅅ다。

모리오카로 말하자면 試験이 始作됐을 때부터 試験紙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턱을 꺾 ㄴ 채 窓밖만 바라보았다。

모리오카로 말하자면 시험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험지는 거들떠보지도 않
고 턱을 꺾 ㄴ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盛岡といえば試験が始まった時から試験紙はガードルを見ずに顎をかぶった
まま窓の外だけを眺めた。

오늘은 날이 쾌청해서 저 멀리까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어ㄴ다。

오늘은 날이 快晴해서 저 멀리까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은 날이 쾌청해서 저 멀리까지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今日は日が快晴して遠くまで青い空が広がっていた。

이런 쓰잘머리 없는 짓에 시간을 빼앗기지만 앓는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음껏
달리ㄴ 수 있으ㄴ 데ㄴ데, 하며 억울해하고 있으ㄴ지도 모르ㄴ 일이어ㄴ다。

이런 쓰잘머리 없는 짓에 時間을 빼앗기지만 앓는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마
음껏 달릴 수 있을 텐데, 하며 抑鬱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런 쓰잘머리 없는 짓에 시간을 빼앗기지만 앓는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음껏 달릴 수 있을 텐데, 하며 억울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こんなつまらないことに時間を奪われるがなければバイクに乗って存分に走
れるはずなのに、と悔しく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ことだった。

학교는 봄 방학에 들어가ㄴ다。

學校는 봄 放學에 들어갔다。

학교는 봄 방학에 들어갔다。

学校は春休みに入った。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우울하 ㄴ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 ㄴ다.

그러나 一部 學生들에게는 憂鬱한 試鍊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우울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しかし一部の学生たちには憂鬱な試練が待っていた。

기말 시험 후에 치러지 ㄴ 추가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 ㄴ 학생들이 너무 많아
급기야 보충 수업을 하기에 이르 ㄴ 것이다.

期末 試験 後에 치러진 追加 試験에도 通過하지 못한 學生들이 너무 많아
及其也 補充 授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말 시험 후에 치러진 추가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급기야 보충 수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期末試験後に行われた追加試験にも合格できなかった学生が多すぎて、給気
が補充授業をするに至ったのだ。

이시가미가 말고 있는 반은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자그마치 서른 명
이나 돼 ㄴ다.

이時加味가 말고 있는 半은 補充 授業을 받아야 하는 人員이 자그마치 서
른 名이나 됐다.

이시가미가 말고 있는 반은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인원이 자그마치 서
른 명이나 됐다.

石神が務めているクラスは、補足授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人員が少し三
人になった。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다。

다른 科目에 比해 훨씬 많은 數字다。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다。

他の科目に比べてずっと多くの数字だ。

보충 수업이 다 끝나면 다시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시험 날이
어썬다。

補充 授業이 다 끝나면 다시 한 番 試驗을 치르는데 오늘이 바로 그 試驗
날이었다。

보충 수업이 다 끝나면 다시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오늘이 바로 그 시험
날이었다。

補足授業が終わったらもう一度試験を受けるのに今日がまさにその試験日だ
った。

이시가미는 교감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

이時加味는 交感으로부터 試驗 問題を 너무 어렵게 내지 말라는 指示를 받
았다。

이시가미는 교감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
았다。

石上は交感から試験問題を難しくしないよう指示を受けた。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 형식적이 ㄴ 시험 아니 ㄴ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率直히 말해 形式的인 試験 아닌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말해 형식적인 시험 아닌가.

「こんな言葉はしたくないが、正直言って形式的な試験ではないか。

낙제 점수를 받으 ㄴ 학생을 진급시키 ㄴ 수 없어서 치르는 것이란 말이야.

落第 點數를 받은 學生을 進級시킬 수 없어서 치르는 것이란 말이야.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을 진급시킬 수 없어서 치르는 것이란 말이야.

落制点数を受けた生徒を進級させることができずに払うのだ。

이시가미 선생으로서도 이런 귀찮으 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 ㄴ 거야.

이時加味 先生으로서도 이런 귀찮은 일을 繼續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이시가미 선생으로서도 이런 귀찮은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을 거야.

石神先生としてもこんな面倒なことを続けたくないんだよ。

애초에 이시가미 선생이 내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전부터 있어 ㅆ어.

애初에 이時加味 先生이 내는 問題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前부터 있었어.

애초에 이시가미 선생이 내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전부터 있었
어。

そもそも石上先生が出す問題がとても難しいという言葉が前からあった。

그러니 모쪼록 이번 시험은 전원이 통과하 ㄴ 수 있도록 내주기 ㄴ 부탁하겠네.

그러니 모쪼록 이番 試験은 全員이 通過할 수 있도록 내주길 付託하겠네.

그러니 모쪼록 이번 시험은 전원이 통과할 수 있도록 내주길 부탁하겠네。

だからとにかく今回の試験は全員が通過でき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

이시가미는 자신이 내는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ㄴ다.

이時加味는 自身이 내는 問題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시가미는 자신이 내는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石神は自分が出す問題が難しいとは思わなかった。

오히려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むしろとても簡単だと思っている。

수업에서 가르치 ㄴ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ㄴ 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푸 ㄴ 수 있는 문제들이다.

授業에서 가르친 範圍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基本的인 것만 理解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問題들이다。

수업에서 가르친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授業で教えた範囲から外れるわけでもなく、基本的なものだけ理解すれば十分解ける問題だ。

다만 약간 변화를 주어야 ㄴ 뿐이다。

다만 若干 變化를 주었을 뿐이다。

다만 약간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ただしわずかに変化を与えただけだ。

물론 그 방식이 참고서나 문제집에 흔히 나오는 것들과는 달라 ㄴ 다。

勿論 그 方式이 參考書나 問題집에 흔히 나오는 것들과는 달랐다。

물론 그 방식이 참고서나 문제집에 흔히 나오는 것들과는 달랐다。

もちろんその方法が参考書や問題集によく出てくるものとは違った。

그래서 해법을 순서대로 외우기만 하는 학생들은 풀기 어려워 ㄴ 다。

그래서 解法을 順序대로 외우기만 하는 學生들은 풀기 어려웠다。

그래서 해법을 순서대로 외우기만 하는 학생들은 풀기 어려웠다。

だから解決策を順番に覚えるだけの学生たちは解くのが難しかった。

그러 ㄴ에도 그는 교감의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해 ㄴ 다。

그럼에도 그는 校監의 指示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그는 교감의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それでも彼は交感の指示を受け入れることにした。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대표적이 ㄴ 문제를 추려 그대로 내 ㄴ다。

市중에 나와 있는 問題집에서 代表的인 問題를 추려 그대로 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대표적인 문제를 추려 그대로 냈다。

市中に出ている問題集で代表的な問題を選んでそのまま出した。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푸 ㄴ 수 있는 문제들이다。

조금만 練習하면 쉽게 풀 수 있는 問題들이다。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少し練習すれば簡単に解ける問題だ。

모리오카가 하품을 하면서 시계를 보다가 이시가미와 눈이 마주쳐 ㄴ다。

모리오카가 하품을 하면서 時計를 보다가 이時加味와 눈이 마주쳤다。

모리오카가 하품을 하면서 시계를 보다가 이시가미와 눈이 마주쳤다。

盛岡があくびをしながら時計を見て石神と目が合った。

무안해 ㄴ는지 모리오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는 양손으로 X자를 만들어 ㄴ

다。

無顔했는지 모리오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는 兩손으로 X자를 만들었

다。

무안했는지 모리오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는 양손으로 X자를 만들었다。

無案だったのか盛岡は顔をいっぱいにし、両手でX字を作った。

도저히 못 풀겠어요, 라는 뜻이 ㄴ 것 같다。

到底히 못 풀겠어요, 라는 뜻인 것 같다。

도저히 못 풀겠어요, 라는 뜻인 것 같다。

とても解けません、という意味のようだ。

이시가미가 모리오카에게 빙그레 웃어 보여 ㄴ다。

이時加味が 모리오카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다。

이시가미가 모리오카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다。

石神が盛岡に笑って笑って見えた。

그러자 모리오카는 조금 놀라 ㄴ 표정을 짓다가 똑같이 빙그레 웃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아 ㄴ다。

그러자 모리오카는 조금 놀란 表情을 짓다가 똑같이 빙그레 웃고는 다시窓밖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모리오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다가 똑같이 빙그레 웃고는 다시창밖을 바라보았다。

すると盛岡は少し驚いた表情を浮かべたが、同じようにビングレ笑って再び窓の外を眺めた。

이시가미는 미적분 같은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던 모리오카의 말을 떠올려

다。

이時加味는 微積分 같은 게 代替 무슨 所用이냐던 모리오카의 말을 떠올렸

다。

이시가미는 미적분 같은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던 모리오카의 말을 떠올렸

다。

石神は微積分のようなのが一体何の役に立ったのか、盛岡の言葉を思い出した。

오토바이 레이스를 예로 들어 그 필요성을 설명해

지만, 과연 모리오카가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오토바이 레이스를 例로 들어 그 必要性을 説明했지만, 果然 모리오카가 理解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오토바이 레이스를 예로 들어 그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과연 모리오카가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オートバイレースを例に挙げてその必要性を説明したが、果たして盛岡が理解したのかは不明な棟だ。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한 모리오카의 자세가 이시가미는 싫지 않아

다。

그러나 그런 質問을 한 모리오카의 姿勢가 이時加味는 싫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한 모리오카의 자세가 이시가미는 싫지 않았다。

しかし、そんな質問をした盛岡の姿勢が石神は嫌ではなかった。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왜 이런 工夫를 해야 하는지 疑問이 생기는 건 當然하다.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なぜこのような勉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疑問が生じるのは当然だ。

그런 의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학문에 매진하 ㄴ 目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疑問이 解消되는 過程에서 學問에 賣盡할 目的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의문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학문에 매진할 目的이 생기는 것이다.

そんな疑問が解消される過程で学問に邁進する目的が生じるのだ。

그것은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로도 연결되 ㄴ 다.

그것은 數學의 本質을 理解하는 길로도 連結된다.

그것은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로도 연결된다.

それは数学の本質を理解する道にもつながる。

그런데 그들의 소박하 ㄴ 의문에 답하려 하지 않는 교사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들의 素朴한 疑問에 答하려 하지 않는 教師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들의 소박한 의문에 답하려 하지 않는 교사가 너무 많다.

ところが彼らの素朴な疑問に答えようとしない教師が多すぎる。

아니, 아마도 답하 ㄴ 수 없으 ㄴ 거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하 ㄴ 다。

아니, 아마도 答할 수 없을 거라고 이時加味는 생각한다。

아니, 아마도 答할 수 없을 거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한다。

いや、おそらく答えられないだろうと石神は考える。

진정하 ㄴ 의미에서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정해지 ㄴ 커리큘럼에 따라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적당하 ㄴ 점수를 주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리오카 같으 ㄴ 학생이 던지는 질문이 귀찮으 ㄴ 따름이 ㄴ 것이다。

眞正한 意味에서 數學을 理解하지 못하고 그저 定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가르치면서 學生에게 適當한 點數를 주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리오카 같은 學生이 던지는 質問이 귀찮을 따름인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적당한 점수를 주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리오카 같은 학생이 던지는 질문이 귀찮을 따름인 것이다。

眞の意味で数学を理解できず、ただ決まったカリキュラムに応じて教えながら学生に適度な点数を与えることしか考えられないため、盛岡のような学生が投げる質問が面倒だからだ。

이런 마당에 자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해 ㅆ 다。

이런 마당에 自身은 果然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이런 마당에 자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こんな庭に自分は果たして何をしているのか、と石神は考えた。

수학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단지 점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數學の 本質과는 無關하게 但只 點數를 매기기 爲한 試驗을 치르고 있다。

수학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단지 점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数学の本質とは無關係に單にスコアを付けるための試験を行っている。

그것을 채점하는 것도, 그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採點하는 것도, 그 採點 結果에 따라 合格 不合格을 決定하는 것도 아무런 意味가 없다。

그것을 채점하는 것도, 그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それを採点することも、その採点結果によって合格不合格を決定することも何の意味もない。

이런 것은 수학이 아니다。

이런 것은 數學이 아니다。

이런 것은 수학이 아니다。

これは数学ではありません。

물론 교육도 아니다。

勿論 教育도 아니다。

물론 교육도 아니다。

もちろん教育でもない。

이시가미가 자리에서 일어서ㄴ다。

이時加味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시가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石神が席で立ち上がった。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해ㄴ다。

그리고 深呼吸을 한 番 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했다。

そして深呼吸を一度した。

“다들 문제 풀이는 그만해도 좋다。

“다들 問題 풀이는 그만해도 좋다。

“다들 문제 풀이는 그만해도 좋다。

「みんな問題解決はやめてもいい。

교실 안을 둘러보며 말해ㄴ다。

教室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교실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教室の中を見回して言った。

“남으 ㄴ 시간 동안은 답안지 뒤에 지금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남은 時間 동안은 答案紙 뒤에 只今 自身の 생각을 적도록.

“남은 시간 동안은 답안지 뒤에 지금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残り時間の間は解答紙の後ろに今自分の考えを書くように。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하 ㄴ 빛이 떠올라 ㅅ 다.

學生들의 얼굴에 唐慌한 빛이 떠올랐다.

학생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学生たちの顔に慌てた光が浮かんだ。

교실 안이 웅성거리 ㄴ 다.

教室 안이 웅성거린다.

교실 안이 웅성거린다.

教室の中がすごい。

자신의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ㅅ 다.

自身の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自分の考えだってそれがどういう意味だ、と呟く声が聞こえた。

“수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이다.

“數學에 對한 自身の 생각 말이다.

“수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이다.

「数学に対する自分の考え方だ。

수학과 관련되 ┌ 거라면 아무거나 적어도 좋다.

數學과 關聯된 거라면 아무거나 적어도 좋다.

수학과 관련된 거라면 아무거나 적어도 좋다.

数学に関連するものなら何でも少なくともいい。

그리고 덧붙여 ㄴ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そして付け加えた。

“그 내용도 채점의 대상이다.

“그 内容도 採點의 對象이다.

“그 내용도 채점의 대상이다.

「その内容も採点の対象だ。

순간 학생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ㄴ다。

瞬間 學生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순간 학생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瞬間学生たちの顔が明るく明るくなった。

“점수 주시 ㄴ 거예요? 몇 점요?”

“點數 주실 거예요? 몇 點요?”

“점수 주실 거예요? 몇 점요?”

「スコアを与えますか？何点ですか？」

남학생 하나가 물어ㄴ다。

男學生 하나가 물었다。

남학생 하나가 물었다。

男子生徒一人が尋ねた。

“그거 ㄴ 쓰기에 달려ㄴ다。

“그건 쓰기에 달렸다。

“그건 쓰기에 달렸다。

「それは執筆に走った。

문제를 잘 못 풀겠으면 그쪽을 열심히 해 봐。

問題を 잘 못 풀겠으면 그쪽을 熱心히 해 봐。

문제를 잘 못 풀겠으면 그쪽을 열심히 해 봐。

問題をよく解けないならそちらを頑張ってみて。

그러고서 이시가미는 의자에 도로 앉아ᄁ다。

그러고서 이時加味는 椅子에 도로 앉았다。

그러고서 이시가미는 의자에 도로 앉았다。

そして石神は椅子に道に座った。

전원이 답안지를 뒤집어ᄁ다。

全員이 答案紙를 뒤집었다。

전원이 답안지를 뒤집었다。

全員が答案紙を覆した。

재빨리 뭐 ㄴ가를 쓰기 시작하는 학생도 있다。

재빨리 원가를 쓰기 始作하는 學生도 있다。

재빨리 원가를 쓰기 시작하는 학생도 있다。

いち早く何かを書き始める学生もいる。

모리오카도 그중 하나여ᄁ다。

모리오카도 그中 하나였다。

모리오카도 그중 하나였다。

盛岡もその一つだった。

이것으로 전원 통과다, 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해냈다。

이것으로 全員 通過다, 라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이것으로 전원 통과다, 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これで全員通過する、と石神は考えた。

백지 답안지에는 점수를 주 ㄴ 도리가 없지만 뭐라도 적어 넣으면 적당히 점수를 주 ㄴ 수 있다。

白紙 答案紙에는 點數를 줄 道理가 없지만 뭐라도 적어 넣으면 適當히 點數를 줄 수 있다。

백지 답안지에는 점수를 줄 도리가 없지만 뭐라도 적어 넣으면 적당히 점수를 줄 수 있다。

白紙解答紙には点数を与える道理がないが、何でも書き留めれば適度に点数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교감이 뭐라고 하 ㄴ지도 모르겠지만, 빠짐없이 통과시키 ㄴ다는 방침에는 찬성하 ㄴ 것이다。

交感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빠짐없이 通過시킨다는 方針에는 贊成

할 것이다.

교감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빠짐없이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찬성할 것이다.

交感が何と言うかもしれないが、もれなく通過させるという方針には賛成するだろう。

벨이 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나ㄴ다.

벨이 울리고 試験 時間が 끝났다.

벨이 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났다.

ベルが鳴り、試験時間が終わった。

몇몇 학생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몇몇 學生이 “時間を 조금만 더 주세요.

몇몇 학생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何人かの学生が「時間をもう少ししてください。

”라고 하는 바람에 이시가미는 5분을 더 주어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時加味는 5 分을 더 주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시가미는 5분을 더 주었다.

という風に石神はさらに 5 分を与えた。

답안지를 걷으ㄴ 후 교실을 나와ㄴ다.

答案紙를 걷은 後 教室을 나왔다。

답안지를 걷은 후 교실을 나왔다。

解答用紙を歩いた後、教室を出た。

문을 닫자마자 학생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해ㄴ다。

門을 닫자마자 學生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始作했다。

문을 닫자마자 학생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ドアを閉めるとすぐに学生たちが大声で騒ぎ始めた。

“살아ㄴ다。

“살았다。

“살았다。

「生きた。

”라는 소리도 들려ㄴ다。

”라는 소리도 들렸다。

”라는 소리도 들렸다。

という声も聞こえた。

교무실로 돌아오니 행정 직원이 기다리고 있어ㄴ다。

教務室로 돌아오니 行政 職員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무실로 돌아오니 행정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教室に戻って行政職員が待っていた。

“이시가미 선생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時加味 先生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시가미 선생님,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石上先生、お客様がお待ちしております。

“손님이, 나를요?”

“손님이, 나를요?”

“손님이, 나를요?”

「お客様、私ですか？」

그러자 행정 직원이 다가와 이시가미의 귀에 대고 속삭여ㄴ다.

그러자 行政 職員이 다가와 이時加味の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자 행정 직원이 다가와 이시가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すると行政職員が近づいて石神の耳に向かってささやいた。

“형사이ㄴ 것 같아요.

“刑事인 것 같아요.

“형사인 것 같아요.

「刑事だと思います。

“아……。

“아……。

“아……。

「あ… …。

“어떻게 하 ㅓ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どうするの？」

직원이 이시가미의 표정을 살 ㅓ다。

職員이 이時加味の 表情을 살 ㅓ다。

직원이 이시가미의 표정을 살 ㅓ다。

職員が石神の表情を生かした。

“어떡하 ㅓ,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어떡하 ㅓ,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어떡하 ㅓ,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どうしたら、待っているんですけど。

“그렇기 ㄴ 하지만……, 적당하 ㄴ 이유를 대서 돌려보내 ㄴ까요?”

“그렇긴 하지만……, 適當한 理由를 대서 돌려보낼까요?”

“그렇긴 하지만……, 적당한 이유를 대서 돌려보낼까요?”

「そうだけど……」 …、適切な理由を返して返しますか？」

이시가미는 쓴웃음을 지어 ㄴ다.

이時加味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시가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石神は苦笑をした。

“그러 ㄴ 필요 없어요.

“그럴 必要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それは必要ありません。

어느 방에 있습니까?”

어느 房에 있습니까?”

어느 방에 있습니까?”

どの部屋にいますか？」

“응접실에서 기다리시라고 해 ㄴ어요.

“應接室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응접실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応接室で待つと言いました。

“그럼 곧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가겠습니다.

「じゃあすぐに行きます。

이시가미는 답안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가슴에 끌어안은 채 교무실을 나섰다.

이時加味는 答案紙를 가방에 쑤셔 넣고 가슴에 끌어안은 채 教務室을 나섰다.

이시가미는 답안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가슴에 끌어안은 채 교무실을 나섰다.

石神は解答用紙を袋に入れて胸に抱きしめたまま教室を出た。

채점은 집에 가서 하_ㄴ 작정이어_ㄴ다.

採點은 집에 가서 할 作定이었다.

채점은 집에 가서 할 작정이었다.

採点は家に行ってやるつもりだった。

직원이 따라오려고 하기에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職員이 따라오려고 하기에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직원이 따라오려고 하기에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従業員が追いつこうとするに「一人で行っても大丈夫です。

”라며 돌려보내^ㄴ다。

”라며 돌려보냈다。

”라며 돌려보냈다。

」と返した。

직원의 본심을 알기 때문이다。

職員의 本心을 알기 때문이다。

직원의 본심을 알기 때문이다。

職員の本心を知るからだ。

형사가 무슨 일로 찾아와^ㄴ는지 알고 싶으^ㄴ 것이다。

刑事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형사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刑事が何が起こったのか知りたいのだ。

적당히 돌려보내면 어떨겠느냐고 물어보^ㄴ 것도 그렇게 하면 이시가미가 사정

을 설명해 주^ㄴ 거라고 여겨^ㄴ기 때문이^ㄴ 분명하다。

適當히 돌려보내면 어떨겠느냐고 물어본 것도 그렇게 하면 이時加味가 事情을 説明해 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임이 分明하다。

적당히 돌려보내면 어떨겠느냐고 물어본 것도 그렇게 하면 이시가미가 사정을 설명해 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適当に返せばどうだろうかと聞いたこともそうすれば石神が事情を説明してくれると思ったからであることが明らかだ。

응접실로 들어서니 예상대로 상대는 혼자 기다리고 있어ㄴ다。

應接室로 들어서니 豫想대로 相對는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응접실로 들어서니 예상대로 상대는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応接室に入ると予想通り相手は一人で待っていた。

구사나기라는 형사여ㄴ다。

驅使나기라는 刑事였다。

구사나기라는 형사였다。

草薙という刑事だった。

“이거, 학교까지 찾아와서 죄송하ㄴ니다。

“이거, 學校까지 찾아와서 罪悚합니다。

“이거, 학교까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これ、学校まで訪ねてすみません。

구사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ㄴ다。

驅使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구사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草薙が席で起きて頭を下げた。

“학교에 있는 줄은 어떻게 아셔ㄴ나요, 봄 방학이ㄴ데?”

“學校에 있는 줄은 어떻게 아셨나요, 봄 放學인데?”

“학교에 있는 줄은 어떻게 아셨나요, 봄 방학인데?”

「学校にいることはどのように知っていましたか、春休みののに？」

“실은 댁에 먼저 찾아가ㄴ었습니다。

“實은 宅에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실은 댁에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実はお宅に先に訪れました。

안 계시ㄴ 듯하기에 학교에 전화를 해 보아ㄴ지요。

안 계신 듯하기에 學校에 電話를 해 보았지요。

안 계신 듯하기에 학교에 전화를 해 보았지요。

いらないように学校に電話をしてみましたね。

그래ㄴ더니 추가 시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追加 試験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추가 시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そしたら追加試験があると言いましたね。

선생님들도 수고가 참 많습니다。

先生님들도 수고가 참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수고가 참 많습니다。

先生方もお疲れ様です。

“학생들보다야 낫지요。

“學生들보다야 낫지요。

“학생들보다야 낫지요。

「学生よりもいいですね。

오늘은 추가 시험이 아니라 재추가 시험이어ㄴ습니다。

오늘은 追加 試験이 아니라 再追加 試験이었습니다。

오늘은 추가 시험이 아니라 재추가 시험이었습니다。

今日は追加試験ではなく再追加試験でした。

“아하,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라면 어렵겠군요.

“아하, 그렇습니까? 先生님이 내시는 問題라면 어렵겠군요.

“아하,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내시는 문제라면 어렵겠군요.

「ああ、そうですか？先生が出す問題だと難しいですね。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なぜそう思いますか？」

이시가미가 형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어냈다.

이時加味가 刑事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이시가미가 형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石神が刑事の顔をまっすぐ見て尋ねた。

“아니, 뭐, 그냥…… 어쩐지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합니다.

“아니, 뭐, 그냥…… 어쩐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어쩐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いや、まあ、ただ… …なんだかそうだと思いました。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難しくありません。

다만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맹점을 살짝 찔러 주는 것뿐이죠.

다만 先入見에서 비롯되는 盲點을 살짝 찔러 주는 것뿐이죠.

다만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맹점을 살짝 찔러 주는 것뿐이죠.

ただ先入観から始まる盲点を軽く刺してくれるだけです。

“맹점……이라고요?”

“盲點……이라고요?”

“맹점……이라고요?”

「盲点… …って？」

“예를 들면 기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수 문제라든가 말이죠.

“例를 들면 幾何 問題처럼 보이지만 事實은 函數 問題라든가 말이죠.

“예를 들면 기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수 문제라든가 말이죠.

「例えば幾何問題のように見えますが、事實は関数問題とかそうです。

이시가미가 형사 맞은편에 앉았다.

이時加味가 刑事 맞은便에 앉았다.

이시가미가 형사 맞은편에 앉았다.

石神が刑事の向かいに座った。

“하기야 아무려면 어떨습니까。

“하기야 아무려면 어떨습니까。

“하기야 아무려면 어떨습니까。

「やっぱりどうしたらどうですか。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しかし、今日は何が起こったのですか？」

“아, 별일은 아니 **ㅂ**니다만,”

“아, 別일은 아닙니다만,”

“아, 별일은 아닙니다만,”

「あ、別日ではありませんが、」

구사나기는 자리에 앉으 **ㄴ** 채 수첩을 꺼내 **ㅅ**다。

驅使나기는 자리에 앉은 채 手帖을 꺼냈다。

구사나기는 자리에 앉은 채 수첩을 꺼냈다。

草薙は席に座ったまま手帳を取り出した。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 番 仔細히 듣고 싶어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듣고 싶어요。”

「その夜にあったことをもう一度詳しく聞きたいです。

“그날 밤이라면……。”

“그날 밤이라면……。”

“그날 밤이라면……。”

「その夜なら… … 。

“3월 10일 말이 ㅅ니다。”

“3 月 10 日 末입니다。”

“3월 10일 말입니다。”

「3 月 10 日末です。

잘 아시 ㅅ 테지만, 예의 사건이 일어나 ㅅ 날 밤이 ㅅ니다。

잘 아실 테지만, 例의 事件이 일어난 날 밤입니다。

잘 아실 테지만, 예의 사건이 일어난 날 밤입니다。

よく知っていますが、礼儀の出来事が起きた夜です。

“아라가와 강변에서 변사체가 발견되 ㅅ 사건을 말씀하시는군요。”

“아라가와 强辯에서 變死體가 發見된 事件을 말씀하시는군요。

“아라가와 강변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씀하시는군요。

「荒川川辺で変死体が発見された事件をおっしゃるんですね。

“아라가와 강이 아니라 구 에도강이 ㅆ니다。

“아라가와 江이 아니라 區 에渡江입니다。

“아라가와 강이 아니라 구 에도강입니다。

「荒川川ではなく旧江戸川です。

구사나기가 잠깐의 틈도 두지 않고 정정해 ㅆ다。

驅使나기가 잠깐의 틈도 두지 않고 訂正했다。

구사나기가 잠깐의 틈도 두지 않고 정정했다。

草薙がしばらくの隙も置かずに訂正した。

“전에 제가 하나오카 씨에 대해 물어보 ㅆ 적이 있죠, 그날 이웃집은 어때 ㅆ냐고
요?”

“前に 제가 하나오카 氏에 對해 물어본 적이 있죠, 그날 이웃집은 어땠냐
고요?”

“전에 제가 하나오카 씨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죠, 그날 이웃집은 어땠냐
고요?”

「私は花岡さん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が、その日の隣人はどうでし
たか？」

“생각나 ㅂ니다.

“생각납니다.

“생각합니다.

「考えます。

기억에 남으 ㄴ 만한 일은 없어 ㅅ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ㅅ지요.

記憶에 남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對答했지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記憶に残る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ようです、と答えましたね。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そうです。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억을 떠올려 주셔 ㅅ으면 하 ㅂ니다.

거기에 對해서 좀 더 詳細하게 記憶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억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それについてももう少し詳しく記憶を思い出してほしいです。

“뭐 ㄴ 말이 ㅂ니까? 아무 일도 없어 ㅅ는데 더 떠올리 ㄴ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더 떠올릴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더 떠올릴 게 뭐가 있겠어요?”

「何ですか？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もっと思い出すのは何ですか？」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딱히 의식하지 못하셔도 되지만 실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先生님께서도 딱히 意識하지 못하셨지만 實은 큰 意味가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딱히 의식하지 못하셨지만 실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いや、だから、先生は特に意識できなかったのですが、実は大きな意味がある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날 밤 일을 가능하^는 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요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일을 가능한 한 詳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일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その夜のことをできるだけ詳しく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시느 필요 없습니다.

事件과 關聯이 있는지 없는지는 判斷하실 必要가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事件と関係があるかどうかは判断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하아, 그래요……。

“河아, 그래요……。

“하아, 그래요……。

「はい、そうです……」 ... 。

이시가미가 자신의 목덜미를 손으로 문질러^ㄴ다。

이時加味가 自身の 목덜미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시가미가 자신의 목덜미를 손으로 문질렀다。

石神が自分の首筋を手でこすった。

“시간이 좀 흐르^ㄴ지라 쉽지 않으^ㄴ 줄은 아^ㄴ니다。

“時間이 좀 흐른지라 쉽지 않을 줄은 압니다。

“시간이 좀 흐른지라 쉽지 않을 줄은 압니다。

「時間が少し流れているので簡単ではないと思います。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ㄴ까 해서 이런 거^ㄴ 빌려 와^ㄴ습니다。

記憶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걸 빌려 왔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걸 빌려 왔습니다。

記憶を思い浮かべるのに役立つかと、こんなものを貸してきました。

구사나기 내미 ㄴ 것은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과 담당 학급의 시간표, 그리고 학교 스케줄 표여 ㅅ 다。

驅使나기 내민 것은 이時加味の 勤務 記録과 擔當 學級の 時間表, 그리고 學校 스케줄 票였다。

구사나기 내민 것은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과 담당 학급의 시간표, 그리고 학교 스케줄 표였다。

草薙出したのは石神の勤務記録と担当学級の時刻表、そして学校のスケジュール表だった。

행정 직원에게 빌려 오 ㄴ 모양이어 ㅅ 다。

行政 職員에게 빌려 온 模樣이었다。

행정 직원에게 빌려 온 모양이었다。

行政職員に貸してきた模様だった。

“이거 ㄴ 보시면 기억을 떠올리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으 ㄴ 까요?”

“이걸 보시면 記憶을 떠올리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시면 기억을 떠올리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요?”

「これを見れば記憶を思い浮かべるのが少しは簡単ではないでしょうか？」

형사가 눈웃음을 지어 ㅅ 다。

刑事가 눈웃음을 지었다。

형사가 눈웃음을 지었다。

刑事が笑いを浮かべた。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시가미는 형사의 목적이 무엇이냐지 알아차려냈다。

그 모습을 본 瞬間 이市加味는 刑事의 目的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시가미는 형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その姿を見た瞬間、石神は刑事の目的が何なのか気づいた。

둘러대고는 있지만, 구사나기가 알고 싶으냐 거냐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시가미의 알리바이이냐 것이다。

둘러대고는 있지만, 驅使나기가 알고 싶은 건 하나오카 야스코에 對해서가

아니라 이時加味の 알리바이인 것이다。

둘러대고는 있지만, 구사나기가 알고 싶은 건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서
가 아니라 이시가미의 알리바이인 것이다。

巡ってはいるが、草薙が知りたいのは花岡康子に対してではなく石神のアリ
バイなのだ。

왜 경찰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향해냈는지, 그 구체적이냐 근거가 짐작되지 않
아냈다。

왜 警察의 화살이 自身에게로 向했는지, 그 具體的인 根據가 斟酌되지 않
았다。

왜 경찰의 화살이 자신에게로 향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가 짐작되지 않았다。

なぜ警察の矢が自分に向かったのか、その具体的な根拠が推測されなかった。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있어ㄴ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있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있었다。

ちょうど気になることはあった。

역시 유가와 마나부의 행동이다。

亦是 有價와 마나部の 行動이다。

역시 유가와 마나부의 행동이다。

やはり湯川とマナブの行動だ。

어째ㄴ거나 형사의 목적이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거라면 그 나름의 대응을 해야만 하ㄴ다。

어쨌거나 刑事의 目的이 알리바이를 調査하는 거라면 그 나름의 對應을 해야만 한다。

어쨌거나 형사의 목적이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거라면 그 나름의 대응을 해야만 한다。

とにかく刑事の目的がアリバイを調査するのなら、それなりの対応をしなけ

ればならない。

이시가미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등을 쪽 펴는다。

이時加味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등을 쪽 폈다。

이시가미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등을 쪽 폈다。

石神は席を固定して座り、背中をずっと弾いた。

“그날은 유도부의 연습을 마치고 퇴근해오니 일곱 시쯤 집에 들어가
거닙니다。

“그날은 誘導附의 練習을 마치고 退勤했으니 일곱 時쯤 집에 들어갔을 겁
니다。

“그날은 유도부의 연습을 마치고 퇴근했으니 일곱 시쯤 집에 들어갔을 겁
니다。

「その日は柔道部の練習を終えて退勤したので、七時ごろ家に入っ
す。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나요?”

지난番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前回もそう言ってくれませんでしたか？」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そうです。

그리고 그 후로는 줄곧 집에 계셔ㄴ다고요.

그리고 그 後로는 줄곧 집에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줄곧 집에 계셨다고요.

そしてその後はずっと家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

“그게…… 아마 그래ㄴ으ㄴ 거ㄴ다.

“그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그랬을 겁니다.

「それが… …おそらくそうでした。

이시가미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해ㄴ다.

이時加味는 일부러 曖昧하게 말했다.

이시가미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했다.

石神はわざわざ曖昧に語った。

구사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여ㄴ다.

驅使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구사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草薙がどのように出てくるのか見たくてだった。

“집에 누구ㄴ가 찾아오지는 않았ㄴ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걸려와ㄴ다든가…
…。

“집에 누군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電話가 걸려왔다든가……。

“집에 누군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걸려왔다든가……。

「家に誰かが来ていませんか？それとも電話がかかってきたとか… …。

형사의 질문에 이시가미는 고개를 갸웃해ㄴ다。

刑事の質問に 此時加味는 고개를 갸웃했다。

형사의 질문에 이시가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刑事の質問に石神は頭をかき立てた。

“누구 집 말이 ㅂ니까, 하나오카 씨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ㄴ가요?”

“누구 집 末입니까, 하나오카 氏의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구 집 말입니까, 하나오카 씨의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誰の家ですか、花岡さんの家をおっしゃるのですか？」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 말씀이 ㅂ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先生님 宅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덕 말씀입니다.

「いや、それではなく先生のお言葉です。

“우리 집요?”

“우리 집요?”

“우리 집요?”

「私たちの家ですか？」

“그게 사건과 무슨 관계이냐까 의아하게 여기시는 게 당연하입니다。

“그게 事件과 무슨 關係일까 疑訝하게 여기시는 게 當然합니다。

“그게 사건과 무슨 관계일까 의아하게 여기시는 게 당연합니다。

「それが事件とどんな関係なのか疑問に思うのは当然です。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그날 밤 하나오카 씨 주변에서 일어나 일에 대해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 두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先生님에 對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그날 밤 하나오카 氏 周邊에서 일어난 일에 對해 可能な 한 分明하게 把握해 두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로서는 그날 밤 하나오카 씨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 두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先生について知りたいのではなく、私たちとしてはその夜、花岡さん周辺で
起こったことについてできるだけはっきりと把握しておきたいです。

궁색하 變명이군,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해 ㅅ다。

窮色한 辨명이軍, 하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궁색한 變명이군, 하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気になる言い訳だな、と石神は考えた。

물론 이 형사도 그 말이 억지스럽게 들리 ㄴ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 ㄴ 터여
ㅅ다。

勿論 이 刑事도 그 말이 억지스럽게 들릴 거라는 事實을 잘 알고 있을 터
였다。

물론 이 형사도 그 말이 억지스럽게 들릴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
였다。

もちろん、この刑事もその言葉が無理やり聞こえるという事実をよく知って
いるはずだった。

“그날 밤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아 ㅅ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その夜は誰も会わなかった。

전화도…… 아마 오지 않았을 겁니다.

電話도…… 아마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전화도…… 아마 오지 않았을 겁니다.

電話も… …おそらく来なかったでしょう。

평소에도 전화가 오는 법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平素에도 電話가 오는 法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평소에도 전화가 오는 법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普段も電話が来る方法はなかなかありませんからね。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そうですか？」

“죄송하군요.

“罪悚하군요.

“죄송하군요.

「すみません。

일부러 찾아오셔서 는데 도움이 되 을 만하 ㄴ 말씀을 못 드려서요.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못 드려서요.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못 드려서요.

わざわざ訪れてくれたのに役立つような言葉を聞かせてくれませんでした。

“아니 ㅂ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いいえ。

그런 거 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 ㅂ니다.

그런 건 神經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そんなのは気に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さて、」

구사나기가 근무 기록이 적힌 ㄴ 종이를 집어 들어 ㅅ다.

驅使나기가 勤務 記録이 적힌 종이를 집어 들었다.

구사나기가 근무 기록이 적힌 종이를 집어 들었다.

草薙が勤務記録が書かれた紙を拾い上げた。

“여기 보니까 선생님은 11일 오전에 수업을 쉬셔ㄴ더군요.

“여기 보니까 先生님은 11日 午前에 授業을 쉬셨더군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은 11일 오전에 수업을 쉬셨더군요.

「ここを見たら先生は11日午前に授業を休んだんですね。

출근을 오후에 하셔ㄴ던데 무슨 일이 있어ㄴ습니까?”

出勤을 午後에 하셨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근을 오후에 하셨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出勤を午後にしましたが、何が起こりましたか？」

“아, 그날 말이군요.

“아, 그날 末이군요.

“아, 그날 말이군요.

「あ、その日ですね。

별일은 아니어ㄴ습니다.

別일은 아니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別日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어ㄴ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지요.

体が少し良くなって休みましたね。

3학기 수업도 거의 끝나 ㄴ 터라 별 영향이 없으 ㄴ 것 같고 해서요.

3學期 授業도 거의 끝난 터라 別 影響이 없을 것 같고 해서요.

3학기 수업도 거의 끝난 터라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해서요.

3学期の授業もほとんど終わったから、あまり影響がないようです。

“병원에는 가서 ㄴ 습니까?”

“病院에는 가셨습니까?”

“병원에는 가셨습니까?”

「病院に行きましたか？」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어 ㄴ 어요.

“아니요, 그 程度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いいえ、それほど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오후에는 출근해 ㄴ 고요.

그래서 午後에는 出勤했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출근했고요。

それで午後は出勤しました。

“아까 행정 직원에게 물어냈더니 이시가미 선생님은 쉬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아까 行政 職員에게 물었더니 移是加味 先生님은 쉬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아까 행정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시가미 선생님은 쉬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さっき行政職員に聞いたら石上先生は休むことがほとんどないと言いましたね。

다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전에만 쉬신다고요。

다만 한 달에 한 번꼴로 午前에만 쉬신다고요。

다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전에만 쉬신다고요。

ただ、一ヶ月に一回で午前にだけ休むんですよ。

“휴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休暇를 그런 式으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休暇をそのように使っています。

“직원 말로는 선생님이 수학 연구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해ㅏ습니다.

“職員 말로는 先生님이 數學 研究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境遇가 種種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직원 말로는 선생님이 수학 연구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職員の言葉では、先生が数学研究をして夜をエビすることがしばしばあるようだ」と言いました。

그래서 그다음 날 오전에 쉬시는 듯하다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午前에 쉬시는 듯하다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오전에 쉬시는 듯하다고요.

それで次の日午前に休んでいるようです。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하ㄴ 기억은 있습니다.

“職員에게 그렇게 얘기한 記憶은 있습니다.

“직원에게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있습니다.

「職員にそのように話した記憶があります。

“그런데 그 빈도가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하던데 말이죠,”

“그런데 그 頻度가 大體로 한 달에 한 番 程度라고 하던데 말이죠,”

“그런데 그 빈도가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하던데 말이죠,”

「しかし、その頻度が概ね月に一度くらいだと言ったのですが」

구사나기가 다시 근무 기록을 내려다보아^ㄴ다。

驅使나기가 다시 勤務 記錄을 내려다보았다。

구사나기가 다시 근무 기록을 내려다보았다。

草薙が再び勤務記録を見下ろした。

“11일 전날, 즉 10일에도 선생님은 오전 수업을 쉬셔^ㄴ습니다。

“11 日 前날, 卽 10 日에도 先生님은 午前 授業을 쉬셨습니다。

“11일 전날, 즉 10일에도 선생님은 오전 수업을 쉬셨습니다。

「11 日前日、つまり 10 日にも先生は午前授業を休みました。

10일에는 평소에도 있던 일이라 직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ㄴ는데 그다음 날도 쉬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놀라^ㄴ다고 하더군요。

10 日에는 平素에도 있던 일이라 職員도 別로 神經을 쓰지 않았는데 그다음 날도 쉬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若干 놀랐다고 하더군요。

10일에는 평소에도 있던 일이라 직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다음 날도 쉬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랐다고 하더군요。

10 日にはいつもにあったことなので、スタッフもあまり気にしなかったの

に、次の日も休むという話を聞いて少し驚いたと言いましたね。

이틀 연속 쉬시는 거 ㄴ 여태껏 없어 ㄴ 던 일이라서요。

이틀 連續 쉬시는 건 여태껏 없었던 일이라서요。

이틀 연속 쉬시는 건 여태껏 없었던 일이라서요。

二日連続休むのはこれまで無かったことですから。

“그래 ㄴ 던가요……。

“그랬던가요……。

“그랬던가요……。

「そうでしたか…」 … 。

이시가미가 이마에 손을 대 ㄴ 다。

이時加味가 이마에 손을 댔다。

이시가미가 이마에 손을 댔다。

石神が額に手を差し伸べた。

신중하게 대답해야 하 ㄴ 국면이다。

慎重하게 對答해야 할 局面이다。

신중하게 대답해야 할 국면이다。

慎重に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局面だ。

“뭘, 별다른 이유는 없어ㅏ습니다.

“뭘, 別다른 理由는 없었습니다.

“뭘,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まあ、あまり理由はありませんでした。

말씀하시ㄴ 대로 10일은 전날 밤을 새워ㅏ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ㄴ 거ㅓ니
다.

말씀하신 대로 10 日은 前날 밤을 새웠기 때문에 午後에 出勤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일은 전날 밤을 새웠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한 겁니다.

おっしゃったように 10 日は前日の夜を明けたので午後に出勤したのです。

그런데 그날 밤에 열이 조금 나서 다음 날도 오전을 쉬게 되어ㅏ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熱이 조금 나서 다음 날도 午前을 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열이 조금 나서 다음 날도 오전을 쉬게 되었지요.

ところがその夜に熱が少し出て翌日も午前を休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셔ㅏ다 이 말이ㅓ니까?”

“그래서 午後에 出勤하셨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셨다 이 말입니까?”

「だから午後に出勤されたのです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 하고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여쌌다。

” 하고 이時加味는 고개를 끄덕였다。

” 하고 이시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と石神は首をうなずいた。

“흠……。

“흠……。

“흠……。

「うーん…」 … 。

구사나기가 의심에 가득하ㄴ 눈길로 이시가미를 바라보아쌌다。

驅使나기가 疑心에 가득한 눈길로 이時加味를 바라보았다。

구사나기가 의심에 가득한 눈길로 이시가미를 바라보았다。

草薙が疑いに満ちた目で石神を眺めた。

“제 말이 이상하ㄴ가요?”

“제 말이 異常한가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私の言葉は変ですか？」

“아니요, 오후에 출근해_ㄴ다면 몸 상태가 많이 나쁘지_ㄴ 않으셔_ㄴ나 보다 생각
해_ㄴ습니다。

“아니요, 午後에 出勤했다면 몸 狀態가 많이 나쁘진 않으셨나 보다 생각했
습니다。

“아니요, 오후에 출근했다면 몸 상태가 많이 나쁘진 않으셨나 보다 생각했
습니다。

「いや、午後に出勤したら体調があまり悪くなかったかと思いました。

다만 그런 정도라면 대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출근하지 않으_ㄴ까 싶어서요。

다만 그런 程度라면 大概는 조금 無理해서라도 出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다만 그런 정도라면 대개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ただそんなぐらいなら大抵はちょっと無理しても出勤しないかなと思います
よ。

전날 오전에도 쉬어_ㄴ는데 말이죠。

前날 午前에도 쉬었는데 말이죠。

전날 오전에도 쉬었는데 말이죠。

前日の午前にも休んでいました。

구사나기의 말에는 이시가미를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ㄴ다。

驅使나기의 말에는 이時加味를 露骨的으로 疑心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구사나기의 말에는 이시가미를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草薙の言葉には石神を露骨に疑うニュアンスが盛り込まれていた。

그런 식으로 이시가미의 기분을 좀 건드려 봐도 좋지 않으ㄴ까 하고 걱정해ㄴ는지도 몰라ㄴ다。

그런 式으로 이時加味の 氣分을 좀 건드려 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作定했는지도 몰랐다。

그런 식으로 이시가미의 기분을 좀 건드려 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지도 몰랐다。

そんな風に石神の気持ちをちょっと触ってみ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決めたのかもしれない。

그런 도발에 걸려드ㄴ 내가 아니지, 하고 이시가미는 쓴웃음을 지어ㄴ다。

그런 挑發에 걸려들 내가 아니지, 하고 이時加味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도발에 걸려들 내가 아니지, 하고 이시가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そんな挑發にかかってきた私じゃないし、と石神は苦笑をした。

“그렇게 생각하시 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일어나 ㄴ 수가 없어 ㅏ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狀態가 안 좋아서 到底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상태가 안 좋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そう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時は状態が良くなかったのでとても起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의외로 편안해지더군요。

그런데 點心때가 되자 意外로 便安해지더군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의외로 편안해지더군요。

ところがランチの時には意外と快適になりましたね。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출근하 ㄴ 거 ㅓ니다。

그래서 조금 無理해서 出勤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출근한 겁니다。

それで少し無理して出勤したのです。

물론 말씀하시 ㄴ 대로 전날 쉬어 ㄴ다는 부담도 있어 ㄴ고 말이죠.

勿論 말씀하신 대로 前날 쉬었다는 負擔도 있었고 말이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날 쉬었다는 부담도 있었고 말이죠.

もちろん、おっしゃった通り前日休んだという負担もありました。

이시가미가 설명하는 내내 구사나기는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어 ㄴ다.

이時加味가 説明하는 내내 驅使나기는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시가미가 설명하는 내내 구사나기는 그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石神が説明するずっと草薙はその目をのぞいていた。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 ㄴ 때는 반드시 눈에 당황하 ㄴ 기색이 나타나는 법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듯 날카롭고 집요하 ㄴ 시선이어 ㄴ다.

容疑者が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눈에 唐慌한 氣色이 나타나는 法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듯 날카롭고 執拗한 視線이었다.

용의자가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눈에 당황한 기색이 나타나는 법이라
고 믿기라도 하는 듯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이었다.

容疑者が嘘をつくときは、必ず目に慌てた氣配が現れる方法だと信じること
もできるように鋭く執拗な視線だった。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하기야 평소에 유도로 단련하셔오니 웬만한 病은 한나절이면 떨쳐 버릴 수
있으 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平素에 誘導로 鍛鍊하셨으니 웬만한 病은 한나절이면 떨쳐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평소에 유도로 단련하셨으니 웬만한 病은 한나절이면 떨쳐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ということで普段柔道で鍛えられたので、どんな病気でもハンナ節であれば
震え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직원도 이시가미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여태껏 들어 보 ㄴ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職員도 이時加味 先生님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여태껏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하더군요。

직원도 이시가미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는 말을 여태껏 들어 본 적이 없다
고 하더군요。

職員も石上先生が痛いという言葉存分に聞いたことがないと言いました
ね。

“그려 ㄴ 리 있겠습니까。

“그려 理 있겠습니까。

“그려 리 있겠습니까。

「そんなことありますか。

저도 감기 정도는 걸려 ㄴ니다。

저도 感氣 程度는 걸립니다。

저도 감기 정도는 걸립니다。

私も風邪の程度はかかります。

“그게 우연히도 그날이어 ㄴ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偶然히도 그날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우연히도 그날이었다는 말씀이군요。

「それが偶然にもその日だったという御言葉ですね。

“우연히도, 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저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 ㄴ데요。

“偶然히도, 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저로서는 아무 意味도 없는 날인데요。

“우연히도, 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저로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인데요。

「偶然に、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私としては何の意味もない日です。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そうですね。

구사나기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었다.

驅使나기는 手帖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사나기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草薙は手帳を覆って席から立ち上がった。

“바쁘시는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肺를 끼쳐 罪悚합니다.

“바쁘신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忙しいのですが、ご迷惑をおかけして申し訳ありません。

“저야말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군요.

“저야말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罪悚하군요.

“저야말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군요.

「私こそ役に立たなくてすみません。

“아니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いいえ。

이거 ㄴ로 충분하 ㄴ니다.

이걸로 充分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これで十分です。

두 사람은 응접실을 나와 ㅅ다.

두 사람은 應接室을 나왔다.

두 사람은 응접실을 나왔다.

二人は応接室を出た。

이시가미가 형사를 현관까지 배웅해 ㅅ다.

이時加味가 刑事를 玄關까지 배웅했다.

이시가미가 형사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石神が刑事を玄関まで見送った。

“유가와는 그 뒤로 만나시 ㄴ 적이 있습니까?”

“有價와는 그 뒤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유가와는 그 뒤로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湯川はその後に出会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걸어가면서 구사나기가 물어왔다.

걸어가면서 驅使나기가 물었다.

걸어가면서 구사나기가 물었다.

歩きながら草薙が尋ねた。

“아니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봐드립니다.

“아니요, 그 後로는 한 番도 못 봤습니다.

“아니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いや、その後は一度も見られませんでした。

형사님은 자주 만나시죠?”

刑事님은 자주 만나시죠?”

형사님은 자주 만나시죠?”

刑事はよく会いますか？」

“그게, 저도 바빠서 최근에는 못 만나는데요.

“그게, 저도 바빠서 最近에는 못 만났어요.

“그게, 저도 바빠서 최근에는 못 만났어요.

「それが、私も忙しくて最近は会えませんでした。

셋이 같이 한번 만나면 어떠 **ㄴ**까요? 유가와에게 듣자 하니 이시가미 선생께서 술을 상당히 좋아하시 **ㄴ** 다던데요。

셋이 같이 한뼘 만나면 어떨까요? 有價와에게 듣자 하니 이時加味 先生께서 술을 相當히 좋아하신다던데요。

셋이 같이 한번 만나면 어떨까요? 유가와에게 듣자 하니 이시가미 선생께서도 술을 상당히 좋아하신다던데요。

三人が一緒に一度会ったらどうでしょうか？湯川に聞こうとしたら石上先生もお酒が大好きです。

구사나기가 술잔을 기울이는 시늉을 해 **ㅅ** 다。

驅使나기가 술盞을 기울이는 시늉을 했다。

구사나기가 술잔을 기울이는 시늉을 했다。

草薙が酒杯を傾ける試練をした。

“그야 좋습니다만, 사건이 해결되 **ㄴ** 다음이 낫지 않으 **ㄴ** 까요?”

“그야 좋습니다만, 事件이 解決된 다음이 낫지 않을까요?”

“그야 좋습니다만, 사건이 해결된 다음이 낫지 않을까요?”

「それでいいのですが、事件が解決された次がい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저희라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거 **ㄴ** 아니 **ㅂ** 니다。

“저희라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라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私たちと休んで仕事だけ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連絡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後でご連絡いたします。

“그러 ㄴ가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そうですか? では待ちます。

“네, 꼭 연락드리죠.

“네, 꼭 連絡드리죠.

“네, 꼭 연락드리죠.

「はい、ぜひご連絡いたします。

그렇게 말하고 구사나기는 정면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ㄴ다.

그렇게 말하고 驅使나기는 正面 玄關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구사나기는 정면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そう言って草薙は正面玄関を通じて外に出た。

이시가미는 복도로 돌아와 창가에서 형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아^ㅅ다.

이時加味는 複道로 돌아와 窓가에서 刑事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시가미는 복도로 돌아와 창가에서 형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石神は廊下に戻り、窓際で刑事の後姿を眺めた。

구사나기는 휴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어^ㅅ다.

驅使나기는 携帶 電話로 누군가와 通話하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휴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草薙は携帯電話で誰かと通話していた。

그의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아^ㅅ다.

그의 表情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彼の表情までは見えなかった。

형사가 알리바이를 조사하러 와^ㅅ다…….

刑事가 알리바이를 調査하러 왔다…….

형사가 알리바이를 조사하러 왔다…….

刑事がアリバイを調べに来た… …。

이시가미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이時加味는 그 意味를 생각해 보았다.

이시가미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石神はその意味を考えてみた。

의심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 ㄴ 데는 그러 ㄴ 만하 ㄴ 근거가 있으 ㄴ 것이다.

疑心の 화살을 自身에게 돌린 데는 그럴 만한 根據가 있을 것이다.

의심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린 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疑いの矢を自分に向けたのにはそのような根拠があるだろう。

그게 대체 뭐 ㄴ까。

그게 代替 될까。

그게 대체 될까。

それが一体何だ。

지난번에 구사나기를 만나 ㄴ으 ㄴ 때는 그렇지 않아 ㄴ던 것 같으 ㄴ 데。

지난番에 驅使나기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구사나기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前回駆けつけに会った時はそうではなかったようだが。

다만 오늘 그가 한 질문으로 보아 구사나기는 아직 사건의 본질을 눈치채지 못하_ㄴ 듯하다。

다만 오늘 그가 한 質問으로 보아 驅使나기는 아직 事件의 本質을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다만 오늘 그가 한 질문으로 보아 구사나기는 아직 사건의 본질을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ただ、今日彼がした質問で見て、草薙はまだ事件の本質に気づいていないようだ。

진상과는 거리가 머_ㄴ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真相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진상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真相とは距離が遠いところで迷っているのだ。

그는 이시가미에게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에 어떤 가능성을 느껴_ㄴ는지도 모르_ㄴ다。

그는 此時加味에게 알리바이가 없다는 事實에 어떤 可能性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시가미에게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에 어떤 가능성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彼は石神にアリバイがないという事実どんな可能性を感じたのかもしれない

い。

하지만 그거 ㄴ 상관없다。

하지만 그건 相關없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다。

だがそれは関係ない。

거기까지는 이미 계산해 두어 ㄴ다。

거기까지는 이미 計算해 두었다。

거기까지는 이미 계산해 두었다。

そこまではすでに計算しておいた。

문제는……。

問題は……。

문제는……。

問題は… …。

유가와 마나부의 얼굴이 떠올라 ㄴ다。

有價와 마나部の 얼굴이 떠올랐다。

유가와 마나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湯川とマナブの顔が浮かんた。

그 사내가 어디까지 냄새를 맡아냈으니까。

그 사내가 어디까지 냄새를 맡았을까。

그 사내가 어디까지 냄새를 맡았을까。

その社内がどこまでにおいを引き受けたのだろうか。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을 어디까지 파헤치려 하는가。

그리고 그 事件의 真相을 어디까지 파헤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을 어디까지 파헤치려 하는가。

そしてその事件の真相をどこまで掘り下ろそうとするのか。

어제 야스코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릇하ㄴ 말을 들어ㄴ다。

어제 야스코와 電話 通話を 하다가 야릇한 말을 들었다。

어제 야스코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릇한 말을 들었다。

昨日、ヤスコと電話で通話をして厄介な話を聞いた。

유가와가 그녀에게 이시가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ㄴ다는 것이다。

有價와가 그女에게 이時加味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유가와가 그녀에게 이시가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湯川が彼女に石神をどう思うかと尋ねたというのだ。

그는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ㄴ 것 같다。

그는 이時加味가 야스코에게 好感이 있다는 事實을 꿰뚫어 본 것 같다.

그는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 같다.

彼は石神が靖子に好感があるという事実を貫いて見たようだ。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주고받은 말을 되새겨 보아^ㄴ지만 그녀에게 향하^ㄴ 마음을 드러내 보이^ㄴ 만큼 부주의하^ㄴ 말을 하^ㄴ 기억이 전혀 없어^ㄴ다.

이時加味는 有價와와 주고받은 말을 되새겨 보았지만 그女에게 向한 마음을 드러내 보일 만큼 不注意한 말을 한 記憶이 全然 없었다.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주고받은 말을 되새겨 보았지만 그녀에게 향한 마음을 드러내 보일 만큼 부주의한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石神は湯川とやりとりした言葉を振り返ってみたが、彼女に向かった心を現わせるほど不注意な言葉をした記憶が全くなかった。

그런데 그 물리학자는 어떻게 눈치를 채^ㄴ 것이^ㄴ까.

그런데 그 物理學者는 어떻게 눈치를 찬 것일까.

그런데 그 물리학자는 어떻게 눈치를 찬 것일까.

ところがその物理学者はどのように気づいたのだろうか。

돌아서서 교무실로 걸음을 옮기던 도중 예의 행정 직원과 마주쳐^ㄴ다.

돌아서서 教務室로 걸음을 옮기던 途中 例의 行政 職員과 마주쳤다.

돌아서서 교무실로 걸음을 옮기던 도중 예의 행정 직원과 마주쳤다.

振り返って教室に歩き回っていた途中、礼儀の行政職員と向き合った。

“아니, 형사는요?”

“아니, 刑事는요?”

“아니, 형사는요?”

「いや、刑事は？」

“불일을 마치고 방금 돌아가ㄴ어요。”

“불일을 마치고 方今 돌아갔어요。”

“불일을 마치고 방금 돌아갔어요。”

「会い終えて、先ほど帰りました。」

“선생님은 퇴근 안 하세요?”

“先生님은 退勤 안 하세요?”

“선생님은 퇴근 안 하세요?”

「先生は退勤しないでください？」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잠깐 하 ㄴ 일이 남아서요。

잠깐 할 일이 남아서요。

잠깐 할 일이 남아서요。

しばらくすることが残っています。

형사가 왜 찾아와 ㄴ는지 알고 싶어 하는 직원을 모르 ㄴ 채하고 이시가미는 잔
걸음으로 교무실로 돌아와 ㄴ다。

刑事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職員을 모르 ㄴ 채하고 移是加味는 잔
걸음으로 教務室로 돌아왔다。

형사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직원을 모르 ㄴ 채하고 이시가미는 잔
걸음으로 교무실로 돌아왔다。

刑事がなぜ訪れてきたのか知りたくなる職員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石神はジ
ャム歩きで教室に戻った。

자기 자리에 앉으 ㄴ 그는 책상 밑을 들여다보아 ㄴ다。

自己 자리에 앉은 그는 冊床 밑을 들여다보았다。

자기 자리에 앉은 그는 책상 밑을 들여다보았다。

自分の席に座った彼は机の下を覗いた。

그리고 거기에 보관해 두 ㄴ 파일 몇 권을 꺼내 ㄴ다。

그리고 거기에 保管해 둔 파일 몇 卷을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보관해 둔 파일 몇 권을 꺼냈다.

そしてそこに保管しておいたファイル数冊を取り出した。

그 파일에는 그가 몇 년 동안 어떤 수학의 난제를 붙들고 씨름해 온 성과의 일부가 담겨 있어ㄴ다.

그 파일에는 그가 몇 年 동안 어떤 數學의 難題를 붙들고 씨름해 온 成果의 一部分가 담겨 있었다。

그 파일에는 그가 몇 년 동안 어떤 수학의 난제를 붙들고 씨름해 온 성과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そのファイルには、彼が数年間何らかの数学の難題を握り、賭けてきた成果の一部が含まれていた。

그것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그는 교무실을 나서ㄴ다.

그것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그는 教務室을 나섰다。

그것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그는 교무실을 나섰다。

それらを袋に入れて持って彼は教室を出た。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아ㄴ나。

“지난番에도 말하지 않았나。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過去にも言わなかったか。

고찰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관찰하 ㄴ 내용이라고 말이야.

考察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觀察한 內容이라고 말이야.

고찰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관찰한 내용이라고 말이야.

考察というのは考えて観察した内容だな。

실험 결과가 예상대로 나와 다행이라고 말하는 거 ㄴ 단순하 ㄴ 감상에 지나지
않아。

實驗 結果가 豫想대로 나와 多幸이라고 말하는 건 單純한 鑑賞에 지나지
않아。

실험 결과가 예상대로 나와 다행이라고 말하는 건 단순한 감상에 지나지
않아。

実験結果が予想通り出て幸いだと言うのは単純な感想に過ぎない。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 ㄴ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豫想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

しかも最初から最後まですべてが予想通りになったわけでもない。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으로 뭐 ㄴ가 발견해야 하는 거야.

實驗하는 過程에서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發見해야 하는 거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발견해야 하는 거야.

実験する過程で自分なりに何かを発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

생각을 좀 더 해서 쓰도록。

생각을 좀 더 해서 쓰도록。

생각을 좀 더 해서 쓰도록。

考えをもっとして書くように。

유가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ㄴ 보기 드무 ㄴ 일이어 ㅅ 다。

有價와가 이렇게 火를 내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유가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湯川がこのように怒るのは珍しいことだった。

그는 녀을 놓고 서 있는 학생에게 리포트 용지를 건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어 ㅅ 다。

그는 녀을 놓고 서 있는 學生에게 리포트 用地를 건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녀을 놓고 서 있는 학생에게 리포트 용지를 건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彼は精神を置いて立っている学生にレポート用紙を渡し、切レゾレ首を振っ
た。

리포트 용지를 받아 드 ㄴ 학생이 고개를 꾸벅하고서 연구실을 나가 ㅅ 다。

리포트 用紙를 받아 든 學生이 고개를 꾸벅하고서 研究室을 나갔다。

리포트 용지를 받아 든 학생이 고개를 꾸벅하고서 연구실을 나갔다。

レポート用紙を受け取った生徒が頭を踏んで研究室を出た。

“자네도 화를 낼 때가 다 있군。

“자네도 火를 낼 때가 다 있군。

“자네도 화를 낼 때가 다 있군。

「君も怒る時が全部あるね。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사나기가 말해^ㄴ다。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驅使나기가 말했다。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사나기가 말했다。

じっとその姿を見守った草薙が言った。

“화를 내는 게 아니야。

“火를 내는 게 아니야。

“화를 내는 게 아니야。

「怒るのではない。

실험하는 자세가 아무지지 못해서 지도하^ㄴ 것뿐이지。

實驗하는 姿勢가 아무지지 못해서 指導한 것뿐이지。

실험하는 자세가 아무지지 못해서 지도한 것뿐이지。

実験する姿勢が気にならずに指導しただけだ。

유가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그 컵에 인스턴트커피를 타기 시작해ㄴ다。

有價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그 컵에 인스턴트커피를 타기 始作했다。

유가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머그 컵에 인스턴트커피를 타기 시작했다。

湯川は席で立ち上がり、マグカップに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に乗り始めた。

“그래서, 그 후에 뭐ㄴ가 알아내ㄴ어?”

“그래서, 그 後에 뭔가 알아냈어?”

“그래서, 그 후에 뭔가 알아냈어?”

「それで、その後何か調べた？」

“이시가미의 알리바이를 조사해 봐ㄴ지……라기보다는 본인을 만나서 물어봐
ㄴ어。

“이時加味の 알리바이를 調査해 봤지……라기보다는 本人을 만나서 물어봤
어。

“이시가미의 알리바이를 조사해 봤지……라기보다는 본인을 만나서 물어봤
어。

「石神のアリバイを調べてみた……」 ……というよりは本人に会って聞いてみ
た。

“정면 공격이냐?”

“正面 攻撃인가?”

“정면 공격인가?”

「正面攻撃か？」

유가와는 큼지막하ㄴ 머그 컵을 손에 드ㄴ 채 개수대를 등지고 돌아서ㄴ다。

有價와는 큼지막한 머그 컵을 손에 든 채 改修臺를 등지고 돌아섰다。

유가와는 큼지막한 머그 컵을 손에 든 채 개수대를 등지고 돌아섰다。

湯川とは大規模なマグカップを手にしたまま改修台を背負って帰った。

“그래서, 본인의 반응은?”

“그래서, 本人의 反應은?”

“그래서, 본인의 반응은?”

「だから、本人の反応は？」

“그날 밤에는 내내 집에 있어ㄴ다는 거야。

“그날 밤에는 내내 집에 있었다는 거야。

“그날 밤에는 내내 집에 있었다는 거야。

「その夜はずっと家にいたというの。

그러자 유가와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어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すると湯川が顔を刺して首を振った。

“반응이 어때냐고 물어.”

“反應이 어땠냐고 물었어.

“반응이 어땠냐고 물었어.

「反応がどうだったかと尋ねた。

뭐라고 대답해는지 물어 게 아니야.

뭐라고 對答했는지 물은 게 아니야.

뭐라고 대답했는지 물은 게 아니야.

何と答えたのか、水はない。

“반응이라…… 뭐, 딱히 당황하는 것 같지는 않아.”

“反應이라…… 뭐, 딱히 唐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반응이라…… 뭐, 딱히 당황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反応だ… …まあ、特にパニックになるようではなかった。

형사가 기다리 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서 와 으 테니
까。

刑事가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어느 程度 가라앉혀서 왔을 테니까。

형사가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서 왔을 테니까。

刑事が待つという話を聞いて心のある程度沈んできたから。

“알리바이를 왜 묻는지 의아해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왜 묻는지 疑訝해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왜 묻는지 의아해하지 않아?”

「アリバイをなぜ尋ねるのか疑問に思わない？」

“아니, 이유는 묻지 않더군。

“아니, 理由는 묻지 않더군。

“아니, 이유는 묻지 않더군。

「いや、理由は問わなかったな。

나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아ㄴㄴ으니까。

나도 直接的으로 묻는 方式을 取하지는 않았으니까。

나도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니까。

私も直接的に尋ねる方法をとらなかったから。

“이시가미라면 알리바이를 물어보ㄴ 거라고 예상해ㄴㄴ지도 몰라。

“이時加味라면 알리바이를 물어볼 거라고 豫想했을지도 몰라。

“이시가미라면 알리바이를 물어볼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몰라。

「石上ならアリバイを聞くと予想したかもしれない。

유가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어ㄴ다。

有價와假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유가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湯川が一言のように呟いてからコーヒーをした募金留めた。

“그날 밤에 ㄴ 내내 집에 있어ㄴ다고 해ㄴ단 말이지?”

“그날 밤엔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단 말이지?”

“그날 밤엔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단 말이지?”

「あの夜はずっと家にいたって言ったんだろ？」

“그리고 열이 나는 바람에 다음 날은 오전 수업을 쉬어ㄴ대。

“그리고 熱이 나는 바람에 다음 날은 午前 授業을 쉬었다。

“그리고 열이 나는 바람에 다음 날은 오전 수업을 쉬었다。

「そして熱が出る風に次の日は午前授業を休んだ。

구사나기는 학교 행정 직원한테 받으 ㄴ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을 책상 위에 놓
아ㄴ다。

驅使나기는 學校 行政 職員한테 받은 이時加味の 勤務 記錄을 冊床 위에
놓았다。

구사나기는 학교 행정 직원한테 받은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을 책상 위에
놓았다。

草薙は学校行政職員から受けた石神の勤務記録を机の上に置いた。

유가와가 구사나기 옆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으 ㄴ 후 그 근무 기록을 집어 들어
ㅅ다。

有價와假 驅使나기 옆으로 다가와椅子上에 앉은 後 그 勤務 記錄을 집어 들
었다。

유가와가 구사나기 옆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은 후 그 근무 기록을 집어 들
었다。

湯川が草薫の横に近づいて椅子に座った後、その勤務記録を拾い上げた。

“다음 날 오전이라……。

“다음 날 午前이라……。

“다음 날 오전이라……。

「翌日の午前だ… …。

“범행 후 이것저것 사후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아ㅅ겠어? 그래서 학교에 못 가 ㄴ
거야。

“犯行 後 이것저것 死後 處理를 해야 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學校에 못 간

거야。

“범행 후 이것저것 사후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학교에 못 간

거야。

「犯行後、あれこれ事後処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だから学校に行けなかった。

“도시락 가게 여자 쪽은 어때?”

“도시락 가게 女子 쪽은 어때?”

“도시락 가게 여자 쪽은 어때?”

「お弁当屋の女の方はどうですか？」

“철저히 조사해 ㄸ지。

“徹底히 調査했지。

“철저히 조사했지。

「徹底的に調べた。

11일에 하나오카 야스코는 평소대로 출근해 ㄸ어。

11 日에 河나오카 야스코는 平素대로 出勤했어。

11일에 하나오카 야스코는 평소대로 출근했어。

11 日に花岡康子はいつものように出勤した。

딸도 학교에 가_ㄴ으_ㄴ뿐더러 지각도 하지 않아_ㄴ고。

딸도 學校에 갔을뿐더러 知覺도 하지 않았고。

딸도 학교에 갔을뿐더러 지각도 하지 않았고。

娘も学校に行っただけで遅刻もしなかったし。

유가와가 근무 기록을 책상에 놓더니 팔짱을 끼어_ㄴ다。

有價와假 勤務 記錄을 冊床에 놓더니 팔짱을 끼었다。

유가와가 근무 기록을 책상에 놓더니 팔짱을 끼었다。

湯川が勤務記録を机に置くと腕を組んだ。

“사후 처리라면 뭐가 있어_ㄴ으_ㄴ까?”

“死後 處理라면 뭐가 있었을까?”

“사후 처리라면 뭐가 있었을까?”

「事後処理なら何があったのか？」

“그야 흉기를 처분하_ㄴ다든가……。

“그야 凶器를 處分한다든가……。

“그야 흉기를 처분한다든가……。

「そんな凶器を処分するとか……」 ……。

“그거_ㄴ 하는 데 열 시간 넘게 걸리_ㄴ까?”

“그걸 하는 데 열 時間 넘게 걸릴까?”

“그걸 하는 데 열 시간 넘게 걸릴까?”

「それをするのに 10 時間以上かかる？」

“왜 열 시간이 ㄴ데?”

“왜 열 時間인데?”

“왜 열 시간인데?”

「なぜ開く時間なの？」

“범행이 10일 밤이어 ㄴ잖아。

“犯行이 10 日 밤이었잖아。

“범행이 10일 밤이었잖아。

「犯行が 10 日夜だったじゃない。

다음 날 오전까지 쉬어 ㄴ다는 거 ㄴ 사후 처리에 열 시간 이상 걸려 ㄴ다는 뜻이
야。

다음 날 午前까지 쉬었다는 건 死後 處理에 열 時間 以上 걸렸다는 뜻이
야。

다음 날 오전까지 쉬었다는 건 사후 처리에 열 시간 이상 걸렸다는 뜻이
야。

翌日午前まで休んだというのは事後処理に 10 時間以上かかったという意味

だ。

“잠자 ㄴ 시간도 필요하잖아。

“잠잘 時間도 必要하잖아。

“잠잘 시간도 필요하잖아。

「寝る時間も必要じゃない。

“범행을 저지르고서 사후 처리도 끝나기 전에 자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그

것 때문에 잠자 ㄴ 시간이 없어 ㄴ다고 근무를 쉬지도 않아。

“犯行을 저지르고서 死後 處理도 끝나기 前に 자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잘 時間이 없었다고 勤務를 쉬지도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서 사후 처리도 끝나기 전에 자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었다고 근무를 쉬지도 않아。

「犯行を犯して事後処理も終わる前に寝る人がいるの？そしてそのせいで

寝る時間がなかったと仕事を休まない。

대개는 무리를 해서라도 출근하지。

大概는 무리를 해서라도 出勤하지。

대개는 무리를 해서라도 출근하지。

通常は無理をしても出勤しない。

“그러니까, 쉬 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ㄴ다 이거군.

“그러니까, 쉼 수밖에 없는 理由가 있었다 이거軍.

“그러니까, 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거군.

「だから、休むしかない理由があったこれだね。

“그래.

“그래.

“그래.

「え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 理由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その理由を考えてみようということだ。

유가와가 다시 머그 컵을 집어 들어 ㄴ다.

有價가가 다시 머그 컵을 집어 들었다.

유가와가 다시 머그 컵을 집어 들었다.

湯川が再びマグカップを拾った。

구사나기는 책상 위에 있던 근무 기록을 원래대로 잘 접어 ㄴ다.

驅使나기는 冊床 위에 있던 勤務 記錄을 元來대로 잘 접었다.

구사나기는 책상 위에 있던 근무 기록을 원래대로 잘 접었다.

草薙は机の上にあった勤務記録を元々よく折りたたんだ。

“오늘은 자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오늘은 자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오늘은 자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今日は君にぜひ聞いてみたいことがある。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되 ㄴ 계기 말이야.

이時加味를 疑心하게 된 契機 末이야.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된 계기 말이야.

石神を疑う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だ。

그거 ㄴ 알아야겠어.

그걸 알아야겠어.

그걸 알아야겠어.

それ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

“이상하 ㄴ 거 ㄴ 묻는군.

“異常한 걸 묻는군.

“이상한 걸 묻는군.

「奇妙なことを聞くね.

자네는 이시가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도 혼자서 알아내잖아.

자네는 이時加味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好意를 품고 있다는 事實도 혼자서 알아냈잖아.

자네는 이시가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도 혼자서 알아냈잖아.

君は石神が花岡康子に好意を抱いているという事実も一人で分かったじゃないか.

그럼 그 점에 관해서는 내게 더 물을 필요가 없으ㄴ 데ㄴ 데?”

그럼 그 點에 關해서는 내게 더 물을 必要가 없을 텐데?”

그럼 그 점에 관해서는 내게 더 물을 필요가 없을 텐데?”

それでは、その点に関しては私にもっと頼む必要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

내게도 나름의 입장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내게도 나름의 立場이란 게 있단 말이야.

내게도 나름의 입장이란 게 있단 말이야.

私にそれなりの立場ということがあるんだよ。

상사에게 보고하는데 그저 어림짐작으로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되어 ㄴ다고 할 수 는 없잖아.

上司에게 報告하는데 그저 어림斟酌으로 이時加味를 疑心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상사에게 보고하는데 그저 어림짐작으로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

上司に報告するのにただ幼い推測で石神を疑うようになったとは言えない。

“하나오카 야스코 주변을 조사하다가 이시가미라는 수학 선생이 부각되어 ㄴ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하나오카 야스코 周邊을 調査하다가 이시가미라는 數學 先生이 浮刻되었다, 그 程度면 充分하지 않아?”

“하나오카 야스코 주변을 조사하다가 이시가미라는 수학 선생이 부각되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花岡康子周辺を調べて、石神という数学先生が浮き彫りになった、それくらいで十分ではない？」

“그렇게 보고해 ㄴ지.

“그렇게 報告했지。

“그렇게 보고했지。

「そう報告したよ。

그러고서 이시가미와 하나오카 야스코의 관계를 조사해 봐^ㄴ어。

그러고서 이時加味와 河나오카 야스코의 關係를 調査해 봤어。

그러고서 이시가미와 하나오카 야스코의 관계를 조사해 봤어。

そこで石上と花岡康子の關係を調べてみた。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하^ㄴ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으^ㄴ다

수가 없더라는 말이야。

하지만 只今으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證據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말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으

수가 없더라는 말이야。

だが今としては二人の間に密接な關係があるという証拠を見つけることがで

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

그러자 유가와가 머그 컵을 손에 쥐^ㄴ 채 몸을 흔들면서 웃어^ㄴ다。

그러자 有價와가 머그 컵을 손에 쥔 채 몸을 흔들면서 웃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머그 컵을 손에 쥔 채 몸을 흔들면서 웃었다。

すると湯川がマグカップを手に握ったまま体を振りながら笑った。

“하긴 그러 ㄴ 거야。

“하긴 그럴 거야。

“하긴 그럴 거야。

「私はそうです。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どういう意味ですか、それは？」

“깊으 ㄴ 뜻은 없어。

“깊은 뜻은 없어。

“깊은 뜻은 없어。

「深い意味はない。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 ㄴ 거라는 얘기이 ㄴ 뿐。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얘기일 뿐。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얘기일 뿐。

彼らの間に何もないだろうという話だけ。

아무리 조사해 봐도 나오지 않으ㄴ 거라고 단언하ㄴ 수 있어.

아무리 調査해 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斷言할 수 있어.

아무리 조사해 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

いくら調べてみても出てこないと断言できる。

“남의 일처럼 그러지 마.

“男의 일처럼 그러지 마.

“남의 일처럼 그러지 마.

「他人の仕事のようにしないでください。

우리 반장 같으ㄴ 사람은 벌써 이시가미에게 흥미를 잃으려고 하ㄴ 단 말이야.

우리 班長 같은 사람은 벌써 이時加味에게 興味를 잃으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 반장 같은 사람은 벌써 이시가미에게 흥미를 잃으려고 한단 말이야。

私たちの班長のような人は、すでに石神に興味を失うつもりだ。

이대로 가다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어져.

このまま行く私の勝手に動くのも大変になって。

그래서 자네가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네가 이時加味를 疑心하게 된 理由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네가 이시가미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それで、あなたが石神を疑うようになった理由を知りたいのです。

이봐, 유가와.

이봐, 有價와.

이봐, 유가와.

ねえ、湯川。

이제 ㄴ 말하 ㄴ 때도 되지 않아ㄴ어? 도대체 왜 말해 주지 않는 거야?”

이젠 말할 때도 되지 않았어? 都大體 왜 말해 주지 않는 거야?”

이젠 말할 때도 되지 않았어? 도대체 왜 말해 주지 않는 거야?”

もう言う時もできなかった? 一体どうして言わないの?」

구사나기의 말투가 애원조로 변해서이 ㄴ지 유가와가 진지하 ㄴ 표정을 지으며

머그 컵을 내려놓아 ㄴ다。

驅使나기의 말套가 애元祖로 變해서인지 有價와가 眞摯한 表情을 지으며

머그 컵을 내려놓았다。

구사나기의 말투가 애원조로 변해서인지 유가와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머그 컵을 내려놓았다。

草薙の言い方が愛援組に変わり、認可湯川が真剣な表情を見せてマグカップ

を下ろした。

“얘기를 해 줘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얘기를 해 줘도 아무 意味가 없기 때문이야。

“얘기를 해 줘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話をしても何の意味もないからだ。

자네에게 ㄴ 도움이 안 되 ㄴ 거야。

자네에겐 도움이 안 될 거야。

자네에겐 도움이 안 될 거야。

あなたには役に立ちません。

“왜지?”

“왜지?”

“왜지?”

「どうして？」

“내가 이 사건에 이시가미가 관련되지 않아 ㄴ까 생각하게 되 ㄴ 계기도 자

네가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하 ㄴ 것과 같기 때문이야。

“내가 이 事件에 이時加味가 關聯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 契機도 자네

가 아까부터 몇 番이나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야。

“내가 이 사건에 이시가미가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 계기도 자네
가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야。

「私がこの事件に石神が関わっていないかと思う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も、
君がさっきから何度も言ったのと同じだからだ。

어떤 사소한 ㄴ 일을 통해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 ㄴ 알게
돼 ㄴ 어。

어떤 些少한 일을 통해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어떤 사소한 일을 통해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どんな些細なことで彼が花岡康子に心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

그래서 그가 사건에 관련돼 ㄴ으 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 ㄴ 거야。

그래서 그가 事件에 關聯됐을 可能性에 對해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가 사건에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야。

それで彼が事件に関わった可能性について考えるようになったんだ。

호의를 품으 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ㄴ느냐고
묻고 싶겠지만, 이거 ㄴ 말하자면 직감 같으 ㄴ 거야。

好意를 품은 것 같다는 理由만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고 싶겠지만, 이건 말하자면 直感 같은 거야.

호의를 품은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고 싶겠지만, 이건 말하자면 직감 같은 거야.

好意を抱いたようだという理由だけでどのようにそのような考えをするよう
になったのかと聞きたいが、これはいわば直感のようなものだ。

이시가미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지.

이時加味에 對해 어느 程度 아는 사람이 아니면 理解하기 힘들지.

이시가미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지.

石神についてある程度知る人でなければ理解するのは難しい。

자네도 ‘형사의 감’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

자네도 ‘刑事의 감’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

자네도 ‘형사의 감’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

君も「刑事の感」という言葉をよくするじゃないか。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それと同じだ。

“평소의 자네라면 상상하 ㄴ 수도 없는 발언이야, 직감이라니.

“平素의 자네라면 想像할 수도 없는 發言이야, 直感이라니。

“평소의 자네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야, 직감이라니。

「普段の君なら想像もできない発言だよ、直感だって。

“가끔은 쓰_ㄴ 수도 있지, 뭘。

“가끔은 쓸 수도 있지, 뭘。

“가끔은 쓸 수도 있지, 뭘。

「たまには書くこともできる、何。

“그럼 야스코에 대하_ㄴ 이시가미의 마음을 알게 되_ㄴ 계기라도 가르쳐 줘。

“그럼 야스코에 對한 이時加味の 마음을 알게 된 契機라도 가르쳐 줘。

“그럼 야스코에 대한 이시가미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라도 가르쳐 줘。

「じゃあ、ヤスコに対する石神の心を知ったきっかけでも教えてください。

“안 돼。

“안 돼。

“안 돼。

「いいえ。

유가와는 단호하게 거절해_ㄴ다。

有價와는 斷乎하게 拒絕했다。

유가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湯川は断固として断った。

“아니, 이봐.

“아니, 이봐.

“아니, 이봐.

「いや、ね。

“그의 자존심과 관련되 L 것이기 때문이야.

“그의 自尊心과 關聯된 것이기 때문이야.

“그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야.

「彼のプライドに関連したものだから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他人には言いたくない。

구사나기가 한숨을 내쉬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학생 하나가 들어와 ㅅ다.

驅使나기가 한숨을 내쉬는데 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學生 하나가 들어왔다.

구사나기가 한숨을 내쉬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학생 하나가 들어왔다.

草薙がため息をつくのにドアをノックする音が聞こえたら生徒一つが入ってきた。

“아, 자네 와ㄴ나!”

“아, 자네 왔나!”

“아, 자네 왔나!”

「あ、君来たか！」

유가와가 크ㄴ 소리로 알은체를 해ㄴ다。

有價와가 큰 소리로 알은체를 했다。

유가와가 큰 소리로 알은체를 했다。

湯川が大声でアルウンチェをした。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

“갑자기 불러서 未安해。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

「突然呼んでごめんなさい。

어제 제출하ㄴ 리포트에 관해 하고 싶으ㄴ 말이 있어서 말이지。

어제 提出한 리포트에 關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지。

어제 제출한 리포트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지.

昨日提出したレポートについて言いたいことがあってね。

“무슨 말씀이 ㄴ 데요?”

“무슨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인데요?”

「どういう言葉ですか？」

안경을 끼 ㄴ 학생이 똑바로 서 ㄴ 채 물어 ㅅ 다。

眼鏡을 낀 學生이 똑바로 선 채 물었다。

안경을 낀 학생이 똑바로 선 채 물었다。

メガネをかけた学生がまっすぐに立ったまま尋ねた。

“자네, 리포트를 꽤 잘 써 ㅅ 더군。

“자네, 리포트를 꽤 잘 썼더군。

“자네, 리포트를 꽤 잘 썼더군。

「君、レポートをかなりよく使ったな。

다만 한 가지 확인하 ㄴ 게 있어。

다만 한 가지 確認할 게 있어。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ただ一つ確認することがある。

자네는 그거 ㄴ 물성론으로 설명해 ㄴ는데, 왜지?”

자네는 그걸 物性論으로 説明했는데, 왜지?”

자네는 그걸 물성론으로 설명했는데, 왜지?”

あなたはそれを物性論で説明しましたが、なぜですか？」

학생의 눈빛에 당혹감이 어려 ㄴ다。

學生의 눈빛에 當惑感이 어렸다。

학생의 눈빛에 당혹감이 어렸다。

学生の目つきに当惑感が幼かった。

“왜냐하면 그게 물성론 시험이라서……。

“왜냐하면 그게 物性論 試験이라서……。

“왜냐하면 그게 물성론 시험이라서……。

「なぜならそれが物性論試験だから…」 ……。

그러자 유가와가 쓴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쓴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쓴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すると湯川が苦い笑いを負うと首を切れ振った。

“그 시험의 본질은 소립자론에 있어.

“그 試験의 本質은 素粒子論에 있어.

“그 시험의 본질은 소립자론에 있어.

「その試験の本質は小粒子論において.

그래서 그쪽으로도 접근해 주기를 바라^ㅅ어.

그래서 그쪽으로도 接近해 주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쪽으로도 접근해 주기를 바랐어.

だからそちらにも近づいてほしい.

물성론 시험이라고 해서 다른 이론은 전혀 소용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物性論 試験이라고 해서 다른 理論은 전혀 所用없다고 斷定 지으면 안 되
지.

물성론 시험이라고 해서 다른 이론은 전혀 소용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
지.

物性論試験だからといって、他の理論はまったく役に立たないと断定しては
ならない.

그래서는 훌륭하^ㄴ 학자가 되^ㄴ 수 없어.

그래서는 훌륭한 學者가 될 수 없어.

그래서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어.

だから、素晴らしい学者になることはできません。

선입견은 적이야。

先入見은 敵이야。

선입견은 적이야。

先入観は少ない。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만드니까 말이지。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만드니까 말이지。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만드니까 말이지。

見えるのも見えないようにしますから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

학생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여^ㅅ다。

學生은 順順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学生は素直に頭をうなずいた。

“자네가 우수하니까 충고하는 거야。

“자네가 優秀하니까 忠告하는 거야。

“자네가 우수하니까 충고하는 거야。

「君が優秀だから忠告するのよ。

수고해ㅆ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お疲れ様でした。

가 봐。

가 봐。

가 봐。

行ってください。

감사하ㅆ니다, 하고 인사하ㄴ 후 학생은 연구실을 나가ㅆ다。

感謝합니다, 하고 人事한 後 學生은 研究室을 나갔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후 학생은 연구실을 나갔다。

ありがとう、と挨拶した後学生は研究室を出た。

구사나기가 유가와와 얼굴을 뵈히 바라보아ㅆ다。

驅使나기가 有價와의 얼굴을 뵈히 바라보았다.

구사나기가 유가와와 얼굴을 뵈히 바라보았다.

草薙が湯川の顔をじっと見つめた。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물어ㅅ어?”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なぜそう、私の顔に何を聞いたの？」

“그게 아니라 학자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學者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학자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それではなく、学者はみんな同じだと思います。

“왜 그런 생각을 해ㅅ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なぜそんな考えをしたの？」

“이시가미에게도 비슷하ㄴ 말을 들어ㅅ거든.

“이時加味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

“이시가미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

「石神にも似たような言葉を聞いたんだ。

구사나기는 이시가미가 시험 문제에 대해 한 말을 유가와에게 전해^ㅅ다.

驅使나기는 이時加味が 試験 問題에 對해 한 말을 有價와에게 傳했다.

구사나기는 이시가미가 시험 문제에 대해 한 말을 유가와에게 전했다.

草薙は石神が試験問題について言ったことを湯川に伝えた。

“흠,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맹점을 찌르고 들어가^ㄴ다……, 그다우^ㄴ 말이군.

“흠, 先入見에서 비롯되는 盲點을 찌르고 들어간다……, 그다운 말이군.

“흠,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맹점을 찌르고 들어간다……, 그다운 말이군.

「うーん、先入観から始まる盲点を突いて入る…」 …、そのらしい言葉だね。

유가와가 히죽거리며 웃어^ㅅ다.

有價와가 히죽거리며 웃었다.

유가와가 히죽거리며 웃었다.

湯川がひどく笑っていた。

그러나 다음 순간 물리학자의 안색이 변해^ㅅ다.

그러나 다음 瞬間 物理學者의 顔色이 變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물리학자의 안색이 변했다.

しかし次の瞬間物理学者の顔色が変わった。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창가로 걸어가^ㄴ다.

그는 椅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窓가로 걸어갔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창가로 걸어갔다.

彼は椅子で立ち上がり、頭に手を乗せて窓辺に歩いた。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시선을 위로 향해^ㄴ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視線을 위로 向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시선을 위로 향했다.

そして空を見上げるように視線を上に向けた。

“이봐, 유가와.

“이봐, 有價와.

“이봐, 유가와.

「ねえ、湯川。

그러나 유가와는 생각을 방해하지 말라는 듯 손을 들어 보여^ㄴ다.

그러나 有價와는 생각을 妨害하지 말라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러나 유가와와는 생각을 방해하지 말라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しかし湯川は考えを邪魔しないように手を挙げて見せた。

구사나기는 하는 수 없이 그런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ㄴ다。

驅使나기는 하는 수 없이 그런 親舊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구사나기는 하는 수 없이 그런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草薙はすることなくそのような友人の姿を眺めるだけだった。

“있으^ㄴ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ありえない事だ。

유가와가 중얼거려^ㄴ다。

有價와가 중얼거렸다。

유가와가 중얼거렸다。

湯川が呟いた。

“그런 게 가능하^ㄴ 리 없어。

“그런 게 可能할 理 없어。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어。

「そんなことはできないわ。

“도대체 왜 그래?”

“都大體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一体どうしてそう？」

구사나기가 참지 못하고 물어썻다。

驅使나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구사나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草薙が我慢できずに尋ねた。

“아까 그 종이 좀 보여 줘 봐,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 말이야。

“아까 그 종이 좀 보여 줘 봐, 이時加味の勤務記録 말이야。

“아까 그 종이 좀 보여 줘 봐,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 말이야。

「さっきその紙を見せてみて、石神の勤務記録だよ。

유가와와 말에 구사나기는 재빨리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썻다。

有價와와 말에 驅使나기는 재빨리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유가와와 말에 구사나기는 재빨리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湯川の言葉に駆け抜けは、すぐに内ポケットから折りたたんだ紙を取り出した。

그것을 받아 드는 유가와가 한참이나 노려보듯이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신음하
듯 중얼거려냈다。

그것을 받아 든 有價와假 한참이나 노려보듯이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呻吟
하듯 중얼거렸다。

그것을 받아 든 유가와가 한참이나 노려보듯이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신음
하듯 중얼거렸다。

それを受けた湯川がしばらく狙うように覗くより、ついにうめき声のように
呟いた。

“이런, 설마……。

“이런, 설마……。

“이런, 설마……。

「こんな、まさか… … 。

“이봐, 뭐라고 말을 좀 해 봐, 혼자서만 그러지 말고。

“이봐, 뭐라고 말을 좀 해 봐, 혼자서만 그러지 말고。

“이봐, 뭐라고 말을 좀 해 봐, 혼자서만 그러지 말고。

「ねえ、なんと言ってちょっとやってみて、一人だけじゃなくて。

유가와가 근무 기록을 구사나기에게 도로 내밀어냈다。

有價와假 勤務 記録을 驅使나기에게 도로 내밀었다。

유가와가 근무 기록을 구사나기에게 도로 내밀었다.

湯川が勤務記録を草薙に渡した。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

“未安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

「すみませんが、今日はこれだけ帰ってください。

“뭐라고? 정말 이러기야?”

“뭐라고? 정말 이러기야?”

“뭐라고? 정말 이러기야?”

「何と？本当にこれですか？」

구사나기가 항의해 ㄴ다.

驅使나기가 抗議했다.

구사나기가 항의했다.

草薙が抗議した。

그러나 유가와와 얼굴을 보 ㄴ 순간 더는 말을 하 ㄴ 수 없어 ㄴ다.

그러나 有價와 얼굴을 본 瞬間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가와와 얼굴을 본 순간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しかし、湯川との顔を見た瞬間、もう話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물리학자 친구의 얼굴이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어ㄴ다。

物理學者 親舊의 얼굴이 슬픔과 苦痛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물리학자 친구의 얼굴이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物理学者の友人の顔が悲しみと苦痛で歪んでいた。

그런 그의 표정을 구사나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ㄴ 적이 없어ㄴ다。

그런 그의 表情을 驅使나기는 여태까지 한 番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의 표정을 구사나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そんな彼の表情を駆使することは、これまで一度も見たことがなかった。

“돌아가 줘。

“돌아가 줘。

“돌아가 줘。

「帰ってください。

미안해。

未安해。

미안해。

ごめんなさい。

유가와가 신음 같은 ㅼ 소리로 다시 한 번 말해ㅼ다。

有價와假 呻吟 같은 소리로 다시 한 番 말했다。

유가와가 신음 같은 소리로 다시 한 번 말했다。

湯川がうめき声のような音でもう一度言った。

하는 수 없이 구사나기는 자리에서 일어서ㅼ다。

하는 수 없이 驅使나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는 수 없이 구사나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やむを得ず驅使は席で立ち上がった。

묻고 싶으 ㅼ 말이 산처럼 쌓여 있어ㅼ다。

묻고 싶은 말이 山처럼 쌓여 있었다。

묻고 싶은 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聞きたい言葉が山のように積まれていた。

그러나 지금 자신이 하 ㅼ 수 있는 일이란 친구 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해ㅼ다。

그러나 只今 自身이 할 수 있는 일이란 親舊 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친구 앞에서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しかし今、自分ができることとは友人の前で消えるだけだと思った。

15

15

15

15

시계가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어ㄴ다。

時計が 午前 7 時 30 分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계가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時計が午前 7 時 30 分を指していた。

이시가미는 가방을 끌어안고 집을 나서ㄴ다。

이時加味는 가방을 끌어안고 집을 나섰다。

이시가미는 가방을 끌어안고 집을 나섰다。

石神はバッグを抱きしめて家を出た。

그 가방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들어 있어ㄴ다。

그 가방에는 그가 이 世上에서 가장 所重히 여기는 것이 들어 있었다。

그 가방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들어 있었다。

そのバッグには彼がこの世界で最も大切にしているものが入っていた。

현재 그가 연구하고 있는 수학 이론을 정리하ㄴ 파일이다。

現在 그가 研究하고 있는 數學 理論을 整理한 파일이다。

현재 그가 연구하고 있는 수학 이론을 정리한 파일이다.

現在彼が研究している数学理論をまとめたファイルだ。

현재, 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줄곧 연구해 와^ㅅ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ㄴ지도 모르^ㄴ다。

現在, 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歲月 동안 줄곧 研究해 왔다고 表現하는 것이 正確할지도 모른다。

현재, 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줄곧 연구해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現在、というよりは長年にわたってずっと研究してきたと表現するのが正確かもしれない。

아무튼 그는 대학 졸업 논문에서도 그것을 연구 주제로 삼아^ㅅ다。

아무튼 그는 大學 卒業 論文에서도 그것을 研究 主題로 삼았다。

아무튼 그는 대학 졸업 논문에서도 그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とにかく彼は大学卒業論文でもそれを研究テーマにした。

그리고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못해^ㅅ다。

그리고 아직 完成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そしてまだ完成には至っていない。

그 수학 이론을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도 20년 이상 걸리ㄴ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다。

그 數學 理論을 完成하기까지는 앞으로도 20 年 以上 걸릴 것이라고 그는豫想하고 있다。

그 수학 이론을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다。

その数学理論を完成するまでは今後も 20 年以上かかると彼は予想している。

어쩌면 그보다 더 걸리ㄴ지도 모르ㄴ다。

어쩌면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른다。

多分それよりもかかるかもしれない。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하ㄴ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어ㄴ다。

自身 말고는 그 누구도 完成하지 못할 것이라는 自負心도 있었다。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自分以外では誰も完成できないという自負心もあった。

다른 것은 일절 생각하ㄴ 필요가 없고 잡다하ㄴ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난제를 푸는 데 몰두하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ㄴ까。

다른 것은 一切 생각할 必要가 없고 雜多한 일에 時間을 빼앗기지도 않으

면서 오로지 難題를 푸는 데 沒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것은 일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잡다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도 않으

면서 오로지 난제를 푸는 데 몰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他のことは一切考える必要がなく、雑多なことに時間を奪われずにひたすら

難題を解くのに没頭できるならどれだけ良いだろうか。

이시가미는 때로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하_ㄴ다。

이時加味는 때로 그런 妄想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이시가미는 때로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石神は時々そんな妄想にとらわれたりもする。

과연 살아 있으_ㄴ 동안 이 연구를 완성하_ㄴ 수 있으_ㄴ까 싶어 불안이 엄습하_ㄴ

때면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깝기 그지없어_ㄴ다。

果然 살아 있을 동안 이 研究를 完成할 수 있을까 싶어 不安이 掩襲할 때

면 그것과 아무 關係도 없는 일에 浪費하는 時間이 아깝기 그지없었다。

과연 살아 있을 동안 이 연구를 완성할 수 있을까 싶어 불안이 엄습할 때

면 그것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깝기 그지없었다。

果たして生きている間にこの研究を完成できるかと思い、不安が厳しくなっ

た時は、それと何の関係もないことに無駄にする時間が惜しくなかった。

어디에 가든 이 파일만은 손에서 놓으_ㄴ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해_ㄴ다。

어디에 가든 이 파일만은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어디에 가든 이 파일만은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どこに行っても、このファイルだけは手から離せないと彼は考えた。

촌음을 아껴서 한 걸음이라도 연구를 진전시켜야 하_ㄴ다.

寸陰을 아껴서 한 걸음이라도 研究를 進展시켜야 한다.

촌음을 아껴서 한 걸음이라도 연구를 진전시켜야 한다.

村音を惜しんで一步でも研究を進展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가능하_ㄴ 일이다.

종이와 鉛筆만 있으면 可能한 일이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紙と鉛筆さえあれば可能なことだ。

연구를 계속하_ㄴ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研究를 繼續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연구를 계속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研究を続け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他のものは望まない。

평소 지나던 길을 그는 기계적으로 걸어가_ㄴ다.

平素 지나던 길을 그는 機械的으로 걸어갔다.

평소 지나던 길을 그는 기계적으로 걸어갔다.

普段通りの道を彼は機械的に歩いた。

신오하시교를 건너 스미다 강변을 따라가_ㄴ다.

新吳何時教를 건너 스미다 强辯을 따라간다.

신오하시교를 건너 스미다 강변을 따라간다.

新大橋橋を渡って隅田川沿いを進む。

오른쪽에는 파라_ㄴ 비닐 시트로 지으_ㄴ 오두막이 늘어서 있다.

오른쪽에는 파란 비닐 시트로 지은 오두幕이 늘어서 있다.

오른쪽에는 파란 비닐 시트로 지은 오두막이 늘어서 있다.

右側には青いビニールシートで造った小屋が並んでいる。

백발 섞이_ㄴ 머리를 뒤로 묶으_ㄴ 남자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는 참이어_ㄴ
다。

白髮 섞인 머리를 뒤로 묶은 男子가 냄비를 不 위에 올려놓는 참이었다。

백발 섞인 머리를 뒤로 묶은 남자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는 참이었다。

白髮混ざった頭を後ろに結んだ男が鍋を火の上に載せる真だった。

냄비의 내용물은 아_ㄴ 수 없다。

냄비의 内容物은 알 수 없다。

냄비의 내용물은 알 수 없다.

鍋の内容物は不明です。

남자 옆에는 옅은 갈색의 잡종 개가 묶여 있어ㄴ다.

男子 옆에는 옅은 褐色의 雜種 개가 묶여 있었다.

남자 옆에는 옅은 갈색의 잡종 개가 묶여 있었다.

男の隣には薄茶色の雜種犬が縛られていた。

개는 주인 쪽으로 엉덩이를 들이미 ㄴ 채 지치 ㄴ 듯이 늘어져 있다.

개는 主人 쪽으로 엉덩이를 들이민 채 지친 듯이 늘어져 있다.

개는 주인 쪽으로 엉덩이를 들이민 채 지친 듯이 늘어져 있다.

犬は飼い主の方にお尻を入れたまま疲れたように並んでいる。

‘강통남’은 여전히 강통을 찌그러뜨리고 있어ㄴ다.

‘강筒男’은 如前히 강筒을 찌그러뜨리고 있었다.

‘강통남’은 여전히 강통을 찌그러뜨리고 있었다.

'カントナム'は依然として缶をつぶしていた。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려ㄴ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そして彼は何と一言を呟いた。

그의 곁에는 벌써 비닐 강통으로 가득 차 비닐 포대가 둘이나 놓여 있다.

그의 곁에는 벌써 빈 강筒으로 가득 찬 비닐 包袋가 둘이나 놓여 있다.

그의 곁에는 벌써 빈 강통으로 가득 찬 비닐 포대가 둘이나 놓여 있다.

彼のそばにはすでに空の缶でいっぱいビニール砲台が二つ置かれている。

‘강통남’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벤치가 나와ㄴ다.

‘강筒男’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벤치가 나왔다.

‘강통남’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벤치가 나왔다.

'カントンナム'を過ぎてもう少し歩いて行くとベンチが出た。

아무도 앉아 있지는 않아ㄴ다.

아무도 앉아 있지는 않았었다.

아무도 앉아 있지는 않았었다.

誰も座っていませんでした。

이시가미는 그 벤치를 흘끗 보고는 다시 고개 숙이 ㄴ 자세로 돌아가ㄴ다.

이時加味는 그 벤치를 흘끗 보고는 다시 고개 숙인 姿勢로 돌아갔다.

이시가미는 그 벤치를 흘끗 보고는 다시 고개 숙인 자세로 돌아갔다.

石神はそのベンチをすっかり見て、再び頭を下げた姿勢に戻った。

그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그는 繼續해서 一定한 速度로 걷는다。

그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彼は絶えず一定の速度で歩く。

앞에서 누구ㄴ가 걸어오는 기척이 나ㄴ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기척이 났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기척이 났다。

前から誰かが歩いてくる気配が出た。

시간적으로 보서는 개 세 마리를 거느리ㄴ 노부인과 마주치ㄴ 때가 돼ㄴ지만

그녀는 아니ㄴ 것 같아ㄴ다。

時間的に 보서는 개 세 마리를 거느린 老婦人と 마주칠 때가 됐지만 그

女는 아닌 것 같았다。

시간적으로 보서는 개 세 마리를 거느린 노부인과 마주칠 때가 됐지만 그

녀는 아닌 것 같았다。

時間的に見ては犬三匹を身につけた老婦人と向き合う時となったが彼女では

ないようだった。

이시가미는 무심코 얼굴을 들어ㄴ다。

이時加味는 無心코 얼굴을 들었다。

이시가미는 무심코 얼굴을 들었다.

石神は思わず顔を上げた。

“아……”

“아……”

“아……”

「あ… …」

그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며 걸음을 멈춰ㄴ다.

그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며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며 걸음을 멈췄다.

彼は口の外に声を出して歩きを止めた。

상대는 멈추지 않아ㄴ다.

相對는 멈추지 않았다.

상대는 멈추지 않았다.

相手は止まらなかった。

멈추기는커녕 싱글벙글 웃으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어ㄴ다.

멈추기는커녕 싱글벙글 웃으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멈추기는커녕 싱글벙글 웃으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止まるどころかシングルス笑いながら彼に近づいていた。

그리고 이시가미의 코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춰섰다.

그리고 이時加味の 코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이시가미의 코앞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そして石神の鼻の前に至ってこそ歩きを止めた。

“잘 있어여?”

“잘 있었어?”

“잘 있었어?”

「よくあった？」

유가와가 먼저 말을 건네었다.

有價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유가와가 먼저 말을 건넸다.

湯川が先に話しかけた。

이시가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섰다.

이時加味는 瞬間적으로 말門이 막혔다.

이시가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石神は瞬間的に言葉が詰まった。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서야 겨우 입을 열어ㅅ다.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彼は舌で唇を縮めて、やっと口を開けた。

“나를 기다리ㄴ 거ㄴ가?”

“나를 기다린 건가?”

“나를 기다린 건가?”

「私を待ってたの？」

“물론이지.

“勿論이지.

“물론이지.

「もちろん.

유가와가 상냥하ㄴ 표정으로 대답해ㅅ다.

有價와가 상냥한 表情으로 對答했다.

유가와가 상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湯川が優しい表情で答えた。

“하지만 단순히 기다려ㅅ다고 하는 거ㄴ 틀리ㄴ 표현이 ㄴ지도 몰라.

“하지만 單純히 기다렸다고 하는 건 틀린 表現일지도 몰라.

“하지만 단순히 기다렸다고 하는 건 틀린 표현일지도 몰라.

「しかし、単に待っていたというのは間違った表現かもしれない。

기요스바시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참이야.

氣よスバ時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참이야.

기요스바시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참이야.

清洲橋の方からぶらぶら歩いてくる真だ。

자네를 만나 ㄴ 수 있으 ㄴ 것 같아서.

자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あなたに会えると思います。

“상당히 급하 ㄴ 용건이 있나 보군.

“相當히 急한 用件이 있나 보군.

“상당히 급한 용건이 있나 보군.

「かなり急いだ用件があるか宝くん。

“급하 ㄴ 용건이라…… 글썄, 그러 ㄴ지도 모르지.

“急한 用件이라…… 글썄, 그럴지도 모르지.

“급한 용건이라…… 글썄, 그럴지도 모르지.

「急な用件だから… …まあ、そうかもしれません。

유가와는 고개를 갸웃해^ㄴ다.

有價와는 고개를 갸웃했다.

유가와는 고개를 갸웃했다.

湯川は首を傾けた。

“지금 꼭 얘기해야 하는 거^ㄴ가?”

“只今 꼭 얘기해야 하는 건가?”

“지금 꼭 얘기해야 하는 건가?”

「今、必ず話すべきか？」

이시가미가 손목시계를 보아^ㄴ다.

이時加味가 손목時計를 보았다.

이시가미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石神が腕時計を見た。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지.

“時間이 別に 없어서 말이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이지.

「時間があまりないからね。

“십 분에서 십오 분 정도면 돼。

“十 分에서 十五 分 程度면 돼。

“십 분에서 십오 분 정도면 돼。

「十分から十五分ほどでいい。

“걸으면서 해도 돼?”

“걸으면서 해도 돼?”

“걸으면서 해도 돼?”

「歩きながらしてもいい?」

“그래도 되기 ㄴ 하지만……。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되긴 하지만……。

「それでもいいけど……」 ... 。

유가와가 주위를 둘러보아ㅅ다。

有價와假 周圍를 둘러보았다。

유가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湯川が周りを見回した。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지.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지.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지.

「ここでちょっと話しません。

이삼 분 안에 끝내 ㄴ 테니까.

二三 분 안에 끝낼 테니까.

이삼 분 안에 끝낼 테니까.

今三分で終わるから。

저 벤치에 앉지.

저 벤치에 앉지.

저 벤치에 앉지.

そのベンチに座る。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이시가미의 대답도 듣지 않으 ㄴ 채 벤치로 걸어가 ㄴ 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이時加味の 對答도 듣지 않은 채 벤치로 걸어갔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는 이시가미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벤치로 걸어갔다.

そう言って彼は石上の答えも聞かずにベンチに歩いていった。

이시가미는 숨으 ㄴ 후, 내쉬 ㄴ 후 친구를 따라가 ㄴ 다.

이時加味는 숨을 後, 내쉴 後 親舊를 따라갔다.

이시가미는 숨을 후, 내쉴 후 친구를 따라갔다.

石神は息をした後、私の休憩後に友達に従った。

“전에도 한 번 이 길을 자네랑 걸으 ㄴ 적이 있어.

“前에도 한 番 이 길을 자네랑 걸은 적이 있어.

“전에도 한 번 이 길을 자네랑 걸은 적이 있어.

「前にも一度この道を君と歩いたことがある。

유가와가 말해 ㄴ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그래 ㄴ던가.

“그랬던가.

“그랬던가.

「そうだったのか。

“그때 자네가 말해 ㄴ어.

“그때 자네가 말했어.

“그때 자네가 말했어.

「それからあなたは言った。

노숙자들을 보고, 그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露宿者들을 보고, 그들은 時計처럼 正確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노숙자들을 보고, 그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ホームレスを見て、彼らは時計のように正確に生きていると。

기억나?”

記憶나?”

기억나?”

覚えてる？」

“그래, 기억나。

“그래, 記憶나。

“그래, 기억나。

「ええ、覚えています。

그래ㄴ더니, 인간이 시계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법이라고 자네

가 말해ㄴ지。

그랬더니, 人間이 時計에서 解放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法이라고 자

네가 말했지。

그랬더니, 인간이 시계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법이라고 자네가 말했지。

そうしたら、人間が時計から解放されれば、むしろもっとそうなる方法だと君が言った。

유가와가 만족스러우ㄴ 듯이 고개를 끄덕여ㄴ다。

有價와假 満足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와가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湯川が満足できるように首をうなずいた。

“나나 자네나 시계에서 해방되는 거ㄴ 불가능해。

“나나 자네나 時計에서 解放되는 건 不可能해。

“나나 자네나 시계에서 해방되는 건 불가능해。

「私や君や時計から解放されるのは不可能だ。

둘 다 사회라는 시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해ㄴ기 때문이지。

둘 다 社會라는 時計의 톱니바퀴로 轉落했기 때문이지。

둘 다 사회라는 시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했기 때문이지。

どちらも社会という時計の歯車に転落したからだ。

톱니바퀴가 없어진다면 시계는 작동하지 않게 돼。

톱니바퀴가 없어진다면 時計는 作動하지 않게 돼。

톱니바퀴가 없어지면 시계는 작동하지 않게 돼.

齒車がなくなると時計は作動しなくなる。

그리고 아무리 톱니바퀴 하나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해도 주위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지。

그리고 아무리 톱니바퀴 하나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해도 周圍에서 그걸
許諾하지 않지。

그리고 아무리 톱니바퀴 하나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려 해도 주위에서 그
걸 허락하지 않지。

そして、いくら齒車のひとつが私の勝手に動こうとしても周囲でそれを許さ
ない。

그래서 톱니바퀴가 되면 안정을 얻는 대신 자유를 잃게 돼。

그래서 톱니바퀴가 되면 安定을 얻는 代身 自由를 잃게 돼。

그래서 톱니바퀴가 되면 안정을 얻는 대신 자유를 잃게 돼。

だから齒車になると安定を得る代わりに自由を失うことになる。

그런 이유로 노숙자 가운데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는 모양이야。

그런 理由로 露宿者 가운데는 元來의 生活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
람도 꽤 있는 模様이야。

그런 이유로 노숙자 가운데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

람도 꽤 있는 모양이야.

そんな理由でホームレスの中は元の生活に戻りたくない人もかなりあるよう
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삼 분을 보내 ㄴ 생각이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二三 분을 보낼 생각이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삼 분을 보낼 생각이야?”

「そんな無駄な話で今三分を過ごすつもりなの？」

이시가미가 시계를 보며 말해 ㄴ다。

이時加味가 時計를 보며 말했다。

이시가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石神が時計を見て言った。

“이것 보라고, 벌써 일 분이 지나 ㄴ잖아。

“이것 보라고, 벌써 일 분이 지났잖아。

“이것 보라고, 벌써 일 분이 지났잖아。

「これ見て、もう仕事の方が過ぎたじゃない。

“이 세상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톱니바퀴
자신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 ㄴ어。

“이 世上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決定하는 것은 톱니바퀴 自身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이 세상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톱니바퀴 자신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

「この世に無駄な歯車はなく、その使い方を決めるのは歯車自体だ、そんなこと言いたかった。

그러고서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아^ㄴ다。

그러고서 有價와는 이時加味の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고서 유가와는 이시가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そこで湯川は石神の顔をまっすぐ見つめた。

“학교를 그만두^ㄴ 생각이^ㄴ가?”

“學校를 그만둘 생각인가?”

“학교를 그만둘 생각인가?”

「学校をやめるつもりですか？」

그 말에 이시가미가 놀라서 눈을 화들짝 떠^ㄴ다。

그 말에 이時加味が 놀라서 눈을 화들짝 떴다。

그 말에 이시가미가 놀라서 눈을 화들짝 떴다。

その言葉に石神が驚いて目をぶら下げた。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말을 하지?”

「なぜそんなこと言わないの？」

“아니,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いや、なんかそんな感じがして。

자네도 자신에게 주어진 ㄴ 역할이 수학 선생이라는 이름의 톱니바퀴라고 믿지
는 않으 ㄹ 테니까。

자네도 自身에게 주어진 役割이 數學 先生이라는 이름의 톱니바퀴라고 믿
지는 않을 테니까。

자네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수학 선생이라는 이름의 톱니바퀴라고 믿
지는 않을 테니까。

君も自分に与えられた役割が数学先生という名前の歯車だと信じていないか
ら。

거기까지 말하 ㄴ 후 유가와는 벤치에서 일어서 ㄴ 다。

거기까지 말한 後 有價와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거기까지 말한 후 유가와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そこまで言った後、湯川はベンチで立ち上がった。

“자, 그만 가_ㄴ까.

“자, 그만 갈까.

“자, 그만 갈까.

「さあ、やめましょう。

두 사람은 스미다강의 제방을 나란히 걷기 시작해_ㄴ다.

두 사람은 스미다講義 制房을 나란히 걷기 始作했다.

두 사람은 스미다강의 제방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二人は隅田川の堤防を並べて歩き始めた。

이시가미는 옆에 있는 옛 친구가 다시 말을 꺼내기를 기다려_ㄴ다.

이時加味는 옆에 있는 옛 親舊가 다시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이시가미는 옆에 있는 옛 친구가 다시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石神は隣の昔の友人が再び言葉を取り出すのを待った。

“구사나기가 자네를 찾아가_ㄴ 모양이더군.

“驅使나기가 자네를 찾아간 模様が더군.

“구사나기가 자네를 찾아간 모양이더군.

「草薙が君を訪ねた模様だった。

알리바이를 확인하_ㄴ다면서 말이야。

알리바이를 確認한다면서 말이야。

알리바이를 확인한다면서 말이야。

アリバイを確認しながら言葉だ。

“응, 지난주여_ㄴ으_ㄴ 거야。

“응, 지난週였을 거야。

“응, 지난주였을 거야。

「うん、先週だったんだ。

“그는 자네를 의심하고 있어。

“그는 자네를 疑心하고 있어。

“그는 자네를 의심하고 있어。

「彼はあなたを疑っている。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そうだと思います。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가지만 말이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斟酌이 안 가지만 말이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가지만 말이지。

なぜそんな考えをするようになったのか私としてはまったく見当がつかないけどね。

그러자 유가와가 슬그머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어 다。

그러자 有價와가 슬그머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슬그머니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すると、湯川がそっと口元に笑いを留めた。

“실은 그도 반신반의하고 있어。

“實은 그도 半信半疑하고 있어。

“실은 그도 반신반의하고 있어。

「実は彼も半信半疑している。

내가 자네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데 지나지 않아。

내가 자네에게 神經 쓰는 모습을 보고 자네에게 關心을 가지게 된 데 지나

지 않아。

내가 자네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데 지
나지 않아。

私が君に気になる姿を見て君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に過ぎない。

이런 말을 해도 되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자네를 의심하느만 어떤 근
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警察은 자네를 疑心할 만한 어떤 根據
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자네를 의심할 만한 어떤 근
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

こういう話をしてもいいかは分からないが、警察は君を疑うほどの根拠も持
っていない。

이시가미가 걸음을 멈췄다。

이時加味가 걸음을 멈췄다。

이시가미가 걸음을 멈췄다。

石神が歩きを止めた。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지?”

「なぜ私にそんなこと言うの？」

유가와도 멈춰 서서 이시가미 쪽을 향해 왔다.

有價와도 멈춰 서서 이市加味 쪽을 向했다.

유가와도 멈춰 서서 이시가미 쪽을 향했다.

湯川も止まって石神側に向かった。

“친구니까.

“親舊니까.

“친구니까.

「友達だから。

다른 이유는 없어.

다른 理由는 없어.

다른 이유는 없어.

他の理由はありません。

“친구라서 이야기하 ㄴ 필요가 있다 이거 ㄴ가? 왜? 나는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
는데.

“親舊라서 이야기할 必要가 있다 이건가? 왜? 나는 事件과 아무 關係가 없
는데.

“친구라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건가? 왜? 나는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友達だから話す必要があるの？なぜ？私は事件とは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

경찰이 의심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警察が疑心하든 말든 나랑은 相關없는 일이야。

경찰이 의심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警察が疑うかどうか私とは関係ないことだ。

유가와가 길고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져ㄴ다。

有價와가 길고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유가와가 길고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湯川が長く深い息を吐くのが感じられた。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어ㄴ다。

暫時 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しばらくすると、彼はゆっくりと頭を振った。

그의 표정에 깃드 ㄴ 슬픔이 이시가미를 초조하게 만들어ㄴ다。

그의 表情에 깃든 슬픔이 이時加味를 焦燥하게 만들었다.

그의 표정에 깃든 슬픔이 이시가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彼の表情に宿る悲しみが石神を焦らせた。

“알리바이는 상관이 없어.

“알리바이는 相關이 없어.

“알리바이는 상관이 없어.

「アリバイは気にしない。

유가와가 나지막이 내뱉어ㄴ다.

有價와가 나지막이 내뱉었다.

유가와가 나지막이 내뱉었다.

湯川がちょっと吐き出した。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何って？」

“구사나기를 비롯하ㄴ 형사들은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는 데 여념이
없어.

“驅使나기를 비롯한 刑事들은 容疑者の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는 데 餘念이 없어。

“구사나기를 비롯한 형사들은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리는 데 여념이 없어。

「草薙をはじめとする刑事たちは、容疑者のアリバイを崩すことに余念がない。

그들은 만일 하나오카 야스코가 범인이라면, 그녀의 알리바이의 허점을 파고드
ㄴ다면 언젠가는 사건의 진상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어。

그들은 萬一 하나오카 야스코가 犯人이라면, 그女の 알리바이의 虚點을 파
고든다면 언젠가는 事件의 眞相에 到達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어。

그들은 만일 하나오카 야스코가 범인이라면, 그녀의 알리바이의 허점을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사건의 진상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어。

彼らはもし花岡康子が犯人なら、彼女のアリバイの抜け穴を掘り下げると、
いつか事件の真相に到達することになると信じている。

자네가 공범이라면 자네의 알리바이도 조사해서 자네와 하나오카 야스코의 아
성을 무너뜨리ㄴ 수 있으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네가 共犯이라면 자네의 알리바이도 調査해서 자네와 하나오카 야스코의
牙城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네가 공범이라면 자네의 알리바이도 조사해서 자네와 하나오카 야스코
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君が共犯なら、君のアリバイも調べて、君と花岡康子の垂性を崩す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る。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理解가 안 가는군。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君がなぜそんなことを言うのか私としては、まったく理解できないんだ。

그거 ㄴ 형사로서 당연한 일 아니 ㄴ가?”

그건 刑事로서 當然한 日 아닌가?”

그건 형사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それは刑事として当然のことではないか？

그러자 유가와가 다시 살짝 미소를 지어 ㄴ다。

그러자 有價와가 다시 살짝 微笑를 지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다시 살짝 미소를 지었다。

すると、湯川が再び少し微笑んだ。

“구사나기에게서 재미있는 말을 들어 ㄴ어。

“驅使나기에게서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

“구사나기에게서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

「草薙から面白い言葉を聞いた。

자네의 시험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해서 말이야.

자네의 試験 問題 出題 方式에 對해서 말이야.

자네의 시험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해서 말이야.

お前の試験問題出題方式についてね.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맹점을 찌르_ㄴ다고 해_ㄴ던가? 예를 들어 기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수 문제라고 말이야.

先入見에서 비롯되는 盲點을 찌른다고 했던가? 例를 들어 幾何 問題처럼
보이지만 事實은 函數 問題라고 말이야.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맹점을 찌른다고 했던가? 예를 들어 기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수 문제라고 말이야.

先入観から始まる盲点を突くと言ったのか?たとえば幾何問題のように見え
ますが、実際には関数の問題だと言うのです。

역시 자네라고 생각해_ㄴ어.

亦是 자네라고 생각했어.

역시 자네라고 생각했어.

やっぱり君だと思ったよ.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_ㄴ 채 매뉴얼에 따라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하_ㄴ 학
생에게는 아주 유효하_ㄴ 문제이_ㄴ 거야.

數學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한 채 매뉴얼에 따라 問題를 푸는 데 익숙한 學生에게는 아주 有效한 問題일 거야。

수학의 本質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매뉴얼에 따라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한 학생에게는 아주 有效한 문제일 거야。

数学の本質を理解していないままマニュアルに従って問題を解くのに慣れた学生には非常に有効な問題だろう。

언뜻 보기에는 기하 문제로 여겨지니까 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지。

언뜻 보기에는 幾何 問題로 여겨지니까 그 方向으로 問題를 푸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지。

언뜻 보기에는 기하 문제로 여겨지니까 그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는 힘을 다하겠지。

一見すると幾何問題と考えられるから、その方向に問題を解くのに力を尽くすだろう。

그러나 시간만 흐르 ㄴ 뿐 문제는 풀리지 않아。

그러나 時間만 흐를 뿐 問題는 풀리지 않아。

그러나 시간만 흐를 뿐 문제는 풀리지 않아。

しかし時間だけ流れるだけ問題は解けない。

심술궂다면 심술궂다고 하 ㄴ 수도 있겠지만, 참되 ㄴ 실력을 측정하는 데는 효

과적이 ㄴ 거야。

心術궂다면 心術궂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實力을 測定하는 데는 效果的일 거야。

심술궂다면 심술궂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실력을 측정하는 데는 효과적일 거야。

不機嫌だったら不機嫌だということもあるだろうが、真の實力を測定するのは効果的だろう。

“무슨 말이 하고 싶으 ㄴ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何を言いたいの？」

“구사나기는,”

“驅使나기는,”

“구사나기는,”

「草薙は、」

유가와는 다시 진지하 ㄴ 표정으로 돌아가 ㅅ 다。

有價와는 다시 眞摯한 表情으로 돌아갔다。

유가와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湯川はまた真剣な表情に戻った。

“이번 문제에 대해 알리바이 무너뜨리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此番 問題에 對해 알리바이 무너뜨리기라는 先入見을 갖고 있어.

“이번 문제에 대해 알리바이 무너뜨리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今回の問題に対してアリバイ崩壊という先入観を持っている。

물론 용의자가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ㄴ 얘기겠지.

勿論 容疑者が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으니 當然하다면 當然한 얘기겠지.

물론 용의자가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겠지.

もちろん容疑者がアリバイを掲げているので当然なら当然の話だろう。

게다가 그 알리바이는 어떻게든 무너뜨리ㄴ 수 있으ㄴ 것처럼 보이기도 해.

게다가 그 알리바이는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

게다가 그 알리바이는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

しかもそのアリバイはなんとか崩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も見えるし。

그런 상황에서 실마리가 보이면 거기서부터 파고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그런 狀況에서 실마리가 보이면 거기서부터 파고들려고 하는 게 人之常情이지.

그런 상황에서 실마리가 보이면 거기서부터 파고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そんな状況で糸口が見えたらそこから掘り下ろそうとするのが認知想定だ。

우리가 연구에 임하 ㄴ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研究에 任할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연구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야。

私たちが研究に取り組む時も同じだ。

그런데 실마리라고 생각해 ㄴ 것이 실은 완전히 착각이 ㄴ 경우도 연구의 세계에서 드물지 않지。

그런데 실마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實은 完全に 錯覺인 境遇도 研究의 世界에서는 드물지 않지。

그런데 실마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완전히 착각인 경우도 연구의 세계에서 드물지 않지。

ところが糸口だと思ったのが実は完全に勘違いの場合も研究の世界では珍しくない。

구사나기 역시 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ㄴ 어。

驅使나기 亦是 只今 그런 陷穽에 빠졌어。

구사나기 역시 지금 그런 함정에 빠졌어。

草薙も今そんな罠に陥った。

아니, 감쪽같이 걸려들어ㄴ다고 해야 하ㄴ까。

아니, 감쪽같이 걸려들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 감쪽같이 걸려들었다고 해야 할까。

いや、柿のようにかかったと言うべきか。

“수사 방침에 의문이 있으면 내게 말하ㄴ 게 아니라 구사나기 형사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ㄴ가?”

“捜査方針に疑問があれば私に 말할 게 아니라 驅使나기 刑事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사 방침에 의문이 있으면 내게 말할 게 아니라 구사나기 형사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捜査方針に疑問があれば私に話すのではなく、草薙刑事に話すべきではないか？」

“물론。

“勿論。

“물론。

「もちろん。

언젠가는 그렇게 하ㄴ 생각이야。

언젠가는 그렇게 할 생각이야。

언젠가는 그렇게 할 생각이야.

いつかはそうするつもりだ。

그렇지만 그 전에 자네에게 말해 주고 싶어_ㄴ어.

그렇지만 그 前에 자네에게 말해 주고 싶었어.

그렇지만 그 전에 자네에게 말해 주고 싶었어.

でもその前に君に教えてあげたかった。

그 이유는 아까 말하_ㄴ 대로고.

그 理由는 아까 말한 대로고.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고.

その理由はさっき言った通り。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_ㄴ가?”

“親舊이기 때문이다, 李 末인가?”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인가?”

「友達だからだ、この言葉か？」

“그래.

“그래.

“그래.

「え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네의 재능을 잃고 싶지 않아서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네의 才能을 잃고 싶지 않아서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네의 재능을 잃고 싶지 않아서야。

そして、ひとつ付け加えると、君の才能を失いたくないから。

이런 귀찮으 ㄴ 일은 깨끗이 정리하고 자네는 자네 하 ㄴ 일에 열중해 ㄴ 으면
해。

이런 귀찮은 일은 깨끗이 整理하고 자네는 자네 할 일에 熱中했으면 해。

이런 귀찮은 일은 깨끗이 정리하고 자네는 자네 할 일에 열중했으면 해。

こんな面倒なことは綺麗にまとめて、君は君のすることに夢中になってほし
い。

그 좋으 ㄴ 두뇌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아 ㄴ 으면 좋겠어。

그 좋은 頭腦를 쓸데없는 일에 浪費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좋은 두뇌를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その良い脳を無駄なことに無駄にしないでほしい。

“자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지는 않
아。

“자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일에 時間을 虚費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자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君があえて言わなくても無駄なことに時間を無駄にしたり、そうではな
い。

그렇게 말하고 이시가미는 다시 걸음을 재촉해 다。

그렇게 말하고 이時加味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시가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そう言って石神は再び歩みを促した。

그러나 그것은 출근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괴로워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出勤 時間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괴로
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근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괴로
웠기 때문이다。

しかし、それは出勤時間が遅くてではなく、その場にとどまることが苦しか
ったからだ。

유가와가 그를 뒤따라와^ㅅ다.

有價와가 그를 뒤따라왔다.

유가와가 그를 뒤따라왔다.

湯川が彼に従った。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면 알리바이 무너뜨리기에 주력해서는 안 되지.

“此番 事件을 解決하려면 알리바이 무너뜨리기에 注力해서는 안 되지.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면 알리바이 무너뜨리기에 주력해서는 안 되지.

「今回の事件を解決するには、アリバイ崩壊に力を入れてはいけない。

이거 ^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이건 完全히 다른 問題야.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これは全く違う問題だ。

기하와 함수 간의 차이보다 더 크^ㄴ 차이가 있어.

幾何와 函數 間の 差異보다 더 큰 差異가 있어.

기하와 함수 간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

幾何と関数の差よりも大きな差がある。

“참고로 묻겠는데, 그럼 무슨 문제라는 거지?”

“参考로 묻겠는데, 그럼 무슨 問題라는 거지?”

“참고로 묻겠는데, 그럼 무슨 문제라는 거지?”

「参考に聞くんだけど、じゃあ何の問題なんだ？」

앞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시가미가 물었다.

앞을 向해 걸어가면서 이時加味가 물었다.

앞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시가미가 물었다.

前に向かって歩いていくと石神が尋ねた。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위장의 문제라 ㄴ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偽裝의 問題일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위장의 문제일까.

「一言で言うのは難しいが、あえて言えば胃腸の問題だろうか。

이거 ㄴ 위장 공작이야.

이건 偽裝 工作이야.

이건 위장 공작이야.

これは迷彩工作だ。

수사진은 범인들의 위장 공작에 속고 있어.

수寫眞은 犯人들의 偽裝 工作에 속고 있어.

수사진은 범인들의 위장 공작에 속고 있어。

捜査陣は犯人たちの迷彩工作に騙されている。

그들이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같이 단서가 아니야。

그들이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같이 단서가 아니야。

그들이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같이 단서가 아니야。

彼らが手がかりだと思うのは、一つの手がかりではない。

힌트를 손에 넣어ㄴ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인의 술수에 말려들고 마는 장치에
불과해。

힌트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瞬間 犯人의 術數에 말려들고 마는 裝置에
不過해。

힌트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인의 술수에 말려들고 마는 장치
에 불과해。

ヒントを手に入れたと思う瞬間、犯人の酒飲みに巻き込まれてしまう装置に
過ぎない。

“복잡하군。

“複雜하군。

“복잡하군。

「複雜だ。

“복잡하지。

“複雜하지。

“복잡하지。

「複雑ではない。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우 ㄴ 정도로 간단하 ㄴ 문제야。

하지만 時刻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울 程度로 簡單한 問題야。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문제야。

でも視覚を少し変えれば驚くほど簡単な問題だ。

평범하 ㄴ 사람이 복잡하 ㄴ 은폐 공작을 벌이면 그 복잡하 ㅁ 때문에 도리어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고 말지만 천재는 그렇지 않아。

平凡한 사람이 複雑한 隱蔽 工作을 벌이면 그 複雑함 때문에 도리어 제 무덤을 파는 結果를 낳고 말지만 天才는 그렇지 않아。

평범한 사람이 복잡한 은폐 공작을 벌이면 그 복잡함 때문에 도리어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고 말지만 천재는 그렇지 않아。

平凡な人が複雑な隱蔽工作を繰り広げればその複雑さのために私の墓を売る結果を生んでしまうが天才はそうではない。

지극히 단순하 ㄴ 방법, 그러나 평범하 ㄴ 사람이라면 생각해 내 ㄴ 수도 없고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 ㄴ 방법으로 문제를 단순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지。

至極히 單純한 方法, 그러나 平凡한 사람이라면 생각해 낼 수도 없고 絶對

로 選擇하지 않을 方法으로 問題를 單숨에 複雜하게 만들어 버리지.

지극히 단순한 방법,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생각해 낼 수도 없고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방법으로 문제를 단숨에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지.

極めて単純な方法だが、普通の人なら考え出すこともできず、絶対に選ばない方法で問題を一気に複雑にしてしまう。

“물리학자는 추상적이 ㄴ 표현을 싫어하는 줄로 아는데.

“物理學者는 抽象적인 表現을 싫어하는 줄로 아는데.

“물리학자는 추상적인 표현을 싫어하는 줄로 아는데.

「物理学者は抽象的な表現を嫌うと思う。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 ㄴ까? 시간 어때?”

“그럼 조금 더 具體적으로 말해 볼까? 時間 어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 시간 어때?”

「それではもう少し具体的に言ってみましょうか？時間はどうですか？」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まだ大丈夫。

“도시락 가게에 들르 ㄴ 시간은 있어?”

“도시락 가게에 들를 時間은 있어?”

“도시락 가게에 들를 시간은 있어?”

「お弁当屋に立ち寄る時間はある？」

그러자 이시가미는 유가와를 흘끗 보 ㄴ 다음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려 ㄴ 다。

그러자 이時加味는 有價와를 흘끗 본 다음 다시 視線을 앞으로 돌렸다。

그러자 이시가미는 유가와를 흘끗 본 다음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すると石神は湯川をすっきり見た後、再び視線を前に回した。

“매일 거기서 도시락을 사는 거 ㄴ 아니야。

“毎日 거기서 도시락을 사는 건 아니야。

“매일 거기서 도시락을 사는 건 아니야。

「毎日そこで弁当を買うわけではない。

“그래? 내가 듣기로는 거의 매일이라던데。

“그래? 내가 듣기로는 거의 毎日이라던데。

“그래? 내가 듣기로는 거의 매일이라던데。

「そうですか？私が聞くことはほぼ毎日だったのに。

“자네가 예의 사건과 나를 연결시키려는 근거가 바로 그거 ㄴ 가?”

“자네가 例의 事件과 나를 連結시키려는 根據가 바로 그건가?”

“자네가 예의 사건과 나를 연결시키려는 근거가 바로 그건가?”

「あなたが礼儀の出来事と私をつなげようとする根拠はまさにそれですか？」

“그렇다고 하 ㄴ 수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하 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

「そういうことも、ちょっと違うって言うかもしれない。

자네가 매일 그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 ㄴ다고 하 ㄴ들 문제 되 ㄴ 거 ㄴ 없겠지만
특정하 ㄴ 여성을 매일 보러 가 ㄴ다면 그냥 지나치 ㄴ 수 없겠지。

자네가 毎日 그 가게에서 도시락을 산다고 한들 問題 될 건 없겠지만 特定
한 女性을 毎日 보러 간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지。

자네가 매일 그 가게에서 도시락을 산다고 한들 문제 될 건 없겠지만 특
정한 여성을 매일 보러 간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지。

お前が毎日その店でお弁当を買うっていうのに問題になることはないだろう
が、特定の女性を毎日見に行くならばただ通り過ぎないだろう。

이시가미가 발걸음을 멈추고 유가와를 노려보아 ㅅ다。

이時加味가 발걸음을 멈추고 有價와를 노려보았다。

이시가미가 발걸음을 멈추고 유가와를 노려보았다.

石神が足を止めて湯川を狙った。

“옛 친구면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옛 親舊면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옛 친구면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昔の友達なら何言ってもいいと思う？」

유가와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아ㄴ다.

有價와는 그 눈길을 避하지 않았다.

유가와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湯川はその目を避けなかった。

그는 눈에 힘을 주어 이시가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 내ㄴ다.

그는 눈에 힘을 主語 이市街美의 視線을 正面으로 받아 냈다.

그는 눈에 힘을 주어 이시가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 냈다.

彼は目に力を与え、石神の視線を正面から受け取った。

“정말 화가 나ㄴ 거야? 물론 마음이 퍼ㄴ치 못하다는 거ㄴ 알지만…….

“正말 火가 난 거야? 勿論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건 알지만…….

“정말 화가 난 거야? 물론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 건 알지만…….

「本当に怒っているの？もちろん心が愚かではないことは分かるが…。

…。

“어이가 없군。

“어이가 없군。

“어이가 없군。

「子供がいない。

이시가미가 다시 걷기 시작해^ㄴ다。

이時加味가 다시 걷기 始作했다。

이시가미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石神がまた歩き始めた。

그리고 기요스바시교에 가까워지자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ㄴ다。

그리고 기요스바時敎에 가까워지자 바로 앞에 있는 階段을 올라갔다。

그리고 기요스바시교에 가까워지자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갔다。

そして清橋橋に近づくとすぐ前の階段を上がった。

“사체가 발견되^ㄴ 현장에서부터 조금 떨어지^ㄴ 곳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
되는 타다 만 옷이 발견돼^ㄴ어。

“史체가 發見된 現場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被害者の 것으로 推定되

는 타다 만 옷이 發見됐어。

“사체가 발견된 현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

는 타다 만 옷이 발견됐어。

「死体が発見された現場から少し離れたところで被害者のものと推定される

タダマン服が発見された。

유가와가 이시가미를 뒤따라가며 말해^ㅅ다。

有價와街 이市加味를 뒤따라가며 말했다。

유가와가 이시가미를 뒤따라가며 말했다。

湯川が石上を追って言った。

“드럼통 속에서 말이야。

“드럼桶 속에서 말이야。

“드럼통 속에서 말이야。

「ドラム缶の中で。

범인의 짓이겠지。

犯人의 짓이겠지。

범인의 짓이겠지。

犯人のことだろう。

처음 그 말을 들어ㄴ으ㄴ 때 나는 범인이 왜 옷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못
하고 그 자리를 떠ㄴ으ㄴ까 생각해ㄴ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犯人이 왜 옷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
고 그 자리를 떴을까 생각했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범인이 왜 옷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못
하고 그 자리를 떴을까 생각했어。

初めてその言葉を聞いたとき、私は犯人がなぜ服が全部乗るのを待つことが
できず、その場を出たのかと思った。

수사 팀은 범인이 하ㄴ시라도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어ㄴ으ㄴ 거라고 해ㄴ지
만, 만일 그래ㄴ다면 일단 옷을 가져가ㄴ다가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면 되지 않
아ㄴ으ㄴ까 싶더군。

搜查 팀은 犯人이 한時라도 빨리 現場을 떠나고 싶었을 거라고 했지만, 萬
一 그랬다면 一旦 옷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處理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더군。

수사 팀은 범인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었을 거라고 했지만,
만일 그랬다면 일단 옷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면 되지 않았을
까 싶더군。

捜査チームは犯人が一刻も早く現場を離れたかったと言ったが、もしそうだ
ったら一度服を持って行ってから後でゆっくりと処理すればできなかっただ
ろうか。

아니면 혹시 범인은 옷이 금방 타 버리ㄴ 거라고 생각하ㄴ 거ㄴ까。

아니면 或是 犯人은 옷이 今方 타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혹시 범인은 옷이 금방 타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걸까。

それとも、もしかして犯人は服がすぐ乗ってしまうと思ったのだろうか。

그런 생각이 들자 신경이 쓰여 견디ㄴ 수 없더군。

그런 생각이 들자 神經이 쓰여 견딜 수 없더군。

그런 생각이 들자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더군。

そんな気がすると気になり耐えられなかったな。

그래서 나는 실제로 옷을 한번 태워 보기로 해ㅆ어。

그래서 나는 實際로 옷을 一番 태워 보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실제로 옷을 한번 태워 보기로 했어。

だから私は実際に服を一度燃やしてみることにした。

이시가미가 다시 걸음을 멈춰ㅆ다。

이時加味가 다시 걸음을 멈췄다。

이시가미가 다시 걸음을 멈췄다。

石神が再び歩きを止めた。

“옷을 태워 봐ㅆ단 말이야?”

“옷을 태워 봤단 말이야?”

“옷을 태워 봤단 말이야?”

「服を燃やしたの？」

“그래.

“그래.

“그래.

「ええ.

드럼통에다 넣고 말이야.

드럼桶에다 넣고 말이야.

드럼통에다 넣고 말이야.

ドラム缶に入れてね.

점퍼, 스웨터, 바지, 양말, 그리고 팬티까지.

점퍼, 스웨터, 바지, 洋襪, 그리고 팬티까지.

점퍼, 스웨터, 바지, 양말, 그리고 팬티까지.

ジャンパー、セーター、ズボン、靴下、そしてパンティーまで.

재활용 센터에서 사는데 생각보다 돈이 들더군.

再活用 センター에서 샀는데 생각보다 돈이 들더군.

재활용 센터에서 샀는데 생각보다 돈이 들더군.

リサイクルセンターで買ったのに思ったよりお金がかかったな。

하지만 수학자와 달리 우리는 실험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서 말이지.

하지만 數學者와 달리 우리는 實驗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性格이라서 말이지.

하지만 수학자와 달리 우리는 실험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라서 말이지.

だが、数学者と違って我々は実験をしないとはいけない排気は性格なので。

“결과?”

“結果?”

“결과?”

「結果は？」

“유독 가스를 뿜어내면서 잘도 타더군.

“唯獨 가스를 뿜어내면서 잘도 타더군.

“유독 가스를 뿜어내면서 잘도 타더군.

「有毒ガスを吹き飛ばしながらよくもタザーくん。

는 깜짝하ㄴ 사이에 다 타 버려ㄴ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 버렸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 버렸어.

瞬く間に乗ってしまった。

오 분도 안 걸려ㄴㄹㄹㄹ.

五 分도 안 걸렸을걸.

오 분도 안 걸렸을걸.

五分もかかったはず。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だから？」

“범인은 왜 오 분도 못 기다려ㄴㄹㄹㄹ까?”

“犯人은 왜 五 分도 못 기다렸을까?”

“범인은 왜 오 분도 못 기다렸을까?”

「犯人はなぜ五分も待たなかったのか？」

“글쎄.

“글쎄.

“글썄。

「まあ。

이시가미는 계단을 다 올라가자 기요스바시 거리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다。

이時加味는 階段을 다 올라가자 기요스바時 거리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었
다。

이시가미는 계단을 다 올라가자 기요스바시 거리에서 왼쪽으로 접어들었
다。

石上は階段を上がると清水橋通りから左に入った。

벤테 ㄴ 테이와는 반대 방향이어
다。

벤텐테이와는 反對 方向이었다。

벤텐테이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ベンテンテーとは反対方向だった。

“도시락 안 사?”

“도시락 안 사?”

“도시락 안 사?”

「お弁当じゃない？」

예상대로 유가와가 물어
다。

豫想대로 有價와가 물었다。

예상대로 유가와가 물었다。

予想通り湯川が尋ねた。

“거참, 집요하네。

“거참, 執拗하네。

“거참, 집요하네。

「じゃあ、執拗だね。

매일 사는 거 ㄴ 아니라고 해ㄴ잖아。

毎日 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매일 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毎日買うのではないと言ったじゃないか。

이시가미가 미간을 찌푸려ㄴ다。

이時加味가 眉間을 찌푸렸다。

이시가미가 미간을 찌푸렸다。

石神が眉間を刺した。

“그래, 자네가 점심 식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돼ㄴ어。

“그래, 자네가 點心 食事を 하는 데 問題가 없다면 됐어。

“그래, 자네가 점심 식사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됐어.

「ええ、あなたがランチをするのに問題がなければなりました。

그러고서 유가와는 이시가미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러고서 有價와는 이時加味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러고서 유가와는 이시가미 옆에 나란히 섰다.

そこで湯川は石神の隣に並んで立った。

“사체 옆에서 자전거도 발견돼ㄴ어.

“史체 옆에서 自轉車도 發見됐어.

“사체 옆에서 자전거도 발견됐어.

「死体の横で自転車も発見された。

수사 결과 시노자키역에 세워져 있던 것이 도난당해ㄴ다는 사실도 밝혀졌
고。

搜查 結果 時老子키驛에 세워져 있던 것이 盜難當했다는 事實도 밝혀졌
고。

수사 결과 시노자키역에 세워져 있던 것이 도난당했다는 사실도 밝혀졌
고。

捜査の結果、篠崎駅に建てられていたことが盗まれたという事実も明らかにな
った。

자전거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묻어 있어..어.

自転車에는 被害者の 것으로 보이는 地文이 묻어 있었어.

자전거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묻어 있었어.

自転車には被害者のように見える指紋が埋まっていた。

“그게 어째..다는 거지?”

“그게 어쨌다는 거지?”

“그게 어쨌다는 거지?”

「それはどうしたの？」

“사체의 얼굴까지 뭉개 놓고서 자전거의 지문을 안 지우다니 무척 둔하.. 범인도 다 있다 이 말이지.

“史체의 얼굴까지 뭉개 놓고서 自転車の 地文을 안 지우다니 무척 鈍한 犯人도 다 있다 이 말이지.

“사체의 얼굴까지 뭉개 놓고서 자전거의 지문을 안 지우다니 무척 둔한 범인도 다 있다 이 말이지.

「死体の顔までずっと置いて自転車の指紋を消さないなんてすごく鈍い犯人もみんなあるのだ。

하지만 말이야, 지문을 일부러 남겨 두.. 거라면 얘기가 달라.

하지만 말이야, 地文을 일부러 남겨 둔 거라면 얘기가 달라.

하지만 말이야, 지문을 일부러 남겨 둔 거라면 얘기가 달라.

でもね、指紋をわざわざ残しておいたのなら話が違う。

만일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어~~스~~을까?”

萬一 그렇다면 그 目的이 무엇이였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였을까?”

もしそうなら、その目的は何でしたか？」

“뭐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는데?”

「何だと思うの？」

“자전거와 피해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는~~까。

“自轉車와 被害者を 連結시키기 爲해서랄까。

“자전거와 피해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랄까。

「自轉車と被害者をつなげるためか。

자전거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면 범인으로는 곤란하거든。

自轉車가 事件과 아무 關聯이 없다고 여겨지면 犯人으로는 困難하거든。

자전거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면 범인으로는 곤란하거

든。

自轉車が事件と何の関係もないと思われると、犯人としては困る。

“왜지?”

“왜지?”

“왜지?”

「どうして？」

“피해자가 자전거를 이용해 시노자키역에서 현장으로 갔다고 경찰이 판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被害者が 自轉車を 利用해 시老子키驛에서 現場으로 갔다고 警察이 判斷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자전거를 이용해 시노자키역에서 현장으로 갔다고 경찰이 판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被害者が自轉車を利用して篠崎駅から現場に行くと警察が判断することを望むからだ。

그것도 보통 자전거가 아닌 것으로。

그것도 普通 自轉車が 아닌 것으로。

그것도 보통 자전거가 아닌 것으로。

それも普通自轉車ではないことで。

“발견되 ㄴ 거 ㄴ 보통 자전거가 아니야?”

“發見된 건 普通 自轉車가 아니야?”

“발견된 건 보통 자전거가 아니야?”

「發見されたのは普通自転車ではない？」

“물론 어디서나 보 ㄹ 수 있는 바구니 달린 ㄴ 자전거야。”

“勿論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구니 달린 自轉車야。”

“물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구니 달린 자전거야。”

「もちろんどこでも見ることができるバスケット付きの自転車だ。」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지。

하지만 한 가지 特徴이 있지。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지。

しかし、一つの特徴がある。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야。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야。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야。

新しいものと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だ。

이시가미는 온몸의 땀구멍이 열리는 느낌이 들어 ㅅ 다。

이時加味는 온몸의 땀구멍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시가미는 온몸의 땀구멍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石神は全身の汗穴が開いている感じがした。

그는 거칠어지는 호흡을 억누르느라 안간힘을 써ㄴ다.

그는 거칠어지는 呼吸을 억누르느라 안간힘을 썼다.

그는 거칠어지는 호흡을 억누르느라 안간힘을 썼다.

彼は荒れた呼吸を抑えるために安心力を使った。

그때여ㄴ다.

그때였다.

그때였다.

その時だった。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 이시가미는 움찔해ㄴ다.

“安寧하세요?” 하고 人事하는 소리가 들려 이時加味는 움찔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 이시가미는 움찔했다.

「こんにちは？」と挨拶する音が聞こえ、石神はつかんだ。

자전거를 타 女高생이 그를 지나쳐 가려는 참이어ㄴ다.

自轉車を 탄 女高生이 그를 지나쳐 가려는 참이었다.

자전거를 탄 여고생이 그를 지나쳐 가려는 참이었다.

自転車に乗った女子高生が彼を通り過ぎようとする真だった。

여학생은 이시가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ㅅ다.

女學生은 이時加味를 向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여학생은 이시가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女子学生は石神に向かって軽く頭を下げた。

“아, 안녕.

“아, 安寧.

“아, 안녕.

「あ、こんにちは。

이시가미가 황망히 답례해ㅅ다.

이時加味가 慌忙히 答禮했다.

이시가미가 황망히 답례했다.

石神が荒々しく返礼した。

“감격스러우ㄴ걸.

“感激스러운걸.

“감격스러운걸.

「感激なこと。

요즘 세상에 선생에게 인사하는 학생이 있다니 말이야。

요즘 世上에 先生에게 人事하는 學生이 있다니 말이야。

요즘 세상에 선생에게 인사하는 학생이 있다니 말이야。

最近世に先生に挨拶する学生がいるなんて。

“거의 찾아보기 힘드 ㄴ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ほとんど探すのは難しい。

그런데 있잖아, 자전거가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있잖아, 自轉車가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무슨 意味가 있지?”

그런데 있잖아, 자전거가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ところがあるじゃないか、自転車が新しいものと変わらないというのはどう

いう意味がある？

“경찰은 이왕이면 새것을 훔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 ㄴ데, 그런 단

순하 ㄴ 이유가 아니 ㄴ 거야。

“警察은 已往이면 새것을 훔치는 게 當然하다고 생각하는 模様인데, 그런

單純한 理由가 아닐 거야。

“경찰은 이왕이면 새것을 훔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닐 거야。

「警察は異王なら新しいことを盗むのが当たり前だと思うような形なのに、そんな単純な理由じゃないの。

범인이 중요시하 ㄴ 거 ㄴ 자전거가 언제부터 시노자키역에 세워져 있어 ㄴ냐 하는 점이야。

犯人이 重要視한 건 自轉車가 언제부터 市老子기驛에 세워져 있었느냐 하는 點이야。

범인이 중요시한 건 자전거가 언제부터 시노자키역에 세워져 있었느냐 하는 점이야。

犯人が重要視したのは自転車がいつから篠崎駅に建てられていたのかという 点だ。

“왜 그럴지?”

“왜 그럴지?”

“왜 그럴지?”

「なぜそうなの？」

“범인으로서는 역에 며칠씩 방치되 ㄴ 자전거는 쓸모가 없어 ㄴ어。

“犯人으로서는 驛에 며칠씩 放置된 自轉車는 쓸모가 없었어。

“범인으로서는 역에 며칠씩 방치된 자전거는 쓸모가 없었어.

「犯人としては駅に数日ずつ放置された自転車は役に立たなかった。

자전거 주인이 나서 줘야만 해ㄴ거든.

自転車 主人이 나서 줘야만 했거든.

자전거 주인이 나서 줘야만 했거든.

自転車主人が出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러기 위해서는 새 자전거이 ㄴ 필요가 있어ㄴ던 거야.

그러기 爲해서는 새 自転車일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새 자전거일 필요가 있었던 거야.

そのためには新しい自転車である必要があったの。

사 ㄴ 지 얼마 안 되 ㄴ 자전거를 무작정 방치해 두는 사람은 없으니까.

산 지 얼마 안 된 自転車を 無酌定 放置해 두는 사람은 없으니까.

산 지 얼마 안 된 자전거를 무작정 방치해 두는 사람은 없으니까.

買ったばかりの自転車を無作放しておく人はいないから。

만일 그런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경찰에 신고하 ㄴ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萬一 그런 自転車を 도둑맞는다면 警察에 申告할 可能性이 높단 말이지.

만일 그런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もしそんな自転車を盗むなら警察に届け出る可能性が高いだろう。

물론 지금 말하 ㄴ 것들이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 ㄴ 절대 조건이라는 거 ㄴ 아니야。

勿論 只今 말한 것들이 犯行을 偽裝하기 爲한 絶對 條件이라는 건 아니야。

물론 지금 말한 것들이 범행을 위장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건 아니야。

もちろん今言ったことが犯行を偽装するための絶対条件というわけではない。

범인의 입장에서는 잘되면 다행이라는 정도의 기분으로 되도록이면 성공하 ㄴ 확률이 높으 ㄴ 방법을 선택하 ㄴ 거지。

犯人의 立場에서는 잘되면 多幸이라는 程度의 氣分으로 되도록이면 成功할 確率が 높은 方法을 選擇한 거지。

범인의 입장에서는 잘되면 다행이라는 정도의 기분으로 되도록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한 거지。

犯人の立場ではうまくいけば幸いという程度の気持ちになるようにすれば成功する確率の高い方法を選んだのだ。

“흠……。

“흠……。

“흠……。

「うーん…」 …。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추리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었다。

此時加味는 有價와 추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었다。

이시가미는 유가와와 추리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었다。

石神は湯川の推理について何も言及しないまま先だけ見て歩いた。

이윽고 두 사람은 학교 가까이에 이르러섰다。

이윽고 두 사람은 學校 가까이에 이르렀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학교 가까이에 이르렀다。

やがて二人は学校の近くに至った。

보도에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섰다。

報道에 學生들의 모습이 보이기 始作했다。

보도에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報道に学生たちの姿が見え始めた。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좀 더 듣고 싶지만,”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좀 더 듣고 싶지만,”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좀 더 듣고 싶지만,”

「話が面白くてもう少し聞きたいけど、」

이시가미가 걸음을 멈추고 유가와를 향해 돌아서^ㄴ다。

이時加味가 걸음을 멈추고 有價와를 向해 돌아섰다。

이시가미가 걸음을 멈추고 유가와를 향해 돌아섰다。

石神が歩きを止めて湯川に向かって帰った。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만하는 게 좋겠어。

「やめてほし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學生들에게 들려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学生達に聞かせたくないからね。

“그게 좋겠지。

“그게 좋겠지。

“그게 좋겠지.

「それがいいだろう。

나도 하고 싶어했던 말은 얼추 하 ㄴ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었던 말은 얼추 한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었던 말은 얼추 한 것 같아.

私もやりたかった言葉は凍ったようだ。

“상당히 재미있어 ㄴ어.

“相當히 재미있었어.

“상당히 재미있었어.

「かなり面白かった。

이시가미가 말해 ㄴ다.

이時加味가 말했다.

이시가미가 말했다.

石神が言った。

“전에 자네가 이런 문제를 내 ㄴ 적이 있어 ㄴ지.

“前に 자네가 이런 問題を 낸 적이 있었지.

“전에 자네가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었지.

「前に君がこんな問題を出したことがあった。

사람이 풀기 힘든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느냐, 라는。

사람이 풀기 힘든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中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느냐, 라는。

사람이 풀기 힘든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렵겠느냐, 라는。

人が解けにくい問題を作るのと、その問題を解くことのどちらがもっと難しいのか、という。

기억해?”

記憶해?”

기억해?”

覚えてる？」

“기억하고말고。

“記憶하고말고。

“기억하고말고。

「覚えてはいけない。

내 대답은 문제를 만드는 쪽이 어렵다는 거여...어。

내 對答은 問題を 만드는 쪽이 어렵다는 거였어。

내 대답은 문제를 만드는 쪽이 어렵다는 거였어.

私の答えは問題を作る方が難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

문제를 푸는 사람은 출제자에게 늘 경의를 표해야 하_ㄴ다고 생각해.

問題を 푸는 사람은 出題者에게 늘 敬意を 表해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출제자에게 늘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해.

問題を解く人は出題者にいつも敬意を表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そうだね.

그럼 $P \neq NP$ 문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해답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답이 옳으_ㄴ지 그르_ㄴ지를 판단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하_ㄴ까?”

그럼 $P \neq NP$ 問題は? 스스로 생각해서 解答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

람의 答이 옳은지 그른지를 判斷하는 것 中 어느 쪽이 더 簡単할까?”

그럼 $P \neq NP$ 문제는? 스스로 생각해서 해답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

람의 답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할까?”

では、 $P \neq NP$ の問題は？自分で考えて答えを引き出すことと、他人の答え

が正しいか正しいかを判断することのどちらがもっと簡単か？

이시가미의 물음에 유가와는 어리둥절하^ㄴ 표정을 지어^ㅆ다.

이時加味の 물음에 有價와는 어리둥절한 表情을 지었다.

이시가미의 물음에 유가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石神の問いに湯川とは愚かな表情をした。

이시가미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아^ㄴ 수 없어^ㅆ기 때문이다.

이時加味が 그런 말을 하는 意圖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시가미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石神がそんなことを言う意図が分からなかったからだ。

“자네는 자신의 답을 먼저 내놓아^ㅆ어.

“자네는 自身の 答을 먼저 내놓았어.

“자네는 자신의 답을 먼저 내놓았어.

「君は自分の答えを先に出した。

다음은 남이 내놓으^ㄴ 답을 들어 주^ㄴ 차례야.

다음은 男이 내놓은 答을 들어 줄 次例야.

다음은 남이 내놓은 답을 들어 줄 차례야.

次は他人が出した答えを聞く順番だ。

그렇게 말하고 그는 유가와와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켜^ㅆ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有價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유가와와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そう言って、彼は油との胸を指で指していた。

“이시가미……。

“이時가美……。

“이시가미……。

「石神… …。

“그럼 이만。

“그럼 이만。

“그럼 이만。

「じゃあこれだけ。

이시가미가 유가와에게 등을 보이고 걸어가^ㄴ다。

이時加味が 有價와에게 등을 보이고 걸어갔다。

이시가미가 유가와에게 등을 보이고 걸어갔다。

石神が湯川に背中を見せて歩いた。

가방을 끌어안으^ㄴ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ㄴ다。

가방을 끌어안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가방을 끌어안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バッグを抱きしめた腕に力がたくさん入っていた。

결국 여기까지인가, 하고 그는 생각해냈다.

結局 여기까지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결국 여기까지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結局ここまでか、と彼は考えた。

저 물리학자는 모든 것을 알아 버려냈다.

저 物理學者는 모든 것을 알아 버렸다.

저 물리학자는 모든 것을 알아 버렸다.

その物理学者はすべてを知ってしまった。

디저트로 우유 젤리를 먹는 동안에도 미사토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냈다.

디저트로 牛乳 젤리를 먹는 동안에도 미사토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디저트로 우유 젤리를 먹는 동안에도 미사토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デザートでミルクゼリーを食べながらも、ミサトは口をしっかりと閉めていた。

역시 데리고 오지 마라 거라 그래나 싶어 야스코는 마음이 불안해냈다.

亦是 데리고 오지 말 걸 그랬나 싶어 야스코는 마음이 不安했다.

역시 데리고 오지 말 걸 그랬나 싶어 야스코는 마음이 불안했다.

やっぱり連れて来ないなんてそうだったヤスコは心が不安だった。

“많이 먹어ㄸ어, 미사토 짱?”

“많이 먹었어, 미사토 짱?”

“많이 먹었어, 미사토 짱?”

「たくさん食べたよ、ミサトちゃん？」

구도가 말을 걸어ㄸ다。

構圖가 말을 걸었다。

구도가 말을 걸었다。

構図が話しかけた。

그는 오늘 저녁 시종일관 미사토에게 신경을 기울이고 있어ㄸ다。

그는 오늘 저녁 始終一貫 미사토에게 神經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저녁 시종일관 미사토에게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다。

彼は今夜終始一貫ミサトに気を配っていた。

미사토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채 디저트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

여ㄸ다。

미사토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디저트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
덕였다。

미사토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디저트를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

덕였다。

ミサトは彼に注目すら与えずにデザートを口に入れて首をうなずいた。

세 사람은 긴자에 있는 중화요리 집에 와 있어ㄴ다。

세 사람은 긴자에 있는 中化料理 집에 와 있었다。

세 사람은 긴자에 있는 중화요리 집에 와 있었다。

三人は銀座にある中華料理の家に来ていた。

구도가 반드시 미사토와 함께 오라고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내키지 않아 하는 미사토를 억지로 끌고 오ㄴ 참이여ㄴ다。

構圖가 반드시 미사토와 함께 오라고 申申當付하는 바람에 내키지 않아 하는 미사토를 억지로 끌고 온 참이었다。

구도가 반드시 미사토와 함께 오라고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내키지 않아 하는 미사토를 억지로 끌고 온 참이었다。

構図が必ずミサトと一緒に来ると新新党付する風にさらさないミサトを無理やり引き付けてきた真だった。

중학생만 돼도 맛있는 거ㄴ 사 주ㄴ다는 말로는 아무 효과를 보ㄴ 수 없다。

中學生만 돼도 맛있는 걸 사 준다는 말로는 아무 效果를 볼 수 없다。

중학생만 돼도 맛있는 걸 사 준다는 말로는 아무 효과를 볼 수 없다。

中学生になっても美味しいものを買ってくれるという言葉では何の効果も見られない。

결국 야스코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경찰이 의심하_ㄴ다는 말로 겨우 미사토를 설득해_ㄴ다。

結局 야스코는 너무 不自然스럽게 行動하면 警察이 疑心한다는 말로 겨우 미사토를 説得했다。

결국 야스코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경찰이 의심한다는 말로 겨우 미사토를 설득했다。

結局、ヤスコはあまり不自然に行動すれば警察が疑うという言葉でやっとミサトを説得した。

그러나 이래 가지고는 구도를 불쾌하게 만들고 말겠다며 야스코는 후회해_ㄴ다。

그러나 以來 가지고는 構圖를 不快하게 만들고 말겠다며 야스코는 後悔했다。

그러나 이래 가지고는 구도를 불쾌하게 만들고 말겠다며 야스코는 후회했다。

しかし以來持っては構図を不快にさせようとヤスコは後悔した。

구도가 식사하는 내내 미사토에게 열심히 말을 걸어_ㄴ지만 미사토는 끝내 한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_ㄴ다。

構圖가 食事하는 내내 미사토에게 熱心히 말을 걸었지만 미사토는 끝내 한번도 제대로 對答하지 않았다。

구도가 식사하는 내내 미사토에게 열심히 말을 걸었지만 미사토는 끝내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構図が食事する間、ミサトに一生懸命話したが、ミサトはついに一度もきちんと答えなかった。

우유 젤리를 다 먹으니까 미사토가 야스코 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牛乳 젤리를 다 먹은 미사토가 야스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유 젤리를 다 먹은 미사토가 야스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牛乳ゼリーを全部食べたミサトが、ヤスコに向かって首を回した。

“화장실에 가왔다 오겠지.

“化粧室에 갔다 올게.

“화장실에 갔다 올게.

「トイレに行きました。

“응,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うん、そうだ。

미사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야스코는 구도에게 사과의를 말을 해왔다.

미사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야스코는 構圖에게 沙果의 말을 했

다。

미사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야스코는 구도에게 사과의 말을 했다。

ミサトが帰ってくるのを待っている間、ヤスコは構図に謝罪を言った。

“구도 씨, 미안해요。

“構圖 氏, 未安해요。

“구도 씨, 미안해요。

「構図さん、ごめんなさい。

“뭐가?”

“뭐가?”

“뭐가?”

「何が？」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냈다。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表情을 지었다。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彼は英語を知らないという表情をした。

물론 연기이 ㄴ 것이다。

勿論 演技일 것이다。

물론 연기일 것이다.

もちろん演技だろう。

“저 아이, 낮을 가려요.

“低 아이, 낮을 가려요.

“저 아이, 낮을 가려요.

「あの子、見知らぬ人。

특히 어른 남자를 대하는 게 서투르죠.

特히 어른 男子를 對하는 게 서투르죠.

특히 어른 남자를 대하는 게 서투르죠.

特に大人の男性を扱うのが不器用です。

구도가 미소를 지어^ㄴ다.

構圖가 微笑를 지었다.

구도가 미소를 지었다.

構図が微笑んだ。

“사이가 금방 좋아지 ^ㄴ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

“사이가 今方 좋아질 거라고는 期待하지 않아.

“사이가 금방 좋아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

「仲がすぐに良くなるとは思わない。

나 역시 중학생 때는 저런 식이었어.

나 亦是 中學生 때는 저런 式이었어。

나 역시 중학생 때는 저런 식이었어。

私やはり中学生の時はあんな式だった。

오늘은 일단 만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오늘은 一뜨 만났다는 事實만으로 充分해。

오늘은 일단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今日は一度会ったという事実だけで十分。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ありがとう。

구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자에 걸쳐 놓은 웃웃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

를 꺼내다。

構圖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椅子에 걸쳐 놓은 웃웃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

터를 꺼냈다。

구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자에 걸쳐 놓은 옷옷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構図は頭をうなずいて椅子にかけて置いた笑いポケットからタバコとライターを取り出した。

식사 중에는 미사토 때문에 참아_ㅅ으_ㄴ 것이다。

食事 中에는 미사토 때문에 참았을 것이다。

식사 중에는 미사토 때문에 참았을 것이다。

食事中はミサトのため我慢しただろう。

“그런데…… 그 뒤로는 별일 없어_ㅅ어?”

“그런데…… 그 뒤로는 別일 없었어?”

“그런데…… 그 뒤로는 별일 없었어?”

「ところで… …あとはあまりなかった？」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구도가 물어_ㅅ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構圖가 물었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구도가 물었다。

タバコを一口吸い込んでから構図が尋ねた。

“뭐가요?”

“뭐가요?”

“뭐가요?”

「何ですか？」

“사건 말이야。

“事件 末이야。

“사건 말이야。

「事件だよ。

아, 하고 야스코는 눈을 살짝 내리깔아다가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아

다。

아, 하고 야스코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다가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

다。

아, 하고 야스코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다가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

다。

あ、とヤスコは目をそっと下げて再び彼の顔を眺めた。

“특별하ㄴ 일은 없어ㄴ어요。

“特別한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特別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저 평범하ㄴ 일상이죠。

그저 平凡한 日常이죠。

그저 평범한 일상이죠。

ただ普通の日常ですね。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多幸이고。

“그렇다면 다행이고。

「それなら幸いだし。

형사는 이제 안 와?”

刑事는 이제 안 와?”

형사는 이제 안 와?”

探偵はもう来ない？」

“요즘은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本 的이 없어요。

“요즘은 본 적이 없어요。

「最近は見たことはありません。

가게에도 안 오고요。

가게에도 안 오고요。

가게에도 안 오고요。

お店にも来ません。

구도 씨한테는요?”

구도 氏한테는요?”

구도 씨한테는요?”

構図さんには？」

“응, 나한테도 안 와.

“응, 나한테도 안 와.

“응, 나한테도 안 와.

「うん、私にも来ない。

아무래도 의심이 풀리 ㄴ 모양이야.

아무래도 疑心이 풀린 模様이야.

아무래도 의심이 풀린 모양이야.

どうやら疑いが解けたようだ。

구도가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 ㅅ다.

構圖가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 ㅅ다.

구도가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 ㅅ다.

構図がタバコを灰皿に震えた。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ただ一つ気になることがある。

“그게 뭐 ㄴ데요?”

“그게 원데요?”

“그게 원데요?”

「それは何ですか？」

“흠……。

“흠……。

“흠……。

「うーん…」 …。

구도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가 입을 열어ㄴ다.

構圖는 暫時 망설이는 表情을 짓다가 입을 열었다.

구도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다가 입을 열었다.

構図はしばらく躊躇する表情をして口を開いた。

“실은 요즘 누구 ㄴ가 전화를 해 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일이 자주 있어.

“實은 요즘 누군가 電話를 해 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일이 자주 있어.

“실은 요즘 누군가 전화를 해 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일이 자주 있어.

「実は最近誰か電話をしておいて何も言わないことがよくある。

집 전화로 말이야.

집 電話로 말이야.

집 전화로 말이야.

家の電話でね。

“어머, 기분 나빠라.

“어머, 氣分 나빠라.

“어머, 기분 나빠라.

「あら、気持ち悪い。

야스코가 미간을 찡그려^ㅅ다.

야스코가 眉間을 찡그렸다.

야스코가 미간을 찡그렸다.

ヤスコが眉間をゆがめた。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そして、」

구도가 머뭇거리면서 웃웃 주머니에서 메모지 같은 것을 꺼내었다.

構圖가 머뭇거리면서 웃웃 주머니에서 메모紙 같은 것을 꺼냈다.

구도가 머뭇거리면서 웃웃 주머니에서 메모지 같은 것을 꺼냈다.

構図が躊躇りながら笑顔のポケットからメモ紙のようなものを取り出した。

“이런 게 우편함에 들어 있어.어.

“이런 게 郵便函에 들어 있었어.

“이런 게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

「こんなのがメールボックスに入っていた。

야스코는 메모지에 적혀 L 글을 보고 깜짝 놀라.다.

야스코는 메모紙에 적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야스코는 메모지에 적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ヤスコはメモ紙に書かれた文を見てびっくりした。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기 때문이다.

自身の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自分の名前が書かれていたから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ㅅ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ㅆ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ㅆ았다.

その内容は次の通りであ^った。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接近하지 말도록.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花岡康子に近づかないように。

그녀를 행복하게 해 주^ㄴ 사람은 당신 같으^ㄴ 남자가 아니다.

그女를 幸福하게 해 줄 사람은 當身 같은 男子가 아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 줄 사람은 당신 같은 남자가 아니다.

彼女を幸せにしてくれる人はあなたのような男ではない。

,

,

,

,

워드 프로세서로 쓰^ㄴ 듯해^ㅅ다.

워드 프로세서로 쓴 듯했다.

워드 프로세서로 쓴 듯했다.

ワードプロセッサで書いたようだった。

물론 보내 ㄴ 사람의 이름은 없어ㄸ다.

勿論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물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もちろん、送信者の名前はなかった。

“우편으로 오 ㄴ 거 ㄴ가요?”

“郵便으로 온 건가요?”

“우편으로 온 건가요?”

「郵便で来たのですか？」

“아니야, 누구 ㄴ가 직접 우편함에 넣으 ㄴ 것 같아.

“아니야, 누군가 直接 郵便函에 넣은 것 같아.

“아니야,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은 것 같아.

「いや、誰かが直接メールボックスに入れたらしい。

“짐작 가는 사람이 있어요?”

“斟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짐작 가는 사람이 있어요?”

「推測行く人がいますか？」

“전혀 없어.

“全然 없어.

“전혀 없어.

「全くない.

그래서 야스코한테 물어보려고 가져오_ㄴ 거야.

그래서 야스코한테 물어보려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야스코한테 물어보려고 가져온 거야.

それで、ヤスコに聞いてみようと思ってきたんだ。

“저도 짚이는 데는 없는데…….

“저도 짚이는 데는 없는데…….

“저도 짚이는 데는 없는데…….

「私もわらにはいないのに……」 ... 。

야스코는 핸드백을 끌어당겨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_ㅆ다.

야스코는 핸드백을 끌어당겨 안에서 손手巾을 꺼냈다.

야스코는 핸드백을 끌어당겨 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ヤスコはハンドバッグを引き寄せ、中からハンカチを取り出した。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 ㅅ기 때문이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기 때문이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기 때문이다。

手のひらに汗が興乾したからだ。

“우편함에 이 편지만 들어 있어 ㅅ어요?”

“郵便函에 이 便紙만 들어 있었어요?”

“우편함에 이 편지만 들어 있었어요?”

「メールボックスにこの手紙だけが入っていましたか？」

“아니, 사진도 한 장 있어 ㅅ어。

“아니, 寫眞도 한 張 있었어。

“아니, 사진도 한 장 있었어。

「いや、写真も一枚あった。

“사진이라고요?”

“寫眞이라고요?”

“사진이라고요?”

「写真って？」

“전에 야스코와 시나가와에서 만나 ㅅ으ㄴ 때 호텔 주차장에서 찍히 ㄴ 모양이

야。

“前に ヤスコと 市나가와에서 만났을 때 호텔 駐車場에서 찍힌 模様이야。

“전에 야스코와 시나가와에서 만났을 때 호텔 주차장에서 찍힌 모양이야。

「前に、ヤスコと品川で会ったとき、ホテルの駐車場で撮られた形だ。

전혀 눈치채지 못해ㄴ는데 말이지。

全然 눈치채지 못했는데 말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말이지。

全く気づかなかったのにね。

야스코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아ㄴ다。

야스코는 저도 모르게 周圍를 둘러보았다。

야스코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ヤスコは私も知らずに周りを見回した。

설마 여기서도 누구ㄴ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거ㄴ 아니겠지 하며。

설마 여기서도 누군가에게 監視當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며。

설마 여기서도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며。

まさかここでも誰かに監視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し。

미사토가 돌아오는 바람에 얘기는 거기서 중단돼ㄴ다。

미사토가 돌아오는 바람에 얘기는 거기서 中斷됐다。

미사토가 돌아오는 바람에 얘기는 거기서 중단됐다。

ミサトが帰ってくる風に話はそこで中斷された。

야스코와 미사토는 중국집을 나오자마자 구도와 헤어져 택시를 타ㄴ다。

야스코와 미사토는 中國집을 나오자마자 構圖와 헤어져 택시를 탔다。

야스코와 미사토는 중국집을 나오자마자 구도와 헤어져 택시를 탔다。

ヤスコとミサトは中国の家を出るやいなや構図と別れてタクシーに乗った。

“음식, 맛있어ㄴ어?”

“飮食, 맛있었어?”

“음식, 맛있었어?”

「食べ物、おいしかった？」

야스코가 딸에게 물어ㄴ다。

야스코가 딸에게 물었다。

야스코가 딸에게 물었다。

ヤスコが娘に尋ねた。

그러나 미사토는 부루퉁하ㄴ 표정을 지으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아ㄴ다。

그러나 미사토는 部루퉁한 表情을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사토는 부루퉁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しかし、ミサトは爽やかな表情をしたまま何も言わなかった。

“계속 그런 표정으로 있는 거ㄴ 실례잖아.

“繼續 그런 表情으로 있는 건 失禮잖아.

“계속 그런 표정으로 있는 건 실례잖아.

「ずっとそんな表情であるのは失礼じゃない。

“그러니까 안 데려와ㄴ으면 좋아ㄴ잖아.

“그러니까 안 데려왔으면 좋았잖아.

“그러니까 안 데려왔으면 좋았잖아.

「だから取らなかったらよかった。

그렇게 싫다고 해ㄴ는데.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そんなに嫌だと言ったのに。

“모처럼 초대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某처럼 招待하는데 어떻게 拒絕하겠어.

“모처럼 초대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

「せっかく招待するのにどうやって断るんだ。

“엄마 혼자 가면 되잖아。

“엄마 혼자 가免 되잖아。

“엄마 혼자 가면 되잖아。

「お母さん一人で行けばいいじゃないか。

이제 다시는 안 가ㄴ 거야。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もう二度と行きません。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어ㄴ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스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ヤスコはため息をついた。

구도는 언젠가 미사토가 마음을 여ㄴ 날이 오ㄴ 거라고 믿고 있지만 도무지 그

런 날이 오ㄴ 것 같지 않아ㄴ다。

構圖는 언젠가 미사토가 마음을 열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도무지 그

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구도는 언젠가 미사토가 마음을 열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도무지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構図はいつかミサトが心を開ける日が来ると信じているが、まったくそんな日が来そうにはなかった。

“엄마, 그 아저씨랑 결혼하ㄴ 거야?”

“엄마, 그 아저씨랑 結婚할 거야?”

“엄마, 그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お母さん、あのおじさんと結婚するの？」

느닷없이 미사토가 물어ㄴ다。

느닷없이 미사토가 물었다。

느닷없이 미사토가 물었다。

突然ミサトが尋ねた。

야스코는 시트에 기대고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ㄴ다。

야스코는 시트에 기대고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야스코는 시트에 기대고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ヤスコはシートに寄りかかっていた体を立ち上がった。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あなたが何を言っているのか。

“진지하게 묻는 거야。

“眞摯하게 묻는 거야。

“진지하게 묻는 거야。

「真剣に尋ねるの。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結婚하고 싶은 거 아니야?”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結婚したいのではないですか？」

“결혼 안 해。

“結婚 안 해。

“결혼 안 해。

「結婚しないでください。

“정말이야?”

“正말이야?”

“정말이야?”

「本当に？」

“당연하지。

“當然하지。

“당연하지。

「当然じゃない。

가끔 만나는 것뿐이야。

가끔 만나는 것뿐이야。

가끔 만나는 것뿐이야。

たまに会うだけだ。

“그럼 다행이고。

“그럼 多幸이고。

“그럼 다행이고。

「それでよかったです。

미사토가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려ㄴ다。

미사토가 窓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미사토가 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ミサトが窓側に顔を向けた。

“하고 싶으ㄴ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やりたいことは何ですか？」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いいえ、何も。

그렇게 말해 놓고서 미사토는 다시 천천히 야스코를 향해 고개를 돌려^ㄴ다.

그렇게 말해 놓고서 미사토는 다시 천천히 야스코를 向해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말해 놓고서 미사토는 다시 천천히 야스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そう言っておいて、ミサトは再びゆっくりとヤスコに向かって首を回した。

“그 아저씨를 배신하면 안 되^ㄴ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아저씨를 背信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아저씨를 배신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あのおじさんを裏切ってはいけないと思う。

“그 아저씨라니…….

“그 아저씨라니…….

“그 아저씨라니……。

「あのおじさんって… …。

미사토는 엄마의 눈을 뵈히 들여다보며 말없이 턱을 끌어당겨ㄴ다。

미사토는 엄마의 눈을 뵈히 들여다보며 말없이 턱을 끌어당겼다。

미사토는 엄마의 눈을 뵈히 들여다보며 말없이 턱을 끌어당겼다。

ミサトはママの目をじっと覗きながら言葉なしに顎を引き寄せた。

옆집 아저씨를 말하는 듯해ㄴ다。

옆집 아저씨를 말하는 듯했다。

옆집 아저씨를 말하는 듯했다。

隣のおじさんを言うようだった。

그거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택시 운전자 때문이ㄴ 것이다。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택시 運轉士 때문일 것이다。

그걸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택시 운전자 때문일 것이다。

それを口から出さないのはタクシー運転手のためだろう。

“너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넌 그런 거 神經 쓰지 않아도 돼。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君はそんなこと気にしなくていい。

야스코는 다시 시트에 몸을 기대^ㄴ다。

야스코는 다시 시트에 몸을 기댔다。

야스코는 다시 시트에 몸을 기댔다。

ヤスコは再びシートに身を寄せた。

미사토가 한숨을 내쉬어^ㄴ다。

미사토가 한숨을 내쉬었다。

미사토가 한숨을 내쉬었다。

ミサトがため息をついた。

엄마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다。

엄마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다。

엄마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다。

ママの言葉を信じているようではない。

야스코는 머릿속에 이시가미를 떠올려^ㄴ다。

야스코는 머릿속에 이時加味를 떠올렸다。

야스코는 머릿속에 이시가미를 떠올렸다。

ヤスコは頭の中に石神を思い浮かべた。

미사토가 말하지 않아도 야스코는 그에게 신경이 쓰여ㄴ다。

미사토가 말하지 않아도 야스코는 그에게 神經이 쓰였다。

미사토가 말하지 않아도 야스코는 그에게 신경이 쓰였다。

ミサトが言わなくても、ヤスコは彼に気になった。

구도에게 들으ㄴ 수상쩍으ㄴ 이야기도 마음에 걸려ㄴ다。

構圖에게 들은 殊常적은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다。

구도에게 들은 수상적은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다。

構図に聞いた不審な話も気になった。

야스코로서는 짐작 가는 인물이 단 한 사람뿐이어ㄴ다。

야스코로서는 斟酌 가는 人物이 單 한 사람뿐이었다。

야스코로서는 짐작 가는 인물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

ヤスコとしては推測行く人物がたった一人だけだった。

야스코가 구도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ㄴ으ㄴ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시가미의 어두우ㄴ 눈을 지금도 잊으ㄴ 수 없다。

야스코가 構圖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時加味の 어두운 눈을 只今도 잊을 수 없다。

야스코가 구도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시가미의 어두운 눈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ヤスコが構図とともにタクシーに乗って家に帰った時、その姿を見守っていた石神の暗い目を今も忘れられない。

야스코가 구도를 만나 ㄴ다는 사실을 알고 이시가미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 ㄴ 수 있어 ㄴ다。

야스코가 構圖를 만난다는 事實을 알고 이時加味가 嫉妬心에 사로잡혀 있으리라는 것은 充分히 斟酌할 수 있었다。

야스코가 구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시가미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ヤスコが構図に出会うという事実を知って石神が嫉妬心にとら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十分に推測できた。

그가 범행을 은폐하는 데 협력하고 하나오카 모녀를 경찰의 손에서 지켜 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야스코를 향하 ㄴ 연정 때문이 ㄴ 것이다。

그가 犯行을 隱蔽하는 데 協力하고 하나오카 母女를 警察의 손에서 지켜 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야스코를 向한 聯政 때문일 것이다。

그가 범행을 은폐하는 데 협력하고 하나오카 모녀를 경찰의 손에서 지켜 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야스코를 향한 연정 때문일 것이다。

彼が犯行を隠蔽するのに協力し、花岡母女を警察の手から守ってくれているのは、ひたすら靖子に向けた連合のためだろう。

구도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 역시 이시가미이 ㄴ까。

構圖를脅迫하고 있는 사람亦是 이시가미일까。

구도를협박하고 있는 사람 역시 이시가미일까。

構図を脅迫している人やはり石神だろうか。

만일 그렇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하ㄴ 작정이ㄴ까。

萬一 그렇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할 作定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할 作정일까。

もしそうなら、彼は私をどうするつもりなのだろうか。

그런 생각을 하자 야스코는 마음이 불안해져ㄴ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야스코는 마음이 不安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야스코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そんな考えをすると、ヤスコは心が不安になった。

공범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그녀의 생활을 지배하려는 것이ㄴ가。

共犯이라는 事實을 내세워 그女の生活を支配하려는 것인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그녀의 생활을 지배하려는 것인가。

共犯という事実を掲げて彼女の生活を支配しようとするのか。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나는 것조차 두고 보지 않으ㄴ

생각이ㄴ까。

그녀가 다른 男子와 結婚하는 것은 勿論이고 만나는 것조차 두고 보지 않을 생각일까。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나는 것조차 두고 보지 않을 생각일까。

彼女が他の男と結婚するのはもちろん、会うことすら置いてみないと思うだろうか。

도가시를 죽인 야스코가 이시가미 덕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가市를 죽인 야스코가 이時加味 徳분에 警察의 追跡을 避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도가시를 죽인 야스코가 이시가미 덕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道鹿市を殺した靖子が石神のおかげで警察の追跡を避けているのは事実だ。

그 점에 대해서는 야스코도 고마워하고 있어^ㄴ다。

그 點에 對해서는 야스코도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스코도 고마워하고 있었다。

その点については、ヤスコ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ㄴ다면 과연 무엇을 위하^ㄴ은폐 공작이어^ㄴ단 말이^ㄴ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平生 그의 支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果然 무엇을
爲한 隱蔽 工作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은폐 공작이었단 말인가。

しかしそのために生涯彼の支配から抜け出せなければ、果たして何のため
の隱蔽工作だったのか。

이런 상태라면 도가시가 살아 있으 ㄹ 때와 별로 다르 ㄹ 바가 없어 ㄴ다。

이런 狀態라면 도가시가 살아 있을 때와 別로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상태라면 도가시가 살아 있을 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こういう状態だと、嵐が生きている時とあまり変わらなかった。

상대가 도가시에서 이시가미로 바뀌어 ㄴ으 ㄹ 뿐이다。

相對가 都家時에서 此時加味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가 도가시에서 이시가미로 바뀌었을 뿐이다。

相手が東賀市から石神に変わったただけだ。

게다가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 ㄹ 수도 배신하 ㄹ 수도 없는 상대다。

게다가 이番에는 絶對로 逃亡칠 수도 背信할 수도 없는 相對だ。

게다가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칠 수도 배신할 수도 없는 상대다。

しかも今回は絶対に逃げることも裏切ることもできない相手だ。

택시가 집 앞에서 멈춰ㅆ다.

택시가 집 앞에서 멈췄다.

택시가 집 앞에서 멈췄다.

タクシーが家の前で止まった。

택시에서 내리ㄴ 야스코는 연립 주택의 계단을 올라ㅆ다.

택시에서 내린 야스코는 聯立 住宅의 階段을 올랐다.

택시에서 내린 야스코는 연립 주택의 계단을 올랐다.

タクシーで降りたヤスコは連立住宅の階段を上がった。

이시가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어ㅆ다.

이時加味の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시가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石神の家に火がついていた。

집에 들어오ㄴ 야스코는 옷을 갈아입어ㅆ다.

집에 들어온 야스코는 옷을 갈아입었다.

집에 들어온 야스코는 옷을 갈아입었다.

家に入ったヤスコは服を着替えた。

그 직후 옆집 현관문이 열려ㅆ다 달히는 소리가 들려ㅆ다.

그 直後 옆집 玄關門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직후 옆집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その直後、隣の玄關門が開かれ、閉じる音が聞こえた。

미사토가 “거봐, 아저씨가 오늘 밤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ㄴ단 말이야.

미사토가 “거봐, 아저씨가 오늘 밤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미사토가 “거봐, 아저씨가 오늘 밤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ミサトが「ねえ、おじさんが今夜も私たちを待っていたんだよ。

”라고 속삭여ㄴ다.

”라고 속삭였다.

”라고 속삭였다.

」とささやいた。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わかりました、私も。

야스코는 그만 투명스럽게 되받고 말아ㄴ다.

야스코는 그만 투명스럽게 되받고 말았다.

야스코는 그만 투명스럽게 되받고 말았다.

ヤスコはやめるようになった。

몇 분 후 휴대 전화가 울려쌰다.

몇 分 後 携帯 電話가 울렸다.

몇 분 후 휴대 전화가 울렸다.

数分後に携帯電話が鳴った。

야스코가 전화를 받아쌰다.

야스코가 電話를 받았다.

야스코가 전화를 받았다.

ヤスコが電話を受けた。

“네.

“네.

“네.

「はい。

“이시가미이 ㅂ니다.

“이時加味입니다.

“이시가미입니다.

「石神です。

예상해 ㄴ 던 목소리여 ㄴ 다。

豫想했던 목소리였다。

예상했던 목소리였다。

予想した声だった。

“통화, 괜찮습니까?”

“通話, 괜찮습니까?”

“통화, 괜찮습니까?”

「通話、大丈夫ですか？」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はい、大丈夫です。

“오늘도 별일 없어 ㄴ 습니까?”

“오늘도 別일 없었습니까?”

“오늘도 별일 없었습니까?”

「今日もあまりいませんでしたか？」

“네, 아무 일도요.

“네, 아무 일도요.

“네, 아무 일도요.

「はい、何もありません。

“그래요? 다행이 ㄴ니다.

“그래요? 多幸입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そうですか? 幸いです。

이시가미가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져 ㄴ다.

이時加味가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이시가미가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石神がため息をつくのが感じられた。

“실은 하나오카 씨에게 꼭 해 드리 ㄴ 말씀이 있습니다.

“實은 하나오카 氏에게 꼭 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은 하나오카 씨에게 꼭 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実は花岡さんにぜひやってあげる言葉があります。

하나는 맥 우편함에 편지 세 통을 넣어 두어 ㄴ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는 거

입니다。

하나는 宅 郵便函에 便紙 세 통을 넣어 두었으니 나중에 確認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는 맥 우편함에 편지 세 통을 넣어 두었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ひとつはお宅の郵便箱に手紙三本を入れておいたので後で確認してみてください
さいということです。

“편지……라고요?”

“便紙……라고요?”

“편지……라고요?”

「手紙… …って？」

야스코가 현관문을 바라보아^ㅅ다。

야스코가 玄關門을 바라보았다。

야스코가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ヤスコが玄関口を眺めた。

“그 편지는 앞으로 쓰이^ㄴ 곳이 있으^ㄴ 테니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그 便紙는 앞으로 쓰일 곳이 있을 테니 所重하게 保管해 주세요。

“그 편지는 앞으로 쓰일 곳이 있을 테니 소중하게 보관해 주세요。

「その手紙はこれから書くところがあるので大切に保管してくださ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ご存知ですか？」

“아, 네。

“아, 네。

“아, 네。

「あ、はい。

“편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메모를 적어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便紙の用途에 對해서는 메모를 적어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편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메모를 적어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手紙の用途については、メモを書き留めて一緒に入れておきました。

말하 ㄴ 것도 없이 그 메모는 읽는 즉시 없애 주시고요。

말할 것도 없이 그 메모는 읽는 即時 없애 주시고요。

말할 것도 없이 그 메모는 읽는 즉시 없애 주시고요。

言うまでもなく、そのメモは読むとすぐに取り除いてくれます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わかりました。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只今 確認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今確認してみましょう。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ゆっくり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중요하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重要な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そして重要な話がもう一つあります。

거기까지 말하고서 이시가미는 잠시 틈을 두어ㄴ다.

거기까지 말하고서 이時加味는 暫時 틈을 두었다.

거기까지 말하고서 이시가미는 잠시 틈을 두었다.

そこまで言って石神はしばらく隙を置いた。

야스코는 그가 뭐ㄴ가를 주저하고 있다고 느껴ㄴ다.

야스코는 그가 뭔가를躊躇하고 있다고 느꼈다.

야스코는 그가 뭔가를 주저하고 있다고 느꼈다.

ヤスコは彼が何かを躊躇していると感じた。

“그게 뭐ㄴ가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それは何ですか？」

참다못하ㄴ 그녀가 물어ㄴ다.

참다못한 그女가 물었다.

참다못한 그녀가 물었다.

我慢できない彼女が尋ねた。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ㄴ,”

“이런 式으로 連絡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건,”

「このように連絡するのは、」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彼は再び口を開いた。

“이 전화가 마지막으로 되ㄴ 거ㄴ니다.

“이 電話가 마지막으로 될 겁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으로 될 겁니다.

「この電話は最後になるでしょう。」

제가 연락하는 일은 앞으로 없으ㄴ 거예요.

제가 連絡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제가 연락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私が連絡することはこれからないでしょう。

물론 야스코 씨도 제게 연락해서는 안 되ㄴ니다.

勿論 야스코 氏도 제게 連絡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야스코 씨도 제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もちろん、ヤスコさんも私に連絡してはいけません。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 ㄴ 다 해도 야스코 씨나 따님은 방관자로 머물러야 하 ㅂ
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야스코 氏나 따님은 傍觀자로 머물러야 합
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야스코 씨나 따님은 방관자로 머물러야 합
니다。

私に何が起こっても、ヤスコさんや娘さんは傍觀者にとどまらなければなり
ません。

그것이 두 사람을 구하 ㅂ 수 있는 유일하 ㄴ 길이 ㅂ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求할 수 있는 唯一한 길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それが二人を救う唯一の道です。

이야기를 듣던 야스코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해 ㅅ다。

이야기를 듣던 야스코의 가슴이 激하게 뛰기 始作했다。

이야기를 듣던 야스코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話を聞いたヤスコの胸が激しく走り始めた。

“이시가미 씨, 그게 대체 무슨 얘기죠?”

“이時가美 氏, 그게 代替 무슨 얘기죠?”

“이시가미 씨, 그게 대체 무슨 얘기죠?”

「石神さん、それは一体何なんですか？」

“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은 듣지 않는 편이 좋아요。”

“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은 듣지 않는 편이 좋아요。”

“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은 듣지 않는 편이 좋아요。”

「いつかはご存知でしょうが、今は聞かない方がいいですよ。」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以上の内容を絶対に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상의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とにかく以上の内容を絶対に忘れてはいけません。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ご存知ですか？」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좀 仔細히 説明해 주세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詳しく説明してください。

야스코의 기색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ㄴ는지 미사토가 다가와ㄴ다.

야스코의 氣色이 尋常치 않다고 느꼈는지 미사토가 다가왔다.

야스코의 기색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미사토가 다가왔다.

ヤスコの気配がイメージではないと感じたのか、ミサトが近づいてきた。

“설명하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ㄴ니다.

“説明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説明す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

그럼 이만.

그럼 이만.

그럼 이만.

じゃあこれだけ。

“아니, 하지만……。

“아니, 하지만……。

“아니, 하지만……。

「いや、でも……」 ……。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이미 끊겨 있어^ㄴ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前에 電話는 이미 끊겨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彼女の言葉が終わる前に、電話はすでに壊れていました。

구사나기의 휴대 전화가 울리^ㄴ 것은 그가 기시타니와 둘이서 차로 이동하고

있으^ㄴ 때였^ㄴ다。

驅使나기의 携帯 電話가 울린 것은 그가 기시他니와 둘이서 車로 移動하고

있을 때였다。

구사나기의 휴대 전화가 울린 것은 그가 기시타니와 둘이서 차로 이동하고

있을 때였다。

草薙の携帯電話が鳴ったのは、彼が岸谷と二人で車で移動していた時だっ

た。

뒤로 한껏 젖혀지^ㄴ 조수석 의자에 앉아 있던 구사나기는 그 상태로 전화를 받

아^ㄴ다。

뒤로 限껏 젖혀진 助手席 椅子에 앉아 있던 驅使나기는 그 狀態로 電話를

받았다。

뒤로 한껏 젖혀진 조수석 의자에 앉아 있던 구사나기는 그 상태로 전화를 받았다。

後ろに存分に濡れた助手席の椅子に座っていた草薙はその状態で電話を受けた。

“네, 구사나기입니다。

“네, 驅使나기입니다。

“네, 구사나기입니다。

「はい、草薙です。

“나야, 마미야。

“나야, 마미야。

“나야, 마미야。

「私、マミヤ。

반장의 탁하 ㄴ 목소리가 들려와 ㅅ다。

班長の 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장의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班長の濁った声が聞こえてきた。

“지금 곧장 에도가와 경찰서로 와。

“只今 公場 エド가와 警察署로 와。

“지금 公場 エ드가와 경찰서로 와。

「今すぐすぐに江戸川警察署に来て。

“뭐 ㄴ가 찾아내 ㄸ습니까?”

“뭔가 찾아냈습니까?”

“뭔가 찾아냈습니까?”

「何か見つけましたか？」

“그게 아니라 손님이야。

“그게 아니라 손님이야。

“그게 아니라 손님이야。

「それじゃなくて客だよ。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와 있어。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와 있어。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와 있어。

君に会いたいという人が来ている。

“손님이요?”

“손님이요?”

“손님이요?”

「お客様ですか？」

그는 일순 유가와인가 하고 생각해^ㄴ다。

그는 一瞬 有價와認可 하고 생각했다。

그는 일순 유가와인가 하고 생각했다。

彼は一瞬湯川とかと思った。

“이시가미라는 사람이야。

“이시가미라는 사람이야。

“이시가미라는 사람이야。

「石神という人だ。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고등학교 선생。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高等學校 先生。

하나오카 야스코의 옆집에 사는 고등학교 선생。

花岡康子の隣に住む高校先生。

“이시가미가 저를 만나러 와^ㄴ어요?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되^ㄴ까요?”

“이時加味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電話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시가미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石神が私に会いに来ましたか？電話で話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전화로는 안 돼。

“電話로는 안 돼。

“전화로는 안 돼。

「電話ではいけない。

마미야의 말투가 강경해^ㄴ다。

마미야의 말^ㅂ套가 強硬했다。

마미야의 말투가 강경했다。

真宮の言い方が強硬だった。

“중요하^ㄴ 용건이^ㄴ 모양이야。

“重要な 用件인 模様이야。

“중요한 용건인 모양이야。

「重要な用件であるようだ。

“내용을 들으셔^ㄴ어요?”

“内容を 들으셨어요?”

“내용을 들으셨어요?”

「内容を聞きましたか？」

“자세하 ㄴ 거 ㄴ 자네한테 말하겠다는 거야。

“仔細한 건 자네한테 말하겠다는 거야。

“자세한 건 자네한테 말하겠다는 거야。

「詳しくは君に言うということだ。

그러니까 빨리 와。

그러니까 빨리 와。

그러니까 빨리 와。

だから早く来て。

“그래요? 그럼 가야겠군요。

“그래요? 그럼 가야겠군요。

“그래요? 그럼 가야겠군요。

「そうですか？それでは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구사나기는 휴대 전화 송화구르 ㄴ 손으로 막은 채 기시타니를 향해 “에도가와
경찰서로 오래。

驅使나기는 携帶 電話 松花구를 손으로 幕은 채 기시타니를 向해 “에도가와
와 警察署로 오래。

구사나기는 휴대 전화 송화구를 손으로 막은 채 기시타니를 향해 “에도가와
와 경찰서로 오래。

草薙は携帯電話の送火口を手で塞いだまま岸谷に向かって「江戸川警察署で
長く。

” 하고 말해 ㄴ 다。

” 하고 말했다。

” 하고 말했다。

と言った。

그 순간 “자기가 죽여 ㄴ 대。

그 瞬間 “自己가 죽였대。

그 순간 “자기가 죽였대。

その瞬間「自分が殺したんだ。

”라는 마미야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와 ㄴ 다。

”라는 마미야의 목소리가 電話機에서 흘러나왔다。

”라는 마미야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というマミヤの声が電話機から流れ出た。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はい、何ですか？」

“도가시를 죽이 ㄴ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야。

“도가시를 죽인 사람이 自身이라는 거야。

“도가시를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야。

「道家市を殺した人が自分だというの。

다시 말하자면 이시가미가 자수를 하러 오 ㄴ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時加味が 自首를 하러 온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시가미가 자수를 하러 온 거야。

言い換えれば石神が刺繍をしに来たの。

“설마……!”

“설마……!”

“설마……!”

「まさか… … ！」

구사나기가 상체를 벌떡 일으켜 ㄴ다。

驅使나기가 上體를 벌떡 일으켰다。

구사나기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草薙が上体を広げた。

16

16

16

16

이시가미는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구사나기를 바라보고 있어ㄴ다。

이時加味는 完全히 無表情한 얼굴로 驅使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시가미는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구사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石神は完全に無表情な顔で駆け抜けを眺めていた。

아니, 어쩌면 시선만 구사나기를 향해ㄴ으ㄴ 뿐 시각 인식은 없으ㄴ지도 몰라
ㄴ다。

아니, 어쩌면 視線만 驅使나기를 向했을 뿐 時刻 認識은 없을지도 몰랐
다。

아니, 어쩌면 시선만 구사나기를 향했을 뿐 시각 인식은 없을지도 몰랐
다。

いや、多分視線だけ駆けつけに向っただけで視覚認識はないかもしれなか
った。

혹은 마음의 눈으로 어디ㄴ가 머ㄴ 곳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앞에 구사나기가
우연히 앉아 있으ㄴ 뿐이ㄴ지도 모르ㄴ다。

或은 마음의 눈으로 어딘가 먼 곳을 凝視하고 있는 그의 앞에 驅使나기가
偶然히 앉아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혹은 마음의 눈으로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앞에 구사나기가
우연히 앉아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あるいは心の目でどこか遠いところを見つめている彼の前に駆け出しが偶然
座っているだけなのかもしれない。

이시가미는 감정이라는 감정은 모두 걸어 내 ㄴ 얼굴을 하고 있어 ㄴ다.

이時加味는 感情이라는 感情은 모두 걸어 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시가미는 감정이라는 감정은 모두 걸어 낸 얼굴을 하고 있었다.

石神は感情という感情はみんな蹴った顔をしていた。

“그 남자를 처음 보 ㄴ 것은 3월 11일이에요.

“그 男子를 처음 본 것은 3 月 11 日이에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것은 3월 11일이에요.

「その男を初めて見たのは 3 月 11 日です。

그는 억양 없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해 ㄴ다.

그는 抑揚 없는 목소리로 陳述을 始作했다.

그는 억양 없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彼は抑揚のない声で陳述を始めた。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가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ㄴ어요.

“學校에서 돌아와 보니 그가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그가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学校から戻ってきたら、彼が家の前で立ち往生していました。

그러다가 하나오카 씨 집 현관문에 달리 ㄴ 우편함에 손을 넣어 뒤흔드는 거 ㄴ 보
았쥬.

그러다가 하나오카 氏 집 玄關門에 달린 郵便函에 손을 넣어 뒤흔드는 걸 봤
쥬.

그러다가 하나오카 씨 집 현관문에 달린 우편함에 손을 넣어 뒤흔드는 걸
봤쥬.

それから花岡さんの家の玄関口についた郵便箱に手を入れて遅れるのを見ま
した。

“잠깐, 그 남자라는 거 ㄴ …….

“잠깐, 그 男子라는 건…….

“잠깐, 그 남자라는 건…….

「ちょっと、あの男というのは……」 …….

“도가시라는 남자 말이 ㄴ 니다.

“도가시라는 男子 未입니다.

“도가시라는 남자 말입니다.

「道鹿市という男の言葉です。

물론 그때는 이름을 몰라ㄴ지만요。

勿論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요。

물론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요。

もちろんその時は名前を知りませんでした。

이시가미는 가까스로 입가에 미소를 떠올려ㄴ다。

이時加味는 가까스로 입가에 微笑를 떠올렸다。

이시가미는 가까스로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石神は身近に口元に笑顔を浮かべた。

취조실에는 구사나기와 함께 기시타니도 있어ㄴ다。

取調실에는 驅使나기와 함께 기시他니도 있었다。

취조실에는 구사나기와 함께 기시타니도 있었다。

取組室には草薙とともに岸谷もいた。

기시타니는 바로 옆 책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ㄴ다。

기시他니는 바로 옆 冊床에서 記録을 하고 있었다。

기시타니는 바로 옆 책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

岸谷はすぐ隣の机で記録をしていた。

그 외에 다른 형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시가미가 거부해ㄴ다。

그 외에 다른 刑事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時加味가 拒否했다.

그 외에 다른 형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시가미가 거부했다.

その他に他の刑事が入ってくるのは石神が拒否した。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질문을 하면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유여^ㄴ다。

여러 사람이 各其 다른 質問을 하면 얘기가 잘 整理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理由였다。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질문을 하면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複数の人がそれぞれ違う質問をすれば話がうまく整理されないようだという
のが理由だった。

“신경이 쓰이기에 말을 걸어^ㄴ어요。

“神經이 쓰이기에 말을 걸었어요。

“신경이 쓰이기에 말을 걸었어요。

「気になるので話しかけました。

그러자 남자는 당황하며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불일이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자 男子는 唐慌하며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불일이 있다’고 對答하더군요。
요。

그러자 남자는 당황하며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불일이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すると男は慌てて「花岡康子に見えることがある」と答えましたね。

그리고 자기가 별거 중인 남편이라고 해썩어요。

그리고 自己가 別居 中인 男便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별거 중인 남편이라고 했어요。

そして自分が別居中の夫だったんです。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썩지만 그가 마음을 놓도록 믿는 척 해썩어요。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마음을 놓도록 믿는 척 했어요。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마음을 놓도록 믿는 척했어요。

私はその言葉が嘘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が、彼が心を置くことを信じるふりをしました。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거짓말이라는 거 ㄴ 어떻게 알아ㄴ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嘘というのをどうやって知りましたか？」

구사나기가 물어ㄴ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이시가미는 숨을 살짝 들이쉬고 나서 대답해ㄴ다。

이時加味는 숨을 살짝 들이쉬고 나서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숨을 살짝 들이쉬고 나서 대답했다。

石神は息を軽く吸ってから答えた。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깐요。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에 對해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깐요。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에 대해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깐요。

「私は花岡康子について何でも知っていますから。

그녀가 이혼해ㄴ다는 사실도, 헤어지 ㄴ 전남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離婚했다는 事實도, 헤어진 前男便을 避하고 있다는 事實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헤어진 전남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彼女が離婚したという事実も、別れた元夫を避けているという事実もすべて知っています。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되었죠? 그녀의 이웃에 사_ㄴ다고는 해도 대화를 나누_ㄴ 적도 거의 없고 단지 그녀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의 단골이_ㄴ 뿐이라고 들어_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仔細히 알게 되었죠? 그녀의 이웃에 산다고는 해도 對話를 나눈 적도 거의 없고 但只 그녀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의 단골일 뿐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되었죠? 그녀의 이웃에 산다고는 해도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고 단지 그녀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의 단골일 뿐이라고 들었는데요。

「どうやってそんなに詳しく知りましたか？彼女の隣人に住んでいるとはいえ、会話を交わしたこともほとんどなく、ただ彼女が働く弁当屋の定番だけだと聞きました。

“물론 표면적으로야 그렇죠。

“勿論 表面積으로야 그렇죠.

“물론 表面적으로야 그렇죠.

「もちろん表面的にはそうです。

“표면적이라고요?”

“表面積이라고요?”

“표면적이라고요?”

「表面積って？」

그러자 이시가미는 등을 쪽 펴고 가슴을 조금 뒤로 젖혀ㄴ다.

그러자 이시가미는 등을 쪽 펴고 가슴을 조금 뒤로 젖혔다.

그러자 이시가미는 등을 쪽 펴고 가슴을 조금 뒤로 젖혔다.

すると石神は背中を伸ばして胸を少し後ろに濡らした。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의 보디가드 같은ㄴ 사람이ㄴ니다.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의 보디가드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의 보디가드 같은 사람입니다.

「私は花岡康子のボディーガードみたいな人です。

그녀에게 접근하는 이상하ㄴ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이죠.

그녀에게 接近하는 異常한 男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것이 내 役割이

죠.

그녀에게 접근하는 이상한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이
죠.

彼女に近づく奇妙な男から彼女を守ることが私の役割です。

하지만 그런 사실을 세상에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ㅏ어요.

하지만 그런 事實을 世上에는 別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세상에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でも、そんな事実を世の中にはあまり知りたくなかったんです。

어쨌든 내게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얼굴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게는 高等學校 教師라는 얼굴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내게는 고등학교 교사라는 얼굴이 있으니까요.

とにかく私には高校教師という顔がありますからね。

“그래서 처음에 저희에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ㄴ 거ㅓ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에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한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에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말한 겁니까?”

「だから最初に私たちによく分からない間だと言ったのでしょう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이시가미가 숨을 살짝 토해 내ㅓ다.

驅使나기의 물음에 이時加味が 숨을 살짝 토해 냈다.

구사나기의 물음에 이시가미가 숨을 살짝 토해 냈다。

草薙の問いに石神が息を軽く吐き出した。

“덱이 나를 찾아오 ㄴ 건 도가시 살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여 ㄸ잖아
요。

“宅이 나를 찾아온 件 도가시 殺害 事件에 對해 調査하기 爲해서였잖아
요。

“덱이 나를 찾아온 건 도가시 살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잖아
요。

「お宅が私を訪ねてきたのは、道鹿市殺害事件について調べるためだったで
しょう。

그런데 내가 사실대로 말하 ㄴ 리 있겠습니까? 그 즉시 의심을 받으 ㄴ 테 ㄴ 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事實대로 말할 理 있겠습니까? 그 卽時 疑心을 받을 텐데 말
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실대로 말할 리 있겠습니까? 그 즉시 의심을 받을 텐데 말
이에요。

ところで、私は事実どおりに話すことができますか？その直ちに疑われるで
しょう。

“그거 ㄴ 그럴것군요.

“그건 그럴것군요.

“그건 그럴것군요.

「それはそうですね。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여 ㄴ다.

驅使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사나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草薙が頭をうなずいた。

“그러니까 보디가드라서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일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라서 하나오카 야스코 氏의 일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
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라서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일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
다, 이 말씀이로군요.

「だからボディガードだから花岡康子さんのことなら何でも知っている、こ
のみことです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그럼 그전부터 그녀와 밀접하 ㄴ 관계가 있어 ㄴ다는 거 ㄴ가요?”

“그럼 그前부터 그女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럼 그전부터 그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それでは、以前から彼女と密接な関係があったというのです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어 ㄴ조.

勿論,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秘密이었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죠.

もちろん、また申し上げますが、他の人にとっては秘密でした。

그녀의 딸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고도 교묘하게 연락을 주고받아 ㄴ습
니다.

그女의 딸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慎重하고도 巧妙하게 連絡을 주고받았습

니다。

그녀의 딸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고도 교묘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彼女の娘さえ気づかないように慎重かつ巧妙に連絡を交わしました。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 ㄴ 거 ㄴ니까?”

“具體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具体的にどうしたのですか？」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そこにはいくつかの方法があります。

그거 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으 ㄴ까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それを先に話した方がいいですか？」

구사나기는 뭐 ㄴ가 묘하 ㄴ 느낌에 사로잡혀 ㅅ다。

驅使나기는 뭔가 妙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구사나기는 뭔가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草薙は何か妙な感じにとらわれた。

하나오카 야스코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는 것은 실로 당돌하고도 그 배경이 모호한 이야기였다.

하나오카 야스코와 秘密스런 關係였다는 것은 實로 唐突하고도 그 背景이 模糊한 이야기였다.

하나오카 야스코와 비밀스런 관계였다는 것은 실로 당돌하고도 그 배경이 모호한 이야기였다.

花岡康子と秘密の關係だったというのは、実に唐突してもその背景があいまいな話だった。

그러나 구사나기로서는 전체적인 사건을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이어쥔다.

그러나 驅使나기로서는 全體的인 事件을 빨리 把握하는 게 優先이었다.

그러나 구사나기로서는 전체적인 사건을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しかし、草薙としては全体的な事件を早く把握することが優先だった。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그 部分에 對해서는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듣도록 하지요.

「その部分については後で聞くようにします。

그때 도가시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도가시 氏와 무슨 對話를 나눴는지 좀 더 仔細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도가시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その際、嵯峨さんとどんな会話を交わしたのか、もう少し詳しく教えてください。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남편이라고 한 말을 일단 믿는 척했ㄴ다는 것까지 들어ㄴ습니다。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 氏의 男便이라고 한 말을 一뻔 믿는 척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 씨의 남편이라고 한 말을 일단 믿는 척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彼が花岡康子さんの夫という言葉を一度信じるふりをしたということまで聞きました。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가 어디 가ㄴ는지 아느냐고 묻더군요。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묻더군요。

“그가 하나오카 야스코가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묻더군요。

「彼は花岡康子がどこに行ったのか知っているのかと尋ねました。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對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だからこう答えました。

그녀는 지금 여기 살지 않는다, 직장 때문에 얼마 전에 이사해ㄴ다고요。

彼女は只今 여기 살지 않는다, 職場 때문에 얼마 前に 移徙했다고요。

그녀는 지금 여기 살지 않는다, 직장 때문에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요。

彼女は今ここに住んでいない、職場のためしばらく前に引っ越したんですよ。

그래ㄴ더니 좀 놀라는 눈치여ㄴ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そうしたらちょっと驚く気持ちでした。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어ㄴ습니다。

그리고 只今 彼女가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そして今、彼女がどこに住んでいるのかを尋ねました。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해ㄴ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對答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私は知っていると答えました。

“어디 사 ㄴ다고 해 ㅏ습니까?”

“어디 산다고 했습니까?”

“어디 산다고 했습니까?”

「どこに住んでいると言いました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이시가미는 빙그레 웃어 ㅏ다。

驅使나기의 물음에 이時加味는 빙그레 웃었다。

구사나기의 물음에 이시가미는 빙그레 웃었다。

草薙の問いに石神はぐるぐる笑った。

“시노자키요。

“時老子키요。

“시노자키요。

「篠崎よ。

구 에도 강변에 있는 연립 주택이라고 알려 줘 ㅏ습니다。

區 에도 強辯에 있는 聯立 住宅이라고 알려 줬습니다。

구 에도 강변에 있는 연립 주택이라고 알려 줬습니다。

旧江戸川沿いにある連立住宅だと教えてくれました。

여기서 시노자키가 나오는 거냐, 하고 구사나기는 생각해냈다.

여기서 市老子키가 나오는 건가, 하고 驅使나기는 생각했다.

여기서 시노자키가 나오는 건가, 하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ここで篠崎が出てくるのか、と草薩は考えた。

“그것만으로 도가시가 물려서던가요?”

“그것만으로 도가시가 물려서던가요?”

“그것만으로 도가시가 물려서던가요?”

「それだけで嵯峨が退いていますか？」

“그러냐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そうですね。

도가시는 상세하냐 주소를 알고 싶어 해했습니다。

도가시는 詳細한 住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가시는 상세한 주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道鹿市は詳細な住所を知りたかったです。

저는 놈을 기다리게 해 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주소를 메모해
습니다。

저는 놈을 기다리게 해 놓고 房으로 들어가서 指導를 보면서 住所를 메모
했습니다。

저는 놈을 기다리게 해 놓고 방으로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주소를 메모
했습니다。

私は奴を待たせて部屋に入って地図を見ながら住所をメモしました。

그 주소라는 것은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이어 ㅅ쵸。

그 住所라는 것은 下水 處理場이 있는 곳이었쵸。

그 주소라는 것은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이었쵸。

その住所というのは下水処理場があるところでした。

메모를 건네자 놈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메모를 건네자 놈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메모를 건네자 놈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メモを渡すと奴が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ね。

고맙다면서요。

고맙다면서요。

고맙다면서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왜 그런 주소를 주셔 ㄴ죠?”

“왜 그런 住所를 주셨죠?”

“왜 그런 주소를 주셨죠?”

「なぜそのような住所を与えたのですか？」

“그야 물론 인적이 드무 ㄴ 곳으로 놈을 유인하기 위해서죠。”

“그야 勿論 人的이 드문 곳으로 놈을 誘引하기 爲해서죠。”

“그야 물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놈을 유인하기 위해서죠。”

「それはもちろん人的が珍しいところで奴を誘引するためです。」

그 하수 처리장 부근의 지리는 전부터 잘 알고 있어 ㄴ습니다。

그 下水 處理場 附近의 地理는 前부터 잘 알고 있었습시다。

그 하수 처리장 부근의 지리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시다。

その下水処理場付近の地理は前からよく知っていました。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그럼 도가시를 만나 ㄴ 순간부터 그를 죽이기로 결심해 ㄴ다는 거 ㄴ가요?”

그럼 도가시를 만난 瞬間부터 그를 죽이기로 決心했다는 건가요?”

그럼 도가시를 만난 순간부터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건가요?”

それでは、ドガシに会った瞬間から彼を殺すことに決めたというのでしょうか？

질문하면서 구사나기는 이시가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아 ㄴ다。

質問하면서 驅使나기는 이時加味の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질문하면서 구사나기는 이시가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質問しながら草薙は石神の顔を突き抜けて見つめた。

실로 놀라우 ㄴ 얘기여 ㄴ다。

實로 놀라운 얘기였다。

실로 놀라운 얘기였다。

実に驚くべき話だった。

“물론 그렇습니다。

“勿論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もちろんそうです。

이시가미는 담담하게 대답해 ㄴ다。

이時加味는 淡淡하게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石神は淡々と答えた。

“좀 전에도 말해 ㄴ듯이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야 하 ㄴ니다。

“좀 前에도 말했듯이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야 합니다。

「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私は花岡康子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녀를 괴롭히는 남자가 나타나면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야 하죠。

그녀를 괴롭히는 男子가 나타나면 韓시라도 빨리 除去해야 하죠。

그녀를 괴롭히는 남자가 나타나면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야 하죠。

彼女をいじめる男が現れたら、一度でも早く取り除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것이 나의 역할이 ㄴ니다。

그것이 나의 役割입니다。

그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それが私の役割です。

“도가시가 하나오카 씨를 괴롭히 ㄴ다고 확신하 ㄴ 거 ㄴ가요?”

“도가시가 하나오카 氏를 괴롭힌다고 確信한 건가요?”

“도가시가 하나오카 씨를 괴롭힌다고 確信한 건가요?”

「とが市が花岡さんをいじめると確信したのでしょうか？」

“確信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確信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確信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예요.

「確信したのではなく、知っていたんです。

하나오카 야스코는 그 남자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습니니다.

하나오카 야스코는 그 男子 때문에 苦痛 받고 있었습니니다.

하나오카 야스코는 그 남자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습니니다.

花岡康子はその男のために苦しんでいました。

그놈에게서 도망쳐 내 곁으로 오 ㄴ 거 ㅂ니다.

그놈에게서 逃亡쳐 내 곁으로 온 ㅅ 겁니다.

그놈에게서 도망쳐 내 곁으로 온 ㅅ 겁니다.

GNOME から逃げ出して私のそばに来たのです。

“그 같은 ㄴ 사실을 하나오카 씨에게 직접 들어 ㅅ 습니까?”

“그 같은 事實을 하나오카 氏에게 直接 들었습니까?”

“그 같은 사실을 하나오카 씨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そのような事実を花岡さんに直接聞きましたか？」

“그거 ㄴ…… 특수하 ㄴ 연락 방법으로 알아 ㅅ어요。”

“그건…… 特殊한 連絡 方法으로 알았어요。”

“그건…… 특수한 연락 방법으로 알았어요。”

「それは… …特別な連絡方法でわかりました。」

이시가미는 한 점 망설임 없이 대답해 ㅅ다。

이時加味는 한 點 망설임 없이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한 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石上は一点迷わずに答えた。

말하 ㄴ 것도 없이 이곳에 출두하기까지 머릿속으로 충분히 정리해 ㅅ으 ㄴ 것이
다。

말할 것도 없이 이곳에 出頭하기까지 머릿속으로 充分히 整理했을 것이
다。

말할 것도 없이 이곳에 출두하기까지 머릿속으로 충분히 정리했을 것이
다。

言うまでもなく、ここに出頭するまで頭の中で十分に整理したはずだ。

그러나 그의 말에는 부자연스러우 ㄴ 부분이 많아 ㅅ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不自然스러운 部分이 많았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不自然스러운 部分이 많았다.

しかし彼の言葉には不自然な部分が多かった。

적어도 지금까지 구사나기가 그에 대해 가져 ㅅ 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ㅅ
다。

적어도 只今까지 驅使나기가 그에 對해 가졌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
다。

적어도 지금까지 구사나기가 그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
다。

少なくともこれまで、草虎がそれについて持っていたイメージとは距離が遠
かった。

“메모를 건네 ㄴ 다음에는 어떻게 해 ㅅ 죠?”

“메모를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메모를 건넌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メモを渡した後はどうしたの？」

구사나기는 일단 이야기를 계속 들어 보기로 해 ㅅ 다。

驅使나기는 一旦 이야기를 繼續 들어 보기로 했다。

구사나기는 일단 이야기를 계속 들어 보기로 했다。

草薙はいったん話を聞き続けることにした。

“하나오카 야스코가 일하는 곳을 아느냐고 놈이 묻더군요.

“하나오카 야스코가 일하는 곳을 아느냐고 놈이 묻더군요.

“하나오카 야스코가 일하는 곳을 아느냐고 놈이 묻더군요.

「花岡康子が働くところを知っているのかと奴が問いかけましたね。

장소는 모르지만 음식점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해 ㄴ습니다.

場所는 모르지만 飲食店으로 알고 있다고 對答했습니다.

장소는 모르지만 음식점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場所はわかりませんが、レストランとして知っていると答えました。

그리고 일이 끝나는 시각은 열한 시경이고 그때까지 그녀의 딸도 가게에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해 ㄴ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는 時刻은 열한 市警이고 그때까지 그女の 딸도 가게에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는 시각은 열한 시경이고 그때까지 그녀의 딸도 가게에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そして仕事が終わる見方は 11 時頃で、それまで彼女の娘もお店で待っているようだと言いました。

물론 전부 거짓말이지만요.

勿論 全部 거짓말이지만요。

물론 전부 거짓말이지만요。

もちろん全部嘘ですが。

“그런 거짓말을 하 ㄴ 이유가 뭐 ㄴ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 理由가 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뭘니까?”

「そんな嘘をついた理由は何ですか？」

“놈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이 ㄴ니다。

“놈의 行動을 制限하기 爲해서입니다。

“놈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奴の行動を制限するためです。

아무리 인적이 드무 ㄴ 장소라 해도 너무 이르 ㄴ 시간에 가면 곤란하니까요。

아무리 人的이 드문 場所라 해도 너무 이른 時間에 가면 困難하니까요。

아무리 인적이 드문 장소라 해도 너무 이른 시간에 가면 곤란하니까요。

いくら人的が珍しい場所でも、早すぎる時間に行けば困りますからね。

하나오카 야스코의 근무 시간이 열한 시까지고 그때까지는 딸도 돌아오지 않는
다고 하면 녀석도 그 시각까지는 가르쳐 주 ㄴ 주소지로 찾아가지 않으 ㄴ 거 아
니 ㄴ니까。

하나오카 야스코의 勤務 時間이 열한 時까지고 그때까지는 딸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녀석도 그 時刻까지는 가르쳐 준 住所지로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오카 야스코의 근무 시간이 열한 시까지고 그때까지는 딸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녀석도 그 시각까지는 가르쳐 준 주소지로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花岡康子の勤務時間が 11 時までと、それまでは娘も帰らないといえ、やつもその時刻までは教えてくれた住所に行か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아니, 지금 말하 ㄴ 내용을 전부 순간적으로 생각해 내 ㄴ 단 말이 ㄴ니까?”

“아니, 只今 말한 內容을 全部 瞬間적으로 생각해 냈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말한 내용을 전부 순간적으로 생각해 냈단 말입니까?”

「いや、今言った内容を全て瞬間的に思い出したんです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그게 이상하 ㄴ가요?”

그게 異常한가요?”

그게 이상한가요?”

それは変ですか？」

“아니…… 순식간에 그 모든 걸 생각해 내다니 너무 놀라워서요。

“아니…… 瞬息間に 그 모든 걸 생각해 내다니 너무 놀라워서요。

“아니…… 순식간에 그 모든 걸 생각해 내다니 너무 놀라워서요。

「いいえ… …あっという間にそのすべてを思い出すとはとても驚きました。

“별것도 아니 ㅂ니다。

“別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あまりありません。

이시가미가 진지하 ㄴ 표정으로 말해 ㅅ다。

이時加味가 眞摯한 表情으로 말했다。

이시가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石神が真面目な表情で語った。

“눔은 어떻게든 ㄴ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ㅅ습니다。

“눔은 어떻게든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까。

“눔은 어떻게든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까。

「奴はなんとか花岡康子に会いたかった。

그러니 나로서는 그 마음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여ㅏ지요.

그러니 나로서는 그 마음을 利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요.

그러니 나로서는 그 마음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요.

だから私としてはその心を利用すればいいのです。

어려우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難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당신에게는 그러ㄴ지도 모르지요.

“當身에게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당신에게는 그럴지도 모르지요.

「あなたにはそうかもしれません。

구사나기는 혀로 입술을 축여ㅏ다.

驅使나기는 혀로 입술을 축였다.

구사나기는 혀로 입술을 축였다.

草薙は舌で唇を祝った。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요?”

「だから、それでは？」

“마지막으로 내 휴대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어ㄴ쥬요。”

“마지막으로 내 携帯 電話 番號를 가르쳐 주었쥬요。”

“마지막으로 내 휴대 전화 번호를 가르쳐 주었쥬요。”

「最後に私の携帯電話番号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만일 집을 찾지 못하겠으면 연락하라면서요。

萬一 집을 찾지 못하겠으면 連絡하라면서요。

만일 집을 찾지 못하겠으면 연락하라면서요。

もし家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連絡してください。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면 대개는 수상하게 여기기 마련이 ㄴ데 그 남자는 조금
도 의심하지 않아ㄴ어요。

그렇게까지 親切을 베풀면 大概는 殊常하게 여기기 마련인데 그 男子는 조
금도 疑心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면 대개는 수상하게 여기기 마련인데 그 남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そうまで親切を施せば大抵は怪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男は少しも疑わな

かったんですよ。

근본적으로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니까 싫어했습니다。

根本的に頭が悪いのではないかと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싫었습니다。

根本的に頭が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살의를 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殺意를 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느닷없이 살의를 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겁니다。

「初めて見る人が、いつも殺意を抱くとは誰も考えないでしょう。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더욱이 수상하다고 생각해어야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더욱이 受賞하다고 생각했어야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더욱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야지요。

「初めて見る人なので、さらに怪しいと思っていたはずです。

그런데 그 남자는 엉터리 주소를 적으니까 메모지를 소중하니까 주머니에 넣더

니 가벼우ㄴ 발걸음으로 사라져ㅗ습니다。

그런데 그 男子는 엉터리 住所를 적은 메모紙를 所重한 듯 주머니에 넣더

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엉터리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소중한 듯 주머니에 넣더
니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ところがその男は、あざアドレスを書いたメモを大切なようにポケットに入
れると軽い足で消えました。

나ㄴ 그 즉시 집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해ㅗ습니다。

난 그 卽時 집으로 들어가 準備를 始作했습니다。

난 그 즉시 집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私はすぐに家に入って準備を始めました。

거기까지 말하ㄴ 후 이시가미는 천천히 찻잔으로 손을 뻗어ㅗ다。

거기까지 말한 後 이市加味는 천천히 茶盞으로 손을 뻗었다。

거기까지 말한 후 이시가미는 천천히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そこまで言った後、石神はゆっくりとマグで手を伸ばした。

다 식어ㅗ으ㄴ 녹차를 그는 맛있게 마셔ㅗ다。

다 식었을 綠茶를 그는 맛있게 마셨다。

다 식었을 녹차를 그는 맛있게 마셨다。

冷めた緑茶を彼はおいしく飲んだ。

“어떤 준비를 하셔 ㄴ 죠?”

“어떤 準備를 하셨죠?”

“어떤 준비를 하셨죠?”

「どんな準備をしましたか？」

구사나기가 다음 얘기를 재촉해 ㄴ 다。

驅使나기가 다음 얘기를 재촉했다。

구사나기가 다음 얘기를 재촉했다。

草薙が次の話を促した。

“별거 ㄴ 아니 ㄴ ㅂ니다。

“別건 아닙니다。

“별건 아닙니다。

「別途ではありません。

움직이기 편하 ㄴ 옷으로 갈아입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ㄴ 습니다。

움직이기 便한 옷으로 갈아입고 時間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動きやすい服に着替えて時間になるのを待ちました。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놈을 확실하게 죽이 ㄴ 수 있으 ㄴ지 궁리해 ㅏ쥬.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놈을 確實하게 죽일 수 있을지 窮理했쥬.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놈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지 궁리했쥬.

それで、どうすれば奴を確実に殺すことができるのか工夫しました。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 ㄴ 결과 교살을 선택해 ㅏ습니다.

여러 가지 方法을 檢討한 結果 敎살을 選擇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교살을 선택했습니다.

いくつかの方法を検討した結果、絞殺を選択しました。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 ㅏ기 때문이 ㅏ니다.

그것이 가장 安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それが一番安全だと思ったからです。

칼로 찌르거나 무기로 가격하는 것은 피를 뒤집어쓰 ㄴ 위험이 있으니까요.

칼로 찌르거나 武器로 加撃하는 것은 피를 뒤집어쓸 危險이 있으니까요.

칼로 찌르거나 무기로 가격하는 것은 피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으니까요.

ナイフで刺したり、武器で価格することは血を覆す危険がありますからね。

한 방에 끝내 ㄴ 자신도 없어 ㅏ고요.

한 房에 끝낼 自身도 없었고요。

한 방에 끝낼 자신도 없었고요。

一部屋に終わる自分もいませんでした。

게다가 교살은 흥기도 간단하 ㅂ니다。

게다가 敎살은 凶器도 簡單합니다。

게다가 교살은 흥기도 간단합니다。

しかも絞殺は凶器も簡単です。

물론 튼튼하 ㄴ 것이어야겠지만요。

勿論 튼튼한 것이어야겠지만요。

물론 튼튼한 것이어야겠지만요。

もちろん頑丈な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

그래서 고타쓰의 코드를 사용하기로 하 ㄴ 거 ㅂ니다。

그래서 고타쓰의 코드를 使用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고타쓰의 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だからこたつのコードを使うことにしたのです。

“왜 하필이면 코드죠? 튼튼하 ㄴ 끈이라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어 ㅅ으 ㄴ 데 ㄴ
데요。

“왜 何必裏面 코드죠? 튼튼한 끈이라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요。

“왜 하필이면 코드죠? 튼튼한 끈이라면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요。

「なぜハーフィルならコードでしょ? 丈夫な紐なら他のものもいくらでもあ
ったでしょう。

“넥타이나 포장용 비닐 끈 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넥타이나 包装用 비닐 끈 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넥타이나 포장용 비닐 끈 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ネクタイや包装用ビニールストラップなども考えてみました。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손에서 미끄러지기 쉽겠더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손에서 미끄러지기 쉽겠더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손에서 미끄러지기 쉽겠더군요。

でもそういうものは手から滑りやすいですね。

늘어나 罣 염려도 있고요。

늘어날 念慮도 있고요。

늘어날 염려도 있고요。

増える心配もありますよ。

고타쓰의 코드가 제일 적합해ㅅ습니다.

고타쓰의 코드가 第一 適合했습니다.

고타쓰의 코드가 제일 적합했습니다.

こたつのコードが一番適していました。

“그렇다면 그거 ㄴ 가지고 현장으로 가ㄴ 거ㄴ가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現場으로 간 건가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현장으로 간 건가요?”

「それならそれを持って現場に行ったのですか？」

이시가미가 고개를 끄덕여ㅅ다.

이時加味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시가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石神が頭をうなずいた。

“밤 열 시경에 집을 나서ㅅ습니다.

“밤 열 市警에 집을 나섰습니다.

“밤 열 시경에 집을 나섰습니다.

「夜 10 時頃に家を出ました。

흉기 외에 커터 나이프와 일회용 라이터도 준비해ㅅ죠.

凶器 外에 커터 나이프와 一回用 라이터도 準備했죠.

흉기 외에 커터 나이프와 일회용 라이터도 준비했죠.

凶器の他にカッターナイフと使い捨てライターも用意しました。

그리고 역으로 향하던 도중에 쓰레기장에 파란 비닐 시트가 버려져 있는 거
를 보고 주워서 접은 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驛으로 向하던 途中에 쓰레기場에 파란 비닐 시트가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주워서 접은 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향하던 도중에 쓰레기장에 파란 비닐 시트가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주워서 접은 후 가지고 갔습니다.

そして駅に向かっていた途中、ゴミ箱に青いビニールシートが捨てられてい
るのを見て拾って折りたたんで取り出しました。

전철을 타고 미즈에역까지 간 후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구 에도강 근처까지
가셨죠.

電鐵을 타고 美즈에역까지 間 後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區 에渡江 近處
까지 갔죠.

전철을 타고 미즈에역까지 간 후 거기서 택시를 잡아타고 구 에도강 근처
까지 갔죠.

電車に乗って水江駅まで行った後、そこでタクシーに乗って旧江戸川の近く
まで行きました。

“미즈에역이라고요, 시노자키가 아니라?”

“美즈에역이라고요, 市老子키가 아니라?”

“미즈에역이라고요, 시노자키가 아니라?”

「水前駅ですよ、篠崎じゃない？」

“시노자키에서 내려 ㄴ다가 그 남자와 마주치면 곤란하잖아요。

“時老子키에서 내렸다가 그 男子와 마주치면 困難하잖아요。

“시노자키에서 내렸다가 그 남자와 마주치면 곤란하잖아요。

「篠崎から降りてその男に遭遇すると困るじゃないですか。

이시가미가 대답을 이어 가 ㄴ다。

이時加味가 對答을 이어 갔다。

이시가미가 대답을 이어 갔다。

石神が答えを続けていった。

“택시에서 내리 ㄴ 곳도 놈에게 가르쳐 주 ㄴ 장소와는 상당히 떨어지 ㄴ 곳이어 ㄴ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곳도 놈에게 가르쳐 준 場所와는 相當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곳도 놈에게 가르쳐 준 장소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タクシーで降りたところも奴に教えてくれた場所とはかなり離れたところ
でした。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 ㄴ 때까지 놈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目的을 達成할 때까지 놈에게 發見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하니까
요。

어쨌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놈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니까
요。

とにかく目的を達成するまで奴に発見されないように注意しなければなりま
せんから。

“택시에서 내리 ㄴ 다음에는요?”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는요?”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는요?”

「タクシーで降りた後は？」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놈이 나타나 ㄴ 장소를 향해 걸어가 ㄴ 습
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注意하면서 놈이 나타날 場所를 向해 걸어가 ㄴ 습
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놈이 나타날 장소를 향해 걸어가 ㄴ 습

니다。

「人々が目立たないように注意しながら、奴が現れる場所に向かって歩きました。

물론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어ㄴ습니다만。

勿論 그렇게 注意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만。

もちろんそう注意しなくても通る人はいませんでした。

거기까지 말하고 이시가미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셔ㄴ다。

거기까지 말하고 이時加味는 다시 車を 한 모금 마셨다。

거기까지 말하고 이시가미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そこまで言って石神は再びお茶をした募金飲んだ。

“제방에 도착하자마자 휴대 전화가 울려ㄴ습니다。

“제房에 到着하자마자 携帯 電話가 울렸습니다。

“제방에 도착하자마자 휴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堤防に到着するとすぐに携帯電話が鳴りました。

그 남자여ㄴ죠。

그 男子였죠。

그 남자였죠.

その男でした。

메모해 주 ㄴ 주소지까지 와 ㄴ는데 연립 주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모해 준 住所地까지 왔는데 聯立 住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모해 준 주소지까지 왔는데 연립 주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メモしてくれた住所まで来ましたが、連立住宅が見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 ㄴ더니 그놈이 아주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더군요.

只今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놈이 아주 또박또박 對答을 잘하더군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놈이 아주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더군요.

今どこにいるのかと尋ねたら、GNOME がとてもまたパク・トバクの答えを
良くしましたね。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이 ㅂ니다.

내가 電話를 받으면서 接近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입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입니다.

私が電話を受けながら接近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も気づかずにです。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 ㄴ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어 ㄴ지만

그때 ㄴ 이미 그놈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 ㄴ 후여 ㄴ습니다.

住所를 다시 確認해 볼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電話를 끊었지만

그땐 이미 그놈이 있는 場所를 確認한 後였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볼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電話를 끊었지만

그땐 이미 그놈이 있는 장소를 확인한 後였습니다。

住所をもう一度確認してみるから、しばらく待つと言って電話を切ったので

すが、そんなときはすでに **GNOME** がある場所を確認した後でした。

제방 옆 풀밭에 퍼질러 앉아 있더군요。

제房 옆 풀밭에 퍼질러 앉아 있더군요。

제방 옆 풀밭에 퍼질러 앉아 있더군요。

堤防のそばの草原に広がって座っていましたね。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접근해ㅏ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接近했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私は足音を殺してゆっくりと近づいた。

놈은 전혀 눈치를 못 채다가 내가 바로 뒤에 서ㅏ으ㄴ 때에야 비로소 알아차려

ㅏ어요。

놈은 쏘혀 눈치를 못 채다가 내가 바로 뒤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알아차렸

어요。

놈은 전혀 눈치를 못 채다가 내가 바로 뒤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알아차렸어요。

奴は全く気づかず、私がすぐ後ろに立ったときに初めて気づきました。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전기 코드로 녀석의 목을 감은 후여쑤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電氣 코드로 녀석의 목을 감은 後였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내가 전기 코드로 녀석의 목을 감은 후였쑤。

しかしその時はすでに私が電氣コードでやつの首を巻いた後でした。

놈은 저항해쑤지만 내가 있는 힘껏 목을 조르자 이내 축 늘어지고 말아쑤습니다。

놈은 抵抗했지만 내가 있는 힘껏 목을 조르자 以內 祝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놈은 저항했지만 내가 있는 힘껏 목을 조르자 이내 축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奴は抵抗したけど僕のいる力まで首を締めると、内軸が伸びてしまいました。

정말 간단해쑤습니다。

正말 簡單했습니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本当に簡単でした。

이시가미가 찻잔으로 눈길을 떨어뜨려ㄴ다。

이時加味が 茶盞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이시가미가 찻잔으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石神が茶碗で目を落とした。

눈빛이 공허해ㄴ다。

눈빛이 空虛했다。

눈빛이 공허했다。

目つきが空虚だった。

“한잔 더 마셔도 되겠습니까?”

“한盞 더 마셔도 되겠습니까?”

“한잔 더 마셔도 되겠습니까?”

「もう一杯飲んでもいいですか？」

기시타니가 일어서서 주전자에 있는 차를 따라ㄴ다。

기시他니가 일어서서 酒煎子에 있는 次를 따랐다。

기시타니가 일어서서 주전자에 있는 차를 따랐다。

岸谷が立ち上がり、やかんの車に従った。

고맙습니다, 라며 이시가미는 고개를 숙여ㄴ다。

고맙습니다, 라며 이時加味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라며 이시가미는 고개를 숙였다.

ありがたい、と言って石神は頭を下げた。

“피해자는 아직 사십 대이 ㄴ 데다 체격도 좋아요.

“被害者は 아직 四十 代인 데다 體格도 좋아요.

“피해자는 아직 사십 대인 데다 체격도 좋아요.

「被害者はまだ四十代のうえ、体格もいいです。

필사적으로 저항해 ㄴ다면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아 ㄴ으 ㄴ 테 ㄴ 데요.

必死的으로 抵抗했다면 그리 簡單히 끝나지 않았을 텐데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면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았을 텐데요.

必死に抵抗したらそれほど簡単に終わらなかったでしょう。

구사나기가 말해 ㄴ다.

驅使나기가 말했다.

구사나기가 말했다.

草薙が言った。

이시가미는 표정의 변화 없이 눈만 가늘게 떠 ㄴ다.

이時加味는 表情의 變化 없이 눈만 가늘게 떴다.

이시가미는 표정의 변화 없이 눈만 가늘게 떴다.

石神は表情の変化なしに目だけ細くなった。

“나는 유도부 고문이 **ㅂ**니다.

“나는 誘導不 顧問입니다.

“나는 유도부 고문입니다.

「私は柔道部顧問です。

뒤에서 습격하면 상대가 덩치 크 **ㄴ** 남자라 해도 간단히 제압하 **ㄴ** 수 있어요.

뒤에서 襲撃하면 相對가 덩치 큰 男子라 해도 簡単に 制壓할 수 있어요.

뒤에서 습격하면 상대가 덩치 큰 남자라 해도 간단히 제압할 수 있어요.

後ろから襲撃すれば相手が重い大男でも簡単に制圧できますよ。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시가미의 귀를 바라보아 **ㅅ**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時加味の 귀를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시가미의 귀를 바라보았다.

草薙は首をうなずいて石神の耳を眺めた。

귀의 모양이 뭉그러져 있어 **ㅅ**다.

歸依 模様が 뭉그러져 있었다.

귀의 모양이 뭉그러져 있었다.

耳の形が団結していた。

유도를 오래 하 ㄴ 사람에게는 일종의 훈장 같으 ㄴ 것이다。

誘導를 오래 한 사람에게는 一種의 訓長 같은 것이다。

유도를 오래 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훈장 같은 것이다。

柔道を長くした人には一種の勲章のようなものだ。

경찰 가운데도 그런 귀 모양을 하 ㄴ 사람이 많아 ㄴ다。

警察 가운데도 그런 귀 模様을 한 사람이 많았다。

경찰 가운데도 그런 귀 모양을 한 사람이 많았다。

警察の中でもそんな耳の形をした人が多かった。

“죽이 ㄴ 다음에는요?”

“죽인 다음에는요?”

“죽인 다음에는요?”

「殺した後は？」

“무엇보다 중요하 ㄴ 거 ㄴ 시체의 신원을 숨기는 일이어 ㄴ습니다。

“무엇보다 重要な 건 屍體의 伸冤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체의 신원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何より重要なのは、死体の身元を隠すことでした。

신원이 밝혀지면 분명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의심의 화살이 돌아가ㄴ 테니까
요。

伸冤이 밝혀지면 分明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疑心の 화살이 돌아갈 테니까
요。

신원이 밝혀지면 분명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의심의 화살이 돌아갈 테니까
요。

身元が明らかになればはっきり花岡康子に疑いの矢が帰るからです。

우선 옷을 벗겨ㅁ습니다。

于先 옷을 벗겼습니다。

우선 옷을 벗겼습니다。

まずは服をはがしました。

가지고 오ㄴ 커터 나이프로 자르면서 벗겨ㅁ쥬。

가지고 온 커터 나이프로 자르면서 벗겼쥬。

가지고 온 커터 나이프로 자르면서 벗겼쥬。

持ってきたカッターナイフで切って剥がしました。

그런 다음 얼굴을 뭉개ㅁ습니다。

그런 다음 얼굴을 뭉갬습니다。

그런 다음 얼굴을 뭉갬습니다。

それから顔をつぶした。

이시가미는 담담하 ㄴ 어투로 말해 ㅅ 다。

이時加味는 淡淡한 語套로 말했다。

이시가미는 담담한 어투로 말했다。

石神は淡々とした語りで語った。

“얼굴을 비닐 시트로 덮어씌우 ㄴ 다음 커다라 ㄴ 돌로 수차례 내리쳐 ㅅ 습니다。

“얼굴을 비닐 시트로 덮어씌운 다음 커다란 돌로 數次例 내리쳤습니다。

“얼굴을 비닐 시트로 덮어씌운 다음 커다란 돌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顔をビニールシートで覆い、大きな石で数回下げました。

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番認知는 記憶나지 않습니다。

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何度か覚えていません。

아마 열 번 정도여 ㅅ 으 ㄴ 거예요。

아마 열 番 程度였을 거예요。

아마 열 번 정도였을 거예요。

おそらく 10 回ほどだったでしょう。

그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지문을 태워냅니다.

그런 다음 一回用 라이터로 地文을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지문을 태웠습니다.

それから使い捨てライターで指紋を燃やしました。

그리고 나서 벗겨 내는 옷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벗겨 낸 옷을 들고 그 자리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벗겨 낸 옷을 들고 그 자리를 뺐습니다.

それから剥がした服を持ってその場を出ました。

그런데 제방을 벗어나는 무렵 드럼통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런데 제房을 벗어날 무렵 드럼桶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런데 제방을 벗어날 무렵 드럼통이 하나 보이더군요.

ところが堤防から抜け出す頃、ドラム缶が一つ見えましたね。

거기에 옷을 넣고 불을 붙여냅니다.

거기에 옷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옷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そこに服を入れて火をつけました。

그렇지만 생각보다 불길이 너무 세서 이러다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 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불길이 너무 세서 이러다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 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급히 그 자리를避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불길이 너무 세서 이러다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 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でも、思ったより炎が強すぎて、こういう人が目に付くかもしれないという
気に入って乗るのも見られず、急いでその場を避けました。

큰길까지 나와 택시를 타고 일단 도쿄역으로 가 다음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길까지 나와 택시를 타고 一旦 도쿄驛으로 간 다음 다른 택시로 갈아타
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길까지 나와 택시를 타고 일단 도쿄역으로 간 다음 다른 택시로 갈아타
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大通りまで出てタクシーに乗り、一度東京駅に行き、別のタクシーに乗り換
えて家に帰りました。

집에 도착했을 때는 열두 시가 넘어있던 것 같습니다.

집에 到着했을 때는 열두 時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열두 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家に着いた時は十二時を超えたようです。

거기까지 말하 ㄴ 후 이시가미는 후, 하고 숨을 크게 내뿜어 ㄸ다.

거기까지 말한 後 이市加味는 後, 하고 숨을 크게 내뿜었다.

거기까지 말한 후 이시가미는 후, 하고 숨을 크게 내뿜었다.

そこまで言った後石神は後、と息を大きく吐き出した。

“이상이 ㄴ니다.

“以上입니다.

“이상입니다.

「以上です.

사용하 ㄴ 전기 코드와 커터 나이프, 일회용 라이터는 모두 집에 있습니다.

使用한 電氣 코드와 커터 나이프, 一回用 라이터는 모두 집에 있습니다.

사용한 전기 코드와 커터 나이프, 일회용 라이터는 모두 집에 있습니다.

使用した電氣コードとカッターナイフ、使い捨てライターはいずれも家にあります。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타니를 곁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사나기는 담배를 물어 ㄸ다.

内容を記録하고 있는 기시他니를 곁눈으로 바라보면서 驅使나기는 담배를 물었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기시타니를 곁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사나기는 담배를 물었다。

内容を記録している岸谷をそばで眺めながら、草薙はタバコを尋ねた。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이시가미의 얼굴을 바라보아^ㄴ다。

불을 붙이고 演技를 내뿜으며 이時加味の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이시가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火をつけて演技を吐き出して石神の顔を眺めた。

그의 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으^ㄴ 수 없어^ㄴ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런 感情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彼の目では何の感情も読めなかった。

이시가미가 이야기하^ㄴ 내용에 별다르^ㄴ 의문점은 없어^ㄴ다。

이時加味가 이야기한 内容에 別다른 疑問點은 없었다。

이시가미가 이야기한 내용에 별다른 의문점은 없었다。

石神が話した内容に、特に疑問点はなかった。

사체의 상태나 현장 상황도 경찰이 파악하^ㄴ 내용과 일치해^ㄴ다。

史체의 狀態나 現場 狀況도 警察이 把握한 内容과 一致했다。

사체의 상태나 현장 상황도 경찰이 파악한 내용과 일치했다。

死体の状態や現場状況も警察が把握した内容と一致した。

그런 것들은 보도되 ㄴ 적이 없으므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ㄴ다。

그런 것들은 報道된 적이 없으므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不自然스러웠다。

그런 것들은 보도된 적이 없으므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そんなことは報道されたことがないので造った話だと思うのがむしろ不自然
だった。

“당신이 죽어 ㄴ다는 사실을 하나오카 야스코 씨에게 말해 ㄴ습니까?”

“當身이 죽였다는 事實을 하나오카 야스코 氏에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하나오카 야스코 씨에게 말했습니까?”

「あなたが殺したという事実を花岡康子さんに言いましたか？」

구사나기가 물어 ㄴ다。

驅使나기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물었다。

草薙が尋ねた。

“말해 ㄴ으 ㄴ 리 없지요。

“말했을 리 없지요.

“말했을 리 없지요.

「言ったはずない。

그래, 다가가 혹시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니까.

그렇다가 或은 그女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다가 혹시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라도 하면 큰일 아닙니까.

でも、もし彼女が他の人に言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여자란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 존재예요.

女子란 秘密을 잘 지키지 않는 存在예요.

여자란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 존재예요.

女とは秘密を守らない存在です。

“그렇다면 사건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없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事件에 對해 그女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건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없다는 겁니까?”

「それでは、事件について彼女と話をしたこと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

“물론이니까.

“勿論입니다.

“물론입니다.

「もちろんです。

그녀와의 관계를 당신들 경찰이 눈치채면 곤란하 ㄴ 것 같아 접촉을 피해 왔 습니다。

그녀와의 關係를 當身들 警察이 눈치채면 困難할 것 같아 接觸을 避해 왔 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당신들 경찰이 눈치채면 곤란할 것 같아 접촉을 피해 왔 습니다。

彼女との關係をあなたたちの警察が気づくと困りそうで連絡を避けてきました。

“아까 말씀하시기 ㄴ 하나오카 야스코 씨와 특수하 ㄴ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 아 ㄴ다고 해 ㄴ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ㄴ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하나오카 야스코 氏와 特殊한 方法으로 連絡을 주고받았 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方法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길 하나오카 야스코 씨와 특수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았 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さっきおっしゃる花岡康子さんと特別な方法で連絡をやりとりしたと言っ たのですが、それはどんな方法ですか？」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いくつかあります。

그중 하나는 그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죠.

그中 하나는 그女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죠.

그중 하나는 그녀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죠.

そのうちの1つは彼女が言って私が聞くことです。

“그렇다면 어디선가 만나 ㄴ다는 얘기이 ㄴ데요.

“그렇다면 어디線가 만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만난다는 얘기인데요.

「それならどこかで会うという話です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人々目立たないはずですから。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말하고 그것을 내가 기계로 듣습니다.

그女는 自身の 房에서 말하고 그것을 내가 機械로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말하고 그것을 내가 기계로 듣습니다.

彼女は自分の部屋で話し、それを私が機械で聞く。

“기계라니요?”

“機械라니요?”

“기계라니요?”

「機械なんですか？」

“그녀의 집과 맞닿은 내 방 벽에 집음기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女의 집과 맞닿은 내 房 壁에 集陰氣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녀의 집과 맞닿은 내 방 벽에 집음기를 붙여 두었습니다.

「彼女の家に触れた私の部屋の壁に集音器を付けておきました。

그거 ㅆ로 듣는 거 ㅆ니다.

그걸로 듣는 겁니다.

그걸로 듣는 겁니다.

それで聞くのです。

기시타니가 기록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ㄴ다。

기시他니가 記錄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기시타니가 기록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岸谷が記録していた手を止めて頭を上げた。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ㄴ지 구사나기도 아ㄴ 것 같아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驅使나기도 알 것 같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구사나기도 알 것 같았다。

彼が何を言いたいのか話すこともわかったようだった。

“그렇다면 도청이네요。

“그렇다면 盜聽이네요。

“그렇다면 도청이네요。

「それなら盜聽ですね。

그러자 이시가미가 말도 안 되ㄴ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어ㄴ다。

그러자 이時加味가 말도 안 된다는 듯 眉間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이시가미가 말도 안 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すると石神が話すことができないかのように眉間を刺して首を振った。

“도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내게 하는 말을 듣는 거 **ㅂ**니다.

“盜聽을 하는 게 아니라 그女가 내게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도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내게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盜聽をするのではなく、彼女が私に言う言葉を聞くのです。

“그럼 하나오카 씨도 그 기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 **ㅂ**니까?”

“그럼 하나오카 氏도 그 機械의 存在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 하나오카 씨도 그 기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それでは花岡さんもその機械の存在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か？」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 **ㄴ** 수도 있습니다.

“機械 自体에 對해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機械自体については知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

하지만 벽을 향해 말을 하 **ㅂ**니다.

하지만 壁을 向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벽을 향해 말을 합니다.

しかし、壁に向かって話します。

“당신에게 말을 하 **ㄴ**다는 거 **ㅂ**니까?”

“當身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까?”

“당신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까?”

「あなたに話すということですか？」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물론 집에 딸이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나를 향해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勿論 집에 딸이 있으니까 露骨的으로 나를 向해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집에 딸이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나를 향해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もちろん家に娘がいるから露骨に私に向かって話す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

딸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실은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딸과 對話하는 척하면서 實은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딸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실은 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娘と会話するふりをしながら、実は私にメッセージを送るのです。

구사나기의 손가락에 끼운 담배가 반 이상 재로 변해 있어...

驅使나기의 손가락에 끼운 담배가 反 以上 재로 變해 있었다.

구사나기의 손가락에 끼운 담배가 반 이상 재로 변해 있었다.

草薙の指に挟んだタバコが半分以上灰に変わっていた。

그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다가 기시타니와 눈이 마주쳐 ㄴ다.

그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다가 기시他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다가 기시타니와 눈이 마주쳤다.

彼はタバコを灰皿に震え、岸谷と目が合った。

후배 형사는 당혹스러 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해 ㄴ다.

後輩 刑事는 當惑스런 表情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후배 형사는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後輩刑事は恥ずかしい表情を浮かべて首を傾けた。

“하나오카 야스코 씨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 ㄴ나요, 딸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실은 당신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오카 야스코 氏가 當身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딸과 對話하는 척하면
서 實은 當身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오카 야스코 씨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딸과 대화하는 척하면
서 실은 당신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花岡康子さんがあなたにそう言いましたか？」

“말하지 않아도 아 는 수 있어요, 그녀의 일이라면 뭐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女의 일이라면 뭐든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일이라면 뭐든지.

「言わなくてもわかりますよ、彼女のことなら何でも。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 는 거 는 아니군요.

“다시 말해, 그女가 當身에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군요.

“다시 말해, 그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군요.

「言い換えれば、彼女があなたにそう言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당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 는 거죠.

當身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당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あなたが勝手にそう思ったんで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そうではありません。

무표정하던 이시가미의 안색이 살짝 변해 는 다.

無表情하던 이時加味の 顔色이 살짝 變했다。

무표정하던 이시가미의 안색이 살짝 變했다。

無表情だった石神の顔色が少し変わった。

“헤어지 ㄴ 전남편에게 괴롭히 ㅁ을 당하 ㄴ다는 것도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알
아 ㅅ습니다。

“헤어진 前男便에게 괴롭힘을 當한다는 것도 그女の 하소연을 듣고 알았습
니다。

“헤어진 전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도 그녀의 하소연을 듣고 알았습
니다。

「別れた元旦那にいじめられるということも彼女のか焼きを聞いて知りまし
た。

그녀가 그거 ㅁ 딸에게 하소연하 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女가 그걸 딸에게 하소연한들 무슨 所用이 있겠어요。

그녀가 그걸 딸에게 하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彼女がそれを娘に訴えたら何の役に立つでしょう。

내게 들려주려고 그런 말을 하 ㄴ 거 ㅁ니다。

내게 들려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내게 들려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私に聞かせようとそんなことを言ったのです。

도와 달라고 내게 부탁하 ㄴ 거라고요。

도와 달라고 내게 付託한 거라고요。

도와 달라고 내게 부탁한 거라고요。

助けてくれと私に頼んだんですよ。

구사나기는 그를 달래듯이 손을 흔들면서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꺼 ㅅ 다。

驅使나기는 그를 달래듯이 손을 흔들면서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껐다。

구사나기는 그를 달래듯이 손을 흔들면서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껐다。

草薙は彼をなだめるように手を振りながら他の手ではタバコを消した。

“또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 ㅅ 습니까?”

“또 어떤 方法으로 連絡했습니까?”

“또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습니까?”

「またどのような方法で連絡しましたか？」

“전화요。

“電話요。

“전화요。

「電話です。

매일 밤 전화를 거 ㅅ니다.

毎日 밤 電話를 겁니다.

매일 밤 전화를 겁니다.

毎晩電話をかけます。

“그녀에게 말이 ㅅ니까?”

“그女에게 말입니까?”

“그녀에게 말입니까?”

「彼女に言いますか？」

“그녀의 휴대 전화로요.

“그女의 携帯 電話로요.

“그녀의 휴대 전화로요.

「彼女の携帯電話です。

그렇지만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 ㄴ 아니에요.

그렇지만 電話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でも電話で話を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나 ㄴ 그저 신호만 보내 ㄴ 뿐이죠.

난 그저 信號만 보낼 뿐이죠。

난 그저 신호만 보낼 뿐이죠。

私はただ信号だけを送るだけです。

만일 그녀에게 긴급하ㄴ 용건이 있으ㄴ 때는 전화를 받습니다。

萬一 그女에게 緊急한 用件이 있을 때는 電話를 받습니다。

만일 그녀에게 긴급한 용건이 있을 때는 전화를 받습니다。

もし彼女に緊急の用件があるときは電話を受けます。

용건이 없으면 받지 않아요。

用件이 없으면 받지 않아요。

용건이 없으면 받지 않아요。

用件がなければ受けません。

나는 신호음이 다섯 번 울리ㄴ 후 전화를 끊습니다。

나는 信號音が 다섯 番 울린 後 電話를 끊습니다。

나는 신호음이 다섯 번 울린 후 전화를 끊습니다。

私はビープ音が5回鳴った後に電話を切る。

둘 사이에 그렇게 정해 두어ㅆ어요。

둘 사이에 그렇게 定해 두었어요。

둘 사이에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二人の間にそう決めておきました。

“둘 사이에요? 그럼 그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둘 사이에요? 그럼 그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둘 사이에요? 그럼 그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二人の間ですか? それでは彼女もそのような事実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
ですか?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そうです.

예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約束해 두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以前からそうすることを約束しておきました。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いいですね。

하나오카 씨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하나오카 氏에게 確認해 보도록 하지요.

하나오카 씨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花岡さんに確認してみます。

“그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それがいいですね。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죠.

確實하게 해 두는 게 좋죠.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죠.

確實にしておくのがいいですね。

이시가미는 자신만만하 ㄴ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크게 끄덕해 ㄴ다.

이時加味는 自信滿滿한 말套로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크게 끄덕했다.

이시가미는 자신만만한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크게 끄덕했다.

石神は自分だけの言い方でそう言って首を大きくうなずいた。

“지금까지 제게 하신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하셔야 할 겁니다.

“只今까지 제게 하신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게 하신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하셔야 할 겁니다.

「今まで私に言われた話は今後も何度も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진술서도 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陳述書도 正式으로 作成해야 하고요.

진술서도 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陳述書も正式に作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はい、何度でもやります。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仕方ないことですね。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じゃあ最後に聞きます。

구사나기는 책상 위에서 손각지를 끼어ㄴ다。

驅使나기는 冊床 위에서 손각지를 끼었다。

구사나기는 책상 위에서 손각지를 끼었다。

草薙は机の上でポッドを挟んだ。

“왜 자수를 하시ㄴ 거ㄴ니까?”

“왜 自首를 하신 겁니까?”

“왜 자수를 하신 겁니까?”

「なぜ刺繍をされたのですか？」

이시가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셔ㄴ다。

이時加味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시가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石神が息を大きく吸った。

“자수하지 마ㄴ 거ㄴ 그래ㄴ나요?”

“自首하지 말 걸 그랬나요?”

“자수하지 말 걸 그랬나요?”

「刺繍しないようにしましたか？」

“그런 얘기가 아니 ㅂ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そんな話ではありません。

자수하시 ㄴ 데에는 나름의 이유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ㄴ 알고 싶습니다。

自首하신 데에는 나름의 理由나 契機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자수하신 데에는 나름의 이유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刺繍されたのにそれなりの理由やきっかけがありませんか？それを知りたいです。

그러자 이시가미가 흥, 콧방귀를 꺼어 ㅅ다。

그러자 이時加味가 興, 콧방귀를 꺼었다。

그러자 이시가미가 흥, 콧방귀를 꺼었다。

すると石神が興、鼻鬼を変わった。

“그런 거 ㄴ 당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요?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를 해 ㄸ다, 그거 ㄴ로 충분하지 않으 ㄴ까요? 그 밖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當身들과 아무 關係가 없지 않나요? 犯人이 良心의 呵責을 느껴 自首를 했다, 그걸로 充分하지 않을까요? 그 밖에 무슨 理由가 必要하겠습니까。

“그런 건 당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요?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를 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밖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それはあなたとは関係ありませんか？犯人が良心の仮策を感じて刺繍をした、それで十分ではないでしょうか？他に何の理由が必要でしょうか。

“당신을 보고 있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그러 ㄴ니다。

“當身を 보고 있자니 良心의 呵責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그러 ㄴ니다。

“당신을 보고 있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그러 ㄴ니다。

「あなたを見ていると良心の責めを感じているとは思えないからです。

“죄의식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옳겠죠.

“罪意識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옳겠
죠.

“죄의식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게 옳겠
죠.

「罪意識があるのかと尋ねるなら、そんなものとは少し違うというのが正し
いでしょう。

그렇지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後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하고 있습니다.

でも後悔しています。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어ㅏ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そんなことを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렇게 배신을 당하ㄴ 줄 알아ㅏ다면 살인은 하지 않아ㅏ으ㄴ 거ㄴ니다.

그렇게 背信을 當할 줄 알았다면 殺人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할 줄 알았다면 살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そのように裏切られたと思ったら殺人はしなかったでしょう。

“배신을 당하다니요?”

“背信을 當하다니요?”

“배신을 당하다니요?”

「裏切られますか？」

“그 여자는…… 하나오카 야스코는,”

“그 女子는…… 하나오카 야스코는,”

“그 여자는…… 하나오카 야스코는,”

「その女は… …花岡康子は、」

이시가미가 턱을 살짝 들어 올려^ㄴ다。

이時加味가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이시가미가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石神があごを軽く持ち上げた。

“나를 배신해^ㄴ어요。

“나를 背信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私を裏切った。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男子와 사귀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他の男と付き合っています。

내가 전 남편을 정리해 주어ㄴ는데 말이죠。

내가 前 男便을 整理해 주었는데 말이죠。

내가 전 남편을 정리해 주었는데 말이죠。

私が元旦那をまとめてくれたんですけどね。

그녀가 자신의 괴로움을 들려주지 않아ㄴ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아ㄴ으
거예요。

그녀가 自身の 괴로움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괴로움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彼女が自分の苦しみを聞かなかったら、決してそんなことはしなかったでし
ょう。

그녀가 말해ㄴ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彼女は言った。

그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요。

그 男子를 죽이고 싶다고요。

그 남자를 죽이고 싶다고요。

その男を殺したいと思います。

나 ㄴ 그녀를 대신해서 놈을 죽이 ㄴ 거 ㅂ니다。

난 그녀를 代身해서 놈을 죽인 겁니다。

난 그녀를 대신해서 놈을 죽인 겁니다。

私は彼女に代わって奴を殺したんです。

말하자면 그녀도 공범이에요。

말하자면 그녀도 共犯이에요。

말하자면 그녀도 공범이에요。

いわば彼女も共犯です。

경찰은 하나오카 야스코도 체포해야 하 ㅂ니다。

警察은 하나오카 야스코도 逮捕해야 합니다。

경찰은 하나오카 야스코도 체포해야 합니다。

警察は花岡康子も逮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시가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 팀이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었다。

이時加味の 陳述을 뒷받침할 證據를 찾기 爲해 搜查 팀이 그의 집을 搜索하게 되었다。

이시가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 팀이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었다。

石神の陳述を裏付ける証拠を探すために捜査チームが彼の家を検索するようになった。

그러는 동안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와 함께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驅使나기는 기시他니와 함께 하나五카 야스코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구사나기는 기시타니와 함께 하나오카 야스코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その間、草薙は岸谷と共に花岡康子の話を聞くことにした。

집으로 가니 그녀는 미사토와 함께 있어。。다。

집으로 가니 그女는 미사토와 함께 있었다。

집으로 가니 그녀는 미사토와 함께 있었다.

家に帰ると彼女はミサトと一緒にいた。

다른 형사가 미사토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다른 刑事가 미사토를 밖으로 불러냈다。

다른 형사가 미사토를 밖으로 불러냈다。

他の刑事がミサトを外に呼んだ。

미사토에게 자극적이 아닌 얘기를 들려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사토를 따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미사토에게 刺戟적인 얘기를 들려주지 않기 爲해서가 아니라 미사토를 따로 調査하기 爲해서였다。

미사토에게 자극적인 얘기를 들려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사토를 따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ミサトに刺激的な話を聞かせないためではなく、ミサトを別に調べるためだった。

이시가미가 자수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야스코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숨을 멈추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해었다。

이時加味가 自首했다는 말을 前해 들은 야스코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숨을 멈춘 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시가미가 자수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야스코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숨을
멈춘 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石神が刺繍したという言葉伝えたヤスコは、目を丸くして息を止めたまま
何も聞こえなかった。

“전혀 몰라ㄴ습니까?”

“全然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全く知りませんでしたか？」

구사나기가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물어ㄴ다。

驅使나기가 그女の表情을 觀察하면서 물었다。

구사나기가 그녀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물었다。

草薙が彼女の表情を觀察しながら尋ねた。

야스코는 고개를 젖고 나서 잠시 후 간신히 입을 열어ㄴ다。

야스코는 고개를 젖고 나서 暫時 後 艱辛히 입을 열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젖고 나서 잠시 후 간신히 입을 열었다。

ヤスコは首を漕いでからしばらくしてようやく口を開いた。

“상상도 못해ㄴ어요。

“想像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想像もできませんでした。

그 사람이 왜 도가시를……。

그 사람이 왜 도가시를……。

그 사람이 왜 도가시를……。

その人がなぜ道家市を… …。

“동기에 대해 짚이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動機에 對해 짚이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동기에 대해 짚이는 바가 전혀 없습니까?”

「動機についてわかるところは全くありません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야스코는 주저하는 듯 복잡하_ㄴ 표정을 지어_ㄴ다。

驅使나기의 물음에 야스코는躊躇하는 듯 複雑한 表情을 지었다。

구사나기의 물음에 야스코는 주저하는 듯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草薙の問いに、ヤスコは躊躇するように複雑な表情をした。

말하고 싶지 않_으_ㄴ 무언가가 있는 듯해_ㄴ다。

말하고 싶지 않은 無言가가 있는 듯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言いたくない何かがあるようだった。

“이시가미는 야스코 씨를 위해서 그래ㄴ다고 하더군요。

“이時加味는 야스코 氏를 爲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시가미는 야스코 씨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石上は安子さんのためにそうしたと言いましたね。

야스코 씨를 위해서 죽여ㄴ다고요。

야스코 氏를 爲해서 죽였다고요。

야스코 씨를 위해서 죽였다고요。

康子さんのために殺したんですよ。

그 말을 들으ㄴ 야스코가 괴로우ㄴ 듯이 미간을 찌푸리더니 하아, 하고 숨을 크게 내쉬어ㄴ다。

그 말을 들은 야스코가 괴로운 듯이 眉間을 찌푸리더니 하아,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말을 들은 야스코가 괴로운 듯이 미간을 찌푸리더니 하아,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その言葉を聞いたヤスコが苦しいように眉間をチプリダニハハ、と息を大きく吐いた。

“역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시군요。

“亦是 斟酌 가는 바가 있으시군요.

“역시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시군요.

「やっぱり推測行くところがありますね.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ㄴ다.

그女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彼女はゆっくりと頭をうなずいた.

“그 사람이 제게 특별하ㄴ 감정을 가져ㄴ다는 거ㄴ 알고 있어ㄴ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特別한 感情을 가졌다는 건 알고 있었습시다.

“그 사람이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는 건 알고 있었습시다.

「その人が私に特別な感情を持っていた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그렇지만 설마 그런 일을 저지르ㄴ 줄은…….

그렇지만 설마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그렇지만 설마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でもまさかそんなことを阻止した… ….

“그는 야스코 씨와 줄곧 연락을 취해 와ㄴ다고 하던데요.

“그는 야스코 氏와 줄곧 連絡을 取해 왔다고 하던데요.

“그는 야스코 씨와 줄곧 연락을 취해 왔다고 하던데요。

「彼は安子さんとずっと連絡を取ってきたと言いました。

“저하고요?”

“저하고요?”

“저하고요?”

「私とか？」

야스코의 표정이 굳어져ㄴ다。

야스코의 表情이 굳어졌다。

야스코의 표정이 굳어졌다。

ヤスコの表情が固まった。

“그런 일은 없어ㄴ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そん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하지만 전화가 걸려 오ㄴ 거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 밤말이죠。

“하지만 電話가 걸려 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毎日 밤末이죠。

“하지만 전화가 걸려 온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 밤말이죠。

「しかし、電話がかかってきたのは合っていませんか？それも毎日夜末です。

구사나기는 이시가미가 한 얘기를 야스코에게 전해쥔다。

驅使나기는 이時加味가 한 얘기를 야스코에게 傳했다。

구사나기는 이시가미가 한 얘기를 야스코에게 전했다。

草薙は石神がした話をヤスコに伝えた。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져쥔다。

그女の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彼女の顔が歪んだ。

“역시 그 사람이 전화를 해쥔었군요。

“亦是 그 사람이 電話를 했었군요。

“역시 그 사람이 전화를 했었군요。

「やっぱりその人が電話をしたんですね。

“모르쥔습니까?”

“모르쥔습니까?”

“모르쥔습니까?”

「知りませんか？」

“그러 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 ㄴ 적은 있어 ㅏ지만 확신은 없어 ㅏ어요.

“그렇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確信은 없었어요.

“그렇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そ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考えをしたことはありましたが、確信はありませんでした。

저쪽에서 밝히지 않아 ㅏ으니까요.

저쪽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저쪽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向こうで明かさなかったから。

야스코에 따르면 처음 전화가 걸려 오 ㄴ 것은 석 달쯤 전이 ㄴ 듯해 ㅏ다.

야스코에 따르면 처음 電話가 걸려 온 것은 석 달쯤 前인 듯했다.

야스코에 따르면 처음 전화가 걸려 온 것은 석 달쯤 전인 듯했다.

ヤスコによると、初めて電話がかかってきたのは3ヶ月前だった。

상대는 자신이 누구 ㄴ지도 밝히지 않으 ㄴ 채 다짜고짜 야스코의 사생활을 간섭
하는 듯하 ㄴ 말을 해 ㅏ다.

相對는 自身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야스코의 私生活을 干涉

하는 듯한 말을 했다.

상대는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야스코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듯한 말을 했다.

相手は自分がだれでも明らかにしないまま多叩きヤスコの私生活を干渉するような話をした。

그 내용이 평소에 그녀를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뿐이어ㄴ다.

그 内容이 平素에 그女를 觀察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뿐이었다.

그 내용이 평소에 그녀를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뿐이었다.

その内容がいつも彼女を觀察しなければ分からないことばかりだった。

그녀는 상대가 스토키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어ㄴ다.

그女는 相對가 스토키라고 생각하고 怯을 먹었다.

그녀는 상대가 스토키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다.

彼女は相手がストーカーだと思って怖がった。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와ㄴ지만 그녀는 받지 않아ㄴ다고 하ㄴ다.

그 後로도 몇 番이나 電話가 왔지만 그女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その後も何度も電話が来たが彼女は受けなかったという。

그러다가 어느 날 무심코 전화를 받고 말아ㄴ는데 상대 남자가 이렇게 말해ㄴ

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無心코 電話를 받고 말았는데 相對 男子가 이렇게 말했

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심코 電話를 받고 말았는데 상대 남자가 이렇게 말했

다는 것이다。

それからある日思わず電話を受けてしまったが、相手男がこう言ったということだ。

“당신이 바빠서 電話를 받지 못하는 거 ㄴ 이해하겠어。

“當身이 바빠서 電話를 받지 못하는 건 理解하겠어。

“당신이 바빠서 電話를 받지 못하는 건 이해하겠어。

「あなたが忙しくて電話を受けられないのは理解するだろう。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떠 ㄴ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それではこうすればどうだろうか。

내가 매일 밤 電話를 걸 테니 용건이 있으면 받는 거야。

내가 毎日 밤 電話를 걸 테니 用件이 있으면 받는 거야。

내가 매일 밤 電話를 걸 테니 용건이 있으면 받는 거야。

私が毎晩電話をかけるから用件があれば受け取るよ。

신호음을 다섯 번 울리도록 하ㄴ 데니까 그 안에 받으면 돼.

信號音を 다섯 番 울리도록 할 데니까 그 안에 받으면 돼.

신호음을 다섯 번 울리도록 할 데니까 그 안에 받으면 돼.

ビープ音を 5 回鳴らせるからその中にもらえばいい。

야스코는 승낙해ㄴ다.

야스코는 承諾했다.

야스코는 승낙했다.

ヤスコは承諾した。

그때부터 정말로 매일 밤 전화가 걸려 와ㄴ다.

그때부터 正말로 毎日 밤 電話가 걸려 왔다.

그때부터 정말로 매일 밤 전화가 걸려 왔다.

その時から本当に毎晩電話がかかってきた。

상대는 공중전화로 거는 모양이어ㄴ다.

相對는 公衆電話로 거는 模樣이었다.

상대는 공중전화로 거는 모양이었다.

相手は公衆電話で掛ける形だった。

전화를 받지는 않아ㄴ다。

電話を 받지는 않았다。

전화를 받지는 않았다。

電話を受けなかった。

“목소리를 들어ㄴ는데도 이시가미라는 사실을 모르셔ㄴ습니까?”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이시가미라는 事實을 모르셨습니까?”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이시가미라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声を聞いたのに石神という事実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か？」

“그때까지는 직접 대화를 나누ㄴ 적이 별로 없어서 아ㄴ 수 없어ㄴ어요。

“그때까지는 直接 對話를 나누 적이 별로 없어서 알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직접 대화를 나누 적이 별로 없어서 알 수 없었어요。

「それまでは直接会話を交わしたことがあまりなくて分かりませんでした。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ㄴ 것도 처음 한두 번뿐이라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기억

하ㄴ 수 없고요。

電話로 이야기를 나누 것도 처음 한두 番뿐이라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記

憶할 수 없고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 것도 처음 한두 번뿐이라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기

억할 수 없고요。

電話で話を交わしたのも初めて 1、2 回だけなので、今はその声すら覚えられません。

게다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ㅏ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想像도 못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しかもその人がそんなことをしようとは想像もできませんでした。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高等學校 先生님이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高校の先生じゃないですか。

“요즘은 교사 중에도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教師 中에도 別사람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교사 중에도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最近は教師の中にも別人がいます。

옆에서 기시타니가 말해ㅏ다。

옆에서 기시他니가 말했다。

옆에서 기시타니가 말했다。

隣で岸谷が言った。

그러고서 그는 끼어들어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여ㄴ다。

그러고서 그는 끼어들어서 未安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서 그는 끼어들어서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そして彼は割り込んで申し訳ないように頭を下げた。

구사나기는 이 후배 형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하나오카 야스코를 비호해 와
ㄴ다는 사실을 떠올려ㄴ다。

驅使나기는 이 後輩 刑事가 事件 發生 初期부터 하나오카 야스코를 庇護해
왔다는 事實을 떠올렸다。

구사나기는 이 후배 형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하나오카 야스코를 비호해
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草薙はこの後輩刑事が事件発生初期から花岡康子を守護してきたという事実
を思い出した。

기시타니는 이시가미가 자수해서 안도하고 있으 ㄴ에 틀림없어ㄴ다。

기시他니는 이時加味가自首해서 安堵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기시타니는 이시가미가 자수해서 안도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岸谷は石神が刺繍して安心しているに違いなかった。

“전화 외에 다른 일은 없어ㄴ습니까?”

“電話 外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전화 外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電話の他に何もありませんでした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야스코가 “잠깐만요。

驅使나기의 물음에 야스코가 “잠깐만요。

구사나기의 물음에 야스코가 “잠깐만요。

草薙の問いにヤスコが「ちょっと待ってます。

” 하고 일어서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ㄴ다。

” 하고 일어서더니 서랍에서 封套를 꺼냈다。

” 하고 일어서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と立ち上がったら、引き出しから封筒を取り出した。

모두 세 통이어^ㄴ다。

모두 세 통이었다。

모두 세 통이었다。

いずれも三通だった。

보내^ㄴ 사람 이름은 없고 ‘하나오카 야스코 씨께’라고만 적혀 있어^ㄴ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하나오카 야스코 氏께’라고만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하나오카 야스코 씨께’라고만 적혀 있었다.

送信者名はなく「花岡康子さんへ」とだけ書かれていた。

주소도 쓰여 있지 않아ㄴ다。

住所도 쓰여 있지 않았다。

주소도 쓰여 있지 않았다。

住所も書かれていなかった。

“이게 뭐 ㄴ니까?”

“이게 뭇니까?”

“이게 뭇니까?”

「これは何ですか？」

“우편함에 들어 있어ㄴ어요。

“郵便函에 들어 있었어요。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メールボックスに入っていました。

이것 말고도 더 있어ㄴ는데 버려ㄴ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었는데 버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었는데 버렸습니다。

これじゃなくてもっとあったけど捨てました。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증거물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하ㄴ 것 같아, 기
분은 나빠ㄴ지만 이 세 통만은 보관하고 있어ㄴ어요.

그래도 或是 무슨 일이 있으면 證據物を 남겨 두는 便이 有利할 것 같아,
氣分은 나빴지만 이 세 通만은 保管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증거물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할 것 같아,
기분은 나빴지만 이 세 통만은 보관하고 있었어요.

それでもひょっとしたことがあれば証拠物を残しておくほうが有利だと思
い、気持ちは悪かったのですがこの三通だけは保管していました。

“좀 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見てみましょう。

” 하고 구사나기는 봉투를 열어ㄴ다.

” 하고 驅使나기는 封套를 열었다.

” 하고 구사나기는 봉투를 열었다.

と言って、薩は封筒を開いた。

각 봉투마다 편지지 한 장씩이 들어 있고 편지지에는 간단하ㄴ 문장이 프린트

되어 있어ㄴ다。

各 封套마다 便紙紙 한 張씩이 들어 있고 便紙紙에는 簡單한 文章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각 봉투마다 편지지 한 장씩이 들어 있고 편지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프린트되어 있었다。

各封筒ごとに文房具一枚ずつが入っており、文房具には簡単な文章がプリントされていた。

다음과 같으ㄴ 내용이어ㄴ다。

다음과 같은 內容이었다。

다음과 같은 內容이었다。

次のような内容だった。

‘요즘 화장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

‘요즘 化粧이 漸漸 짙어지고 있어。

‘요즘 화장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

『最近メイクがますます濃くなっている。

웃도 너무 화려하고。

웃도 너무 華麗하고。

웃도 너무 화려하고。

服もとても派手で。

그거 ㄴ 당신답지 않아。

그건 當身답지 않아。

그건 당신답지 않아。

それはあなたらしくない。

좀 더 소박하 ㄴ 모습이 당신에게는 어울려。

좀 더 素朴한 모습이 當身에게는 어울려。

좀 더 소박한 모습이 당신에게는 어울려。

もっと素朴な姿があなたには似合って。

그리고 귀가 시간이 늦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군。

그리고 귀가 時間이 늦는 것도 神經이 쓰이는군。

그리고 귀가 시간이 늦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군。

そして帰宅時間が遅いのも気になるね。

일이 끝나면 곧장 돌아오도록 해。

일이 끝나면 곧장 돌아오도록 해。

일이 끝나면 곧장 돌아오도록 해。

仕事が終わったらすぐに戻ってくるようにして。

,

,

,

,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 만일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게 말해。

‘무슨 苦悶이라도 있는 건가? 萬一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게 말해。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게 말해。

「どんな悩みでもあるのか？もしそうなら躊躇しないで私に言って。

그러라고 매일 밤 電話를 하는 거니까。

그러라고 毎日 밤 電話를 하는 거니까。

그러라고 매일 밤 電話를 하는 거니까。

だから毎日電話をするのだから。

나는 당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 주 ㄴ 수 있어。

나는 當身에게 이런저런 助言을 해 줄 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줄 수 있어。

私はあなたにいろいろなアドバイス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나 말고 다른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

나 말고 다른 人間을 믿어서는 안 돼。

나 말고 다른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

私以外の人間を信じてはいけない。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私の言葉だけ聞けばいい。

,

,

,

,

‘불길하ㄴ 예감이 드는군。

‘不吉한 豫感が 드는군。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不吉な予感がするね。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ㄴ 아니ㄴ가 싶어서 말이지。

當身이 나를 背信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지。

あなたが私を裏切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からね。

절대 그렇지 않으 ㄴ 거라고 믿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을 결코 용서하
ㄴ 수 없어。

絶對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萬一 그게 事實이라면 當身を 決코 容恕
할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을 결코 용
서할 수 없어。

絶對そうではないと信じていますが、もしそれが本当ならあなたを決して許
すことはできません。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당신 편은 오로지 나뿐이니까。

왜냐하면 이 世上에 當身 便은 오로지 나뿐이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당신 편은 오로지 나뿐이니까。

なぜならこの世にあなたの側はひたすら私だけだから。

당신을 지키 ㄴ 사람은 나밖에 없어。

當身を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당신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あなたを守る人は私しかいない。

,

,

내용을 다 읽은 구사나기는 편지지를 도로 봉투에 넣어준다.

内容を 다 읽은 驅使나기는 便紙紙를 도로 封套에 넣었다.

내용을 다 읽은 구사나기는 편지지를 도로 봉투에 넣었다.

内容を読んだ草薙は文房具を道路封筒に入れた。

“이 편지를 제가 가져가도 되니까요?”

“이 便紙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이 편지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この手紙を私が持っていけますか？」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はい、そうです。

“이와 비슷하ㄴ 일이 또 있어ㄴ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これに似たことがありましたか？」

“제게는 딱히 없지만……。”

“제게는 딱히 없지만……。”

“제게는 딱히 없지만……。”

「私には特にないけど……」 ... 。

야스코가 말꼬리를 흐려쌌다。

야스코가 말꼬리를 흐렸다。

야스코가 말꼬리를 흐렸다。

ヤスコが馬尾をぼやけた。

“그럼 따님에게?”

“그럼 따님에게?”

“그럼 따님에게?”

「それでは娘さんに？」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구도 씨에게 있어쌌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構圖 氏에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구도 씨에게 있었어요。”

「いや、それではなく構図さんにいました。

“구도 구니아키 씨 말씀이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쌌습니까?”

“構圖 區니아키 氏 말씀이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도 구니아키 씨 말씀이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構図グニアキさんみたいですね？彼に何が起こりましたか？」

“어제 만나ㄴㄹ 때, 이상하ㄴ 편지를 받아ㄴ다고 하더군요.

“어제 만났을 때, 異常한 便紙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제 만났을 때,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昨日会った時、変な手紙をもらったと言いましたね。

보내ㄴ 사람 이름은 없고, 저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어ㄴ대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저한테 接近하지 말라는 内容이었대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저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대요.

送信者名はなく、私に近づいてはいけないという内容でしたね。

몰래 촬영하ㄴ 사진도 들어 있고요.

몰래 撮影한 寫眞도 들어 있고요.

몰래 촬영한 사진도 들어 있고요.

こっそり撮影した写真も入っていますよ。

“구도 씨한테 말이죠…….

“構圖 氏한테 말이죠…….

“구도 씨한테 말이죠……。

「構図さんにね……」 ……。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그 편지를 보낸 사람도 이시가미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ㄴ다。

只今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그 便紙를 보낸 사람도 이時加味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아 그 편지를 보낸 사람도 이시가미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これまでの流れで見て、その手紙を送った人も石神だとしか考えられなかった。

구사나기는 유가와 마나부를 떠올려^ㄴ다。

驅使나기는 有價와 마나部를 떠올렸다。

구사나기는 유가와 마나부를 떠올렸다。

草薙は湯川とマナブを思い浮かべた。

그는 학자로서의 이시가미를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ㄴ다。

그는 學者로서의 이時加미를 尊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학자로서의 이시가미를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았다。

彼は学者としての石神を尊敬しているようだった。

그런 친구가 이렇게 스토크 짓을 해ㄴ다는 거ㄴ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크ㄴ까。

그런 親舊가 이렇게 스토크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衝擊이 클까。

그런 친구가 이렇게 스토크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

そんな友達がこんなストーカーをしたのを知ればどれだけ衝撃が大きいのか。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ㄴ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その時ノック音が聞こえた。

야스코가 네, 라고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젊은 형사가 얼굴을 들이밀어ㄴ다。

야스코가 네, 라고 對答하자 門이 열리고 젊은 刑事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야스코가 네, 라고 대답하자 문이 열리고 젊은 형사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ヤスコがはい、と答えるとドアが開き、若い刑事が顔を押し込んだ。

이시가미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형사 중 하나다。

이時加味の 집을 搜索하고 있는 刑事 中 하나다。

이시가미의 집을 수색하고 있는 형사 중 하나다。

石神の家を捜索している刑事の一つだ。

“구사나기 선배, 잠깐만요。

“驅使나기 先輩, 잠깐만요。

“구사나기 선배, 잠깐만요。

「草薙先輩、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알아ㄴ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구사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집으로 가니 마미야가 의자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어ㄴ다。

驅使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집으로 가니 마미야가 椅子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사나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집으로 가니 마미야가 의자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草薙が席から立ち上がり、隣の家に行くと真宮が椅子に座って彼を待っていた。

책상 위에 전원이 켜지 ㄴ 컴퓨터가 있고 그 주위에서 젊으 ㄴ 형사들이 종이 상

자에 증거품들을 담고 있어ㄴ다。

冊床 위에 全員이 켜진 컴퓨터가 있고 그 周圍에서 젊은 刑事들이 종이 箱
子에 證據품들을 담고 있었다。

책상 위에 전원이 켜진 컴퓨터가 있고 그 주위에서 젊은 형사들이 종이
상자에 증거품들을 담고 있었다。

机の上に電源が入ったコンピュータがあり、その周囲で若い刑事たちが紙箱
に証拠品を入れていた。

마미야가 책장 옆쪽의 벽을 가리켜ㄴ다。

마미야가 冊張 옆쪽의 壁을 가리켰다。

마미야가 책장 옆쪽의 벽을 가리켰다。

真宮が本棚の横の壁を指した。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それを見てください。

“아!”

“아!”

“아!”

「あ！」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뿔어냈다.

驅使나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뿔었다.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뿔었다.

草薙は私も知らないように音を吐いた。

그곳에는 사방 20센티미터 크기로 벽지가 벗겨져 있고 그 안쪽 벽의 판자를 잘라 내 ㄴ 흔적이 보여냈다.

그곳에는 四方 20센티미터 크기로 僻地가 벗겨져 있고 그 안쪽 壁의 板子를 잘라 낸 痕跡이 보였다.

그곳에는 사방 20센티미터 크기로 벽지가 벗겨져 있고 그 안쪽 벽의 판자를 잘라 낸 흔적이 보였다.

そこには四方 20 センチメートルの大きさで壁紙が剥がれており、その内壁の板を切り出した跡が見られた。

그리고 거기서 가느다라 ㄴ 코드가 나와 있어냈다.

그리고 거기서 가느다란 코드가 나와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가느다란 코드가 나와 있었다.

そしてそこで細いコードが出ていた。

코드 끝에는 이어폰이 달려 있어냈다.

코드 끝에는 이어폰이 달려 있었다.

코드 끝에는 이어폰이 달려 있었다.

コードの末尾にはイヤホンが走っていた。

“이어폰을 귀에 꽂아 봐.

“이어폰을 귀에 꽂아 봐.

“이어폰을 귀에 꽂아 봐.

「イヤホンを耳に差し込んでみて。

마미야가 시키는 대로 구사나기는 이어폰을 귀에 꽂아^ㄴ다.

마미야가 시키는 대로 驅使나기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마미야가 시키는 대로 구사나기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マミヤがさせるように、草薙はイヤホンを耳に差し込んだ。

그러자 이어폰에서 말소리가 들려와^ㄴ다.

그러자 이어폰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이어폰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するとイヤホンから声が聞こえてきた。

‘이시가미의 진술을 뒷받침하^ㄴ 증거가 수집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타^ㄴ 거^ㄴ니
다。

‘移是が美の 陳述을 뒷받침할 證據가 蒐集되면 搜查가 及물살을 탈 겁니다。

‘이시가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겁니다。

『石神の陳述を裏付ける証拠が集められると、捜査が給水殺に乗ります。

그 후로는 하나오카 씨에게 폐를 끼치 ㄴ 일도 별로 없으 ㄴ 거고요。

그 後로는 하나오카 氏에게 肺를 끼칠 일도 別로 없을 거고요。

그 후로는 하나오카 씨에게 폐를 끼칠 일도 별로 없을 거고요。

その後は花岡さんに迷惑をかける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ょう。

,

,

,

,

기시타니의 목소리여 ㄴ다。

기시他니의 목소리였다。

기시타니의 목소리였다。

岸谷の声だった。

잡음이 약간 섞여 있기 ㄴ 해 ㄴ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힘드 ㄴ 정도로 선명해 ㄴ다。

雑音が若干 섞여 있긴 했지만 壁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힘들 程度로 鮮明했다。

잡음이 약간 섞여 있긴 했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선명했다。

雑音が少し混ざっていたのだが、壁越しに聞こえてくる音だと思うのは難し

いほど鮮明だった。

‘이시가미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移是が美 氏は 어떤 處罰을 받게 되나요?’

‘이시가미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石神さんはどんな罰を受けるのでしょうか？」

‘그거 ㄴ 재판을 해 봐야 아 ㅂ니다。

‘그건 再版을 해 봐야 압니다。

‘그건 재판을 해 봐야 압니다。

『それは裁判をしてみなければ分かりません。

살인죄이 ㄴ 만큼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쉽게 나오 ㄴ 수는 없으 ㄴ 거 ㅂ니다。
다。

殺人罪인 만큼 死刑까지는 아니더라도 絶對 쉽게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살인죄인 만큼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쉽게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殺人罪であるだけに死刑までではなくても、決して簡単に出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

그러니 더는 하나오카 씨를 괴롭히는 일도 없겠죠。

그러니 더는 하나오카 氏를 괴롭히는 일도 없겠죠。

그러니 더는 하나오카 씨를 괴롭히는 일도 없겠죠。

だからもう花岡さんをいじめることもないでしょう。

,

,

,

,

형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사나기는 이어폰을 빼냈다。

刑事が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驅使나기는 이어폰을 뺐다。

형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사나기는 이어폰을 뺐다。

刑事が言葉をあまりにも多くすると考えながら、草薙はイヤホンを抜いた。

“나중에 하나오카 야스코에게도 보여 줘。

“나중에 河나오카 야스코에게도 보여 줘。

“나중에 하나오카 야스코에게도 보여 줘。

「後で花岡康子にも見せて。

이시가미 말로는 그녀도 용인해♣다고 하는데 설마 그럴지는 않겠지。

이時加味 말로는 그女도 容認했다고 하는데 설마 그럴지는 않겠지。

이시가미 말로는 그녀도 용인했다고 하는데 설마 그럴지는 않겠지。

石神言葉では彼女も容認したというのにまさかそうではないだろう。

“이시가미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는지 하나오카 야스코가 전혀 몰라♣다는
거 ㄴ니까?”

“이時加味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五카 야스코가 全然 몰랐다는
겁니까?”

“이시가미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오카 야스코가 전혀 몰랐다는
겁니까?”

「石神が何をしていたのか、花岡康子が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자네와 하나오카 야스코의 대화를 이거 ㄴ로 들어♣어。

“자네와 하나五카 야스코의 對話를 이걸로 들었어。

“자네와 하나오카 야스코의 대화를 이걸로 들었어。

「君と花岡康子の会話をこれで聞いたよ。

마미야가 벽의 집음기를 보며 히죽 웃어♣다。

마미야가 壁의 集陰氣를 보며 히죽 웃었다。

마미야가 벽의 집음기를 보며 히죽 웃었다.

マミヤが壁の集音機を見てヒヒク笑った。

“이시가미는 전형적이ㄴ 스토커야.

“이時加味는 典型的인 스토커야.

“이시가미는 전형적인 스토커야.

「石上は典型的なストーカーだ。

야스코와 마음이 통하ㄴ다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하
는 거ㄴ 전부 차단하려고 해ㄴ어.

야스코와 마음이 통한다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男子가 그女에게 接近
하는 걸 全部 遮斷하려고 했어.

야스코와 마음이 통한다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
하는 걸 전부 차단하려고 했어.

ヤスコと心が通じると勝手に考えて、他の男が彼女に近づくのを全部遮断し
ようとした。

아마도 전남편이 가장 증오스러우ㄴ 존재여ㄴ으ㄴ 거야.

아마도 前男便이 가장 憎惡스러운 存在였을 거야.

아마도 전남편이 가장 증오스러운 존재였을 거야.

おそらく元夫が最も憎しみのある存在だったのだろう。

“흠……。

“흠……。

“흠……。

「うーん…」 …。

“이봐, 왜 그렇게 뿔떠름하ㄴ 표정이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봐, 왜 그렇게 뿔떠름한 表情이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봐, 왜 그렇게 뿔떠름한 표정이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ねえ、なぜそんなに落ち着いた表情なの？何が気に入らないのですか？」

“그런 거ㄴ 아니지만, 이시가미라는 남자에 대해 나름 파악하고 있어ㄴ다고 생각해ㄴ는데 진술 내용이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당황스럽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시가미라는 男子에 對해 나름 把握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陳述 內容이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唐慌스럽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시가미라는 남자에 대해 나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술 내용이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당황스럽네요。

「そんな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石神という男についてそれなりに把握していたと思っていましたが、文の内容が私が知っていたものとあまりにも離れて恥ずかしいですね。

“인간이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人間이란 여러 個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法이야.

“인간이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人間とは複数の顔を持っている法だ.

스토커의 정체도 대개는 의외의 인물이지.

스토커의 正體도 大概는 意外의 人物이지.

스토커의 정체도 대개는 의외의 인물이지.

ストーカーの正体も通常は意外な人物だ.

“그거 ㄴ 저도 알고 있지만…….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それは私も知っているが……」 ... 。

집음기 외에 또 발견되 ㄴ 게 있습니까?”

집陰氣 外에 또 發見된 게 있습니까?”

집음기 외에 또 발견된 게 있습니까?”

集音機以外にまた見つか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

마미야는 크게 고개를 끄덕여 ㄴ다.

마미야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미야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真宮は大きく頭をうなずいた。

“고타쓰 코드가 발견돼 ㅅ어.

“고타쓰 코드가 發見됐어.

“고타쓰 코드가 발견됐어.

「こたつコードが見つかりました。

고타쓰와 함께 상자에 들어 있더군.

고타쓰와 함께 箱子에 들어 있더군.

고타쓰와 함께 상자에 들어 있더군.

こたつと一緒に箱に入ってたね。

그것도 면직물로 감싸이 ㄴ 코드.

그것도 綿織物로 감싸인 코드.

그것도 면직물로 감싸인 코드.

それも綿織物で包まれたコード。

교살에 사용되 ㄴ 것과 똑같은 ㄴ 것이지.

教살에 使用된 것과 똑같은 것이지.

교살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것이지.

絞殺に使われたのと同じものだ。

만일 코드에 피해자의 피부가 일부라도 붙어 있다면 결정적이야。

萬一 코드에 被害者の 皮膚が 一部라도 붙어 있다면 決定的이야。

만일 코드에 피해자의 피부가 일부라도 붙어 있다면 결정적이야。

もしコードに被害者の肌が一部でも付いているなら決定的だ。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요?”

「違うの？」

“이런 거 ㄹ 발견해 ㄴ어。

“이런 걸 發見했어。

“이런 걸 발견했어。

「こんなことを發見した。

마미야가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ㄴ다。

마미야가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였다。

마미야가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였다。

マミヤがコンピュータマウスを動かした。

모니터에 문서 하나가 나타나^ㄴ다.

모니터에 文書 하나가 나타났^ㄴ다.

모니터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ㄴ다.

モニターに1つの文書が表示されました。

거기에는 다음과 같으^ㄴ 글이 적혀 있어^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そこには次のような文が書かれていた。

‘당신이 자주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ㄴ다.

‘當身이 자주 만나는 男子의 正體를 알아냈^ㄴ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ㄴ다.

‘あなたがよく会う男の正体を見つけた。

사진을 찍어 두어^ㄴ으니 당신도 보면 아^ㄴ 것이다.

寫眞을 찍어 두었으니 當身도 보면 알 것이다.

사진을 찍어 두었으니 당신도 보면 알 것이다.

写真を撮っておいたので、あなたも見ればわかるだろう。

당신에게 묻고 싶다.

當身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あなたに聞きたい。

이 남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 男子와는 어떤 關係인가?

이 남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この男とはどんな關係なのか？

만일 연애 관계라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배신행위다。

萬一 戀愛 關係라면 그것은 絶對 있어서는 안 될 背信行爲다。

만일 연애 관계라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배신행위다。

もし戀愛關係ならそれは絶對あってはならない裏切り行為だ。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을 해냈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當身を 爲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

私があなたのために何をしたかを考えてください。

나는 당신에게 명령하ㄴ 권리가 있다。

나는 當身에게 命令할 權利가 있다。

나는 당신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

私に命令する権利がある。

즉시 이 남자와 헤어지기 바라ㄴ다。

即時 이 男子와 헤어지기 바란다。

즉시 이 남자와 헤어지기 바란다。

すぐにこの男と別れてほしい。

그러지 않으면 내 분노는 이 남자에게 향하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 憤怒는 이 男子에게 向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 분노는 이 남자에게 향할 것이다。

そうでなければ、私の怒りはこの男に向かうでしょう。

이 남자를 도가시와 똑같으ㄴ 운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내게는 지극히 쉬우ㄴ 일이다。

이 男子를 도가시와 똑같은 運命으로 몰아넣는 것은 내게는 至極히 쉬운 일이다。

이 남자를 도가시와 똑같은 운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내게는 지극히 쉬운 일이다。

この男を道鹿市と同じ運命に追いやるのは私にとっては極めて簡単なことだ。

나는 이미 각오해ㅆ고 방법도 생각해 두어ㅆ다。

나는 이미 覺悟했고 方法도 생각해 두었다.

나는 이미 각오했고 방법도 생각해 두었다.

私はすでに覺悟しており、方法も考えていました。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 남자와 남녀 관계라면 나는 그런 배신행위를 절대 용서
하 ㄴ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萬一 이 男子와 男女 關係라면 나는 그런 背信行爲를 絶對
容恕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 남자와 남녀 관계라면 나는 그런 배신행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繰り返し言うが、もしこの男と男女関係なら私はそんな裏切り行為を絶対許
すことができない。

기필코 보복하 ㄴ 것이다.

期必코 報復할 것이다.

기필코 보복할 것이다.

元氣に報復するだろう。

,

,

,

,

17

17

17

17

유가와는 창가에 서서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보고 있어ㄴ다.

有價와는 窓가에 서서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유가와는 창가에 서서 물끄러미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湯川は窓際に立って滑りの外を見下ろしていた。

그 등에는 허무감과 고독이 감돌아ㄴ다.

그 等에는 虛無感和 孤獨이 감돌았다.

그 등에는 허무감과 고독이 감돌았다.

その背中には虚無感と孤独が漂っていた。

오랜만에 만나ㄴ 옛 친구의 범행을 알고 충격을 받으ㄴ 것 같기도 하지만 구사

나기의 눈에는 뭐ㄴ가 다른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ㄴ다.

오랜만에 만난 옛 親舊의 犯行을 알고 衝擊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驅使

나기의 눈에는 뭔가 다른 感情이 그를 支配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의 범행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구
사나기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久しぶりに出会った昔の友人の犯行を知って衝撃を受けたようでもあるが、
草薙の目には何か他の感情が彼を支配しているように見えた。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だから、」

유가와가 낮은 소리로 말해^ㄴ다.

有價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유가와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湯川が低い音で言った。

“자네는 그 말을 믿어^ㄴ어? 이시가미의 진술을 말이야.

“자네는 그 말을 믿었어? 이時加味の 陳述을 말이야.

“자네는 그 말을 믿었어? 이시가미의 진술을 말이야.

「あなたはその言葉を信じましたか？石神の言葉を言う。

“경찰로서는 의심하^ㄴ 이유가 없어.

“警察로서는 疑心할 理由가 없어.

“경찰로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어.

「警察としては疑う理由がない。

구사나기가 대답해^ㄴ다.

驅使나기가 對答했다。

구사나기가 대답했다。

草薙が答えた。

“이시가미의 증언을 기초로 다양하ㄴ 각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이時加味の 證言을 基礎로 多様な 角度에서 證據를 蒐集하고 있어。

“이시가미의 증언을 기초로 다양한 각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石神の証言をもとに様々な角度から証拠を収集している。

오늘 나는 이시가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지ㄴ 곳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
서 탐문 수사를 벌여ㄴ어。

오늘 나는 이時加味の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公衆電話 부스 周邊
에서 探問 搜查를 벌였어。

오늘 나는 이시가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주변
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어。

今日は石神の家から少し離れたところにある公衆電話ブース周辺で探検を行
った。

이시가미의 말로는 매일 밤 거기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전화를 해ㄴ다더군。

이時加味の 말로는 毎日 밤 거기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電話를 했다더
군。

이시가미의 말로는 매일 밤 거기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石神の言葉では毎晩そこで花岡康子に電話をした。

공중전화 부스 옆에 잡화점이 있는데, 그곳 주인이 이시가미처럼 생긴 인물을 보낸 기억이 있다고 해썩어。

公衆電話 부스 옆에 雜貨店이 있는데, 그곳 主人이 이時加味처럼 생긴 人物을 본 記憶이 있다고 했어。

공중전화 부스 옆에 잡화점이 있는데, 그곳 주인이 이시가미처럼 생긴 인물을 본 기억이 있다고 했어。

公衆電話ブースの横に雜貨店があるのに、そこの主人が石神みたいにできた人物を見た記憶があると言った。

최근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인상에 남은 모양이야。

最近에는 公衆電話를 利用하는 사람이 別로 없어서 引上에 남은 模様が야。

최근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인상에 남은 모양이야。

最近は公衆電話を利用する人があまりなくて印象に残ったようだ。

전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해썩대。

電話하는 모습을 여러 番 目撃했다。

전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대.

電話する姿を何度も目撃した。

유가와가 천천히 구사나기 쪽으로 돌아서ㄴ다.

有價와가 천천히 驅使나기 쪽으로 돌아섰다.

유가와가 천천히 구사나기 쪽으로 돌아섰다.

湯川がゆっくり駆け寄った方に戻った。

“경찰이라고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표현하지 마.

“警察이라고 뭉뚱그려서 曖昧하게 表現하지 마.

“경찰이라고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표현하지 마.

「警察とかっこよくて曖昧に表現しないでください。

내가 물어보ㄴ 거ㄴ 자네가 그 진술을 믿느냐는 거야.

내가 물어본 건 자네가 그 陳述을 믿느냐는 거야.

내가 물어본 건 자네가 그 진술을 믿느냐는 거야.

私が尋ねたのはあなたがその声明を信じるのかということだ。

수사 방침이야 어쨌든 그거ㄴ 나랑 상관이 없어.

搜查 方針이야 어쨌든 그건 나랑 相關이 없어.

수사 방침이야 어쨌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捜査方針だ とにかくそれは私とは関係ない。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어 ㄴ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草薙は首をうなずいてため息を吐いた。

“솔직하게 말해서 개운치가 않아。

“率直하게 말해서 개운値가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개운치가 않아。

「率直に言ってギャングがない。

물론 진술에는 모순이 없어。

勿論 陳述에는 矛盾이 없어。

물론 진술에는 모순이 없어。

もちろん文に矛盾がない。

일관성도 있고。

一貫性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一貫性もあり。

그렇지만 뭐 ㄴ가 석연치 않으 ㄴ 구석이 있어.

그렇지만 뭔가 釋然치 않은 구석이 있어.

그렇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でも何か石然じゃない隅がある。

간단히 말하자면, 이시가미가 그런 짓을 해 ㄴ 것 같지 않다는 거야.

簡單히 말하자면, 이時加味가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자면, 이시가미가 그런 짓을 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야.

簡単に言えば、石神がそんなことをしたとは思えないということだ。

하지만 상사에게 그렇게 말해 ㄴ 다가는 상대도 안 해 주 ㄴ 거야.

하지만 上司에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相對도 안 해 줄 거야.

하지만 상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가는 상대도 안 해 줄 거야.

だが上司にそう言ったら相手もしないだろう。

“경찰 양반들이야 무사히 범인을 검거해 ㄴ으니 그거 ㄴ로 만족하겠지.

“警察 兩班들이야 無事히 犯人을 檢擧했으니 그걸로 滿足하겠지.

“경찰 양반들이야 무사히 범인을 검거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지.

「警察の兩班が無事犯人を檢挙したのでそれで満足するだろう。

“뚜렷하 ㄴ 의문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 ㄴ 데 ㄴ데 그런 게 전혀 없

어。

“뚜렷한 疑問點이 하나라도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

어。

“뚜렷한 疑問點이 하나라도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

어。

「明確な疑問点が一つでもあれば話が変わるはずなのにそんなことは全くな
い。

완벽하단 말이야。

完璧下段 末이야。

완벽하단 말이야。

完璧なのです。

예를 들어 자전거의 지문을 지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애당초 피해자가 자
전거를 타고 와♣♣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를 들어 自轉車의 地文을 지우지 않은 點에 對해서는 애當初 被害者が
自轉車를 타고 왔다는 事實 自體를 몰랐다고 主張하고 있어。

예를 들어 자전거의 지문을 지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애당초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例えば、自轉車の指紋を消していない点については、当初被害者が自轉車に
乗ってきたという事実自体を知らなかったと主張している。

여기에도 의심하 餘地는 없어。

여기에도 疑心할 餘地는 없어。

여기에도 의심할 여지는 없어。

ここにも疑う余地はない。

모든 정황이 이시가미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모든 情況이 이時加味가 犯人이라고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모든 정황이 이시가미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すべての情況が石上が犯人だと指しているのだ。

그런 마당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리 難 수는 없어。

그런 마당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搜查를 原點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

그런 마당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수사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

そんな庭だから私が何を言っても捜査を原点に戻すことはできない。

“요컨대 납득하기는 힘들지만 수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시가미를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리 難다는 거군。

“要컨대 納得하기는 힘들지만 搜查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時加味를 이番事件의 犯人으로 結論 내린다는 거軍。

“요컨대 납득하기는 힘들지만 수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시가미를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린다는 거군.

「要するに納得するのは大変だが捜査がそのように流れていくから石神を今回の事件の犯人として結論下すということだね。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마.

“그런 式으로 비꼬지 마.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마.

「そんなふうにしないでください。

애초에 감정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건 자네의 신조 아니야? 논리가 통하는 이상 납득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과학자의 기본 태도라며。

애初에 感情보다 事實을 重視하는 건 자네의 信條 아니야? 論理가 通하는 以上 納得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科學者の 基本 態度라며。

애초에 감정보다 사실을 중시하는 건 자네의 신조 아니야? 논리가 통하는 이상 납득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과학자의 기본 태도라며。

そもそも感情より事実を重視するのは君の信条じゃない? 論理が通じる以上 納得しにくくても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科学者の基本態度だと。

자네가 늘 하는 말이잖아.

자네가 늘 하는 말이잖아.

자네가 늘 하는 말이잖아.

君がいつも言うじゃないか。

그러자 유가와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구사나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러자 有價와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驅使나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러자 유가와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구사나기의 맞은편에 앉았다.

すると湯川が軽く首を振りながら草薙の向かい側に座った。

“마지막으로 이시가미를 만나_ㄴ으_ㄴ 때 그가 내게 수학 문제를 하나 내놓아_ㄴ어.

“마지막으로 이時加味를 만났을 때 그가 내게 數學 問題를 하나 내놓았어.

“마지막으로 이시가미를 만났을 때 그가 내게 수학 문제를 하나 내놓았어.

「最後に石神に会ったとき、彼は私に数学の問題を一つ出しました。

$P \neq NP$ 문제라고 불리는 거_ㄴ데, 스스로 생각해서 해답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답이 옳으_ㄴ지 그르_ㄴ지를 판단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하_ㄴ가 하는 거야.

$P \neq NP$ 問題라고 불리는 건데, 스스로 생각해서 解答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答이 옳은지 그른지를 判斷하는 것 中 어느 쪽이 더 簡單한가 하는 거야.

P ≠ NP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 스스로 생각해서 해답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답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간단한가 하는 거야.

P ≠ NP 問題と呼ばれるのですが、自分で考えて答えを引き出すことと、他人の答えが正しいかどうかを判断することのどちらがより簡単かということだ。

유명하ㄴ 문제지.

有名한 問題紙。

유명한 문제지。

有名な問題地。

그의 말에 구사나기가 얼굴을 찌푸려ㄴ다。

그의 말에 驅使나기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말에 구사나기가 얼굴을 찌푸렸다。

彼の言葉に駆けつけが顔を刺した。

“그게 수학 문제야? 철학 문제같이 들리는데。

“그게 數學 問題야? 哲學 問題같이 들리는데。

“그게 수학 문제야? 철학 문제같이 들리는데。

「それは数学の問題ですか？哲学問題のように聞こえるのに。

“어쨌든 이시가미는 자네들에게 답을 하나 제시해 ㄴ 어。

“어쨌든 이時加味는 자네들에게 答을 하나 提示했어。

“어쨌든 이시가미는 자네들에게 답을 하나 제시했어。

「とにかく石神は君たちに答えを一つ提示した。

바로 그의 자수이자 진술 내용이지。

바로 그의 自首이자 陳述 內容이지。

바로 그의 자수이자 진술 내용이지。

まさに彼の刺繍であり陳述内容だ。

어느 모로 보나 옳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답을 자신의 두뇌를 총동원해서 고
안해 내 ㄴ 거야。

어느 모로 보나 옳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答을 自身の 頭腦를 總動員해서
考案해 낸 거야。

어느 모로 보나 옳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답을 자신의 두뇌를 총동원해
서 고안해 낸 거야。

どのモロボナ正しいとしか考えられない答えを自分の脳を総動員して考案し
てきたの。

그거 ㄴ ‘아, 그렇군요。

그걸 ‘아, 그렇군요。

그걸 ‘아, 그렇군요.

それを'あ、そうですね。

’ 하고 받아들이는 거ㄴ 자네들의 패배를 의미해。

’ 하고 받아들이는 건 자네들의 敗北를 意味해。

’ 하고 받아들이는 건 자네들의 패배를 의미해。

'と受け入れるのは君たちの敗北を意味し。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는 그가 제시하ㄴ 답이 옳으ㄴ지 그르ㄴ지를 자네들이 전
력을 다해 확인하ㄴ 차례야。

제대로 하자면 이쑤에는 그가 提示한 答え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네들이 全力
을 다해 確認할 次例야。

제대로 하자면 이번에는 그가 제시한 답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네들이 전
력을 다해 확인할 차례야。

しっかりすると、今回は彼が提示した答えが正しいか、そうでないかを皆さ
んが全力を尽くして確認する番だ。

자네들은 지금 도전 받고 있는 거야。

자네들은 只今 挑戦 받고 있는 거야。

자네들은 지금 도전 받고 있는 거야。

君たちは今挑戦されているんだ。

시험 당하고 있단 말이지。

試験 當하고 있단 말이지。

시험 당하고 있단 말이지。

テストされているな。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補強 捜査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

「それでいろいろと補強捜査をするわけじゃない。

“자네들은 지금 그의 증명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 ㄴ 뿐이야。

“자네들은 只今 그의 證明 方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자네들은 지금 그의 증명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君たちは今彼の証明方法をそのまま追いついているだけだ。

하지만 진짜 자네들이 해야 하 ㄴ 일은 다른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거야。

하지만 眞짜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對答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
는 거야。

하지만 진짜 자네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
는 거야。

でも本当の君たち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他の答えがあるかどうかを明らかにするのだ。

그가 제시하 ㄴ 대답 이외의 답이 있으 ㄴ 수 없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비로소 그 대답이 유일하 ㄴ 해답이라고 단언하 ㄴ 수 있어。

그가 提示한 對答 以外の 答え이 있을 수 없다는 것까지 證明해야 비로소 그 對答이 唯一한 解答이라고 斷言할 수 있어。

그가 제시한 대답 이외의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비로소 그 대답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

彼が提示した答え以外の答えがあり得ないということまで証明しなければ初めてその答えが唯一の答えだと断言できる。

유가와와 강경하 ㄴ 말투에서 구사나기는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ㄴ 다。

有價와의 強硬한 말套에서 驅使나기는 그가 焦燥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 다。

유가와와 강경한 말투에서 구사나기는 그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 다。

湯川との強硬な口調で、草薙は彼が焦っていることを感じた。

늘 침착하고 냉정하 ㄴ 이 물리학자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 ㄴ 좀처럼 보기 힘드 ㄴ 일이어 ㄴ 다。

늘 沈着하고 冷靜한 이 物理學者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다。

늘 침착하고 냉정한 이 물리학자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건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다。

いつも落ち着いて冷静なこの物理学者がこのような姿を現わすのはなかなか見つらいことだった。

“이시가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군。

“이時加味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군。

“이시가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군。

「石神が嘘をついているということだね。

범인은 이시가미가 아니라는 거지?”

犯人은 이時加味가 아니라는 거지?”

범인은 이시가미가 아니라는 거지?”

犯人は石神ではないというの？」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가 미간에 주름을 세우더니 눈을 내리떠^ㄴ다。

驅使나기의 말에 有價와假 美間에 주름을 세우더니 눈을 내리떴다。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가 미간에 주름을 세우더니 눈을 내리떴다。

草薙の言葉に湯川が眉間にしわを立てると目が下がった。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사나기가 말을 이어^ㄴ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驅使나기가 말을 이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사나기가 말을 이었다。

その顔を眺めながら、草薙が話をした。

“그렇게 단언하는 근거가 뭐야? 자네 나름의 추리가 있다면 말을 해 봐。

“그렇게 斷言하는 根據가 뭐야? 자네 나름의 推理가 있다면 말을 해 봐。

“그렇게 단언하는 근거가 뭐야? 자네 나름의 추리가 있다면 말을 해 봐。

「そう言う根拠は何ですか？自分なりの推理があったら話してみてください。
い。

아니면 단순히 옛 친구라서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기 싫다는 건가?”

아니면 單純히 옛 親舊라서 殺人犯이라고 생각하기 싫다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옛 친구라서 살인범이라고 생각하기 싫다는 건가?”

それとも単に昔の友人なので殺人犯だと思うのは嫌だということのか？

그러자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구사나기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섰
다。

그러자 有價와假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驅使나기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섰
다。

그러자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구사나기에게 등을 보이고 돌아섰
다。

すると湯川が席で立ち上がったら草薙に背中を見せて帰った。

구사나기가 “유가와.

驅使나기가 “有價와.

구사나기가 “유가와.

草薙が「湯川.

” 하고 그를 불러ㄴ다.

” 하고 그를 불렀다.

” 하고 그를 불렀다.

」と彼を呼んだ.

“믿고 싶지 않으ㄴ 거ㄴ 사실이야.

“믿고 싶지 않은 건 事實이야.

“믿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야.

「信じたくないのは事実だ.

유가와가 등을 돌리ㄴ 채 대답해ㄴ다.

有價와街 等を 돌린 채 對答했다.

유가와가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湯川川らを回したまま答えた.

“지난번에도 말해ㄴ지만, 그는 논리성을 중시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는 論理性을 重視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는 논리성을 중시해。

「過去にも言ったが、彼は論理性を重視して。

감정은 나중 문제야。

感情은 나중 問題야。

감정은 나중 문제야。

感情は後で問題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다는 판단이 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란 말이지。

問題を 解決하는 데 有效하다는 判斷이 西面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이란 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다는 판단이 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
람이란 말이지。

問題を解決するのに有効だという判断が書けば何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
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살인이라니, 그것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
람을 죽이다니, 상상 밖의 일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殺人이라니, 그것도 自身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사람을 죽이다니, 想像 밖의 일이야。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살인이라니, 그것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죽이다니, 상상 밖의 일이야.

だがいくらそうだと殺人だと、それも自分とは何の関係もない人を殺すなんて、想像外のことだ。

“근거라는 게 그것뿐이야?”

“根據라는 게 그것뿐이야?”

“근거라는 게 그것뿐이야?”

「根拠というのがそれだけなの？」

그 말에 유가와는 뒤돌아서서 구사나기를 노려보아^ㄴ다。

그 말에 有價와는 뒤돌아서서 驅使나기를 노려보았다。

그 말에 유가와는 뒤돌아서서 구사나기를 노려보았다。

その言葉に湯川は振り返って草薙を狙った。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분노보다 슬픔과 고통의 빛이 짙게 배어 나와^ㄴ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憤怒보다 슬픔과 苦痛의 빛이 짙게 배어 나왔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분노보다 슬픔과 고통의 빛이 짙게 배어 나왔다。

しかし彼の目では怒りより悲しみと苦しみの光が濃く染み出した。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ㄴ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있지。

“믿고 싶지는 않지만 事實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世上에는 있

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있

지。

「信じたくないが事実で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が世界にはある。

그거 ㄴ 나도 잘 알아。

그건 나도 잘 알아。

그건 나도 잘 알아。

それは私もよく知っている。

“그런데도 여전히 이시가미는 결백하다는 거야?”

“그런데도 如前히 이時加味는 潔白하다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이시가미는 결백하다는 거야?”

「それでもまだ石神は無実だというのは？」

유가와가 얼굴을 찡그리며 살살 고개를 저어 ㄴ 다。

有價와假 얼굴을 찡그리며 살살 고개를 저었다。

유가와가 얼굴을 찡그리며 살살 고개를 저었다。

湯川が顔をゆがめながら殺す首を振った。

“아니, 그런 말은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은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은 아니야.

「いや、そんなことじゃない。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 ㄴ 지는 알겠어.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あなたが何を言いたいのか分かります。

도가시를 죽이 ㄴ 사람은 어디까지나 야스코이고 이시가미는 그녀를 비호하고
있으 ㄴ 뿐이라는 거지?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하 ㄴ수록 그러 ㄴ 가능성이 점점 줄
어들고 있어.

도가市를 죽인 사람은 어디까지羅 야스코이고 이時加味는 그女를 庇護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하지만 調査를 하면 할수록 그럴 可能性이 漸漸 줄어
들고 있어.

도가시를 죽인 사람은 어디까지나 야스코이고 이시가미는 그녀를 비호하
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道鹿市を殺した人はあくまで靖子であり、石神は彼女を守護しているだけだ
というのか? だが調査をすればするほどその可能性がますます減っている。

이시가미가 스토크 행위를 해 ㅅ다는 물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이時加味가 스토크 行爲를 했다는 物證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이시가미가 스토크 행위를 했다는 물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石神がストーカー行為をしたという物証が一、二つ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아무리 비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위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

아무리 庇護하기 爲해서라도 그렇게까지 偽裝하는 건 不可能하다고 봐。

아무리 비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위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

いくら守るためにもそれまで偽装するのは不可能だと思う。

다 떠나서,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쓰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시가미에게 야스코는 형제도 아내도 아니야。

다 떠나서, 殺人罪를 代身 뒤집어쓸 人間이 이 世上에 있을까? 이時加味에게 야스코는 兄弟도 아내도 아니야。

다 떠나서,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쓸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시가미에게 야스코는 형제도 아내도 아니야。

全部離れて、殺人罪を代わりにひっくり返す人間がこの世にいるのだろうか? 石上にとって安子は兄弟でも妻でもない。

사실은 연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여자지。

事實은 戀人이라고도 할 수 없는 女子지。

사실은 연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여자지。

実は恋人ともいえない女子。

아무리 비호해 주고 싶고 더 나아가 실제로 범행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체념하는 게 일반적이야。

아무리 庇護해 주고 싶고 더 나아가 實際로 犯行을 隱匿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狀況이 여의치 않으면 諦念하는 게 一般的이야。

아무리 비호해 주고 싶고 더 나아가 실제로 범행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체념하는 게 일반적이야。

どんなに嘆いてくれたくてもっと進んで実際に犯行を隠すのを手伝ってくれたとしても、状況が疑わなければ諦めるのが一般的だ。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人間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それが人間だと。

그 순간 유가와가 문득 뭐ㄴ가를 깨달아ㄴ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떠ㄴ다。

그 瞬間 有價와가 문득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유가와가 문득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その瞬間、湯川がふと何かを悟ったように目を大きく開いた。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체념하ㄴ다……, 그래, 그게 보통의 인간이지。

“狀況이 여의치 않으면諦念한다……, 그래, 그게 普通の人間이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체념한다……, 그래, 그게 보통의 인간이지。

「狀況が如何でなければ諦める…」 …、ええ、それが普通の人間なの。

끝까지 비호하ㄴ다는 거ㄴ 지극히 어려우ㄴ 일이야。

끝까지 庇護한다는 건 至極히 어려운 일이야。

끝까지 비호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야。

最後まで守るというのは極めて難しいことだ。

유가와는 아득하ㄴ 눈길을 하고 중얼거려ㄴ다。

有價와는 아득한 눈길을 하고 중얼거렸다。

유가와는 아득한 눈길을 하고 중얼거렸다。

湯川は遥かに目を引いて呟いた。

“이시가미 역시 그래ㄴ으ㄴ 거야。

“이時加味 亦是 그랬을 거야。

“이시가미 역시 그랬을 거야。

「石上もやりました。

이시가미가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ㄴ어。

이時加味が 自身이 그 事實을 잘 알고 있었어。

이시가미가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石神は自分がその事実をよく知っていた。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だから… …。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뭐?”

「だから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いいえ。

유가와가 고개를 저어^ㅅ다。

有價와假 고개를 저었다。

유가와가 고개를 저었다。

湯川が首を振った。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何もない。

“나로서는 이시가미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 ㄴ 수 없어。

“나로서는 이時加味를 犯人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나로서는 이시가미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私としては石神を犯人だと思わなくていいよ。

뭐 ㄴ가 새로우 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 방침이 바뀌지도 않으 ㄴ 거야。

뭔가 새로운 事實이 나오지 않는 한 搜查 方針이 바뀌지도 않을 거야。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 방침이 바뀌지도 않을 거야。

何か新しい事実が出ない限り、捜査方針が変わることもないだろう。

유가와는 구사나기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신의 얼굴을 문질러 ㅅ다。

有價와는 驅使나기의 말에 아무런 對答 없이 自身の 얼굴을 문질렀다。

유가와는 구사나기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신의 얼굴을 문질렀다。

湯川は草薙の言葉に何の答えもなく自分の顔をこすった。

그리고 숨을 길게 토해 내었다.

그리고 숨을 길게 토해 냈다.

그리고 숨을 길게 토해 냈다.

そして息を長く吐き出した。

“이시가미가 교도소에서 지내는 길을 선택한 거니까……。

“이時加味가 矯正所에서 지내는 길을 선택한 건가……。

“이시가미가 교도소에서 지내는 길을 선택한 건가……。

「石神が刑務所で過ごす道を選んだのか…」 …。

“사람을 죽여내었다면 그거야 당연한 일이야。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當然한 일이야。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야。

「人を殺したなら、それは当然のことだ。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가……。

「そうか… …。

유가와는 고개를 숙이려 채 움직이지 않아내었다。

有價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유가와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湯川は頭を下げたまま動かなかった。

그리고 잠시 후 그 자세 그대로 입을 열어ㄴ다.

그리고 暫時 後 그 姿勢 그대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다.

そしてしばらくして、その姿勢のまま口を開けた。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

“未安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줘.

「すみませんが、今日はこれだけ帰ってください。

조금 피로하군.

조금 疲勞하군.

조금 피로하군.

少し疲れています。

아무리 봐도 유가와와의 태도가 이상해ㄴ다.

아무리 봐도 有價와의 態度가 異常했다.

아무리 봐도 유가와 태도가 이상했다.

いくら見ても湯川の態度がおかしかった。

구사나기는 더 묻고 싶으ㄴ 거ㄴ 참고 자리에서 일어서ㄴ다.

驅使나기는 더 묻고 싶은 걸 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사나기는 더 묻고 싶은 걸 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草薙はもっと聞きたいことを参考席で立ち上がった。

유가와 말마따나 그가 몹시 지쳐 보여ㄴ기 때문이다.

有價와 말마따나 그가 몹시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유가와 말마따나 그가 몹시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湯川の言葉も彼がすごく疲れて見えたからだ。

구사나기가 제13연구실을 나와 어두컴컴하ㄴ 복도를 걸어가는데 젊은이 하나
가 맞은편에서 계단을 올라와ㄴ다.

驅使나기가 第 13 研究室을 나와 어두컴컴한 複道を 걸어가는데 젊은이 하
나가 맞은便에서 階段을 올라왔다.

구사나기가 제13연구실을 나와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가는데 젊은이 하
나가 맞은편에서 계단을 올라왔다.

草薙が第 13 研究室を出て暗いコムコムの廊下を歩いて行くのに若者が向か
い側から階段を上ってきた。

다소 여위고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생긴 그 젊은이를 구사나기는 알아봤다。

多少 여위고 조금은 神經質적으로 생긴 그 젊은이를 驅使나기는 알아봤다。

다소 여위고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생긴 그 젊은이를 구사나기는 알아봤다。

やや余裕で少しは神経質にできたその若者を駆使するのは調べた。

유가와와 지도를 받고 있는 도키와라는 대학원생이어다。

有價와의 指導를 받고 있는 도키蝸螺는 大學院生이었다。

유가와와 지도를 받고 있는 도키와라는 대학원생이었다。

湯川の指導を受けている常盤という大学院生だった。

일전에 유가와가 자리를 비우 사이 찾아가으 때 유가와와 행선지가 시노 자키이 것 같다고 가르쳐 주 젊은이다。

一戰에 有價와假 자리를 비운 사이 찾아가을 때 有價와의 行先地가 市老子 키인 것 같다고 가르쳐 준 젊은이다。

일전에 유가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찾아가을 때 유가와와 행선지가 시노 자키인 것 같다고 가르쳐 준 젊은이다。

先日、湯川が席を空いた間に訪れた時、湯川の行き先が篠崎らしいと教えてくれた若者だ。

도키와도 구사나기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하며 지나치려 해^ㄴ다.

도키와도 驅使나기를 알아보고 가볍게 人事하며 지나치려 했다.

도키와도 구사나기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하며 지나치려 했다.

常盤も草薙を調べて軽く挨拶して過ぎようとした。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あ、ちょっと待って。

구사나기가 그를 불러^ㄴ다。

驅使나기가 그를 불렀다。

구사나기가 그를 불렀다。

草薙が彼を呼んだ。

약간 놀라^ㄴ 표정으로 뒤돌아보는 도키와에게 구사나기는 미소를 지어 보여^ㄴ
다。

若干 놀란 表情으로 뒤돌아보는 도키와에게 驅使나기는 微笑를 지어 보였
다。

약간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보는 도키와에게 구사나기는 미소를 지어 보였
다。

少し驚いた表情で振り返る常盤に駆けつける笑顔を見せた。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時間을 내줄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聞いてみたいことがあるのに、しばらく時間を出すことができるか？」

도키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대답해준다.

도키와는 손목時計를 내려다보더니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對答했다.

도키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대답했다.

常盤は腕時計を見下ろすと、ちょっとしたら大丈夫だと答えた。

그들은 물리학 연구실이 있는 건물을 나와 주로 이과 계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당으로 들어가준다.

그들은 物理學 研究室이 있는 建物을 나와 주로 이과 系列 學生들이 使用하는 食堂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리학 연구실이 있는 건물을 나와 주로 이과 계열 학생들이 사용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彼らは物理学研究室のある建物を出て、主に理系生徒が使う食堂に入った。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은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준다.

自動販賣機에서 커피를 뽑은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自動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은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自動販売機でコーヒーを抜いた二人はテーブルを挟んで向かい合った。

“자네들의 연구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자네들의 研究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자네들의 연구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커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君たちの研究室で飲む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よりこれがずっと美味しい。

종이컵에 담기 ㄴ 커피를 한 모금 마시 ㄴ 후 구사나기가 말해 ㄴ 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後 驅使나기가 말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구사나기가 말했다。

紙コップに入れたコーヒーを一口飲んだ後、草薙が言った。

대학원생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하 ㄴ 것 이어 ㄴ 다。

大學院生の 緊張을 풀어 주기 爲한 것이었다。

대학원생의 긴장을 풀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大学院生の緊張をほぐすためだった。

도키와는 웃어 보여 ㄴ 지만 뺨에 아직 긴장의 빛이 남아 있어 ㄴ 다。

도키와는 웃어 보였지만 뺨에 아직 緊張의 빛이 남아 있었다。

도키와는 웃어 보였지만 뺨에 아직 긴장의 빛이 남아 있었다。

常盤は笑って見えたが頬にまだ緊張の光が残っていた。

시시하ㄴ 얘기라도 조금 더 나눠 보ㄴ까 생각해ㄴㄴ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ㄴ 구사나기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해ㄴ다。

시시한 얘기라도 조금 더 나눠 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雰圍氣에서는 無意味하다고 判斷한 驅使나기는 本論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시시한 얘기라도 조금 더 나눠 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구사나기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恥ずかしい話でももう少し分けてみようかと思ったが、このような雰圍氣では無意味だと判断した草薙は本論に入ることにした。

“내가 물어보고 싶으ㄴ 거ㄴ 유가와 교수에 대해서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有價와 教授에 對해서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유가와 교수에 대해서야。

「私が聞きたいのは、湯川教授について。

그는 그렇게 운을 떼ㄴ다。

그는 그렇게 運을 땀다。

그는 그렇게 운을 땀다。

彼はそんなに幸運だった。

“최근에 뭐ㄴ가 이상하ㄴ 일 없어ㄴ나?”

“最近에 뭔가 異常한 일 없었나?”

“최근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나?”

「最近何か変なことなかった？」

도키와가 당황하ㄴ 표정을 지어ㄴ다。

도키와假 唐慌한 表情을 지었다。

도키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ときわが慌てた表情をした。

구사나기는 자신의 질문 방식이 잘못되어ㄴ다고 생각해ㄴ다。

驅使나기는 自身の 質問 方式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구사나기는 자신의 질문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草薙は自分の質問方式が間違っていると思った。

“유가와 교수가 대학의 일과는 무관하게 어떤 조사를 받아ㄴ다거나 자주 어디
를 가ㄴ다거나 말이야。

“有價와 教授가 大學의 一過는 無關하게 어떤 調査를 받았거나 자주 어
디를 간다거나 말이야。

“유가와 교수가 대학의 일과는 무관하게 어떤 조사를 받았다거나 자주 어디를 간다거나 말이야。

「有価と教授が大学の仕事とは無関係にどんな調査を受けたか、頻繁にどこに行くか。

그런 일 없어ㄴ어?”

그런 일 없었어?”

그런 일 없었어?”

そんなことなかった？」

도키와가 고개를 갸웃해ㄴ다。

도키와假 고개를 갸웃했다。

도키와가 고개를 갸웃했다。

常盤が首を傾けた。

표정이 무척 진지해ㄴ다。

表情이 무척 眞摯했다。

표정이 무척 진지했다。

表情がとても真剣だった。

그 모습을 보고 구사나기가 미소를 지어ㄴ다。

그 모습을 보고 驅使나기가 微笑를 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구사나기가 미소를 지었다.

その姿を見て、草薙が微笑んだ。

“물론 그 친구가 무슨 사건에 관련되어ゝ다든가 하는 뜻은 아니야.

“勿論 그 親舊가 무슨 事件에 關聯되었다든가 하는 뜻은 아니야.

“물론 그 친구가 무슨 사건에 관련되었다든가 하는 뜻은 아니야.

「もちろん、その友人がどんな事件に関わったの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유가와 교수가 나를 배려해서 뭘ㄴ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説明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有價와 教授가 나를 配慮해서 뭘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유가와 교수가 나를 배려해서 뭘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説明するのはちょっと難しいですが、どうやら油と教授が私を配慮して何かを隠しているようなので。

자네도 알겠지만 저 사내는 좀 빼딱하ㄴ 구석이 있잖나.

자네도 알겠지만 저 사내는 좀 빼딱한 구석이 있잖나.

자네도 알겠지만 저 사내는 좀 빼딱한 구석이 있잖나.

君もわかるけど、その社内にはちょっとかすかな隅があるじゃないか。

이 정도의 설명으로 질문하는 의도가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만 대학원생은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고개를 끄덕여냈다。

이 程度의 説明으로 質問하는 意圖가 얼마나 傳達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大學院生은 表情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 질문하는 의도가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학원생은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この程度の説明で質問する意圖がどれだけ伝えられたのかは分からなかった
が、大学院生は表情を少し和らげて首をうなずいた。

빼딱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거 ㄴ지도 모르ㄴ 일이어냈다。

빼딱하다는 말에 共感하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빼딱하다는 말에 공감하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ギリギリという言葉に共感するのも分からないことだった。

“뭐 ㄴ 조사하시는 거 ㄴ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선생님이 도서관에 전화를 하시 ㄴ 적이 있어요。

“월 調査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칠 前に 先生님이 圖書館에 電話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월 조사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선생님이 도서관에 전화

를 하신 적이 있어요.

「何を調べるのかはよくわかりませんが、数日前に先生が図書館に電話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

“도서관? 대학 도서관 말이냐?”

“圖書館? 大學 圖書館 末인가?”

“도서관? 대학 도서관 말인가?”

「図書館? 大学図書館のことですか?」

도키와가 고개를 끄덕여ㄴ다。

도키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도키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常盤が頭をうなずいた。

“신문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 같아ㄴ어요。

“新聞이 있는지 問議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문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新聞があるかお問い合わせいただいたようでした。

“신문이라……, 도서관이니까 신문이야 당연히 비치해 두ㄴ 데ㄴ데。

“新聞이라……, 圖書館이니까 新聞이야 當然히 備置해 둘 텐데。

“신문이라……, 도서관이니까 신문이야 당연히 비치해 둘 텐데.

「新聞だから… …、図書館だから新聞だから当然備えておくのに。

“그거 ㄴ 그러 ㄴ 데, 지나가 ㄴ 신문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셔 ㄴ
던 모양이에요。

“그건 그런데, 지나간 新聞을 어느 程度 保管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模様이에요。

“그건 그런데, 지나간 신문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それで、通った新聞をどれくらい保管しているのか知りたかったよう
です。

“지나가 ㄴ 신문이라고?”

“지나간 新聞이라고?”

“지나간 신문이라고?”

「過ぎた新聞だと？」

“네。

“네。

“네。

「はい。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신문은 아니고 이번 달 신문을 전부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新聞은 아니고 이番 달 新聞을 全部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신문은 아니고 이번 달 신문을 전부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だからとても古い新聞ではなく、今月の新聞を全部読むことができるかと聞いてみました。

“이번 달 신문이란 말이지。

“이番 달 新聞이란 말이지。

“이번 달 신문이란 말이지。

「今月の新聞ということ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だから？」

“도서관에 다 있다는 대답을 들으셨나 봐요。

“圖書館에 다 있다는 對答을 들으셨나 봐요。

“도서관에 다 있다는 대답을 들으셨나 봐요。

「図書館にいるという答えを聞いたことがあるようです。

선생님이 그 길로 도서관에 가서ㄴ으니까요。

先生님이 그 길로 圖書館에 가셨으니까요。

선생님이 그 길로 도서관에 가셨으니까요。

先生がその道で図書館に行ったからです。

구사나기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도키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 ㄴ 후 커피가
반쯤 남으 ㄴ 종이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ㄴ다。

驅使な기는 暫時 高개를 끄덕이다가 도키와에게 고맙다고 人事한 後 커피
가 半쯤 남은 종이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사나기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도키와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커피
가 반쯤 남은 종이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草薙はしばらく首を頷くが常盤に感謝したと挨拶した後、コーヒーが半分残
った紙コップを持って席で立ち上がった。

데이토 대학 도서관은 조그마 ㄴ 3층 건물이어ㄴ다。

데이토 大學 圖書館은 조그만 3層 建物이었다。

데이토 대학 도서관은 조그만 3층 건물이었다。

デート大学図書館は小さな3階建ての建物だった。

구사나기는 이 대학 학생이어ㄴ던 시절에도 고작 두세 번밖에 도서관에 가 보

지 않아ㄴ다。

驅使나기는 이 大學 學生이었던 時節에도 고작 두세 番밖에 圖書館에 가
보지 않았다。

구사나기는 이 대학 학생이었던 시절에도 고작 두세 번밖에 도서관에 가
보지 않았다。

草薙はこの大学の学生だった時代にも、わずか2、3回しか図書館に行っ
てみなかった。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해ㄴ는지 어떤지는 아ㄴ 수 없지만 새 건물처럼 보여ㄴ
다。

그래서 保守 工事を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새 建物처럼 보였다。

그래서 보수 공사를 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새 건물처럼 보였다。

だから保守工事をしたの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が、新しい建物のように見え
た。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앞 카운터에 여직원이 앉아 있어ㄴ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앞 카운터에 女職員이 앉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앞 카운터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中に入るとすぐ前のカウンターに女職員が座っていた。

구사나기는 그녀에게 유가와 마나부 교수의 신문 조사 건에 대해 문의해ㄴ다。

驅使나기는 그女에게 有價와 마나不 教授의 新聞 調査 件에 對해 問議했다。

구사나기는 그녀에게 유가와 마나부 교수의 신문 조사 건에 대해 문의했다。

草薙は彼女に湯川と真鍋教授の新聞調査件について問い合わせた。

그녀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어냈으므로 구사나기는 하는 수 없이 경찰수첩을 펼쳐 보여준다。

그女가 未審쩍은 表情을 지었으므로 驅使나기는 하는 수 없이 警察手帖을 펼쳐 보였다。

그녀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으므로 구사나기는 하는 수 없이 경찰수첩을 펼쳐 보였다。

彼女が不審な表情をしたので、草薙はすることなく警察手帳を繰り広げた。

“유가와 교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有價와 教授에게 무슨 問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유가와 교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有価と教授に何の問題があるのではありません。

다만 그때 그가 어떤 기사를 읽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그때 그가 어떤 技士를 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그때 그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ただその時彼がどんな記事を読んだのか知りたいです。

구사나기는 자신의 질문이 부자연스럽게 들리 ㄴ 수 있다는 거 ㄴ 알아 ㄴ지만 달리 표현하 ㄴ 방법이 없어 ㄴ다。

驅使나기는 自身の 質問이 不自然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表現할 方法이 없었다。

구사나기는 자신의 질문이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草薙は自分の質問が不自然に聞こえることを知っていたが、他に表現する方法がなかった。

“3월 치 기사를 읽고 싶다고만 하셔 ㄴ던 것 같아요。

“3 月 値 技士를 읽고 싶다고만 하셨던 것 같아요。

“3월 치 기사를 읽고 싶다고만 하셨던 것 같아요。

「3 月のチー記事を読みたいとだけ言われたと思います。

그녀가 신중하 ㄴ 태도로 말해 ㄴ다。

그女가 慎重한 態度로 말했다。

그녀가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彼女は慎重な態度で言った。

“어떤 기사여 ㄴ조?”

“어떤 技士였죠?”

“어떤 기사였죠?”

「どんな記事でしたか？」

“글쎄요, 그거 ㄴ 잘……。

“글쎄요, 그건 잘……。

“글쎄요, 그건 잘……。

「まあ、それはよく… …。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기억이 나ㄴ는지 다시 입을 열어ㄴ다。

그러다가 그女는 문득 記憶이 났는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기억이 났는지 다시 입을 열었다。

それから彼女はふと覚えていたか再び口を開いた。

“아, 사회면만 보면 되 ㄴ다고 하셔ㄴ으ㄴ 거예요。

“아, 社會面만 보면 된다고 하셴 거예요。

“아, 사회면만 보면 된다고 하셴 거예요。

「あ、社会面だけ見ればいいと言われたでしょう。

“사회면이란 말이죠。

“社會面이란 말이죠。

“사회면이란 말이죠.

「社会面ということですね。

그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新聞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その新聞はどこですか？」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여자가 안내하 ㄴ 곳은 널찍하 ㄴ 책장이 죽 늘어서 있는 방이어 ㄴ 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女子가 案内한 곳은 널찍한 冊張이 죽 늘어서 있는 房이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여자가 안내한 곳은 널찍한 책장이 죽 늘어서 있는 방이었다。

こちらへ来て、と言って女が案内した所は広々とした本棚が瘦せている部屋だった。

책장마다 신문이 켜켜이 쌓여 있어 ㄴ 다。

冊張마다 新聞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책장마다 신문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本棚ごとに新聞がつけて積もっていた。

한 칸에 열흘 치씩 들어 있다고 여자가 알려 주어 ㄴ 다。

한 칸에 열흘 値씩 들어 있다고 女子가 알려 주었다。

한 칸에 열흘 치씩 들어 있다고 여자가 알려 주었다。

一間に 10 日ずつ入っていると女が教えてくれた。

“이쪽에는 지나 ㄴ 한 달 치 신문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지난 한 달 値 新聞밖에 없어요。

“이쪽에는 지난 한 달 치 신문밖에 없어요。

「こちらには先月の新聞しかありません。

그보다 오래되 ㄴ 것은 처분해 버리고요。

그보다 오래된 것은 處分해 버리고요。

그보다 오래된 것은 처분해 버리고요。

それより古いのは処分してしまいますよ。

예전에는 다 보관해 두어 ㅅ는데 이제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서 지나 ㄴ 기사를
쉽게 보 ㄴ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다 保管해 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檢索이 可能해서 지난 技士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다 보관해 두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서 지난 기사
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以前はすべて保管しておきましたが、今はインターネット検索が可能なの

で、過去の記事を簡単に見ることができますから。

“유가와는…… 유가와 교수는 한 달 치면 되ㄴ다고 해ㄴ단 말이죠?”

“有價와는…… 有價와 教授는 한 달 치면 된다고 했단 말이죠?”

“유가와는…… 유가와 교수는 한 달 치면 된다고 했단 말이죠?”

「湯川とは…」 …湯川教授は一ヶ月打てばいいと言ったんですよね？

“네, 3월 10일 이후 것만 있으면 되ㄴ다고 하셔ㄴ어요。”

“네, 3月 10日 以後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3월 10일 이후 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はい、3月 10日以降のものだけあればいいと言われました。

“3월 10일이라고요?”

“3月 10日이라고요?”

“3월 10일이라고요?”

「3月 10日ですか？」

“네, 분명히 그러셔ㄴ어요。”

“네, 分明히 그러셨습니다。”

“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はい、確かにそうでした。

“신문을 잠시 봐도 되ㄴ까요?”

“新聞을 暫時 봐도 될까요?”

“신문을 잠시 봐도 될까요?”

「新聞をちょっと見てもいいですか？」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そうです.

다 읽고 나면 저를 부르세요.

다 읽고 나면 저를 부르세요.

다 읽고 나면 저를 부르세요.

すべて読んだら私を呼んでください。

여자가 뒤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구사나기는 재빨리 신문 뭉치를 꺼내 옆에 있는 테이블에 펼쳐 놓아ㅅ다。

女子가 뒤돌아서는 것과 同時に 驅使나기는 재빨리 新聞 뭉치를 꺼내 옆에 있는 테이블에 펼쳐 놓았다。

여자가 뒤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구사나기는 재빨리 신문 뭉치를 꺼내 옆에 있는 테이블에 펼쳐 놓았다。

女が振り返ると同時に、草薙はいち早く新聞束を取り出して隣のテーブルに広げた。

3월 10일 사회면부터 읽어 나가기로 해ㄴ다。

3 月 10 日 社會面부터 읽어 나가기로 했다。

3월 10일 사회면부터 읽어 나가기로 했다。

3 月 10 日、社会面から読んでいくことにした。

3월 10일이라면 말하ㄴ 것도 없이 도가시 신지가 살해당하ㄴ 날이다。

3 月 10 日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도가시 臣智가 殺害當한 날이다。

3월 10일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도가시 신지가 살해당한 날이다。

3 月 10 日ならば言うまでもなく、道賀市シンジが殺された日だ。

역시 유가와는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도서관에 와ㄴ던 것이다。

亦是 有價와는 그 事件에 對해 調査하러 圖書館에 왔던 것이다。

역시 유가와는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도서관에 왔던 것이다。

やはり湯川はその事件について調査しに図書館に来たのだ。

그런데 신문에서 뭐ㄴ 확인하러 해ㄴ으ㄴ까。

그런데 新聞에서 뭘 確認하러 했을까。

그런데 신문에서 뭘 확인하러 했을까。

ところが新聞で何を確認しようとしたのだろうか。

구사나기는 사건에 관하 ㄴ 기사를 찾아보아 ㄴ다。

驅使나기는 事件에 關한 技士를 찾아보았다。

구사나기는 사건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草薙は事件に関する記事を探してみた。

처음 실리 ㄴ 것은 3월 11일 석간이어 ㄴ다。

처음 실린 것은 3月 11日 夕刊이었다。

처음 실린 것은 3월 11일 석간이었다。

初めて載せたのは 3月 11日の席間だった。

그 후 사체의 신원이 판명돼 ㄴ다는 사실이 13일 조간에 실려 있어 ㄴ다。

그 後 史체의 伸冤이 判明됐다는 事實이 13日 朝刊에 실려 있었다。

그 후 사체의 신원이 판명됐다는 사실이 13일 조간에 실려 있었다。

その後、死体の身元が判明したという事実が 13日朝間に載っていた。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속보가 보이지 않아 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速報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속보가 보이지 않았다。

それを最後にもう速報が見られなかった。

그다음에 실리 ㄴ 것은 이시가미가 자수해 ㄴ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사여 ㄴ다。

그다음에 실린 것은 이時加味가 自首했다는 事實을 알리는 技士였다。

그다음에 실린 것은 이시가미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사였다。

その後に載せたのは石神が刺繍したという事実を知らせる記事だった。

유가와는 그 기사들 중 어느 부분을 보고 싶어 ㄴ던 것이 ㄴ까。

有價와는 그 技士들 中 어느 部分を 보고 싶었던 것일까。

유가와는 그 기사들 중 어느 부분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湯川はその記事のどの部分を見たかったのだろうか。

구사나기는 몇 안 되는 기사를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 ㄴ다。

驅使나기는 몇 안 되는 技士를 여러 番 꼼꼼하게 읽었다。

구사나기는 몇 안 되는 기사를 여러 번 꼼꼼하게 읽었다。

草薙は数少ない記事を何度も入念に読んだ。

어느 것이나 별다르 ㄴ 내용이 없어 ㄴ다。

어느 것이나 別다른 内容이 없었다。

어느 것이나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どれも特別な内容がなかった。

유가와는 이런 기사들보다는 구사나기의 입을 통해 훨씬 많으 ㄴ 정보를 얻어

와ㅅ으ㄴ 터여ㅅ다.

有價와는 이런 技士들보다는 驅使나기의 입을 통해 훨씬 많은 情報를 얻어
왔을 터였다.

유가와는 이런 기사들보다는 구사나기의 입을 통해 훨씬 많은 정보를 얻
어 왔을 터였다.

ユガワは、このような記事よりは、草薙の口からはるかに多くの情報を得て
きたはずだった。

새삼스레 기사를 읽으ㄴ 필요는 없어ㅅ으ㄴ 것이다.

새삼스레 技士를 읽을 必要는 없었을 것이다.

새삼스레 기사를 읽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改めて記事を読む必要はなかっただろう。

구사나기는 신문을 앞에 두ㄴ 채 팔짱을 껴ㅅ다.

驅使나기는 新聞을 앞에 둔 채 팔짱을 껴다.

구사나기는 신문을 앞에 둔 채 팔짱을 껴다.

草薙は新聞を前に置いたまま腕を組んだ。

애당초 유가와 정도 되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데 신문 기사에 의지하
리라고는 보기 힘들어ㅅ다.

애當初 有價와 程度 되는 사람이 事件에 對해 調査하는 데 新聞 技士에 依
支하리라고는 보기 힘들었다.

애당초 유가와 정도 되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데 신문 기사에 의지하리라고는 보기 힘들었다.

そもそも原油価格と程度の人が事件について調査するのに新聞記事に頼るとは見づらかった。

매일같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마당에 수사에 획기적이 ㄴ 진전이라도 있지 않는 한 신문이 사건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일은 없다.

毎日같이 殺人 事件이 일어나는 마당에 搜查에 劃期的인 進展이라도 있지 않는 한 新聞이 事件을 繼續해서 報道하는 일은 없다.

매일같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마당에 수사에 획기적인 진전이라도 있지 않는 한 신문이 사건을 계속해서 보도하는 일은 없다.

毎日のように殺人事件が起きる庭に捜査に画期的な進展でもない限り、新聞が事件を続けて報道することはない。

도가시 살해 사건도 세간에서 보면 희귀하 ㄴ 일은 아니다.

都家時 殺害 事件도 세간에서 보면 稀貴한 일은 아니다.

도가시 살해 사건도 세간에서 보면 희귀한 일은 아니다.

道鹿市殺害事件も世間で見ると珍しいことではない。

유가와가 그런 사실을 모르 ㄴ 리 없어 ㄴ 다.

有價와가 그런 事實을 모를 理 없었다.

유가와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湯川がそのような事実を知らないわけではなかった。

그러나 그 사내는 결코 무의미하ㄴ 행동을 하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決코 無意味한 行動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결코 무의미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しかしその社内は決して無意味な行動をする人ではない。

유가와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해ㄴ지만 구사나기 역시 이시가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찜찜하ㄴ 구석이 남아 있어ㄴ다。

有價와에게는 그런 式으로 말했지만 驅使나기 亦是 이時加味를 犯人으로 斷定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유가와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구사나기 역시 이시가미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湯川にはそんな風に言ったが、草薙やはり石神を犯人として断定するには蒸し暑い隅が残っていた。

자신을 비롯하ㄴ 수사진이 잘못되ㄴ 길로 들어서ㄴ 것 아니ㄴ가 하는 불안이 가시지 않아ㄴ다。

自身을 비롯한 수寫眞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不安이 가시지 않았다。

자신을 비롯한 수사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自分をはじめとする捜査陣が間違っただ道に入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が行かなかった。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유가와는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왔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有價와는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

다。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유가와는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었다。

ところで、何がどのように間違っているのか、ユガとは知っ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た。

지금까지도 그 물리학자는 몇 번이나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어왔다。

只今까지도 그 物理學者는 몇 番이나 警察 捜査에 도움을 주었다。

지금까지도 그 물리학자는 몇 번이나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

これまでも、その物理学者は何度も警察の捜査に役立った。

이번에도 역시 유효하ㄴ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ㄴ까。

이番에도 亦是 有效한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역시 유효한 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今回もやはり有効なヒント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만일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이 **ㄴ**까。

萬一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일까。

만일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일까。

もし持っているならなぜそれを言わないのだろうか。

구사나기는 신문을 정리하고 나서 도서관 여자를 불러 **ㄴ**다。

驅使나기는 新聞을 整理하고 나서 圖書館 女子를 불렀다。

구사나기는 신문을 정리하고 나서 도서관 여자를 불렀다。

草薙は新聞を整理してから図書館の女性を呼んだ。

“목적은 달성하셔 **ㄴ**어요?”

“目的은 達成하셨어요?”

“목적은 달성하셨어요?”

「目的は達成されましたか？」

여자가 불안하 **ㄴ** 표정으로 물어 **ㄴ**다。

女子가 不安한 表情으로 물었다。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女性が不安な表情で尋ねた。

“네, 뭐……。

“네, 뭐……。

“네, 뭐……。

「はい、まあ… …。

구사나기는 모호하게 대답해 ㄴ다。

驅使나기는 模糊하게 對答했다。

구사나기는 모호하게 대답했다。

草薙は曖昧に答えた。

그런데 그가 자리를 뜨려는 참에 여자가 말해 ㄴ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뜨려는 참에 女子가 말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뜨려는 참에 여자가 말했다。

ところが彼が席を立てようとする真に女が言った。

“유가와 교수님이 지방 신문도 찾으셔 ㄴ어요。

“有價와 教授님이 地方 新聞도 찾으셨어요。

“유가와 교수님이 지방 신문도 찾으셨어요。

「湯川教授が地方新聞も見つけました。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なんですか？」

구사나기가 뒤돌아서 ㄴ다。

驅使나기가 뒤돌아섰다。

구사나기가 뒤돌아섰다。

草薙が振り返った。

“지방 신문이라고 하셔 ㄴ습니까?”

“地方 新聞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방 신문이라고 하셨습니다?”

「地方新聞と言われましたか？」

“네, 지바나 사이타마 지역의 신문이 있는지 물으셔 ㄴ어요。”

“네, 지바나 사이他마 地域の 新聞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네, 지바나 사이타마 지역의 신문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はい、千葉や埼玉地域の新聞があるか尋ねました。

없다고 대답해 ㄴ지만요。

없다고 對答했지만요。

없다고 대답했지만요。

ないと答えたけどね。

“그리고 또요?”

“그리고 또요?”

“그리고 또요?”

「そしてまた？」

“물어보신 거 그 그것뿐이에요.”

“물어보신 건 그것뿐이었어요。”

“물어보신 건 그것뿐이었어요。”

「聞いたことはそれだけでした。」

“지바나 사이타마라……。”

“지바나 사이他마라……。”

“지바나 사이타마라……。”

「千葉やさいたま… … 。

구사나기는 의문을 안고 도서관을 나서다。

驅使나기는 疑問을 안고 圖書館을 나섰다。

구사나기는 의문을 안고 도서관을 나섰다。

草薙は疑問を抱いて図書館を出た。

유가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ㄴ다。

有價와가 都大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유가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湯川がいったい何を考えているのか、まったく分からなかった。

지방 신문은 왜 필요해^ㄴ으^ㄴ까。

地方 新聞은 왜 必要했을까。

지방 신문은 왜 필요했을까。

地方新聞はなぜ必要だったのか。

어쩌면 그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거^ㄴ 구사나기의 착각이^ㄴ 뿐 사건

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ㄴ지도 모르^ㄴ다。

어쩌면 그가 事件에 對해 調査하고 있다는 건 驅使나기의 錯覺일 뿐 事件

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行動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건 구사나기의 착각일 뿐 사건

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たぶん彼が事件について調査しているというのは、草薙の勘違いであり、事

件とは何の関係もない行動を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구사나기는 주차장으로 돌아와^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驅使나기는 駐車場으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구사나기는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こういう考え あんな考えをしながら草薙は駐車場に戻ってきた。

그는 오늘 자신의 차를 타고 와ㄴ다。

그는 오늘 自身の 車を 타고 왔다。

그는 오늘 자신의 차를 타고 왔다。

彼は今日自分の車に乗ってきた。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려고 해ㄴ으ㄴ 때여ㄴ다。

運転席에 올라 始動을 걸려고 했을 때였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려고 했을 때였다。

運転席に上がって始動をしようとした時だった。

눈앞의 건물에서 유가와 마나부가 나오고 있어ㄴ다。

눈앞의 建物에서 有價와 마나部가 나오고 있었다。

눈앞의 건물에서 유가와 마나부가 나오고 있었다。

目の前の建物から湯川とマナブが出ていた。

회ㄴ 가운이 아니라 짙은 감색 재킷 차림이어ㄴ다。

흰 가운이 아니라 짙은 紺色 재킷 차림이었다。

흰 가운이 아니라 짙은 감색 재킷 차림이었다。

白いガウンではなく、濃い紺色のジャケット姿だった。

그는 골똥히 생각에 잠기 ㄴ 표정으로 주변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으 ㄴ 채 정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어 ㄴ다。

그는 골똥히 생각에 잠긴 表情으로 周邊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은 채 正門을 向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골똥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주변에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정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다。

彼は気に入らない表情で、周辺にはまったく目を引かずに正門に向かってまっすぐ歩いていた。

정문을 나서 ㄴ 유가와가 왼쪽으로 돌아드는 것을 지켜보 ㄴ 후 구사나기는 차를 출발시켜 ㄴ다。

正門을 나선 有價와假 왼쪽으로 돌아드는 것을 지켜본 後 驅使나기는 次를 出發시켰다。

정문을 나선 유가와가 왼쪽으로 돌아드는 것을 지켜본 후 구사나기는 차를 출발시켰다。

正門を出た湯川が左に戻るのを見た後、草薙は車を出発させた。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가는데 유가와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여 ㄴ다。

천천히 正門을 빠져나가는데 有價와假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다。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가는데 유가와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다。

ゆっくりと正門を出て行くのに、湯川がタクシーに乗る様子が見えた。

택시가 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구사나기도 도로로 나서ㄴ다。

택시가 出發하는 것과 同時に 驅使나기도 道路로 나섰다。

택시가 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구사나기도 도로로 나섰다。

タクシーが出発すると同時に草薙も道路に出た。

독신이 ㄴ 유가와는 하루의 태반을 대학에서 지내 ㄴ다。

獨身인 有價와는 하루의 太半을 大學에서 지낸다。

독신인 유가와는 하루의 태반을 대학에서 지낸다。

独身の湯川は一日の胎盤を大学で過ごす。

집에 들어가 봐야 하 ㄴ 일도 없고 독서나 운동도 학교에서 더 수월하게 하 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어ㄴ다。

집에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고 讀書나 運動도 學校에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持論이었다。

집에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고 독서나 운동도 학교에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家に入って見なければならぬこともなく、読書や運動も学校でより簡単に
できることが彼の地論だった。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학교가 편하다고 말하 ㄴ 적도 있다。

甚至於 밥 먹는 것조차 學校가 便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學校가 便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ご飯を食べることさえ學校が楽だと言ったこともある。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전이어ㄴ다。

時計를 보니 아직 5時 前이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 전이었다。

時計を見るとまだ 5時前だった。

그가 이렇게 이르ㄴ 시간에 귀가하ㄴ 리 없어ㄴ다。

그가 이렇게 이른 時間에 歸家할 理 없었다。

그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귀가할 리 없었다。

彼がこんな早い時間に帰宅することはなかった。

유가와를 미행하면서 구사나기는 택시의 회사 이름과 차 번호를 기억해 두어ㄴ다。

有價와를 尾行하면서 驅使나기는 택시의 會社 이름과 車 番號를 記憶해 두었다。

유가와를 미행하면서 구사나기는 택시의 회사 이름과 차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湯川を未行しながら草薙はタクシーの会社名と車番号を覚えておいた。

만에 하나 도중에 놓치더라도 나중에 유가와가 어디서 내려ㄴ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어ㄴ다。

만에 하나 途中에 놓치더라도 나중에 有價와가 어디서 내렸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에 하나 도중에 놓치더라도 나중에 유가와가 어디서 내렸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灣に一つ途中で見逃しても、後に湯川がどこから降りたのか調べることがで
きるからだった。

택시는 동쪽으로 향해ㄴ다。

택시는 東쪽으로 向했다。

택시는 동쪽으로 향했다。

タクシーは東に向かった。

길이 조금 붐벼ㄴ다。

길이 조금 붐볐다。

길이 조금 붐볐다。

長さちょっと賑わう。

구사나기 앞으로 몇 대가 끼어들어ㄴ다 나가ㄴ다 해ㄴ지만 다행히 유가와가 타
ㄴ 택시를 놓치지 않는ㄴ다。

驅使나기 앞으로 몇 代가 끼어들었다 나갔다 했지만 多幸히 有價와가 탄
택시를 놓치지 않는았다。

구사나기 앞으로 몇 대가 끼어들었다 나갔다 했지만 다행히 유가와가 탄
택시를 놓치지 않는았다。

草薙 これから数台が割り込んだ出かけたが、幸いに湯川が乗ったタクシー
を見逃さなかった。

이윽고 택시가 니혼바시를 지나^ㄴ다。

이윽고 택시가 니^魂바市를 지났다。

이윽고 택시가 니혼바시를 지났다。

やがてタクシーが日本橋を過ぎた。

그리고 잠시 후 스미다 강을 건너기 직전에 멈춰 섰다。

그리고 暫時 後 스미다 江을 건너기 直前に 멈춰 섰다。

그리고 잠시 후 스미다 강을 건너기 직전에 멈춰 섰다。

そしてしばらくすると隅田川を渡る直前に止まった。

신오하시교 바로 앞이다。

新吳何時教 바로 앞이다。

신오하시교 바로 앞이다。

新大橋橋のすぐ前だ。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시가미가 사는 연립 주택이 나온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時加味가 사는 聯立 住宅이 나온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시가미가 사는 연립 주택이 나온다。

そこで少し行けば石神が住む連立住宅が出る。

구사나기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눈으로 유가와를 쫓아^ㄴ다。

驅使나기는 길가에 車を 세우고 눈으로 有價와를 쫓았다。

구사나기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눈으로 유가와를 쫓았다。

草薙は道端に車を立て、雪で湯川を追った。

유가와가 다리 옆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ㄴ다。

有價와假 다리 옆에 있는 階段을 내려갔다。

유가와가 다리 옆에 있는 계단을 내려갔다。

湯川が橋の横にある階段を降りた。

이시가미의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ㄴ다。

이時加味の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시가미의 집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石神の家の方へ行くようではなかった。

구사나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차하^ㄴ 장소를 찾아^ㄴ다。

驅使나기는 周圍를 두리번거리며 駐車할 場所를 찾았다.

구사나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차할 장소를 찾았다.

草薙は周りを振り回して駐車する場所を探した。

다행히 노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어 그곳에 차를 세운 후 서둘러 유가와를 뒤쫓아 갔다.

多幸히 노상 駐車場에 빈자리가 있어 그곳에 車を 세운 後 서둘러 有價와를 뒤쫓아 갔다.

다행히 노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어 그곳에 차를 세운 후 서둘러 유가와를 뒤쫓아 갔다.

幸いにも路上駐車場に空席があり、そこに車を立てた後急いで湯川を追いかけていった。

유가와는 스미다강의 하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왔다.

有價와는 스미다講義 下流를 向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유가와는 스미다강의 하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湯川は隅田川の下流に向かってゆっくり歩いていた。

용건이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산책하는 듯하ㄴ 걸음걸이여왔다.

用件이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散策하는 듯한 걸음걸이었다.

용건이 있어서라기보다 그저 산책하는 듯한 걸음걸이었다.

用件があってというより、ただ散歩するような歩き掛けだった。

그는 때로 노숙자들에게 눈길을 주어^ㄴ다。

그는 때로 露宿者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는 때로 노숙자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彼は時々ホームレスに目を向けた。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아^ㄴ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しかし歩を止めなかった。

그가 멈춰 서^ㄴ 곳은 노숙자들의 주거지가 끝나는 지점이어^ㄴ다。

그가 멈춰 선 곳은 露宿者들의 住居地가 끝나는 地點이었다。

그가 멈춰 선 곳은 노숙자들의 주거지가 끝나는 지점이었다。

彼が止まったのはホームレスの住居が終わる地点だった。

그는 강변에 있는 난간에 기대어 서더니 다음 순간 구사나기 쪽으로 고개를 돌려^ㄴ다。

그는 強辯에 있는 欄干에 기대어 서더니 다음 瞬間 驅使나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강변에 있는 난간에 기대어 서더니 다음 순간 구사나기 쪽으로 고개

를 돌렸다。

彼は川辺の手すりに寄りかかって、次の瞬間草舟に向かって首を回した。

구사나기는 흠칫해 ㄴ다。

驅使나기는 흠칫했다。

구사나기는 흠칫했다。

草薙はすっかりした。

그러나 유가와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ㄴ다。

그러나 有價와는 놀라는 氣色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가와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しかし、湯川は驚く氣配を見せなかった。

놀라기는커녕 슬그머니 미소를 짓기까지 해 ㄴ다。

놀라기는커녕 슬그머니 微笑를 짓기까지 했다。

놀라기는커녕 슬그머니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驚きはどころか笑顔を浮かべるまでした。

아무래도 진즉부터 눈치를 채고 있어 ㄴ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진즉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模樣이다。

아무래도 진즉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모양이다。

どうやら真言から気づいていたようだ。

구사나기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가^ㄴ다。

驅使나기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ㅊ갔다。

구사나기가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ㅊ갔다。

草薙が盛大に彼に近づいた。

“알고 있어^ㄴ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知ってた？」

“자네 차는 눈에 잘 띄니까。

“자네 차는 눈에 잘 띄니까。

“자네 차는 눈에 잘 띄니까。

「君の車は目立つから。

요즘은 저렇게 오래되^ㄴ 스카이라인을 찾아보기 힘들어。

요즘은 저렇게 오래된 스카이라인을 찾아보기 힘들어。

요즘은 저렇게 오래된 스카이라인을 찾아보기 힘들어。

最近はあんなに古いスカイラインを探すのが大変だ。

“내가 따라붙은 걸 눈치채고 이런 데서 내리ㄴ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가 목적지였ㄴ 거야?”

“내가 따라붙은 걸 눈치채고 이런 데서 내린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가 目的地였던 거야?”

“내가 따라붙은 걸 눈치채고 이런 데서 내린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가 목적지였던 거야?”

「私が追いついたことに気づいてこんなところから降りたのか、それとも最
初からここが目的地だったの？」

“양쪽 다 맞는다고 하ㄴ 수도 있고 조금 틀려ㄴ다고 하ㄴ 수도 있어.

“兩쪽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

“양쪽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

「両方とも合うと言うこともあり、少し間違ったとも言える。

처음 목적지는 저 앞이었ㄴ어.

처음 目的地는 低 앞이었어.

처음 목적지는 저 앞이었어.

最初の目的地は私の前でした。

그렇지만 자네 차를 발견하고 내리는 장소를 조금 변경해ㄴ지.

그렇지만 자네 車を 發見하고 내리는 場所를 조금 變更했지.

그렇지만 자네 차를 발견하고 내리는 장소를 조금 변경했지.

でも君の車を見つけて降りる場所を少し変更したんだ。

자네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어ㄴ 거든.

자네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었거든.

자네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었거든.

あなたをここに連れて行きたかった。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뭐 ㄴ 하려고?”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뭘 하려고?”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뭘 하려고?”

「私をこんなところに連れてきて何をしようか？」

구사나기가 주위를 휘휘 둘러보아ㄴ다.

驅使나기가 周圍를 휘휘 둘러보았다.

구사나기가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다.

草薙が周りを振り回した。

“내가 이시가미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ㄴ 곳이 여기야.

“내가 이時加味와 마지막으로 對話를 나눈 곳이 여기야.

“내가 이시가미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곳이 여기야.

「私が石神と最後に会話をしたところがここだ。

그때 나 ㄴ 그에게 이렇게 말해 ㅅ지。

그때 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それから私は彼にこう言った。

이 세상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톱니바퀴 자신이라고。

이 世上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決定하는 것은 톱니바퀴 自身이라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톱니바퀴 자신이라고。

この世に役に立たない歯車とは無く、その使い方を決めるのは歯車自身だ。

“톱니바퀴?”

“톱니바퀴?”

“톱니바퀴?”

「齒車？」

“그리고 나서 사건에 관하 ㄴ 몇 가지 의문을 그에게 제시해 ㅅ어。

“그리고 나서 事件에 關한 몇 가지 의門을 그에게 提示했어。

“그리고 나서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을 그에게 제시했어。

「それから事件に関するいくつかの疑問を彼に提示した。

그때는 그의 반응이 노코멘트여 ㄴ 하지만 나와 헤어지 ㄴ 후 그는 답을 주어 ㄴ 어。

그때는 그의 反應이 노코멘트였지만 나와 헤어진 後 그는 答을 주었어。

그때는 그의 반응이 노코멘트였지만 나와 헤어진 후 그는 답을 주었어。

その時は彼の反応がノーコメントでしたが、私と別れた後、彼は答えを与えた。

그것이 그의 자수야。

그것이 그의 自首야。

그것이 그의 자수야。

それが彼の刺繍だ。

“자네의 말을 듣고 체념해서 자수해 ㄴ 다 이 말이야?”

“자네의 말을 듣고 諦念해서 自首했다 이 말이야?”

“자네의 말을 듣고 체념해서 자수했다 이 말이야?”

「君の言葉を聞いて諦め、刺繍したこの言葉？」

“체념이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체념이 ㄴ 지도 모르지。

“諦念이라…… 뭐, 어떤 意味에서는 諦念인지도 모르지。

“체념이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체념인지도 모르지。

「思い出だ… …まあ、ある意味では諦めかもしれない。

하지만 그로서는 최후의 카드를 던지_ㄴ 게 아니_ㄴ까 싶어。

하지만 그로서는 最後の 카드를 던진 게 아닐까 싶어。

하지만 그로서는 최후의 카드를 던진 게 아닐까 싶어。

だが彼としては最後のカードを投げ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

그 최후의 카드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_ㄴ 던 것 같거든。

그 最後の 카드를 아주 緻密하게 準備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

그 최후의 카드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

その最後のカードをととても緻密に用意していたらしい。

“이시가미에게 무슨 말을 해_ㄴ는데?”

“이時加味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이시가미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石神に何を言ったの？」

“방금 얘기해_ㄴ잖아, 톱니바퀴에 대해서。

“方今 얘기했잖아, 톱니바퀴에 對해서。

“방금 얘기했잖아, 톱니바퀴에 대해서。

「先ほど話したじゃないか、齒車について。

“그런 다음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해^ㄴ다면서。

“그런 다음 몇 가지 의門을 提示했다면서。

“그런 다음 몇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면서。

「その後、いくつかの疑問を提示した。

그거 ^ㄴ 묻는 거야。

그걸 묻는 거야。

그걸 묻는 거야。

それを聞くよ。

그러자 유가와는 쉼쉼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어^ㄴ다。

그러자 有價와는 쉼쉼하게 微笑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유가와는 쉼쉼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すると湯川は寂しく微笑んでゆっくりと首を振った。

“그거 ^ㄴ 상관이 없어。

“그건 相關이 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

「それは関係ありません。

“상관이 없다고?”

“相關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気にしないって？」

“중요하 ㄴ 거 ㄴ 톱니바퀴 이야기니까。

“重要的 건 톱니바퀴 이야기니까。

“중요한 건 톱니바퀴 이야기니까。

「重要なのは歯車の話だから。

이시가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수를 결심해 ㄴ 어。

이時加味는 그 이야기를 듣고 自首를 決心했어。

이시가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수를 결심했어。

石神はその話を聞いて刺繍を決心した。

구사나기가 한숨을 내쉬어 ㄴ 다。

驅使나기가 한숨을 내쉬었다。

구사나기가 한숨을 내쉬었다。

草薙がため息をついた。

“자네,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조사해 ㄴ 다면서? 목적이 뭐지?”

“자네, 學校 圖書館에서 新聞을 調査했다면서? 目的이 뭐지?”

“자네,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조사했다면서? 목적이 뭐지?”

「あなたは、学校の図書館で新聞を調べましたか？目的は何ですか？」

“도키와 군에게 들었나? 내 행동까지 추적하기 시작한 모양이군。”

“도키와 軍에게 들었나? 내 行動까지 追跡하기 始作한 模様が군。”

“도키와 군에게 들었나? 내 행동까지 추적하기 시작한 모양이군。”

「ドキと君に聞いたの？私の行動まで追跡し始めたようだ。」

“나도 이려고 싶지는 않아。”

“나도 이려고 싶지는 않아。”

“나도 이려고 싶지는 않아。”

「私もこれをしたくない。」

그렇지만 자네가 말해 주지 않으니 어찌겠어?”

그렇지만 자네가 말해 주지 않으니 어찌겠어?”

그렇지만 자네가 말해 주지 않으니 어찌겠어?”

しかし、あなたが言ってくれないので、どうしますか？」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氣分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気分が悪いという話ではない。」

그게 자네의 일이잖아.

그게 자네의 일이잖아.

그게 자네의 일이잖아.

それが君のことだ。

나에 대해 무엇을 조사하든 나 ㄴ 괜찮아.

나에 對해 무엇을 調査하든 난 괜찮아.

나에 대해 무엇을 조사하든 난 괜찮아.

私について何を調べても私は大丈夫です。

구사나기가 유가와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어ㄴ다.

驅使나기가 有價와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가 유가와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었다.

草薙が湯川の顔をまっすぐ眺めながら首を振った。

“부탁이야, 유가와.

“付託이야, 有價와.

“부탁이야, 유가와.

「お願いだよ、湯川。

제발 그렇게 변죽만 울리지 말고 진실을 말해 줘.

제발 그렇게 邊죽만 울리지 말고 眞實을 말해 줘。

제발 그렇게 변죽만 울리지 말고 진실을 말해 줘。

そんなに縁を鳴らさずに眞實を教えてください。

자네는 뭐 ㄴ가 알고 있지? 그거 ㄴ 가르쳐 달란 말이야。

자네는 뭔가 알고 있지? 그걸 가르쳐 달란 말이야。

자네는 뭔가 알고 있지? 그걸 가르쳐 달란 말이야。

あなたは何か知っていますか？それを教えてくれたんだ。

이시가미는 진범이 아니지? 그런데 그가 죄를 뒤집어쓰는 거 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옛 친구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어?”

이時加味는 진범이 아니지? 그런데 그가 罪를 뒤집어쓰는 건 不當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옛 親舊를 殺人犯으로 만들고 싶어?”

이시가미는 진범이 아니지? 그런데 그가 죄를 뒤집어쓰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옛 친구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어?”

石神は本当じゃない？しかし、彼が罪を覆すのは不当だと思いませんか？昔の友人を殺人犯にしたいですか？」

“구사나기。

“驅使나기。

“구사나기。

「草薙。

유가와와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다.

有價와와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유가와와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湯川の顔が苦しみに歪んだ。

그는 이마에 손을 얹더니 눈을 감아 있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더니 눈을 감았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더니 눈을 감았다.

彼は額に手を乗せて目を閉じた。

“물론 나도 그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勿論 나도 그를 殺人犯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물론 나도 그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もちろん私も彼を殺人犯にしたくない。

그렇지만 더는 어찌 수 없어.

그렇지만 더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더는 어쩔 수 없어.

でもこれ以上仕方がない。

대체 왜 이렇게…….

代替 왜 이렇게……。

대체 왜 이렇게……。

一体なぜこんなに… …。

“도대체 뭐 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都大體 뭘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도대체 뭘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一体何がそんなに苦しんでいるの。

왜 내게 밝히지 않는 거지? 우리 ㄴ 친구잖아。

왜 내게 밝히지 않는 거지? 우리 親舊잖아。

왜 내게 밝히지 않는 거지? 우리 친구잖아。

なぜ私に言わないの? 私たちは友達じゃない。

“친구이 ㄴ 동시에 형사지。

“親舊인 同時에 兄四肢。

“친구인 동시에 형사지。

「友人であると同時に刑事誌。

유가와와 의 대답에 구사나기는 하 ㄴ 말을 잃어 ㅅ 다。

有價와의 對答에 驅使나기는 할 말을 잃었다。

유가와 의 대답에 구사나기는 할 말을 잃었다.

湯川との答えに、草薙は言葉を失った。

그리고 이 오랜 친구와의 사이에 처음으로 벽을 느껴 ㅅ 다.

그리고 이 오랜 親舊와의 사이에 처음으로 壁을 느꼈다.

그리고 이 오랜 친구와의 사이에 처음으로 벽을 느꼈다.

そしてこの長い友人との間に初めて壁を感じた。

형사이기 때문에 이토록 고뇌에 차 ㄴ 표정을 보이는 친구에게 그 이유조차 들
으 ㄴ 수 없단 말이 ㄴ 가.

刑事이기 때문에 이토록 苦惱에 찬 表情을 보이는 親舊에게 그 理由조차
들을 수 없단 말인가.

형사이기 때문에 이토록 고뇌에 찬 표정을 보이는 친구에게 그 이유조차
들을 수 없단 말인가.

刑事だからこんなに苦悩に満ちた表情を見せる友達にその理由さえ聞けない
んだろうか。

“지금부터 하나오카 야스코를 찾아가 ㄴ 거야.

“只今부터 하나오카 야스코를 찾아갈 거야.

“지금부터 하나오카 야스코를 찾아갈 거야.

「今から花岡康子を訪ねていくよ。

같이 가겠어?”

같이 가겠어?”

같이 가겠어?”

一緒に行きますか？」

유가와가 물어쏜다。

有價와가 물었다。

유가와가 물었다。

湯川が尋ねた。

“내가 가도 괜찮아?”

“내가 가도 괜찮아?”

“내가 가도 괜찮아?”

「私が行っても大丈夫？」

“상관없어。

“相關없어。

“상관없어。

「気にしない。

다만 끼어드는 말아。

다만 끼어들지는 말아。

다만 끼어들지는 말아.

ちょうど割れるな。

“알아^ㅅ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유가와가 돌아서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해^ㅅ다.

有價와가 돌아서더니 앞장서서 걷기 始作했다.

유가와가 돌아서더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湯川が振り返ると先頭に立って歩き始めた。

구사나기가 그 뒤를 따라가^ㅅ다.

驅使나기가 그 뒤를 따라갔다.

구사나기가 그 뒤를 따라갔다.

草薙がその後に追いついた。

유가와와 당초 목적지는 도시락 가게 ‘베^ㅅ테^ㅅ테이’여^ㅅ던 것이다.

有價와의 當初 目的地는 도시락 가게 ‘벤텐테이’였던 것이다.

유가와와 당초 목적지는 도시락 가게 ‘벤텐테이’였던 것이다.

湯川の当初目的地は弁当屋「弁天亭」だったのだ。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 ㄴ 걱정이냐고 당장이라도 묻고 싶어 ㄴ
지만 구사나기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따라가 ㄴ 다。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할 作定이냐고 當場이라도 묻고 싶었
지만 驅使나기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따라갔다。

하나오카 야스코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할 作定이냐고 당장이라도 묻고 싶
었지만 구사나기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따라갔다。

花岡康子に会って何の話をするつもりなのかとすぐに聞いたかったが、草薙
は口を閉じて静かについていった。

기요스바시 바로 앞에서 유가와가 계단을 올라가 ㄴ 다。

氣よスバ時 바로 앞에서 有價와假 階段을 올라갔다。

기요스바시 바로 앞에서 유가와가 계단을 올라갔다。

清水橋の正面から湯川が階段を上った。

그는 구사나기가 다 올라오 ㄴ 때까지 위에서 기다려 ㄴ 다。

그는 驅使나기가 다 올라올 때까지 위에서 기다렸다。

그는 구사나기가 다 올라올 때까지 위에서 기다렸다。

彼は草薙が上がるまで上で待った。

“저기 오피스 빌딩 보이지?”

“저기 오피스 빌딩 보이지?”

“저기 오피스 빌딩 보이지?”

「あのオフィスビル見え？」

유가와가 앞쪽에 있는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ㄴ다。

有價와假 앞쪽에 있는 建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가와가 앞쪽에 있는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湯川が前方にある建物を指で指した。

“그 입구에 있는 유리문 보여?”

“그 入口에 있는 琉璃門 보여?”

“그 입구에 있는 유리문 보여?”

「その入り口にあるガラス扉見せて？」

구사나기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려^ㄴ다。

驅使나기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구사나기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草薙は彼が指すところに目を向けた。

유리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쳐^ㄴ다。

琉璃門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유리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ガラス扉に二人の姿が映った。

“보여。

“보여。

“보여。

「見えて。

그게 왜?”

그게 왜?”

그게 왜?”

それはなぜですか？」

“사건 직후 이시가미를 만나_ㄴ으_ㄴ 때 그와 둘이서 저 유리문에 비치_ㄴ 우리의 모습을 보_ㄴ 적이 있어。

“事件 直後 이市加味를 만났을 때 그와 둘이서 저 琉璃門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사건 직후 이시가미를 만났을 때 그와 둘이서 저 유리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事件直後、石神に会った時、彼と二人でそのガラス扉に映った私たちの姿を見たことがある。

사실 나_ㄴ 우리가 거기에 비치고 있다는 것도 몰라_ㄴ어。

事實 난 우리가 거기에 비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사실 난 우리가 거기에 비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実は私たちがそこに映っていることも知らなかった。

이시가미가 말해 줘서 알아ㄴ지.

이時加味가 말해 줘서 알았지.

이시가미가 말해 줘서 알았지.

石神が言ってくれて分かった。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사건에 관여해ㄴ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ㄴ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事件에 關與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사건에 관여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それまでは、私は彼が事件に関与していたとは思わなかった。

그저 오랜만에 호적수와 재회해ㄴ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어ㄴ으ㄴ 뿐이지.

그저 오랜만에 戶籍수와 再會했다는 기쁨에 陶醉되어 있었을 뿐이지.

그저 오랜만에 호적수와 재회했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을 뿐이지.

ただ久しぶりに戸籍数と再会したという喜びに陶醉してただけだ。

“유리문에 비치ㄴ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하ㄴ 의심이 싹터ㄴ다는 거야?”

“琉璃門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에 對한 疑心이 싹뒸ㄴ다는 거야?”

“유리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의심이 싹텄다는 거야?”

「ガラス門に映った姿を見て、それに対する疑いが芽生えたというの？」

“그가 나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

“그가 나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

“그가 나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

「彼が私を見て、こ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

‘자네는 하나도 안 늙어ㅆ어。

‘자네는 하나도 안 늙었어。

‘자네는 하나도 안 늙었어。

‘君は一つも老けなかった。

나랑은 완전 다르군, 머리숱도 많고 말이야。

나랑은 完全 다르군, 머리숱도 많고 말이야。

나랑은 완전 다르군, 머리숱도 많고 말이야。

私とは全く違うね、髪も多いしね。

’라고。

’라고。

’라고。

』と。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의식하는 듯하_ㄴ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自身の 머리를 意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それとともに自分の頭を意識するような姿を見せるのよ。

그게 나는 놀라워_ㄴ어。

그게 나는 놀라웠어。

그게 나는 놀라웠어。

それは私は驚きました。

왜냐하면 이시가미라는 인물은 용모 따위에 신경을 쓰는 남자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시가미라는 人物은 容貌 따위에 神經을 쓰는 男子가 아니거
든。

왜냐하면 이시가미라는 인물은 용모 따위에 신경을 쓰는 남자가 아니거
든。

なぜなら石神という人物は容貌なんて気にする男じゃないから。

인간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하_ㄴ 수 없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인생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한결같으_ㄴ 주장이어_ㄴ지。

人間の 價値는 그런 것으로 評價할 수 없고 그런 것을 必要로 하는 人生은

選擇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지。

인간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인생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지。

人間の価値はそういうものと評価できず、そんなことを必要とする人生は選ばないというのが彼の一貫した主張だった。

그런 그가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런 그가 겉모습에 神經을 쓰는 거야。

그런 그가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거야。

そんな彼が見た目に気を使うのよ。

물론 그의 머리가 상당히 벗어지 ㄴ 거 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을 그는 한탄하고 있어 ㅆ어。

勿論 그의 머리가 相當히 벗어진 건 事實이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을 그는 恨歎하고 있었어。

물론 그의 머리가 상당히 벗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을 그는 한탄하고 있었어。

もちろん彼の頭がかなり外れたのは事実だが、もう来て仕方がないことを彼は嘆いていた。

그래서 눈치채게 돼 ㅆ지。

그래서 눈치채게 됐지。

그래서 눈치채게 됐지.

それで気づくようになった。

이시가미가 용모에 신경을 쓰지 않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이時加味가 容貌에 神經을 쓰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놓였다는 걸.

이시가미가 용모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石神が容貌に気を使わなくてはならない状況に置かれたということ。

즉 사랑에 빠져 있다고 말이야.

即 사랑에 빠졌다고 말이야.

즉 사랑에 빠졌다고 말이야.

つまり恋に落ちたってことだ。

그런데 그는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해 으니까?”

그런데 그는 왜 何必裏面 이런 곳에서 느닷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그는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느닷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ところで、彼はなぜハーフィルなら、こんなところでいつもそんなことを言
ったのだろうか？」

유가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지 구사나기는 깨달아 다.

有價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驅使나기는 깨달았다.

유가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구사나기는 깨달았다.

湯川が言いたい言葉が何なのか、草薙は悟った。

“이제 곧 자신이 반해 버리 ㄴ 여자를 만나니까?”

“이제 곧 自身이 反해 버린 女子를 만나니까?”

“이제 곧 자신이 반해 버린 여자를 만나니까?”

「もうすぐ自分が惚れてしまった女に会いますか？」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여 ㄴ다。

有價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湯川が首をうなずいた。

“나도 그렇게 생각해 ㄴ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私もそう思いました。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 이웃이자 전남편이 살해당하 ㄴ 그 여자가 바로

이시가미가 마음에 품으 ㄴ 상대가 아니 ㄴ까 하고。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女子, 이웃이자 前男便이 殺害當한 그 女子가 바

로 이時加味가 마음에 품은 相對가 아닐까 하고。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 이웃이자 전남편이 살해당한 그 여자가 바로 이시가미가 마음에 품은 상대가 아닐까 하고。

お弁当屋で働く女、隣人で元夫が殺されたその女がまさに石神が気に入った相手ではないかと。

하지만 그렇다면 또 큰 의문이 생겨。

하지만 그렇다면 또 큰 疑問이 생겨。

하지만 그렇다면 또 큰 의문이 생겨。

だがそれならまた大きな疑問が生じて。

사건에 대해 그의 태도 말이야。

事件에 對한 그의 態度 未이야。

사건에 대한 그의 태도 말이야。

事件に対する彼の態度だ。

당연히 마음에 걸려 어찌 ㄴ 줄 몰라 해야 하는데 그저 방관만 하고 있거든。

當然히 마음에 걸려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데 그저 傍觀만 하고 있거든。

당연히 마음에 걸려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데 그저 방관만 하고 있거든。

当然氣になってどうしようも知らなくてはならないのにただ傍觀だけしているんだ。

그렇다면 역시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건 나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 거
까。

그렇다면 亦是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건 나의 錯覺에 지나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역시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건 나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 걸까。

それならやはり彼が恋に落ちたというのは私の錯覚に過ぎないのだろうか。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나는 다시 이시가미와 함께 도시락 가게에 가 보았
어。

疑問이 풀리지 않아서 나는 다시 이時加味와 함께 도시락 가게에 가 보았
어。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나는 다시 이시가미와 함께 도시락 가게에 가 보았
어。

疑問が解けなかったので、私はまた石神と共に弁当屋に行ってみた。

그의 태도를 보면 뭐가 아 수 있으 지도 모르 다고 기대하면서 말이야。

그의 態度를 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期待하면서 말이야。

그의 태도를 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말이야。

彼の態度を見れば何か知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と期待しながら言う。

그런데 그곳에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나타나 거야。

그런데 그곳에 생각지도 않은 人物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곳에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나타난 거야。

ところがそこに思わない人物が現れたの。

하나오카 야스코도 아는 남자여^ㄴ지。

하나오카 야스코도 아는 男子였지。

하나오카 야스코도 아는 남자였지。

花岡康子も知っている男だった。

“구도 말이지? 현재 야스코와 사귀는 사람。

“構圖 末이지? 現在 야스코와 사귀는 사람。

“구도 말이지? 현재 야스코와 사귀는 사람。

「構いませんか? 現在ヤスコと付き合う人。

“그래。

“그래。

“그래。

「ええ。

그 구도라는 사람과 그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시가
미의 표정이라니……。

그 構圖라는 사람과 그女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時加味の 表情이라니……。

그 구도라는 사람과 그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시가미의 표정이라니……。

その構図という人と彼女が話を交わしながら、その姿を見守っていた石神の表情とは…。 …。

유가와가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고개를 저어ㄴ다。

有價와假 美間에 주름을 세우고 고개를 저었다。

유가와가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고개를 저었다。

湯川が眉間にしわを立てて首を振った。

“그 순간 나ㄴ 확신해ㄴ어。

“그 瞬間 난 確信했어。

“그 순간 난 확신했어。

「その瞬間、私は確信していた。

그녀가 바로 이시가미의 상대라고。

그女가 바로 이時加味の 相對라고。

그녀가 바로 이시가미의 상대라고。

彼女がまさに石上の相手だと。

그때 이시가미의 얼굴에 떠오르ㄴ 거ㄴ 질투의 빛이어ㄴ어。

그때 이市街美의 얼굴에 떠오른 건 嫉妬의 빛이었어。

그때 이시가미의 얼굴에 떠오른 건 질투의 빛이었어.

その時石神の顔に浮かんだのは嫉妬の光だった。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자네가 제기하 ㄴ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자네가 提起한 疑問이 如前히 남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자네가 제기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

「しかし、そうなればさっきあなたが提起した疑問がまだ残るのに？」

“그래.

“그래.

“그래.

「ええ.

그 모순을 해결해 주 ㄴ 설명은 단 하나뿐이야.

그 矛盾을 解決해 줄 説明은 單 하나뿐이야.

그 모순을 해결해 줄 설명은 단 하나뿐이야.

その矛盾を解決してくれる説明はただ一つだけだ。

“이시가미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이거지? 자네가 그를 의심하게 되 ㄴ 데에는

그런 연유가 있어 ㄴ 군.

“이時加味가 事件에 關聯되어 있다 이거지? 자네가 그를 疑心하게 된 데에

는 그런 燃油가 있었군.

“이시가미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이거지? 자네가 그를 의심하게 된 데에

는 그런 연유가 있었군.

「石神が事件に関わっているの？君が彼を疑うようになったのには、そんな
軟油があったな。

구사나기는 새삼 빌딩의 유리문을 바라보아^ㄴ다.

驅使나기는 새삼 빌딩의 琉璃門을 바라보았다.

구사나기는 새삼 빌딩의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草薙は改めてビルのガラス扉を眺めた。

“무서우^ㄴ 사내야, 자네는.

“무서운 사내야, 자네는.

“무서운 사내야, 자네는.

「怖い男だよ、あなたは。

이시가미로서는 한 줄기 상처가 치명타가 되^ㄴ 셈이군.

이時加味로서는 한 줄기 傷處가 致命打가 된 셈이군.

이시가미로서는 한 줄기 상처가 치명타가 된 셈이군.

石神としては一幹傷がクリティカルになったわけだね。

“그의 강렬하 ㄴ 개성은 몇 년이 지나 ㄴ어도 내 기억에 남아 있어.

“그의 強烈한 個性은 몇 年이 지났어도 내 記憶에 남아 있어.

“그의 강렬한 개성은 몇 년이 지났어도 내 기억에 남아 있어.

「彼の強烈な個性は何年も経っても私の記憶に残っている。

그렇지 않아 ㄴ다면 나도 눈치채지 못해 ㄴ으 ㄴ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そうでなければ私も気づかなかったでしょう。

“어찌 돼 ㄴ든 그가 운이 없어 ㄴ던 거지.

“어찌 됐든 그가 運이 없었던 거지.

“어찌 됐든 그가 운이 없었던 거지.

「どうしても彼が運がなかったんだ。

구사나기는 큰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ㄴ다.

驅使나기는 큰길을 向해 걸음을 옮기기 始作했다.

구사나기는 큰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草薙は大きな道に向かって歩みを移し始めた。

그러나 유가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멈춰 섰다.

그러나 有價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멈춰 섰다.

그러나 유가와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멈춰 섰다.

しかし、湯川がついてこないことを知って再び止まった。

“벤테 ㄴ 테이에 가는 거 아니어 ㄴ 어?”

“벤텐테이에 가는 거 아니었어?”

“벤텐테이에 가는 거 아니었어?”

「ベンテンテーに行くのではなかった？」

유가와가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 ㄴ 채 말없이 구사나기에게 다가와 ㄴ 다.

有價와假 視線을 바닥으로 向한 채 말없이 驅使나기에게 다가왔다.

유가와가 시선을 바닥으로 향한 채 말없이 구사나기에게 다가왔다.

湯川が視線を床に向けたまま言葉なしに草薙に近づいた。

“자네에게는 좀 잔혹하 ㄴ 수도 있는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자네에게는 좀 殘酷할 수도 있는 일을 付託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자네에게는 좀 잔혹할 수도 있는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君にはちょっと残酷になるかもしれないことをお願いしようとするのに大丈夫？」

구사나기가 쓴웃음을 지어 ㄴ 다.

驅使나기가 쓴웃음을 지었다。

구사나기가 쓴웃음을 지었다。

草薙が苦笑をした。

“그거 ㄴ 내용에 따라서。

“그건 内容에 따라서。

“그건 내용에 따라서。

「それは内容によって。

“친구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 주 ㄴ 수 있겠어? 형사의 입장을 버리고 말아야。

“親舊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겠어? 刑事의 立場을 버리고 말아야。

“친구로서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겠어? 형사의 입장을 버리고 말아야。

「友達として私の話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か？刑事の立場を捨ててね。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자네에게 얘기해 두고 싶은 게 있어。

“자네에게 얘기해 두고 싶은 게 있어。

“자네에게 얘기해 두고 싶은 게 있어。

「君に話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る。

단, 친구에게 하는 말이지 형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但, 親舊에게 하는 말이지 刑事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단, 친구에게 하는 말이지 형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ただ、友達に言う言葉で、刑事に言う言葉ではない。

따라서 내게 들은 내용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따라서 내게 들은 内容を 絶対に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따라서 내게 들은 내용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だから私に聞いた内容を決して他人に言ってはいけない。

자네의 상사나 동료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이야。

자네의 上司나 同僚에게도, 甚至於 家族에게도 말이야。

자네의 상사나 동료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이야。

君の上司や仲間にも、さらに家族にもなんだ。

약속하 ㄴ 수 있겠어?”

約束할 수 있겠어?”

약속할 수 있겠어?”

約束できますか？」

안경 너머로 보이는 유가와와 눈동자에 절박감이 흐르고 있어ㄴ다。

眼鏡 너머로 보이는 有價와의 눈瞳子에 切迫感이 흐르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유가와와 눈동자에 절박감이 흐르고 있었다。

メガネ越しに見える湯川の瞳に切迫感が流れていた。

벼랑 끝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사정이 유가와에게 있다고 느껴져ㄴ다。

벼랑 끝의 決斷을 내려야만 하는 事情이 有價와에게 있다고 느껴졌다。

벼랑 끝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사정이 유가와에게 있다고 느껴졌다。

崖の端の決断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事情が湯川にあると感じられた。

구사나기는 ‘내용에 따라서’라고 재차 말하고 싶어ㄴ지만 그 말을 삼키고 말아
ㄴ다。

驅使나기는 ‘內容에 따라서’라고 再次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키고 말
았다。

구사나기는 ‘내용에 따라서’라고 재차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키고 말
았다。

草薙は「内容に応じて」と改めて言いたかったが、その言葉を飲み込んでし

まった。

지금 그 말을 입에 담는다면 앞으로 이 사내에게 친구로 인정받지 못하 **ㄴ** 것 같
아 **ㅅ**기 때문이다。

只今 그 말을 입에 담는다면 앞으로 이 사내에게 親舊로 認定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을 입에 담는다면 앞으로 이 사내에게 친구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今、その言葉を口に入れると、今後この社内に友人として認められないよう
だったからだ。

“알아 **ㅅ**어。

“알았어。

“알았어。

「わかりました。

약속하지。

約束하지。

약속하지。

約束しない。

18

18

18

닭튀김 도시락을 사_ㄴ 손님이 가게를 나가_ㄴ 후 야스코는 시계를 보아_ㅆ다.

닭튀김 도시락을 산 손님이 가게를 나간 後 야스코는 時計를 보았다.

닭튀김 도시락을 산 손님이 가게를 나간 후 야스코는 시계를 보았다.

鶏揚げ弁当を買った客が店を出た後、ヤスコは時計を見た。

앞으로 몇 분만 있으면 오후 6시다.

앞으로 몇 分婉 있으면 午後 6 時だ。

앞으로 몇 분만 있으면 오후 6시다.

これから数分であれば午後 6 時だ。

그녀는 숨을 내쉬고서 희_ㄴ 모자를 벗어_ㅆ다.

그女는 숨을 내쉬고서 흰 帽子를 벗었다.

그녀는 숨을 내쉬고서 흰 모자를 벗었다.

彼女は息を吐いて白い帽子を脱いだ。

점심때 구도에게서 전화가 와_ㅆ다.

點心때 構圖에게서 電話가 왔다.

점심때 구도에게서 전화가 왔다.

昼食の時に構図から電話が来た。

일이 끝나 ㄴ 뒤 만나자는 것이어ㄴ다.

일이 끝난 뒤 만나자는 것이었다.

일이 끝난 뒤 만나자는 것이었다.

仕事が終わった後に会おうということだった。

목소리가 들떠 있어ㄴ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声が浮かんでいた。

그는 축하하 ㄴ다고 말해ㄴ다.

그는 祝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彼はおめでとうと言った。

뭐 ㄴ 축하하느냐고 묻자 그는 “몰라서 물어?”라고 반문해ㄴ다.

월 祝賀하느냐고 묻자 그는 “몰라서 물어?”라고 反問했다.

월 축하하느냐고 묻자 그는 “몰라서 물어?”라고 반문했다.

何を祝うかと尋ねると、彼は「知らなくて聞いて？」と反問した。

“범인이 체포되어ㄴ으니 축하해야지.

“犯人이 逮捕되었으니 祝賀해야지。

“범인이 체포되었으니 축하해야지。

「犯人が逮捕されたのでおめでとう。

이것으로 야스코도 사건에서 해방돼 ㄴ잖아。

이것으로 야스코도 事件에서 解放됐잖아。

이것으로 야스코도 사건에서 해방됐잖아。

これでヤスコも事件から解放されたじゃないか。

나도 괜하 ㄴ 신경을 쓰 ㄴ 필요가 없어져 ㄴ고 말이야。

나도 괜한 神經을 쓸 必要가 없어졌고 말이야。

나도 괜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졌고 말이야。

私も大丈夫な気にする必要がなくなってしまう。

이제 형사가 따라다니 ㄴ 걱정도 없으니 건배 한번 해야지。

이제 刑事가 따라다닐 걱정도 없으니 乾杯 한番 해야지。

이제 형사가 따라다닐 걱정도 없으니 건배 한번 해야지。

もう刑事が従う心配もないので乾杯一度しなければならない。

구도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경쾌해 ㄴ다。

構圖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輕快했다。

구도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경쾌했다。

構図の音がとても軽快だった。

사건의 배경을 알 리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야스코로서는 그를 만나는 게 내키지 않아 ㅅ다。

事件の背景を 알 理 없으니 當然한 日이지만 야스코로서는 그를 만나는 게 내키지 않았다。

사건의 배경을 알 리 없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야스코로서는 그를 만나는 게 내키지 않았다。

事件の背景を知らないから当然のことだが、ヤスコとしては彼と出会うのが 気付かなかった。

그녀는 그러 ㅅ 기분이 아니라고 해 ㅅ다。

그女는 그럴 氣分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했다。

彼女はそんな気持ちではないと言った。

구도가 왜냐고 물어 ㅅ지만 야스코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아아, 그럴군。

構圖가 왜냐고 물었지만 야스코가 對答을 하지 않자 그는 “아아, 그럴군。

구도가 왜냐고 물었지만 야스코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아아, 그럴군。

構図がなぜかと尋ねたが、ヤスコが答えをしないと、彼は「ああ、そうだ。

”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하_ㄴ다는 듯이 말을 이어_ㄴ다。

” 하면서 나름대로 理解한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한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 しながらそれなりに理解するように言葉を続けた。

“헤어져_ㄴ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와는 한때 부부여_ㄴ으니……。

“헤어졌다고는 하지만 被害者와는 한때 夫婦였으니……。

“헤어졌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와는 한때 부부였으니……。

「別れたとはいえ、被害者とはかつて夫婦だったから…」 … 。

축하하_ㄴ다는 말은 경솔해_ㄴ어。

祝賀한다는 말은 輕率했어。

축하한다는 말은 경솔했어。

おめでとうという言葉は輕率だった。

내 사과하지。

내 謝過하지。

내 사과하지。

私の謝罪しないでください。

얼토당토않으_ㄴ 말이어_ㄴ지만 야스코는 잠자코 있어_ㄴ다。

얼토당토않은 말이었지만 야스코는 잠자코 있었다.

얼토당토않은 말이었지만 야스코는 잠자코 있었다.

オルトダントな言葉だったが、ヤスコは寝ていた。

그러자 그가 말해ㄴ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すると彼は言った。

“그 일과는 별개로 긴히 하ㄴ 이야기가 있어.

“그 一過는 別個로 緊히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일과는 별개로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

「その日とは別に緊張する話がある。

오늘 밤 꼭 만나고 싶으ㄴ데, 안 되ㄴ까?”

오늘 밤 꼭 만나고 싶은데, 안 될까?”

오늘 밤 꼭 만나고 싶은데, 안 될까?”

今夜ぜひ会いたいのに、ダメかな？」

거절하ㄴ까도 생각해ㄴ다.

拒絕할까도 생각했다.

거절할까도 생각했다.

断るかと思った。

그러 ㄴ 기분이 아니어 ㅅ다。

그럴 氣分이 아니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そんな気持ちではなかった。

자신을 대신해 자수하 ㄴ 이시가미에게 너무나 미안하 ㄴ 마음이 들어 ㅅ다。

自身을 代身해 自首한 이時加味에게 너무나 未安한 마음이 들었다。

자신을 대신해 자수한 이시가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自分に代わって刺繍した石神にととても申し訳ない気がした。

그러나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아 ㅅ다。

그러나 拒絶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거절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しかし拒絶の言葉が出なかった。

긴히 하 ㄴ 얘기라는 게 뭐 ㄴ까。

緊히 할 얘기라는 게 뭘까。

긴히 할 얘기라는 게 뭘까。

緊張する話というのは何だろうか。

결국 6시 30분으로 약속 시간을 정해ㄴ다。

結局 6 時 30 分으로 約束 時間을 定했다。

결국 6시 30분으로 약속 시간을 정했다。

結局 6 時 30 分で約束時間を決めた。

구도는 미사토도 함께 오라고 해ㄴ지만 그것만은 완곡히 거절해ㄴ다。

構圖는 미사토도 함께 오라고 했지만 그것만은 婉曲히 拒絶했다。

구도는 미사토도 함께 오라고 했지만 그것만은 완곡히 거절했다。

構図はミサトも一緒に来るように言ったが、それだけはすっかり断った。

이런 상황에서 미사토를 구도와 만나게 하ㄴ 수는 없어ㄴ다。

이런 狀況에서 미사토를 構圖와 만나게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토를 구도와 만나게 할 수는 없었다。

このような状況でミサトを構図と会わ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야스코는 집 전화 자동 응답기에 저녁에 늦으ㄴ 거라는 말을 남겨ㄴ다。

야스코는 집 電話 自動 應答器에 저녁에 늦을 거라는 말을 남겼다。

야스코는 집 전화 자동 응답기에 저녁에 늦을 거라는 말을 남겼다。

ヤスコは家の電話の留守番電話に夕方に遅れるだろうと言った。

그거ㄴ 들으ㄴ 미사토가 무슨 생각을 하ㄴ지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워ㄴ다。

그걸 들은 미사토가 무슨 생각을 할지 想像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걸 들은 미사토가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それを聞いたミサトがどんな考えをするのか想像したので、心が重かった。

6시가 되어 야스코는 앞치마를 벗어ㄴ다.

6 時が 되어 야스코는 앞치마를 벗었다.

6시가 되어 야스코는 앞치마를 벗었다.

6 時になり、ヤスコはエプロンを脱いだ。

그리고 안에 있는 사요코에게 퇴근하ㄴ다고 알려ㄴ다.

그리고 안에 있는 史요코에게 退勤한다고 알렸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요코에게 퇴근한다고 알렸다.

そして中にあるサヨコに退勤すると伝えた。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ㄴ어?”

“아니, 時間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いや、時間はすでにこんなことになった？」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있던 사요코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해ㄴ다.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있던 史요코가 時計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있던 사요코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かつての夕食を食べていたサヨコが時計を覗いて言った。

“수고해ㅅ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お疲れ様でした。

뒷정리는 내가 하ㄴ게。

뒷整理는 내가 할게。

뒷정리는 내가 할게。

後編は私がやるよ。

“네, 그럼 저는 이만。

“네, 그럼 저는 이만。

“네, 그럼 저는 이만。

「はい、じゃあ私はこれだけ。

야스코가 앞치마를 접어 한쪽에 놓아ㅅ다。

야스코가 앞치마를 접어 한쪽에 놓았다。

야스코가 앞치마를 접어 한쪽에 놓았다。

ヤスコがエプロンを折って片側に置いた。

“구도 씨 만나러 가지?”

“構圖 氏 만나러 가지?”

“구도 씨 만나러 가지?”

「構図さんに会いに行く？」

사요코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어본다.

史요코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사요코가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サヨコが小さな声でささやくように尋ねた。

“네?”

“네?”

“네?”

「はい？」

“점심때 전화가 온 것 같던데, 데이트하자는 거 아니었어?”

“點心때 電話가 온 것 같던데, 데이트하자는 거 아니었어?”

“점심때 전화가 온 것 같던데, 데이트하자는 거 아니었어?”

「昼食の時に電話が来たようだったが、デートしようとは思わなかった？」

야스코가 대답하기 곤란해하자 사요코는 무슨 오해를 해냈는지 “잘됐네.

야스코가 對答하기 困難해하자 史요코는 무슨 誤解를 했는지 “잘됐네.

야스코가 대답하기 곤란해하자 사요코는 무슨 오해를 했는지 “잘됐네.

ヤスコが答えにくいと思うと、サヨコはどんな誤解をしたのか。

”라며 매우 기쁘ㄴ 듯이 반응해냈다.

”라며 매우 기쁜 듯이 反應했다.

”라며 매우 기쁜 듯이 반응했다.

」と非常に嬉しそうに反応した。

“쫌쫌하ㄴ 사건도 잘 정리되고 구도 씨같이 좋으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제야
운이 되는 모양이야.

“쫌쫌한 事件도 잘 整理되고 構圖 氏같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제
야 運이 되는 模様이야.

“쫌쫌한 사건도 잘 정리되고 구도 씨같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제
야 운이 되는 모양이야.

「蒸し暑い事件もよく整理され、構図さんのように良い人にも会うようにな
り、今こそ幸運のような形だ。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まあ… …。

“틀림없이 그러 ㄴ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야。

「確かにそうだ。

여태껏 고생해 ㄴ으니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져야지。

여태껏 苦生했으니 이제부터라도 幸福해져야지。

여태껏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져야지。

これまで苦労したからこれからも幸せになろう。

미사토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사토를 爲해서도 그렇고。

미사토를 위해서도 그렇고。

ミサトのためにもそう。

사요코의 말은 여러 의미에서 야스코의 가슴을 울려 ㄴ다。

史요코의 말은 여러 意味에서 야스코의 가슴을 울렸다。

사요코의 말은 여러 의미에서 야스코의 가슴을 울렸다。

サヨコの言葉はいろいろな意味でヤスコの胸を鳴らした。

그녀는 마음 깊이 야스코의 행복을 빌고 있다。

그女는 마음 깊이 야스코의 幸福을 빌고 있다。

그녀는 마음 깊이 야스코의 행복을 빌고 있다。

彼女は心深くヤスコの幸せを祈っている。

야스코가 살인을 저질러ㄴ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야스코가 殺人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야스코가 살인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ヤスコが殺人を犯したとは夢にも思えないのだ。

인사를 하면서도 야스코는 사요코의 얼굴을 똑바로 보 ㄴ 수 없어ㄴ다。

人土를 하면서도 야스코는 史요코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인사를 하면서도 야스코는 사요코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挨拶をしながらも、ヤスコはサヨコの顔をまっすぐ見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

벤테 ㄴ 테이를 나서 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ㄴ다。

벤텐테이를 나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는 反對 方向으로 걸어갔다。

벤텐테이를 나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ベンテンテーを出た彼女は家に帰る道とは反対方向に歩いた。

모퉁이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구도와의 약속 장소여ㄴ다。

모퉁이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構圖와의 約束 場所였다。

모퉁이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구도와의 약속 장소였다。

角にある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が構図との約束場所だった。

실은 그곳으로 정하고 싶지 않아ㄴ다。

實은 그곳으로 定하고 싶지 않았다。

실은 그곳으로 정하고 싶지 않았다。

実はそこに決めたくなかった。

도가시와 만나 ㄴ 곳도 그 가게여ㄴ기 때문이다。

都家時와 만난 곳도 그 가게였기 때문이다。

도가시와 만난 곳도 그 가게였기 때문이다。

道鹿市と出会った所もそのお店だったからだ。

그러나 구도가 그곳이 제일 찾기 쉬우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바람에 다른 말

을 하 ㄴ 수 없어 ㄴ다。

그러나 構圖가 그곳이 第一 찾기 쉬우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바람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도가 그곳이 제일 찾기 쉬우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바람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しかし構図がそこが一番探しやすいのでそこで会おうという風に他の言葉ができなかった。

도중에 수도 고속도로 밑을 지나가 ㄴ 때여 ㄴ다。

途中에 首都 高速道路 밑을 지나갈 때였다。

도중에 수도 고속도로 밑을 지나갈 때였다。

途中に首都高速道路の下を通る時だった。

뒤에서 누구 ㄴ가 하나오카 씨, 하고 불러 ㄴ다。

뒤에서 누군가 하나오카 氏, 하고 불렀다。

뒤에서 누군가 하나오카 씨, 하고 불렀다。

後ろから誰か花岡さん、と呼んだ。

남자 목소리여 ㄴ다。

男子 목소리였다。

남자 목소리였다。

男の声だった。

멈춰 서서 돌아보니 낮익은 ㅅ 남자 둘이 다가오고 있어ㅅ다。

멈춰 서서 돌아보니 낮익은 男子 둘이 다가오고 있었다。

멈춰 서서 돌아보니 낮익은 남자 둘이 다가오고 있었다。

立ち止まって振り返ってみると、見慣れた男二人が近づいていた。

한쪽은 유가와라는 남자로 이시가미의 오랜 친구라던 사람이다。

한쪽은 有價蝸螺는 男子로 이時加味の 오랜 親舊라던 사람이다。

한쪽은 유가와라는 남자로 이시가미의 오랜 친구라던 사람이다。

一方は湯川という男で石神の長年の友人だった人だ。

다른 한 사람은 구사나기라는 형사여ㅅ다。

다른 한 사람은 驅使나기라는 刑事였다。

다른 한 사람은 구사나기라는 형사였다。

もう一人は草薙という刑事だった。

왜 저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나 ㅅ 거 ㅅ지 야스코는 이해하 ㅅ 수 없어ㅅ다。

왜 저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난 건池 야스코는 理解할 수 없었다。

왜 저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난 건지 야스코는 이해할 수 없었다。

なぜあの二人が一緒に現れたのか、ヤスコは理解できなかった。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記憶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십니까?”

「私を覚えていますか？」

유가와가 물어ㄴ다。

有價와가 물었다。

유가와가 물었다。

湯川が尋ねた。

야스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ㄴ다。

야스코는 두 사람의 얼굴을 番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야스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ヤスコは二人の顔を交互に眺めて首をうなずいた。

“시간 좀 내주시ㄴ 수 있으ㄴ까요?”

“時間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時間を出してくれますか？」

“아, 그게……。

“아, 그게……。

“아, 그게……。

「あ、それは… …。

야스코는 시계를 보는 척해^ㄴ다。

야스코는 時計를 보는 척했다。

야스코는 시계를 보는 척했다。

ヤスコは時計を見るふりをした。

그러나 사실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 시간을 보^ㄴ 여유 따위는 없^ㄴ다。

그러나 事實은 마음에 童謠가 일어 時間을 볼 餘裕 따위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 시간을 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しかし実は心に揺れが起きて時間を見る余裕なんてなかった。

“약속이 있는데요。

“約束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는데요。

「約束があります。

“삼십 분만 이야기를 들어 주시^ㄴ 수 없겠습니까? 중요하^ㄴ 이야기이^ㄴ니다。

“三十 분만 이야기를 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重要한 이야기입니다。

“삼십 분만 이야기를 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三十分の話を聞くことはできませんか？重要な話です。

“아니요, 그거 ㄴ…….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いいえ、それは… … 。

야스코는 고개를 저어ㄴ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首を振った。

“십오 분은요? 아니, 십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十五 分은요? 아니, 十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십오 분은요? 아니, 십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十五分ですか？いや、10 分でも大丈夫です。

저기 벤치에서요.

저기 벤치에서요.

저기 벤치에서요.

そこのベンチです。

유가와가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공원을 가리켜한다。

有價와가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만 公園을 가리켰다。

유가와가 바로 앞에 보이는 조그만 공원을 가리켰다。

湯川がすぐ前に見える小さな公園を指した。

고속도로 밑의 공간을 공원으로 꾸미는 곳이어한다。

高速道路 밑의 空間을 公園으로 꾸민 곳이었다。

고속도로 밑의 공간을 공원으로 꾸민 곳이었다。

高速道路の下の空間を公園に飾ったところだった。

말투는 부드러워지만 거기에는 거절할 수 없는 완강함이 있어한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拒絶할 수 없는 頑強함이 있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거절할 수 없는 완강함이 있었다。

口調は柔らかかったがそこには断れない頑強さがあった。

뭐가 심각하 이야기를 하려는가 보다고 야스코는 직감해한다。

뭔가 深刻한 이야기를 하려는街 보다高 야스코는 直感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가 보다고 야스코는 직감했다。

何か深刻な話をしたいのではなく、ヤスコは直感した。

이 대학교수라는 자는 지난번에 만나^ㄴ으^ㄴ 때도 가벼우^ㄴ 어투로 굉장하^ㄴ 압박을 그녀에게 주어^ㄴ다。

이 大學教授라는 者は 지난番에 만났을 때도 가벼운 語套로 宏壯한 壓迫을 그女에게 주었다。

이 대학교수라는 자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가벼운 어투로 굉장한 압박을 그녀에게 주었다。

この大学教授という者は前回に会った時も軽い魚投で凄い圧迫を彼女に与えた。

도망치고 싶으^ㄴ 마음이 드는 한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ㄴ지 마음에 걸리기도 해^ㄴ다。

逃亡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한便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한편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逃げたい気がする一方、どんな話をしたいのか気になったりもした。

그 내용이 이시가미에 관하^ㄴ 것이 ^ㄴ에는 틀림없어^ㄴ다。

그 內容이 이時加味에 關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 내용이 이시가미에 관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その内容が石上に関するもの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かった。

“그럼 십 분만……。

“그럼 十 分婉……。

“그럼 십 분만……。

「じゃあ 10 分で… …。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いいですね。

유가와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앞장서서 공원으로 들어가ㄴ다。

有價와假 微笑를 지어 보이고 앞장서서 公園으로 들어갔다。

유가와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앞장서서 공원으로 들어갔다。

湯川が笑顔を見せて先頭に立って公園に入った。

야스코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구사나기가 “자, 이쪽으로。

야스코가躊躇하는 모습을 보이자 驅使나기가 “자, 이쪽으로。

야스코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구사나기가 “자, 이쪽으로。

ヤスコが躊躇する姿を見せると、草薙が「さあ、こちらへ。

” 하며 손을 뻗어 공원 쪽을 가리켜ㄴ다。

” 하며 손을 뻗어 公園 쪽을 가리켰다.

” 하며 손을 뻗어 公園 쪽을 가리켰다.

」と手を伸ばして公園側を指した。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 后 유가와를 뒤따라 ㄴ다.

그女는 고개를 끄덕인 後 有價와를 뒤따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后 유가와를 뒤따랐다.

彼女は頭をうなずいた後、湯川に従った。

형사가 잠자코 있다는 것이 왠지 껄름칙해 ㄴ다.

刑事가 잠자코 있다는 것이 왠지 껄름칙했다.

형사가 잠자코 있다는 것이 왠지 껄름칙했다.

刑事が寝ているというのがなんだか嬉しかった。

2인용 벤치 한쪽에 앉으 后 유가는 야스코에게도 자리를 권해 ㄴ다.

2 引用 벤치 한쪽에 앉은 有價와는 야스코에게도 자리를 勸했다.

2인용 벤치 한쪽에 앉은 유가는 야스코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2 人用ベンチの片側に座った湯川は、ヤスコにも席を勧めた。

“자네는 그냥 거기 있어.

“자네는 그냥 거기 있어.

“자네는 그냥 거기 있어。

「君はただそこにいる。

둘이서 하 ㄴ 이야기가 있으니까。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二人でやる話があるから。

유가와와 말에 구사나기는 잠시 불만스러우 ㄴ 표정을 짓더니 턱을 쓰윽 내밀고
서 공원 입구 근처로 돌아가 담배를 꺼내 ㅅ다。

有價와와 말에 驅使나기는 暫時 不滿스러운 表情을 짓더니 턱을 쓰윽 내밀
고서 公園 入口 近處로 돌아가 담배를 꺼냈다。

유가와와 말에 구사나기는 잠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턱을 쓰윽 내밀
고서 공원 입구 근처로 돌아가 담배를 꺼냈다。

湯川の言葉に草薙はしばらく不満な表情をしたらあごを突き出して公園の入
り口近くに戻ってタバコを取り出した。

야스코는 구사나기 쪽에 슬며시 신경을 쓰면서 유가와 옆에 앉아 ㅅ다。

야스코는 驅使나기 쪽에 슬며시 神經을 쓰면서 有價와 옆에 앉았다。

야스코는 구사나기 쪽에 슬며시 신경을 쓰면서 유가와 옆에 앉았다。

靖子は草薙側に悲しみ気をつけて、湯川と隣に座った。

“저분, 형사 아니 ㄴ가요? 이래도 괜찮아요?”

“저분, 刑事 아닌가요? 以來도 괜찮아요?”

“저분, 형사 아닌가요? 이래도 괜찮아요?”

「お前、刑事じゃない？これでも大丈夫ですか？」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ああ、大丈夫です。

원래는 저 혼자 올 생각이었어요.

元來는 低 혼자 올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저 혼자 올 생각이었어요.

もともと私は一人で来るつもりでした。

그리고 저 사람은 형사이기 이전에 제 친구이 ㅂ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刑事이기 以前에 제 親舊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형사이기 이전에 제 친구입니다.

そして、その人は刑事である前に私の友人です。

“친구라고요?”

“親舊라고요?”

“친구라고요?”

「友達ですか？」

“대학 동창이죠。

“大學 同窓이죠。

“대학 동창이죠。

「大学の同窓です。

유가와가 그렇게 말하고서 하얀 이를 드러내^ㄴ다。

有價와가 그렇게 말하고서 하얀 이를 드러냈다。

유가와가 그렇게 말하고서 하얀 이를 드러냈다。

湯川がそう言って白い齒を明らかにした。

“그러니까 이시가미와도 동창이^ㅂ니다。

“그러니까 이時加味와도 同窓입니다。

“그러니까 이시가미와도 동창입니다。

「だから石神とも同窓です。

물론 그 두 사람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어^ㄴ던 모양이지만요。

勿論 그 두 사람은 이番 일이 있기 前까지 一面式도 없었던 模様이지만

요。

물론 그 두 사람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모양이지만
요。

もちろんその二人は今回のことができるまで一面式もなかったようですが。

야스코는 ‘그래ㄴ구나。

야스코는 ‘그랬구나。

야스코는 ‘그랬구나。

ヤスコは『そうだな。

’ 하며 납득해ㄴ다。

’ 하며 納得했다。

’ 하며 납득했다。

’と納得した。

왜 이 사람이 사건을 계기로 이시가미를 만나러 와ㄴ었는지 이제야 아ㄴ 것 같
아ㄴ다。

왜 이 사람이 事件을 契機로 이時加味를 만나러 왔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
았다。

왜 이 사람이 사건을 계기로 이시가미를 만나러 왔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なぜこの人が事件をきっかけに石神に会いに来たのか今は分かりそうだっ

た。

이시가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ㄴ지만, 이시가미의 계획이 틀어지고 만 것
은 이 유가와라는 인물이 끼어들어^ㄴ기 때문이 아닐^ㄹ까 하고 야스코는 짐작해
^ㄴ다。

이時加味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時加味の 計劃이 틀어지고 만 것
은 이 有價蝸螺는 人物이 끼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야스코는 斟酌했
다。

이시가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시가미의 계획이 틀어지고 만 것
은 이 유가와라는 인물이 끼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야스코는 짐작했
다。

石上はそんなことを言わなかったが、石神の計画が分かれてしまったのはこ
の湯川という人物が割り込んだからではないかと安子は推測した。

형사가 자신과 같으^ㄴ 대학 출신에다 공통의 친구까지 있다는 사실은 계산 밖
의 일이어^ㄴ으^ㄹ 것이다。

刑事が 自身과 같은 大學 出身에다 共通의 親舊까지 있다는 事實은 計算
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형사가 자신과 같은 대학 출신에다 공통의 친구까지 있다는 사실은 계산
밖의 일이었을 것이다。

刑事が自分のような大学出身に共通の友人までいるという事実は計算外のこ
とだっただろう。

그런데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ㄴ**까。

그런데 이 男子는 都大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그런데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ところがこの男は一体何の話をしようとするのだろうか。

“이시가미가 자수를 하다니, 참으로 애석하 **ㄴ** 일이 **ㄴ**니다。

“이時加味가 自首를 하다니, 참으로 哀惜한 일입니다。

“이시가미가 자수를 하다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石神が刺繍をするなんて、本当に愛石のことです。

유가와가 갑자기 핵심으로 들어가 **ㄴ**다。

有價와가 갑자기 核心으로 들어갔다。

유가와가 갑자기 핵심으로 들어갔다。

湯川が突然核心に入った。

“그토록 재능이 뛰어나 **ㄴ** 친구가 교도소에서 두뇌를 썩혀야 하다니, 같은 **ㄴ** 연
구자로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토록 才能이 뛰어난 親舊가 矯正所에서 頭腦를 썩혀야 하다니, 같은 研
究者로서 正말 가슴이 아파요。

“그토록 재능이 뛰어난 친구가 교도소에서 두뇌를 썩혀야 하다니, 같은 연

구자로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それほど才能に優れた友人が刑務所で脳を腐ら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
同じ研究者として本当に胸が痛い。

야스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 ㄴ 채 무릎 위에 놓이 ㄴ 손에 힘을 껍 주어 ㄴ
다。

야스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을 껍 주었
다。

야스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을 껍 주었
다。

ヤスコは、何もしないまま膝の上に置いた手に力をいっぱい与えた。

“하지만 저 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到底히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しかし、私はとても信じられません。

그가 맥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말이 ㅂ니다。

그가宅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가 맥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말입니다。

彼がお宅にそんなことをするというのです。

유가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야스코는 몸이 굳어났다.

有價와假 自身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야스코는 몸이 굳었다.

유가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야스코는 몸이 굳었다.

湯川が自分を見つめていることを感じたヤスコは体が固まった。

“아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아니, 믿기지 않는다는 表現은 適切치 않아요.

“아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いいえ、信じられないという表現は適切ではありません。

그보다 훨씬 강하고 확신이 있지요.

그보다 훨씬 강한 確信이 있지요.

그보다 훨씬 강한 확신이 있지요.

それよりはるかに強い確信がありますよね。

그는, 이시가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時加味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시가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彼は、石神は嘘をついています。

왜 거짓말을 하는지, 살인범의 오명을 쓰면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납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殺人犯의 汚名을 쓰면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데

무슨 意味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살인범의 오명을 쓰면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なぜ嘘をつくのか、殺人犯の汚名を使ってまでそんな嘘をつくのどういう

意味があるのかは分からないけど。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ㄴ 분명해요。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分明해요。

하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しかし、彼が嘘をついているのは明らかです。

이유는 한 가지밖에 생각하 ㄴ 수 없습니다。

理由は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理由は一つしか考えられません。

이시가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時加味 自身을 爲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시가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石神自身のため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는 다른 누구_나를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그는 다른 누군가를 爲해 眞實을 숨기고 있어요.

그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彼は他の誰かのために眞實を隠しています。

야스코는 마른침을 삼켜_ㅆ다.

야스코는 마른침을 삼켰다.

야스코는 마른침을 삼켰다.

ヤスコは乾いた唾液を飲み込んだ。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을 고르려고 노력해_ㅆ다.

同時に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을 고르려고 努力했다.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同時にある力を尽くして息を選びようと努力した。

이 남자는 진상을 어렵פות이 눈치채고 있다.

이 男子는 眞相을 어렵פות이 눈치채고 있다.

이 남자는 진상을 어렵פות이 눈치채고 있다.

この男は眞相をどんどん気づいている。

이시가미는 누구_나를 지켜 주려 하고 있으며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이時加味는 누군가를 지켜 주려 하고 있으며 진범이 따로 있다는 事實을。

이시가미는 누군가를 지켜 주려 하고 있으며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石神は誰かを守ってあげようとしており、真犯が別にあるという事実を。

그래서 어떻게든 이시가미를 구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時加味를 求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시가미를 구하려는 것이다。

それで何とか石神を救おうとするの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_ㄴ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その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가장 빠르_ㄴ 길은 진범을 자수시키는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진범을 自首시키는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진범을 자수시키는 것이다。

最速の道は真犯を刺繍させること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을 事實대로 自白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すべてを事実どおり自白にするのだ。

야스코는 주뻘거리며 유가와 의 표정을 살피 ㄴ다.

야스코는 週뻘거리며 有價와 의 表情을 살폈다.

야스코는 주뻘거리며 유가와 의 표정을 살폈다.

ヤスコは目を見張りながら、ユガとの表情を生かした。

예상 밖으로 그는 웃고 있어 ㄴ다.

豫想 밖으로 그는 웃고 있었다.

예상 밖으로 그는 웃고 있었다.

予想外に彼は笑っていた。

“야스코 씨는 제가 야스코 씨를 설득하러 와 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야스코 氏は 제가 야스코 氏를 説得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模様が군요.

“야스코 씨는 제가 야스코 씨를 설득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やすこさんは、私がやすこさんを説得しに来たと思う模様ですね。

“아니, 그렇지 는…….

“아니, 그렇지 는…….

“아니, 그렇지 는…….

「いいえ、そうではありません… …。」

야스코는 고개를 저어^ㄴ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首を振った。

“저를 설득하다니, 대체 뭐^ㄴ 설득하^ㄴ다는 거죠?”

“저를 説得하다니, 代替 뭘 説得한다는 거죠?”

“저를 설득하다니, 대체 뭘 설득한다는 거죠?”

「私を説得するなんて、一体何を説得するというんですか？」

“아, 제가 생똥맞으^ㄴ 말을 해^ㄴ군요。

“아, 제가 생똥맞은 말을 했군요。

“아, 제가 생똥맞은 말을 했군요。

「あ、私は生き生きとしたことを言いました。

사과드리겠습니다。

謝過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お詫び申し上げます。

유가와가 고개를 숙여ㄴ다。

有價와假 고개를 숙였다。

유가와가 고개를 숙였다。

湯川が頭を下げた。

“다만 저로서는 야스코 씨가 꼭 알아 주셔ㄴ으면 하는 게 있어ㄴ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야스코 氏が 꼭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야스코 씨가 꼭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ただ私としては、ヤスコさんがぜひ知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がありまし
た。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ㄴ 거ㄴ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それでこうやって来たのです。

“그게 뭐ㄴ 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それは何ですか？」

“그거ㄴ,”

“그건,”

“그건,”

「それは」

유가와는 잠시 틈을 두어ㄴ다가 말해ㄴ다。

有價와는 暫時 틈을 두었다가 말했다。

유가와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했다。

湯川はしばらく隙を置いて言った。

“야스코 씨는 진실을 전혀 모르ㄴ다는 것이 ㅂ니다。

“야스코 氏は 眞實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스코 씨는 진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ヤスコさんは眞實を全く知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야스코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떠ㄴ다。

야스코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야스코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ヤスコは驚いて目を丸くした。

이제 유가와는 웃고 있지 않아ㄴ다。

이제 有價와는 웃고 있지 않았다.

이제 유가와는 웃고 있지 않았다.

もう湯川とは笑っていなかった。

“야스코 씨의 알리바이는 아마도 사실이 ㄴ 거 ㄴ니다.

“야스코 氏의 알리바이는 아마도 事實일 겁니다.

“야스코 씨의 알리바이는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ヤスコさんのアリバイはおそらく本当だろう。

실제로 영화관에도 가 ㄴ 겠죠.

實際로 映畫館에도 갔겠쥬.

실제로 영화관에도 갔겠쥬.

實際に映画館にも行ったでしょう。

댁도 따님도요.

宅도 따님도요.

댁도 따님도요.

お宅も娘さんも。

그렇지 않아 ㄴ 다면 형사들의 집요하 ㄴ 추궁에 야스코 씨는 물론이고 중학생이

ㄴ 따님도 견뎌 내 ㄴ 으 ㄴ 리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刑事들의 執拗한 追窮에 야스코 氏は 勿論이고 中學生인

따님도 견뎌 냈을 理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형사들의 집요한 추궁에 야스코 씨는 물론이고 중학생인

따님도 견뎌 냈을 리 없어요。

そうでなければ刑事たちの執拗な追及に安子さんはもちろん、中学生の娘さんも耐えたはずがありません。

맥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습니다。

宅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맥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お宅は嘘をつかなかった。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はい、そうです。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私たちは嘘をついていませんでした。

“그게 어째 ㄴ다는 거 ㄴ가요?”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그렇지만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으 ㄴ 테죠.

“그렇지만 異常하다고 느끼고 있을 테죠.

“그렇지만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테죠.

「でも変だと感じてるんですよね。

어째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이 ㄴ니다.

어째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어째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どうして嘘をつく必要がないのか。

왜 경찰의 추궁이 이토록 느슨하 ㄴ가.

왜 警察의 追窮이 이토록 느슨한가.

왜 경찰의 추궁이 이토록 느슨한가.

なぜ警察の追及がこんなに緩いのか。

그는, 이시가미는 당신들이 형사의 질문에 사실만을 대답해도 되도록 일을 꾸
며 두어 ㄴ습니다.

그는, 이時加味는 當身들이 刑事의 質問에 事實만을 對答해도 되도록 일을 꾸며 두었습니다。

그는, 이시가미는 당신들이 형사의 질문에 사실만을 대답해도 되도록 일을 꾸며 두었습니다。

彼は、石神はあなたが刑事の質問に事実だけを答えてもらえるように仕事をしておきました。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펼쳐도 야스코 씨에게 결정타가 가해지지 않도록 손을 써 놓으ㄴ 거죠。

警察이 아무리 搜查를 펼쳐도 야스코 氏에게 決定타가 加해지지 않도록 손을 써 놓은 거죠。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펼쳐도 야스코 씨에게 결정타가 가해지지 않도록 손을 써 놓은 거죠。

警察がいくら捜査を繰り広げても、ヤスコさんに決定打が加わらないように手を書いたのです。

그 장치가 무엇이ㄴ지는 아마 야스코 씨도 모르ㄴ 거ㄴ니다。

그 裝置가 무엇인지는 아마 야스코 氏도 모를 겁니다。

그 장치가 무엇인지는 아마 야스코 씨도 모를 겁니다。

その装置が何なのかは、おそらく安子さんも知らないでしょう。

이시가미가 뭐ㄴ가 대단하ㄴ 트릭을 사용해ㄴ나 보다 생각하ㄴ 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이時加味가 뭔가 대단한 트릭을 使用했나 보다 생각할 뿐 그 內容은 모르
고 있어요.

이시가미가 뭔가 대단한 트릭을 사용했나 보다 생각할 뿐 그 內容은 모르
고 있어요.

石神が何かすごいトリックを使ったかより思うだけその内容は知らないんで
すよ。

제 말이 틀려ㅁ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私の言葉が間違っていますか？」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ㄴ지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何を言っているのか全くわかりません。

야스코는 웃어 보여ㅁ다.

야스코는 웃어 보였다.

야스코는 웃어 보였다.

ヤスコは笑って見えた。

그러나 뺨에 경련이 일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져ㄴ다.

그러나 뺨에 痙攣이 일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다.

그러나 뺨에 경련이 일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다.

しかし頬に痙攣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自らも感じられた。

“그는 야스코 씨를 지키기 위해 크ㄴ 희생을 치러ㄴ습니다.

“그는 야스코 氏를 지키기 爲해 큰 犠牲을 치렀습니다.

“그는 야스코 씨를 지키기 위해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彼は安子さんを守るために大きな犠牲を払いました。

나나 야스코 씨 같으ㄴ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하ㄴ 수 없는 엄청난ㄴ 희생어요.

나羅 야스코 氏 같은 普通 사람은 想像도 할 수 없는 엄청난 犠牲어요.

나나 야스코 씨 같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어요.

菜々康子さんのような普通の人は想像もできないものすごい犠牲ですよ。

아마도 그는 사건이 일어나ㄴ 그 순간부터 최악의 경우 댁들을 대신하ㄴ 각오
를 해ㄴ으ㄴ 거ㄴ니다.

아마도 그는 事件이 일어난 그 瞬間부터 最惡의 境遇 宅들을 代身할 覺悟
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최악의 경우 댁들을 대신할 각오
를 했을 겁니다.

おそらく彼は事件が起きたその瞬間から最悪の場合、お宅に代わる覚悟をしたでしょう。

모든 계획이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ㅁ쵸.

모든 計劃이 그것을 前提로 이루어졌쵸.

모든 계획이 그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쵸.

すべての計画がそれを前提として行われました。

거꾸로 말하면 그 전제만은 절대 무너뜨리 ㄴ 수 없어 ㅁ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前提만은 絶對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전제만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逆に言えば、その前提だけは絶対に崩せませんでした。

그러나 그 전제라는 것이 너무도 가혹해 ㅁ습니다.

그러나 그 前提라는 것이 너무도 苛酷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라는 것이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しかしその前提というのがあまりにも過酷でした。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으 ㄴ 수 없는 것이어 ㅁ쵸.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쵸.

누구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쵸.

誰でも揺れ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した。

이시가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ㅏ어요。

이時加味도 그런 事實을 알고 있었어요。

이시가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石神もそんな事実を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돌이키 ㄴ 수 없도록 자신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려ㅏ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境遇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自身の 退路를 完全に 遮斷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자신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それで、どんな場合でも、元に戻せないように自分の退路を完全に遮断してしまいました。

유가와와 말에 야스코는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해ㅏ다。

有價와의 말에 야스코는 混亂을 일으키기 始作했다。

유가와와 말에 야스코는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湯川の言葉に、ヤスコは混乱を起こし始めた。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 ㄴ 수 없어ㅏ기 때문이다。

有價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理解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湯川が何を言っているのか全く理解できなかったからだ。

그러면서도 뭐가 엄청나게 충격적이 사실 드러나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도 뭔가 엄청나게 衝擊的인 事實이 드러날 것이라는 豫感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도 뭔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それでも何かすごく衝撃的な事実が明らかになるという予感にとらわれた。

분명히 이 남자의 말대로여 있다。

分明히 이 男子의 말대로였다。

분명히 이 남자의 말대로였다。

明らかにこの男の言葉通りだった。

이시가미가 어떤 트릭을 써는지 야스코는 전혀 알지 못해 있다。

이時加味가 어떤 트릭을 썼는지 야스코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시가미가 어떤 트릭을 썼는지 야스코는 전혀 알지 못했다。

石神がどんなトリックを使ったのか、ヤスコは全く知らなかった。

아울러 왜 자신들에 대한 刑事들의 공격이 생각보다 느슨하 ㄴ 지 의아해 ㄴ 다。

아울러 왜 自身들에 對한 刑事들의 攻撃이 생각보다 느슨한지 疑訝했다。

아울러 왜 자신들에 대한 刑事들의 공격이 생각보다 느슨한지 의아했다。

また、なぜ自分たちに対する刑事の攻撃が思ったより緩んだのか疑問に思った。

심지어 그녀는 刑事들의 계속되는 질문이 진실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고까지 생각해 ㄴ 다。

甚至於 그女는 刑事들의 繼續되는 質問이 眞實을 完全히 빗나가고 있다고 까지 생각했다。

심지어 그녀는 刑事들의 계속되는 질문이 진실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고 까지 생각했다。

彼女は刑事の継続的な質問が眞實を完全に外していると考えた。

그 비밀을 유가와는 알고 있다。

그 秘密을 有價와는 알고 있다。

그 비밀을 유가와는 알고 있다。

その秘密を有価とは知っている。

유가와가 시계를 봐 ㄴ 다。

有價와假 時計를 봤다。

유가와가 시계를 봤다。

湯川が時計を見た。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신경 쓰고 있는 듯해。

時間が 얼마나 남았는지 神經 쓰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경 쓰고 있는 듯했다。

時間がどれだけ残ったのか気にしているようだった。

“이런 사실을 야스코 씨에게 알리는 일은 실로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事實을 야스코 氏에게 알리는 일은 實로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야스코 씨에게 알리는 일은 실로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こんな事実を安子さんに知らせる事は実にいじめです。

그는 실제로 고통스러우 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려 ㄴ다。

그는 實際로 苦痛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실제로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彼は実際に痛いように顔を歪めた。

“이시가미가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時加味が 絶對로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시가미가 절대로 바라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石神が絶対に望まないことだからです。

무슨 일이 있어도 야스코 씨에게만은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야스코 氏에게만은 眞實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야스코 씨에게만은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何があってもヤスコさんにだけは眞実を知らせたくないでしょう。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스코 씨를 위해서요。

自己 自身을 爲해서가 아니라 야스코 氏를 爲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스코 씨를 위해서요。

自分自身のためではなく、ヤスコさんのためです。

만일 진상을 알게 되면 맥이 지금보다 훨씬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萬一 眞相을 알게 되면 宅이 只今보다 훨씬 큰 苦痛을 안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만일 진상을 알게 되면 맥이 지금보다 훨씬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もし真相を知れば、お宅が今よりずっと大きな苦痛を抱いて生きていくことになるからです。

그래도 저는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それでも私は知らせ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가 너무도 야스코 씨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었다는 사실을 맥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가 벌인 이런 일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요。

그가 너무도 야스코 氏를 사랑하고, 그래서 自身の 人生 모두를 걸었다는 事實을 宅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가 벌인 이런 일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요。

그가 너무도 야스코 씨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었다는 사실을 맥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가 벌인 이런 일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요。

彼があまりにもヤスコさんを愛しているので、自分の人生みんなを歩いたという事実をお父さんに知らせなければ、彼が繰り広げたこんなことがあまりにも胸痛ですからね。

그는 이러는 거를 바라지 않겠지만, 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를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宅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러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댁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彼はこれを望んでいませんが、お宅が何も知らないということには耐えられ
ません。

야스코의 가슴이 격렬히 고동쳐^ㄴ다。

야스코의 가슴이 激烈히 고동쳤다。

야스코의 가슴이 격렬히 고동쳤다。

ヤスコの胸が激しく動揺した。

숨이 가빠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으^ㄴ 것만 같아^ㄴ다。

숨이 가빠 今方이라도 精神을 잃을 것만 같았다。

숨이 가빠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息がガパすぐでも精神を失うようだった。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아^ㄴ다。

有價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斟酌조차 가지 않았다。

유가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湯川が何を言おうとするか推測すら行かなかった。

그러나 그의 태도로 보아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態度로 보아 想像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로 보아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しかし彼の態度で見て想像を越えることということだけは分かった。

“도대체 뭐죠? 하고 싶으 ㄴ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해 보세요.

“都大體 뭐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해 보세요.

“도대체 뭐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빨리 해 보세요.

「一体何ですか? やりたい言葉があれば早くやってみてください。

말투는 강경해 ㄴ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ㄴ다.

말투는 強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말투는 강경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口調は強硬だったが声が震えていた。

“그 사건, 구 에도 강변에서 일어나 ㄴ 살인 사건의 진범은,”

“그 事件, 區 에도 強辯에서 일어난 殺人 事件의 진범은,”

“그 사건, 구 에도 강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진범은,”

「その事件、旧江戸川辺で起きた殺人事件の真犯は、」

그러고서 유가와는 심호흡을 한 번 해^ㅅ다。

그러고서 有價와는 深呼吸을 한 番 했다。

그러고서 유가와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そこで湯川とは深呼吸を一度した。

“이시가미이 ^ㅅ니다。

“이時加味입니다。

“이시가미입니다。

「石神です。

야스코 씨도 아니고 야스코 씨의 딸도 아니 ^ㅅ 이시가미이 ^ㅅ니다。

야스코 氏도 아니고 야스코 氏의 딸도 아닌 이時加味입니다。

야스코 씨도 아니고 야스코 씨의 딸도 아닌 이시가미입니다。

康子さんでもなく、康子さんの娘でもない石神です。

이시가미가 죽여^ㅅ어요。

이時加味가 죽였어요。

이시가미가 죽였어요。

石神が殺しました。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자수하_ㄴ 게 아니_ㅂ니다。

그는 아무 罪도 없이 自首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자수한 게 아닙니다。

彼は罪なしに刺繍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가 바로 진범이_ㅂ니다。

그가 바로 진범입니다。

그가 바로 진범입니다。

彼はまさに真犯です。

무슨 말이_ㄴ지 아_ㄴ 수 없어 멍하니 있는 야스코에게 유가와는 “다만,” 하고 덧
붙여_ㅆ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있는 야스코에게 有價와는 “다만,” 하고 덧
붙였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있는 야스코에게 유가와는 “다만,” 하고 덧
붙였다。

どういふことなのか分からなくて愚かなヤスコに湯川とは「ただ、」と付け加
えた。

“그 사체는 도가시 신지의 것이 아니_ㅂ니다。

“그 史체는 도가시 臣智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체는 도가시 신지의 것이 아닙니다.

「その死体は道鹿市シンジ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맥의 전 남편이 아니에요.

宅의 前男便이 아니에요.

맥의 전 남편이 아니에요.

お父さんの元夫ではありません。

그렇게 보여 ㄴ ㄴ 뿐 전혀 다른 사람이 ㄴ ㄴ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 ㄴ ㄴ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そう見えただけで全く違う人です。

야스코가 미간을 찌푸려 ㄴ ㄴ다.

야스코가 眉間을 찌푸렸다.

야스코가 미간을 찌푸렸다.

ヤスコが眉間を刺した。

여전히 유가와가 하는 말을 이해하 ㄴ ㄴ 수 없어 ㄴ ㄴ다.

如前히 有價와가 하는 말을 理解할 수 없었다.

여전히 유가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相変わらず湯川の言葉を理解できなかった。

그러나 안경 너머에서 슬프게 깜빡거리는 그의 눈을 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달아져ㄴ다。

그러나 眼鏡 너머에서 슬프게 깜빡거리는 그의 눈을 본 瞬間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달아졌다。

그러나 안경 너머에서 슬프게 깜빡거리는 그의 눈을 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달아졌다。

しかし、メガネを越えて悲しく点滅する彼の目を見た瞬間、すべてが一度に悟った。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으로 입을 막아ㄴ다。

그女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彼女は息を大きく吸い、手で口を塞いだ。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ㄴ 뻔해ㄴ다。

너무 놀라 悲鳴을 지를 뻔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とても驚いて悲鳴を上げた。

온몸의 피가 술렁대더니 다음 순간 그 피가 모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이어ㄴ다。

온몸의 피가 술렁대더니 다음 瞬間 그 피가 모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온몸의 피가 술렁대더니 다음 순간 그 피가 모조리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全身の血がスルロン大だった次の瞬間、その血がどんどん抜けていく感じだった。

“이제야 제 말을 이해하시 ㄴ 모양이군요。

“이제야 제 말을 理解하신 模様が군요。

“이제야 제 말을 이해하신 모양이군요。

「今こそ私の言葉を理解したそうです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이시가미는 야스코 씨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질러 ㅏ습니다。

이時加味는 야스코 氏를 지키기 爲해 또 하나의 殺人을 저질렀습니다。

이시가미는 야스코 씨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石神は安子さんを守るためにもう一つの殺人を犯しました。

그것이 3월 10일의 일입니다。

그것이 3月 10 日の 일입니다。

그것이 3월 10일의 일입니다。

それが3月10日のことです。

진짜 도가시 신지가 죽으 ㄴ 다음 날이지요。

眞짜 도가시 臣智가 죽은 다음 날이지요。

진짜 도가시 신지가 죽은 다음 날이지요。

本物の鳥居シンジが死んだ翌日ですね。

야스코는 어지러워 쓰러지 ㄴ 것 같아 ㄴ다。

야스코는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다。

야스코는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다。

ヤスコはめまいが倒れそうだった。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ㄴ다。

앉아 있는 것조차 苦痛스러웠다。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座っているのさえ苦痛だった。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ㄴ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手足が冷たくなり、全身に不気味になった。

하나오카 야스코의 모습을 바라보며 구사나기는 그녀가 유가와에게 진실을 들으
는 모양이라고 짐작해냈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모습을 바라보며 驅使나기는 그女가 有價와에게 眞實을
들은 模樣이라고 斟酌했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모습을 바라보며 구사나기는 그녀가 유가와에게 진실을
들은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花岡康子の姿を眺めながら、草薙は彼女が湯川に眞実を聞いたようだと推測
した。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멀리서도 확연히 아
는 수 있어냈다.

그女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멀리서도 確然히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것을 멀리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彼女の顔が真っ青に飽きていることを遠くからも確実に知ることができた。

무리도 아니지, 라고 그는 생각해냈다.

무리도 아니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무리도 아니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無理でもないよ、と彼は考えた。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そんな話を聞いて驚かない人がいるだろうか。

하물며 그녀는 당사자다。

하물며 그女는 當事者だ。

하물며 그녀는 당사자다。

まして彼女は当事者だ。

구사나기조차 아직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어ㄴ다。

驅使나기조차 아직도 完全に 믿는 것은 아니었다。

구사나기조차 아직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다。

草薙すらまだまだ完全に信じるわけではなかった。

유가와에게 그 말을 처음 들어ㄴ으 때는 설마 하고 생각해ㄴ다。

有價와에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하고 생각했다。

유가와에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하고 생각했다。

湯川にその言葉を初めて聞いた時はまさかと思った。

그런 상황에서 그가 농담을 하는 리 없어ㄴ지만 그러ㄴ에도 그것은 너무나 비

현실적인 얘기여썩다。

그런 狀況에서 그가 弄談을 할 理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너무나 非現實的인 얘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농담을 할 리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였다。

そんな状況で彼が冗談を言うことはなかったが、それでもそれはあまりにも非現実的な話だった。

그러 ㄴ 리 없어, 라고 구사나기는 말해썩었다。

그럴 理 없어, 라고 驅使나기는 말했었다。

그럴 리 없어, 라고 구사나기는 말했었다。

そんなことないよ、と草薙は言った。

하나오카 야스코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殺人을 隱蔽하기 爲해 또 하나의 殺人을 저지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오카 야스코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花岡康子の殺人を隠蔽するためにもう一つの殺人を犯すなんて、言葉にならないことだ。

“자네 말이 맞는다고 쳐。

“자네 未이 맞는다고 쳐。

“자네 말이 맞는다고 쳐。

「君の言葉が合うと打って。

그럼 대체 죽으 ㄴ 사람은 누구란 말이야?”

그럼 代替 죽은 사람은 누구란 말이야?”

그럼 대체 죽은 사람은 누구란 말이야?”

それでは、死んだ人は誰ですか？」

그렇게 묻자 유가와는 몹시 슬프 ㄴ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 ㄴ 다。

그렇게 묻자 有價와는 몹시 슬픈 表情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묻자 유가와는 몹시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そう尋ねると、ユガとはすごく悲しい表情で首を振った。

“누구 ㄴ 지는 몰라。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는 몰라。

「誰か知らない。

다만 어디 있던 사람이 ㄴ 지는 알아。

다만 어디 있던 사람인지는 알아。

다만 어디 있던 사람인지는 알아.

ただどこにいた人なのかは分かる。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

“이 세상에는 설령 갑자기 행방을 감추더라도 누가 찾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야.

“이 世上에는 設令 갑자기 行方을 감추더라도 누가 찾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야.

“이 세상에는 설령 갑자기 행방을 감추더라도 누가 찾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야.

「この世には、たとえ突然行方を隠しても、誰が探しても心配もしない人がいるように。

심지어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甚至於 失蹤 申告조차 하지 않는 境遇도 있지.

심지어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でも行方不明申告すらない場合もある。

거기까지 말하고 유가와는 그들이 걸어온 제방을 가리켜ㄴ다.

거기까지 말하고 有價와는 그들이 걸어온 堤防을 가리켰다.

거기까지 말하고 유가와는 그들이 걸어온 제방을 가리켰다.

そこまで話し、湯川は彼らが歩いてきた堤防を指していた。

“자네도 봐ㄴ잖아, 그런 사람들을.

“자네도 봤잖아, 그런 사람들을.

“자네도 봤잖아, 그런 사람들을.

「君も見たじゃない、そんな人たちを。

그 순간에는 유가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ㄴ다.

그 瞬間에는 有價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유가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その瞬間には、湯川の言うことが分からなかった。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하ㄴ 동안 바라보던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어ㄴ다.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方向을 한동안 바라보던 驅使나기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던 구사나기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다.

しかし、彼が指す方向をしばらく眺めていた草薙の頭の中に点滅することがあった。

“저기 있는 노숙자들?”

“저기 있는 露宿者들?”

“저기 있는 노숙자들?”

「そこにいるホームレス？」

유가와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有價와는 그 물음에 對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유가와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湯川はその問いに答えずに話をした。

“빈 광통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ㄴ지? 그는 저 이 ㄴ대에서 살아가는 노숙자에 관하 ㄴ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

“빈 光筒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저 일對에서 살아가는 露宿者에 關한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

“빈 光통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저 일대에서 살아가는 노숙자에 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어.

「空の缶を集める人がいましたか？彼はあの一帯で生きているホームレスに 関することなら分からない。

그에게 물어봐 ㄴ더니 한 달쯤 전에 그곳에 들어오 ㄴ 사람이 있어 ㄴ대.

그에게 물어봤더니 한 달쯤 前に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물어봤더니 한 달쯤 전에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彼に尋ねたところ、一ヶ月ごろ前にそこに入ってきた人がいました。

그 사람은 오두막도 짓지 않고, 종이 박스를 이불 삼아 자는 데에도 아직은 저항감을 느끼는 상태여 ㄴ나 봐.

그 사람은 오두幕도 짓지 않고, 종이 박스를 이불 삼아 자는 데에도 아직은 抵抗감을 느끼는 状態였나 봐.

그 사람은 오두막도 짓지 않고, 종이 박스를 이불 삼아 자는 데에도 아직은 저항감을 느끼는 상태였나 봐.

その人は小屋も建てず、紙箱を布団にして寝るのにもまだ抵抗感を感じる状態だったと思う。

강통 모으는 사람도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다고 그러더군.

강筒 모으는 사람도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다고 그러더군.

강통 모으는 사람도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다고 그러더군.

缶集する人も最初は誰でもそうだったんだな。

인간이란 좀처럼 자존심을 버리기 힘드 ㄴ 존재라면서.

人間이란 좀처럼 自尊心을 버리기 힘든 存在라면서.

인간이란 좀처럼 자존심을 버리기 힘든 존재라면서。

人間とはなかなか自尊心を捨てにくい存在でありながら。

하지만 그것도 시간문제라고 말하더군。

하지만 그것도 時間問題라고 말하더군。

하지만 그것도 시간문제라고 말하더군。

でもそれも時間問題だと言ったな。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ところがその新しく入ってきた人がある日突然消えたというの。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豫告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何の予告もなく。

강통 모으는 사람은 신경이 좀 쓰여갔지만 그러고 말았나 봐。

강筒 모으는 사람은 神經이 좀 쓰였지만 그러고 말았나 봐。

강통 모으는 사람은 신경이 좀 쓰였지만 그러고 말았나 봐。

缶集める人は気になったけどそう言ってみたい。

다른 노숙자들 역시 마찬가지여ㄴ겠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입밖에 꺼내지 않아
ㄴ고。

다른 露宿者들 亦是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입밖에 꺼내지 않
았고。

다른 노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입밖에 꺼내지
않았고。

他のホームレスもやはり同じだっただろうが、誰もその話を口しか出さなか
ったし。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ㄴ가 사라지는 일이 일상다반사니까。

그들의 世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사라지는 일이 日常茶飯事니
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사라지는 일이 일상다반사니
까。

彼らの世界ではある日突然誰かが消えることが日常多反死だから。

거기까지 말하고 유가와는 잠시 숨을 고르ㄴ 후 이야기를 계속해ㄴ다。

거기까지 말하고 有價와는 暫時 숨을 고른 後 이야기를 繼續했다。

거기까지 말하고 유가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이야기를 계속했다。

そこまで言って湯川はしばらく息をしてから話を続けた。

“그 인물이 자취를 감추 ㄴ 날이 3월 10일 전후이 ㄴ가 봐.

“그 人物이 自炊를 감춘 날이 3月 10日 前後인가 봐.

“그 인물이 자취를 감춘 날이 3월 10일 전후인가 봐.

「その人物が跡を隠した日が3月10日前後か見て.

나이는 쉬 ㄴ 정도.

나이는 쉼 程度.

나이는 쉼 정도.

年齢は休むほど.

약간 통통하 ㄴ 것이 평균적이 ㄴ 중년 남자의 체격이래.

若干 통통한 것이 平均적인 中年 男子의 體格이래.

약간 통통한 것이 평균적인 중년 남자의 체격이래.

ちょっとしっかりしたのが平均的な中年男の体格だから.

구 에도 강변에서 사체가 발견되 ㄴ 날짜가 3월 10일이다.

區 에도 強辯에서 사체가 發見된 날짜가 3月 10日이다.

구 에도 강변에서 사체가 발견된 날짜가 3월 10일이다.

旧江戸川辺で死体が発見された日が3月10日だ.

“어떤 경위로 알게 돼 ㅅ는지는 모르지만 이시가미는 하나오카 야스코의 범행

을 알고나서 그것을 은폐하는 데 힘을 빌려주기로 해_ㅅ으_ㄴ 거야.

“어떤 京位로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時加味는 하나오카 야스코의 犯行을 알고나서 그것을 隱蔽하는 데 힘을 빌려주기로 했을 거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시가미는 하나오카 야스코의 범행을 알고나서 그것을 은폐하는 데 힘을 빌려주기로 했을 거야.

「どんな経緯で知ることが分かったのかは分からないが、石神は花岡康子の犯行を知ってからそれを隠蔽するのに力を貸すことにしたのでろう。

사체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_ㄴ다고 생각해_ㅅ겠지.

史체를 處分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사체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

死体を処分するだけではいけないと思っただろう。

사체의 신원이 드러나면 경찰이 틀림없이 그녀를 찾아가_ㄴ 테니까.

史체의 伸冤이 드러나면 警察이 틀림없이 그女를 찾아갈 테니까.

사체의 신원이 드러나면 경찰이 틀림없이 그녀를 찾아갈 테니까.

死体の身元が明らかになれば警察が間違いなく彼女を訪ねてくるから。

그렇게 되면 그녀나 그녀의 딸이 언제까지 시치미를 떼_ㄴ 수 있으_ㄴ지 아_ㄴ 수 없다고 판단하_ㄴ 거지.

그렇게 되면 그女나 그女の 딸이 언제까지 시치미를 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判斷한 거지。

그렇게 되면 그녀나 그녀의 딸이 언제까지 시치미를 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한 거지。

そうなれば彼女や彼女の娘がいつまで七味を離せるか分からないと判断した
のだ。

그래서 세운 계획이 타살체를 하나 더 마련해서 경찰이 그거 ㄴ 도가시 신지
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였어。

그래서 세운 計劃이 他殺체를 하나 더 마련해서 警察이 그걸 도가시 臣智
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였어。

그래서 세운 계획이 타살체를 하나 더 마련해서 경찰이 그걸 도가시 신지
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였어。

だから立てた計画が他殺体をもう一つ用意して警察がそれを東ガシシンジと
思わせるようにすることだった。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해돼 ㄴ는지를 차츰 밝혀 나가겠지。

警察은 被害者が 언제 어디서 어떻게 殺害됐는지를 차츰 밝혀 나가겠지。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해됐는지를 차츰 밝혀 나가겠지。

警察は被害者がいつどこでどのように殺害されたのかを次第に明らかにして
いくだろう。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 ㄴ수록 하나오카 야스코의 용의가 약해지는 거야。

그런데 捜査가 進行될수록 하나오카 야스코의 用意가 弱해지는 거야.

그런데 수사가 進行될수록 하나오카 야스코의 容의가 弱해지는 거야.

ところが捜査が進むほど花岡康子の容疑が弱くなるのだ。

당연하지。

當然하지。

당연하지。

当然じゃない。

그 사체는 그녀가 죽이 ㄴ 것이 아니니까。

그 史체는 그女가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 사체는 그녀가 죽인 것이 아니니까。

その死体は彼女が殺したのではないから。

그 사건은 도가시 시 ㄴ 지를 살해하 ㄴ 사건이 아니야。

그 事件은 도가시 신지를 殺害한 事件이 아니야。

그 사건은 도가시 신지를 살해한 사건이 아니야。

あの事件は東鹿市シンジを殺害した事件ではない。

자네들 경찰은 전혀 다른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ㄴ던 거야。

자네들 警察은 전혀 다른 殺人 事件을 捜査하고 있었던 거야。

자네들 경찰은 전혀 다른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거야.

君たち警察は全く違う殺人事件を捜査していたんだ。

유가와가 담담하게 말하는 내용이 전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ㄴ다。

有價와가 淡淡하게 말하는 内容이 전혀 現實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유가와가 담담하게 말하는 내용이 전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湯川が淡々と語る内容が全く現実のように感じられなかった。

구사나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저어ㄴ다。

驅使나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繼續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저었다。

草薙は話を聞きながらもずっと首を振った。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생각해 낸 것도 이시가미가 평소에 저 제방을 지나다녀ㄴ기 때문이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計劃을 생각해 낸 것도 이時加味가 平素에 저 堤房을 지나다녔기 때문이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생각해 낸 것도 이시가미가 평소에 저 제방을 지나다녔기 때문이겠지。

「そんな言葉にならない計画を思い出したのも石神が普段あの堤防を通り過ぎたからだろう。

노숙자들을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露宿者들을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노숙자들을 날이면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ホームレスたちを日にすれば日々見つめながら彼が何を考えたのだろうか。

저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사니까, 저대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설령

죽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들 아니어니까? 물론 내 상상이지만 말이야。

저들은 代替 무엇을 爲해 살까, 저대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設令

죽는다 해도 아무도 神經 쓰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 勿論 내 想像이지만 말이야。

저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까, 저대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설
령 죽는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런 것들 아니었을까? 물론 내 상상이지만 말이야。

彼らは一体何のために生きるか、あのまま死ぬ日だけを待つのだろうか、た

とえ死ぬとしても誰も気にせず、誰も悲しくないだろう、こんなことなかっ

ただろうか? もちろん、私の想像ですが。

“그러니까 죽여도 되니까, 이시가미가 그렇게 생각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이時加味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이시가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だから殺してもいい、石神がそう思ったというのは？」

구사나기가 확인하듯 물어냈다.

驅使나기가 確認하듯 물었다.

구사나기가 확인하듯 물었다.

草薙が確認するように尋ねた。

“죽여도 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겠지 거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야.

「殺してもいいとは思わなかっただろう。

그렇지만 이시가미가 그런 계획을 고안해 낸 배경에 그들의 존재가 있어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時加味가 그런 計劃을 考案해 낸 背景에 그들의 存在가 있었다는 事實만은 否定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시가미가 그런 계획을 고안해 낸 배경에 그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

でも石神がそんな計画を考案した背景に彼らの存在があったという事実だけは否定できないようだ。

전에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진 적이 있지? 이시가미는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잔혹하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친구라고 말이야。

前に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이時加味는 論理的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殘酷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親舊라고 말이야。

전에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이시가미는 논리적이기만 하다면

그 어떤 잔혹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친구라고 말이야。

前にあなたにこう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石神は論理的であるならば、どんな殘酷なことでもやり遂げられる友達だ。

“살인이 논리적이ㄴ 거ㄴ가?”

“殺人이 論理的인 건가?”

“살인이 논리적인 건가?”

「殺人が論理的なのか？」

“그에게 필요해ㄴ던 거ㄴ 타살체라는 조각이어ㄴ어。

“그에게 必要했던 건 他殺체라는 彫刻이었어。

“그에게 필요했던 건 타살체라는 조각이었어。

「彼に必要だったのは打殺体という彫刻だった。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각이 반드시 있어야 해ㄴ지。

퍼즐을 完成하기 爲해서는 그 彫刻이 반드시 있어야 했지。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조각이 반드시 있어야 했지。

パズルを完成するためにはその部分が必ず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도무지 이해하 ㄴ 수 없는 얘기여 ㄴ다。

도무지 理解할 수 없는 얘기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다。

まったく理解できない話だった。

그런 내용을 대학 강의라도 하듯이 얘기하는 유가와 역시 구사나기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 ㄴ다。

그런 内容を 大學 講義라도 하듯이 얘기하는 有價와 亦是 驅使나기의 눈에
는 頂上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대학 강의라도 하듯이 얘기하는 유가와 역시 구사나기의 눈
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そんな内容を大学講義でもあるように話す湯川もやはり草薙の目には正常に
見えなかった。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 시 ㄴ 지를 죽이 ㄴ 다음 날 아침, 이시가미는 노숙자
하나와 접촉해 ㄴ어。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 신지를 죽인 다음 날 아침, 이時加味는 露宿者
하나와 接觸했어。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 신지를 죽인 다음 날 아침, 이시가미는 노숙자
하나와 접촉했어。

「花岡康子が道鹿市シンジを殺した翌朝、石神はホームレスひとつと接触した。

무슨 말을 주고받아^ㅅ는지는 모르지만 아르바이트를 제안해^ㅅ던 것만은 확실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르바이트를 提案했던 것만은 確實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것만은 확실해。

何の言葉をやりとりしたのかは分からないが、アルバイトを提案しただけは確かだ。

그 아르바이트라는 것의 내용은 우선 도가시 신지가 빌린 L 렌탈 룸으로 가서 밤까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어^ㅅ지。

그 아르바이트라는 것의 內容은 優先 도가시 臣智가 빌린 렌탈 룸으로 가서 밤까지 時間을 보내라는 것이었지。

그 아르바이트라는 것의 내용은 우선 도가시 신지가 빌린 렌탈 룸으로 가서 밤까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었지。

そのアルバイトということの内容は、まず、嵯峨シンジが借りたレンタルルームに行って夜まで時間を過ごすということだった。

그 방에 남아 있던 도가시 신지의 흔적은 전날 밤에 이미 이시가미에 의해 지워

져ㅅ으ㄴ 거야。

그 房에 남아 있던 都家時 臣智의 痕跡은 前날 밤에 이미 이時加味에 依해 지워졌을 거야。

그 방에 남아 있던 도가시 신지의 흔적은 전날 밤에 이미 이시가미에 의해 지워졌을 거야。

その部屋に残っていた戸岳シンジの痕跡は前日の夜に既に石神によって消去されたはずだ。

방에 남으ㄴ 것은 노숙자의 지문과 머리카락뿐。

房에 남은 것은 露宿者の 地文과 머리카락뿐。

방에 남은 것은 노숙자의 지문과 머리카락뿐。

部屋に残ったのはホームレスの指紋と髪だけ。

밤이 되자 그는 이시가미가 준비해 주ㄴ 옷을 입고 약속되ㄴ 장소로 가ㅅ어。

밤이 되자 그는 이時加味が 準備해 준 옷을 입고 約束된 場所로 갔어。

밤이 되자 그는 이시가미가 준비해 준 옷을 입고 약속된 장소로 갔어。

夜になると彼は石神が準備してくれた服を着て約束された場所に行った。

“시노자키역 말이ㄴ가?”

“時老子기驛 末인가?”

“시노자키역 말인가?”

「篠崎駅のことなのか？」

구사나기의 물음에 유가와는 고개를 저어 쓴다。

驅使나기의 물음에 有價와는 고개를 저었다。

구사나기의 물음에 유가와는 고개를 저었다。

草薙の問いに湯川は首を振った。

“아니。

“아니。

“아니。

「いいえ。

아마 그 전 역인의 미즈에역일 거야。

아마 그 前 役人の 美즈에역일 거야。

아마 그 전 역인의 미즈에역일 거야。

たぶんその元役人の水前役だろう。

“미즈에역이라고?”

“美즈에역이라고?”

“미즈에역이라고?”

「水前駅だと？」

“이시가미는 시노자키역에서 자전거를 훔친 뒤 미즈에역에서 그 남자를 만나_ㄴ 거야。

“이時가미는 時老子키驛에서 自轉車を 훔친 뒤 美즈에역에서 그 男子를 만났을 거야。

“이시가미는 시노자키역에서 자전거를 훔친 뒤 미즈에역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거야。

「石上は篠崎駅で自転車を盗んだ後、水江駅でその男に会ったはずだ。

그때 이시가미는 또 한 대의 자전거를 준비해_ㄴ 가능성이 높아。

그때 이市加味는 또 한 代の 自轉車を 準備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때 이시가미는 또 한 대의 자전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その時、石神はもう一台の自転車を用意した可能性が高い。

둘이서 구 에도강 제방까지 이동하_ㄴ 후 이시가미는 거기서 남자를 살해해_ㄴ 어。

둘이서 區 에渡江 制房까지 移動한 後 이市加味는 거기서 男子를 殺害했어。

둘이서 구 에도강 제방까지 이동한 후 이시가미는 거기서 남자를 살해했어。

二人で旧江戸江堤防まで移動した後、石神はそこで男を殺害した。

얼굴을 뭉개 버리_ㄴ 이유는 말하_ㄴ 것도 없이 사체가 도가시 신지의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지。

얼굴을 뭉개 버린 理由는 말할 것도 없이 史체가 도가시 臣智의 것이 아니
라는 事實을 숨기기 爲해서지。

얼굴을 뭉개 버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사체가 도가시 신지의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지。

顔をムンゲ捨てた理由は言うまでもなく死体が道鹿市シンジのものではない
という事実を隠すためだ。

그러나 사실 지문은 없애_ㄴ 필요가 없어_ㅆ어。

그러나 事實 地文은 없앨 必要가 없었어。

그러나 사실 지문은 없앨 필요가 없었어。

しかし実は指紋はなくす必要がなかった。

렌탈 룸에 살해당하_ㄴ 남자의 지문이 남아 있으_ㄴ 테니 그대로 두어도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도가시 시_ㄴ지로 오인해_ㅆ으_ㄴ 거야。

렌탈 룸에 殺害當한 男子의 地文이 남아 있을 테니 그대로 두어도 警察은
史체의 伸冤을 도가시 신지로 誤認했을 거야。

렌탈 룸에 살해당한 남자의 지문이 남아 있을 테니 그대로 두어도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도가시 신지로 오인했을 거야。

レンタルルームに殺された男の指紋が残っているので、そのまま置いても警

察は死体の身元を戸岳シンジに誤認したはずだ。

그렇지만 얼굴을 뭉개 ㄴ 이상 지문도 지우지 않으면 범인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지지。

그렇지만 얼굴을 뭉개 以上 地文도 지우지 않으면 犯人의 行動에 一貫性が 없어지지。

그렇지만 얼굴을 뭉개 以上 지문도 지우지 않으면 범인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지지。

でも、顔をまとめた以上指紋も消さないと犯人の行動に一貫性がなくなる。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문을 태우 ㄴ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地文을 태운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문을 태운 거야。

だからやることなく指紋を乗せたの。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애를 먹으 ㄴ 우려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자전거에 지문을 남겨 두 ㄴ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警察이 伸冤을 確認하는 데 애를 먹을 憂慮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自轉車에 地文을 남겨 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애를 먹을 우려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자전거에 지문을 남겨 둔 거지。

しかし、そうすれば、警察が身元を確認するのに苦勞する恐れはありません

か？だから自転車に指紋を残した乞食。

옷을 어중간하게 태우 ㄴ 것도 같으 ㄴ 이유에서고。

옷을 於中間하게 태운 것도 같은 理由에서高。

옷을 어중간하게 태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고。

服を途中で乗せたのも同じ理由から。

“그렇다면 자전거가 굳이 새것이어야 하 ㄴ 필요는 없지 않아 ㄴ 으 ㄴ 까?”

“그렇다면 自転車가 굳이 새것이어야 할 必要는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자전거가 굳이 새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それなら自転車があえて新しいものである必要はなかったのだろうか？」

“새 자전거를 훔치 ㄴ 이유는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여 ㄴ 어。

“새 自転車를 훔친 理由는 滿에 하나를 생각해서였어。

“새 자전거를 훔친 이유는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였어。

「新しい自転車を盗んだ理由は、灣に一つを考えていたんだ。

“만에 하나라니?”

“만에 하나라니?”

“만에 하나라니?”

「灣に一つって？」

“이시가미에게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행 시각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었어。

“이時加味에게 重要な 것은 警察이 犯行 時刻을 正確히 計算해 내는 것이었어。

“이시가미에게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행 시각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었어。

「石上にとって重要なのは、警察が犯行時刻を正確に計算することだった。

결과적으로는 해부에 의해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지만 사체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해서 범행 추정 시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가장 염려한 거지。

結果的으로는 解剖에 依해 比較的 正確하게 推定할 수 있었지만 史체의 發見이 늦어지거나 해서 犯行 推定 時刻의 幅이 넓어지는 것을 가장 念慮한 거지。

결과적으로는 해부에 의해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지만 사체의 발견이 늦어지거나 해서 범행 추정 시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가장 염려한 거지。

結果的には解剖によって比較的正確に推定できたが、死体の発見が遅くなったりして犯行推定時刻の幅が広がることを最も懸念したので。

자칫 잘못해서 전날 밤, 즉 9일 밤까지 범행 추정 시각이 확대되면 아주 곤란해

지거든。

자칫 잘못해서 前날 밤, 卽 9 日 밤까지 犯行 推定 時刻이 擴大되면 아주 困難해지거든。

자칫 잘못해서 前날 밤, 즉 9일 밤까지 범행 추정 시각이 확대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

ちょっと間違って前日の夜、つまり 9 日の夜まで犯行推定時刻が拡大すればとても困る。

그날 밤은 실제로 하나오카 모녀가 도가시를 죽인 날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알리바이가 없잖아。

그날 밤은 實際로 하나오카 母女가 도가시를 죽인 날이기 때문에 그女들의 알리바이가 없잖아。

그날 밤은 실제로 하나오카 모녀가 도가시를 죽인 날이기 때문에 그녀들의 알리바이가 없잖아。

その夜は、実際に花岡母女が道鹿市を殺した日だから、彼女たちのアリバイがないじゃないか。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도난당하 ㄴ 날이 적어도 10일 이후라는 증거를 남겨야 해 ㄴ 어。

그런 일을 防止하기 爲해서는 自轉車가 盜難當한 날이 적어도 10 日 以後라는 證據를 남겨야 했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도난당한 날이 적어도 10일 이후라는 증거를 남겨야 했어.

そんなことを防ぐためには、自転車が盗まれた日が少なくとも 10 日以降という証拠を残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그래서 새 자전거여야 해ㄴ지.

그래서 새 自転車여야 했지.

그래서 새 자전거여야 했지.

だから新しい自転車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24시간 이상 방치되 ㄹ 염려가 없고, 도둑맞아ㄴ으 ㄹ 경우 주인이 그날로 알아차리 ㄹ 테니까.

24 時間 以上 放置될 念慮가 없고, 도둑맞았을 境遇 主人이 그날로 알아차릴 테니까。

24시간 이상 방치될 염려가 없고, 도둑맞았을 경우 주인이 그날로 알아차릴 테니까。

24 時間以上放置される心配がなく、盗まれた場合、主人がその日に気づくから。

“그 자전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ㄴ단 말이야?”

“그 自転車에 그렇게 여러 가지 意味가 있었단 말이야?”

“그 자전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단 말이야?”

「あの自転車にそんなに色々な意味があったの？」

구사나기는 자신의 이마를 주먹으로 두드려썻다。

驅使나기는 自身の 이마를 주먹으로 두드렸다。

구사나기는 자신의 이마를 주먹으로 두드렸다。

草薙は自分の額を拳で叩いた。

“자전거가 발견되 ㄴ 당시 바퀴 두 개에 모두 구멍이 나 있어썻다고 하더군。

“自転車가 發見될 當時 바퀴 두 個에 모두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더군。

“자전거가 발견될 당시 바퀴 두 개에 모두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더군。

「自転車が發見された当時、車輪の両方に穴が出ていたと言った。

그것도 이시가미다우 ㄴ 배려야。

그것도 이時加味다운 配慮야。

그것도 이시가미다운 배려야。

それも石神らしい配慮だ。

아마도 누구 ㄴ가가 타고 가 버리는 거 ㄴ 막기 위해서여썻으 ㄴ 거야。

아마도 누군가가 타고 가 버리는 걸 막기 爲해서였을 거야。

아마도 누군가가 타고 가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거야。

おそらく誰かが乗って行ってしまうのを防ぐためだったのだろう。

그는 하나오카 모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주 세심하_ㄴ 주의를 기울여_ㅆ어。

그는 하나오카 母女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爲해 아주 細心한 注意를 기울였어。

그는 하나오카 모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

彼は花岡母女のアリバイを作るために非常に細心の注意を払った。

“하지만 모녀의 알리바이가 그리 확실하_ㄴ 거_ㄴ 아니어_ㅆ잖아。

“하지만 母女의 알리바이가 그리 確實한 건 아니었잖아。

“하지만 모녀의 알리바이가 그리 확실한 건 아니었잖아。

「でも母娘のアリバイがそんなに確かなんじゃなかったじゃないか。

영화관에 가_ㅆ었다는 결정적이_ㄴ 증거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아_ㅆ는걸。

映畫館에 갔었다는 決定的인 證據조차 아직 發見되지 않았는걸。

영화관에 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걸。

映画館に行ったという決定的な証拠すらまだ発見されていないこと。

“영화관에 가지 않아_ㅆ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_ㅆ으_ㄴ 데_ㄴ데?”

“映畫館에 가지 않았다는 證據도 發見하지 못했을 텐데?”

“영화관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映画館に行かなかったという証拠も見つからなかったのに？」

유가와가 구사나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_ㄴ다。

有價와假 驅使나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가와가 구사나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湯川が草薙を指で指した。

“무너지_ㄴ 듯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알리바이, 그것이야말로 이시가미가 설치
하_ㄴ 듯이어_ㄴ어。

“무너질 듯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알리바이, 그것이야말로 이時加味が 設置
한 듯이었어。

“무너질 듯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알리바이, 그것이야말로 이시가미가 설치
한 듯이었어。

「崩れそうに崩れないアリバイ、それこそ石神が設置した罠だった。

만일 철벽같으_ㄴ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어_ㄴ다면 경찰은 트릭이 사용돼_ㄴ으_ㄴ
가능성을 의심해_ㄴ으_ㄴ 거야。

萬一 鐵壁같은 알리바이를 準備해 두었다면 警察은 트릭이 使用됐을 可能
性を 疑心했을 거야。

만일 철벽같은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었다면 경찰은 트릭이 사용됐을 가능
성을 의심했을 거야。

もし鉄壁のようなアリバイを準備しておけば警察はトリックが使われた可能性を疑ったのだろう。

그 과정에서 어쩌면 피해자가 도가시 신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상이 나오ㄴ 수도 있고。

그 過程에서 어쩌면 被害自家 도가시 신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發想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피해자가 도가시 신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상이 나올 수도 있고。

その過程で、多分被害者が道鹿市シンジ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発想が出るかもしれない。

이시가미는 그것을 두려워해ㄴ 어。

이時加味는 그것을 두려워했어。

이시가미는 그것을 두려워했어。

石神はそれを恐れた。

죽으ㄴ 사람은 도가시 신지, 수상하ㄴ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내ㄴ으로써 경찰이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ㄴ 거야。

죽은 사람은 도가시 신지, 受賞한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 그런 構圖를 만들어 냄으로써 警察이 그 固定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거야。

죽은 사람은 도가시 신지, 수상한 사람은 하나오카 야스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찰이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거야。

死んだ人は道鹿市シンジ、怪しい人は花岡康子、そんな構図を作ること
警察がその固定観念から抜け出せないようにしたのよ。

구사나기가 신음을 흘려ㄸ다。

驅使나기가 呻吟을 흘렸다。

구사나기가 신음을 흘렸다。

草薙がうめき声を流した。

유가와와 말대로여ㄸ다。

有價와와 말대로였다。

유가와와 말대로였다。

湯川の言葉通りだった。

사체의 신원이 도가시 시_니지로 판명되자 경찰은 곧바로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의심의 눈길을 돌려ㄸ다。

史체의 伸冤이 도가시 신지로 判明되자 警察은 곧바로 하나오카 야스코에
게 疑心の 눈길을 돌렸다。

사체의 신원이 도가시 신지로 판명되자 경찰은 곧바로 하나오카 야스코에
게 의심의 눈길을 돌렸다。

死体の身元が道鹿市シンジと判明すると、警察はすぐに花岡康子に疑いの目

を向けた。

그녀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어중간하ㄴ 점이 있어ㄴ기 때문이다.

그녀가 主張하는 알리바이에 於中間한 點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에 어중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彼女が主張するアリバイに中途半端な点があったからだ。

경찰은 그녀를 계속 의심해ㄴ다.

警察은 그녀를 繼續 疑心했다.

경찰은 그녀를 계속 의심했다.

警察は彼女をずっと疑った。

그러나 그녀를 의심하ㄴ다는 것은 곧 사체가 도가시 시ㄴ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뜻이 되ㄴ다.

그러나 그녀를 疑心한다는 것은 곧 사체가 도가시 신지라는 事實을 믿어

疑心치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그녀를 의심한다는 것은 곧 사체가 도가시 신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뜻이 된다.

しかし、彼女を疑うというのは、すぐに死体が道鹿市シンジだという事実を
信じて疑わないという意味になる。

“무서우ㄴ 남자군.

“무서운 男子軍。

“무서운 남자군。

「怖い男くん。

구사나기가 중얼거려ㄴ다。

驅使나기가 중얼거렸다。

구사나기가 중얼거렸다。

草薙が呟いた。

동감이야, 하며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여ㄴ다。

同感이야, 하며 有價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동감이야, 하며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同感だ、と言って湯川が首をうなずいた。

“내가 이 가공하ㄴ 트릭을 눈치채ㄴ 것은 자네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ㄴ기 때문
이야。

“내가 이 加工할 트릭을 눈치챈 것은 자네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
야。

“내가 이 가공할 트릭을 눈치챈 것은 자네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이
야。

「私がこの加工するトリックに気づいたのは、君の言葉からヒントを得たか

らだ。

“내 말에서?”

“내 말에서?”

“내 말에서?”

「私の言葉から？」

“이시가미가 수학 시험 문제를 내는 방법에 대해 자네가 얘기하 \angle 적 있지? 선

입견의 맹점을 찌르 \angle 다고 말이야。

“이時加味가 數學 試験 問題を 내는 方法에 對해 자네가 얘기한 적 있지?

先入見의 盲點을 찌른다고 말이야。

“이시가미가 수학 시험 문제를 내는 방법에 대해 자네가 얘기한 적 있지?

선입견의 맹점을 찌른다고 말이야。

「石神が数学試験問題を出す方法についてあなたが話したことはあります

か？先入観の盲点を突くと言う。

기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함수 문제라고。

幾何 問題처럼 보이지만 實은 函數 問題라고。

기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함수 문제라고。

幾何問題のように見えるが実は関数問題だと。

“그게 어떻게 힌트가 돼ㄴ데?”

“그게 어떻게 힌트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힌트가 됐는데?”

「それがどのようにヒントになったの？」

“같은 패턴이어ㄴ어。

“같은 패턴이었어。

“같은 패턴이었어。

「同じパターンだった。

알리바이 트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체의 신원을 숨기는 부분에 트릭의 핵심이 있어ㄴ다는 거。

알리바이 트릭으로 보이지만 事實은 史체의 伸冤을 숨기는 部分에 트릭의 核心이 있었다는 거。

알리바이 트릭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체의 신원을 숨기는 부분에 트릭의 핵심이 있었다는 거。

アリバイトリックに見えるが実は死体の身元を隠す部分にトリックの核心があったということ。

아, 하고 구사나기가 탄식해ㄴ다。

아, 하고 驅使나기가 歎息했다。

아, 하고 구사나기가 탄식했다。

あ、と草薩が嘆息した。

“그 후 자네가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을 내게 보여 줘 ㄴ던 일기억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3월 10일 오전에 학교를 쉬어 ㄴ어。

“그 後 자네가 이時加味の 勤務 記録을 내게 보여 줬던 일記憶나? 그 記録에 依하면 그는 3月 10日 午前에 學校를 쉬었어。

“그 후 자네가 이시가미의 근무 기록을 내게 보여 줬던 일기억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3월 10일 오전에 학교를 쉬었어。

「その後、あなたが石上の仕事の記録を私に見せてくれた日記? その記録によると、彼は 3月 10日 午前に学校を休んだ。

자네는 그것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ㄴ지만 나는 그거 ㄴ 보는 순간 깨달아 ㄴ어, 이시가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은 그 전날 밤에 일어나 ㄴ다는 사실을。

자네는 그것이 事件과 關係가 없다고 생각하고 重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그걸 보는 瞬間 깨달았어, 이時加味가 숨기고 싶어 하는 事件은 그 前날 밤에 일어났다는 事實을。

자네는 그것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어, 이시가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은 그 전날 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君はそれが事件と関係がないと思って重要には思わなかったが、私はそれを

見た瞬間悟り、石神が隠したいという事件はその前日の夜に起きたという事実を。

이시가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 그것은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 신지를 살해한 일이다。

이時加味가 숨기고 싶어 하는 事件, 그것은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 신지를 殺害한 일이다。

이시가미가 숨기고 싶어 하는 사건, 그것은 하나오카 야스코가 도가시 신지를 살해한 일이다。

石神が隠したいという事件、それは花岡康子が戸垣シンジを殺害したことだ。

유가와와 推理는 하나에서 열까지 앞뒤가 맞아떨어져 ㄴ다。

有價와의 推理는 하나에서 熱까지 앞뒤가 맞아떨어졌다。

유가와와 推理는 하나에서 열까지 앞뒤가 맞아떨어졌다。

湯川との推理は一つから列まで前後が当たった。

생각해 보면 구사나기 자신이 집착해 ㄴ던 자전거나 타다 남은 옷은 모두 사건의 진상을 크게 왜곡시키는 데 필요하 ㄴ 장치여 ㄴ다。

생각해 보면 驅使나기 自身이 執着했던 自轉車나 타다 남은 옷은 모두 事件의 真相을 크게 歪曲시키는 데 必要한 裝置였다。

생각해 보면 구사나기 자신이 집착했던 자전거나 타다 남은 옷은 모두 사건의 진상을 크게 왜곡시키는 데 필요한 장치였다。

考えてみると、草薙自身が執着した自転車や乗り残った服は、いずれも事件の真相を大きく歪めるために必要な装置だった。

자신들 경찰이 이시가미에게 놀아나^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 수 없^어^ㄴ다。

自身들 警察이 이時加味에게 놀아났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 경찰이 이시가미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自分たち警察が石神に驚いたという事実を認め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은 여전해^ㄴ다。

그러나 非現實的이라는 느낌은 如前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은 여전했다。

しかし非現實的という感じは相変わらずだった。

하나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다니, 그런 생각을 하^ㄴ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으ㄴ^까?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트릭이라고 하^ㄴ다면 하^ㄴ 말이 없지만。

하나의 殺人을 隱蔽하기 爲해 또 하나의 殺人을 저지르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人間이 果然 있을까?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야말로 트릭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
에 그야말로 트릭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一つの殺人を隠蔽するためにもう一つの殺人を犯すなんて、そんな考えがで
きる人間が果たしているのだろうか?誰も考えられないものなので、まさに
トリックというなら言うことはないが。

“이 트릭에는 또 하나의 커다라 ㄴ 의미가 있어。

“이 트릭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意味가 있어。

“이 트릭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가 있어。

「このトリックにはもう一つの大きな意味がある。

유가와가 구사나기의 심정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 ㄴ 듯이 말해 ㄴ 다。

有價와假 驅使나기의 心情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유가와가 구사나기의 심정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말했다。

湯川が草薙の心情を貫いてみてもしたように言った。

“만에 하나 진상이 드러나 ㄴ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자수하 ㄴ 다는
이시가미의 결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 ㄴ 다는 거야。

“만에 하나 真相이 드러날 境遇 自身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自首한다는

移是が美の 決意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

“만에 하나 진상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자수한다는

이시가미의 결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

「ひとつひとつ真相があらわれる場合、自分がすべてをひっくり返して刺繍
するという石神の決意が揺れ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の。

단지 대신하는 것뿐이라면 여차하면 결심이 흔들리 ㄴ 위험이 있거든。

但只 代身하는 것뿐이라면 如此하면 決心이 흔들릴 危險이 있거든。

단지 대신하는 것뿐이라면 여차하면 결심이 흔들릴 위험이 있거든。

ただ代わりにするだけなら、旅車すると決心が揺れる危険があるから。

형사의 집요하 ㄴ 추궁을 견디다 못해 진실을 털어놓으 ㄴ 수도 있으니까。

刑事의 執拗한 追窮을 견디다 못해 眞實을 털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형사의 집요한 추궁을 견디다 못해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刑事の執拗な追及に耐えられず眞実を打ち明けることもできるから。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런 불안감이 없으 ㄴ 거야。

하지만 只今の 그에게는 그런 不安感이 없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런 불안감이 없을 거야。

だが今の彼にはそんな不安感がないだろう。

누가 어떻게 공략하더라도 그의 결의가 흔들리 ㄴ 수 없으 ㄴ 테니까。

누가 어떻게 攻略하더라도 그의 決意가 흔들릴 수 없을 테니까。

누가 어떻게 공략하더라도 그의 결의가 흔들릴 수 없을 테니까。

誰がどのように攻略しても彼の決意が揺れ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ㄴ다고 주장하 ㄴ 수밖에 없어。

그는 自身이 殺人을 저질렀다고 主張할 수밖에 없어。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

彼は自分が殺人を犯したと主張するしかない。

왠지 알아? 구 에도 강변에서 발견되 ㄴ 사체의 살인범이 실제로 자신이기 때문
이야。

왠지 알아? 區 에도 強辯에서 發見된 史체의 殺人犯이 實際로 自身이기 때
문이야。

왠지 알아? 구 에도 강변에서 발견된 사체의 살인범이 실제로 자신이기
때문이야。

なんだかわかりますか？旧江戸川辺で発見された死体の殺人犯が実際に自分
だからだ。

이시가미는 살인범이고,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해。

이時加味는 殺人犯이고, 따라서 矯導所에 들어가는 것도 當然해。

이시가미는 살인범이고,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해.

石神は殺人犯であり、したがって刑務所に入るのも当然。

그 대신 그는 완벽하게 지키 ㄴ 수 있지,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代身 그는 完璧하게 지킬 수 있지,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대신 그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지,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その代わりに、彼は完璧に保つことができ、彼が心を深く愛する人を。

“자신의 트릭이 탄로 나 ㄴ다는 사실을 이시가미가 알아 ㄴ어?”

“自身の 트릭이 炭로 났다는 事實을 이時加味가 알았어?”

“자신의 트릭이 탄로 났다는 사실을 이시가미가 알았어?”

「自分のトリックが打たれたという事実を石神が知った？」

“내가 말해 줘 ㄴ어, 트릭을 알아내 ㄴ다고.

“내가 말해 줬어, 트릭을 알아냈다고.

“내가 말해 줬어, 트릭을 알아냈다고.

「私が言ってくれて、トリックを見つけたと。

물론 이시가미만이 알아들으 ㄴ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야.

勿論 이市街未滿이 알아들을 수 있는 方式으로 말이야.

물론 이시가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야.

もちろん石神だけが聞くことができるようなやり方だ。

아까 자네에게 말하 ㄴ 것과 똑같으 ㄴ 내용이야。

아까 자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内容이야。

아까 자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야。

さっき君に言ったのと同じ内容だ。

이 세상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톱니바퀴 자신이다……。

이 世上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決定하는 것은 톱니바퀴 自身이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톱니바퀴란 없으며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톱니바퀴 자신이다……。

この世に役に立たない歯車とは無く、その使い方を決めるのは歯車自体だ。

... 。

톱니바퀴가 무어 ㄴ 의미하는지는 이제 자네도 깨달아 ㄴ 테지。

톱니바퀴가 무얼 意味하는지는 이제 자네도 깨달았을 테지。

톱니바퀴가 무얼 의미하는지는 이제 자네도 깨달았을 테지。

歯車が何を意味するのかはもう君も悟っただろう。

“이시가미가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 ㄴ 무명의 노숙자 말이야?”

“이時加味가 퍼즐 彫刻으로 使用한 무명의 露宿者 末이야?”

“이시가미가 퍼즐 조각으로 사용한 무명의 노숙자 말이야?”

「石神がパズルのピースとして使った名無しのホームレスなの？」

“이시가미는 용서 받으 ㄴ 수 없는 짓을 저질러 ㄴ 어。

“이時加味는 容恕 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이시가미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石神は許されないことを犯した。

자수하는 게 당연해。

自首하는 게 當然해。

자수하는 게 당연해。

刺繍するのが当たり前。

내가 그에게 톱니바퀴 얘기를 하 ㄴ 것도 그가 한시 빨리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여 ㄴ 어。

내가 그에게 톱니바퀴 얘기를 한 것도 그가 한時 빨리 事實을 깨닫도록 하
기 爲해서였어。

내가 그에게 톱니바퀴 얘기를 한 것도 그가 한시 빨리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어。

私が彼に齒車の話をしたのも、彼が一時的に早く事実を悟らせるためだっ

た。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수하 ㄴ 줄은 몰라 ㄴ어。

하지만 그런 式으로 自首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수할 줄은 몰랐어。

でもそんな風に刺繍することは知らなかった。

자신을 스토크로 만들면서까지 그녀를 비호하 ㄴ 줄은 말이야。

自身을 스토크로 만들면서까지 그女를 庇護할 줄은 말이야。

자신을 스토크로 만들면서까지 그녀를 비호할 줄은 말이야。

自分をストーカーにしつつまで彼女を守るとは言わない。

트릭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으 ㄴ 것은 그 소식을 들어 ㄴ으 ㄴ 때여 ㄴ지。

트릭의 또 다른 意味를 깨달은 것은 그 消息을 들었을 때였지。

트릭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은 것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였지。

トリックのもう一つの意味を悟ったのはそのニュースを聞いた時だった。

“진짜 도가시 신지의 사체는 어디에 있으 ㄴ까?”

“眞짜 도가시 臣智의 史체는 어디에 있을까?”

“진짜 도가시 신지의 사체는 어디에 있을까?”

「本当のドガシシンジの死体はどこにあるのか？」

“그거 ㄴ 나도 몰라.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나도 몰라.

「それは私も知らない。

이시가미가 처분해 ㄴ 겠지.

이時加味가 處分했겠지.

이시가미가 처분했겠지.

石神が処分しただろう。

이미 어느 현경이 발견해 ㄴ 으 ㄴ 지도 모르고.

이미 어느 현경이 發見했을지도 모르고.

이미 어느 현경이 발견했을지도 모르고.

すでにどの顕微鏡が発見し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

또 아직 발견되지 않아 ㄴ 으 ㄴ 지도 몰라.

또 아직 發見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또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またまだ発見され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

“현경이라고? 우리 관내가 아니고?”

“현경이라고? 우리 管内가 아니고?”

“현경이라고? 우리 관내가 아니고?”

「ヒョンギョンと? 私たちの館内ではありませんか?」

“경시청 관내는 피해_ㅅ으_ㄴ 거야.

“輕視靑 管内는 避했을 거야.

“경시청 관내는 피했을 거야.

「警視庁館内は避けたはずだ.

도가시 신지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이 부각돼서는 안 되_ㄴ 테니까.

都家時 臣智 殺害 事件과의 聯關性이 浮刻돼서는 안 될 테니까.

도가시 신지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이 부각돼서는 안 될 테니까.

道鹿市シンジ殺害事件との関連性が浮き彫りにならないはずだから.

“그래서 도서관에서 신문을 살펴보아_ㅅ던 거군.

“그래서 圖書館에서 新聞을 살펴보았던 거軍.

“그래서 도서관에서 신문을 살펴보았던 거군.

「だから、図書館で新聞を見ていたんだ.

신원 불명의 사체가 발견돼_ㅅ다는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伸寃 不明의 史체가 發見됐다는 技士가 있는지 確認하려고 말이야.

신원 불명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身元不明の死体が発見されたという記事があるか確認しようということだ。

“내가 조사하 ㄴ 범위에서는 그런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 ㄴ 것 같아.

“내가 調査한 範圍에서는 그런 史체가 発見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조사한 범위에서는 그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아.

「私が調査した範囲では、そのような死体が見つからなかったよう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발견되겠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発見되겠지.

그렇지만 언젠가는 발견되겠지.

でもいつかは見つかるだろう。

그다지 공들여서 감추지는 않아 ㄴ 거야.

그다지 공들여서 감추지는 않았을 거야.

그다지 공들여서 감추지는 않았을 거야.

あまりボールだから隠してないんだろう。

설령 발견되 ㄴ 다 하 ㄴ 들 그 사체가 도가시 신지로 추정되 ㄴ 염려는 없으 ㄴ 테
니까。

設令 発見된다 한들 그 史체가 도가시 臣智로 推定될 念慮는 없을 테니

까。

설령 발견된다 한들 그 사체가 도가시 신지로 추정될 염려는 없을 테니

까。

たとえ発見される限り、その死体が東賀市シンジと推定される心配はないか

ら。

서둘러 조사해 보겠노라고 구사나기는 말해ㄴ다。

서둘러 調査해 보겠노라고 驅使나기는 말했다。

서둘러 조사해 보겠노라고 구사나기는 말했다。

急いで調べてみようと言われた。

그러자 유가와가 고개를 저어ㄴ다。

그러자 有價와假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고개를 저었다。

すると湯川が首を振った。

“그러면 약속이 다르잖아。

“그러면 約束이 다르잖아。

“그러면 약속이 다르잖아。

「それでは約束が違うじゃない。

처음에 내가 말해ㄴ지, 나는 친구로서 자네에게 말하ㄴ 뿐 형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얘기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_ㄴ다면 그거_ㄴ로 자네와 나의 친구 관계는 끝나_ㄴ 거야。

처음에 내가 말했지, 나는 親舊로서 자네에게 말할 뿐 刑事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얘기를 根據로 搜查에 着手한다면 그걸로 자네와 나의 親舊 關係는 끝날 거야。

처음에 내가 말했지, 나는 친구로서 자네에게 말할 뿐 형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얘기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걸로 자네와 나의 친구 관계는 끝날 거야。

最初に私が言った、私は友人としてあなたに話すだけ刑事に話すのではないと?私の話をもとに捜査に着手すればそれで君と私の友達関係は終わるのよ。

유가와와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_ㄴ지 구사나기는 반론을 하_ㄴ 수 없어_ㄴ다。

有價와와 눈빛이 어찌나 眞摯한지 驅使나기는 反論을 할 수 없었다。

유가와와 눈빛이 어찌나 진지한지 구사나기는 반론을 할 수 없었다。

湯川の目つきがどうして真剣なのか、草薙は反論ができなかった。

“나는 그녀에게 걸어 보려고 해。

“나는 그女에게 걸어 보려고 해。

“나는 그녀에게 걸어 보려고 해。

「私は彼女に歩いてみよう。

유가와가 그렇게 말하고 베네펀테이를 가리켰다。

有價와가 그렇게 말하고 벤텐테이를 가리켰다。

유가와가 그렇게 말하고 벤텐테이를 가리켰다。

湯川がそう言ってベンテンテーを指した。

“그녀는 아마도 모르겠거야, 이시가미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쓰는가를 말
이야。

“그女는 아마도 모를 거야, 이時加味가 얼마나 큰 犠牲을 치렀는가를 말
야。

“그녀는 아마도 모를 거야, 이시가미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말
야。

「彼女はおそらく知らないだろう、石神がどれほど大きな犠牲を払ったの
か。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

私が話してあげようとしています。

그런 다음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싶어。

그런 다음 그녀의 判斷을 기다리고 싶어。

그런 다음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싶어。

それから彼女の判断を待ちたい。

이시가미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 ㄴ 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겠지만 그거 ㄴ

내게는 참으 ㄴ 수 없는 일이야。

이時加味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幸福하게 살기만을 바라겠지만 그건

내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이시가미는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겠지만 그건

내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야。

石神は彼女が何も知らずに幸せに生きるだけを望むが、それは私には我慢できないことだ。

나는 그녀가 반드시 알아야 하 ㄴ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私は彼女が必ず知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녀가 자수하 ㄴ까?”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녀가 自首할까?”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녀가 자수할까?”

「物語を聞いたら彼女が刺繍するのか？」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わかりません。

나 ㄴ 그녀가 반드시 자수해야 하 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난 그녀가 반드시 自首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난 그녀가 반드시 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私は彼女が必ずしも刺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は思わない。

이시가미를 생각하면 그녀 하나만이라도 구해 주고 싶기도 해。

이時加味를 생각하면 그女 하나만이라도 求해 주고 싶기도 해。

이시가미를 생각하면 그녀 하나만이라도 구해 주고 싶기도 해。

石神を考えると彼女ひとつでも救ってあげたいと思うし。

“만일 끝까지 하나오카 야스코가 자수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수사를 시작하

ㄴ 수밖에 없어。

“萬一 끝까지 하나오카 야스코가 自首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搜查를 始作

할 수밖에 없어。

“만일 끝까지 하나오카 야스코가 자수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

「もし最後まで花岡康子が刺繍しなければ私としては捜査を始めるしかない。

설령 자네와 나 사이의 친구 관계가 끝나 ㄴ다 해도。

設令 자네와 나 사이의 親舊 關係가 끝난다 해도。

설령 자네와 나 사이의 친구 관계가 끝난다 해도。

たとえ君と私の間の友達關係が終わっても。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렇겠지。

「そうだね。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여 ㄴ다。

有價와假 고개를 끄덕였다。

유가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湯川が首をうなずいた。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구사나기는 연거푸 담배를 피워 대 ㄴ다。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이야기하는 自身の 親舊를 바라보면서 驅使나기는 連
거꾸 담배를 피워 댔다。

하나오카 야스코에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구사나기는 연
거꾸 담배를 피워 댔다。

花岡康子に話す自分の友人を眺めながら、草薙は茂みタバコを吸っていた。

야스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 ㄴ 채 조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아 ㄴ다。

야스코는 如前히 고개를 숙인 채 조금도 姿勢를 바꾸지 않았다。

야스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ヤスコは依然として頭を下げたまま少しも姿勢を変えなかった。

유가와도 입술만 움직이 ㄴ 뿐 표정에 별다른 ㄴ 변화가 없어 ㄴ다。

有價와도 입술만 움직일 뿐 表情에 別다른 變化가 없었다。

유가와도 입술만 움직일 뿐 표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湯川とも唇だけ動くだけで表情に特に変化はなかった。

그러나 두 사람을 둘러싸 ㄴ 긴장감은 구사나기가 서 있는 곳까지 전해져 ㄴ다。

그러나 두 사람을 둘러싼 緊張感은 驅使나기가 서 있는 곳까지 傳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을 둘러싼 긴장감은 구사나기가 서 있는 곳까지 전해졌
다。

しかし二人をめぐる緊張感は、草薙が立っているところまで伝わった。

마침내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서었다。

마침내 有價와假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내 유가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ついに湯川が席で立ち上がった。

그는 야스코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 ㄴ 다음 구사나기가 있는 쪽으로 걸어
와 ㄴ 다。

그는 야스코를 向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다음 驅使나기가 있는 쪽으로 걸
어왔다。

그는 야스코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다음 구사나기가 있는 쪽으로 걸
어왔다。

彼はヤスコに向かって軽く頭を下げた後、草薙がある方へ歩いてきた。

그러 ㅁ 에도 야스코는 여전히 같으 ㄴ 자세여 ㄴ 다。

그럼에도 야스코는 如前히 같은 姿勢였다。

그럼에도 야스코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다。

それでも、ヤスコは依然として同じ姿勢だった。

마치 움직이 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 ㄴ 다。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まるで動けない人のように見えた。

“많이 기다려 ㄴ지?”

“많이 기다렸지?”

“많이 기다렸지?”

「たくさん待ってたの？」

“얘기는 잘돼 ㄴ어?”

“얘기는 잘됐어?”

“얘기는 잘됐어?”

「話は良かった？」

“응, 하 ㄴ 얘기는 다 해 ㄴ어。

“응, 할 얘기는 다 했어。

“응, 할 얘기는 다 했어。

「うん、やる話はやったよ。

“어떻게 하 ㄴ 거래?”

“어떻게 할 거래?”

“어떻게 할 거래?”

「どうする取引？」

“글쎄。

“글쎄。

“글쎄。

「まあ。

나는 그저 이야기를 해 줘_ㅅ으_ㄴ 뿐이야。

나는 그저 이야기를 해 줬을 뿐이야。

나는 그저 이야기를 해 줬을 뿐이야。

私はただ話をしてくれただけだ。

어떻게 하_ㄴ 거냐고 묻지도 알아_ㅅ고 어떻게 해야 하_ㄴ다고 말하지도 알아_ㅅ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

どうするかと聞かなかったし、ど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わなかった。

모든 거_ㄴ 그녀 스스로 결정하_ㄴ 문제야。

모든 건 그女 스스로 決定할 問題야。

모든 건 그녀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すべては彼女自身で決める問題だ。

“아까도 말해^ㄴ지만 만일 그녀가 끝끝내 자수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萬一 그女가 끝끝내 自首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만일 그녀가 끝끝내 자수하지 않는다면……。

「さっき言ったけど、彼女が終わりに刺繍しないなら……」 ... 。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よく知ってるよ。

유가와는 손을 들어 구사나기의 말을 제지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ㄴ다。

有價와는 손을 들어 驅使나기의 말을 制止하고 걸음을 옮기기 始作했다。

유가와는 손을 들어 구사나기의 말을 제지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湯川は手を上げて草薙の言葉を止めて歩みを移し始めた。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더 말하지 않아도 돼。

「もっと言わなくてもいい。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하^ㄴ 게 있어。

그보다, 자네에게 付託할 게 있어.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어.

それより、君に頼むことがある。

“이시가미를 만나고 싶다는 거겠지.

“이時加味를 만나고 싶다는 거겠지.

“이시가미를 만나고 싶다는 거겠지.

「石神に会いたいということだろう。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와 눈이 살짝 커져^ㄴ다.

驅使나기의 말에 有價와와 눈이 살짝 커졌다.

구사나기의 말에 유가와와 눈이 살짝 커졌다.

草薙の言葉に湯川の目が少し大きくなった。

“잘도 아는군.

“잘도 아는군.

“잘도 아는군.

「よく知ってるね。

“알고말고.

“알고말고.

“알고말고。

「知らないで。

친구로 지내 ㄴ 세월이 얼마 ㄴ 데。

親舊로 지낸 歲月이 얼마데。

친구로 지낸 세월이 얼마데。

友達で過ごした歳月がどれだけ。

“이심전심이라 이거야? 하기야 아직까지는 친구니까。

“以心傳心이라 이거야? 하기야 아직까지는 親舊니까。

“이심전심이라 이거야? 하기야 아직까지는 친구니까。

「これは心の心だから? やってこそまだは友達だから。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쓸쓸하게 웃어 ㅅ 다。

그렇게 말하고 有價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하고 유가와는 쓸쓸하게 웃었다。

そう言って、ユガとは寂しく笑った。

19

19

19

19

벤치에 앉으 ㄴ 채 야스코는 꿈쩍도 하 ㄴ 수 없어 ㅅ 다。

벤치에 앉은 蔡 야스코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벤치에 앉은 채 야스코는 꿈쩍도 할 수 없었다。

ベンチに座ったまま、ヤスコはすっかりできなかった。

그 물리학자의 이야기가 그녀의 온몸을 덮쳐누르고 있어ㄴ다。

그 物理學者의 이야기가 그女の 온몸을 덮쳐누르고 있었다。

그 물리학자의 이야기가 그녀의 온몸을 덮쳐누르고 있었다。

その物理学者の話が彼女の全身を襲っていた。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무거워ㄴ다。

內容이 너무도 衝擊적이고 무거웠다。

내용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무거웠다。

内容があまりにも衝撃的で重かった。

그 무게에 그녀의 마음이 찢부러지 ㄴ 것만 같아ㄴ다。

그 무게에 그女の 마음이 찢부러질 것만 같았다。

그 무게에 그녀의 마음이 찢부러질 것만 같았다。

その重さに彼女の心がつぶれるようだった。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その人がそうまで… …。

야스코는 옆집에 사는 수학 교사를 떠올려^ㄴ다。

야스코는 옆집에 사는 數學 教師를 떠올렸다。

야스코는 옆집에 사는 수학 교사를 떠올렸다。

ヤスコは隣に住む数学教師を思い出した。

도가시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ㄴ는지에 대해 야스코는 이시가미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해^ㄴ다。

都家時の 屍體를 어떻게 處理했는지에 對해 야스코는 이時加味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도가시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야스코는 이시가미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道鹿市の死体をどのように処理したかについて、ヤスコは石神に何も言わなかった。

그런 거^ㄴ 생각하^ㄴ 필요가 없다고 그가 말해^ㄴ다。

그런 건 생각할 必要가 없다고 그가 말했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가 말했다。

そんなことは考える必要がないと彼が言った。

전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 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수화기 저편에서 담담하게 말하던 것을 그녀는 기억하 ㄴ다。

全部 自身이 알아서 處理할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受話器 저便에서 淡淡하게 말하던 것을 그女는 記憶한다。

전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수화기 저편에서 담담하게 말하던 것을 그녀는 기억한다。

全部自分が知って処理するから何も心配しないように受話器の向こうで淡々と話していたことを彼女は覚えている。

이상해 ㄴ다。

異常했다。

이상했다。

奇妙だった。

경찰이 왜 자꾸 범행 다음 날의 알리바이를 묻는지 도무지 아 ㄴ 수 없어 ㄴ다。

警察이 왜 자꾸 犯行 다음 날의 알리바이를 묻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이 왜 자꾸 범행 다음 날의 알리바이를 묻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警察がなぜ何度も犯行翌日のアリバイを尋ねるのかどうかわからなかった。

그러기 이전에 이시가미는 야스코에게 3월 10일 밤의 행동을 지시해 ㄴ다。

그러기 以前에 이時加味는 야스코에게 3月 10日 밤의 行動을 指示했다。

그러기 이전에 이시가미는 야스코에게 3월 10일 밤의 行動을 지시했다。

そうする前に石上は安子に 3月 10日夜の行動を指示した。

영화관, 라면집, 노래방, 그리고 심야의 전화。

映畫館, 라면집, 노래房, 그리고 深夜의 電話。

영화관, 라면집, 노래방, 그리고 심야의 전화。

映画館、ラーメン屋、カラオケ、そして深夜の電話。

모두 다 그의 지시에 따르 ㄴ 것이어 ㄴ지만 그 의미는 몰라 ㄴ다。

모두 다 그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意味는 몰랐다。

모두 다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몰랐다。

みんなみんな彼の指示によるものだったが、その意味は知らなかった。

형사에게 알리바이에 대해 질문을 받아 ㄴ으 ㄴ 때는 사실 그대로 대답하는 한편
으로 오히려 묻고 싶어 ㄴ다。

刑事에게 알리바이에 對해 質問을 받았을 때는 事實 그대로 對答하는 한便
으로 오히려 묻고 싶었다。

형사에게 알리바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 그대로 대답하는 한
편으로 오히려 묻고 싶었다。

刑事にアリバイについて質問を受けたときは、事実そのまま答える一方で、

むしろ尋ねたかった。

왜 3월 10일이 ㄴ지。

왜 3月 10日인지。

왜 3월 10일인지。

なぜ3月 10日なのか。

이제야 모든 것을 아 ㄴ 수 있어 ㅅ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今こそすべてが分かった。

경찰의 이해하 ㄴ 수 없는 수사가 모두 이시가미의 장치에 의하 ㄴ 것이라는 사실을。

警察の理解할 수 없는 捜査가 모두 이時加味の 装置에 依한 것이라는 事實을。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가 모두 이시가미의 장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警察の理解できない捜査がすべて石神の装置によるものだという事実を。

그러나 그 장치라는 것이 너무도 무시무시해 ㅅ다。

그러나 그 装置라는 것이 너무도 무시무시했다。

그러나 그 장치라는 것이 너무도 무시무시했다.

しかしその装置というのがあまりにも無視していた。

유가와에게 얘기를 듣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有價와에게 얘기를 듣고 그 外의 다른 方法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
으면서도 如前히 믿기지 않았다.

유가와에게 얘기를 듣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았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湯川に話を聞いて他の方法は考えられないことを知りながらもまだ信じられ
なかった。

아니, 믿고 싶지 않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いや、信じたくなかった。

이시가미가 그렇게까지 해으리라고는。

이時加味가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이시가미가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石神がそうまでしたとは。

자신과 같이 평범하고 별다른 매력도 없는 중년 여자를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려 해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自身과 같이 平凡하고 別다른 魅力도 없는 中年 女子를 爲해 스스로의 人生을 抛棄하려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과 같이 평범하고 별다른 매력도 없는 중년 여자를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려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自分のように平凡で特別な魅力もない中年女性のために自らの人生をあきらめようとしたとは考えたくなかった。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 만큼 자신이 강하지 못하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든 事實을 받아들이 만큼 自身이 強하지 못하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 만큼 자신이 강하지 못하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そしてそのすべての事実を受け入れるほど自分が強くないとヤスコは考えた。

그녀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어.

그녀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彼女は手のひらに顔を埋めた。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ㄴ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何も考えたくなかった。

유가와는 경찰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해ㄴ다。

有價와는 警察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가와는 경찰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湯川は警察に言わないと言った。

모든 것은 추론일 뿐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이제부터 어떤 길을 선택하ㄴ지는

야스코의 자유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推論일 뿐 아무 證據가 없으므로 이제부터 어떤 길을 選擇할지

는 야스코의 自由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추론일 뿐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이제부터 어떤 길을 선택할지
는 야스코의 자유라고 하면서。

すべては推論であるだけで何の証拠がないので、これからどのような道を選
ぶかは、ヤスコの自由だと言いながら。

참으로 잔혹하ㄴ 선택이 아니ㄴ 수 없어ㄴ다。

참으로 殘酷한 選擇이 아닐 수 없었다。

참으로 잔혹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確かに殘酷な選択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일어서 氣力조차 없어 돌처럼 몸을 동그랄게 만 채 앉아 있는데 누구 ㄴ가 어깨를 건드려 ㅅ다。

일어설 氣力조차 없어 돌처럼 몸을 동그랄게 만 채 앉아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건드렸다。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 돌처럼 몸을 동그랄게 만 채 앉아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건드렸다。

立ち上がる氣力すらなく、石のように体を丸くして座っているのに誰かが肩に触れた。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ㅅ다。

그女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彼女はびっくりして頭を上げた。

곁에 누구 ㄴ가 서 있어 ㅅ다。

곁에 누군가 서 있었다。

곁에 누군가 서 있었다。

そばに誰かが立っていた。

올려다보니 구도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어ㄴ다。

올려다보니 構圖가 걱정스런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올려다보니 구도가 걱정스런 눈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見上げると構図が心配な目で彼女を見下ろしていた。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なぜそう？」

구도가 왜 여기 있는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ㄴ다。

構圖가 왜 여기 있는지 얼른 理解가 가지 않았다。

구도가 왜 여기 있는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構図がなぜここなのか早く理解できなかった。

그러나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 있자니 만나기로 약속해ㄴ던 사실이 떠올라
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暫時 바라보고 있자니 만나기로 約束했던 事實이 떠올
랐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고 있자니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しかし彼の顔をしばらく見つめていると、会うことを約束した事実が浮かん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서ㄴㄹ 것이다.

約束 場所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섰을 것이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섰을 것이다.

約束場所に現れないと心配になって探しに出ただろう。

“미안해요.

“未安해요.

“미안해요.

「ごめんなさい。

……좀 피곤해서요.

……좀 疲困해서요.

…….좀 피곤해서요.

... ..少し疲れています。

달리 하ㄴ 말ㄹ 없ㄴ다.

달리 할 말ㄹ 없었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別に言うことはなかった。

그리고 실제로도 몹시 피곤해^ㅅ다.

그리고 實際로도 몹시 疲困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몹시 피곤했다.

そして実際にもすごく疲れた。

물론 몸이 아니라 정신이.

勿論 몸이 아니라 精神이.

물론 몸이 아니라 정신이.

もちろん体ではなく精神が。

“어디 아프^ㄴ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どこ病気じゃないの？」

구도가 상냥하게 묻는다.

構圖가 상냥하게 묻는다.

구도가 상냥하게 묻는다.

構図が優しく聞く。

그러나 그 상냥하ㄴ 울림도 지금의 야스코에게는 얼빠지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ㅆ다。

그러나 그 상냥한 울림도 只今の 야스코에게는 얼빠진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냥한 울림도 지금의 야스코에게는 얼빠진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しかし、その優しい響きも、今の靖子には堕ちた音でしか聞こえなかった。

진실을 알지 못하ㄴ다는 것이 때로는 크ㄴ 죄악이 되ㄴ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
리게 느끼고 있어ㅆ다。

眞實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큰 罪惡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
게 느끼고 있었다。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때로는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
게 느끼고 있었다。

眞實を知らないということが時には大きな罪惡になることを彼女は骨折して
感じていた。

자신도 조금 전까지 그래ㅆ다는 생각이 들어ㅆ다。

自身도 조금 前까지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조금 전까지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自分も少し前までそうしたという気がした。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야스코가 조금 비틀거리자 구도가 손을 내밀어왔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야스코가 조금 비틀거리자 構圖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야스코가 조금 비틀거리자 구도가 손을 내밀었다.

大丈夫です。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ありがとう。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무슨 일 있어? 顔色が 안 좋아 보이는군.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どうしたの？ 顔色が良く見えないね。

야스코는 고개를 저어왔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ヤスコは首を振った。

사정을 설명하 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事情을 説明할 수 있는 相對가 아니다.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事情を説明できる相手ではない。

아니, 그러 ㄴ 만하 ㄴ 상대는 이 세상에 없다.

아니, 그럴 만한 相對는 이 世上에 없다.

아니, 그럴 만한 상대는 이 세상에 없다.

いや、そんな相手はこの世にいない。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何もありません。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어 ㄴ 던 것뿐이에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体調が少し良くて休んでいただけです。

이제 ㄴ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もう大丈夫です。

좀 더 힘 있는 소리를 내려 해 ㄴ지만 도무지 기력이 나지 않아 ㄴ다。

좀 더 힘 있는 소리를 내려 했지만 도무지 氣力이 나지 않았다。

좀 더 힘 있는 소리를 내려 했지만 도무지 기력이 나지 않았다。

もう少し力強い音を下ろしたが、まったく氣力が出なかった。

“차가 저 앞쪽에 있는데…… 조금 더 쉬어 ㄴ다가 가 ㄴ까?”

“차가 低 앞쪽에 있는데…… 조금 더 쉬었다가 갈까?”

“차가 저 앞쪽에 있는데…… 조금 더 쉬었다가 갈까?”

「車がその前にあるのに… …もう少し休んで行きますか？」

구도의 말에 야스코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아 ㄴ다。

構圖의 말에 야스코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구도의 말에 야스코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構圖の終わりに、ヤスコは彼の顔を見上げた。

“가다니, 어디를요?”

“가다니, 어디를요?”

“가다니, 어디를요?”

「行きます、どこですか？」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어ㅆ어。

“레스토랑을 豫約해 두었어。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어。

「レストランを予約しておいた。

일곱 시로 해ㅆ지만 삼십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으ㄴ 거야。

일곱 時로 했지만 三十分 程度는 늦어도 괜찮을 거야。

일곱 시로 했지만 삼십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을 거야。

七時としたが三十分くらいは遅くても大丈夫だろう。

“아……。

“아……。

“아……。

「あ… …。

레스토랑이라는 말도 다른 세상의 것처럼 들려ㅆ다。

레스토랑이라는 말도 다른 世上의 것처럼 들렸다.

레스토랑이라는 말도 다른 세상의 것처럼 들렸다.

レストランという言葉も他の世界のように聞こえた。

이 마당에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니。

이 마당에 그런 곳에서 食事を 하다니。

이 마당에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다니。

この庭にそんなところで食事をするなんて。

이런 기분으로 억지웃음을 떠올리며 고상하ㄴ 몸짓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움직

이란 말이ㄴ가。

이런 氣分으로 억지웃음을 떠올리며 高尚한 몸짓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움

직이란 말인가。

이런 기분으로 억지웃음을 떠올리며 고상한 몸짓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움

직이란 말인가。

こんな気持ちで無理笑いを思い浮かべ、上品なジェスチャーでフォークとナ

イフを動かすというのか。

그러나 물론 구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ㄴ다。

그러나 勿論 構圖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러나 물론 구도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しかしもちろん構図には何のせいもなかった。

“죄송해요。

“罪悚해요。

“죄송해요。

「すみません。

야스코가 속삭이듯이 말해ㄴ다。

야스코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야스코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ヤスコがささやくように言った。

“도저히 그러ㄴ 기분이 아니에요。

“到底히 그럴 氣分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とてもそんな気持ちではありません。

식사는 컨디션이 좀 나아지ㄴ 다음에 하는 게 좋을ㄴ 것 같아요。

食事は 컨디션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는 컨디션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食事は体調が少し良くなった後にするのがい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좀 뭐라 ㄴ까……。

오늘은 좀 뭐랄까……。

오늘은 좀 뭐랄까……。

今日はちょっとなんだろう… …。

“아, 알아 ㄴ어。

“아, 알았어。

“아, 알았어。

「ああ、わかった。

구도가 그녀를 제지하듯이 손을 내밀어 ㄴ다。

構圖가 그녀를 制止하듯이 손을 내밀었다。

구도가 그녀를 제지하듯이 손을 내밀었다。

構図が彼女を止めるように手を差し出した。

“아무래도 그러는 편이 좋으 ㄴ 것 같군。

“아무래도 그러는 便이 좋을 것 같군。

“아무래도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군。

「どうやらそういうほうがいいようだな。

여러 가지 일을 겪어 ㄴ으니 피곤하 ㄴ 것도 당연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니 疲困한 것도 當然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으니 피곤한 것도 당연해。

色々なことを経験したので疲れたのも当然。

오늘은 여유 있게 쉬는 게 좋겠어。

오늘은 餘裕 있게 쉬는 게 좋겠어。

오늘은 여유 있게 쉬는 게 좋겠어。

今日はゆっくり休んでほしい。

생각해 보니 불안정하ㄴ 나날들이 계속돼 오ㄴ 것 같아。

생각해 보니 不安定한 나날들이 繼續돼 온 것 같아。

생각해 보니 불안정한 나날들이 계속돼 온 것 같아。

考えてみると不安定な日々が続いてきたようだ。

쉬도록 해 줘ㄴ어야 하는데 내가 미처 신경을 못 써ㄴ어。

쉬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내가 미처 神經을 못 썼어。

쉬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내가 미처 신경을 못 썼어。

休むようにし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私があまり気にしなかった。

미안해。

未安해。

미안해。

ごめんなさい。

진심으로 사과하는 구도를 보며 야스코는 새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ㄴ다。

眞心으로 謝過하는 構圖를 보며 야스코는 새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구도를 보며 야스코는 새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心から謝罪する構図を見て、ヤスコは改めて本当に良い人だと思った。

마음 깊이 야스코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마음 깊이 야스코를 所重히 여기고 있다。

마음 깊이 야스코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心深くヤスコを大切にしている。

이토록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으ㄴ데 자신은 어째서 행복하지 못하ㄴ까。

이토록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自身은 어째서 幸福하지 못할까。

이토록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어째서 행복하지 못할까。

こんなに愛してくれる人が多いのに自分はなぜ幸せになれないだろうか。

그런 생각을 하니 허탈하기 짝이 없어ㄴ다。

그런 생각을 하니 虛脫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そんな思いをしたら、ハタるつもりはなかった。

구도에게 등을 떼밀리다시피 하며 걸어^ㄴ다.

構圖에게 등을 떼밀리다시피 하며 걸었다.

구도에게 등을 떼밀리다시피 하며 걸었다.

構図に背中を固めたように歩いた。

구도의 차는 몇 십 미터 떨어지^ㄴ 노상에 세워져 있어^ㄴ다.

構圖의 車는 몇 十 미터 떨어진 路上에 세워져 있었다.

구도의 차는 몇 십 미터 떨어진 노상에 세워져 있었다.

構図の車は数十メートル離れた路上に建てられていた。

그가 “바래다주^ㄴ게.

그가 “바래다줄게.

그가 “바래다줄게.

彼は「願います。

”라고 말해^ㄴ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と言った。

머릿속으로는 거절해야 하다고 생각해^ㅅ지만 받아들이고 말아^ㅅ다.

머릿속으로는 拒絶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고 말았다.

머릿속으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고 말았다.

頭の中では拒絶すべきだと思ったが受け入れてしまった。

집까지 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져^ㅅ던 것이다.

집까지 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집까지 가는 길이 아득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家まで行く道はとても感じられたのだ。

“정말 괜찮은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줘^ㅅ으면 좋겠
어.

“正말 괜찮은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
어.

“정말 괜찮은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
어.

「本当に大丈夫ですか？何があったら隠さずに話してくれたらいいな。

차에 올라타자 구도가 다시 말해ㄴ다.

車에 올라타자 構圖가 다시 말했다.

차에 올라타자 구도가 다시 말했다.

車に乗ると構図が再び言った。

지금 야스코의 얼굴로 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ㄴ지도 몰라ㄴ다.

只今 야스코의 얼굴로 봐서는 神經이 쓰이는 게 當然할지도 몰랐다.

지금 야스코의 얼굴로 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할지도 몰랐다.

今ヤスコの顔で見ては気になるのが当然かもしれない。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はい、大丈夫です。

미안해요.

未安해요.

미안해요.

すみません。

야스코는 구도에게 웃어 보여ㄴ다.

야스코는 構圖에게 웃어 보였다。

야스코는 구도에게 웃어 보였다。

ヤスコは構図に笑って見えた。

있는 힘을 다 쥐어짜 ㄴ 연기여 ㄴ다。

있는 힘을 다 쥐어짤 演技였다。

있는 힘을 다 쥐어짤 연기였다。

ある力をすべて握った演技だった。

여러 의미에서 미안하 ㄴ 마음이 가득해 ㄴ다。

여러 意味에서 未安한 마음이 가득했다。

여러 의미에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

いろいろな意味でごめんな心がいっぱいだった。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해 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記憶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そしてその心がある記憶を思い出させた。

바로 구도가 오늘 만나자고 하 ㄴ 이유여 ㄴ다。

바로 構圖가 오늘 만나자고 한 理由였다。

바로 구도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였다.

まさに構図が今日会おうとした理由だった。

“저, 긴히 하 ㄴ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나 ㄴ나요?”

“저, 緊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私、短くする話があると言っていないせんか？」

“응, 그렇기 ㄴ 하 ㄴ데……。

“응, 그렇긴 한데……。

“응, 그렇긴 한데……。

「うん、そうなのに……」 ... 。

그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려 ㄴ다。

그가 視線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가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彼は視線を落とした。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次にしないで。

“그러시 ㄴ 래요?”

“그러실래요?”

“그러실래요?”

「そうですか？」

“응。

“응。

“응。

「うん。

구도가 차의 시동을 걸어 ㄴ 다。

構圖가 車의 始動을 걸었다。

구도가 차의 시동을 걸었다。

構図가 車의 始動을かけた。

그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맡기 ㄴ 채 야스코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아 ㄴ 다。

그가 運轉하는 次에 몸을 맡긴 蔡 야스코는 窓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운전하는 차에 몸을 맡긴 채 야스코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彼が運轉する車に身を任せたまま、ヤスコは窓の外をぼやけて見つめた。

날이 저물어 거리가 밤의 얼굴로 변하고 있어 ㄴ다。

날이 저물어 거리가 밤의 얼굴로 變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거리가 밤의 얼굴로 변하고 있었다。

日が暮れて街が夜の顔に変わっていた。

이대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히 ㄴ 채 세상이 끝나 버리 ㄴ다면 얼마나 좋으 ㄴ
까。

이대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힌 채 世上이 끝나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
까。

이대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힌 채 세상이 끝나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
까。

このまますべてが闇の中に埋もれたまま世の中が終わってしまうとしたらど
れだけいいのか。

이윽고 구도가 연립 주택 앞에서 차를 세워 ㄴ다。

이윽고 構圖가 聯立 住宅 앞에서 車を 세웠다。

이윽고 구도가 연립 주택 앞에서 차를 세웠다。

やがて構図が連立住宅の前で車を建てた。

“그럼 편히 쉬어。

“그럼 便히 쉬어。

“그럼 편히 쉬어.

「じゃありラックス。

또 연락하_ㄴ게。

또 連絡할게。

또 연락할게。

また連絡します。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야스코가 차 문을 열려고 해_ㄴ으_ㄴ 때여_ㄴ다。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야스코가 車 門을 열려고 했을 때였다。

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야스코가 차 문을 열려고 했을 때였다。

はい、と首をうなずいたヤスコが車のドアを開こうとした時だった。

구도가 “잠깐만。

構圖가 “잠깐만。

구도가 “잠깐만。

構図が「ちょっと待って。

” 하고 그녀를 불러_ㄴ다。

” 하고 그女를 불렀다。

” 하고 그녀를 불렀다。

」と彼女を呼んだ。

야스코가 뒤돌아보자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더니 핸들을 탁탁 두드려ㅅ다。

야스코가 뒤돌아보자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더니 핸들을 탁탁 두드렸다。

야스코가 뒤돌아보자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더니 핸들을 탁탁 두드렸다。

ヤスコが振り返ってみると、彼は舌で唇を縮め、ハンドルを濁りたたいた。

그리고 곧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ㅅ다。

그리고 곧 洋服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곧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そしてすぐにスーツのポケットに手を入れた。

“역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亦是 只今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역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やっぱり今話した方がいいよ。

“월요?”

“월요?”

“월요?”

「何?」

구도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케이스를 꺼내었다.

構圖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케이스를 꺼냈다.

구도가 주머니에서 조그만 케이스를 꺼냈다.

構図がポケットから小さなケースを取り出した。

그게 무엇이인지 야스코는 한눈에 알 수 있어었다.

그게 무엇인지 야스코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야스코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それが何なのか、ヤスコは一目でわかった。

“이런 거 말이야,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거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지만, 그래도 형식은 지키고 싶어서……。

“이런 거 말이야,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거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形式은 지키고 싶어서……。

“이런 거 말이야,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거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식은 지키고 싶어서……。

「こんなことなんだよ、テレビドラマみたいなものによく出てるからあまりやりたくなかったけど、それでも形式は守りたくて……」 ……。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야스코의 눈앞에서 케이스를 열어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야스코의 눈앞에서 케이스를 열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야스코의 눈앞에서 케이스를 열었다.

そこまで言って彼は、ヤスコの目の前でケースを開いた。

반지여ㄴ다。

半指였다。

반지였다。

リングだった。

커다라ㄴ 다이아몬드가 화려하ㄴ 빛을 뿜어내고 있어ㄴ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華麗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大きなダイヤモンドが華やかな光を吹き出していた。

“구도 씨……。

“構圖 氏……。

“구도 씨……。

「構図さん… …。

야스코는 아연하ㄴ 표정으로 구도의 얼굴을 바라보아ㄴ다。

야스코는 俄然한 表情으로 構圖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스코는 아연한 표정으로 구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ヤスコは亜鉛の表情で構図の顔を眺めた。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只今 當場 對答하지 않아도 돼。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

「今すぐ答えなくてもいい。

미사토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니까。

미사討議 마음도 생각해야 하니까。

미사토의 마음도 생각해야 하니까。

ミサトの心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

물론 그 이전에 야스코 본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말이야。

勿論 그 以前에 야스코 本人의 마음이 더 重要하지만 말이야。

물론 그 이전에 야스코 본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말이야。

もちろん、それ以前にヤスコ本人の心がもっと大事だがね。

다만 한 가지, 내가 일시적이 ㄴ 기분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 줘 ㄸ

으면 해。

다만 한 가지, 내가 一時的인 氣分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

줬으면 해。

다만 한 가지, 내가 일시적인 기분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
줬으면 해。

ただ一つ、私が一時的な気持ちでこんなこ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けは分か
ってほしい。

나 ㄴ 야스코와 미사토를 행복하게 해 주 ㄴ 자신이 있어。

난 야스코와 미사토를 幸福하게 해 줄 自身이 있어。

난 야스코와 미사토를 행복하게 해 줄 자신이 있어。

俺は靖子とミサトを幸せにしてくれる自分がいる。

그는 야스코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케이스를 올려놓아 ㄴ 다。

그는 야스코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케이스를 올려놓았다。

그는 야스코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케이스를 올려놓았다。

彼はヤスコの手を握ってその上にケースを置いた。

“이거 ㄴ 받아 ㄴ 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 ㄴ 필요는 없어。

“이걸 받았다고 해서 負擔을 느낄 必要는 없어。

“이걸 받았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어。

「これを受けたからといって負担を感じる必要はない。

이거 ㄴ 그저 선물이 ㄴ 뿐이니까。

이건 그저 膳物일 뿐이니까。

이건 그저 선물일 뿐이니까。

これはただの贈り物だけだから。

하지만 만일 야스코가 앞으로의 인생을 나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반지는 의미를 지니게 될 거야。

하지만 萬一 야스코가 앞으로의 人生을 나와 함께하겠다고 決心한다면 이 半指는 意味를 지니게 될 거야。

하지만 만일 야스코가 앞으로의 인생을 나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반지는 의미를 지니게 될 거야。

だが、もし靖子がこれからの人生を私と一緒にやろうと決心すれば、この指輪は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だろう。

어때, 생각해 보겠어?"
어때, 생각해 보겠어?"
어때, 생각해 보겠어?"
どうだと思えますか？」

조그마한 케이스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야스코는 망연자실해 ㄴ다。

조그만 케이스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야스코는 茫然自失했다。

조그만 케이스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야스코는 망연자실했다。

小さなケースの重さを手のひらで感じながら、ヤスコは唐然とした。

너무 놀라 ㄴ 나머지 구도의 고백은 절반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 ㄴ다。

너무 놀란 나머지 構圖의 告白은 折半도 그女の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구도의 고백은 절반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あまりにも驚いた残りの構図の告白は半分も彼女の耳に入ってこなかった。

그러 ㅁ에도 구도가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아 ㅁ 수 있어 ㅁ고 그것은 그녀를 혼란에 빠지게 해 ㅁ다。

그럼에도 構圖가 意圖하는 바는 充分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混亂에 빠지게 했다。

그럼에도 구도가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それでも構図が意図することは十分に分かり、それは彼女を混乱に陥らせた。

“미안해。

“未安해。

“미안해。

「ごめんなさい。

너무 갑작스럽지?”

너무 갑작스럽지?”

너무 갑작스럽지?”

とても突然ですか？」

구도가 겸연쩍게 웃어댔다.

構圖が 慚然쩍게 웃었다.

구도가 겸연쩍게 웃었다.

構図が謙虚に笑った。

“서둘러 대답하 ㄴ 필요는 없어.

“서둘러 對答할 必要는 없어.

“서둘러 대답할 필요는 없어.

「急いで答える必要はない。

미사토와 의논해 봐도 좋고.

미사토와 議論해 봐도 좋고.

미사토와 의논해 봐도 좋고.

ミサトと相談してみてもいいし。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야스코의 손바닥 위에 놓이 ㄴ 케이스의 뚜껑을 닫아댔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야스코의 손바닥 위에 놓인 케이스의 뚜껑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야스코의 손바닥 위에 놓인 케이스의 뚜껑을 닫았다.

そう言って、彼はヤスコの手のひらの上に置かれたケースの蓋を閉めた。

“기다리 ㄴ게.

“기다릴게.

“기다릴게.

「待つよ。

야스코는 하_レ 말이 떠오르지 않아_ス다.

야스코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야스코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ヤスコは言葉が思い浮かばなかった。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_ス다.

온갖 想念이 머릿속을 스쳤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쳤다.

いろいろな想念が頭の中を通り過ぎた。

그중에는 이시가미에 대하_レ 것도, 아니, 그게 거의 전부인지도 몰라_ス다.

그中에는 이時加味에 對한 것도, 아니, 그게 거의 全部認知도 몰랐다.

그중에는 이시가미에 대한 것도, 아니, 그게 거의 전부인지도 몰랐다.

その中には石上についてのことも、いや、それがほぼ全部なのかもしれなかった。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겠어요。

「考えてみましょう。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ㄴ다。

그렇게 對答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そう答えるのが精々だった。

구도가 알아^ㄴ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ㄴ다。

構圖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도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構圖が分かったように首をうなずいた。

그 모습을 보며 야스코는 차에서 내려^ㄴ다。

그 모습을 보며 야스코는 車에서 내렸다。

그 모습을 보며 야스코는 차에서 내렸다。

その姿を見て、ヤスコは車から降りた。

구도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ㄴ 후 야스코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해^ㄴ다。

構圖의 車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後 야스코는 돌아서서 집으로 向했다。

구도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후 야스코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構図の車が遠くなるのを見た後、ヤスコは回って家に向かった。

현관문을 열려던 그녀의 눈길이 이시가미의 집 쪽으로 향해ㄴ다.

玄關門을 열려던 그女の 눈길이 이時加味の 집 쪽으로 向했다.

현관문을 열려던 그녀의 눈길이 이시가미의 집 쪽으로 향했다.

玄關門を開けていた彼女の目が石神の家に向かった。

우편함에 우편물이 넘쳐 나고 있어ㄴ지만 신문은 없어ㄴ다.

郵便函에 郵便物が 넘쳐 나고 있었지만 新聞은 없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넘쳐 나고 있었지만 신문은 없었다.

郵便箱に郵便物があふれていたが新聞はなかった。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이시가미가 해지해ㄴ으ㄴ 것이다.

警察에 出頭하기 前に 이時加味が 解止했을 것이다.

경찰에 출두하기 전에 이시가미가 해지했을 것이다.

警察に出頭する前に石神が終了しただろう。

그 정도의 치밀하ㄴ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程度의 緻密함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의 치밀함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その程度の緻密さは彼には何もない。

미사토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ㄴ다。

미사토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다。

미사토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다。

ミサトはまだ入っていない。

야스코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토해ㄴ다。

야스코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토했다。

야스코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토했다。

ヤスコは床に座り、長くため息を吐いた。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옆에 있는 서랍을 열어ㄴ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それからふと浮かぶのがあり、隣にある引き出しを開けた。

그리고 맨 안쪽에 들어 있던 과자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어ㄴ다。

그리고 맨 안쪽에 들어 있던 菓子 箱子を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맨 안쪽에 들어 있던 과자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そして一番奥に入っていたお菓子箱を取り出し、ふたを開けた。

상자 안에는 우편물들이 들어 있어ㄴ다。

箱子 内에는 郵便物들이 들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우편물들이 들어 있었다。

箱の中には郵便物が入っていた。

그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빼내ㄴ다。

그 맨 밑에서 封套 하나를 빼냈다。

그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빼냈다。

その一番下から封筒を取り出した。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 봉투에는 글자가 빼곡히 적힌 리포트 용지가
한 장 들어 있어ㄴ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 封套에는 글자가 빼곡히 적힌 리포트 用紙가
한 張 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그 봉투에는 글자가 빼곡히 적힌 리포트 용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何も書かれていないその封筒には、文字が細かく書かれたレポート用紙が一
枚入っていた。

그것은 이시가미가 마지막 전화를 걸기 전에 야스코의 집 우편함에 넣어 두ㄴ
것이어ㄴ다。

그것은 이時加味가 마지막 電話를 걸기 前に 야스코의 집 郵便函에 넣어
둔 것이었다。

그것은 이시가미가 마지막 電話를 걸기 前に 야스코의 집 우편함에 넣어
둔 것이었다。

それは石神が最後の電話をかける前に、ヤスコの家のメールボックスに入れ
ておいたものだった。

그 문서와 함께 편지 3통이 들어 있어ㄴ다。

그 文書와 함께 便紙 3 通이 들어 있었다。

그 문서와 함께 편지 3통이 들어 있었다。

その文書とともに手紙 3 通が入っていた。

3통 모두 그가 야스코의 스토커여ㄴ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어ㄴ다。

3 通 모두 그가 야스코의 스토커였다는 것을 立證하는 内容이었다。

3통 모두 그가 야스코의 스토커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었다。

3 通とも彼がヤスコのストーカーだったことを立証する内容だった。

현재 그 3통의 편지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現在 그 3 通의 便紙는 警察이 保管하고 있다。

현재 그 3통의 편지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現在、その 3 通の手紙は警察が保管している。

문서에는 편지의 사용 방법과, 조만간 그녀를 찾아오는 형사들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있다.

文書에는 便紙의 使用 方法과, 早晚間 그女를 찾아올 刑事들에 對한 對應
要領 등이 詳細히 적혀 있었다.

문서에는 편지의 사용 방법과, 조만간 그녀를 찾아올 형사들에 대한 대응
요령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文書には手紙の使い方と、近いうちに彼女を訪ねてくる刑事に対する対応コ
ツなどが詳細に書かれていた。

야스코뿐 아니라 미사토에 대한 지시 사항도 있어있다.

야스코뿐 아니라 미사토에 對한 指示 事項도 있었다.

야스코뿐 아니라 미사토에 대한 지시 사항도 있었다.

ヤスコだけでなくミサトに対する指示もあった。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오카 모녀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흔들
리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마음이 그 정성 들인 글에는 들어 있어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오카 母女가 어떤 質問을 받더라도 흔들
리지 않게 하려는 配慮의 마음이 그 精誠 들인 글에는 들어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오카 모녀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배려의 마음이 그 정성 들인 글에는 들어 있었다.

今後起こる事を見下ろして、花岡母女がどんな質問を受けても揺れないよう

にしようとする配慮の心が、その真心である文には入っていた。

덕분에 야스코도 미사토도 허둥대지 않고 당당하게 형사들을 대하_ㄴ 수 있어_ㄴ다。

徳分に 야스코도 미사토도 허둥대지 않고 堂堂하게 刑事들을 對할 수 있었
다。

덕분에 야스코도 미사토도 허둥대지 않고 당당하게 형사들을 대할 수 있
었다。

おかげで、ヤスコもミサトも喧嘩せず堂々と刑事たちに対処できた。

야스코는 이제 와서 서투르게 대응해 거짓말이 탄로 나면 이시가미의 이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마_ㄴ 거라는 생각이 들어_ㄴ다。

야스코는 이제 와서 서투르게 對應해 거짓말이 綻露 나면 이市街美의 이
모든 苦生이 물거품이 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스코는 이제 와서 서투르게 대응해 거짓말이 탄로 나면 이시가미의 이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ヤスコはもう来て不器用に対応して嘘が打たれたら石上のこのすべての苦勞
が水泡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と思われた。

문서 말미에 다음과 같으_ㄴ 대목이 있어_ㄴ다。

文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

문서 말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

文書末尾に次のような課題があった。

“구도 구니아키 씨는 성실하고 믿으 ㄴ 수 있는 사람이 ㄴ 것 같습니다。

“構圖 區니아키 氏は 誠實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도 구니아키 씨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構図グニアキさんは誠実で信頼できる人のようです。

그와 결합하 ㄴ다면 당신과 미사토가 행복해지 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結合한다면 當身과 미사토가 幸福해질 可能性이 높습니다。

그와 결합한다면 당신과 미사토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彼と組み合わせると、あなたとミサトが幸せになる可能性が高いです。

나에 대해서는 모두 잊으시기 바라 ㅂ니다。

나에 對해서는 모두 잊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모두 잊으시기 바랍니다。

私についてはすべて忘れてください。

결코 죄책감 같으 ㄴ 거 ㄴ 가져서는 안 되 ㅂ니다。

決코 罪責感 같은 걸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죄책감 같은 걸 가져서는 안 됩니다。

決して罪惡感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はいけません。

당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나의 행위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 테니까요。

當身が幸福해지지 않는다면 나의 行爲는 모두 虚事が 되고 말 테니까요。

당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나의 행위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 테니까요。

あなたが幸せにならなければ私の行為はみんな虚偽になってしまいますから。

글을 다시 읽으니 야스코는 눈물을 흘려냈다。

글을 다시 읽은 야스코는 눈물을 흘렸다。

글을 다시 읽은 야스코는 눈물을 흘렸다。

文を読んだヤスコは涙を流した。

지금까지 이토록 깊은 애정에 감싸여 본 적이 없어냈다。

只今까지 이토록 깊은 愛情에 감싸여 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토록 깊은 애정에 감싸여 본 적이 없었다。

これまでこんなに深い愛情に包まれたことがなかった。

아니, 애당초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와냈다。

아니, 애當初 그런 것이 이 世上에 存在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아니, 애당초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

いや、そもそもそんなことがこの世に存在するのかさえ知らず生きてきた。

이시가미의 저 무표정한 얼굴 아래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애정이 자리하고 있어왔던 것이다。

이時加味の 低 無表情한 얼굴 아래 平凡한 사람은 到底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愛情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시가미의 저 무표정한 얼굴 아래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石神のあの無表情な顔の下、平凡な人はとてもその深さが分からない愛情が位置していたのだ。

그가 자수해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냈을 때는 단지 자신들을 대신해 출두해왔다고만 생각해왔다。

그가自首했다는事實을 처음 알았을 때는 但只 自身들을 代身해 出頭했다고만 생각했다。

그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단지 자신들을 대신해 출두했다고만 생각했다。

彼が刺繍したという事実を初めて知った時は、ただ自分たちに代わって出頭したとだけ考えた。

그러나 유가와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 이 문서에 담긴 이시가미의 마음이 야스코의 가슴을 세차게 찔러왔다。

그러나 有價와의 이야기를 듣고 난 只今, 이 文書에 담긴 이時加味の 마음李

야스코의 가슴을 세차게 찔렀다.

그러나 유가와와 얘기를 듣고 난 지금, 이 문서에 담긴 이시가미의 마음
이 야스코의 가슴을 세차게 찔렀다.

しかし、湯川の話聞いて、私は今、この文書に込められた石神の心が、ヤ
スコの胸をしっかりと刺した。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해 버리 ㄴ 까도 생각해 ㄴ 다.

警察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해 버릴까도 생각했다.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해 버릴까도 생각했다.

警察に行ってすべてを言うてしまうかと思った。

그러나 그런다 한들 이시가미를 구하 ㄴ 수는 없으 ㄴ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 恨들 이市加味를 求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 한들 이시가미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しかし、そういうわけで石神を救う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그가 살인을 저지르 ㄴ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가 殺人을 저지른 것 또한 事實이므로.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 또한 사실이므로.

彼が殺人を犯したのも事実なので。

구도에게 받으 ㄴ 반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와 ㄴ 다.

構圖에게 받은 半指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구도에게 받은 반지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構図から受けたリングケースが目に入った。

뚜껑을 열고 반지의 영롱하_ㄴ 빛을 바라보아_ㄴ다.

뚜껑을 열고 半指의 玲瓏한 빛을 바라보았다.

뚜껑을 열고 반지의 영롱한 빛을 바라보았다.

ふたを開けて指輪の影の光を眺めた。

이렇게 되_ㄴ 이상 이시가미의 희망대로 행복을 거머쥐는 것이 현명하_ㄴ지도 몰라_ㄴ다.

이렇게 된 以上 이市街美의 希望대로 幸福을 거머쥐는 것이 賢명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된 이상 이시가미의 희망대로 행복을 거머쥐는 것이 현명한지도 몰랐다.

こうなった以上石神の希望通り幸福を握るのが賢明かもしれなかった。

그가 문서에 써_ㄴ듯이 여기서 꺾이면 그의 고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가 文書에 썼듯이 여기서 꺾이면 그의 苦生은 모두 虛事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가 문서에 썼듯이 여기서 꺾이면 그의 고생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彼が文書に書いたようにここで折れば、彼の苦勞はすべて虚死になってしまうのだ。

물론 진실을 숨기 ㄴ다는 것은 괴로우 ㄴ 일이다。

勿論 眞實을 숨긴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물론 진실을 숨긴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もちろん眞實を隠すというのは辛いことだ。

진실을 숨기고 행복을 거머쥐 ㄴ다 하 ㄴ들 진정하 ㄴ 행복감을 느끼 ㄹ 수는 없으 ㄹ 것이다。

眞實을 숨기고 幸福을 거머쥔다 한들 眞正한 幸福感を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을 숨기고 행복을 거머쥔다 한들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眞實を隠して幸せを握る限り、眞の幸せ感を感じ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

평생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일조차 없으 ㄹ 것이다。

平生 自責感を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勿論 마음의 平安을 누리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평생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生涯自責感を抱い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もちろん、心の平安を味わうことさえないだろう。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이시가미에게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ㄴ지도 모르^ㄴ다고 야스코는 생각해^ㄴ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이時加味에게는 最小限의 慰勞가 될지도 모른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이시가미에게는 최소한의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しかし、それを参考に耐えることが石上にとっては、最小限の慰め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ヤスコは考えた。

반지를 약지에 끼어 보아^ㄴ다.

半指를 藥指에 끼어 보았다。

반지를 약지에 끼어 보았다。

リングを薬指に挟んでみた。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나^ㄴ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났다。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났다。

ダイヤモンドが美しく輝いた。

구름 한 점 없는 마음으로 구도 곁으로 달려가 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 ㄴ
까。

구름 한 點 없는 마음으로 構圖 곁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幸福할
까。

구름 한 점 없는 마음으로 구도 곁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까。

雲一点のない心で構図のそばに走って行けたらどれくらい幸せだろうか。

그러나 그것은 이루 ㄴ 수 없는 꿈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를 수 없는 꿈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를 수 없는 꿈이다。

しかしそれは成し遂げられない夢だ。

자신에게 맑으 ㄴ 날은 찾아오지 않으 ㄴ 것이다。

自身에게 맑은 날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맑은 날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自分に晴れた日はやって来ないだろう。

오히려 마음에 구름 한 점 없는 사람은 이시가미이 ㄴ 것이라고 야스코는 생각
해 ㄴ 다。

오히려 마음에 구름 한 點 없는 사람은 이시가미일 것이라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오히려 마음에 구름 한 점 없는 사람은 이시가미일 것이라고 야스코는 생각했다。

むしろ氣に雲一点ない人は石神であるとヤスコは考えた。

반지를 케이스에 넣고 있는데 휴대 전화가 울려ㄴ다。

半指를 케이스에 넣고 있는데 携帶 電話가 울렸다。

반지를 케이스에 넣고 있는데 휴대 전화가 울렸다。

リングをケースに入れているのに携帯電話が鳴った。

액정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ㄴ다。

液晶 畫面을 보니 모르는 番號가 表示되어 있었다。

액정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液晶画面を見ると分からない番号が表示されていた。

네, 하고 전화를 받아ㄴ다。

네, 하고 電話를 받았다。

네, 하고 전화를 받았다。

はい、と電話を受けた。

“여보세요, 하나오카 미사토 양의 어머니이시 ㅂ니까?”

“여보세요, 하나오카 미사토 嬢의 어머니이십니까?”

“여보세요, 하나오카 미사토 양의 어머니이십니까?”

「こんにちは、花岡みさとさんのお母さんですか？」

들어 보 ㄴ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여 ㅅ 다。

들어 본 적 없는 男子의 목소리였다。

들어 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聞いたことのない男の声だった。

“네, 그러 ㄴ 데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はい、そうです。

불길하 ㄴ 예감이 들어 ㅅ 다。

不吉한 豫感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不吉な予感が聞こえた。

“저는 모리시타 미나미 중학교의 사카노라고 하 ㅅ ㅅ니다。

“저는 모리시타 미나美 中學校의 史카노라고 합니다。

“저는 모리시타 미나미 중학교의 사카노라고 합니다。

「私は森下南中学校の坂野だそうです。

불쑥 전화 드려 죄송하 ㅂ니다。

불쑥 電話 드려 罪悚합니다。

불쑥 전화 드려 죄송합니다。

ごめんなさい、申し訳ありません。

미사토가 다니는 학교여 ㅅ다。

미사토가 다니는 學校였다。

미사토가 다니는 학교였다。

ミサトが通う学校だった。

“저, 미사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저, 미사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저, 미사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私、ミサトに何がありますか？」

“실은, 조금 전에 미사토가 체육관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ㅅ습니다。

“實은, 조금 前に 미사토가 體育館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미사토가 체육관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実は、少し前にミストがジムの後ろに倒れているのを発見しました。

그런데 그게, 저…… 아무래도 손목을 칼로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아무래도 손목을 칼로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 아무래도 손목을 칼로 그은 것 같습니다。

ところでそれが、私… …どうやら手首をナイフで描いたようです。

“네에?”

“네에?”

“네에?”

「は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듯해ㄴ다。

心臟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듯했다。

心臟がクン、降りながら息が止まるようだった。

“출혈이 심해서 병원으로 곧장 옮겨ㄴ습니다。

“出血이 甚해서 病院으로 곧장 옮겼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병원으로 곧장 옮겼습니다。

「出血がひどくて病院にまっすぐに移しました。

그렇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그렇지만 生命에는 支障이 없다고 하니 安心하세요。

그렇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でも命には支障がないと言うので安心してください。

다만, 저, 자살 미수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을 알아 두십사 하고……。

다만, 저, 自殺 未遂의 可能性이 있으니 그 點을 알아 두十史 하고……。

다만, 저, 자살 미수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 점을 알아 두십사 하고……。

ただ、私、自殺未遂の可能性があるのでその点を知っておいてください。

… 。

상대가 하는 말의 뒷부분은 야스코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ㅅ다。

相對가 하는 말의 뒷部分은 야스코의 귀에 全然 들어오지 않았다。

상대가 하는 말의 뒷부분은 야스코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相手がする言葉の後部は、ヤスコの耳に全く入ってこなかった。

눈앞의 벽에 무수히 얼룩이 젖 있다。

눈앞의 壁에 無數히 얼룩이 젖 있다。

눈앞의 벽에 무수히 얼룩이 젖 있다。

目の前の壁に無数に汚れている。

그중 몇 개의 점을 선택해 머릿속에서 직선으로 연결하_ㄴ다.

그中 몇 個의 點을 選擇해 머릿속에서 直線으로 連結한다.

그중 몇 개의 점을 선택해 머릿속에서 직선으로 연결한다.

その中でいくつかの点を選択して頭の中から直線で連結する。

삼각형과 사각형과 육각형을 조합하_ㄴ 도형이 만들어져_ㄴ다.

三角形과 四角形과 六角形을 組合한 圖形이 만들어졌다.

삼각형과 사각형과 육각형을 조합한 도형이 만들어졌다.

三角形と四角形と六角形を組み合わせた図形が作られた。

그것을 네 가지 색으로 나누어 칠하_ㄴ다.

그것을 네 가지 色으로 나누어 漆한다.

그것을 네 가지 색으로 나누어 칠한다.

それを4色に分けて塗る。

이웃하_ㄴ 도형이 같으_ㄴ 색이어서는 안 되_ㄴ다.

이웃한 圖形이 같은 色이어서는 안 된다.

이웃한 도형이 같은 색이어서는 안 된다.

隣の図形が同じ色であってはならない。

물론 이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勿論 이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作業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作業이다。

もちろん、これはすべて頭の中で行われる作業です。

그 과제를 이시가미는 1분 안에 해치워 ㄴ다。

그 課題를 이時加味는 1分 안에 해치웠다。

그 과제를 이시가미는 1분 안에 해치웠다。

その課題を石神は1分以内に害した。

그는 머릿속 그 도형을 지우고 다른 점들을 선택해 똑같은 作業을 반복해 ㄴ다。

그는 머릿속 그 圖形을 지우고 다른 點들을 選擇해 똑같은 作業을 反復했다。

그는 머릿속 그 도형을 지우고 다른 점들을 선택해 똑같은 作業을 반복했다。

彼は頭の中のその図形を消去し、他の点を選択して同じ作業を繰り返した。

단순하 ㄴ 작업이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지겨워지는 법은 없다。

單純한 作業이지만 아무리 反復해도 지겨워지는 法은 없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지겨워지는 법은 없다。

単純な作業だがいくら繰り返しても疲れてしまうことはない。

만일 이 4색문제에 실증이 나면 이번에는 벽의 점들을 이용해 해석 문제를 만드나.

萬一 이 4色問題에 실증이 나면 이쪽에는 壁의 點들을 利用해 解釋 問題를 만든다.

만일 이 4색문제에 실증이 나면 이번에는 벽의 점들을 이용해 해석 문제를 만든다.

もしこの4色問題にうんざりしたら今回は壁の点を利用して解析問題を作る。

벽에 있는 모든 얼룩의 좌표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나 것이다.

壁에 있는 모든 얼룩의 座標를 計算하는 것만으로도 相當히 時間이 걸릴 것이다.

벽에 있는 모든 얼룩의 좌표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壁にあるすべての汚れの座標を計算するだけでもかなり時間がかかります。

신체를 구속당하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해나.

身體를 拘束當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신체를 구속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身体を拘束されるのは何もないと彼は考えた。

종이와 펜만 있으면 수학 문제와 씨름하 ㄴ 수 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數學 問題와 씨름할 수 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수학 문제와 씨름할 수 있다.

紙とペンさえあれば数学の問題と付き合うことができる。

만일 손발이 묶이 ㄴ 다면 머릿속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되 ㄴ 다.

萬一 손발이 묶인다면 머릿속에서 그런 作業을 하면 된다.

만일 손발이 묶인다면 머릿속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된다.

もし手足が結ばれたら頭の中でそのような作業をすればよ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何も見えず何も聞こえなくても。

그 누구도 그의 두뇌까지 손을 뻗으 ㄴ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그의 頭腦까지 손을 뻗을 수는 없다.

그 누구도 그의 두뇌까지 손을 뻗을 수는 없다.

誰も彼の脳まで手を伸ばすことはできない。

그곳은 그에게 무한의 낙원이다.

그곳은 그에게 無限의 樂園이다。

그곳은 그에게 無限의 낙원이다。

そこは彼に無限の樂園だ。

수학이라는 광맥이 잠들어 있으니 그것을 모두 채굴하는 데는 평생이라는 시간도 짧다。

數學이라는 光脈이 잠들어 있으니 그것을 모두 採掘하는 데는 平生이라는 時間도 짧다。

수학이라는 광맥이 잠들어 있으니 그것을 모두 채굴하는 데는 평생이라는 시간도 짧다。

数学という光脈が眠っているので、それをすべて採掘するには一生という時間も短い。

남에게 인정받으 ㄴ 필요도 없다고 그는 생각해 ㅅ 다。

男에게 認定받을 必要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他人に認められる必要もないと彼は考えた。

논문을 발표해 평가받고 싶으 ㄴ 욕망은 있다。

論文을 發表해 評價받고 싶은 欲望은 있다。

논문을 발표해 평가받고 싶은 욕망은 있다。

論文を發表して評価されたいという欲望はある。

그러나 그것은 수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數學의 本質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학의 본질이 아니다。

しかし、それは数学の本質ではありません。

누가 최초로 그 산을 오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역시 본인만 알면 그만이다。

누가 最初로 그 山을 오르느냐도 重要하지만 그것 亦是 本人만 알면 그만이다。

누가 최초로 그 산을 오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 역시 본인만 알면 그만이다。

誰が最初にその山を登るのかも重要だが、それも本人だけ知れば止める。

물론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는 이시가미도 시간이 필요해ㄴ다。

勿論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는 이時加味도 時間이 必要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는 이시가미도 시간이 필요했다。

もちろん、そんな考えを持つまでは石上も時間が必要だった。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있어ㄴ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살아갈 意味를 잃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갈 의미를 잃고 있었다。

しばらくまで生きていく意味を失っていた。

수학밖에 모르는 자신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는 존재 가치가 없지 않느냐
까 싶어ㄴ다。

數學밖에 모르는 自身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는 存在 價値가 없지 않
을까 싶었다。

수학밖에 모르는 자신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는 존재 가치가 없지
않을까 싶었다。

数学しか知らない自分がその道を行かなければもう存在価値がないのではな
いかと思った。

매일 죽으ㄴ만 생각해ㄴ다。

毎日 죽음만 생각했다。

매일 죽음만 생각했다。

毎日死だけ考えた。

자신이 죽는다 하ㄴ들 누구 하ㄴ 사람 슬퍼하지 않고 곤란에 빠지지도 않으며
심지어 자신이 죽어ㄴ다는 사실조차 모르ㄴ 것 같아ㄴ다。

自身이 죽는다 한들 누구 한 사람 슬퍼하지 않고 困難에 빠지지도 않으며
甚至於 自身이 죽었다는 事實조차 모를 것 같았다。

자신이 죽는다 한들 누구 한 사람 슬퍼하지 않고 곤란에 빠지지도 않으며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 같았다。

自分が死ぬ限り、誰もが一人悲しくせず、困ることもなく、さらに自分が死んだという事実さえ知らないようだった。

1년 전의 일이다。

1 年 前の 일이다。

1년 전의 일이다。

1 年前のことだ。

이시가미는 방에서 로프 하나 가닥을 들고 서 있어왔다。

이時加味는 房에서 로프 한 가닥을 들고 서 있었다。

이시가미는 방에서 로프 한 가닥을 들고 서 있었다。

石神は部屋でロープしたストランドを持って立っていた。

그것을 거늘 만한 장소를 찾고 있어왔던 것이다。

그것을 걸 만한 場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걸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それを歩くべき場所を探していたのだ。

그러나 그의 연립 주택에는 거늘 만한 장소가 없어왔다。

그러나 그의 聯立 住宅에는 그걸 만한 場所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연립 주택에는 그걸 만한 장소가 없었다。

しかし彼の連立住宅にはそのような場所はなかった。

결국 그는 기둥에 커다라 ㄴ 못을 박아 ㅅ 다。

結局 그는 기둥에 커다란 못을 박았다。

결국 그는 기둥에 커다란 못을 박았다。

結局彼は柱に大きな釘を打った。

거기에 둥글게 고리를 지으 ㄴ 로프를 걸고 체중을 싣기로 해 ㅅ 다。

거기에 둥글게 고리를 지은 로프를 걸고 體重을 싣기로 했다。

거기에 둥글게 고리를 지은 로프를 걸고 체중을 싣기로 했다。

そこに丸く輪を作ったロープをかけて体重を載せることにした。

미련 같으 ㄴ 거 ㄴ 눈곱만큼도 없어 ㅅ 다。

미련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다。

미련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다。

未練のようなものは雪だるまほどなかった。

죽는 데에 이유는 없어 ㅅ 다。

죽는 데에 理由는 없었다。

죽는 데에 이유는 없었다。

死に理由はなかった。

다만 살아가 ㄴ 이유가 없었 ㄴ 뿐이다。

다만 살아갈 理由가 없었을 뿐이다。

다만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ただ生きる理由がなかっただけだ。

받침대에 올라가 목을 로프에 거는 순간 현관 벨이 울려 ㄴ다。

받침臺에 올라가 목을 로프에 거는 瞬間 玄關 벨이 울렸다。

받침대에 올라가 목을 로프에 거는 순간 현관 벨이 울렸다。

台に上がって首をロープに掛ける瞬間、玄関ベルが鳴った。

운명의 벨이어 ㄴ다。

運命의 벨이었다。

운명의 벨이었다。

運命の鐘だった。

그것을 무시하지 않 ㄴ 것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ㄴ기 때문이
다。

그것을 無視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肺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다。

それを無視していないのは誰にも迷惑をかけたくなかったからだ。

문 바깥에 있는 누구ㄴ가는 뭐ㄴ가 급하ㄴ 용건이 있어서 와ㅅ으ㄴ지도 모르ㄴ다。

文 바깥에 있는 누군가는 뭔가 급한 用件이 있어서 왔을지도 모른다。

문 바깥에 있는 누군가는 뭔가 급한 용건이 있어서 왔을지도 모른다。

ドアの外にいる誰かは何か急な用件があつてきたかもしれない。

문을 열자 두 여자가 서 있어ㅅ다。

門을 열자 두 女子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두 여자가 서 있었다。

ドアを開けると二人の女性が立っていた。

모녀 같아ㅅ다。

母女 같았다。

모녀 같았다。

母娘みたいだった。

이웃에 이사 와ㅅ다며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인사해ㅅ다。

이웃에 移徙 왔다며 엄마로 보이는 女子가 人事했다。

이웃에 이사 왔다며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인사했다。

隣人に引っ越してきたとママに見える女性が挨拶した。

딸도 함께 고개를 숙여ㄴ다。

딸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딸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娘も一緒に頭を下げた。

두 사람을 보ㄴ 순간 무언ㄴ가가 이시가미의 몸을 관통해ㄴ다。

두 사람을 본 瞬間 무언가가 이時加味の 몸을 貫通했다。

두 사람을 본 순간 무언가가 이시가미의 몸을 관통했다。

二人を見た瞬間、何かが石神の体を貫いた。

모녀가 어쩌면 이렇게 예쁘ㄴ 눈을 가져ㄴ으ㄴ까。

母女가 어쩌면 이렇게 예쁜 눈을 가졌을까。

모녀가 어쩌면 이렇게 예쁜 눈을 가졌을까。

母娘が多分こんなにきれいな目を持っていたのだろうか。

그때까지 그는 아름다우ㄴ 것에 눈길을 빼앗기거나 감동해 보ㄴ 적이 없어ㄴ

다。

그때까지 그는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빼앗기거나 感動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까지 그는 아름다운 것에 눈길을 빼앗기거나 감동해 본 적이 없었
다。

それまで彼は美しいものに目を奪われたり感動したことがなかった。

예술의 의미조차 몰라ㄴ다。

藝術의 意味조차 몰랐다。

예술의 의미조차 몰랐다。

芸術の意味すら知らなかった。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해ㄴ다。

그러나 그 瞬間 모든 것을 理解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しかしその瞬間すべてを理解した。

그것은 수학 문제가 풀리ㄴ 때 느끼는 아름다우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ㄴ다。

그것은 數學 問題가 풀릴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本質적으로 다르지 않았
다。

그것은 수학 문제가 풀릴 때 느끼는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
다。

それは数学の問題が解けたときに感じる美しさと本質的に変わらなかった。

그녀들이 무슨 인사말을 해ㄴ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그女들이 무슨 人事말을 했는지는 거의 記憶나지 않는다。

그녀들이 무슨 인사말을 했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彼女たちがどんな挨拶をしたのかはほとんど覚えていない。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의 움직임이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 등은 지금도 생생히 떠올리 ㄴ 수 있어 ㄴ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의 움직임이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 等
은 只今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의 움직임이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 등
은 지금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었다。

しかし、彼を見つめる二人の目の動きや目を点滅する姿などは、今でも鮮やかに
思い浮かぶことができた。

하나오카 모녀를 만나 ㄴ 후로 이시가미의 생활은 백팔십도 달라져 ㄴ다。

하나오카 母女를 만난 後로 이時加味の 生活은 百八十度 달라졌다。

하나오카 모녀를 만난 후로 이시가미의 생활은 백팔십도 달라졌다。

花岡母女に会った後、石神の生活は百八十度変わった。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얻어 ㄴ다。

自殺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얻었다。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얻었다。

自殺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消え、人生の喜びを得た。

두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

두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想像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두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二人がどこで何をするのかを想像するだけでも楽しかった。

세계라는 좌표에 야스코와 미사토라는 두 개의 점이 존재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기적처럼 여겨졌다.

世界라는 座標에 야스코와 미사土螺는 두 個의 點이 存在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奇跡처럼 여겨졌다.

세계라는 좌표에 야스코와 미사토라는 두 개의 점이 존재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기적처럼 여겨졌다.

世界という座標に、ヤスコとミサトという二つの点が存在する、彼にとってはそれが奇跡のように思われた。

일요일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해했다.

日曜日 是 더할 수 없이 幸福했다.

일요일은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다.

日曜日は加えることなく幸せだった。

창을 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했다.

窓을 열면 두 사람이 對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을 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窓を開けると二人が会話する音が聞こえてきた。

그 내용까지는 아_ㄴ 수 없어_ㄴ지만, 바람에 실려 오는 그 속삭이는 듯하_ㄴ 목소리는 이시가미에게 천상의 음악과 같아_ㄴ다。

그 内容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람에 실려 오는 그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는 이時加味에게 天上의 音樂과 같았다。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람에 실려 오는 그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는 이시가미에게 천상의 음악과 같았다。

その内容までは分からなかったが、風に乗ってくるそのささやきのような声は石神に天上の音楽のようだった。

그녀들과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전혀 없어_ㄴ다。

그女들과 어떻게 되고자 하는 欲望은 全然 없었다。

그녀들과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전혀 없었다。

彼女たちとどうなりたいという欲望は全くなかった。

자신이 그들에게 손을 뺄어서는 안 되_ㄴ다고 생각해_ㄴ다。

自身이 그들에게 손을 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들에게 손을 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自分が彼らに手を伸ばしてはならないと思った。

동시에 그는 깨달아^ㄴ다, 수학도 똑같다는 것을.

同時に 그는 깨달았다, 數學도 똑같다는 것을.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수학도 똑같다는 것을.

同時に彼は悟った、数学も同じだということを。

승고하^ㄴ 것에는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崇高한 것에는 關與하는 것만으로도 幸福하다.

승고한 것에는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崇高なものには関与するだけでも幸せだ。

명성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名聲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 尊嚴性에 傷處를 입히는 일이다.

명성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名声を得ようとするのは、その尊嚴に傷をつけることだ。

모녀를 돕는 것은 이시가미로서는 당연한 일이어^ㄴ다.

母女를 돕는 것은 이時加味로서는 當然한 日이었다.

모녀를 돕는 것은 이시가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母女を助けるのは石神としては当然のことだった。

그녀들이 없어^ㄴ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어^ㄴ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只今の 自身도 없었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

彼女たちがいなかったら今の自分もなかった。

이거 ㄴ 그녀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해 ㅅ 다。

이건 그녀들을 代身하는 것이 아니라 恩惠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그녀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これは彼女たちに代わるのではなく、恵みを返済するものだった。

모녀는 영문을 모르 ㄴ 것이다。

母女는 영문을 모를 것이다。

모녀는 영문을 모를 것이다。

母女は英文を知らないだろう。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다。

それでもいい。

사람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누구 ㄴ 가를 구원하 ㄴ 수도 있는 것
이다。

사람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救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人は時々この世を生きるだけで誰かを救うこともできるのだ。

도가시의 사체를 본 순간 이시가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프로그램 하나가 구체화되고 있어ㄴ다。

都家時の 史체를 본 瞬間 이市街美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프로그램 하나가 具體化되고 있었다。

도가시의 사체를 본 순간 이시가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프로그램 하나가 구체화되고 있었다。

鳥ヶ島の死体を見た瞬間、石神の頭の中ではすでにプログラム一つが具体化されていた。

사체를 완벽하게 처리하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ㄴ 일이다。

史체를 完璧하게 處理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사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死体を完全に処理する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なことだ。

아무리 교묘하게 처리해도 신원이 판명되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

아무리 巧妙하게 處理해도 伸冤이 判明될 可能性을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

아무리 교묘하게 처리해도 신원이 판명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

いくら巧妙に処理しても身元が判明する可能性をゼロにすることは難しい。

설령 운 좋게 숨기 ㄴ다 해도 하나오카 모녀의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으 ㄴ 것이다。

設令 運 좋게 숨긴다 해도 하나오카 母女의 마음이 便安해支持는 않을 것이다。

설령 운 좋게 숨긴다 해도 하나오카 모녀의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たとえ運よく隠れるとしても花岡母女の心が快適にならないだろう。

언제 발견되 ㄴ지 몰라 두려우 ㄴ에 떨면서 살아가게 되 ㄴ 것이다。

언제 發見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제 발견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いつ發見されるのか分からず、恐怖に震えながら生きていくだろう。

그녀들이 그런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 ㄴ다는 것이 이시가미에게는 견디기 힘드 ㄴ 일이어 ㄴ다。

그女들이 그런 苦痛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時加味에게는 견디기 힘

든 일이었다。

그녀들이 그런 고통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시가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彼女たちがそんな苦痛の中で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石神には耐え難いことだった。

모녀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어^ㄴ다。

母女가 平安을 누리도록 하는 方法은 하나뿐이었다。

모녀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母女が平安を味わうようにする方法は一つだけだった。

사건을 그녀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다。

事件을 그女들과 完全히 分離시키는 것이다。

사건을 그녀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다。

事件を彼女たちと完全に分離させるのだ。

언뜻 보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만나^ㄴ 수 없는 별개의 직선상에 옮겨 버리면 되^ㄴ다。

언뜻 보기에는 連結되어 있는 것 같지만 決코 만날 수 없는 別個의 職船上에 옮겨 버리면 된다。

언뜻 보기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별개의 직선상에 옮겨 버리면 된다。

一見すると繋がっているようだが決して会えない別個の直線上に移してしまう。

그래서 그는 ‘기사’를 이용하기로 해ㄴ다。

그래서 그는 ‘技士’를 利用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기사’를 이용하기로 했다。

それで彼は「騎士」を利用することにした。

‘기사’란 그 무렵 신오하시교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ㄴ 남자다。

‘技士’란 그 무렵 新吳何時教 近處에서 露宿者 生活を 始作한 男子다。

‘기사’란 그 무렵 신오하시교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한 남자다。

「騎士」とはその頃、新大橋橋の近くでホームレス生活を始めた男だ。

3월 10일 이르ㄴ 아침, 이시가미는 ‘기사’에게 접근해ㄴ다。

3 月 10 日 이른 아침, 이時加味는 ‘技士’에게 接近했다。

3월 10일 이른 아침, 이시가미는 ‘기사’에게 접근했다。

3 月 10 日早朝、石神は「騎士」に接近した。

‘기사’는 평소처럼 다른 노숙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지ㄴ 곳에 앉아 있어ㄴ다。

‘技士’는 平素처럼 다른 露宿者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기사’는 평소처럼 다른 노숙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騎士」はいつものように他のホームレスから少し離れたところに座っていた。

‘일을 맡기고 싶다’며 이시가미는 그에게 말을 붙여ㄴ다。

‘일을 맡기고 싶다’며 이時加味는 그에게 말을 붙였다。

‘일을 맡기고 싶다’며 이시가미는 그에게 말을 붙였다。

「仕事を任せたい」と石神は彼に話しかけた。

며칠간 하천 공사에 입회해 줘ㄴ으면 좋겠다는 것이어ㄴ다。

며칠間 河川 工事に 立會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며칠간 하천 공사에 입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数日間河川工事に入会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

‘기사’가 건축 관련 일을 해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어ㄴ다。

‘技士’가 建築 關聯 일을 했었다는 事實을 그는 알고 있었다。

‘기사’가 건축 관련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騎士」が建築関連の仕事をしたという事実を彼は知っていた。

왜 내게, 라며 ‘기사’는 의아해해ㄴ다。

왜 내게, 라며 ‘技士’는 疑訝해했다。

왜 내게, 라며 ‘기사’는 의아해했다。

なぜ私に、と言って「騎士」は疑わしい。

이시가미는 사정이 있다고 대답해^ㅅ다。

이時加味는 事情이 있다고 對答했다。

이시가미는 사정이 있다고 대답했다。

石神は事情があると答えた。

원래 그 일을 맡으^ㄴ 남자가 사고로 일하^ㄴ 수 없게 되어^ㅅ는데 입회인이 없으면 공사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대신하^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ㅅ다。

元來 그 일을 맡은 男子가 事故로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 立會人이 없으면 工事 許可가 나지 않으므로 代身할 사람이 必要하다고 했다。

원래 그 일을 맡은 남자가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입회인이 없으면 공사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もともとその仕事を引き受けた男が事故で働けなくなったが、立会人がなければ工事許可が出ないので代わる人が必要だと言った。

계약금으로 5만 엔을 건네자 ‘기사’는 승낙해^ㅅ다。

契約金으로 5 萬 엔을 건네자 ‘技士’는 承諾했다。

계약금으로 5만 엔을 건네자 ‘기사’는 승낙했다。

契約金で5万円を渡すと「記事」は承諾した。

이시가미는 그를 데리고 도가시가 생전에 빌리^ㄴ 렌탈 룸으로 가^ㅅ다。

이時加味는 그를 데리고 道가市街 生前에 빌린 렌탈 룸으로 갔다。

이시가미는 그를 데리고 도가시가 생전에 빌린 렌탈 룸으로 갔다。

石神は彼を連れて、道鹿市が生前に借りたレンタルルームに行った。

거기서 도가시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밤이 되 ㄴ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
ㄴ다。

거기서 도가시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밤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다。

거기서 도가시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밤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다。

そこで道鹿市の服に着替え、夜になるまでその場にいるように言った。

밤이 되자 미즈에역으로 ‘기사’를 불러내 ㄴ다。

밤이 되자 美즈에역으로 ‘技士’를 불러냈다。

밤이 되자 미즈에역으로 ‘기사’를 불러냈다。

夜になると水江駅で「騎士」を呼んだ。

그에 앞서 이시가미는 시노자키역에서 자전거를 훔쳐 ㄴ다。

그에 앞서 이時가미는 時老子키驛에서 自轉車を 훔쳤다。

그에 앞서 이시가미는 시노자키역에서 자전거를 훔쳤다。

それに先立ち石神は篠崎駅で自転車を盗んだ。

가능하ㄴ 새 자전거를 선택하ㄴ 것은 자전거 주인이 되도록이면 소란을 피워
줘ㄴ으면 해서여ㄴ다。

可能한 새 自轉車를 選擇한 것은 自轉車 主人이 되도록이면 騷亂을 피워
줬으면 해서였다。

가능한 새 자전거를 선택한 것은 자전거 주인이 되도록이면 소란을 피워
줬으면 해서였다。

できるだけ新しい自転車を選んだのは、自転車の所有者になるようになれ
ば、騒ぎを吸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

사실 이시가미는 자전거 한 대를 더 준비해 두어ㄴ다。

事實 이時加味는 自轉車 한 代를 더 準備해 두었다。

사실 이시가미는 자전거 한 대를 더 준비해 두었다。

実は石神は自転車一台をさらに用意しておいた。

그 자전거는 미즈에역 바로 전 역인 이치노에역에서 훔쳐 오ㄴ 것이어ㄴ다。

그 自轉車는 美즈에역 바로 前 役人 이치櫓에驛에서 훔쳐 온 것이었다。

그 자전거는 미즈에역 바로 전 역인 이치노에역에서 훔쳐 온 것이었다。

その自転車は、水前駅のすぐ前駅の一之江駅から盗んだものだった。

그쪽은 낡아서 자물쇠조차 채워 놓지 않으ㄴ 상태여ㄴ다。

그쪽은 낡아서 자물쇠조차 채워 놓지 않은 狀態였다。

그쪽은 낡아서 자물쇠조차 채워 놓지 않은 상태였다.

そちらは古くてロックさえ満たしていない状態だった。

새 자전거에 ‘기사’가 타고 둘이서 현장으로 향해ㄴ다.

새 自轉車에 ‘技士’가 타고 둘이서 現場으로 向했다.

새 자전거에 ‘기사’가 타고 둘이서 현장으로 향했다.

新しい自転車に「騎士」が乗って二人で現場に向かった。

구 에도 강변에 있는 예의 장소다.

區 에도 強辯에 있는 例의 場所다.

구 에도 강변에 있는 예의 장소다.

旧江戸川沿いにある礼儀の場所だ。

그 후의 일은 기억을 떠올리ㄴ 때마다 마음이 암울해ㄴ다.

그 後の 일은 記憶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暗鬱했다.

그 후의 일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암울했다.

その後のことは記憶を思い出す度に心が暗い。

‘기사’는 숨이 끊어지ㄴ 때까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ㄴ으ㄴ
것이다.

‘技士’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自身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理由를 몰랐을

것이다。

‘기사’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이다。

「騎士」は息が切れるまで自分がなぜ死な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その理由を知らなかっただろう。

제2의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야 해 ㅅ 다。

第 2의 殺人에 對해서는 아무도 몰라야 했다。

제2의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야 했다。

第 2 の殺人については誰も知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특히 하나오카 모녀에게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일이어 ㅅ 다。

特히 하나오카 母女에게는 絶對로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다。

특히 하나오카 모녀에게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다。

特に花岡母女には絶対にバレてはいけないことだった。

그래서 굳이 같으 ㄴ 흉기를 사용해 똑같이 목 졸라 죽여 ㅅ 던 것이다。

그래서 굳이 같은 凶器를 使用해 똑같이 목 졸라 죽였던 것이다。

그래서 굳이 같은 흉기를 사용해 똑같이 목 졸라 죽였던 것이다。

それで、あえて同じ凶器を使って、同じように首を絞めて殺したのだ。

도가시의 사체는 욕실에서 여섯 등분으로 자른 다음 각각의 조각에 돌을 매달아 스미다강 세 군데에 사흘에 걸쳐 던져 넣어쥘다。

都家時の 史체는 浴室에서 여섯 等分으로 자른 다음 各各의 조각에 돌을 매달아 스미다姜 세 군데에 사흘에 걸쳐 던져 넣었다。

도가시의 사체는 욕실에서 여섯 등분으로 자른 다음 각각의 조각에 돌을 매달아 스미다강 세 군데에 사흘에 걸쳐 던져 넣었다。

道鹿市の死体は浴室で六等分に切った後、それぞれの彫刻に石をぶら下げ、隅田川三ヶ所に三日かけて投げ入れた。

언젠가는 발견되겠지만 그거 ㄴ 아무 상관 없어쥘다。

언젠가는 發見되겠지만 그건 아무 相關 없었다。

언젠가는 발견되겠지만 그건 아무 상관 없었다。

いつかは発見されるだろうが、それは何の関係もなかった。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절대 알아내 ㄴ 수 없으 ㄴ 것이다。

警察은 史체의 伸冤을 絶對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사체의 신원을 절대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警察は死体の身元を決して把握できないだろう。

그들의 기록상으로 도가시는 이미 죽으 ㄴ 존재여쥘기 때문이다。

그들의 記錄上으로 도가시는 이미 죽은 存在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록상으로 도가시는 이미 죽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彼らの記録上、道家市はすでに死んだ存在だったからだ。

같은 人間이 두 번 죽으 ㄴ 수는 없다.

같은 人間이 두 番 죽을 수는 없다.

같은 인간이 두 번 죽을 수는 없다.

同じ人間が二度死ぬことはできない。

그런데 유가와가 트릭을 눈치채 ㄴ 것 같아 ㅅ 다.

그런데 有價와假 트릭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런데 유가와가 트릭을 눈치챈 것 같았다.

ところが湯川がトリックに気づいたようだった。

그래서 이시가미는 경찰에 자수하는 길을 택해 ㅅ 다.

그래서 이時加味는 警察에 自首하는 길을 擇했다.

그래서 이시가미는 경찰에 자수하는 길을 택했다.

それで石神は警察に刺繍する道を選んだ。

처음부터 그러 ㄴ 각오를 하고 준비해 오 ㄴ 일이어 ㅅ 다.

처음부터 그럴 覺悟를 하고 準備해 온 일이었다.

처음부터 그럴 각오를 하고 준비해 온 일이었다.

最初からそんな覚悟をして準備してきたことだった。

유가와는 아마도 그런 사실을 구사나기에게 말해_ㄴ으_ㄴ 것이다。

有價와는 아마도 그런 事實을 驅使나기에게 말했_ㄴ을 것이다。

유가와는 아마도 그런 사실을 구사나기에게 말했_ㄴ을 것이다。

湯川はおそらくそのような事実を草薙に言っただろう。

그리고 구사나기는 상사에게 알려_ㄴ겠지。

그리고 驅使나기는 上司에게 알렸겠지。

그리고 구사나기는 상사에게 알렸겠지。

そして草薙は上司に知らせただろう。

그러나 경찰은 움직이지 않_ㄴ으_ㄴ 것이다。

그러나 警察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しかし警察は動かないだろう。

피해자의 신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와서 증명하_ㄴ 길이 없기 때문이다。

被害者の 伸冤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와서 證明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신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와서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被害者の身元が違うことを今や来て証明する道がないからだ。

자신은 머지않아 기소되 ㄴ 것이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해 ㄴ 다。

自身은 머지않아 起訴될 것이라고 이時加味는 생각했다。

자신은 머지않아 기소될 것이라고 이시가미는 생각했다。

自分はすぐに起訴されるだろうと石神は考えた。

아무도 돌이키지 못하 ㄴ 것이다。

아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誰も元に戻すことはできません。

천재 물리학자의 추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범인의 자백을 이기 ㄴ 수는 없다。

天才 物理學者의 推理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犯人의 自白을 이길 수는 없다。

천재 물리학자의 추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범인의 자백을 이길 수는 없다。

天才物理学者の推理がいくら見事だとしても、犯人の自白に勝つことはできない。

내가 이겨 ㄴ 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私は勝った。

이시가미는 그렇게 생각해ㄴ다。

이時加味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시가미는 그렇게 생각했다。

石神はそう思った。

그때 부저 소리가 들려ㄴ다。

그때 附低 소리가 들렸다。

그때 부저 소리가 들렸다。

その時ブザー音が聞こえた。

누구ㄴ가 유치장을 출입하ㄴ 때 나는 소리다。

누군가 留置場을 出入할 때 나는 소리다。

누군가 유치장을 출입할 때 나는 소리다。

誰かが幼稚園を出入りするとき、私は音です。

간수가 자리에서 일어서ㄴ다。

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看守が席で立ち上がった。

짧막하ㄴ 대화가 들리ㄴ 후 누구ㄴ가 다가와ㅅ다。

짧막한 對話가 들린 後 누군가 다가왔다。

짧막한 대화가 들린 후 누군가 다가왔다。

ちょっとした会話が聞こえた後、誰かが近づいた。

이시가미가 있는 독방 앞에 와서 서ㄴ 사람은 구사나기여ㅅ다。

이時加味が 있는 獨房 앞에 와서 선 사람은 驅使나기였다。

이시가미가 있는 독방 앞에 와서 선 사람은 구사나기였다。

石神のある独房の前に来て立った人は草薙だった。

간수의 명령으로 이시가미는 독방을 나서ㅅ다。

간수의 命令으로 이時加味는 獨房을 나섰다。

간수의 명령으로 이시가미는 독방을 나섰다。

看守の命令で石神は独房を出た。

몸수색을 받으ㄴ 다음 그는 구사나기에게 인계되어ㅅ다。

몸搜索을 받은 다음 그는 驅使나기에게 引繼되었다。

몸수색을 받은 다음 그는 구사나기에게 인계되었다。

体搜索を受けた後、彼は草薙に引き継がれた。

그러는 동안 구사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ㄴ다。

그러는 동안 驅使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구사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その間、草薙は一言もしなかった。

유치장을 나서자 구사나기가 이시가미를 돌아보아ㄴ다。

留置場을 나서자 驅使나기가 이市加味를 돌아보았다。

유치장을 나서자 구사나기가 이시가미를 돌아보았다。

幼稚園を出ると草薙が石神を振り返った。

“몸 상태는 어떠 ㄴ가요?”

“몸 狀態는 어떤가요?”

“몸 상태는 어떤가요?”

「体調はどうですか？」

이 형사는 여전히 존댓말을 쓰 ㄴ다。

이 刑事는 如前히 尊待 ㅅ말을 쓴다。

이 형사는 여전히 존댓말을 쓴다。

この刑事は依然として尊コメントを書く。

특별하 ㄴ 이유가 있는 거 ㄴ지, 아니면 그의 방침이 그런 건지 이시가미로서는

아 ㄴ 길 이 없다。

特別한 理由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의 方針이 그런 건지 이市街美로서는

알 길 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의 방침이 그런 건지 이시가미로서는

알 길 이 없다。

特別な理由があるのか、それとも彼の方針がそんなのか、石神としては知る

道がない。

“조금 피곤하 ㅅ니다。

“조금 疲倦합니다。

“조금 피곤합니다。

「少し疲れています。

되 ㄴ 수 있는 대로 법적 조치를 서둘러 주셔 ㅊ으면 하 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法的 措置를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법적 조치를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できるだけ法的措置を急い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럼 취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지요。

“그럼 取調는 이番을 마지막으로 하지요。

“그럼 취조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지요。

「じゃあ、取組は今回を最後にしますよね。

만나게 해 드리 ㄴ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게 해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게 해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お会いできる人がいます。

이시가미는 미간을 찌푸려 ㄴ다。

이時加味는 眉間을 찌푸렸다。

이시가미는 미간을 찌푸렸다。

石神は眉間を刺した。

누구 ㄴ까。

누굴까。

누굴까。

誰か。

설마 야스코는 아니겠지。

설마 야스코는 아니겠지。

설마 야스코는 아니겠지。

まさかヤスコではないだろう。

취조실 앞에 이르자 구사나기가 문을 열어쥔다。

取調실 앞에 이르자 驅使나기가 門을 열었다。

취조실 앞에 이르자 구사나기가 문을 열었다。

取組室の前に至ると草薙が扉を開いた。

안에 있는 사람은 유가와 마나부여쥔다。

안에 있는 사람은 有價와 마나部였다。

안에 있는 사람은 유가와 마나부였다。

中にいる人は、ユガとマナブだった。

그는 침통하 ㄴ 표정으로 이시가미를 뚫어져라 바라보아쥔다。

그는 沈痛한 表情으로 이時加味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이시가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彼は侵入した表情で石神を突き抜けて見つめた。

최후의 난관이다。

最後の 難關이다。

최후의 난관이다。

最後の難関だ。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쥔다。

그는 精神을 가다듬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彼は精神を整えた。

두 천재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침묵해ㄴ다。

두 天才는 冊床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沈默했다。

두 천재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침묵했다。

両天才は机を挟んでしばらく沈黙した。

구사나기는 벽에 기대서 ㄴ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ㄴ다。

驅使나기는 壁에 기대선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사나기는 벽에 기대선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草薙は壁に期待線のまま彼らの姿を見守っていた。

“조금 여위 ㄴ 것 같군。

“조금 여윈 것 같군。

“조금 여윈 것 같군。

「ちょっと女優らしい。

유가와가 침묵을 깨ㄴ다。

有價와假 沈默을 깬다。

유가와가 침묵을 깼다.

湯川が沈黙を破った。

“그러나……。

“그런가……。

“그런가……。

「そうか… …。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

食事は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

食事はしっかりしているのにね。

“그렇다면 다행이야。

“그렇다면 多幸이야。

“그렇다면 다행이야。

「それなら幸い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さて、」

유가와가 혀로 입술을 축여ㄴ다。

有價와假 혀로 입술을 축였다。

유가와가 혀로 입술을 축였다。

湯川が舌で唇を祝った。

“스토커라는 꼬리표가 붙으ㄴ데 억울하지 않아?”

“스토커라는 꼬리票가 붙을 텐데 抑鬱하지 않아?”

“스토커라는 꼬리표가 붙을 텐데 억울하지 않아?”

「ストーカーという札がつくはずなのに悔しいじゃない？」

“나는 스토커가 아니야。

“나는 스토커가 아니야。

“나는 스토커가 아니야。

「私はストーカーではありません。

이시가미가 대답해ㄴ다。

이時加味가 對答했다。

이시가미가 대답했다。

石神が答えた。

“나는 숨어서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 주ㄴ 사람이야。

“나는 숨어서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 준 사람이야.

“나는 숨어서 하나오카 야스코를 지켜 준 사람이야.

「私は隠れて花岡康子を守ってくれた人だ。

몇 번이나 말해ㄴ잖아.

몇 번이나 말했잖아.

몇 번이나 말했잖아.

何度も言ったじゃないか。

“그거ㄴ 잘 알고 있어.

“그건 잘 알고 있어.

“그건 잘 알고 있어.

「それはよく知っている。

지금도 자네는 그녀를 지켜 주고 있지.

只今도 자네는 그女를 지켜 주고 있지.

지금도 자네는 그녀를 지켜 주고 있지.

今も君は彼女を守ってくれている。

그 말에 이시가미는 불쾌하ㄴ 표정으로 구사나기를 바라보며 말해ㄴ다.

그 말에 이時加味는 不快한 表情으로 驅使나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에 이시가미는 불쾌한 표정으로 구사나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その言葉に石神は不愉快な表情で駆け抜けを眺めて言った。

“이런 대화가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까?”

“이런 對話가 捜査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이런 대화가 수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こういう会話が捜査にどんな役に立つということですか？」

구사나기가 침묵하자 유가와가 대답해준다.

驅使나기가 沈黙하자 有價와假 對答했다.

구사나기가 침묵하자 유가와가 대답했다.

草薙が沈黙すると、湯川が答えた。

“내 추리를 저 친구에게 말해준다.

“내 推理를 低 親舊에게 말했어.

“내 추리를 저 친구에게 말했어.

「私の推理を私の友人に言った。

자네가 실제로 무슨 짓을 해냈는지, 누구를 죽여냈는지 말아야.

자네가 實際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말아야.

자네가 실제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말아야.

君が実際に何をしたのか、誰を殺したのか。

“추리를 말하는 거ㄴ 자유지。

“推理를 말하는 건 自維持。

“추리를 말하는 건 자유지。

「推理を言うのは自由地。

“그녀에게도 얘기해ㄴ어, 하나오카 야스코 씨에게도。

“그女에게도 얘기했어, 하나오카 야스코 氏에게도。

“그녀에게도 얘기했어, 하나오카 야스코 씨에게도。

「彼女にも話した、花岡康子さんにも。

그 말에 이시가미의 뺨이 꿈틀해ㄴ다。

그 말에 이時加味の 뺨이 꿈틀했다。

그 말에 이시가미의 뺨이 꿈틀했다。

その言葉に石神の頬が夢見た。

그러나 그는 이내 열으ㄴ 미소를 머금어ㄴ다。

그러나 그는 이내 열은 微笑를 머금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열은 미소를 머금었다。

しかし、彼はその中に淡い笑顔を残しました。

“그 여자가 조금은 반성하는 눈치던가? 내게 감사하_ㄴ대? 귀찮으_ㄴ 놈을 처리
해 주었_ㄴ더니 기껏 하_ㄴ다는 소리가 자신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지?”

“그 女子가 조금은 反省하는 눈치던가? 내게 感謝한대? 귀찮은 놈을 處理
해 주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自身은 아무 關係도 없다고 하지?”

“그 여자가 조금은 반성하는 눈치던가? 내게 감사한대? 귀찮은 놈을 처리
해 주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신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지?”

「その女が少し反省する気がしたか？私に感謝したいですか？面倒な奴を処
理してくれたらせいぜいするという声が自分は何の関係もないという？

입술을 비틀며 악당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구사나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_ㄴ다。

입술을 비틀며 惡黨을 演技하는 그의 모습에 驅使나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입술을 비틀며 악당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구사나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唇をねじって悪党を演じる彼の姿に駆けつけるのは胸が広がるようだった。

인간이 이토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_ㄴ 수 있다는 사실이 감탄스러우_ㄴ 따름이어
_ㄴ다。

人間이 이토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事實이 感歎스러울 따름이었
다。

인간이 이토록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탄스러울 따름이
었다。

人間がこのように他の人を愛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事実が感心するだけだ
った。

“자네는 자네가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 ㄴ 거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그거 ㄴ 착각이야。

“자네는 자네가 眞實을 털어놓지 않으면 眞相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
는 模様이지만 그건 錯覺이야。

“자네는 자네가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
는 모양이지만 그건 착각이야。

「あなたはあなたが眞実を打ち明けなければ眞相が明らかにされないと思い
ているようだが、それは勘違いだ。

유가와가 말해 ㄴ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3월 10일에 한 남자가 행방불명돼 ㄴ어。

“3 月 10 日に 한 男子가 行方不明됐어。

“3월 10일에 한 남자가 행방불명됐어.

「3月10日に一人の男が行方不明になった。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지.

아무 罪도 없는 사람이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지.

何の罪もない人だ。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서 가족을 찾아내면 DNA 감정이 가능해.

그 사람의 伸冤을 밝혀서 家族을 찾아내면 DNA 感情이 可能해.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서 가족을 찾아내면 DNA 감정이 가능해.

その人の身元を明らかにして家族を見つければ DNA 感情が可能。

그 결과를 도가시 시_니지로 추정되는 사체와 비교해 보면 사체의 정체가 드러

나_는 거야。

그 結果를 도가시 신지로 推定되는 史체와 比較해 보면 史체의 正體가 드

러날 거야。

그 결과를 도가시 신지로 추정되는 사체와 비교해 보면 사체의 정체가 드러날 거야。

その結果を戸岳シンジと推定される死体と比べてみると死体の正体が明らかになるはず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何を言っ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

이시가미가 히죽거리며 말해ㄴ다。

이時加味가 히죽거리며 말했다。

이시가미가 히죽거리며 말했다。

石神がひざまずいて言った。

“그 남자에게 과연 가족이 있으ㄴ까? 설령 다른 방법이 있다 해도 사체의 신원을 밝히려면 엄청나ㄴ 시간이 필요하ㄴ 거야。

“그 男子에게 果然 家族이 있을까? 設令 다른 方法이 있다 해도 사체의 伸冤을 밝히려면 엄청난 時間이 必要할 거야。

“그 남자에게 과연 가족이 있을까? 설령 다른 방법이 있다 해도 사체의 신원을 밝히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야。

「その男に果たして家族がいるのか?たとえ別の方法があるとしても、死体の身元を明らかにするには膨大な時間が必要なのだ。

그때쯤이면 내 재판은 끝나 있겠지。

그때쯤이면 내 再版은 끝나 있겠지。

그때쯤이면 내 재판은 끝나 있겠지。

その時頃なら私の裁判は終わっているだろう。

물론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다 해도 나는 항소하지 않을 거고, 결심 공판으로 사건은 종료야。

勿論 어떤 判決이 나온다 해도 나는 抗訴하지 않을 거고, 決心 公判으로 事件은 終了야。

물론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해도 나는 항소하지 않을 거고, 결심 공판으로 사건은 종료야。

もちろんどんな判決が出ていても私は上訴しないだろうし、決心公判で事件は終了だ。

도가시 신지 살해 사건 종료。

都家時 臣智 殺害 事件 終了。

도가시 신지 살해 사건 종료。

東賀市シンジ殺害事件終了。

경찰은 손대지 않을 거야。

警察은 손대지 않을 거야。

경찰은 손대지 않을 거야。

警察は触れないよ。

아니면 혹시,”

아니면 或是,”

아니면 혹시,”

それとも、もし、」

이시가미가 구사나기를 바라보아^ㅅ다。

이時加味가 驅使나기를 바라보았다。

이시가미가 구사나기를 바라보았다。

石神が草薙を眺めた。

“유가와와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태도를 바꾸^ㄴ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를 석방해야 해。

“有價와와 이야기를 듣고 警察이 態度를 바꿀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를 釋放해야 해。

“유가와와 이야기를 듣고 경찰이 태도를 바꿀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를 석방해야 해。

「湯川の話を聞いて警察が態度を変えるか?でもそうになったら私を解放しなければならぬ。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범인이야。

그런데 그 理由가 뭐지? 내가 犯人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犯人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범인이야。

しかし、その理由は何ですか？私は犯人ではありませんか？しかし、私は犯人だ。

이 자백은 또 어떻게 하ㄴ 거지?”

이 自白은 또 어떻게 할 거지?”

이 자백은 또 어떻게 할 거지?”

この告白はまたどうしますか？」

구사나기는 고개를 숙여ㄴ다。

驅使나기는 고개를 숙였다。

구사나기는 고개를 숙였다。

草薙は頭を下げた。

그의 말대로여ㄴ다。

그의 말대로였다。

그의 말대로였다。

彼の言葉通りだった。

그의 자백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지금의 흐름을 멈추
ㄴ 수 없다。

그의 自白 內容이 거짓이라는 事實을 證明하지 못하는 한 只今の 흐름을

멈출 수 없다。

그의 자백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지금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

彼の告白の内容が偽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ない限り、今の流れを止めること
はできません。

경찰 시스템이란 그런 것이다。

警察 시스템이란 그런 것이다。

경찰 시스템이란 그런 것이다。

警察システムとはそういうことだ。

“자네에게 한 가지 해 두 ㄴ 말이 있어。

“자네에게 한 가지 해 둘 말이 있어。

“자네에게 한 가지 해 둘 말이 있어。

「君にひとつやっておく言葉がある。

유가와가 말해 ㄴ다。

有價와假 말했다。

유가와가 말했다。

湯川が言った。

워 ㄴ데, 하는 표정으로 이시가미는 유가와를 쏘아보아 ㄴ다。

원데, 하는 表情으로 이時加味는 有價와를 쏘아보았다.

원데, 하는 표정으로 이시가미는 유가와를 쏘아보았다.

なに、という表情で石神は湯川を撃ってみた。

“그 두뇌를, 그 엄청나 ㄴ 두뇌를 그런 데 사용하 ㄴ 수밖에 없어 ㄴ다니, 정말 애
석하 ㄴ 일이야.

“그 頭腦를, 그 엄청난 頭腦를 그런 데 使用할 수밖에 없었다니, 정말 哀惜
한 일이야.

“그 두뇌를, 그 엄청난 두뇌를 그런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니, 정말 애석
한 일이야.

「あの脳を、その途方もない脳をそんなに使うしかなかったなんて、本当に
愛石なことだ。

슬프기 짝이 없어.

슬프기 짝이 없어.

슬프기 짝이 없어.

悲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ㄴ 나의 호적수를 영원히 잃어야 하다니 말이야.

이 世上에 單 하나뿐인 나의 戶籍수를 永遠히 잃어야 하다니 말이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호적수를 영원히 잃어야 하다니 말이야.

この世にたった一つだけの私の戸籍数を永遠に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

그 말에 이시가미가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아^ㅆ다。

그 말에 이時加味が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다。

그 말에 이시가미가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다。

その言葉に石神が口を閉じて目を閉じた。

무어^ㄴ가를 참고 있는 모습이어^ㅆ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모습이었다。

何かを参考にしている姿だった。

이윽고 그가 구사나기를 올려다보아^ㅆ다。

이윽고 그가 驅使나기를 올려다보았다。

이윽고 그가 구사나기를 올려다보았다。

やがて彼が草薙を見上げた。

“이 친구, 하^ㄴ 말이 끝나^ㄴ 것 같으^ㄴ데 이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親舊, 할 말이 끝난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친구, 할 말이 끝난 것 같은데 이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この友人、言葉が終わったようですが、これだけ入ってもいいですか？」

구사나기는 유가와를 보아ᄇ다。

驅使나기는 有價와를 보았다。

구사나기는 유가와를 보았다。

草薙は湯川を見た。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ᄇ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彼は言うまでもなく頭をうなずいた。

가시쵸, 라고 말하고 구사나기가 문을 열어ᄇ다。

가시쵸, 라고 말하고 驅使나기가 門을 열었다。

가시쵸, 라고 말하고 구사나기가 문을 열었다。

行きましょう、と言って草薙が扉を開いた。

이시가미가 먼저 나가고 유가와가 그를 뒤따라 나가ᄇ다。

이時加味가 먼저 나가고 有價와가 그를 뒤따라 나갔다。

이시가미가 먼저 나가고 유가와가 그를 뒤따라 나갔다。

石神が先に出て、湯川が彼に追いついた。

유가와를 남겨 둔 채 이시가미를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려 해_ㅅ으_ㄴ 때여_ㅅ다。

有價와를 남겨 둔 채 이市加味를 留置場으로 데리고 가려 했을 때였다。

유가와를 남겨 둔 채 이시가미를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려 했을 때였다。

湯川を残したまま石上を幼稚場に連れて行こうとした時だった。

통로 저편에서 기시타니가 나타나_ㅅ다。

通路 저便에서 기시他니가 나타났다。

통로 저편에서 기시타니가 나타났다。

通路の向こうに岸谷が現れた。

그 뒤를 하_ㄴ 여자가 따라오고 있어_ㅅ다。

그 뒤를 한 女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뒤를 한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その後をした女がついてきていた。

하나오카 야스코여_ㅅ다。

하나五카 야스코였다。

하나오카 야스코였다。

花岡康子だった。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どうしたの？」

구사나기가 기시타니에게 물어ㄴ다。

驅使나기가 기時타니에게 물었다。

구사나기가 기시타니에게 물었다。

草薙が岸谷に尋ねた。

“그게…… 이분이 하ㄴ 얘기가 있다고 연락을 하셔ㄴ어요。

“그게…… 이분이 할 얘기가 있다고 連絡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분이 할 얘기가 있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それが… …この方がする話があると連絡をいただきました。

그래서 지금, 그게 저…… 엄청나ㄴ 얘기를……。

그래서 只今, 그게 저…… 엄청난 얘기를……。

그래서 지금, 그게 저…… 엄청난 얘기를……。

だから今、それは私… …途方もない話を… …。

“혼자서 들어ㄴ어?”

“혼자서 들었어?”

“혼자서 들었어?”

「一人で聞いた？」

“아니 ㅂ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いいえ。

반장님도 같이 들어ㅅ습니다。

班長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반장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クラス長も一緒に聞きました。

구사나기는 이시가미를 보아ㅅ다。

驅使나기는 이時加味를 보았다。

구사나기는 이시가미를 보았다。

草薙は石神を見た。

그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해 있어ㅅ다。

그의 顔色이 잿빛으로 變해 있었다。

그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彼の顔色が灰色に変わっていた。

야스코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벌겋게 핏발이 서 있어ㄴ다.

야스코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야스코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ヤスコを見下ろす彼の目は、まさにピットバルが立っていた。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곳에……。

「なぜこんなところに… … 。

이시가미가 중얼거려ㄴ다.

이時加味가 중얼거렸다.

이시가미가 중얼거렸다.

石神がつぶやいた。

얼어붙은 듯 움직임이 없던 야스코의 얼굴이 차츰 무너져내려ㄴ다.

얼어붙은 듯 움직임이 없던 야스코의 얼굴이 차츰 무너져내렸다.

얼어붙은 듯 움직임이 없던 야스코의 얼굴이 차츰 무너져내렸다.

凍ったように動きがなかったヤスコの顔が徐々に崩れ落ちた。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ㄴ다。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始作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そして両目から涙がこぼれ始めた。

그녀는 이시가미의 앞까지 걸어오더니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ㄴ다。

그女는 이時加味の 앞까지 걸어오더니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는 이시가미의 앞까지 걸어오더니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다。

彼女は石神の前まで歩いてくると、急に床にこぼれた。

“죄송해요。

“罪悚해요。

“죄송해요。

「すみません。

정말 죄송해요。

正말 罪悚해요。

정말 죄송해요。

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

저희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희를 爲해서…… 저 같은 사람을 爲해서……。

저희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私たちのために… …私のような人のために… …。

그녀의 등이 심하게 요동쳐^ㄴ다。

彼女の 등이 甚하게 요동쳤다。

그녀의 등이 심하게 요동쳤다。

彼女の背中がひどく揺れた。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當身?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런……。

「何を言ってるの? どんなそんなとんでもない言葉を… …そんな… …。

이시가미의 입에서 주문 같은 ^ㄴ 소리가 새어 나와^ㄴ다。

이時加味の 입에서 注文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시가미의 입에서 주문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石神の口から呪文のような音が漏れた。

“저희만 행복해지는 일은 있으^ㄴ 수 없어요。

“저희만 幸福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희만 행복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私たちだけ幸せ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저도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저도 代價를 치르겠습니다.

저도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私も対価を払います。

벌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벌을 받겠어요.

罰を受けます。

이시가미 씨와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이時가美 氏와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이시가미 씨와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石神さんと一緒に罰をいただきます。

제가 하 ㄴ 수 있는 일은 그뿐이 ㄴ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입니다。

私ができることはそれだけです。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當身を爲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あなたのためにできることはそれだけです。

죄송해요。

罪慄해요。

죄송해요。

申し訳ありません。

죄송해요。

罪慄해요。

죄송해요。

申し訳ありません。

야스코가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바닥에 대^ㅅ다。

야스코가 兩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바닥에 댔다。

야스코가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바닥에 댔다。

ヤスコが両手で床を跳ね上げ、頭を床に張った。

이시가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서ㄴ다。

이時加味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이시가미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石上は首を振りながら後ろに戻った。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어ㄴ다。

얼굴이 苦痛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顔が痛みで歪んでいた。

다음 순간 그가 뒤로 획 돌아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ㄴ다。

다음 瞬間 그가 뒤로 획 돌아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다음 순간 그가 뒤로 획 돌아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次の瞬間、彼が後ろにさっと回って、両手で頭を包んだ。

우우우우우, 짐승이 포효하듯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ㄴ다。

우우우우우, 짐승이 咆哮하듯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우우우우우, 짐승이 포효하듯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ううううう、獣が轟音するように泣く声が聞こえた。

그것은 절망과 혼란이 마구 뒤섞인 비명이기도 해^ㄴ다.

그것은 絶望과 混亂이 마구 뒤섞인 悲鳴이기도 했다.

그것은 절망과 혼란이 마구 뒤섞인 비명이기도 했다.

それは絶望と混乱が激しく混ざった悲鳴でもあった。

거기에는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울림이 있어^ㄴ다.

거기에는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울림이 있었다.

거기에는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뒤흔드는 울림이 있었다.

そこには聞く人みんなの心を揺さぶる響きがあった。

경찰관이 달려와 그를 붙잡으려 해^ㄴ다.

警察官이 달려와 그를 붙잡으려 했다.

경찰관이 달려와 그를 붙잡으려 했다.

警察官が走り、彼を捕まえようとした。

“그를 건드리지 마!”

“그를 건드리지 마!”

“그를 건드리지 마!”

「彼に触れないでください！」

유가와가 경찰을 가로막고 섰다.

有價와假 警察을 가로막고 섰다.

유가와가 경찰을 가로막고 섰다.

湯川が警察を遮って立った。

“울기라도 하도록 놔두게.

“울기라도 하도록 놔두게.

“울기라도 하도록 놔두게.

「泣きでもできるようにしておくように。

그리고 유가는 이시가미의 뒤에서 그의 양어깨에 손을 얹어ㄴ다.

그리고 有價와는 이時加味の 뒤에서 그의 兩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유가는 이시가미의 뒤에서 그의 양어깨에 손을 얹었다.

そして湯川は石神の後ろから彼の両肩に手をのせた。

이시가미의 절규가 계속돼ㄴ다.

이時加味の 絶叫가 繼續됐다.

이시가미의 절규가 계속됐다.

石神の絶叫が続いた。

그 모습이 구사나기에게는 마치 혼을 토해 내는 것처럼 보여ㄴ다.

그 모습이 驅使나기에게는 마치 魂을 吐해 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구사나기에게는 마치 혼을 토해 내는 것처럼 보였다。

その姿が草薙にはまるで魂を吐き出すように見えた。

Information

Information

